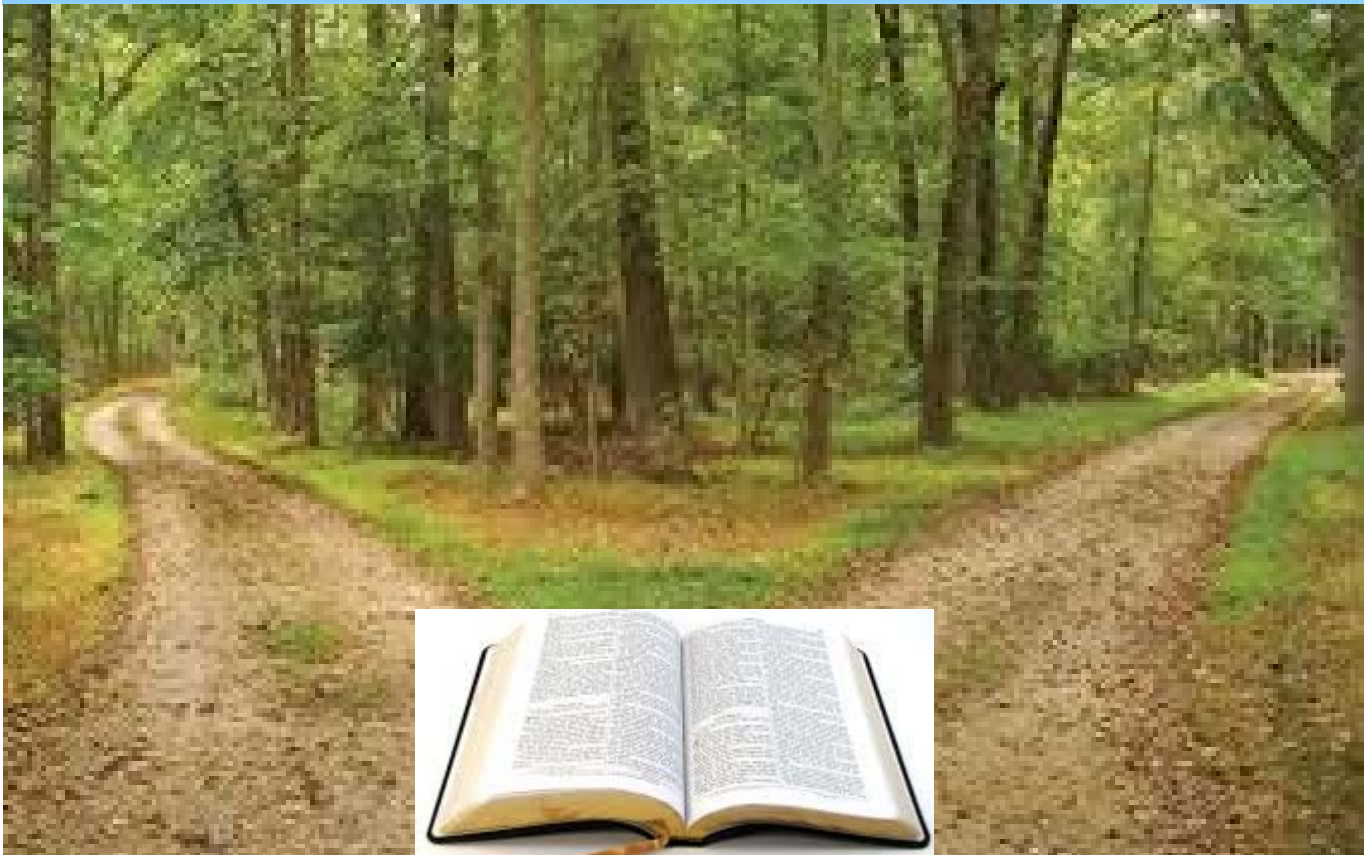


마태 복음 해설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BY THE REV. WILLIAM BRUCE

윌리엄 브루스 지음 / 배제형 옮김
도서 출판 벽옥

성경 해설

마태복음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BY
THE REV. WILLIAM BRUCE

윌리엄 부르스 지음
배제형 옮김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by the Rev. William Bruce

James Speirs

36 Bloomsbury Street, London 1866

차례

서문-----	11
제1장-----	14
제2장-----	36
제3장-----	58
제4장-----	75
제5장-----	102
제6장-----	157
제7장-----	199
제8장-----	219
제9장-----	244
제10장-----	271
제11장-----	305
제12장-----	321
제13장-----	350
제14장-----	371
제15장-----	389
제16장-----	401
제17장-----	415
제18장-----	429
제19장-----	451
제20장-----	469
제21장-----	488
제22장-----	514
제23장-----	534
제24장-----	554
제25장-----	601
제26장-----	634
제27장-----	683
제28장-----	719

“좋은 열매를 얻으려거든
좋은 나무를 길러라”

마태12:33

서 문

우리의 주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는 신성한 말씀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흥미롭고 교훈적인 부분이다. 이 책은 지상의 사건 중 가장 위대한 사건, 하느님께서 육으로 나타내 보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구속의 신비를 펼쳐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혼(soul)은 불멸한다는 것, 미래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빛을 드리우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와 얼마나 가깝게 접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그 곳과 언제나 연결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양쪽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영적 지혜의 가장 순수한 교훈과 우리의 복되시는 주님의 가르침과 생애로 본모기를 보여 가장 높은 실제의 선함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그분의 고통받고 죽으심에서 우리는 참고 견딤과 용서하는 사랑의 가장 완전한 모형을 가지게 되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하심에서 우리는 영적인 삶과 영원한 영광이라는 가장 높은 소망을 지니게 된다.

그렇다고 구약성서의 말씀들이 위와 같은 가장 중요한 주제들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구약 성서는 주님이 오신다고 수없이 예보했고 그 예보 중 일부는 노골적이기도 했다. 미래의 사건을 말할 때 늘 그러하듯, 아직도 구약성서의 강림에 대한 예보는 칙칙한 유리를 통해 보는 수준일 뿐이다. 그분이 지상에 오시어 건설하시겠다는 왕국에 관련되는 주제 역시 아직도 흐릿하게 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신약 성서의 빛이 구약 성서의 교리나 예견에 드리워 질 때 구약의 모든 주제들은 제각기 적절하게 구분이 이루어져 모습을 갖추게 되고 구약 성서 속의 높은 취지가 명백하고 충분하게 이해된다.

그러므로 구, 신약이라는 두 성서는 서로 결합되어 있어 구원에 관한 위대한 지식, 즉 주님께서 무한한 자비로 역사하시는 것, 그분의 모든 백성에게 지금도 값없이 제공하시는 구원에 관한 지식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의 총체요 본질이고, 구원의 필수적인 수단이요 조건이다. 이런 사항들이 이 책의 글자 하나 하나에 확실히 박혀서 우리 앞에 놓여지고 있다.

그러나 글자 속에는 영적 의미가 있다. 이 영적 의미는 말씀 속의 모든 진리를 드높이면서

구원의 모든 수단들을 한층 더 보강한다. 하느님께서 그분의 일 안에 쌓아두시듯 그분의 말씀 안에도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무한한 보물을 쌓아 두셨다. 때가 찰 때, 즉 인간이 거룩한 책의 영적 의미를 지각해서 인정할 정도로 자질이 갖추어지는 때, 거룩한 책의 봉인이 떼어지는 때 만민은 계시가 있던 때로부터 그 책의 깊은 곳에 감추여 놓였던 경이로움을 “와서 보게” 될 것이다.

과거 말씀은 글자적 의미에 국한되어 이해되어 왔다. 물론 말씀 속에 영적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도 널리 인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영적 의미를 밝혀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었지만 그 성과는 대단히 미흡했다. 비록 영적 의미가 밝혀지기에 때가 이르다 해도 어쨌든 말씀 속에 내적 의미가 존재한다는 믿음만큼은 계속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해 볼만하다. 글자적 의미는 주님의 첫 강림의 교회가 요구하는 것에 잘 어울렸다. 영적 의미는 그분의 두 번째 강림의 교회가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분의 첫 오심은 연약함과 희미함 그대로였다. 그분의 둘째 오심은 권능과 위대한 영광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육체 안에 오신 주님에 관한 지식은 말씀의 글자적 의미로부터 획득하지만, 영 안에 오시는 주님에 관한 지식은 말씀의 영적 의미로부터 얻는다. 주님의 둘째 오심은 인물(person)로 오시는게 아니라 권능(power)으로 오신다. 이 둘째 강림은 이미 있었었다. 이를 계시했던 말씀들의 영적 의미도 알려져 있어 이제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사건과 계시는 서로에게 관계되기 때문이다.

거룩한 말씀의 내적 의미는 두 개의 큰 주제, 즉 주님의 영화하심(glorification)과 인간의 거듭남(regeneration)을 밝히는데 사용된다. 이 두 가지 일은 원인과 결과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주님의 영화하심은 인간 거듭남의 근원이요 모형이다. 인간이 거듭나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영화하셨기 때문이다. 영화하심을 수단으로 주님은 구세주가 되셨다. 거듭남을 수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영화하심과 거듭남은 본성 측면에서 똑같다. 단지 수준이 다를 뿐이다. 영화하심으로 주님은 그분의 인성을 신성으로 만드셨다. 거듭남을 수단으로 그분은 인간을 영적으로 만든다. 이 두 가지 일은 육을 입으신 사건의 시작과 끝이고 거룩한 말씀의 속 뜻을 이끌어 가는 주제들이다. 속 뜻 중에서 가장 깊은 의미 또는 천적 수준의 의미는 주님의 영화하심을 취급하고, 내적 의미 또는 영적 수준의 의미는 인간의 거듭남을 다룬다. 거듭남에 관한 주제는 개인적으로 흥미를 갖게 되는 부분인고로 영적 수준의 의미는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고 납득하는 범주에 있어

더욱 우리의 시선을 끄는 바 우리를 계발시키는데 대단히 유용하다.

말씀의 속 뜻에서 취급되는 또 다른 주제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교회 또는 종교적 처방(religious dispensation)에 관한 것이다. 이것의 진보와 퇴보는 “내적인 역사성” 또는 “대략적인” 의미를 형성하는데 속 뜻 중에서 글자적 의미에 가장 가깝다.

말씀을 설명할 때 그 구절 또는 문단이 주님이나 인간, 또는 교회, 어디에 관계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매우 유용한데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노라면 독자들은 또 다른 자기 발전을 위한 응용을 찾아낼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그들 사이에 상응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의 영적 해석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 해석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영적 의미가 글자적 의미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결코 없다. 물론 말씀의 어떤 부분은 글자대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설사 그 글자에 영적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들에 의해 믿어지고 존경받기는 글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는 동등해야 한다. 모든 교리는 말씀의 글자적 의미로부터 끌어내진다. 그리고 모든 영적 진리는 글자적 의미를 그 진리의 필수적인 기초로 삼아 그 안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첨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혜로 충만된 거룩한 말씀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궁핍을 채우는데 충분한 바 우리는 성심으로 말씀에 다가가서 가르침을 잘 들으려 준비된 영혼을 지니고 빛 자체이신 그분을 찾아야 하리라. 그런 준비된 심정 상태라면 주님은 각자의 영적 상태에 가장 적합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영원한 복지를 위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 거룩한 페이지로부터 끌어내 주시리라.

1

구약 성서는 하늘과 땅의 족보로 시작하고, 신약 성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다. 이 창조자도 그분 스스로에서 근원된 본성인 탄생을 수단으로 육을 입으셨다. 다시 말해 인간을 만드시는 창조자가 자신을 인간으로 만드셨던 것이고, 계획한 바 대로의 목적 달성에 실패된 인간 본성을 입으셨던 것이다. 세상은 하느님으로부터 있어졌으므로 세상이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되, 인간을 통해 되돌아오도록 고안되어져 있다. 그런 이유는 세상은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이고, 인간의 영적인 영원한 행복만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세상(우주 자체)을 창조하신 것은 불멸하는 존재들의 천국을 인류로부터 형성하시기 위한 것 외의 다른 목적은 우리로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불멸의 존재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각 분량대로 나누어(impart) 주시기 위해서였다. 인간의 타락은 이러한 유익한 목적이 좌절되도록 위협했다. 대 이변만이 이를 막을 수 있었고, 이 파멸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수리될 수 있었다. 인간성 속에서 그분은 인간 스스로 상실해 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떠맡으셨다. 주님의 인성이 승천하심에서 창조는 그분이 원래 해 놓으셨던대로 복귀되었다. 창조자와 창조된 자 사이의 연결 고리는 인간의 회복자에 의해 공급되는 것, 그 이상이었다. 신성한 인성을 수단으로 하느님은 그분의 창조를 연결하셨고, 여타 다른 세계와도 연결하셨다. 새롭고 생명 있는 방법, 즉 육을 통하여 인간이 그분께 접근 되도록, 그분이 인간에게 접근 되도록 해 놓으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육을 입으심은 새 창조의 시작이었다. 따라서 예수는 하느님의 창조의 시작이라 불리운다, 다시 말해 모든 창조물의 첫 탄생이시다. 예수는 “새 피조물”이 되는 이들에게 있는 새로운 영적 창조의 시작이시다. 이분은 첫 탄생이신 바, 이분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들로 이어지는 새 세대의 머리이시다. 주님은 두 번째의 아담, 즉 거듭나는 존재의 새롭고 끝없는 아버지이시다. 주님 안에서 불완전한 인간의 형상이 완전해져 인간의 본보기가 되셨다.

사실 이 영적인 창조는 창세기의 첫 대목에서 묘사되고 있다. 이 창조는 창조자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고적 인간을 만든 창조이다. 신성 속의 이 형상이 인간성을 구성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는 그분의 도덕적 완전함에 접근하는 만큼에서 진실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 형상(image)이 타락에 의해 상실되었는 바, 창조자는 육을 입으심에 의해 그것을 회복시켜 주려 오셨다. 이 사건은 평화의 복음에 있는 줄거리를 형성하는 초자연적인 영광의 사건이다. 이 복음은 구세주의 탄생, 만백성에게 있게 될 큰 기쁨을 널리 알림으로 시작된다.

1-17.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책이다.” 우선 이는 단순히 예수의 선조를 열거한 그 이상의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것과,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역사성 보다 더 높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글자적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나, 글자의 역사적 증명을 명확히 해보려 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글자적 증명에 관하여는 수많은 연구자들의 논평이나 책들이 있다. 저자는 성서의 거룩한 저자들의 일관성이나 책 속의 진리에 하등의 의심을 갖지 않는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속의 족보가 기록된 시대나 그 주변 여건에 관한 지식에 대해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눈에 나타나는 모순이나 불일치에 대한 오직 하나의 원인일 따름이다. 이런 사항 중 일부는 그 사항에 있는 영적 의미를 취급하는 곳에서 간혹 살필 기회를 가지리라 본다.

주님의 족보는 족보의 자연적 차원 보다는, 더 높은 차원에 우리의 시선이 끌리게 하고 있다. 이 족보는 주님의 육을 입으심과 영화 하심 속의 크나큰 신비에 관련된 신성과 거룩한 진리들을 탐사해 볼 수 있게 하는 영감된 계시이다. 더불어 우리의 거듭남도 탐사하게 해준다. 천국, 말씀의 자연적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그 곳, 오로지 순수하게 영적인 언어로 쓰여진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순수하게 영적인 의미로만 말씀이 이해되는 그 곳에서, 본문의 이름들은 순수하게 영적인 진리들로 대체되어 있어, 각 이름들은 따로 따로 구분되어 빛을 내는 사상이 되어 천사들의 마음을 탐사한다. 자연계에서 신성과 영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들은 영계에서 보다 훨씬 더 일반적이고 넓기는 하지만 그 반면 더욱 더 희미하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긴 대열의 이름에 관해서도 몇 가지의 중심 되는 생각을 잡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성경의 영적 의미에서, 자연적인 출생은 영적인 출생들을 의미하고, 자연적인 발생은 영적인 발생을 뜻한다.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는 비슷함이 정확하게 존재한다. 위의 둘에 대해서는 공통된 지각 작용(perception)이 있다. 우리 모두 임신과 출생이라는 언어는 육체와 마음 양쪽에 사용하는 말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애정과 생각은 의지와

이해성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아들과 딸은 인간 부부에 따른 산물이라고 말한다. 그런고로 전자나 후자나 공히 계속적인 세대가 있기 마련이다. 말씀의 영적 의미에 관련해서도 출생과 세대라는 것이 존재한다. 주님의 족보는 신성한 애정과 생각, 바뀌 말해 보면, 그분 안에 있게 된 신성한 선과 진리의 계속적인 임신과 출생들을 취급하고 있다. 인간이 마침내 신성이 된다면, 그것은 인간 안에서 신성이 계속 출생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주님의 영화 하심은 인간 거듭남의 예증이 되는 바, 인간의 거듭남에서 그분의 형상(image)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거듭남은 출생 때에 시작해서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영원히 계속된다. 주님의 영화 하심(Glorification)은 그분의 탄생에서 시작되어 부활과 승천에서 완성되었다. 이제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을 추적해 보기로 하자.

주님께서는 인생 중 초기 시절을 거듭남이라는 영적 일을 준비하는 데에 사용하신다. 이 준비가 없을 경우, 실제의 거듭남인 성인 시절에서의 거듭남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덕이 있는 총명한 사람다움은 유아기,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의 교육 없이는 힘든 것과 같다. 이런 일들이 원리라는 씨눈을 이식되게 하여 거듭나는 영혼에게 새 삶으로 대체되는 상태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런 것들이 구원을 위해 아껴 두신 것(remnant)으로 말씀에서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고, 이 아껴 두신 것을 통하여 구원이 있게 된다. (이사야 1:9, 10:20 참조) 어떤 개인 속에 아껴 두신 거룩한 것(remnant)은 시효가 만료되는 교회 안에서도 틀림없이 보존되어져 있어 새로운 교회의 핵을 형성한다. (로마서 9:27, 11:5 참조) 마찬가지로 거룩한 원리 중 아껴 두신 것은 타락된 인간의 자녀들 속의 마음에도 보존되고는 있어 새로운 상태, 거듭나는 상태의 시작을 형성한다. “아껴 두신 것들(remains)이란 인간 내면에 주님께서 저장해 놓으신 선과 진리이다. 이를 수단으로 각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가 유입(influx)되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한다.” 인간이 위의 아껴 두신 것을 획득하는 것은, “첫 유아기로부터 첫 소년기까지 주님께 의해 천국을 소개받음으로 이루어진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각 사람은 천적 천사들 사이에 있으면서 순진의 상태에서 보존되어진다. 그리고 소년기가 시작될 때, 점차 이 순진의 상태를 벗어 간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상호적 이타애의 상태에 보존되고, 청년기에 이런 상태에 관한 실습도 하게 된다. 이 때 그는 영적 천사들 사이에 있게 된다. 그러나 그가 아직 진리를 획득하지 못했다면, 위 두 단계에서 획득했던 순진과 이타애에 속하는 좋은 것들이 아직은 어떤 품질이라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선에 품질을 주기 때문이고, 선은

진리에 실체를 주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청년기로 부터서는 훈육(instruction)을 수단으로 진리가 붙어 넣어진다. 특히 자기 고유의 생각과 확신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각 사람은 최말단 천국의 천사들 사이에 있게 된다. “세 가지 종류의 선한 것들이 아껴두신 것들(remains)로 의미되어 지는데 그것은 유아의 선한 것, 무지의 선한 것, 총명의 선한 것들이다. 유아의 선한 것은 각 사람이 태어날 때 부터 훈육되고 뭔가를 알게 되는 시기 이전까지에서 각 사람에게 은근히 심어진다. 무지의 선한 것은 위의 단계에 이어지는 시기, 즉 훈육되고, 뭔가를 알기 시작하는 동안 은근히 심어진다.

총명의 선한 것은 각 사람이 선하고 진정한 것을 직접 반영(reflecting)하는 때, 즉 선하고 진정한 것을 실습할 때 은근히 심어진다. 대체로 유아의 선은 유아기로부터 열살 정도 까지에서, 무지의 선은 열살부터 이십 세 정도까지에서, 그러나 이십 세 이후부터 인간은 합리적인 추구로 선과 진리를 되 뒤겨 보는(반영)능력을 가지게 되어 자신을 위해 총명의 선을 포획하게 된다.”

인간 존재는 모든 천국을 통해 내려오기 때문에, 각 사람은 “그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능력을 획득해서 각기 머물러야 할 천국의 주민이 되기 위해 실지의 거듭남을 수단으로 자신을 준비시킨다. 이 준비 과정에서 그는 인간 영혼 안에 주님의 왕국을 구성하는 상태의 기초와 원리에 관한 씨눈을 획득한다. 우선 천적 천사들 사이에서 그는 천적 원리, 영적 천사들 사이에서 영적 원리, 말단 천국(자연적 천국)의 천사들 사이에서 자연적 원리, 즉 씹씹이에 해당하는 씨눈을 획득한다. 자연적 원리는 사랑과 이타애가 눈에 나타나 보이게 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뿌려진 씨들의 싹틈이 거듭남의 시작을 형성해서 그 성장으로 진보를 이루고 결실을 맺음으로 완성된다. 씨가 그것의 생명력이 파괴되지 않고 땅 속에 오랜 기간 묻혀 있을 수 있듯이, 천국적 원리라는 씨들도 마음 속에서 발달되지 않은 채 오래 머물러 있을런지 모른다. 그럼에도 신성한 선함을 수단으로 그 씨들은 미래의 사용을 위해 보존되어 진다. 지상에 있는 씨들이 봄철에 태양의 영향을 받게 될 때 싹이 터기 시작하듯, 주님 왕국 속의 씨들도 정의의 태양의 영향을 받게 될 때, 다시 말해 인간이 자기 생명의 근원, 구원자에게 신성한 사랑과 빛의 광선을 자기 심정에 받고져 방향을 돌릴 때 천국적인 씨도 싹을 틔우게 된다. 신성한 자비와 은총은 위와 같은 복된 완성(consummate)을 위해 설비된 것 중 어느 하나도 미결 사항으로 남겨 두시지 않는다.

주님께서 영혼이 자기 존재를 갖는 첫 순간으로 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 가서 아마도 성년기에 도달할 때 쯤이면 인간으로 천국적 결혼에 들어 갈 수 있는 준비를 마무리 하신다.

하느님은 어느 측면에서 이든 예수를 종교상의 형제와 비슷한 조건에 놓이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필요성 때문에 주님은 육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야 했고, 인간의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영화 되셔야 함도 요구되었다. 그래서 그분은 유아기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합리적 창조물에 공통된 준비하는 시기(상태)를 통과하셔야 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상태를 전수 받아서 인간의 취득물을 만드셔야만 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그것은 모든 것을 취득하시되 더 큰 충만함과 완전한 취득이 있었다는 것 뿐이다.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누가복음 2:52). 이 구절만 살펴보아도 그분에게는 다른 사람들 같이 아껴 두신 것들(remains)인 “세 겹의 선들”을 획득하셨음을 알게 해준다. 그분이 획득한 아껴 두신 것들이란 말씀에서 온 순수한 선과 진리들이었다. 사실 이것들도 신성 자체, 즉 신성한 천적인 것, 신성한 영적인 것, 신성한 자연적인 것들이었다.

위 세 겹의 선들을 표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주님의 조상들도 십사 대를 한 그룹으로 해서 세 그룹으로 나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으며 유다는 라말에게서 베레스와 제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람을, 람은 암미나답을,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았으며 보아즈는 룯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세대는 천적 수준의 아껴두신 것들이고, 다윗으로 시작되는 세대는 영적인 수준의 아껴두신 것들을, 바빌론으로 끌려간 다음의 세대는 자연적인 수준의 아껴두신 것들이다. 14대씩 세 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각 그룹이 표현하는 아껴두신 것들(remains)은 가장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 그 이유가 7이란 숫자는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숫자인 바, 이 숫자가 두 배가 되는 것은 가장 거룩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 복음서 기자는 세 그룹이 각기 14대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몇 명의 인물들이 이 세대에서 빠져 있다는 것과, 다윗의 경우는 두 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된 의견이다. 그래서 일부 성경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주님의 선조들 중 일부가 생략되어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뉜 것은 기억하기 쉽도록 할 목적으로 마태가 고안해 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 책의 이 부분은 영감이 없는 것, 또는 신성이

함유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일까?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위의 주석가의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다. 성경의 글자 형태는 글자 자체만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법칙보다 더 높은 법칙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 글자는 그 속에 영적 진리를 표현하고 구체화 할 목적에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그룹의 세대가 14대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진실로 옳바르다. 그런고로 14대씩 세 번 거론되어 위의 중요한 진리가 표현 되도록 요구받아 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선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족보의 첫 시리즈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세대의 기록은 실제와 일치하나, 다른 두 시리즈는 꼭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각 시리즈는 거듭남에 관련되어 상응되는 사실들을 시사해 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천적 사항들, 그리고 천적 인간에게서만이 내용과 형식, 또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사이가 정확한 상응을 이루고 있다. 이는 주님께서 영화 하시기 전 주님 자신에게서조차도 진정한 이치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 마태의 족보는 관련을 맺고 있다. 그분은 실제에 속하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진리까지 획득하셨다. 그러나 가상적(눈에 보여지는) 진리들은 아껴 두셔야 할 진리로서 음미되어 질 수는 없었고, 단지 거쳐가시기만 하셨다. 마치 족보에 어떤 인물이 생략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주님의 선조들 전체로부터 $3 \times 14 = 42$ 라는 숫자가 취해져 있듯이, 거룩한 것은 전체 시리즈들로부터 추출되어져 있다. 눈에 보여지는 진리들 속에 포함된 순수한 진리들은 어찌됐든 보존되어 영화 하시는 과정에서 열매 맺어 졌다. 이는 마치 마태에 의해서는 생략되었던 어떤 인물들이 누가의 족보 기록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은 것은 아껴 두셔야 할 것들을 획득하시려는 신성한 작업 때문이었다. 그 이유가 “30이란 아껴 둘 것이 가득해 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인간은 아껴 두어야 할 것이 충분히 저장될 때까지 영적 전투에 임해서 거듭나야 가는 길에 진입할 수 없다. 그런고로 레위인은 서른 살이 되기까지 성소에서 일을 해선 안된다고 명령되어져 있었다.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 분명 해지는 것은, 주님께서 서른 살이 되실 때까지 왜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가 그분도 서른 살이 되어서야 아껴두신 것들이 충만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 스스로 획득해 가셨던 아껴 두실 것들은 완전하고 신성했던바, 이를 수단으로 그분은 인간 본체를 신성에 하나되게 하셔서 인간 자체도 신성으로 만드셨다.

위의 사항은 주님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진리이다. 위 족보는 글자가 의도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의도된 구절들임은 예수가 그분의 선조들로서 글자에서 주어지는 이름들의 신실한 후손이라고 실지로 입증은 안되는 사실에서도 보여질지 모른다. 즉 이 족보가 주님께 육을 입힌 마리아의 계보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도 아닌 요셉의 계보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의 족보를 마리아의 남편의 계보에서 추적해 가는 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 족보가 남성을 따라 추적되는 이유는, 남자는 지성, 그리고 그 지성에 속해 있는 진리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 반면 여성은 의지, 그리고 의지에 포함되어 있는 선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구별되는 모든 것, 즉 영적인 모든 세대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지성과 진리에 기대고 있다. 선 그 자체는 하나요 똑 같다. 그러나 진리들은 셀수 없이 많고 제각기 다르며 다양하다. 고로 서로간의 차이, 등차, 식별, 구별되는 것, 즉 개체와 세대들, 한 마디로 복합적인 모든 것은 진리를 수단으로 모양을 갖게 된다. 교회 속의 지적 원리들이 바로 이런 것을 생산해 준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바로 교회 속의 지적 원리를 표현 한다. 그러므로 그가 비록 예수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주님의 족보가 요셉의 계보로 추적되고 있는 것은 요셉이 표현하는 원리의 참된 것이 표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

위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하는 본문의 특별한 표현이 있다. 족보가 각 개인들에 관해서 말하되 아버지가 낳는다(begot)고 하는 표현을 쓰고, 어머니 쪽이 낳는다(bear)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양쪽 단어 모두는 각 인물이 출생(birth)했다는 것으로 이해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영감이 있는 언어는 단어 자체에서도 때로는 의미가 있어, 글자의 표현 방법 역시 중요한데, 그 이유는 글자가 영적 의미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다시 생각할 것은, 마음 안에 아껴 두실 것들을 이식함은 출생(birth)이라기 보다는 아이를 낳는(begot) 것에 해당되고, 성장과 결실을 맺는 것이라기 보다는 수태나 수정(insemination)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 본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해서 이를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출생(birth)은 마음에 이미 받았던 원리들을 바깥쪽 삶(행동)으로 가져다 놓는 것이다. 이럴 때만이 각 원리들은 진실로 존재하게 된다. 그 이유는 어떤 영적 원리도 거룩한 삶이라는 행동으로 “세상에 태어나기, birth into the world” 전에는 실지로 영원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 안에 쌓여진 아껴두신 것들(remains)은 선과 진리들이 "수태되고 임신된, begotten and

conceived" 것이요, 이 후 실지의 거듭남으로 "열매 맺는다 brought forth".

누가 복음에 있는 족보와 마태 복음의 족보를 연결하여 생각해 보는 것도 아마 흥미가 없거나 무관한 듯 여겨지지는 않으리라 본다. 두 복음의 족보 사이에서 중요하게 다른 것은 세 가지 이다. 마태 복음은 주님의 족보를 위 선조에서 아래 선조 쪽으로 추적하나, 누가의 경우는 방향이 위 쪽으로 이다. 마태는 족보를 추적하되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로 끝냈으나, 누가의 경우는 예수로부터 아담, 그리고 하느님까지 추적하고 있다. 그리고 두 족보는 서로가 다르다.

첫 차이점; 주님의 영화 하심은 인간의 거듭남처럼, 위 쪽을 향한 발달과 아래 쪽을 향한 발달, 두 가지를 지니고 있다. 유아로부터 성년까지의 발달은 아래 쪽을 향한 발달이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인간은 맨 처음 천적 상태에서, 그리고 영적 상태를 거쳐 자연적 상태에서 마무리된다. 다시 말해서 천적 수준에서 아껴두신 것들이 이식되면 천적 상태의 기초가 형성되면서 기타 다른 것들이 이 뒤를 이어 저장되어 간다. 그러나 성년기에 이르러 실지의 거듭남이 개시 될 때, 발달(progression)은 위 쪽, 즉 자연적 상태에서 영적 상태로, 그리고 영적 상태에서 천적 상태로 향해 간다. 실지의 거듭남을 수단으로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기초되는 상태들은 그 상태들이 이전에 형성했던 쪽의 방향으로 발달되어 진다. 이 두 겹의 질서가 두 족보에서 기술되고 있다. 마태 복음의 족보는 높은데서 낮은 데로 향하는 아래 쪽으로의 발달을 기술하고, 누가 복음의 족보는 낮은데서 높은 곳으로 향하는 위 쪽으로의 발달을 기술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특별히 주님의 경우에 적합한 발달로, 그분의 영화 하심에 빼어나게 관련되고 있다.

두 번째 차이점; 마태 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가는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고, 누가 복음은 올라가는 시리즈로 아담, 그리고 하느님에서 마감 짓고 있다. 아껴진 것들은 인간 의식에 와 닿는 만큼에서 자연적 마음 안에 이식되는데, 비록 그것들이 가장 깊숙한 부분, 즉 "자연적 원리의 내면 속의 내용물" 안에 놓여질지라도 각자의 의식 세계에 와 닿는 만큼에서이다. 마음 중 최말단 수준, 또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이식되어 쌓여지는 것들(remains)이 마태 복음의 족보에서 취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바, 그 중 한 가지는, 자연적 마음은 유전적인 악이 자리잡고 있고, 이 마음을 수단으로 유전적인 악은 그 인간을 점유한다는 것, 그리고 선과 진리에 관해 아껴두신 것들도 자연적 마음 안에 충만 되게 축적되지 않으면 개혁

(reformation)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자연적 마음은 최말단인 고로 이 마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마음인 영적, 천적 마음의 기초이다. 따라서 가장 수준 낮은 마음이 거듭날 때만이 더 높은 수준의 마음도 열리어 완전해 진다. 최말단 그리고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자연적 마음 자체도 세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질서의 법칙인데, 모든 계획적인 수준들은 가장 낮은 수준 안에서 거의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자연적 마음이 세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선과 진리에 관해 아껴두신 것들도 마찬가지로 받아 들여 진다.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모든 선과 진리는 모든 천국들을 통하여 내려와 인간 마음 중에서 서로가 상응되는 수준을 통과한다. 그리고 자연적 마음 안에서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내려온 선과 진리들이 일시에 존재하게 된다. 마치 말씀 안에서 밝혀지는 진리 속에 있는 보다 높은 것들이 글자적 의미에 포함되어 안주하고 있는 것과 같다. 자연적 마음, 또는 마음의 수준이 아브라함으로 개시되는 교회라는 처방 (dispensation)을 수단으로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해 온 교회의 모든 처방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의 보편적 교회 속에 각기 다르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가장 오래된 교회가 천적 교회이고, 그 다음으로 오래된 것이 영적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라는 자연적 교회에 해당된다. 이스라엘 교회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개시되었다. 그러나 족보에서 이스라엘 교회라는 처방 자체도 세 시기들로 나뉘고 있는 바, 이를 우리는 시리즈 순서대로 천적, 영적, 자연적이라 부른다. 그 이유가 최말단으로 보다 높은 수준들의 공통 기초인 자연적 마음도 그 자체 세 수준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인생의 초기에서, 아껴 두실 것들이 자연적 마음에 쌓여지는 동안 영적 마음에 있게 되는 보다 높은 수준들은 미발달되고 있다.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들은 교회의 처방 중 고대와 최고대 (the ancient and the most ancient)에 상응되는 바, 마태복음의 족보,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는 자연적 마음에 아껴 두실 것들이 축적되고 있는 것을 묘사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실지의 거듭남은 위쪽으로, 그리고 안쪽으로 향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거듭남은 자연적 수준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천적인 마음의 수준까지 열려지게 하여 완전해 진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위와 같은 위쪽에서의 진보를 묘사해서 아브라함-노아-아담-결국은 모든 것의 근원인 하느님에게 까지의 진보를 묘사했다. 주님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주 의미심장하다. 그 이유가 주님은 인성을 영적이고 천적인 수준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신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하느님께로부

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셨다. 그분은 그분이 계셨던 곳, 모든 천국들 보다 훨씬 위에 있는 곳, 어느 인간도 접근 할 수 없는 빛으로 승강하셨다. 한마디로, 주님은 인간 어머니에게서 출생(birth)하심으로 인간 본성을 취하신 후, 그 인성을 신성으로 만드셨다는 말이다.

두 족보에 관련된 세 번째 차이점은, 족보 속의 이름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이름들의 경우, 누가복음에서는 거론되었으나 마태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살핀 바 있다. 여기서 거론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항이다. 즉 다윗으로부터 요셉까지의 족보에서 두 복음서 기자는 주님의 족보를 두 개의 다른 계보에서 추적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은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라 하고, 누가복음은 요셉이 엘리(Heli)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다. 이런 상이한 점은 다음과 같은데서 비롯되고 있다. 모세의 율법서에 의하면, 남편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그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척은 과부된 여자와 결혼해서 “형제”에게 씨를 잇게 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 예로서, 만일 요셉의 어머니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첫 남편은 요셉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고 둘째 남편은 실지의 아버지가 되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두 아버지의 이름이 족보에서 각기 거론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 차이점은 다윗으로부터 아래 쪽을 향하는 계보에 변화를 주었을지 모른다.

위와 같은 모세의 율법 사항까지도 주님 자신의 경우에는 최말단까지 충만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분은 법적인 아버지와 실지의 아버지를 가지셨다. 그분의 법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요, 실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 또한 그분의 족보는 법적 아버지를 따라 추적되어 이는 유대인의 관습과 전적으로 일치하면서도 영적 의미의 기초가 되는 말씀의 글자 의미를 위해서 어떤 의심도 갖지 않게 해주고 있다.

어찌됐든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영적 의미이다. 두 복음에서 각기 추적된 서로 다른 계보들은 영적으로 이해해 보면, 각기 거듭남과 영화 하심을 묘사하는 바, 아래쪽에서의 발달과 위쪽에서의 발달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새 삶에 진입한 거듭나는 사람은 애당초 그가 갔던 길로 해서 되돌아오지 않는다. 각자의 영적 진보의 외적 측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즉 인간의 첫 순종은 진리로부터 있게 되지만, 두 번째의 순종은 선으로부터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첫 순종은 교리로 부터이나 둘째 단계의 순종은 사랑으로부터이라는 말이다. 이런 정반대(inversion) 되는 상태가 거듭나는 삶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두 번째의 상태는 두 번째의 진보와도 같이 첫 상태의 위치가 반대되어 그 성격이 달라진다. 거듭남의 회전은 그 자체 원위치에 온다. 그러나 되돌아 온 상태나 위치는 정확히 같은 계보도 아니고,

정확히 똑같은 요점을 지니지도 않는다. 이런 사항은 인간 측면에서도 진정일 뿐 아니라, 주님에게 있어서는 더욱 진리이다. 비록 그분도 인간이 거듭나듯 영화 하셨지만, 그분의 영화 하심은 어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거듭남을 초월해 군림하셨다. 창피함(humiliation)이라는 상태와 영광스러움(glorification)이라는 상태는 인간의 경우보다 그분의 경우는 더 큰 차이가 있다. 창피함이라는 상태 안에는 거듭남을 준비하는 단계에 속하는 모든 각각의 상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 상태 안에는 노예와 같은 신분 또는, 피보호자인 학생 신분에 비교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아들로써 겪으신 것들을 수단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 당시 법 밑에서 한 여인을 통해 만들어진 첫 상태 속에서 그분은 법에 복종하는 한 개인으로 그 법에 순종하셨다. 그러나, 두 번째 상태, 즉 승강하시는 상태에서 그분은 법에 의거 행동하셨다. 그 다음 영원한 정의와 질서에 속하는 법들, 다시 말하면 그분 스스로에 속하는 법, 즉 말씀에 의거 그분은 인성을 입으시어 영화 하셨는 바, 그 이유는 인류의 구원과 구속 때문이었다. 세상의 가장 큰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은 인간 어머니로부터 탄생을 수단으로 하느님이 육으로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요, 이제 아래에서 숙고해 간다.

18, 19.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가까이 왔을 때 그가 서 있는 장소는 거룩한 땅이므로 밭에서 신을 벗도록 주님께서 훈계하셨다. 이와 같이 기적의 입신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는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소리는 육적인 모든 느낌, 무가치한 생각들을 제거하도록 말하시고 계신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들도 가장 거룩한 땅 위에서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쪽으로 비껴서야 할 듯 싶다. 아마 자연의 정상적인 과정을 떠나서 있어야만 하리라. 그래야 이 위대한 광경, 불붙은 떨기나무에 대칭되는 틀을 보게 된다.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열정을 지닌 신성한 사랑이 살아버릴 수밖에 없는 약하디 약한 인간의 본성 안에서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었는가와, 인간이라는 비천한 성막으로부터 악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에 구속을 선포하실 수 있었는가 까지 우리는 알게 된다. 이 위대한 사건은 가장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야 하리라. 신성한 아버지와 인간 어머니로부터의 후손이신 한 분 외 어느 누구도 구속이 결과되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는 아기 예수의 신성한 부자관계(paternalty)를 기록하는데 신중했다. 여호와께서 육을 입으심은 구속을 위해 필요했다. 그러나 여호와로서의 예수를 믿는 신앙은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주님만이 신성한 인간 구세주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수 있다.

신성한 섭리의 인도 아래 마리아는 요셉에게 시집보내지기로 되어 있었다. 이런 섭리의 배열이 지닌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던 간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는 것, 그리고 요셉이 예수의 법적인 아버지로서 인식되도록 한 것, 이로 인해 주님의 혈통이 요셉의 족보를 통해 추적되도록 해놓으신 것, 이런 모두에 영적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의심치 않는다.

“은총을 가득히 받은 여인,” 마리아는 교회를 표현했다. 요셉도 이 표현을 그녀와 나누어 가지고 있다. 남편과 아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본다면 마리아는 선의 측면에서의 교회를, 요셉은 진리 측면에서의 교회를 표현했다. 아직 그들은 결혼 안했지만 약혼은 하고 있었다. 약혼(betrothing)은 내적 인간에서의 선과 진리의 결합을 표현하고 결혼(marriage)은 외적 인간에서의 선과 진리의 결합을 표현한다. 그런데 예수와 연결된 마리아와 요셉의 연결에는 특이한 뭔가가 있다. 그들은 예수에 관한 남편과 아내라는 통상적인 연결을 갖고 있지 않았다. 즉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아기 예수가 언급될 경우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관계는 인류에 내려온 교회의 처방과 비슷해왔다. 엄밀히 말해서 교회(the church)란 영혼(soul) 안에서 생명있는 종교를 구성하는 영적 원리들을 뜻하고, (교회에 관한) 처방(dispensation)이란 위 영적 원리들이 세상에서 외적으로 입게되는 교회조직이라는 형체를 뜻한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지만 처방은 다양해왔다.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한 개의 교회가 여러 처방들 속에서 체현되었는데 서로간에는 폭넓게 다르다. 크게 나누어 볼 때 지상에서는 아담교회-노아교회-이스라엘교회-기독교회가 존재해왔다. 위 각각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the church)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a church)에 담긴 것이다. 처방들이 사라져가도 교회는 남아있다. 만일 교회가 처방된 교회와 더불어 파괴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종교의 끝, 보편적인 파멸은 자초되고 말았을 것이다. 신성한 자비는 교회의 얼마 안되는 나머지를 아껴두셨다. 이 남겨두신 것들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만들어져 왔다. 종교의 생명있는 요소 중 남아있었던 것들이 교회요 여인이고 이 여인에게 약속이 근원적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부수리라는 것이다. 이 살아 있는 원리는 세세토록 내려오면서 보존되어왔고 동정녀, 두 번째 이브로 표현되어져 있다. 이들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것이다. 이 생명있는 교회를 구성하는 원리, 동정녀 마리아로 상징된 이 원리와 관련되어 요셉은 이 원리와 연결되는 바깥쪽 형체를 표현했다. 이 후의 교회는 표현적이었지만 지금은 실제적이 되어있

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교회는 동정녀, 신부였을 뿐이지만 지금은 아내가 되어있다. 요셉의 신부로서의 마리아는 위와 같은 교회의 상황을 표현한다. 주님께서 인간 개인이라는 차원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를 이루심, 인성 안에서 신성한 선과 진리가 결혼을 이룰 때까지 주님과 교회, 인간 마음 안에서 선과 진리의 진정한 결혼, 완성된 결혼은 존재할 수 없었다. 육을 입으신 때로부터 교회는 어린양의 신부와 아내 둘 다이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는 것, 그가 그녀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 게다가 그녀의 아들에 대한 보호자가 되어 있는 관계를 살필 때, 비록 교회의 교리가 아직 유아인 상태이면서도 옛 처방이 새로운 교회와 연결되는 아름다운 모형을 알게된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의 초기 생애를 제외하면 요셉에 관한 사항은 거의 읽지 못한다. 그는 주목받지 않게 무대 뒤로 슬며시 물러난 듯 보이고 있다. 마치 옛 처방은 그녀의 “사내아이”를 낳게 함으로 맡을 임무를 완성했다고 비쳐지게 해주고 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사랑 받은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돌보도록 지시하시어 “그 때로부터 이 제자는 자기 집에서 그녀를 돌보았다” (요한 19:27). 요한과 마리아의 관계는 남편이 아닌 아들의 관계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여인이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19:26).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가! 한편 이 줄거리 속에는 드높고 거룩한 의미가 한껏 담겨 있다. 요한은 이타애의 선을 표현하는 바, 이 품위가 기독교인의 특성을 나타낸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돌보도록 요한에게 위탁하실 때 그분께서는 위 광경의 상징을 수단으로 계승되는 모든 세대를 향해 이타애의 선이 있는 곳에 생명있는 교회가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마리아가 어머니의 자격으로 아들인 요한의 돌봄에 위탁되었는 바 요한은 요셉 쪽보다 주님 쪽을 더 표현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요 예수의 어머니로서 향유하는 거처할 집이나 보호를 요한에게서 제공받게 되었는 바, 실상 요한은 요셉과 예수 모두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셈이 된다.

위에서는 역사적 측면에 있는 내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제 영적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이미 말했지만 본문의 임신은 신성하고 거룩한 사건이요 세상을 구속함이 그 목적이다. 이는 주님을 구세주로서 맞이하는 이들에게 체험으로 실감하게된다. 최고 높은 측면에서 선과 진리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는 거듭나는 모든 이의 심정 안에 임신되어진다. 이것이

새 삶의 시작이다. 역사적 측면이라는 큰 규모나 한 인간 개체라는 작은 규모라해도 언제나 동일한 질서의 법칙이 적용된다. 영혼 안에서 출생(begotten)되는 생명있는 영적 원리들 모두는 신성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교회로부터 그 몸(body)을 갖게 된다. 생명의 영혼(soul)은 사랑이요 이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진리라는 몸, 이 진리를 수단으로 영혼은 옷을 입는데 이 옷은 교회로부터 파생된다. 천국에서 파생되는 영혼의 덮개로서 교회가 설비하는 이 몸은 제일 먼저 주님의 어머니 쪽에서 온 인성과 같다. 이 인성은 무르디 무르고 불완전하여 시련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피할 도리가 없다.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 출생한 구세주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시련과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서 죽어야 하고 다시 일어나야만 우리는 거듭남을 완성한다. 시험받고 고통받으신 주님의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고통받고 시험받는 것들이다. 시험받아진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진리이지만 이 진리는 신성한 상태에 있는 진리가 아니고 유한한 마음들이 받는 유한한 진리이다. 마치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이 불완전한 인성을 옷입고 있어 유한한 것과 같다. 이것이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인 바 복음서에 주님이 시험받고 고통받으실 때 이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선은 모든 시험을 넘어 존재한다. 이것은 거룩한 것, 하느님의 아들(the Son of God) 또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들이다. 우리에게도 이 사랑은 수준만 다를 뿐 같다. 우리는 영적 어머니인 교회로부터 파생되는 진리를 먼저 납득하게 되는데 이 진리는 외적이고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습격당하기 쉽고 죽음에 처하기 까지 하는데 반드시 죽어야만 하늘 아버지로 인해 우리 안에 임신된 생명이 일어서는 길을 터놓는다. 각 개인이라는 차원, 실제 응용에 놓인 의미로 볼 경우, 여인-동정녀란 심정 안에 있는 사랑이고, 그녀의 씨-아들은 믿음이다. 이 믿음은 뱀의 머리에 해당되는 악의 권세를 짓부순 믿음 즉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믿음이다.

19. 그런데 심정 안에서 잉태되는 생명있는 원리는 그것에 대해 의심하고 시험 받아지기 전에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더욱이 이해성이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것들이 요셉에게 있는 시련들이다. 마리아가 임신된 사실이 요셉을 시험당하게 했다는 말이다. 자기 약혼녀가 아이를 배었다는 것을 눈치채었을 때 그의 해결책은 그녀와 상종을 안하는 것이었다. 불성실한 신부로 여긴 요셉이 그녀를 잘 대해주겠노라고 의도한 행동은 파혼을 은밀히 추진하는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방법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래의 메시아, 거룩함, 세상의 구세주를 태 안에 담은 그 여자는 약혼자로부터 까지 간음했다는 의혹을

받아 가장 깊은 불명예라는 낙인을 받아야 하는 위협에까지 노출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은 아이를 다루는 하느님의 방법에 불과하다. 원래 사랑하는 자는 나무라시고 단련시키신다. 우리 안에 잉태된 그분의 진리들이 우리를 매질하고 단련시켜준다. 이 진리들은 우리 속 깊게 자리잡은 유전적으로 받은 썩은 것들을 들추어내는 바, 이로부터 의아심이 튀어나오고 진리를 수단으로 하는 영적 싸움은 필히 진행되어 악이 정복될 수 있다.

20. 시련을 허용하신 주님은 피할 수 있는 문도 열어 두신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어라. 그의 태 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인간의 지혜가 이에 대해 추측할 경우 아마 이 꿈은 그녀에 대한 의심이 짝 차기 전 이 메시지가 보내어져서 어떤 보증이 주어졌을 거라고... 그래서 그가 정신적 고뇌에서 해결책을 찾았을 것이라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물을 다루시는 한 가지 예를 발견한다. 그분은 사람이 보듯 보시지 않고 사람이 행하듯 하시지 않는다. 고통이 허용되고 치료가 되어야 하는 최적의 때를 그분은 아시고 있다. 그분께서 시험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해서일 뿐이다. 더욱이 우리가 참아낼 수 없는 시험에는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설비해두시고 있다. 피할 수 있는 문, 이는 희망에 속한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보증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요셉에게도 열려졌다. 이는 인간이라는 부류가 심히 무거운 시련을 맞아 싸울 때 열려지기도 한다.

이런 보증은 자고 있을 때 주어졌다. 꿈에서 실현된 것이다. 이 꿈은 천사들에 의해 영감되어졌다. 꿈에서 오는 것들이란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직접적인 지각이라는 대낮 같은 빛이 아니라 희미한 상태인 간접적인 납득이라는 황혼의 빛이다. 천사는 그에게 인사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윗은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한다.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란 주님의 진리로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해 자기에게 하도록 지시된 진리를 행함에서 오는 진리의 선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요셉이 이런 사람이다. 천사는 그에게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였기 때문이다. 자연적 측면에 있는 이해성이 생각할 때 이는 세상의 운행과 반대된다고 주장할 것은 지당한 이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천국을 통해 내적 경로를 따라 마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운행될 경우 영적 측면의 이해성은 하느님의 영이 심정 안에서 생산하신 것을 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당한 이치가 된다.

21. 더 나아가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치기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임신(conception)이란 지성 안에 원리를 받는 것이고, 출생(birth)이란 받은 원리가 생활로 결실을 맺는 것이다. 생활에 원리가 놓일 때 비로소 원리는 실지로 존재하게 된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게 될 때 요셉은 그에게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었다. 이해성은 알고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지에 소속된 것에 품질을 정해준다. 따라서 이 모든 사항들이 이름을 지움에 함축되어 있다. 아담이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 역시 태고적 상태의 사람은 거듭난 상태의 사람처럼 자기 속에든 애정들의 품질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목에 해당된다. 교회가 주님의 진정한 품성을 알고 인정한 다음 진정한 교리뿐만 아니라 생활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처럼 자기들 속의 진리를 실현해낼 때 그 교회는 주님께 그분의 이름을 드리게 된다. 그럼에도 본문의 이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교부된 가르침 모두 천국으로부터 왔다. 그 이름은 예수이다.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사랑되어야 할 이름이라고 천사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송되어야 한다. 아기가 예수로 불리게 된 이유는 천국에서 이미 선포되었듯이 지상에서도 되풀이 되어야 하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이름은 하느님 측면에서의 일과 목적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 측면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것은 구원이다. 죄는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어디서든 무질서와 비참함의 뿌리요 저주되는 것들이다. 위 구원에 비교될 수 있는 구원이 또 있을까? 죄로부터의 해방(구원)은 죄 있음 또는 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죄 그 자체를 포함해서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이밖에 더 약속해 주실게 또 있을까? 아마 그릇된 관념이 있다면 죄는 우리들로부터이고 벌은 하느님이 내리신다는 것, 따라서 하느님께서 벌을 면제해 주셔야만 죄인이 안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일 것이다. 하느님은 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다. 죄에 대한 벌은 죄 그 자체 안에 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같이 죄로부터 그 벌은 흘러 나간다. 따라서 죄로부터의 구원에 더 다른 방도는 없다. 벌을 면제하는 것이 요구되는 전부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세상에 오셔야 할 필요가 없었을는지 모른다. 그 이유는 그분은 자비 측면에서도 무한하신 바 지옥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그분의 창조물이 행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그분의 속성에서 발생하는 어떤 장애물도 거기에는 없게 된다. 하느님에 관해 신학적으로 계획된 인간들의 논리들은 죄인을 위한 대체물로 죄인에 대한 벌과 죄의식들 모두를 예수 위에 놓여지게 함으로 해서 그분의

자비와 정의가 재회하는 묘책을 발견해 놓았다. 이는 인간 자신들이 창조해낸 곤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묘한 학술적 고안일 뿐이다. 자비와 정의라는 신성한 특질은 아무렇게나 또는 다양하게는 결코 존재될 수 없다. 인간의 지혜가 제안한 어느 가공적인 수단들로는 결코 재회될 수 없다. 정당하지도 않은 질서로 어떻게 하느님의 정의가 만족시켜질 수 있단 말인가? 정의가 요구하는 것을 한쪽으로 제쳐놓았을 경우 무한한 자비가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해주지 못하는바, 역시 그들을 비참함에서 구해주실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위와 같은 구원을 위해서였다. 육을 입으시는 수단으로만 그분께서는 이 구원이 결과되게 하실 수 있었다.

이 구원은 주님의 백성에 국한해서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자면 즉 천사가 목자들에게 선포한 말,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누가 2:10)이라는 구절을 첨가해 보면 구원의 약속에는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내적 의미 또는 엄격히 제한시켜 생각할 경우 주님의 백성이란 국가(nations)들이라는 천적 수준과 구별되는 영적 수준의 사람들을 뜻한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이 창조된 상태인 천적 수준에서 타락한 영적 수준을 구하시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영적 생명인 진리와 선을 영접할 때, 또는 예수를 구원자 되시는 분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된다. 그런 이유로 예수는 사랑 자체로서의 주님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로서의 그분의 이름이다. 진리 자체로만 구원되는게 아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구원된다. 간단히 말해서 그분의 진리에 관한 지식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분의 백성이다. 이들이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그들은 죄에서 구원되어진다.

22, 23.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지고 있다. “이 모든 일로써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위 유명한 예언은 주님께서 동정녀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심으로 성취되었다. 위 예언에는 지극히 높은신분의 권능이 동정녀에게 임했다는 말은 없다. 그러나 이 사항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사실에 이미 함축되어있다. 이 사실 자체는 극히 중요하다. 이 사실이 없다면 구속이란 아예 거론 자체도 될 수 없었으리라. 인간이라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구속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인간 측면까지 포함해서 어느 인간과 아주 다르다는 것이 임신과정을

수단으로 생각하도록 되어있다. 어떤 이들은 예수가 여느 인간과 다른 것은 출생 때부터 유전적인 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그분의 다른 점은 신성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원리를 상속받으심으로 인성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분의 인성이 내적 인간 측면에서는 신성인 하느님으로부터 파생된 덕택에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로 실제로, 개인적으로 명백히 드러날 수 있었고 더불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되셨다.

우리의 본성을 입으심으로 하느님은 우리 가까이 오시어 구속자와 구원자가 되셨다. 이 가까이란 공간 속에 있는게 아니다. 공간차원일 경우 하느님의 현존은 언제나 똑같기 때문이다. 육을 입으심으로 하느님께서 타락한 인간 존재로서 우리 가까이, 우리 생각과 애정들 가까스로 오시어 구원하실 수 있게 되셨다. 이는 그분께서 육을 입으셨던 때와 똑같게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는 말은 아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움은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 감소된게 아니라 더욱 배가 되었다. 그 이유는 영화하심으로 주님은 인간 측면이 덜해진게 아니라 더 완전하게 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욱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 신성한 인성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더욱 친밀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수가 임마누엘이라고는 실지 불리워지지는 않았다.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될 경우 이는 그 대상의 품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언자가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고 말할 때 이는 예수가 임마누엘 하시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예수가 임마누엘로 불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 표현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이다. 육을 입으신데 대한 특유하게 중요하고 복된 사상은 여호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Jehovah God with us)를 만드신데 있다. 다시 말해 이는 단순히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인성 가운데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주님의 탄생으로 위 예언이 글자대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우리 각 개인 속에서도 영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 동정녀는 신실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순수한 애정을 상징한다. 이 애정을 통해 주님의 신성한 진리는 그 사람의 임마누엘로서 내려와 명백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심정 안에 있는 사랑을 수단으로 진리가 잉태되어 출산된다. 그러나 무엇이 각 개인의 경험 속에서 약속되고 이루어질까? 지식이 그 약속이고 삶은 그 약속의 성취이다.

아주 어린 시절 우리 속에서 형성된 상태들은 거둬들이고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야만 하는 상태에 관한 예언이다. 소망이 약속이고 소유함은 성취이다. 참으로 우리 안에서 이 약속은 실패될지도 모른다. 고결하고 종교적인 사람다움이 되겠다고 초년 시절 자신에게 약속한 많은 이들이 그것을 결코 성취 못하고 마는 경우도 많다. 사실 그 실패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던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과 함께 일해 간다면 그분께서 위 약속을 죽기 전에 가져다 주실 것이다.

24.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었다.” 잠이 들은 자연적 상태이나 깨어남은 영적 상태이다. 잠이 들은 외적 인간의 상태요, 깨어남은 내적 인간의 상태이다. 이런 잠에 관한 의미 때문에 우리의 외적 인간이 활동적일 경우 진짜 인간인 내적 인간은 잠이 든 것처럼 존재한다. 세상의 쾌락, 물질적 사업에 몰입되어 있으면 감각적인 애정과 생각들은 깨어 있지만 영적 애정과 생각들은 잠들어 있다. 위 두 상태가 번갈아 오는 것은 필수적이고 동시에 유용하기도 하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든 상태에서까지도 주의 천사는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말해준다. 잠에서 깨어날 때 천사가 일러준 대로 해간다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이 성취되게 하리라.

잠에서 깨어난다는 표현은 의미적인 표현이다. 그 이유는 외적 상태에서 내적 상태로, 또는 자연적 수준에서 영적 수준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시간과 감각에 속한 것 너머로 생각과 애정들이 실지 상승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적 삶에 요구되는 것이나 영원에 속한 것에 생각과 애정이 깨어나게 된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하라는 대로 했다. 자기가 지녔던 의심을 떨치고 그는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요셉이 경험했듯 시험의 상태에 있을 경우 진리는 선과 분리된 듯 여겨진다. 그러나 시험이 끝날 때 시험당해 온 진리들, 선을 거절하고 의심했던 진리들은 천국적 결혼의 진정한 파트너가 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맞아들인다. 그러나 첫 출생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둘의 결합은 완전한 것은 못된다. 첫 출생의 의미를 주님과 관련시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첫 출생하신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적 교회에서 있어온 첫 출생이 표현했던 모든 것이 실현되어졌다. 독특한 고결함과 중요함이 첫 출생(장자)에 붙어 다니는데 첫 출생이 사람이었든 동물이었든 심지어 땅의 첫 소산(햇곡식)에까지 붙어다닌다.

첫 아들은 주님께 기록했고, 태를 언 첫째 짐승은 그분에게 제물로 바쳐졌으며 첫 곡식은 그분께 선물로 드렸다. 이 모든 첫 소산은 첫 출생으로서의 주님을 표현했다. 이는 그분이 마리아의 아들로서 예수에만 국한되어 있는게 아니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는 첫 번째라 불리시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독생자라고도 불리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땅의 어느 왕보다 더 높은 첫 출생자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에게서 일어난 첫 출생자(first begotten)”이다. 이미 살핀 바 있지만 영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창조물의 첫 번째 되시는 점에서 예수는 창조물의 첫 출생이라는 것,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첫 열매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마리아의 첫 아들과 하느님의 첫 아들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최고의 의미로 볼 때 이스라엘족 사이에 있는 장자는 신성한 사랑 또는 본질적 선함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성이 완전히 영화하시어 신성한 선함 자체를 만드셨을 때 그분은 신성한 의미에서 첫 출생이셨다. 인간 측면에서 살핀다면 거둬냄 속에 있는 첫 출생은 선함에 관한 원리이다. 참으로 이는 시간이라는 측면에서나 등급 측면에서나 첫째가는 원리이다. “맨 먼저 주님께서서는 유아에게 순진의 선을 주입시키신다. 이 덕택에 인간은 인간다워진다.” 순진은 인간 안에서 첫 출생에 속하는 품질이다. 순진 자체가신 주님이 첫 출생되신다. 유아 속의 순진은 첫째 되는 품질이면서도 마지막에 해당되는 품질이다. 그 이유는 거둬냄을 수단으로 인간은 순진의 선으로 되돌아오되 경험과 지식으로 더 완전해진 순진 즉 무지의 순진이 지혜의 순진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므로 순진의 선은 두 번 출생된다. 이는 주님의 경우나 인간의 경우나 똑같다. 그분은 인간 측면에서는 마리아의 첫 출생자가 되시고 영화하심으로 하느님의 첫 출생자가 되셨다. 이렇게 그분 안에서 순진은 첫째와 마지막 째가 되셨다.

요셉과 마리아에 관한 역사적 사실, 즉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냈다”는 사실에는 영적 진리, 즉 의지와 이해성의 완전한 하나됨은 임신에 의해서가 아닌 사랑있는 원리인 출생을 수단으로 결과된다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이타애와 믿음은 선한 일 속에서 하나되어진다. 둘의 하나됨은 선한 일을 생산하기 위해 참으로 필수적이다. 선한 일 안에서만이, 특히 첫 출생으로 의미되는 선한 일 안에서의 하나됨은 완전하며 영원하다.

구세주가 유아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자 요셉은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 누가복음은 이 구절에 “아이가 잉태하기도 전에 천사들이 불렀던 이름”이라는 말을 더 첨가해놓고 있다 (2:21).

사전에 명령되거나 발표된 행동을 기록한다는 것은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기록 안에서 이전의 모든 목적과 노력들이 납득되어질 수 있다. 거룩한 아기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속에서 하느님과 천국의 교회, 그리고 지상의 교회가 일치하여 행동되는 것이 담겨 있다. 더불어 이름 예수가 함축한 것, 즉 구세주가 되어 가시는 목적이 그분과 조화를 이루시는 행동을 하도록 천상천하의 만민을 가져다 놓는 것과 같다.

주님이 세상에 오심, 이미 살핀 바 있듯이 이는 인간의 시선을 강하게 집중할 수밖에 없게 한 가장 드높고 가장 거룩한 주제의 하나이다. 타락으로 자초한 인류의 파멸을 수리하려는 분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중대함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광의 사건으로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약속, 수많은 형태로 예언자들에게 의해 반복하여 거론되어 왔고, 이는 성경에서 빼어난 비유 표현과 강렬한 묘사들로 더 한층 고조되어 왔었다. 그리고 수많은 세대를 통해 신실한 이들이 흠모해 온 소망이 실현되어진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깃부수기로 되어있는 여인의 후손이 이제 세상에 태어났다. 아기 구세주의 탄생에 따른 주변 상황 모두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불가사의 한데 그 이유는 주님을 명백히 보이시려는 목적에 놀랄 정도로 딱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타락으로 얻은 인간의 죄는 인간과 하느님을 갈라 놓았다. 최상의 선과 진리로부터 인간이 분리됨은 세상에 어둠과 무질서, 그리고 비참함을 생산되게 했다. 신성한 아버지의 독생자로 인간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신성과 인간 본성을 지닌 구세주 안에서 오랫동안 그렇게도 완전하게 이간질되고 말았던 상황들이 신성이 인성이 되시고 인성이 신성으로 되심으로 재회하여 하나가 되었다. 주님의 한 인물(person)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됨은 기독교의 장엄한 중심되는 진리이다. 하느님과 인간의 재회(reconciliation)는 육을 입으신 목적(purpose)이요 기독교인의 목표(aim)이기도 하다. 인성과 신성의 재회가 그리스도라는 인물 속에서 맨 처음 결과 되어졌다. 이 결과가 속죄(atonement)라는 위대한 작업을 구성한다. 구세주라는 인물 안에서 맨 처음 성취된 속죄라는 이 작업은 우리가 속죄를 받게 되는 수단이다. 이 수단으로 해서 인간은 하느님과 다시 만난다. 그 이유는 주님이라는 한 분 인물 안에서 결과된 재회가 이제 우리 안에서도 결과되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일, 즉 재회 또는 속죄라는 것도 아직은 아기 구세주의 앞에 존재한다. 그 이유는 마리아의 첫 아들이라는 수준일 경우 신성과 인성이 하나됨은 잠정적인 수준, 또는 싹틀 조짐(germ)만을 지녔을 뿐이기 때문이다. 신성과 인성은 참으로 이제 한 인물(one person)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한 본체(one essence)로서는 아직 아니다. 다시 말해 태어난 아기 예수는 하느님과 인간이라 말할 수는 있지만 아직 하느님-인간은 되지 않았다. 그분은 신성과 인간이시나 아직은 신성한 인간은 아니시다. 그분은 마리아의 첫 아들이 되시기는 하나 아직 하느님의 독생자는 아니시다. 한 마디로 그분의 인성은 지금 자연적이고 유한하신 바 영화하시어 인성을 신성하고 무한하도록 만드셔야한다. 고통스런 과정을 수단으로 결과되는 이 영화하심은 장차 있게된다. 약하고 약한 유아는 전쟁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 평화롭게만 보이는 유아의 모습은 이제 슬픔에 익숙해져 슬픔 속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 광야와 계제마니 그리고 십자가가 그분 앞에 대기하고 있다. 이제 그분은 우리들 같이 모든 국면에서 시험되어야 한다.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이신 바 우리의 시험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분은 자기 영혼을 죽음 속에 빠트리신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시어 죽음을 생명의 문으로 만드시는데 이는 그분 자신뿐만 아니라 거듭남 속에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까지에 이르러 해당된다. 무르고 무른 인간 어머니로부터 약하고 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그분은 장차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천상천하의 권능을 쥐신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게 된다. 이상 살핀 바가 태어난 아기요, 위대한 역사요, 영광스런 목적(end)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분과 재회해야말로 그분께서 육을 입으신 가장 복된 목적(purpose)이요, 그분이 애쓰시고, 고통받으시고 쾌거하신 결말에 해당된다.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 안에서 그분이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분이 시험받으신 것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구조해 주시려 함에서였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로 죽어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분이 일어나신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서 새 피조물이 되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저택에 우리도 올라가서 그분이 계신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려는데 있다. 우리 모두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합창하듯 이렇게 감사 찬송 해야 하리라.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2

1. “예수께서 베들레헬에서 나셨는데...” 베들레헬에서 주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섭리적인 차원의 일이다. 이 일은 예언으로 못박아 정해 놓은 사건이다. “그러나 에브라 지방 베들레헬아, 너는 비록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으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너에게서 난다. 그의 핏줄을 더듬으면 까마득한 옛날로 올라간다” (미가 5:1,2). 그분이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신 것은 예언된 사항을 성취하시는데 단순히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성경에서 장소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영계에서는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게 장소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행복한 곳인 이유는 행복한 심정 상태를 지닌 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진리가 지상 위에서 표현되도록 하시기 위해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으로 선택되었고 그 지역내의 모든 각각의 장소들은 천국의 세부적인 어떤 상태 또는 천국의 일반적인 상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어떤 원리를 표현하였다.

베들레헬이 지니게 되는 의미는 우선 그 지역에 관련되어 기록된 첫 사건으로부터 나타난다. 야곱이 베델로부터 아버지 이삭을 뵈러 갈 때 에브라다 지방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때 거기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다 (창세기 35:16-20). 이 야곱의 여행은 덜 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진보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상태는 에브라다로 표현된 중간 상태를 늘 통과해야 한다. 중간 상태를 거쳐야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위 인용 구절은 야곱이라는 인간의 외적 측면이 이사악이라는 내적 측면과 하나되기 위한 진보 단계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중에 출생한 베냐민은 둘 사이에서 하나되도록 하는 매체 역할을 하는 원리를 표현한다. 이런 베냐민의 표현적 품성은 후기 시대, 즉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재회할 때 베냐민이 중재자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를 더 자세히 말하면 요셉이 자기를 죽이기까지 미워한 형들과 재회하여 하나로 합칠 때 형들을 사랑과 용서를 가능하게 해준 매체가 베냐민이었다. 베들레헬은 다윗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다윗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상의 인물로 되어 있어 그분에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지게 하는 통치자 되시는 주님을

다윗이 그려내 주고 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예견했다. “나는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잠자리에 들어 편히 쉴 수도 없습니다. 눈 붙이고 잠들지 못하겠습니다. 눈시울에 선잠조차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야훼 계실 장막을 마련하기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을 때까지, 계약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들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시편 132:3-6). 베들레헴의 의미는 그 지리적 위치로 더 암시해 주는 게 있다. 이곳은 유다지역에 속하지만 베냐민 지파 구역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 유다 왕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구역은 천적 수준의 교회의 내적, 외적 측면을 표현한다. 천적 수준의 인간 속에서 베들레헴은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하나로 되게 하는 매체를 의미해 준다. 하나되게 하는 매체로서의 베들레헴은 높은 측면의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하느님과 인간을 하나되게 하는 매체 즉 씌어진 말씀을 표현한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빵의 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영혼을 먹이는 천국의 빵을 썬아둔 창고가 말씀이다.

위에서 살핀 여러 각도에서의 베들레헴에 대한 의미를 종합해 보면 구세주가 그곳에서 탄생하시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지 이해될 수 있다. 더불어 그 지역에 관련된 역사물 모두가 그분을 표현해 주고 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그분께서는 말씀이 육이 되셨다는 것,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되신다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빵이시어서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였다. 신성이 입으시고 거룩하게 만든 인간 본성은 하느님의 참 외형(form)이요 이 인간 본성을 매체로 반역만 일삼는 자녀들이 그분과 재회하게 하고 이를 원천으로 자녀들에게 생명인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주신다.

주님과 직접 관련시켜 이해해 보면 그분의 출생지가 에브라다라는 이름에서 베들레헴으로 바뀌고, 거기서 라헬의 아들 이름이 벤오니로부터 베냐민으로 바뀐데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베들레헴(빵의 집)은 에브라다(열매 풍성함)와 영적으로 구별된다. 빵은 주님의 인성 측면에서의 신성한 선을 더 잘 표현해 준다. 이는 타락한 인간의 배고픔에 더 알맞은 음식이다. 베냐민으로 바뀐 이름 역시 주님의 한 모형인 바 깊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어머니에 의해 붙여진 이름 벤오니(내 슬픔의 아들)는 주님께 늘 붙어 다니는 부끄러운 측면 즉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측면을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머니쪽의 인간이라는 점에서 그분에게는 슬픔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 반면 아버지에 의해 불려진

이름 베냐민(내 오른 손의 아들)은 드높여진 주님의 상태, 하느님의 아들 측면에서의 주님 또는 신성한 인성 측면의 주님, 복음서에서 언급하듯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아들로서의 주님을 표현한다.

베들레헴이 하느님과 인간의 교류와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매체로서의 주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한편 주님 자신 안에서는 신성과 인간성을 하나되게 하는 매체 역할을 의미하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탄생을 수단으로 하나됨이 결과되게 하는 원리와 권능을 상속받으셨다. 이런 점에서 그분은 여느 인간과는 판연히 다르다. “인간은 누구든지 영적 또는 천적 수준의 인간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자연적 수준의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주님 한 분만은 영적-천적 수준에서 태어나셨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는 “헤로데 왕 시대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에 대단한 논박이 오가던 시대에 출생하신 것이다. 따라서 그분이 옥좌에 오를 것을 예상해서 이를 막기 위해 극악의 수단을 발휘했던 때이기도 했다. 그 시대의 이런 잔악상을 이사야의 예언에서 찾아 볼수 있다. “너희가 자신만만하게 말하는구나.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었다. 저승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28:15).

사악한 헤로데 시대는 주님이 태어나신 때의 유대인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지상에 정의와 진리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다. 세상의 모습은 그분의 간섭을 절실히 요구하는 때였다. 그러나 그분은 늑대 가운데 있는 어린양으로서 오셨다. 최고로 부패된 그 속에 순진으로서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위협에 노출되어 위기를 넘겨야 했고 박해 속에 그분의 지상 삶이 마무리되는 것 등등 모두에 대해 의아해 여길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동양 사람이 방문한 것은 흥미가 많은 대목 중 하나이다. 이는 메시아의 오심에 관련된 고대 예언에 관한 지식들이 이스라엘과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보존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쪽 국가에 있던 이런 슬기로운 사람들이 유대인 내지 유대인의 성경으로부터 주님의 강림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고 상상해 볼 필요가 없다. 아주 먼 고대로부터 더욱이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말씀 중 일부도 그것들로부터인데 그 중 어떤 것은 고대 국가의 신화들로 체현되었기도 해서 아직도 지상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이런 고대 말씀이 있었던 시대 때의 사람들은 신성한 진리 내지 영적 사항들을 더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영감의 참 본성을 알았고 자연적인 형상들은 그것과 상응되는 것을 표현하는 형체로서 영적 진리를 옷입히고 있다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이런 지식의 잔류가 있어 동방 박사들은 새로 태어난 별이 약속되어진 구세주의 탄생을 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박사들은 별이 진리에 관한 지식을 상징한다는 것, 매우 높은 수준에서는 진리 자체이신 분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별은 영적 대상물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시야는 그 대상물을 보도록 열리어 있었다. 이 별은 인간의 하늘에서가 아니라 천사의 하늘로부터 빛을 발했다. 이들 외 지상의 누구도 이 별을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해 영적 식별력을 지닌 자들만이 그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었다는 말이다.

이방인 사이에서는 박사들이, 유대인 사이에서는 목자들만이 구세주의 탄생에 관한 통보를 바깥쪽에서 받았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에 그분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되었다. 박사들은 영적 총명을 소유한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을, 목자는 영적 이타애를 원리로 삼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했다. 그들로 하여금 아기 구세주에 접근하도록 길을 가리켜준 수단들은 두 부류의 품성과 여건과 상응되고 있다. 목자들은 청취 가능한 천사들의 소리로, 동방박사는 별이라는 침묵의 언어로 안내되어 졌다. 전자는 귀로 들어서, 후자는 눈으로 보아서 인도 받았다. 양쪽 모두에 대한 선포는 밤에 있어졌다. 그 이유가 교회 시대가 닫혀져 온 세상은 암흑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 천사는 목자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 한편 별은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안내했다.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관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아 그분께 직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께 접근하기전 교회의 교리들로 시작하도록 먼저 인도되고 그분을 예배하되 영 안에서가 아닌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박사들은 동쪽으로부터 왔다. 이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쪽은 최고 높은 의미에서 주님, 그리고 그분을 사랑함을 상징한다. 이 구절의 경우 동쪽은 주님께서 일어나심, 즉 종교적 빛이 심정에 밝음을 제공할 때 있어지는 주님의 일어남을 상징한다.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 신성한 진리를 일반적으로 직감한 처음 단계로부터 그 진리를 구분 지어 하나 하나 확실한 지식이 되도록 영적으로 진보해 가는 것,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된다는 진리를 모든 진리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드높은 진리로 실제에서 인정해 가는 것을 뜻한다.

위와 같은 여러 의미들이 주변 여건에 있지 않다고 가정해 버린다면 별은 정녕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어야 하리라고 가정해 버릴는지 모른다. 이런 인간의 견해일 경우 그들은 주님의

출생지로 직접 인도했어야 헤로데의 분노나 시기함도 아예 없어 베들레헴의 유아들의 목숨도 보존되었어야 올바른 섭리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치우쳐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다시 우리는 지배하는 섭리의 손을 인정해야 하고 그 자체의 영성을 입증하시는 계시도 볼 수 있게 된다.

2. 예루살렘에 도착한 박사들은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박사들은 구세주가 탄생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확신이 서 있었다. 단지 그분을 발견할 장소만을 물었다. 이는 복음서에서 주님이 왕으로 불리시는 첫 구절이다. 주님은 신성한 진리로서의 왕, 입법적인 원리로서의 신성한 진리되시는 왕이시다. 그 이유가 진리로 그분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사들이 물은 “어디...”는 우리에게까지도 매우 중요하다. 장소에 관한 질문은 우리에게는 상태에 관한 질문이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어디”라는 단어에 대한 실제 의미이다.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셨을 때 이것은 그의 불순종이 그를 처벌은 곳, 타락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이었다. 정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태어난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지는 것은 더 희망적이다. 이것은 모든 이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 하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듯 그분은 이 하늘나라의 왕으로 태어나셔야만 하고 그분이 다스릴 옥좌가 우리 심정에 건설되어야 한다. “그분께 경배하려고” 그분이 계신 곳을 알려는 바램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발견할 장소가 어디인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알아봄이 생산하는 실망적인 결과가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환난 없이 달성될리 없다. 우리는 말씀 속의 교리를 수단으로 이 지식을 획득한다. 마치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사제를 통해 그분이 나실 곳을 알았던 것과 같다.

3. 박사들의 내왕과 그들이 오게된 연유 때문에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우리는 유대 국가가 주님께 적대감을 표하는 시작이 여기서부터임을 알게 된다. 헤로데의 시기심이 흥분되어졌고, 그의 분노는 들끓었지만 사실 제 보좌를 노리는 적수라고 생각해보기도 힘든 갓난 아이를 두고 그의 악이 끊어 오른 셈이다. 조금이라도 자각된 양심의 소유자라면 누구라도 말로도 하기 힘든 것들을 헤로데와 그의 백성들이 나열하고 있다. 거기에는 죄의식과 말로 표현되지 않는 두려움 같은 것이 너무나 확실히 있지만 그 원인은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공부하려고 이천 년 전의 사건으로 되돌아 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심정 안에 위 구절 같은 두려움, 술렁거림을 지니고 있어

우리의 경험에서 위 구절을 추적해 볼 수 있다. 마음이라는 우리 내부 세계 안에는 베들레헴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다. 박사들과 목자도 있지만 헤로데와 술렁거리고 불평하는 성직자 계급층도 있다. 우리의 이기심 안에는 가장 지독하게 악한 인간에 의해 저질러진 악과 거짓이 있다. 이것들이 설사 바깥쪽 행동으로 튀어나오지 않았다 해도 우리 심정에서 술렁거리다. 악과 거짓된 것들이 들고 일어나려면 그것들의 목적에 반대되는 어떤 것, 또는 그것들의 통치에 적이 등장해야하고 그 때서야 우리는 악과 거짓들을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우리 속의 악과 거짓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이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바, 하나님의 섭리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안내되고 그곳을 온통 술렁거리게 한 섭리의 지혜에 관한 것이다. 이런 사항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살필 수 있다. 선의 현존은 악이 봉기되게 한다. 이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인간 심정에서도 똑같은 현상이다. 이것은 정략적인 방책이다. 이 방책 말고 어떻게 악이 몰아 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선을 받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못하다. 그 이유가 선은 반드시 악을 정복해서 악의 상속권을 박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 자체가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결국 부패되고 만다. 헤로데와 백성들이 당황하고 술렁거리는 모습은 정의의 태양에 앞서 선도해 가는 새벽이 심정에서 떠오르고 그것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자 바랄 때 우리 속 부패된 이기심이 당황하고 어쩔줄 몰라하는 상태와 같다. 의지 속의 악과 이해성 속의 거짓, 모두가 당황하고 술렁거림이 여기서 말해지고 있다. 그 이유가 의지 속의 악은 헤로데로, 이해성 속의 거짓은 예루살렘성 안의 백성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4. 헤로데는 박사들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 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분노를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게 만든다. 이기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악인이 선용을 실시하려는 때도 있다. 이런 예가 헤로데의 움직임이다.

자연적 목적을 위해 자연적 인간은 악한 목적을 궁리하는데 신성시 된 매체와 수단을 고용한다. 백성들의 대사제와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추상적으로 볼 때 해석 자체이고 이를 수단으로 말씀의 교리가 알려지는데, 특히 주님에 관한 교리가 알려진다. 이 교리를 의로운 사람은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는데 선용하고 사악한 자는 제 자신을 드높이는데 악용하게 된다. 박사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고, 헤로데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 이 호칭, “기름 부은 자”란 신성한 사랑의 “거룩한 기름”이

부어진 진리(the truth)로서의 주님을 표현한다. 그러나 헤로데 같은 악인에 의해 사용될 때 이는 사랑과 분리된 주님의 진리가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한다.

5.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게 되는가를 묻는 헤로데의 질문에 대사제는 대답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난 인물들을 주님 자신과 관련해서 이미 살핀바 있는데 이 지역은 특히 거듭나는 사람에게서 주님이 탄생하시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탄생하시되 믿음의 목적으로서 이튼, 예수가 목적인 믿음의 출생이든 그 결과는 같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는 믿음을 수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정확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참 진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참 진리는 그분 자신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우리 속의 베들레헴은 이타애로부터 파생된 믿음, 또는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이다. 이타애 속에 있지 않은 믿음, 선 속에 있지 않은 진리는 아직까지 실제적이라 말할 수 있는 생명있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이타애로부터 먼저 살기 시작할 때 새로 탄생된다. 베들레헴은 예수께서 우리 영혼(soul)의 구세주로서 우리 안에서 탄생되는 곳이다. 주님은 우리 속 내면의 더 깊은 곳에 거처를 가지고 계신다. 만일 별이 심정에서 떠올랐다면 마지막으로 그 별은 우리를 더 깊은 우리 속, 그분의 탄생지로 인도해간다.

6. 사제들은 주님의 탄생을 예고한 예언서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 이 구절은 이미 설명된 바 있으므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복음서의 기록은 예언서와 달리 표현된게 있다. 이는 흔히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되지만 거기에도 교훈적 흥미가 담겨 있다. 이 차이점은 진리의 차이, 즉 진리를 처음 받을 때의 경우와 진리가 완전히 발달된 때의 경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예언서에서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고 말하나, 본문의 인용에서는 유다 왕들(princes)중에 작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주석 학자들은 위 두 구절에 불일치 될만한 차이는 없다고 논평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떤 장소를 언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차이가 나는 서술이 모순된게 아니라고 말하고 끝맺기에는 영감된 책인 이상 너무 아쉬운 점이 있다. 좀 더 살핀다면 이 서술상의 차이에도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 예언서에서 주님이 탄생하시는 장소는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고 있다.

복음서에서는 유다의 땅 베들레헴으로 불리고 있다.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장소에 대한 두 개의 다른 이름들이다. 그러므로 두 이름은 같은 원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에브라다는 초기 시절의 원리, 따라서 덜 완전한 원리를 의미한다. 복음서의 경우 유브라다는 아예 빠졌고 유브라다-베들레헴 대신 유다의 베들레헴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덜 완전한 상태와 연합되는 대신 더 완전한 이름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해서 더 완전한 상태, 승강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2) 예언서에서 베들레헴은 수 많은 유다 족속 중 하나라고 말해지고 있고, 복음서에서는 유다의 왕들(princes, rulers) 중 하나라고 말해지고 있다. 왕 또는 통치자는 통치해 가는 최고의 원리를 생각나게 하고 “수많은(thousands of)” 이라는 단어는 통치받는 하급의 원리를 생각나게 해서 결국 예언서의 표현보다 복음서의 표현이 훨씬 더 높도록 부각시키고 있다. (3) 예언서에서 베들레헴은 작다라고 부르나 복음서는 가장 작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작다(little)라는 단어는 비교적 적다(small)는 것을 단호히 표현할 때 사용된다. 가장 작지 않다(not the least)는 용어는 어떤 다른 것들 보다 더 크다는 비교적 차이를 표현한다. 종합해 보건대 복음서에 인용된 구절은 예수께서 예언서 뿐만 아니라 율법서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라도 하듯 예언서에서 주는 느낌을 더 드높이고 있다. 예언서는 주님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라고 첨가하고 있다. 다스린다(rule)는 것은 먹여주심(feed)을 뜻한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신실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정부는 그들 위에 군림할 뿐 아니라 그들 안에 임한다. 그분의 사랑과 진리가 그들의 애정과 생각들을 지배하고 동시에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그분은 목자로서 군림하시어 그분의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시고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신다.

7. 헤로데는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곳이 어딘지 알게 되자 “그 때에 헤로데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보았다.” 장소와 시간은 두 가지의 상태(state)를 의미한다. 그러나 장소는 선에 관련된 상태를, 시간은 진리에 관련된 상태를 의미한다. 박사들을 개인적으로 부른 헤로데의 속셈은 아기 구세주를 죽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는 주님의 선함과 진리를 소멸시키는 것, 아예 신을 섬기느니 죽이겠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주님 자신에 관련해서도 그들의 능력을 넘는 것이고, 그들이 바랄 수 없는 사항들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과 타인들 안에 있는 주님의 원리를 파괴하려 들고 있다. 이런 것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그들은 신성에 속한 것을 처음부터

추적하려 든다. 마치 헤로데가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고자 하는 것과 같다.

8. 헤로데는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 주시오.” 헤로데는 아기 왕이 베들레헴에서 발견되기를 바랐다. 일반적 진리를 예증하는 세부적 진리들은 선한 자하고서만 교통할 수 있다. 이 진리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다는 이들로부터는 감추여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는 세부적 진리를 사용해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을 뿌리와 가지까지 송두리째 파괴하는데 사용한다. 신성한 섭리는 헤로데가 그토록 알려했던 것이 감추여 있게 했다. 그리고 헤로데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박사들은 그들의 도움없이 구세주가 계신 지점 까지 인도되었다.

9.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때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용기를 얻어야 하고 방향을 알아야 할 순간에 별이 다시 나타났다. 이는 이 별이 자연적 차원이 아닌 초자연적인 대상이라는 것, 아기 구세주가 계신 참 지점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기 위해 보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천국에서 이 별은 주님에 관한 지식을 상징한다. 이 별이 두 번째 나타남은 첫 번째의 별에 관련해 생각되는 것, 교훈적 여건이다. 첫 지식은 일반적이고 두 번째 지식은 세부적이다. 세부지식은 일반지식을 예증하면서 우리가 바래서 찾고 있던 대상으로 안내한다. 처음의 별은 구세주의 탄생을 암시했고 두 번째의 별은 구세주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심정에 별이 처음 나타날 때 그 현존은 일종의 일반적 구술(dictate)이다. 이런 구술 후에 별이 다시 나타나면 열린 환상과 계시는 명백히 보여지는 것이다.

10. “박사들은 이를 보고 대단히 기뻐했다.” 진리를 내적으로 직감하는 것, 특히 모든 진리 중 가장 위대한 진리, 즉 자기의 구세주되는 주님에 관계된 진리를 직감하는 것은 열심히 바래던 생명을 가지게 된 이들의 심정에 가장 높고 가장 순수한 기쁨을 있게 해주는 근원이다.

11.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제 5절에서 베들레헴의 영적 의미는 이타애의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거듭나는 마음이라는 내면보다 더 깊은 내면의 거처를 갖고 계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 더 깊은 내면의 거주지란 이타애 자체이다. 이타애 자체는 믿음의 영혼 또는 믿음을 생명 있게 하는 원리로서 믿음 안에 존재한다. 이타애에 근거를 두는 믿음이 베들레헴이고 믿음 안에 존재하는 이타애

(charity)가 “그 집”으로 의미되고 있다. 믿음이 도성으로 상징되고 이타에는 도성 안의 집들로 상징된다. 주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만 그분의 거처는 우리의 이타에이다. 천국적 지식의 별이 멈추어 서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이타에이고 우리로 그 집에 들어가라고 말한다. “그 집에 들어가...”라는 구절의 부분 역시 교훈이 생략되지 않고 있다. 우리 역시 박사들처럼 “그 집에 들어가”야만 한다. 박사들의 여행은 영적 진보라는 우리의 역사이다. 그리고 그 진보의 마지막 단계는 그 나머지 단계들 보다 더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는 지식으로부터 믿음의 단계로 진보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이타에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실제적 현존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왕이요 구세주로 경배드리기 전 반드시 우리는 이타에 자체 안에 도착해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의 진정한 예배를 이루는게 무엇들인지 살펴보자.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 아기를 보았을 때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 구절을 설명하기에 앞서 경건한 이교도의 박사들을 찬찬히 더 생각해 보고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그들의 행동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교도들은 교회밖에 있는 이들이다. 그래도 그들은 나름대로 신의 계시를 소유했다. 단지 그들을 인도하는 빛은 별빛같이 어둡침침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강한 믿음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강림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강림 사건은 심도 있는 개인적인 흥미로서 바라보기까지 했다.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있는 상응에 관한 그들의 지식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열심히 갈망했던 사건에 대한 발표가 천국 천사에게 있어졌음을 즉각 인식할 수 있게 했다. 기쁜 소식이 전해지자 자발적으로 길고도 험한 여행을 결심했고, 아기 왕에게 드릴 귀중한 예물까지 빠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발견했을 때 그분이 계신 곳은 여느 왕자들이 누워 있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비천한 숙소에서 어머니의 팔에 안겨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반감이라든가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심오한 존경심으로 그분 앞에 엎드렸고 동시에 엎드림으로 상징된 존경보다 훨씬 더 귀한 경배의 상징물인 귀중한 선물을 바쳤다. 이런 박사들의 태도에서 배워야 할게 얼마나 많은지! 이 모습은 어떠한 외적 상황도 고려치 말고 오로지 그분만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게 아닐까?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세상적 인기를 누리는 교리나 그럴듯한 이론들, 화려한 예배의식, 대단한 듯 여겨지는 장중함 따위들과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자문하도록 박사들의 행동 모습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게 아닐까? 그분이 유명해 있는 것도 아니요 권능도 없는 듯 보이는데 그분께 경배한 이들의 태도를 모방이라도 한다면 이 얼마나 가치있는 행동이 아닐까? 참으로 우리의 눈은 별에 관심이 없고 우리의 귀는 천사들의 합창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씩어진 하느님의 말씀 안에는 이보다 더 뛰어난 증거를 꾸준히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 보려하고 들어 보려해서 말씀 속에 들어간다면 박사와 목자들이 경험한 것 같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특사들을 만난다. 그리하여 그분을 왕과 구세주로 박사들과 같은 심오한 경배를 드리도록 말씀의 초대를 받으리라.

이제 위 구절이 가르치는 순수한 영적인 지혜만을 간추려 보자. 우리의 이기심을 창피당 하게 하고 깎아내릴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린다.” 우리의 심정에 있는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드높일 때 우리는 “그분께 경배드린다.” 우리 심정을 열고 그 안에 신성한 자비와 은총의 보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보물상자를 여는 것”이다. 겸손하고 깊은 감사에서 우러나 그분을 인정해서 만복의 근원되시는 그분에게로 되 돌아 갈 때 우리는 구세주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이다. 박사들이 바친 예물은 황금, 유향, 몰약이다. 이는 사랑, 믿음, 순종의 예물이다. 이 세가지 예물은 세상 어느 지역에 있는 현자이건 누구나 늘 찾고 있고 소중히 여기는 영적 보물이요, 예배에서 주님께 드려야하는 예물이다. 이 예물은 입술로의 예배, 성전의 예배 뿐만 아니라 심정의 사랑으로, 생활의 예배에서 드려야 하는 예물이다. 하느님의 섭리가 자기에게 증여한 재능들을 잘 사용해서 인간의 행복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증진시켜 가는 사람은 하느님의 평가에서 더 귀중한 예물을 그분께 바치는 것이다.

12. 박사들이 아기에 관한 정보를 헤로데에게 주려고 되돌아가려고 했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았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뜻을 사람들에게 밝히실 때 꿈을 자주 사용하셨다. 의심할 바 없는 이유 한 가지가 있다. 잠 속에서 인간은 천국의 훈계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꿈은 희미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계시를 의미한다. 박사들은 헤로데에게 되돌아가지 않도록 경고를 받았다. 이는 모독된 것 안에 거룩한 것을 담는 것, 헤로데가 예수를 죽이는 것, 순진의 파괴가 있어지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박사들은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는 상황이 말씀의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 읽을

수 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베텔에 세운 우상의 제단을 허물도록 지시 받은 예언자가 일을 마치고 되돌아가되 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해서 돌아가도록 명령받았다(열왕기상 13:9). 이런 대목은 거듭나는 삶과 관계되는 흥미있고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성경에서 길(way)은 진리와 믿음을 상징한다. 그 이유가 진리는 선으로, 믿음은 이타애로 인도해주기 때문이다. 진리와 믿음도 두 가지가 있다. 선으로 인도하는 진리와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가 있고, 이타애로 인도하는 믿음과 이타애로부터 파생되는 믿음이 있다. 이 두 가지는 표면이나 글자에서는 같게 보이지만 서로간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만 한다. 그리고 습득한 진리는 선이 무엇인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자체로부터의 어떤 것, 자체 이상의 어떤 것으로의 선을 찾게 하고 인도한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에게 존중하라고 했던 선, 찾기 위해 애쓰라고 했던 선을 획득하게 되면 그 선은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 그 진리를 수단으로 유익하고 유용한 목적들을 행동으로 옮긴다. 진리는 처음에는 개척자이고, 그 다음에는 선함의 봉사자이다. 믿음과 이타애도 이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 간 길은 우리가 올라간 길과 다른 길이다. 우리는 교훈과 슬픔, 싸움의 길로 올라가고, 총명과 기쁨, 환호의 길로해서 되돌아온다. 올라간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 안에 있는 왕을 보았다. 우리는 그분의 발아래 엎드려 경배했다. 우리는 그분께 선물을 드렸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스스로 명하신 새 길로해서 되돌아간다.

13. 사악한 헤로데의 음모를 저지코자 또 다른 수단이 동원된다. “박사들이 떠난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에집트로 피신하여라’라고 일러주었다.” “에집트로의 피신”은 기독교인이 심정에 기억할만한 주님의 생애중 하나이다. 간단한 이 사건은 곁에 나타나 보이는 내용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의도를 내적으로 소유한 사건이다. 제 아무리 큰 권력가라 해도 한낱 인간에 불과한 헤로데인데 그의 분노를 피하려고 왜 에집트로 도망하셔야만 했을까? 지상의 숫자 계산으로 해도 “열두 군단도 넘는 천사”를 동원해 간단히 보호하실 수도 있고, 지상의 어느 권세도, 지옥의 어떤 권능도 그분을 해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어찌 허망하게 피신하셔야만 했을까? “에집트로의 피신”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의미는 대단한 흥미와 중요성을 지닌 것 중의 하나이다. 구약 성서를 읽는 우리 앞에 돌출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에집트로 내려가고 거기서 체류하고

양육되고 마지막 해방되는 일련의 줄거리들이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에집트로 피신한데 대한 의미 파악에 열쇠를 제공한다. 에집트에서의 이스라엘 해방은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는 기독교인을 모형화한 것이라는 해석은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에집트로 내려가시고 거기서 체류하고 되돌아오는 일련의 사건이 기독교인의 체험 중 어느 것과 관계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에집트로 주님이 피신하신 사건도 이스라엘족의 긴 사건만큼 의미심장하다. 고대 세계를 상응의 지식 체계로 상세히 작성해 본다면 가나안 지역이 그 세계의 중앙에 있고 그 외 나라들은 그 주변에 위치한다고 우선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에집트는 문명의 발달기준이 되는 것인 과학을 표현해 주는데, 이는 자연적 과학뿐만 아니라 영적 과학, 즉 외부에서 오는 지식을 수단으로한 이해력, 적절한 예로서는 어린아이들의 자질같은 것, 또는 종교생활의 마음상태들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 시절 에집트로 운반되신 것은 그분께서 외적 지식, 단순한 외적 사물의 지식만이 아닌 모든 외적지식의 습득이 시작된 것을 표현해주시기 위해서였다.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 스스로 인간의 모든 것을 체험하실 수 있기 위해 여느 인간처럼 인간 본성을 완전하게 입으셔야 했다. 여느 인간처럼 그분 역시 무지 속에서 태어나셨는 바 통상적 방법으로 지식을 획득하셔야만 했다.

육 안에서 명백히 보이신 하느님이 주님이라면 그 주님은 인간적 가르침이 전혀 필요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그 육 안에 내재한 신성에 의해 직접 나누어진 지혜와 지식만이 있었어야만 했을 것 같이 여겨질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서 역사로부터 아는 바, 이것은 복음서의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 사실은 육을 입으심(the Incarnation)의 본성과 일치되고 그 목적을 위해 필요했다. 신성은 그리스도라는 인물(person) 안에 계셨다. 이는 마치 영혼(soul)이 어떤 인물의 육체(body)안에 있는 경우와 같다. 영혼은 몸을 포함한 외적 인간에게 지식을 불어넣지 못하고 단지 그것을 획득하는 자질만을 준다. 외적 인간의 “지혜와 키”가 성장해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도구가 될 때까지 영혼은 몸 안에서 그 몸을 통해 영혼의 능력을 명백히 나타내지 못한다. 이성과 자유는 영혼의 자질이다. 그러나 지식 없이 합리성은 판단할 수 없고 선택하는데 자유롭지 못하다. 지식은 몸이고 이성영혼이다. 이성이 지식 없이는 꼼짝할 수 없듯이 영혼도 영계에서는 영체가, 자연계에서는 자연체라는 몸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다. 주님도 모든 측면에서 참으로 사람이셨던 바 그분도 배워감이라는 단계가 필요하셨다.

그분이 에집트로 운반되신 것은 그분의 바깥쪽 역사가 그분의 안쪽 삶의 진보를 표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 이 거룩한 여행이 신실한 요셉에게 맡겨졌다. 그래서 꿈에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에집트로 도망하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일어남”은 영적으로 마음의 상승, 시간과 감각 세계 너머로 일어나는 것이다. 도망침(fleeing)이란 우리 앞에 놓인 대상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다. 본문의 경우는 위험에서 도망감인데 이는 전능하심이 보고 그분의 지혜가 설비하셨다. 확실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아기와 그 어머니”란 주님과 그분의 교회이다. 이를 특수한 의미로 살펴보면 아기는 본질적인 순진의 측면에서의 주님이고, 아기 어머니는 이 순진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수단인 애정이다. 그리고 이 애정으로부터 과학 또는 지식이 획득되어진다. 이들이 에집트로 보내졌을 때 “천사는 요셉에게 알려줄 때까지 거기서 머무르라”고 지시했다. 교회의 과학적인 것들(the Scientifics of the Church)에서 있는 이 지시(instruction)는 하느님이 지정해 두심(divine appointment)이었던 바, 에집트로 피신하고 머무는 모든 것은 신성한 지혜가 그것의 완성을 볼 때까지 계속되었다. 천사에 의해 세부적으로 지시된 여행 지침이란 그 과정자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신성한 방향과 안내 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의도된 것이다. 피신하는 한 가지 이유는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뱀의 머리를 짓부수기 위해 그분께서 필요하신 것은 비둘기 같은 악의 없음과 뱀 같은 지혜, 그리고 어린양 같은 순진과 사자 같은 힘이였다. 따라서 헤로데의 분노를 피해 에집트로 운반되었을 때 처럼 그분은 극악무도한 적에 대처하기 위해 천국적 사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습득을 시작하신 것이다. 순진은 교묘한 사악함에 대처하는데 충분한 보호장치는 아니다. 교활함의 공격에는 반드시 지혜를 수단으로 받아 처야한다. 그리고 지혜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14. 천국의 환상에 순종한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에집트로 갔다.” 이 출발이 있어진 밤중은 교회의 영적인 밤, 정신적 어둠으로부터 예수의 중대한 삶의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분은 무지의 순진으로부터 삶을 시작해 점차적으로 지혜의 순진으로 진보해 가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15.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다.” 이 죽음은 미리 내다보고 언급되어져 있다. 헤로데의 죽음은 이 왕이 떠받친 표현의 끝장만을 단순히 말하는게 아니라 헤로데가 모형이 된 특수한 악의 제거 또는 사멸까지 포함하여 표현하고 있다. 주님께서 에집트에서

귀환하심으로 성취된 예언 역시 미리 예상하고 언급된 것이다. 그러나 이 예언의 인용은 단순히 과거의 예언이 반복된게 아니다. 이에 대해 좀더 생각해보자. 주님께 관한 몇 가지 다른 예언적 선포처럼 이 예언도 미리 성취됨을 가졌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에서 성취되었다. “내 아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에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호세아 11:1). 이스라엘과 그 해방은 예정적이다. 그러므로 예언적이다. 그 이유가 예징, type이란 오고있는 사건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말씀의 최고 의미, 또는 가장 깊은 의미에서 모든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은 주님과 그분의 영화하심에 관한 표본 (representative)이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로 내려가고 올라오는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은 주님과 그분의 구속 사업을 표현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강제로 차용한 금품을 가지고 올라갔고 예수는 지식의 부함으로 그분의 지성을 꼭 채워 귀환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금과 은을 성막을 장식하고 가구를 만들도록 헌납했고, 주님은 선함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을 그분의 인성, 그분의 영원한 신성의 거처가 될 그분의 인성이라는 성전을 다채롭게 장식하는데 사용하심으로 거룩하게 만드셨다.

16. 아기 예수가 에집트에서 숨겨져 안전하게 있는 동안 역사의 페이지를 어떻게 한 잔악한 행위중의 하나로 영원히 남을 처참한 짓이 폭군에 의해 벌어졌다. 대량 학살이 베들레헴에서 벌어졌다. 이 비인간적인 행동이 비록 역사물이라 해도 거기에 의미가 표현되어 있다.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악한 자는 제 악한 목적을 위해 지혜나 선함을 이용할 수 있을 때 대단히 만족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제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때 격분한다. 성경의 기록에서 분노(wrath)는 심정상태의 대단한 불일치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 단어가 사악한 자와 관련되어 표현될 경우 그들이 믿는 것에 속았다는데 대한 가장 깊은 악의를 표현한다. 헤로데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였다.” 유아(infant)는 순진의 상징물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아이는 순진이 있는 영적 진리를 표현했다. 헤로데가 순진한 아이를 살육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영적 진리도 남아있지 않았다는데 대한 표시이다. 이미 살핀 바대로 베들레헴은 말씀을 의미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아이들을 죽인다는 것은 말씀의 내적, 외적인 모든 진리를 파괴한다는 것, 악의 권세가 뺏칠 수 있는 최대한도에서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식은 선한 상태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획득될 수 있는 바 이것이 “박사들에게 알아 본 때에 의거하여”로 표현되어 있다.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살해함이란 영감의 언어로 생각하면 숫자들로 상징되는 하나됨, 즉 어떤 형태로든 선과 결합된 말씀 속의 모든 진리를 파괴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유대교회에 있는 모든 순수한 진리는 파괴되고 남은 진리는 뒤집힌 죽은 글자밖에 더없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17, 18. 복음서 기자는 이 살육이 예레미야(31:15)에 씌어 있는 내용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 특별한 구절이 본문의 사건에서 언급된 것은 매우 교훈적이다. 이는 구약성서의 역사적 부분까지도 예언적 부분과 더불어 예정적임을 보여준다. 예언서의 이 문단은 유다와 베냐민 후손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라헬, 베냐민의 어머니가 끌려간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하고 있다. 라미는 가나안 땅이 분할될 때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 되었다(여호수아 18:25). 그리고 “예레미야가 결박당하여 다른 예루살렘 시민과 유다 백성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이 라미가 등장한다(예레미야 40:1). 라헬이 불행한 제 후손의 운명 때문에 슬퍼하는 것, 그녀의 탄식 소리가 라미에서 근원되는 모습은 역사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정감마저 서려있다. 글자 자체의 역사만으로도 아름다운 서술이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그러하다. 야곱의 두 아내 중 라헬은 진리에 대한 영적 애정을, 레아는 진리에 대한 자연적 애정을 표현했다. 베냐민의 성읍인 라미는 천적 수준에서 근원된 영적 진리를 표현했다. 성전과 예루살렘의 파괴(열왕기하 25:9,10)와 함께 바빌론에 끌려감은 유대교의 종말을 예징화한 것이고 이 종말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거행되었다. 이런 이유로 마태는 주님께서 육을 입으신 것과 연결되는 본문의 사건에 포로로 끌려가버린 상황을 적용시키고 있다. 라헬이 슬피 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가 진리에 대한 영적 애정이 제 자식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 애정의 후손이 순진한 진리들인데 베들레헴 일대에서 살육 당한 아이들이 이를 표현했다. 이런 애정이 잔존한 마음이라면 무슨 마음이든 거기에는 같은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으리라.

이런 파괴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씨는 보존되어졌고 이로부터 더 높고 더 끈질긴 종족이 튀어나온다. 죽음이 작정되어 있는 그분이 파괴자의 손을 피했다. 완전한 살육을 시도한 사건은 본문 외에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판관기 9, 열왕기하 11). 이런 사건들, 특히 주님의 경우 위로하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인간들이 완전히 파괴하려 들 때에도 신성한 섭리는 구원을 위한 그루터기는 감추여 있게 해서 보존하신다. 아기 구세주는

모든 완전의 씨요 그 시작으로 보존되어졌다. 그분 안에는 라헬에게 보내는 위로하는 다음의 말씀과 약속이 실현되어져 있다. “이 야훼의 말을 들어라.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거두어라. 애태운 보람이 있어 자식들이 적국에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31:16).

19. 20. 아이들을 살육한 헤로데는 오래 생존하지 않았다. “헤로데가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에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일러주었다.” 헤로데의 죽음은 특별한 상태의 끝, 또는 헤로데가 표현했던 특별한 원리의 지배가 끝났음을 표현했다. 그렇다고 그 원리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가 똑같은 악이 또 다른 형태로 봉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로데로 표현된 원리의 활동이 있던 특별한 상태가 끝을 맞은 것이다. 이와 동시에 예수 자신 안에서도 상태의 변화가 있었던 바 이것이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심에 함축되어 있다.

에집트라는 지역과 구별해 볼 때 “이스라엘 땅”은 교회 자체를 예징(type)하고, 교회의 진리로 훈육되는 것이 주님께서 거기로 올라가 체류하심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동하신 이유는 아기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아기 메시아를 죽이려 한 헤로데의 바람은 분명 최하위의 지옥, 순진에 직접 반대되는 지옥에 의해 부추켜졌다. 그럼으로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어린 시절에도 시험당하셨다. 그분이 아무리 어리셨다해도 어떤 시험의 권능도 그분을 엿을 수는 없다. 언제나 시험자가 끝을 맞이한다. 이것이 헤로데가 죽은 것으로 암시되고 있다. 시험이 정복된 결과로 주님의 영화하심이 진전을 이루는 것이 요셉이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그분을 모셔감으로 그려져 있다.

22. 요셉이 에집트를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가되 그의 계획은 유대 땅으로 직접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헤로데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셈이어서 단념해야 했다.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신성한 도움으로 의심과 혼동의 상태는 해결되었다. “그는 다시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갔다.” 갈릴래아 지방으로 간 것은 자연적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자연적 원인 외 별다른게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중대한 영적 의미는 있다. 이 시절 “이스라엘 땅”은 세 구역, 유다, 사마리아, 갈릴래아로 나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세 구역은 교회의 천적, 영적, 자연적 원리를 각기 표현했다. 이 의미는 성전의 세 구역을 살피면 쉽게 파악된다. 성전(성막)은 세 구역, 지성소, 성소, 성전 뜰로 구성되어 있다. 성막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웠다. 이와 비슷하게 갈릴래아는 두 구역, 위쪽과 아래쪽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위쪽 갈릴래아는 이방인의 갈릴래아로 불리웠다. 이런 나뉜 구역에도 신약성서 역사와 관련해서 의미가 없는게 아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주님께서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에집트에서 귀환하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나자렛으로 오셨다. 이 나자렛은 아래쪽 갈릴래아이고 거기서 세례받는 때까지 살으셨고 그 이후 위쪽 갈릴래아에 있는 가파르나움에 오시어 거주하셨다(4:13참조). 이와 같은 거주지의 변화는 그분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 가장 깊은 천적 수준에서 가장 바깥인 자연적 수준으로 바뀌는 것을 표현한다. 공생애 동안 그분께서는 위쪽인 이방인의 갈릴래아에서 거주하셨는데, 이는 그분의 교회가 이방인 사이에서 일으켜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땅, 그리고 성전은 교회와 천국을 표현하고 이 두 개가 축소된 측면에서는 거듭나는 마음을 표현한다. 천국 전체는 세 가지 수준의 천국, 즉 가장 높은 수준의 천국, 중간 수준인 영적 천국, 가장 낮은 수준인 자연적 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낮은 천국은 두 개의 다른 천국의 말단에 해당되므로 이 천국은 두 개의 구분되는 품성들, 소위 천적-영적, 영적-자연적이라 불리는 천사들로 구성된다. 보편적인 천국, 즉 넓은 차원의 천국이 세 천국으로 구별되지만, 한편 두 왕국으로도 구별되어진다. 가장 높은 천국의 천적 천사들(celestial angels)은 가장 낮은 천국에 있는 천적-자연적(the celestial-natural) 천사와 더불어 천적 왕국(celestial kingdom)을 형성한다. 그리고 중간 천국의 영적 천사들(spiritual angels)은 가장 낮은 천국의 영적-자연적 천사들(spiritual-natural angels)과 함께 영적 왕국(spiritual kingdom)을 형성하고 있다. 천국이 이런 두 겹으로 각각 구분지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육을 입으실 때까지 실지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두 왕국으로 천국이 구분되는 모습이 사울로 개시된 이스라엘 왕국이 르호보암의 통치 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왕국으로 나뉜 형상으로 예징화되었다. 이런 두 왕국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나뉜 것은 가나안 땅의 분할에 근원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모두 섭리적이다. 이 왕국은 본래 하나였는데 둘로 찢어졌다. 그 땅 역시 하나였는데 세 구역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최하위의 형상까지 둘로 나뉜 것은 천국에 있는 것의 모형(pattern)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에집트에서 귀환하시는 구세주는 운반되어지되 유다가 아니라 “갈릴래아의 영역”으로 운반된 이유 역시 이제 명백해질 것이다. 그분까지도, 그분 자신의 영화하시는 과정에서 보다 높은 수준 그리고 최고 높은 수준까지 영화하심이 도달되기 전 보다 낮은 상태를 통과하셔야만 했다. 주님께서

는 그분 자신에 속한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질서대로 이루어 가셨다. 물론 그분의 진보는 여느 인간보다 더 빠르게 되어 갔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여느 사람이 밟아야 할 질서를 따라 진전을 이룩하셨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로는 짐작할 수 없듯 그분께서 겸손하셨던 것도 그 얼마나 위대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말씀에서 밝히 알게 하시듯 교회의 선과 진리로 훈육하시길 바래시는 그분은 가장 낮은 지점에서 시작하지 않는 것을 경멸하신다. 우리는 그분께서 최하위의 위치에서 기꺼이 시작하시는 본보기를 숙지해서 각자가 달성하게 될 최고 수준이 무엇이든 질서적인 단계를 통해 승강되어야 하리라.

23. 요셉을 갈릴래아에 가도록 하신 신성한 의도의 증거 외에 나자렛 성읍으로 섭리적으로 인도되고 있다. “그는 나자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그를 나자렛 사람이라 부르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거기에 거주하셔서 예언서에서 언급된 것, 그분이 나자렛 사람이라 불리리라고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예언서에는 이런 예언이 없고, 동네 이름도 없고, 물론 여느 성읍의 출신이라고 표현한 용어도 없는 바 구약 성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성읍의 이름이 근원된 어원을 추적하면 그것은 “경멸된 사람”을 의미하는 바 복음서 기자가 “그분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거절되었다”는 서술같이 그분의 경멸당하심에 관련된 예언들을 일반적으로 암시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추측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참고 구절이 나지르인에 관계된 구약성서 부분이라고 가정하는게 더 타당할 것이라 보인다. 어쨌든 예언서에서 그렇게 불리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예언서의 이름이 예언적 책을 쓴 이들에 한정된게 아니라는 것이다. 본문의 문단 자체는 예언적이지 않고 이 예언이 복음서에서 띄운 특별한 모양새는 더더욱 예언적 스타일이 아니다. 자주 우리가 말해온 바대로 말씀의 역사적 부분도 예언적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가 표본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유대주의적인 나지르인의 품성 중 어떤 것도 입으신 적이 없다는 주장에 어떤 언급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분은 예언자들이 입은 털옷도, 왕의 도포도, 사제의 예복도, 어떤 것도 입으시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분은 이런 각종 직능을 완수하신 분이셨다. 그분은 그런 것을 영적으로 완수하셨다. 영적으로 완수하지 않으셨다면 나지르인임을 구별짓게 하는 어떤 외적 형태도 없이 진짜 나지르인이 되실 수 있을까? 영감된 복음서 기자가 암시한 듯 여겨지는 단원은 삼손과 사무엘과 관련된 것이다.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말했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낱겨든 그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말라.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다” (판관기 13:5). 한나의 기도에는 제 아들을 나지르인이라 부르겠다고 직접 서약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녀의 서약이 나지르인의 법도를 포함하고 있다. “저는 그 아이를 야훼께 바치겠습니다. 평생 그의 머리를 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1). 용어 나지르는 분리(separation)라는 뜻이다. 나지르인은 자신을 분리해서 주님께 바쳐야 하고 포도나무에서 비롯된 모든 산물, 선포도에서 술지게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하게 되어있다. 그는 시체가 있는 곳에 가도 안된다. 그는 부모가 죽어도 그리로 가서 부정을 타면 안된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은 자라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 (민수기 6장). 주님이 나자렛 사람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까지도 그분이 나자렛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읍의 이름을 따라 불리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분은 나지르인이셨다. 참으로 그분 외 다른 나지르인들은 그분의 모형이 되어 주었다. 이런 바탕에 국한해서 나지르인의 법도가 표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그분이 나자렛 성읍에 거하신 이유가 예언의 성취만을 위해서라거나, 예언과 그 성취가 그분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려는 목적 외 더 없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 더 일관되고 확실한 것은 이런 그분의 주변 여건은 그분의 내적 삶의 역사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 거기에도 존엄과 영성이 있다는 것, 이는 우리 자신의 완전한 모형이 된다는 것, 등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본다. 이런 사항 중 어떤 것은 그분이 나자렛으로 가신 것에서, 그분이 나자렛 사람이라 불린 것에서 배워질 수 있을는지 모른다. 비록 이 성읍이 나지르인의 법도와 역사적 연결은 없는 듯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자렛에 거하시고 그 성읍의 이름을 본따서 불린 것 등은 마치 그분이 나지르인이라는 말과 동등하도록 의도된 것처럼 여기게 하고 있다. 주님은 모태로부터 나지르인이셨다. 그분은 거룩하고, 더럽혀져 있지 않았고 죄인들과는 분리되어 있었다. 나지르인이 제공되어졌고 주어졌고 주님께 헌납되었던 것이다. 자연적 나지르인이 실습해야 했던 모든 사항이 그분에게서는 영적으로 성취되었다. 나지르인은 천적 인간(a celestial man)을 표현했고 주님은 천적 인간의 원형(the celestial Man)이 되신 것이다. 천적 인간은 사랑으로부터 행동하는 것이다. 그분께서 구속이라는 일을 펼친 원리는 인류를 사랑하심이었다. 나지르인들로 하여금 포도나무 열매라면 어떤 것과도 접촉이 금해진 이유는 포도나무가 영적 원리를 상징하기 때문이었다. 나지르인은 시험을 참고 견디며 자아부정을 실행해 가는 천적 인간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나지르인 또는

나자렛 사람은 시험받고 굴욕받는 시절의 주님을 표현했다. 따라서 “그를 나자렛 사람이라 부르리라”는 예언은 이 얼마나 참된 표현인지! 그분의 구속하시는 권능이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명백히 모습을 드러낸 것도 나자렛 사람이라 불릴 때였다. “그분은 사랑과 동정심에서 인간을 구속하셨다.” 그럼에도 사랑은 지혜를 수단으로 했고 선은 진리를 수단으로 삼으시어 악을 정복해 가셨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사랑은 최말단 형체 안에서, 최하위의 질서에 있는 진리를 수단으로 삼으시어 극복하셨다. 단지 말씀이 되셨던 것만이 아니다. 말씀이 육이 되시어 지옥의 지배로부터 구속하는 권능을 가지셨다. 최하위 급의 진리, 즉 말씀의 글자가 지닌 진리, 최 말단 형체로의 인간성 즉 주님이 입으신 것 같은 인성이 삼손의 머리털로 표현되었고 이 머리털에 위대한 힘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무한한 사랑과 진리조차도 세상에서 입을 수 있는 최 말단의 것이 없이는 지옥과 악에 대항할 힘을 가질 수 없었다. 이런 사항이 삼손의 사건, 즉 그의 긴 머리털이 잘리었을 때 힘을 전혀 쓰지 못한 사실을 가지고 표본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그럼에도 나지르인이 제 머리를 깎도록 허용되는 시기도 있다. 그리고 제 서약으로 묶여진 사항의 준수에 모든 다른 예식은 한쪽으로 밀쳐진다. 서약한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나지르인의 법도는 중단된다. 그러면 그는 제 머리를 깎고 깎인 머리털은 친교제의 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에 태우면 평범한 생활로 되돌아간다. 우리 주님 역시 이러했다. 그분께서 인간 구속을 정복하셨을 때 그분은 어머니로부터 입은 인성을 벗어나고 아버지로부터 온 인성을 입으시고 오시기 전에 계셨던 곳으로 되돌아가셨다. 그분은 모태로부터 나지르인이셨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시어 그분의 나지르인 신분은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그분은 이전 같이 되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분이 어머니로부터의 인성을 벗으셨다해도 최말단 수준의 인간이시기를 중단한게 아니었다. 그 이유가 비록 그분이 물질적인 것(materiality)을 벗으셨다해도 과거 그것이 차지했던 수준까지의 인성도 영화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지르인의 머리털은 잘리울 때 하찮은 쓰레기가 아니라 제단의 불에서 살라졌던 것이다. 그 머리털이 총체적으로 살라지면서 그 속의 덕행, 머리털로 획득된 덕행이 보존되고 하느님께 봉헌되어 진다. 그리고 사랑의 불로 제련함으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회복되는 표시인 제물로 된다.

주님이 나지르인이시다는 위와 같은 드높은 의미가 이해되어진다면 거기에서 굴욕(humiliation)에 관한 생각을 제외시킬 필요는 없게 된다. 그분의 나지르인 신분은 굴욕의

시기이면서도 권능의 시기이기도 했다. 그 이유가 주님의 상태는 이런 점에서 우리의 것과 비슷해서 그분의 약함은 그분의 강함이었다. 인간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느끼어 겸손해 있다면 신성은 더욱 그 사람 안에서 드높여지고 그 권능도 그만큼 거기에서 힘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선포해두셨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일을 하신다.” 세상 어느 인간이 이보다 더 큰 부끄러움을 표현했을까? 그분은 인간처럼 자신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위 인용구절 같은 인정(acknowledgment)은 어느 인간이 느꼈던 것보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한 부끄러움이 표현되고 있다. 그분은 실로 그분 자신의 “인간 아닌 것, 벌레”라는 수준이었다. 그분의 겸허는 겸허 자체였다. 우리의 겸허는 비교해 보건대 이름뿐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런 측면에서도 그분은 우리의 본보기이시다. 그분의 수치스러움은 그분의 드높이심이 더 높은 만큼 우리 것보다 더 낮다. 그분은 참 나자렛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참 나지르인이셨다. 우리는 최선의 것이 최악의 것을 획득하셨을 당시의 주님시대에서 평가되어졌던 나자렛 사람에 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우수함의 모형이신 그분 자신조차 경멸되어 졌다. 이제부터 구세주는 은둔된 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열 두 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곳의 학자들과 앉아 계셨었다는 기록 외 어떤 기록도 존재않는 오랫동안 나지르인의 신분으로, 세상과 분리되어 하느님께 바쳐졌다. 참으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성장 시절이 그분이 정작 수행하셔야 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도 없이 세월만 채우셨다고 상상해선 안되리라. 우리가 아는 바, 그분의 일은 본질적으로 영적이고 인간 눈의 시야를 초월하는 장엄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분의 삶은 본질적으로 내향의 삶이셨고, 그분의 일은 본질적으로 내향의 일들, 즉 시험과 승리하심, 그분의 상태 변화는 천사라 해도 대단히 희미하게만 직감할 수밖에 없다. 나자렛은 주님께서 그분의 방대한 역사 중 일부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일컫켜 세운 나지르인들에 의해 어렵듯이 내비치신 극히 작은 광경이었다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리라.

3

세례자 요한의 선교를 기독교의 실제의 시작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기독교 역사의 획기적 사건임은 틀림없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아기 구세주가 탄생한 베들레헬을 다녀간 이래 삼십 년이 지나갔다.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온다. 주의 길을 닦는 수단으로 회개하라고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 이제 율법의 가장 큰 선생, 가장 큰 본보기이신 주님이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일을 끝내기 위해, 또는 신성한 사랑이 하도록 자극된 일을 마무리 지으시기 위해 이제 막 출현하고 있으시다.

1. “그 무렵에 ...” 앞장이 끝나는 사건과 본 장이 시작되는 사건 사이에 어떤 연결이 없다. 그러나 때(time)는 영적으로 보면 상태(state)를 뜻한다. 그래서 세례자요한이 나타난 그 무렵이 암시하는 상태란 유대교회속에 있는 사람들, 또는 요한이 설교한 장소로 묘사되고 있다.

세례자요한은 주님에 앞서 온 자로서 개인적으로나 표현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직능을 성취했다. 예언서 마지막 책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야훼가 나타날 날, 그 무서운 날을 앞두고 내가 틀림없이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어른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어른들에게 돌려 화목하게 하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세상을 모조리 쳐부수지 아니 하리라.” 요한은 엘리야였다. 그래서 그는 회개의 세례를 집행함으로써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시기전 그들이 준비되게 했다. 이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주님의 현존은 유대 온 백성, 아마 온 인류가 저주로 짓이겨졌을 것이다. 비록 회개가 글자대로 100%결과한다고 가정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세례에 의해 개인적으로 순수해진 것은 아니다. 세례는 표현적으로 행동된 것이다. 유대교회는 하나의 표본적 교회로서 그들 삶에 의해서가 아닌 예배의 상응에 의해 천국과 연결되어 있었다. 세례자가 물로 세례를 베풀어 회개토록 한 것은 끊어진 연결고리를 잇기 위한 것이었다. 이 수단으로써 주님은 그들을 멸하심 없이 그들 사이에 오실 수 있으셨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요한의 표현적 특성과 세례의 의미를 잘 생각해봄으로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다.

다시 말해서 육이 되신것, 또는 영원한 지혜가 인간 본성으로 옷입으신 것이다. 인간이 주님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해 주는 수단이 씌어 있는 말씀 자체인데 이것이 요한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요한은 세례자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세례가 영적 순수함을 상징하는 예식이기 때문이다. 회개처럼 세례는 심정이 주님의 오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요한이 등장했던 시대는 주님의 강림 때의 교회의 상태이고, 이 교회의 상태가 유대광야로 묘사되어 있다. 이 교회는 광야같은 모습이었다. 광야로 표현된 말에는 그 당시 유대교회의 조건에 어떤 다른 생각도 가질 필요가 없게 해준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광야라는 마음상태, 이 상태를 생산해내고 구성해주는 요소는 무엇일까? 선함과 진리, 이타애와 믿음이 결여되거나 심히 부족할 때의 교회가 광야이다. 이타애와 믿음이 하나됨은 모든 아름다움과 결실의 근원이다. 이 하나됨이 불완전할 때 영적 생명은 초취해진다. 이 결합이 분해될 때 생명은 끊어진다. 이 생명없이 천국과 교회속의 모든 것은 쇠퇴하고 소멸된다. 요한이 유대에 있는 광야에 출현함이란, 어떤 생산도 없는 황량함이 교회의 중심에 침입하여 내적 생명을 무용지물이 되게 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쓸모 없는 광야에서 신성한 특사의 소리가 있어 인간 후손들에게 설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황량한 상태에서 영원한 진리의 소리가 들려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증거 없는 그분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나 교인이 과거 예언자가 끊어졌던 유대교회 상태와 비슷하게 자신들을 유인해버리고 말았을 때 조차에서도 신성한 섭리는 위기가 오는 것을 허용하시고, 이때 한 소리가 구원의 날을 새로이 선포한다. 본문에 있는 세례자의 설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타락하는 인간의 마음이 광야이고, 모든 각 사람 안에서 말씀은 설교하러 온다. 모든 마음속에서 신성한 자비를 들을 귀가 남아있게, 이해할 심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게 설비하시고 이 아껴두신 것들에 신성한 말씀의 가르침이 떨어져 영원한 것들에 흥미를 가지도록 일깨워 주게된다.

2. 우리의 흥미가 영원한 삶의 실제성에 눈을 뜨고 있다고 가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확실한 설교자가 우리에게 외치는 우리의 의무에 경청해보아야 하리라. 기독교, 이 교회가 처음에 세상에 전도될 때, 그리고 지금도 계시된 말씀이 비기독교인에게 전도될 때, 이 종교는

단 하나의 단어 “회개하라”로 표현되고 있다. 회개는 인간마음에서 종교의 시작이요, 세상에서 교회의 시작이기도 하다. 회개는 문이고, 이를 통해 영혼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고, 넓은 길로 인도되는 길목에서 좁은 길로 인도하며,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 너머로 우리를 옮겨 준다. 사실 회개는 마음이 실지로 전환하는 것, 마음속의 모든 자질과 능력들, 그 목적과 활동들이 아래쪽코스로 향해 있던 데서 위쪽으로 방향을 온통 바뀌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세상과 자아로 아주 쉽게 기울고 있는 인간이 회개로 천국과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지는 것이다. 회개는 수단을 사용하는데 있어 목적과 인내라는 양면에서의 헌신을 요구한다. 회개의 참본질은 악은 하나님께 반대되는 죄로 알고 끊으라는 것이다. 죄를 이와같이 알지 않으면 회개는 존재할 수 없다. 악을 죄로 아는 느낌이 없으면 세상이 회개를 억제하려할 때 회개할 수 없게 된다. 아마 후회라던가 양심의 가책이라는 수준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회개하도록까지 분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떠맡긴 속박이 교회인들 위에 있고 종교가 떠맡긴 결속력은 양심 위에 있다.

설교자가 인간에게 회개를 부르짖으면서, 회개해야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가 가까이 왔는 것에 대한 의미를 굳이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님의 나라는 인간의 심정과 지성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라는 정부이다. 사랑과 지혜는 하늘나라를 구성한다. 그이유는 천국(하늘)은 상태에 속한 나라, 천국적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하늘나라는 주님의 오심으로 더 가까워졌다. 다시 말해 각 개인측면에서의 인간에게 더 가까웁게 가져다 놓으셨다. 그분의 유익한 일속에서 하늘나라가 공개되고 그분의 가르침에서 이 하늘나라가 선포되고 있다. 심판 역시 접근되었고, 이를 수단으로 지옥의 권능은 쇠퇴하고 하늘의 권능은 증가했다. 왜곡되어 장애물이 된 유대교라는 처방은 순수하게 진보하는 기독교로 이전되었다. 무엇보다도 그 속의 모든 역사가 완성되고, 주님의 인성이 영화 되시면서 인간마음을 작동하는 새힘과 영향력이 부여되고 있다. 모든 이런 사항, 그외 더 많은 사항들은 하늘나라를 납득할 수 있게 해주고 이 나라에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를 통해 들어오도록 부르고 계신다.

3.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자의 권위에 대해 요한복음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이 구절에 나타난 예언은 주님의 강림에 대한 예견 중 극치에 있는

구절 중 하나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너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너, 예루살렘아. 힘껏 외쳐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질러라. 유다의 모든 도시에 알려라. 너희의 하느님께서 저기 오신다. 주 야훼께서 저기 권능을 떨치시며 오신다”(이사야 40:3,9). 요한이 외칠수 있는 자격을 위 구절이 취급하고 있는 바, 요한의말을 듣는 사람들은 요한이 길을 준비하는 특정인의 인격 역시 위 구절을 참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 특정한 분은 여호와 이셨다. 예수님의 인격속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들 하느님을 보도록 불리고 있다. 본문이 위치한 단원에서 요한은 여호와란 이름을 주님이란 이름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불리는 상황은 신약에서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데, 주님으로서의 예수는 육을 입은 여호와를 말한다. 만일 그분이 신성만이라면 어떻게든 존재될 수 없다. 그이유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도, 구세주도 없기 때문이다. 이분만이 세례자요한에 앞서 계셨던 참 존재이시다. 따라서 요한은 자기의 높은 직분이 있게 된 연유를 고대 예언에서 추켜들었다. 요한이 표현해주는 특성을 꼼꼼히 생각해보려면 우리는 발체한 위의 구절을 잘 음미해야 한다. 계시된 말씀만이 주님의 오심과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도록 선포하기에 가장 적절한 소리이다. 마찬가지로 주님에 관한 모든 지식도 계시된 말씀에서만 발견될 수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기 말 가운데 메시아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먼저 청중자들로 자기에 관해 언급한 가장 크고 명백한 예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면서 여호와, 자기들의 구속자의 인격 가운데서 자기를 밝히 알게하고 있다. 이 소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 그 길이 곧도록 우리에게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 소리는 우리 속의 두 가지 특성에 관련하여 외치고 있다. 이 특성들은 주님이 우리마음에 들어가시는 길이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길이기도 하다. 의지 속에서 악을 끊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만든다. 이해성 속에서 잘못들을 거절하고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길을 고르게 한다.

4. 이제 우리는 요한 자신에 관한 그림을 가지게 되고 더불어 그가 표현하는 특성까지 이 구절에서 알게 된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요한이 입은 것은 예언자의 겹 옷(garment)인데, 그이유가 “털옷(hairy garment)”은 예언자적 직능을 표시하는 배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털옷과 가죽띠는 엘리야가 입었던 것으로 특별히 언급되는데(열왕기하1:8), 그의 영과 권능이 세례자요한을 통해 출현했다. 요한이 이렇게 출현한 것은 엘리야가 말씀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말씀의

글자의미는 영적의미를 옷입히고 있는바, 이것이 예언자가 입은 겔옷에 의해 특별하게 표현된다.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는 것은 영적의미와 글자의미 사이를 연결하는 끈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말씀의 글자와 영적의미는 마치 자연계와 영계, 또는 영혼과 몸과도 같이 공통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둘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존재한다. 이 둘을 하나로 연결하는 끈이 무엇일까? 이는 흥미있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진정한 대답은 심오한 신학, 뿐만 아니라 철학적 진리를 공급해주게 된다. 말씀의 글자와 영적의미, 몸과 영혼, 자연계와 영계, 모두는 상응(correspondence)을 수단으로 하나되어 있다. 상응은 영적 원인과 그 원인의 결과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적 관련이다. 이 상응이 말씀의 영적의미와 자연적의미를 하나되게 하는 “띠”인 것이다. 말씀의 글자의미속에 있는 진정한 진리가 요한의 “허리띠”가 지닌 의미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진리들로부터 교리가 파생되어지고, 말씀의 가상적인 진리들이 설명되어진다. 영적의미는 순수한 진리 가운데 있는 이들만이 밝히 알 수 있는 의미이다.

요한의 겔옷은 낙타 털 옷이었다. 그 이유는 땅위에 사는 낙타는 마치 바다에 사는 고래같이 말씀의 글자에 표현되어지는 일반적인 종류에 속하는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낙타에 관한 위와 같은 상징적 특성에 관해 알 수 있는 성경부분은 주님이 말하신 구절에서이다. 즉 “낙타는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다.” 이는 성경의 글자만을 고집하는 사람(literalist)은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주님에 앞서 온 자, 요한에 관한 묘사에는 또다른 흥미있는 사항이 있다. 그가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는 점이다. 평범하게 생각하면 그가 광야에서 살았으니 먹을것이라곤 고작 그것 뿐일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영적의미로 살핀다면 광야는 사막 같은 상태의 교회를 표현하는바, 요한에게 양식으로 제공된 메뚜기와 들꿀은 그런 교회가 교회속의 자녀들에게 공급한 영적양식을 표현한 것이 된다.

메뚜기는 “거룩한 백성”(레위기 11:22)에게 먹도록 허용한 날개 달린 동물 중 가장 하급에 속하는 창조물이다. 그러므로 이는 지성을 위한 양식으로 공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꿀은 그것의 단맛으로부터 영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말씀은 내입에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다.” 들꿀일 경우, 이는 자연적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요한의 음식은 그 당시 교회에서 공급된 영혼의 양식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아주 수준이 낮은 것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례자요한이 광야에 출현되었을 때,

그는 옛날의 예언자들처럼 유다 백성에게 어떤 징조가 되었다. 그의 거주지, 의복, 음식, 그가 말한 상징적 언어, 모두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친숙해진 것들이요, 이런것들이 유대인들의 교회상태이다. 이런 상징적 표현은 모든 세대에 있는 마음이 어리석은 이들에게 말하고 있다. 요한이 육욕적인 유대인으로 하여금 분발하게 하려고 왔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일깨워 주시려 꾸준히 애쓰신다.

5. 요한의 설교는 매우 효력이 커서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다 각 지방과 요르단 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갔다.” 위의 구절은 글자대로 엄격하게 생각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된다. 그이유가 요한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인구가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단정짓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과장법은 내적 의미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예루살렘은 교회나 사람 안의 영적 원리를, 유다는 천적 원리를, 요르단은 자연적 원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5절에서의 “다, 모두”란 영적 진리, 선, 그리고 순종에 관한 것들이 요한에게로 갔다는 것, 또는 회개하라는 신성한 말씀의 소리에 순종했다는 것, 그래서 아직 전환되지 못했던 상태들이 새 생명과 빛의 어떤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다시 말해 가르침을 얻고자 신성한 말씀으로 감, 가까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며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그 나라에 들어 갈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기 위해 나아갔다는 말이다.

6. 요한에게 나온 군중들은 그를 통해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관해 가르쳐진 후, 그들은 세례를 표시로 삼아 요한안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굳혀 두었다. 그들은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 초보적인 예식으로서의 세례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기서 많이 언급할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 씻는 것(washing)은 이스라엘교회에도 존재했었다. 여타 축제에서와 같이 씻는 것은 표현적 교회인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고대로부터 이후 깨끗이 함(lustration)은 유대인과 동시대에 해당되는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예식으로 자리 잡혀갔다. 지적 처방(Noetic dispensation)을 형성한 이들로부터 내려와, 유대인들의 견해가 어떤 근원에 두고 있었던 간에 그들은 메시아의 강림은 세례를 수단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이해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한복음 1장25절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 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 이에 대해서는 주님의 재림에 앞서 온 자로부터 배울수 있다. 이스라엘 교회의 모든 예식은 기독교의 두 가지

성결 예식으로 모아졌다. 씻음에 관한 모든 예식은 세례식에, 모든 축제는 성찬식으로 집합되었다.

요한의 세례는 두 개의 구분되는 용도가 있다. 하나는 말라기 4장 5,6절에서 선포된 것, 즉 엘리야가 오는 것은 주님께서 저주로 지상을 부수시는데서 방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유대인 사이에 오시되 그들에게 어떤 징조도 없이, 세례라는 성결로 그들을 봉인해둠도 없이, 천국을 연결하는 수단도 준비해둠 없이, 그리고 그들을 천국의 기운으로 보호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오셨다면 그분의 현존은 그들을 불 살려 버렸을 것이다. 아마 지상으로 의미되는 교회는 일찌감치 멸망해서 새로운 처방이 시작될 수 있는 어떤 그루터기(remain)도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세례의 둘째 용도는 순수해짐을 표현했다. 물은 진리에 대한 상징이다. 세례는 사악함에서 심정을 깨끗케한다는 표시이다. 요르단 강에서 실시된 요한의 세례에는 위 예식의 의미에 더 추가된게 있다. 요르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후손들은 가나안에 진입했다. 가나안이 교회나 천국의 한 가지 형태이듯, 요르단 강에서의 세례는 순수해짐을 통해 우리가 교회와 천국으로 건너간다는 표시였다. 이런 생명 있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옷입는다. 그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너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매장되었다가 그분과 더불어 일어난다.

7. 참회를 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많은 무리 외에도 거기에는 무가치한 동기에서 세례를 받고자 서성거린 자들도 끼어있었다. “많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독사의 족속들이!’” 이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세례를 받지말라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속셈은 어찌됐든 세례를 받아두면 밀질게 없잖느냐라는 계산에서 나온 부류들이었다. 이 두 계층은 신약성서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들이 이 구절에서 처음 거론되는 바, 약간의 언급은 이해에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는 유대교회에 있는 예식주의자와 합리주의자들이다. 바리사이파인도 성경을 추켜드는 자들이었지만, 그들 선조인 원로들이 종교상의 문제로 덧붙여 놓은 예식에 따른 각종 규정까지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들이었다. 그 반면 사두가이파는 모든 전통은 거절하면서 씌어진 법을 엄격하게 고수하였던바, 그들은 엄격한 해석을 위해 천사와 영들의 존재, 영혼의 불멸을 부정하였다. 그래서 바리사이파는 경건을 주 무기로, 사두가이파는 교회의 철학적 사항을 주 무기로 내놓는 자들이었다.

이들이 지닌 체계나 속성이 표현한 것을 살피게 되면 자연적 인간속의 의지와 이해성, 또는 아직 전환되지 않는 자연적 인간, 지적 자량과 자아 공적으로 싸여 있는 인간 속성을 보는데 절대 실패 않을 것이라 본다.

요한은 이 두 계층을 독사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부른 것은 그들이 독사여서가 아니라 독사와 상응되기 때문이었다. 뱀에 속하는 모든 것은 인간 본성 중 감각적 부분이 체현된 것이다. 엄격하게 구분하여 근원적으로 볼 때 뱀 종류는 매우 좋은 것이었다. 그러나 감각적 부분이 인간의 타락을 성사시켰을 때, 그것은 아래로만 치닫게 되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땅이 자기 음식물이 되었다. 순진을 보호했어야 할 감각적 지혜가 순진의 파괴자가 된 이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 부술 때만이, 인간 심정안에서의 뱀의 일과 능력이 약화된다. 머리로서의 뱀의 상징성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로 우리 앞에서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다. 이런 상태는 전환이 전혀 없는자, 지독하게 욕욕적인 마음, 감각적일뿐인 마음의 상태들이다. 이것이 늪은 뱀이요, 이 뱀이 악마와 사탄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것들로부터 자아와 세상만을 계속 추구하는 독사의 족속이 생산되는 것이다.

요한은 위 두 계층에게 이렇게 다그친다. “닥쳐 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이는 최악의 결과에 대한 질문이고, 닥쳐올 징벌을 피하고자 원하는 모든이들이 자신에게 물어 볼 말이다. 위의 사람들이 피하려하는 징벌이란 무엇일까? 아마 그들은 하느님의 진노라고 이해했었을 것이고, 많은 기독교인의 경우에도 그렇게 이해하기도 한다. 하느님의 진노는 성경 많은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상의 언어일 뿐이다. 실상의 언어로 말한다면 하느님에게는 진노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죄인을 덮치는 진노는 존재한다. 마치 하느님 스스로 성내신 듯 확실히 여겨질 정도로 진노는 존재한다. 진노는 모든 악한 사랑안에서 뿜뿜하며 존재한다.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사는 모든이들은 미래의 고통의 불을 자기 가슴속에 품고 있다. 이것이 장차 올 징벌이다. 이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그들에게 경고했을까? 하느님 또는 당신 스스로, 말씀 또는 세상이 죄를 슬퍼하도록, 또는 처벌을 두려워하도록 했을까? 당신을 설득한 생각은 무엇일까? 그리고 당신을 멀어붙인 동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양심을 통해 말하시는 하느님의 소리일까? 또는 당신의 이해관계를 통해 말하는 세상의 소리였을까? 이런 등등의 질문들이 요한의 질문에 포함된 실제의 요구사항이다.

8. 질문을 던진 요한은 우리가 진정한 답을 줄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해 테스트를 하고 있다.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우리에게 닥칠 징벌을 피해보고 싶다고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길은 회개를 통해 있어진다. 심정 속의 목적은 삶을 수정함으로 자신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우리의 목적이 하느님에 속해 있다면 자아 부정을 수단으로 일을 수행하는데 결코 빛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회개를 만나는 작업이다. “악행을 중단하는 것”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아주 큰 첫 번째 가는 일이다. 이 일이 사전에 수행되지 않는 이상 어떤 진정한 거룩함도 존재될리 만무하다. 미워함이나 악을 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을 행하고 경건해야하는 것은 회칠해서 곱게 단장한 무덤이다. 악을 단념하는 것은 소극적인 미덕에 불과하다. 그렇긴해도 이 소극적 태도는 적극적 태도에 기초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십계명의 조항중 여덟개는 금지 조항들이다. 도적질 말라, 거짓 증거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신성한 지혜가 우리에게 정직함, 신실함, 순수함을 가르치는 형체들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라’는 명령을 실천함이 회개를 행실로 보이는 길이다.

9. 말씀이 위와같이 실체를 요구하는 반면, 우리는 유전적이고 명목뿐인 종교에 기울려하는 경향성이 있다. 유대인들은 충직한 후손, 한 마디로 약속의 후손들인체 했다. 신성한 진리는 헛된 확신에 대항하여 말씀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말은 아예 할 생각도 말아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육에 의거한 후손들이지만, 영에 의거한 후손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친척에 불과하다. 본문이후의 복음서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들 아버지라고 떠벌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아버지는 악마였다고, 악마의 행실을 그들이 계속하고 있다고 견책하셨다. 요한이 증거를 보이라고 경고한 것, 그들이 해야 할 종교적 의무를 다그쳐 물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유전적 관계들이다. 두 계층들 속에 있었던 똑같은 악이 오늘날 명함만 바꾼채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지는 요한의 견책은 무엇일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실 수 있는데,” 명목뿐인 종교에 어떤 미덕이, 어떤 좋은 것이 존재 가능하단 말인가? 우리는 위 구절에 대한 자연적 가능성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우리의 관심사는 영적 교훈에 있기 때문이다.

돌들은 진리에 대한 표본이다. 사도들은 교인을 두고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말한다.

교인들은 목자이시오 이스라엘의 돌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진정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고 하신 돌들, 즉 유대인들은 살아있는게 아닌 죽은 돌, 생명없는 진리였다. 그이유가 사랑과 선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명목뿐인 교인도 진리에 관한 지식부분은 일으켜 질 수 있다. 진정한 교인은 진리를 사랑하고 실제 사용함으로부터만 일으켜 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만드실 수 있는 돌들에는 하나의 처방으로 표현적인 수준에서의 유대교회내에 있는 각종 예식과 규례도 해당된다. 십계명이라는 법이 돌판 위에 씌어진 것은 유대교회에서 신성한 질서와 정의는 오로지 그들의 바깥쪽 측면에서만 감동될 것임을 표현해 놓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만드시는 새 언약을 취급하는 구절에서, “그날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맺을 계약이란 그들의 심정에 새겨줄 내 법을 말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준다. 그 마음에 내 법을 새겨 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예레미야 31:33).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켜 써 보내신 소개장입니다. 이 소개장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고린도후3:3).

10. 죽은 뿌리로부터는 어떤 영적인 것, 유용한 것이 자라날 수 없는 바, 이것들은 일시적 상태 그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 그래서 요한은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다. 유대주의는 그 뿌리까지 잘려져 나갔다. 성취될 것같이 생각하던 그들의 희망들은 뿌리까지 뒤엎어져 있다는 것만 발견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것이 유대교회 위에 내려진 신성한 진리의 판결문이다. 그리고 열매 없는 나무로 버섯이 서 있는 만민에게 내려지는 그분의 판결이기도 하다. 위의 구별에 대한 교훈은 우리를 위해 위의 설명 외에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의 동기는 뿌리요, 이 뿌리에서 행동이 튀어나온다. 기독교는 뿌리에 도끼가 언제나 놓여있다. 그이유가 주님의 법은 우리의 행동을 통제 해주고, 더불어 우리 속의 동기를 지도해줄 원리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목적을 벗어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잘려져야만 한다. 우리의 이기심은 우리생명의 첫 뿌리를 구성한다. 이 뿌리를 근절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자라날 인간나무는 어떤 종류가 될까? 자기 뿌리를 구성한 악들이 영혼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 뿌리가 자기에게서 제거되기를 바라지 않으면, 그 인간의 악한 뿌리는 제거되지 않고 새 것 역시 악한 뿌리 대신 이식되어지지도 않는다. 어찌됐든 이기심은 악한 뿌리에 속해 있는바,

당사자가 그것가지고 기뻐하는 한, 그는 자기속의 악한 뿌리를 제거할 수 없다. 오로지 그것들을 미워하여 싸우는 만큼에서 가능할 뿐이다. 이 싸움에 요구되는 도구가 진리요, 이 진리가 도끼로 의미되고 있다. 싸움자체는 나무를 자르는 것에 해당된다. 잘린 후의 나무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

위의 두 가지 행동은 우리의 이해성과 의지에 관계되어 언급되는 말이다. 나무를 자르는 것은 이해성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고, 잘린 나무를 불에 던지는 것은 의지로부터 악을 제거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도끼와 불 역시 상징적인바, 도끼는 진리를, 불은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 사실 악의 제거가 결과 되는게 아니라 시험이 있게 되어 그 시험속에서 나무를 자르는 것은 지적인 노동 또는 지적측면에서 악에 대항하는 것이고, 잘린 나무를 불에 던짐은 의지안에서 악과 싸우는 것이다. 악한 원리는 이해성속에서 잘리우나 그것이 살라져 버리는 것은 의지 안에서이다. 믿음은 악한 원리를 굴복시키지만 사랑은 그것을 태워없낸다. 사랑과 열정의 상징으로 불이, 가장 심한 시련과 아주 완전하게 황폐해짐에 대한 상징으로 태워버린다는 말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한다. 몇군데를 인용해보자.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열정속에서 어둠의 권세와 주님의 싸움은 “불에 타 사라질 것이리라”(이사야 9:5). 그리고 갱생자로서 그분은 “대장간의 불길 같으셨다”(말라기 3:2). 그분은 “이세상에 불을 지르기위해 오셨다”(누가 12:49). “불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누가 3:16). 위에 인용된 모든 사항들은 시험의 맹렬한 불길을 통해 악의 뿌리를 제거하고 그 권세를 정복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요, 이런 과정을 통해 거룩함은 거룩치 못한 사랑을 제어한다.

11. 요한은 회개의 일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진정한 수단과 기능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를 수단으로 이 일이 수행되면 완성되어 마지막일은 처음의 일보다 더 큰 일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한의 세례는 개혁(reformation)을, 주님의 세례는 거듭남(regeneration)을 표현한다. 전자는 악을 제거함을, 후자는 선이 이식됨이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일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인간은 썩어진 말씀으로부터 악이 무엇인지를 배워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야만 한다. 그가 그렇게 하는 만큼에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는다. 요한의 세례는

외면으로부터, 주님의 세례는 내면으로부터 있게된다. 요한의 세례는 바깥쪽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님의 세례는 새로운 안쪽 생명을 호흡하게 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악행을 중단함으로 그분말씀의 가르침을 성실히 따르는 모든이에게 사랑과 불과 진리의 영으로 세례를 주신다. 따라서 두 번째 세례는 처음 세례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강한 힘이 요구되는 세례이다. 요한뒤에 오시는 분은 요한보다 훨씬 더 강하신바, “요한은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 선포하고 있다. 제아무리 수준이 낮은 사랑의 선이라해도 그 선은 제아무리 높다하는 회개의 선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점에 관해서는 다음절에서 더 살피게 되리라.

이 구절을 마치기전 점검해보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증언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등급에서 태어난것과 요한의 등급에서 태어난 것 사이에는 어떤 비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마태 11:11)라는 구절을 생각해본다면, 요한이 들고 다니지도 못한다는 그분의 신발을 누가 들 수 있을까? 주님의 등급은 요한자신의 말에서 묘사되고 있을런지 모른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신다”(요한 3:31). 사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앞서 계셨다. 그분은 요한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요한 1:15)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요한8:58). 모든 것 이전의 그분은 가장 높고 최초 되신다는 말 외에 더 다르게 말 할 수 없다.

12. 성령과 불로 베풀어지는 주님의 세례는 바깥측면을 통째로 깨끗케 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드시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린다.” 이 순수함은 요한의 세례로 표현되는 순수해짐과 구별된다. 그이유가 진리에는 선함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있고, 선함에서 파생되는 진리가 있듯, 먼저 있어지는 순수함이 있고, 이에 따라 있어지는 순수함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순종의 동기에서 있어지는 요한의 세례로 표현되고 있고, 후자는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내향적으로 깨끗하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두 번째의 순수함이 이 구절에서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리신다”이고, 이로써 선과 악이 완전하고도 마지막으로 분리가 되고 만다. 타작마당(the floor)이란 우리의 기억을 말하는데, 이 기능이 생각과 애정에 관해 획득된 것을 담는 그릇이다. 주님의 진리를 수단으로 분리가 결과된다. 곡식을 모아들이는 곳간이란 우리의 내적인 기억(inner memory)이고, 이곳은 우리의 목적과 원리들이 저장된 창고이다. 이

창고속의 각종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형성한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더불어 남아있게 된다. 쪽정이는 단일화와 순수화를 위해 꺼지지 않는 열정이라는 불로 태워지고 만다. 이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을 결코 심판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은 저 세계에서 심판되는 바, 그들은 쪽정이 같아서 불타고 있는 욕망의 불에 던져진다. 이 불은 결코 꺼질 수 없는 불이요, 그들 심정속에 이미 존재했던 불들이다.

13.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중 구세주 자신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없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를 떠나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셨다.” 이 구절로 미루어보아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갈릴래아에 거주해 오셨다. 세상적의미는 아닐지라도 지상에서 존재한 인간들의 삶 중 가장 중요한 삼 십년의 삶이 개인적 차원에서 지나갔다. 이제 그분은 세상의 구세주로, 인간의 위대한 선생으로, 율법의 가장 완전한 본보기로 나타남을 보이시고 있다. 최고높은 용도로 성별되는 삶에 진입하시기에 앞서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기위해 요르단강에 오셨다. 말씀이 육이 된 분으로서의 주님은 씌어진 말씀을 표현하는 요한에게 오셔서 공생애의 시작, 표현적인 예식을 요한의 손으로 받으시는 것이다. 그분이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오셨다는 것은 선으로부터 진리의 상태로 진보되어 선에 품질과 능력을 주는 것, 복증시키는 권세를 받는 것을 상징해놓은 것이다.

요한의 세례에 포함된 생각 중 제일가는 것은 순수함, 특별히 인간의 외적부분을 순수하게 하는 것이다. 이 순수함을 결과되게 해주는 것은 말씀속의 진리들이다. 이 말씀속의 진리가 요르단의 강물로 의미되고 있다. 이 진리들은 두 가지 방법에서 마음을 순수해지게 한다. 그것은 회개와 시험이다. 회개는 실지의 악, 즉 행동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고, 시험은 유전적인 악의 제거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인간이라는 모든 존재는 위 두 가지 악, 유전적인 악과 행동으로 빚어낸 죄라는 악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는바, 모든 이는 회개와 시험이라는 두 가지 수단이 요구된다. 이 관점에서 살필 때 주님과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바, 회개가 필요치 않았다.

14.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을 만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회개를 위한 세례가 필요없으셨기 때문이다. 비록 주님이 죄가 없으셔서 회개가 필요없다 할지라도 그분 속에는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악은 가지셨던바 시험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필수사항이었다. 순수해지는 수단을 표현해놓기 위해 예수께서

는 자기가 보낸 특사의 손으로 순수해짐을 상징하는 예식을 기꺼이 받으셨던 것이다. 요한은 세례주는 것을 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이 대목에서 이해하기에 곤란할는지 모를 한가지 특별한게 있다. 요한이 씌어진 말씀을 표현한다면 왜 요한은 예수님께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할터인데요”라고 말했을까? 하느님의 말씀이 불순해서 순수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일까? 말씀자체만 국한 시켜 생각한다면 그것은 순수하고 거룩할 뿐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유대교회안에 있게 되었을 때, 또는 아직 충분히 거듭나지 않은 모든이의 마음속에 있게 될 때, 그 말씀은 당사자나 교회로 인해 그 의미가 불순하게 놓여있고, 그들이 말씀을 가상적으로 끌어냄으로 인하여 악이 시인되는 잘못을 범해 많은 적든 불순해 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말씀을 뒤집고 더럽혔다. 이런 식은 작든 크든 아담의 모든 후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더럽혀진 것은 제거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말씀자체이신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더러움을 제거할 수 없었다. 육이 되심과 씌어진 말씀 사이에는 유사성이 존재한다. 주님은 그분 위에 인간본성을 입으셨다. 그러나 그 본성은 하느님의 손으로 되어진 깨끗하고 아름다운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망가트려진 본성이다. 망가트려진 상태만큼이 인간본성이 되었듯이 하느님의 말씀도 그렇게 되어버렸다. 교회 속의 사람 사이에 있는 부패된 것은 계시된 말씀 속의 진리에도 똑같은 수준을 지녀 썩은 말씀이 되어있었다. 마치 바리사이파인들이 자기들 전통을 핑계삼아 하느님의 계명을 아무 효과가 없게 한 것과 같다. 이런 뒤집힘을 통해 씌어진 말씀 속의 진리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 육을 입은 말씀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시험하는데 이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주님과 어둠의 권세는 말씀 속의 진리를 놓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여 다툰다. 마치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차지하려고 악마와 다투며 논쟁하는 것과 같다(유다1:9). 악령들은 뒤집기가 가능한 말씀, 즉 말씀의 글자에 있는 가상적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주님은 악마들이 결코 뒤집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진리, 순수한 진리들로 그들을 타도하셨다. 이 싸움들이 그분의 세례로 표현되는 주님의 시험들이었다. 한가지 시험이 끝날 때마다 주님은 그분의 인성이 지닌 결점이나 약함들을 벗으시고 신성의 완전함의 열마음을 입으셔서 결국 가장 말단의 사항에서까지 말씀이되시어 영원으로부터 첫 원리가 되어계셨듯이 그렇게 되셨던 것이다.

15.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주기를 굳이 사양하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 모든 정의의 요구 중 지극히 작은 것을 이루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정의를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다. 그분은 정의의 모든 법칙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렇게 됨으로 정의자체가 되시기 위해 오셨다. 이 작업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진리이다. 그분은 계명의 법을 완성시키는 것뿐 아니라,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법인 말씀 전체를 완성하시기위해 오셨다. 이 성취로 그분께서는 율법을 더 크게 확대한 가운데 볼 수 있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법이 존경받게도 하셨다.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 역시 어느정도라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이 정의가 되심으로 우리 역시 정의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 완성된 말씀이란 그분께서 그 법에 순종하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삶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통틀어 말씀전체를 그분 삶에 베껴 써놓으셨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그분은 말씀이 포함하는 영원한 모든 원리의 살아있는 형체가 되셨다. 이상의 모든 설명이 주님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에 담겨 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이 완성되기를 바라셨던 법은 형식적인 정의의 법밖에 안됨에도 그분이 그 법에 순종하신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형식적인 것뿐 아니라 실제적 수준의 법까지 완성하셨다는 것, 법속의 모든 예식절차는 영화하심과 구원이라는 그분의 일과 관계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한다.

16,17. 세례를 받으신 주님의 즉각적인 결과들은 그분의 세례가 표현한 시련으로부터 그분이 부활하실 때 달성하게 될 영광을 잠깐 비추이고 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홀연히 하늘이 열렸다.” 세례를 받으시러 물에 들어가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시는 모습은 사도들의 교회에서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인식되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12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느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세례는 매장과 부활을 상징한다고도 인식되었는데, 사실 이는 육체에 관계가 아니라 영혼에 관한 사항이다. 즉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이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심은 그분의 부활이 지닌 의미 처럼 영화하심을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 이 모습은 각 하나하나의 시험에 관계해서도 표현하는바, 물에서 올라오심은 시련으로부터 빠져나오셔서(emergenc

e) 새롭고 더 높은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심을 표현한다. 하늘이 열림은 홍수로부터 벗어난 축복된 결과, 이 홍수는 영혼을 침수시키지 못한다는 결과를 표현하고 있다. 영적 의미에서 내적인간속의 하늘이 열림이 여기서 의미되고 있다. 시험에 대한 세례의 목적은 외적인간으로부터 악을 제거하는 것, 외적인간이 순수해진 만큼에서 내적인간도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세상을 극복하는 정도만큼에서 우리에게 천국은 더 가까워진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험을 극복해낸 만큼에서 그분을 얼마나 따라 갔느냐도 가능될 것이다.

열린 천국을 통해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모양으로 당신위에 내려 오셨다.” 하느님의 영(the Spirit of God)은 인간마음위에 운행하는 하느님자신이다. 성경은 하느님으로부터 진행되어지는 영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 영이 공간의 세계에서 발달되려면 우리의 연약한 지성에 숙박할 수밖에 없다. 어디에나 계실수 있는 그분이 공간을 통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체적 감각을 넘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영의 모양과 움직임은 비유적 또는 표현적이다. 이 영이 본문에서 비둘기로서 나타나셨다. 그이유가 비둘기는 순수하고 거룩한 애정과 생각을 상징(emblem)하기 때문이다. 애정과 생각을 하느님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신성한 사랑과 지혜에 속한 것들이다. 온순한 동물들은 거듭나는 영혼의 온순함과 순수함에 대한 그림자를 형성하는바, 특별히 구세주의 인간본성위에 신성한 사랑과 진리가 내려옴으로 위의 내용을 상징해 놓고 있다.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영은 높은데서 보낸 날개달린 특사이고 이 특사는 시험을 주목하는 영혼에 평화의 소식을 가져다 준다.

비둘기가 내려온 것 외에 열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신성한 여느 인간처럼 생각하는 이들, 영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 같이 생각되는 이들이 위의 구절을 읽게 될 때 자연히 상상하는 것은 존재가 둘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한 존재는 하늘에, 또 다른 한 존재는 땅에 있는 듯,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선포하는 듯 여긴다. 소리는 귀와, 비둘기는 눈과 관계가 있듯, 신성에도 이와 같이 적합한 어떤 것으로 각색(adaptation)되어 있다. 신성은 모든 감각을 넘어 있는바, 이 신성한 감각적 이해력에 적합하게 하는 것(각색)이 있다. 주님스스로 선포하시기는 어느 인간도 아버지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적도 없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소리도 아버지 자신의 소리일 수가 없고, 비둘기 역시 하느님의 영 자신의 모양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두 가지 모두 표현적(representative)이었다. 즉 실재에 대한 표현물이라는 말이다. 이 실재(realities)들은 세속적으로 나타남이나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훨씬 넘어 있다. 위 두 가지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표현적 차원이다. 즉 시험의 늪에서 빠져나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고통을 통해 완전을 이루시는 인간(Man)으로서 신성한 사랑과 진리를 새로이 측량하신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주제를 살핀다해서 그리스도의 아들된 신분에 관한 교회를 무시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아들된 신분은 주님의 인성에 관해서만 서술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성 때문에 그분은 처녀에게서 태어나심으로 해서 하느님이 낳으신 아들(begotten Son of God)이라고 선포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인간본성만이 하느님의 영을 받으실 수 있었다. 이 영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모두 받으심으로 인성은 무한한 충만을 가지게 되었다. 무한히 충만해진다는 것은 신성일 것임에 틀림없다. 인성은 영화하시는 계속적인 행동에 의해 신성으로 만들어졌다. 인성이 충분히 영화되었을 때 예수는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영화하심으로 그분은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는 마치 인간이 거듭나는 것과 유사하다. 그 다음 예수는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이었다. 사랑에 거하는 그분이 하느님안에 거하고 있는바, 예수는 무한하게 더 사랑안에 거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한 사랑속의 무한한 지혜, 무한한 본질속의 무한한 형체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안에서 신성은 육체적으로 충만하게 거하신다. 자기의 참 생명과 영혼으로 아버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사랑의 생명과 지혜의 빛이 발산되도록 하느님의 영이 보내어진다. 한분 영화하신 인물(Person)안에 한 분 하느님이 영원히 있으시다.

4

우리는 앞장에서 예수님의 세례와 인간의 세례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 주님이 받으신 세례는 회개에 관련되지 않고 시험에 관련되고 있다는 특별한 점까지 지적해 보았다. 따라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분께서 그 예식이 표현하는 일종의 투쟁에 종사하셨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이 구절에서 한 가지 특별하게 우리 마음에 걸리는게 있다면, 주님께서 영(성령, Spirit)에 의해 시험에 인도되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 영은 바로 앞장의 경우 그분 위에 비둘기모양으로 내려왔던 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 두사항들 안에는 진보에 관한 법칙의 본보기가 놓여 있다. 위 구절의 경우 이스라엘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에로 시험받으러 나갔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울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어찌됐든 “하느님은 인간을 시험하지 않으시나 인간이 자신의 탐욕이나 유혹물에 끌려갈 때 시험받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과 위 사실에는 눈에 나타나는 불일치가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 비록 시험이 하느님의 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성령은 시험하지 않으나 시험을 경험하는 상태로 이끈다. 시험(Temptation)은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사이에 있어지는 영적 투쟁, 내향적 투쟁이다.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현존하면서 활동하는 곳은 마음속 외에는 더 다른 곳이 없다. 전향(회개)안된 인간인 자연적 인간은 영적인 선과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영원한 삶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바, 영적 시험에 관해 아는 것도 하나도 없다. 다시말해 자연적 인간에게는 시험이란게 없다는 말이다. 그는 자연적 애정의 충동에 자연스럽게 따르고 영원이란 생각에 방해받음도 없이 일시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내려와 그의 심정 안으로 들어가면 그의 거짓 평화는 우선 회저어 진다. 새로운 생명, 영원하고 영적인 삶이 그의 영혼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옛 생명, 자연적이고 일시적일 뿐인 옛 삶은 봉기하여 새 삶과의 싸움에 진입된다.

주님이 오셨다. 그러나 그분이 오신 것은 평화를 주시러 오신게 아니라 칼을 주시러 오신 것이다. 성령이 불을 밝혀 그 사람에 거하면 악마의 시험이 있도록 그를 광야로 인도한다. 이 싸움은 한번 불기 시작하면 연속된다. 물론 그 싸움에도 휴식기간이 없는 것은 아니되 자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섬길 때까지 싸움은 계속된다. 그리하여 승리가 오게되면 평화, 평화의 왕이 수여하는 평화를 받게된다. 이 평화는 세상(자연적 인간)이 줄 수 없는 평화요, 세상이 거두어 갈 수 없는 평화이다. 이상의 주제를 우리는 인간 경험을 수단으로 주님께 관련하여 설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들 모두가 시험 당하는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이다.

본문의 시기쯤해서 주님이 성령을 처음 영접하셨다든가, 그분이 처음 시험을 받으셨다든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된다. 이 사건은 주님의 생애와 그분의 경험들 중의 어떤 획기적인 시대에 해당된다는 것은 의심치 않는다. 이는 그분께서 영화하시는 진보에 있어서의 새로운 단계나 상태인 것이다. 본문시대까지 그분의 영화하심은 그분의 내적인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있어왔다. 이는 인간진보에 관한 법칙과도 같다. 즉 먼저 내적인 것이 거듭나고 후에 외적인 것이 거듭나는 순서이다. 지금까지의 주님의 생애는 내적측면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그분의 삶은 개인적측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에 있어졌던 그분의 삶의 기록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다시말해 내부에 속한 것은 말씀의 역사적 의미 즉 바깥쪽의 의미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그분의 영화하심은 보다 더 충만한 상태로 전진하고 있다. 다시말해 그분의 외적측면인 몸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 이유로 주님은 외적(형식적)세례를 받으셨고 그 세례를 상징화한 시험으로 진입하셨다. 그리고 공적생애로 드러내신바 기적을 행하시며 군중에게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 모든 것에 관한 기록이 복음서의 글자의미요 바깥 형체를 이루고 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화하시는 일은 마치 인간의 거듭나는 작업과도 같이 계속적이면서도 세 개로 크게 구분되는 등차를 통과하셨다. 우리는 이 세 등차를 자연적, 영적, 천적등차라 부른다. 이 등차를 복음서내의 사건에서 집어내어 설명해본다면, 주님의 세례, 변모하심, 부활이라는 세 사건이 대표할는지 모른다. 그리고 각 등차의 진보는 그분이 공생애 동안 가지셨던 예루살렘으로의 세 번의 여행이 표현해줄는지 모른다. 광야에서의 시험 역시 기록된 숫자로 보아 세 번 이었다. 주님의 이런 시험을 세 가지 건수(행동)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마 시험의 세 가지 종류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복음서를

역사적 차원에서 글자대로 엄격히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본문의 시험은 그분이 겪으신 모든 시험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계췌마니동산에서의 고뇌와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제외하면 복음서에 기록된 그분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본문뿐일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전 생애는 싸움과 승리의 하나 하나이셨다. 그분의 시험들은 그 시험이 실지로 발생한 그대로 묘사되어 기록되어 질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분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과는 달리 그분의 시험은 위의 몇 가지 예를 제외하면 인간이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분의 시험들이 낱낱이 신약성서에 기록되어 지지는 못했다해도 그 시험들은 구약성서에서 잘 묘사되어 있다. 말씀 속의 영적 의미가 인간 거듭남의 역사이듯 말씀 속의 천적의미는 주님의 영화하심의 기록인 것이다. 성서 모든 곳은 주님의 시험들이 그 주제가 되고 있고 계시록에서도 전쟁이나 싸움으로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성서 내 많은 부분들에서 주님의 시험에 관한 사항들이 글자를 통해 빛을 발하고 있고 시편서의 경우는 종종 공개적으로 밝히 알게 해주는 부분도 우리는 발견한다. 다윗이 주님의 한가지 타입으로 간주되는 대목에서 “다윗과 모든 그의 고뇌”는 주님과 그분의 모든 시험을 추적해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주님의 시험은 다양할 뿐아니라 무수하다. 그럼에도 그 모두는 세사지 종류로 집합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본 장의 주제인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 관한 명백한 생각은 주님의 시련과 승리의 쾌거까지 포함해서 그 사항들의 본성에 관한 개념을 어렵듯하나마 생각 속에 정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첫 절에서 소개된바와 같은 일반주제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약간 더 추가해보자. 광야란 시험에 관한 일반적 표현이다. 지옥의 공격이 감행되는 무대는 우리마음이 황폐된 부분 또는 상태요, 더불어 거듭남이 진행되는 곳도 같은 장소로서 이곳에서 “황무지의 장미꽃 같이” 짝이 터서 꽃을 피운다.

2. 주님의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이 이렇게 기술되고 있다. “사십주야를 단식하시오 나서 몹시 시장하셨다.” 40이란 숫자는 기간이 길던 짧던 시험기간을 표현하는 성경의 공통된 용어이다. 그리고 시간을 말한다기보다 오히려 상태의 계속과 연속을 표현한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시험조차도 그자체내에 상태의 연속과 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태의 연속이 사십 일로, 상태의 교체(바뀜)는 사십일 주야가 암시해주고 있다. 진보와 구분이 없는 상태는 없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어떤 상태도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어떤 흔적도 뒤에 남기지 못한다. 인간이 통과해 가는 최악의 상태라 해도 규격화된 어둠이라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아주 다양성이 놓여 있는데, 고통 당하는 가운데

있는 이 다양성은 치료제나 교훈이 되기도 한다. 거기에는 교체가 있다. 시련이라는 겨울에 처해있을 경우 낮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고 밤이라는 시간은 매우 길게 여겨진다. 그렇다고 희망이 자포자기로 완전히 잃게되는 것도 결코 존재 않는다.

광야에서 사십일 주야가 계속되는 동안 그분은 단식하셨다. 이 기간동안의 단식이 그분의 속성을 언급하고 있다는데에는 하등 의심할 바 없으나 그분에게만 독특한 여건인 것은 아니다. 단식은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악을 금하는 것을, 후자는 선이 박탈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발적인 단식은 일반적으로 자아를 부정함에 대한 표시이다. 비자발적인 단식은 영혼의 영적 양식인 선을 박탈해버리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표시이다. 육체가 양식을 요구하듯 영혼도 양식이 필요하다. 주님 역시 영혼을 가지셨는데, 이렇게 선포하셨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요한 복음4:34). 시험이 있게되는 최적기는 음식을 끊음 자체가 자신을 강요하게 될 때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법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려는 힘이 거두어진 듯 여겨질 때가 시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시험자는 우리에게 신성한 뜻 대신 자신의 뜻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 행동하는 것이다. 먼저 악한 영향력은 은밀하게 우리속 사랑에 작용한다. 이 작용은 영혼이 단식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여기서 기술되는 상태이다. 예수께서는 사십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잡수시기를 바래지도 않으셨다고 우리로 믿도록 역사는 말하고 있다. 그이유가 사십일이 지나서야 그분께서는 시장하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서이다. 그분의 식욕은 거두어졌다. 마음의 슬픔은 자연적으로 식욕을 감퇴시킨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상응적으로 볼 때 영혼의 슬픔은 영적인 식욕을 거두어간다. 고뇌 있는 영혼의 탄식은 이러하다. “나는 빵 대신에 재를 눈물을 마셨다.” “나는 맛있는 빵을 먹지도 않았고, 고기도 포도주도 내 입에 대지 않았다”(다니엘 10:3). 인간체힘의 세부적인 작은 사항도 주님의 경우에서 있는 그 강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인데 그분의 단식은 어떠할까! 그러나 모든 상태에는 각각마다에 끝이 있다. 주님이 사십일간 단식을 하셨을 때에 그분은 시장하셨다. 시험자의 목적은 상대의 선에 대한 식욕을 거두고 대신 악을 먹고 싶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투쟁의 첫부분이다. 악을 적극적으로 바래는 것이 악을 행하게 하는 첫 단계이다. 만일 영감된 영이 이에 저항한다면, 영을 시험하는 첫 목적은 패하여 진다. 왜냐하면 경향성이 이해성에 의해 승인되지도 않고 의지에 의해 흡모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 규탄되고 감금되는데, 이럴 때 영혼은 점차적으로 스스로 재발견(회개)하여 선한 바램이 되돌아오면서 영혼은 의에 굶주리게 될 것이다.

3.4. 시험자가 악을 좋아하도록 하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그는 좌절하지 않는다. 시험자는 우리의 동기나 바램에 은밀히 작용을 개시한다. 우리속 사랑에 은밀히 작용함으로 그는 우리 삶에서 공개적으로 악이 진행되게 한다. 선을 상미하게 하는 것,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바램을 있게 하는 영혼의 굶주림이 되돌아와 있다. 그래서 빵이 아닌 것 가지고 굶주린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시험이 맨 먼저 대두되고 있다. “유혹(시험)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하고 말하였다.” 악마가 예수님께 빵이 되게 하라고 요구한 돌이란 광야에 있는 돌이다. 이미 살핀바와 같이 광야의 돌은 유대교회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빵은 선을 의미한다. 따라서 광야의 돌로 빵이 되게 하라는 것은 유대교의 진리들을 선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그것을 행함으로 선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진리가 이러한 즉 그 진리가 생산하는 선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유대교회에 밝혀져 온 진리들이 설사 순수한 채로 보존되어 왔다고 가정해본다해도 그 진리들에서 생산된 선은 유대주의적인 선, 율법 속의 정의, 글자에 있는 미덕이라는 수준의 선밖에 더 최상의 선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선은 유대주의 속의 선을 위한 유대주의적인 입맛에만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이 자연적 수준의 선은 선 자체라고 말하기보다는 선의 대체물이라고 하는 편이 더 낫다. 따라서 이것은 영적 교회속의 영적 선이 진정한 선의 본질임이 밝혀질 때까지 영적 생명을 보전하는 마지막수단 이요 일시적 수단인 것뿐이다. 아마 이런 빵으로 주님이 배고프심을 채우셨다고 한다면 아마 그분은 자신의 감각적인 것은 먹이셨을는지 몰라도 그분의 영혼은 불만족한 채로 남아 있었으리라. 이것은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도 아닌바 그저 외관상으로만 완성된 듯 되고 말았을 것이다. 주님은 생명을 세상에 주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자체이시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무리를 먹이셨는데, 그때 그분은 돌을 빵으로 만드셔서 먹인게 아니라 빵과 물고기를 배가 시켜서 먹이셨다. 이렇게 신성하게 창조된 빵만이 무리들에게 준 영양분은 아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그분의 말씀, 지혜의 보물에서 꺼내진 좋은 것들로 이미 그들을 만족되게 먹여오셨다. 다시말해 그분은 그들의 속 사람을 영적 선을 가지고 먹이셨다. 이제 본문에서 자연적 선에 상응하는 그들의 바깥쪽 사람을 먹이신바 그들의 궁핍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두 겹의 방법들을

가지고 보여주신다. 즉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께서 그분의 상대자에게 말하신 이 말씀이 있는 구약성서(신명기8:3)를 찾아보면 우리는 위 말씀에 포함된 진리를 발견한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지난 사십 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고생시키시고 굶기시다가 너희가 일찍이 몰랐고 너희 선조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여 주셨다.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지 못하고 야훼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 예수가 만나로 특정지워져 있는바 그분은 진정한 빵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수단으로 인간은 살 수 있다는 말이다.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주님에 대한 첫 시험은 첫 아담에 대한 시험, 즉 생명의 나무대신 선과 악을 알게하는 지식의 나무실과를 먹도록 뱀에 의해 유혹된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같은 성질의 시험에서 첫 아담은 나가 떨어져 세상에 죄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 시험과 상응되는 본문의 첫 시험에서 두 번째 아담은 극복하시어 인간 회복을 위해 승리라는 것을 설비해두셨다.

5. 주님의 시험들은 세 가지 행동들만이 아닌 세 가지 등급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또 그것들은 낮은 등차에서 높은 등차로 진보해 간다는 것, 이는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더 자세히 말해서 자연적 차원에서 영적차원으로 영적차원에서 다시 천적 차원까지 진보를 이루어간다. 돌을 빵이 되게 하라고 한 시험은 시험 중에서 첫 수준, 자연적 차원에 속하는 시험들, 다시말해 자연적 애정이나 지각에 오게되는 시험들을 말한다.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과는 종류가 다르고 더 깊은 종류, 즉 영적 차원에서 있게되는 시험이다. 그러나 이 시험은 첫 번째와 별개이지만 한 시리즈 안에서 연결되어 진행된다. 돌이 빵이 되게해서 배고픔을 채우도록 시험되어질 때,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성실도를 견지해간다면, 필시 다음 번의 시험은 말씀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두게 하되 그 진리에서 선이 축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이를 다르게 말해보는다면 인간과 관련되는 것안에서 진리를 표현해보는 방식이다. 즉 사탄이 인간의 믿음을 뒤집을 수 없을 때 사탄은 믿음만에 신뢰를 두어야 한다고 유혹한다. 이 목적달성을 위해 악마는 그분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성(city)이

란 교리를 의미하고 거룩함(holy)은 진리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holy city)이란 진리에 관한 교리이다. 이와같은 것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성전)이다. 성전 역시 진리에 관계되거나 그 진리를 담은 그릇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해성에 관계된다. 성전이 하느님의 집이라 불릴 경우 그 성전은 의지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성전(temple)이라 명명될 경우는 이해성에 관계를 가진다. 주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감이란 그분의 마음을 다른 것들에서 끌어내 탄 데로 돌리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성전의 꼭대기(직역하면 날개)에 세운다함은 그분으로 지적인 자량을 하게해서 마음이 으쓱해지게 되도록 하지는 유혹이다. 우리가 한가지 주의 할 점은, 어느 보통인간의 마음속의 수준에 있게될 시험이 구세주의 마음에서도 같은 결과를 실지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단지 그것이 유혹에 약한 인간안에 있는 상태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술해보지 않으면 그나마 우리는 그에 대한 묘사를 전연 할 수 없기 때문에서이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생각해본다해도 주님의 상태에 대해서는 언제나 불완전한 생각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단지 인간에 속한 것들로만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아마 그 자체가 가장 거룩함을 모독하는 것밖에 안되리라. 주님은 우리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시험받으셨다. 하지만 그분은 거룩한 마음 안에 어느 죄 한 조각도 허용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무심코 드러냄이 없이는 결코 시험되지 않는다. 설사 자기가 시험을 극복했다해도 불에서 꺼낸 타다남은 장작의 수준밖에 안된다.

6. 우리가 주님의 상태 즉 그분이 성전 꼭대기에 서 계신 상태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어떻게 품어보았던지간에 그것은 그분 시련의 서막정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시험은 나는 죽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자신을 던지려하는 데에 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느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소?” 아주 높은 곳에 올라 가 섰을 때 자신을 던지게 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경우도 있다. 만일 자연적 결과가 영적 원인의 결과이다면 자연적 충동에 대한 유추도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자연적인 것이 불리는 그대로 영적 삶에서도 그러해야 한다. 영계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거기에서는 자신에게 걸맞은 삶보다 위로 들렸을 때 그 영들은 자신을 아래로 뛰어내리게 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또 그렇게 실지로 되고 있다. 주님께서 그분에게 적절한 삶위로 올리어지셨다면 사탄은 그분이 영화하심으로 올려지시는 그 이상위의 상태로

그분을 추켜댔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그분의 승강을 계속하시지 못 할것인바 오로지 자신을 아래로 내려야 하는 것밖에 할 수는 없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을 들어올려 줄 능력이 없고 단지 인간이 높이 세워졌다고 자랑하게 만들 수는 있다. 그래서 “자만은 파멸에 앞서 온다.” 사탄이 뛰어 내려보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흥분시키려 했던 것은 바로 이 자만을 부추켜 보려해서이다. 왜냐하면 사탄이 인간을 꼭대기에 들어올리는 것은 그가 아래로 내려가게 하기 위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뛰어 내림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해 보려면 이와 비슷한 말씀의 구절에 관심을 두어 보면 쉽게 이해가능하다. 모세의 율법 속의 규례중 하나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집을 새로 짓거든 옥사에 난간을 둘러라. 그러지 않았다가 사람이 떨어지면 너희 집이 그 피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신명기22:8). 이 시민법도 영적진리를 함유하고 있다. 집은 마음을 상징한다. 마음속의 가장 높거나 가장 깊숙한 측면이 옥상으로 의미되고 있다. 이 법이 보호하려고 의도하는 영적 재난은 인간이 영적 삶의 높은데서 낮은 데로, 상급의 상태에서 하급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몰락은 선의 상태에서 진리의 상태를, 이타애의 상태에서 믿음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될 경우, 당사자는 거룩한 것을 범하거나 모독하게 된다. 이것이 그의 집안에 피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원리들이 모세의 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에 오고 있는 위험한 때를 취급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하셨다. “그 때에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세간을 꺼내러 내려오지 말라”(24:16,17). 이 구절을 간단히 생각해본다면 이러하다. 선 또는 사랑의 상태에 있는 이들은 진리 또는 믿음의 상태로 내려오지 말라는 것이다. 그이유는 그렇게 되면 보다 높은 등급에서 하급으로 영적 상태가 내려오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하강은 신성한 질서를 뒤집는 것인바 자신들 스스로 선과 진리 모두를 파괴해버리게 된다. 삶의 위대한 법칙은 진보(progression)뿐이다. 진보의 순서는 진리로부터 선으로, 믿음으로부터 사랑에로이다. 하느님의 명령은 “앞으로 전진하라- 더 높게 올라가라”밖에 없다. 이것은 신성한 질서의 법칙이다. 그이유는 그것이 인간개선이 질서요 인간이 행복해지는 질서이기 때문이다. 진보 아닌 것 퇴보, 더 높게가 아닌 것 더 낮게, 더 고상함이 아닌 것, 더 천해지는 것은 지옥을 인정해서 행동하려드는 것들이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고 인간을 현혹하려드는 지옥의 것들이다. 이것이 악과 지옥의 본성인고로 그것들은 사사건건에서 천국과 선함에 정반대 되어 있다. 지옥의 경향성은 더 낮게 더 낮은 쪽으로 내려가는

것인 반면, 천국의 경향성은 더 높게 더 높은 쪽으로 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마가 예수에게 성전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을 때, 그분은 자신이 서 있는 거룩한 승강에서 자신을 던져 볼까하고 바래셨다. 그러나 이 바램은 시편에 있는 예언적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쳤을 뿐이다. “그들이 꾸미는 일은 사기뿐, 그들의 즐거움은 속임수, 짐짓 거짓을 품고 입으로는 복을 빌면서 속으로 저주를 퍼붓는 구나”(62:4). 악마는 성경에 호소해서 자기 말의 근거를 완벽하게 하려고 발버둥친다. 악령은 인간에게 이것이 악인고로 악을 행하라고 유혹하지 않는다. 단지 이것이 좋은 것이니 해보라고 하던가, 이것은 권위 있는 자가 인정하는 것이니 해보라고 펼 뿐이다. 그런데 악마가 악한 용도로 진리를 사용하고 저 할 때, 그들은 진리를 우선 뒤집어 놓아야 한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씌어있다.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여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으니 행여 너 돌부리에 발을 다칠새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고 가리라”(91:11,12). 그러나 이 약속은 올바른 방법으로 걸어가는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천사들은 천사의 지지와 보호를 바라는 이들, 질서의 법칙을 범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사는 이들을 받들고 보호한다. 그런고로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서 순종할 수 있고, 시험에 저항해가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사항들은 신성한 권위로 인가되어 있는 자유의 탈을 쓰고 흔히 다가온다.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줄 뿐 죄를 정죄하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게 하는게 아니다. 자유는 선을 행하게 하기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악을 행하라고 주어지는게 아니다. 시편에서 인용된 위문단의 경우도 비록 그 말씀이 예언적 말씀이다 해도 그 말씀은 영적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분은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다. 그이유는 우리처럼 천사도 그분께 기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들이 말씀에서 언급될 경우 천사는 그분자신의 신성에 관한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이유는 천사로 만드는 것 모두는 그분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사란 신성한 진리를 의미하고 천사들의 손이란 진리의 힘이다. 이 진리들이 주님을 후원한다. 그리고 이 진리들이 돌이라는 교회를 휘어잡으려는 거짓들에 선한 이들이 걸려 넘어지는데서, 혹은 그들의 발이 이 돌쪽으로 돌진하려는데서 보호하게 된다. 장애물 없이 세상을 걷는 이는 아무도 없다. 주님만이 장애물 없이 걸으신다. 물론 위태함과 시험이 있긴 했지만 결코 거기에 걸려 넘어지신 적은 없다.

7. 주님께서 시험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 인간이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도전하려들 때 인간은 하느님을 시험해보려 하는 것이라고 성서는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느님이 후원하고 있다고 떠벌릴 때 그분을 시험하는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시험하도록 악마의 유혹을 받는다. 주님께서 율법을 사용하신데에는 또다른 의미도 있다. 예수로 뛰어내려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보라고 악마는 시험했다. 이는 하느님이 육이 되신 분, 예수그리스도의 인격안에 있는 주하느님을 그분 스스로 시험하시고 있으신 것이다. 주님의 대답에 이런 생각이 포함되어있다. 사실 시험자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로 인정했다면 그는 그분이 시험되어질 수 없는 참 존재이심을 알고 있었어야만 한다. 이런 여건에는 또 다른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주님께서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신 것은 신성 자체는 시험이라는 것 자체를 넘어 존재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있다. 주님은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라 부르셨다. 그이유는 주님은 그분의 신성한 진리측면에서 시험받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험이나 고통에 관해 언급하시면서 그분이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 결코 부르시지 않은 것은 이 이름은 신성한 선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신성한 선은 시험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대답하신 구절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말라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라는 데에 포함되고 있다.

8. 마지막 시험은 앞의 두 가지보다 더 끔찍하게 도전적이다. “악마는 다시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갔다.” 산은 사랑을 상징하고 아주 높다라는 말은 강도가 센 것, 즉 내면이 아주 깊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는 인간 생명의 가장 깊은 내면을 형성하는 사랑을 향해 오는 시험의 종류를 말하는 실질적인 형태이다. 인간의 자연적 상태에 있는 인간생명의 가장 깊은 것은 자아를 사랑함이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등급인 것이 세상을 사랑함이다. 주님께서 인간적 어머니로부터 여타 모든 사랑의 씨들을 이어 받으셨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 안에서 여타 사람들 같이 형성되어 있으셨는바 이것이 시험의 바탕이 되고 있다. 참으로 의아하게 여겨질 것은, 그분은 가장 온유하시고, 가장 겸손하시며, 세상적인것에 가장 흥미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지배나 소유함을 사랑하는 등등의 악의 씨를 그분의 인성안에 가지고 계실 수 있을까이다. 그러나 우리가 놀랄 필요도 없는 것은, 그것들 자체는 아주 자연적인 수준에서만 존재하고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인바, 위의 말은 아주 합당하다. 우리 주님의 공로는 그야말로 가장

높은 선함을 나타내시는데 존재한다. 그 반면 그분은 악의 씨를 가지시고 태어나셨다. 공적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란 악이 될 수도 있는 시험이나 경향성안에 오히려 선이 있을 때이다. 주님은 고통을 통해 완전해지셨다. 그래서 그분은 고통을 받으셨다. 그이유는 그분도 고통받을수 있는 본성을 지니셨기 때문이다. 그분도 시험이 올 수 있는 바탕인 유전적인 사랑을 가지셨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크게 가능성 있는 시험이 올 수 있는 바탕인 유전적인 사랑도 가지셨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크게 가능성 있는 강도를 지닌 시험을 경험하셨다. 즉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는 데려가졌다.” 그리고 악마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이 특별한 언급은 이 구절 속의 두 가지 관계에 있게 되는 상징적 본성에 대한 증거이다. 이에 대해 갖가지 설명들이 제공되어 왔지만 어느 것 하나 만족할만한 이해를 주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외에도 만일 예수가 진정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면, 그분은 사탄이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 온갖 것을 보여주도록 요구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악마가 자기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이상의 것을 알고 계셨으리라. 더욱이 사탄자신은 자기가 하는 것이 너무나 불합리함을 뻔히 알고 있었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행위는 음모를 진전시키기보다 오히려 더욱 더 패배쪽으로 몰고 갈 것을 사탄도 알았을는지 모른다. 이런 추측을 가지고 미루어 볼 때 위 행위는 글자대로가 정말 일 수 있었을까 의심하는 누군가가 있다해도, 이 구절은 교훈적 측면에서 영적으로 진정하게 존재하고 있다. 아주 높은 산과 세상의 모든 나라는 구세주 자신의 마음 안에 있었다. 온 세상이 그분의 마음 안에서 그분의 열정과 흥미와 더불어 존재했다. 그러나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유입을 수단으로 불러내어질 때까지 그것들은 그분의 인간 의식의 깊은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유입에 의한 강한 영향력이 힘을 발휘할 때, 자아사랑이 의지 안에서 흥분되어질 때 세상의 모든 왕국은 이해성에 의해 보여진다. 그 이유는 의지속의 사랑이라는 불은 이해성속에서는 불꽃이라는 빛이 되기 때문이다. 이 방법 속에서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시험을 구성한 것은 아니다. 사실 자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본다면 거기에는 악이 존재 않는다. 한마디로 중성이라고나 할까? 이 두사랑은 인간본성을 구성하는 면에서 필수 요소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는 반드시 세상속의 자기몫, 즉 통치조절하고 획득하는 등등 한마디로 제 밥벌이는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가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열심을 내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없이 행동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세상속의 것을 사랑하고 사용하는데 있지 않고 우리가 세상 것을 소유한다는 것, 즉 악마에게 절하는 데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세상속의 것을 선용한다면 우리는 죄짓지 않는다. 그것들을 사용하는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다. 시험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데 있는게 아니라 그것을 남용하는데 존재한다. 모든 남용은 악에서 근원된다. 이것을 추상적 측면에서 말하면 악마(devil)이다. 악은 세상과 그속의 모든 것이 자기 소유라고 우겨대고, 세상의 소유자로서 경배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험은 하나님 대신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에, 자신과 자신의 영예를 위해 세상을 소유해서 사용하려드는데서 발단된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우리예배의 대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무엇이든, 누구이든간에 그것이 우리를 통치하는 사랑(ruling love)의 대상이 된다. 만일 우리가 자신 또는 세상을 극도로 사랑한다면, 자아 또는 세상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고 만다. 악마는 우리 심정안에서 이런 사랑을 흥분시켜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자아와 세상사랑은 그것이 의도한 대로 정해진 타락한 상태안에서 하나님을 섬겨 그것들의 행복을 발견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그것들은 그분의 권위를 찬탈하고 싶어하고 그 권위가 자기소유라고 주장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되는 바탕이 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아 중 어느 쪽에 순종하며 섬겨야 할까? 이것만이 질문에 해당된다.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 크나큰 질문에 실지로 결정을 보는 것이야말로 시험의 선용이요, 시험을 허용하시는 신성한 목적이기도 하다. 악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던지시 떠보고 있다.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 반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홀리려하는 호소에 계속 답하는 것은,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이셨다. 예수께서는 이 신성한 진리로 시험을 극복하셨다. 이리하여 이 진리를 늙은 뱀이 그분의 마음에 주입하려 했던 독에 대해 해독제인 것을 입증하셨던 것이다. 말씀은 세상과 자아를 하나님 위에 세우려 드는 악과 싸우는데 있어 무기창고와 같다. 말씀이라는 무기에 신뢰를 두고 싸우는 사람은 결코 요동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련이 오도록 허용하시지만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그 이상의 시험은 결코 허용치 않으신다. 따라서 모든 시련과 더불어 거기에는 돌파구도 설비되어 있다. 그 돌파구는 주님의 진리에서 발견되고 그 진리에 순종함에서 성사를 이룬다.

시험자는 본문에서 악마와 사탄 두가지로 불리고 있다. 이 두 이름들은 악령들의 두 종류를 표현한다. 천국이 선과 진리로 구성되듯, 지옥은 악과 거짓으로 구성되고 있다. 악은 악마라 불리고, 거짓은 사탄이라 불린다. 시험자가 이 두 이름으로 불리었다는 것은, 주님은 악령의 두 종류에 의해 시험되었다는 것, 이 둘은 서로 구별되는 두 종류이라는 것을 암시해주시기 위한 것이다.

주님의 시험이라는 주제에 명백한 어떤 견해를 가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이유는 본성과 목적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 야기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님이 인간본성을 입으신 목적에 대한 지식은 그분의 시험에 대한 본성이나 그 사용에 대한 올바른 견해의 기초가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품어진 견해는, 예수는 인간본성안에서 고통받으시기위해 그 본성을 입으셨다는 것, 그리하여 인간의 대속 즉 인간의 위법에 따른 벌의 대속이라는 것, 주님의 시험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경감해준다는 것 등등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인간대신 짊어지기위해 그분 스스로 악이라는 시험이나 고통이라는 공통적인 바탕에서 자유로워져야만 되었다고 상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이 타락된 인간여인에게서 비록 태어나셨지만 한편 기적적인 임신을 수단으로 아담의 것과 같은 인간다움을 순수하게 받았다고 추정하게 되었다. 주님이 인간본성의 타락된 상태에서 그 본성을 입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순수하게 태어나셨다는 견해를 지닌 사람들에게는 얼핏생각하면 주님이 죄인이라고 사실상 불려지는 듯 여겨질는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 만일 예수가 유전적으로 도덕적 불완전함을 가졌다 하면, 그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고 단지 자기 죄만 짊어질수 있었으리라고 상상한다. 육을 입으신 그분, 주님의 일에 대한 본성은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결점이 될 씨를 가진 타락된 상태의 인간본성을 입으셔야 했음을 요구하고 있다. 주님이 인간본성을 입으신 것은 인간이 해야만하는 진짜 일을 하시기위해서 였다. 주님스스로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은, 그분이 하신 결과에 의거 차후 우리안에서 그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였다. 이 문제를 본문 주제에 관련해 볼 때 그분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험의 모든 관점에서 시험되었다는 것이다. 이 목적을 우리와 관련해볼 때, 그분이 시험을 참아내신 것은 시험되는 사람들을 원조할 수 있기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위 두 진리 모두는 이렇게 주님에의해 선포되고 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기위해서이다”(요한17:19). 주님의 시험은 그분의 인성이 거룩해지고 영화하실 수 있기 위해서 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분은 인간에게 거듭남과 거룩해짐에 관한 권위자가 되셨다. 주님께서 악의 씨를 지닌 불완전한 인간성을 입지 않으셨더라면, 그분은 인간이 시험되듯 시험되실수도 없었을 것이고, 시험이라는 고통을 통해 완전해지실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악의 씨가 주님을 죄인으로 만들게 했다고 말하는 견해는 큰 착각이다. 모든 사람은 악을 유전받는다. 그러나 어느 인간도 자신이 죄를 범할 때까지 죄인은 아니다. 그이유는 죄는 법을 위반할 경우 발생되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모든 다른 사람사이의 큰 차이점은 출생시의 상태때문이라 아니라 삶의 상태 때문이다. 예수님도 여느 사람과 같이 유전적 악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그러나 여느 사람과 다른 것은 그분이 실제의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다는 점이다. 사실 그분이 출생할 때 그분은 거룩하시다고 불리웠다. 그러나 이는 하느님의 아들이란 측면에서 적용될 뿐 마리아의 아들 또는 사람의 아들이란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분의 죄없으심에 관해 성경에서 언급되는 것은 그분의 출생에 관계해서가 아닌 삶의 측면 즉 시련과 시험에 관계해서라는 점은 주목해둘만한 사실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시험되셨다. 그럼에도 죄가 없으셨다.” 만일 이런점이 그분의 출생에 관계해서 도입된다면 그분이 도덕적 약함에서 절대로 자유로우셨다는 어떤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그분이 여인에게 태어나셨으되 죄가 없으셨다라고 말해진다면, 그 대상에는 어떤 강제(some force)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과 연계해서 그분이 죄없다는 것을 발견해볼 때, 그분이 악에서 유전적으로 자유로우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말을 보게 된다. 이는 주님의 죄없으심에 관한 위대한 공적, 위대한 가치를 구성한다. 그분은 시험되셨으나 결코 각 시험에 노출당하신 적이 없으시다. 그분은 지상과 지옥의 모든 악의 권세를 연약한 인간성을 바탕으로 만나셨지만 시험때마다 이를 정복하시어 완전한 승리의 관을 그분의 일에 씌우셨다. 이리하여 그분은 어둠의 권세를 극복 하시고 인성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분이 정복한 만큼 그분은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지금 쥐고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신다. “승리하는 자는 마치 내가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옥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옥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계시록3:21).

11. 시험이 끝났을 때,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에 내적의미가 있다는 또하나의 힌트를 발견하게 된다. 주님은 천사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다. 비록 천사가 인간보다는 수준이 높다해도 어찌됐든 유한한 존재밖에 안되는바 무엇보다 높은 그분을 도울 수가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록 글자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깊은 진리가 놓여있다. 주님이 오실 당시 인류의 여건은 악이 심히 깊어져서 인간들은 지옥에 가까워 있었던 반면 천국과는 훨씬 멀어져있었다. 주님은 오시어 이 질서를 뒤집으셨다. 그분은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 뒤로 젖히시고 인간이 천국과 연결되게 하시었다. 그분은 스스로 시험을 받으심으로 지옥을 정복하시어 지옥이 제거되게 하시었다. 그분은 스스로 시험을 받으심으로 지옥을 정복하시어 지옥이 제거되게 하시고 대신 천국이 가까워지게 하셨다. 이상은 주님이 정복하신 내용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천사들이 와서 그분께 시중들었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는 것은 마치 헌신과 선행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분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는 자신이 아직 소유하지도 못한 어떤 것을 그분께 드림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분이 바래시는 것을 행함으로, 그분이 만족하시게 함으로 섬김이 성사된다. 이 바램이 그분의 배고프심이요, 그분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분께 시중드는 것이다. 이런 관계에서 배우게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 주님은 우리 본보기이시다는 것이다. 그분에 관해 기록된 것은 우리들에 의해 현실화된다. 11절은 우리가 시험에 이긴 결과를 묘사해 놓은 것이다. 우리가 악마에 저항하게 되면 악마는 물리서게 되고 대신 천사가 와서 우리를 시중들게 된다. 여기에 거듭나는 위쪽으로의 길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위로와 희망이 있는 것이다. 시험받는 기독교인들, 악과 악령이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의 빛과 사랑이 차단되었다고 생각되는 이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시련의 날들에 용감하게 계속 버티려고 결심할때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적의 압력에서 해방됨이 그 보상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천사들이 영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그들이 값있는 구원의 상속자임을 보여주게 된다.

12. 이 절에 관련된 여건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앞의 주님의 시험에 관한 내용과는 시간적 차이가 상당해야할 것같이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 별개의 문단같이 여겨지는 사건은 성격면에서 연결을 이루고 있다. 역사적이라는 시간 개념에서는 별개의 사건이 이 구절에서 한데 모아지고 있다. 광야에서의 주님의 시험이 있은 후 약 삼년동안 거행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래야로 가셨다”는 형태로 소개되고 있음을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 어둠의 왕국의 특사나 다름없는 자들에 의해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것과 마치 사탄의 형무소같은 광야에 주님이 계셨던 것과의 사이에 어떤 유사성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까?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사건을 한데 모아놓고,

어둠의 권세들을 수단으로 육을 입은 말씀인 예수와 세상의 권세들을 수단으로 씌어진 말씀을 표현한 요한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상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매우 의미심장한데가 있음을 알게 된다. 육을 입으신 말씀을 공격하여 그 힘을 꺾으려던 것이 광야에서의 시험자이듯듯이, 헤로데로 나타난 부패된 교회는 씌어있는 말씀의 권위와 영향력을 박탈하려든다. 그 당시 교회의 통치력과 중심무대가 되어있던 곳이 유다지역인데 이곳에서 위의 일이 벌어졌던 바, 예수께서는 갈릴래아로 떠나셨다. 이는 유대인에 의해 뒤집혀지고 거절해버린 말씀, 육을 입으신 말씀으로서의 주님은 이방인에게로 향하시고 유대인에 의해 중단된 교회대신 새로운 영적 교회를 그들사이에서 일으키심을 표현한 것이다.

13-15. 주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뒤 그 지역을 떠나셨을 때 그분께서는 전에 사시던 성읍으로 되돌아가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어린 시절 에집트에서 되돌아오실 때 요셉은 아르켈라오가 통치하는 유대땅을 피하여 갈릴래아 지역중 나자렛동네에 거주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나자렛사람이라 부르리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러나 헤로데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은 지금 그분은 갈릴래아로 오시되 나자렛을 떠나 가파르나움에 거주하시게 되니, 또다른 예언의 성취가 있게 된다. “즈불론과 납달리, 호수로 가는길, 요르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래아. 어둠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이 예언의 무대가 된 주님이 거주하는 성읍 또는 마을은 신성으로 영감된 저술의 표면에 나타나는 의미보다 더 높은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암시를 느끼는 것 외에도 그 속에 영성이 담겨있음을 확인하도록 우리에게 강하게 부각되는 또다른 세부사항이 있다. 갈릴래아가 요르단강 건너 편에 있다고 말해진 대목이다. 비록 “요르단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볼 때 강 건너편을 의미한다해도 사실 갈릴래아는 가나안 땅의 요르단 동쪽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다. 지구의 위도를 감안해서 이해해 본다면, “요르단강 건너편”이라는 말은 본장 끝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요르단강 양쪽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일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24-25절을 보면 예수의 가르침과 병고침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까지 퍼졌는데 시리아는 요르단 강 다른쪽에 위치했고, 많은 무리가 “요르단 강 건너편”에서 왔다고 말해지고 있다. 즈불론과 납달리가 요르단강 건너편에 위치한 것으로 묘사된 것은 주님께서 이제 방향을 두고 계신 이들의 이방인적 속성을 더 똑똑하게 표현하는 것, 즉 가나안 땅 밖이란 교회밖이라는 것임을

상상해 볼 수 없을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든 한 가지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주님이 이방인들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계신다는 것이다. 두 가지 세부사항은 가파르나움에 관한 영적의미를 확인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가파르나움은 해안가(호숫가)”에 위치하고 있다. 바다(호수)는 천국과 교회의 바깥부분을 의미한다. 이 바깥부분에 속하는 이들이란 자연적 수준에서 생각하는 이들, 그리하여 거룩한 사항(sacred thing)을 영적으로는 거의 지니지 못한 단순한 이들을 말한다. 또 한가지 가파르나움은 즈불룬과 납달리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 주님을 맞이하는 이들, 그들이 이방인이라 불리운 것외에도 그들이 외적상태에 있다는 것이 “해안”또는 “경계선”이라는 단어에서 찾아 볼 수도 있다. 국가라는 측면에서 이방인의 갈릴래아, 즈불룬과 납달리지역이란, 교회가 이방인들, 생활의 선가운데 있는 이들이 진리를 받아 선과 진리의 결합을 이루어 악과 거짓에 대항하도록 건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방인들을 개혁시켜 교회를 건설하신다는 의미는 표현의 시리즈로부터도 잘 알 수도 있는데, 즉 그 지역이 “요르단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래아, 어둠속에 앉은 백성이 큰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가파르나움이 소속된 지역이 지닌 의미가 이러한 바, 본문과 관련하여 성읍(city)이란 단어가 지닌 의미를 찾아보자. “보편적 의미에서 성읍은 교회속의 교리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부적의미에서 성읍은 교리들이 있는 인간의 내용물(인간의 자연적 마음수준),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그이유는 인간에 소속된 선과 진리들은 마치 성읍 같기 때문이다. 보편적의미에서 집(house)은 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부적의미에서 집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특히 선과 진리가 결합되어 있는 측면에서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집안에 방이나, 울타리, 뜰 등등을 지닌 집은 가장 작은 형체로서의 성읍이라 말할 수 있다.” 가파르나움은 이방인의 마음씨 고운 상태에 잘 적용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교리들, 그 교리를 받게 되는 이방인의 자연적 마음을 표현한다. 그이유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분의 선과 진리가 받아들여져 결합되는 인간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가파르나움과 주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사이에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교회와 연결을 이루는 상황이 8장 첫 절이하에서 암시되고 있다.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신 뒤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인대장이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하고 사정하였다. 이때 주님께서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셨다. “정말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주님이 오시는 때의 이방인의 상태는 유대인이 제 스스로 빠져버린 상태와 아주 달랐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속에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방인의 경우 유대인과는 달리 계시의 빛에 죄를 지은게 아니라 전통(관습)이라는 어둠침침한 빛에 따른 죄인바 그들의 영적 조건은 덜 한탄스러운 것이었다. 그야말로 그들은 “어둠 속에 앉은 백성”,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어두움은 무지로 인한 잘못이고 그들의 죽음은 자연적 수준의 육욕이라는 악이었다. 그들은 의지가 타락한 상태인 죽음의 영역에 있었다. 의지 속의 악은 하늘로부터 흐르는 진리의 빛을 가로막음으로 해서 이해성에 어두운 그늘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지적으로 죽음의 그늘에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런 영역, 죽음의 그늘에 있었을 뿐 아니라 어둠속에 “앉아” 있었기도 했다. 앉는다는 말은 관련되는 삶의 특별한 상태를 확증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자세이다. 그럼에도 교회밖에 있는 이들의 악이나 잘못들, 무지하고 매우 단순한 마음에 있는 악과 잘못들은 믿음의 신비에 깊게 들어가 잘 훈육된 이들의 악이나 잘못에 비해 뿌리깊게 내린 악한 품성은 아니다. 이런 어둠에 앉은 이들은 정작 자기들에게 큰 빛이 있게 되면 그 빛을 볼 수 있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그들은 정작 그들에게 삶의 길이 보여지면 그 땅을 털고 일어선다. 그이유가 그들은 진리의 빛을 받는데 있어서 똑똑하고 신중하다는 이들보다 더 호의적이어서 진리를 수단으로 진정한 믿음, 순수한 이타애로 인도되어지기 때문이다.

위 주제는 주님자신에 관련시켜 좀더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 본다. 그이유는 그분의 새로운 거주지 가파르나움은 나자렛이 사적 생활지이었던데 비해 공적 생활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로 높은 의미로 볼 때, (이스라엘후손이나 지파의 측면에서) 즈볼론과 납달리는 주님의 신성한 인간성과 신성자체가 시험과 승리를 수단으로 하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안에서의 하나됨과 인간안에서 선과 진리가 결합되는 것은 서로 유사하다. 주님의 두 가지 상태들, 세례받으시기 이전과 이후의 생활양식, 나자렛과 가파르나움의 각기 다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그분이 성장해오셨던 곳을 떠나 새로운 성읍으로 거주지를 옮기신데 따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주님의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을 구분해보면 인간 거듭남에 있게 되는 두 개의 구분되어 이어지는 상태와 상응되는 측면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즉 내적 측면이 먼저 거듭나지고 그다음 외적측면이 거듭나는 것이다. “분리”라는 뜻을 지닌 나자렛은 주님의 내적 측면이 거듭나지는 시기나 상태, 즉 천적인간으로서의 그분의 상태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해안가,” 즈볼론과 납달리의

“경계선”이라는 단어는 가파르나움이란 지역이 지니는 의미에 관해 알게 했다. 이외에도 위 두장소는 다른 교훈적인 여건을 갖고 있다. 주님이 거하신 나자렛과 가파르나움사이에 주님의 세례와 광야에서의 시험이 있었다. 요한의 세례는 외적인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시험은 이 예식이 지닌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받으신 후 즉각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는 외적인간안에 있는 악을 제압함으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하나를 이룬다는 말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광야에서의 시험 후에 즈블룬과 납달리 지역으로 오신 행동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된다. 그이유는 두 지역은 시험을 수단으로 선과 진리가 하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주님의 측면에서 보면 시험에서 어둠의 권세를 만나 승리하심을 통해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를 이루신다는 말이다. 나자렛이 주님께서 성장하신 장소였던 반면 가파르나움은 신성한 의미나 자연적의미 양면에서 그분의 성읍이 되었다. 그이유는 그 지역자체가 표현하는 그대로 그분은 되어가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이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시기전 그분의 시험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분은 여러 가지 큰 일을 행하셨던 가파르나움 거주민들로부터서 고통받으시기도 했다. 한 가지 기억해두어야 하는 것은, 이방인들 사이에도 악한 자, 선한 자가 섞여 있었다는 것, 믿는자와 불신자는 어느 어느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섞여 있다는 점이다. 후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심하게 나무라시고, 탄핵하신 것이 위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17. 이제 주님께서 진입하시는 상태는 말씀이 주님의 인성속에서 쉬는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발달되어 더 명백해지도록 짝이 트는 것같은 상태 즉 세례자 요한의 설교줄거리를 추켜들어서 시작하시어 인류를 향해 같은 교리를 전파하신다. “이 때부터 예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하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은 주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이 구절은 그의 공생애, 하느님의 권능이 복음서에 구원이라는 도장을 찍는 영적 지혜, 내면의 지혜, 어떤 법전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법을 구성하는 장엄한 가르침의 맨 첫줄을 형성하고 있다. 예수께서 전도를 시작한 이때로부터 “그분께서는 그분이 고통당하는 사항들 즉 경험으로 배우시는 측면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분은 시험받으셨었다. 그리고 이제 강한 불로 금속을 제련하듯 맹렬한 시련을 통과하여 가신다. 때(time)는 상태(state)에 대한 상징이다.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질 때의 상태는 결합의 상태인데, 인간측면의 선과 진리의 결합은 주님측면에서는 신성과 인간 본성의 하나됨이다. 전도하심

은 주님께서 진입하시는 현재의 상태에 잘 어울리는 말이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내적측면의 기능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외적측면의 기능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전도하시는 주님의 표어가 세례자요한의 표어와 같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만한 가치가 있으리라 본다. 어떤이의 경우 회개는 복음이 아니라고 좁혀 말하기도 한다. 복음서가 회개의 교리 외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회개 없는 복음이란 있을 수도 없다. 회개는 전도에서 첫 의무요 인간이 개혁되는데 있어 첫째 일에 해당된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선포는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문이다. 이는 그저 “믿어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믿어라”라는 말로서 복음서의 폭넓은 가르침을 형성하는 말이다. “회개하라”는 신성한 전도자가 말하는 첫 마디요, 순수한 기독교인의 성전 문에 해당된다. 그 성전에 입장하고자 하는 이는 누구든지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전도하심”과 “말씀하셨다”사이에는 글자적으로는 차이를 알기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구분된다. 두 말이 한 구절 안에서 언급될 경우, 이는 주님께서 의지와 이해성에 말하신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리고 회개는 의지와 이해성 양쪽에 관련되는데, 그이유가 자신의 악 뿐만아니라 잘못(실수)까지 회개해야하기 때문이다.

18. 주님께서 복음서의 전도자로서 세상에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 이 위대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자신 외의 또다른 도구들을 기꺼이 채용하시고 있다. “예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걸어가시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사도들을 부르시는 주변여건은 흥미있으면서 교훈적이다. 그분의 지상삶에서 동반자가 되고 유익한 일에서 그분의 조력자가 될 사람의 선택에는 깊은 흥미를 자아내는 문제들이 놓여있다. 각 개인으로서 사도들이 표현하는 어떤 특성을 알게 되면 그들의 선택은 흥미정도가 아닌 매우 깊은 교훈을 얻게 된다. 사도들은 교회의 첫 열매이자 교회 자체를 표현하고 있다. 열 두사도와 이스라엘 열두 지파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는데, 이는 계시록 21장을 참조하면 명확해진다. 열두사도의 이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주춧돌에, 열두지파의 이름은 그 성의 대문에 새겨있다. 열두 사도들, 열두 지파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교회를 구성하는 갖가지 사항을 표현한다. 이는 계시록 7장을 보면 열두지파의 도장에서 확인되리라 본다.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듯, 추상적 측면에서 그들은 교회의 모든 원리들, 또는 거듭나는 마음속에서 천국과 교회를 구성하는 품위나 장점에 속하는 모든 것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해 볼 때 각 사도들은 각기 특별한

품위를 표현한다. 선택된 사도들의 순서, 마치 이스라엘의 열 두 아들이 출생하는 순서 같이, 영적 삶의 진보에서 마음이 받아들이는 품위의 순서를 표현한다. 구약성서가 이스라엘이 출생하는 역사를 말해주지만 신약성서는 열 두 사도가 부름받는 역사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의 설명과 같이 그 순서에 있어 열두 아들과 열두 사도는 완전히 평행한다. 첫 네 사도들은 첫 네 아들과 유사하다. 한사람의 부르심은 한사람의 출생과 상응되고 있다. 시몬 베드로처럼 르우벤은 이해성에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 안드레아같이 시므온은 심정에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 야고보처럼 레위는 이타애(charity)를 의미한다. 요한은 유다처럼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예수께서 갈릴래아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형제들을 보시자 그들을 부르셨다. 복음서 중 이 광경은 감미롭고 아주 단순하게 아름답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사람을 선택하시는 예수께서 갈릴래아 바닷가를 따라 거니셨고 고기잡는 일에 종사하는 미천한 사람들을 부르시어 그들로 사람냄을 어부가 되게 하신다. 이미 살핀바와 같이 바다는 천국과 교회의 바깥부분을 의미한다. 바다에 상주하는 이들은 바깥부분에 속할 뿐아니라 단순한 속성도 지니고 있다. 갈릴래아 바다는 지적인 속성과 조건에 관한 이교도 세계를 표현하는바 그들이 사람을 건져올리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잘어올리는 모습이다. 이외에 바다는 또다른 비슷한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 “물이 한 군데로 집합됨”이라는 상태에서 바다는 진리들을 상징하는 바, 바다는 말씀의 글자적 측면을 의미한다. 이 측면에서 볼 때 바다는 신성한 모든 진리를 담는 최말단의 그릇이 된다. 바다안의 고기는 이 그릇에 담겨 있는 살아있는 글자적 진리를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어부들이란 신성한 말씀을 공부해서 진리들을 건져내어 이를 가지고 자신과 타인의 종교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이들이다. 이는 사람을 건져올리는 어부가 되는데 요구되는 품질이기도 하다. 참으로 사람을 붙잡는 것은 거룩한 말씀속의 진리와 교통하고 획득함으로 결과가 있어진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말씀을 찾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들 모두가 갈릴래아 바다라는 단어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요구되는 이들을 어부들로부터 뽑으신 것이다. 이렇게 거니시면서 두 형제를 보셨다. 그분이 형제를 뽑으신 이유에도 의미가 있다. 진리와 선은 형제들이다. 이와 똑같은 것으로 믿음과 순종은 형제들이다. 그이유는 이해성안의 진리가 믿음이고 의지안의 진리가 순종이기 때문이다. 첫 제자로 베드로를 뽑으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거듭나는 마음에 첫째로 자리잡아야 할 품위가 믿음이라는 것이다. 회개는

교회를 소개하는 문이다. 따라서 회개는 품위보다 더 행동적인 상태이다. 이는 마음을 죄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돌려놓는다. 그리하여 종교속의 품위들, 또는 종교를 형성하는 원리들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한다. 회개와 믿음 중에서 회개는 세례자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고르게 되도록 마음을 준비시킨다. 믿음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가 그분의 일을 거둔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나를 따라 오너라”이셨다. 이때의 믿음이란 단지 지적 측면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선에 바탕을 두는 진리의 믿음이다. 맨 처음 선택되어진 사람은 시몬 베드로라고 불리우고 있다. 비록 이 구절에서 그의 성이 말해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 두이름은 의지에 등우리를 친 지적상태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을 암시해준다. 그리고 안드레아는 삶으로 명백하게 보여줌으로 있어지는 믿음의 충만을 표현하고 있다. 주님께서 이 형제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이 모습은 그들이 장차 깊어질 자기들의 직능을 정확히 그려주고 있다. 주님은 뜻에 상응되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말씀에서 진리를 끌어올리고 인간을 교회로 끌어오는데 그들이 성공적으로 고용되게 하셨다. 갈고리와 비슷하게 그물도 교리를 의미한다. 그이유가 교리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결과(result)를 획득하기 위한 과학의 응용이기 때문이다. 교리는 말씀에서 진리를 끌어내고 인간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필수 사항이다. 교리없이 어느누구도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도 진리를 응용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어부들”이란 “먼저 자연적 진리들을 찾고 가르치고, 후에 합리적 방법으로 영적 진리를 찾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하셨다. 주님이 지상에 체류하신 때만해도 메시아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글자 그대로 따라감이 요구되었었다. 이를 영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진리가운데 걸으면서 거룩한 분의 본보기를 모방해감으로 그분을 따르도록 요구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자연적 진리의 학습자와 가르치는 자로부터 영적진리의 학습자와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제자들은 진리가운데 걷고 그분을 모방함이 있어야 한다. 이 발전단계가 사람의 어부가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의 어부가 되기위해 제자들은 합리적 방법에 의거 영적진리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하려면 주님을 따르되 신성한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주님이신 것, 신성한 진리가 인간 본성안에서 명백해진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알고 따를때만 가능해진다. 이렇게 따르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 그리고 타인을 수단으로해서든지 양면에서 사람의 어부가 된다.

이해성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명백하여 빛을 내고 있다해도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위해 충분한 요건은 못된다. 베드로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늘나라를 열수 있다. 그러나 그 문을 확실히 열 수 있으려면 그는 형제 안드레아를 동반해야 한다. 그이유는 베드로는 이해성에 있는 믿음을 의미하지만 안드레아는 의지에 있는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인데, 특히 안드레아는 믿음이 가르치는 것을 실제에 놓이도록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믿음과 순종에 진지한 이들, 그 속성에 대해 주님께서서는 아주 독특한 말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로 만들리라”라고 말하신다. 이 명령은 최고의 무게와 중요성속에 존재한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른다. 특별히 우리가 그분의 본보기를 따를 때 더욱 그러하다. 이 명령속에 담긴 깊은 취지는 주님께서 인성을 영화하시게 하는 과정을 통과하시어 인성이 신성과 하나를 이루시는 과정이 넘치지 비치고 있음을 이해할 때만이 알 수 있다. 이 초자연적인 과정속에 인간의 거듭남도 있고, 이를 수단으로 인간은 영적 품성을 획득해서 주님과 결합한다. 그러나 인간 거듭남은 영화하심에 대한 형상일뿐이요 불완전한 사본(copy)에 불과하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

20. 주님에 의해 호의적인 마음에 미친 영향은 이렇게 놀라웁다. 그분께서 두 형제를 부르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한가지는, 주님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교회를 일으키시는데 있어 그분의 선교의 첫 열매는 이방인 상태에 있는 유대인이었다는 점이다. 그이유는 성경을 통해 타인에게 접촉하는 도구로서 유대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말씀속의 교리와 진리들은 그물이요 이를 수단으로 인간들은 교회로 끌어 당겨진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그물”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려면 그들은 유대교의 그물이라는 것을 뒷전으로 물러나게 해야한다. 이렇게 행동할 때만이 새로운 처방에서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새 진리들은 옛 교리 안에 담길 수 없다. 예식에 큰 비중을 놓고 있는 유대교의 교리들은 폐지되어야 했다. 가족 부대인 두 제자들은 새로운 가족부대가 새 포도주를 위해 설비되어야 했다. 더욱이 옛 그물은 옛 가족부대보다 더욱 요구되지 않는다. 위 두 제자들은 자기들의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들은 거듭남으로서, 사랑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지혜 속의 진리들을 가르침으로서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주님의 부름에 순종할 때의 시몬과 안드레아가 표현한 상태까지 발전한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이유는 그들은 주님과 결합하는 상태에 진입했고 실족치 않는다면 그분 왕국의 어떤 곳에 자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21. 이상의 두제자가 표현하는 상태는 높은 믿음의 차원이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섬기는 준비사항의 최고의 상태는 아직 아니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다.” 더 걸어감은 취급되는 상태가 발전함, 진보를 의미한다. 이를 주님자신에 관련하여 말해본다면 아버지라 불리는 신성자체와 더 친밀하게 하나됨을 향한 진보이고, 인간 측면에서 말한다면 이는 주님과 더 내적인 결합을 향한 진보 또는 그분을 더 내면의 마음속에 영접함을 말한다. 더 설명하면 마음안에서 원리들이 더 열리게 되어 주님과 더 친숙해진 상태에서 거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말한다. 따라서 이제 매우 구별되는 상태들이 이 구절에서 암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이유는 그분께서 두 형제를 보셨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각 두 형제가 구별되는 이유는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하나로 묶어 생각할 경우 이해성은 받아들이고 의지는 순종하는 거듭나는 삶의 첫상태를 그들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의 부름은 의지 자체가 새로워진 상태, 따라서 이해성에 의해 인도됨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단연 우월함을 주장하면서 이해성의 차원은 의지가 주도하는 선한 목적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찾는데만 사용될 때를 말한다. 따라서 야고보는 이웃을 향한 사랑 또는 이타애(charity)라는 천국원리에 대한 모형(type)이고, 요한은 자비심 많은 목적이 심정안에 품어지자마자 모든 바깥쪽 자질이 목적의 수행을 위해 쓰여짐으로 나타나는 즉각적인 사랑의 결정에 대한 모형이다. 사랑과 이타애가 의지에 즉각 영향을 주어 거의 동시에 그의 애정이 선행을 실시하는 것은 거듭나는 그의 상태가 드높게 진전을 이룬 것인지, 순종만의 동기로부터, 또는 지적인 확신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얼마나 우월한 상태인지 모든 이가 수긍하는 사실일 것이다. 이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선한 자연적 기질의 자극으로부터 심정에 어떤 영적 이타애나 이해성에 어떤 영적진리도 없이 선을 행하는 상태일 것이다. 자연적 선은 실로 영적 선을 받는 매개체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체할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선이 제베대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로 명시되는 듯 여겨진다. 주님으로부터 온 선이 받아들여질 때, 이 자연적 선은 그 선의 행동원리로 더 이상 원하는게 없고, 더 이상 구실을 삼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의 아버지를 떠나 그분을 따랐던 것이다. 제베대오가 출생시에

받은 선한 자연적 애정측면에서의 의지원리를 표현한다는 것은 다른 성경구절,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들이라 명명되는 경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두제자의 어머니가 주님의 왕국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께 물으러 왔을 때 그 여자는 제배대오 아들의 어머니라 불리고 있고, 그녀의 요구사항의 근원이 자연적 차원인 것은 생각해볼 여지도 없다. 그리고 그 요구는 주님께서 그녀의 아들들에게 말하시기를,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나?” 그들이 시련을 기꺼이 참아낼 수 있기위해 자기속에 그 만큼 많은 선을 지녔느냐는 말인데 그들의 대답은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하는 것에서 위의 사항을 알 수 있다.

22. “그들은 곧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라갔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식들,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항은 그분께서 육으로 계신 그 시대에 글자대로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날의 경우 이 사항은 영적으로 있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적 차원에서의 관계들은 우리의 이기심을 구성하는 자연적 원리에 대한 모형이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되는 사항에 더하여 신성한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하시고 있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마태10:36). 그러므로 자신과도 헤어져야 한다는 것까지 요구된다.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른 두 형제의 자연적 행동은 자연적 이해성과 의지 양면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영적 의무를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즉각 주님을 따르고 있다. “즉각, 곧”이란 영적으로 말하면 확실함을 뜻하는바, 이는 강한 애정과 의연한 믿음의 결과에서 온다.

23. 포도원에서 일할 노동자를 선발하셨다해서 스스로하시는 일을 멈추신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갈릴래아는 인간측면에서 보면 자연적 마음을 표현한다. 네 제자를 뽑으신 후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신성한 진리로서의 주님이 우리의 내적인간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영적 수준이 될 때 신성한 현존과 권능은 외적 측면까지 전달되어 빛과 기쁨을 전달해주고 우리의 자질이나 원리에 있는 잘못된 것을 고쳐 주신다는 말이다. 이 구절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다. 그분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며 병을 고쳐 주시는 일에 종사하셨다. 이를 좀더 세밀히 말하면 지성에 진리를 가르치시고 의지에 선한 것을 전파하시며 생활속에 있는 악하고

거짓된 무질서를 바로잡아주신다는 말이다. 그분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이유는 회당이 교리측면에서의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이유가 복음은 주님의 오심으로 밝히 알게 되는 말씀속의 선과 진리들인 바, 이것들이 심정을 통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백성들사이에 있는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다. 그래서 아픔과 질병은 생활의 실제적 무질서를 의미하고, 이는 악한 욕망과 추구가 행동으로 빠져나와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백성”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무질서는 지적 차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 이유는 악은 이해성에서 의지로 또는 의지에서 이해성으로 건너가기도 하는데, 지성에 뿌리를 둔 무질서는 의지에 뿌리를 둔 것보다는 덜 악하고 죽어져야 할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실수로 빚어진 죄는 의도적으로 범한 죄보다는 덜 파괴적이다. 이런 수준의 죄가 이방인들 또는 이방인같은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있는 악의 성격이다. 이를 더 좁혀 말하면 본문에서 갈릴래아 사람들, 그 지역 거주민들인데 이 지역이 교회를 표현하되 이방인같은 상태의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

24.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시리아 또는 아람은 거룩한 땅 밖, 요르단 서쪽편에 해당된다. 사실 이 지역은 히브리교회가 시작되었던 곳이고 아브라함시대까지만 해도 말씀에 관한 지식이 얼마정도는 남아있었는데 바탄아람지역쪽은 아브라함이 있었고, 발람의 시대까지만 해도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것이나, 발람은 자기가 소유한 지식을 이스라엘 후손을 향해 점을 치는데 남용했었기도 하다. 히브리의 남은 자들 또는 두 번째 고대교리는 오랫동안 시리아에 잔존했으나 결국 우상숭배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시리아는 두 가지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히브리교회가 세워진 시리아로서 좁은 의미에서 생각해본다면 시리아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나 우상화 된 시리아를 생각한다면 그에 반대되는 것, 뒤집혀진 원리를 말하게 된다. 주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을 때 그 소문은 지역의 순수한 이방인이라는 백성이라기보다는 교회와 어느정도나마 인연이 있었던 백성들 사이에 퍼진 것으로 국한된다. 그 결과 시리아인들은 복음을 받을 준비,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다음 절에서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갖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과 마귀들린 사람들과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병(아픔)은 아주 넓은 측면의 용어인바, 이 갖가지 종류란 일반적인 악과, 특수한 악들을 포함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악들은 의지와 이해성, 생활에 속하는 것들인데 이 절에서 세 가지 질병으로 표현된다. 마귀들린 사람은 의지에 있는 악을, 간질병자는

이해성에 있는 거짓을, 중풍병자는 생활속의 악들이다. 이 세 가지 병세는 신약성서에서 언급되는 질병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그분의 능력은 이들의 많은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병자들은 온 시리아로부터, 갈릴래아 온 지역으로부터 왔는데, “예수께서는 그들도 모두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자비가 많고 틀림없이 치료하는 의사와 같다. 그분께 나아오면 구원해 주실 것으로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이의 질병과 영적 무질서를 치료해주신 것이다.

25. 치료받고자 찾아온 많은 병자 외에도 “갈릴래아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많은 무리란 마음속에 든 무수한 생각과 애정을 표현한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치료하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해서 그들과 그분이 연결되도록 이끌어내시고 특별히 신성한 생명의 법칙을 확증하게 해주신다. 이 사항이 그분을 따랐다라는 것에 담긴 의미이다. 많은 군중의 출신 지역은 그들이 표현하는 생각과 애정의 종류들을 암시해준다. 갈릴래아와 데카폴리스 출신들은 안과밖, 또는 천적수준과 영적-자연적수준을 의미한다. 그이유가 데카폴리스는 가나안과 시리아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영적수준과 천적수준을 의미하고 요르단 건너편 출신은 감각적 수준과 육적수준을 의미한다. 이따므로 이 군중들은 개성과 원리에 있는 온갖 등급을 다 망라해 주는데, 영적인 것을 고려해서 말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거듭나는 삶으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다. 네 제자를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것, 그들이 주님을 따른 것, 각 처에서 온 많은 군중은 온갖 종류의 생각과 애정을 표현한다는 것, 이들 모두는 예수속의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영향아래 모두 놓여지고 있다. 이제 구세주는 믿음과 사랑의 최고도의 대상이 되시어 이해성과 의지안으로 영접되고 있다. 제자와 더불어 이 군중을 향해 산위에서의 주님의 설교가 선포되고 있다. 그분께서 전달하시는 진리의 보편성과 장엄함은 가나안땅 안과밖, 각처로부터 청중들을 끌어당기고도 남는다. 이는 각 개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분이 지상에 오시어 밝히 알게 해주는 드높고 거룩한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능력과 자질은 반드시 그분께 돌아서야 할 것이다. 이 사항은 이미 그분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바이기도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인간심정에 심어주시기위해 성령은 역사하고 있다.

5

본 장은 구원하는 지혜의 장엄한 시리즈로서 드넓게 감탄의 논지가 되어왔던 “산 위에서의 설교, 산상설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인간 구원의 역사를 위해 육을 입으신 여호와,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강연의 첫 정규과정 이자 긴 강연이다.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까지, 즉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신성이 아들을 인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표현된 신성한 본질과 그분의 외적 인간 사이의 직접적인 교통이 있을 때까지, 그분은 어떤 공적 선교에도 진입하지 않으셨다. 그런 다음 광야에서 시험을 거치신 후 갈릴래아로 되돌아가시면서 “그 때로부터 예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시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셨다.” 이 선포는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말과 동일하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 사이에 있는 병자와 허약자를 고쳐 주셨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신 말씀 외에 그분의 가르침이 주어진 첫 견본이 제 5장이다. 이 기록은 신성한 연설자의 속성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타락한 인간성이라는 영역에 사랑의 심부름꾼이 되어 내려오시는 천국의 문장들이다. 그분의 입술은 “복되다”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진실되고 흐뭇하게 우리를 격려하시는지 모른다. 이어져 내려가는 각 구절에서 그분의 종교가 요구하는 도덕의 품질이나 진리의 뛰어남이 얼마나 높은지를 풍부하게 선포하고 계신다. 그러나 재보증이나 규탄 같은 것을 함축하는 어떤 틀에 넣어두는 대신, 그분은 제자들로 진정한 종교에 속한 이들이 보여 주어야 하는 의무에 밝은 마음으로 종사하도록 겸손한 자, 괴로워하는 자, 마음씨 고운 자들에게 축복을 쏟으심으로 격려하고 있으신다. 인류는 그분의 부드러운 애정의 대상이라는 것,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선은 반드시 잘 키워져야 한다는 것, 그들의 비참함을 그분은 아주 가엾게 보고 계신다는 것, 그분 심정의 기쁨은 악과 슬픔을 제거해주고

선을 나누어주어 영원히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심으로 시작하시고 있다.

1. 그러므로 그분의 신성한 가르침은 그분의 사랑을 명백히 보여주심으로 특색있게 시작되고 있다. 그분의 모든 가르침, 요구사항, 모든 그분의 말씀과 행동들, 인류와 더불어 오가게 될 모든 것이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부터임을 분명히 해두심으로 시작된다. 이런 사항들이 강연을 전달하는 주위환경과 상황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분께서 무리를 보셨다는 것은 자연적인 눈으로 그들을 보셨다는 것 뿐 아니라 인간이라는 어린아이들, 방황하는 대상들의 상태나 조건을 보셨다는 것까지 의미한다. 이 무리들에 관해 다른 구절을 첨가해 본다면, “목자 없어 흩어진 양떼”일 것이다.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그분의 관심, 그들에게 있어지는 섭리는 그들이 진실되고 영원한 선을 위해 그들의 상황이 허락하는 최상의 방도에서 설비해주신다. 사실 신성한 시작은 예견과 섭리이다. 주님이 무리에게 말하심, 보신다는 것은 상태에 따라 인류에 있게 되는 섭리의 실행을 표현하는 말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들은 그분의 말씀이 신성하고 영적인 것을 표현한다는 것보다 덜 무게 있는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분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 그분이 돌보셔야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인간에게 나아갈 그분의 사랑과 지혜의 어떤 활동을 표현해주고 있다. 지상에서의 그분의 행동이 이런 속성을 지니는 까닭에 대 강연을 구성하는 사랑의 가르침을 전달하실 때 산으로 오르신 것이다. 막연히 자연적 관점에서 산에 오르셨다는 말을 생각하면 이 행동은 무리가 주님을 잘 볼 수 있고 그분 역시 무리를 잘 보실 수 있거나 말이 잘 들리게 하시려 한 행동으로밖에 여길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이 행동에는 그분 자신 속에 있는 원리나 상태와 상응되고 있고, 이로부터 그분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훈육의 말을 전달하신다.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이 강연의 시작에 있는 스타일이 분명하게 나타내듯이 그분은 신성한 사랑의 자극으로부터 선포되고 있는 바, 본문의 산은 그와 정확히 상응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거룩한 말씀에서, 특히 예언서 부분에서 산이나 언덕은 자주 언급된다. 그 이유가 산 (mountain)은 천적 수준의 사랑, 즉 주님을 사랑함, 언덕(hill)은 영적 수준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높은데로 오름이 진행되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있어지기 때문이다. 더 열렬하게 사랑의 본성이 추켜지면 그 사람의 내적 상태는 더욱 천국과 주님에게 가까워진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집이 산꼭대기

에 세워진나라든가, 언덕 위로 드높아질 것이라고 선포되는 예언부분은 새교회에서 밝혀지는 바 같이 사랑의 원리가 더 낮은 천적, 영적 애정 위에 군림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연하시는 준비로서 산으로 가신다고 말해질 경우, 그분께서는 켈 수 없는 사랑의 높이와 깊이로 들어가셨다는 것, 이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신성한 말씀들, 인류를 거듭나게 하고 계발해 주시기 위해 교통되는 모든 진리들이 있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분이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 곁으로 왔다.” 이 모습은 유대교회에서 선생이 가르침을 전달할 때의 태도이다. 서서 가르치지 않고 앉아서 가르치는 스승의 모습은 그 당시 대부분의 주변 국가들에서도 익히 아는 가르침의 태도이기도 하다. 앉아서 가르친 이유는 앉음이 강연의 항구성과 확실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앉아서 전달하는 것은 전달되는 교리가 항구적이고 불변한 진리임을 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이 의미는 얼마나 정확히 들어맞는가! 강연의 내용이 엄격하게 타당하고 그 의미의 무게 때문에 그분께서는 산 위로 올라가시고 스스로 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분이 전달하는 교리들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신성한 진리를 받아쓰는 것이요, 이 진리가 불변하고 영원한 것은 무한한 복지와 사랑이라는 목적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2. 이제 “예수께서는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는 인간의 진정한 복지 증진, 인류의 구원을 꾸준히 지도 감독해줄 무한한 지혜이자 생명을 주는 가르침이 교통되고 그 교리들을 밝히 알게 해주신다는 뜻이다.

3. 주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그분 주위에 둘러서고 그분 앞에 무리가 서게 되었을 때 그분은 신성한 강연을 시작하시어 말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제 우리가 행복(beatitudes)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각 복들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간의 연결에 관한 몇 가지를 주목해보고 시작해야 할것으로 여겨진다. 모든 이가 의심치 않는 것 중 하나는 신성한 말씀에서 서술되는 모든 것과 같이 이 행복 조항에도 어떤 시리즈나 정규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 각 항목은 서로 앞뒤에 이어지는 구절과는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모든 항목은 신성한 배열을 원리로해서 연결짓고 있어 각각은 시리즈로서 이 항목이 저 항목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 각 항목은 행복 조항 내에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똑같은 타당성을 가질 수 없도록도 장치되어 있다는 것일게다. 배열된 원리가 무엇이든

지 거룩한 말씀의 많은 부분, 가르침이나 대화체, 강연등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 본문도 명백히 알기는 힘들다. 이 문제를 예증해볼 수 있는 어떤 것을 찾는 것도 어렵게 되어있다. 아래에 제공하는 배열의 원리역시 자신 있게 제안하는 내용이지도 않다. 하느님의 말씀에서 주제들이 시리즈로 분류되듯 각 축복 조항들이 두 개 내지 세 개씩 묶어진다고 식별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이 축복 조항은 여덟개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있는 구절의 경우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장 형태로 볼 경우, 마지막 두 개는 서로 구분되고 있어 전체로 볼 때 아홉 가지를 만들고 있다. 그 이유가 각 절을 구분 지어주는 특징있는 단어 “행복되다, blessed”가 아홉 번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절을 둘씩 묶어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셋씩 묶어 분류해볼 수 있을는지 모르나 각 절끼리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사항을 고려한다면 셋씩으로 분류할 수도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류되는 방법은 첫 네 절을 한 묶음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 네 절은 각 두절이 한 쌍을 이루면서 두 쌍을 형성한다. 그리고 각 쌍은 다른 쌍에 대한 명백한 관련을 가지므로 두 개의 큰 부분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 절은 다시 두 개의 작은 문장을 구성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두절은 명백히 하나로 합병을 이루고 있다. 하나는 선에 관련을, 다른 하나는 진리에 관계하되 같은 질서나 상태에 위치한다. 이러므로 신성한 말씀에서 자주 주목하게 하는 천국적 결혼을 구성하고 있다. 앞 절은 자신들에게 선이 결핍되었다고 간주하는 이들을, 뒷 절은 진리가 자신들에게 결여되었다고 간주하는 이들과 관련을 갖는다. 그 다음 두절(5, 6절)도 앞의 두절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되면서 3, 4절에 각각 응답하고 있다. “은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이 절은 선함과 진리를 바라는 이들과 관계되는 절들이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관계가 있고 각 절에 있는 축복 조항, 하늘 나라와 땅을 차지함 역시 명백한 관계가 있다. 두 번째 분류 그룹인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첫 그룹의 두 번째 절인 슬퍼하는 자와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만족할 것이라는 축복항목은 위로를 받는다는에 답하고 있다.

두 분류 그룹의 각각은 진리에 더 관련되거나 선에 더 관련되고 있다. 그래서 두 그룹은 똑같은 관계를 서로 나누고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와 슬퍼하는 자는 진리를 원리로 하는데

관련을 갖고 온유한 자와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선을 원리로 하는데 관련되고 있다. 사실 선을 원리로 한다는 말은 선을 달성했다는 말이 아니라 선을 바래고 찾고 있다는 정도에서 하는 말이다.

그 다음 세 절(7, 8, 9절)은 서로 서로 관련을 갖고 있어 앞의 그룹이나 뒤의 그룹에 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세 절 스스로 한 묶음을 형성한다고 생각되는 편이 더 나올지 모른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뵈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비를 베풀, 마음이 깨끗함, 평화를 위해 일함이라는 용어들은 의지나 사랑의 상태에 소속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세 가지 등차의 선을 즐기는 것이다. 이들은 신성한 진리를 원리로, 신성한 진리를 지각하는 것을 주님의 선물로 간주하는 이들이다.

마지막 두 절(10, 11절)은 모두 옳은 일 때문에 박해받거나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과 관계되는 바 서로가 서로에 속해 있고 그들 스스로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선이나 진리 양측면의 어느 쪽이든 시험을 수단으로 악에서 순수해짐을 통하여 진리와 선을 달성하는 이들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절들은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의 결합을 결과되게 하는 수단, 인간 자신과 주님과의 결합을 위한 수단과 관계가 있다.

이상과 같은 아주 가벼운 스케치로 팔 복이라는 시리즈를 분류하는 어떤 명백한 모형에 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어찌됐든 저자의 견해로 볼 때, 첫 두절인 마음이 가난함과 슬퍼함이 한 쌍을 이루고, 둘째 그룹, 온유함과 옳은 일에 주리는 목마름이 또 다른 한 쌍을 이루되 첫 쌍과 둘째 쌍은 다시 복합된 쌍을 이루고 있다. 세 번째 그룹, 자비로움, 마음이 깨끗함, 평화를 위해 일함이 스스로 한 그룹을 형성하고 마지막 두 절, 박해받음과 모욕당함 역시 독립적으로 한 그룹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첫 네 절이 한 그룹, 그 다음 세 절이 한 그룹, 마지막 두 절이 한 그룹이라고 분류해볼 수 있다.

위의 분류 방법이 옳든지, 그렇지 않든지 제쳐두더라도 또 한 가지 거룩한 말씀에서 설득력있는 원리가 있다. 이 원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주제의 일반적 시리즈가 지니는 원리이다. 차례로 언급되는 주제 중 첫 번째는 보편적 원리에 해당된다는 것, 이 원리는 다른 모든 주제를 관할하면서 세부사항의 위치를 결정짓는다. 본문의 경우 마음이

가난함이 이에 해당된다. 한 마디로 이 구절은 겸손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속에서 천국적인 품위가 자랄 수 있는 바탕이 겸손이다. 그러므로 행복의 항목들이 열거되는 첫째에 겸손이 놓여진 이유는 첫 절 이하의 모든 행복을 즐기는 것은 우선적으로 겸손이 마음에 건설되어 심정과 지성 모두를 통치하는 원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무엇이 이 본문에서의 겸손일까? 겸손은 자만과 오만에 반대되는 말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언어로 마음이 가난함에 대한 품질을 한 가지 용어로 표현해낼 수는 없다. 그 이유가 가난함(poor)은 자아부정보다는 오히려 이기심을 느끼게 하는 비열함(abject)이나 천박함(mean)이라는 단어를 연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를 피해 한 가지 의미만을 전달해주는 뾰족한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들이 본문에서 주님이 언급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이들일 수가 없는 이유는 이 강연의 이어지는 뒤편에서 제자들에게 말하시기를 “선을 행하고 남에게 꾸어주되 되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누가 6:35)라고 명령하실 때라든가, 가장 결정적인 태도로 모든 이기적 관점을 견책하시는 경우 등의 기록 때문이다. 위에 인용한 누가복음의 경우, 이해관계 없는 태도로 행동하는 이들에게 하늘에서 보상이 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하신 것은 진리이다. 그러나 이 보상은 선의 상태와 독립된 외적인 보답, 또는 재지불이라든가, 그 보상으로부터 그 사람 자신의 마음 안에 있어지는 행복 같은 것을 뜻하는게 아니라, 그 선함 자체 안에 내재한 행복을 뜻하고, 이 행복은 그 사람 자신이 선 자체를 위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선함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부터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따라서 보상이나 보수가 무엇이든 상관없는 태도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수준에 비례하여 더욱 더 커지는 행복이다.

어떤 보답이나 명성, 하다 못해 칭찬조차도 개의치 않는 이해관계 없이 실지로 행동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는 것은 모두 받은 것임을 가장 깊이 있게 인정하는 사람이고, 더불어 모든 진정한 선함, 위대함의 근원은 오로지 한군데뿐이라는 것까지도, 창조물의 행동에 진열되는 선함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 창조자가 내린 선물이라는 것까지 인정한다. 그는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것과 그가 모든 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동등한 일이라는 것, 그가 느끼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악밖에 없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것이다. 순수한 선함, 진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천국적인 속성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와 같은 세 종류에 속하는 자신 속의 것은 무엇이든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존재한다는 것, 따라서 선함과 진리, 천국 속성을

만드신 분과 연결을 이루지 않고도 자신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되 끊임없이 평소에 인정하고 있다. 자신 홀로 만으로부터는 어떤 선도 진리도 없다는 것을 느끼고 확신하는 깊이와 충만도는 선함과 진리의 창조자이시오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분으로부터 그분 자체인 품위있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비례된다. 그러므로 행복의 첫째 조건을 말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임”을 분명히 해주신 것이다. 그 이유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으로부터는 영적 빈곤과 결핍됨을 가슴으로 느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자기로부터는 어떤 지식도, 이해도, 지혜도 없음을 느끼고 보는 것이다. 심정으로 느껴 인정함에 비례해서 그에 부응되는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능력이 있고, 그분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을 사용해서 즐길 능력도 갖추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는 하늘나라, 신성한 진리의 통치가 있고 그 통치가 가져오는 모든 은총이 더불어 존재하게 된다. 설사 아래로부터 오는 시험, 자라나려는 애정과 싸우려드는 인간 본성 속의 악이 활개침으로 오는 시험 때문에 하늘 나라가 자기 소유 속에 있다는 것이 언제나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신성한 근원자, 파산될 수 없는 경영자로부터 증여된 선물에 관한 것은 당사자가 어두운 상태에 있다해도 그의 재산으로, 그의 권리 안에 존재한다.

4.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있는 약속과 더불어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이다. 그 이유는 위 두 구절의 용어들이 특별히 인간의 역할 측면에서 인정함과 지각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즉 3절의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부터는 어떤 지식도 이해도 지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4절의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는 어떤 선, 이타애, 천국적 사랑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각기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위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 속에 있는 것, 자신에 관한 것이 자신으로부터라고 간주하여 그것들을 주님과 분리시킬 경우 의지와 이해성의 필수품인 천국적인 품위가 결핍되고 만다는 것을 실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자아를 비운 사람은 주님이 들어가실 땅이 있게 되어 그분의 선으로 채워진다. 이로부터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 받게 되리라”고 말해지는 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된다. 따라서 자신 안에서 느껴지는 결핍이 제거된다는 말이고, 그는 자신 스스로부터는 어떤 선도 존재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는 바, 그들의 능력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충분하고도 최대한도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

어찌됐든 한 가지 사실은, 소극적 측면에서 인간은 자신 스스로부터는 어떤 선이나

진리도 없다는 것, 적극적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자신 스스로부터는 악밖에 없다는 점이다. 소위 인간의 타락이라 불리는 것과 더 무수한 세대를 통하면서 축적된 악들로 인해 인간들은 지독하게 혐오스러운 악에 빠질 경향성을 세상에 가져다 놓게 되었다. 그야말로 인간의 이기심은 위와 같은 악한 경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런 악의 규모가 큰 작든 행동으로 옮겨다 놓는 경향성마저 허용하여 주님의 순수한 통치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 이런 인간 바탕이 진실로 자기 상태임을 느끼게 될 때 슬퍼하는 감정으로 노출되기도 한다. 그리고 선이 자기 속에서 왜곡되어 있다거나 상실된 것 때문에 나오는 비통함이 기록한 말씀에서 언급되는 슬퍼함의 영적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 속의 악을 지각하고서 슬퍼할 자는 없다.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내면으로 받은 선한 어떤 것으로부터만 슬퍼할 수 있다. 그런고로 죄 때문에 슬퍼함이 단지 죄로 인해 받게 될 벌 때문이 아니라 진실로 그 죄 자체 때문에 슬퍼한다면 선이나 자비, 은총이라는 원리는 주님으로부터 현재에도 있다는 것, 이 원리가 치료약이라는 확실성까지 붙잡게 된다. 주님으로부터 와서 인간과 현존하는 선이 선에 반대되는 악을 제거해주게 될 때, 치료가 결과되어 영혼 속에 영원히 있게 된다. 그렇게 될 뿐 아니라 그 치료의 효능은 온 심정과 지성 그리고 생활을 채워 의식적으로도 그 원리를 사랑하기까지 해서 기쁨과 행복에 상응하는 감각에까지 이르러 모두 동참하게 된다. 이것이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확실히 보증하고 있다.

5. 첫 두 가지 축복 조항은 내적 측면에 있는 선을 원리로 하는 사람들이 외적 측면에 있는 무질서를 보는 것, 인간의 외적 측면에는 악과 거짓만 있다는 것을 식별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 다음 두 개의 축복 조항은 위 내적 측면이 본 것에 대해 대답을 하고 있는 바, 선함과 진리가 외적 측면에까지 이식되어진 이들에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외적 측면에 있는 악과 거짓을 제거하는 자와 관계가 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은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기 위해, 개개인일 경우 각 사람의 외적 인간에 관련된 것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 구절의 경우 거듭남의 상태와 질서에 있게되는 외적 인간을 명시하고 있다. 온유한 사람이란 이타애를 원리로 삼는 사람, 내적 인간에 있는 이타애로부터 외적 인간의 애정 안에서, 이타애를 꺾박하는 것들을 향해, 타락하는 인간이 분노나 복수, 폭력을 가지고 반대자에 대처하는 경우와 달리 참으면서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 과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어처구니없는 난동을 부렸을 때

이런 기록이 있다.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온유한 사람은 없었다” (민수기 12:3). 그리고 녹초가 되도록 무거운 짐을 진 주님 자신을 두고 그분께서는 애처로운 연설을 이렇게 하셨다. “내 멩에를 지고 나에게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낮으니...” 이타애의 원리로부터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바, 이들은 외적 인간에서 있게 되는 갖가지 쓰라림이나 분노 같은 것, 설사 신성한 스승이 허용하시는 긴 시련에 수반되는 각종 것들까지 규율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는 단지 자신 속의 악을 인정하고 그 악을 슬퍼하고만 있는게 아니라 이와 같은 인정함의 결과인 그 악의 제거로 선에 소속되는 일까지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유함이라는 품위를 키워 나가는 행복한 사람은 기어이 땅을 상속받게 된다. 이는 많은 사람이 꿈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성인(saint)들이 세상의 좋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소유한다는 것, 지상 영역에서 왕국이 그들에게 수여될 것이라는 등등과 같은 착각을 해선 안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연적 출생을 수단으로 모든 악들은 인간의 외적 부분(외적 인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것들이 개혁되고 거듭나짐으로 외적 인간의 모든 악이 제거되어 외적인간마저 천국 원리에 의해 규율되어 내적 인간에 종속되면서 평온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온유한 사람은 이타애를 원리로 하는 사람, 이타애의 원리에 의거 외적 인간 속의 감정까지 통제해 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위에서 관찰했다. 이쯤해서 한 가지 상기해둘 것은 이타애의 본질은 진리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진리가 가르치는 것에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애정)이 이타애인 것이다. 사람들 중 가장 온유하다고 일컬어진 모세는 내적 바탕에서는 신성 같은 법(the law Divine), 신성 같은 진리(truth Divine)를 표현한다. 단어 온유(meek)를 좀 더 엄격히 말해보자면 내면에 있는 진리의 품질을 묘사하는 말이다. 내면에 있는 진리의 품성은 논쟁적이지 않고 화해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구절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자신 스스로부터서는 어떤 지식도, 총명도, 지혜도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따라서 자기로부터 서는 진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빈곤을 인정하는 순간이야말로 진리와 교통되게 되는 기회이다. 또는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에 속하는 자, 내적 인간이 열려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할 온유한 자가 되는 때이고, 내적 진리와 그 진리로부터 선 가운데 있는 자가 거듭나지는 외적 인간의 모든 품위를 소유하게 되는 때라는 말도 된다.

6. 다음의 축복 조항,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는 선함과 진리에 대한 애정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애정은 받는 능력인 모든 선과 진리와의 교통을 수단으로 그의 성실도에 따라 확실히 채워진다. 주님의 경우 배고프심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에게 선을 교통시켜주고자 하시는 진지한 바램이다. 인간의 경우, 배고파 음식을 갈망하는 모습처럼 의지에 적절한 양식인 선함이 증여되기를 바라는 것을 말한다. 같은 방식으로 목마름도 살필 수 있다. 이는 이해성의 양식으로 진리를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바램을 말한다. 정의는 분명하게 선함이다. 따라서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의지와 이해성에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해서 선을 바래고 찾는 것을 말한다.

그 자체를 충족시키는 바램이 위의 방식이다. 그 이유는 더 나은 것을 진실로 바래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꼭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헛된 소원, 열매를 못맺는 것을 소원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주리고 목마른 애정의 진정한 바램이 곧바로 자신의 상태라는 식으로 우월성을 지적으로 확신하는 계산착오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런고로 진실된 바램이라는 것은 행복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바램의 상태에 약속된 행복은 내향의 평화와 만족을 수단으로 이 세상 삶에서부터 발달이 시작되어 기쁨과 즐거움이 최대한으로 충만되도록 저 세상 삶에서 팽창될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첫 네 개의 축복 조항을 살폈다. 이 네 절은 두 절씩 포개진 구절을 구성하면서 서로 관계적으로 답을 주고 있고, 신성한 말씀에서 자주 관찰되는 천국적 결혼의 종류들, 선함과 진리의 하나됨에 일치를 이루고 있다. 네 구절이 각 두절씩 쌍을 이루고 각 쌍이 다시 두겹 쌍들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하느님의 말씀 중 시적 부분에서 더 자주 발견된다. 그러나 세 겹으로된 구절들은 그리 흔하지 않다. 이 세겹은 주님으로부터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 안에 있는 신성한 질서의 세 등차를 표현한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는 그분 자신의 속성에 존재하고 있다. 이로부터 인간의 속성, 즉 그의 형상에도 파생되고 더불어 천국과 교회, 계다가 충만되고 완성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안에 이 삼위일체는 존재한다. 이로부터 3이라는 숫자는 신성한 글자에서 충만과 완성을 의미한다. 다음 세 축복은 이 질서에 일치하여 배열을 이루고 있다. 세 구절 모두 선의 상태들에 관해 특별히 관계하고 있다. 그래서 천국적 선과 사랑을 달성하는 수준에 의해 식별되는 인물들의 세 등급, 또는 이 구절에 세 가지 부류의 자질을 통해 거듭나진 마음에 열려진

바대로의 세 가지 우수함의 등차와 관계되고 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 심정(heart)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즉 세 용어들, 자비로움, 깨끗함, 평화를 만듭선 의 상태들에 우선적으로 관계된다고 확실하게 여겨진다. 이런 품성들은 가장 감탄할 수 있고 드높여지는 천국적 품성에 속한다. 이 품성들은 우리의 교리에서 사용되는 천적 인간과도 관계된다.

이미 살핀 축복 조항들은 위쪽으로의 진보를 기술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계속되는 구절에서도 승강하는 질서가 계속 관찰될 거라고 상상해볼는지 모른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이어지는 세 절은 그 질서를 따르고 있지 않음을 암시해주는데 그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되어 생략하겠다.

7.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까지 흔히 사용될 때 단어 자비(mercy)는 우리에게 불법적인 공격이나 피해를 입게 해서 상대방이 분명히 죄가 있다고 확실히 판단되는 이들을 향해 있게 되는 마음속의 애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애정을 말한다. 그러나 이 단어의 근원을 살펴본다면, 물론 그 근원에도 위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만, 보다 더 광범위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 취지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쌍히 여김(compassion, pity)을 뜻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즉 불행하거나 재난을 당한 이들을 향해 있어지는 모든 선행(benevolence)까지 포함된다. 만일 우리에게 피해를 가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누군가를 그 벌에서 면제를 해줄 경우, 우리는 그가 자비를 입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재난을 당한 누군가를 동정해서 구제해준다면 우리는 그가 동정을 받았다고 말한다. 위 경우 모두 자비에 관한 성경적인 생각에 포함된다. 재난 또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 실행한 가장 높은 등차의 선행을 성경에서 자비로 일컫고 있다. 그런 고로 인간, 그 자신만을 떼어내 생각한다면 그는 참으로 스스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창조물이요 큰 재난에 쉽게 노출되고 마는 피조물인 바,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는 즉각 영원한 파멸로 치닫고 만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이런 인간들에게 실시되는 주님의 사랑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비이다. 이래서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끈임없이 자비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그분의 사랑을 발견한다. 특별히 그분의 자비가 시편 같은 부분에서는 영감된 애원으로 표현되고 있다. 내 본성과 그 본성에서 출생되는 조건이 비참한 것뿐이라고 깊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진짜 행복을 달성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느끼는

이들, 따라서 주님께서 선물로서 나누어주시는 것 없이는 어떤 것도 성취 못한다고 통감하는 이들은 순수한 자비 그대로 그분의 사랑과 관대하심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이 받게된 그분의 사랑이 자비임을 인정하고 느껴져야 한다. 가장 깊은 심정의 느낌은 예레미야를 통한 신성한 말씀에 표현되어있다.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 3:22). 위와 같이 느끼는 사람들 모두가 잘 아는 것은, 만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와의 교통이 자신들로부터 철회된다면 그 순간 이기심 속에 든 악이 뛰쳐나와 자신들을 파멸되게 할 것이라는 것들이다. 인간이 이 사랑을 더 심오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에게 증여되는 선물 역시 더 충만해진다. 그 이유는 비록 주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선물을 보류해두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해도 인간은 자기 안으로 그분의 사랑이 흘러 들 수 있는 빈방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는 주님의 열싸안으시는 모든 사랑을 받는 그릇이 된다. 가장 큰 등차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이들, 이로부터 그분의 사랑의 특별한 대상이 되는 이들은 모든 것을 그분의 자비로 여긴다. 이것이 천적 인간에게 가장 돌출되는 특성, 즉 주님을 사랑함을 제일 원리로 삼는 이들의 특성인 것이다.

이제 물어볼 것도 없는 사실이 있다. 자신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체해서 채운 사람들은 타인들을 향해 그분은 넘치는 사랑과 동정을 흘러 보낼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 본문의 축복 조항에서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공격해서 해를 준 이들을 향해서도 자비로울 것인 바, 그들을 용서하고 선을 베풀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의 이타애는 신중하게 처리될 것이다. 그들은 아주 혹독한 적들까지 포함해서 상대방의 뼈뿔어진 행위를 자세히 관찰하되 동점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그들의 행위를 되돌려 치는 어떤 방식도 혐오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사악함이 더 거세지도록 하는 어떤 수단도 제공않을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즉 사악한 자들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선한 자들에게는 저런 방법으로 자기의 이타애를 밖으로 표현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인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모두 실시되고 있다는 것, 자비의 형체를 취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게 해주신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 그들은 각자에게 있는 무한한 등차에서 행동하기를 바라는 바, 때로 그들이 연약한 능력만 있을 경우는 그에 부응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이 보시는 등차를 흉내내서라도 관조해보려 할 것이다. 그들은 진정 행복되고 선한 길로부터 이탈해서 방황하는 이들에 대해 애티는 마음을 느낄 것이다. 이로부터 그들의 악한 길과

눈이 먼 상태에서 빠져 나와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그들은 불쌍히 여김과 부드러움을 어떤 사건에서이든 흠모해서 바깥쪽 재난에 빠진 이들에게는 외적인 동정심을, 영적 결핍에 빠진 이들에게는 내적인 동정심을 느끼면서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방의 능력이 커지는 한도만큼에서 서로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선이 행해지기를 바랄 것이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되 이 세상에서는 비록 희미한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다면 어찌됐든 자비로운 영을 더욱 호흡해가서 저 세계에서는 공개적이고 더욱 충만한 자비의 영을 즐기고,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자비를 획득하는 경험을 누리리라.

8. “심정(heart)이 깨끗한 사람”의 축복 역시 천적인 인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이지만 천적 선에 바탕을 둔 이들의 이해성, 또는 그들의 지적 품질에 더 관계를 갖고 있다. 그 반면 이미 살핀 자비로운 사람은 그들의 의지 자체의 품질에 더 관계하고 있다.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천적 사랑 즉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를 통치하는 사랑으로 삼고 있는 이들의 지적 부분은 그들의 의지 부분과 완전하게 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의지를 떼어놓고 지적 부분만으로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어 언제나 사랑과 애정과 더불어 연결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진짜 생각들은 자기들의 가장 깊은 의지를 점령하는 사랑에서 파생되는 애정이 형체를 갖춘 것 뿐이다. 그런고로 심정이 깨끗하다는 것은 의지가 신성한 진리의 작용을 수단으로 순수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이유가, 천적인 사람들은 어떤 진리를 듣게 될 때 그 진리를 되씹어 보아야 할 문제로서 기억 속에 저장해놓지 않고 삶 속에서 즉각 실행해서 자기 것이 되게 하여 그 진리가 의지를 더욱 깨끗하게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그들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심정(heart)은 성경에서 의지의 표현물로 언제나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심정이 순수해진다는 것은 신성한 진리들을 자기 것이 되게 하는 지속적인 실습을 통해 악이 더럽힌 의지를 청소해 가는 것이요, 그 결과 삶 역시 정화된다. 그리고 이 정화됨을 수단으로 더욱 더 불순함과 악을 계속적으로 제거하는 것까지 뜻한다.

천적 선에 바탕을 둔 이들의 지적 상태와 이 구절이 관련된다는 것은 이 구절에 약속된 축복의 말로부터도 명백해진다. 즉 심정이 깨끗한 사람은 “하느님을 뵙게 된다”에서 쉽게 파악된다. 이 축복은 신성한 진리를 지각하되 직각적으로 지각한다는 말이다. 이 축복은 천적 선을 원리로 하는 사람이 향유하는 복이다. 이들에 속한 선은 지적 부분만이 아닌

의지 자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다는 것은 이해성이 지각함을 뜻하기 위해 성경에서 말해지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느님이라고 말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신성한 진리로 불리는 그분의 속성의 필수 요소를 더 뾰족하게 나타내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느님을 뵈는다”는 것은 주님이라는 분을 한 개인(person)으로 영적으로 명백히 붙잡는다는 것뿐 아니라 내면의 눈, 지각으로 주님의 신성한 진리를 납득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심정이 순수한 자 즉 자신의 의지와 이해성이 깨끗해지기 위해 배운 모든 진리를 응용하여 삶이라는 실체에 혼합됨으로 악을 제거한 사람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위와 같은 지각을 가질 수 없다.

9. 7, 8절에 있는 두 축복 조항에서 우리는 천적 인간에 관한 상태와 축복, 이 사람의 의지와 이해성에 관한 것, 의지와 완전한 하나를 만드는 지각에 관한 묘사를 가져보았다. 따라서 9절에 있는 조항,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는 위 두 축복에 이어지는 순서인 바, 이 구절은 독실한 품성(heavenly-minded character)이 삶에서 실시되는 것과 관련됨을 쉽게 알 것이라 본다. 어떤 행동이라야 순수하고 드높은 사랑이라는 내향의 원리가 바깥쪽에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마 평화를 만드는 일이 심정의 바탕을 이루어 행동에 나타나는 것 이상은 없을 것이다. 정말 분명한 하나라면, 사랑은 위대한 화평자라는 것이다. 사랑의 역사가 확장되고 열납되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존재한다. 히브리어의 형체에서도 어떤 개인 또는 지역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넓은 측면에서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뜻하도록 구약성서에서 서술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근원되는 용어가 영어로 번역될 경우, “평화를 행하는 자, peace doer,” 그 뜻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 peacemaker”와 비슷하리라 본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그들의 행동 모두가 선하고 유용한 쪽에 기울어 한결같은 것이고, 그가 취급하는 모든 것의 번영을 증진시켜 줄 것이다. 이들의 행동들 모두는 일반적으로 선 쪽에 기우는 경향만이 있을 것이다. 본문은 위 두 용어 모두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행동은 천적 사랑에 의해 작동되어 나온 인간 삶을 가장 특징있게 한 표현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사사건건 평화를 향하고 있다. 만일 온 인류가 똑같은 천국적 사랑에 의해 영향받아진다면 지상 어디에나 평화밖에 없으리라. 어느 누구도 타인을 해치려는 쪽으로 행동하지 않으리라.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이미 저질러진 과열을 고치고 치료하느라 분주하기만 할 것이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함과 상호간의 사랑을 수단으로 구성되어진다. 이들은 주님의 자비를 받음으로 자비로워지고 신성한 진리를 삶에 계속 응용해감으로 심정은 더욱 깨끗해진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에는 위의 내용 외에도 더 내면에 속하는 의미가 있다. 이 용어는 순수하게 영적 의미 안에서 볼 경우 자연에서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밖에 없는 자연적 인간과 영적 인간, 또는 인간 자신과 하느님 사이의 불일치들을 제거시키는 이들과 관계된다. 유전적 속성과 출생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자연적 인간은 영적 인간을 압도하려든다. 그래서 쌍방간의 반대는 오로지 종속시킴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고 자연적 인간이 거둬낼 때 가능하다. 따라서 먼저 자연적 인간은 영적 인간에게 복종된 다음, 영적 인간, 즉 내적 인간에 의해 사랑되는 것과 똑같은 것에 대한 애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영적 인간이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연적 인간은 신속하고도 기쁘게 집행해가야 한다. 이것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수단으로 동시에 평화가 만들어지는 바, 두 인간 사이에 결합이 있고 더불어 주님과 인간과도 결합된다. 이상의 내용이 천국적 품성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 불리울 때의 의미들이다. 내적 평화를 만든 결과가 이미 살핀 바와 같이 내적 인간의 지시에 의해 외적 인간이 수행하는 선에 속한 것과 평화이다. 더불어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행동 중에 있는 사랑(love in act)을 주님이 평가하시는 바, 가장 높은 축복을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돌리시고 있다는 것이요, 이 사랑은 본문 외 많은 부분에서도 암시되기도 한다. 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children)이란 거둬남으로 그분에게서 태어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내적 인간이 뜻하는 것을 외적 인간이 행하되 그 행동이 자유롭고도 동시적일 때만 결과되는 기쁨을 느낄 때까지 거둬남은 여하튼 완성되지 않는다.

이상 살핀 세 축복(7, 8, 9절)의 시종일관된 시리즈에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가장 드높은 상태에 관한 그림을 보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경우, 이 구절들에 있는 순수함과 거룩함이 자신들을 격려하기 보다 “어느 누군들 달성 가능하다는 말인가?” 라고 내뱉으면서 오히려 주저앉고 말는지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축복 조항은 그렇게 처신하게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구절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고 겸손하게 따르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상태를 묘사해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 상태를 달성하는 방법이 이 세 절들이 우리로 알게 하고자하는 것들인 바, 즉 심정이 깨끗해지려면 삶에 신성한 진리를 꾸준히 응용해 가면 가능하고, 우리의 특전으로 알게된 진리를 신실하게

고용해가노라면 어떤 천국적 상태라도 모두 실감할 수 있고 더욱이 주님의 자비를 수단으로 하게 되면 천국적 상태들은 결국 우리의 것이 되고야 마는 바 천사들의 어떤 특출함도 달성 가능할 뿐이다.

이상으로 각각 살핀 7개의 구절은 그 자체들 스스로 완성되면서도 하나의 시리즈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축복 조항은 계속 이어지는 강연의 한 부분임을 참작해서 생각한다면, 이 구절들은 더 납득력 있는 전체 중 한 부분을 취할 뿐임도 자연스레 알 수 있다. 산상 설교를 한 개의 관점으로 간주한다면 7개의 축복조항들은 심정과 지성 안에 있는 종교의 품위들이 형성된 모습을 기술해준다. 이와 동시에 있어지는 부분들은 율법과 그 법에 대한 의무와 관련되면서 종교생활의 미덕으로 그 품위들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첫 부분(3-6절)은 인간의 속 부분(내적 인간)이 거듭나는 것에, 두 번째 부분(7-9절)은 인간의 바깥 부분(외적 인간)의 거듭남에 관계되고 있다. 외적 인간의 거듭남 또는 외적 인간과 내적 인간이 하나됨은 시험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는 결과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과 상반되어 있어 양쪽간의 반복적이고 심한 다툼이 없이 순종할리 만무이고 더구나 서로 조화를 이루지도 못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첫 7개의 축복 조항과 율법의 해설과 그 실시에 관한 강연 사이에 “박해를 받는 사람”에 속한 행복을 소개하고 있으신 것이다. 이제 그 사항을 살펴보겠다.

10.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persecution)란 시험을 뜻한다. 시험(temptation)은 인간 안쪽에서 있게 되는 박해, 영적인 박해이다. 시험은 전 시대에 걸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쉽게 걸러드는 박해 중의 하나이고, 인간 바깥쪽에서 벌어지는 시련들과 별도로 독립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바깥쪽 박해가 자신에게 영원히 중지되는 때조차 에서도 안쪽의 박해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언제나 견뎌내어야만 하는 박해이다. 위 설명이 맞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이 전 시대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해 한결같은 실용적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이 내향적 박해가 정의를 위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 진실로 이겨내어야 하는 것들이다. 이 박해는 정의 또는 선함을 위해, 그리고 심정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자기 영혼의 참 생명이요 기쁨이 되는 고로 이겨내야 하는 시험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시험은 인간 내면에 있게 되는 등차에 따라 강약이 달라진다. 더 심한 경쟁이 붙을수록 더 큰 상이 오게 되어있다. 심정이 사랑하는 선이 더 고귀하면 할수록 그 선을 잃게 되어 오는 번민 역시 더욱 커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시련들은 각자 속의 선함을

더 값지도록 만들어 주는 쪽으로, 그 선의 소유권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는 쪽으로, 그 선을 심정 속의 애정 안으로 더욱 깊게 박히도록 해주는 쪽으로 향하고, 더불어 그 선에 반대되는 악을 제거해 가는 쪽으로까지 발전되게 해준다. 우리의 이기적 사랑이 더 증속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드높여진다. 이 찬양함에서 모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증가되어간다. 이 축복 조항이 우리로 시험을 받으라고 언급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착각은 하지 않으리라 본다. 오히려 시험을 이겨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리라 본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 시험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요, 목적이 달성될 때 그 보상을 경험하게 된다. 다시 여기서 그 보상은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천국은 우리의 영적인 축복의 첫 번째요 마지막이다. 먼저 천국이 우리 안에 열려지고 그 다음 완성되어진다.

11.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진행하시고 있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이 구절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시험의 범위가 기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험의 본성은 주님의 앞의 말씀들에서 암시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시험은 인간 속에 든 전부를 망라하고 있다. 그 이유가 모욕(revile)한다는 것은 의지에 있는 선을 배척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박해한다는 것은 이해성에 있는 진리를 배척한다는 표시이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한다는 것은 삶 속에 있는 선을 배척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박해자는 “주님 때문에” 거짓되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씌어있다. 박해당하는 이들은 제자들이고, 제자란 기독교인의 품위와 미덕에 속하는 모든 것 또는 선과 진리에 관한 원리들을 표현해준다. 제자로 표현된 원리들이 우리 안에서 악하고 유해한 영들에 반기를 들 때 박해가 있어진다. 악령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진리를 미워하여 파괴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아 행동하는 품위와 미덕을 수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최고의 선과 진리로서의 주님의 신성한 기운은 악의 왕국에 속하는 영들을 지독하게 미워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12. 주님은 약속뿐만 아니라 간곡히 타이르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시 말해 박해를 받게 될 때 기뻐하라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감정이 사도들에 의해 표현된 곳을 찾아볼 수 있다. “내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1:2, 3). 바울 역시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3, 4). 환난과 시험 속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완전에 관한 높은 상태를 표시한다는 것은 물어볼 여지도 없다. 형체가 내적이든, 외적이든 역경은 우리 믿음에 아주 날카로운 시련 중의 하나이다. 역경은 많은 이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삶의 길에 뾰족하게 돌출된 돌과 같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 돌에 다치고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면 그런 돌에 다치고 넘어지면서도 우리를 즐거워하게 만드는 마음의 상태는 무엇일까? 많은 초기 순교자들이 주목할만한 수준에서 이 상태를 나열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부 측면에서의 시련보다는 내부 측면에서의 시험에서 기쁨을 잃지 않은 것일게다. 시련 가운데 있어 육체가 고통당할 때도 마음은 평온할 수도 있다. 그 반면 시험 속에서 마음이 고통당하고 그 반면 육체는 고통에서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고뇌는 기뻐한다기보다 비통해 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정신 세계의 폭풍이 지나가고 천국으로부터 태양이 비쳐올 때 자기의 정신 세계에 지나칠 정도로 부담을 안겨 주었던 불순물이 깨끗해지면서 새로운 삶과 활력이 그의 영혼에 생기를 넣어준다. 이 때 향유하는 내향의 기쁨이 시험받은 영혼에 약속된 천국의 크나큰 보상이다. 그 보상을 경험한 천국이 내적 인간의 천국이다. 이곳으로부터 천국의 기쁨들이 내려와 이해성을 지나가면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준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제자들은 훈계받고 있다. 그 이유는 기쁨(joy)은 의지에 속한 애정이고 즐거워함(gladness)은 이해성에 속한 애정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그들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라는 점에서 영적으로 이해해본다면, 예언자들이 받았다는 이전의 박해는 보다 수준이 낮은 질서, 더 외적인 부류에 속하는 시험 즉 이전의 시험과 관계되는 말이다. 정의로운 사람이 선에 관계되는데 비해 예언자는 진리에 관계된다. 진리에 관한 시험은 영적 수준의 시험이고 선에 관한 시험은 천적 수준의 시험이다. 전자는 후자를 위해 길을 준비한다. 따라서 보다 강도가 약한 시험(진리 측면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은 보다 더 큰 시험(선의 측면에서의 시험)도 이겨낼 수 있음을 약속해주시고 있다.

13. 지금까지 살핀 축복의 결말들이 하나로 되어 다음 네 절에서 나타나고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 없어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뒷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엮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소금은 순수한 진리가 선과 결합하고자 하는 선천적인 바램 또는 모든 순수한 선이 진리와 결합하려는 선천적인 바램을 의미한다. 이 강연의 대상은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교인들, 신성한 진리에 관한 지식을 소유한 덕택에 소금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성에 받아들인 진리가 선함과 결합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는 맛을 잃은 소금 같이 되고 아무 쓸모 없어 버려질 수밖에 없는 바, 이와 같이 결실 없는 교인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 밖으로 내던지시겠다는 것도 암시해주고 있다.

각 개인 속에서 살필 때 제자들이란 각자의 세월동안 영적으로 그 세계를 보존하고 그 세상의 맛을 돌구는 수단들이다. 모든 진정한 제자라면 자기 세대 속에서 세상에서의 이 역할을 수행한다. 어둡고 부패된 시대 때에 정의로운 극소수의 사람들이 인류로 하여금 천국과 연결될 수 있게 보존되어 왔고 혹독한 섞어짐에서 대중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영적 의미로 볼 때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은 한층 더 높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제자가 교회 속의 선과 진리들로, 교회 자체는 땅과 세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를 거듭남에 응용하면 땅과 세상은 자연적 마음을, 제자는 영적 원리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응용해보면 상응의 언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게 된다. 애정을 상징하는 소금은 유대인의 의식 예배에 드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지시되고 있다. “너희가 드리는 곡식 예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한다. 너희 곡식 예물에 너희 하느님과 계약을 맺을 때 치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레위기 2:13).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예식 규정을 영적으로 성취해야하는 가를 보여주시고자 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마가복음 9:49).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애정을 가지는 것이다.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본문의 말씀에는 더 많은 교훈을 담고 있다. 땅으로 의미되는 자연적 마음은 부패가 있어지는 영적인 장소이다. 이 마음은 유전적으로 이어받는 상태인 바 어떻게든 교정을 받지 않으면, 썩게 만드는 원리를 기어이 채택해서 스스로 확증하려는 기질이 있다. 교정을 해주는

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에 애정이 함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짠맛이 있는 소금이라는 진리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만일 진리가 그와 함께 있을 애정 또는 선함을 잃는다면 그 마음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상태에서 보존되면서 맛을 내지 못할 것이다. 애정이 없는 진리 또는 생각 또는 행동, 언어, 생명 자체라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애정은 생명 속에 있는 진정한 소금이다. 애정이 없을 경우 생명의 풍미는 사라지고 만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이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종교의 실체인 애정이 빠지게 되면 종교의 형체인 진리는 아무쓸데 없어 밖에 버려져 밭에 짓밟히게 된다. 이 세상에서 짓밟히면 다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저 세상에서 애정을 가지지 않은 진리는 자동적으로 그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의 밭아래서 뒹굴고 만다. 밭(feet)은 인간 마음의 자연적 수준이나 감각적 부분에 상응된다. 따라서 밭로 짓밟는다는 것은 자연적 마음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대신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거절되어 경멸되면서 저주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구절과 흡사하면서도 더 똑똑하게 언급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14장 35절에 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도 소용없고 거름으로도 쓸 수 없어 내버릴 수밖에 없다.” 이 구절에서 취급되는 상태는 심정이 한때 흠모해왔던 영적 애정의 소멸에 대한 것이다. 이는 모독을 야기시키는 상태이다.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도 소용없고 거름으로도 쓸 수 없듯이 모독자들은 천국에도 지옥에도 있을 곳이 없어 모든 이들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구역에 던져져서 인간 존재로 있는게 아니라 어떤 것이라는 물건으로 존재하게 된다.

14. 그 다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성경에서 진리를 의미할 때 언제나 빛이 사용되고 있다. 이 상응물은 너무도 명백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다. 빛은 자연적인 대상을 명백하게 해주어 그것들의 본성과 색깔을 나타내게 해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는 생각과 애정의 대상물에 관계된다. 신성한 진리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지식을 수단으로 마음을 형성하는 바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그 지식들은 그들의 견해를 이끌어내는 품질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신성한 진리, 진리의 원천으로부터 즉각적으로 견해를 갖지 못하는 이들의 삶을 안내해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진정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묘사하는 것,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얼마나 고귀한 특전인지! 그러나 이 고귀한 특전도 그에 부응하는 의무의 충실함 없이는 존재되지 않는다. 세상의 빛으로

행동해야 하는 이들이 수행해야만 하는 의무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게 되고 만다. 주님의 제자들은 단지 세상 사람이라는 것에서 구별지어주는 뭔가가 그들에게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 분명히 있어야 할 어떤 것이란 세상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여 추구하는 것을 따라 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세상의 방법에서 그들보다 앞서가는데 에도 있지 않다. 따라서 외적 인간이 기뻐 날뛰는 실습현장 속에서 공통적으로 놀아나는 무리를 떠나는 곳에 있게 된다. 한 마디로 신성한 지혜가 세상의 빛이라 부르는 것에 있다. 신성한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천직으로 삼고 따라가고자 할 때 세상의 방법에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확증해서는 안된다. 필요한 것,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을 넘어 있는 것이 그를 확증하게 해야 한다. 한 마디로 신성한 선생이 보여주는 것을 따라야 한다.

“언덕 위에 있는 성읍(city)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는 아주 당연한 사실이다. 이 말씀이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행동하려는 이들의 경우를 예증하고 있지만 자연적 형상의 상응이 알려져 영적 의미가 해독되기 전에는 아주 일반적인 의미나 매우 불분명한 수준을 제외한다면 전혀 알 수 없는 말씀이다. 성읍(city)은 신성한 진리 속의 교리 또는 교리로 골격이 짜여진 교회나 교인을 명시하기 위해 성경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언덕(hill)은 사랑과 이타애를 상징할 때, 반대 의미일 경우 세상욕과 이기적 성취를 상징할 때 늘 사용되고 있다. 본 구절의 경우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언덕 위에 있는 성이란 사랑과 이타애에 바탕을 둔 진리의 교리이다. 이 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다. 사랑 또는 이타애에 바탕을 둔 진리의 교리를 지닌 교회나 교인은 그들 주위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사랑으로 호흡되고 있는 진리가 있는 곳, 거기서의 진리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유용하기만 하다. 그래서 교회나 사회, 세상에 혜택만을 주는데 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나 수단은 각각의 영기(sphere)의 등차에 따라 계속되어진다. 다시 확신되는 바, 언덕 위에 있는 성은 감추일 수 없다. 사랑과 하나된 진리의 지식 또는 믿음을 지닌 이들, 뭔가 유용해지기를 바라는 이들, 그런 열정을 지닌 이들은 속세의 사람들 속에 그대로 감추어 놓여있을 수 없게 되어있다. 언덕 위의 성이 얼마나 잘 드러나느냐 하는 것은 그 언덕의 높이에 좌우되고 높게 위치하면 더 먼데서도 볼 가능성이 많아진다. 신성한 진리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의 빛도 그러해서 그 사람과 하나된 애정의 수준 또는 그 애정의 광도에 따라 그의 진리는

더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5. 이제 신성한 훈계자는 교회 또는 교인이 세상의 빛이 되는데 필요한 것에 대해 반대되는 것을 수단으로 예증하시고 있다. “등불을 켜서 뒷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예증에 있는 일반적 의미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지라 놀랄 정도로 명확해 있다. 등불은 방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려는 목적에서 켜지고 있다. 빛을 내는 것을 뒷박 밑에 두면 자신도 어둡고 남도 어둡게 만드는 것인 바 자기가 얼마나 우둔한지를 높이 세워 보이는 것만이 될 것이다. 자신 속에서 진리가 빛을 밝혀줄 때 그가 그 빛을 보고서도 그것을 생각이나 공론의 수준으로 여겨서 그 진리가 자신의 행동지침이나 삶에 응용하는 결과를 낳지 못한다면, 또한 그 진리는 누군가 타인에 해당되는 가르침인 듯 여기고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길 경우 정작 그 사람 속에 빛을 밝힌 진리는 당사자에게도 타인에게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다. 속이 비어있어 뭔가를 담는 그릇(뒷박) 종류는 뭔가를 담는 인간의 자질과 관계된다. 그리고 측량하는 그릇이나 도구들은 그릇이 담고 있는 물건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면 포도주잔이 포도주를 의미하기 위해 언급되는 경우와 같다. 어떤 것을 담기 위한 기구들은 반드시 위쪽이 열려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 기구는 주님 왕국에 있는 품위와 그에 속하는 진리들을 담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한다. 따라서 이 기구는 그 진리 자체나 품위 자체까지 표현한다. 그 반면 기구가 등불을 덮기 위해 사용될 경우 그 기구는 아래쪽으로 열려있어야만 한다. 이럴 경우의 이 기구는 주님의 나라에 있는 선과 진리를 받지 않겠다는 것, 오히려 담겨 있는 것마저도 거절하고 쏟아내겠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런 상태가 허용된다면 이는 아래로부터 들어가는 것, 거꾸로된 질서로 되는 것, 질식시키는 질서, 왜곡된 것들, 오로지 파괴되는 것만을 표현한다. 이런 마음(뒷박) 안으로 진리의 빛이 거꾸로 들어간다면 이기심 속에 즉각 갇혀지고 말아 그 진리는 마음을 계발해줄 수 없고 행동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며 그 사람을 위한 유익한 어떤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등불은 반드시 높이 들려져 그 빛의 광선이 나가는 주위에 어떤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된다. 고대 시대 때의 등불은 우리가 탁자 위에 놓아둘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물건이 아니었다. 그 당시의 등불은 기둥이나 큰 가지들을 사용해 높은 장소를 만들고 그 위에 놓음으로 장애물이 없게 해서 두루 비치게 하였다. 이렇게 자리잡은 등은 승강되고 있는 상태의 마음 안에 든 진리,

선함을 향하는 애정과 결합될 목적을 지닌 진리, 진리를 적절히 삶에 응용해 보고 싶은 바램 등등과 상응된다. 이렇게 높여 놓은 위치에 있는 진리를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all)을 다 밝게 비추지 않겠느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속성인지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에 광선이 보내지듯 마음속의 빛도 인간 마음에 든 모든 가구들의 품질과 본성이 드러나 그 인간으로 질서있게 그것들을 배열할 수 있게 해서 모든 것이 각각에 알맞은 용도에 충당되게 해준다.

16. 이제 주님께서는 아주 강한 훈계로 위에서 고용된 형상들의 응용을 마감짓고 계신다. “너희는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선을 행하는 우리의 목적이 자신의 선행을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그들로부터 좋은 말로 듣기 위해서일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자신의 선행을 타인이 보겠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속에 있는 빛이 적절하게 작용되도록 해서 그 빛에 부응되는 질서와 순수함으로 진리 자체가 드러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삶, 설사 그 삶이 못 사람들의 총애를 받지 못한다해도 그 삶의 원리는 그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바 우리의 행동이 걸치레가 아닌 신실함에서 출발하는 것만큼은 보게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원리의 주인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임을 못사람들로 알게 해주는 바 그분께 선한 열매가 돌아가 그분이 찬양을 받게 되리라. 이럴 때 우리는 타인으로 하여금 우리같이 행동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된다. 신실한 기독교인의 중요한 목적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이 타인 안에서 뭔가 결과를 맺게 하는데 도구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수단으로 그 진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이 우리를 거둬나게 하는 것을 매듭지을 수 있게 해서 우리 삶은 천국 질서로 자리잡아진다. 이럴 때만이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구가 되어드리는 것이요, 동시에 우리 속의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된다.

17. 사용하지 않는 지식의 무가치함, 행동으로 자기 믿음을 보여야 할 필요성을 말하신 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이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율법은 불변하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율법의 영성을 보여주신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어떤 종교적인 격언도 이 구절보다 더 무게가 있을 수 없고, 동시에 이는 새교회 교리

중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는 교리 즉 “모든 종교는 삶에 관계가 있고 종교의 생명(삶)은 선을 행하는 것, all religion has relation to life, and life of religion is to do good”임이 확증되도록 발표되고 있다. 종교는 인간과 창조자 사이를 연결하는 끈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실제로 서로간에 맞는 방법에서 연결을 가능하게 할까? 더욱이 창조자의 뜻에 인간의 부분이 일치될 이루는 것, 창조자의 품성과 유사해지는 것을 어떻게 유한한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할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모든 선의 근원이다. 이 선함 자체에 만물이 근원을 두고, 각각의 본성에 알맞은 축복으로 각각에 알맞은 즐거움을 향유하게 된다. 특별히 인간의 경우 가장 높은 질서라는 축복이 있는 바, 그것은 자기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것, 창조자의 완전함에 자기의 유한함이 한몫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 자기 조건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모든 선의 저자는 무엇을 찾고 계실까? 그분의 합리성을 본따서 만든 후손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그분이 나누어주시는 선을 잘 받으려는 인간의 노력일 것이다. 어쨌든 영적이든 도덕적이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을 수동적인 자세로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은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선을 이런 저런 방법으로 다시 행동해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측면, 어떤 부피나 품질에서도 자신의 것이 되는 것 즉 자신에게 귀속(impute)될 수 없고, 아마 자기 안에 전혀 거주할 수도 없을 것이다.

본문보다 더 장엄한 취지(burden)를 줄 수 있는 계시나 하느님이 주실 수 있는 더 이상의 것도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가르침이나 훈계로 가득 차 있는 구약성서는 “모든 종교는 삶에 관계되고 종교의 삶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신성한 저자의 평가를 증언하고 있다. 유대 교회가 발생하고 거기에 계시가 주어졌었지만 전적으로 뒤집어졌고 다시 기독교회가 인간 구속의 성취를 위해 등장하지만 그분의 뜻과 지혜에 관한 더 많은 계시를 주시려고 이전에 주셔왔던 계시를 폐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시를 뒤집은 유대교회의 부패를 깨끗이 척결하시어 계시의 진정한 본성, 그 뜻, 그 취지를 더 발달시키시어 과거 유대교회에 알려졌던 것보다 더 충실해지게 하시었다. 위 사항들이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을 구성한다.

18. 이런 주님의 서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명백히 전달하시려는 것에 정확히 반대되는 교리를 고수하는 이들이 기독교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이 구절을 원치

않아 왔다. 그들은 이 구절 자체로만 보아도 아주 명백하게 상반되는 것, 즉 정의나 구원은 이타애나 선한 일에 의존되지 않고 믿음으로만 성취된다는 감정을 고취하는데 이용하기까지 했다. 다시 읽어보자.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 참된 구절에 의거 그들은 이렇게 응수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개인 자격으로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고, 이 일은 어느 누구도 이뤄낸 적이 없다. 그분께서는 이 완성된 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까지 그 사람이 완성한 것같이 귀속시켜주셨다. 각 개인이 율법을 완성 못했다 해도 어느 누구에게도 완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실제로 완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율법이 완전히 폐지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된다. 하느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모든 이 각자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실 뿐인데 그 이유는 그분의 이들을 수단으로 율법의 완성을 사람들에게 귀속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전통이나 발명품에 의해 아무 효과 없는 상태로 전락되고 만다. 그리고 그들은 이 구절에 이어 말씀하신 대목 “분명히 말해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가 위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구절이라고 확증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다는 말은 더 이상 완성해야 할 것이 없다는 뜻인 바 그리스도 이후의 신자들에게는 율법을 완성하도록 더 이상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도 이런 이론이 존재하고 확증한다 해도 율법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일 점 일 획도 없어질 수 없다는 그분의 선포는 율법의 일 점 일 획도 영구히 보존될 것이라는 엄한 언약인 것이다. 이 신성한 말씀의 진정한 취지, 이 문단과 일치할 이루는 의미는 대충 이러하다. 구약성서에서 전달되는 도덕적인 율법, 즉 십계명 속의 것 같은 법, 이와 유사한 삶에 관한 법들은 폐지되는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집행되고 열려진다는 말이다. 영적 의미에서 볼 때 율법과 예언서라는 용어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는 선함과 진리의 하나됨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언어에서 꾸준히 동반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기 위한 이유 때문이다. 법이란 영적으로 선에, 예언이란 진리와 관계되는 용어이다. 그 이유가 법은 삶의 의무들에 더 관련되는 신성한 진리를 나타내고, 예언들은 교리 요점에 더 관련되는 신성한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더 명백한 것은 진리 자체가 주님이신바 자신인 신성한 진리를 파괴해버리거나 폐지하는 일은 결코 있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삶의 의무들을 규정하는 법, 교리의 요점을 규정하는 진리를 폐지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수도 없는 터무니없

는 헛소리일 뿐이다. 한번 진리였으면 그것이 어떤 주제로 되어 있었든지 영원히 진리이다. 폐지된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다. 진리의 주인에 의해 파괴된다는 것은 결코 있어질 수 없다. 오히려 더 개방되는 것, 그분이 나누어주시는 새로운 도움, 그분이 인성을 입으심으로 해서 창조물에 숙박하실 수 있으신 결과 인간의 심정과 지성, 그리고 인간의 안쪽, 바깥쪽 삶이라는 양 측면에서 진리의 적용이 있게 되어 하늘로부터 받은 진리가 더 깊숙이 소개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진리는 인간 측면에서 더 완성되어진다. 주님께서 율법의 일 점 일 획까지 다 완성하셨다는 사항은 진리 중의 진리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인성을 영화하신 뒤 그와 같은 과정으로 인간 역시 완성할 수 있는 길을 터놓으셨다.

“하늘과 땅”은 온 우주를 포함하는 말이나 영적으로 볼 때 천국과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이 교회들에게는 절대적인 중단은 결코 없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은 일 점 일 획도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신성한 법 또는 말씀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 또는 신성한 진리는 영원할 뿐이라는 것, 실지 그러한지를 진리 자체가 명백해지게 해준다는 말과 동일하다.

19. 하느님의 법에 대한 항구적인 의무, 이 의무는 내적 원리로부터 순종해야 할뿐 아니라 외적 형태로부터 서도 순종해야할 필요성을 이 절에서 이렇게 역설하신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 상습적으로 신성한 계명들을 깨트리고 그렇게 하도록 타인에게도 가르치면서도 천국에 간다는 것, 비록 그가 가장 천한 자리에 있다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뜻하는 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사람을 경멸하고 가치 없는 자로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기들 천국 사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한다는 것, 오히려 그가 지닌 낮은 위치가 그를 천국밖에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천사들은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천사라 해도 가장 낮은 천사를 결코 경멸하지 않는다. 본문의 용어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란 인간 본성의 모든 품성 측면에서 가장 저급을 지닌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합리적이고 불멸하는 창조물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비천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따라서 진정한 인간성을 가장 적게 지닌 자들

그리고 천국 안에 있는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자들을 말한다. 계명 중 작은 것을 깨트린 적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본문을 두고 어떤 이가 말하기도 하지만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계명에 어떤 권위도 인정 않고 의무도 생각지 않는 사람, 따라서 자기와 똑같은 짓을 타인도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 신성한 사항들을 떼어내고 계명을 조롱하거나 논쟁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의미 파악은 단어 “어김, break, 깨트림”의 의미와 용도로부터 서도 알 수 있다. 이 단어는 우연한 행동, 뜻밖의 행동으로 계명을 위반하는 것, 그 행동이 반복안될 경우 미래에 회개할 수도 있는 계명의 위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번역된 단어 “없앴, destroy, 파괴”와 같은 뜻에 해당된다. 두 단어는 복합 형태에서 똑 같은 단어이다. 즉 어떤 것의 권위로부터 오게된 의무라는 것을 폐지함, 해체한다는 뜻이다. 이 문단에서 주님께 의해 언급된 두 가지 행동은 인간의 두 자질인 의지와 이해성에 관련되고 있다. 의지에서 오는 목적(purpose)이 계명을 어김으로, 이해성으로부터 온 확증이 가르침으로 의미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 그가 범한 죄가 가볍든, 무겁든 상관없이 모두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으리라.”

위 대화에 자연스레 이어져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된 선을 품성으로 지닌 사람은 천국적인 위대함으로 승강되는데 적절하다는 것,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느냐는 선함에만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사항으로부터 성경의 영적 의미에서 크다는 말, great, 위대함이 선을 뜻한다는 것까지 알 수 있다.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지키되 그 계명의 저자의 뜻을 헤아리려는 진실된 존경심을 발휘하는 사람은 모든 계명을 행하려는 노력을 영원히 할 것인 바 더욱 더 완전한 계명의 준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천국은 이런 의도가 늘 보여지는 곳이고 이것만을 고수하는 사람은 큰 사람 또는 아직 그 사람에게 불완전함이 있다해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리운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은 그의 불완전함을 이겨내려는 영원한 노력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크다는 것이나 작다는 것은 계명에 등급을 매기고자 일컬어지는게 아니다. 가장 적다는 말은 자연적 경향성에 기울러드는 마음의 상태에 가장 적게 저항한다는 것, 가장 적은 노력을 쏟고 있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자기 심정 속에 하느님에 대한 관심을 진지하게 간직하는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받은 선함으로 삶을 꾸리는 바, 더 큰 계명에 어긋나는

죄를 짓는 일이 당연히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 엄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율법이라는 주제에 있는 전체 교리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바리사이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들은 신성한 법의 외적 준수에 있어서는 그 법이 요구하는 것에 엄격했고 그 법을 주지하는 것 역시 세밀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무는 빗겨가도록 공리를 자주 해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셨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대해서는 십분의 일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십분의 일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또 다른 계명에 부합될 수 있는 가공된 걸치레를 가지고 더 무거운 의무 조항을 피해갔다. 그들이 재산을 당한 친구를 원조하기를 거절해야 할 때 자기들 재산을 걸치레로 하느님께 기증하는 수단을 사용했다. 이른 바 이런 규정들을 고르반(corban)이라 부른다. 그 이유는 고르반이라는 규정은 그 용도가 어떠한 거룩한 예물 또는 진실로 하느님께 헌신하는 것들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외적 형태로 볼 때 그들은 계명을 준수했다. 그러나 계명의 준수가 심정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던 까닭에 그 행위는 글자대로의 껍질에 불과한 채 계명이 존속되게 했다. 라삐 중에서 학식이 많고 영민하다고 평을 받는 성경 주석가 데이빗 김치(David Kimchi)는 이런 구절 즉 “나 만일 나쁜 뜻을 품었더라면 주께서는 아니 들어주셨으리라” (시편 66:18)에 대한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는 모든 사람 각자가 보는 것이 진정한 취지가 아니라는 것, 악을 심정에서 의도적으로 흠모하면서 있게되는 기도의 경우 바깥쪽 형태를 고려하실 수 없으나 만일 악이 심정 안에서 흠모만 되었을 뿐 아직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주님은 생각이 악한 것까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정죄되는 것은 행동일 뿐 생각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의 정의를 넘어선 정의란 바깥쪽 행동에서의 정의만이 아닌 심정과 생각 속의 정의까지 확장된 정의이다. 이 정의야말로 주님께서 중시하시는 정의, 말과 행동에 국한되기보다 심정과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의이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능하도록 섭리하신다는 것까지 보게 된다면 얼마나 명백한 교리를 얻게 되는지

모른다. 복음서를 수단으로 신성한 법이 폐지되는게 아니라, 가장 완전한 조화를 이루려 하심이다. 따라서 복음서 밑에 있는 우리는 글자만에 거주해선 안된다. 글자 속의 것, 그 영에 거주해야만 한다. 따라서 사도들이 관찰했던 바와 같이 율법의 정의는 육을 따라서가 아닌 영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에게 완성이 있게 된다. 완전을 향해 걸을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찾고 그대로 실시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21-22. 이상과 같은 고대 법에 관한 일반 원리들을 가르치신 뒤 신성한 연설자는 고대법의 계명에 관한 진정한 취지로 속을 채우신 율법과 지금까지 유대인 선생들에 의해 해석되어 백성들이 준수해온 것, 사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믿게 한 것들과 대비시켜 예증하신다. “살인하지 말라 하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Ye have heard that it was said by them of old time, Thou shalt not kill.” 위의 영어 번역의 경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by”가 “to”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많은 학식 있는 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사실 위 본문은 십계명의 내용 중 하나와 관련된다. 이 말씀은 옛 이스라엘 족에 의하여(by) 전달된게 아니라 여호와에 의해(by) 그들에게(to) 전달되었다. 따라서 본문은 “Ye have heard that it was said to them of old time”이 되어야 할 줄로 본다. (참고: 한글 번역의 경우 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또 다른 결함있는 번역은 반복되는 말씀인 “in danger of”에 관한 것인데 이는 마치 벌이 수반되는게 확실치 않는 듯 여겨지게 한다. 사실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in danger of) 놓일 뿐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글 번역의 경우 위와 같음).

주님께서는 이제 신성한 법의 영과 글자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 주시고 있다. 유대인들은 신성한 명령, “살인하지 말라”를 받았다. 그리고 이 명령은 살인이라는 행위만을 금하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바, 이 법은 범죄 행위를 금할 뿐 아니라 그 행위를 생산되게 하는 모든 기질까지 금하도록 의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은 바깥쪽 행위, 사람을 죽이는 아주 흉악한 짓을 진행함으로써 자기에게 와지는 처벌이 두려워서 살인을 억제할 뿐 악의에 차고 복수로 불타는 느낌을 갖는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여겼는 바 이는 참으로 두려운 방법으로 신성한 요구의 권위를 짓밟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함에 반대되는 것들, 미워함, 악의 찬 마음들은 비록 직접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그런 마음의 상태는 그의 영, 그리고 이 세상 이후의 그의 외적 상태는 살인 자체를 저질러

갖게 되는 결과와 동등한 것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보여주시는 바, 외적 살인과 동등한 영원한 정죄를 포함하여 가장 가벼운 정죄까지 이르러 세 가지 등급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적 살인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다는 것, 모두 다 영원한 결과들을 내포하는데, 가벼운 것에서 아주 비통한 것, 이것은 자연적 살인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열거되고 있다. (1) 그중 첫 번째는 이유없는 분노이다. “자기 형제에게 (이유없이)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구절이 내세에서의 당사자의 상태와 관련된다는 것은 명백하리라 본다. 그 이유는 성냄 것이 살인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신성한 재판관 외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한한 지혜의 눈을 수단으로 하면 이 구절이 넘쳐서 비치고 있는 성냄은 살인과 비슷한 본성의 범죄임이 보여진다. 그래서 만일 그 성냄이 점점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살인이라는 것으로 종결되고 말 것인 바, 살인과 동일한 영원한 처벌로 그 사람을 가져다 놓고 만다. 그러나 이 구절이 뜻하고자 하는 바를 진실로 보기 위해서는 위 구절의 내면을 더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악들은 그것이 규모가 크든 작든 그 품질에 상응하는 선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거나 거절을 확정하는게 그 순서이다. 그러므로 화가 나는 원인(offence)은 그것이 관대한 악의에서였든 지독한 악의에서였든 이에 비례해서 이타애를 구체적으로 거절하고 이타애와 결부되는 모든 위반을 금하는 신성한 법칙을 무시하게 된다. 본문의 단어 형제(brother)를 영적 의미에서 이해할 경우 이 단어는 이타애를 명시하도록 성경에서 늘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타애(charity) 또는 상호간의 사랑(mutual love)은 형제다운 하나됨(brotherly union)을 원리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성을 낸다는 것은 그 성냄이 절대적이었던, 외관상이었던 이타애에 반대되는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이타애에 반대하는 것은 언제나 이유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타애를 갖고 대해야 할 사람 또는 가까웁던, 멀던 친척되는 사람을 성내게 할 계산으로 어떤 것도 결코 말하지 않거나 행동하지 않는 정도로 완전한 이타애의 형체를 실시하는 인물은 없을 것이라 본다. 자기 보존(self-preservation)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식하는 모든 존재의 경우 지워질 수 없는 본능(indelible instinct)이다. 이로부터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을 쫓아버린다. 따라서 느닷없는 습격을 당할 때, 분개나 성냄을 느낀다. 이런 때 발생된 성냄은 그 원인이 사라질 경우 즉각 성냄 것도 연기 같이 되어진다. 이런 경우의 성냄은 이타애와 결부되고 만일 양갈음 쪽으로 타락할

경우 고통을 수반해야 한다. 또 다른 이런 느낌도 있다. 악의 없는 성냄의 경우이다. 즉 악을 범한 어떤 사람 자체가 아닌 그 악 자체에 성을 낼 경우이다. 사실 이런 성냄은 분노(anger)라는 표현보다는 열정(zeal)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분노의 원인이 선을 사랑함, 그리고 악행자를 올바르게 사랑함, 이런 사랑이 감정의 기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 느낌은 주님 자신의 덕분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며 노기 띤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라’하고 말씀하셨다” (마가 3:5). 이 경우 탄식은 노기를 띄게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성냄은 미움의 불이 타는게 아닌 사랑의 따뜻함에 해당되는 바 정죄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심정이 무자비하면서 분노를 느끼거나 흠모하여 마음에 끌어들이는 상태는 신성한 진리가 살인한 자에게 내리는 정죄 또는 심판과 동등한 수준에 자기 영혼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오게 한다. (2) 이타애에 반대되는 두 번째 수준이 자기 형제에게 라가(Ra-ca)라고 말하는 것에서 표현되고 있다. 라가(Raca)라는 히브리 말은 어떤 사람을 두고 “무가치한 녀석”이라고 말할 경우와 동등하게 경멸할 때 쓰인 말이다. 여기서 다시 다짐해 볼 것은 이 라가라는 말도 우리가 이해하려면 글자적 의미에 따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놓고 미워해서 무가치한 놈이라고 부를 경우 본문에서 거론되는 정죄를 받아야 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지라도 엄밀히 말한다면 단지 입으로만 뱉은 말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까지 쉽게 단정해버리기는 힘들다.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욕설을 받은 형제가 이타애의 원리이라는 것, 다시 말해 라가라고 말하는 것은 경멸의 말속에 이타애를 잡아놓겠다는 것, 시선을 끌기 위해 냉소하는 태도로 이타애를 간주하는 것, 약하거나 우둔한 사람을 대하는데 꼭 맞는 것이 이타애의 행동인 듯 여겨버리는 것을 뜻한다. 이런 식으로 진정한 이타애를 거절하여 위의 방법 보다 더 교묘히 이타애에 반대하는 상태가 라가라는 말에 표현되어져 있다. 그런 연유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중앙법정(council)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되는 이유는 형제에게 라가라고 영적으로 말하는 이들에게 초래되는 영적 생명의 손실을 암시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이는 이타애에 지적으로 반대하여 스스로 그 반대를 입증하는 이들, 어떤 가책도 없이 그렇게 행동해버리는 이들의 현재 상태와 영원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3) 주님께서 한 가지 더 첨가하시고 있다.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fool)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의 불에 던져질 것이다.” 단어 바보(fool)가 성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악한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완악해서 좋아질 가망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의 사악한 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는 것은 선을 악으로 간주하여 이타애의 모든 것을 정면에서 반대하는 것,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이타애를 반대하는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 역시 지옥불(hell fire, the fire of Gehenna)이라고 선포되고 있다. 이 벌은 그들이 결코 경험치 못했던 무서운 고통, 미치도록 하는 고통을 뜻하는 것이다. 이상 살핀 바로부터 쉽게 간파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가슴 안으로 이타애에 반대되는 어떤 느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 되는가일 것이다. 더 특별한 것은, 본래 우리 속에 존재하는 위와 같이 될 소질들(tendencies)이 탐닉과 확증을 결들임으로 활성화되지 않도록 함이 얼마나 중요한가이다. 이런 방어자세 외에 더 나아가 우리는 이타애에 반대하려드는 심정 속의 모든 것, 행동 지침들을 격퇴하면서 동시에 천국적인 품위(grace)인 이타애 그 자체를 주도면밀하게 키워나가서 주님을 사랑함과 서로간의 사랑이 우리 삶의 생명 있는 원리로 자리를 굳힐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리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재판을 받는 것, 중앙 법정에 넘겨지는 것,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피하게 해준다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반대하는 기분조차도 결코 경험하지 않게 될 행복한 존재들의 사회 구성원으로 준비되는 길이기도 하다.

23, 24. 이제 신성한 교훈자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심정을 들여다 볼 필요성, 즉 순수한 이타애에 상반되는 어떤 것이 그 속에 들어 누워 있는지를 보는 것, 이런 탐사는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 우리의 외적 예배를 주님께서 응낙하실 수 있도록, 자아 검증을 실시해 가야 한다는 것, 더욱이 엄숙한 행위와 연결해서 있게 되는 것을 이렇게 훈계하신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가 심정 안에 있는 나쁜 감정을 즐기려 드는 것을 보는 것, 나쁜 감정을 일상 생활의 자그마한 일인 듯 하찮게 여기려는 우리 자신일 경우, 그것은 아주 큰 외적 범죄를 만드는 운명적인 결과가 된다는 것에 대한 예로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기도와 찬양으로 그분께 존경함(homage)을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이타애로부터 우리나를 애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선, 신실한 어떤 형체의 예배이든 참가자들에게 있어질 축복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선물인 바 그분께

그 원인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럴 때 우리에게 원한(오해)을 품고 있는 형제를 기억함이란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태도인 사랑과 이타애로부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우리 가슴에 이타애와 불일치되는 어떤 애정을 혐오하고 있는 이상 주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 등등을 감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미 살핀바와 같이 성경에서 명명되는 형제는 모든 인류의 가슴을 통치해야 할 이타애의 한 모형을 말하고 있다. 더욱이 주님의 교회 멤버로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교인들로서는 더욱 해당되는 사항이다. 넓은 측면에서 사실 모든 인류는 형제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모두가 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본성의 모든 창조물로서 똑같은 영원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어있다. 더 특별한 것은 우리 모두는 신성한 진리를 받아 각자 영혼에 영적 생명의 원리를 형성시켜 하늘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한 형제로서 느끼는 것, 다시 말해 자연적, 영적 양 측면 모두에서 형제가 서로를 느끼고 자신을 보여주는 애정을 혐오하는 것이다. 추상적 측면에서 볼 때 각 사람 안에는 애정 자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형제라는 단어는 주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이타애 자체의 품위를 거룩한 말씀에서 표현하는데 매우 적절한 형체이다. 그 이유는 인류를 형성하게 하신 그분은 우리가 가족 단위로, 사회 단위로 존재하게 해주면서도 서로를 구별하게 하는 특정한 애정의 저자되신 분과 모두 관련을 맺고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형제가 나에게 원망하고 있는 사항을 제단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천국의 빛으로 자신을 재조명하면서 자기 마음에 소유한 것, 자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 이타애에 반대되는 어떤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을 뜻한다. 누군가를 향해 분개하는 느낌을 혐오하는 한 우리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상태를 가질 수 없다. 또는 어떤 사항에 관련되는 이타애와 접붙일 수 없는 감정이나 애정을 자신 속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느낄 수 있다거나, 마음에서부터 남을 성내게 하는 원리를 제거할 때까지 우리는 예배에서 그분 앞에 나오거나 그분의 제단에 예물을 바치고 열납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태에 거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이타애의 원리와 관련하여 주님이 방향을 정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주님께서 예물을 치워버리라고 명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 읽어들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비록 잘못이 많고 허점투성이인 제자들이라 해도 그들은 자기들 수준 나름대로 그분을 예배하러 온

신실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악으로부터 충분히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 현재의 그들 상태는 악으로 더럽혀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그들을 순수해지지 않게 한 악들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은 그 선의 소유자들로부터 예배를 열납하실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서는 안될 사항이 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충분히 잘 해내지 못했다고 하여 자신 전체를 무시해버리는 옹졸함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일을 잘하지 못했다고 해도 각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제단 앞에 예물을 가져와야만 한다. 다시 말해 신성한 예배에 계속 참석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더불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특별한 섭리가 있어지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일을 끊임없이 찾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신성한 뜻과 말씀을 묵상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열어 말씀의 빛 안에서 자기 상태를 탐험해야 한다.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 신성한 진리의 광선이 비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제단 앞에 예물을 놔두는 것, 즉 주님이 자신의 방향을 정하시도록 자신을 바쳐놓고 도움을 그분께 청하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형제와 화해해야 한다. 즉 우리는 순수한 이타애에 불일치되고 있는 감정, 느낌, 모든 원리를 제거하는 일을 즉각 그리고 계속 해나가야만 한다. 결국 우리는 화해된 형제를 발견한다. 그 이유는 형제는 이타애 자체에서 오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25. 제자들에게 부과하시는 다음 번째 의무는 방금 위에서 생각해보았던 사항과 짝을 이루고 있지만 글자 의미만 가지고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서 얼른 화해하여라.” 위 구절에서 분명하게 상상되고 있는 것은 이 지금 청구는 딱 한 가지라는 것, 그리고 만일 우리가 법정까지 갈 경우 그 재판은 우리에게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충고하는 말은 법정까지 가지 말 것과 청구자와 시간이 있는 동안 합의를 볼 것, 그 합의는 서로 타협을 보든, 청구를 다 들어주든 어찌됐든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그렇지 않으면 재판은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말한 바는, 이 구절도 앞의 구절과 짝을 이룬다는 것이다. 우리가 형제의 기분을 상하게 한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화해를 이루듯 고소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줌으로 합의를 보게 된다. 영적으로 볼 때 형제는 이타애의 원리이고 법적 용어인 고소자(antagonist)는 진리의 원리이다. 신성한 진리 즉 신성한 법을 구성하는 교훈(percept)들은 진리가 요구하는 것에 시선을 모아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의 요구에 관심을 덜 두는 한 교훈들은 법 앞에서 고소자가 되는 위치에서 우리를 대하게 된다. 시간적

여유가 아직 있을 때 우리는 재빠르게 이 고소자와 합의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야하고 그의 청구가 정당함을 인정하여 능력이 닿는 한 최대한 그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 요구의 정당성 또는 이 요구가 포함된 모든 것의 완전한 합리성을 놓고 누가 논쟁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을 신성한 진리가 요구한 적이 있는가를 누가 상상이나 해볼 수 있을까? 신성한 법은 진리 한쪽만으로 청구하는게 아니라 사랑 또는 선함이라는 쪽과 하나되어 늘 청구하고 있다. 만일 진리 쪽에서만 청구한다고 가정해본다면 취소 불가능한 정죄만 있을 것이다. 이 사랑이 이 관정에 간섭하여 믿음과 회개에 있는 용서와 평화를 제공해준다. 그리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바, 신성한 진리가 법적 고소자의 속성으로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 때조차 여기서도, 다시 말해 우리가 진리의 청구서를 받고 누장을 부리는 상황에서조차,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국면이 다른 쪽에서 비치고 있다. 신성한 사랑은 우리와 가까이 합의할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가 그 청구서의 정당함을 인정하게 되면 부과되고야 말 벌금의 액수를 엄격히 계산하지도 않은 채 면제해주는 쪽으로도 가능할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 사랑은 우리가 진리와 길을 가는 동안 진리와 합의를 보는게 가장 슬기롭다고 충고하고 있다. 물론 이에는 소송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도 포함하고 있고, 예비 단계를 넘어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핀다면 고소자와 함께 가고 있는 중(in the way)이라는 것은 길(way)로 의미되는 것인 신성한 진리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는 중임을 뜻한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날라 온 요구사항에 관심을 보여 자세히 검토한 뒤 이를 잘 응용한다면 오히려 그 고소자(진리)로 인해 더 나은 유익함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까지 뜻하고 있다. 신성한 선함은 모든 채무자가 채권자와 길을 가는 동안 그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설비해 두시고 있다. 신성한 정의가 우리의 가슴으로 인정되어 회개해야 하겠다는 것을 진실로 느껴 삶의 수정이라는 적극성을 발휘한다면, 발동이 걸리자마자 신성한 진리는 우리 과거에 쌓여있던 청구사항까지 삭제하라고 말하는 신성한 사랑과 하나를 이루어서 엄격한 진리의 품성은 부드러워지고 만다. 이와 같은 우리의 변화는 과거의 것만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 저 세계를 위한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 합법적인 고소자인 신성한 진리와 합의를 보는 상태가 어느 정도라도 달성되지 않으면 고소자의 태도는 더 팽창한 상태로 바뀔 것이다. 주님께서, “...도중에서 얼른 화해하여라”라고 고만 말씀을 끝내신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형리에게 내주어 감옥에 가둘 것이다” 로까지 말씀을 이으시고 있다. 이 구절이 뜻하는 바는 이러하다. 우리가 고소자인 신성한 진리와 재회하지 않으면 사후 재판관이된 고소자를 만나게 되어 정죄라는 형을 언도받게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 다음 더 나아가 형을 집행할 형리에 넘겨져 토굴 감옥 같은 곳에 처넣어지고야 만다는 말이다.

26. 참으로 육을 입으신 신성한 진리는 위 사항에 덧붙이시기를, “네가 마지막 한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지옥의 형무소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데 대한 비유적인 방법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종이라는 채무의 몫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악들을 자신의 고집으로 옹호하느라 더욱 변명을 들이댄다면, 그리하여 이런 삶이 불멸하는 영혼으로 정착되고 만다면 우리 존재 속의 참 원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마지막 한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풀려나지 못하리라, 또는 이 세상에 있는 이상 우리는 갚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어떤 것도 확보 못한 상태일 경우 할 수 없이 우리는 영원히 지옥 형무소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해낼 수 있는 이 세상 삶 동안 진리와 일치되는 삶을 부지런히 확보하라는 것,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결과를 피하라고 주님의 엄중한 호소가 내려오고 있다.

27. 신성한 선생께서는 살인에 관계된 법으로부터 이제 그와 잘 연관되는 또 다른 악에 관한 법으로 진행하고 있으시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 이 악은 범죄적 측면에서 응징하지는 않고 있다 해도 기독교인들이 죄지을 수 있는 지독한 범죄, 가장 깊은 죄의 하나가 된다. 이 악은 다른 악과 달리 죄짓는 속에 또 다른 혐의를 내포하지 않은 채 또는 다른 파괴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저질러지는 경우가 드물다. 이 악은 가정이나 사회, 도덕적, 종교적 미덕과 행복을 즉각 파괴하는 강한 적이다. 그래서 과거 시나이산 번개 속의 여호와께서 밝히신 각종 법 중 가장 거룩한 법인 십계명의 한 조목을 이루고 있다. 결혼은 신성한 제도이고 자연적 또는 일시적이 아닌 영적 또는 영원히 하나(union)되도록 의도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간을 범하는 사람은 거룩한 것을 위반하는 것이요, 자신에게서 천국과 연결되는 모든 교통을 차단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28.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여타 다른 법과 동일시해서 자기들의 바깥쪽 행동의 규제를 위한 규정정도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법이야말로 자신의 안쪽 삶을 통치하

기 위한 법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신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미워함이 살인이라면 탐욕은 간음이 된다. 사회법이나 바깥쪽에 대한 심사숙고는 간음하는 행위를 예방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만일 간음이 은밀히 흠모된다면 이 악은 이미 심정에서 범해진 것이 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심정을 들여다보시고 인간을 판단하시되 그의 의도들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를 수단으로 결정하시는 바, 의도된 죄는 범해진 죄만큼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길은 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로 자신을 판단하도록 요구된다. 그 이유가 바램은 불을 붙이는 성냥과 같기 때문이다. 고집스럽게 또는 신중한 검토 끝에 흠모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의 행동이다. 이 행동은 만일 바깥쪽 여건이 허락만 된다면 즉각 육체의 행동으로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있다. 흠모한 악과 단지 흥분만된 악 사이에는 큰 폭의 차이점이 있다. 모든 심정(heart)에는 각각 나름대로의 강한 욕망(concupiscence, 색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심정이 그 색욕을 찬성하거나 흠모하는 것도 아니다. 자극해대는 욕망대신 지성(mind)은 그 욕망과 싸우고 정죄한다. 이럴 경우 악이 죄로 전환되지 않는다. 설사 범죄할 최적의 기회가 왔다해도 죄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

영적 의미에서 살인하는 것이 우리 자신 속 또는 타인 속에 있는 영적 삶의 원리를 파괴시키는 것이듯, 간음하는 것은 영적 삶의 원리를 뒤집고 모독하는 것을 말한다. 영혼(soul)속에서 영적 생명을 구성하는 원리란 선함과 진리 또는 사랑과 믿음이다. 이 둘은 영적 파트너, 천국 결혼의 짝이다. 그 중 진리는 남편이 되고 선은 그 아내이다. 이 둘의 하나됨에서 인간과 천국적인 존재들의 모든 미덕과 축복이 생산되어진다. 이 천국 결혼의 반대가 거짓과 악의 결혼이요, 이로부터 세상과 어둠의 왕국에서 판을 치는 모든 죄악과 비참함이 튀어나온다. 그러나 영적 간음은 악과 거짓의 하나됨이 아니라 진리와 악 또는 선과 거짓의 하나됨, 이른 바 천국과 지옥의 하나됨 같은 경우에 존재하게 된다. 먼저 진리의 모독이 있고 그 다음 선함의 모독이 있다. 자연적인 악은 영적인 악과 상응되고 그로부터 결과된 것들이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같이 언제나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인을 보되 심정에서 음란한 생각을 품을 경우 이는 영적인 죄와 자연적인 죄를 둘 다 범하게 되는 것이다.

29, 30. 위 주제에 관한 주님의 견해가 이렇게 이어진다.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오른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 던져 버려라.” 신체기관 중에서 눈은 지성(intellect)에, 손은 의지에 대한 상응물이다. 그리고 생각은 지성의 행동에 해당되고 바램은 의지의 행동에 해당되는 바 생각과 바램은 눈과 손이 지닌 의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있는 생각과 바램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금해야 할 대상과 쾌락을 쳐다보는 눈, 갈망하는 바램은 불법의 원인이 되는 바, 이것들은 거절되어야 더 이상 의도하지 않음으로 해서 불법이라는 것을 아예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만일 이런 것이 불법의 원인으로 간주하여 거절되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가 행동으로 결코 범하지 않는다 해도 죄를 경험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제거되는 죄있는 신체기관은 오른쪽 눈과 오른쪽 손이다. 신체의 기관 중에서 오른쪽 부분에 있는 기관은 의지 쪽에 있는 힘이나 자질들, 왼쪽의 경우는 이해성 속에 있는 것들과 상응된다. 오른쪽 눈과 손이 우리로 불법을 저지르게, 아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로 불법하도록 하는 원인이다. 다시 말해 불순한 생각과 바램이 의지 안에서 기초를 형성할 경우이다. 그러므로 불법을 저지른 오른쪽 눈과 손이란 육체라는 것에 속한 단점인 자연적 약함, 부패함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악으로부터 진행되고 심정 안에서 고집스럽게 흠모한 결과를 말한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요소에 대해 해야할 사항을 말하신다. “그 눈을 빼어 던져 버려라... 그 손을 찍어 던져 버려라.” 불순한 생각들이 지성 속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을 점검해보야 거절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들이 지적 측면의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지 않는다. 불순한 바램이 심정 속에서 흥분되고 있다면, 그것에 저항하고 정죄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들이 자발적(의지) 측면에서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지 못할 것이다. “찍는(빼는)” 것과 “던져버리는” 것, 두 행동으로 나뉘어 서술된 이유는 이 두 가지는 악을 완전히 거절하는데 필요로 되는 마음의 두 가지 구분되는 작용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이해성과 의지가 서로 접합하여 작용하지 않으면 악은 결코 완전히 거절되지 않는다. 우선 이해성이 악인 것을 보고 반대할 때 악이 빼내지고 찍혀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지 또는 사랑이 그 악에 반대하기 전에는 절대로 마음으로부터 던져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완전한 악의 거절을 이루려면 의지와 이해성의 접합 작용이 필수이다.

죄를 범한 눈을 빼내고 손을 찍어내라고 하신데 대해 다음 훈계로 끝맺고 계신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글자대로 위 구절을

생각한다면 신체의 기관을 잘라내는 듯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매우 비슷한 구절을 찾아 읽어보자. “두 손과 두 발을 가진 채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절름발이나 불구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마가 9:43-47). 이 구절을 보면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 불구의 상태대로 영원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 모든 부분에서 이와 관련되어 말해지는 신체란 자연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몸, 외적 인간, 즉 모든 악들이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로 중상모략질하고 죄짓게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신체의 손이나 발, 눈이라는 것이고, 이것들은 내적 인간의 작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바, 사랑과 믿음이라는 생명으로 진입해서 마지막 천국 안에 거주할 때까지 자아부정(self-denial)을 수단으로 하면 위 신체 기관들은 잘려져나가 불구가 되어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자아부정은 악이 실지로 움직이는 상태에 완강히 저항할 때, 그곳이 마음의 행동이든 육체의 행동이든 모두에 저항할 때 존재의 가치를 발휘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눈을 빼고 손을 찍어내는 것이 되고 이런 기관을 상실해버림으로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데서, 또는 악을 확증해버리는 상태로 가져다놓는데서 구원된다. 다행히 영적 삶에서는 절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생(renewal)이라는 것까지 존재한다. 자아부정으로 뽑아내고 잘라 버릴 때 행동적인 선함은 회복되고 새로워진다. 육의 열망을 십자가형에 처벌함으로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사람은 영의 새로워짐으로 자기 삶을 다시 추켜세운다. 악행을 중단함으로 옛 기관은 제거되고 선행을 증진함으로 새기관은 획득된다. 자기 속의 선함과 진리 또는 사랑과 믿음이 불균형을 이루고 서로 나뉘어있을 때 영체는 언제나 절름발이와 불구의 몸이 되어 있다. 두 짝인 품위(grace)가 두 짝이 아닌 하나를 이룰 때 몸은 진정한 균형과 조화를 획득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기독교인이 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완전한 기관과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리라.

31, 32. 간음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이해했었던 것에 논평을 하신 주님께서서는 이혼 문제로까지 확장하신다. 모세의 법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하찮은 원인을 가지고도 아내를 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기억을 살려 본다면 이 법은 실제로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신성한 마음조차도 이혼을 미워하셨다는 것을 말라기 2장 16절에서 읽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강지처가 싫어져서 내쫓는 것은 제 옷을 찢는 것과 같다. 나는 그러한 자들을 미워한다.” 그러면 왜 법으로 이혼을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아내와 이혼을 해도 좋다고 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마태 19:8). 두 단어, 명령과 허용을 구별해 알아두는 것은 성서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하느님은 그분의 속성상 선한 것 외에는 명령하실 수가 없다. 그러나 더 큰 악을 예방해 주시기 위해 보다 작은 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슬기롭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섭리가 되는 고로 선함을 명령하는 것보다도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허용 (premission)은 하느님의 도덕적 수준의 정부형태에 필요한 법을 형성하게 된다. 유대인들에게 이혼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면 이혼을 방지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을 창출시킬 수 있어 무용지물일 뿐이다. 따라서 법이 예방할 수 없거나 금하도록 해줄 수 없는 것은 다른 규정을 엄하고 신중해지게 한 다음 거기에 이혼 문제를 종속시켜 놓음으로 간접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다음 구절이 주님께서 설명하시고 집행하라고 하시는 이혼에 관한 기독교인의 법이요, 이 법이 모세의 법을 대신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그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그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위 법 속에 주님께서는 중요한 원리를 담아놓고 계신다. 즉 간음만이 이혼의 합법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부부가 분리되는데 정당한 원인이 각자 나름대로 더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묶음을 기어코 와해시키는데 간음 외에는 합법적인 원인은 없다. 심정과 영혼의 하나됨이 없다면 거기에는 진짜 결혼이 진정 존재않는다. 오히려 위의 하나됨의 결핍이 이혼의 배경을 만들고 이것이 교회에도 도입되고 있고 피할 수 없는 파산인 사회적 무질서까지 창출한다. 그러므로 간음과 이혼 문제는 극도로 중요하다. 이점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은 교회 법이나 사회법의 근본되는 원리일 것이다.

이 법을 순수한 영적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이는 개인들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안에 있는 원리들, 즉 선함과 진리 또는 사랑과 믿음에 관계된다. 이 둘의 하나됨은 진실로 영적인 하나됨, 천국 결혼을 구성한다. 이것이 결혼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법인 바 모든 진리는 그 진리에 어울리는 선을, 모든 선은 그 선에 적절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 선과 저 진리가 각각의 경우에 순수해 있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각각에 있는 경향성이 분리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은 천국 안에서조차 발생한다. 그 속에서 은총은 선함과 진리의 차이 또는 구분되는 정도에 따라 각 사회에

구별되어 내려간다. 단지 자연계와 다른 것은 거기서 구별된 축복은 불일치가 아닌 더 완전한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혼이란 완전한 반대 또는 분리인 바, 순수한 선과 진리 사이에서 거행될 수 없고 순수한 진리와 간음질된 선, 또는 순수한 선과 왜곡된 진리 사이에서 발생된다. 이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존재하는 분리 같은 것이다. 만일 분리가 어떤 다른 원인 때문에 있어질 경우 진리 안에서만 발견되는 가르침이나 보호가 선에서 박탈되는 바, 그 선은 어떤 거짓 원리와 결합할는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모독을 초래하고 만다.

33. 우리들 앞에 신성한 선생께서는 또 다른 주제를 가져다주시고 있다. “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어떤 이들의 경우 위 본문은 맹세에 증명을 추가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해왔다. 어찌됐든 사법상 맹세에는 모독함이라든가 죄있는 어떤 것도 없다. 여기서 생각해볼 사항은 주님께서 예증으로 제시하시는 맹세의 형체들로부터 나타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보태놓은 것들을 금하시려는 데에, 율법에 대한 의문에 맹세하고 확증하지 않게 하시려는 데에 있다.

영적으로 맹세함은 신성한 진리를 확증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만이 진리의 저자이시오 진리의 증언자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분 스스로 맹세하실 때도 있으셨다. 이와 똑같은 속성은 육을 입으신 여호와에게서도 계속된 사항이다. “예수는 신실되고 진정한 증언자”이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저자이시자 마무리 지어주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수단으로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고 그분의 영을 수단으로 그 진리를 확신하게 해주신다.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부터 자기를 확신시킬 수 없다. 그럴 경우가 있다면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정죄당하고 말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확신시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을 거절한데서 비롯된다. 참으로 주님께서 는 믿음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언제나 준비를 갖추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그분의 영을 거절하는 한편, 우리는 자신이 진리라고 간주한 것을 확증하느라 애쓰는지 모른다. 때로 어떤 헛된 것, 또는 이기적 동기가 우리로 가짜 진리를 진리로 확증하라고 우리 심정을 쫓아낼는지 모른다. 이런 확증은 오로지 피상적, 껍데기일 뿐인 바, 우리 영으로 하여금 내적 삶에 들어갈 수 없게 한다.

34.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사항은 천국(heaven)에 관해서이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heaven)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옥좌이다.” 천국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 이유는 천국이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야만 되기 때문이다. 다시 정확히 말하면 주님 자신은 신성한 영광의 중앙 안쪽, 천국 위에 계신다. 이 신성한 영광이 천국의 태양을 구성하고 그분의 신성한 사랑의 첫 번째 방사물(emanation)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만일 그분이 천국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천사 역시 천국을 구성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다. 제아무리 드높다 해도 유한할 뿐인 영광과 행복의 상태에 있는 인간 존재가 천사들이요 그들이 그 상태에서 순수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현존하심, 실지로 그들 안에 계심으로 진행되어 나오는 발산물, 주님의 신성한 사랑과 지혜를 받는 그릇이 되어있기 때문일 따름이다. 이렇게 해서 천국은 구성되고 있다. 주님의 신성한 사랑과 지혜는 그분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대로인 바 신성한 선이고 그분으로부터 똑같은 원리들이 발산되어 천사들 안에, 천국 안에 거주하는데 이것이 신성한 진리라고 불리운다. 이 신성한 진리가 천국 안에 계신 주님이시다. 이것은 천국의 태양과 하나이고 이로부터 천사들의 용적에 적합하도록 영적인 열과 빛이 진행된다. 그러므로 주님은 천국의 전부가 되시고 이에 비해 천사들은 아무것도 없다. 이에 대해 그들은 가장 깊은 내면에서 확신과 느낌을 소유하고 있다. 비록 주님께서 자기들 것인 듯 여기도록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선물로 주셨다해도 실상 자기들 스스로로서는 아무 것도 없고 가지고 있다는 모든 것이 그들 안에, 그들과 함께 현존하시는 주님의 것임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최고로 가슴깊이 인정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 대해 그들은 완전하게 파악하면서 즐기고 있어 언제나 주님만이 천국의 모든 것의 모두이심을 인정하고 있다. 천국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글자 수준에서 하는 맹세의 경우도 불법인 것은 위에 설명한 바로부터 명확해질 것이다. 순수하게 영적 의미로 더 살핀다면, 천국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천국 안에 있는 주님의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어떤 감정(sentiment)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마저도 주님으로부터만 있을 수 있을 뿐 인간 자신으로부터는 절대 아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대로 내적 인간이 열려진 사람들만이 말씀 안에 있는 순수한 진리를 볼 수 있고 그들 마음에 나타나는 어떤 감정을 진리를 수단으로 확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위에서 살핀 천사들 같이 자기가 지각한 모든 것, 그것을 확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주님으로부터임을 알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확증자체도 그분으로부터요 자신 또는 여느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것도 자동으로 인지한다. 이런 견지에서 위와 같은 사람은 진리를 확증하는 것을 금하는 것, 또는 자신으로부터 어떤 것이 진리라고 간주하려드는 관념들을 금하시는 사항을 놓고 주님의 다음 명령,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하느님의 옥좌이다”를 위반할까봐 두려워 떤다. 천국은 하느님의 옥좌라 불리는데 그 이유가 이 표현은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를 영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흐름은 모든 천사들, 동시에 모든 천국을 채워 천사들이 천사이도록, 천국이 천국이도록 만든다.

35. 위와 같은 식으로 “땅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교회를 두고 맹세하는 것, 즉 교회로부터 진행되어 나오는 신성한 진리를 두고 맹세하는 것, 교회의 본질면으로 더 들어가 생각한다면 주님이 교회에 거하시고 교회를 구성하시는 분이신 바, 주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이다. 만일 천국이 천사들 고유의 어떤 것 때문에 천국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 안에서 그들과 더불어 현존하신 결과로 천국이 있는 것인 바, 지상의 교회도 교인 고유의 것에 속한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있는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 주님께서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순수한 영적 의미로 볼 때 땅을 두고 맹세하는 하는 것은 교회를 두고 맹세하는 것, 즉 교회 안에 이미 알려져 이해된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신성 같은 진리(truths divine)로서 받아들인 진리들을 확증하는 것이 된다. 땅을 두고 맹세하는 것도 진실로 행해지려면 주님으로부터만 가능할 뿐 인간으로부터는 절대 아님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땅 또는 교회가 “하느님의 발판”이라 말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옥좌라 불리는 천국 바로 아래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거룩한 말씀을 구성하는 신성한 진리가 글자 또는 자연적 의미의 형체로 나타날 경우이다. 이 형체 안에 신성한 진리가 놓여 있는 바, 이는 순수한 영적 의미에서 천국이 놓인 것과도 같다. 발판은 발이라는 단어로부터 출발되는 말이기도 하다. 거룩한 말씀 속에서 발은 인간의 자연적 수준의 원리들을 의미하는데 이 원리에 모든 내면적 수준의 것이 담겨 이 원리를 수단으로 내면의 것은 존속되어간다. 비록 교회가 올바른 질서 상태에 있어 말씀의 글자를 이해하도록 계발되어 진리의 외관과 순수한 진리를 구별해 내 그로부터 순수한 교리를 끌어내고 있다해도, 또는 교인들이 말씀 속의 영적 의미를

어느 정도라도 납득해서 마치 천사들만이 지각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라도 해내고 있다해도 이 세상에 있는 이상 인간에 의해 지각될 수 있는 영적 사함에 관한 사상은 천사들의 사상인 순수한 영적 사상일 수 없다. 오로지 자연계의 거주민이라는 한계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인간 조건 즉 자연적 방법으로 품어지는 영적 사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가 제 아무리 순수하고 제 아무리 드높은 사상을 정립했다고 자부해도 하나님의 옥좌를 구성하는 천국 자체에 속한 품성은 결코 획득할 수 없다. 그렇다해도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측면에서의 교회에 진실로 소속되어 있더라도 해서 하나님의 발판 어느 한쪽 부분이라도 담당한다면 영광의 좌석의 미미한 부분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위 문제는 이제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그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다”와 직접 연결을 이루고 있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함이란 신성한 진리를 입증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거룩한 말씀에서 끌어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진리의 교리를 가지고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땅이 교회를 의미하고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 불리고 있는 바, 이를 두고 생각하면 지상의 어떤 나라의 수도와 같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규율하고 결정짓게 해주는 교회의 교리를 말한다. 여기서도 우선 강조할 점은 진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와진 교회의 교리로만 실지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말라는 명령을 수단으로 인간이 자신들로부터 진리들을 입증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천사들의 숙소인 천국은 하나님의 옥좌요, 땅 또는 교회는 그분의 발판이라고 지명되었듯이 교회의 교리인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 불리고 있다. 주님은 왕이라고 불리시고 더욱이 위대하신 왕이라 불리시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만유를 신성한 선에서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의 교리를 나타내는 예루살렘이 위대하신 왕의 도성이라 불리는 이유는 교회 속의 교리가 교회의 모든 것을 규율하고 통제하기 때문이다. 주님 자신도 그분의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있다. 교회의 교리 역시 신성한 진리 자체이신 주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란 그 도성의 주권자인 위대한 왕을 두고 맹세하는 것과 같은 바, 교회의 교리로 어떤 것을 입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진리를 수단으로 입증하는 것인 바, 이 입증은 진리의 소유자이신 주님에게만 가능할 뿐 인간 자신들로부터는 불가능한 행위가

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금해지고 있는 것이다.

36. 마지막 금해지는 맹세는 자신의 머리를 두고 하는 맹세이다. 머리는 총명을 의미하고자 할 때, 또는 제일 가는 것,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말하고자 할 때 잘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총명 중 가장 중요하다고 그가 간주하는 것, 그의 믿음 속에 간추려진 진리라고 여겨지는 진리를 수단으로 어떤 것을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 스스로부터서는 어떤 총명도, 믿음 속의 어떤 진리도 소유하지 못하고 오로지 주님만으로부터 가능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진리도 인간 자신으로부터 입증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이다. 자아총명으로부터 어떤 진리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회계나 검게 할 수 없다”는 구절로 이어지고 있다. 머리털이란 진정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이들, 이들이 지성 속의 빛으로 진리를 보아서가 아니라 교회의 교리가 가르쳤기 때문에 지니게된 믿음 속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이들의 외적 인간 또는 자연적 수준의 인간 속에 있는 진리를 의미한다. 이런 사람들이 믿는 것은 자신이 보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 바, 그것을 두고 맹세하지 말도록, 또는 그들 스스로 어떤 것이 진리라고 입증하지 말라고 명령되는 것이다. 그 이유가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회계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머리카락 하나를 회계 만든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부터 진리가 진리라고 보고 말한다는 것을, 머리카락 하나를 검게 한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부터 거짓이 거짓이다라고 보고 말한다는 말이다. 이것 역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 자기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않도록 금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것도 결국 자신들로부터 또는 총명이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본인이 여기는 것에서 진리를 입증하는 잘못을 빚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맹세를 금하는 명령은 모든 것에 이르러, 즉 가장 크고 높은 것에서 가장 작고 낮은 것까지, 천국으로부터 우리 머리에 붙은 털에 이르기까지 총망라되고 있다. 모든 것은 지고하신 분의 보호아래, 하늘의 별을 세시고 인간의 머리털을 헤아리시는 그분의 섭리 아래 있을 뿐이므로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함은 우리가 자신의 지혜를 두고 또는 신성한 지혜의 권위를 두고도 입증하거나 확인하지 말라는 명령이요, 더 나아가 하느님의 지혜로 다 되어 있는 영원한 정부를 주체님께 참견하지 말라는 말이다.

37. 맹세를 금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심으로 끝맺고 있으신다.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는 가장 높은 천적 천사들의 상태에 관한 묘사이다. 이들의 진리에 관한 지각은 아주 분명해서 진리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의심하려드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 마치 우리가 대낮에 물체를 눈으로 직시할 경우 같이 자기들 앞에 놓인 대상물에 관해 어떤 추론, 어떤 주장을 펼쳐 타인을 확신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것을 자신도 보았지만 타인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추론 또는 어떤 진리를 확증하는 일련의 방식들은 마음 안의 진리에 관해 어렵듯해 있는데서, 확인시키길 원하는 타인의 마음속의 어렵듯함에서 발생된다. 진리를 어렵듯하게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에 어렵듯해 있는 의지의 결함에 기인된다. 만일 우리가 심력을 다해 선을 사랑했다면, 그리고 언제나 선을 추종했다면, 만일 우리가 갖가지 형태로 있는 악들을 모두 미워했다면, 그리고 꾸준히 그 악들을 금하려고 노력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지성 속에 일련의 빛을 소유하게 되어 진리에 관해 듣자마자 진리임을 인식하는 바 어떤 추론, 어떤 재확인 같은 것들이 아예 필요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이해를 희미하게 하는 원인은 의지 속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에 관한 우리의 이해성 안에서 우리를 보조하는 것, 그 진리에 대한 신념을 통째로 획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도움은 위의 원인으로부터 혼란되어진다. 좌우지간 고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어떤 수단도 없다. 어떤 추론이든, 맹세하듯 확인하는 어떤 말이든 그 자체 악일 뿐이다. 이와 정반대로 진리를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려 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선뿐인데, 주님의 자비로 인해 우리에게 수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도움이 필요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게 만들려하는 악의 영향력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이해에 어떤 도움도 요구되지 않는 명백한 지각의 결과인 단순한 확인 그 이상의 것은 모든 악에 속한다. 수학적 진리의 명백한 논증도 그 속의 자명한 이치만큼 명백할 수 없다. 순수한 질서 안에 있는 인간 마음속에서 모든 영적 진리들은 직관에 의해 지각되어 자명한 이치가 되어 있을 것인 바 인간 마음의 어느 추론이나 논증의 형식을 수단으로 한다면 더욱 덜 명백해질 수밖에 없으리라.

38, 39. 보복에 관한 법, 이에 대해 주님께서서는 청중의 시선을 모으시고 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양갓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된 보복의 법은 보편적인 질서의 법에서 파생되어 나왔다. 즉 “너희는 남에게서 바래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이다. 이것은 천국의 법이요 교회의 법이지만 이스라엘 교회로 내려오면서 백성의 품성과 일치되는

형체를 띄게 되었다. 그럼에도 복수법, 양값음(*lex talionis*)은 기독교 국가들의 본질상의 법이다. 처벌은 범죄에 대한 대가로, 그 성질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대가로 지불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 속의 영은 범죄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만 하다면 범죄자를 수정할 목적으로 처벌할 때도 준수되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의 모든 법안에는 영적 요소와 영원한 대상(object)이 있다. 보복의 법은 자연계에 있는 악인만을 두고 있는 법이 아니라 영계에 있는 악령들을 위해서도 있는 장치이다.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라는 천국의 법이 지옥에서는 “남에게 해준 대로 너에게도 해줄 것이다”로 되어간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호의, *benevolence*”를 수단으로 어떤 행위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모든 원리는 그 자체 내에 그에 알맞은 대가를 품고 다니는 바, 행복이 그 원리의 출현일 수 있고 재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악은 그 악에 꼭맞는 벌을 짊어지고 다닌다. 이 벌이 하느님의 응보(*retribution*)는 아니다. 이 벌은 신성의 어떤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과해지는 것이 아니라 억제와 교정(*correction*)을 목적으로 하는 허용인 것이다. 우리는 수정(*amendment*)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어둠의 영역 안에는 수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계에서의 보복의 법칙은 과거 자연계에 있던 이스라엘 족들 사이에서 실시되었던 그대로 정밀하게 있어지고 있다. 그래서 처벌은 피해자의 복수를 할 가장 근친인 사람(*avenger of blood*)에 의해 청구되고 과해진다. 보편적인 관관으로서 그분의 모형과 똑같이 주님은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했던 것을 하실 뿐인 바, 그 벌을 조절하여 적절해지게 하신다. 따라서 보복의 법칙에 의해 할당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악에 대한 응보는 천국에서 선에 대한 보상에 꼭 반대되어 거행된다. 천국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뜻해지거나 행해진 선은 각처에 있는 기쁨과 더불어 선의 유입을 받도록 심정을 열게 해준다. 그렇게 해서 모두의 기쁨이 각각에게 나뉘어진다. 지옥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행해진 악은 지옥 전체 사회의 분노를 끌어낸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중 복수를 요구한 피해자가 첫 돌을 가해자에게 던졌을 때 온 회중이 그 뒤를 이어 거의 동시에 돌을 던지는 모습과 같다.

그러므로 본문에 있는 주님이 전달하시는 교훈(*precept*)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의 삶에 관계된게 아니라 인간의 영적 삶에 관계되는 바, 영적 의미로 이해되는 것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란 누군가가 타인에게서 진리에 관한 이해성 또는 진리에 대한 감각을 거두어 가거나 거두어 지기를 바라는 만큼 자기에게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력 또는 의도에 수반되어 보여지는 결과이다. 눈은 진리에 관한 이해성, 이는 진리에 관한 감각(sense)이라 불리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특히 이(tooth)는 감각적 평면 즉 인간의 최 말단 영역에 의해 지각되는 진정한 것 또는 거짓된 것을 의미한다. 악 또는 악행자가 저항을 받지 않게 됨이란 공격받을 선 또는 선한 자가 싸우지 않는 것, 악을 악으로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확실한 것 하나는 천사들은 악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 더욱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그들은 악령이 자기들을 다치게 하도록 허용하는데 그 이유는 지옥의 어떤 악도 그들을 다치게 할 수 없게 하는 주님의 보호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양값음하지 말라는 교훈의 예증으로 “누가 오른 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를 주시고 있다. 이(tooth)가 외면의 진리를 의미함에 비해 뺨(cheek)은 내면의 진리에 관한 이해성과 지각을 의미한다. 오른쪽은 애정에 관계되는 바 오른쪽 뺨은 그로부터 있게 되는 진리의 지각을 말한다. 오른쪽 뺨을 친다는 것은 위와 같은 애정과 지각을 상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는 명령이 함축하는 바, 순수한 선으로부터 오는 지각과 이해성을 지닌 사람들 안에 있는 내면의 진리에 관한 이해성이나 지각은 주님의 신성한 보호로 감싸여있어 악이 실지로 상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치도록 허용된다는 뜻이다. 뺨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의 근원에 의거 엄격히 사용한다면 광대뼈(cheek-bone), 위턱(upper-jaw)을 뜻하고 이 뼈를 뺨이 덮고 있는데, 이 뺨은 턱이 움직이도록 하는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턱(jaw)은 입이 열리고 닫히게 한다. 입과 그것에 연결되는 모든 부분들, 즉 목구멍, 입술, 뺨, 턱 등등은 진리의 이해와 지각에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상응에 의해 몸에 있는 위 기관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적 자질들이 표현되도록 말씀의 글자에서 신체기관이 거론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더 진행하신다. “재판에 걸려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소유하고 있는 내면의 진리를 내버리겠다고 한다면 필시 그는 외면의 진리도 그같이 허용될 것이라는 뜻이다. 속옷(coat, inner garment)이란 내면의 진리를 의미하고 겉옷(cloak, outer garment)이란 외면의 진리를 뜻한다. 이미 살핀 바, 천사는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가 천사들 같이 선함과 진리를 원리로 꼭 잡고 있는 이들로부터 서는 어떤 악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개하는 심정, 증오나 시기로 끓고 있는 가슴을 지닌 이들로부터 서는 그들이 지닌 선함과 진리를 빼앗아 갈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증오나

시기를 흠모하는 이들은 주님의 신성한 보호에서 얼굴을 돌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말씀하신다. “누가 억지로 오리(a mile)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twain)를 같이 가 주어라.” 진리로부터 떨어져 거짓으로 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저항받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그렇게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리(a mile)라는 단어는 길의 척도인 바, 진리에로 인도되는 것 또는 진리로부터 떨어져나가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마지막 주님의 말씀,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라.” 우리가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선함과 진리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원하는 모든 사람과 교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 원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것을 진실로 원하든, 그것을 뒤엎기 위해 원하든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포함해서 이르는 말이다. 게다가 뒤집음은 타인 속에 있는 진리까지 강탈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어찌됐든 이 사항도 우리는 실제로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우리 속의 교훈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 그것이 좋은 목적을 위해서인지, 나쁜 목적을 위해서인지 확실성 있게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무척 어려운 상황에 해당된다. 설사 목적물이 자기에게 정녕 나쁜 측면이라 해도 자신이 지닌 정보로부터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인지 말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때로 나쁜 것이라고 판단된 것도 그 사람의 개혁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본문의 명령들은 그렇게 행함으로서 선이나 진리의 어떤 것, 또는 정신적, 영적으로 기증받은 것이 상실되지 않고 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일게다. 누군가가 우리의 속옷, 겉옷을 거둬 가는 것을 내버려두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가난해지지 않는다. 우리는 갖가지 방법으로 기꺼이 선을 향해가야 한다. 물론 악한 자를 향해서 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악한 자에게 행해질 수 있는 보증되는 가장 큰 선함은 그들의 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된 친절을 동원해서 본문의 교훈을 전해주는 것일게다.

43. 앞 절의 가르침을 십계명 또는 모세의 법에서 인용하심으로 시작하셨듯이 이 구절도 법의 인용으로부터 시작은 하지만 거룩한 저술 어느 곳에도 없는 교훈에서 시작되고 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이 절의 앞부분은 확실한 하느님의 명령이다. 이와 같은 구절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서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해라” 라고 기록되어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이 구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복해서 인용하시고 있고,

더욱이 이 두 절에 온 율법과 예언서가 걸려있다고까지 선포해두셨다. 그러나 구약성서의 어느 곳에서도, 신약성서의 어느 부분에서도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조항은 발견 안된다. 역지를 써서 찾아본다면 신명기 23장 6절, “너희는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들(모압과 암몬)이 번영을 누리며 잘 살도록 힘써줄 것도 없다” 라는 구절이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특별한 경우이다. 사실 이런 예외는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최소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규율이 있다는 증거가 될 뿐이다. 어찌됐든 위 구절조차도 미워하라는 것을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서 누리게 되는 혜택에서 두 민족을 빼라는 말이다.

주님께서 인용하신 예증과 관계 있는 것으로 찾아본다면 시편 41편 10절, “야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으켜주소서, 나 저들에게 양값음 하리이다”일 것이다. 이는 적들에 관계된 다윗의 기도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미워하라는 명령을 담은 교훈은 아니다. 이 구절도 다른 구약 성서의 영안에 있는 것들이고 하느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의 마음을 표현할 뿐이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으로 간주해볼 수 있는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된 것조차에서도 없다. 그러므로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라고 주님의 말하신 대목 중 뒷부분은 유대의 박사들이라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인들이 모세의 법에 들어있는냥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미 정착한 민족을 몰아내도록 명령된 것은 사실이다. 이점 역시 신성한 명령에 들어 있는 것은 그 국가들에 만연된 사악함을 몰아내라는 것이 표현적으로 서술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그 땅의 사악함의 정도는 극에 달할 정도여서 존재자체도 더 이상 힘들 정도인 바 하느님의 말씀에 있는 상징적 언어가 그 주민들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족은 그 땅의 거주민과 어떤 교제도 가져서는 안되었다. 그 이유는 오염되지 않으면서 교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그 주민과 함께 살 경우 서로 교통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인 바, 이미 상술한 바 같이 신성한 명령의 집행관의 자격으로 그 민족의 사악함을 절멸하도록 명령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항도 그들을 사적으로 미워해서 원한에 사무친듯한 영의 상태로 그들에게 할당된 임무를 끔찍하게 집행한다는 말과는 아주 다르다. 유대인들이 타 국가들과 분리되어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는 데도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사항 역시 자기들 고유의 품성에 기인되었을 뿐 그들 품성에 직반대되는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에서 온 원리 같은 권위나 어떤 추천에 기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레위기서의 명령도 자기들 나라 외의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같은 19장의 34절에 첨가된 것도, “너의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말라.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을 네 나라 사람처럼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말라.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을 네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네 몸처럼 아껴라. 너희도 에집트 나라에 몸붙이고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신명기 10장 18절에, “...떠도는 사람을 위하여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도 한 때는 에집트 땅에서 떠돌이 신세였으니, 너희도 또한 떠도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지시하고 있으시다. 확실한 바 모세법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원리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수를 미워하라’가 유대교 박사들의 큰 가르침이 되어 있었고 전 백성이 이를 심정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44.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인들이 소지한 정의의 모양새를 바로 잡으면서 기독교의 신성한 권위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신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신성한 선생께서는 그분의 교회가 유대인 사이에서 형성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계셨을 것이고,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뿐일 것도 아셨을 텐데 유대인의 잘못들이나 행동의 원리를 교정해주시려고 그렇게도 많은 가르침을 왜 전달하셨을까? 그 대답은 이리하다. 유대인의 잘못들이나 원리들은 설사 그들과 똑같은 교리적 잘못이 아니라 해도 그것들이 죄들과 상응되기 때문이고, 애정이나 생명, 실제에 관한 그들의 원리는 인간의 자연적 수준에 있는 심정과 지성에 깊게 뿌리 박고 있는 것들인 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자연적 수준의 생각과 행동의 원리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하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인간의 자연적 수준에서는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매우 힘든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기를 미워하는 줄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실지로 사랑할 수 있단 말일까? 문제점의 본성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마냥 우리를 파괴하려드는데 어떻게 사랑한단 말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적이라고 판단하게 한 상대방 안에 있는 원리나 상태에 관한 측면에서는 그들을 사랑하도록 의무가 요구되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누구도 상대방에게 적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를

파괴하거나 피해를 입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악에 관한 어떤 원리로부터 일이 터진다. 그 악은 자아사랑 또는 세상 사랑이라는 모든 악이 뿔내려는 데서 나온 것들이다. 악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누구에게나 분명하고 오히려 언제나 혐오해야 할 대상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의무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사항은 어느 누구도 백퍼센트 악만을 지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자아에 유전적 악을 가지고 있고 설사 그것이 의지로부터 표출되고 있다해도 그와 반대로 그 사람에게에는 주님과 천국으로부터 와진 선도 표출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인간 존재, 비슷한 창조물인 바, 모두 다 합리성과 자유라는 인간 특전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이 하느님의 모양과 형상에 비해 불꼴사납게 존속되고 있는 것뿐이다. 하느님의 뜻과 바램은 그분으로부터 각 인간 안에 현존하는 선이 드러내져 증가되게 하시는 것, 각자가 자기 것으로 삼게 하는 것, 자기 자신인 듯 여겨 행동되게 하는 것, 각자의 애정 안에서 최고로 우월하게 드높여지는 것이다. 동시에 지옥으로부터 각 사람 자신에게 내재하는 악은 반드시 종속당해야 되고 선이 드높여지기 전 먼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의지가 진실로 주님의 제자, 그분의 종, 친구, 아들이 될 모든 각 사람 속의 의지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의미되는 것의 진정한 정의는 우리가 원수를 향해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이타애의 영향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상대방이 우리에게 적이 된다해도 우리 심정에 그들을 도로 세워 분개하는 느낌 때문에 고통받아서 안된다. 상대방이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 갖가지 음모를 계획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꺾이도록 대처한다해도 그들이 지녔던 분노라는 지옥의 영을 마음에 담아 그대로 되치는 것을 바래서는 안된다. 만사가 진정한 이타애로부터 갖는 느낌을 지니고 상대방을 대하고 이런 느낌만으로 상대방에게 뵈기를 대응하는 방침에서 이탈되어서는 안된다.

위와 같은 태도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수행할 때 당연히 다음의 구절이 포함될 것이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빌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 사항은 이타애가 명백해진 것, 이타애가 실시되었다는 흔적에 해당된다. 모든 이타애가 희망하는 목적은 이타애가 흠모되어지고 있는 이들 속의 선을 증진시키는 것, 할 수만 있다면 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을 행하는 것, 그리하여 그들의 복지에 기여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을 행하는 한 가지 방법이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 주는 것이다. 복을 비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복되기를

바란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그들에게 충고하고 가르쳐 주는 것까지 함축되어 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악에 대해 선으로 되돌린다는 것, 그가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얼마나 께께한 것인지 확인시켜 주는 것, 그들의 행함이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글자로 표현되는 것에 비해 영적 의미라 해도 아주 다른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즉각 선택 어떤 것을 행할 수단을 강구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 잘되기를 주님께 경건히 바라는 가운데 우리 영혼을 승상시키는 것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비의 보좌에 그를 좋게 말해보는 것까지는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인간의 추론은 틀림없을 것같이 보이는 방법을 식별해내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그것은 무한한 선함과 지혜에 의해 명령되지 않았으리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유익할는지 무한한 지혜가 보셨던게 아닐 거라는 것, 무한한 선함은 그렇게 하실 마음이 없으셨을 것 같다는 정도는 확실히 가능해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수많은 경우를 놓고도 의심할 바 없는 것이 있다면, 타인을 위하는 인간적인 어떤 중재 역할도 소용이 없다는 것, 그러나 만일 하느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있을 경우 어떤 철학적 논쟁이 반대에 가세한다 해도 가능성은 언제나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일게다. 좌우지간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거나 저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들로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경우가 앞에 전개된다해도 우리가 가질 자세는 이타애에 속한 특별한 감정(emotion)에 근거를 두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님 자신도 그분의 적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늘 상기해야 한다. 그분의 기도가 형식에만 치우쳐있었다거나 어떤 소용도 닿지 않는 기도일 수 없었으리라. 우리가 진정 그분의 제자들이라고 자부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본보기를 따라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축복이 깃들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45. 신성한 연설자께서는 적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단순히 명령만 하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이 명령에 가장 강한 동기, 이유, 권유의 말씀을 더하시고 있다.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피해당한 것을 응징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타애로만 그들과 관계하기 위해서 미워않고 사랑하는 것, 그들의 선함 외에는 그들로부터 바라는게 없는 것, 이런

등등이 비록 유한한 척도에 불과하지만 하느님같이 만들어 주는 바, 만들어지는 정도만큼에서 하느님은 이 사람을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신다. 이렇게 불리워지는 이유는 순수한 이타애, 사리사욕 없는 이타애, 자아사랑으로 오염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이타애는 인간에 의해, 인간 안에 내재하는 참으로 신성한 원리이기 때문이다. 비록 인간이 신성한 어떤 것을 가져서 자기가 하느님인 듯 결코 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이타애의 형체 안에서 마치 자기 것이라도 된 듯 주님께서는 나누어주신다. 나누어주신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의 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유한한 방법 속에서 하느님과 하나되게 해주고, 그를 위해 주님 자신과 더불어 생명의 진짜 결합을 결과되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로 간주되고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을 받는다. 이 사람은 신성한 인성 측면에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가깝게 결합한다.

실패 없는 관대하심으로 주님은 그분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보내주신다. 이는 글자대로 각각에게 필요한 혜택을 만민에게 전달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와 같아서 구원의 수단들, 각각에 적절한 구원의 쓸쓸이를 만들 능력까지 포함되는 수단을 만민에게 전달해주신다. 그분의 태양이 비쳐짐은 그분의 사랑의 영향이 전달되어 영적인 모든 선을 실어다준다는 뜻이다. 그분이 보내는 비란 그분의 진리의 영향을 말하고, 이는 말씀을 통해 운반되는 지식을 우리 지성이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말이다. 위 두 가지 모두 그분의 거룩한 영이 주는 선물로서 모든 이와 언제나 현존한다. 위 두 가지 영적 생명을 우리 영혼이 받아 자기 것 삼을 때 영원한 축복을 즐기도록 준비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타애를 획득함으로써 신성한 바람에 보조를 맞추므로 해서 천국의 기쁨과 특출함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인간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 신성한 연설자, 복의 근원자에 의해 몇 가지 논거(reasons)들이 제공되고 있다.

46. 먼저 언급하시는 바, 종교인은 비세상적 사랑에 있는 더 나은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을게 없다는 것을 말하신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자연적 인간 안에 미워함이 있듯 그 안에는 사랑함도 있다. 그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도 한다. 그래서 타인을 사랑할 경우 그것은 오로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즉 자연적 인간은 타인이 자기 속 자아사랑을 섬겨주는 정도만큼에서 그 사람도

사랑한다. 기독교인의 사랑은 이와는 아주 다르다. 기독교인은 이웃을 위해 그 이웃을 사랑한다. 기독교인은 이웃이 자기를 사랑해오든, 그 사랑이 되돌려오지 않든 이웃을 사랑한다. 기독교인의 원리들은 타인의 복지와 행복을 바래도록 이 원리를 지닌 자를 자극하고 그것들이 증진되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부추긴다. 자아 사랑 아닌 하느님 사랑이 그 사람의 사랑과 행동의 원리이다. 하느님께서 만민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자비를 모든 이에게 베푸시는 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사랑하시듯 사랑해야만 한다. 이제 되풀이하여 가르치시는 또 다른 의무, 형제 외의 사람에게 인사하는 사항이 있다.

47.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를 것이 무엇이나?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사랑한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 사이에는 뚜렷한 구별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이 둘은 영적으로 하나이다. 이 구별은 동료들과의 교제에서 이해성과 의지가 구별되거나 하나를 이루는데서 흔히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어찌됐든 모든 영적 미덕이 튀어나오는 것은 선한 것과 참된 것의 천국적 결혼으로부터이다. 이 천국 원리를 근본으로 삼아 기독교인이 행하지 않으면 그에게 무슨 상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세리들은 이기적 욕구 충족, 때로는 세상적 이득을 가진다. 이는 마치 자기에게 인사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를 갖추고 사랑하는 보상과 같다. 기독교인이 쳐다보아야 할 보상은 내향의 만족과 이득이다. 그 만족은 선을 행함이고, 그 이득은 선용을 위한 자신의 능력이 증가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인간의 행동지침에 대한 모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지적하시면서 그분의 완전하심을 제자들도 모방하라고 권고하시면서 본 장을 마무리하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 명령은 실행 불가능한 교훈으로 많은 사람이 여길는지 모른다. 물론 주님께서 하느님의 완전한 수준과 같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는게 아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여기서 의도되어 있는 것은 기독교인은 신성한 완전의 형상에 도달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함이다. 그분의 무한성을 떼어놓은 상태에서 하느님의 본성의 완전함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과 지혜에 관한 것이고 그분 안에서 이 둘은 하나가 되어 완전해있다. 이와 같은 하나됨이 인간의 완전을 구성한다. 하느님과 인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하느님의 완전은 무한하고 인간의 것은 유한하다는 것뿐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의지 안에서, 지혜는 이해성 안에서 각 인간으로 하느님의 형상을 만든다. 위 두 원리들이 각 사람의 마음 안에서, 생활 안에서 하나되어 있는 만큼에서 그 사람은 완전한 하느님의 형상이다.

완전에 관해 위와 같은 생각을 따른다면 주님의 몸의 지극히 하급에 속한 세포기관 같은 것을 우리가 담당한다해도 매우 중요한 기관과 동일하게 완전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리라 본다. 그 이유는 사랑과 지혜를 매우 적게 가진 사람일지라도 아주 많이 지닌 사람의 완전한 상태와 비교할 때 본질상으로는 그 수준이 같기 때문이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됨, 의지와 이해성의 하나됨, 교리와 생활의 하나됨, 이것이 완전이다. 이 완전을 모든 이는 달성할 수 있다.

주님의 설교의 이 부분이 실어 나르는 신성한 교훈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이 들어 있는지! 여기서 표현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된 품성, 그 제자가 진정으로 신성한 스승의 제자인지 구별하고자 할 때 말해지는 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빌어라고 하신다. 모든 이에게 선의 저자로서 하늘 아버지의 그림을 우리의 모형으로 삼아 그렇게 되어 보려고 노력하라고 가르치신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교훈과 똑같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겠지만 여기서 강조해 둘 점은 우리는 그 교훈에 순종해보려는 신실한 노력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 교훈에 삶의 방향이 맞춰지도록 우리의 애정과 생활 습관을 통치해가야 한다는 것일게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이 기독인이라고,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추종자라고 천명할 수 없으리라.

6

본 장 역시 앞장에 이어지는 주님의 강연과 한 시리즈를 형성하면서도 그 자체 구별되는 시리즈, 그리고 또 다른 부분, 다시 구별된 시리즈로 구성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첫 18절까지는 한 주제로 구성된 시리즈로, 다시 세 부분을 이루고 있으면서 각 부분들이 밀접하게 연결된다. 먼저 자선에 관한 의무 사항을, 둘째는 기도에 관한 것, 셋째는 단식에 관해서이다.

1. 첫 짚은 자선을 다루면서도 기도와 단식에 관한 가르침의 서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구번역의 경우 선행 대신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어의 의미가 많은 사본들에서 정의를 뜻했기 때문이다. 일반적 용어로서의 정의(righteousness)는 자선을 포함, 여러 종류의 종교 의무들을 포괄하여 암시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본문의 경우 세 가지 의미 중 선행(자선, almsgiving)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줄로 본다. 이 절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또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게 되는 종교적 의무는 어떤 것이든지 하지 말라는 것, 그렇게 할 경우 그것은 진실된 종교 행동이 아니라는 것, 어떤 하늘의 축복도 그런 위선적 행동에는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2.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종교적 의무의 수행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서는 어떤 보상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자선이라는 특별한 의무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말하신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 이타애를 원리로 해서 튀어나오는 가장 명확한 선한 행위의 하나인 자선은 넓은 의미에서의 모든 선, 이타애 또는 사랑을 근원으로 가지고 실시되는 갖가지 종류의 행동, 인간이 뜻하거나 행할 수 있는 모든 선이 나타나지도록 이 구절에서 자선이 언급되고 있다. 자선이 위와 같은 선의 형체 중 하나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패되고 피상적인 사회 속에서 있게되는 자선은 신중성과 조심성을 겸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 악의 하나인 방탕이나 게으름을 자선이 더 부추겨서 그 자선 자체가 무가치해지지 않도록, 악행으로 인한 불행이 아닌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만 수여되어야 할 박애를 끈덕지게 게으른 자 또는 불행을 당한 체 하고 위선의 가면을 쓴 자들이 독점하지 않도록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본문의 영적 의미에는 자선 행위만 의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 뜻해서 행할 수 있는 선은 무엇이든지 해당된다. 이런 모든 선은 바깥쪽 외관을 목적으로 행해질 수 없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언어의 비유적 형체인데 이 말을 신성한 사항에 응용할 경우 천적 사랑에 바탕을 둔 진리를 밝히 알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 그 반대의 뜻을 명시하므로 이는 자아사랑, 인간의 영광을 획득하기 위한 사랑, 볼 수 없는 심정 보다 외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로 부터 좋은 평판을 바라는 떠벌림을 말한다. 한마디로 선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외관에만 치중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나팔을 분 곳인 회당과 거리는 좋은 의미에서는 교리와 진리들을 의미하는 바 이는 심정 측면이 아닌 지적 측면에서 있게 되는 행동 본성 즉 자기 영광을 위해 연구하거나 고안할

뿐만 행동의 결과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를 빙자하여 이기적인 자비심을 발휘하는 것을 뜻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위 자비심은 거품일 뿐이라는 평판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품은 반드시 터트려져야만 할 것이다. 이 비천한 선행자는 영원한 수치와 불명에 속에서 남아있게 된다.

3. 위와 같이 선을 행하는 태도는 당사자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 못되는 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신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속담 같은 이 구절은 이런 비밀스러움을 함축하고도 있다. 이 말도 주님이 들어 쓰실 경우 중요한 의미를 담게된다. 신체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모든 기관은 이미 살핀 바대로(5장 29,30절) 성경의 상징적 언어에서 선함이라는 원리와, 왼쪽의 경우는 진리라는 원리와 관계된다. 선한 사람에게 있어서 위 두 원리는 하나로 행동한다. 그러나 사악한 자 또는 외관으로 좋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자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손은 언제나 힘 또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른손이 행동하는 것은 선함에 바탕을 둔 진리를 원리로 해서 행동함을 뜻한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의 왼손은 선함에서 분리된 채 행동하는 것, 의지 부분의 협력이 없는 채 행동하는 것, 자선을 행하는데 선함에 동기를 두지도 않은 채 진리가 받아쓴 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이럴 경우 자아사랑이나 악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만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선은 외관만을 위해 있게 된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순수한 선함에 바탕을 두지 않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던 개의치 말고 선함 자체의 원리로만 선을 행하는 것이다.

4. 위와 같이 행해지는 선일 경우 그 자선은 은밀해질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선한 행위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진행되어야만 하고 반드시 외적인 것을 고려하는 데서 분리되어 있어야한다. 이런 선은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 생명있는 선, 순수한 선의 기쁨과 복된 것들이 선함 자체, 선함의 근원이신 주님께 의해 우리들과 교통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다. 우리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위의 약속이 주어지는 바, 이 보상은 가장 순수한 행복의 원천인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부터 오게 됨을 가르쳐주시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위와 같은 선함만을 원리로 삼는다는 것은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가! 기회 닿는대로 능력 닿는대로 위의 원리로 선을 행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보상을 내리실터인데 이 보상이란 선을 향한 순수한 모든 사랑이 가슴속 깊은 곳에 천국의 축복과 기쁨, 천국 안과밖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날라다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선 자체가 천국이요 그 안에 우리 아버지가 거하시기 때문이다.

5. 자선에 관한 주제에서 기도에 관한 주제로 주님께서서는 건너가시고 있다. 이 주제는 모든 이가 가장 깊은 흥미를 두는 측면이기도 하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사랑은 제단 위에서 계속 타고 있는 불이다. 경건한 영혼(spirit)은 끊임없는 예배이다. 경건한 사람이 입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자기 영혼(soul)을 쏟아놓을 때 조차에서도 때와 시기가 존재한다. 진정한 경건은 바깥쪽으로 헌신함이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진정으로 거룩함 역시 선한 일이 실시됨도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서 기도가 산 위의 설교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적극적 미덕 사이에 도입되어져 있다. 자선의 경우와 같이 헌신을 수행함에서도 주님께서서는 두 가지 즉 부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 가르치신다.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이는 단어 위선이 함축하듯 입술로만의 기도 또는 헌신함이나 거룩함의 바깥쪽 모양새를 흉내낼 뿐 심정은 선함의 본체에 반대되게 생각하거나 믿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명백한 바, 주님께서서는 예배라는 행동에 관계되는 허약함 또는 결점, 예를 들면 마음이 혼란해있었다거나 생각이 배회하는 식의 허술함에 관해 말하시는게 아니라 행동과 심정이 완전히 거꾸로된 상태, 알게 되면 구역질나는 심정상태인 잘 꾸며진 경건함을 꼬집고 계신다.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는 주님께서 공적인 예배에 실망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사회적인 예배는 이 구절에 함축되어 있지 않다. 주님께서도 회당에서 예배드리셨다(누가 4:16). 회당 역시 성전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져 있다. 바리사이파인들의 본보기를 따르지 말라고 권고하시는 주님의 요점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마음의 태도에 있다. 아마 하나님께 존경을 바치는 척 하여 인간으로부터 찬양을 받는 것 이상 더 모독된 조소가 없을 것이다. 위선자들의 실제 행동을 주님께서 거론하신 내용들은 영적 의미에서 볼 때, 지성의 활동, 의지 측면의 협력이 없는 지적 측면만의 행동들을 표현하시고 있다. 서 있는 것은 생각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고 회당은 교리를 의미한다. 거리(한길)는 진리 또는 왜곡된 진리를 의미한다. 길모퉁이란 진리가 마감을 이루는 최말단 또는 진리가 거주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해성만으로부터 기도할 때 진리는 선을 획득하는 수단들을 관통해 가고 있지만 이는 선함에 관한 좋은 평판만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거듭 말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들의 이해성을 현혹하는 걸만 달콤한 말, 그 자체

악뿐인 것이 선한 모습으로 위장한 것이다. 이런 예배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위선적 예배자들에게 당장 있게 되는 보상은 경건하다는 외적 품성, 타인들에게서 존경을 받겠지만 그것 모두는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마감되고 저 세상에서는 “수치와 영원한 경멸” 속에 있게 되리라.

6. 바리사이파 식의 예배는 진정한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금지된 예배이다. 이들은 주님만을 향해 있어야 하고 그분의 사랑만을 추구해야 한다. 외적으로 제아무리 유익하게 보인다해도 그것이 기도자의 목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진정한 제자들은 내적 인간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예배해야 하고 이 내적 예배를 수단으로 영적이고 내적인 본성을 갖추면서 바깥쪽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하신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골방에 들어가라는 방향지시는 모든 예배가 홀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절에서의 골방(closet)이란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을 의미한다. 우리는 주님을 내적 인간으로부터 예배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 바램이나 외적 인간이 아닌 내향의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예배해야 한다. 이 방의 문을 닫으라는 명령은 세상과 육체에 속한 것으로부터 부상하는 모든 영향들을 배제하라는 것,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각종 암시나 바램을 완전하게 차단하라는 것, 가장 깊은 곳, 순수해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거처를 가지시는 주님, 내면의 애정과 영적 바램 같은 상태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주님, 신성한 사랑으로서의 주님, 우리 아버지의 축복만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이 축복은 이 세상에서는 위 기도자의 마음의 내면들에 저장되어 있을 뿐이지만 저 세상에서는 명백한 즐거움으로, 충만된 열매가 된다. 숨은 일도 보시는 우리 아버지, 기도자의 진정한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야 하는지를 우리 아버지, 우리의 바램 모두를 주목해 두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한 쪽으로 다 들어주심을 확신해야 한다. 더욱이 이 세상 삶이라고 해서 이 보상이 전혀없는 것도 아니다. 천국적 품위들은 진정한 예배 행동을 수단으로 내적 인간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외적 인간 안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되게 하는 그분의 일을 거드는 분담자가 된다.

7, 8.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우리,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드릴 기도에 관한 문제를 살펴야 한다. 이 중요한 요점을 주님께서 말하신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빈말을 되풀이 함, vain repetitions”은 신약 성서의 다른 곳에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정밀한 의미를 쉽게 결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문맥에서 그 의미가 충분히 보여지고 있기는 하다. “말을 많이 함, much speaking”이라는 사항에 역시 포함되어있다. 이방인들처럼 기도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위의 세부사항들의 본보기로서 주님 자신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매우 교훈적이다. 몇 가지 사항만이, 게다가 아주 짧은 말로 모두가 구해지고 있다. 게다가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까지 육체를 위한 간구는 한가지이고 나머지는 영혼을 위한 간구일 뿐이다.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해야하는 기도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 기도가 형체가 다른 기도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기도 자체는 다른 모든 기도를 포함하고 있다. 즉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란 영적 의미 측면에서만 해당되는 말이다. 이 기도가 강조해서 확실히 가르치는 바, 우리는 길게 말할 뿐 부질없는 기도, 세상적 관심사에 국한된 기도로 신성한 존재에 접근하려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 훈계에는 글자가 표현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위선자들이 하는 식의 기도에 대한 경고와 이방인들 식의 기도에 대한 경고 두 가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위선자들은 기도하는게 아닌 기도하는 체하는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기도는 하지만 기도 자체의 본성과 목적들에서 실수하고 있다. 위선자들은 선이 없는 진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방인들은 진리가 없는 선 가운데 있는 이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선은 겉치레에 불과한 선이다. 그렇다고 이 선이 위선자들의 선같이 왜곡되고 사기성있는 선은 아니다. 이 선은 자연적 수준에만 머문 선 그래서 불순함이 있고 방향이 뒤틀어진 선이다. 진리는 선을 깨끗하게 하고 영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준다. 본문이 암시하는 선은 호의적인 사람 (well-disposed person)에게 있는 선, 그런데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게 해주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진리를 겸하지 못한 이들이 지닌 선이다. 이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기도가 응답될 것으로 넘겨 짚는 결점이 있다. 따라서 빈말을 되풀이하기 쉬운 습성도 뒤따르고 영혼에 관한 기도보다는 육체에 관한 기도를 더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신실해야할 뿐 아니라 총명해야하고 영적 수준에서 있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것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에 의거해서는 안될 것이고 오로지 신성한 뜻과 지혜가 공급해주는 것을 언제나 구해야 하리라.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신성한 기도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자.

9.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우리 아버지...” 애정어린 다정다감한 기도문의 시작에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황홀함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그분께 접근하는 형체를 지정해 거기에 권위까지 부여하신 분이 바로 주님 자신이지는 것을 마음에 다시 떠올린다면 더욱 황홀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기도를 발표하시는 주님을 우리 아버지로 생각해 본다는 것은 더할나위 없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인간 구속을 위해 인성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시어 은총과 진리에 대한 본보기가 되심을 이 기도만 가지고도 확증하고도 남는다. 구약 성서에서 주님이 그분 백성의 아버지로서 말하여지는 예는 몇 군데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영원한 창조자가 그분을 부르는 이들의 아버지로서 진실로 알려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신성한 인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만 존재한다. 아버지라는 칭호 속에서 자연적 수준에 통할 수 있는 생각은 그분이 우리 존재의 저자되신다는 것뿐이다. 이는 신성한 존재가 아버지로서 부르도록 가르쳐질 때 표현되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생각에 해당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아버지라는 통칭에는 뭔가 더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어떤 느낌을 모든 이가 안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통칭은 아버지에게서 풍기는 온유함이나 보호해주심에 관한 관념과 연계되고 있다. 사실 이런 사항은 아버지라는 자연적 수준의 관계성에 정확히 상응되고 답을 얻는 영적 실재 즉 단어 아버지의 영적 의미에 관해 모든 이가 가지고 있는 희미한 지각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주님이 아버지라고 불리울 경우 이는 그분의 본체, 신성한 사랑이라는 으뜸가는 요소에 관련될 때이다. 신성한 사랑은 보편적인 어버이이다. 이 어버이되심은 신성한 사랑의 열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 이 사랑에는 타인에게 그 사랑 자체를 나누어주시려는 속성을 본래부터 지니고 있어 축복 자체가 그 원천으로부터 모든 창조물들에 생산되도록 배려하신다. 그래서 모든 자연적 창조물은 인간을 위해 생산되어 있고 인간이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가질 수 있게 되어있다. 그리고 인간 존재로 구성되는 천국을 위해 인간이 생산되고 주님과 그분의 사랑의 결실이 결합함을 수단으로 천국에서 주어지는 모든 완전함과 복된 것을 인간이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신성한 사랑이 아버지라 불리울 때 특별히 의미되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만 해도 충분히 명확한 이치이다. 더욱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거론되는 거룩한 말씀 안에서는 더더욱 확실해진다. 시편 기자는 말한다.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듯 주님께서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김(pity)이라는 단어는 가장 깊은 은유나 자비를 나타내는 단어 중의 하나인데 이는 가장 부드러운 사랑을 나타내고자할 때 사용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때, 그분이 보내주는 격려로 힘을 얻을 때, 우리를 향한 지극한 부드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갖게 한다.

더욱이 우리 아버지로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보내도록 가르쳐지고 있다. 주님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가장 깊은 신성한 실체(Divine Essence)는 신성한 사랑인데 아버지라고 불리고, 신성한 실재(Divine Existence) 또는 명백해지심(manifestation)은 신성한 진리인데 아들이라 불린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성한 인성을 수단으로 실재하시어 명백하게 표현된 신성 전체가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로부터 오는 영적 품위로 교통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분을 영접한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절은 우리가 기도를 보내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규정지어 질 때를 명백히 암시하고 있다. 천국들에 계신 아버지는 뽀족하게 말해서 신성한 진리이고 이 진리가 온 천국들을 채우는 영기(sphere)이며 천국 거주민이 향유하게 되는 온갖 완전함과 복된 것의 근원이 된다. 천국 안에 존재하고 거기서 알려지고 경험되며 예배되는 대상은 주님의 신성한 인성뿐이다. 이 인성은 천국 거주민에게 그들의 기본되는 것들을 채워준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본질적인 신성은 인간 마음이 납득할 수 없고 천사의 경우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라고 주소 성명을 쓰게 되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 이름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명백하게 표현되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 가를 밝히시고 아버지의 은유함을 수단으로 그분은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그분의 품성으로부터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인성을 옷입고 계실 때뿐이다. 그분이 실지로 인성을 옷입으셨을 때 맨 처음으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주소 성명을 기재하도록 가르치셨다. 구약 성서에서 위와 같이 말해졌기도 했지만 그것은 예언적으로 행해진 것, 장래 인간 본성을 입으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것, 인간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신다는 것을 예견해서 있어진 말씀들이다. 참으로 그분은 영원으로부터 창조물의 아버지이셨고, 그렇게 존재하셨기 때문에 창조물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분이 인성을 입으실 때까지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은유함이나 가까우심은 전연 알려질 수 없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없다... 아들이 아버지를 밝히 알게 하리라.” 필립보가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분 자신에 관해 이렇게 말하셨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뵈게 해달라니 무슨 말이냐?” 아들이라 불리는 신성한 원리와 아버지라 불리는 신성한 원리는 똑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이 충분히 결과되어 완전해질 경우 그 둘은 한 인물밖에 형성할 수 없다. 즉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라는 인물 안에 거하신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부르도록 주님의 기도를 통해 명령되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다른 분은 없다. 영화하신 후의 예수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시다.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던 주님께서서는 아버지로서 그분 자신을 말하셨을 뿐이다. 예언자가 예정된 그분의 탄생에 관해 발표할 때,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 용사이신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라고 하여 확증하고 칭호를 주면서 “영원한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있다. 아버지로서 주님을 언급하는 것은 구속자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거룩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상에 나타나셨던 그 인성,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 인성이다. 이 인성이 신성한 이름이라 불리운다. 그 이유는 그 안에서 하느님이 명백히 표현되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공표되었기 때문이다. 최상의 의미에서 예수가 여호와와 이름을 뜻한다는 것, 다음 구절로부터 명백하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 때에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요한 12:28). 이 기도에서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인성의 영화하심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가 하느님의 이름이고 이 이름을 수단으로 하느님이 천사와 인간에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도록 기도하셨는 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을 기도하도록 요구하시고 있다. 그분의 인성을 영화하셨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이름을 영화되게 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인성에 관해 신성함과 거룩함을 인정할 때 그분의 이름을 거룩되게 한다. 이 인정함이 예배를 갖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느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기독 종교의 영광이다. 예수가 아버지라 부르신 신성한 원리 즉 그 자체는 천사들이든 인간이든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인성이 그 이름인데 이를 수단으로 하지 않고서는 신성은 알려질 수 없고 예배되어질 수도 없다.

신성한 예배의 목적과 우리 예배의 대상은 같은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예배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는 어떤 다른 목적이 첨가될 수 없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경배가 그분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용한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위에 그분의 영광이 뿌려지는 것일게다. 이 바탕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가장 합리적이라. 그분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형, 모든 완전함의 원천이 되시는 바 그분의 생애에서 명백해진 그대로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진실로 그분 앞에 가장 심오한 수치스러움으로 고개숙일 때와 같다. 인간이 재창조할 수 있는 모든 선과 축복은 주님의 신성한 인성으로부터만 진행될 수 있는 바 인성의 신성함을 진실로 인정하는 이들에게만 모든 선과 축복은 주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성에 관한 경건한 존경심은 참된 예배, 그분이 받아주시는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는 가장 높은 천국의 천사, 거듭나는 마음의 가장 깊은 자질에 있는 특유한 감정이기도 하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서 이 감정이 영혼(soul)을 형성해 주고 있어야 한다. 기도가 말로 표현되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 속에 이 감정이 존재되고 살아있어야 간구하는 모든 것이 열납되어 효력이 있게 된다. 따라서 주님의 기도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는 청원의 말로 시작된다. 바닥에까지 처진 인간 본성, 세상 인간 속에 존재하는 최하위의 원리를 지니시기까지 인간 본성을 입으신 주님의 자비, 그래서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진리와 선함이 심정과 지성에 교통이 가능하도록 매개체를 만드신 주님의 자비를 누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가장 진실된 경배를 드림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신성한 인성이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저자되신다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해볼 수 있을까?

10. 위 감정을 지닌 다정한 심정의 열렬한 바람은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는 간구로 그 뒤를 이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아는 바대로 말한다면 주님의 나라는 그분의 신성한 주권이 나타나거나 최소한 거기에 포함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분의 주권이 모든 이의 심정을 통치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축복이 인류를 덮고 있을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위 구절 그대로의 자연적 측면만을 들여다보는 이들에게 명백해지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온다는 말은 지상에 그 나라가 건설됨을 뜻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썩은 어떤 열정도 누구에게나 없을 것인 바, 주님이 다스리는 정부에 반역하는 자도 없게 되어 은총 가득한 축복만이 온 세계를 누빌 것이다. 이 얼마나 바람직한가! 이런

복된 왕국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리라.

그런데 왕국이란 왕을 전제로하는 단어이다. 그러면 이 왕국의 왕은 누구일까? 성경이 증언하는 이 왕은 논쟁할 여지도 없다. 이 왕국은 “왕의 왕, 주 중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다. 지상에서의 그분의 나라는 신약 성서에서 언급하듯 특별한 의미에서 그분께서 인성을 입으심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 시작은 신성한 사랑이 베푸는 전능한 역사와 신성한 지혜의 말씀들로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성이 신성과 굳게 결합되어간다. 육을 입으시는 하느님으로 계시된 그분의 나라야말로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왕국인 것이다. 비록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심정에 건설되도록 의도되었다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분의 나라에 대하여 예언자를 통해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되지 않으리라”라고 발표하셨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기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서 사용된 어구나 용어들까지 포함해서 자연계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자연계에 속한 것 외에 의도된 영적 의미가 반드시 들어있다. 그러면 단어 왕국에 적절한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점에서 주님을 왕이라고 일컫게 될까? 신성한 칭호 모두는 그분의 속성 측면에서 구분되는 필수적인 원리들에 관계된다. 어떻게 지상의 왕은 그의 신하들에게 권위를 행사할까? 또는 어떻게 모든 나라가 질서 속에 유지될까? 각 나라는 같은 법체제 밑에서 사는 조건으로서로 묶여진 인간의 사회이다. 통치권은 법에 의해 집행된다. 사실 통치의 본질은 법에 귀속되어있다. 어떤 점에서 주님이 왕이라 불리시고, 영적 의미에서 그분의 나라가 뜻하고 있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위 사회 측면을 신성한 정부 형태에 비교 생각해보는 것이다. 주님의 정부가 그분의 법칙 아니면 어떻게 운용될 수 있을까? 이런 법칙은 그분의 신성한 질서 말고는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질서는 신성한 진리가 받아 쓴 것이다 라는 생각 말고는 또 무슨 것이 있겠는가? 이 법칙들은 무한한 사랑에 바탕을 둔 무한한 지혜로 불변에 속한다.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신 바 가장 순수한 선택에는 어떤 것도 뜻하실 수 없다. 그분의 본질이 지혜이시고 이 지혜가 사랑과 완전하게 하나되어 있는 바 가장 좋고 가장 슬기로운 수단말고는 그분의 의도를 성취하실 수 없다. 그분의 사랑과 지혜는 무한하신 바 최선의 것, 최고로 슬기로운 수단이 무엇인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아신다. 따라서 그분의 사랑과 지혜, 그분 자신처럼 그분의 법칙도 영원하고 불변한다. 진리 자체는

다변성을 허용하지 않는게 특성인 바 신성한 진리의 법칙 역시 그러하다. 영원한 진리의 저자되신 분으로서 천국과 그분의 교회라는 정부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의 주님이 왕이라 불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정부, 이런 통치의 질서와 과정, 그 속에 있는 백성들, 이를 통틀어 그분의 나라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신성한 선함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의 정부가 우리의 심정에, 크게는 인류의 심정에 건설되기를 바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는 천적 천사 또는 마음의 천적 수준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에 해당된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영적 천사 또는 마음의 영적 수준이 특별히 잘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영적 천사들이 왕이라 불리는 반면 천적 천사들은 사제라고 불린다. 영적 천사들이 거주하는 천국은 우리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지는 왕국이기도하다. 이 왕국의 신하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은 주님의 신성한 진리에 순종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신 스스로 그분의 질서의 법칙, 즉 말씀 속의 진리가 자기 영혼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분의 법칙은 반드시 사랑되어야 하고 그로부터서 순종해야 한다. 이 순종이 애정을 생산할 때 이 순종에 기쁨이 동반된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아래면서 기도해야 하리라.

신성한 기도의 다음 간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기도는 위에서 생각해본 기도의 취지와 아주 똑같이 여겨질런지도 모른다. 주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곳이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을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말이다. 그분의 뜻이 펼쳐졌다는 말은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으시다는 것인바,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당연지사이다. 그럼에도 앞의 기도와 이 구절의 기도는 분명히 구분되는 취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한다. 신성한 분의 글에는 어떤 중복도 실지로는 있을 수 없다. 창조된 어떤 인간도 정녕 같지 않은 것은 그분의 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에서 말해진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에 첨가해 보면 빈말이 되풀이 되는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주님의 나라를 구성하게 되는 기본 원리인 신성한 진리는 신성한 이해성에서 기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반면 주님의 의지는 신성한 마음의 또 다른 필수적 사항에 관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유한한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인간 속성에는 두 개의 자질, 의지와 이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님의 경우 무한하신

바, 무한한 이해성의 속성은 신성한 진리 또는 신성한 지혜이듯 그분의 무한한 의지는 신성한 선함 또는 사랑이다. 주님의 신성한 의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비, 한량 없는 사랑이 우리 각자의 본성에 따라 심정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삶에서 선함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있어서 효력이 발생되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의지에는 순수한 사랑과 자비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이타애를 발휘하려는 애정 외 더 다른 것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활기를 얻으려할 때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속에 가득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우리의 행동지침이 복된 원리에 일치시켜 규율될 때 위와 같은 축복이 넘치리라.

이 기도에 더 첨가된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라는 조건이다. 이 말은 원어에서 사용된 순서와 같다. 먼저 높은 수준이 오고 낮은 수준이 그 뒤를 잇는다. 신성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성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게다가 우리가 그것을 열렬히 바래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덜 확실하게 느낀다. 그러나 천국은 바깥쪽의 천국뿐만 아니라 안쪽의 천국 즉 내적 인간도 명시하는 바 땅(지상)의 경우 외적 인간을 말하고 이 외적 인간이 순종하여 주님께 반역하고 상반되는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이 주님의 뜻에 맞는 모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때 인간 거듭남이 완성된다. 이 완성없이 천국 저택을 소유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기도는 축복으로 배당 받은 천국 저택의 낮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독특한 감정을 포함한 듯 보인다. 이를 통하여 주님과 천국이 세상과 인간 안으로 흘러든다. 이 낮은 천국은 순종을 원리로 한다. 그들의 특별한 삶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있다. 그들을 통해 거듭나는 사람의 외적 인간의 순응이 수행된다. 주님의 구원해주시는 역사, 천국의 한 자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를 경건히 올려야 하리라. 생활 속에 선함을, 천국에 소망을 두겠다는 결심을 가진 뒤 복된 열매를 먹을 때까지 중단함이 없어야 한다. 지상 위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영원한 천국 역시 준비해야 한다.

11. 위와 같은 간구와 실천은 하늘 아버지의 드넓은 사랑에 끈임없이 의존해야 하는 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문구는 주님의 기도 전체에서 중간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 문구 위쪽은 주님과 그분의 나라에 관련되고 있고, 아래쪽은 우리 자신과 세상에 관련되고 있다. 첫 세 기도 문구 즉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에도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는 사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드리는 문구이다. 뒤 세 문구는 용서해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바라는 사항들이다. 그래서 첫 세 문구는 우리 위에 있는 천국과 주님을 찾는 듯하고 뒤 세 문구는 우리 아래에 있는 세상과 지옥에 관해서 인 듯 보인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시고”라는 문구가 중간에 끼어서 앞 뒤 각 세 문구를 증대하는 듯 나타나고 있다.

첫 세 문구가 지닌 스타일, 즉 가장 높은 선과 축복을 기대하는데서 정상적인 등급을 따라 내려가 가장 낮은 악과 재난에 관한 기도로 변화해간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나 능력 또는 구성 요소 등 인간의 첫 번째 가는 것에서 마지막 짚에 해당되는 모든 것에 기도 문구가 잘 적용되는 골격이 짜지도록 배려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그분이 생산하신 것 중 “대단히 경탄할만한” 작품, “우리가 지닌 신체 기관들은 그분이 쓰신 책”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적 구성 요소와 영적 부분, 만일 우리의 이 부분들이 때에 맞춰 잘 열리면 하늘 나라의 거주민으로, 남용한다거나 개혁안될 경우 어둠의 나라에 처하게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들에 관한 감정이 노출되도록 문구가 배열을 이루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 같이 첫 세 문구는 천국 존재들, 그리고 그와 상응되는 인간 마음속의 능력들이 나타내주는 경건한 감정들, 특히 신학용어로 내적 인간이라 불리는 것에 속한 사항들에 관해서이다. 하늘 나라에서 주님은 모든 것의 모두이신 바 내적 인간에 소속된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살펴온 기도문은 우리로 주님에 대한 생각과 애정을 떠나 떼어 정신을 쏟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향 지시 같은 것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기도 문구 마지막 순서까지 우리로 경건한 정서를 불러일으켜 주는 바, 아마 최소한 우리가 지옥 나라의 거주민은 아니더라도 느끼게 해준다. 다시 말해 우리의 외적 인간이 지닌 다양한 소질이나 능력들이 그런대로 거둬나고 있다는 느낌, 또는 인간 본성의 이런 부분을 찬찬히 보게 될 때 갖는 나에 관한 느낌, 그 느낌으로부터 책임감을 갖게 해준다는 말이다. 외적 인간은 인간 구조,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요, 이 부분만이 악의 목표물이어서 악에 의해 더럽혀지거나 악에 쉽게 종속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적 인간 없이 유한하지만 총명한 존재, 또는 책임있는 창조물은 생산될 수 없었으리라. 따라서 외적 인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바, 이 인간 속의 악이 제거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황폐되는데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 간단히 살핀 것들, 즉 인간 존재의 골격인 두 가지 요소, 즉 외적 인간과 내적 인간과는 별도로 것이 합리적 능력 또는 합리적인 원리인데 이 합리성은 위 두 인간 모두에 간여하는 중간 매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자질은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의식 속에서 지각하는 자리 중 가장 높은 자리에 해당된다. 이것이 주어져 있는 이유가 합리적인 자유 행위를 수단으로 내적 인간에 있는 것들을 제멋 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의 내적 인간이 열려 천국을 준비하도록 하시려는 배려 때문이다. 이런 준비는 그의 외적 인간에 순종이란 원리가 얼마나 잘 가르쳐지느냐에 비례되는데 이를 두고 성경에서는 악을 제거함으로 거듭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합리적 자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을 받아 제멋 되도록 이 목표로 향해 요구되는 갖가지 도움을 다 동원하여 항구적으로 바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꾸준히 있어야 할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이다. 이 기도 내용을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자.

위 기도 문구의 정확한 글자 의미에 대한 것은 학자들간에 큰 논쟁거리가 되어 오기도 했다. 여기서 “일용할(daily)”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복음서 저자 자신들에 의해 형성되어졌는 바 복음서 즉 마태와 누가복음서 외 다른 책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어의 어원 또는 문맥에서 요구되는 의미로부터 그 의미에 관한 사항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라틴어 역인 불가타 성서에서는 이 단어가 가장 실질적인 것(super-substantial)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이것은 글자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영적 의미쪽에 더 가까울는지 모른다. 우리의 번역자를 포함 많은 이들이 이 단어를 “일용할(daily)”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 이유가 현대어로는 원어가 함축하는 것을 정밀하게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원으로 보아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되는 말은 우리의 물체 또는 존재를 위해 요구되는 것, 또는 존재를 위해 적절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제 이 단어를 빵과 접합시켜 보면 우리라는 물체를 위한 빵 즉 “필요한 양식”이다. “필요한 양식”이라는 번역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번역을 글자에서 전달해 주지는 못하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양식이라는 단어에는 음식이라는 한 가지 뜻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매우 드물다고 생각한다. 폭 넓은 의미, 양식으로 비유되어 사용된 것, 삶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사용된 말이다. 그렇다해도 이것만이 신성한 단어로 의미된 전부일 수는 없다. 신성한 혼계자의 전체 취지는 우리로 자연적 사항의 관심에서 물러나라는 것, 그러면 자유로이 주어지도록 약속되는 것, 자연계의 것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축복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정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지리라.” 이는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위로의 저자되시는 분으로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 그것들을 수여하시는 그분의 자비에 깊은 감사를 느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받기 위해 꾸준히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 등등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바래야 하는 것, 획득하려는 것들 중 절대로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는 것,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선(the good), 넓은 측면에서는 영적 선물, 우리 영혼에 영양분을 주어 생명 있게 해주는 것, 영적인 것을 후원하는데 요구되는 것들이다. 이것은 단어 양식(bread)이 말씀 전체를 망라해서 전달하고 있는 영적 의미이다. 한마디로 빵의 가장 적절한 의미는 선 또는 선함이다. 그 이유는 빵이 육체에 영양분을 공급하듯,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선이 우리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사실 자연적 의미에서 말할 때의 빵도 넓은 측면에서는 모든 양식, 뿐만 아니라 육체의 삶을 받쳐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망라하듯, 영적 의미에서도 단순히 선만을 뜻하는게 아니고 진리까지, 그리고 모든 영적 상태에 어울리는 모든 형체, 모든 다양함 속에 있는 선과 진리를 망라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해서 “오늘, this day”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영적 의미에서 날들(days)은 상태들(states)을 의미한다. 설세 없이 시간이 흘러 날이 지나가고 다시 맞이하듯 우리의 영혼도 이 상태 안에 있다가 저 상태로 건너간다. 날마다 기도함이라는 표현은 날들의 연속에 해당되는데 끝이 없는 것인 상태의 연속에는 영원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늘 아버지께 말할 때 진정 바래야 할 것은 다변하는 우리의 상태들에 요구되는 것, 필요한 영적 선과 선물을 내려 주셔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버터가고, 영원해 있을 우리의 잘됨을 이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 생각들을 조절하고, 생각과 애정의 주제들이 효능성을 지니도록 바래는 것 역시 포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런 사항도 마음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계속 생각하는 것들을 주신다. 그리하여 천사들은 그분으로부터 자기들의 일용할 양식을 받는다. 우리가 이 기도를 올릴 때 우리 역시 위 천사가 지니는 특전을 갖도록 바래야 한다. 게다가 이 기도문을 사용하는 가운데 잊지않아야 할 사항이 있다. 주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시라는 것,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진정한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선들이 공급되는 본체요 근원으로서 그분을 올려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 생명의 빵을 하늘로부터 계속 내려보내시어 우리로 먹고 정녕 죽지 않게 배려하신다는 것, 만나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 주위에 내려와 그것을 날마다 거두어 들였듯 우리 심정에 그분의 사랑과 진리가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약속된 땅으로 가는 우리 여행에 “천사들의 양식”을 주시어 계속 강건케 해주심을 알면서 주님의 기도를 사용해야 하리라.

12. 이제 우리로 심사 숙고 해보도록 인도하시는 기도는 “우리에게 빛진 자를 탕감해주듯이 우리의 빛을 탕감해주소서” 인데, 이 문구만을 떼어내 생각해 본다면 거룩한 기도 시리즈 중 놀랄만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신성한 재판관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용서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도 온전히 올바르게 영원한 생명을 정당하게 요구할 자, 한번도 옆길로 새지 않고 순종하거나 거룩한 길만을 걸어 영원한 생명을 절대적으로 확보한 자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은총과 자비라는 차원에서 있게 되는 호의적인 판결을 마지막 운명에서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자아사랑과 자만으로 눈먼 상태가 아닌 자는 하나도 없다. “죄짓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수많은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죄짓고 있다. 모든 이는 죄인인 바, 하느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는 구, 신약 성서에서 선포하는 사항이요, 모든 이가 실감나게 동의해야 하는 무게 있는 진리이다. 자신이 채무자, 죄인이라는 자기 의식을 지녀 겸손한 인생을 점철하는 자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용서라는 걸음으로 덮어 씌워져야 한다. 우리가 부적당하게 저질러진 것들에 대한 용서 없이 순수한 자비에 일치시켜 본다면 영원히 거해야 할 우리의 거처는 어둠속일 뿐이다. 따라서 어떤 형체로든 용서를 비는 것은 경건한 예배, 모든 종교 의식까지 망라해서 의식 중에서 제일 가는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는 모든 이의 겸손한 애원이어야 한다. 단순한 기분, 그 표현이 간략하든, 말이 많든, 어찌 됐든 죄의 용서에 관한 인간적 구상은 제한되어 있다. 죄인이라고 의식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 자기가 타인을 용서해 왔다는 바탕 위에서 용서를 주님께 요청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드물리라 생각된다. 절대적인 용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용서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여겨지는 용서일 것이다. 자신을 위해 이 기도문을 짜맞춤에 있어서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성은 우리를 인도해주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이익에 집중된 관심 역시 “남의 잘못을 용서하듯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기도 형체는 신성하게 교통되는 기도를

우리의 애원함이 좋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게다가 이 형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주어진 형체인 바 진정 주목해야 하고 가장 무게 있게 생각해야 한다. 용서에 관한 이 형체가 만일 우리 자신이 고안해냈다고 가정해본다면 이는 주재님은 뻔뻔한 것이 될 것이고, 남을 용서함이 결코 게을리할 수 없는 필요성만이 대두되고야말 것이다. 어쨌든 주님의 방침대로 이 기도를 사용한다면 기도문에 대한 모든 억측은 이내 사라진다. 억측대신 이 기도문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만 남아 있다. 남을 용서할 경우에만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해도 주님 편에서는 아직도 은총과 자비를 자유로이 주시고 있는 셈이다. 그 이유는 타인을 용서하겠다는 우리의 호의적인 태도는 신성한 은총의 열매 자체이기 때문이다. 조건적인 용서는 은총을 위한 은총이다. 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이 주님 편에서는 순수한 자비요 자비에 달려 있는 조건이다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유리하도록 계산해 주신 조건인지 모른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서 용서함에 관한 기도의 효과가 생산되기 쉽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건이 붙어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용서함에 달려 있는 조건은 사물의 참 본성으로 볼 때 불가결한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만들고 있으면서 과거의 죄에 대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죄짓는 일을 단념하겠다는 충분한 결심과 행동도 없이 마구잡이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헛수고만 되풀이 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의 자아사랑은 자칫하면 우리를 눈멀게 하고 자신을 발견해 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주님의 자비에 속한다. 게다가 기도문의 글자 자체로 자아사랑을 인정하게 하는 데로 연결시켜 계속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도 주님의 자비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된 자, 마땅히 우리에게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받는 조건이 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죄를 용서함에 대한 적절한 의미는 무엇일까? 기도문의 글자 의미에서는 타인을 용서함이 용서받음을 얻게 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런 이유는 자기를 상하게 한 자를 진실로 용서함으로 해서 심정의 친절함이나 자기 만족을 취할 자가 없기 때문인데, 이런 것은 악의 근원인 자아사랑이나 세상 사랑이 자기 위에 행하는 영향력이 중단되는 만큼에 비례해서, 또는 그의 애정이나 그의 생활로부터 일반적인 악들이 제거됨에 비례해서만 가능하다. 팔 복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바, 자비로운 자가 자비를 얻게 된다고 하셨다. 이와 같은 원리로 기도문에서도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얻는다고 가르치시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용서의 본성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진실로 용서는 주님께서 용서하노라하고 발표하시는데 존재않고 있다. 만일 용서함이라는 말만 하는 것이 예정해 놓은 축복들을 죄인들이 즐기도록 하는데 충분했다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은 그것을 받았을는지 모른다. 본질상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용서를 거절하실 수 없다. 어찌됐든 죄인이 자기가 들어앉았던 과거의 애정들을 치우지 않는다면, 자기 삶의 못된 습관을 중지하지 않은 채 통탄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부터 자유되게 어떻게 용서될 수 있을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곰곰이 생각해야하는 것은 악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에 관해서이다. 우리가 신성의 도움을 가지고 자기의 실제 악을 바램과 생활로부터 제거할 때 비로소 우리 속 애정과 생각들로부터 악들을 제거해주는 주님께 의해 그 악이 삭제된다. 이런 목적으로 신성한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표현되는 것이리라. 자신 속의 악과 싸우고 중단시킬 필요성을 인정함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자를 용서하듯이”라고 기도할 때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실체가 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음이라는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확실히 획득한다고 보증해도 좋을 것이다.

13. 위에 이어지는 기도,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는 우리가 곤경에서 자유해진다는 것을 뜻하는게 아니다. 주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거쳐 천국의 고향으로 인도해 가는 동안 인간에 관한 주님의 처방에 관련된 질서와 신성한 본성이 모순되는 것이 있어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많다고 하는 것을 위 기도문에서도 많은 이들이 발견하고 있다. 우선 이 기도문구는 인간이 시험에 빠질 때 그 시험을 만든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여기게 한다. 그럼에도 진정한 교리가 가르치는 바, 하느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데, 단지 인간이 자신의 탐욕에 유혹될 때 시험받아진다고 말한다. 또 하나 이 기도에서 눈에 나타나 보이는 곤란한 점이란, 어느 누구도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님 자신도 인성을 영화하시는 과정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시험받으셨는데 이 기도 문구는 어느 형태로든 시험에 노출되는 것을 반대하는 듯 보여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목해서 살핀 여러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있게 되면 위 곤란한 점의 답은 정확히 해결된다. 즉 여러 형태의 기도 문구는 다양한 인간 마음의 구성 요소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엄격히 말해 시험으로 괴롭혀질 수 있는 것은 자연적 인간 속에 든 수준 낮은 원리들을 매체로 해서만이 가능하다. 이 원리들은 악한 욕망에 바탕을 둔 거짓으로 기뻐하는 악령에서 기인된다. 악령들은 우리의 생각에 거짓 암시들을 주입함으로써

해서 시험이 있게 만든다. 만일 우리 마음이 보다 높은 원리에서 분리될 경우 쉽게 거짓 암시의 공격에 노출되고 말아서 인간의 애정과 생각의 중요한 자리를 점령당해 악령과 같은 본성을 지니게 해서 저 세상에 가서는 영혼을 파괴함으로 기쁨을 얻는 이들의 상태에로 침몰되는 것이다. 외적 감각들이 납득하는 대로 생각하는 인간의 부분에 시험을 수단으로 악령은 자기들의 본성을 삽입시킨다. 인간 마음의 감각적 부분의 납득력은 그 자체 신성과 영적 사항에 관해서 매우 불완전하고 희미한 수준밖에 안된다. 그러므로 감각의 영역 너머로 마음을 아직 강화시키지 못한 이들, 그들이 하느님을 인정하여 예배할 경우 그분에 관해 가지는 관념은 오로지 조작하고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들은 그분이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 간주하지만 그분의 선함에 혼합된 어떤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지 못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 즉 악과 재난, 선함과 행복, 등등 모든 것의 저자되신다고 상상하고 있다. 이런 생각, 비록 순수한 진리는 못되지만 그런 수준의 사람에게는 아직 유용한데, 그 이유는 그분의 계명에 따라가면 전능하신 분의 자비를 입을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의 저자되시는 분으로 하느님을 생각하는 수준이 비록 진정한 생각이 되어지지는 못해도 인간 마음의 자연적 수준이 납득하는 것을 도와주는 바 단순한 상태에서 마음에 품을 경우 유익한 결과를 생산하는데 채용된다. 이를 두고 우리는 가상의 진리(apparent truth)라 부른다. 이와 같은 가상의 진리, 또는 자연적 수준의 납득에 따라 감각이 암시하는 그 이상의 영역으로 승강되지 못할 때의 경우들에 관한 사항들이 말씀의 글자 의미에서 표현되고 있다. 주님으로부터서 악도 선도 온다고 표현된 구절을 다음과 같이 발견할 수 있다. “빛을 만든 것도 나요, 어둠을 지은 것도 나다. 행복을 주는 것도 나요, 불행을 조장하는 것도 나다. 이 모든 일을 나 야훼가 하였다” (이사야 45:7).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단순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글자 의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순수한 진리로 말할 경우 어둠과 악은 주님으로부터가 아니고, 그것들은 주님의 허용없이는 실시 될 수 없고, 이것의 실시가 용납될 경우는 악이 증진되게 하시려게 아닌 오히려 악의 폐지 또는 제거와 동시에 선이 증진되게 해주시려는 이유뿐이다. 심각한 시련 속에서 외관에 의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가능치 않다. 고뇌하는 사람은 주님이 자기와 반대되는 쪽에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에 중압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실지의 시험은 당사자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기도 문구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를 살핀다. 전체 기도는 주님께

의해 전달되는 신성한 형체의 말로서 기독교인의 기도(devotion)를 위한 길잡이로서, 최고의 선에 대한 경의가 수반하는 명상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가장 질서 있는 발달 단계에 있는 매개체적인 감정의 전 시리즈를 통과하면서 악의 원리에 관해서는 혐오하는 반감이 부수되는 명상으로 종결되고 있다. 최고의 선을 명상하면서 우리 마음은 주님, 최고의 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승강되어 그분이 우리 인류의 온유하신 아버지, 인간에게 선을 베푸시는 아버지로서 나타나는 바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사랑함으로 흥분된다. 이 흥분된 마음이 악한 원리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것을 악마와 지옥과 더불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더욱이 실재하는 존재로 규명되어 인생의 참 원리는 악에 손상을 입고 파괴되는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음을 느끼면서 더욱 몸서리치게 되어 있다. 이 기도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라는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직접적인 형태로된 감정으로 시작되어 이 원리에 반대되는 형체, 악의 가장 깊은 바탕이 되는 것, 자아사랑이라는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램으로 끝맺어진다. 그 이유가 자아 사랑이 제거되든지, 적어도 심정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을 때만이 순수한 선함의 사랑 즉 주님을 사랑함이 실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주님의 기도문은 맨 처음 기도문에 병행하거나 대비되는 기도문으로 결말을 내어 그 취지를 담고 있다. 처음의 항목들은 “... 을 위해, for”로 되어 있고 뒤의 항목에서는 “... 에 반대해, against”로 완전한 대비를 이룬다. 악한 것들이 거론될 경우 반대 주장을 펼치는 마지막 기도문에 호응되는 감정은 앞부분의 기도문에서 일어나는 감정,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선에 대한 직접적인 영감과 정확한 대응을 이루고 있다. 이미 살핀바 같이 마지막 기도문에서 악한 자에 반대하는 것은 첫 기도문에서 바랬던 선한 자와 정확히 반대된다. 그러므로 해서 “악에서 구해주소서”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영감과 대응되고 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이는 악에 바탕을 둔 거짓 원리의 영향에서 구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 기도문은 선함에 바탕을 둔 진리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바라는 기도,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구절과 대응을 이루고 있다. 한 마디로 이는 악에 바탕을 둔 거짓과 선함에 바탕을 둔 진리가 서로간에 완전히 반대인 것을 말한다. “우리에게 빛진 자를 용서해주듯이 우리의 빛을 용서하소서”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는 영감과 대응을 갖는다. 그 이유가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부채와 위탁금 횡령 또는 그분의 뜻에 거슬러

위반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정확히 반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채의 면제 또는 용서를 바라는 감정은 주님의 뜻이 행해지는 것, 또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선이 우리의 내적 인간뿐만 아니라 외적 인간에 이르는 모두에서 우세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정확한 대응을 이룬다. 전체 기도문의 중간에 해당되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는 이와 대응되는 구절을 갖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기도문의 앞과 뒤 모두에 걸쳐 관계되는 매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빵은 영적 삶의 보존 또는 지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영적 생명을 파괴하려는 악에 저항할 능력의 발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뜻한다. 하나 더 알게 되는 사항은, 어떻게 주님의 기도가 인간 마음 즉 외적, 내적으로 있는 모든 마음, 가장 높은 마음부터 가장 낮은 마음, 선 안에서 영혼을 건설하는데 요구되는 것, 영혼이 악에서 철수하는데 요구되는 것을 포함하여 인간 마음의 모든 자질과 원리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감정에 응용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 기도문은 인간 거듭남의 발달 과정 전체를 망라해 적절히 응용되도록 장치되어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사용할 경우 자칫 잘못 납득될 소지나 어떤 곤란함 같은 것을 전혀 유발시키지 않는다. 그럼에도 좀더 추가로 설명을 보탠다면 더 밝은 빛 속에 세부사항들이 놓여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처음에 등장한 기도를 잘 생각해보고 이 기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라는 구절이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구절에 수반되는 희미함이 제거되도록 해주고, 더불어 우리가 취해야 할 의미까지 건설하게 한다. 이는 거룩한 말씀의 많은 부분에서 통례처럼 등장한다. 특히 기도나 찬양 부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서로 완전하게 동의어로 글자에서 나타나거나 다른 단어이지만 똑같은 것을 표현할 경우도 있다. 비록 다른 단어로 된 문구가 실지로 동의어적이지 않는다 해도 그들 중 하나는 언제나 선의 원리에 관계되는 어떤 것, 또 다른 하나는 진리의 원리에 관계된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당신의 말씀은 내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시편 109:105)에 대해서이다. 이 구절 같이 한쌍으로 된 평행현상은 주님의 기도에서 관찰할 수 없다해도,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주옵소서”라는 구절은 아주 완벽하게 평행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들게 마옵시고” 와 “...구해주옵소서” 는 정확히 동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앞의 말을 의미측면에서 더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시험으로부터 구출해 주옵소서”가 된다. 그래서 앞 문장의 시험은 뒷 문장에서 악으로 대답하고 있다. 이로부터 다시 얻게 되는 것이 있다. 본문의 시험은 흔히 말하는

시련으로서의 시험이 아니라는 것, 이 시험은 아주 지독한 것으로 표현되는 어떤 것에 해당된다.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시험은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악과 동등한 어떤 것이다.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악이 공격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사실, 우리는 악에 의해 공격받지 않으면 악과 거짓을 결코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악과 거짓을 정복 못한다면 그것들로부터 구원되는 것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시험에 의해 우리 속의 악이 휘저어져 흥분되지 않으면 자기 본성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깜깜해 있다. 이렇게 자신이 알지 못한 악은 제거될 수 없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는 기도에 반대되도록 하는 것은 지배욕 그리고 악에 바탕을 둔 거짓의 영향력 때문이다. 여기에 더 첨가해서 “악에서 구해주옵소서”라는 기도에 반대되게 조장하는 것은 악 자체의 영향력 때문이다. 이것들은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악이란 신성한 질서에 반대되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드는 욕망과 그로 인한 기쁨이다. 이에 관한 법칙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표현되어 있다. 모든 악의 씨는 모든 인간과 더불어 그의 자연적 인간 또는 외적 인간 안에 상속되어 있어 악의 기쁨은 인간에게 지당한 기쁨이나 되는 듯 여겨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 속의 악이 뭔가를 생산해내는 것이 습관으로 정착되려는 것을 철회 못하면 그는 자기 속 악이 정당한 것인 듯 입증하는 위협에 빠지고, 이쯤해서도 제정신이 들지 않으면 악의 권세에 노예가 되어 끝장내고 만다. 따라서 “다만 악에서 구해주옵소서!” 라고 얼마나 열렬히 간구해야 하는지!

악에 대한 생각은 악한 존재에 관한 것, 집합적인 악한 존재, 참 생명을 다치게 하고 파괴하기를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망라한다고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악한 자(것)를 통칭해서 이르는 말이다. 씨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받는 그릇의 한 계층에 관해 이렇게 말하신게 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마태 13:19). 이 구절의 단어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의 단어는 모두 “악”으로 단순하게 번역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등장한다. 기도문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해주소서.” 영적인 생각에서 악과 악마, 악과 지옥 모두 한 가지이다. 또는 악과 악령에 속한 모든 것도 하나이다. 그것들 모두는 인간 영혼을 파괴할 때 하나가 되어 행동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은 오로지 신성한 권능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악에 속한 모든 것에 우리가 저항하려드는 것은 무익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신성한 질서의 법칙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악 또는

악마에 저항해야 한다. 마치 자신 스스로 해내듯 강력히 저항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저항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음을 심정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악에 대처할 경우 이런 사람의 기도는 헛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악 중에서 가장 심도 있는 악은 자아사랑이다. 이 사랑은 인간 이기심의 원리가 된다. 이 원리로 악에 속한 모든 다른 형태들이 들고일어나 자태를 드러낸다. 자아사랑은 타인 위에 군림하고 싶은 욕심에, 자기를 섬기도록 타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욕망에 근본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 사랑은 자기 밑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는 미움과 적개심으로 이끌이끌 타고 있다. 사실 이 사랑은 가장 낮은 지옥을 통치하는 원리이어서 자기들 삶을 통치하는 원리로 자아사랑을 채택한 이들은 모두 그곳에 내려온다. 이 악은 특히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반대해야 하는 모든 악의 뿌리에 해당된다. 이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은 사람, 자기 외적 인간까지 거둬나케 한 사람이 사후 가야 할 거처는 천적 천사들이 사는 곳, 자기를 통치하는 사랑을 주님 사랑으로 지닌 사람들의 거처이다. 그들 심정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언제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소서”이다. 이 영감은 “다만 악에서 구해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기도자의 완전한 성취의 결과이다. 악에서 완전히 해방됨, 자기 속 깊은 곳에 박힌 악을 거절함은 가장 높은 천사들의 선과 더없는 행복과 하나를 만든다.

주님의 기도를 마감하는 첨부된 기도문이 많은 성서에 있다.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이다. 이 기도문은 주님 자신에 의해 전달된 기도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의 기도서에서 헌신을 표현하기에 적절해서 첨가되어 있었는데 일부 번역자(transcriber)들에 의해 본문 안으로 삽입되어진 것이다. 확실한 것은 이 문구가 고대 사본에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개혁 교회(reformation)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되는 성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이 문구가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형식 차원의 일부로서 모든 이의 심정에서 표현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문구가 지니는 바, 참된 모든 것, 선한 모든 것, 우리가 즐기는 복된 것 모두는 위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경건한 존경심과 정성어린 감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4, 15. 신성한 기도를 전달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기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자비의 보좌에 보내야 할 간구 중 하나로 되돌아가시고 있다. 그 주제는 용서에 관한 사항이다.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이제 그분께서 확실히 해두시는 사항은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기도 중에서 조건이 붙은 유일한 기도문이 용서에 관한 사항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이 조건을 수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의 주님께서 말하고 있으시다. 이 얼마나 뜨겁하게 느껴야 할 사항인가! 복수보다 더 강력한 열정은 없을 것이다. 용서 못함만큼 흔해 있는 악행도 없을 것이다. 우린 얼마나 짹짹 성내는지 모른다. 피해에 얼마나 즉각 응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른다. 용서 못함은 주님께서 질책의 대상으로 뽑아 내실정도로 대단한 악이다. 그래서 용서해줌은 용서를 받는데 필요한 통로임을 주장하고 있다. 베드로의 질문,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에 대해 예수께서,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여라”라고 대답하셨다(마태 18:21-22). 우리는 용서하는 영을 꾸준히 키워야 한다. 용서는 행위에서만 존재하는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적극적 행위는 우리의 심정 상태의 모습, 우리가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것을 타인에게도 주고 싶어하는 꾸준한 마음 상태에도 존재한다.

16. 자선과 기도 다음으로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기도하라고, 단식하라고 가르치시지 않고 단지 이런 필요한 의무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있다. 단식(fasting)은 이스라엘 교회에 있는 제도중 하나이다. 그러나 어떻게 단식하라는 특별한 방향제시는 없었다. 어찌됐든 그들이 어떻게 단식했는가에 대해 이 구절에서 배우는데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고 육신을 고통받게 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언자를 통해서까지 그들의 단식 방법의 잘못이 지적되고 더 나은 방법을 제시받았기도 하다. “이따위 단식을 내가 반길 줄 아느냐? 고행의 날에 하는 것이 고작 이것이나? 머리를 갈대 같이 구부리거나 하고 굵은 베를 두르고, 재를 깔고 눕거나 하면 그것으로 다 될 듯 싶느냐? 그게 이른바 단식이라는 것이냐? 그러고도 야훼가 이날 너희를 반길 듯 싶느냐?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풀려 주고 멍에를 풀어 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은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골육을 모르는 체하지 않는 것이다” (이사야 58:5-7). 이렇게 구약 성서 속에서도 우리는 신약 성서 속의 영을 자주 만나기도 한다. 이 영은 축제 예식이라는 구름너머를 쳐다보는 바 폭넓고 고귀한 진리를 말해준다. 신성한 제도로서의 주님의 단식이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다. 텅빈 형체가 아닌 이타애로 꽉 찬 행위가 단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행위이다. 이는 고행(mortification)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해서 이르는 단식의 품성이다. 단식이 함축하는 고행(금욕)은 무엇일까? 이는 육신 측면이 아닌 마음의 측면, 즉 죄의 기쁨이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으로 만족하여 회멸을 갖는 것을 억제하고, 육의 욕망과 삶을 자랑함으로부터 얻는 쾌락도 삼가는 것이다. 스스로 고행(금욕)을 한다는데 대한 진정한 표시는 타인에게 봉사하되 사리사욕을 떠나 행동될 때이다. 이타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말고는 무엇이 자아 부정에 더 있을까? 악으로부터 오는 것을 마음과 실제에서 금하는 것, 자아와 자아에 들어 있는 부패된 욕망을 금하는 것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하시는 단식의 영적 측면이다. 선에 관련된 모든 것에서는 자신 스스로일 경우 너무나 허점이 많다는 느낌, 그런 이유 때문에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는 것도 단식한다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 “위선자들이 하는 단식”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다. 위의 진정한 단식은 위선자들에 의해서는 수행될리 만무하다. “그들은 침통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데 그 이유는 단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그 기색을 띄고 다니려 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활이 금욕과 준엄함이라는 것을 나타내 인정받으려 하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큰 소리로 외쳐댄다. 어찌됐든 세상에 나타내 보일만한 외적인 금욕 형태는 모두 다 흉내내려 든다. 영적 의미에서 용모나 얼굴은 마음에 있는 애정과 생각들이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용모나 얼굴에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슬픈 표정(용모)은 애정에, 침통한 얼굴은 생각에 관계되는 상태이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는 내부의 상태가 그렇다는게 아니라 외부만 그러하다는 것이다. 독실한 신앙에서 오는 슬픔과 자아 포기의 걸모양만을 가지고 냉담한 자기들의 가슴과 남을 알보기만 하는 생각들을 덮어씌우고 있다.

17. 참된 기독교인은 위와 같은 위선자이어서는 안될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단식할 때에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한다. 고대 시대 때에 통용되었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모습은 마음을 밝게 하는 친절, 사회적인 자선에 관한 표현이다. 그 이유는

머리에 뿌리거나 바르는 기름은 모든 친절이나 선,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한 표현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굴을 씻는다는 것은 내면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에 관한 표현으로 이는 말쑥하고 질서있는 삶을 생산하는 것까지 뜻한다. 따라서 악에서 오는 영향을 차단하려 노력할 때 이 노력의 행동이 어쩔 수 없어 하는 식으로 실시되어 우울해지는 상태, 또는 자기가 흠모하는 바램과 반대되는 의무 행위의 실시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 오는 착잡한 상태로 행동이 있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기쁜 마음, 즐거움으로 악의 영향을 물리쳐야 한다. 우리 속에 들어 있는 앞 뒤 체면을 가리지 않는 악들을 내어놓되 어쩔 수 없어 내어놓음으로 후회가 있어서는 안된다.

18. “그리하여 단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보여라.” 5-6절에서 설명한 바 같이 우리는 외적 인간 안에 있는 진리로부터 행동해서는 안되고 내적 인간 안에 있는 선으로부터 행동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아로부터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행동되어야 한다. 자아로부터 자아를 위해 행동하는 위선자들을 그럴싸한 명성이라는 가련하고 변하기 쉬운 보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참된 참회자는 하느님이 찬성하시는 것, 내향의 평화와 만족이라는 보상을 받게 된다. 우리 속에 들어 있는 품질이 무엇인지 보시는 하늘 아버지는 참된 자에게 그분이 지니는 것과 똑같은 품위들을 내려주신다. 이 사람이 자기 악을 보고 슬퍼함은 내향에서 있게 된다. 이 상태가 신실할 경우 주님으로부터 선을 받을 수 있게된다. 악을 거절함을 통하여 받은 선을 제것 삼을 때 시련이 끝나면 기쁨이 생산된다. 이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 안에 항상 존재하는 바 주님의 선 자체와 영원한 교통을 이루게 된다.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드러난 행복으로 “값아 주시리라.”

19-21. 이제 청중의 시선을 바꾼 주제는 우리가 일상 생활로 이해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평소의 생각이나 느낌에 와닿고야만다. “재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 두어라.” 이 말씀이 뜻하는 것, 훈계자가 전달하려고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정도는 누구에게나 감지되리라 본다. 즉 우리가 추구하고 사랑해야 하는 주요한 대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들이어야 함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다. 자기 영혼이 불멸한다고 확실히 믿는 이들, 자신이 지닐 영원한 상태에 진정으로 관심을 두는 이들은 위 원리에 일치하여 행동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알아채고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의 재산과 하늘의 부유함은 몸과 영혼, 또는 한정된 시간 개념과

영원한 시간 개념의 차이와 같이 서로 다르다. 한 마디로 서로간에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그들 사이는 서로 비례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상응에 의해서만 연결되어져 있다. 낮은 수준은 높은 수준을 추종하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이 세상의 재물은 그 재물의 마지막 원인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추구하게 되어 있다. 물론 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용도에만 한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것은 자연적인 것만에 국한되는게 아니고 더구나 자연적 용도가 제일 가는 목적도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들 중 육체에만 영향을 주거나 이 세상에서 종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 또는 지옥에 있다. 이 두 곳 중 하나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일들은 거기서 마무리된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은 그 근원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바램을 통제하려고 깊이 생각하는 것, 일시적인 것들의 사용이 거룩해지도록 하는 것, 동시에 천국적인 것들을 획득하는게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천국의 것에 애정을 갖는게 최선의 방책으로 삼는 것, 이런 것들보다 더 영리한 계산은 없다. 지상에 속한 재물들은 그 자체로만 있게 되면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서 썩기 쉽다. 이 재물에는 좀이 먹어 치우는 작업, 녹이 쓰는 부식 과정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평생 행운이 따라 붙어 자기 재물을 강탈당할 적이 없다고 가정해 보아도 밤중의 도둑 같은 죽음은 그의 재물을 싹쓸어 가고 만다. 천국의 보물은 썩을 수 없고 확실하다. 이 보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일시적이라는 자연계의 생명이 사라져갔을 때 진짜 부유함을 충분히 향유하는 입구 쪽으로 인도된다.

이제 상응의 언어로된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영적 의미를 더 실감있게 생각해보자.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있는 상응의 언어에서 재물(riches)이란 선함과 진리에 관한 지식, 또는 영적 사항에 관해 철저하게 알고 있음을 명시하는 단어이다. 땅(earth)이란 외적 인간 또는 자연적 인간을, 하늘(heaven)은 내적 인간 또는 영적 인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우리는 말씀 자체를 대할 때, 또는 말씀을 근원으로 삼아 파생되는 많은 설교나 가르침들로부터 신성에 속하는 사항들에 친숙해지는데 이때 습득된 지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주 듣게 된다. 본문의 경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귀중한 보물을 외적 인간의 기억 속에 축적된 잡다한 지식들로 취급하여 그 가운데 놓아두지 말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귀중한 보물을 자연적 이해성으로 추측해 내거나 심사숙고하려들지 말라는 것이다. 귀중한 보물을 자연적 수준 그 이상으로 더 가치있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보물들은 필시 썩고, 멀해지는 바, 전혀 알지도 못했던 것이나 마찬가지로인 눈에 보이기에만 제것

같이 보이는 상태로 방치해 어떤 이익도 전혀 산출못하는 그 마음을 떠난다. “좁먹거나 녹이 슬어 못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좁이나 녹이란 영적 인간에서 분리된 상태의 자연적 인간에 소속된 악한 욕망과 거짓 추구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적 인간 속에 있는 이런 경향성들은 기껏 획득한 영적 본성의 발전을 방해하고 파괴하여 쓸모없게 하려든다. 그 이유는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삶이라는 실지에 응용되지 않으면 기억을 떠나 영(spirit)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 사후에 살게되는 그 사람 자신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빚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서 각 사람의 자연적 상태에는 필시 악이나 거짓 중 하나가 밖으로부터 뚫고 들어오려고 계속 노리고 있는 상태, 즉 도둑당하고 마는 바 천국에 관한 것, 신성에 관한 지식들, 사랑과 삶으로 제멋 되지 않은 마음이 외적으로 지니게 되는 것인 영적 외관에 속한 것까지 모두 제거된다. 다시 말해 마음의 문간까지 다가와 있던 모든 영적 지식은 결국 마음의 안방으로 진입하지 못해 내것이라는 소유가 안되어 있는 바 이런 종류는 영구성이 없어 그 사람과 영원히 동반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모든 외관, 모든 소유, 눈에 보이게는 굉장한 지식을 지닌 듯한 것 모두는 깡그리 폐지될 것이다. 이 사람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거룩치 못한 것, 그가 최고로 여기고 흠모하느라 발버둥친 그야말로 순수한 지상에 속한 것들뿐이다. 그러므로 보물들이 거룩해지고 자신을 구원하는 지식들이 되게 하려면 “하늘에 쌓아 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 내적 인간의 소유가 되도록 해야한다는 것, 또는 인간 영 안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곳에 쌓을 경우 어떤 악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바 영원한 소유로서 남아 영원히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는 우리가 관심의 최고 대상으로 선 자체이신 그분을, 그분을 향해, 그분 쪽으로 인도되어갈 때 이루어진다. 심정이 이런 상황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 우리의 의지가 선한 분에 일치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승강된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삶이 우리 영혼 안에 건설되는 바 그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심정(heart)도 있다.” 이 얼마나 진실된 가르침인가! 심정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애정이 흥미를 두어야 하는 보물, 즉 영적 사항들을 관심의 제일 가는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늘, 즉 내적 인간 안에 그 보물들을 쌓아두게 되어 그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기쁨이 될 수 있게 하리라.

22, 23. 가슴에서 눈 쪽으로 주님께서는 방향을 바꾸시고 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 등불이 방에 있는 것과 눈이 몸에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눈은 그 자체가 빛을 발하지

않는다. 오로지 빛을 받아드릴 뿐이다. 또는 빛을 내는 도구가 등불이듯 몸에 불이 켜지게 하는 도구로서 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몸에 빛이 있게 하는 힘은 눈이라는 신체기관의 상태에 의존된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성함(single, simple, 또는 unmixed, uncompounded)이라는 단어를 눈에 붙여 사용할 경우 이 단어는 깨끗함, 순수함, 온전함을 뜻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야를 가리는 어떤 장애물에서 자유롭다는 뜻도 된다. 이런 성한 눈이 비록 작은 신체기관이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때 온 몸이 빛 가운데 있게 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 마치 눈이라는 기관 하나가 전체 인간이라도 되는 듯 각 사람은 빛을 지각하는 축복을 누리 그 빛이 밝히 알게 하는 즐거움을 만끽한다. “그러나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에 질병이 있거나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온 몸이 어둠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네 마음의 빛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다시 말해 빛을 지각해야 할 우리 속의 것이 어둠만을 지각하고 있다면 그 어둠이야말로 심각한 바 온몸이 어둠에 싸이게 할 것은 지당한 이치리라.

그런데 위 본문은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을까? 우리 영혼에 위 가르침은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 있을까? 물론 두 구절 전체에 대한 의미는 눈이 지니는 의미에 의존된다. 눈에 관해서는 널리 알려진 의미 파악이 있다. 즉 눈은 이해성을 상징하는 몸의 기관이라는 것이다. 눈과 이해성 사이에는 정확한 상응이 존재하고 있다. 이해성이 보다 높은 영역(sphere)인 반면 시각(sight)은 보다 낮은 영역에 해당된다. 눈이 몸의 등불이듯, 이해성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자연계에서 빛 또는 빛을 주는 어떤 물체와 지적 세계의 진리와의 명확히 상응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어떤 사람이 진리의 지각을 즐기게 되는 방식은 그가 지닌 이해성의 자질에 따라 있어진다는 것, 마치 빛을 얼마나 잘 감지하느냐가 눈의 상태에 따라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그의 이해성은 반드시 건전해야 한다. 혹은 본문에서 언급된 단어 “성함, single”으로 묘사되는 상태에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해성은 그것이 중재하는 모든 것에서 선을 목적으로 하면서 진리를 알고 생각할 때, 즉 의지에 있는 선함을 바탕으로 해서 알고 생각해야 한다. 이와 같이 주님의 가르침에 있는 명백하고 아름답고 진정한 의미에 따라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이 주어진다. 우리 마음이 신성한 진리를 지각함으로 채워지는 유일한 방법, 신성한 진리라는 천국의 빛을 받아 힘을 얻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기적이고 세상적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오염되는 대신 이타에

와 사랑, 선함이라는 원리에 관한 관심을 이해성 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만사에서 꾸준히 유지시켜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몸(body)이란 인간 전체 또는 마음 전체를 뜻한다. 따라서 우리의 눈이 성할 경우 온 마음에 빛이 가득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눈이 성하지 못할 경우, 이해성이 악한 목적과 혼합되어서 무질서하고 뒤집힌 상태일 경우, 신성한 것을 지각할 수 없고, 순수한 진리의 빛을 순수하게 즐길 수도 없는 바 마음은 진리로서 간주된 거짓 추구로 점령당해 있어 이미 알고 있던 진리들마저 왜곡되어 전혀 판관이 되어 존재한다. 이것은 어두움이라는 것 중 가장 심각한 어두움, 본문이 언급하는 어두움이다. 그래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큰 어두움인지 모른다!” 하시어 말을 끝내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인류에 퍼져야 할 그분의 나라와 신성한 말씀에 있어야 할 점들에서 야기되는 모든 어두움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와 달리 진리의 사랑은 선함에 진정한 바탕을 두고 있다. “선한 이해성은 주님의 계명을 행하는 모든 이들이 지닌다.”

24. 위 두절과 이 절을 한데 묶으면 심정의 성함, 눈의 성함, 그리고 선택과 행동의 성함을 가르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쪽 사람에게 의해 요구되는 섬기는 행동이 다른 쪽 사람에게 의해서도 요구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할는지 모른다. 본문의 경우 두 주인이란 상반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두 개의 의지, 두 개의 명령이라는 은유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두 주인이란 하느님과 재물(mammon), 빛과 어두움, 선과 악에 대한 모양새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위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따라서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이 편에 의해 요구되는 섬김과 다른 편이 청구하는 섬김 사이에는 타협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혹 어떤 사람의 경우 두 주인을 섬겨 보려고 시도하려고도 한다.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해도 그것은 순전히 사람만을 기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둘을 결합시키려는 시도나 어떤 그러한 생각에는 섬김에 관한 진정한 생각이 있어질리 만무이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중 어느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은 당연히 미워해야 가능해진다. 하느님을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은 정반대 되어 일치 불가능하다. 불일치되는 위 두 사랑은 당사자의 삶의 목적 또는 그를 통치하는 원리로 존재한다.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영적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자는 없다.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함으로 하느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을 사랑함으로 재물을 섬길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재물을 주인의 위치가 아닌 종의 위치로 만든다면 하느님과 재물이 모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의 경우, 주님께서는 “세상의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라”고 가르치시고 있기도 하다. 하느님을 섬김이 함축하고 있는 목적에 세상의 부가 추종되게 할 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두 대상 사이에 서서 우물쭈물하는 것, 두 의견 사이에서 주저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두 가지 사항을 마음속에서 하나되게 하겠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파괴 할 뿐인 바, 이는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을 하나되게 해보겠다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그러므로 경고하신다. 하느님만이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실 수 있고 우리가 섬길만한 분이시다는 것, 그분만이 의지와 이해성의 성함으로부터 생명의 성함을 풍부히 보상해 주실 수 있다.

25. 이제 제 6장의 마지막 문단에 와있다. 이 부분은 전체 계시 가운데서도 매우 납득이 잘되는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시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세상 사랑과 자아 사랑 안으로 돌진해 들어가게 하는 걱정의 무익함, 외적인 것들에 애착의 우선 순위를 놓는 무익함을 설명하는데 위 주님의 말씀 보다 더 놀랄만하고 영향력 있게 말할 수 없으리라 본다. 신성한 섭리에 신뢰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말 중 위의 말씀 이상으로 감축이 더 부드러울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세상 미래의 복지에 관한 모든 생각이나 일상 업무를 신중하게 예상해 보는 것 등등을 위 말씀이 금하고 있다고 상상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를 환상주의에 빠지게 하고 선용을 수행해가야 하는 이세상의 일에 무능력해지게 하는 지름길로 접어들게 한다. 위 구절이 말하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란 세상적이고 외적일 뿐인 것들에 심정의 뿌리를 두지 말라는 것, 주님을 신뢰함에 모순되게 하는 어떤 불안도 심정 속에 있게 하지 말라는 것, 신성한 섭리를 무시하거나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듯 제 고유의 신중함에 전적으로 의지하려들지 말라는 뜻이다. 지나친 근심이나 걱정은 자연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첫 번째로 사랑하게 될 때, 추구의 첫째 목표로 삼았을 때 피할 수 없이 발생하고야 마는 것들이다.

몸에 음식이 필요하듯 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양식을 필요로 한다.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하시는 관심 사항도 바로 마음의 양식이다. 모든 것을 예비해두시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두고 인간은 자기 총명, 제 힘으로 획득해 내겠다고 애쓴다. 사실 인간이 소유해서 즐기게 되는 것들, 자기 영혼에 생명이 되고 자기 영혼의 복지에 이바지하게 되는 영적 교통 내지 기증물들은 주님으로부터 당사자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일 뿐, 자기로부터 근원된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제 고유 능력으로 영적인 것을 포획하려드는 야심, 그것에 관한 모든 걱정 불안, 그리하여 자연적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대해 영적 의미에서도 질책되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 구절의 한 대목을 살펴보자.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목숨(life)과 몸(body)은 우리가 관심을 두는 대상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생명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음식(food)이 아니다. 옷은 몸을 감싸고 있는 것뿐이다. 한 가지 확실하다면, 생명은 어떤 자양분 없이는 버틸 수 없고 몸은 의복 없이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자양분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자양분을 제 자아로부터 공급해 보려 한다면 진정한 생명과 복지 모두 파괴되고 만다. 한 마디로 그것들의 참 존재가 결여되고 만다는 말이다. 목숨이란 영혼의 생명, 지적 능력에 관한 측면에서의 생명을 말하고, 이는 주님의 선물인 선한 애정, 진정한 믿음과 총명을 수단으로 해서만 지탱되어갈 수 있다. 자아에서 파생되는 것은 어떤 것, 선한 것이든, 참된 것이든 실지 존재될 수 없다. 몸이란 의지 속의 선 또는 사랑의 선을 특별히 의미하고, 몸을 입히고 있는 의복이란 사랑의 선에 투입된 진리, 또는 선과 하모니를 이루어 튀어나오는 영적 주제에 관한 감정이라고 말해 볼 수도 있다. 이것 역시 주님만으로부터 파생될 뿐이다. 그 이유가 이것들이 인간 자아로부터 이라면 인간의 자아사랑에 기초되어 그것을 위해서만 존재할 뿐 선함을 사랑하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해성 자체의 생명, 그리고 선함은 사랑되어져야한다는 점에 관심을 두어 그것들을 추구하고 함양되게 하려할 때,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 응용하도록 설비해두신 것, 즉 십계명 같은 가르침을 실제 사용하려 할 때면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선한 애정, 진정한 믿음과 총명을 값없이 주시고저 준비해두시고 있다. 주님을 찾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꼭해야 하는 전부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이를 행하고 있노라면 그 외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 전부가 완전하게 보존되고, 우리 마음은 선함에 관한 애정들로 더욱 충전되고 거기에 알맞은 진리의 지각이 있어 옷입혀진다. 한편, 자아에 근원을 두는 각종 것들의 바람은 밀려 나가는 바,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소중하다는 확신을 영구히 지니면서 살아가게 된다.

26. 이제 새를 가지고 위 교리 속의 진리를 확증해 주시고 있다.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곡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글자대로의 형상을 가지고 음미해보아도 위 구절은 예증으로서 매우 적절하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있다. 여기에 영적 취지까지 알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움으로 휩싸일 것이라 생각된다. 말씀 속에 있는 새들, 또는 각종 가금류는 지적 측면에 관한 것을 묘사하기 위해 언급되어 진다. 예를 들면 주제가 무엇이든 그에 대한 생각이나 아름다운 묘사로 명확한 추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새들이 창공에 드높이 날아오르듯 우리의 생각은 지상적인 것, 외적인 것 위로 부상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천국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가장 드높여진 명상까지 가능하게 한다. 생각이라는 힘은 빛의 영향에 좌우되는 바, 이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생명있고 활기가 있든지, 또는 휴면이나 잠든 상태가 되든지 한다. 빛은 진리를 상징하는 자연물이다. 따라서 진리가 어떤 형체 또는 어떤 수준에 있던 그 나름대로 생각으로 활동하게 해준다. 게다가 어떤 것도 생각을 억누를 수 없다. 우리가 살아 있고 깨어 있는 한 우리의 생각은 설사 없이 작동한다. 게다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게 되면 생각의 대상에는 언제나 사랑 또는 애정의 어떤 것이 연결되어져 생각 속의 대상을 활동이라는 영역에 갖다놓고 날아오르는 힘으로 그 대상을 떠받친다. 이 떠받침 역시 결석하는 적은 없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의 속성이 무엇이든 간에 죽기 전에는 결코 철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한다는 것을 억압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전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 생명 자체도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어주심으로 생명도 나누어주신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그분께서는 생각에 양식을 계속 공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언제나 살아 움직이도록 보존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먹여 살리듯 사랑의 불로 주님께서 계속 양육하고 있으시다는 말이다. 그런데 또 하나 진정한 것은, 악한 생각이라 불리는 것, 악한 본성 속에 있는 사랑으로도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악까지 주님이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선함과 진리를 사랑하도록 하는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사랑은 인간이 그 사랑에

반대할 때 사악함 자체로 인해 뒤집혀진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생각이라는 능력과 이 능력에 자양분이 공급되어 살아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이고, 당사자가 그 생각을 악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으로부터이다. 어찌됐든 생각이 결코 중단될 수 없고 또한 그 존재가 의식되도록 장치된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장치이다. 게다가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 영적으로 먹이시어 살아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는 분은 주님뿐이라는 것 역시 경이롭다. 그러므로 생각을 명시하는 새는 뿌리지도, 거두지도,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고 말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존재는 지식을 획득하고, 마음 안에 그 지식을 피종하고, 기억 안에 그 지식을 저장한다. 물론 이런 작용은 생각함이라는 것을 위해 물질이라는 것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고력 자체가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이미 살핀 바 있지만 생각은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하는 사랑의 원리 덕택에 의식이 있는 그 순간부터 존재 안에 들어와 활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이라는 재료는 초기 삶에서는 감각을 매체로 획득되고, 후에는 타인으로부터의 가르침에 의해 획득된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생각이 실시되는 바, 그것들이 생각 자체의 생산물인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라는 존재에 더욱 중요한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우리가 불멸의 존재, 영적 존재로서의 복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꾸려나가게 해주고 그분을 더욱 구체적으로 찾게 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은 새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것이다. 영적 선물 즉 영적인 사랑과 지혜를 부여받고, 이를 수단으로 우리는 인간 창조물이 된다. 다시 말해 자연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창조물, 영적인 진보가 있도록 독립적으로 부여 받은 선물을 사용해간다. 참되고 거짓된 것, 선 또는 악은 부여받은 우리 본성이 더 높은 완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해 선택하되 꾸준히 생각해보도록 설비되어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순위에 생명과 선을 먼저 놓고 그것들이 유지되고 보존되려면 주님을 찾아야만 하도록 설비되어있다. 영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 진실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자아로부터 끌어내기 위해 생각을 가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이나 해볼 수 있을까?

27. 공중의 새로 호소하신 주님께서서는 또 다른 말로 가르치신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키)을 한시간(한 자)인들 더 늘일 수 있겠느냐?” 키(stature)란 영적인 키 즉 천국적 품성인 사랑과 지혜에 관한 우리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 사랑과 지혜를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근원되시는 주님의 섭리, 돌보심, 자비로부터 끌어내지 않고 자아에

근원이 있다고 하여 추구할 경우 어느 누구도 사랑과 지혜에 관한 자기의 상태를 조금도 더 개선시킬 수 없다. 우리의 영적인 키(목숨)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특출한 품위에 의해 있게된 것인데, 그분 외에 어떤 다른 수단으로 그 품위를 향상시키겠다는 것,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몽땅 내던진 상태라면 더욱 불가능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생명, 천국적 총명의 상태, 의지에 선함이 존속되기를 진실로 바란다면 그런 자질에 영양이 공급되어지도록 주님을 찾아야만하고 그것을 공급해주시는 그분의 섭리에 의존해야 하리라.

28, 29. 이제 옷에 관한 주제가 등장한다.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이 문단은 절묘한 아름다움, 인간 구성의 어떤 것과도 견줄데 없는 아름다움을 입고 있으면서 그 형상들은 영적 사항의 상응에 사용되고 있고 천국과 교통을 이루고도 있다.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상응에 의거 살펴보면 말씀에서 언급되는 의복이 지니는 특별한 의미란, 각 인간의 원리가 되는 선함의 상태로부터 흐르는 마음 안에 있는 진리의 원리를 뜻한다. 이 진리들은 언어라든가 행동 같은 자연적 수준에 있지만 그와 동시에 내부에 있는 선을 명백히 드러내기도 한다. 이것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의복(rainent, garment)에 대한 의미이다. 선함으로 그 존재를 명백하게 해주는 것은 진리이다. 마치 진리가 의지 속의 애정에 먼저 들어온 다음 이해성 속의 생각과 지각 안에서, 그리하여 그 인간 자체에 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 때로 옷은 그 옷을 입은 자의 애정 또는 의지와 연결이 없는 채 있게되는 진리의 고백 또는 믿음을 나타내줄 때도 있다. 때로 반대적 의미를 나타낼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악에 바탕을 둔 거짓을 원리로 함을 뜻한다. 순수한 의미 중 가장 높은 것은 주님 자신에 관한 언급, 즉 빛을 옷으로 삼아 두르신 분이라고 말해질 경우이다. 빛이 주님의 옷을 구성하는 이유는 진리의 가장 명백한 상징물이 빛이기 때문인데, 마치 그분의 몸인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이 빛이 흘러나오듯 표현되어진다. 이와 같은 원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모하실 때 그분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옷은 “빛같이 희었다”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신성한 그분의 진리에 대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나타나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의복이란 단어의 가장 적절하고도 순수한 의미를 명백히 나타내줄 결정적인 증거를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마디로 다시 말해 본다면 이는 의복이 몸을 두르고 있듯이 선이라는 원리를 두르고 있는 진리, 그리고 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리를 말한다.

위와 같이 짧지만 결론을 내려볼 경우, 모든 진리는 그 진리를 고백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 적당히 소속되기 위해서, 또는 그 진리가 순수해지기 위해, 선을 원리로 하는 바탕에 있기 위해 그 사람 고유의 마음 안에 합병된 사랑과 이타애의 느낌으로부터 반드시 흘러야만 한다. 다시 말해 선을 원리로 삼는 것을 명시하는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옷걱정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심은 얼마나 지당한 일인지 모른다. 그 이유가 자신의 고유한 것으로부터 걱정해 몸으로 포획할 수 있는 영적인 의복 어떤 것도 선이라는 원리의 외곽을 두를 수 있는 순수한 종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선한 목적이라고 생각된 것을 놓고 이쪽을 향해 부산하게 움직일 때 사실 다른 쪽에 계신 하늘 아버지로부터의 선물이 값없이 내려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 들의 백합을 가지고 위 교리에 대해 예증하신다. 그 이유는 이것들이 천적 수준에 속하는 진리의 지각, 이와 동시에 거듭나는 과정에서 천적 수준이라 불릴 수 있는 데까지 도달한 마음 안에서 솟아오르는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은 끝없이 다양해지는 천적 수준의 애정으로부터 튀어나오는 진리나 지혜라는 아름다움을 계속 재창조한다. 이렇게 진리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달콤한 지각들이 마음에서 열린다는 것은 지식이나 믿음에 관한 문제들의 사실을 축적하고 이렇게 축적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추론함으로써 진리를 처음 지각하는 이들의 상태와는 매우 다른 상태이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들의 백합은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 이유가 영적으로 수고함(toiling)이란 진리가 사실(fact)로서 단지 축적되어 있는 것, 또는 연구하고 배워 알게된 수준의 진리들을 의미하고, 길쌈(spinning)이란 위의 사실들을 가지고 추론함으로써 나오는 견해 또는 교리에 관한 어떤 체계가 시종일관 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 스스로부터 창안해낸 듯하여 자신과 혼합된 채 존재하는게 위 과정에 상당히 많다. 인간의 일과 하느님의 일이 전혀 다르듯 위의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우수함에서, 순수하게 아름다우나 에서 매우 다르다. 인간의 일들은 표면만이 아름답게 번지르한 것 그 이상 더 아름답지 못하다. 제 아무리 빼어난 그림이라 해도 이는 전문가의 그림 솜씨가 표면 위에 뿌려 놓은 아름다움의 형체와 색깔이라는 지상의 물질일 수밖에 없어 내향적으로 상응되는게 없다. 매우 완전하다

고 여겨지는 조각 역시 인위적인 것밖에 더 이상 아름다움이 없다. 그 조각이란 돌조각 또는 쇠조각, 그리고 그 모양새, 조각가의 비상한 재주, 이것이 한데 어울려 있을 뿐 연합된 그것들 사이에 상응됨이 없기는 그림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전능자의 손이 해두신 작품이 아니다. 꽃자체와 예술가가 그린 꽃 사이에는 끝없는 차이가 있다. 인간이 섬세하게 수놓아 짠 옷감과 나뭇잎에서 섬유조직의 셀 수 없는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관찰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만져볼 때 느껴오는 촉감은 너무나 다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진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인간 기술자가 만든 어떤 화려한 옷도 전능자의 손이 지어낸 꽃 한송이에 있는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에 필적할 수 없다는 것, 이는 인간의 일과 하느님의 일 사이의 차이점을 다시 주의하도록 하시고 있다. 더불어 위 두 비교는 중요한 진리를 표현해 주고 있다.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은 모든 왕이나 마찬가지로 영적 원리, 특별히 진리를 원리로 삼는 상태를 표현한다. 이 원리의 옷이란 총명과 지식에 있는 모든 진리들 또는 눈으로 보여지고 이해된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원리는 천적 원리, 즉 사랑을 원리로 삼는 상태, 다시 말해 느껴서 지각된 진리 또는 지혜에 있는 지각으로 옷입은 천적 원리와는 불연속 등차로 분리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볼 때 영적 수준의 진리는 이해성에 소속되어 있고, 천적 수준의 진리는 의지에 소속되어 있다. 영적 수준의 총명이 제아무리 아름답고 빼어나다해도 진실로 단순하고 모두가 사랑스러울 뿐인 천적 수준의 지혜 중 가장 낮은 것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것이 본문에서 솔로몬의 옷과 백합의 옷으로 비교되고 있다. 위 차이는 왕의 화려한 도포와 꽃의 섬세한 단순함 사이에 정밀하게 장치되어 있다.

30. 이제 주님께서 백합을 들어 말하신 후 풀(grass)로 바꾸어 거듭 말하신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들풀로 가르치신 것은 천적 지혜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지각하는 것, 그럼에도 그것의 본성은 아직 천적 수준이라는 것, 즉 사랑의 직접적인 생산물임을 암시해 주시려는데 그 이유가 있다. 사랑 또는 선함이 전부에 해당된다고 하는 곳에서는 제 아무리 높은 수준의 진리까지 포함해본다 해도 모든 진리는 사랑을 부채질 해주는 것밖에 더 소용에 닿질 않는다. 더불어 사랑이 자기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이 되어 있는

품성의 소유자에게 있어 진리는 천적 수준의 애정을 제멋 삼거나 지각함을 증진시켜주는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적 수준의 지각이라는 “꿀”의 용도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다”라고 묘사해 주셨다. 다시 말해 열을 공급하는 것, 이것을 수단으로 인간의 생명인 선이 버터간다. 따라서 아궁이의 생산물인 열기를 위해 들풀이 준비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매우 기쁜 지각을 안겨준 진리까지 포함해서 진리를 별 중요사항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진리로 자기가 상을 받으려는 계산이 없기 때문이고, 오로지 진리로 보여지게 되는 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며 진리는 선에 자양분을 공급해서 선을 살아 있게 해주는 도구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목적에서 이 사람은 진리들을 꾸준히 응용해간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진리 자체 안에 머무는 일이 없이 참 생명, 사랑의 불꽃을 더 세지게 할 목적으로 알게된 진리를 즉각 사용된다. 따라서 선함을 향한 그의 애정은 그 사랑의 참 저자되시는 분으로부터 더욱 공급받아 더욱 그의 마음 안에 저장되어진다. 그런고로 그의 백함은 결코 수고하고 길쌈할 일이 없다. 들풀처럼 그의 진리는 아궁이에 던져진다. 그가 아는 한 가지, 들풀은 또다시 자라 더욱 무성하도록 천국의 샘으로부터 물을 영원히 공급받는다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지각할 때, 오로지 선함을 위해 진리를 교통할 때 그의 선함과 진리는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더욱 잘 관리되어짐을 아는 바, 자기의 복지 증진은 오로지 하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까지 더욱 실감한다. 그래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다.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나?” 정녕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의존해야 하리라.

31, 32. 절묘하게 이름답고 부드러운 감촉으로된 비교와 호소인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다. 이제 청중에게 보다 놀랄만한 어조로 타이르신다. 이미 살핀 듯 하지만 보다 다른 형체로 이미 착수하신 주제를 반복하신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이방인이 추구하는 것이 그것인 바 단념하라는 것이다. 이방인이란 자연적 수준의 마음을 의미한다. 이방인보다 더 특별하게 표현하는 말은 나라(nation)라는 단어인데 이는 적극적으로 악해지는 것을 뜻한다. 본문의 경우는 이방인 즉 자연적 마음이 추구하는 것을 영적 마음이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다.

여기에 더하여 더욱 정감있게 확신시켜주는 말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섭리적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말인데 이 구절을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직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열 배나 더 정감있는 방법으로 즐거운 확증이 될 수 있게 배려하시고 있다. 그분께서는 위 사항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로서 간주하시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리 없으나 일단 의심하는 쪽을 쉽게 믿기도 하는 것이 우리라는 인간일 뿐이다. 그리하여 자기 주장을 제기하여, 대(greater)에는 소(less)가, 전체에 부분이 포함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둔다. 그 다음 자연적 수준의 인간에게 중심 목표가 된 것을 아주 높게 평가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것 없이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는 것이라고 비비틀어 생각해 버릴는지 모른다.

33.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복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확보해 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직선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하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살핀바 대로 천국에서이든 지상 위에서이든 공히 주님의 신성한 진리로 된 정부(government)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그리고 그분의 정의는 주님의 신성한 선함, 또는 선함의 저자되신 분이 그분이라고 인정함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위 두 용어를 개인적 측면에 응용해본다면, 우리가 구하게 되는 하느님의 나라란 우리의 이해성 안에서 주님의 진리가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분의 정의란 우리의 의지 안에 그분의 사랑 또는 선함이 현존하는 것을 뜻한다. 모든 축복의 근원되는 위 두 개의 큰 요소를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 이 추구함은 단순한 청구로만 되지 않을 것은 이미 짐작되리라 본다. 참으로 우리는 기도로 그것들을 간구해야만 한다. 더불어 더 실제의 수단인 자아부정과 적극적인 미덕을 통해 추구해야만 한다. 그분의 나라를 획득하기 위해서 생각이라는 정부에 그분의 진리를 적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쪽에서 정립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분의 정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로운 삶으로 우리의 애정 안에 신성한 선이 배양되게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 그분의 나라와 정의를 구하되 반드시 첫 번째로 구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첫째가는 중요한 것이란 우리를 통치하는 사랑밖에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분의 나라와 정의를 효과적으로 추구하려면 우리 영혼이 그것들을 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치하는 사랑과 바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분의 나라와 정의를 먼저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첫째 자리에 놓아야 한다. 모든 종류의 진리보다 주님의 진리를 드높여야 하고 모든 종류의 선함 위에 주님의 선함을 놓아야 한다. 그것들이 우리의 이해성과 심정, 마음과 삶의 첫 장소에 놓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 외 모든 것도 우리에게 더하여지게 된다. 이는 진리와 선에 관한 모든 수준, 모든 종류까지 최상의 선과 진리에 덧붙여진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올바른 질서 체계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선은 선의 근원 또는 첫 번째 되는 곳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는 첫째 되는 것보다 더 열등한 것을 포기한다는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해진다는 것, 더 그윽한 향기로 하급의 진리를 즐기게 된다는 것을 함축해놓고 있다. 영적 수준이 자연적 수준의 것을 폐지시키는게 아니라 거룩해지게 한다.

34.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걱정에 반대되는 주님의 말씀이 이어진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아주 일반적인 자세로 이 구절을 쳐다본다면 이 구절이 기초를 둔 진리는 우리의 가슴이 시원해지게 하는 것을 날라다준다. 미래에 대한 쓸모없는 걱정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인간의 경향성은 도덕주의자나 철학자들의 추론 내지 열변에 풍부한 재료를 언제나 공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신성한 섭리에 관한 교리 외에 어떤 심각한 생각도 걱정이라는 고통의 치료에 쓸모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주님의 말씀을 심사숙고해서 그 속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우면서 주님의 섭리에 의지하는 이들이라면, 본문이 질책하는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에 집착해서 진정한 그분의 취지를 흐려놓고 마는 잘못을 범하지 않으리라 본다. 내일을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 자신을 위해서이든, 가족을 위해서이든 그것은 주님의 섭리나 그분의 뜻이 말하는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물론 세상적인 것들을 관심의 제일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이다. 주님께서서는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신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한 가지 더해진 이유도 있다.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글자 표현으로만 생각해본다면 위 문장은 인간 삶의 모든 것을 확정하는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단지 신중함이라는 문제만에 국한해보면 그것은 미래에 관한 걱정을 현재에 쌓아놓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인 바 재론할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은 생각(sentiment)에는 자연적인 것 뿐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 본문이 말하는 내일이란 우리가 진입하는 새로운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새 상태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련, 시험이 따라붙는다. 다시 말해 지옥에 근원을 둔 것으로부터 흥분을 일으키는 것, 우리 본성 중 썩은 부분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 못하는 걱정이란 것이 자리 잡은 우리 속의 장소가 바로 위와 같은 본성이다. 이로부터 시련이나 시험, 즉 한바탕의 전투가 우리 속에서 치루어진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기소침해지는 쪽으로 좌초되는 것은 아니다. 위 상태에서 치루는 괴로움으로 우리 안에 내재한 악이 어떤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바램, 그 바램에 입맞을 다시는 우리 속 옛 본성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정의가 우리 속에 건설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에 있는 악에 꾸준히 저항하는 것, 현재 상태에 있는 악만을 극복해 내는 것만으로도 거듭나야 하는 우리의 의무 이행은 백점짜리가 될 것이라는 말이 위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다. 오늘 자신에게 드러내진 악을 정복하고 있다면 내일 본색을 드러낼지 모를 또 다른 악을 두고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다. 악에 저항하고 대결하면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주님께서는 그 악이 우리를 정복하는 것을 용납치 않으신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께 기대고 그분의 힘을 빌린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과 걱정을 앞세운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이기심이 부추기는 속삭임을 달콤하게 여긴다면 악의 정복은 금세 불가능해진다. 대체로 우리는 자신 속에 든 악하고 나쁜 것을 발견할 경우 그것을 존속시키려고 그것과 싸우려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허다하다. 그렇게 되어 우리는 자기 속 몸쓸 속성과 함께 아래쪽으로 침몰하던가, 그것으로 인해 더 심한 훈련 과정을 치루어야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발견 즉시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것들을 섭리의 흐름에 얹어놓아야 할 것이다. 섭리의 인도함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이럴 때만이 만사는 우리의 잘됨을 위해 여기서도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있게 된다.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영원한 목적을 눈앞에 그리면서 우리 속 몸쓸 것과 타협 불가능함을 다짐하고 전투를 해지기전에 선포해야 하리라. 그러면 말로 표현될 수 없는 미처 예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7

1. 장엄한 강연은 이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관한 사항으로 넘어간다. 더욱이 그 대상은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판단한 자에 대해서이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이 본문은 주님께서 모든 재판을 금하시려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본다. 어떤 사회라 해도 재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주님께서도 재판의 실시에 대한 규칙을 놓으실 때, “외관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의롭게 판결해라” (요한 7:14) 라고 언급하시어 재판의 정당성을 인정해 놓으셨기도 하다. 이 구절에서도 빼놓지 않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자연적, 도덕적 수준에서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 상태, 일시적 보답보다는 영원히 있을 보답에 관련시켜 언급하셨다는 점이다.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은 노골적으로 명확한 금지를 표현하고 있다. 사람을 도덕적인 품행 수준에서는 판단해 볼 수 있지만 영적 상태에 관해서는 판단함이 허용될 수 없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도덕 수준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정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종교적 견해를 놓고 처벌하는 것, 특히 영원한 비방 또는 저주라 할 수 있는 “이단자”라는 표현은 더욱 불가능한 판결에 해당된다. 사회나 교회 모두 각각에 걸맞은 양식으로 무가치한 사람에게 어떤 벌을 줄 수 있다. 단지 그 사람이 공적 견해에 노골적으로 노출되어 시민법이나 교회법이라는 테두리에 부당했을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러나 이런 수준은 그 사람의 내적 상태를 판단하는 것과는 수준이 전혀 다르다. “심정을 들여다보는” 그분의 눈 외에는 어떤 눈도 인간 내면의 상태를 볼 수 없다. 이 세상의 어떤 재판관도 영혼(soul)의 영원한 조건을 올바르게 판결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거처를 두는 이상 이 사람이 저 사람의 본질적인 영적 상태를 확실히 알 수 없도록 장치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모든 인간 존재가 진실로 영원히 되고 싶은 자기 존재대로 될 수 있도록 운명과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 언제나 있도록 장치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바깥쪽 언행을 판단해 보는 것, 아마 대략적으로 추측가능한 동기나 원인을 판단해 보는 것은 내적이고 본질상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는다. 아마 어느 정도 외적 질서를 유지한다면 동기를 판단해보는 것은 내적 자유가 보존되는 것을 오히려 도와줄 수도 있다. 만일 내적인 것 자체가 간섭될 수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영적 개혁은 방해될 것이다. 그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으려 들기 때문이다. 비록 타인의 영적 상태를 절대적 수준에서 판단하도록 허용되지는 않는다 해도 어떤 조건이 붙을 경우에는 타인의 영적 상태를 기능해보는 것도 허용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가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필시 구원을 잃고 말거야..." 그러나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이렇게 살아 갈 것이니 그는 구원받지 못해..." 본문에서 주님이 의도하신 측면의 하나는 무조건 금해야 하는 판단에 관해서이다. 이는 타인을단죄하는 판단에 관한 것이다. 누가복음(6:37)의 경우 이를 더 명백히 나타내주고 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을 통해 주님께서 금하시는 판단이란 선이 없는 진리로만의 판단 또는 거듭난 의지가 없는 채 계발된 이해성만으로 판단하려드는 경우이다. 사실 판단하는 것이 이해성의 본래 기능이고 판단이 진행되어야 할 근거가 진리이다. 그러나 이해성이 지닌 판단 기능은 의지 속의 경향성에 영향을 받는 고로 의지 속의 이타애가 보다 높은 수준이나 아니냐에 따라 이해성의 결정은 정의롭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금하시고 있는 판단이란 자비가 없는 판결에 관한 것이다. 본문같이 엄한 금지 명령에서 배우게 되는 또 다른 것이 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려드는 데에는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선부른 판단을 내리기 쉽다는 것이다. 나쁜 결과들이 이로부터서 쉽사리 발생되기 때문이다. 만일 일종의 예측에 속하는 예상 판단의 성공으로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 성취를 위해 직, 간접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이 때 우리는 누군가의 미래가 나빠지게 판단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위한 최선의 것을 바라는 가운데 판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기도와 노력들을 수단으로 우리의 희망은 두 번째에 있도록 하는 동기(motive)를 지니게 될 것이다. 본문을 추상적 측면 또는 가장 높은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판단은 사람이라는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사람 속의 원리들을 두고 이루어진다. 사실 모든 판단은 원리 안에서 해결된다. 본문은 선함과 진리에 관련된 원리들, 그것이

말씀 안에서 밝히 알게 되었든지, 아니면 교회나 사람 사이에서 인정되었든지 “판단 말아야” 하고 “단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에게 합당하고 필수적인 것은 진리인지, 또는 진리가 아닌 지 자신을 두고 판단해보는 것이다. 이럴 경우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 판단 역시 진리를 진실로 사랑하려는 의지로 영향받지 않으면 정당한 판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반복되는 강조점은 “외관에 의거 판단하지 않고 정의롭게 판단하는 것”이다.

2.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어떤 것이든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판단받아질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이 구절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자비를 얻게된다”는 말씀에 흐르는 법칙과 같은 품성에서 결정되고 있다. 바꾸어 말해 자비없이 판단하는 자는 자비없는 판단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 결과에 관한 것은 설명이 더 필요없으리라 본다. 꼭 하나 덧붙여둘 말이 있다. 위 말씀의 법칙은 전능자의 임의대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는 것, 이는 창조자께서 창조물 안에 이미 입력해 둔 법칙이어서 영원한 질서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자비없이 결코 판단하지 않는 분이 주님이시다. 자비 없이 판단을 잘 하는 인간과는 전혀 다르다. 어쨌든 자비없이 판단하는 이들은 자비없이 판단된다.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말하시는 요점은 보답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해서이다. 우리가 받은 보상의 측정은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 또는 비참한 것 어느 것이되든 획득한 정도에 의거 결정되어진다. 선함은 행복을 담는 능력에 해당되고 악함은 비참함을 담는 능력이다. 저 세상에서 받게 되는 즐거움과 비참함의 측량은 이 세상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어느 정도였느냐에 의거 결정되어진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축복 또는 저주의 양과 질을 결정하시는데 어떤 예외 조항을 두시지 않는다. 이것 역시 질서의 법칙으로 고정되어있다. 이 법칙에 의거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생산할 뿐이다. 이 법칙은 우리의 체험을 측량하되 우리의 상태와 행동지침을 수단으로 한다. 모든 사람은 단죄를 받든 구원을 받든 각자에 어울리도록 채워질 수 있는 어떤 분량(measure)을 지니고 있다. 이 분량이 저 세상에서 채워지는데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채워지기도 한다. 이 분량은 사랑에 속한 애정을 수단으로 이 세상에서 획득된다. 누군가가 악하고 거짓된 것 또는 선하고 참된 것 어느 것이든 더 많이 사랑한 만큼 제 자신을 위한 분량으로 남게된다. 이 분량은 저 세상에 가서는 바뀔 수 없고 단지 채워지지만 할뿐이다. 따라서 선하고 참된 것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었던 이들의 경우 그들은 선함과 진리들로 채워질 것이고, 악하고 거짓된 것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었던

이들의 경우 그들은 악과 거짓으로 채워진다. 천국에 있는 선한 자들의 공동체에 있는 원리가 당사자에게서 완전히 수행될 때 그들은 축복자들의 거주지로 올리워져 그곳에 거하는 모든 이의 행복이 자기의 행복이 된다. 같은 원리로 악한 자는 더욱 악한 쪽으로 강세해져 악의 비참함이 완전해지면 같은 원리로된 어둠의 사회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3. 이웃을 대하는 좋은 방식과 나쁜 방식을 이렇게 더 가르치신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구절에서 표현되는 주님의 생각은 마태복음 23장 14절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나타는 그대로 삼키는” 유대인의 생활 원리와 매우 흡사하다. 이 구절에서 주님이 꾸짖으신 행동은 바리새사도들이 자신들을 놓고 실시했던 것에 관해서이다. 똑 같은 원리가 이웃에 관련되어 이 구절에서 예증되고 있다. 위선자들은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나 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쉽게 찾아낸다.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이웃 중에서도 형제를 들어 말하시고 있다. 그 이유는 형제가 이타애를 나타내는 말이고 본문의 주제가 이타애와 관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란 누군가가 이타애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그의 이해성에 거짓 추구가 있거나 하찮은 잘못 속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 반면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란 지능적으로 확증해버린 의지 속의 악이다. 이 악은 우리의 통찰력을 거꾸로 되게 한다. 주님께서 다시 확인해주는 이 말씀 속의 의미는 얼마나 정당하고 필수적인지! 우리는 당연스럽게 때로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과오에는 소경이 되어 있으면서도 타인의 결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이댄다. 이 사항에 관한 예증은 세상에 깔려 있어 조금만 눈을 돌려도 금방 발견한다. 이 악은 타인의 악을 간파하는데 너무 재빠르고 그것을 재판하는데 너무 잔인하고, 그것을 처벌하는데 한치의 자비도 없다. 영적 의미로 이 구절을 살펴보자. 눈은 이해성 즉 지각하는 마음의 능력을 상징하는 신체 기관이다. 티란 잘못을 상징하고 들보는 악을 상징한다. 이해성이 악한 의지의 지배 밑에 있게 되면 그 이해성은 자신의 악에 눈이 멀어 있으나 타인이 자신의 악을 좋아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의 악과 거짓을 지각하는데는 매우 날카롭다. “왜 너희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라고 하신 주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영적 인간과 자연적 인간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가능해진다. 바깥쪽만을 보고 있는게 자연적 인간인지라 언제나 타인의 결점을 짚어낸다. 그러나 영적 인간은 안쪽만을 향하고 있어서 자신 속을 잘 관찰한다. 자신을 잘 검증하여 자신 속의 악과 불완전함을 쉽게 식별해 내는 반면 이웃 속의 불완전함을

빛 가운데 끌어내서 심각하게 판결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4, 5. 주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다.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의 티를 빼내어 주겠다’고 하겠느냐?” 티를 보는 것과 티를 빼내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에 해당된다. 사실 타인의 마음에 있는 잘못들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제거하는데 협력하는 것도 이타애의 일에 속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임무 수행은 악한 눈으로 이웃의 잘못이나 약점을 쳐다보는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작업이다. 그들의 마음은 이웃의 복지에는 하등 관심이 없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진리로 확신시키려들기 보다는 오히려 제 형제에게 그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려고 애쓰는 이들의 노력에서 기대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타인에게 있는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면 지적인 식별력과 동시에 실질적인 원리까지 다 동원되어야 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자기 자녀에게 있는 결점을 고쳐주려는 경우의 부모들에게 매우 흔한 경험이다. 사실 자녀의 결점을 찾는 데에는 대단한 총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결점을 고쳐주려면 지극히 올바른 실제의 지혜가 대단하게 요구된다. 온화함, 친절함, 인내심 등등은 정말 자녀의 결점을 고쳐주려고 결심한 부모라면 확고부동하게 부모의 의지 속에 자리잡고 본보기를 보여야 가능성이 있다. 부드러운 부모가 성마를리 없고 광폭하게 처리할리 만무이다. 그 부모가 목표를 앞에 두고 거칠거나 불친절할리도 없다. 조그만 티만 있어도 어쩔 줄 몰라하는 신체의 눈같이 민감하고 예민한 젊은 마음을 끌어내 인도하려면 위의 실제의 지혜는 필수적 요소이다. 타락되고 불완전 투성이의 존재 속에 흔한 것은 각종 잘못들과 악들이다. 타인 속에서 이런 한가지 것만을 끌어 내 집어던지게 하는 데에는 위와 같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할는지 모른다. 사실 삶의 관계에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품성은 형제, 친구, 선생, 목사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요구된다. 한마디로 명확히 보고 파악해야겠지만 친절함 심정이 결여되는 것은 금물이다. 진리가 있어야 하지만 선함도 꼭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언제나 함께 동반되어 교정이라는 작업이든 개혁이라는 작업을 위해서이든 고용되어야 하리라. 따라서 우리 눈 속에 든 들보를 빼내는 것이 우리가 수행해야 할 첫째 임무요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들보를 빼냈을 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으리라.

6. 선함 없이 진리로부터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가소롭고 위험한 것인지 경고하신 주님께서는 진리없이 선함으로부터서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내시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엇갈리는 반대의 상태는 서로에게 결점이다. 진리만 떼어 생각하면 진리 자체는 모든 빛, 모든 엄격함이다. 선함만 떼어 생각하면 그것은 모든 느낌, 모든 온유함이다. 진리 없이 선 가운데만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그는 생명나무의 잎으로 악인을 치료해 보려는 노력도 해보지 않은채 악인에게 양식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줄는지 모른다. 이런 선한 자는 거룩한 말씀을 모독하고 파괴하기를 일삼는 탐욕과 감각적인 것으로 꽉 찬 악인에게 말씀 속의 순수한 선과 진리들이 좋은 것이니 먹어보라고 선물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밧고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본문의 개와 돼지에 비교될 만한 이들이란 자신의 욕정에 노예가 된 자, 그리고 자신의 감각측면의 포주(panderer)가 된 이들이다. 거룩한 것이란 이타애 속의 선과 믿음 속의 진리들이고, 진주란 말씀으로부터 온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을 뜻한다. 이런 진주를 위와 같은 인격자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이다. 이런 천국에 속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각적인 것들 앞에 분별도 없이 내어줄 경우 그들의 악한 욕망과 게걸스러움을 꾸짖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채질하는 격이되어 더욱 극성을 부리게 한다. 이들은 천국에 속한 것을 밧고 짓밟고 침뺨으면서 더욱 수준 낮은 생각과 더욱 불순한 애정 아래로 격하시킨다. 그래서 거룩한 원리가 주입되는게 아니라 되려 짓밟히게 된다. 이를 치료해보려고 말씀의 영적 원리들을 가지고 처방한다면 처방한 자에게 돌아서서 그를 찢어발길 것이다. 물어뜯는 대상이 제자들인데 그들은 교회를 구성해주는 말씀 속의 생명있는 원리들을 뜻한다. 물어뜯는다면 생명있는 원리를 흩어지게 하고 파괴한다는 말이다. 우리의 주님은 모든 선생들의 참 모형되신다. 그분은 자신을 청중의 능력 속에, 뿐만 아니라 청중의 심정 상태속에 숙박하고 있으시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이들에게는 비유로 진리를 날라다 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제자들의 허약한 부분에서도 잘 부착되도록 다루시어 그들의 외적 상태에 알맞은 영광의 환상으로 조금씩 인도해 가셨다. 그리하여 거듭남으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게 될 보상의 약속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심판하는 열두 옥좌에 앉게 하셨다. 이 구절이 추상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만일 외적 인간이 감각적 상태에 남아 있는 채로 거룩한 것들이 내적 인간으로부터 흘러내려 오게 될 경우 이는 뒤집혀져 모독될 것이라는 것, 이럴 경우 외적 인간은 내적 인간에게 더 사나워져 물어뜯게 되는 바 결국 양쪽 모두 영적 생명이 파괴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고 있다.

7. 주시지만 하는 주제에서 물어보라는 주제로 바뀌고 있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느님의 은총이 비록 값없이 제공되는 것은 사실이라 해도 열심을 내어 적극적으로 획득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꾸준히 강조해 오고 있는 줄거리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구절은 어떤 체계가 있어서 눈에 보이게는 불일치 하는 사실들이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을 주시게 하는 쪽으로 유인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갖추게 해준다. 하느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그릇을 준비하려면 모든 우리의 자질들이 활성화된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심정으로 구해야 하고, 이해성으로 찾아야 하며, 삶으로 두드려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원되고 그 작동이 계속되면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느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분은 은총내리실 때를 기다리고 있으신다. 우리 쪽에서 요구되는 전부란 받고자하는 바램과 노력이 진지해 있어야 하는 것이다.

8. 받는다는 약속은 구해야한다는 의무수행을 피할 수 없는 바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달라는 것이나 받는다는 것은 사회에서 서로 간에 있게되는 형태 중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행위에 속하는데 이는 하느님으로부터 선을 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지로 받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누구든지 찾으면 얻고...” 이해성이 구원을 위한 수단들을 찾아 헤맨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 속에서 그 수단들을 발견한다.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의지와 이해성 속에 있는 원리들을 삶과 대화 속으로 가져오게 되면 주님과 인간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고, 인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두 수준인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도 교통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두 원리가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간에 결합하게 된다.

9-11. 한 가지 주목해보고 넘어갈 일은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분의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추론 같은 논쟁을 사용하지거나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본성 속에 든 애정에 단순히 호소하신다. 이런 애정은 모든 이에 똑같이 소유하는 보편적 지각에 속하는 마음의 바탕인 것이다. 하늘 아버지의 부드러움과 축복을 입증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지기보다는 본능에 있는 직관(instinct)들을 사용하신다. 이런 호소가 각 개인에게 더 잘된다는 것은 부모의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에서

쉽게 보여진다.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인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이다. 그래서 각 인간에게 유전적으로 부패함이 있다 해도 이 사랑은 모든 인간 안에 이미 이식되어있다. 그래서 제아무리 사나운 동물일지라도 부모와 새끼간에는 언제나 부드러움이 상존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거둬나서 거룩해진 부모를 들먹거리시지 않고 무차별하게 타락된 인간 속성까지 포함시켜 언급하신다. 이런 단순한 사실만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속성에 대한 많은 오류를 피할 수도 있게 되리라. 아마 신성한 사랑의 보편성과 불변성에 관해서도 한 순간이라도 의심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될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게 무엇이든 주님께 구할 때 하늘 아버지의 지혜로 필요함을 채우시는데 대한 확신을 갖는데 우리의 용기는 한층 더 강화된다. 이제 그분의 언어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자.

9, 10.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배고프다고 말하는 것을 놓고 빈정대거나 변론할까? 비교 대조해서 생각해보도록 하는 주님의 호소가 지닌 힘이 존재하는 곳은 자연적 애정이다. 아들이 원하는 자연적인 것에 아버지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자연적 애정이다. 이제 위 본문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자. 주님께서 무리를 먹이셨을 때의 빵과 고기 같이 위 본문의 빵과 고기도 두 개의 본질되는 원리인 선함과 진리를 상징한다. 이 두 원리가 영혼(soul)의 의지와 지성 부분을 지탱시켜준다. 시편에서 이렇게 읽어볼 수 있다. “...인간 심정을 강건하게 하는 빵...” (104:14). 심정(heart)은 의지를 상징하고 빵으로 특별히 의미된 선은 의지 속의 생명을 지탱시켜 주는 원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탱되는 의지가 육체 속의 심장(heart)이라 불리고 있다. 생명의 빵이 제것이 될 경우 살아 있는 선함으로 바뀐다. 이런 고기로 된 심정(a heart of flesh)도 읽는 반면 돌로된 심정(a heart of stone)도 읽어볼 수 있다 (에제키엘 11:19). 이 구절에서 심정이 회개않느냐, 하느냐를 표현하려는 단순한 모양새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거기에는 실지의 상응이 포함되어 있다. 고기로된 심정은 선함이라는 원리를 받음으로 해서 갱신된 의지를, 돌 같은 심정이란 불신앙과 그 결과 악으로 단단해진 갱신되지 않은 의지를 명시하고 있다. 즈가리아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 만군의 야훼께서 내리신 법과 교훈을 듣지 않았다” (7:12). 빵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돌을 준다는 것은 진정한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왜곡된 선을 주어 의지가 돌 같은 심정으로 바뀌게 하는

것을 뜻한다. 고기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고기란 이해성에 진리라는 자양분을 부어 진정한 믿음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뱀은 감각적 수준의 진리에 대한 상징물이다. 종합해보면 돌이란 악에 바탕을 둔 거짓을, 뱀은 자아에서 파생되는 신중함을 의미한다. 돌과 뱀을 빵과 고기 대신 준다는 말은 영적 생명에 고통을 주어 죽게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아들이 빵과 고기를 바래기 전, 그리고 영적 사항에 관한 지식인 영적 양식을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기 전 아들은 어느 정도라도 영적 수준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한 마디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어느 정도라도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과거 빵과 고기로 수천 명의 무리를 먹이실 때와 같이 굶주린 우리 영혼을 천국의 선함과 진리로 먹여 주기를 바랄 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11.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의 상태가 도덕적으로 악해있다 해도 제 자식에 대한 자연적 수준의 애정은 이미 증여받아 있어 자식이 원하는 것은 매우 신속하고도 부드럽게 해결하려 하고 더 나아가 자식의 자연적 수준의 복지 역시 가능만하면 미리 대비해 주려 하는 것까지 본능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에게 공통되는 애정이다. 이런 낮은 수준의 애정 역시 자연을 창조하신 분에 의해 영감되어 있다. 이는 인간이 최상의 수준이든 최악의 수준이든, 사나운 동물이든 약한 짐승이든 모두에게 공통되는 애정이다. 악한 인간이라 해도 자녀에게 무엇을 주어야 좋은 것인가를 알고 있는 그 자체는 우리가 그분께 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어야 하는지 하느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우리의 추측에 대한 증거이자 확증이 된다. 선함 자체이신 그분이 선한 것을 진실로 구하는 사람에게 선함을 유보하신다는 것은 그 말 자체에서도 불가능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인간의 심정이 선하든 악하든지에 관계없이 그 안에 자연적 애정이 이식되어 있듯이 모든 인간에게는 그의 인격이나 소원 사항에 관계없이 인간의 자연적 필요함을 관대하게 설비해 두셨다. 그분이 주시기 전 그분께 물어보도록 요구되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인데 이것들은 영혼의 선함을 유지시키면서 영원한 복지를 확고히 하는데 필요하다. 이것은 묻지 않는 이들, 즉 바래지 않고 추구해 보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굶주림과 육체의 관계와 같은 것이 바램과 영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국의 선을 바램은 선이 공급되기 전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육체가 음식을 갈망하는 만큼 마음도 선천적으로 바래고 있다.

그러나 이 바램의 본성은 마음의 도덕적 수준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자신이 영적으로 궁핍해 있음을 의식해서 영적 선을 공급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주님을 하늘 아버지로서 발견하는 바 지상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공급해주는 일시적이고 한정된 것들과는 비교도 안되는 것, 영혼의 진정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선한 것을 더욱 받을 수 있게 준비를 갖춘다.

12. 위 장엄한 진리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게 되는 서로간의 혜택에 관한 교훈에 내려놓으심으로 이 시리즈를 마감 지으신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 구절을 두고 우리는 “황금률, Golden Rule”이라 부른다. 그런데도 이 구절을 글자대로 생각한다면 이는 금 수준에 속한다기 보다는 은 수준에 더 적절한 듯 여겨지게 한다. 그 이유가 금 시대의 원리인 천적 수준의 원리는 타인을 제 몸보다 더 사랑하도록 자극을 주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은 시대에 속하는 영적 수준의 원리는 타인을 제 몸같이 사랑하도록 자극하는 원리이다. 오늘날까지도 이런 높은 원리들이 본보기화 되고 있지는 않는다 해도 부모의 사랑이나 자식의 효도 같은 데에 흉내내어져 있고 통상의 예의범절에서 이 원리의 껍질만은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흉내뿐이나 모방이 종교의 영 없이 자연적 수준의 애정으로,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행동들은 이기적 애정 또는 사욕없는 애정으로부터 진행되기도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 가르침을 내려놓는 원리의 바탕은 인식하고 응용하는 차원을 위해 사욕없는 사랑만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 이유는 앞 절에서 말하신 것, 악한 인간이라 해도 제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분이 내려놓는 법칙은 자연적 인간 뿐만 아니라 영적 인간을 위해서이다. 이 법칙은 모든 인간의 올바른 감각에,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사랑이라는 낮은 수준에까지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각자가 자신에 응용되는 것과 동등해지도록 정직하게 응용되어야 함을 이 법은 요구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 밝혀 주신 말씀들은 자연적 수준의 법이 종교적 수준의 법으로 바뀌도록 의도하신 것이라고 확대해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판단이 말해주는 것이 자기의 의무가 되어 행동할 양심을 주시려는 것이다. 타인이 자기에겐 베푼 것 같이 자기도 타인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는 법일 것이다. 우리가 타인을 향해 행동하기 전 생각되어야 할 한가지가 있다. 같은 상황이라면 자기를 향해 타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어떻게

기대해보거나 원하느냐에 대해서이다. 생활 속에 있는 각종 관계나 의무, 타인과의 교제나 왕래에서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기대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갚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서로의 처지를 뒤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경우가 자신의 경우일 때 행동하려는 것이 올바른지, 그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무엇을 기대하는게 자신의 올바른 도리인지 알게 된다. 이에 대한 예증은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다. 그 이유는 위의 법에서 예외되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법의 응용은 보편적이고 불변하다.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 구절에 대한 예증이 필요가 없다 해도 약간의 설명은 첨부되어야 하리라 본다.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 이 법은 요구하는 바, 너는 너 자신을 타인의 위치에 놓아야 할뿐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에도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자신의 위치만이 아니라 자신과 그 사람이 동일해지도록 바꾸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행해질 수 있다면 이는 상대방이 행동한 것과 꼭 같게, 상대방이 판단하는 것과 꼭 같게 판단해야 한다는 말도 되고 만다.

이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우리는 상대방의 위치에 서보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의 조건하에 행해보도록 우리 속의 원리가 요구하는 것까지 꼼꼼이 생각해보도록 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판매자이라면 우리는 구입자의 쪽에서 생각해보아 과연 자신의 판매 행위가 올바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우리가 명령하는 주인이라면 하인의 입장에 서서 명령을 행할 하인이 그 명령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자신과 관계를 이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봄으로써 더 정당한 것, 더 자비에 속한 것, 덜 공급되어야 하는 것, 더 주어야 하는 것 등등 한마디로 더욱 공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위대한 법칙이 완전히 흐르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전혀 다른 세계가 창출되지 않을까? 공평의 법칙(the law of equity)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가장 실제적인 형체이다. 다시 말해 내 몸 사랑하듯 이웃을 실지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랬던 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천국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간의 사랑과 서로 서로 섬김이라는 끈으로 하나되어져 있다. 이 법칙이 천국을 지배할진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흠모하지 않으면서도 그곳에 들어가기 기대할 수 있을까?

13, 14. 이제 위 공평의 법이 어떻게 수행되는가, 그리고 이 법의 통치 밑에 우리

자신을 가져다 놓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고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좁은 문(the strait gate)은 자아를 부정할 때만 진입할 수 있고 좁은 길(the narrow way)은 신중함과 인내로만 걸을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13:24)의 경우 “있는 힘을 다해라” 라는 말이 첨부되어있다. 멸망의 문이 넓음에 비해 생명의 문은 비좁게 만들어져 있다. 즉 자연적 수준인 우리의 본성은 선을 혐오하고 악에는 쉽게 물드는 경향성이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인간 본성이 반기는 것은 쉬운 듯 보이고 기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은 어려운 듯 난처하게 여긴다. 따라서 어려운 것이 “좁다”는 것이고 쉬운 것, 반기는 것이 “넓다”로 말해지고 있다. 도덕적 수준에서 볼 때의 “좁음, straitness”은 걱정, 번민, 어려움이다. 생명의 문은 영(spirit)의 “좁음”을 통과하는 것, 즉 악마와의 투쟁, 세상 것에 따른 번민, 육적 쾌락이 유혹하는 것 때문에 야기되는 난처함 등등을 결승전을 치르는 선수 같이 있는 힘을 다 해야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멸망의 문은 넓다. 그 이유는 있는 힘을 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진입하는데는 자아가 저항할 필요가 별로 없고 게다가 제멋대로 굴면 그 문은 쉽게 열린다. 따라서 제멋대로 살면 살수록 멸망의 문은 더 넓어지고 거기에 이르는 길도 더 넓어진다. 어찌됐든 이 문과 이 길은 어디에 있고 무엇일까? 그것들은 우리 마음들 안에 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의 마음과 자연적 수준의 마음 중간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질(합리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의 위쪽에는 천국으로 열려 인도하는 문이 있고, 아래쪽에는 세상과 지옥으로 열려 인도하는 문이 있다. 인간 생애의 초기에 이 문은 열려 있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닫혀 있는 것도 아니다. 더 설명해 본다면, 각 사람의 초기 생애에서의 생각과 애정들은 삶의 원리로서 선이든 악이든지 어느 것을 신중하고도 실용적 차원에서 선택되지 않는다. 사실 모든 사람 각자는 아래쪽으로 향한 길을 쉽게 선택하려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께서서는 파멸로 이르는 문이 실지로는 열리지 않도록, 생명에 이르는 문이 실지로는 닫혀져 있지 않도록 설비해 두셨다. 그래서 인간이 성숙될 때까지 즉 제 스스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리신다. 그 다음 각 사람은 이 문이 열리게 하고 저 문은 닫히게 하되 신중을 기하고 이미 알고 행동을 취한다. 파멸에 이르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매우 쉽다. 그 이유는 인간의 타락된 본성과 같은 성질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생명이르는 좁은 길을 걷겠노라고 의지를 굳힌다면 그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에게 도움과 수단을 설비해 주시고 그에게 참된 동기들을 공급하시며 그 길을 무사히 걷도록 충분한 은총을 내리신다. 우리는 회개를 수단으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우리는 완고함, 회개하지 않음으로 죽음의 문을 들어가 죄되는 생활로 파멸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넓은 데로 찾아드는 사람은 많고, 좁은데로 찾아드는 사람은 적다고 말하는 글자 그대로 생각해 본다 해도 그런 현상은 숙명적이 아니라 선택에 기인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때 또는 어느 정도라도 아래쪽을 향해 길을 걷는다. 그 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경솔하게 확증해 버리지 않도록 설비해 두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총은 너무나 풍부해서 우리가 악한 길로부터 되돌아 설 바램을 진실로 가져서 올바른 길을 찾고 있다면 만사는 거기에 맞추어 작동하게 하신다. 주님이 지상에 계셨던 그 당시나 지금, 사람들이 좁은 길보다 넓은 길로 더 가고 있다고 글자대로 적용해 본다 해도 그것이 이 구절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말씀에 등장하는 수량(numbers)은 원리 측면에서 볼 때 품질을 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적다(few)는 믿음의 이타애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하고 많다(many)는 이타애가 결여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15.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 가려하고 넓은 문을 피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경청해야 할 조언을 세심하게 구별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반드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개개인으로 볼 때 거짓 예언자란 가짜 선생들이고, 추상적으로 보면 왜곡된 원리들이다. 이런 예언자라는 넓은 문을 피하려고 조심하는 것은 더욱 필수되는 사항인데 그 이유가 그들의 거짓 예언이 우리 자신 속에서 선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편견이나 치우친 생각(inclination)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마치 진짜인 듯 여겨 거짓을 추종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는 거짓과 진실을 식별하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하고 그 식별력을 발휘할 때 말하는 상대방의 개인적 선입견을 넘어서 진리는 수용하고 잘못된 거절해야 할 것이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중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나지마는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거짓 예언자들은 위선적인 선생들이다. 그들은 사리사욕 없는 친절이라는 겉모양 속에 게걸스러운 이기심을 은폐시키고 있다. 추상적 의미로 다시 말하면 그들은 바깥쪽으로는 이타애를 가르치는 듯 여겨지게 하면서 마치 양속에 이리가 들어 있듯 안쪽에는 파괴적인 것만을 보유한 거짓 원리를

뜻한다. 자기 종교에 오류를 가득지니고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평화”가 자기 신앙의 목적이라고 공언해댄다. 어쨌든 자기가 가르치는게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진리가 아닌 것을 기꺼이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잘못 식별한 결과 거짓을 진리라고 받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원리로 삼으려는게 거짓 예언에 해당되는지 알아채는 일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타애라는 탈을 쓰고 온다해도 그들의 진짜 본성은 잔인함과 파괴력만 들어 있기 때문이다.

16. 이런 질문이 대두될 수 있다. 어떻게 거짓 예언자를 알 수 있을까? 주님께서 답을 주신다.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도덕적 수준의 판단기준이다. 말씀은 또 다른 답을 주고 있다. “율법과 계명에 의거 말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빛이 없다.” 어쨌든 개별적으로 거짓을 가르치는 선생, 진리를 가르친다고 공언하는 위선적인 선생 등등을 각 선생의 바깥쪽 삶만 가지고서 간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넓은 측면의 측정기준으로 확실한 것 하나가 있다. 거짓에 속하는 것들의 자연적 수준의 결과는 악, 자기 속셈 책기이다. 진리의 자연적 수준의 결과는 선함이다. 따라서 의심할 것도 없이 각 선생의 생명되는 것이 가장 큰 식별의 기준이 되어 줄 수 있다. 그 이유가 선생을 포함해서 모든 이는 자기 생명에 든 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응용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개인 차원보다는 각 원리 차원에서 검증해 가는게 더욱 중요한 식별기준이다. 그러면 각자에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사람 속의 원리들이 생산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원리(원인된 것)를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최소한 각자는 자기의 내향의 삶과 더불어 외향의 삶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안쪽 생명 또는 내향의 삶이 본문에서 포도로, 외향의 삶이 무화과로 특별히 꼬집어 의미해 주고 있다. 그 이유가 포도는 내적 인간(속사람)으로부터 진행되어 나오는 이타애의 선을, 무화과는 외적 인간(겉사람)으로부터 진행되는 순종의 선들을 뜻하기 때문이다. 현세에의 욕망(concupiscence)에 근거를 둔 거짓, 이것이 가시와 엉켜있고, 이것이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서는 어떤 진실된 선이 생산될리 만무하다. 외관상으로, 마치 이리가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있듯, 선을 입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선의 실체까지 거기에 존재할 수는 없다. 이런 원리들이 평화라는 내향의 열매나, 이웃을 향한 친절(good will)을 생산할 수 없고 더구나 사리사욕이 없는 선함을 항구적으로 생산할

수는 없으리라.

17, 18. 선한 자의 행동과 악한 자의 행동이 바깥으로는 비슷해 있다 해도 영적 빛으로 두 사람의 속을 비추어 본다면 두 사람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이는 절대적인 진리이다. 열매는 나무에 언제나 부응되어야 한다. 선한 원리가 나쁜 행실을 생산할 수 없고 악한 원리가 좋은 행실을 생산해낼리 만무하다. 선한 사람이 어떤 악을 행할 수 있다. 악한 자도 가끔 선을 베풀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제아무리 선한 사람도 악이나 잘못들에서 완전히 벗어나 살기는 힘들고, 악인이라 해도 선함과 진리가 그 사람 속에 하나도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다. 그러나 마음 안에 있는 원리로서의 선 그 자체라면 그 선은 선만을 생산할 수밖에 없고 악한 원리는 악만을 생산한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생산하는게 자연의 법칙이듯 선한 원리가 선함을 생산하는 것은 마음의 법칙에 해당된다. 이 법칙을 위해 주님께서 이렇게 더 선포하신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악을 도모하는 것과 선을 베푸는 두 가지 행동은 서로 정 반대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가 악은 이웃을 미워함에서 기인되고 선은 이웃을 향한 사랑에 근본을 두기 때문이다.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악은 우리들 이웃에 적이고 선은 우리의 친구인 바 들은 같은 마음 안에서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가능치 않는다. 악이 내적 인간에, 선이 외적 인간 안에 존재할 수 없다. 만일 이런 조건의 인간이 있다면 이는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썩어져가는 뿌리를 지닌 나무 같을 것이다. 그의 열매가 외관으로는 맛있는 듯 보여도 내용물의 경우는 정반대로 판정나게 마련이다. 악으로부터 있게되는 바깥쪽 선행은 이기적 동기로부터인 바 이는 선이 아니고 악이다. 그 이유가 목적이 행위의 품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이 세상의 눈으로 측정할 경우 명백히 판가름내기 어렵겠지만 저 세계에서는 너무나 뚜렷하게 저절로 구분되어진다. 주님께서 영원히 있을 것, 따라서 영적인 것 즉 진리를 말하셨을 때 이 모두는 영의 세계를 위한 진리들이다. 그분의 말씀 안에는 이런 진리가 말씀 자체의 본질로 되어있다.

19.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 사이에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 교훈을 찾아보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즉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썩혀 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 선포는 과거 세례자 요한(요한 3:10)에 의해 이미 선포된 내용이기도 하다. 만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하고 거짓된 원리들이 우리 심정에 뿌리를

내리도록 허용해서 자라 올라 열매를 생산해 버린 나무는 저 세상 삶에서는 바뀔 수 없는 바 반드시 짝혀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악인 그 자신이 바로 이런 나무이다. 각 인간을 좌우하는 것이 각 인간 속의 원리요 이렇게 당사자를 통치하는 원리가 그의 전체 존재이다. 인간이 육체 안에서 행하는 선은 그의 영, 또는 내적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바, 이것이 사후에도 살게 되는 그의 영이다. 악인이 사후 이 세상에서 그의 외적 인간을 구성한 그의 몸을 벗어 던지면, 그의 삶은 그의 악 속에 완전히 빠져들고 거기서만 그의 기쁨은 생산되는 바 그에게 선을 붙들게 해주면 오히려 적으로 간주하고 만다.

20. 이미 언급하신 대목을 들어 이렇게 결론지으시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열매를 안다는 것은 외관만이 아닌 그 열매의 품질까지 안다는 말이다. 열매를 알게 되면 그 나무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결과들을 점검해 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열매를 진실로 알 수 있다면 열매를 생산하는 원리 역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상에 걸친 주님의 훈계는 자기 견해로 형제를 심판하려 드는 경향성, 자기 삶 속의 더러운 것보다 이웃의 눈에 있는 티끌부터 책잡아보는 것을 정정해 주시려는 의도인 바 위 구절의 적절한 응용은 자신과 더불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21, 22. 신성한 연설자는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떠올리게 해서 죄짓고 산다는 문제에 대한 주제에 강력하게 접근되도록 하시고 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결정이라는 순간은 말함과 행동 사이에, 고백과 실제 사이에 놓인 간격을 보여줄 것이다. 주님께서는 고백만을 하며 살아온 이들과 자기 종교를 실제로 살아냈던 이들 사이를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또는 그가 그분의 이름을 외치는데 열성적이었다고 제자라 고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다. 이는 자기 구미에 맞게 자신을 칭찬하는 것으로 밖에 더 생각해볼게 있을까? 이들에게 결핍된 한가지 것은 신실함이다. 그들이 해놓은 위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뿐이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그들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이란 그분이 완전하시듯 그들도 완전해지는 것, 무엇보다 먼저 그분을 사랑하고 제 몸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선한

일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서 위 두 가지 사랑이 명백해져 있어야 한다. 이것 대신 형식을 갖춘 기도나 예배에서 “주여, 주여” 라고 입술로 말하고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고 능숙한 설득력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해낸다고 해서 자기들은 종교의 각종 오류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공언한다면 이는 오히려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던지는 격이 되고 만다. 따라서 그들이 해놓은 이런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도 자기 영혼을 위한 것도 아닌 제 육신과 세상만을 위한 것이다. 이런 품성을 지닌 이들은 구변만 좋은 신앙자이다. 그들은 진리를 내향으로 지각하지 않고 있고, 믿음 역시 내향으로 지닌게 없다. 당연히 진리이든 믿음이든 그것을 사랑함이 없고 단지 신조로 채택하는 바 부나 명예 같은 자기 이익 추구의 증거물 수준에 그치고 만다. 인간 세계에서 가장 추잡한 영혼 상태가 바로 궤변만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나 신조를 앞세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 아무리 선한 자가 나타나도 그것은 다 틀린 것으로 돌려대고 만다. 당파적 열정에 속하는 수많은 일들이 모두 위의 품성에 근원을 두고 있다.

23.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주님 자신으로서 결코 아시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들은 그분의 자녀가 아니다. 따라서 그분은 그들을 모른다. 결코 그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전 생애는 사기극이었다.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라는 말 외에 어떤 다른 말로 그들을 접대할 수 있을까? 그들은 불법을 일구워 왔을 뿐이다. 타인을 향해 행해진 어떤 선한 일일지라도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반사이익만을 위해서였다. 그들의 동기는 이기적이었는 바 악 뿐이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에게서 떠나야 한다는 주님의 표현은 그들의 진짜 상태에 꼭 필요한 결과이다. 그분의 사랑은 그들 안에 있지 않다. 그분과 그들 사이에는 주고받는 사랑(mutual love)이 없다. 그분의 진리가 그들 안에 없다. 따라서 서로간에 공통되는 지식도 없다. 분리됨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악하고 거짓된 것은 진리와 선함 자체이신 그분으로부터 떠나야만 한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현존에서는 제거되고 축출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던져버리는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상태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그들 상태가 제 스스로 밀어내는 것이다. 그들은 제 상태의 중심 즉 악한 나라의 중력에 끌려 밑으로 하강된다. 이는 정의가 요구해서 되어지는게 아니라 저 세상의 경우 자비도 그들의 황폐됨을 막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24.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교회와 나라에 있는 위대한 원리를 선포하신다. 지상의 주님

앞에 있던 군중들, 미래의 인간 세대들, 이 모두들이 정의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느냐
 남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되는 두 가지 정반대되는 모습을 대비시켜 주심으로 산 위에서의
 그분의 장엄한 강연을 마무리 짓고 계신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와 우둔함의 영원한 결과 사이에 놓인 차이는 단 한가지 것,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실행(doeth)이다. 이 단어는 성경의 저명한 부분들을 점유하는 진리에 관한 단어이다.
 더구나 이 단어는 종교 생활의 경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행동하느냐
 또는 행동하지 않느냐는 질서와 무질서, 강건함과 약함, 구원과 정죄, 생명과 죽음에 관한
 질문의 답을 결정짓게 한다. 실행(doing)은 종교의 목적(end)이요 사용(use)이다. 주님이
 말하시는 것을 듣는 것에는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는 목적에 대한
 수단밖에 안되는 바 목적을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들은 것을 실행하는 것이
 지혜이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성경에서 거론되는 지혜롭다와 어리석
 다는 말에는 지적 수준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행위적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올바른 사용이다. 어리석음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지식의 남용이다.
 “내가 한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인 것이다. 지혜의 증거인 슬기로운
 사람이 행한 것을 살펴보자. 그는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세웠다.” 여기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술어는 건축이다. 따라서 지식과 미덕으로 마음속에 건축하는 모습인 실용적
 교육을 표현하기 위해 건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건축이란 말이 성경에
 서 사용된다. 자연계의 건축과 성경의 건축에서 유일한 차이는 건축 재료가 영적인 재료이고
 그 건축물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영원한 건축이라는 점이다. 이 집의 건축 재료는 말씀
 속의 진리들이고 이 진리를 재료와 건축 기술에 해당되는 실용적인 지혜를 사용한다면
 거룩한 주택을 짓게 된다. 이 주택 안에 은총과 진리가 함께 거한다. 그렇다. 그 안에는
 주님 자신이 사랑과 지혜를 수단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바에 의거 그분의 처소를 삼으실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나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거하리라.” 그러나 이 집의 가장 중요한 견고함은 그 집의 기초에 의존된다.
 슬기로운 자는 반석(rock) 위에 집을 세운다. 성경에서의 반석은 진리를 상징하고 주님께서
 는 진리 자체이신 바 반석이라 불리우신다. 특히 말씀을 육으로 만드신 분, 진리를 명백히

드러내 보여 주신 분인 바 영원한 반석(the Rock of Ages)이시다. 이 진리 안에 있는 믿음 또는 믿음이 이 진리를 중심 삼고 있을 경우 슬기로운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말은 베드로의 고백 즉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언약,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일 것이다. 기독인이 이 기초 위에 세우게 될 집이야말로 그분 안에 있는 교회이다.

25.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한다는 위 말씀이 더 특색있게 표현되고 있다. “비가 내려 큰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쳐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는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자가 얻는 가장 큰 이득(advantage)이다. 시험 없이 거듭남은 절대 존재않는다. 시험은 우리가 믿음을 지녔는지를 점검해준다. 시험은 진정한 믿음일 경우 확증을 주고 왜곡된 것은 까벌려 준다. 진정한 믿음은 진리 안에 있어야 할뿐 아니라 성실해야 한다. 진정한 믿음은 그의 애정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속에 있게 되고 왜곡된 믿음은 애정 없이 생각 속에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시험을 견뎌낼 뿐 아니라 시험으로 인해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더욱 확실함을 얻는다. 시험에 굴복되게 하려드는 것이 집을 강타한 폭풍으로 그려지고 있다. 비, 홍수, 바람의 합동작전으로 집을 강타하는 모습은 우리 생명이 시험과 시련에 노출되어 야기되는 위험을 그리고 있는데 이보다 더 멋지게 그려낼 어떤 것도 없을 것이다. 거짓 암시로 야기되는 시험이 비로 그려지고 있다. 땅에 떨어지는 비가 축축이 뿌려 지상의 식물을 잘 자라나게 할 경우 이 비는 진리를 상징한다. 그러나 이 비가 집을 무너뜨릴 정도로 파괴적일 때 이는 진리의 반대인 거짓을 상징한다. 이 본문의 주제는 진정한 믿음의 기초에 관한 것인 바 시험이 오는 것은 진정한 믿음에 반대되는 쪽에서 오고 있고 진리를 무력화시켜 진리에 기초한 믿음을 파괴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어쨌든 비가 적당히 내리기도 하지만 쏟아 부을 경우 홍수도 있게 한다. 본문의 비는 거짓 암시하는 것이 점점 증가해서 급류로 변하는 시험의 종류를 뜻한다. 이에 비해 홍수는 축적된 거짓 암시에서 폭발하듯 일어나는 시험을 뜻한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올 경우 마치 홍수에 우리 몸이 빠져있듯 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온 힘을 무력화되게 한다. 바람이란 생각 안으로 흘러드는 시험의 종류를 뜻한다. 그 이유가 비보다 더 미묘하기 때문이다. 이 바람이 폭풍일 경우 토네이도같이 우리의 지성을 싹 쓸어버린다. 폭풍은 제 앞에 버티고 섰는 모든 것을 뿌리째 뽑아 내동댕이친다. 그러나 반석 위에 뿌리박은

집은 모든 시험에서 견뎌낸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간 마음속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지옥의 큰문이 열려 사방에서 덮쳐도 끄떡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언급되는 시험들은 어둠의 권세로 해서 야기되는 시험들이다. 이 시험들이란 어둠의 권세가 구세주께서 세워놓으신 것을 허물려는 목적 아래 영혼을 파괴하는 수단들이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본문에 실려 있다. 우리의 반석되는 그분 위에 믿음을 세울 경우 어둠의 왕국이 떨치는 어떤 종류의 권세, 가장 심각한 시험까지도 그 믿음을 뒤엎지 못한다.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26. 위 슬기로운 자를 흔들리는 돌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대비시키신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 묘사는 앞의 서술과 간단하게 반대된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집을 짓되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있다.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이는 공중에 궁전을 세우는 것 즉 공상이나 비실용적인 계획에 행복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듣고 실지 그 글자 위에 영원한 행복이라는 희망을 세우는 이들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이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 건축의 모습만 생각해도 단지 말뿐이고 궤변뿐인 믿음의 건조물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가히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이를 상응에 의거 더 의미를 살피면 더욱 교훈적임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바위나 돌이 원리 차원에서의 진리를 의미하는 반면 모래는 단순한 획득물로서의 지식을 의미한다. 모래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뒹굴고 있는 마른 뼈 같은 바위이다. 종교적 사실과 견해가 기억 속에만 놓여 있거나 자연적 수준의 이해성에 머물 경우 이는 떠다니는 모래일 뿐이어서 거기에 합리적인 희망은 절대로 안주할 수 없다. 지성 속에만 있고 심정 속에 없는 믿음은 죽어 있어 시련의 때를 맞으면 아무 쓸모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더 이으시는 말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리라”고 선포하신다. 민노라고 고백만 해대는 자들이 지은 집은 제 아무리 겉이 멀쩡해도 언젠가 황폐 되고 만다.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눈에 칭찬될만한 것, 드높여지겠다고 해서 애써 공사해온 고너만큼 황폐도 비례한다. 대단히 많은 진리를 익히고 고백한 이들에게 닥치는 타락, 진리를 많이 배우지도 알지도 못해서 많은 고백을 할 수 없었던 이들과 크게 비교되고 있다. 따라서 신성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히 짐작되리라 본다. 특히 천국의 원리들, 산 위에서의 설교로 베풀어 알게 하신 원리의 실행은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28, 29.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피상적이고 하찮고 생명도 없는 율법학자의 강연만을 들어왔던 군중들이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말씀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은 지당하고도 남는다. 위 본문은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위 놀램이란 말은 군중이 내향으로 움직이고 영향받았음을 뜻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 바깥쪽에서 있어진게 아니고 인간 존재의 가장 안쪽 깊은 곳을 관통하시었다. 그분은 권위를 지니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다. 권능을 쥐신 분, 권위 자체되시는 분, 이해성을 확신시키고 심정을 움직이는 힘을 지닌 분이라고 말해보는게 더 나을 것이다. 율법이 율법학자들에 의해 단순하게 글자가 가르쳐 졌다고 가상해 보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주님께서는 율법의 영을 보여주시어 율법의 의미를 명확히 해서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따라서 호의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새빛으로 율법을 재조명해서 각자의 양심을 형성하게 하신 것이다. 자기들 전통으로 계명을 쓸모없는 말이 되게 한 것과 달리 그분께서는 율법을 쓸모 있게 보여주셨는 바, 정말 신실하고 진지한 청중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말을 고백않을 수 없으리라. “이 분 같이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8

1. 산 위에서 설교를 마치신 예수께서는 이제 지상에 건설되어야 하는 나라에 관련된 영적 원리들을 자비와 박애의 일로 본을 보이시러 산에서 내려오시고 있다. 산에서 그분이 내려오신다고 해서 완전하신 분이라는 그분의 상태가 덜해짐을 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직 박애라는 행동 안에 그분의 거룩한 원리들을 내려놓으시는 것, 교훈으로 받도록 가르친 사항들에 대한 실예를 보이실 뿐이다. 이런 순서는 각 개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정의에 관한 원리를 먼저 이식하시고 그 다음 거룩한 삶이라는 행동이 있게 하시어 외적 측면의 것이 내적 측면의 형상이 되도록, 각 개인의

안과 밖 모두가 거듭나도록, 그리하여 새사람이 되도록 하신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는 것은 조금도 의아하게 여겨질 수 없을 것이다. 주님 주위에 운집한 군중, 통상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던 보통의 사람들이란 자연적 수준의 정의나 진리를 감지하게 하는 우리 속의 평범한 수준의 애정과 생각들에 대한 모형이다. 권위에 놀리지 않고, 이해 관계로 인한 편견이 없어 종교적 진리가 자체의 빛과 힘을 우리에게 드러낼 때 우리는 그 진리를 볼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던 사람들이 그분의 일을 보고 덜 놀랄 수 없으리라. 주님이 수행하신 일들은 글자대로 박애와 기적의 일들이며 이 일들은 회개하는 영혼에게 영원히 수행된다는 것을 믿고 이런 영적 작용에 대한 자연적 수준의 모형으로서 간주한다면 실지 질병을 치료받는 건강회복, 이런 치유를 보는 것 보다 더욱 깊은 흥미를 기적의 일 속에서 가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2.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그 때에 나병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절했다.” 나병은 유대인들이 겪은 질병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병이었다. 그 당시 시대는 하느님의 표본적인 처방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마음 안에 있는 악들이 그것과 상응하는 질병을 육체에서 생산했다. 주님께만 예배하고 율법을 엄수해야 하는 데서 이탈한 그 당시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한 예식을 즐겨 자신들을 신성모독이라는 행동으로 빠지게 했다. 이것이 그들에게 나병을 자초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병은 모독의 한 종류 즉 거룩한 것에 불순한 것을 섞는 것을 표현한다. 가장 큰 죄는 크게 두 가지 종류 즉 진리를 모독함과 선을 모독함이었다. 신약 성서에서는 이 두 가지 모독이 “사람의 아들”을 모독함과 성령을 모독함으로 표현되고 있다. 말씀의 글자를 뒤집으려하거나 모독할 때 첫 번째 모독의 죄를 짓게 된다. 말씀의 영에 위반될 때 두 번째 모독의 죄를 짓는다. 전자는 치료될 수 있는 나병처럼 용서받을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치료될 수 없는 나병처럼 용서받을 수가 없다. 본문의 나병환자는 가벼운 모독을 범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예수께 간구했다. 영적 측면에서 볼 때 이 간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제거되기를 적극적으로 바란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형태의 모든 기도에는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인정하고 신성한 권능만이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간구는 자아를 제단 앞에 엎드려지게 하고 주님을 드높이신 신성한 의지에 인간 의지를 절대 복종케하는 진정한 참회이자 예배이다. 새 피조물은 인간 의지로부터 태어나는게 아니라 하느님의 의지로부터 태어날 뿐이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께

이렇게 말한다.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성한 도움을 간청하는 자, 그는 주님의 뜻만을 오로지 신뢰하는 바 복된 상태가 아니고 그 무엇이랴!

3. 이 환자의 간구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러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손은 그분의 권능을 상징하는데 특히 신성한 인간을 통해 인간에게 작용되는 그분의 권능을 뜻한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의지는 그분의 사랑이 지혜와 하나된 가운데 존재한다. 주님의 의지와 권능은 언제나 하나이다. 주님이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게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대목이다. 그런데 그분이 뜻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실 수 없을 때가 있다. 모든 인간이 구원되기를 바라는게 그분의 뜻임에도 모든 이가 구원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 이유는 모든 이가 구원되는게 그분의 바램이라 해도 인간 자신이 구원받기를 스스로 동의해야하기 때문이다. 구원을 강요하는데에 그분의 권능은 발휘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강요된 구원은 그분 자신에 상반되기 때문이다. 애당초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부여하였고 이 의지는 인간의 매 순간마다에서도 보존되도록 하셨는 바 어떻게 강요와 자유 의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극도로 나쁜 인간까지 구원하실 수 있지만 당사자가 신성한 질서 즉 그분의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의 법칙에 일치되어야만 구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는 각각의 바램이 무엇이나에 달려있다. 그분의 뜻과 당사자의 뜻이 일치할 때 주님의 손은 그 사람의 영적 불치의 병이 어떤 것이어도 치료해 주실 수 있게 된다. 그분께서 당사자에게 손을 대실 때란 당사자의 영혼 깊은 속에 언제나 계신 그분의 권능이 그 사람의 의식 세계에로 옮겨질 때를 말하고 이때 권능이 그 사람의 생각과 애정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면서 결국 삶이라는 행동에서 결실을 맺는다. 신성한 손을 “대신다”란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분의 인성에 있는 힘이 당사자와 교통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되는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진리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매우 가까이 있게 된다. 주님의 뜻과 권능이 영혼 안에서 하나되어 움직일 경우 행동이라는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손을 내밀어 나병환자를 깨끗이 하신 결과, “대뜸 나병이 깨끗이 나왔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결과가 즉각 있어야 할 필요가 그 당시의 사람에게는 필수 요건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결과되지 않을 경우, 기적이 시작된 처음 부분을 본 사람이 끝을 보지 못한다던가 또는 기적으로 된 치료와 일상적인 치료사이를 식별하지 못했는지 모른다. 어쨌든 치료가 즉각 되었다고 해서 그 기적이 즉각 이루어진 구원을 표현했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시간 차원인 “즉각, 대뜸, instantaneous”은 상태에 관련된 어떤 것을 표현한다. 그 이유가 영혼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즉각적”이라는 성경의 단어를 읽을 경우 그것은 “확실히, certainly”라고 이해해야 한다. 진실로 구원을 바랬다면 그의 간절함이 주님과 협동을 이루게 되어 그의 구원은 확실해진다.

4. 나병환자가 깨끗해지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첫 번째 명령에는 매우 특이한 뭔가가 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명령이 그런 조건도 없이 주어지기도 했다 (마태 9:30, 마가 5:43 참조). 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본문의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1:40)의 경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본문의 나병환자가 “몰려가서 이 일을 널리 선전하여 퍼트렸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곳에 머물러 계셨다.” 이런 글자로부터 알게 되는 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야 그분이 일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 까라는 점이다.

어떻게 기적이 알려진다고 해서 그 결과가 그분을 동네에서 외딴 곳으로 몰아내게 되었을까? 아마 이 결과를 있게 한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적으로 된 치료에 관한 소문은 그분의 반대 자들을 흥분케 하여 그분의 일에 방해가 일어나고 또 많은 군중이 병만을 낫기 위해 몰려들게 뻔한 이치였기 때문일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원인을 추측해보는 것은 매우 단순한 사실이고 두 번째 원인의 경우에 주목해서 살펴야 할 것 같다. 둘째 원인은 아마 첫째 원인과는 오히려 반대적 성격을 띄울지 모른다. 둘째 원인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늘 상기해야 할 것들이기도 한데, 주님께서 자연적 측면의 병자를 치료하신 것이 그분의 공생애에 있어서 첫째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것은 부수적인 일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그분의 첫 목적은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고 둘째가 치료이다. 기적들이 믿음을 갖게 해준게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낳게 한다. 믿음을 있는 자가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온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의 복음이 주님께 의해 선포되기 전에 기적의 일들이 인간에 의해 선포되는 것은 질서에 위반된다. 주님께 앞서 온 사람, 세례자 요한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 이는 가르침이 거듭남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주님께서 깨끗해진 나병환자에게 이르시는 말을 하나씩 이해해보자. “...가서”란 진리에 따라 살으라이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오직 사제에게 보이라란 네 생각을 지상쪽으로 돌리지 말고 오직 네 발이 천국쪽으로만 걸게 해라; 네가 세상에

나가기 전 먼저 성소애로 나아가라; 네 체험을 사람들에게 주기 전 네 심정을 먼저 주님께 바쳐라... 등등이리라. 말하지 말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를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려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그 구절에서 더 살피기로 한다. 이 나병환자에게 주신 둘째 명령을 좀 더 생각해보면 첫 번째 명령을 설명해 주고 있다. “네 자신을 사제에게 보여라”라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예언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지휘하시어 사제되시는 위치의 그분께로 인도하시고 있다. 다시 말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선 자체이신 그분께로 향하게 하시는 것, 또는 인성 측면에서 신성쪽으로 인도해 주신다. 사제되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보인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보이는 것, 또는 선으로부터 오는 그분의 진리를 보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하실 때, 사랑을 수단으로 우리는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제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는 것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하느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죄라는 재앙이 더 이상 우리에게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여 주실 경우 사제되신 그분께서 우리 자신을 보고 깨끗하다고 선포하는 순간이다. 우리의 양심이 죽은 수준의 일들에서 순수해질 때 우리는 모세가 명한 대로의 예물을 깨끗해진 증거로서 바칠 수 있다. 레위기에서 명령되고 있는 예물이나 제물은 체험된 구원과 그분으로부터 입은 자비가 너무 고마워서 하느님께 바치는 순수해진 생각과 애정들에 대한 모형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과 애정은 그것을 주신 분을 섬기는데 헌납함으로 예배자를 성별되게 한다. 깨끗해진 나병환자의 제물은 흠없는 어린양과 고운 밀가루, 그리고 기름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제물은 순진과 이타애, 그리고 사랑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 자기 죄를 의식함으로 흠이 없게된 순진, 시기하지 않는 이타애, 모르는 체 하지 않는 사랑을 상징한다. 이런 것들은 모든 선의 저자되시는 주님께 깨끗해진 영혼의 증거로서 바치는 예물이요 그 결과 최고의 선되시는 그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결합한다.

5, 6.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을 치료하시게 된다. “예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인대장이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정하였다.” 하인이란 마음의 외적 또는 자연적 수준의 부분을 뜻한다. 그 이유는 외적 부분은 주체되는 내적 부분을 섬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하인이라는 단어는 노예수준의 하인은 아닐 거라 생각된

다. 누가복음 7장 2절을 보면 이 하인은 “주인이 대단히 아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다. 중풍병이란 의지는 하고 싶은데 해낼 힘이 없는 상태를 표현한다. 행할 의지는 선으로부터 존재하지만 행동력은 선에는 없고 오로지 진리로서만 가능하다. 진리는 마치 근육이 육체 속에 들어 있듯이 마음 안에 존재한다. 우리가 뜻할 때 근육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꼼짝 못하듯 선은 진리가 보조를 맞추어 주지 않으면 영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중풍병이란 진리가 어떤 반대되는 영향으로 인해 선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한 상징물이다. 다시 말해 내적 측면이 행동하려는 것을 외적 측면이 따라서 행동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태가 사도들에 의해 이렇게 묘사되어있다.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서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로마 7:18). 이런 마음의 상황이 “몹시 괴로워하는” 상태이다. 선을 행하려고 하되 하지 못한다는 고뇌보다 오히려 악이 자기 속에 현존함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고뇌가 클 수밖에 없다. 사도들이 외친 절규의 상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로마서 7:24).

7. 본문이 표현하는 상태와 사도들이 기술했던 상태가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당시 거기 이스라엘에는 무슨 질병이든 낫게 해주는 의사가 계셨기 때문이다. 사도들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을 자신들의 연약하고 천박할 뿐인 상황에서 방향을 틀어 강력하고 복되시는 분, 도움을 주시는 분께로 갔다. 이렇게 사도의 고백은 즉각 이어지고 있다. “고맙게도 하느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7:25). 백인대장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기에 어디서 도움을 얻어야 하는지 이미 배운바 있었다. 그는 이 도움이 있는 곳을 찾았다. 그의 간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이루어졌다. 하인이 병들어 누어있다는 몇 마디에 주님이 이렇게 답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분은 유입(influx)과 계시(revelation, 밝히 알게 함)를 수단으로 오시고 개혁과 거듭남을 수단으로 치료하신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진리에 관한 지식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진리에 순종함을 수단으로 해결해 주신다.

8. “백인 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감지했다는 것은 곧바로 가치있는 인간이라는 표시가 된다. 이 표시는 주님으로부터 존재하는 것과 인간 자아로부터

존재하게된 것을 구별하는 첫 번째 결과에 해당된다. 따라서 두 근원을 더 확실하게 구분하면 할수록 위 표시의 강도는 더 세진다. 이것은 진정한 겸손의 기본 골격이기도 하다. 높은 수준의 천사는 가장 겸손하다. 제 자아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깊이 느끼는 만큼 드높은 가운데 존재한다. 자아에서 떨어져 나가는 만큼 주님에게 더 가까이 있게된다.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참된 겸손은 악을 감지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감지하는 것에서만 있는게 아니다. 이 겸손은 주님이 심오하고도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현존하기를 갈망하기에 앞서 얼마나 주님의 소유들을 무시했던가에 대한 죄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때만이 가능하다. 제 눈앞에 드러나 확인된 주님의 명백한 권능에 하잘 것 없는 자신의 하찮은 수고가 비쳐지자 시몬 베드로는 그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외쳤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누가 5:8). 자신을 낮추어 친절을 베푸시는 주님을 본 백인대장은 자기 집안에 그분을 영접하기에는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선언하고 있다. 주님의 선함에 대한 깊이 있는 느낌을 갖게된 사람은 그 느낌에 자신의 무가치한 정도가 얼마나 깊은지도 동시에 갖게 된다.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어두운 것만 지니고 있고, 너무나 불순한 뿐인 자기 지붕아래에 질서 자체시오 빛 자체시며 순수함 그 자체되시는 분을 손님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너무 과분하다는 것을 백인대장은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납니다.” 그분의 현존하심과 권능을 정면에서 받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면 그분께서는 간접적인 그분의 현존과 작용이 있게 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고 그 말씀의 효능을 통해 온갖 질병과 아픔을 치료해 가신다.

9. 백인대장의 겸허와 믿음은 신앙의 품질을 이렇게 더 높여주는 고백이 있게 한다.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백인대장은 합리적 인간 또는 합리적 자질을 표현하고 백 명의 부하는 합리적 진리들, 진리가 적절한 위치에서 질서 있게 배열된 상태, 즉 마음을 총괄하는 원리에 종속된 상태의 진리를 표현한다. 이 부하는 군인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싸우는 진리를 표현해서 타인 안에 있는 잘못에 대항하는 자연적 수준의 합리적 인간,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내재한 의심과 불신앙과 싸우는 진리까지 표현한다. 의지에서, 이해성에서, 그리고 생활에서 태어나는 마음속의 모든 원리가 종속되는 것이 “이 사람더러 가라 하고... 저 사람더러 오라하고... 하인에게

가라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마음이 지닌 힘과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주님께 복종시킬 때 믿음은 분명해진다.

10. 백인대장이 제 신앙의 상태를 고백하고 간절히 청원을 했을 때, “예수께서는 감탄하시며 따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갑작스런 백인대장의 겸손함에 주님께서 짐짓 놀래어 하신 말이라고 상상해서는 안된다. 주님은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다. 백인대장이 말을 꺼내기 전에 그가 무슨 고백을 할지 미리 알고 계셨다. 단지 이 표현은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하찮은 일 가지고도 크게 칭찬해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표현 속에도 속뜻이 담겨있다. 주님의 영적 진리와 이 높은 진리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 안에 있는 합리적 진리와의 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발견 못했다고 주님을 따라 온 이들에게 말하신 것은 글자적 수준에서라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서 발견되는 이런 믿음을 얼마나 더 받으려하고 신뢰해야 하는지와 유대인들이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얼마나 더 많이 열어 창백해진 그들의 교회를 넘어서야 하는지까지 표현해 주신 것이리라.

11, 12.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을 훨씬 더 능가하는 믿음을 이 백인대장에게서 발견했다고 말하신 주님께서서는 이 말을 더 첨가하시고 있다. “잘 들어라. 많은 사람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겠으나 이 나라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이 구절은 그 시대, 그 백성에 한해서만 적용되는게 아님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위 두 인간의 대비는 진리 없이 선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선함 없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대비시켜 가르치시는 말씀이다. 전자는 말씀에서 “이방인”이라고 영적인 표현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교회 안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발견될는지 모른다. 후자는 자기들이 소유한 지식에 신뢰를 두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영적 이방인에 관해, “그들은 동에서 서까지, 사방에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동쪽과 서쪽은 선함 측면의 상태를, 남쪽과 북쪽은 내면의 선을, 생활로 마무리 되는게 선인 바 서쪽은 외면의 선이다. 그러므로 동쪽과 서쪽은 내부와 외부에 있는 선에 관한 모든 상태를 표현한다. 그러나 이런 선한 상태는 자연적 수준에서의 선한 상태이고 그 안에 모든 진지한 선이 그러하듯 진리를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바램을 지니고 있다. 진리를 받을 경우 영적 수준의 선함으로 향상된다. 이 진리가

본문에서 “나라”로 의미되고 있다. 그 이유가 나라는 법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바 이런 법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이 거론하는 나라는 하늘 나라인 바 이 나라의 법 내지 진리는 천국적인 진리 내지 영적인 진리들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하늘나라로 들어온다는 것은 자연적 수준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이 영적 진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다. 사실 이 말은 천국 자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과 같다. 선함을 원리로 삼고 있되 진리 없이 살다가 죽은 이들은 사후 진리를 받아 천국에 입장한다. 그들의 선이 진리를 받아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이유가 천국은 선과 진리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하나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진정한 교인일 경우 그는 지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늘 나라가 바로 가까이 있다 (at hand, 손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마태 10:7). 선한 모든 이, 그들이 진리를 받게 될 때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간 모든 이는 하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사방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더불어 자리에 앉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이는 선한 사람이 도달 가능한 완전함에는 세 가지 즉 천적, 영적, 자연적 수준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세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로 형성되는 바 세 천국이 있다. 주님께서 신성한 인성으로 천사와 인간과 함께 하실 때 주님 자신을 표현하는 상태가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으로 의미되고 있다. 세 주님의 수준 중 각기 받은 상태에 따라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앉는 것이 위 세 열조들과 함께 앉는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미 살핀 바 있듯이 앉는다는 것은 확증된 삶, 영원히 있게될 삶을 표현한다. 그래서 앉는 것은 평화와 고요함을 생각나게 한다. 비록 진리에 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해도 선해지기를 꾸준히 힘모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게 위와 같은 것들이다.

“이 나라 백성”이란 교회 안에서 태어나 잘 훈육되었지만 그 진리의 빛에 반대하여 죄지는 이들을 뜻한다.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다. 진리는 빛과 상응되고 어둠은 거짓과 상응된다. 궁극적으로 악에로 진입하는 거짓의 수준은 진리에 거슬러 죄지는 수준에 비례된다. 바깥 어두운 곳이란 가장 밝은 진리의 빛에 반대되는 거짓의 수준에 대한 표현이다. 따라서 그곳으로 던져지는 사람들이란 자기들 마음에 있는 진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이들과 동등한 자들, 자신을 악에 근거한 거짓들로 확실히 해둔 이들이다.

그곳에서 “이를 갈며 통곡함”이란 그들이 참아 내어야 할 비참함을 말한다. 더 설명한다면 이 모습은 그들의 생각과 애정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통곡함”이란 심정을 진정으로 만족시켜줌이 결여된 상태를, “이를 갈”이란 감각적 수준의 추론이나 논쟁을 말하는데 이를 수단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악 속에 있음을 스스로 확증한다는 것을 표현해준다.

13. 주님께서는 그분을 따라 온 무리에게 위와 같이 결론 맺으신 뒤 백인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 보아라. 네가 믿는대로 될 것이다.” “가 보아라,” 이 명령은 자주 반복된 주님의 명령인데 이는 주님께서 방향지어 준대로 살으라는 훈령이요 그분의 진리를 받아 적은 그대로 우리 삶을 질서 있게 하라는 권고이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은 실용성을 갖추어 생활이든 대화이든 그분의 본보기화가 있게 된다. 이렇게 믿은 그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진다. 구원이 선함 안에 존재하지만 구원은 오로지 진리를 통해서만 와진다. 구원이 사랑 안에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와질 뿐이다. 그렇다고 믿음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게 아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되 사랑과 결합된 상태의 믿음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사실 믿음만 떼어내면 죽은 것인데 그 이유는 사랑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생명임을 잊어서는 안되리라. 믿음은 매개체여서 이를 매체로 주님의 권능은 작동된다. 진리는 힘이어서 이를 수단으로 주님은 일하신다. 믿음의 대상(object)은 진리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받는데, 본문같이 주님이 기적으로 치료하시게 하는 데에 공통되는 조건이다. 구세주로 주님을 어떻게, 얼마나 믿느냐에 의거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의 효능은 달라진다. 백인대장이 지닌 믿음은 주님이 그의 집까지 당도하시지 않고서도 하인을 낮게 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the self-same hour)에 그 하인의 병이 나왔다.” 시간은 상태를 표현한다. 이는 백인대장의 믿음에 관한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믿음은 영원한 행복을 확실히 붙들고 있다.

14, 15. 세 번째 기적적인 치료가 있어진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 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마침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었다.” 가파르나움 성내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교리측면에서 주님이 인간과 함께 하심을 표현한다. 성(city)은 교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집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더 향상된 상태 즉 믿음의 선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이 인간과 함께 하심을 표현한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믿음을, 집은 선을, 베드로의 아내는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마음이 거주하는 곳이 선함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믿음을 표현하는 반면 그의 아내는 믿음에 관한 애정(사모하는 마음) 즉 이타에 또는

이웃간의 사랑(neighbourly love)을 의미한다.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란 주님 사랑에 이끌리는 마음(the affection of love to the Lord)을 표현한다. 그 이유가 이웃사랑의 부모격이 주님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다. 열병(fever)이란 악으로 불타는 욕망을 표현한다. 자아사랑이라는 악은 주님 사랑에 정반대되는 사랑이다. 주님을 사랑해서 있어지는 선함에 반대하여 마음 안에서 자아사랑이 일어서게 될 때 마치 열병으로 몸이 끓는 상태와 같다. 이 구절에서 묘사된 상태는 자아사랑이라는 악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의 것은 아니고 악령이 마음을 휘젓어 유전적으로 있는 자아사랑의 한 종류가 흥분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악령이 휘젓음으로 야기되는 시험의 상태이다. “누워있다”와 “않고있다”는 두 표현은 의지와 이해성의 양 측면에서 휘젓어진 시험의 상태, 즉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시험의 수준을 암시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의 손을 잡으시자 열이 내렸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이런 방법으로 악한 사랑의 영향으로부터 구원이 결과된다는 것, 그리하여 주님 사랑이 회복되어 심정 최고 자리에 그 사랑이 건설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구원이 결과되는가 까지 알게 하시고 있다. 손이란 힘을 상징하는 신체부위이다. 즉 신체부위 중 손을 수단으로 육체의 힘이 과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추상적 의미에서 손은 자연적 수준의 원리를 뜻하는데 그 이유는 영적 수준의 원리를 행동에 나타내주는게 자연적 수준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손을 대심은 그분의 권능이 자연적 원리 안으로 흘러들어 질서를 회복시켜 영적 원리들이 자연적 원리를 질서 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하시는데에 대한 상징적 모습이다. 자연적 수준의 마음은 악이 자리잡는 곳이다. 그 안에 체재하는 악이 활성화 될 때 자연적 마음은 영적 마음에 반발하여 행동하여 영적 무질서와 질병을 초래하게 하는데 본문의 경우 열병으로 그려지고 있다. 예수께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자 열병은 그녀를 떠나갔다. 백인대장의 하인을 즉각 낮게 한 기적에 곧바로 이어지게 된 열병의 즉각적인 치료 역시 우리가 주님의 권능에 애타게 호소하거나 그 권능을 받을 때 영혼의 질서가 확실히 회복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고자 의도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치료가 완전했다는 것은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시중들었다”는 구절로 알 수 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주님 사랑에 반대만 하던 욕망이 제거될 때 억눌리고 괴로워하던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우리의 애정은 이제 심정 더 높은 위치에 군림해서 더욱 주님 사랑을 잘 할 수 있어 인간 사이에 있게 되는 자비와 이타애, 동정의 일까지 더 충실히 할 수

있게 된다.

16. 기적을 베푸신 후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마귀들린 사람을 많이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악령을 쫓아내시고 다른 병자들도 모두 고쳐주셨다.” 악령들리는 상태는 주님께서 육으로 계실 당시 왕성했었는데 그 이유는 어둠의 권세가 극에 달한 결과였고, 그 결과 악령들은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좌지우지했었다. 이런 인류의 위기적인 정신상태 때에 육을 입으시어 그분의 인성이 악령의 모든 공격을 받아 극복해서 지옥을 정복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어느 육체도 구원되지 못했을 것이다. 악령을 쫓아내심은 인류 구속의 역사를 우리로 짐작하게 해주시는 모습이다. 외면적으로 악귀에 떨고 있는 인간을 구해주심은 내면적으로 있는 악령으로부터 구해주심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 이유가 악령은 불순한 우리의 애정 안에 아직도 체류하고 있고 그 당시 인간 육체를 소유했던 만큼이나 지금도 영혼을 소유하려 들기 때문이다. 마귀들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많은 사람들이란 자연적 수준의 마음 또는 외적 인간이 지닌 무수한 지각과 애정을 말한다. 주님께서 우리 본성 그대로 직시할 수 있게 해주시어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해주실 때 우리는 각자 지닌 고통과 슬픔들을 가진 채, 그리고 그런 잘못들을 그분이 제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을 지니고 그분에게 가까이 오게 된다. 그분께서는 “말씀 한 마디로 악령을 쫓아내시고 다른 병자들도 모두 고쳐 주셨다.” 어떻게 그분께서는 말씀 한 마디로 악령의 거주지인 우리 마음 안에 든 악을 쫓아내실까? 이는 그분의 말씀 즉 신성한 진리가 우리에게 의해 받아들여 사랑받고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가능하다.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과 애정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와 적극적인 협동이 없다면 그분의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없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행동하는 일꾼이라는 조건 안에서 주님은 우리 심정으로부터 악령을 효과있게 몰아내시고 우리 이해성에 있는 온갖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이런 기적들은 저녁때가 되었을 때 있었다. 저녁때란 마음이 희미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는 때 인바 거듭나는 마음의 전체 상태의 완성 역시 의미한다.

17. 이런 마지막 기적들이 수행된 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그분은 몸소 우리의 허약함을 말아 주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셨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중요한 예언이 지금까지 해석되어온 바, 예수는 우리의 보증인 내지 대리인이 되시어 행동적 수준에서의 우리의 결핍을 입으셨고 죄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우리의 처벌로 고통받으셨다는 것이다. 복음서

기자들이 위 예언에 관해 주고 있는 실용적인 설명에서는 위 같은 해석은 표현되거나 언급조차하고 있지를 않다. 이사가가 전달하는 위대한 진리 또 하나를 읽어보자. “...주님께서는 그분 위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놓으셨다” (이사야 53:6). 그러나 우리의 죄악들에 그분이 어떻게 동의하셨을까? 하느님께서 우리 죄악을 그분의 탓으로 돌려 우리 대신 그분을 처벌하셨다는 것은 확실히 아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자신 스스로 타락한 우리 본성을 입으심으로, 아예 유전적인 모든 악까지, 또는 유전적인 악으로 야기된 행동적 결합내지 질병까지 입으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악들을 입으심으로, 그분께서는 인간 시험에서 공통되는 바탕을 그분의 인성이 입으심으로 해서 인간의 모든 시험을 극복해 갈 기회를 만드시어 어둠의 권세를 종속시킴과 동시에 그분의 인성을 거룩해지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서 주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원조하실 수 있으시어 거듭남이라는 결과가 있어지게 하시었다. 마음속에 있는 악령, 타인 속의 악령을 몰아 낸다는 것은 그분 스스로 인간성으로 입으신 악들의 공격을 정복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의 경우 같은 복음서 사건은 주님의 인성이 거룩해지시는 과정의 결과에 대한 한 가지 예증이요, 그분께서 우리의 허약함을 입으신 결과의 예증이기도 하다.

18. “예수께서는 돌려 서 있는 균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다.” 이 명령이 암시하는 바, 주님께서는 인간 마음의 또 다른 영역 쪽으로 더 넓혀 그분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진행시키신다는 것이다. 이 영역이란 아마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영역일 것으로 생각된다. 갈릴래아 바다 저 쪽은 “요르단 저편” 즉 불레셋 지역이기 때문이다. 근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2 1/2지파가 요르단강 저편 지역을 상속받았다. 가나안 땅이 분할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한다면 가나안 지역은 내적 인간을, 요르단 건너 지역은 외적 인간을 표현한다.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는 지파들은 내적 인간 안에 내재하는 영적 수준의 원리들을, 요르단 건너지역은 외적 인간 안에 체류하는 자연적 수준의 원리들을 표현한다. 그 반면 므나세 지파의 경우 반쪽은 가나안에, 반쪽은 요르단 저편지역에 거주했는 바 이들은 가나안과 요르단 저편이 하나되게 하는 원리 즉 선택의 원리를 표현한다. 따라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은 구원하시는 그분의 진리의 힘이 내적 측면에서 외적 측면에까지 진행되기를 바래신다는 것,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의 효력이 최말단에까지 미치기를 바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19, 20. 그분의 바램은 두 가지 즉 검사(test)와 심리(trial)라는 방법에서 작동된다. 먼저 마음 안에 있는 애정 중 어떤 애정이 기독교인의 삶에서 자기를 부정해 보려는 노력을 통해 주님을 지지해서 따르려고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분의 가르침에 일깨움을 받고 그분의 일로 힘을 얻는게 어떤 애정과 생각들인지 결정을 하는 것,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은 내버려두고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진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런 고상한 고백을 하고 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중대한 의무를 떠맡는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체험의 종류를 털어놓으시고 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 당시 그분의 자연적 조건이 이러했다는 것은 진실이다. 거둢남에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이런 조건을 영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도 진실이다. 타락되는 상태에 있을 경우의 인간의 자연적 수준의 마음은 들짐승이 들어앉는 굴이요 부정한 새를 담은 새장과 같다. 자연적 마음에 있는 애정과 생각은 오로지 악할 뿐이고 계속적으로도 악하다. 그곳은 본시 악이 있는 곳이어서 누구도 그것을 도와줄 수 없는 바 통곡해야 하는 것이면서도 모든 심정과 지성은 많은 적든 그것을 은근히 혐오한다. 본문은 여우에게 굴이 있고 공중의 새에게 둥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굴과 둥지는 짐승과 새에게 안전을 주는 곳이요 그들이 번식하는 곳이다. 여우란 악한 애정을, 새는 악한 생각의 모형을 그리고 있다. 이런 것, 악한 애정과 생각을 은근히 좋아하게 되면 선한 애정과 올바른 생각은 은근히 밀려난다. 다시 말해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이 없다는 말이다. 주님의 거룩한 머리는 모든 심정을 베개삼으셔야 한다. 그분의 진리는 최상의 우리 애정 안에 거할 장소를 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위와 같이 주님께서 선포하실 수밖에 없게 된 세상의 상태 때문에 통곡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에 공감을 지녀야 한다. 자기 속을 들여다보자.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통곡해야 하는 세상 상태와 비슷한 우리 속의 상태를 치료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픈 것들에 갇아내서 실용적으로 쓸모있는 것에 공감되어야 하리라.

위 선포는 제자가 될 소지가 있는 사람에게 그의 신실함에 대한 테스트로서, 다시 말해 고난밖에는 기약되는게 없는데 스승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였다. 비록 위 테스트가 자연적 수준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영적 수준에서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그 이유가 제자는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이든”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21, 22. 그분을 따르겠다는 첫 번째 사람에 이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 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은 글자에 놓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글자 속에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감지하게 하는 성서의 여러 문단 중 하나에 속한다. 깊은 의미를 감지하는데는 제자의 요청 질문보다는 그에 대한 주님의 답변으로부터 가능하다. 그 이유는 제자가 바랜 내용은 특이한 것도, 비합리적인 어떤 것도 느끼게 해주질 않기 때문이다. 위 견해에 반대하는 어떤 학자의 경우 주님의 답변보다는 제자의 요청이 더 자비롭다고 추측한다. 한가지 다시 상기해 두고 시작해야 하는게 있다. 육체와 이 세계가 아닌 영혼과 저 세계가 주님의 생각 속에 언제나 있고 어느 경우에서나 이는 주님의 강연 주제가 되어 있는 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있는 일시적인 사건들은 영적 진리에 상응되어 움직이는 물체내지 그분의 형상일 뿐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 안에서 육체는 영혼의 형상이고 자연적인 것들은 영적인 죽음 내지 매장에 관한 형상이다. 영적 의미의 아버지를 인간의 자연적 수준의 상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는 자아사랑의 원리를 뜻하는 바 이 원리는 갱신되지 않은 본성 속에 든 애정들의 근원이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우리로 떠나야 하고 미워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아버지이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속에서 죽게 될 때 그것을 묻는 것,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바람이 왜 나쁘다고 본문이 말할까? 그 이유중 한가지란 매장은 부활 또는 새 삶으로 다시 일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제자의 요구는 지금 제 속에서 죽어 있는 자아사랑의 원리를 거절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되살아나기를 우물쭈물 바라고 있는 상태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장례를 치르러 “간다”는 행동은 영적 차원에서는 살아있음에서 죽어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을 뜻한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묻게 하라”는 간단한 이 말씀은 매우 교훈적이다. 물론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느 구절도 엄숙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거듭나아가는 작업 속에서 악령들은 악을 제거하는 도구로 만들어진다. 악령들은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악을 흥분시킨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이 인간에 의해 저항받게 될 때 시험이 극복되는데 이 때 우리 속의 악은 그 악을 흥분시킨 악령과 더불어 제거되어진다. 정녕 그렇다. 악령과 악 모두는 제 스스로 제거되고 끝장을 본다.

어둠의 악령은 우리 심정 속에 있는 악과 성질이 같아 서로 합세하려는 작용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악이 제 스스로 가도록 우리가 내버려두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것들이 떠나면 자기들 숙소인 어둠으로 간다. 이른바 죽은 자를 묻는 죽은 자가 된다는 말이다. “나를 따르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매장하게 하라”는 말씀을 되풀이 해본다면 생명되시는 그분과 더불어 내향으로 함께 걷는 것, 그리고 죽은 원리나 행동쪽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 이 원리들이 제 근원지인 어둠의 영역에 되돌아가게 내버려두라는 것, 이것들이 제자된 도리,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가르치시고 있다.

23-26. 위와 같은 제자의 도리, 거듭남이라는 내향의 여정에는 과거에 있었던 구태의연한 상태들에 얽매어 세월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시련(trial)이 도사리고 있다. 이제 살피게 되는 구절들이 이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따라 올랐다.” 배란 선함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지식은 그 자체만을 볼 때 진리가 아니고 선함은 더욱 아니고 단지 진리를 담는 그릇이어서 진리들을 마음의 이해성 그리고 의지에 운반해 줄뿐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배에 오르심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배에 타는 것이란 말씀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파생된 우리의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안에 들어가 현존하심을 표현하고 있다. 주님과 그의 제자들을 태운 배가 떠 있는 바다는 과거 이스라엘들이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통로로서 요르단강이 넓혀져 바다같이 된 큰 호수여서 이런 배경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 측면에 관련해 보면 요르단강 내지 바다는 자연적 마음, 더 엄격하게 의미를 생각하면 자연적 수준의 합리성 즉 마음의 영적 수준과 자연적 수준 사이의 중간에 해당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마치 요르단강과 바다가 동쪽 지역과 가나안 사이에 위치한 것과 같다. 이 수준에서 제자들은 시험의 상징물인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 “그 때 마침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났다.” 폭풍 같은 바람에 의해 야기되는 거센 풍랑이란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우리의 자연적 마음 안에 유입되어 야기된 악한 열정의 폭동에 대한 모형이다. 이러한 동요와 경보종이 울리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이는 폭동이 격노하는데도 한편으로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휴식의 상태 안에 있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 시험이 바깥쪽으로는 환난이 겹치는데도 내향으로는 평화가 있는 우리의 상태에 대한 그림이기도 하다. 그 이유가 주님은 평화와 안전의 주인되시는 분으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내향의 은밀한 평화를 의식 못할 경우가 허다하다. 흔히 우리에게 고난이 들이닥치면 그것에 우리의 관심은

은통 집중되어 바깥쪽 사건에 폭잡김으로서 상대적으로 내향의 원리는 깊이 잠들어 마치 우리 속에 존재하지도 않는 듯 여긴다. 깨어있음이 영적 상태임에 비교하면 마음의 자연적 상태는 잠들어 있음에 해당된다. 이런 상태의 경우는 시련에 더욱 심하게 휘말릴 경우이고 영적 상태가 자연적 상태보다 덜 적극적일 때만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의 시련들은 위험에 대한 각성,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도록 인도해 주기 위해 허용되어진다. 그리하여 인간 심정 속의 성난 열정을 풀어 엮드리게 해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분은 주님뿐임을 감지해서 그분께 구조를 청하러 달려가게 한다. 이리하여 우리들 속에 있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는 일깨워지고 우리의 부주의함과 욕욕은 깊은 잠으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주님을 깨운 제자들은 이렇게 외쳤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자신임을 느껴 구세주의 도움을 진실로 원할 때 이것은 우리 안에 구세주가 계시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우리도 본문의 제자들 같이 부르짖는다. 위험한 시기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의식 세계를 흔들며 깨워 내재하는 생명이 활동하게 해서 그분의 사랑의 집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 심정에 전달한다. 이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에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평상시에 우리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해 두드러질 만큼의 사랑에 관한 분위기를 갖지 못하지만 만일 그 사랑을 잃을 것 같은 환경이 예상되면 상황이 갑자기 달라진다. 급기야 매우 깊은 고독함이라는 정서는 사랑에 대한 느낌을 몇 배 더 강하게 느끼게 해준다. 더불어 더욱 강하게 그 사랑을 흠모하게 하고 소중히 여기게 해준다. 어쨌든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의 부족에 근원을 두고 있다. 우리가 갖는 모든 시험은 우리의 원리가 얼마나 빈약한지, 얼마나 허술한지를 암시한다. 따라서 시련은 우리를 강건해지게 만든다. 시험은 우리의 신념이 빛을 잃어 어둡게 된 것, 우리의 사랑이 죽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우리 속에서 자연적 원리가 영적 원리보다 우세해진 것이다. 두려움은 의심의 생산물, 주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완전한 신뢰의 결핍인 것이다.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하고 덜덜 떠는 모든 심정에 구세주께서는 묻고 계신다. 시련 속에서 “주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확신있게 말하고 있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라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 위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주님께서는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더 물으시어 대답까지 한꺼번에 해주신 셈이다. “심한 풍랑”이 주는 위험은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해주면서 움직여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리하여 예수께 자기들의 부족한 믿음이 생산한 폭풍을 가라앉혀 주시기를

간청했다. “예수께서 일어나시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사납게 날뛰는 원인들에 평화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장엄한 모습이다. 그 결과 “사방이 아주 고요해졌다.” 기적의 서술이 매우 짧은 관계로 훌쩍 뛰어 넘듯 읽어서는 안되리라. 그 이유가 초능력의 놀랄만한 자연의 증거는 우리 영혼에서 언제라도 누구에게나 가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적 곤경이라는 바다 위에서 전복되려하는 영혼 위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악이 휘몰아가려는 태풍은 고요해지고 만다. 풍량이 잠잠해진 것은 주님이 일어나신 결과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에서 그분이 일어나셔서 수준 낮은 생각과 애정들이 주님께 관한 생각과 애정에 복종되었기 때문이다. 이리므로 해서 영혼에는 영적 휴식이라는 고요함이 있게 된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결과를 “아주 고요했다, great calm” 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주, great” 이라는 단어는 사랑과 선함의 상태를 서술할 때 사용되고 이로부터서만 진정한 평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7. 주님께서 심한 풍량을 진압하셨을 때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래져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독실한 신앙인이라면 주님께서 역경과 곤경으로부터 영적 구원을 받았다 해도 “눈이 휘둥그래져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라는 의문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신성한 인간이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간 측면 역시 신성해야 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인간이 신성해 있는 방법 외에 신성함을 소유할 방도는 없다. 우리가 체험하는 구원해주시는 그분의 자비와 권능의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은 우리로 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준다. 그 이유는 그분의 인간성은 고난을 통해 신성이 되셨기 때문이요 이를 통해 우리 인간들의 고난이나 환난 안으로 진입하실 수 있고, 그분의 권능의 팔을 뻗치실 수 있어 우리를 고난 밖으로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이다. 신성한 인간 측면을 수단으로 주님께서 어둠의 왕국을 통치하시고 가장 큰 시험이 우리 마음을 덮쳐도 진정시킬 수 있으시다. 마치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케 하신 것과 같다. 마음속의 애정과 생각들, 비록 악령의 영향으로 뒤흔들고 설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해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그분의 권능 아래 완전히 종속되어 잠잠해진다.

28-34.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마귀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이 구절은 역사적 의미 측면에서는 몇 마디의 말로 끝낼 수 있겠지만 이 구절에는 자연계와 영계의 연결에 대한 본성을 밝혀주고 있는

바 마귀들린 사람에 관한 기사치고는 매우 비상한 경우에 해당된다. 영혼과 육체의 관계만큼이나 영계와 자연계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영계의 거주민과 인간과의 통상적인 연결은 두 세계가 제 아무리 밀접하다 해도 느낄 수 없게 되어있다. 인간의 두 부분인 영적 차원과 물질 차원 같이 두 세계는 공통된 어떤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오로지 상응을 수단으로 하나되고 있다. 이런 하나됨, 제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하나됨을 인간이 느낄 수 없고 영들의 경우도 느낄 수 없다. 신약 성서에서 언급되는 마귀들린 사람의 특이한 상황이란 영적 교통의 위와 같은 일반 원칙이 무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영들이 인간 마음의 애정 안으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인간의 육체기관 내지 감각기관 속까지 진입해 있다. 이런 상황은 세상에 악이 멀리 퍼져 확실히 우세했을 때, 다시 말해 인간이 타락되어 급기야 총체적으로 감각적인 인간뿐일 경우 사악하고 감각적인 영들이 인간 본성의 최 말단 안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모습이 본문에 기록된 경우임은 확실하다. 본문의 두 사람은 악령의 영향으로 제 뜻대로 말하지 못했고 다만 악령이 이 사람의 입을 도구로 삼아 말을 했다. 이는 악령이 이 사람들의 육체기관까지 점유해서 자기들이 좋을 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이 단단이 보여주는 또 하나가 있다. 영들은 인간 존재뿐 아니라 하급의 창조물도 점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 뿐 아니라 동물들도 영계와 연결된 덕택에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가 비록 불멸하지는 않지만 짐승의 혼(soul)도 영적이기 때문이고, 그들도 인간 같이 통상적으로, 때로 특이하게 영계로부터, 또는 신성 내지 생명의 유일한 원천으로부터 유입되는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과 인간의 동물적인 본성측면은 통상적인 법칙 밑에서는 영계로부터 유입되는 것도 보통의 방법으로 규율되어진다. 예를 들면 온순하고 깨끗한 동물들은 마치 거둬나고 있는 인간처럼 천국을 통해 생명을 받는다. 한편 사납고 불결한 동물들은 사악한 인간처럼 지옥을 통해 생명을 받는다. 본문의 경우 돼지떼는 특이한 영적 유입의 대상이 되었고 악마는 돼지 속에 들어가 돼지의 의지를 비자발적 도구로 사용하도록 허락되고 있다.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악령들은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요 구속자가 되심을 알았고 인정했다는 것, 그 당시 제자조차도 그분의 진정한 품성, 즉 육을 입으신 그분의 목적에 대해 매우 희미하게 밖에는 아는게 없는데 이 악령들은 환히 아는 것 같았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이해해둔다면 위와 같은 점에 놀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육을 입으신

목적과 그 본성을 그 당시라는 특별한 시기에 맞추어 아는 것은 자연계보다 영계가 훨씬 더 나왔다. 그 이유가 주님의 구속하시는 일은 자연계보다 영계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속함(redemption)은 지옥의 정복에, 영들의 세계에서의 심판의 수행, 달리 말하면 노아라는 하늘의 처방이 있는 때로부터 세상에 살았던 이들, 다시 말해 지상의 새로운 교회(a new church)들이 건설된 그 속에서 살았던 이들이 있는 중간 상태에 대한 심판의 수행에 먼저 존재했다. 영계에서의 정복과 심판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므로 영들은 지상의 인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주님에 관해서, 그리고 그분의 일에 관해서 더 알고 있었다. 이 영들의 언어 자체를 살펴보아도 그들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 결정의 날이 다가옴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판은 주님의 더 직접적인 현존(presence), 또는 그분의 신성한 진리가 비정상하게 유입되는 방법, 즉 신성한 진리는 그 진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내면 상태에는 열린 채 놓여있으면서 그 사람의 진짜 품성에 걸맞지 않거나 반대되는 모든 것 속에서 진리를 제거하는 방법, 오히려 당사자가 진리를 제거하는 방법쪽으로 유인해서 자신의 영원한 마지막 거처를 제 스스로 결정한다. 악한 자의 경우 이 심판에는 통곡함이 곁들여진다. 그 이유는 통곡함, 괴로워함이 주님의 진리의 본성 때문이어서도 아니고 주님 자신의 뜻이 그것이어서도 아니다. 사실 주님의 본성만으로는 제 아무리 사악하다해도 고통 내지 비참함은 생각조차에도 없다. 오로지 인간의 부패함 내지 거꾸로된 상태가 그분의 진리에 있는 질서와 순수성에 직접 반대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괴로움은 어지러워진 영적 기관에 언제나 있어지는데 마치 밝은 빛이 병든 눈에 비치는 현상 같은 것이다. 이는 예수의 현존과 그분의 말씀을 경험한 악마들이 받은 괴로움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즉 순수한 사랑인 신성한 생명과 조화를 이루는 생명 상태를 지닌 이들만이 그분이 함께 하실 때 행복을 즐길 수 있다는 것, 그 반면 자신을 주관하는 사랑이 그분의 사랑과 반대되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경우 언제나 고통만을 감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28-34절에 있는 기적 사건의 영적 의미를 순서대로 생각해 보자.

28.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마귀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호수 건너 가다라 지방은 인간의 자연적 수준의 마음을 표현한다. 위 구절이 간단한 서술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당시, 즉 구속자요 구세주로서

인간에게 첫 번째 오신 그 당시 인간의 자연적 수준의 마음상태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명백하게 표현해 놓고 있다. 악마에게 점유된 둘(two possessed with devils)이란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 있는 의지와 이해성이다. 마치 타락되는 인간 속에서 이 의지는 악마에 의해 점유되어 통치되고, 그 이해성은 거짓 추구와 직결되어 있는 것과 같다. 오늘날의 경우 비록 악령이 인간의 육체까지는 점유 못할지라도 마음은 점령할 수 있다. 마음을 휘어잡는 방법으로 오늘날에도 주님이 육으로 계실 당시만큼이나 인간을 소유해서 통치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은 과거 악마의 계획보다 더 교묘하다. 악마에게 소유당하면 마치 정신병자같이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못된다. 그러나 자유와 이성을 지니고 마음을 악마에게 준 사람은 행동에 책임이 있다. 통상적인 법칙에 의하면 영들은 인간의 애정 안에 거주한다. 그들이 인간의 생각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단지 애정을 통해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을 자유로이 생각하고 결정해서 선택할 수 있게 장치되어 있다. 오늘날 마귀들린 자가 옛날의 마귀들린 사람보다 덜 실제적이거나 덜 한탄할 대상인 것은 절대 아니다. 모든 악한 인간은 악마에게 소유당해 있다. 정녕 그렇다.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열정은 사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몸이다. 타락되고 부패된 욕구는 불결한 영들이 거주하는 무덤이다. 악한 모든 인간은 내향적으로 미움을 혐오하고 자기 노예가 되지 않으려 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음모만 지녀 언제나 “너무나 사나워서” 그들의 이해나 야망의 길을 누구나 “지나갈 수 없다.” 영적 의미에서의 “사람”이란 진실된 인간 즉 인간 안에 하느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다.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지나는 사람에게 무섭게 달려드는 것이란 모든 진실된 인간 또는 선하고 참된 모든 것, 그것이 자신 속에 있는 것이든 타인 속에 있는 것이든 상관없이 대항하려는 모든 악이 존재하는 끔찍한 미움을 표현하는 모습이다. 이런 미움은 가장 높으신 사람, 또는 가장 거룩한 측면으로서의 사람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더욱 더 사나웠다. 그러나 그분은 인류를 향한 악령의 날뛰는 미움을 순화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최소한 그 악들이 인류를 송두리째 소유하고 파괴하는 힘을 박탈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런 취지에서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분의 권능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있다. 악마에게 송두리째 소유당한 사람이 예수님과 마주쳤다. 마가복음 5장 6절의 경우 그들이 그분께로 달려와 절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악마가 예수님께 절망적으로 복종함은 인류의 구속자되시는 주님에 의해 어둠의 권세는 완전히 종속된다는 것을 본보기

로 보여 주시고 있다. 구속 그 자체, 육을 입으신 주님의 위대한 일이 본문에서 여실히 표현되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지옥의 압도적인 권세에서 인류를 해방되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시어 영적 자유로움을 회복시켜 놓으셨다. 인간이 속박된 상태, 영적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있다는 말은 지옥의 권세가 천국의 힘을 압도한다는 것과 맥락이 같은 말이다.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정복하신다는 말은 인간과 악령 사이의 모든 교통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말이 아니라 악령이 자유 의지를 박탈해서 인간 위에 군림하려는 것을 끌어내리는 것, 그리하여 인간 의지의 자유가 보장되게 해주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균형(equilibrium)을 회복시켜 놓으시는 것이다.

29. 예수께서 마귀들린 자에게 접근하시자 “그들은 갑자기 ‘하느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소리질렀다.” 이 절규는 비록 인간의 육성을 통해 나온 소리지만 실지로는 그 사람을 소유한 악마의 소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뱀은 말이라고 할 경우 이는 거둬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신성과 악마의 권세가 다툰 때 그들이 경험하는 절묘한 쓰라림을 묘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쓰라림을 당하는 주체는 악령 때문인 바 이 쓰라림은 그들의 본거지와도 교통된다. 그래서 온 악마가 온 힘을 다해 달려드는게 통상적이다. 이런 시험은 그 시험에 관계해서 거론되는 이름들에서도 암시해 주는게 있다. 악마는 주님을 향해 “예수, 하느님의 아들이시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신성한 이름 중 “예수”가 표현하는 것은 인성 가운데 계신 주님, 이를 수단으로 구세주 되신 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본질적 요소인 선함에 관련된 주님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람의 아들은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본질되는 요소인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한다. 악의 원리 그리고 주님의 선함에 반대되는 지옥적인 영들은 성경에서 악마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고, 거짓 원리 그리고 주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영들은 사탄으로 명명되고 있다. 선과 악 사이의 싸움으로 야기되는 시험은 진리와 거짓 사이의 싸움으로 야기되는 시험보다 더 큰 고뇌가 발생된다. 마치 사랑에 관련되는 정신적인 시련이 믿음에 관련된 시련보다 더 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과 같다. 그 이유가 진리와 믿음은 이해성에 소속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나 선함과 사랑은 의지에 소속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악마는 예수께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외쳤다. 때(time)는 상태(state)를 의미한다. 이 구절에서의 상태란 마치 예상되는 고뇌의 때와 같이 시험의 클라이맥스 즉 결과로

맞게 되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예 자포자기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라고 기도하신 때는 십자가의 고난에서 그분의 시험이 극도에 달할 것임을 바라보고 계실 때였고 이 고뇌의 시간이 거의 왔을 때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자포자기하시는 듯 외치셨기도 하다. 본문에 있는 악마의 외침은 주님의 외침과는 수준이 전혀 다르지만 속성은 같다. 본문 구절을 더 뜯어 생각해 보자. “...전에” 라는 시간에 관련된 단어는 상태 측면에서 제일가는 어떤 것을 뜻한다. “때가 되기도 전에 있는 괴로움”이란 마음속에 있는 제일가는 애정 즉 통치하는 애정이 활동할 때의 시험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의미한다. 이런 고통은 하급 수준의 애정에서는 발생되지 않는다. 시험이 얼마나 더 깊은 내면에 있느냐에 따라 거기에 수반되는 괴로움의 강도도 비례한다.

30. “마침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놓아기르는 돼지떼가 많이 있었다.” 본문을 거듭나는 한 개인에 관련시켜 영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사람”은 합리성을 표현하고 “돼지떼”는 인간 본성의 원리 또는 감각 부분을 표현한다. 감각적 부분은 매우 낮고 조잡한 수준이어서 이보다 높은 합리성과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다 이 합리성은 영적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그런대로 자연적 원리 중 내면에 속하는 인간 품성이다. 감각적 애정과 욕구에는 감각이라는 매체를 통해 획득되어 온 것들로 딱 차있어 감각적 원리를 형성하는 바 동물보다는 인간 존재 안에서 떼거리를 이루고 있다. 본문의 돼지떼는 악마가 그곳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타협하는 때에 길러지고 있었다. 이는 인간이 감각적 욕구를 채우는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이런 돼지떼와 감각적 욕구에 대해 생각해 보려면 자연히 연상되는 것은 “방탕한 아들”의 비유 내용이다. 이 비유는 죄인이 최하위의 영적 타락으로 하강하는 막바지까지를 멋지게 묘사하고 있다. 그는 제 스스로 먼 나라로 떠나 부유한 살림을 탕진해버리고 결국 돼지떼를 먹이는 들판에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날 정신이 들어 참회의 눈물로 아버지께 되돌아간다. 악마에게 소유당한 사람이 구원되고 돼지떼가 구원의 통로로 이용되는 본문의 줄거리 역시 영적 의미에서 방탕아의 줄거리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31, 32. “마귀들은 예수께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나 들어 보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자 마귀들은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악령들이 마음의 내면 내지 합리적 영역에서 추방될 경우 그들은 거처를 찾는데 더 낮은 영역, 감각적 영역을 피난처로 발견한다. 그들의 바램 그리고 신성한

허용, 이 두 가지는 목적과 의도에서 직접 반대된다. 그럼에도 어떤 결과를 도출하도록 함께 일한다. 어둠의 영들은 하느님이 허용하실 때만 인간에게 작용된다. 이쯤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보아야 할 사항이 있다. 신성한 섭리라는 정부안에서 악의 허용은 이런 원리로 규율된다. 즉 주님만이 더 큰 악을 예방하시기 위해 작은 악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 허용하시 되 가능한 악이 허용됨으로 어떤 선이 결국은 생산되게 배려하신다. 악령이 인간의 악한 애정 속에 들어가도록 허용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사자의 현상태로 보아서 천국의 천사뿐만 아니라 지옥의 영과 연결됨이 없이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살고 행동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악령이 인간의 악들을 흥분시켜 주기 때문인 바, 이때 인간은 제 속에 있는 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어 오히려 그것을 제거하는 쪽으로 인도되고 악의 제거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악령이 인간의 악을 흥분시키도록 마음속의 악에 들어가도록 허용되어 악령 자체가 악을 제거하는 도구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악마가 소유했던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때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의 지혜와 선함을 감지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거듭남 역시 더 높은 수준으로부터 더 낮은 수준으로 진행된다. 마음의 내면이 먼저 거듭나고 그 뒤 외면이 거듭나야간다. 그러므로 수준 낮은 악들이 마지막에 흥분되어진다. 이들이 제거될 때 거듭남의 한 단계가 완성된다. 주님의 구원하시는 작전의 목적과 질서는 어둠의 영들의 의도 내지 경향성과 서로 공모한 듯 시험의 원인에 가담하면서 악의 제거가 이루어진다. 악령이 인간 마음에 있는 몽상이나 욕망에 달라붙은 고집은 대단하다. 한번 달라붙으면 포기하는 때가 거의 없다. 따라서 그들과 거주하는 악 자체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인간 심정과 지성 속에 있는 악들은 거기에 들러붙고 싶어하는 악령에 의해 제거되어 그들의 거주지인 어둠의 나라로 운반되어진다. 돼지들이 달려가 몰사한 바다가 바로 어둠의 나라이다. 돼지때가 비탈을 온통 내리달렸다는 광경은 악과 악령의 경향성이 아래쪽으로만 향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 그것들은 불법이라는 최저의 깊은 곳으로 달려가려는 욕망으로 꽉 차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 준다. 회개없는 완고한 상태로 살다 죽는 이들은 영원한 저주라는 영역으로 끌려들어간다. 참회하는 자의 경우 이와 이주 다른 끝마무리가 있다. 회개함과 수정함은 자신들로부터 악과 악령을 분리되게 하는바 파멸됨에서 구원함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그 이유가 주님의 권능이 구원하시는 동안 악마가 자기들의 악을 끌어 가 정신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주님의 자비와 선함을 맛보게 되면 사후 평화와 축복이라는 그분의

나라에로 입장되는 것이다.

33.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가 빠져 죽자 “돼지치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읍내로 달려가서 이 모든 일과 마귀들렸던 사람들의 일을 알렸다.” 방탕한 아들의 비유에서와 같이 그들이 돼지를 먹였다(feed)고 말해지지 않고 돼지를 관리했다(keep)고 말해지고 있다. 돼지치는 목부들은 비록 이 일이 대이변이긴 했지만 기적에 따른 경이로움에 압도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 재난의 광경에서 빠져 나와 더 조용한 분위기인 읍내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입은 손실에 관해 먼저 말하기보다는 악마에 소유당한 사람들의 일을 알리고 있다. 불결한 동물의 소유자와 관리자를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애정과 생각에 각각 관계된다. 소유하는 것은 애정 부분이고 관리하는 것은 생각 부분이다. 소유된 것이 무엇이든 생각이 그것들을 관리해 준다. 인간이 오로지 감각적일 경우 그의 애정은 욕망인 바 그의 생각은 애정의 만족을 채우는 수단만을 궁리한다. 이런 상태는 본문에 있는 사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본문의 경우 감각적으로 만족하려는 것이 살아있는 인간, 그렇다고 더 높은 차원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닌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인간의 상태가 지닌 생각 속에 주님은 구속자로서 오셨다는 것, 그분은 지옥을 정복하심으로 악마를 타파하시려 오셨다는 것, 그리하여 인간의 합리적 마음을 회복해 주시어 건전한 상태가 되게 해주신다는 등등을 갖고 있다. 생각 측면의 이런 내용을 애정 측면에 운반해 주는 모습이 위 구절로 표현되고 있다.

34. 이런 소식을 알게 되자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와서 예수를 보고는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달라고 간청하였다.” 읍내 사람, 정보를 제공한 돼지 관리인처럼 예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혼합되어있다. 비록 이들이 주님더러 자기들의 고장에서 떠나 가달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무력을 사용한게 아니라 타협적 자세로 간청하는 태도였다. 그들은 주님의 권능이 명백하게 주어져서 기가 질려 있다. 그들은 주님께 분노했거나 위협적인 인물로 간주하는 어떤 느낌도 우리에게 비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청원을 선뜻 승낙하시어 그곳을 떠나셨기도 하다. 개인 측면에서 이를 생각해 본다면 읍내 사람은 주님을 선함 측면에서보다는 권능을 가진 분으로, 그분을 사랑으로 예배하기보다는 두려운 존재이셔서 예배를 드리는 수준에서,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는 교리가 자신에게 위로를 주기보다는 부담을 갖게 해주는 신앙 수준을 지닌 이들을 표현한다. 이것은 종교를 외적 수준에서 지닌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하다. 이들은 비록

말씀 안에서 밝혀 주신 바대로 하느님을 알고 있되 분노하시고 원수를 갚는 존재로서, 그분이 나타나시면 전율을 느끼게 하시는 분으로, 그분을 뵈고 생명을 부지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식이다. 이를 더 특별하게 생각해보면 이들이 신성한 권능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면 그들의 애정은 그분의 오심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자기들의 감각적인 믿음의 신조를 자신들로부터 분리시키도록 움직여진다. 사실 이럴 때의 그들의 진짜 상태라면 그분의 오심에 자기들의 악이 더 생생하게 마음에 부각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게 하고 진리의 명백한 빛을 자기들에게 두려운 사실로 간주해 버린다. 이런 이방인들의 상황은 과거 엘리야를 먹여 살리던 중 그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했던 말, “오, 하느님의 사람이여! 어른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오시어 내 죄를 일깨워 주시고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열왕기상 17:18).

9

1.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간청을 받아들여신 예수께서는 그들 교장을 떠나 “배를 타시고 호수를 건너 자기 동네로 돌아 오셨다.” 본문에서 가파르나움 지역을 “그분의 동네”라고 말하고 있다. 그분의 사생활이 있었던 곳이 “나자렛” 지방인 반면 그곳은 그분의 공생애 동안의 거주지이었다. 동네(city)란 교리를 의미하는 바 “그분의 동네”란 그분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계되는 교리를 의미한다. 이 교리는 하느님 자신을 명백히 드러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분이시다는 것, 신성한 인성이 인간의 구속자요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천국적 교리는 그분이 거하시는 동네이다. 이 동네로부터 마음의 모든 자질과 애정 안으로 구원하시는 힘이 퍼져나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새로워진 힘을 가지고 귀가하시고 다시 나가시어 구원의 힘을 뻗치신다. 주님만이 이렇게 인간과 더불어 거주하실 수 있다. 신성한 선만이 신성한 진리 안에 거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순수한 선은 그 거처로 순수한 교리를 가져야만 한다. 주님의 권능은 선한 자에게는 구원의 힘을, 악한 자에게는 공포를 갖게 하신 뒤 내적 인간 안으로 되돌아오신다. 그러면 더

순수한 애정과 더 진실된 생각들이 내적 인간에 더 쌓여 그분만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인간이 인식할 수 있어진다.

2. 이렇게 되돌아오신 그분께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께 데려왔다.” 이미 설명한 바 있듯이(8장 6절), 이 병이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선을 행할 힘이 없는 사람, 또는 심정의 의도나 생각들을 밖에서 명백해지게 하려는 것의 결핍, 즉 내적 인간에 걸맞는 외적 인간이 결핍된 상태를 뜻한다. 이 환자는 “침상에 누워 있었다.” 침상이란 피로해진 제 영혼의 쉼을 얻는 당사자가 신뢰하는 신념 내지 특별한 종교적 교리를 뜻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권고한다. “무서워하여라,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반성하여라, 고요를 깨지 말아라” (4:4). 시편 기자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기름지고 맛있는 것 배불리 먹은 듯 내 입술 기쁘고 내 입이 흥겨워 당신을 찬양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 생각, 맘을 새워가며 당신 생각뿐...” (63:5-6). 이와 반대로 사악한 자들의 경우, “자리에 들어도 악한 것만 궁리하고 나쁜 길에 버티고 서서 악을 고집한다” (36:4). 각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은 누군가의 종교적 교리 내지 신념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교회의 마지막 날에 관해 말씀하신다. “잘들어 두어라.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누어 있을터인데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누가 17:34). 두 종류가 한 교리 안에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생명 있는 믿음일는지 모르나 또 다른 하나는 생명 없는 신념에 불과할는지 모른다는 말이다. 병에 시달리는 중풍병자가 친구에 의해 침상에 누인 채 예수께 데려왔다. 우리가 지닌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 우리 심정의 가장 나은 애정과 이해성 속의 가장 곧바른 생각들은 우리 영혼이 예수께 오도록 자극을 준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안심하여라.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신다.” 인간은 제 육신의 병을 낫고자하지만 주님께서서는 그의 영혼의 병이 나아 구원되게 하신다. 육신을 고치는 것은 준비물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어쨌든 위 구절로 알 수 있는 것은 죄와 질병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게 매우 중요하다. 주님이 육으로 계실 당시의 유대인들 같이 생각해서 모든 사람의 질병은 각 사람의 특이한 죄의 결과라고 넘겨짚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질병은 넓은 측면에서의 부패함에 대한 결과일 뿐 특별한 어떤 죄의 결과에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를 정확히 보시는 주님만이 어떤 특별한 질병이 어떤 특이한 영적 원인으로부터 진행된다는 것을 아신다. 만일 그러하다면

죄의 제거는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된다.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한 예이다. 그러나 육체의 질병이 마음의 질병에 대한 모형이 된다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영적 질병은 다양하게 영적 악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체의 바깥쪽 질병은 언제나 안쪽의 부패함이 원인이 된다. 병적인 행동은 부패된 동기의 결과이다. 원인과 결과는 공존하기 때문에 원인의 제거는 결과를 치료하기 위한 예비 절차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낮기를 바래서 온 사람에게 “안심하여라” 라고 말하시면서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은 그분의 자비를 간절히 바라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현재의 모든 사람에게 확증과 위로를 한꺼번에 말하시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주님으로부터 확신을 받을 때만이 진정으로 신실한 믿음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3, 4. 이 환자가 죄를 용서받자 하느님밖에는 죄를 용서할 분이 없다는 것을 아는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하느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며 수군거렸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신성과 권능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증거로서 이 기적을 받아들이도록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어찌하여 너희들은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렇게 수군거린 말까지 말해 주시어 그들에게 그분이 죄를 용서할 권능이 있으심을 증거로 주시면서 하느님께서서는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용서하신다는 것까지 알게 하셨다. 이제 병으로 시달림 받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을 그들로 보게 해서 또 다른 증거를 보태시고 있다.

5. 이 기적이 있기에 앞서 주님께서서는 율법학자에게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과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물론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답을 기다리시지도 않았고 요구하시지도 않았다. 그분의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있다. 예수라는 분은 한 마디의 말씀만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을 건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 영혼의 어떤 불치병도 정의로운 상태로 즉각 회복시키신다는 것이다.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보다 말로 때우는 일이 더 쉬운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게 더 쉬운 분이시다. 이 두 가지 행동의 연결이 표현하는 의미는 영적 측면일 경우 더욱 명확하다. 죄의 용서와 일어나 걷어가는 행동의 영적 연결은 매우 밀접해서 각각이 분리되어 있는 듯 해도 분리되어 있거나 서로가 고립된 행동이 아니라 신성한 역사의 동일한 두 부분을 형성하고 있을 뿐이다. 죄의 용서는 용서함이라는 말 자체에 존재하는게 아니라

죄를 범하게 하는 경향성이 그의 심정으로부터 제거되는 것이다. “네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의 심정에 있는 죄 짓는 근성(경향성)을 제거해 주시고 그 대신 선함을 사랑하는 쪽과 교통하게 하시는 것을 말한다. 더 나아가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명령은 마음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그의 외적 생활이 구원되는 것, 더불어 마음 속 깊은 곳과 호흡하는 선함을 사랑함이 생명을 얻어 활성화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적 인간을 질서 있는 상태로 먼저 회복시키신 후 그 결과로 회복된 내적 인간에 부응되는 상태로 외적 인간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하여 가장 좋은 측면 즉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체가 되게 해주신다.

6, 7. 주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더 말하신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마’ 하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셨다. 그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은 중간 입장에 있는 구경꾼인 군중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으리라는 것밖에 더 생각할 수 없을는지 모른다. 완전히 중풍병이 든 사람이 누운 자리에서 즉각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군중들 앞에서 제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 잠깐 전만 해도 그는 포기 상태의 인간이었을는지 모른다. 잠깐 사이에 상황을 전혀 판판으로 되게 만든 기적은 사람들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이 기적은 능력을 발휘한 그분께 존경을 바치도록 만든 원인이 되었다. 비록 율법학자가 침묵했다 해도 어쨌든 그들이 예수에 관해 어떤 확증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없다. 오히려 이후의 기록이 그들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그들은 죄되는 옹고집과 불신앙을 계속했다는 것뿐이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 중 하나는 이것이다.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들은 군중이 이 기적을 봄으로 해서 사람의 아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지상에서 가지셨다는 것을 알았을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는 위대한 진리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주님은 인간 본성을 입으셨다. 그리하여 사람의 아들 또는 최 말단 수준에서의 신성한 진리가 되셨다. 이리하여 육을 입으시기 전에는 지상 위 인간의 구원을 위해 손이 닿지 않으셨던 악으로부터 서도 완전하게 인간을 구원하시게 되었다. 신성한 사랑은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구원의 권능을 펼치신다. 그러나 사랑은 진리가 인간 마음의 상태에 숙박되는 한도에서만 힘이 발휘될 수 있다. 태초에 하느님과 더불어 있었던 말씀 즉 영원한 지혜는 영원한 사랑의 품안에 거주하는 바 타락되지 않은 인간의

영적 세대를 위해서는 완전하게 충분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말씀이 육이 되어서 타락된 인간 수준까지 내려와 상당히 개조된 인간 애정과 지각 자체에 숙박되어야 할 필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를 수단으로 사람의 아들은 죄를 제거함 내지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셨다. 본문의 지상이라는 단어가 표현해주는게 더 있다. 그 이유가 지상의 영적 의미를 아주 순수하게 말하면 이는 인간의 자연적 수준 내지 지상 쪽에 속하는 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이 영역은 인간의 모든 악들이 자리잡은 곳이다. 주님께서 육을 입으셨다는 말은 이런 지상적 마음 또는 인간 영혼의 구성 부분 중 지상의 것을 그분 자신 위에 입으셨다는 말이고 이따라서 해서 그분은 신성한 진리를 그분의 인간 부분 쪽에 내려다 놓으실 수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으로서 거주하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들리워올리신 사람의 아들 또는 영화되신 사람의 아들로써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바 과거보다 더 가까이 계시면서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끌어 당기시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자연적 또는 지상적 마음으로부터 우리로 하느님과 분리되게 하는 죄를 제거하심으로 그분 쪽으로 끌어 당겨 구원해주시고 있다.

8. “이것을 보고 무리는 두려워하는 한편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헛된 철학으로 덜 더러워진 단순한 사람, 지적 자만으로 덜 빼앗겨진 단순한 사람들만이 그들의 눈과 귀가 명확한 증거를 잡게 되었을 때 가장 정당한 결론을 끌어 낼 수 있다. 이들 역시 최고의 존재가 인성이라는 옷을 입으시고 있는 분인 그들 앞에 계신 예수라고 인식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하느님을 찬양했을 뿐이다. 그들은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이유로 해서 그분을 찬양했다. 그들은 예수를 한낱 인간으로 여겼다. 단지 이런 경이로운 기적을 행할 힘을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분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인식만으로도 예수의 권능이 베엘제불이라는 악마로부터 온 것이라고 소문을 퍼트리는 바리사이파 사람이나 율법학자 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다. 과학은 모든 것을 자연의 탓으로 인간이 알도록 유인하며 왜곡되게 한다.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물의 시작을 두 번째의 원인들 가운데서 볼 수 있다고 주창하여 사람들이 진리를 지각하는 것에서 눈이 멀게 한다. 마음이 단순한 자는, 비록 높은 지성을 지닌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해도 호의적이어서 신성한 진리를 받고 그것에 경의를 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음의 단순함만이 주님의 인성 안에 있는 신성을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만이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는 권능을 주신 하느님을 진실로 그리고 영적으로 찬양할 수 있다. 신성은 인간에게

이런 힘을 주신다. 이 힘은 인간의 구원 속에서 명백히 모습을 나타낸다. 주님의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은 구원하는 권능의 원천이 된다.

9.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오라’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 야곱의 열 두 아들의 출생처럼 열 두 사도의 부르심도 거둬냄에서 인간이 종교의 품위를 획득해 가는 질서를 표현한다. 첫 네 명의 부르심은 이미 제 4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베드로는 이해성 측면에서의 믿음, 안드레아는 의지 측면에서의 믿음을 의미한다. 야고보는 이타애 또는 이웃을 향한 사랑, 요한은 주님에 대한 사랑 그러나 이 사랑은 실제적 원리 측면에서의 사랑이다. 즉 “내 계명을 지니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요한 14:21) 라고 주님이 말하셨을 때와 같은 사랑이다. 제 10장에서 복음을 전하러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살피겠지만 사도들은 각 네 명씩 세 그룹을 형성한다. 첫 네 명은 모두 어부였다. 어부라는 그들의 직업은 장차 그들의 영적 기능 즉 사람을 낚는 어부에 관한 것과 상응된다. 위 본문에서 마태오를 부르심은 위 네 명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렇다해도 마태오 역시 자신이 수행하게 되는 특별한 사역과 그가 표현한 품위와는 매우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그는 세관이였다. 그는 유대 사람들에게 로마가 징수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세금으로 해서 자기들이 압박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늘 받고 있었다. 더욱 그들로 쩡그러지게 하는 것은 이 세금이야말로 외국인이 씌어준 명에 절대 복종함이라는 뱃지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로마 권력은 자연적 수준에 있는 합리적 원리를 표현한다. 따라서 그들이 유대인에게 부과한 세금이란 영적 수준의 지식이 인간의 자연적 이성이 추구하는 목적을 섬기게 만드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주님 스스로 세금에 관한 사항을 의무로서 나타내신 구절이 있다. 즉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라” 동시에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시었다.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성전세를 바치는데 동의하셨을 때 이 돈은 바다에 있는 고기의 입으로부터 얻는 것이 질서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 17:27). 이는 자연적인 것, 즉 영적이지 않은 것은 합리성에 종속되어야 하고 과학적인 것 즉 지적 진리가 아닌 것은 그 용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마태오가 카이사르를 섬기는 일로부터 주님을 섬기는 일쪽으로 부름받았을 때 마태오의 행동은 장차 그가 영적으로 하게 될 것들 즉 인간 합리성의 지배로부터 그 인간의 영적 원리들을 해방시켜 자신과 직접 연결되게 하는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다. 마태오는 이런 부름에 순종하였다.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한다는 것은 의무관념이 강한 행동인 바 이는 그분의 뜻을 열심히 행하여 그분의 뜻을 자신의 것이 되게 하고 싶은 바램을 보여준다. 주님을 따르는데 대한 비밀을 마태오가 행동으로 표현한 기록은 매우 간단한 바,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일 뿐이다. 우리가 부름받을 때 우리의 애정을 세사적 차원으로부터 천국적 차원에, 일시적 인생 목적으로부터 영원한 목적에 두어야 한다. 그분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든 꾸준한 용기로 그분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10. 마태오를 부르신 뒤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들어 가셨다. “예수께서 마태오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도 많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아마 이 장면만큼 거절당하고 멸시당한 사람들을 위해 그분의 모습을 명백히 드러내신 부분도 없을지 모른다. 이런 정감어린 온유하심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람의 눈에 띄도록 일부러 겸손을 나타내신 이런 현장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질책하는 좋은 건수를 만들어 주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주님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들과 더불어 종교는 단지 예식과 겉치장의 수준에 불과했다. 그들의 평가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위 주님의 모습, 가난하고 비천한 자에게까지 그분의 존재를 내려놓은 것은 수준이하 이거나 타락된 수준밖에 더 이상의 좋은 점수를 매길 수 없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셔서 건립하고자하는 종교는 하급에 속하고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데 참 목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환경 여하를 불문하고 막중의 사람들과 섞이셨다. 그래서 그들의 심정 안으로 들어가시는 수단으로서 그들의 집에 들어 가신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본문의 사건, 마태오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여기에도 영적으로 실재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 집이란 마음의 상징물이다. 예수께서 그 집에 앉으셨다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 주님을 진리와 생명되시는 분으로 믿어 내면으로 영접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분을 환대한 사람이 그분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심정상태의 공동체 즉 주님을 겸손한 객으로 대접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분을 환대하는 마음밖에 더 필요한게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 집의 식탁에 앉으셨다. 그 이유가 음식과 육체의 관계는 마음과 그 양식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위한 양식은 선함을 원리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위해 주님이 앉으신 것은 주님께서 선을 통하여 인간과 더불어 즉 인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애정과 생각과 교류하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주님을 마음에

소개하고 들어왔게 하는 것은 우리 속 영적 애정이다 이것이 주님 주위에 둘러앉은 제자들이다. 이 외에도 인간 안에는 자연적 애정과 기타 다른 애정들도 있다. 이것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다. 신약 성서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름 죄인이란 도덕적 수준에서 사용된게 아니라 율법에 첨가해놓은 바리사이파인들의 각종 규정을 깨우리한 사람을 한테 몰아 일컬은 이름이다. 마찬가지로 세리들에게 따라 다니는 악평 역시 그들의 행실 측면의 품성과는 무관한 말이다. 단지 그들은 유대인이 매우 싫어하는 세금징수자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식탁에 둘러앉은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을 경멸한 바리사이파인들보다 실지로는 더 나을지 모른다. 세리란 의지 속의 어떤 경향성 또는 애정들 다시 말해 인간의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 속하는 애정과 생각들을 표현한다. 영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이런 애정과 생각은 유전적으로 상속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악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비슷하다. 그러나 심정과 지성이 천국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악에 속하는 자연적 수준의 애정이나 생각도 그것의 선생 내지 구세주로서 주님을 뵈게 된다. 그것들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와서 함께 앉는다. 그것들은 그분의 영향 밑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결정을 갖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자연적 수준의 애정과 생각도 하늘나라의 원리로서 그분의 신성한 진리의 법칙에 일치하게 된다. 그 결과 그분 안에 있는 진리와 그들 안에 있는 것은 똑같은 것으로 채워진다.

11.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제가 잘나서 의로워졌다는 사람 즉 독선자는 죄인과의 만남을 치욕적으로 여겨 “죄인들”을 멀리한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명성에 흠이 간다하여 “죄인”을 멀리한다. 감각적인 사람은 자기 욕심이 덜 채워질까봐 “죄인”을 멀리한다. 영적 인간만이 “죄인”을 선을 행하는 수단으로 여길 뿐이다. 주님은 말씀의 어느 부분에서도 완전한 모형이 되어주신다. 개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기독교인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은 죄로부터 사람을 떼어냄으로 영혼을 구해야 한다. 이것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모방할 때만 가능해진다. 독선자는 이렇게 하지 못한다. “왜 네 스승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는가?” 라고 바리사이파인들이 더 묻고 있다. 이제 주님 스스로 대답해 주신다. 그들과 더불어 주님이 잡수신다는 모습에 대한 영적 수준의 의미를 생각하는게 주님의 답변이다. 누군가와 더불어 주님이 잡수신다는 것은 선함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그분과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주님 자신이 말해두신 구절이 있다. “만일 누군가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20). 어느 때이든지 주님께서는 우리 심정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한다고 재촉하시고 있다. 마치 본문에서 세리와 죄인들의 집 즉 마음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선을 받으시고 그분의 선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 즉각 마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과 같다. 어떤 인간에게도 자기로부터 파생된 선은 하나도 없다. 각자 안에 있는 선은 무엇이었던 간에 주님께서 이식해두셨던 선의 어떤 것들로부터이다. 주님께서는 이식해두신 선이 짝이 되어 올라오길 바라신다. 그래서 이식된 선이 당사자에게 더 높고 더 순수한 종류의 선을 나르는 수단이 되길 간절히 바라신다. 주고받음(reciprocation) 없이는 구원도 없다. 인간이 주님 만에 의해 구원된다고 말한다면 주님은 만민을 모두 사랑하시므로 만민은 주님에 의해 자동적으로 모두 구원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성립되지만 그렇지가 못하다. 주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일에 당사자인 인간이 협동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다. 따라서 인간의 협력은 자신을 구원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인 것이다. 주님은 모든 사람 안에 계시지만 모든 인간이 주님 안에 있지 않는다. 구원이라는 일이 성취되기 위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는 것이 필수이듯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도 필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한 자리에 앉으시어 짐짓 겸손을 나타내 보이신 이유이기도 하다. 영적인 바리사이파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말은 꼬투리만 늘어나게 할뿐이다. 그들은 인간 구원이라는 사업에 인간의 협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구원은 하느님의 권능과 위엄과 일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죄인의 구원은 더할 나위 없는 은총만으로 가능하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파멸될 분노의 그릇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말은 주님께서 말하신 아래의 구절뿐이리라.

1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이보다 더 정확한 대답은 발견하기 힘들 것이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죄인을 피해야 한다고 눈먼 소경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들과 더불어 일부러 식사를 하신 것이다. “죄인”들은 병자이고 주님은 의사이시다. 그들은 주님이 찾고 계신 무리들이요 그분이 찾아 구하시기 위해 오신 사람들이기도 하다. 신성한 구세주의 특별한 이런 일들을 얼마나 충분히 우리는 검토하고 있을까? 기독교인의 선교 역시 여기에 기반을 두고 얼마나 되새겨 저울질해보고 있을까? 만일 우리가 하급으로 처진 동포를 소홀히 하고 경멸해서

멀리하러 든다면 본문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다르게 뭐가 있을까? 뒤로 치진 사람을 향해 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자체는 주님이 타락한 자들을 향해 생각하시는 것과 같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행동하셨듯 죄인을 향해 바래고 행하여야 할 것이다. 타락한 무리들이 의사를 필요로 하는 병자의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조건에 있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듯이 말하시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구절에서 좀더 설명을 해보고자한다.

13. 주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더 권고하신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글자대로 이해해본다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자비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주님은 자비를 바라실 뿐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설립되어진 것이다. 예배의 목적은 그 예배의 대상자와 같이 예배자도 되는 것 즉 자신을 선택하고 의롭게, 자비롭고 용서할 줄 아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이 주님이 뜻하시는 사항들이다. 그분은 제사에 앞서 자비를 뜻하실 뿐 아니라 자비는 그분이 뜻하시고 열납하시는 제사 안에 있는 유일한 실체이다. 엄밀히 말해서 주님이 인간 자체로부터 받으실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충성은 예배자의 마음에 그분의 품위(은총)를 실어다 주는 도구로서 의도된 것일 뿐이다. 충성을 바치게 되면 우리는 그분과 호흡하게 되어 우리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는 셈이다. 주님께서서는 성경을 인용하시어 바리사이파인들에게 그 이유를 말하시고 있다. 종교의 요구사항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는 것이다. 그분은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오신게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모형으로서 신성이 바라는 것을 행하셨다. 그분은 자비를 보여주셔서 자비를 구하는 죄인들로 대가없이 그분의 현존하심에 들어오도록 하시어 상호 교류가 있게 하셨다. 자비란 통탄하고 용서하는 사랑측면에 해당되고 제사는 요구하고 강요하는 진리 측면을 뜻한다. 인간이 애당초 타락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인간에게 자비(자선)를 베풀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본래의 사람은 신성한 사랑의 주체요 객체가 되어 있었다. 이런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지극히 높으신 분께 자동으로 되돌린다. 그러나 인간의 상태가 바뀌었다. 이렇게 바뀐 상태에 적절하도록 하나님의 섭리(economy)도 바뀌어야 인간 구원이 가능하셨다. 의사가 필요없는 성한 사람, 주님이 부르실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란 첫 번째 교회 사람 즉 천적 수준의 교회 사람을 뜻하고 있다. 이 교회 이후에 살았던 영적 수준의 교회 사람은 주님께서 치료해주시기 위해, 회개시키기 위해, 잃었던 것을 찾아 주기 위해 오셔야 했던 병자들이다. 천적 수준의 교회가 끝났을 때 영적 수준의 교회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 교회에서는 놀랄만한 변화가 인간의 정신 조건에 있게 되었다. 즉 지적 부분이 의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되고 양심이 지각(perception) 대신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보다 수준이 낮은 것, 즉 의무라는 것이 도입되었다. 주님께서서는 질서의 영원한 법칙을 타락된 상태의 사람에게 완전한 수준에서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그분의 진리가 타락된 상태라해도 그 안에 숙박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법칙은 인간이 실현하는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법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거나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거룩한 삶을 사시고 우리 대신 죄에 대한 제물로 자신을 바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는 율법을 완성하는 우리의 수단이 되시고자 오신 것이다. 구세주가 고통을 통하여 완전해짐으로 우리가 그분께 요구하는 능력을 주실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도 율법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 완성은 구세주께서 성취하신 수준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 신성한 법안에 있는 진리로 형성되어 우리의 양심 안에 장치된 수준까지 올라가면 된다. 신성한 자비는 그 이상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비이지 제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인간이 신성한 자비의 주체와 객체가 되어 우리 심정에 그분의 자비를 받고 서로가 자비와 이타애의 행위들을 삶에 나열해 가기를 바래시고 있다.

14. 이렇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부드럽게 나무라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주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의 형식을 엄격히 준수하는 바 단식에 대해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일치되는 면이 있어 단식을 소홀히 하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 대해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 위 질문 내용을 영적 측면에서 찾게 되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요한은 씩어 있는 말씀 특히 글자 수준의 말씀을 표현하지만 주님은 말씀 그 자체 즉 신성한 지혜를 표현한다. 이 지혜로부터 씩어진 말씀이 뚫어져 나오고 씩어진 말씀은 이 지혜를 표현한다. 이 지혜로부터 씩어진 말씀은

이 지혜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요한의 크나큰 사명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즉 회개시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요한의 제자란 말씀의 제자이다. 그래서 인간의 심정과 지성으로 주님께서 입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자아 부정을 뜻한다. 자아를 부정함이 성경에서 단식(fasting)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거듭나는 삶의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식은 필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의무조항인 듯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한의 일을 뒤잇는 주님의 일은 악행을 중단하라는 명령 측면보다는 오히려 선을 행하라는 측면에 해당된다. 선을 행함은 그 사람의 마음에 선함과 진리에 관한 원리를 공급해준다. 선행의 실시 이전의 준비 단계가 악행의 중지요 이것이 단식이다.

15. 이제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신다. “잔치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이야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곧 신랑이 물러 갈 날이 올 터인데 그 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위 본문을 좀더 세심히 읽어보면 신랑의 친구들이 슬퍼 않는다가 아니라 신랑이 자기들과 있는 한 슬퍼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직 단식할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 그 때가 오면 아마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단식보다 더 강하게 단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알아야 할 교훈을 아름다운 형체의 비유에 담아 전달하셨다. 기독교인의 마음에서 있게 되는 천국의 결혼, 이는 선함과 진리가 하나되는 것인데 이를 말씀 속에서 순수한 의미의 결혼잔치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내적으로 하나됨을 뜻한다. 주님과 교회의 결혼 역시 위와 동일한 범주에 들어 있다. 따라서 선함과 진리의 하나됨이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만 교회는 존재할 수 있다. 신랑의 친구란 선함과 진리에 대한 애정을 지닌 사람들을 의미하고 이들과 함께 하는 주님의 현존에 있는 사랑과 진리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받는다. 여기서 언급하는 상태는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계심이다. 따라서 이는 결혼을 준비하는 상태 또는 선함과 진리의 하나됨을 원리로서 확증하고 완전해지기 위한 준비를 암시한다. 이것이 비록 결혼을 준비하는 상태이지만 신랑의 친구들이 슬퍼할 수 없는 것은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부의 방, 즉 진리에 대한 애정을 내적으로 갖고 있고 신랑은 선함의 원리로서 이 애정을 그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상태는 준비 단계에 머문다. 그 이유가 선함과 진리가 실제로 결합하는 것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마음속에 결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어 기뻐하지만 신랑은 그들을 떠나야만 하고

슬퍼할 때가 오고야 만다. 주님의 제자와 관련해 볼 때 “물러감”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더불어 일시적 자연적 왕국을 이스라엘에 일으켜 세운다는 제자들의 추측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모든 기독교 제자들도 과거 주님의 첫 제자들이 겪었던 일과 상응되는 상태들을 통과한다. 선함과 진리를 기쁘게 받는 것과 행복되게 하나되게 하는 것 사이에는 시련과 슬픔의 상태가 놓여있다. 이런 상태에 진입되면 주님이 물러가신 듯 여겨진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참된 단식을 해야한다. 이런 단식은 밥을 굶는 식으로 요한의 제자들이 행했던 단식과 너무나 거리가 먼 단식이고 배고픈 정도를 훨씬 넘는 더 격렬한 단식이다. 이런 단식은 죄악된 욕구 충족을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자기 생명으로 삼고 있는 선함에 따른 기쁨을 비자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 이전의 주님의 영광보다 그 이후의 영광이 더 위대했던 것 같이 이런 시련의 통과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어떤 기쁨이나 완전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마무리 된다.

16, 17.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 같이 단식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또 다른 비유로 가르치시고 있다.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대고 걷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천조각에 썩기어 더 찢어지게 된다. 또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낡은 옷이란 유대주의이고 새 천조각이란 기독교이다. 낡은 부대란 유대교의 형식들이고 새 포도주는 기독교라는 하늘의 처방에 따라있게 된 진리이다. 유대주의의 모든 체계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영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도덕적 수준의 법칙은 서로가 동일하다. 그러나 이 법도 유대교에만 특유한 것이라면 그것마저도 기독교의 원리에 병합되어 질 수 없다. 위 비유는 과거 그 당시 전후에 관련되어 언급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 새교회의 원리들은 과거 그대로의 옛 교회의 원리와는 접목되어 질 수 없다. 이전 교회가 지닌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imputation) 방식, 즉 대속죄의 원리는 새교회의 원리와 어울리지 않는다. 기독교 교리라는 이름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교리의 실제의 존재는 중단된다. 주님의 위 말씀에는 우리를 위해 더 많은 실제적 교훈이 담겨있다.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의도한 것들을 의무라는 측면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교회의 진정한 교리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도 가능하다. 낡은 옷은 옛것 내지 타락된 본성 속의 정의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신의 영적 부패함을 덮기 위해 입혀 놓은 도덕적인 가리개 용도의 옷인 것이다. 세상이 지어낸 덮는 옷을 수선하기 위해 낡은 것에 새 천조각을 끼워 넣는 것이 종교적으로 타당할 수 없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 의복을 사야만 한다. 그래야 영적으로 발가벗은 수치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사도들의 정의인 두툼하고 하얀 도포를 입은 영을 찬양하는 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는 도덕적인 편법과 세상적 신중함 따위의 옛 격언이나 좌우명 같은 것들 안에 영적 진리의 새 포도주를 담아서 안된다. 우리가 지니는 새로운 원리들은 이 원리에 적절한 그릇들, 즉 정직, 고결, 신실에 담아야 한다. 이런 그릇에 담았다는 확신이 선 다음 그대로 행할 때만이 우리는 진실된 도덕적 품성 또는 진정한 종교를 지닐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둘 모두가 새로워져야만이 그나마 둘 모두 보존될 수 있다. 위 본문에는 주님의 그 당시 상태와 유사하게 표현된 측면도 있으므로 살피고 마감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새 천조각은 어렴풋하게 보이지만 점점 다가오는 어떤 것, 그러나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천을 뜻하는 바, 이는 그분께서 지금까지 획득해 오긴 했지만 아직 충분한 시련과 시험으로 완전해지지 않은 정의를 상징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정의로 낡은 옷을 깎을 경우 찢어져 더 나빠지고 만다. 포도주의 경우도 위와 비슷하다.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채울 경우 포도주의 발효는 낡은 가죽부대를 터지게 해서 그나마 쓰지 못할 부대로 만들 위험이 초래된다. 포도주를 채움과 포도주가 발효함은 시험을 의미한다. 이 시험을 수단으로 인간은 순수해지고 완전해진다. 이런 두 가지로 표현된 비유가 가르치는 바, 시험은 우리의 원리가 건전한지를 테스트되게 해준다는 것, 우리의 외적 측면이 새롭게 만들어져 새로운 내적 측면의 원리들을 담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련의 때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1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이 회당장은 유대 고관의 일반적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다. 비록 주님을 믿는 마음이 로마 백인대장의 경우같이 뭔가 구별되는 특이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주님이 생명을 부활시키지를 못한다해도 최소한 죽음을 예방하는 권능이 있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는 듯 여겨진다. 영적 측면에서 보면 딸은 선에 대한 애정을 그려주는데 마치 아들이 진리에 대한 애정을 그리는 것과 같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을 헤아려 살피면 딸이 죽어감이란 우리 마음 안에서 선에 대한 애정이 죽어감이고

딸이 죽고 있다고 아버지가 느끼는 이 애정이 납득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혐오하고 있는 애정이 어떻게 마음 안에서 죽어갈 수 있을까? 또는 죽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의 원인이 어떻게 혐오하는 애정을 대상으로 일어날까? 그리고 어떻게 회복을 위해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을까? 복음서에서 본문 같은 경우 즉 질병이나 죽음, 그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이를 치료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경우에서 마음의 두 상태가 표현되어져 있다. 마음이 영적 사항들에 관해 병들어 있거나 죽어가다가 그에 대해 무질서했고 찾아야 할 필요를 마음이 깨닫는 경우가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영적 환난 같은 경우이다. 이 상태는 매우 심한 상태여서 악과 거짓이 애정과 생각을 점령해서 그 안에 있는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을 모조리 사멸시키기에 이르는 경우이다. 이런 싸움터는 악과 거짓이 체류하는 자연적 수준의 마음 영역이다. 거기서 악과 거짓은 선하고 참된 것에 반기를 들도록 마음을 흥분시킨다. 이런 흥분 상태에서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믿음은 내적 인간 속의 믿음인데 거기에는 주님이 이식해두신 천국적인 선과 진리들이 있고 이 안에 주님 스스로 거주하신다. 이 믿음을 생명있는 원리로 삼을 때 이 믿음은 주님의 권능 안에 있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권능은 모습을 드러낸다. 회당장의 믿음이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주님의 손은 그분의 인성 안에 체재하는 권능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권능이 누군가에 의해 받아들여 그 사람 위에 얹어질 때 영적 측면의 모든 허약한 것들이 치료되고 영적 생명이 회복된다.

19.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다.” 영적 측면에서 “예수가 일어나” 이란 우리의 심정 내지 애정 안에서 신성한 사랑이 승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 그분이 일어나시되 그분과 제자들은 “회당장을 따라가셨다.” 예수와 그의 제자란 주님의 사랑과 이 사랑에서 파생된 진리를 영적으로 의미하는 말이다. 주님이 회당장을 따라가심이란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가 보다 수준 낮은 마음 즉 악이 체류하고 있는 자연적 마음으로 유입되는 그분의 하강을 뜻한다. 이럼으로써서 우리 속의 악이 제거된다.

20.21절. 주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시기전 길을 가시는 도중, “열 두 해 동안이나 하혈병을 앓던 어떤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실로 흥미있는 경우인데 그 이유는 여인의 병명 때문이라기 보다는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의 인성으로부터 치료의 효능이

베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대한 것 때문이다. 이 여자가 오랫동안 고통 받은 하혈병이
 란 영적 수준의 사랑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연적 수준의 사랑, 그리고 그 결과 모독이라는
 것까지 의미한다. 이 병의 영적 의미는 그 병의 본성 그리고 성서의 빛 속에서 생각하면
 알 수 있을는지 모른다. 말씀 가운데서 피는 살속의 혼 또는 생명, 생명있게 하는 유동체라
 불리운다. 피로부터 몸의 실체는 파생되고 피를 수단으로 몸은 꾸준히 갱생된다. 그러므로
 피는 사랑이라는 생명을 수단으로 널리 퍼지고, 이로부터 영체가 파생되고 꾸준히 갱생되게
 해주는 진리를 의미한다. 이런 피에 질병이 들어 있는 상태 또는 생명의 흐름이 누수되는
 상태란 진리의 생명인 사랑이 결핍된 상태, 그 결과 영혼이 살아가는 수단인 진리 자체가
 뒤집혀 있거나 사라지고 있는 상태까지 의미한다. 여인이 고생해 온 햇수 열 두 해란
 믿음 속의 진리 측면에서 가득찬 상태를 표현하는데 본문의 경우 믿음속의 진리에 반대되어
 있는 상태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표현하고 있다. 혹 어떤 사람의 경우 이런 질문이
 당연하게 제기 될는지 모른다. 마음의 상태 표현이 위와 같다면 이 여인이 보여준 의심할
 바 없는 믿음과 어떻게 일치될 수 있단 말인가? 주님께 치료받게 되는 복음서에 기록된
 질병 모두는 인간 본성 중에서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의도된 질병들이다. 그 질병 자체에 대해서는 다소 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리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위대한 진리를 보여 주시고저 의도하셨다. 즉 인간 능력만으로 영혼의
 질병을 제거하려 드는 것은 쓸데 없는 일이라는 것, 주님만이 그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것 등등이다. 믿는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참된 말이다. 그러나 그 인간과 더불어 있는 가능성은 주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통해 작동하십시오 악에서 그를 구원하고 그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선을
 선물로 주신다.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치료의 방법이다. 여인의 질병은 그녀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해서 치료된 것이다. 옷자락을 만지자 치료의 효능이 빠져나가 그녀의 건강을
 회복시켰다. 이 여인의 질병은 고질적인 영적 측면의 병에 대한 모형이 되었고 그녀를
 치료하는 수단으로서의 주님의 옷은 구원하는 신성한 매체의 모형이 되었다. 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으셨다.
 그분이 변모하시어 세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빛같이 흰 옷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
 말씀 측면에서 볼 때 그분이 입으신 이 옷은 말씀의 글자적 의미이다. 이 옷의 자락(hem)이란
 말씀의 글자 중 가장 낮은 부분 또는 가장 말단 수준에 속하는 부분 다시말해 가장 단순한

믿음속의 진리나 가장 명백한 삶의 가르침을 말한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 말씀속의 가장 낮은 진리들을 붙잡는 사람도 만일 그의 믿음이 신성 안에서 신실해 있다면 그 진리가 거룩한 매체가 되어 그것을 통해 그 진리 안에 내재하신 주님으로부터 영혼의 건강을 회복해 주는 구원의 효능을 충분히 받게 되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2절.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오리라 생각해서 그 여인이 손을 대자 “예수께서 돌아 서셨다.” 이 여인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주님의 등쪽에서 접근했다. 등(the back)은 외면(external)을 의미하고 얼굴(face)은 내면(internal)을 의미한다. 또한 등은 의지를, 얼굴은 이해성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머리에서 의지를 관장하는 신체 기관인 작은 골은 뒤쪽에 있고 이해성을 관장하는 신체 기관인 큰 골은 머리 앞쪽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주님에 관련시켜 볼 때 등과 얼굴은 신성한 의지와 이해성,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의미한다. 이 여인이 예수의 뒤쪽에서 다가왔음이란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깊이 통감하는 것, 그리고 자기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보아야 기껏 외적이고 희미한 수준의 가르침만을 얻고 있다고 통회하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주님 뒤 쪽으로 다가움이 지닌 또 다른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그분의 지혜나 전능하심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 되어 자기에게 현존하시기를 바라는 것, 즉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그분의 지혜 쪽 보다는 죄를 덮어 주는 그분의 사랑을 더 바라는 상태를 표현한다. 어찌됐든 이는 또다른 완전한 어떤 것을 준비하는 상태에 대한 표현이다. 이 여인이 주님께 손을 대어 그분의 효능이 나가서 치료받았을 때 그분께서는 그녀쪽으로 돌아서셨다. 이는 외적으로만 받던 가르침을 내적으로도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녀의 심정에 영향을 주었던 그분의 사랑에 더하여 이해성에 지혜에 관한 가르침까지 첨가되었다는 말이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는 그 여자 쪽으로 몸을 돌리셨을 뿐 아니라 그 여인을 쳐다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예가 계시록(1:10)에도 있다. 요한이 자기 뒤에서 울려 오는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 말하는 그분을 보려고 돌아섰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우리의 의지안으로 흘러드는 주님의 사랑을 듣게 되거나 그 사랑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이해성도 그분의 지혜에 관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 돌아 선다는 것이다. 이와 똑같은 진리가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다. 본문의 경우 주님 자신이 그녀에게 돌아서시고 있다. 그녀를 보시고 “딸아, 안심하여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사랑스러운 인사 속에는 네 영혼이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는 복된 확증이 포함되어 있다. 주님의 아들과 딸이란 거듭남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한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 들이면 심정 속에 기쁨을 갖게 되고 고뇌 후에도 위로를 받는다. 그분의 진리를 이해성 속에 받게 되면 그의 믿음을 통해 구원하여 건강한 영혼이 되게 하는 능력을 받는다. 이 능력이 실지로 존재하는 것은 건강이 회복되는 순간에 있게 된다. 이 순간을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 여자는 대뜸 병이 나았다.”

23,24 이제 회당장의 딸을 치료하는 사건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 그러나 하혈병을 치료하는 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나 우연히 한 가지 사건에 다른 사건이 끼어 들었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영적 측면에서 성경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한 시리드로 꿰어져 있기 때문이다. 두 사건을 한 개의 마음에 관련시켜 생각해 보면 두 사건의 연결이 보여지게 된다. 한 마음 안에서 하혈병을 앓는 여인은 내적 측면의 애정에 해당되고 회당장의 딸은 외적 측면에서의 애정에 해당된다. 가장 깊은 마음 속에 유입되는 신성이 바깥쪽으로 전진하는데 장애물이 된 것이 내적 측면의 불순함인바 이것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로 표현되고 거기서 치료가 먼저 있어 장애물이 제거되어 순조롭게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마음의 가장 바깥 측면에까지 내려가 그 안에 있는 선한 애정까지 생명있게 회복시킨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러 피리부는 사람과 곡하며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다들 물러 가라...’” 집은 마음을 상징하는데 이 구절의 경우 자연적 수준의 마음을 상징하고 이 마음 안에 있는 선한 애정에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들어 가시고 있다. 주님이 보신 피리 불고 곡하며 떠드는 무리란 인간 영혼에 하느님의 생명 즉 그분의 사랑과 진리가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자연적이고 세상적인 애정과 생각들을 표현한다. 주님이 그런 무리를 보심이란 신성한 진리의 빛으로부터 마음 자체 즉 애정과 생각이라는 참 인격의 발견 즉 선한 애정과 참다운 생각에 그분의 생명이 흐르기 전에 그것의 진로를 방해하는 각종 장애물을 먼저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으심을 보셨다는 뜻이다. 주님께서서는 이 무리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말하신 이유를 이렇게 대셨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 죽음과 잠든 것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글자적 의미보다 더 높은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사항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라자로에 관련해 언급한 줄거리에서 찾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님께서서는 처음에 라자로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신 다음 그가 죽어 있다고 분명히 말하셨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잠들어 있다는 말로 죽음을 뜻하셨다.

그러나 영적 측면의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인간의 생명되는 믿음과 사랑이 소멸되는 것,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해성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애정과 의지 안에 있는 선에 대한 애정이 소멸하는 것이다. 전자의 죽음은 잠들어 있다로, 후자의 죽음은 죽음 자체로 의미되고 있다. 전자는 생명 활동의 중단 즉 폐가 더 이상 작동 않지만 심장을 박동할 때의 경우와 같고 후자는 생명의 완전한 중지 즉 두 기관 모두가 작동이 멈추었을 때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잠들어 있다 라고 말할 경우는 죽었다 라고 말하신 경우보다 죽음이 덜 확증된 상태 또는 더 외적인 상태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녀의 영혼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생명은 완전히 꺼진게 아닌 상태라는 것, 따라서 심정 안에 있는 선에 대한 애정 자체가 죽은게 아닌 잠들어 있다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음을 말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소녀가 죽은 게 아닌 잠들어 있다고 말하셨을 때 사람들이 코웃음만 쳤다는 것이란 단지 자연적이고 세상적인 애정이나 생각들이란 신성한 지혜의 선포를 비웃을 뿐 아니라 부정한다는 것, 더구나 부활에 대한 희망 내지 그에 대해서는 생각조차에도 없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자연적일 뿐인 애정은 이보다 더 수준 높은 애정의 소멸에 슬퍼하면서도 실지로는 그 애정이 소생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

25. “그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간 뒤에 예수께서 방에 들어 가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그 아이는 곧 일어났다.” 사람들이 밖으로 물러남이란 평화를 가져다 주면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주님의 영을 받으려는 것을 방해만 해대는 떠들석할 뿐인 세상적 느낌들이 제거됨을 뜻한다. 소녀로 표현된 영적 선에 대한 애정에 비해 사람들로 표현된 세상적이고 자연적인 수준의 생각과 느낌이 마음의 더 낮은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 구절에 있는 서로간의 관계 자체에서 알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물러가자 주님이 안에 드셨고 바깥에서 떠들던 무리들이 물러 간 뒤에 소녀가 누운 방으로 들어 가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분께서 손을 내밀고 그녀를 잡으심이란 구원의 모든 권능이 거주하는 신성한 인성을 수단으로 새로운 효능은 소녀의 손을 통하여 교통되고 있다. 손은 마음의 최말단 수준을 뜻한다. 이 최말단 수준에서 능력의 모든 것이 명백해진다. 그래서 손을 잡는 모습이란 인성으로부터 오는 그분의 사랑과 진리가 인간 마음의 최하위 수준에까지 내려와 숙박하심으로 생명있게 함을 표현한다. 생명과 움직임은 주님이 건드리신 결과였고 그 결과 소녀는 일어났다. 이 때의 일어남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과거와 똑같은 생명의 상태로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롭고 더 높은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것까지 함축하고 있다. 주님 스스로의

경우에서도 과거 그분에 대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은 완전과 영광의 수준에서 일어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심정에서 다시 일어나심도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26. “이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이 구절에는 마음 전체가 그분의 영향아래 있게 되는 모습, 우리의 선에 대한 애정이 영적 생명을 얻어 더 새로운 영적 선함과 권능의 현존을 인정하는 것, 그 결과 부패된 이기심에 있던 악과 잘못들이 밀려나 죽은 듯 잠든 우리의 이해성이 열려 진리를 지각하는 것까지 함축하고 있다. 이 구절을 거듭나는 인간의 과정에 적용해 본다면 소녀의 죽음은 육체의 경우와 비슷하게 가상적인 악 그 이상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거듭나는 마음이란 새 것을 입는 준비 단계로 옛 것을 벗어 던지는 것, 자기 생명을 내려 놓고 생명을 다시 받는 것, 더 높고 더 영광된 것을 위해 더 낮고 나약한 생명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27. 죽었다는 회당장의 딸을 일으켜 주신 주님께서 이제 소경의 눈에 빛을 주시게 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소경 두 사람이 따라 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울며 말했다.” 불멸의 존재로서의 사람에 관련해서 성경이 눈이 먼 상태를 언급할 경우 이는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는 몇가지 즉 무지로 눈이 먼 상태, 잘못으로 눈이 먼 상태, 거짓으로 눈이 먼 상태인 세가지가 있다. 본문의 경우 무지해서 눈이 멀어 고통받는 상태이다. 단순한 무지란 죄없이 무지한 상태이다. 그러나 성년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있는 무지는 잘못을 저지름, 그 결과 악과 결부되지 않은 무지는 없다. 지식 차원에도 두가지 구분되는 목적이 있듯 무지 역시 두가지 즉 진리 측면에서와 선함측면에서의 무지가 있다. 이 두 가지 무지가 본문에서 소경 “두”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다. 본문의 기적을 앞 구절의 기적과 비교 생각해 보면 의지 안에 있는 선을 사랑하는 애정을 일깨우신 후 진리를 지각하도록 이해성을 열어 주심이 소경의 눈이 떠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기적은 표본적 형태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위대한 목적 중 하나 즉 인간에게 영적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임을 진열해 놓고 있다. 악이 극성을 부림으로 인간의 이해성은 신성한 진리를 지각하는데서 단혀 있었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심정은 신성한 사랑을 받는 그릇이 되질 못했다. 주님의 오심은 봉인된 눈을 여실 뿐 아니라 인간의 심정을 여시게 되었다. 주님이 인간의 신체에 기적을 베푸신 여러 가지 권능의 일들은 그분이 구세주로서 베푸시는 권능과 은총에 대한 상징물이요 앞으로라도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의 영혼안에

서 그와 똑같이 권능의 일이 계속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빛이 눈에 있듯 진리는 지성에 있다. 자연계의 빛을 주심보다 더 위대한 빛의 축복은 영적 빛을 주시는 것이다. 한계가 있는 자연계의 삶 보다 영원히 있을 영계의 삶이 더 가치있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 기적의 사건에서 우리의 시선을 모으게 하는 몇가지 세부사항이 있다. 소경들은 주님을 따라왔다. 이는 그분의 가르침과 본보기를 따르겠다는 것을 영적으로 뜻하는 행동이다. 이 사람들의 꾸준함은 자기들이 간구한 것을 획득하는 수단이 되었음을 본문은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주님의 교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습득한 지식, 진리에 대해 지각된 것 등등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꾸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들이 주님을 따라오되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울며 소리쳤다. 운다(crying)는 것은 애정이 표현된 것이고 외침(saying)은 생각이 표현된 것인 바 이 두 표현은 우리가 그분의 자비를 구할 때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다. 그들이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은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소경들이 이렇게 주님을 부른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자비를 갈망(구걸)했다. 자비란 사랑이 비통해 하여 타락되고 도움이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 가져다 주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적 수준에서는 자비를 요청하고 영적 수준에서는 은총(grace)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자비를 달라고 기도함은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깊이 통감하는 것을 표현함과 동시에 구원해 주셔야만 함을 매우 강하게 바라고 있음을 표현해 준다.

28.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 가시자 그들은 거기까지 따라 들어왔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기에 바빠서 소경의 간구를 들은 척도 해주기 싫으셨는 듯 여겨질지도 모른다. 대체로 주님께서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간절함에 즉각 응해 주셨지만 본문을 포함한 몇가지 사례에서는 그들의 간구를 듣기 싫으신 듯 또는 그 간구에 응하고 싶지 않으신 듯 지체하신 경우가 더러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열정이 부족하다거나 간구하는자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주님이라고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않으리라 본다. 따라서 간구하는 자의 애원 소리에 느릿느릿 대처하는 그분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가 알아 쉰 정도로 느리게 오는 응답,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우 게으른 듯, 무성의한 듯, 마지 못해 주시는 것 같은 응답이 있는 이유는 그분의 의지로부터 진행되는게 아니라

그분의 자비를 받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부터 응답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사랑내지 자비가 지닌 상호성(reciprocal, mutual) 때문이다. 따라서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의 속을 검토해 봄이 가장 빠르게 응답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눈이 멀었으나 눈이 열리도록 자비를 달라고 간구하여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질문에 깜짝 놀라게 되리라.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심정을 뻥히 아시는 주님 앞에서 그분이 던지는 위 질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 믿습니다”라고 심정으로부터 확실할 수 있을까? 주님이 이런 질문을 일부러 던진 목적은 우리의 심정이 알게 하시려는데 있다. 만일 우리가 계발되도록 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지 않았다면, 혹은 신성한 법 안에 내포된 경이로운 것들을 보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또는 그분을 신성한 입법자 되시는 분으로 보지 않고 있다면, 이런 모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현존하심을 진실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소경이 뒤쫓아 왔으나 이 기적의 수행은 집에 들어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께서 집안에 들어오심은 우리 마음에 그분이 들어오심 특히 의지 부분, 더 자세히 말하면 그분이 거하시는 곳인 우리의 선 안에 들어오심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소경이 그분앞에 나아오듯 우리가 그분께 나아감이란 우리 안에서 현존하는 선을 통해 그분과 우리가 교통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때에야 눈이 뜨이는 기적이 수행된다.

29-31.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뜨이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심이란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이해성과 교류하심으로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을 뜻한다. 자연계의 빛이 이 세계의 아름다운 각 종 것들을 인정하는 토로라고 말한다면 영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인정할 수 있게 이해성이 열림으로 이전에 알지 못했고 음미 못했던 가르침의 근원, 그 근원의 아름다움, 그 근원에서 올라오는 기쁨을 밝히 알고 맛보게 된다는 것, 어찌 자연계의 것과 영계의 것은 비교조차 될 수 있을까? “빛이 있으라”는 창세기 1장 3절의 명령과 본문에서 눈을 만지시는 행동에는 똑같은 영적 수준의 생각과 상태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는 덜 놀랄만한 말씀으로 기술해 두셨다. 눈이 뜨이자 “예수께서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 두셨다.” 이 명령은 8장 4절에서 이미 살핀바 있는데 여기서 다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들에 가장 값진 축복을 받게된 이들에게 받은 축복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시고 있다. 이럴 명령 부분에 대한 영적

수준의 의미 파악은 확실히 못한 채 희미한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혼계가 어떤 사람에게는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있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어쨌든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지방에 두루 퍼트렸다.” 입을 다물 수 없다는 불찬성 비슷한 어떤 표현의 기록도 없이 복음서 기자에 의해 왜 이와 같이 기록되었는지는 우리에게 완전히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는 대목들이다. 어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두 소경이 받은 은혜에 그들의 심정이 말하지 않고는 못배길 정도로 북받쳐 올랐으리라는 것과 치료자로서의 주님의 명성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영적 고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신성한 자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애정과 생각이 다 동원되어 온 심정과 지성 모두에 퍼지도록 자극해 준다. 그리하여 그분의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명성을 인정하게 하는 쪽으로 인도해 간다.

32. 두 소경의 눈을 뜨이게 하신 뒤이다. “그들이 나간 뒤에 사람들이 마귀들린 병어리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통상적으로 볼 때 말을 못하는 경우는 귀가 들리지 않는 결과로 비롯될 때가 많다. 신약 성서의 경우가 통상 이에 해당된다. 어쨌든 두 증상이 하나이든 따로 따로 이든 두 질병에는 구분되는 점이 있다. 이를 구분해 살피는 이유는 이것들이 마음의 영적 조건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귀머거리는 유입(influx)되는 통로가 닫힌 것이고 병어리는 유출(efflux)되는 통로가 닫힌 것이다. 받는 것과 주는 것은 두가지 생명의 큰 기능이다. 이것은 저것 없이 온전하게 존재하지 못한다. 병어리는 유출이 장애받은 상태 즉 이해성이 하느님을 영광되게 하고 인간에게 하느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선용을 수행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병어리는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다. 본문외의 다른 성경에서는 병어리 악령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본문과 동일한 기적을 기록한 누가복음 11장 14절의 경우 더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병어리를 고치시는 기적이 소경의 눈을 뜨이는 기적에 이어 기록된 것은 매우 적절하게 사건의 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소경이 예수를 집안에까지 따라와 결국 제 눈을 고쳤던 기적이 의미없는 서술이 아니었듯 소경들이 눈을 고친 후 나간뒤에 병어리가 치료된 것도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이유가 이 치료는 심장속의 생각을 말로 나타내는 능력이 회복되는 것, 시험이나 시련의 압박 밑에서 우리를 점유하고 있는 병어리 악령을 쫓아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시편 기자에 의해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입을 다물고 병어리 되어 가만히 있으려니 아픔만 더욱 쓰라립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오니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으리이다”(39:2,9).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했을 때 즈가리야는 병어리가 되어 있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 있어지는 그분의 거룩한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그분의 이름에 있는 권능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당시 신체의 병을 치료해 줄 때 조차에서도 믿음은 절대 불가결의 요소였다. 하물며 우리의 영적 악을 치료받는데는 얼마나 더 강도높은 믿음이 요구되어야 할 것인지는 상상하고도 남으리라.

33. 어떻게 영적 병어리가 치료될까? 병어리로 만드는 악령을 쫓아 내심으로 가능했다. “예수께서 마귀를 쫓아 내시자 병어리는 곧 말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주님께서 마귀를 쫓아 내셨을까? 그분의 권능만이 병어리 악령에 사로잡힌데서 구원하고 그의 모든 영적 고뇌에서도 구원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 의지가 적극적으로 그분께 협력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구원이 가능하게 하는 불가결의 요소이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자비하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각자의 고뇌를 그분께 가져오는 것은 해결의 절대적 요구 사항이다. 그외 어떤 방법도 자기 심정에 든 악령을 쫓아 낼 수 없다. 우리와 주님의 협동작전으로 건전한 마음 상태라는 은혜를 경험할 때 본문의 병어리같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나의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이 입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시편가사(51:15)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고 즐거움을 듬뿍 담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리라. 마치 입이 다시 열린 즈가리야의 경우같이 되리라. 불신앙과 비신뢰라는 악령을 쫓아 낼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이도록 우리를 자극하여 그분을 섬기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한다. 또 다른 찬양이 기록되어 있다. “군중은 놀라서 이스라엘에서는 처음보는 일이라면서 웅성거렸다.” 이는 자연적 수준의 우리 마음에 있는 애정과 생각 전체가 주님의 경이로운 일을 인정하는데 대한 표현이고 마음 전체가 신성한 사랑의 영향 아래 있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지혜를 지각하는 것, 마음 전체의 질서가 잡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놀란 군중은 “이스라엘에서 결코 보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도 영적 교훈은 담겨있다. 주님께서 과거 결코 하지 않았던 것들을 그분의 영적 측면의 이스라엘에 베푸시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보지 못하는 눈을 여시고 귀머거리의 귀가 경청하는데서 멈추지 않도록, 치료된 기쁨으로 외쳐야 할 것을 병어리 됨으로 중단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지상에 오신 것이다. 인간 본성을 입으심으로 구원의 능력을 인간에게 내려 주셨고, 이는 과거 결코 가져다 주지 않았던 구원의 능력을 더 가깝게 우리가 접할 수 있게 해 주셨다.

34. 이런 밝은 측면 때문에 어두운 측면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주님의 경이롭고 은총으로 가득찬 일에 군중은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한편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마귀 두목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 낸다’고 말하였다.” 주님의 능력을 자연적 수준에서 추적하여 제 나뭇대로의 철학적 차원에서 정리해 그 힘이 악마적인데서 비롯됐다고 말하는게 비정상적이지는 않는 듯 보일는지 모른다. 자연적 수준의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논쟁을 끌어간다. 그리고 신성을 부정할 수 있게 하는 바 초능력의 권능도 자연적 현상의 하나로 간주해 버린다. 따라서 그들은 종교의 높은 주장을 웃어 넘기고 드높은 하늘의 은혜까지도 값없게 만든다. 가끔 학식있다는 사람들조차 신성한 권능에 대해 자신들의 헛된 철학을 가지고 쓸모없게 하지만 상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본문의 군중같은 사람들은 단순한 증거나 평범한 사실만으로도 올바르게 판단한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조소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이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성경 부분에서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 낸다면 그 나라는 갈라질터인데 어떻게 그 나라가 유지되겠느냐?”고 간단히 언급하시어 위의 경우를 반박하시기도 했다. 아마 서로 갈라지게 하기 위해 사탄이 우리 심정안에 들어갈는지 모른다. 마치 본문에서 똑같은 기적을 목격하고도 군중은 찬양했지만 바리사이파 사람은 부정한 것과 같다. 천국의 영향이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도록 우리의 선한 애정을 일깨울때면 언제든지 어둠의 왕국에서 오는 반대적인 영향력도 들고 일어난다.

35.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이 구절에 대한 의미 파악은 아마 잃은 것을 찾아 주기 위해 오셔야만 한다고 자극한 창조물에 대한 구세주의 사랑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실감하기 힘든 단순한 서술일는지 모른다. 죄로부터 정의로 돌아서게 노력하시는 그분, 허약한 몸으로 질질 끌려 다니게 하는 각종 질병을 치료하심, 무엇보다 먼저 각 사람의 영혼에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영적 건강이라는 것을 위 구절은 상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위 구절이 담고 있는 영적 측면의 의미나 교훈은 단순한 역사 사실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바 조금은 살펴야 하리라.

가장 높은 측면에서 볼 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영혼의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시고 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영을 수단으로 받고져 준비된

마음들을 두루 돌아 다니시며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시고 있다. 그분이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심이란 그분 자신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신성한 진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어 습득한 우리의 지식 안으로 들어가 교리라는 체계를 안팎으로 두루 세운다는 말이다. 회당에 들어가시고 복음을 선포하심이란 그분의 신성한 진리가 말씀에서 획득한 진리 안으로 들어가 어느 수준이든 영적 빛으로 이해되어 이를 통해 천국적인 진리의 선, 즉 하늘 나라의 복음을 지각하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결과 우리 마음은 큰 기쁨의 소식과 교류하게 된다. 구세주로서의 주님이 내면의 마음에 받아 들여지면 다시 외면의 마음으로 나가 그 마음까지 질서있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질병이 낫는 것 즉 모든 악과 거짓이 제거 된다.

36. 그분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은 어디에서든 여러 계층의 군중이 있었다. “또 목자없는 양과 같이 나약하여 허덕이는 군중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 군중을 우리 영혼에서 찾아보면 그것은 우리의 자연적 수준의 상태와 조건들이다. 이를 좀 더 세세하게 구분해 본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이해성을 점령하고 있는 무질서한 애정과 생각속의 무수한 원리들을 뜻한다. 이렇게 배열 안된 무질서한 상태들이 “나약, fainting”하다고 표현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히 표현하면 고삐풀린 상태 즉 “사방으로 흩어진” 상태이다. 영적 의미에서 “나약함”은 의지속의 애정 측면을 특별하게 언급하는 것이고 후자는 이해성에서 파생되는 설득력, 자기 신념 등등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약하여 허덕이는 군중”이란 신성한 사항에 무관심해 있는 자연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마음 상태 다시 말해서 위대한 생명의 근원, 인간의 영적 측면과 결합되어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도 않고 있는 마음 상태 그래서 제 애정과 바람이 정작 바래야 할 진정한 목적물인 영원히 있을 선함과 의 연결이 풀려 있는 상태이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 오류나 탐욕이라는 악이 침범할 경우 금방 먹히고 만다. 그 이유는 영원한 진리와의 결합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우리에게 더 나은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 아무리 하느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보면 측은해 하는 동정심, 자연적 수준의 겸손같은 것은 상존하고 있다. 사실 자연적 수준의 겸손이나 동정심은 자신의 과오나 결점을 감지하는데는 그 힘이 부족한 편이어서 자기의 이기심이 불끈 일어날 경우 제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기심이라는 악이 잠든 상태에서는 그의 선한 경향성이 활동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본문에서 양에 빗대어 말해지고 있다. 말씀 전체를 망라해 볼 때 양은 이타에라는 원리 또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문과 같이 목자가 없어 방향이 없는 상태로 양이 표현되고 있을 경우는 자연적 수준의 선한 애정들, 비록 순수한 진리를 이 애정이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진리와의 직접 연결이 없는 상태, 그래서 쉽게 악에 물들 수 있는 선한 애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의 심정 상태가 위와 같다 해도 위로 받는 한 가지는 있다. 우리의 이기심이 주는 충동에서 탈피하기를 바라고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바라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런 바람을 발판으로 거기에 그분의 진리를 각자 수준에 맞게 이식하시어 우리 행동에서 작동되게 하신다. 동정심의 발동은 불쌍하다고 생각드는데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처지가 불쌍하다고 감지할 때면 언제든지 하느님의 동정이 일어 나는데 이는 우리를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이런 상태가 본문에서 “예수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라고 기술되고 있다. 왜냐하면 동정 자체이신 그분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은 언제나 인간을 동정하신다. 하느님의 기분을 기록한 성서 구절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인간의 기분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분의 동정을 우리가 감지 할 때가 본문에서 “예수께서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로 기술된 것이다.

37. 위와같이 되면 우리는 천국적인 축복의 가치를 감지할 수 있게 되고 축복의 거주지인 영적 사항들에 애정을 느끼게 된다. 이런 상태가 주님의 말씀 “추수할 것은 많다...”에 함축되어 있다. 제자들이란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집합적으로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말씀속의 진리를 수단으로 해서만 영적 가르침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는 삶인지를 확신하려면 말씀속의 진리 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추수는 우리 안에서 심판이 거행되어 천국적인 것과 지옥적인 것의 분리가 일어나 선과 진리가 정착되고 악과 거짓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듭나는 삶의 마무리도 뜻한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노력과 싸움이 실지 요구된다. 이 싸움은 성경에서 묘사하는 일꾼이라는 것, 말씀에서 파생되는 진리를 수단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이런 진리들이 습득되 기억 안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추수라는 일을 마무리 하는데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 이 모습이 본문에서 “일꾼이 적다”로 표현되고 있다. 이를 다르게 설명해 보면 진리들이 적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습득한 진리가 적으면 추수라는 일을 마치는데 부적절하게 된다. 이렇게 진리가 우리 마음에 적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이기심의 영향밑에서 너무 많은 세월을

소비했기 때문이다.

38.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신다.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 하여라.” 이는 우리가 자아에 의존했던데서 주님에게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시고 있다. 또한 수확물이 그분의 것이요 일꾼도 그분의 것인 바 그분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까지 말하고 있다. 우리는 말씀속의 진리로 수확물을 거둬들여 밀과 가라지를 분리하는데 그 수확물과 그 수단 모두가 그분만으로부터 존재할 것임을 인정해서 그분의 것으로 돌려야 한다. 이럴 때만이 그분의 은혜가 풍만한 수확물을 거둬 들이는 중요한 작업을 완벽히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 마음의 내면은 계속적으로 그분을 향해 있어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모두 받도록 열려 있어야 하리라. 이것을 경건하게 인정할 때 이 인정함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주님만이 추수의 주인되신다는 것, 천국의 모든 축복은 그분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인간 마음 안에서 선과 악을 분리 하는 일, 선은 확증해서 내것되게 하고 악은 던져 버리는 작업 조차 그분만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까지 인정하게 된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내면에서 우리나라와 드리는 기도요 주님 스스로 호응하시어 응답하시는 기도이다. 우리 마음의 내면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계속 기도하되 그 기도가 시들지 않으면서 동시에 말씀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습득하고 습득된 진리를 사랑하여 실천해 간다면 그 진리는 주님의 수확철에 충실한 일꾼임이 입증되어 밀은 곡간에, 가라지는 뿌리째 뽑혀 던져져 그분의 왕국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건설되어 더 없는 행복을 누리리라.

10

제 9장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선포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마감되고 있다. 본 장은 양떼의 목자요 추수의 주인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분의 교회에 영혼을 불러 모으는 위대한 전도 사명을 주어 파견하시고 있다.

1.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부르셨다.” 열 둘이란 교회를 구성하게 되는 인간의 심정과 이해성에 있는 사랑과 믿음 또는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원리를 표현하는 숫자이다. 이런 천국적 품위와 영적 측면의 원리들은 그분께서 밝히 알게 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파생된다. 따라서 열 두 제자란 말씀 속의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말씀속의 선과 진리를 삶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의 구원하시는 권능이 발휘된다. 이러한 열 두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악령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그분의 종들을 자비의 사역에 파견하실 때 주님께서 몸소 행하셨던 것들을 행할 권능을 주신 것이다. 이 권능은 그분께서 아버지로부터, 즉 그분 안에 계신 신성으로부터 파생된 인류의 행복을 위해 발휘되었던 힘이다. 사실 제자들에게 수여된 병고치시는 능력은 주님안에 존재하는 능력과는 아주 다르다. 제자들의 능력은 그분의 이름으로 발휘되었다. 이 이름은 구세주의 신성한 인성을 표현한다. 이 이름은 유한한 매체밖에 안되는 곳에 존재한 권능이었다. 다시말해 그들이 노력하는 결과는 각 개인이 이미 소유해오던 것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 이유가 각 제자는 표현적 수준의 특성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제자가 표현하는 특성들은 말씀 안에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원리요 이 원리가 진정한 주님의 사도이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심을 영적으로 볼 때 이는 말씀 속의 선과 진리를 매우 친밀하게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끌어 당기시어 인간 영혼을 거둬나게 하는데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새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본문과 위에서 말한 설명은 인성으로 계신 주님과 관계된다는 점을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합당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육을 입으신 뒤 영화하셨을 때 영원한 말씀과 씌어진 말씀 사이에는 더욱 친밀한 관계가 건설되었다. 그래서 영화하시기 전에는 발휘된 적이 없던 말씀의 진리의 힘이 영화하신 이후에는 인간에게 나누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주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어 체류하시는 동안 인간 삶의 모든 상태를 통과해 가셨다. 특히 그분은 인간 차원에서 말씀속의 진리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셨다. 그러나 이 지식은 가상적인 진리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거둬냄에서 진리의 수준을 승강시켜 가듯 주님도 영광을 입으시는 쪽으로 진리를 승강되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과거 획득해 놓으셨던 진리를 불러 모으시어 승강시켜 가상적 수준의 진리 하나하나가 그 수준을 계속 벗게 하셔서 결국 순수하게 신성한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

해 가셨다. 진리가 씌어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수준,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통과해 가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거꾸로 그대로 내려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영광을 입으신 단계를 통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져 거룩한 말씀 속의 진리를 인정하는 각 사람의 마음 안에서 악령을 제어하고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허약함까지 고쳐질 수 있게 되었다. 말씀속의 진리를 부르시고 이 진리가 악과 거짓을 제어하도록 능력을 주심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거듭나도록 역사하신다. 다시말해 진리들이 말씀으로부터 획득되어 기억 안에 맨 먼저 저장된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이 진리들을 하나씩 부르시어 그분께 더 가까워지게 승강시킨다. 이 진리들이 승강된 만큼 이 진리들은 그 사람의 마음과 삶 모두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부여 받는다. 몸에 해당되는 교회 역시 여기서 예외는 아니고 이것이 제자들로 표현되고 있기도 하다. 무질서를 교정하고 세상에 질서를 소개하기 위한 교회의 능력 척도는 교회의 원리가 얼마나 순수한가라는 추상적 수준에 달려 있는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의 심정과 지성속에서 그 원리가 실지로 얼마나 높이 승강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2-4. “열 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사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한 이유를 생각해 보기에 앞서 그 이름들의 일반적인 배열에 관해 몇가지 짚어 보아야 할 게 있다. 이미 거론했던 바와 같이 사도들은 넷씩 세 그룹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분류는 열 두 사도의 이름이 시리즈로 기록된 세복음서 모두에서 공통되는 점이다. 이를 도표로 살펴보기 위해 아래에 모아 놓았다.

마태 10:2	마가 3:16	누가 6:14
1. 시몬과	1. 시몬과	1. 시몬과
2. 안드레아,	2. 야고보와	2. 안드레아,
3. 야고보와	3. 요한과	3. 야고보와
4. 요한,	4. 안드레아와	4. 요한,
5. 필립보와	5. 필립보와	5. 필립보와
6. 바르톨로매오,	6. 바르톨로매오와	6. 바르톨로매오,
7. 토마와	7. 마태오와	7. 마태오와
8. 마태오,	8. 토마와	8. 토마,
9.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9.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9.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10. 타대오,	10. 타대오와	10. 혁명당원 시몬 과
11. 가나안 사람 시몬과	11. 가나안 사람 시몬과	11.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12. 가리옷사람 유 다	12. 가리옷사람 유 다	12. 가리옷사람 유 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 기록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세 그룹 측면에서는 일치하고 각 그룹의 첫 이름은 같은 사도들로 시작되고 있다. 말씀 안에는 우연한게 전혀 없듯 세부적인 차이를 지니면서도 전체적으로 공통되는데에도 의미와 의도된 목적이 있을 것은 분명하다. 사도들은 말씀과 인간의 마음 내지 교회 안에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원리를 표현하듯 세 그룹이라는 배열은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의 세 수준 즉 자연적, 영적, 천적 수준의 질서를 표현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구별과 유사함도 있다. 열 두 사도의 이름이 거론될 때 복음서 기자들에게 일치했던 것은 시몬을 첫째에, 가리옷 유다는 마지막에 배열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알 수 있듯 두 사도는 한쌍으로 배열되고도 있다. 마가 6장 7절을 보면 이 순서로 주님께서서는 사도들을 파견하시고 있다. 마태복음에서 사도들을 짝지어 보낸 서술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둘씩 짝 지음”이란 선과 진리는 서로의 짝이어서 모든 선은 그 선에 걸맞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진리는 그에 걸맞는 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둘은 비록 유한한 그릇 안에서 나뉘어질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주님으로부터서는 언제나 하나된 상태에서만 진행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짝지어 열 두 사도가 거론된 것은 각 쌍이 표현하는 원리의 품질을 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그 이유가 고대 시대 때 이름이 주어진 것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함 보다는 당사자의 특성 내지 어떤 사물의 특이한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의 연결을 추적하기 위한 공부를 생각해 본다면 각 이름이 주어지는 부분과 그 이름이 지닌 영적 의미를 파악하면 효율적이고 값진 탐구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위에 열거된 사도들의 이름에 관해서는 Noble의 「Intellectual Repository, 1839출판」에서 어느 정도나마 탐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줄 믿는다.

5.6. “예수께서 이 열 두 사람을 과견하셨다.” 인간의 영적 발전내지 거듭남에 관련시켜 열 두 사도를 부르시어 과견하시는 주변 여건은 한 인간의 마음이 선과 진리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상태, 또는 말씀 속의 진리들이 충분히 저장되어 있고 이 진리들이 내적 인간의 애정과 적절하게 하나되어 주님과 결합으로 능력을 부여받아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이 상응하도록 외적 측면에 내려 올 준비가 완료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사도들에게 내리시는 분부사항은 사도들로 표현된 원리들이 작동하는데 근거가 되는 질서의 법칙이요 이 법칙에 따라 움직여 가면 가장 확실하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중의 길 잃은 양들을 찾아 가라.’” 위 구절의 사항을 글자대로 고집해 생각한다면 이상한 구절이 되고 만다. 주님의 통치는 유대인의 세계에만 국한 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분은 교회가 유대인에 한정된 상태에서 벗어나 이방인에게도 그분의 교회에 입장하는 특전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사도들의 노력이 위와 같이 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은 오로지 매우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뿐인 바 글자적인 생각은 편파적인 차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세상에 나가 온 누리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 구절을 개인이 응용하는 측면 내지 영적 수준의 의미에서 살펴야 하리라 본다. 이런 측면일 경우 사도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이스라엘인들은 우리가 지닌 어떤 원리, 능력, 자질에 모두 관계되는 말들이다. 이미 살핀바 대로 사도들은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작동되는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원리들, 이 원리들이 천국의 품위로 완전히 전환되어 있는 것, 그리하여 인간 전체에 이 원리가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이방인들, 이들이 나쁜 측면 내지 이스라엘에

적이 되어 언급될 경우 그들은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 소속된 악들을 의미하게 된다. 말씀속에서 악이 취급될 경우 거짓도 통상 취급되고 있다. 사마리아인들, 이들은 과거 아시리아왕이 이스라엘 왕국 열 지파를 포로로 끌어가고 텅빈 사마리아 지역에 강제로 이주시킨 사람들의 후손들인데 이들은 유대교의 썩은 형체를 섬겼는바 그들은 인간 이해성이 쉽게 물들고 마는 왜곡된 모든 감정(sentiment)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해 생각해 보면 사도들을 향한 분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란 원래 악에서 근원되는 것인 왜곡된 감정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라”란 거짓 원리에 근원을 두고 있는 어떤 교리도 지지하지 말라는 뜻이다. 위 사항이 천국의 원리라고 이해되어진다면 왜 이런 금지 사항이 있어야 할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으로 표현된 의미가 좋은 측면일 경우 올바른 코스나 모습을 떠나 악하고 거짓된 어떤 것으로 그 자체 스스로는 바뀔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원리들은 무르디 물러 자칫 타락하기 쉬운 창조물 안에 있을 경우 그것들은 쉽게 뒤바뀌어 아예 거꾸로 되고 말 때가 많다. 마치 성경의 많은 진리들이 순수한 기독교의 원리에 불일치되는 죄 내지 실지 사건으로 탈바꿈되는 경우와 같다. 따라서 위 명령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방향설정 즉 하늘의 선물이 더럽혀지거나 남용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의 선물, 천국의 원리들은 우리의 애정과 생각이 제 아무리 변화무쌍하게 움직여도 그속에서 언제나 거룩한 채로, 원래의 순수함 그대로 오점하나 없이 존재해야 한다. 우리의 심정이 험사리 좋아하는 악한 어떤 욕망을 천국의 원리도 좋아하는 듯 여겨지게 하거나 우리의 지성이 선뜻 왜곡된 어떤 추론을 지지하는 듯 나타나게 해서 는 결코 안된다. 우리의 의무는 이방인들의 길로 가면 안되고 사마리아의 도시에도 들어가면 안되고 “단지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을 찾아 가는” 것이다. 영적인 사도 즉 말씀에서 획득해 우리 속에 들어와 현존하는 선과 진리에 관한 원리들은 우리 영혼의 빼뚫 것을 바로 잡아 주는 바 이 원리들이 선함쪽에 가담하고 있는 우리속의 모든 것을 순수하게 하도록 흡모되어져야 한다. 넓은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은 진정한 교회의 모든 멤버를 뜻하는데 세부 측면에서 그들은 교회를 구성하는 품위들이 들어 갈 수 있는 마음의 모든 원리나 자질을 뜻한다. 양은 선함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타애(charity)라는 원리를 성경에서 언제나 상징해 주고 있다. 그 이유가 순수한 이타애는 영적 수준의 사랑에 대한 애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애정은 인간이 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랑한다. “이스라엘 가문의 모든 양”이란 인간 안에서 교회를 구성해 주는

원리와 근친 관계에 있는 모든 선이나 이타애에 대한 애정을 말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양은 “이스라엘 가문의 길 잃은 양”이다. 이는 순수하지 않은 상태여서 순수한 진리와 하나되지 못하고 있는 이타애에 대한 애정들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는 순수한 진리로 인도받거나 순수해짐이 없는 바 이런 이타애에 대한 애정은 눈먼 자연적 수준의 애정이어서 쉽게 엉뚱한데로 끌리어 가고 극한적으로는 비통할 만한 악 속에 파묻히고 만다. 사실 진리는 선을 지키는 자, 양떼를 지키는 목자와 똑 같은 바 진리의 인도가 없으면 울타리를 벗어나 흩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 빠진 길 잃은 양은 복음의 소식을 통해 교정되어야 한다. 자연적 수준에 있는 애정들은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발산되는 순수한 선함과 진리를 말씀의 가르침을 매개체로 해서 그분의 생명을 흡입하고 교통을 갖게 됨으로 영적 수준의 애정이 되어 간다.

7. 사도들을 파견하시되 그들에게 말하신 첫 사항은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선포하여라”는 것이다. 복음의 이런 첫 전도 내용은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사항인가! 인간 거듭남의 시작은 이 소식 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 더구나 천국적 삶에서 영혼의 모든 발전 과정 역시 이 소식 밑에서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알게 하시고 있다. 사도들의 전도란 주님의 말씀 속 진리가 인간 마음에 그려놓는 감명을 뜻한다. 이 감명이란 우리로 믿음을 하고야 말도록 재촉하는 영향력을 동반한 직관과 지시받음이다. 이 감명은 영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눈이 떠진 사람, 진짜 행복은 영원히 있을 자신의 모습이라는데 마음의 눈이 보게 되어 무엇보다 먼저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고 부름받고 자극받은 사람에게 의해 느껴진 것을 뜻하는 단어이다. 이 감명의 내용은 그 사람의 애정과 바램이 동반되어 말씀으로부터 읽고 듣고 배운 진리들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감명받은 영혼은 자신의 영원한 구원이 설비되는 것임을 꾸준히 상기하면서 그의 삶이 계속 되어간다. 그러므로 순수한 전도의 꾸준한 주제는 “하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하늘 나라란 하느님의 진리가 통치하는 정부, 즉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사랑과 하나되어 통치하는 정부, 마치 천국으로부터 인간 마음 안으로 사랑과 지혜가 흘러드는 질서로 이루어진 정부이다. 이 왕국은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통치해 오던 천국 자체이고 천사에 의해 이 나라가 받아들여질 때 이 나라는 실지의 천국이 된다.

8. 이 좋은 소식은 선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말씀을 수단으로 교통되는 천국의 품위 또는 영적인 사도는 우리에게 이롭게 작용하도록 위촉되어 있다. 즉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 그 유익한 행동이 “앓는 사람은 고쳐 주고 나병환자는 깨끗하게 해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고 마귀는 쫓아 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명령안에 담겨 있다. 위의 나쁜 것들은 만일 우리가 해결하고자 사도의 도움을 원한다면 사도의 선교로 구원받게 되는 것들이다. 우리가 위 사항에 대한 것들을 눈치 채든 그렇지 못하든 만민이 도움을 받아야 할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는 우리가 한탄할 수밖에 더 재간이 없는 재난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출생과 유전적 상속으로 병들어 있고, 나병환자이고 죽어있다. 죽어가고 있을 경우 이는 죽음보다 더 나쁜 생명을 호흡하는 상태이다. 그 이유가 우리는 악마에 의해 소유당한 상태로 악마의 활동 무대를 제공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재난들은 인간의 이기적 본성 또는 출생할 때 존재한 그대로인 자연적 수준의 마음과 꼭 같은 상태를 총괄해서 묘사하고 있다. 위 본문의 “앓는 사람”을 직역해 보면 약함, 우유부단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자연적 수준의 인간은 그 수준의 마음 안에서 지배하는 썩은 것 때문에 선한 모든 것에 관해서는 약하고 무르디 무른 상태여서 악에 저항하는 힘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인간 본성이 지닌 자연적 수준의 경향성 내지 인간적 신중함만이 자신을 끌고 가도록 스스로 허용한다면 악마가 단 한번 공격해도 백기를 들게 된다. 결국 자신이 좋아해서 악마에 노예가 되고 만다. 그래서 인간 고유의 것들은 나병이라 불리는 자연적 수준의 상태안에 존재한다. 그 이유는 타락된 썩은 것들 때문에 그는 진리를 뒤집고 모독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8장 2절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나병이라는 참혹한 질병은 신성모독을 표현하는 질병이다. 자연적 수준의 인간을 두고 성경은 죽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 사람은 모든 영적 수준의 생명이 결핍되어 있어 감각이나 그 본성 자체로만 살아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하나님과 천국에 관한 자연적 수준의 상태 자체만을 들여다 보면 그것의 진짜 품질은 단지 악이고 거저된 감정들 뿐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볼 때 인간이 사랑하는 것이 그 인간의 생명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구성하는 것, 그 사람을 통치하게 되는 사랑(ruling love)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곳으로부터 오고 있다. 만일 그의 사랑 또는 생명이 단지 자연적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래서 약해 있다면 그의 생명은 어둠의 나라와 연결을 이루고 있는 바 그는 지옥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악마의 군사일 뿐이다. 사실 악마라는 단어는 악한 욕망으로부터 튀어 나오는 왜곡된 추론을 생명으로 삼는 악한 영들을 뜻하는 말이다. 이상 설명한 것들은 심정을 아시는 분에 의해 보여진 인간 본성을 어느 정도나마 살핀 것이다. 이분이

보신 인간 속에 든 것, 지옥에 쉽게 사기당하는 연약함, 그 결과 지독하게도 사악해 있는 인간 본성을 우리는 얼마라도 느껴 보아야 하리라. 구원 받아야 할 우리의 악 조건에 대한 모습은 주님만이 초상화 하실 수 있는 바 그분 만이 올바르게 고쳐 주실 수 있다. 우리가 자아 속에 있는 고질 병을 고치겠다고 애쓰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특사를 파견해 주시어 건전한 상태, 진정 즐거운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분께서는 이미 그분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안에는 각종 병에서 구원되는 길이 열린채 놓여 있다. 게다가 그분께서는 말씀속에 있는 하느님의 진리들을 받는 자질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말씀이 인도해 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그분 자신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그 말씀에 동반된다. 이것이 그분께서 부패된 속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파견하는 살아 있는 적극적인 사도들이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회복되어 간다. 그분께서는 위와 같은 사도들에 “얕는 이는 낮게 하고 나병은 깨끗하게, 죽은 사람은 살아나게, 악마를 내쫓는” 힘을 부여하신다. 이런 사도, 말씀속의 진리를 수단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에 저항하는 힘과 진리를 모독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받는 힘을 얻어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 자아가 자연적 수준에 있는 썩은 상태라는 죽은 것들로부터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일어난 우리는 이제 죽은 것을 산 것으로 착각하게 한 지옥 세계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9.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더 분부하시기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 구절의 의미는 한마디로 자신의 것과 주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섞지 말라는 말이다. 금, 은, 동은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랑과 선함의 세 종류 내지 세 수준을 말한다. 금은 가장 높은 수준인 순수한 사랑 또는 선함을 표현하는 바 주님을 사랑함이다. 은은 순수한 영적 진리를 표현하는 바 그 자체는 이웃을 사랑함이다. 동(구리)은 자연적 선을 표현하는 바 이는 순종으로 생산되는 선이다. 위 세 수준을 달리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타애, 믿음, 선한 일이다. 이 세가지를 지갑(전대)에 넣는다는 것은 위 세가지의 근원이 되시고 또 그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게 아니라 자기로부터 근원되었고 자기 고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의미도 우리에게 알려준다. 지갑(purse)은 우리의 자질 중 하나인 기억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 은, 동을 지갑에 넣고 있다”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 이타애, 믿음, 선한 일에 관한 원리를 자신을 소생시켜 생명있게 하는 원리로서 인정하지 않아 기억속에만 담고 있는 상태도 뜻한다.

10. 더 분부하신다. “여행을 위해 자루나 여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이 자루(scrip)는 식량을 담은 자루이다. 사도들에게 돈 뿐만 아니라 양식, 여벌 옷을 지니지 말라고 분부하신 것이다. 양식은 영혼을 지탱시켜 주는 선을, 옷은 영혼을 보호하는 진리를, 지팡이는 영혼이 기대어 편하게 해주는 최말단의 힘을 상징하는 표현물들이다. 이 구절에서 지니지 않아야 할 세가지 것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양식, 옷, 지팡이(신발)는 의지, 이해성, 바깥쪽 삶을 표현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금지 사항은 우리의 안쪽 삶이든 바깥쪽 삶이든 그 삶들을 보살피는 것들은 어느것도 자아로부터 파생되는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으로부터서만 공급된다는 것, 따라서 그분이 내리시는 선물과 품위들을 자아의 것과 섞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글자대로의 해석을 시도한다면 복음의 전도자인 그 당시의 사도들에게 크게 부각될만한 명령이 못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살핀바와 같은 영적 측면의 의미에서는 위 간단한 명령이 모든 기독교인에게 정녕 필요한 것, 더 이상의 어떤 금지 사항도 이 명령에 버금가지 못할 정도의 교훈으로 충만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가르치신다. “일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영적이고 천국에 속한 것에서의 노동은 그 자체가 보상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선을 획득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통로는 선용(use)이다. 그래서 주님 스스로 이렇게 증거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11.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도들에게 이런 규칙이 첨가되고 있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고장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거기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에서 언급되는 도시란 교리를 뜻한다. 그 이유가 교리는 가장 확실한 진리들, 또는 마감을 지어 결말로 간주된 일반적인 원리들을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원리안에 있는 구분되는 각각의 모든 기능들은 마치 우리가 집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 마치 튼튼한 성벽으로 된 도시 안에 있는 각 집들이 안전하게 보이는 것과 같다. 도시와 마을이 동시에 언급될 경우 도시는 원리중에서 내면에 속한 것 또는 서열상 제일에 속하는 원리를 말하고 마을은 상대적으로 외면에 속하고 서열상 제일가는 원리를 뒤따르는 원리들을 뜻한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는 지성 자체 또는 지적인 기능을 상징하는데 이 안에는 살아 움직이는 주민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애정과 생각들이 담겨 있다. 사도들이 가야 하는 곳이 이런 도시요 마땅한 것, 가치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지성 자체에 국한해서 이해해 본다면 우리의 원리들은 교리와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그 원리에 걸맞고 가치있는 형체를 체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다. 이를 더 세밀히 분석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거룩한 진리와 선함들을 우리의 안쪽 인간으로부터 바깥쪽 인간으로 가져다 놓으려 할 때 이 거룩한 진리와 선이 과연 거룩함에 합당할만한 가치있는 애정과 생각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거룩한 것들에 천국적 품성이라는 거처를 제공하고 있는지, 거룩한 품성이 핵심이 되어 바깥쪽 삶으로 그 영향력을 뻗어 갈 수 있도록 준비되었는지 알기 위해 자신을 검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셀수없이 복잡하게 얽혀 담긴 우리 마음안에 있는 것중 누가 “마땅한 사람,” 어느 원리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모든 인간 마음 속에는 하느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한 증거들을 담아 놓으시고 있다. 땅에도 좋은 땅 나쁜 땅이 있듯 심정 안에도 좋은 바탕이 최소한도의 얼마간은 존재한다. 그렇다고 이런 선한 바탕은 인간 스스로 출생시부터 소지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천국의 선과 진리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니게 되어 있는게 섭리이다. 이런 자질은 유아기와 어린 시기가 순진속에 있는 동안 그 영혼위에 신성의 역사로 형성되어지고 형성됨과 동시에 하느님의 영에 의해 보존되도록 섭리된다. 이렇게 해서 내면이든 외면이든 인간 마음속의 원리나 자질 안에는 주님께 속하는 어떤 것이 존재해 있다. 인간 마음의 모든 부분은 본래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하지만 그 마음들이 변질되고 잘못 사용되어 왔다. 사실 마음의 각 부분은 모두 제각기에 합당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타당한 용도안에 주님은 현존하실 수 있고 그분의 사도들이 영접 되어진다. 인간 마음 안의 “마땅한” 자질, 가치있는 자질은 본시 창조 때 수여된 기능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뿐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육체이든 영체이든 각 부분은 그것에 합당한 용도를 가지지 않은게 하나도 없다. 엄밀히 보면 어떤 악이라도 인간 자체가 범했다기 보다는 그 사람에게 위탁된 권능의 발휘가 보다 고상한 목적에 충당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본래 선하도록 되어있고 거기에 알맞는 용도가 부가된 어떤 것이 뒤집혀 있다 해도 본래의 용도가 인간에 의해 합당하게 여겨지면 곧바로 마음 속 자질들은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질서잡힌 우리의 자질들이 사도라는 천국에 속한 원리의 거처이다. 그러면 원리와 자질은 서로 힘을 모아 그 인간의 영원한 복지를 위해 정진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떠날 때까지 우리의 자질 속에 머무른다. 사도들이 머물게 되는 이런 거처는 선한 상태, 그리고 이 거처 안에서 선을 확증하는 상태와 언제나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떠날때까지 거기에 머무른다는 의미란 천국적인 원리들은 그 원리가 머물게 된 그 사람의 자질들이 선한 상태로 완전히 고정되어서 그

상태가 선한 행위로 이어질 때까지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선은 마음의 어떤 자질 안에 틀어 박혀 있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인간 삶이라는 바깥쪽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통과해가게 되어 있고 통과하는 어느 곳에서나 신성한 스승의 뜻을 행해야 한다.

12. 그분의 명령이 이렇게 이어진다.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인사하여라.” 도시가 마음의 지적 부분과 상응 관계를 지니듯 집은 마음의 의지 부분과 상응 관계에 있다. 인사(salute)란 선함과 진리에 관한 거룩한 원리들이 의지속 애정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탐험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의 경우 “평화가 이 집에 있기를 빕니다!”라고 인사말을 하도록 분부되고 있다. 복음서의 이런 인사는 이 얼마나 천국적이고 복된 인사인가! 정녕 그렇다. 평화는 복음의 목표요 소원에 해당된다. 평화는 복음이 널리 퍼져야 하는 이유이요 복음의 영에 해당된다. 마치 천국의 원리가 인간 마음 안으로 흘러들 듯 천국의 원리는 그 자체와 더불어 평화라는 천국의 기운까지 가져다 준다. 주님의 교리들은 빗방울 같이 떨어지고 그분의 언어는 아침 이슬같이, 작은 빗방울이 연약한 목초 위에 떨어질 때 같이 스며든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평화롭고 온화하고 온유하다. 이 지혜는 평화라는 메시지만을 가져다 주고 마는게 아니라 평화라는 답을 받기를 바래기까지 하고 있다. “그 집이 가치가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내릴 것이다.” 누가복음(10:6)의 경우, “그 집에 평화의 아들(후손)이 살고 있다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 생각해 보면 받아질 천국적 평화는 받게 될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이미 평화라는 씨가 담겨 있어야 하는게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존재해야 할 요소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자주 지적해 온 사항이 있다. 주님께서 거듭남의 근원되시는 분으로 인간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이미 시작되어 왔던 일을 완성하시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다시말해 그분께서 오신 것은 창조 때의 것들, 즉 천국 생명의 싹을 생산하시어 심정과 이해성 안에 존재하게 하신 것들, 즉 잠복되어 있는 애정과 직감들을 불러 내시기 위해서였다. 잠복된 애정과 직감 없이는 천국의 평화를 받을 수 없고, 동정하는 느낌도 있을 수 없고 상호적인 생각도 없고 천국인사에 답하는 소리도 있을 수 없다. 천국의 특사가 머물기 위해 들어가기 전 그 집에는 이미 평화의 아들이 살고 있어 그 집이 평화를 누릴만 해야 한다. 평화의 아들이란 어린 시절에 저장된 순진, 그리고 평화의 후예인 직감(perception) 외 더 무엇이 있을까? 천국이라는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한다. 거듭남이란 무지한 순진과 평화가 지혜로운 순진과 평화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첫 단계에 있던 거듭남은 둘째 단계의 거듭남이 호소할 때 화답한다. 각자가 홀로서기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13. “그 집이 값어치가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될 것이고...” 평화의 씨가 있어 값어치 있는 집에 와지는 사도의 평화란 의지에 있는 영적 수준의 평화가 상호교류 해서 자연적 수준의 평화까지 있게 됨을 묘사하여 뜻하는 말이다. 그 이유가 실지의 거듭나는 행동이 있기 전 마음속에 있는 선한 품질은 그 자체 비록 영적이긴 하지만 자연적으로도 납득되고 사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마음속 선한 품질 자체가 하늘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하늘 나라를 획득하게 하는 자질이 되어 천국 원리가 접목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할 뿐이다. “... 그렇지 못하면 그 평화는 너희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 극도로 중대한 원리, 가장 위대한 순간에 있어지는 한가지 교훈이 매우 짧은 위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다. 만일 영적 원리와 자연적 원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 자연적 원리가 영적 원리의 입장을 허락치 않는다면 두 원리들은 약화되어 가다가 마침내 사라지고 만다. 그 이유는 이것이 유입(influx)의 법칙이기 때문, 즉 생명이 형체 안에 흘러 들되 이 형체 때문에 생명의 흐름도 제한받고 때로는 변해 버리기 때문이다. 선함과 진리는 내면으로부터 흐르되 외면인 정직이나 예의 바름 같은 삶의 형식에서만 거처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천국적 원리가 자연적 수준에서 들어 앓을 합당한 자리를 발견할 수 없으면 발견될 때까지 되돌아 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이 구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평화가 각 사람의 깊은 곳으로 영원히 되돌아 가고 만다는게 아니라 되돌아 가되 가치 있는 집이 발견될 때까지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14. 더 일반적이면서도 더 심각한 경우, 즉 더 심한 거절과 이 거절에 대한 단호한 항변에 관해 언급되고 있다. “어디서든지 너희를 받아 들이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도시를 떠날 때에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 버려라.” 이미 언급된 무가치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도가 그들 집에 들어가되 거절될 경우는 말하고 있지 않고 오직 거룩한 사람이 그들 집에 부적합한 경우만 말했을 뿐이다. 이제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더구나 사도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 관해 말씀하시고 있다. 어떤 도시나 어떤 집이 사도가 묵어도 될 마땅한 장소인가를 조사하라는 앞의 명령이란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외적 부분에 들어가 있는 교리적 감정과 도덕적 원리들을 자세히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영적 차원이 자연적 차원으로 들어가기 전 더 높은 총명의 지시나 영향력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의도된 명령이다. 본 구절의 경우는 집주인 내지 시민들이 거절하는 경우인 바 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정도뿐만 아니라 외적 인간 측면에 있는 도덕적 수준이 반대한다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고 외적 인간 또는 자연적 수준의 우리 마음 전체가 이런 적개심으로 차 있다는 것은 아니고 도시나 집의 일부가 적개심을 품는 것이다. 물론 자연적 수준의 마음이 일반적으로 볼 때 가치가 매우 저하되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마땅한” 거처인지 사도가 조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가 천국에서는 비록 악인이 심각한 범죄를 도모하려는 순간에서도 그 악인의 양심을 통해 말할 때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극한 상황은 본문과는 거리가 멀다. 본문의 사도는 구원해 주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 또는 영적 진보라는 여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여행 도중 사도들이 복을 빌어 주려던 사람들 사이에도 가치 없는 사람, 또는 적개심을 품은 사람이 섞여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속의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서만 흡수된게 아니라 종교의 선과 진리에 직접 반대되는 지적 교리나 도덕적 원리들을 많은 적든 자신의 것이 되도록 채용했다는 말이다. 가치없는 사람에 대한 사도들의 의무가 본 절에서 더 추가되고 있다. 평화를 빌었으나 받을 자격이 없어 그 평화가 사도에게 되돌아 온다는 단순한 이치 외에 더 추가되는 것은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 버리라”는 것이다. 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에서는 “... 그들을 경고하는 표시로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 버리라”라고 명령되고 있다. 글자대로 생각해 보면 이는 심판과 보복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는 선하고 참된 것을 방어해 주고 보존하라는 명령에 해당된다. 따라서 발에서 먼지를 털다는 것은 먼지가 발에 들러 붙는 것을 예방하여 먼지로 인해 발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는 말이다. 먼지(dust)란 땅에 속한 것에서도 가장 하급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한다. 타락 이래 먼지는 뱀의 양식이 되어 왔다. 즉 감각적 측면의 인간 또는 인간 안에 있는 감각적인 원리들은 지상적 목표나 만족 그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주님께서 “발에서 먼지를 털라”는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저 의도하신 교훈이란 이러하다. 우리의 의지나 이해성 속에서 영적 원리에 직접 대치되는 감각적으로만 쏠리게 하려는 경향성 내지 감정들이 발견될 경우 이것들이 영적 원리에 고착되도록 방지해서는 안된다는 것, 반드시 즉각 털어 내서 모든 영적 원리와의 연결을 끊을 것, 그것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실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함을 뜻한다. 사실 이런 사항은 세상과 육으로부터 해방되어 보존되어야 하는 새 사람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15. 사도들을 거절하는 도시에 관해 더 말씀하시고 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심판 날이 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그 도시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과거부터 물려 받은 전통이나 습관이라는 칙칙한 빛 속에서 죄를 진 사람들과 달리 보다 명백하게 알도록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죄를 질 경우 후자는 전자보다 더 큰 정죄를 자초하게 되리라는 뜻이다. 위 구절에는 위 간단한 의미보다 더 내면에 속하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 도시 주민 일부가 사도의 출입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도들이 전하는 새 교리를 즉각 인정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 전체가 정죄될리 만무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란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채 악한 생활을 영위한 사람들을 뜻한다. 한편 사도를 영접않는 도시나 집들이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진리에 의거 삶을 꾸리지 않는 사람들 뜻한다. 위 구절을 세부 측면에 적용해 보면 이런 의미도 살필 수 있다. 위 주님의 말씀은 그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각자의 마음 속에서 거행되는 심판과 관계되고 있다. 이런 심판 날이란 각자의 마음 안에서 선과 악이 분리되는 때를 말한다. 이때 악은 정죄되고 거절되면서 선은 환영받고 확증되는 따로 따로의 두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심판 속에서 더 지독한 악들은 더 심각한 정죄의 대상 임에 틀림없다. 거듭나는 삶의 과정 중에서 무지로부터 불거져 나온 죄로 생각되는 지상의 삶에 속하는 것들은 이미 거듭남의 과정이 많이 진보되어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계발된 상태에서 범해지는 죄보다는 덜 비극적 수준이라 가늠해 볼 수 있다.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해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교인들, 이들이 육체의 껍질을 벗고 맞게 되는 심판에서의 마지막 정죄됨을 피하려면 숨이 붙어 있는 현재에서 자신이 계속 심판 받아가게 해야 한다. 다시말해 우리의 악들이 들추어 내지는 즉시 신성한 진리의 심판을 받게 해서 정죄되도록 해나가야 하리라.

16.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은 영적 수준의 마음 안에 있는 이타애(charity)라는 원리를 의미하고 이리떼란 자연적 수준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욕망들을 말한다. 사도들이 평화의 특사로 보내져서 경험하게 되는 세상의 핍박에 관한 모든 역사는 영적 마음을 기만하려드는 자연적 마음 안에 존재하는 반목질시하는 타입을 놀랄 정도로 확실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이런 자연적 마음으로

하여금 영적 마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거듭남의 노동에 해당된다. 이 노동의 필요성, 이 노동을 효과있게 하는 방법, 그리고 노동에 수반되고 있는 환난과 시련들, 이런 것들이 사도들의 체험에서도 상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거듭남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있고 또한 교훈적이기도 하다. 주님께서 내적 인간안에 이식해 두신 영적 원리들이 그 자체의 형상을 외적 인간 안에 만들기 위해 내려갈 경우 이는 마치 “이리떼 가운데 보내지는 양”과 같다. 선과 정 반대요 적에 해당되는 악에 속한 것들도 선과의 실제 접촉이 있기 전까지는 그 악의 속성이 완전히 들춰져 나열되지 않는다. 따라서 악이 모두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악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선이 만나는 경우가 허다한 바 우리에게 너무나 귀감을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권고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 같이 양순해야 하리라.” 지혜 자체요 선함 자체 되시고 그분 안에서 선과 지혜가 완전히 하나를 이루시는 그분께서 주시는 위와 같은 충고는 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자신속의 악과 싸우든 세상의 악과 싸우는 기독교 인이든 모든 기독교인은 만사에서 위 두가지 품성이 완전하게 하나를 이루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슬기와 단순함(simplicity)이 하나되는 것은 우리가 위쪽을 향한 삶의 과정에서 우리를 맹습하는 악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대승을 거두게 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뱀의 지혜”를 특별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 지혜는 세속의 자녀들이 폭 넓게 소유하고 있는 바 빛의 자녀들 보다 이세상의 삶을 더 잘 꾸리게 해준다. 말씀에서 뱀은 인간 본성으로부터 오는 원리 또는 감각 측면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다시말해 뱀은 가장 외적인 것 즉 이세상과 교통하게 하는 수단에 해당되는 것들을 통털어 뜻하는 동물이다. 따라서 뱀은 인간 속성중 용의주도함(circumspection)을 상징하고 인간 본성 중 감각적 원리가 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감각적 원리가 마음 측면에 해당되듯 몸에서는 감각기관이 이와 대응된다. 감각 기관들이 육체에 해로운 것을 탐지해서 접근을 미리 예방하듯 마음에 있는 감각적 원리들은 “생명의 나무에 이르게 하는 길목”에서 우리 영혼에게 악의 접근을 경고하고 동시에 선함쪽으로 인도해 간다. 인간을 타락쪽으로 팔아 넘긴게 뱀이 뜻하는 감각적 원리이다. 더불어 인간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장치되어 있는 것도 감각적 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말해 두셨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서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3:14,15). 이는 인간 본성 속의 감각적 원리를 입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서는 최하급인 감각적인 원리까지 거둬나게 해주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거룩해진 주님의 감각적 원리의 특성인 용의 주도함이라는 것까지 인류위에 펼쳐지게 해주시어 교묘함이나 원한 같은 마음 속의 악들로부터 보호되게 하신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양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그분의 인간 속성을 거룩하게 하신 것을 모방하고 그 형상을 닮아야 함을 권고하시기 위함 때문이다.

17. 더 나아가 이런 지혜가 실시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 주신다.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조심하여라.” 동물과 확실히 구별되게 하는 인간의 자질은 이성(reason)이다. 자연적 수준의 인간일 경우 이는 자연적 수준의 이성(추론력)을 지니고 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권고 하신 이유는 기독교의 제자들이 마주쳐야만 하는 가장 큰 위험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각 사람속의 자연적 이성이 종교와 말씀속의 진리에 맞서도록 부추키고 있음을 위 구절에서 가르치시고 있다.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그러했듯이 자연적 마음의 미묘한 추론은 말씀과 진리 자체되신 그분까지도 그분이 말하시는 대목 자체로부터 덮에 스스로 걸려 들게 하려고 순진한 방책으로 슬며시 접근한다. 이러한 감각적이고 교묘한 추론을 두고 주님께서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짚어 말하셨다. 제자들이 경계해야 하는 “사람”의 추론하는 특성이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너희를 법정에 넘겨 준다”에 담겨 있다. 이는 자연적 인간의 합리적 추론은 영적 인간이 지닌 진리를 효과없게 만든다는 것, 미리 짜 놓은 정죄쪽으로 공정과 심판을 보여준다는 말이다. 마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듯 보이면서도 부정한 재판에 따른 보상은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 당하는 것이다.” 이는 선하고 참된 것이 어떤 종교라는 이름 아래, 또는 미신의 영향 아래 폭력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 이유가 자연적 인간 내지 자연적 마음도 나름대로 영적인 것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나 체험으로부터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종교가 보편적이고 필수에 속하는 종교와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은 과히 드물지 않다. “사람”들은 먼 거리도 아닌 매우 가까운 자기들 회당 안에서 제자들을 채찍질 한다. 사탄의 회당을 의미하는 종교나 교회의 왜곡된 모든 교리는 말씀속의 신성한 진리에 맞서는데 이것이 “제자를 매질 함”으로 표현되어 있다. 제자들이 매를 맞는 모습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회당에서도 발생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종교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 원리의 뿌리는 자아

사랑이요 이런 사랑이 확증을 못 가질 때 조차에서도 자아 총명은 이 원리를 떠 받혀 준다. 이런 각 개인의 회당이란 각자의 종교가 발견하는 왜곡된 양심, 가짜 양심이다. 이 양심 속에서 각자의 종교는 그 나름대로의 성소와 예배를 발견한다. 이런 속에 진리가 출현하면 매질 당하고 만다.

18. 앞 구절의 경우는 종교적 측면이지만 이 구절에서는 세상적 측면에서 말하신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에게 끌려 가 재판을 받으며 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상태일 경우 “총독과 왕”은 선함과 진리를 규율하는 원리를 뜻해 주지만 위 구절에서는 반대적인 상태이므로 선함과 진리에 반대하는 악과 거짓을 뜻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반대함이란 세상 사랑에 근원을 두는 악과 거짓들이 주님의 인성에 근원을 두는 기독교의 원리에 뭔가를 제공하려는 것, 또는 심정과 지성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에 근거한 기독교 원리에 뭔가를 제공하려는 것을 말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교회 내에 있는 것과 교회밖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바 우리 속에 있는 원리 중 교회로부터 획득된 것과 자연계에서 획득한 것을 의미한다. 제자들이 그들과 이방인에게 예수에 관해 증언한다는 것은 신성한 진리와 교통을 이루고 이 진리가 자연적 인간 안에 있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원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내적 측면의 것들이 외적 측면의 것에 영향력을 행사해 선용으로 이끌어 간다는 말이다. 주님 자신도 이런 과정을 통과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럼으로 해서 그분 스스로 진리의 증언자가 되셨다. 그분의 증거란 진리 측면에서의 증거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 증언된 진리란 무엇일까? 악을 폭로시켜 정죄하면서 그 악이 차지했던 마음 영역에 그것 대신 선을 이식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진리를 말한다. 예수를 증거함이란 구원받는 그 자체를 납득하게 해 주는 위대한 진리, 즉 말씀이 주님을 인성안에 탄생하게 했다는데 대한 증거이다.

19,20. “그러나 잡혀 갔을 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해야 할 말을 그때에 일러 주리라.” 일반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신성한 영향력이 사도들에게 있어질 것임을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본문의 약속은 보다 더 특이한 경우와 관계를 맺고 있다. 즉 계발됨이라기 보다는 영감 받음에 관계되고 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에서 표현된 의미 그 이상의 영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사도들이 총독과 왕 앞에서 주님을 증거할 때 절대적인 영감을 받게 되리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놀랄 일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이 세상의 미래 세대가 사용하기 위한 복음서의 거룩한 진리를 기록할 때에도 그러했는 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놀랄만한 사항이다. 거룩한 저술들은 인도함만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부터 직접 씌였다는 사실도 무조건 인정하는 방법 외에 더 다른 생각은 해볼 수 없다. 위 구절의 영적 의미를 간략히 생각해 보자. 신성한 원리가 인간적인 견해 또는 각 사람의 마음 안에 놓여지는 것은 마치 “사도들이 총독이나 왕 앞에 나가” 모습과 같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내적 인간 안에 놓았던 원리들, 즉 신성한 원리들은 순수하게 영적이요 천국에 속한 것들임을 우리의 마음이 이해하도록 진열되되 특히 “총독과 왕”에 해당되는 자연적 마음 속의 애정과 생각들이 신성한 권위를 느끼게 함으로 자연적 마음 전체가 영적 마음의 통치를 받게 함을 뜻한다. “어떤 말을 할까?”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로인해 걱정도 하지 말라는 주님의 훈계에는 인간 고유 의지, 자기 지혜로움이 없는 상태를 함축하고 있다. 진리를 증거하게 될 때 제 뜻이나 지혜가 들어가 있는 한 정작 바랜 결과나 진리의 설득력은 힘을 잃고 만다. “아버지의 영”이란 사랑으로부터 있어지는 진리이다. 이 영은 그것을 받고져 하는 모든 사람의 심정과 지성 안으로 꾸준히 흐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영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손상받지 않으면서 순수해져 거룩해지게 된다. 최소한 이런 사항들이 우리의 내향적 바램이 되어 있어야 하리라. 내적 인간 속에 있는 새 생명의 순수함이나 그 영성이 모든 것을 질서대로 놓기 위해 자연적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면 필시 외적 인간의 반대에 부딪치는데 이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더 말하신다.

21. “형제끼리 서로 잡아 넘겨 죽게 할 것이며, 아버도 또한 제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도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다.” 이 구절에는 세 종류의 대립이 있다. 형제가 형제에 대립함은 거짓이 진리에 맞서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과 대립함은 악이 진리에 맞서는 것이고, 아들이 아버지와 맞섬은 거짓이 선에 맞서는 것을 뜻한다. 이런 대립에 따른 불화가 끝까지 가면 선하고 참된 것을 소멸해 버리고 만다는 것을 위 구절은 묘사해 놓고 있다. 어쨌든 거듭 나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선하고 참된 것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생각해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극도의 싸움 속에서 죽음은 새 생명으로 건너가는 수단, 진정한 부활을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연적 수준이 영적 수준을 향해 품는 분개함은 지독한 것이어서 사도들 스스로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다.

22.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은 천국적인 선하고 참된 것에 관한 원리에 자연적 수준의 마음은 온통 모순되고 있다는 것, 마음 속에서 이기심 때문에 주님의 것에 반대하는 싸움이 언제나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어쨌든 끝까지 참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되고 있다. 종합해서 뜻하는 바 이는 시험 가운데서 악에 굴복하지 않는 영적 원리들은 결국에 가서는 내향적으로나 외향적으로나 확증되어질 것임을 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된다. 그 이유가 우리 속의 부패된 이기심이 주님께서 이미 이식해 두신 사랑과 믿음에 관한 구원하시는 원리들이 다해야 할 의무라는 길에서 이탈하도록 유혹하여 시험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협동으로 꾸준히 보존되고 성장하는 방법 외에 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구원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주님의 것이 우리 속에서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는 양순함을 지니면서 도 지혜로워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비둘기로 우리의 심정이 자극받는 반면 뱀에 의해 가야 할 방향을 결정지어야 하리라.

23.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여라.” Clowes씨는 위 구절에 대해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다. “믿음 측면의 교리에서 맞서게 될 경우 이타에 측면의 교리로 피하고 이타에 측면의 교리에서 대립된다면 믿음 측면의 교리로 피해야 한다는 것, 바꿔 말해서 진리 측면에서 대적되면 선함 측면으로, 선함 측면의 대립이 있게 되면 진리 측면에서 피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교차는 신성한 섭리에 속한 사항이다. 아마 거듭나는 과정에서 각각의 원리가 완전해지도록 의도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 이유가 이렇게 됨이 없이는 다른 측면의 원리로부터 분리된 한쪽 원리 안에 안주하도록 유도당할 수 있다는 것, 또는 이쪽을 흠모하기 위해 저쪽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되어야 거듭남 속에서 선과 진리, 믿음과 이타에는 명료하게 완전해지고 분명하게 결합된다.” 주님께서 위 구절에 더 이으신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동네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글자대로라면 이는 사도들이 모든 동네에서 박해 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사도들의 보복자로서 예루살렘을 멸하러 오신다는 뜻으로 이해될는지 모른다. 역사적인 내적 의미 측면에서 볼 때 위 구절은 유대 교회 시대 또는 박해의 시대가 속히 끝나되 이는 복수 차원이 아닌 사랑의 차원에서 짧아 지도록 섭리해 주실 것임을 뜻한다. 그 이유는 이런 시대가 짧아지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구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교회이든 어떤 종교 시대이든 그것들의 끝장은 자동적으로 오도록

허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만일 저절로 끝이 도래 된다면 구원의 어떤 가능성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것을 형성해 줄 어떤 수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이라 해도 반드시 옛것을 그루터기로 삼아서 일어난다. 새교회가 시작되기 위해 그분께서 나머지(remnant)를 아껴두시려면 만료되는 교회들의 종말로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원리가 소멸되지 않아야 새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바 소멸 이전에 미리 아껴놓기 위해 심판 기일이 당겨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 “사도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기 전 사람의 아들이 온다”는 구절에 담겨 있다. 각 개인의 거듭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동네”란 교회속에 있는 교리들이 종말을 고하는 것과 완전해짐을 의미하게 되고 완전해지는 수준은 사람의 아들이 오심, 또는 신성한 진리가 우리에게서 명백해지는 정도에 비례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24,25.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 해지고 종이 주인만 해지면 그것으로 넉넉하다...” 이는 사도들이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전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들로 부터 받게 되는 대접은 과거 그들의 스승이요 주인되신 분이 받는 대접보다 더 낮지 못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위 구절을 통해 알려주는 진리는 그분의 직계되는 제자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제자들에게 응용된다. 위 구절을 넓은 의미에서 찾아 본다면 자신을 주님과 동등하게 만들려 해서 안된다는 것, 자기가 소유하게 된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소유된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런고로 제자가 지닌 것은 그분이 지니셨던 것인 바 제자가 스승만 하고 종이 주인만 하면 그것으로 넉넉하다는 말이다. 그 이유가 주님이 제자 안에 계신 결과 제자들이 참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각 개인 속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인간 속에 있는 두 인간, 즉 외적 또는 자연적 인간은 제자 내지 종과 같고, 내적 또는 영적 인간은 스승 내지 주인과 같다. 외적 인간이 내적 인간에게 순종하는 결과가 있게 되면 이는 주인의 지시대로 종이 일을 해낸 것인바, 실질 면에서 주인과 종은 서로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가 일의 결과 측면에서 볼 때 주인이 한 것이나 종이 해준 것이나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주인과 종은 하나로서 행동한 것이라는 말이다. 특별한 측면은 보편적인 측면과도 일치한다. 즉 영적 측면과 자연적 측면이 하나되어 행동하면 주님 스스로 행동하시는 것이다. 그 이유가 영적 인간은 그 스스로 행동할 수 없고 오로지 주님으로부터서만 행동되기 때문이다. 영적 인간 또는 영적 마음이 천국으로

열려 있는 만큼에서 그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행동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행동한다. 제자와 스승, 종과 주인을 선과 진리 또는 의지와 이해성에 관계시켜 보면 의지와 이해성 속에 있는 내면의 것들은 자연적 마음에 있는 자아와 세상 만을 사랑함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에 비례해서 외면의 것들도 고통 당해야만 한다는 것까지 우리로 알게 해 준다. “집 주인을 가리켜 베엘제불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그 집 식구들에게야 무슨 욕인들 못하겠느냐?” “집 주인”이란 마음을 통치하는 원리를 말한다. “집 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부른다”란 근본되는 원리들을 뒤집으려 발버둥치는 것을 뜻한다. 주님을 베엘제불이라고 부른다는 최고로 높은 수준에서 선을 악이라고, 빛이 어둠이라고 어거지 부리는 것을 말한다. 선과 진리라는 제일가는 원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은 그 다음 서열에 속하는 원리라면 더욱 쉽게 왜곡할 것임은 설명할 필요도 없으리라.

26.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 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제자들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자신 스스로에 확신을 두고 두려워 말라는 것도 아니라 주님께 신뢰를 둬서 두려워 말라고 권고하시는 구절이다. 기독교인들은 과거 이스라엘 족들 같이 그들의 적이 얼마나 강하던 숫자가 얼마나 많은 두려워 하는게 있어서는 안된다. 그 이유가 정작 싸워 승리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두려워 한다란 제자들에게 믿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다. 두려워 함 따위는 생각 속에도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신 이유는 “감추인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비밀은 밝혀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인간에 관련해 볼 때 보편적 진리에 해당된다. 즉 모든 심정들 속에 담긴 비밀들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밝히 드러나고 모든 겉치레 역시 홀랑 벗겨지며 가장 캄캄하고 가장 깊숙히 틀어 박힌 생각이나 의도까지도 대낮속에 놓여지기 때문이다. 상응적으로 볼 때 감추어지고 덮여 놓인 모든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빛으로 가져와 진다. 거듭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감각이나 거짓들로 인한 오류로 덮혀 있거나 감추어 둘 수 없다. 그 대신 모든 것은 진리의 빛의 영향 아래 놓여져 그것의 진정한 값이 매겨지게 된다. 내면의 마음 깊은 곳에 아껴두신 선함과 진리들은 바깥쪽 마음에서 활동하는 천국 원리들을 응원하기 위해 드러나 명백해진다.

27. 악과 거짓이 드러나지만 선하고 참된 것도 드러나는 바 그 결과가 이렇게 말해진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위에

서 외쳐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두운데서 말하신 것들이란 그분께서 우리의 이해성에 내면적으로 밝히 알게 하신 진리이고 그분께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씀이란 우리의 의지 안에서 내면적으로 받게 되는 선을 뜻한다. 내면적으로 주어진 것들은 희미하게 보이는 수준이요 불분명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합리적 자질 속에 있는 의지와 이해성 안으로 오게 되면 뚜렷해지고 분명해지게 된다. 이런 의미는 위 구절과 매우 비슷하면서도 다른 경우와 다른 의도에서 말하신 누가복음 12장 3절을 참조하면 확실해진다. 골방(closets)은 마음의 내면 측면을 뜻하고 지붕은 내면의 것들이 명백해지는 곳인 외면을 뜻한다. 빛의 경우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 “빛은 지혜 자체 안에 존재하지 않고 이해성의 생각, 이로부터 언어속에 존재한다.” 이는 마치 열이 사랑 자체 안에 존재하지 않고 사랑으로부터 의지 안에, 이로부터 육체 안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 사랑과 지혜는 열과 빛의 본체이다. 따라서 열과 빛은 그 본체로부터 진행되어 나온다. 주님은 깊은 어둠 안에 거하신다고 말해지는데 이는 그분 자신의 본성이 납득 불가능함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가장 높은 처치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내적 인간을 통해 오는 주님의 가르침이 처음에는 귀에 속삭이는 수준에서, 어둠 속에서 중얼거리는 정도에서 다가 온다. 이 가르침이 의지와 생각에까지 내려와야 속삭여지고 중얼거린 듯 우리에게 여겨졌던 그 가르침들은 낭랑하게 울려 퍼지면서 총명하게 지각되어 인간과 교통을 이루게 된다. 대기의 높은 영역에서 소리는 잠잠하고 빛은 직감되지 않는다. 그러나 낮은 영역으로 내려올 때 소리는 청취할 수 있게 되고 빛도 볼 수 있게 된다. 진실된 설교자, 마치 진정한 제자와도 같이 자기 스승으로부터 감명과 생각들을 받는다. 그는 외형 측면에서는 스승을 닮지 않은 듯 보일 수 있어도 그의 뜻과 사상 측면에서는 스승의 의지가 임신되어 있다. 다시말해 영혼이 육체로 아직 옷 입혀지지 않았고 사상들이 보일 수 있는 형상을 아직 형성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것이 의식할 수 있는 느낌과 또렷한 생각의 영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적 형체와 도덕적 표현이 주어져 총명한 언어로 옷 입혀져 타인도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어두운 데서 들은 것을 밝은데서 말하게 되고 귀에 속삭이듯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외치게 되는 것과 같다. 더구나 제자는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선생이 되어야 한다.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말로 선포해야 할 뿐 아니라 행위로도 선포해야 한다. 그가 신성한 진리를 내향적으로 베껴 쓴 것을 이해성의 생각으로 가져다 놓고 신성한 사상을 의지의 애정으로 가져다 놓아야 한다. 동시에 자신의 삶과 대화에서 그분의 진리와 사랑이 형체를 갖게

해야 한다. 말하자면 자신의 선한 일로 나타나 볼 수 있게 해야 안과 밖 모두의 저자 되시는 분을 영광되게 하리라.

28. 이런 의무들을 말하시면서 이 의무 수행에 따라 붙는 두가지 영향력, 즉 세상으로부터와 자신으로부터 받는 영향에 관해 말하신다. “그리고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 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 하여라.” 우리는 인간을 두려워 말고 하느님을 두려워 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 인간의 힘은 육체에만 국한되지만 하느님의 힘은 영혼과 육체에 공히 미친다는 말이다. 이러한 글자적 의미는 가상적인 진리일 뿐 실제적인 진리는 아니다. 그 이유가 하느님은 지옥에 보내고져 영혼을 죽이지 않다는 것, 더구나 물질인 육체는 무덤 너머까지 잔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 구절 역시 그속의 영적 의미만이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해 주고 이 구절에서 선포된 말씀의 진정한 힘 역시 영적 의미에만 존재한다. “영혼과 육신”은 영(the spirit)에 관련해 서술되는 바 이는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을 의미한다. 이 두 인간의 관계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도 같다. 영적 의미로 볼 때 우리가 두려워 해야 하는 사람이란 인간을 멸하길 결코 원치 않으시는 신성한 존재를 뜻하는게 아니라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원인되는 각자 속의 어떤 원리를 뜻한다. 그러면 외적 인간은 죽일 수 있으나 내적 인간은 죽일 수 없는게 무엇일까? 부분적으로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거짓이고 우리를 전체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악이다. 거짓 추론은 이해성을 뒤집음으로 외적 인간에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을 뿐 악만이 인간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의지 또는 뜻함이 있는 것이 인간의 생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런 악의 파괴는 폭 넓으면서도 매우 깊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놓고 말하시기 때문이다. 본문의 지옥이란 침몰의 상태가 더 깊은 것, 죽음 보다는 생명이라 표현되는 것에 반대된 상태가 더 깊다는 측면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 파악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서 가능하다. 거기서 제자들이 두려워 해야 할 대상은 육체가 죽은 뒤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구절은 죽음과 지옥을 따로 따로 언급하고 있다. 둘 모두 마지막 상태들을 뜻하지만 죽음은 사탄의 거처이고 지옥은 악마의 거처임을 우리로 확실히 알게 해 준다.

29. “참새 두 마리가 단돈 한 닢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참새 한 마리도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새란 생각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참새 종류는 새중에서 매우 흔하고 그 가치도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 두 마리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진리 측면에서의 생각과 선함 측면에서의 생각, 또는 선하고 참된 생각을 뜻하는 숫자이다. “참새 두 마리가 한 뉘에 팔린다”라든가 참새 두 마리가 한 뉘의 가치밖에 안된다고 말해지고 있다. 즉 선함과 진리에 관한 우리의 매우 낮은 수준의 생각들이 선함과 진리에 관한 매우 수준 낮은 지식과 하나될 경우를 말한다. 기억 속의 선함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돈(뉘)이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가치가 거의 없는 우리 생각 중 어느 하나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선포되고 있다.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 볼 사항은 위 구절이 제자들이 받게 되는 시련과 박해와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어느 때에 참새가 땅에 떨어질까? 시련 받는 때이다. 이때 우리의 생각들이 내적 인간의 하늘로 높이 오르는 대신 바깥쪽 인간으로 향할 때,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예 죽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런 연유는 명확히 알 수 있다. 애정은 생각의 생명이다. 그래서 애정이나 느낌이 풀이 죽어 버릴 때 생각은 쇠약해져 죽기까지에 이른다. 흔히 모든 사람은 자연적 수준의 시련에 대한 결과는 확실히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우 사랑한 사람이 죽을 경우 죽은 사람에 대한 자신의 애정이 죽은 사람과 묶여 있어 이 세상에는 텅빈 공백만이 남아 있는듯 여겨지고 생각은 땅에 묻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듯 여겨지는 때가 그럴는지 모른다. 자연적 수준의 시련도 이리할진대 영적 수준의 시련은 더욱 심각하다. 이런 저런 상태에 놓인다 해도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 아래 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그분은 우리 생각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지배하시면서 조절해 주신다. 따라서 위 구절은 시련과 박해로 우리의 생각이 바닥에서 기고 있다해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 하느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마음 안에서 신성한 사랑은 지극히 작은 우리의 생각 안으로까지 들어오고 그 생각을 죽지 않게 보존해 주신다. 본문에서 언급된 “땅”이란 우리의 좌절감을 상징한다. 이런 좌절속에 빠져 있다 해도 우리가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있다면 견뎌낼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선포되고 있다.

30.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알이 다 세어 두셨다.” 참새가 자연적 수준의 매우 수준 낮은 생각을 상징하는데 비해 머리카락은 지혜 또는 합리적 원리 중에서 최말단에 해당되는 것들을 뜻한다. 앞 구절에서는 참새를 가지고 그분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말하셨다. 이 구절의 경우는 머리카락을 들어 우리를 지키시는 섭리가 세세한 부분까지 미친다는 것을 선포하신다. 특히 시험의 때에 그러하다는 것을 앞 문단과

연결해 상념해야 할 것이다. 본문이 가르치는 바, 가장 작고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하느님은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분에 의해 점검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은 섭리를 주재하시는 아버지의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다음 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서 용기를 가져 보자.

31. “그러니 두려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주님께서 미세한 부분, 하찮은 듯 여겨지는 항목까지 다 돌보고 계신다면 가장 높은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돌보고 계신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있을 수 없으리라. 주님과 천국에 가장 가까운 원리들, 무엇보다 먼저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고 그분의 계명을 완수하는 것은 이보다 덜 중요한 문제들, 세상과 육신에 속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 참으로 우리 시련의 얼마쯤은 이런 가치 기준에 관계된다.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의 얼마는 무게를 두어야 할 높은 원리를 덜 중요하게 사용함으로 오게 된다. 우리의 애정과 생각이 감사와 신뢰를 수단으로 주님께로 승강시켜야 하는 때에 내일을 위해 걱정하느라 생각 자체를 땅에 떨어트려 땅속에 묻게 하려는 것 때문에 시험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곳간에 모아 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 주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나?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32.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을 안다고 증언하면 그 아들은 그분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안다고 증언한다는 말이다. 아들(the Son)이란 신성한 진리를, 아버지란 신성한 선을 뜻한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실천한다면 그 진리는 우리를 선쪽으로 인도해 갈 것임을 약속하시고 있다. 우리가 아들을 믿노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성실히 실천함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분을 안다고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으로 인도해 주는 진리를 안다고 증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진리 자체가 증인같이 우리 속에 존재하면 그 진리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꾸준히 있어지는 진리의 증언 결과 내지 그

보상으로 진리의 선을 선물하게 된다. 본문을 읽게 되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고 말해지고 있고 아들은 땅 위에 계신 것으로 이해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구절에는 더 약속되는 바가 있다. 즉 우리가 진리를 외적 인간 측면에서 꾸준히 인정하는 것은 그 진리 자체를 내적 인간 안으로 들어 올리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혜가 통치하는 형태에서 사랑이 통치하는 형태로 승강되게 해준다.

33.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 사람 앞에서 아들을 부인함 속에는 아들로 아버지 앞에서 그 부인자를 부인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다. 만일 진리가 생활에서 부인된다면 그 진리가 향해 가는 선, 우리를 지휘해 가는 목적인 선 쪽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말이다. 위 구절을 더 생각해 보면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 보다 사람 앞에서 아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한 결과임을 알게 해준다. 아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진리를 무시하고 있을 때 그 진리 자체는 우리를 정죄하고 그 진리가 가르치는 모든 선을 우리로부터 박탈함으로써 진리를 알지 못했던 이전과는 아주 달리 진리와 선함 모두에 대해 반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34.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 구절을 글자대로 생각하려고 고집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주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오신게 아니라 그분께서 가르치신 그 결과는 다른 견해를 낳게 해 그 결과가 분리를 창조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세상은 사람 사이에 분류나 폭동같은 게 없으면 혼수 상태 또는 죄있음에서 깨어나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영적 의미로 볼 때 이 구절은 매우 놀라운 방법으로 신앙자의 마음 안에 구세주로 주님이 오신 결과가 이 구절과 같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결과란 우리의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애정들은 모두 영적 수준의 것들에 적대감을 갖도록 흥분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제는 이미 말했던 사항인데 이 곳에서도 취급되고 있다. 이 구절은 위 내용을 찾는 이들에게 더 직설적으로, 마음에 짝 박히도록 의도하시고 있다. 자연적 수준의 마음이 비질서적이고 썩어 있는 상태일 경우 주님께서서는 평화를 주시러 오지 않는다. 아마 단 한번도 그런 일은 없었으리라. 하느님의 진리의 칼은 하느님과 인간 자신에게 공히 적이 되는 마음속의 악과 거짓을 향해 휘둘러진다. 거듭나기 전이라 해도 거기에

평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짓 평화일 뿐이다. 이런 평화란 자연적 수준의 인간에 상속적으로 선택된 죄, 불신앙, 비질서 같은 마음에 합일될 때 있는 평화일 뿐이다. 영혼에 주님이 오심, 그분을 구세주로 응낙하면 그분께서는 칼을 내어 주시고 악이 정복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전쟁이 시작된다. 이후 승리가 있을 때마다 진정한 평화가 정의와 공정이라는 원리 위에 건설되어진다. 주님을 영접 함으로 창조되는 전쟁이란 우리의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사이의 전쟁을 말한다. 외적 인간 속에 있는 악들이 마음을 통치하는 원리와 생명으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대신 하느님의 법이 내적 인간에서 인정되면 자연적 마음 속의 욕망은 새로운 내향의 법에 반기를 들게 되지만 성공적인 전쟁으로 마무리 되기 위해 미움같은 혹독한 분노 속에 휩싸인다. 이 전쟁의 모습에 대한 일부가 다음절에서 묘사되고 있다.

35.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아들, 딸, 며느리란 내적 인간 안에 있는 새 원리와 선과 진리를 향한 애정들이다.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란 외적 인간 안에 있는 옛 원리들과 악과 거짓을 향한 애정이다. 아들은 진리를, 딸과 며느리는 선과 진리를 향한 애정인데 이것들은 내적 인간의 원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아버지는 악을,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악과 거짓을 향한 애정을 말한다. 따라서 이것들은 외적 인간의 원리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우리 영혼에 주님이 오시면 위 새 원리들은 다양한 조건 위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 이유가 악과 거짓에 노예되어 있어 왔던 마음은 진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한 열정의 폭력에 저항하는 일도 없이, 또는 죄의 굴레를 벗으려는 투쟁도 없이 진리가 정착할 수 있는 마음 영역 즉 자유로운 마음이 형성되는 때는 단 한번도 없다. 이런 투쟁 속에서 기독인은 다음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깨닫는다.

36.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집이란 인간 고유의 마음을 말한다. 진짜 적은 인간 고유의 집에 있다. 인간의 유전적인 근성에는 악밖에 더 있는게 없다. 주님과 이웃보다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게 인간이 태어날 때 지닌 본성이다. 자아와 세상만을 사랑하는게 인간이 태어날 때 지닌 본성이다. 자아와 세상만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참 인간의 원수이다. 그 이유가 이 사랑은 참된 부와 행복을 박탈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고유의 마음은 자아와 세상만을 사랑함이라는 악이 자기 원수인줄 모른다. 그 이유가 진리와 생명의 원리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이 인간의 참 친구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될 때 과거 거듭나지 않고 있던 심정속에 있던 것들이 얼마나 몹쓸 것인지 이내 발견한다. 그래서 원수가 집안에 들어 앉은 것들임을 똑바로 직시하게 된다.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 즉시 그 사람에게 위협이 뒤따른다. 마치 모든 시련이나 투쟁에는 언제나 위협이 곁들여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이유가 기독교인의 생활에는 투쟁 내지 전쟁 상태는 언제나 하느님을 사랑하느냐와 자아를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와 세상을 사랑하느냐라는 두 원리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정 반대되는 사랑들 사이에 싸움이 늘 있다는 참 사실은 어느쪽이 승리를 하든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힘의 균형이 어찌 하느냐에 있음을 암시해 준다. 만일 자아와 세상 사랑이 우리 애정에 깊이 뿌리 박지 않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에는 심각하게 싸울 바탕이 있을리 없고, 자연적 수준이 영적 수준을 미워하고 적대시 해서 정복하려 들 어떤 위험한 상태도 있을 수 없다. 자연적 수준이 영적 수준을 정복해 버리는 결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불행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주시는 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 구절의 “아버지와 어머니”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을 뜻하고 이 두 사랑은 악한 모든 사랑의 부모격이다. 그리고 “아들과 딸”이란 모든 거짓과 악을 향한 애정들을 뜻한다. 이 사랑은 위 부모격인 두 사랑의 자손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랑은 악한 모든 것, 즉 유전적인 악과 실제의 악을 일괄해서 뜻하고 있다. 따라서 자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또는 주님보다 자아를 더 사랑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이 싸움의 목적이다. 싸움터가 이러하기에 위 말씀에 담긴 진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고 자아를 우선시 하는 사람은 생명 자체가 사랑이신 그분에게 아무 쓸모없게 된다. 악은 악마 특히 자아 사랑이라는 악이다. 따라서 만일 우리의 아버지가 악마에 소속되어 있다면 지독하게도 무가치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악마의 자식을 하느님의 아들이라 할 수 없는 지당한 귀결 때문이다.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가장 필수되는 의무, 기독교인의 전투를 성공리에 마무리 하는데 필수되는 꼭 한 가지는

십자가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미인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다. 세상과 육에 속하는 것들을 십자가 형에 처해 버리는 것이 기독인이 날마다 땀 흘려야 하는 노동이고, 주님만을 따르는 것은 기독인의 일상적인 의무이다. 기독인은 자기 내부에 있는 악한 욕망과 싸워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밖에 있는 악한 습관과도 싸워야 한다. 그리하여 악행을 중단하면서 선행을 배워 익숙해져야 한다. 기독인은 악에 저항함으로써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하고 주님의 거룩한 본보기를 모방하려 노력함으로써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기독인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즉각 짊어지고 사랑과 은혜의 생애를 엮으신 그분에게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가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중대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십자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육체가 고통 받을 때 있어지는게 아니라 마음을 순수해지게 할 때 존재한다. 또한 마음이든 육체가든 만족 시키려는 것을 부정하는데 있는게 아니라 마음이나 육체에 있게되는 이기적인 것들과 그 속에 있는 불순한 것에 반기를 들 때 십자가는 존재한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행동은 하느님이 영광스럽게 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 더 특별히 말해보자. 십자가를 짊어짐은 시험을 견뎌내는 것이고 이 시험은 영적인 악과 내향적으로 투쟁하는 것, 즉 주님께서 우리 심정 속에 이식해 두셨던 선을 제압하려 봉기하는 영적 측면의 악과의 투쟁을 뜻한다.

39.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꾸준하게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거기에는 십자가를 지는 목적 내지 마지막 결과로서 이기심을 십자가 형에 처해 죽이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런 결과가 없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헛된 공상일 뿐이다. 즉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랑이 생명(목숨)이다. 자아를 향한 사랑과 세상을 사랑함은 인간 고유의 사랑, 거둬나지 못한 생명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새로운 생명, 거둬낸 생명이다. 자기 심정을 통치하도록 자아 사랑을 허용함으로써 거기서 자기 생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진정한 생명인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의 생명을 잃는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인간 고유의 생명을 내려 놓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발견한다.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요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인바, 이는 악과 선, 거짓과 진리를 맞 바꾸는 것이다. 이런 교체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은 더 한층 드높여 진다. 생명(목숨)이라는 단어의 사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신약

성서에서는 생명이란 단어가 위 두가지 의미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찾아 생각해 보면 두가지 구별되는 점이 발견된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경우,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리고 주님 스스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나에게서 목숨을 바칠 권한이 있고 다시 그 목숨을 얻을 권한도 있다...” (요한복음 10:15,18). 아버지로부터 얻은 그분의 생명은 그분께서 내려 놓으신다고 말했을 때의 생명이 아니고 단지 동일한 단어인 목숨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 뿐이다. 그분께서 내려 놓으신 생명은 “내 영혼이 죽을 정도로 심히 괴롭다”고 말하셨을 때의 “영혼”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똑같다. 이렇게 구별해 살피는 이유는 그분이 태어나실 때 아버지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 생명은 신성한 사랑이라는 것, 그분께서 내려 놓아야만 하겠다고 심히 통곡하신 생명은 신성한 진리였다는 것을 곰곰히 생각해 볼 때 발생된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는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 시험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성한 사랑 내지 선함 측면에서 그분은 모든 시험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바 죽을 수가 없다. 이쯤해서 주목해 둘 사항이 있다. 우리가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 그분은 고통 받으시고 죽으셨다고 말할 경우라 해도 이때의 신성한 진리란 그 진리 자체를 뜻하는게 아니라 유한하고 미약할 뿐인 인간성을 수단으로 세상에 내려 오실 때 필요했던 진리, 즉 진리의 외관을 입으실 때의 신성한 진리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내용을 교리 차원에서 달리 말해 볼 수 있다.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은 그분의 내적 인간 측면의 생명이고 그분께서 내려 놓겠다고 하신 어머니쪽에서 받은 생명은 그분의 외적 인간 측면의 생명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목숨, 즉 얻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게되는 생명은 우리의 외적 인간 측면의 생명, 좀 더 꼬집어 말한다면 지적 측면의 마음에 해당되는 생명이다. 이 생명을 내려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진리를 에워싸고 있는 각종 거짓이나 오류를 벗어 던진다는 말과 같다. 이럴 때 자연적 수준의 인간 즉 인간 고유인 각종 거짓들로 범벅된 의심과 불신앙을 우리의 참 신앙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 이를 응용해 생각해 보자. 지적 자만은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잃어야 한다고 하신 목숨 내지 영혼이고 이 목숨을 내려 놓을 때 우리는 새 생명, 하느님께서 불어 넣으신 살아 있는 영혼을 발견하고 이때 새 피조물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집약해 생각해 보면 위 본문의 두가지 약속은 신성한 섭리에 관한 교리를 요약해서 표현함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에는 우리가 그분의 제자일 경우 그분께서 설비해 두신 것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허용하시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악이라도 빠지는 것을 허락치 않으신다. 그러나 더 큰 악에 빠질 위험이 있을 경우와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을 위해서라면 악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다.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머리 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머리 카락을 세어 놓는다는 것은 우리를 보전하신다는 섭리 뿐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질서 법칙에 일치 하도록 우리의 자연적 수준의 마음과 삶에 있는 미미한 활동까지도 섭리하심을 뜻한다. 주님께서는 질서를 수단으로 섭리를 펴시고 하느님의 질서 자체가 그분의 권능이다.

40. 이제 인간 고유에 속한 자연적 인간이 거둬 나질 때 더 밝은 측면이 제시되고 있다. “너희를 맞아 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 들이는 사람이며 나를 맞아 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 들이는 사람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보내셨고 예수는 하느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스승과는 독립된 인물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인물(person)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신성한 실체는 하나일 뿐 나눌 수 없다. 하느님으로부터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고 무한하시다. 그 반면 인간은 창조 되어진 상태로 유한하다. 무한과 유한 사이에는 어떤 비교도 할 수 없다. 무한은 생명 자체이고 유한은 그 생명을 받는 그릇에 불과한 바 그 근원되는 생명으로부터 한순간이라도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신성한 실체가 하나요 분리될 수 없다 해도 실체의 속성은 복수로 존재한다. 하느님 안에서 사랑과 지혜 또는 선함과 진리는 따로 따로 구분되는 실체이다. 마치 한 인간 안에 이해성과 의지가 놓여 있듯 위 둘은 분리될 수 없지만 따로 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느님 안에서의 이런 구별이 신약 성서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되고 있다. 아버지는 신성한 사랑 또는 선함이고 아들은 신성한 지혜 또는 진리를 표현한다. 지혜는 사랑으로부터, 진리는 선함으로부터 배출된다. 자연계에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출생되는 것과 같다. 이런 자연계와의 유사한 점을 수단으로 신약 성서에서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표현된다. 신성한 지혜는 신성한 사랑에 의해 보내졌다. 이런 견지에서 예수는 하느님께서 보내졌다고 말해지는 것이다. 이와 상응되는 견지에서 예수께서 제자를 보내셨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보낸 제자란 진리 자체라는 측면에서의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들,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더욱 낮은 수준의 마음에 체류할 수 있는 진리들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생명은 점진적 수준으로 존재한다고 말해볼 수도 있다. 즉 신성한

진리(Divine Truth)는 신성한 선에 의해 보내졌고 가상의 진리, 신성같이 보이는 진리(truth divine)는 신성한 진리에 의해 보내졌다. 또한 영적 수준의 원리는 천적 수준의 원리로부터, 자연적 수준의 원리는 영적 수준의 원리로부터 진행된다. 보다 낮은 것들은 보다 높은 것에 이끌리고 보다 높은 것은 가장 높은 것에 이끌린다. 그 반대로 가장 낮은 것은 그 안에 보다 높은 것을 포함하고도 있다. 그러므로 진실한 상태에서 가장 낮은 것을 맞아 들이는 사람은 그외 다른 것도 맞아 들일 수 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 말씀의 내적 의미는 최말단 의미, 즉 글자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글자 의미를 통해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신다. 말씀의 지극히 단순한 의미가 담긴 진리를 맞아 들이는 사람은 말씀의 더 높은 지혜를 받을 수 있다. 지극히 간단한 순종부터 실행하는 사람은 그 순종 안에 지극히 높은 사랑,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까지도 지닐 수 있다. 종교 생활의 발전이 계속되는 사람이라면 그의 순종안에 잠재되어 있는 위 큰 두 사랑은 그의 마음안에서 적극적인 원리로 되기에 이르러 그에 상응하는 완전한 삶을 이룩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복음 14:23). 이 축복의 말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 마음은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거주하는 장소가 되리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하느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와 계신 바 우리의 하느님이 되실 수 있다.

41.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 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며, 옳은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맞아 들이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예언자요, 진리를 실행하는 자가 옳은 사람이다. 따라서 각각은 진리와 정의를 의미한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 들인다는 것은 그 예언을 위해 진리를 받는 것이다. 옳은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맞아 들인다는 것은 옳은 것을 위해 선을 받는 것이다. 참됨과 선함을 위해 참되고 선한 것을 받는데 따른 보상은 진리와 선함을 향한 애정이다. 사랑 안에 행복이 있다. 영적 수준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이 사랑 안에 참 행복이 존재하고 이 사랑은 행복과 천국 모두를 우리에게 갖게 해준다.

42.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소자(little ones) 중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작은 어린이는 순진을 상징한다. 소자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순진하되 무지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어느덧 순진 자체에 진리가 심어지는 것까지 뜻한다. 그런데 이런 의무 실행에 약속된 보상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까지 포함되고 있다. 따뜻함이 사랑 또는 애정인 반면 차가움은 사랑이 없음 또는 사랑이 부족함을 말한다. 찬물이란 사랑의 진리가 아닌 순종의 진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작은 사람에게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받을 보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고 말한 위 본문의 약속이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비록 자신의 뜻이라면 행하고 싶지 않다 해도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있게 되는 선행, 의무감에 따른 선행, 지극히 단순한 선행까지도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지극히 높은 보상까지도 받으리라는 것, 가장 높은 사랑의 행동과 비교해도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약속이다. 어쨌든 이렇게 지극히 단순한 의무가 상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자의 이름을 걸고 행동되어야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행동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말해보자. 지극히 단순하나마 주님의 뜻을 행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씀의 가르침에 관계되어야 하고 자연적 수준의 자비심의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의무감에서 비롯된 지극히 단순한 선행에 영적 수준의 품질과 천국적인 결과가 있기 위해서 의무수행은 반드시 영적 수준의 원리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종종 기독인들은 자신이 하느님을 덜 사랑하고 있음을 스스로 발견할 때 애석해 한다. 그러나 만일 자기가 하느님을 생각했던 만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그분께 순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제 자신을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자신이 하느님께 순종하도록 자기를 강요할 수 있다. 그분께 순종해 가려고 역지를 부려서라도 성실히 순종함을 시작한다면 비록 그 순종이 “냉수” 같이 차가운 순종이었겠지만 차츰 그런 의무감에서 해제됨을 수단으로 과거 자신에게 너무 결핍되었었다고 통탄했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소유하게 된다. 비록 사랑이 존재하도록 자기 의지가 움직여질 수 없었다 해도 그 사랑이 존재하도록 역사된다.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을 바치면 그 보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갖게 해 주신다.

1. “예수께서 열 두 제자에게 분부하시고 나서 그 근방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일은 두 방법, 간접적인 방법과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천국이나 세상에서 그분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은 간접적인 방법에 속한다. 그분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은 직접적인 방법이다. 직접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장 깊은 영혼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마음의 다른 방면으로 그 일을 확장해 가신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인 방법에 의해서이든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그분의 의도가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 바깥쪽 수단들이 두 번째 수단으로 채용된다. 우리의 지식 내지 기타 다른 수단들이 내부로부터 발출되는 생명과 빛이 순조롭게 하강되도록, 즉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공급되어야 한다. 이런 두 겹의 작동이 본장에서 취급되고 있다. 주님께서 내적 인간 안에서 선함과 진리라는 원리를 천국 질서로 배치하실 때가 본문의 “예수께서 열 두 제자에게 분부하심(안수하심)”에 해당되고 배치된 원리들이 바깥쪽 인간으로 퍼져나가 우리의 행동마저 천국 질서에 부합되게 하는 것은 “열 두 제자를 파견하시어 길 잃은 양을 모으시는 것” (10:6)에 해당된다. 주님은 인간 구원이라는 유용한 목적이 성취되도록 우리 속 깊은 곳으로부터 서도 그분 스스로 일하신다. 이것이 본문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는데 대한 의미이다. 그분이 전도하시려고 가신 마을(city)이란 교리이다. 교리는 신성의 유입을 받는 그릇에 해당되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장소이다.

2.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듣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냈다.” 역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위 요한의 행동은 의아스럽다. 그 이유가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 저기 오신다” (요한 1:29) 는 그의 말을 참작하면 그가 예수에게 메시아인지 또는 자기 같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인지 묻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많은 의견이 있지만 그것을 반복해 본다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생략하기로 한다. 단지 모순 같이 보이는 역사적 측면에서 지혜와 관련된 어떤 교훈을 찾는게 더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요한은 헤로데가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을 책망함으로 진리를 당당하게 증거한 탓에 감옥에 감금되었다. 헤로데의 범죄는

유대교회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요한의 감금은 요한으로 표현되는 말씀 속의 교회가 그 당시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확실히 표현하고 있다. 어쨌든 이런 역사물을 진정한 교회의 거듭나는 교인과 관련시켜 볼 때 위 사건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요한은 씩어 있는 말씀 또는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표현하는 바, 요한이 옥에 갇힘이란 진리의 출구가 자연적 수준의 인간이 내뿜는 적대행위로 막히면서 자유로운 진리의 행동이 박탈될 때 야기되는 시험의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인성을 의심하는 상태가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고 결국 말씀이 육이 됨으로 구원이 설비되어 있다는 것에 의심을 품게 된다. 이런 영적 시련의 상태에 휘말리면 그분은 은총을 내리시는 것을 잊으신 듯 여겨지고 심하면 주님은 안계신 듯 여기기까지 한다. 이런 의심들은 요한으로 표현되는 말씀 자체에서 근원되는게 아니라 의심을 부추키는 쪽으로 말씀 속의 진리를 해석하는데서 기인된다. 그러나 비록 시련이라는 매우 캄캄한 상태에서도 빛을 보는 때도 있다. 그 때란 마음이 진리의 빛을 추구하거나 그 빛을 받고자 준비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본문에서 요한의 두 제자가 주님 자신에게 파견되어오듯 우리의 생각과 애정들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제거하고 싶어 주님을 직접 뵙고자 할 때이다. 이러면 그분의 입술로부터, 또는 직접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어 진리의 확증을 주신다.

3. 그런데 의심의 대상은 주님 자신이다. “오시기로 되어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 구절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게 있다. 위 질문의 시대적 여건은 거듭나는 삶에 있어지는 과도기(transition)를 표현한다는 점이다. 요한의 생애와 선교사업은 개혁(reformation)의 시기를 표현한다. 따라서 요한의 공생애가 끝을 맞이함으로써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 본문은 두 시기 사이에 상존하는 변화의 상태를 표현한다. 요한 자신이 말한 것,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는 예언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셈이다. 이 상태는 저 상태의 거꾸로이다. 후자가 왕성해지면 전자는 쇠한다. 새 가지가 자라 오르면 옛 가지는 시들어간다. 요한의 공생애가 표현한 것은 선 쪽으로 인도하는 진리이고 주님의 공생애는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인 바, 전자의 임무 수행이 줄어들면서 후자는 점점 증가해간다. 전자의 직무 수행을 후자가 이어 받는 것이다. 글자대로의 진리가 우리의 개혁을 인도했지만 개혁이 마무리되면 글자 속의 영이 거듭남을 인도해서 구원을 마무리짓는다. 회개함에 뒤이어 거룩함이 우리를 감싼다. 씨뿌리는 땀흘림에 이어 수확이 있어진다.

상태 변화의 시련기에 요한 같은 의심을 우리도 느끼게 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있을는지 모른다. 영혼의 슬픔과 죄를 없애주는 어린양이 정말 하느님 자신, 진리 자체란 말인가? 회개나 환난을 통해 영혼이 찾는 참 원리가 이것이란 말일까? 평화의 왕으로 오시게 되어 있는 분의 길을 예비하는게 고통과 고생이라는 준비 과정밖에 더 다르게 없단 말인가?

4. 요한의 제자에게 주님이 주신 답변은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너희가 듣고 본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이는 결과적 차원에서 하신 답변이다. 위 구절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장차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누구인지 찾되 말로 하지 말고 권능의 유무로 찾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판단되리라.” 만일 우리가 자신의 애정이 들은 것과 자신의 생각이 본 것에 대해 직박르게 해석을 내리고 그 해석대로 자신이 체험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가 찾고 있는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어떤 의심도 아예 발생하지도 않는다.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분의 유용한 일보다 우리를 더 확신시켜 줄 증거가 더 있을 수 있을까? 어쨌든 감옥 속의 요한으로 표현된 시험의 상태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 구절은 더 많은 위로와 격려의 교훈을 담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위 구절은 말한다. 제 아무리 우리의 외적 인간이 철장에 갇히고 고통당하고 있는 때에도,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지 아닌지 몽롱한 상태라는 시험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때에도 그분은 영혼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서 회복시켜주시는 선함의 기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일하시어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유익한 일들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자.

5. “소경이 보고...” 무지나 오류로 눈이 먼 이해성이 진리를 직감하도록 능력을 회복시키 심이다. “...절름발이가 걷는다...” 무지와 오류 속의 악으로 빠뜨어진 삶을 곧바르게 해주심이다.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알고 있는 진리들, 그러나 비꼬인 해석으로 왜곡되고 모독된 진리가 된 퇴색한 진리를 순수해지게 해주심이다. “...귀머거리가 들으며...” 진리와 사랑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의지가 경청해서 순종하게 해주심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죽은 상태인 자연적 수준의 사랑대신 생명 자체인 영적 수준의 사랑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심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영혼(spirit)이 가난함, 영혼이 비어 있는 상태는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 바탕인 바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 영혼(soul)을 가득 채운다. 요한의 제자들이 보았던 위에 간략히

열거한 주님의 일은 그분이 수행하셨던 모든 종류의 기적을 거의 다 망라하고 있다. 마치 메시아가 수행하게 될 것을 예언자들이 미리 선포했던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요한의 의심을 지녔었다면 위와 같은 경이로운 그분의 역사는 요한으로 하여금 그분이 그리스도이다는데 대한 충분하고도 남는 증거가 되었을 것이다. 요한처럼 감옥에 갇힌 영혼, 구원해주시는 자비의 대상과 자신과 관련해볼 때 의심을 떨치지 못해 시험 속에서 해매는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증거, 시험의 근원인 진짜 악들을 자신에게서 제거하시는 그분의 역사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보고” 의구심을 떨쳐야 하리라.

6. 요한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 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두고 화를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많은 예언들이 주님의 일은 자비와 권능의 일이라고 미리 말해 두었지만 한편으로 그분은 걸림돌이요 화를 일으키는 돌도 되실거라고 선포했다. 주님이 오셨던 그 때는 시련과 결정이 동시에 필요했던 시대였다. 그분은 인간 위에 떨어지는 진리라는 돌이 되어 주셨는 바 그들은 연단되어야 했다. 이 때에 악한 자 내지 죄로 범벅된 이들에게 그분은 화를 치밀게 하는 돌이 되셨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피할 곳을 제공하는 돌이 되어 주셨다. 누군가가 자기 결점을 지적할 때 화를 품지 않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 주님의 진리가 자신의 악과 결점을 지적할 때 화를 품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큰 하늘의 축복인가! 어느 때에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까? 신성한 질서의 법칙에 화를 품게 하는 모든 것을 홀연히 내던지고 오로지 순응하겠다는 거룩한 상태로 마음을 다시 먹게 될 때,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의 심정과 이해성을 통치하도록 허용할 때, 이로부터 생활에서이든 대화 속에서이든 모든 것이 그분의 질서에 순응될 때 가능해진다.

7. 요한에게 인간 본성 안에 영원한 말씀으로서의 그분 자신에 관한 증거를 주신 뒤, 글자 의미로서의 씌어진 말씀을 표현한 요한에 관한 증거를 군중에 주시고자 그들을 향해 방향을 바꾸신다.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지상의 인간에게 내려오는 신성한 진리가 그 자체 옷입고 있는 바깥쪽 덮개와 말씀 자체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고자 옷입으신 인간성은 잘 어울리고 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유대인을 향한 이 질문은 그들에 못지 않게 우리에게도 참으로 귀중한 질문이다. 그 이유가 요한은 계시된 말씀에 대한 모형이었기 때문이고 계시된 말씀은 아직도 수많은 견해들의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간 이들은 제각기의 관념과 기대감으로 제각기 다르게 주님을 묘사해서 납득한다. 다시 말해 수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과 관련해서 제 마음의

상태로 제각기의 계시를 발견한다는 말이다. 광야는 유대교회의 계시된 말씀이 있었던 삭막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이는 각 개인의 경우 영적 황량함 또는 시험에 부응되는 인간 마음의 상태도 뜻한다. 모든 이는 제각기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검사한다. 가장 혼란 것은 선입견을 먼저 가지고 검사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룩한 매개체를 통해 그분 자신 내지 그분의 나라와 교통하게 될 때 단순한 마음이 보고 듣는 것에 만족치 못할 때가 너무 많다. 본문의 주님은 인간 심정을 가지고 그 속에 교회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셨는 바 그분의 육성을 통해 제각기 다른 견해를 지닌 교인을 위 짧은 구절로 정확히 표현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지혜인 그분의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와 그분의 관계 사항에서 뭔가 배워야 하리라.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느님의 말씀에 관한 인간의 사상 중 가장 많은 부류를 형성하는 사상을 주님께서는 위 질문으로 매우 정확하고도 강력하게 묘사해놓으시고 있다. 하느님의 말씀에는 글자에서 나타나는 의미만을 갖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어 말씀의 가르침에 관한 제 견해를 타인의 견해에 의존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일 뿐이다. 말씀의 바깥쪽인 글자 의미가 말씀의 전부라고 생각할 경우 이는 속이 빈 갈대이다. 말씀의 글자 의미는 가상의 진리 (apparent truth)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인간 해설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붙일 수 있다. 그럴 경우 각기 다른 의미를 가르치는 바 그런 의미가 정도를 넘어서면 전혀 다른 교리로 뒤틀리는 경우까지 이르른다. 이런 계층의 사람들에게 말씀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어 있다. 계시들, 비록 신성에 그 근원이 있지만 인간 견해와 호흡을 맞출 수 있게 작성되어있다. 비록 글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이 지니는 특성이 이러하지만 그런 덕분에 모든 이의 상태에 잘 어울릴 수 있어, 각양각색의 해석이 튀어나오지만 이는 내적 의미를 보호하는 수단도 겸하고 있다. 마치 생명의 나무에 이르게 하는 길을 지키기 위해 장치된 돌아가는 불갈과도 같다. 설사 말씀의 글자가 잘못 해석된다해도 해석자가 진실한 태도로 임했었다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듯” 그들의 믿음이 파괴되거나 심각할 정도의 피해는 입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에 사악한 해석이 내려졌다면 “그것을 지팡이처럼 믿지만 그것은 부러진 갈대에 불과하다 그것을 잡았다가는 도리어 손만 베고 만다” (이사야 36:6). 더구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그 본질에 반대되게 했다면 이들은 마치 유대인이 범한 모독죄, “...사람의 아들의 오른 손에 갈대를 들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러나 정직하게 해석해보려 했다면 이는 “신포도주로 적신 해면을 십자가 위의 주님께 들어올리는” (요한 19:29) 것과 같아서 그 해석은 내면의 진리가 그 진리의 적들로부터 고통당할 때 그 진리를 받드는 수단이 되어 준다.

8.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가고 있다. 이런 계층의 사람들은 하느님은 매우 훌륭한 분이신 바 인간의 매력을 끌어 당겨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말씀은 완전한 인간의 품위(grace)보다 더 나은 것으로 옷입고 있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따라서 말씀이 털옷(hairy garment) (마태 3:4)으로 옷입혀진 것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위 부류의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고 일러주신다. 왕궁이란 천국의 저택이고 그곳에는 왕 중의 왕 되시는 분의 집도 있다. 이런 부드러운 옷은 말씀의 영적 의미에 있을 뿐 글자 의미에서는 발견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슬기롭지 못한 사람은 낮은 수준의 세계에 이런 부드러운 옷이 있으려니 착각하는 바 결국 화가 치밀 수밖에 도리가 없다. 참으로 매끈하게 차려입은 의상에 속하는 어떤 것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 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마음이 천국 수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성한 진리는 천국의 은혜로운 어떤 것을 열어 보여 주신다. 왕궁에 있는 사람이란 영적 수준의 진리로부터 파생되는 선안에 거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 이유가 집은 의지속의 애정을, 왕은 이해성 속의 영적 진리들인 바, 이 애정 안에 체류하는 진리들은 아름다움기 때문이다. 이들은 과거 예언자가 회개의 설교자로 나타나 하느님의 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죄를 보여주고 나열하면서 그런 삶을 멈추라고 호통칠 때 그들의 삶이 입었던 옷, 곧 예언자의 거칠거칠한 옷을 벗어 던졌고 질서 자체로 건립된 왕궁의 사람들이 입는 매끄러운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이 사랑이시오 그분의 왕국은 정의와 평화로 규율된다고 보고 느낀다.

9. 무질서한 정신으로 말씀을 판단하여 본질을 흐려놓고 있는 위 두 부류 외에 또 다른 세 번째의 부류가 있다. 이들은 말씀의 본성에 일치하는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류로서 이들에 관해 주님께서 말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여느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세례자 요한이 여타 예언자 중 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나은 예언자된다고 주님이 말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은 타당치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예언자라는 단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요한은 신성의 명령을 위촉받은 사람일뿐만 아니라 그 인물 자체가 표현적 특성을 지니게 섭리되었다고 더 생각을 보태본다면 이해의 실마리는 풀리게 된다. 말씀 속의 교리를 가르치는게 그들의 직분인 예언자는 말씀으로부터 파생되는 교리도 의미한다. 우리가 모든 참된 교리의 근원이 하느님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말씀으로부터 교리를 얻고자 진지하게 살핀다면 말씀의 진정한 속성에서 빛나가지 않고 말씀을 읽어갈 수 있다. 어쨌든 주님께서 요한에 관해 그는 예언자였을 뿐 아니라 “여느 예언자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씀하셨다. 비록 말씀이 모든 교리를 함유하고 있다해서 말씀과 교리가 동등한 수준인 것은 아니다. 말씀 자체는 모든 교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말씀의 글자 수준도 인간의 사용을 위해 신성한 지혜 자체가 놓여져 있어 모든 세대를 망라해서 거둬나가는 삶의 모든 상태를 계몽시키고 훈육하여 인도해간다.

10. 말씀은 모든 교리보다 더 훌륭하고 여느 예언자보다 더 나은 바 말씀은 교회와 모든 교인에게 특사이요 주님께 앞선 선구자된다. “성서에, ‘나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제 3장 3절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요한이 표현한 말씀은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이다. 외치는 자가 누구이든 하느님의 말씀 속의 진리들은 인간 심정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길을 닦게 해준다. 주님께서는 이 문단에서 마치 주님 외 누군가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신 듯, 마치 여호와께서 예수의 길을 준비하도록 요한을 보낸 듯 말하시고 있다. 그러나 여호와와 예수는 동일한 존재이시다. 그럼에도 따로 따로의 인물인 듯 기록하신 이유는 한 분 주님과 구세주라는 그분의 품성, 신성과 인성측면을 지칭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를 말하신 것이다. 또는 여호와께서 예수가 등장하기 전에 그분의 특사를 보낸다고 말해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여호와와 말씀의 근원 측면, 보내는 주체 측면되는 신성이시고 그 반면 말씀 전체는 하느님이 육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심, 구속자, 인간 구세주로서의 예수와 계속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에 앞서(before the face of Jesus) 요한이 왔다고 말해지고 있다. 주님의 얼굴(face of Jesus)이란 말씀의 내적 측면, 이는 과거에 계셨던 예수이다. 따라서 말씀의 글자(외적측면)와 글자의 해설자로서의 진정한 교리는 글자의 영적 의미되는 내적 측면의 진리들에 앞서 있어 마음을 준비시켜 내적 진리를 받게 해준다.

11. 여느 예언자보다 큰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과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 말씀의 글자는 자연계로부터 얻은 형상으로 형성되어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자연적 수준의 납득력에 잘 적응된다. 우리에게 밝혀지는 말씀 속의 진리, 설사 그 진리가 글자 의미의 수준에 머문다해도 이 진리는 어느 인간의 저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진리보다 더 위대하다.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일찍이 없었다란 말씀은 설사 글자만 가지고 비교해도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말이다. 글자만 가지고도 인간이 작성할 수 있는 어느 문장도 비교가 불가능하게 말씀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글자 의미를 영적 의미와 비교한다면 덜 영광스럽다. 인간이 최고도로 하느님의 진리를 납득한다해도 이 납득력은 가장 수준 낮은 천사의 납득력 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

12.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폭행자들이 강제로 하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한다.” 위 구절의 원어 번역에 대한 의문은 접어둔다 해도,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인 주석에 의하면, 거룩한 사람들이 사용 가능한 수준의 폭행 내지 무력이라는 것이다. 이 주석이 전체적으로는 옳바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해지는 폭행이나 무력이 비록 천국 삶이나 하늘나라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해도 이는 교인 내지 교회에 속한 품성 속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이는 진보해 가는 단계 중 개시 단계이고 이것이 세례자 요한의 시대로 의미되고 있다. 기독교라는 하늘 처방의 시작단계, 물론 하늘의 여타 처방 때도 거의 비슷하지만 이 단계의 사람들이 진리를 영접하는 측면은 품행(morally) 측면보다는 지적 측면(intellectually)에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믿음의 신비로 들어가는데 지력에 의존했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맹렬한 욕망으로 이 진리를 붙잡았다. 그러나 그 진리를 유용하게 만드는 선과 함께 붙잡지 못할 경우가 많았다. 물론 진리를 붙잡은 초기 단계에서는 대체로 복음이 요구한 것에 관한 지식으로 발전한 선을 수용했는지 모른다. 누가에 따르면 복음이 요구한 것에 관한 지식으로 발전한 선을 수용했는지 모른다. 누가에 따르면 복음의 첫 번째 수용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다. “율법과 예언은 요한 때까지였다... 그 이후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누가 16:16). 이를 달리 말하면 그 이후 사람들이 무력으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말이다. 이 구절은 모든 사람들이 하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까지

뜻하고 있지는 않고 단지 억지로라도 노력했던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말이다. 영적 의미에서 볼 때 이 구절의 언어가 함축하는 바, 들어감(entrance)은 심각한 시련 없이는 결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 요한의 시대에서 광복한 종류의 외적 시험을 수단으로 하늘 왕국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해주고 있다.

13. “그 이유가 모든 예언과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예언해왔다.” 우리가 주님께 관해서 배우기만 하고 있는 때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예언하는 때”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내적 인간 안에서 태어나실 때, 그러나 우리의 외적 인간에서 그 모습을 명백히 드러내시지는 않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지는 “요한의 때”이다. 어쨌든 위 두 기간은 순종과 회개라는 수단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에 해당되고 장차 생활 안으로 주님이 임하시느 준비단계이기도 하다.

14. “너희가 그 예언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오기로 된 엘리야가 바로 그 요한임을 알 것이다.” 왜 엘리야가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오게 된다고(말라기 4:5) 약속되었을까? 위 구절로 미루어 생각해보면 엘리야가 요한의 한 예징(type)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많은 예언자 중에서 엘리야가 선발된 이유는 세례자 요한처럼 그도 씌어진 말씀을 표현하는 예언자였기 때문이다. 교회에서이든 인간 마음에서이든 주님의 길은 말씀 그 자체에 의해 예비된다. 더구나 신성과 거룩함에 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은 예언자라는 개인이 아니라 그 예언자의 직능인 바 엘리야라는 개인적 차원은 중요하지 않다.

15. 말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이 말을 더하시오 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여라.” 이는 그분께서 말해온 사함을 주의 깊게 살피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라는 것이다. 귀는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음이 전달하는 의미를 탐사하는 신체기관이다. 특히 눈이 이해성과 상통하듯 귀는 의지와 교류하는 기관에 해당된다.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란 신성한 지혜가 주는 교훈을 명심해서 순종할 뜻을 지닌 사람을 뜻한다. 주님의 가르침에 의지를 복종케 함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제물보다 더 낫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분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22).

16, 17. 주님의 가르침이든 요한의 가르침이든 자기 귀를 들이대어 명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 하다. 이를 주님께서 비유로 지적해주시오 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이 편갈라 앉아 서로 소리 지르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하며 노는 것과 같구나.”

유대인들은 요한과 더불어 곡을 하고 예수와 더불어 기뻐하기를 거절했다. 요한은 고행자, 수도자같이 나타나 외딴 곳에 살면서 거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지내면서 자아부정(self-denial)이라는 교훈을 가르쳤다. 그는 사람들과 더불어 곡을 했지만 사람들은 거절했다. 주님께서는 준엄한 어떤 표시도 하지 않고 오시어 통상적인 사람들과 섞여 보통의 삶을 사셨다. 그분은 유대인에게 피리를 부셨지만 그들은 춤추기를 거절했다.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본 위와 같은 의미 외에도 이 비유는 우리를 위한 더 나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란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의 진리와 순진을 뜻한다. “동무를 부름”이란 사랑의 진리와 순진을 인간이 받을 수 있게 적용함을 뜻한다. “우리가 피리를 불었다”란 영혼이 재충전되기 위해, 또는 영감을 받기에 적합하도록 해주는 천적 수준의 애정을 뜻한다. 그 이유가 “피리, pope, 피리 부름”은 위와 같은 애정을 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란 자연적 수준의 마음 안에서 천적 애정에 부응되는 기쁨이 생산되도록 높은 애정이 그 영역에 입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이유가 춤은 기쁨이나 즐거움을 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곡을 하였다”란 애정 없는 진리이다.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란 마땅히 있었어야 할 진리에의 순종이 없었음을 뜻한다. 이 비유를 각 개인의 상태에 응용하면 더욱 교훈적이다. 아이와 자기 동료 사이에 있어지는 공감(sympathy)의 결핍은 우리 마음속에서 내적 애정과 외적 애정 사이에 있어지는 공감의 결핍을 표현한다. 피리를 불고 곡을 한 아이란 영적 수준의 마음에 속한 애정이고, 이 애정이 동료를 부름이란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 있는 애정들과 기쁨이든 슬픔이든 서로 주고받으려 함을 뜻한다. 그 이유가 영적 수준의 마음에 있어지는 기쁨은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 있는 순수한 선과 진리와 서로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슬픔 역시 통회와 겸허를 수단으로 상호간에 교류해서 공감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 마음들에서 영적 애정과 자연적 애정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자연적 마음이 영적 마음에 응답해서 협동하게 만드는 것은 신성의 역사하심에 있는 그분의 목적중 하나이다. 이런 영적 애정의 부름에 진지하게 순종하는데 우리의 자연적 애정이 얼마나 느린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체험했으리라. 우리의 자연적 수준은 영적 수준과 공감을 나누는게 얼마나 힘든지, 따라서 진리의 선으로 형성된 양심의 탄원과 부름이 있을 때 자연적 수준의 애정이 경청하도록 자신을 인도해가야 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명심해야 하리라.

18, 19. 주님께서는 위 비유를 그분 자신과 세례자 요한에게 적용하시어 설명하신다.

“요한이 나타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 사람은 악마를 가졌다’고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보아라, 저 사람은 식도락가요 모주꾼이고 세리와 죄인하고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사건을 비틀고 왜곡하고 과장하는 마음씨, 결국 저주를 자초하는 그 마음씨 안에서는 미덕도 악덕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을 위 구절에서 금방 살필 수 있다. 어쨌든 위 구절에서도 거기에 담긴 영적 의미의 파악이 본 주석서의 중요한 목적이다.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요한으로 표현된 개혁이라는 작업은 자아부정을 수단으로 악을 제거하는게 그 본질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와서 먹고 마셨다. 그 이유는 예수의 공생애로 표현된 거듭남이라는 작업은 선을 행함이 그 본질되기 때문이다. 자아부정 또는 악을 단념하는 것이 영적 단식이고 선을 행함은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요한을 두고 악마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연적 인간은 자아 부정을 악마로 간주하고 그것은 참된 모든 생명과 그 즐거움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가 식도락가요 모주꾼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가 자연적 수준의 인간은 종교의 선과 진리에 관한 것은 맛있게 먹으려 하지 않으므로 자연적 인간 자체의 생각만으로 정작 영혼을 채워 더 이상 어느 것도 채울 공간을 남기려들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을 헐뜯는 위의 발언은 군중이 아니라 바리사이파인들, 핍장히 성경되다는 인물로 자처하는 자들, 주님께서 악이나 위선 외의 세상에 관해서는 거절하시거나 정죄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세상의 어떤 인간으로 간주해버리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세리와 타인들을 친구로 삼는 것까지도 바리사이파인들에게는 규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세리나 죄인들과 가까이 하신 이유는 그분의 목적이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그분의 품새를 보아도 주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형이 되어 주셨음을 알 수 있다. 그분은 죄인들이 경멸당하고 있다해서, 또는 그들과의 교제로 경멸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서이든 여타 사람들 같이 죄인들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의 영혼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너무 위대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게 했고 그분의 사랑은 너무 순수해서 그들과의 접촉으로 오염되는 것도 예방해주었다. 이렇게 말하시어 결론 내리시고 있다. “지혜는 그 자녀로 정당해진다.” 글자 의미에서 볼 때 지혜의 자녀란 슬기로운 사람이다. 지혜는 오로지 슬기로운 사람만이 옳다고 인정한다. 지혜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지혜 자체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슬기롭게 된 이들에 의해서일 뿐이다. 슬기로운 사람 외에 누가 지혜를 음미할 수 있을까? 영적

의미에서 볼 때 지혜의 자녀란 지혜 속의 선과 진리들이다. 성경이 언급하는 지혜라는 단어의 사용은 지적 측면보다는 품행 측면에 비중을 놓고 있다. 성경에서 우둔함이 악행 (depravity)을 뜻하듯 지혜로움은 총명에 바탕을 둔 선함을 뜻한다. 지혜롭다라는 결과를 생산하게 한 원리가 과연 특출한 원리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로 내보일 때만이 지혜는 정당해진다.

20-24. 경이로운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회개함이 없어 책망을 들어야 하는 성읍을 향해 언급하시고 있다. “예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동네에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동네들을 꾸짖으셨다. ‘코라진아. 너는 화를 입으리라. 베싸이다야. 너도 화를 입으리라. 너희에게 베푸는 기적들을 띠로와 시돈에서 보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들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잘 들어라. 심판 날에 띠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너 가과르나움아! 네가 하늘에 오를성 싶으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베푸는 기적들을 소돔에서 보였더라면 그 도시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잘 들어라. 심판 날에 소돔땅이 너보다 오히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위 도시들은 방금 주님께서 비유로 전달하신 진리에 관한 장엄한 샘플이다. 기적과 경이로운 일들을 요구했던 이들에게 위 구절의 대답은 얼마나 심각한지! 구세주의 권능과 복된 일들은 정작 그 일이 있었던 성읍에서는 대체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곳 사람들은 수행된 적이 없던 위대하고 가장 은혜스러운 기적들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불신앙과 죄 가운데 파묻혀 있었다. 한마디로 외적 측면의 신념이나 설득이 내적 측면의 신념을 생산해주지 않았다는 말이다. 따라서 내면으로 신앙이 있으려면 내면적 확신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주님의 기적들이 구원해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정착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방법뿐이다. 영적으로 우리 영혼(soul)에서 작업되는 방법이다. 주님의 기적들은 영혼을 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수단들을 표현했다. 건전한 상태로 회복된 영혼만이 그분의 기적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그 이유가 주님의 기적은 구세주로서의 주님에 관해 실험적인 지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주님의 일을 입증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앙과 회개치 않은 죄로 화를 입고 있는 코라진과 베싸이다, 가과르나움이다.

위 구절을 글자 의미로만 볼 경우 약간의 곤란한 점이 발견된다. 만일 주님의 기적들이 띠로와 시돈을 회개하게 했을 것이라면 왜 그 당시에 있어지지 않았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주님이 띠로와 시돈은 구하실 수 있었다해도 코라진과 베싸이다는 구하실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더 일찍 세상에 오셨다면 그분께서는 그 때 이후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되도록 설비하시되 완전하게는 못했을 것이다. 극도의 악까지 치료되려면 극도의 악이 출현 되어 극성을 부릴 때이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그분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자비는 미리 설비하시고 있다. 심판날에 구세주를 거절한 사람보다 띠로와 시돈이 더 가벼운 벌을 받게 되어있다. “많은 것이 주어진 사람에게 는 많은 것이 요구되어진다.” “이것이 단죄이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본문을 영적 의미로 보게되면 더 엄숙하고 중요한 교훈을 가르친다. 일반적으로 자연적 인간 속에 있는 지적 측면의 원리들이 띠로와 시돈으로 표현되고, 이 지적 원리 안에 있는 거짓 추론이 코라진과 베싸이다로 표현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자연적 인간 속에 있는 의지 측면의 원리들이 소돔으로, 그 의지의 원리에 선천적으로 붙은 악들이 가파르나움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띠로와 시돈으로 표현된 자연적 인간 속의 지적 원리 자체는 “권능의 일” 또는 구속하시는 주님의 자비로 구원될 수 있는 반면, 코라진과 베싸이다로 표현된 지적 원리 속의 거짓 추론은 주님의 신성한 진리에 정반대되는 바 거절되고 정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가 있으리라고 발표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거짓 추론에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고 피할 수 있는 수단은 오로지 그것들과 결별하는 수밖에 없다. 소돔으로 표현되는 자연적 인간의 의지 측면의 원리까지 그분의 구속하시는 권능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나 가파르나움으로 표현된 그 속의 악들은 주님의 신성한 사랑에 정반대되는 바 그 악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소멸되어야만 한다. 이런 악도 화 있을 것이라고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악들, 특히 지옥으로 가라앉게 하는 자아사랑의 악을 떠났지 않는 길만이 화를 피할 수 있다.

25, 26. “그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앞의 주제의 또 다른 측면 즉 신성하고 천국적인 측면이 본 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인간이 신성한 자비의 제안을 거절할 때 이 자비는 거절의 결과나 악의가 경감되는 쪽을 선택하신다. 그 방법은 그들로부터 그들의 범죄 발생을 더 악독해지게 하는 지식을 감추시는 것이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정작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선을 그들이

완고해서 받지 않는 것을 보실 때 그분의 자비하심은 그들을 더 죄 있게 만들기만 할 뿐인 진리를 보류하신다. 진리의 내면적 인정은 자기 생명이 되도록 보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느님의 섭리적 차원의 역사 중 하나이다. 이런 섭리한 가지가 본문에 실려 있다. 즉 하느님의 선하심은 슬기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속한 사항을 감추어두신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즉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상태인 심정이 순진하고 영이 단순한 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신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생명의 진리들을 감추거나 보여주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이렇다. 말씀의 글자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의 영적 진리가 감추이게 하되 단순한 사람들에게는 밝혀준다. 말씀의 글자는 마치 에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구름 기둥 같아서 이쪽은 밝음을, 저쪽에는 어둠이 있게 한다. 이런 조치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감추이고 드러내심은 아버지가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말해지고 있다. 아버지란 신성한 사랑 측면의 주님을 의미하는 바 이 구절 같은 조치는 순수한 사랑이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그 이유가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다(its being good in his sight)”에서 좋은 모든 것은 사랑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분이 보시기에” 적절한 지혜로 행동된다.

27.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쪽으로부터 균중을 향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가르쳐주신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들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이 감사기도가 주는 인상은 마치 아버지 보다 아들이 더 하위 서열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함을 주장하고 있다. 본문의 “모든 것”은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 즉 신성의 특권과 모든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아버지는 이런 모든 것을 아들에게 전달하셨다. 사실 한 분밖에 지닐 수 없는 신성한 모든 것을 또 다른 인물에게 나누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이치이다. 아버지란 주님의 내재하고 있는 신성이고 아들은 내재하는 신성이 거하는 인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신성에 속한 “모든 것”이 인성에 전달되는 것은 타당하고 당연하다. 마치 우리의 영혼이 가진 모든 것이 육체에 전달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영혼 속의 것이 육체에 배달된다고 해서 영혼의 어떤 속성이든 그 권위성이든 어느 것도 육체에 빼앗기지 않는다. 주님께서 신성에 속한 것을 그분의 인간 본성에

배달하심으로 인간 자체를 신성되게 만드셨다. 즉 신성한 영혼이 거주하기에 꼭 맞는 신성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성은 신성의 참 형체, 신성을 명백히 나타나게 했다. 예수 안에서 신성은 인성이고 인성은 신성이시다. 그러므로 둘 다 똑같이 무한하시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밝히 알게 해주려는 사람들밖에는 아는 이가 없다.” 만일 아버지밖에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밖에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면 아들과 아버지의 서로에 대한 지식은 무한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인성을 통하지 않고는 신성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구절이 말하는 주님의 초대야말로 얼마나 적절한지!

28. “고생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인간의 허약한 모든 것, 슬픔을 겪어지신 분, 영적 노동의 모든 상태를 통과하신 분, 그래서 가련하고 죄많은 피조물, 고뇌 속의 피조물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 인간 최대의 시련에서도 그 인간을 떠받쳐 주실 분, 이런 신성한 인간이신 예수가 우리 앞에 계셔서 복된 초대와 확증을 가져다주고 있다. 악과 잘못들은 압박하는 두 개의 짐이어서 인간의 열매를 썩게 하고 신음소리만을 내게 한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만이 위 두 짐이 영적 생명을 갖는데 방해꾼임을 안다. 이들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의 명을 위해 압박하는 자신의 악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갖는다. 주님께 나아오는 녹초된 영혼에 약속하신 쉼을 구하기에 앞서, 주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기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악이 죄임을 알아야만 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인이 필요로 하는 것, 죄인에게 쉼이 필요해서 그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구세주 한 분뿐이시다. “사악한 자에게는 쉼이 없다.” 쉼(rest)은 정의 속에서만 획득된다. 그리고 이 정의는 정의 자체이신 그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이분이 주는 쉼을 얻기 위해 우리는 죄의 길을 단념함으로써, 회개라는 열매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서 계명을 실천하는 자세로 발전해야 한다. 그 이유가 쉼의 저자이신 그분께로 끌어당겨주는 것은 사랑뿐이기 때문이다.

29. 짐을 지느라 허덕여 쉼을 찾는 사람을 초대하시고 그들이 그분의 명을 메고 배우도록 아울러 초대하시고 있다. “나는 심정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을 메고 나에게 배워라.” 우리가 사탄의 명을 벗어 던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을 메어야만 한다. 죄의 명에 정의를 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주님의 명을 멘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안내하는 원리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분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성에 방향을 지어주는 원리로 그분의 진리를 받는 것을 뜻한다. 주님 스스로 말하신다. “나는 심정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정확히 말해 그분은 온유와 겸손 그 자체이시다. 그분은 가장 크시지만 가장 작기도 하시다. 그분은 가장 높으시지만 가장 낮으시기도 하다. “나는 섬기기 위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복된 그분의 본보기를 모방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으로 하여금 쉽을 발견하게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지옥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신 분, 불일치로 얼룩진 인간 모든 원리를 던져버리신 분, 그래서 인성 안에 평화를 만드신 분, 이제 이런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원천이 되신 분, 이런 주님에게만 진정한 안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0. “내 멩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멩에는 사랑의 멩에인 바 그 멩에는 편할 수밖에 없다. 그분의 짐은 진리의 짐인 바 가벼울 수밖에 없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사랑은 완전한 자유이다. 따라서 사랑과 진리가 있는 곳, 그분의 멩에와 짐을 진다면 압박이나 피곤에 지치는 경우가 없고 오로지 행복과 신선한 느낌만이 맴돌 뿐이다. 이 기쁨은 예수의 멩에를 메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경험이다. 많은 이들이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 고달픈 삶이라고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천국에의 길을 더 쉽게, 천국에 더 확실히 입장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분께서는 율법의 짐과 멩에를 그분 자신으로 만드시어 이를 행하셔서 우리도 그 짐과 멩에를 거뜬히 짊어질 수 있게 하셨다.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무를 면제시켜주기 위해 우리 대신에 이루신게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율법의 완성을 더 쉽고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해놓으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멩에를 짊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분의 멩에는 편하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 이유가 그분은 우리에게 본보기로서, 후원자로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의 이런 권고는 기독교인과 그 구세주에 매우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다. “네 짐을 주님께 의지해라. 그러면 그분은 너를 받쳐 주리라.”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짐을 진 상태에서 그 짐을 떠받쳐 주시리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요 원조자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여정 내내 우리와 함께 가신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원조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붙잡아 주신다. 우리가 기쁨과 평화로된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줄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

12

1. 앞 장에서 주님께서는 권능있는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몇 유다성읍을 심하게 꾸짖으셨다. 본 장의 시작에서 안식일을 전통적으로 준수하는데 집착하고 있는 몇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닌 잘못된 안식일 준수를 정죄하시고 있다. “그 무렵,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먹었다.” 타락되는 교회에 흔히 나타나는 양상은 교회의 외적 측면에 속한 사항을 준수하는데 열을 내는 반면 내적 원리에는 소홀해지는 태도이다. 이를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대해서는 십분의 일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런 식의 일을 완벽하게 했다. 따라서 곡식밭(cornfield) 사이로 지나면서 일어난 본문의 사건뿐 아니라 안식일에 베푼 자비의 일까지도 주님의 과오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대의 법으로 세워진 차원에서의 유대인의 안식일을 위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법에 합당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셨다. 단지 유대교회가 그 법을 빌미로 덧붙여 놓은 조항을 따르지 않았을 뿐이다. 더욱이 그들 법에 일치되어 이루어진 주님의 행동에는 바리사이파인들이 꿈도 꾸어볼 수 없는 더 깊은 원인과 의도가 담겨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일 뿐 아니라 표징적으로 설립된 날이다. 이 날은 하느님께서 옛세동안 창조작업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간단한 이유 속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 창세기에 있는 창조 사건은 영적 창조 또는 인간 거듭남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더불어 가장 높은 의미에서는 신성 차원의 거듭남에 해당되는 주님의 영화하심을 서술하고 있다. 옛세의 일은 영적 쉬의 상태를 준비하기 위해 선행되는 영적 노동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주님의 경우에서는 놀랄만하게 밀착되어있다. 옛세의 일은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 속에 있어지는 시험받는 그분의 상태를 의미한다.

안식일은 영화하신 그분의 상태, 쉼 그 자체, 거듭나는 과정에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과 천국에 쉼의 근원이 되어 주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 이삭을 잘라먹는 사건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들이 영화하심과 거듭남이라는 두 가지에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님의 영화하심은 한 분 안에서 있어지는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union)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선함과 진리가 하나된 결과이다. 인간의 경우 위 주님의 작업에 관한 형상은 각자의 외적 인간에서 선함과 진리 또는 이타애와 믿음의 결합(conjunction), 이런 결과 외적 인간이 내적 인간과 결합하는 거듭남의 완성이다. 곡식밭(cornfield)은 교회에 대한 상징물이고 거듭나는 생활이 발전해 가는 상태에 있는 인간 마음에 대한 상징물이기도 하다. 곡식(corn)은 교회가 그 자녀를 받쳐주기 위해 준비하는 영적인 선을 상징하고 앞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파견해 불러모으도록 한 그 추수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다. 추수자 또는 안식일로서의 주님이란 측면에서 예수께서 그분의 교인을 위해 설비한 것을 곡식이 표현한다고 위에서 설명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의 배고픔은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그들의 “천국곡식”을 위해 일어나는 영적 욕구나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밭에 서있는 상태의 곡식 또는 자라고 있는 곡식이란 마음 안에 이식되어 증가하고 있는 선, 그러나 내면의 기억에 축적되기에는 아직 이른 상태의 선, 즉 생활에 응용되어 충분히 성숙된 선이 아직은 아닌 상태를 뜻한다. 이런 이삭을 잘라 먹음이란 내적 생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미 획득된 선함이라는 원리를 음미함 또는 실지로 수용함에 대한 표현이다.

2.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저것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바리사이파 사람이란 종교는 형식의 엄격한 준수와 고백만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믿는 이들, 더불어 이런 사상의 소유자들의 자연적 마음에 있는 느낌과 생각까지 의미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영적 마음에 있는 원리, 영적 수준의 마음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럼에도 이런 이의 제기는 정작 그들이 반대한 질서적인 작용이 있게 하는 진정한 영적 바탕이 있음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만들어 줄뿐이다. 선하고 참된 것에 제기하는 이의는 진리의 잘못 적용이나 왜곡함에서 비롯되는데 본문은 이에 대한 실례를 제공하고 있다. 안식일에 곡식밭을 지나가는 것은 율법위반이 아니다. 한편 제자들의 행동 역시 이렇게 명백히 기록되어있다. “너희가 이웃의 곡식이 자라는 곳을 갔을 경우, 너희는 곡식 이삭을 잘라먹을 수도 있다...” (신명기

23:25).

3, 4.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정당함을 입증하신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는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일행과 함께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제들밖에는 다윗도 그 일행도 먹을 수 없는 빵이었다.” 주님께서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다윗이 했던 일을 읽어보지도 않았는가라는 물음을 수단으로 위 다윗 역사를 소개하신다. 이런 방법은 위의 역사사건을 진실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동되어 일어나게 해서 그들을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담긴 화법이다. 주님께서 인용하신 위 사건은 참으로 적절한 케이스이다. 그 이유가 이 사건은 그분 자신을 표징적으로, 예언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윗이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고, 임무를 수행하는 사제로부터 거룩한 빵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인성 안에서 선과 진리가 하나됨을 표현했다. 그 이유가 사제는 주님의 인성 속에서 신성한 사랑 또는 선함이라는 원리를, 왕은 신성한 지혜 또는 진리라는 원리를, 인성 그 자체는 하느님의 집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 집안에서 사제와 왕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인성 안에서 신성한 선과 진리의 하나됨이 사제가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주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때의 이 빵은 선이라는 원리를 표현하고, 사제가 다윗에게 이 빵을 줬다는 신성한 선이 신성한 진리와 교통함, 이 교통의 결과가 하나됨으로 끝맺어진다. 그렇다고 위의 하나됨은 완성되거나 마지막의 하나됨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가 주님의 인성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다른 수준으로 이어져 가면서 완전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달라지는 수준 중의 하나가 위 인용된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다. 거룩해진 빵을 받은 사건 외에도 다윗은 사제 아비멜렉으로부터 자기가 죽인 불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도 받았다. 다윗이 신성한 진리 측면의 주님을 표현했듯 다윗은 구속자로서의 주님도 표현했다. 주님께서서는 어둠의 권세와 계속 싸워 가셨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제로부터 주님의 집안에서 거룩해진 빵과 이미 입증된 칼을 받은 것이다. 전자는 유지지탱을 위해서, 후자는 싸우기 위해서이다.

5. 주님께서 또 다른 케이스를 주신다. “또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는 사제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주님께서 안식일을 모독한다고 일컬으신 것은 안식일에 바쳐지는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더불어 바리사이파인들이 예수를 고소해서 제물로 삼게 되는 굴욕적인

일까지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다. 앞 절의 경우 같이 이 구절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 옳다는 것만을 주장하시기 위해 인용한게 아니라 그분 자신의 신성한 일을 표징적으로 묘사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 이유가 사제는 신성한 선의 측면에 관한 주님을 표현하듯 사제직무는 구원이라는 주님의 일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 사제와 다윗의 케이스는 주님의 인성 안에서 선과 진리가 하나됨을 묘사했듯이 본 구절은 앞 구절에 이어 계속되는 상태를 기술하고 있다. 이는 신성한 선의 측면의 주님에 속한 사항이 그분의 인성이라는 성전 안에서 구원이라는 일에 종사하시는 모습이다. 사제는 사제적 품성 측면에서의 주님을, 사제가 직무를 수행하는 성전은 신성한 인성을 표현하고 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있어지는 그들의 일에 관해 말하시고 있다. 그 이유가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안식일은 그분의 시험이 종식된 후에 있게된 신성한 쉼, 주님이라는 한 분 인물 안에서 있어진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을 가장 거룩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취하신 신성한 쉼은 비활동인 정지가 아니라 가장 완전한 활동에 해당된다. 이 쉼은 땀흘림(labor)이 아니라 일(work),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그 이유가 주님이 땀흘리신 것은 구속의 일이 결과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안식일에 성전에서 사제들이 하는 일은 구원이라는 일을 두드러지게 표현한다. 마치 주님 스스로 안식일에 하신 것 같다. 즉 은혜의 많은 기적들을 안식일에 베풀었고, 곡식밭 사이로 걸어가셨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것과 같다. 이런 행동 모습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만드신 안식일과 추수로 설비해두신 풍요한 즐거움을 먹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표현하고 있다.

6. 이제 주님은 위 구절에서 또 다른 예를 들어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셨고 이제는 그분의 권위로 재 입증하신다. “잘 들어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위 주장은 유대인의 선입관을 크게 건드리는 발언이다. 이 주장은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구실이 되었고 사흘만에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는 발언을 빌미로 잡은 고발 건수와도 관계가 있다 (마가 14:58-64). 주님께서 성전은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 2:21). 참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를 보고 있다. 위 주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진리는 얼마나 장엄한지! 성전, 유대교회의 영광이 집합된 유대인의 성전은 장차 오시기로 되어있었던 분에 관한 모형이다. 그래서 정교하고 장려한 예식의 이모저모는 천국으로부터 밝히 나타낸 그분에 관해서 이지만 이는 장차 오기로된 좋은 일의 그림자, 과거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실체일 뿐이다. 그러나 주님은 높은 수준의 의미에서 성전보다 더 위대하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요한 14:28) 선포하신 구절로 이렇게 가르치신다. 신성은 인성보다 더 크시다는 것, 천국에서나 교회에서도 신성한 선은 신성한 진리 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주님 자신이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이해해보면 이는 그분이 아들일 뿐 아니라 아버지이다는 것, 인성일 뿐 아니라 신성이시다는 것, 본질적 측면에서도 신성한 진리일 뿐 아니라 신성한 선이심을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거처 차원에서의 성전보다 더 크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값을 매겨 보고 경험으로 입증해보아도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진리보다, 이타애가 믿음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이다.

7. 무모한 사람을 죄있게 조작하는 진짜 근원을 지적하신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에게 동물을 잡아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는 무모한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 구절의 이해는 9장 13절에서 살핀 바 있다. 위 구절은 호세아 6장 6절, “내가 반기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제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에서 발견된다. 제물은 바리사이파인들이 종교로서 간주한 것, 예배나 경건함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위의 신, 구약의 모든 선포가 보여주는 바, 자비는 제물보다 더 수준높다는 것, 이타애가 경건함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을 또박또박 가르치시고 있다. 정당하게 행동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하느님과 더불어 겸손히 걸어가는 것만이 하느님께서 실지 요구하시는 전부이다. 그 외 모든 것은 인간 차원의 의무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이런 인간적 의무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 이유가 이런 것들 없이 종교는 존재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예배와 생활에서 요구하시는 것, 자비라는 품위를 잘 키워갔더라면 죄없는 자를 정죄했을리 만무하다.

8.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알았었다면 아마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다 호의적으로 비판했는지 모른다. 위와 같은 분이 주님이시다는 그분의 주장은 곧 그분이 신성이시다는 주장과 같다. 그 이유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 말고는 어느 누구도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보건대, 이는 안식일로 표현된 그분, 육안에서 거행된 신성한 일을 통해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인 영적 쉼의 저자되신 분이 주 예수이시다는 말이다. 더불어 그분은 거듭나고 있는 그분의 자녀의 마음 안에서 선행과 진리가 결합하는데 대한 저자이시오 완전한 모형이 되시고 있다. 안식의 상태가 우리 안에서 형성될 때, 즉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정과 삶을 통치하는 근본 원리가 되어 있을 때 예수는 우리에게 실지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 이런 영적 쉼과 평화는 우리 안에 거점을 둔 어둠의 왕국을 몰아낸 다음, 즉 6일간의 거듭나는 노동의 결과인 우리의 자연적 수준의 생각과 애정들이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복종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달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달성된 쉼의 상태가 안식일로 의미되고 이 날의 주인이 예수임을 말하고 있다. 그 이유가 날(day)은 상태(state)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9. 이제 위와 관련된 기적의 사건은 안식일에 관한 주님의 교리와 바리사이파 사람의 교리 사이에 놓인 차이점에 대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예수께서 다른 데로 가셔서 그곳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 날이 비록 곡식밭을 거닐었던 그 날이 아니라 해도 어쨌든 안식일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누가 6:6). 장소가 바뀐 상태의 바뀐이다. 교리를 상징하는 회당이라는 곳에 주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은 마치 주님이 교인들 마음에 들어가시듯 교회의 교리 안으로 그분의 신성한 진리가 유입되는 것을 뜻한다.

10. 이 유입은 동일한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결과를 생산한다. 바리사이파 사람처럼 악한 자에게는 적대감을, 본문의 병자 같은 선한 사람에게는 복종하는 태도를 생산되게 한다. “거기에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마비되거나 오그라든 신체기관이란 내적 인간의 간절한 부탁에 응하기를 거절하는 외적 인간의 상태를 의미한다. 손이 오그라짐이란 성미의 어떤 불완전함, 상습적이 되어버린 어떤 악이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에서 일치되어 움직이는 것, 또는 의지와 생활이 일치되어 행동되는 것을 방해할 때 나타난 결과를 말한다. 사실 이 사건을 보다 특이하게 만드는 주변 상황이 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를 떠보는 것이다. 주님께서 치료에 관해 말하시거나 사람들이 치료에 관해 묻기 이전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게 합법적이냐는 질문을 제안했다. 누가복음 6장 8절을 보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위 질문을 입밖으로 뱉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알고 훈계하셨다. 이 대목은 주님 보시기에는 말과 생각은 하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유일한 예에 해당된다. 바리사이파인의 질문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예수의 값을 깎아내려 보려는 악한 의도에서 발생되고 있다. 대체로 악한 모든 의도는 교묘한 추론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 발버둥치고, 심지어 종교와 덕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주장해대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경우와 거의 같은게 본문의 바리사이파인이다. 그들은 안식일에 베풀어지는 주님의 치료 행위를 그분을 단죄하는 빌미로 만들고자

획책하고 있다. 결국 이런 교활하고 음험한 술책은 주님을 죽이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이유가 왜곡된 추론은 진리의 파멸로까지 진행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라는 인물로 육을 입은 선함과 진리라는 원리의 적들이 이렇게 묻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고자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비록 예수께서 안식일에 기적을 아직 베푸시지 않은 상황이지만 곡식밭 사이로 걸은 사실을 아는 바리사이파인들은 상상하기를, 그가 아마 안식일에 치료하는 일에 관해서는 더욱 방심한 채 대답할 것이라 생각되어 예수가 제 스스로 올라가미를 씌우는 실언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질문한 것이다.

11, 12. 주님의 공생애에서 두드러진 양상 중 하나는 그분을 닮게 만들려는 기묘한 적들의 술책을 여지없이 꺾어버리는 경이로운 숨씨이다. 유혹자가 성경의 율법조항을 수단으로 그분을 묶어보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게 합당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되묻는 방법으로 답변하신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럴 때에 그 양을 그냥 두겠느냐? 아니면 끌어내겠느냐?” 이 답변은 그들을 침묵시키기에 충분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기에 충분했다. 주님께서 참고하신 율법(신명기 22:4)에서는 안식일과 관계해서는 언급된 게 없고 오로지 동족의 짐승이 쓰러져 있을 경우 도와야 한다는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귀찮은 이런 이웃 사랑은 안식일을 이유로 사양하고 있다. 짐승조차도 구조해야 하는 지경인데 고통당하고 도움의 손길이 없는 가련한 인간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안식일에 더욱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 자신에 위 주님의 답변을 응용해볼 차례이다. “양과 사람”이란 우리가 지니는 두 가지 다른 애정, 즉 자연적 수준의 애정과 영적 수준의 애정을 뜻한다. 이런 의미 차원에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는 구절을 이해해보자. 감각적이고 한정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수준의 애정보다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적 수준의 애정은 얼마나 더 위대할까? 우리 속에서이든 타인 속에서이든 자연적 수준보다 영적 수준의 것들은 얼마나 더 중요한지! 자연적 인간, 설사 이웃이든 자신이든 잘됨을 동기로 삼아 추구한다해도 그 추구는 자연적 애정이 승강되는 수준인 자연적 목적물에서 한계가 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적 인간, 만일 자연적 수준의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주된 관심사는 영적인 것이 된다. 영적 인간은 양보다 사람이 더 낫다고 평가해서 사탄에 매여있는 사람이든, 질병으로

꼼짝못하는 사람이든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그를 구하고자 노력한다 (누가 13:14). 자연적 성결함만이 종교의 전부인 듯 치부하는게 바리사이파의 안식일이지만 참 기독교인의 안식일은 영적 수준의 상태,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자 애쓰는 상태이다.

바리사이파 사람을 향해 연설하신 그분의 결론은 안식일이라 해도 선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글자대로의 의미만 쳐다보고 쫓아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원리이다. 안식일은 종교적 가르침을 위한 날이요 동시에 이타애를 실습해보는 날이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안식일이다. 더구나 이런 원리는 주님의 선포와 그분께서 몸소 보이신 행동과도 일치된다. 그분의 말씀들은 생활 속에 있는 천국 상태로서의 안식일이요 천국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 이유가 선행은 지상이든 천국이든 어디서나 영적 생명의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13. 그들이 천국 교리에 어떤 반박도 할 수 없게 되자. “그 불구자에게 ‘손을 펴라’하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오그라든 손이 펴졌을까? 명령하시는 그분을 강하게 신뢰하는 믿음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노력이 있게 하고 이 노력 가운데서 병자는 명령된 대로 이를 능력을 받게 된다. 요약해서 말하면 자발적 행동과 강한 믿음이다. 사실 주님의 뜻을 행할 능력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주어져있다. 이 능력은 그분의 뜻을 사용하려 시도하는 곳에만 존재한다. 그러나 왜 우리가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은데 사용해보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따지고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본문의 무기력한 병자는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 그 사람 역시 자기 손이 쓸모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물론 과거에 그 사람도 손을 사용해보려 자주 시도했었을 것이나 번번이 실패했다. 자기 실력에 근원을 둔 우리의 노력은 실패한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만들게 될 때 그분은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주신다. 그 결과 그 일에 마땅한 과정이 뒤따라온다. 노력과 행동 개시로 오그라든 손은 회복되었다. 이 회복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과 같이 성해졌다.” 두 손은 두 발처럼 의지와 이해성이라는 두 자질의 능력과 상응된다. 손은 내적 인간 안에 있는 두 자질의 힘, 발은 외적 인간 안에 있는 두 자질의 힘을 상징한다. 이 두 가지 신체 기관 중 어느 하나가 질병에 걸렸거나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는 상태와 활동의 조화가 결핍된 것, 다시 말해서 신체기관이 상해를 입거나 파괴된 것은 그 기관이 상징하는 것들의 조화와 사용이 결여된 것을 표현한다. 의지가 이해성과 일치되게 행동하기를 거절할 때, 또는 이해성이 의지와 일치된 행동을 거절할 때 거기서 우리는 오그라든 손을 목격하게된다. 신성한 자비가 장애의 원인을 제거해줄 때 오그라든 그 손은 “타인의

손과 똑같은” 기능을 회복한다.

14. 은혜로운 주님의 베푸심, 그분의 권능을 목격하고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바리사이파인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만을 부채질하고 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물러가서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하고 모의하였다.” 악은 선의 면전에서 비키려하고, 허위는 진리의 면전을 피하려든다. 악한 자는 이 세상에서는 생활의 내향 측면에서, 저 세상에서는 외향 측면에서 주님의 면전을 비키려 한다. 악의로 찬 생각들은 참 빛에서 멀어지려 하고 어떻게든 진리를 파괴할까 모의하느라 어둠으로 물러간다. 허위는 진리에 정반대되나 거짓의 파괴력은 그것을 수단으로 삼는 악의 강약에 비례된다. 잘못이나 실수 같은 것은 의도가 순수하다면 그 순수한 원인 덕분에 별충이 가능할 수 있다. 거짓은 지성이 선함을 얼마나 미워하는지에 비례해서 파괴의 강약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런 미움이 심정에 들어와 주인노릇을 하면 지성은 악한 목적의 성취를 위한 수단 방편을 고안해내는 기능으로 전락되고 만다. 그럼에도 불의한 발람이 고안해낸 수법이 제아무리 교묘했어도 야곱 후손을 향한 그의 마법은 효력을 내지 못했고 이스라엘에 내려진 숙명의 길을 바뀌게 하지 못했다. 교회의 내적, 외적인 모든 원리의 저자되시는 그분에 반대하여 야기되는 모든 짓은 그 얼마나 미력한지!

15. 바리사이파 사람의 행동에 대한 주님의 방침은 글자 의미에서 뿐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다. “예수께서는 그 일을 알아채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위협이 도사린 장소를 떠나는 것은 비단 주님의 사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분은 신성한 권능을 가지셨다. 비록 그분이 하느님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처럼 행동하셨다. 그 이유가 인간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만사에서 인간에게 모형이 되셔야 했기 때문이다. 적의 간계에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그분 스스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르치시고 있다. 설사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조차에서도 그 힘을 사용하는게 언제나 슬기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자신이나 적 모두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선한 만큼 지혜로웠고, 자비하신 만큼 강하셨던 주님의 본모기를 모방해보는게 나올 때가 많다. 즉 악을 정면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문 같이 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본문의 상황을 영적 의미 즉 개인 차원에 응용해 보자. 주님께서 악한 분위기에서 물러나셨다는 것은 외적 인간 측면에 있는 악이 선에 적극 반대하는 공세를 펼 경우 마음의 내면 쪽으로 그분의 진리를 끌어 당겨 더 나은 애정과

생각이 끌려 올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건강하게 활성화된 상태를 회복시키시는 신성한 일을 계속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어진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 왔으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런 군중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발견될는지 모른다. 이런 믿음만이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있다. 더구나 악한 영향력이 주님을 물러가라고 강요하고 있다해도 구원의 작용은 더 공개적으로 일상적으로 펼쳐진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밀착되어 있는 악한 것과 무질서가 주님에 의해 차츰 제거되리라.

16, 17. 치료를 받은 군중들에게 “당신을 남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하셨다.” 이미 살핀바 있는 8장 4절의 경우 주님께서서는 나병환자에게 “말하지 말라”는 수준에서 당부하셨는데 본문의 경우 치료받은 군중에게는 “소문을 내지 말라”는 수준에서 당부하시고 있다. 글자대로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바리사이파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당부하신 듯 여길 수도 있게 되어있다. 어쨌든 주님께서 당신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은 앞장에서 말하신 것, “안다는 사람,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 보이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는 은혜로움이 당부하신 말씀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씨 고운 사람에게 지식은 선을 위한 능력이 된다. 근성이 나쁜 사람에게 지식은 악행을 위해 무기를 제공받는 격이다. 따라서 앎은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되지만 때로 정죄되는 수단도 된다. 선한 자에게 수여하시는 자비를 악한 자에게는 보류해두신다. 주님의 견지에서 나뉘어지는 차별대우가 이어지는 구절인 이사야서의 예언에서 암시를 던지고 있다. 주님이 정의를 보여주기 위해 왔다고 언급되는 유일한 대상이 이방인들이다. 이방인은 단순한 선을 지니고 있어 진리를 받는 능력을 갖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 자신 안에 있어야 할 진리를 받는 능력이 거의 파괴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18. 마태가 인용한 주님에 관련된 예언이 이렇게 시작된다. “보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Behold my servant, whom I have chosen; my beloved, in whom my soul is well pleased.” 주님은 신성한 인성 측면에서 “종,” 더 자세히 말하면 여호와와 종이라 불린다. 그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그분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런 섬김으로 영계의 모든 것을 질서대로 놓으셨고 그 질서에 의거 인간에게도 천국가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주님의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이 결과의 원인이

신성한 선일 때 “중”이라는 표현을 쓰신다. 그러므로 “중”이란 아들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 “사랑하는 사람”이란 아버지로부터 아들 안에 있는 신성한 선을 뜻한다. 아버지가 선택한 아들이 중이라고 말해지는 이유는 신성한 사랑 자체가 인간과 접하는 구세주라는 인물로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수단이 신성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마음(soul)이 기뻐 반기는 사랑하는 사람”에서 “영혼, soul”은 신성한 지혜를, “기뻐 반김, well pleasure”은 신성한 사랑이다. 여호와와 영혼(soul of Jehovah)은 신성한 진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의 인간 측면이고, 이 안에 신성한 사랑이 존재했다. 이와 똑같은 위대한 진리가 예언자의 이런 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또는 내 사랑의 아들, “내가 기뻐 반기는 아들”이라고도 표현되어있다.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이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지혜이다. 위 본문은 이렇게 계속된다. “...그에게 내 영(my spirit)을 놓아 그가 이방인들에게 정의를 보이리라.” 여호와와 영(the spirit of Jehovah)이란 진행되고 있는 신성,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아버지께서 아낌없이 아들에게 주시는” 영이다. 그 이유가 그분의 인성은 여호와와 영 다시 말해서 신성한 모든 속성을 무한하게 받으셔서 인성 역시 신성이 되어 가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영과 하느님의 영은 구분된 뜻을 지니는데 하느님의 영은 신성한 진리이다. 이 신성한 진리를 주님 위에 놓는 경우와 관련해서 말해지는 바 “이방인에게 정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선택한 자, 정직한 심정의 바탕 위에 선을 지닌 사람에게 나누어주신다는 뜻이다. 이 결과 선택한 자의 악들이 그들에게서 분리되는 구원해주는 심판이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버리는 심판이 있어진다.

19. 주님이 아버지의 중,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영을 받은 효과가 더 이어지고 있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큰 소리도 내지 않으리니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자 없으리라.” 이는 주님께서 거리에서는 가르치시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 이유가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에서 말하는 바 “당신은 우리 거리에서 가르쳤었습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글자대로 위 구절의 뜻을 말한다면 이는 그분께서 시끄럽게 가르치시지 않고 조용하고 온유하게 가르치실 것이라는 뜻이다. 도시의 거리란 교리 속에 있는 진리들, 개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성 속에 있는 생각들이다. 이 안에서 주님은 가르치신다. 교리 속의 진리이든 이해성 속의 생각이든 그것들은 의지로 통하는 큰 도로에 해당된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동안 다투지도 큰 소리도 내지 않으신다. 즉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려고 의지와 다투거나 강제하지 않고, 우리의 이해성 역시 강압하지 않는다. 그분은 그분의 뜻에 동의하라고 진리의 애정을 강제로 비틀지도 않는다.

20. 그러므로 이렇게 일러진다. “그분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꺾겨가는 심지도 꺾지 않으리라.” 11장 7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갈대(reed)란 말씀의 글자대로 에서 보여지는 진리를 상징한다. 상한 갈대란 이방인이나 젊은이, 단순한 사람들에 의해 납득되는 수준에서의 진리, 다시 말해서 글자 수준의 진리가 감각적 오류를 통해 보여질 경우의 진리, 감각적으로 납득된 글자적 진리를 말한다. 심지(flax, 아마천)도 진리를 상징한다. 그러나 이 진리는 갈대로 상징되는 진리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진리이다. 꾸벅꾸벅 조는 듯한 불, 자기 존재의 유무를 연기로 간신히 암시하는 매우 미력한 불, “꺾겨가는 심지”는 매우 적게 존재하는 진리의 사랑을 뜻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꺾겨가는 심지도 꺾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으로 주님은 이런 약속을 주시고 있다. 젊은 층의 사람이나 단순한 사람일 경우 그들이 지니는 믿음은 말씀 속의 순수한 진리에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록 그들의 믿음이 그렇다해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깨트려버리시지 않으시겠다는 것, 비록 그들이 지닌 사랑이 영적 사랑쪽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자연적 사랑에 더 기울어있다해도 그 연약한 사랑을 소멸시키시지 않으시겠다는 뜻이다. 더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에 완전하게 반대되어 있지 않은 사랑이 그들 심정 안에 있으면 무슨 사랑이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또한 그들의 이해성에 있는게 무엇이든 그분의 진리에 적개심을 보이지만 않는다면 그것 역시 이끌어 안내해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자신의 나쁜 버릇, 결점을 진리인 냥 고집부리지 않는다면, 자신의 불완전한 생각과 느낌이 자신을 꼭 붙잡고 있게하지 않는다면 위 주님의 약속처럼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지점까지 인도하시는데 실패 않으신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드디어 그분은 정의를 승리로 이끌어 가리라.” 다시 말해서 순수한 진리가 마음에 이식되고 우리의 악과 갖가지 잘못들을 극복하도록 이 진리의 힘이 발휘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이끌어 주신다.

21.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게 된다.” 이방인들이 주님의 이름에 신뢰를 둘 때란 첫째 순위인 자연적 선이 진리의 영접으로 영적 선으로 만들어질 때이다. 그 이유가 진리는 올바른 목적을 향해 우리의 선이 방향잡도록 지휘하고 앞서감으로 우리의 선을 영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22. “그 때 사람들은 마귀가 들려 눈이 멀고 병어리가 된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왔다.”

우선 우리는 듣고 볼 수 있다는 것, 심정과 지성으로 가는 큰 두 길을 소유하고 있다는 데 대해 감사해야 할 것 같다. 더불어 그런 기능이 닫힌 이들을 얼마나 호의적으로 대해주어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보아야 하리라. 주님께서 치료해준 본문의 병자는 출생시부터 눈이 멀고 병어리가 된 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질병의 경우 같이 그 사람도 악마에 붙잡힌 결과였다. 그의 신체기관이 악령에 소유당했다고 위 본문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더구나 본문의 경우 악령이 자기 목적을 위해 신체 기관을 사용한 정도뿐만 아니라 아예 그 기관을 일시 중지시켜 놓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끔찍한 불행이지만 이보다 더 큰 불행도 표현하고 있다. 이 불행은 영적 삶에 관련되는 모든 것 안에 있는 의지와 이해성의 기능이 중지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천국에 속하는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이나 그 직감들이 죽어있는 것, 악마적인 어떤 원리의 강압에 의해 어떤 결과도 빚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본문의 병자 모습이다. 악과 거짓으로 얽혀있는게 악마적인 원리이고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 영적 상태가 눈이 멀고 귀가 먹은 모습이다. 사실 고통하고 있는 본문의 실지 인물이 지닌 심정과 지성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소리가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다고 고집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는 강한 어떤 시험을 당해 그것과 투쟁하는 노력 가운데 있는 사람, 강한 악의 피임, 사기치는 영들에 심하게 노출되어 그것들로 인해 신음하는 사람, 영적 노예로 전락된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예수께서 이런 고뇌의 사람을 치료하심이 우리를 다시 가르치시는 바, 악마의 일들을 파괴하려고 오신 그분만이 악령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실 수 있다는 것, 끔찍하고 가망없는 영적 무질서를 치료해주시어 영혼의 기능들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서 힘을 쓸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본문의 눈멀고 귀먹은 병자가 “예수께서 고쳐주시어 말도 하고 보게 된 것”과 같다.

23. 이 기적이 얼마나 비범하게 느껴졌는지 “모든 군중이 깜짝 놀라며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하고 수군거렸다.” 놀람이란 너무 비범해서 설명하기 힘든 현상에 대한 결과이다. 주님의 일을 보고 놀란데에는 두 가지가 병합되어있다. 그 이유가 그분의 선함은 능력만큼 위대하기 때문이다. 은혜로운 그분의 일인데 그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놀람과 함께 경의와 존경을 자아내게 하는데 실패할 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이 기적은 예수의 진정한 품성에 대한 확신을 군중의 마음에 밀어 넣어 긍정적인 질문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라는 표현까지 내뱉도록 강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질문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질문과 동등하다. 더구나 이 질문이 지닌 형체에는 더 특이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다윗이란 왕으로서의 주님 또는 정복하고 통치하는 신성한 진리로서의 주님에 대한 모형이다. 다시 말해 그분의 적들,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분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측면에서의 주님, 개인적으로 보면 인간의 악들을 정복하고 인간 심정 안에서 통치하시는 측면에서의 주님에 대한 모형이다. 또한 주님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이새의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 싹으로도 불리신다. 이런 주님의 여러 호칭 속의 의미들은 한 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로서의 주님을 뜻한다. 이 진리가 우리의 악과 적개심을 복종하게 해서 기쁘게 순종하는 신하가 되게 한다. 이 때의 신하된 도리가 참포도나무되시는 그분께 매달려 자라는 포도나무가지이다.

24. 많은 사람들이 경이로운 기적사건으로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인정하도록 인도해 주었지만 바리사이파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부정적 태도는 설사 그 마음에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제시되어도 오히려 그것을 더욱 부정적 방향으로 비튼다. 사실 제 아무리 위대하고 복된 기적이 있어 “누가 이런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단 말인가?” 하고 내세울 수 있어도 실지의 경우 기적이 참 믿음을 창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기적에 대한 어떤 표현을 내놓으려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을 어떻게 인간이 뒤집는 가를 이 구절이 잘 보이고 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는 마귀의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하고 헐뜯었다.” 에크론(Ekron)의 하느님이었던 베엘제불이란 모든 거짓의 하느님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이유가 베엘제불이라는 이름은 날벌레(fly)의 하느님을 뜻하고 날벌레는 감각적 수준의 마음에 있는 거짓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님께서 26절에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이라고 말씀하시어 베엘제불을 사탄으로 대체해서 말하시는 것으로부터 서도 명백해진다. 주님의 권능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가장 경이롭고 복된 일조차 악마의 권능 자체로부터라고 왜곡시키는 두 가지 모습은 바리사이파 사람의 근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누군가 안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사악한 어떤 것이 이와 비슷할까? 어쨌든 이 범죄는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이다. 이에 대한 본성과 가능성은 31, 32절에서 살핀다.

25.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셨다.” 이 구절은 구세주의 신성을 인간의 눈으로

보게끔 하신 예들 중의 하나이다. “내 생각이 얼마나 아득한지 너희는 알고 있다”라는 말씀도 신성(Deity)의 특성 중 하나를 알게 하는 대목이다. 그들이 지닌 생각으로부터 그들의 사악함과 오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지탱하지 못한다...” 주님의 논고는 명백하고 결정적이다. 바리사이파 사람의 증오감이 얼마나 눈이 먼 상태인지 말하는데 사탄이 제 나라를 뒤엎는데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제안하신 것은 참으로 놀랄 일이다. 남을 헐뜯는 바리사이파 사람의 논박과 예수의 비범하신 지혜는 글자대로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영적 의미를 살펴 영적 교훈을 찾으면 더욱 유익하리라 본다. 나라란 교회를, 도시(city)와 집안은 교회의 교리에 있는 선과 진리를 의미하는 바 이것들이 만장일치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지탱하지 못하고 소멸한다는 뜻이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형태로서의 마음에 있는 교회, 가장 큰 형태인 지상의 교회 모두에 관한 말씀이다. 어떤 교회 형태이든 그것이 존속하려면 그 자체 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그 반대로 서로 갈라져 있다면 반드시 망하고 만다. 세부적 의미로 볼 때 집은 의지와, 도시는 이해성과, 나라는 의지와 이해성에 있는 것들이 생활 안에서 하나되어 움직이는 것과 상응된다. 세 가지 각각은 그 자체 다른 것과 하모니를 이루려해야 안정성이 있으나 각자 움직인다면 모두 다 틀림없이 멸망하고야 만다.

26. “그러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는 이미 갈라진 것이다. 그래서야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어둠의 왕국이 불일치의 대표격이지만 그렇다고 그 나라 자체의 원리에 반대되는 힘에 의해 쪼개진다는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을 실제 응용함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절대적 진리를 보게된다. 거짓됨과 악이 그 자체의 권능이나 지배함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아는 바이다. 진리만이 거짓된 것을 쫓아낼 수 있고 선만이 악한 것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악마를 쫓아내는 경우를 들어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진짜 품성은 사탄에게는 적이라는 것, 지옥과 악에게는 원수라는 것, 악과 거짓을 정복함으로서만 세상이든 영혼이든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시고 있다.

27. “또 내가 너희의 말대로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네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는 말이냐?” 이는 그분의 은혜로운 베푸심, 그분의 교리에 있는 진리를 인간의 양심과 심정에 속삭이듯 전하려는 감미로운 호소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의 말이 그르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자. 바리사이파 사람의 제자이든 후손이든 그들이 악령을 쫓아낼 수 있든 쫓아낸다고 말하는 그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 설사 그들이 그런 일을 한다해도 그것은 과거 모세의 기적을 흉내낸 에집트의 마술사와 같기 때문이다. 마술은 저들이 지닌 진리를 수단으로 해서 자기 목적에 맞게 뒤집은 것이다. 만일 인간의 손 또는 불성실한 도구로서 악용된 진리라는 악마를 쫓아낼 수 있다면 진리 그 자체의 능력이 악마를 퇴출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을까? 그러므로 인물로 계신 진리이신 그분을 두고 마법을 사용한다고 누명을 씌우는 것은 그 얼마나 사악하고 부당한지! 악한 자가 소유한 진리가 바로 그 사람이 죄 있음을 증거하고 판가름해준다.

28. 그러나 “하느님의 영,” 즉 신성한 인성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의 힘으로만 악마가 던져진다는 것을 인정할 때 위 경우와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것만이 진리이다. 악과 거짓이 상주하는 악령을 실지 내쫓을 자 아무도 없고 오로지 모든 진리를 인도해 가는 하느님의 영만이 가능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이것이 경험으로 인정될 때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의 정부는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마음속에서 파괴될 때 건설되기 때문이다.

29. 위와 같은 일반 진리에 대한 또 다른 예증을 주신다. “또 누가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빼앗아 가려면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집을 털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의 글자적 의미는 설명 없이 확실히 이해되므로 영적 의미만을 살펴보자. 거짓을 진리에, 진리는 거짓과 정 반대 된다는 것이 앞 절의 주제인 반면, 선은 악에, 악은 선에 정 반대 된다는 것이 이 구절의 주제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집이란 마음인데 세밀히 말하면 의지 측면을 의미하고, 힘센 사람이란 자아애이며 그의 세간이란 자아애의 목적인 악이다.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 자아애라는 악이 질서의 법칙인 진리로 꿰뚫어 묶여 진리에 종속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함이 그 사람의 의지를 거처로 삼기 위해 진입할 수 있을까?

30. 위 두 구절로 평범하면서도 중대한 진리를 전달하신 주님께서서는 결론적으로 이런 원리를 주시고 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 마가복음 9장 40절을 보면 어순을 달리해서 이렇게 써어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원리에서 내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고 원리에서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지지한다는 말이다. 목적은 각 사람의 상태를 결정한다. 이 목적은 선 또는 악일 수도 있다. 그래서 목적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선과 진리로서의 주님과 함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해 준다. 목적은 의지 안에 거처를 둔다. 의지의 상태처럼 이해성의 상태도 그와 같아진다. 그래서 의지가 주님께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하면 이해성은 홀트러버리거나 그분과 함께 거둔다. 만일 의지가 선하다면 이해성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진리만을 거두어 들여 그 지성은 신성한 지혜와 조화를 이루어 행동을 함께 한다. 그러나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이해성은 진리를 홀트려 사라지게 해서 거짓의 먹이가 되는 자질만을 남겨두게 된다.

31, 32. 이렇게 바리사이파 사람의 해설을 반박하시고 그들이 썩은 죄명의 영적 품성까지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잘 들어라.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한 죄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 사람의 아들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거슬러 있어진 죄와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저질러진 죄를 생각해 볼 때 전자는 용서할 수 있고 후자는 용서안된다는 말은 우리로 이해하기 곤란한 점을 표현한 듯 느껴져 왔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죄는 주님 자신에 거슬러 있어지는데 초점이 맞추어 있다. 그래서 이 죄는 성령을 거슬린 죄로서 취급되어졌다.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기적이 있게 했다고 주님을 비난한 말들에는 의당 그 기적이 하느님의 영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게다가 이 비난에는 예수 자신도 연계되어있다. 따라서 바리사이파 사람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이 비난에는 두 가지 죄, 즉 예수가 성령과 사람의 아들이시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부정한 죄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성령과 사람의 아들 사이의 구분된 점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것도 신성한 인물들(Divine persons)로서가 아니라 신성한 원리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주님 자신에 관련된 측면일 경우 성령은 영적 수준에서의 신성한 원리이고 사람의 아들은 자연적 수준에서의 신성한 원리이다. 그러나 본문의 이해를 위한 더 나은 구별 방법은 그것을 말씀에 관련시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 이유가 주님께 관련된 모든 것은 말씀과도 관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령은 영적 수준에서의 말씀의 의미, 사람의 아들은 글자 수준에서의 말씀의 의미이다. 신성한 의무(sanctity)를 위반하고 영적 수준에서 말씀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이 성령을

모독한 죄이다. 그러나 글자 수준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에 거슬러 뻗어진 말이다. 전자는 용서되어질 수 없으나 후자는 용서될는지 모른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말씀의 영적 의미는 나체 같은 진리들, 순수한 진리들 또는 천국의 빛으로 비쳐 알게 되는 신성한 진리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자적 의미는 가상(appearance)으로 옷입혀진 진리, 다시 말해서 세상의 빛으로 비쳐 알게되는 진리들로 구성되어있다. 희미한 수준, 가상의 진리들로 구성된 글자 수준의 말씀에 관한 의미는 잘못 이해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특별히 범죄적 의도 없이, 또는 영적 생명을 파괴하는 교리적 오류없이 해석이 잘못될 때도 많다. 기독교에 많은 교파들이 있는 것 자체가 말씀의 글자 의미가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많은 기독교 교리 체계 속에는 명령적 말들이 들어 있는데 그중 어떤 경우는 잔인한 수준 즉 사람의 아들을 거스르는 문구도 있다. 그럼에도 이것 역시 용서될 수 있다. 그 이유가 어느 교리이든 교파이든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구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해성이 오류 속에 있다해도 심정은 신실해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적 의미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된다. 영적 의미 속의 진리들은 실체요 가상이 아니고, 나체요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이어서 이 의미들은 잘못 이해될 수 없는 바 잘못 해석될 리도 만무하다. 따라서 영적 의미나 그 영향력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해도 그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는 바 그가 할 수 있는 묘책이라고는 오로지 그 의미를 뒤집거나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지은 죄 중의 하나이다. 주님께서 하느님의 영에 의해 수행된 일들은 너무나 명백한 초자연적 기적이므로 바리사이파 사람들 역시 그 일이 기적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런 주님의 능력을 비켜가려고 그들은 주님의 능력이 악마의 권능 때문이라고 돌려대었다. 한마디로 진리를 왜곡시킨 것이다. 이는 주님이 영원한 생명되심을 믿는 것, 주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기까지 이르는 것이다. 주님께서 인간 자유 의지에 일치되는 한도에서 위와 같은 중대한 죄에 대해서도 섭리적으로 장치해 두셨다. 그리하여 인간들이 주재님께 영적 의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순수하고 거룩한 진리들을 모독하지 않도록 영적 의미를 보호하고 지키는 차원에서 가상의 진리들로 영적 의미를 덮어 놓으셨다. 이 특별한 섭리가 파라다이스의 문에서 있는 거룩들이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기 위한 불같은 글자적 의미에서의 말씀이다. 글자 의미는 내적 의미를 보호하는데 사용된다. 그 이유가 글자 의미는 글자적 의미 속의

의미 즉 내적 의미를 파괴시키지 않고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글자 의미는 영적 의미, 즉 생명 있는 진리에로의 길을 지키기 위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 중 하나이다. 그래서 모독이라는 인간 수단이 생명의 나무 실과에 접근되지 않도록 해서 살아있는 죽음, 결코 끝이 없는 악을 자초하지 않도록 섭리하신다. 지금까지 의문시되어 온 것 중 하나는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이 용서가능한 범주를 넘는 죄를 범한 경우를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이다.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주님의 언어는 확실히 특이하다. 그럼에도 그 언어 안에 모순된게 하나도 없다. 이 언어의 두 대조적인 케이스 역시 글자대로도 진리이다. 그 이유가 글자 수준에서 잘못된 해석은 만일 이 세상에서 정정되지 않았다 해도 다음 세상에서는 정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글자 수준의 잘잘못은 말씀의 영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영적 의미로 볼 때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 평면 중에서 자연적 마음이고 “저 세상”은 영적 마음으로 이해되어 진다. 그러므로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사람의 아들에 거슬린 죄”는 자연적 마음에 국한되지만 “성령에 거슬린 죄”는 자연적 마음과 영적 마음 모두에 걸쳐 있어진 죄에 해당된다. 자연적 마음은 저 세상에서 제거될 수 있으나 자연적, 영적 마음에 새겨진 것들은 영원히 남아 있게 된다.

33. 모독의 한 종류, 한 가지 등급에 속하는 것이 위선(hypocrisy)이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의도가 나쁜데 말은 올바르고 행동도 그럴듯한 경우이다. 위선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지은 죄들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말하신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거든 좋은 나무를 길러라.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나무 그 자체는 인간이고 그 열매는 인간의 일들, 행위들이다. 주님께서 위 구절로 가르치시는 바, 위조된 선보다 공개된 악이 차라리 죄가 덜 무겁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구절을 빗대어 악한 자가 그 사악함을 자유로이 실재화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추론해서는 안된다. 주님이 뜻하시는 것은 영적 차원에서 악한 심정이 거룩한 듯 보이는 바깥쪽 모양새를 수단으로 악으로 굳혀진 심정을 말하시고 있다. 저 세상에서 나무와 열매는 같아야 한다. 그것이 악하든 선하든 어느 한쪽에 속해야 하는게 보편적 법칙이다. 또한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은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 마음은 이중 삼중으로 나뉘 수 없다. 보다 세밀하게 분해해보면 나무는 의지, 나뭇잎은 이해성, 그 열매는 바깥쪽 생활이다. 우리가 나뭇잎으로 나무를 판단하지 않고 그 열매로 판단하듯 사람의 판단도 그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의

일한 내용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물론 이 세상에 국한해보면 일해 놓은 것조차도 사기가 담겨있는 때가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자체로 족하리라 생각된다. 보다 큰 규모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지닌 원리들은 그 사람이 그 원리로 해놓은 일의 결과로 미루어 알 수밖에 없다. 물론 개별적 규모로 볼 때 그 사람의 행동들로 그 사람의 진짜 품성을 모두 발견할 수는 없다. 한 마디로 타인을 판단하기 보다 더욱 자신을 판단한 진리야말로 진정 나 자신이요 이 진리로 저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판결되리라.

34. 바리사이과 사람의 진짜 품성을 말하신다. “이 독사의 족속들이!” 말쑥한 외관으로 현혹시키는 사기꾼과 악의로 가득한 자는 영적인 뱀이요 독사들이다. 뱀은 인간 본성 구조 중 감각적 부분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이것은 진리의 명분 아래 오류를, 선함의 탈을 쓰고 악을 발휘하는 모든 오류의 근원이다. 이에 대한 첫 이야기는 하느님 같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운 일들이 베엘제불의 두목의 힘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정말로 선을 위해 악을, 빛을 위해 어둠을 들이대는 격과 같다. 실수나 잘못의 경우 비의도적 수준에 속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은 악을 혐모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게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느님의 면전에서 악한 자가 선한 일을 말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생산할 수 없다. 말과 일은 의지와 의도와 같은 차원이다. 사기치려고 내뱉는 진리가 거짓말이다. 시치미를 떼고 판전을 피우는(dissimulation) 의도로부터 행해진 선행이 사악함이다. 물론 이런 사악함은 본문의 바리사이과 사람에게 꼭 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심정이 자극해서 그들의 생각이 품은 거짓말을 내뱉은 것이다. “결국 심정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다”는 것만이 진리이다. 사실 심정의 의도와 생각을 헤아릴 수 있는 하느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제 삼자의 것을 충분히 헤아릴 수 없지만 어쨌든 위 말씀이 원칙인 것만큼은 유념해야 하리라.

35.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심정에 쌓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심정에 쌓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겠느냐?” 심정(heart)은 입술이 내뱉고 손이 수행하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유출되는 창고이다. 우리의 말과 일들이 의지 속의 선 또는 악한 의도와 이해성 속의 참되거나 거짓된 생각으로부터 결과되듯 말과 행동은 그런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게다가 말과 일들은 그것들을 생산하게 한 좋고

나쁜 모든 것을 재생산하게 한다. 그것들은 열매와도 같이 자체를 생산하게 한 씨를 자체 안에 또 다시 가지고 있다. 씨로부터 존재하게 된 나무는 다시 나무가 생산되도록 씨로 존재한다. 따라서 열매의 핵심(heart)인 씨로 그 나무 전체를 납득할 수 있다. 이 씨 안에 그 나무의 역사가 썩어져 있다. 그 나무의 모든 체험이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말과 일 안에는 우리라는 존재가 체현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의 품성과 전 생애를 헤아리는 특전은 각자의 일에 따라 모든 이 각각을 판결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만 존재한다. 사람이든 천사이든 그가 해놓은 일을 보고 그 사람의 진짜 품성을 어느 정도나마 짐작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 빛은 빛 자체이신 그분으로부터 반사된 미광에 불과할 뿐이다.

36. 그러므로 더 말을 이으신다. “잘 들어라. 심판 날이 오면 자기가 지껄인 터무니없는 말을 날날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리사이파인들이 범한 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에 해당된다. 동시에 우리 각자의 입술이라는 문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잘 간수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려고 의도된 말씀이기도하다. 성령을 모독한 것, 사람의 아들에 거슬러 지껄인 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껄인 터무니없는 말까지도 심판 때에 밝혀진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말, idle words”이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중요하지 않은 평범한 모든 말까지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에서 기쁨이나 사업을 형성하는 하찮은 대담, 지적 재창조에 보탬이 되는 가벼운 대화 등등은 제외하고 생각해야 한다. 가장 유해하고 죄가 되기까지 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말”이라면 자기 주장을 장식해보려고 성경의 언어를 쓸데없이 첨가하는 것이다. 이 언어가 심각하고 사려분별있게 도입될 경우 인간의 작문을 장식할 뿐만 아니라 원기를 북돋아 주기까지 하는 것은 물론이나, 이럴 때에라도 진정한 종교적 정서가 결여되거나 나쁜 냄새를 풍기게 하는 쪽으로 번진다. 문장이나 대답을 색다르고 기묘하게 바꿔가기 위해 성서의 문장을 사용할 경우 가장 거룩한 책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쪽으로 기우는 경우란 거룩한 언어를 모독적인 사상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 연결고리를 분리시키는 것은 저 세상에서도 매우 힘들다.

37. “네가 한 말에 따라서 너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게도 되고 죄인으로 판결받게도 될 것이다.” 우리의 행적에 따라 판결된다는 교리의 한 부분이라고 위 구절을 생각해도 무난하리라 본다. 말과 행동은 행위만큼이나 의지로부터 튀어나온다. 누군가가 사랑의

원리로부터 뜻할 경우 무엇이든 그는 행하려 뜻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말하기도 한다. 말은 자음적 행동이다. 그래서 말도 손이 일궈낸 행위만큼 완전하고 성실하게 그 사람의 품성을 반영해 준다. 우리가 발음하는 모든 단어들,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들은 심판날에 큰 소리로 낭독될 수 있게 하나 하나 구분지워서 지워질 수 없게 기억 안에 새겨져 있다. 얼마나 좋은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 얼마나 쓴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이 혀를 통해 나오는지! 사실 혀는 하모니와 평화가 증진되도록 위로와 계발이 있게 해준다. 그 반면 혀는 반목질시를 일으켜 평화를 흐트려 어둠을 확장하는데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주님께서 바리사이파 인들에게 하신 말씀에는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특이한 대목이 있다. 동기(motive)에 관한 것이다. 바리사이파인들의 품성을 출생시킨 것은 그들의 동기이다. 이로부터 말과 행동이 있어진다는 것은 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마찬가지이다. 사실 동기를 행동으로부터 전적으로 어림잡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행동이 동기로부터 발생된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동기를 낱알이 헤아릴 수도 없다. 마음의 동력(motive power)이 의지이지만 의지 자체가 행동의 모든 품성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그 이유가 동력의 방향을 가늠짓는게 이해성이어서 이 이해성이 각 행동에 간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자질, 의지와 이해성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되어 있다. 말과 일 두 가지가 심판을 맞이하는 것이다. 선과 악이 의지만에 속한 것도 아니고 진실과 거짓이 이해성만에 국한되었다고 잘라 말할 수도 없다. 선과 악은 이해성을 통해 의지를 수단으로 생산되어진다. 진실과 거짓은 의지로부터 이해성을 수단으로 생산되어진다. 두 자질은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에 관여하는 바 말과 행동이 생산될 때 그 안에 함께 들어가 있다. 따라서 말이든 일이든 또는 그 두 가지로 이든 어느 것으로 심판받더라도 온 마음과 삶으로 심판되는 것과 같으리라.

38, 39. 엄숙한 위 구절의 말씀이 바리사이파인에게 얼마나 적은 관심을 모았는지 이 구절이 말해준다. “그 때에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 몇이 예수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sign)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말했다.” 주님께서 베푸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던 그들인데도 표시될만한 어떤 일을 보여달라고 묻고 있다. 기적(miracle)과 표적(sign)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의 요구에도 그 요구에 대한 주님의 답변에도 진짜 의미는 없었을 것이다. 기적이란 흥분이 있게 하고 놀람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고, 표적이란 어떤 것의 유무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해 증언하여 납득시키려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적은 이해성과 이해성 속의 믿음을 움직이게 하고, 기적은 의지와 의지 속의 애정(affection)을 움직이게 한다. 의지와 애정은 흥분되고, 맞부딪치어 놀람이 있어지는 특성이 있고 이해성과 믿음은 납득되어지고 납득된 만큼에서 어떤 선포가 있고 그 증거를 응용하는 특성이 있다. 주님의 기적은 복된 일들이다. 이 일의 영적 목적은 그 일을 본 사람의 심정에 신성한 선함을 느껴보게 해서 그분의 진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는데 있다. 그 반면 표적은 구경꾼의 심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단지 그들 이해성에 직접 호소해서 확신을 생산하게 만들뿐이다. 주님께서는 표시를 달라는 요청을 묵살하셨다. 그 이유가 믿으라고 인간을 강요하는 것, 그의 이해성만을 납득시켜 믿게 하는 것은 그분의 섭리적 운용방침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전능하심이 뭔가를 해준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그 일이 주님이 반기는 것이라면 불신앙자가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인간 마음 앞에 보여 모든 진리를 명확히 가르쳐주실 수도 있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들에게 표적을 주는 셈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얼마나 쓸모 없는지! 그런 표적들은 그들에게 참된 것을 더 생산되게 해주지 않고, 그들이 기껏 지닌 믿음마저도 더 오래가게 하지도 않을뿐더러 용서할 수 없는 불신앙, 오류만을 되려 증가시켜 정죄당할 건수만 늘게 할뿐이다. 참 믿음은 표시들에 의해 생산되는 게 아니라 이성(reason)들에 의해 생산된다. 다시 말해서 참 믿음은 진리가 합리적으로 납득되고 영적으로 식별되어 생산된다. 우리를 구원해주는 믿음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 온다. 이는 진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진리와 사랑이 하나될 때만 생겨난다. 사실 진리는 외부로부터 이해성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사랑이 깊은 내부로부터 의지로 오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은 있을 수 없다. 성경은 진리에 관한 지식을 주지만 밝히 알게 해주심(계시)이 없으면 믿어질게 아무 것도 없어 하느님, 영적인 것, 영원한 것들에 대한 믿음의 형성에 결코 기여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 그 자체는 심정에서 작동하는 주님의 영에서 근원되는 바 말씀에서 획득한 진리를 사랑함으로 그 영은 호흡할 수 있다. 만일 성경 자체가 믿음을 줄 수 없다면 바깥쪽 현상인 표적이라는 것들이 이해성에 주는 정보는 얼마나 미미하며 심정을 개선시키는 힘 역시 그 얼마나 미미한 것인가? 따라서 “악하고 절개없는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공히 적용되는 케이스이다. 불신앙으로 마음 전체를 꽉 채우게 되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 말씀 외의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하여 믿음을 추구하려드는 악하고 불순한 애정이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바리사이파인들의 요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여하신 자질이 지닌 본래의 기능을 중단시켜 놓은 채 진리에 확신을 갖게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40. 불신앙자가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그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들어 줄 수 없다. 그러나 꼭 한가지 보여줄게 있다.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따로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큰 고기의 뱃속에서 삼주야를 지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땅 속에서 삼주야를 보낼 것이다.” 인류구속이라는 위대한 주님의 일을 완성하시어 영원히 봉인해두신 책이 복음서요 그 속의 진리는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다. 이 진리를 받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직접 주어지는 어떤 표적이 있다해도 그것을 받을 상태에 있지 않다. 이는 자연적 인간은 받고 싶은 생각조차 없다는 것에 대한 표적도 된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주님의 영화하심에 대한 결과내지 그 표적이다. 주님의 영화하심에 대한 두드러진 표적이 예언자 요나의 사건이다. 주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삼주야는 그분의 인성의 완성 즉 영화하심을 표현했다. 주님의 인간 본성의 영화하심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높은 측면에서의 진리의 증거이다. 이 신성한 일을 통해 믿음의 수단과 능력이 설비되어져 있다. 인성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일한 목적이듯 이분만이 구원해주는 믿음의 유일한 저자되신다. 이 탁월한 표적은 그 자체에서 반사된 형상, 거듭남을 생산한다. 그러므로 예언자 요나에 의해 있어진 사건은 주님의 영화하심 뿐만 아니라 그 영화의 효과요 형상인 거듭남에 대한 표적이였다. 새로운 탄생은 우리를 포함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진리가 내향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하는 실지의 표적이다. 우리가 진리를 믿겠노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를 받아 살아내야 한다. “만일 누군가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겠다면 그는 자기 행동이 하느님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야 할 것이다.” 어떤 표적이 믿음을 낳게 할 가능성이 있다해도 먼저 요구되는 것은 불신앙 속의 악한 심정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믿음은 이해성에만 있는게 아니라 심정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언자 요나의 표적은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요나의 사건으로 표시된 진리를 자기 믿음의 증거이자 기초로서 인정한다면 제반 진리를 확신하는데 실패할 리 없으리라.

41, 42. 이제 종교적 특전 없이 살아온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대조하신다. “심판날이 오면 니스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만 듣고도 회개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심판날이

오면 남쪽나라의 여왕도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위 구절 그리고 다른 몇 군데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소유했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의 가르침을 눈앞에서 듣기까지 한 유대인들 보다 이방인들이 진리를 받을 준비가 더 잘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유대인의 많은 예언자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만이 이교도 국가에 설교하도록 보내졌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 이 즐거리는 주님의 강림시에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과 부활 이후 성공적인 복음 전도, 그리고 기독교의 사도들이 이교도에게 큰 기쁨인 부활 소식을 알리는데 유대 예언자의 소극적 태도보다 더 나은 것임을 모형화해놓은 것이다. 여기서 남쪽나라 여왕이라 불린 세바여왕은 예루살렘의 솔로몬에게 많은 보화를 낙타에 싣고 왔는데 이는 흡사 야기 구세주에 바칠 선물을 낙타에 싣고 먼 동쪽에서 온 박사들과 비슷하기도 하다. 이는 더 슬기로운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지닌 애정 중 최고의 것을 귀중한 선물로 바치려고 주님께 오는 모습이고, 그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지혜의 보물을 받아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세바여왕 역시 천적 수준의 애정을 표현하는데 이 애정을 수단으로 지상의 주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획득해 가셨다. 여왕이 소유한 보배로운 선물은 그분의 지혜와 총명을 표현하고 이 보배를 싣고 온 낙타는 지혜와 총명을 소개시켜주는 수단인 자연적 인간의 지식을 뜻한다. 솔로몬이나 세바여왕으로 이미 표현되었던 그분이 지금 와 계신 바 우리는 여기에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성전 그 자체보다 더 큰 사람이 계신다고 외쳐야 지당하리라. 위와 같은 표현적 의미가 우리 자신 안에서 실지의 의미로 변화하려면 알력과 투쟁없이 결과는 없다. 우리 자신에 관련시켜 위의 모든 것을 생각해보자. 니느웨 사람과 남쪽 여왕, 그리고 요나와 솔로몬이란 우리의 거듭남이 개시되기 전 초기 삶에서 마음 안에 존재한 갖가지 애정과 원리들을 표현한다. 세상에 그분이 모습을 드러내는 주님의 탄생처럼 우리 영혼(soul)에서 주님이 탄생하심으로 실제의 거듭남은 시작된다. 그러므로 실제로 거듭나기 이전에 마음에 지닌 종교적 요소들은 천국 그 자체라기보다는 표현적 천국일 뿐이다. 구약 성서 속의 인물 내지 사건들은 장차 오시기로 된 분, 인간 마음이라는 작은 세계에 강림하신 실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바리사이파인, 사두개인, 그리고 신약성서의 사제들과 율법학자 등등은 우리의 옛 사람이 지닌 애정과 욕망을 표현하고 이것들이 천국 애정을 지니게 되는 새 사람에 저항하는 결정적인 요소들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국적 애정들을 통해 온갖 질병을 고치시며 악마를 내쫓으시며 가르치시고 훈계하심으로 그분의 지혜를 보여주신다. 그러면 니느웨사람과 남쪽 나라의 여왕이 심판날에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세대와 함께 그들이 일어나는 심판이란 거듭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서 거행되는 심판이요 이 심판을 수단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서는 선과 악의 분리가 결과된다. 이 심판 과정에서는 모든 상태들이 되돌아오는데 초기 삶에 있었던 상태들도 후기 삶에 있던 상태에 대항해 일어나 단죄한다. 초기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각종 실수나 오류에 대해 통회함은 마치 요나의 설교에 깊이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모습인데 이 통회함이 더 명백한 빛의 인도를 받는 바 저질러진 후기 삶의 악들을 단죄한다. 비록 자연적 수준이긴 하지만 순진함, 어린 시절의 단순한 애정들이 후기 삶의 사랑에 대해 체험으로 증언하고 단죄한다. 그러면 이런 단죄의 바탕은 무엇일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에서 회개했으나 후기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의 설교로 참회하려 들지도 않았다. 이런 상태는 아직도 여전하다. 젊은 시절의 죄는 성인 시절의 죄보다 더 용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의 훈계를 받을 때 회개함의 준비도 더 잘되어 있고 더 성실하다. 남쪽 나라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왔으나 후기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의 지혜를 듣는커녕 아예 고개를 돌렸다. 어린 시절의 애정들은 우리를 단순한 대화체나 간단한 교훈으로된 말씀에 잘 이끌려와서 지혜의 교훈에 기쁨으로 귀를 기울인다. 세바여왕이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에게 제기했듯이 어려운 질문을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을 부모의 입술로부터 쉽게 받아들인다. 그 반면 노년기에 접어들면 훨씬 더 높은 지혜일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모으기 힘들고 아예 그 지혜를 뒤집어 흔들기 일쑤이다. 그러나 초기 삶에 있어졌던 통회나 단순한 애정은 노년기에는 사라진 듯 여겨지지만 그 흔적은 남아있다. 이런 흔적이 심판날에 후기 삶에 있었던 생명없는 삶이나 웅고집을 향해 봉기하여 단죄한다. 이것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한다”는데 대한 설명이다. 후기 삶의 각종 오류, 실수, 악들은 빛 가운데 놓여 단죄 받음으로 해서 최고의 선과 진리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된다.

43. 표적을 요구한 바리사이파 사람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표적도 줄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셨다. 이제 참회못하겠다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할는지 묘사해주신다. “불결한 영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 있다가 그에게서 나오면 물없는 광야에서 쉼 곳을 찾아 헤매지만 찾지 못한다.” 불신앙의 영혼은 표적이 주는 영향력으로 한동안이라도 나쁜 것을 몰아낼는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 이전보다 일곱 배나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되돌아온다. 본문에서 영이 사람같이 불리우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심정은 그 속에 신앙이 있든 없든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 영이 “물없는 장소에서 썰곳을 찾으나 발견치 못하고” 배회하는 모습은 물이 의미하는 것, 진리를 받지 않은 채 믿음을 획득한 사람의 정신적 조건을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내쫓긴 영은 썰곳을 찾으나 황폐된 영혼이라는 곳에서 아무것도 발견못한다. 마음은 밖으로부터 강요받아 형성된 믿음으로부터 서는 썰 곳을 찾지 못한다. 진리를 아는 것, 그에 대한 증거는 외부로부터 오지만 생명 있는 원리로서의 믿음은 내부로부터 오는 바 믿음은 심정에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영에 의해 생산된다. 심정의 변화 없이 이해성에서만 강한 인상을 준 믿음은 그것이 형성되게 한 강제력이 사라지면 불신앙의 마음으로 더욱 굳은 채 남아있다.

44, 45. 표적이 주는 효력이 사라질 때 생명은 끊기는 바 이 영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 “전에 있었던 집으로 되돌아가야지, 하면서 다시 돌아간다.” 표적이 주는 효력으로 형성된 이 집은 어떠한고 그 영은 그 집이 “텅비고 말끔히 치워져있고 잘 정돈되어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참된 모든 것이 텅비고 선한 모든 것이 말끔히 치워져서 정리정돈되면 이는 참되고 선한 모든 것이 결핍되어있다는 표시요 더불어 악과 거짓의 상태에 따를 준비가 된 것과도 같다. 이 영이 처음 되돌아 올 때는 혼자였지만 텅빈 이 집을 보고서는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일곱 영들을 데리고 들어가 자리잡고 산다.” 처음의 영이 되돌아옴이란 불신앙이라는 원리의 영으로 귀환함을 뜻하나 그가 나가 다른 일곱 영을 데리고 되돌아옴은 삶이 어떤 형태로든 고정되기 전 모든 원리들이 만드는 삶의 회전을 암시하고 있다. 마치 심장에서 나와 흐르는 피가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 이 때 그 피는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워져 되돌아 갈 수도 있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텅빈 마음은 이전보다 더 사악한 불신앙의 먹이가 되어 있는 셈이다. 데리고 온 일곱 영이 더 흉악하다는 말은 불신앙과 모독이 더 완전하게 확증된 상태를 의미한다. 저질러지는 죄들 중 가장 큰 죄는 처음의 것보다 마지막의 죄 속에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끔찍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결론내리신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세대”라는 말로 이 구절이 묘사한 범위는 악과 거짓이 집합한 모든 것을 망라한다. 따라서 이는 인간 구원에 있어지는 주님의 사랑과 지혜에 대한 부정뿐만 아니라 그분을 뒤엎어 영혼을 영원히 비참해지게 하고 영적 생명을 소멸시키

는 데로 치닫는다는 말이다.

46-49. 이런 암울한 그림에 신성한 빛의 광선이라도 비추어 덜 어둡게 해주시는 듯 이렇게 읽는다. “예수께서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서서 예수와 말씀을 나눌 기회를 찾고 있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악과 거짓에 관련되지만 본문의 어머니나 형제는 자연적 수준의 선하고 참된 것과 관계되는 말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분께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밖에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말에 따르지 않고 군중에게 강연을 계속 하셨다. 그리고 진정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인지를 보여주시어 자연적 수준의 사상을 영적 사상으로 바꾸어 주신다. 사실 주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는 단어로 부르신 일이 결코 없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여인,” 이는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를 두고 사용하신 단어이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어머니란 단어의 사용을 기피하신 데에는 깊은 영적 바탕이 있다. 사실 예수는 육(flesh)의 의거하면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러나 영(Spirit)에 의거하면 하느님의 아들이다. 인간 어머니로부터 파생된 인간성은 신성인 아버지로부터 파생된 인간성을 덮어주는 자연적이고 일시적인 물질에 불과했다. 결국 물질은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완벽히 벗으셨다. 그분께서는 부활로 영화하심이 완성되었을 때 주님의 인간 측면의 것도 순수한 하느님의 아들, 본질적으로 신성, 독생자로 태어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본문 당시만 해도 주님께서 말하신 것은 무엇이든 자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적인 진리만을 표현하셨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결코 부르시지 않는 또 하나의 큰 의도는 주님의 인성은 순수한 신성일 뿐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세대의 교회에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다. 또 다른 의도가 군중을 가르치시며 전달하신 말씀의 영적 교훈 안에 담겨 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나?” 하고 물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사실 주님과 인간 사이에 자연적 측면에서 친척 관계는 없고 오로지 영적 측면에서만 존재한다. 다시 말해 육(flesh)에 의거해서 구원해주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없다는 말이다. 육에서 난 것은 육뿐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더불어 구원하고 구원받는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 인간은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 이유가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로이 태어남에서 예수는 우리의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주님과 인류간에 있어지는 여하한 수준의 관계라 해도 그 모든 태어남은

위와 같고 그렇게만 납득될 수 있다. 우리 쪽 부분인 아들된 도리는 형제간의 사랑의 기초이며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과의 관계의 기초로 놓고 있다. “주님께서 가리키신 제자들”이란 교회에 있는 참 교인들이다. 그분의 형제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이타애의 선을 원리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그분의 자매란 이타애의 선에 근거해 나오는 진리들이다. 그분의 어머니란 이타애의 선과 진리로 형성된 교회를 의미한다.

50. 주님께서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묻는 질문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란 말이나?” 이다. 이 답변을 그분으로부터 배우려면 자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답은 이러하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계명을 실천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분의 계명을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의지, will)”은 그분 자신인 신성한 사랑이다. 강연을 끝맺는 이 마지막 절은 본 장에 기록된 모든 요구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표시도, 기적도, 여하한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함 자체가 당사자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분에 의해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 저절로 인식되어진다. 그분과 더불어 말을 나눌 기회도 한없이 주어지고 아예 천국 저택에서 그분과 영원히 거주한다. 이 저택은 신실한 자, 사랑으로 충만된 자, 철저히 순종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 예비한 집이다. 이 진리를 진실로 충분히 이 세상에서 실감한다면 이 얼마나 복받은 것인가! 모든 것이 영적인 곳, 천국에서는 자연적 차원에서의 친척 관계는 아예 알려져 있지도 않다. 지상에서 서로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천국가서도 웅기종기 이웃되어 삶을 계속할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은 자연적 친밀감이 아닌 영적 친밀감에 기초할 때만 가능하다. 천국에는 한 분 아버지밖에 없다. 서로의 친근도를 재는 유일한 척도는 그분께 서로가 얼마나 가까웁냐에 달려있다.

1. 누가의 경우,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것, 즉 앞장의 강연을 마치시면서 “바리사이와 사람의 저녁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다”를 언급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첫 절이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바닷가)에 앉으셨더니...” 앞의 강연과 본 장의 강연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것은 같은 일반적 상태에 어울리는 강연이라는 것, 단지 그 차이는 보다 외적인 조건의 마음에 신성한 가르침이 숙박하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바다(호수, sea)란 자연적 의미에서의 말씀이다. 바다와 육지가 동시에 언급될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두 개의 구분된 원리, 진리와 선에 각기 관련된 원리를 말하게 된다. 주님께서 바다와 땅이 만나는 곳, 바닷가에 앉으심이란 말씀 안에서 선과 진리의 결합이 있는 곳에 그분이 현존하심, 더욱이 앉음은 그 결합(conjunction)의 결과로 내면의 상태에 계신다는 뜻이다.

2.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그대로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다.” 배(ship)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부터의 교리도 의미한다. 따라서 주님께서 바다에 있는 배에서 가르치심이란 그분께서 말씀의 글자 의미에 있는 교리로부터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말이다. “산 위에 올라앉으심” (5:1) 처럼 “배에 올라앉으심”도 그분이 말씀으로부터 가르치시게 되는 모든 교리의 가장 깊은 곳에 그분이 계시면서 우리가 훈육되고 있다는 말이다. “군중이 호숫가에 서있다”는 것은 참 교리를 받는 그릇, 즉 외적이지만 선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들이 “서 있음”이란 신성한 진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상태를 표현한 모습이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본 장의 강연은 대부분 비유로 구성되어있다. 이 강연은 하늘나라의 본성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것과 유사한 것들을 수단으로 인간에게 전달되고 있다. 우리가 비유의 가르침에 대해 한 가지 주제를 여러 가지 다른 빛으로 비추고 있다거나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예증을 들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천국적 마음과 삶의 거룩한 상태로서의 천국은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이 나라는 수많은 다양한 품위와 미덕으로 구성되는 수많은 겹의 체험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여러 비유들은 그 자체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각 세부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비유를 전체적으로 묶어 생각한다면 이는 종교생활 전체에 응용되는 하나의 원을 그린다. 그렇다고 그 전체가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문제를 다룬다고 추정해 볼 필요는 없다. 그 이유가 각 비유에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와 닿는 어떤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비유는 모든 기독교인의 거듭남에 관련된 유용한 것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영혼(soul) 안에서 신성한 일들의 위대함과 본성, 우리의 미래 삶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영적 지식을 보여주고 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전달하시는 비유는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이다. 이 비유는 신약 성서의 여타 다른 비유의 대표격이 되는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줄 정도로 매우 뛰어나다. 즉 말씀을 듣는 자의 품성이 각양각색이라는 것을 일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는 시작된다. “씨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주님은 씨뿌리는 사람이시다. 이는 모든 진리의 저자 되신다는 측면에서의 주님에 관한 품성이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시대에서, 모든 땅에 씨뿌리는 사람이 되시어 나가신다. 다시 말해 그분의 나라에 속한 진리들이 뿌려지지 않는 심정은 없다는 말이다. 사실 씨뿌리는 사람이라는 특성과 그 직능은 인성 안에 계신 주님에 더 특별하게 응용되는 말이다. 한 인물 안에 말씀이 계신 것,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변해 가는 인간의 상태에 잘 숙박하신다는 측면에서 “씨뿌리는 사람이 되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주님께서 인간 삶의 초기에서부터 그분의 진리를 마음에 주입하신다. 그리고 그 이후 영원히 계속하신다. 그러므로 구세주는 언제나 씨를 뿌리시고 있다. 더욱이 진리의 씨는 관대하고 공평한 손으로 흘트려 뿌리신다. 그러나 이 씨를 받는다는 매우 다양한 종류와 수준이 널려 있는데 그 이유가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받는 그릇의 조건 때문이다. 이 신성한 연설자는 이런 바탕 조건을 네 종류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 사이에 있어지는 마음 상태를 네 가지 종류로 열거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왜 비유로 균중을 가르치셨는가를 제자들이 묻자 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설명 대목과 함께 우리는 위 네 가지를 하나씩 그리고 묶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하자.

4, 19. 첫 번째 종류가 열거된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 비유에 대한 주님의 설명(19절)을 보면 길바닥에 씨를 받은 사람이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깨달음(understanding)이란 지적인 납득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주님이 뜻하신 깨닫다란 “심정으로 이해함, to

understand with heart”이고 이는 사랑 안에 진리를 받는 것이다. 사랑 또는 선함은 영원한 진리의 씨가 뿌려져야 하는 바탕(ground)이다. 선함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각기 다른 마음들이 비유에서 우리 앞에 도표같이 나열되고 있다. 길가는 뿌려진 씨가 떨어지기에 너무 부적당한 토양이다. 길은 너무 다져져서 씨가 흙에 묻힐 확률이 거의 없어 떨어진 그대로 딱딱한 표면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매우 어린 시절 부모나 기타 타인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획득된 선이 있다해도 후기 삶에 있는 실지의 잘못들로 너무 다져진 심정을 형성하고 있어 영원한 생명에 어떤 관심도 내비치지도 않고 있을 경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 주님께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사악한 자들이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시고 있다. 가금류(fowl)는 생각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본문의 경우 새는 악에 근원을 두고 있는 사악한 생각들이다. 이 사악한 것이 “심정(heart)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것은 인생 중에서 청년 초기 시절에 창조자를 잊게 하는 시험이다. 젊은 시절까지는 아쉬운 대로 창조자 그분을 되새기도록 가르침을 받아온 터인지라 기억에서 사라지지는 않았었지만 차츰 세상의 경미한 쾌락을 자신에게 허용하고 헛된 철학이 제 인생의 대단한 나침반이나 되는 듯 거기에 휩쓸리면 이것들은 경건한 손에 의해 심정에 뿌려 놓았던 것을 쪼아먹게 된다. 그분께서는 부적절한 그 심정에 계속 뿌리는 섭리를 펼치시지만 무익하다는 말이다. 이 비유에 첨가해 더 생각해 볼게 있다. 모든 것에는 파종기가 있으면 수확기가 있다는 것이다. 뿌린데 따라 거둔다는 것, 바람을 뿌린 자는 회오리바람을 거둔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일이다.

5, 6, 20, 21. 진리를 무익하게 받는 두 번째 부류이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삭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타 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다.” 이 부류를 두고 주님께서 설명하신다.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한 특성은 비유의 네 부류 중 많은 사람이 누군가가 진리를 받아들일겠다는 각오가 빠른 만큼이나 그들의 진리에 대한 따뜻함이나 열정이 사라지는 것도 재빠른 경우이다. 마치 그들의 선함이 아침 이슬 사라지듯 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심정 쪽이기보다는 더 지성 쪽에 기울고 있다. 그들의 마음 바탕은 흙이 많지 않은 돌로 되어있다. 그들은 아름다운

어떤 것에 예민한 반응은 갖고 있지만 있어진 반응을 유용하게 활용하는데는 거의 무감각하다. 토양에 싹을 낸 씨는 허약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이 싹이 약한 바람만 있고, 날마다 이슬을 맞고, 부드러운 태양광선만 허용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기대는 못해도 어느 정도의 성장은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제 입맛대로의 조건은 주님의 섭리에서 이든, 자연의 법칙에서 이든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은 홍수도, 사나운 폭풍도, 무엇이든 말려 버리는 강렬한 햇빛도 갖고 있다. 섭리는 그 자체 안에 박해나 환난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조건들은 강한 것을 더욱 강하고 건강하게 해주지만 연약하고 허약한 것은 가차없이 파괴한다. 자기 뿌리가 없는 것은 말려지고 만다. 어쨌든 인간의 눈으로 점검해 본다면 이런 사람도 거듭남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천국적인 어떤 식물도 시험 속에서 양육되지 않는 것은 없다. 호된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들은 모조리 멸해진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 말씀을 듣게 될 때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약한 뿌리지만 뿌리를 갖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나 멸시를 당할 경우 이 뿌리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견뎌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시험은 내부로부터도 있다. 태양이 상징하는 사랑은 천국 사랑도 있지만 자아사랑(self love)도 있다. 이 자아사랑이 솟구쳐 내리쬐면 마음 안에 있는 푸른 것은 모조리 초토화된다.

7, 22. 비생산적인 그릇을 지닌 세 번째 부류가 열거된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 가시나무의 뜻을 주님께서 “세상걱정과 재물의 유혹”이라고 설명해 주신다. 일시적일 뿐인 세상의 걱정과 부해지고 싶은 바람은 영적 애정들을 숨막히게 하고 계속적으로 주님과 호흡해야 할 영혼(soul)의 목을 죄려는 경향성이 다분하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해 생각해야 할 게 있다. 먼저 “세상 걱정”의 수준이다. 회의적인 걱정(distrustful care)과 세상 직업에 몰두해서 야기되는 걱정, 그리고 부유해지되 존경할 수 있는 부의 추구하고 부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탐욕적인 야망을 구별해 생각해야 할 것이라 본다. 이와 다른 걱정과 바람이 있다. 각 개인의 차원과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자연적 마음이고, 이 마음의 영역이 부해짐은 종교의 지식들이다. 종교에 관한 지식이 종교 자체이다라는 왜곡된 사상으로 자신을 현혹당하게 할 때 이런 부유함은 사기가 된다. 이 부류에 대한 주님의 묘사에서 이들은 질보다 양을, 능력(capacity)보다 재배(culture)에 더 기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로 상상하게 한다. 이 토양은 영양이 부족하다거나 메말라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잡초를

무성하게 하는 토양은 때로 뭔가 더 나은 것이 잘 자라게 받쳐줄 수도 있다. 밀은 가시덤굴이 무성한 곳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가시덤불은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한다. 따라서 가시덤불이 무성하다는 말은 좋은 씨를 받을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도 된다. 따라서 세 번째 부류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큰 결함이 무엇인지 짐작될 것이다. 진리는 아는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우리가 그 진리로 행복해지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 진리를 응용해야 한다. 응용해 가는 도중에서까지 자신에 현혹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선을 행하는 것만으로 충분치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악행을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이라는 토양에 밀도 뿌려야 하지만 가시덤불은 필히 뽑아내야 한다. 이런 측면의 강제집행을 이 부류는 소홀히 하고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을는지 모른다. 그들은 경건하고, 탐구적이어서 남에게 표본이 될 수도 있는 수준까지 이를 수도 있다. 게다가 이들은 제 심정의 깨끗함을 남이 인정해줄 수 있을 정도까지 높여져 있는 탓에 제 심정의 점검에 오히려 소홀하게되어서 타고난 근성에 든 악을 발견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이 마음에 뿌려진 씨는 토양이 받아 잘 자라겠지만 완전한 성숙에는 결코 이르지 못해 결실이 없다.

8, 23. 이제 씨가 옥토에 떨어지는 경우이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백 배가 된 것도 있고 육십 배가 된 것도 있고 삼십배가 된 것도 있었다.” 신성한 과종자 스스로 이렇게 설명하신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백 배 혹은 육십 배 혹은 삼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 어떤 사람은 들었지만 깨닫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달았지만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본문의 사람은 듣는 첫 단계로부터 계속 진보해서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씨를 뿌림에서 수확하는 단계에 이른 사람이다. 이 구절에서 앞의 세 구절과 달리 두드러진 단어는 열매이다. 열매 외의 다른 과정은 열매 앞에 선행된 것일 뿐이고 열매로 모든 과정을 완성시키고 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나의 제자가 된다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요한 15:8). 종교에서의 열매는 교회 속 또는 다른 것 중에서도 더욱 다른 품성이다. 포도나무의 모든 가지가 저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는 그 가지를 잘라 버린다. 그렇다고 모든 가지가 일률적으로 같은 품질의 포도를 맺으라는 것은 아니다. 아마 그런 요구를 할 농부도 없다.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모두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고 때로 어떤 것은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결실을 가질 수 있다. 이 숫자는 열매의 양에서만 다르다는게 아니라 품질의 차이까지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누군가의 선한 일은 단순한

순종의 열매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선한 행위는 이타애의 열매이기도 하고, 혹 어떤 이는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위 세 가지, 삼십, 육십, 백 배라는 말로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은 세 가지 완전한 수준(degree)들이다. 삼십, 육십, 백 배란 거듭나는 생명의 세 가지 구분되는 상태와 수준 또는 거듭나는 인물들의 구분되는 세 부류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성서의 숫자는 각 상태의 특성과 각 특성으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 성서에 열거되는 숫자 중에서 열(ten)이란 숫자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comprehensive signification)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느님께서 표본을 만들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그리고 백성의 소출 중 십분의 일을 요구하셨다. 열 개중 한 개는 그들의 모든 행동적 의무를 표현한 것이고, 그 외 아홉 개는 신성한 예배에 속한 모든 의무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열은 충만된 상태 또는 완결된 상태를 의미하고 이 숫자와 병합되는 다른 숫자는 상태의 품질을 의미하게 된다. 본문의 세 가지 숫자는 자연적, 영적, 천적 수준과 상태를 의미한다. 열은 남아 있는 것(remains)을 의미한다. 3x10은 훈육에 의해 획득된 선과 진리가 남아 있는 것, 6x10은 시험을 수단으로 확증된 선과 진리가 남아 있는 것, 10x10은 생활로 확증한 선과 진리가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제의 남아 있는 것은 완결되어 완벽한 상태이고 이 상태 속에서는 선과 진리가 균등하게 하나되어 있다.

이상의 비유로부터 대체로 직감되는 것만을 간추려보자. 토양은 계속 이어지는 각 상태마다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 씨는 토양에 더 깊게 묻혀야 하겠다는 것, 보다 더 성공적인 사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 노력은 열매가 생산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등등 정도는 쉽게 우리 느낌에 와 닿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면 거듭남의 마무리단계에서 삼십 배의 결실을 맛보게 되리라.

장황한 설명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주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을 토대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관한 영적 의미와 실지 응용을 살폈다. 이제 10절로 이어서 비유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 주님의 선포를 살핀다.

10, 11. 주님께서 비유를 전달하시자 “제자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저 사람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제자와 군중이란 교회 내에 있는 사람과 교회밖에 있는 사람이다. 위 질문에 좀더 말을 붙여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는 달리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비유로 가르치십니까?”이다. 이 질문과 주님의 답변은 흔히 우리가 말씀 중에서 비유라고 따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더 넓은 차원까지 망라하고 있다. 말씀의

글자 의미 차원 모두는 이를 영적 차원의 의미와 관련해 생각한다면 일종의 비유적 스타일이다. 자연적 수준의 마음이 진리를 납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진리들은 글자적 의미 수준에서는 항복이라도 한 듯 머리를 떨구고 있다. 말씀의 글자로 된 순수한 교리가운데 있는 교회 내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의미가 열리어질 수 있다. 사실 참 교리를 단지 지적 측면에서 받는다면 이는 신성한 말씀의 내적 의미를 볼 준비를 갖춘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순수한 교리 자체를 실지 수용하려면 사랑과 거룩함의 상태에 자신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그 교리가 자기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함을 수단으로 말씀의 순수한 교리를 받아 온 이들, 그런터에 교회를 소개받게 된 이들은 말씀의 영적 의미를 보고 받도록 준비되어진다.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였다.”

12.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언뜻 생각하면 괴변인듯한 이 구절의 의미는 이러하다. 선함을 소유한 이들은 영적 진리를 받게 된다는 것, 받아도 아주 풍부하게 받는다는 것, 그러나 선함을 지니지 못한 이들은 그의 의지로부터 그가 지닌 교리 속의 진리까지 박탈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 법칙은 저 세계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해왔던 이들, 비록 그 사랑함이 상대적으로 무지하고 실수가 많아 수준이 낮았다 해도 그들은 이미 지닌 그들의 선이 용인하거나 요구하는 만큼의 진리를 받게 된다. 이 세상에서 선이 풍부했던 사람들은 저 세상에서 지혜로 풍부해진다. 이 세상에서 사랑과 이타애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진리가 풍부했어도 모두 빼앗기게 된다.

13.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이으신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내적, 외적 측면에서 의지와 이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각에 적절한 선과 진리를 가지고 있다. 전자는 영적이고 후자는 자연적이다. 우리는 자연적 이해성을 가지고 보고 자연적 의지를 가지고 들을는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내향의 식별력, 또는 진리와 선함에 대한 사랑은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내적 의지와 이해성이 외적 의지와 이해성과 상반되어 있을 수도 있다. 바깥쪽 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종교의 진리를 배우도록 자극하는지 모르고 더 나아가 가르치기까지 자극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해성이 총명하고 근면하게 그 일을 해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내적 측면의 자연적 마음은 자기가 배우고 가르치기까지 한 진리를

믿고 있지 않고 오히려 경멸하고 있을 수도 있다. 내향의 식별력이 있지 않으면 거기에는 진짜 이해성도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깥쪽의 보는 것은 안쪽의 직감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4. 이사에 의한 이 예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취되었다. 앞 구절의 주님의 서술과 매우 비슷하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15. 이런 백성의 심정은 총체적으로 감각적 상태로 굳어지고 말았고, 상태는 여타 모든 불순한 조건의 기본이 되고 있다. 의지의 품성이 바닥으로 쳐질 때 인간은 진리에 대해 귀를 막고 눈을 감는다. 이렇게 행동하는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심정으로 깨달아 나한테 돌아서서 고침을 받지 않으려 해서이다.” 심정 즉 의지로부터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식별이다. 참된 식별은 진짜 자신을 바꿔게 해서 건강하게 해주는 문(gate)에 해당된다. “돌아섬(conversion)”이란 이해성의 바뀜이고 “고침받음(healing)”은 의지의 회복이다. 이런 구원해주심을 일부러 단호하게 거절할 때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시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자비덕분이다. 만일 이런 사람들에게 명백한 빛으로 진리를 보게 했다면 그들은 그 진리를 뒤엎어 모독했을 것이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식으로 나타내실까? 그 이유는 첫째로 말씀은 자연적 인간 수준까지 간접적이라도 혜택을 받게 해야 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구원은 모든 이에게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하는 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진리를 제공해 주시되 그들이 짊어질 수 있는 만큼에서, 짊어짐으로 그 인간에게 혜택이 있을 때 제공해 주시기 때문이다.

16. 위와 반대되는 상태는 그야말로 복되다.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천국의 빛과 사랑이 들어오도록 열린 의지와 이해성을 가지면 이는 분명 복된 상태이다. 이는 피조물을 향한 주님의 바램이 실현되는 것이요 창조물의 참 행복 역시 실감된다.

17. 위 상태와 연결해서 축복이 더해지고 있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는 착하고 선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소망해왔던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 이 바램의 성취, 육을 입으신 하느님의 일과 한 인물되신 하느님을 보게 되는 이 성취는 제자들에게 특권으로 베풀어졌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미 살핀바 있듯이 거듭나는 사람의 모든 삶에 있는 영적 상태는 주님의 강림에 앞서 있어졌던 것들과 상응을

이루고 있다. 영적 삶에서는 두 가지 것, 지성에 진리가 있기를, 의지에 선이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예언자요 의인들”이다. 믿음과 희망의 대상이었던 것들을 심정과 삶에서 실감하는 것, 내적 인간 속에 있는지라 자신에게 너무 거리가 먼 개념들로 존재했던 것들이 바깥쪽 생활이라는 실제의 체험 안에 존재하는 것, 이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까? 전자가 비유로 말하는 수준이라면 후자는 비유의 설명에 해당될 것이다. 그 이유가 후자의 상태가 전자를 벗겨낸 것이기 때문이다.

18-23. 이 구절들은 이미 앞의 1-9절에서 함께 살핀바 있다.

24-30.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시고 있다. “하늘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그러나 그가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들이 밭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앞 비유에서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한 분이었고 씨도 한 종류였다. 이 비유에서는 뿌리는 사람이 둘이요 씨도 두 종류이다. 신성한 파종자가 밭을 뿌린 곳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원수들이 뒤쫓아오고 있다. 앞 비유의 경우 파종자의 노력에 앞서 장애물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 이 비유의 경우 파종자의 일을 무효화 되게 하려고 도입한 요소나 그 방법은 앞 비유와는 매우 다르다. 이 비유에 있는 세부사항의 모양새는 제 4장에 기록된 것, 즉 예수께서 영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의 유혹을 받는 것과 유사한 거듭남에 있는 주변 여건을 묘사하고 있다. 주님의 진리를 받는 것과 진리의 영을 받는 것은 마음이 시험에 노출된 채 있게 한다. 마치 어둠의 영이 피는 것과 유사해진다. 사실 진리가 마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허가한 탓에 시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지적으로 진리를 납득하는 정도에서는 더더욱 시험이란 말조차 꺼낼 필요도 없다. 한마디로 선함이 없으면 거기에는 시험도 없다. 그 이유가 시험은 본질적으로 선과 악 사이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악은 거짓을 수단으로 선을 몰아세우고, 선은 진리를 수단으로 방어에 나선다. 그러므로 마음이 시험에 노출되어 있게 하는 것은 선으로부터의 진리(the truth of good)이다. 이 비유에서 밭에 뿌려진 씨가 “좋은 씨, good seed”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마음에 이식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시험을 수단으로 그 진리가 입증된다는 것이 이 비유가 다루는 주제이다. 더구나 주님께서서는 이 비유 속에 선으로부터 악이 분리되는 것에 관련된 신비와 영계에서 있어지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것까지 담아 놓으셨는 바 그 중요성은 매우 심각하므로 세세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늘나라는 천국과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이다. 그 이유는 교회란 양 세계에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다. 37절을

보면 들에 좋은 씨를 뿌린 “어떤 사람”이란 사람의 아들이고 이 아들은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즉 말씀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원수들이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는 인간이 자연계의 삶, 세상 삶을 이끌어 가는 동안 은밀하게, 아마 당사자가 눈치 못채게 지옥의 악들은 거짓들을 그 사람의 마음에 불어넣어 이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이 든다는 것은 자연적 삶을 이끄는 것 또는 세상에서의 생활을 의미한다. 깨어있음이 영계의 삶인데 비해 자연계의 삶은 잠이든 것으로 비교된다. 원수란 지옥으로부터의 악들이다. 이것이 영적 생명으로부터 자연계의 생명이 분리되도록 영향력을 발휘한다.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은 거짓들을 은밀히 이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 갈 길을 갔다는 것은 은밀하게, 눈치 못채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밀이 자라서 이삭이 맺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진리가 자라나 선이 생산될 때 악에서 나온 거짓들이 섞여진다. 그 이유가 잎이 튀어나옴은 진리, 처음 받았을 때의 진리와 동등한 진리를 의미한다. 열매(이삭)는 선을, 가라지는 악으로부터 나온 거짓들, 본문의 경우 섞여 있는 거짓들을 의미한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는 선으로부터 나온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이 진리가악에서 나온 거짓들과 혼합되어 있음을 감지하여 불평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자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 하였다.” 이는 위의 거짓들이 악으로부터 나와 자연적 인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다시 물었다.” 이는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들이 받아들여 증가하기에 앞서 악으로부터 나온 거짓을 뽑아냄 또는 분리시킴을 뜻한다. “주인은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는 선으로부터 나온 진리, 이 진리의 증가 역시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 그 이유는 교인과 더불어 있는 진리들은 거짓들과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짓들은 개혁이 있지 않으면 분리시켜 던져버릴 수 없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 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게 하겠다.” 악으로부터 파생된 거짓 원리의 분리 내지 추방은 교회가 마지막 상태에 올까지 결과를 볼 수 없다. 이 마지막에 이르러야 섞여 있는 거짓들은 선의 진리로부터 분리시켜 지옥으로 보내고 선의 진리들은 천국에 합해지게 된다. 이런 것들은 영계에서 거행되고 있고, 이는 교회의 모든 이에게, 그리고 그들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즉 교회의

마지막 상태에 걸쳐 모두 거행된다. “단으로 묶음”이란 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거짓들을 한군데로 합하는 것이고 “태운다”란 지옥으로 던져짐이고 “곳간에 모아들임”은 천국으로 합함을 뜻한다.

31, 32.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귀보다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일만한 나무가 된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심정 속에 있는 매우 비참한 악행을 지적하시고 이를 퇴치하는 거듭남의 삶은 길고 고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해 주실 때 우리는 자칫 실망해서 아예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다. 이와 정 반대로 우리에게 작은 믿음에 대해서도 예쁘게 보여주셔서 안심과 용기를 한꺼번에 주시는 가르침도 있다. 겨자씨의 비유가 이에 해당하리라 생각된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만일 하늘나라가 심정 안에 진실로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그 받아들임이 제 아무리 작은 가능성을 지닌 시작일지라도 우리가 꾸준하다면 결국 성공적인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영적 의미에서 읽으면 더욱 선명한 그림을 얻을 수 있다. 겨자씨는 영적 선에 관한 어떤 것을 담고 있는 진리를 상징한다. 이 진리의 영적 선이 제 아무리 작아도 심정에 일단 뿌리를 내리면 마치 “옥토에 뿌려진 씨”와도 같이 자란다. 이 성장 중에 겨자씨는 먼저 어느 푸성귀보다 가장 큰 푸성귀가 되고 그 다음 나무가 된다. 믿음이 사랑에 합해지는 처음 단계에서 우리 속의 영적 원리들은 일종의 목초 또는 키 작은 나무에 불과하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이라는 영적 원리가 실지 삶에서 하나를 이룰 때 나무가 된다. 그러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등지를 튼다. 새란 생각들, 가지란 지식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는 인간이 거듭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 또는 지적 진리들은 더욱 많아진다는 뜻이다.

사실 위의 비유가 주는 격려는 현세에서 영적 원리가 성장하는 것만에 한정지을 수 없다. 그 이유가 이 세상에서 악을 죄로 알고 싸워가는 거듭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영적인 어떤 것을 포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획득한 영적 원리가 아무리 적다 해도 이는 그를 위해 저축되어져 이후 그 원리의 사용은 겨자씨같이 나무로 성장한다.

“인간이 욕을 지니고 살고 있는 한, 씨는 육적인 바탕 안에 있을 뿐이어서 그것은

걱정 근심, 과학물, 쾌락 등등과 뒤엉켜 희미한 상태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벗을 때 즉 다른 세계로 가게 될 경우 그 씨는 억제된 환경을 벗어나 마치 씨가 땅에서 올라와 수목으로 자라듯 나무로 성장한다. 그 다음 나무 숲이 되도록 변성한다. 그 이유가 그가 지닌 모든 과학, 총명, 지혜는 그 나뉠대로의 기쁨과 행복감을 가지고 영적 원리에 추가되므로 열매 풍성하도록 변성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원히 증가해 가는데 이는 가장 작은 씨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주님께서 겨자씨에서 가르치신 바와 같다. 이런 사항은 천사들의 과학, 총명, 지혜로부터서도 아주 명백해진다. 이것은 그들이 인간이었을 때는 입에 올리기에 도 황송한 것들이었다.”

33.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다니 온통 부풀어올랐다...’” 이 비유는 시험을 수단으로 천국 상태가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누룩 그 자체는 악으로부터 나온 거짓된 것을 의미한다. 밀가루(meal, flour)는 진리, 특별히 선에서 파생되는 진리를 뜻한다. 밀가루에는 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밀(wheat)로부터 생산된게 밀가루라고 생각할 경우, 이 밀가루는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를 뜻한다. 그러나 밀가루로부터 빵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경우, 이 밀가루는 선을 파생시키는 진리를 의미한다. 빵을 만드는게 이 비유의 주제인 바 본문의 밀가루는 선이 파생되어지는 측면을 의미한다. 이 비유에서 매우 두드러진 착상은 발효과정(leavening)이고 이 과정은 시험을 특출하게 상징해주고 있다. 시험의 용도는 발효의 용도와 비슷하다. 발효는 밀가루 반죽이 순수해지는 것을, 시험은 선과 진리가 순수해 지는 것을 도와준다. 마음 안에서 진리가 거짓으로부터 순수해지는 것은 발효와 상응되는 환난 없이 결과되어 질 수 없다. 영적 고난이란 거짓이 진리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다. 싸움 뒤 진리가 승리할 경우 거짓은 마치 발효후의 찌꺼기 같이 가라앉고 진리는 포도주 같이 순수해 있다. 이런 싸움이 발효 작용이 뜻하는 것이고 이 싸움은 거듭나는 삶에 있어 어떤 전환점, 변화의 상태를 맞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믿음의 진리를 원칙으로 움직여 왔던 기독교인은 이후 이타애의 선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또는 종교가 머리에서만 맴돌며 행동하던 수준에서 가슴으로 승강해 행동한다. 머리측면인 진리의 상태와 가슴측면인 선의 상태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도록 유대인의 법은 고기를 바치는 예식과 햇곡식을 바치는 예식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과일절과 다른 축제들은 누룩 없는 빵으로 예식을 치르도록 요구되고 특히 누룩은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햇곡식을 바치는 예식의 절차 중 새로운 곡식 예물을 바칠 때 흔들어 바칠 예물은 누룩을 넣어 굽도록 명령되었다. 햇곡식은 거듭나는 삶에 있어지는 새로운 상태를 표현한다. 이 새로운 상태는 진리의 상태 뒤를 잇는 선의 상태, 또는 믿음의 상태 뒤를 잇는 사랑의 상태이다. 이런 중요한 두 사항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앞의 축제에서는 누룩 없는 빵으로, 뒤의 축제는 누룩 있는 빵으로 기념하게 한 것이다.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그 다음 주님께 햇곡식을 바칠 수 있는 성숙의 수준까지 이어졌을 때, 우리는 누룩이 들어간 빵, 시험으로 악에서 순수해진 선을 그분께 바치고, 우리도 먹는 상태까지 진입하게 된다. 그래서 하늘 나라는 어떤 여인이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은 것과 비슷한 것이다. 이 비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여인은 애정을 표현한다. 이 비유에서 여인은 거듭나는 영혼(soul)이 진입해야 하는 선에 대한 애정, 즉 거듭나고자 하는 사람이 바래고, 기대하는 선, 마치 여인이 기대하여 준비하는 부드럽고 맛있는 빵, 이런 빵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여인이 누룩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거듭나는 사람이 거듭나려고 거짓된 것을 알고도 일부러 사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거짓 원리는 애정들을 통해 그 자체가 마음 안으로 은근히 심어진다는 말이다. “집어넣었다, took and hid 집어 숨겨 넣었다”는 서술 동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심어지는 거짓 자체는 밀가루로 의미되는 진리, 획득해서 이미 지니고 있어온 진리들 안에 감추어 놓여 있다는 것이다. “밀가루 서말, three measures of meal”이란 마음 안에서 진리가 충분히 성숙되어 선의 상태로 전환될 준비가 되었음을 뜻한다. 이런 상태의 완성이 “온통 부풀어올랐다”로 표현되어있다.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려야 하늘나라는 실감되어진다.

36. “그 뒤에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그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하고 청했다.” 군중을 보내고 제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상태의 변화 즉 자연적 수준의 생각과 애정들이 뒤로 밀려나고 대신 마음의 더 높은 영역 내지 자질 안으로 더 높은 생각과 애정이 승강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과 더 직접 교통하는 곳으로 들어갈 때 과거 외적으로만 납득되도록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외적 진리들이 거기서 그분에 의해 계발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와 같이 아래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설하시고 있다.

37-43.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란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진리이다.

“밭은 세상이다”란 모든 곳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좋은 씨는 하늘 나라의 자녀이다”란 신성한 진리가 교회에 있는 이들과 함께 있음을,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를 말한다”란 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있는 거짓을,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이다.” 원수들은 지옥에 있는 악으로부터 거짓들을 가지고 있음을,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것, the end of the world, consummation of th age”란 교회의 마지막 상태를, “추수꾼은 천사들이다”란 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가 분리를 결과 되어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아들이 그분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고 그들이 죄있는 모든 것을 그분의 나라에서 추려냄”이란 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가 분리를 방해하는 이들을 제거하심이다. “불법을 저지르는 그들”이란 악가운데 사는 이들이고, “그들을 불구덩이에 처넣음”이란 지옥 즉 자아사랑, 미워함, 증오가 가득한 이들이 있는 곳으로 던져짐을 뜻한다. “그 다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란 주님의 가르침을 행한 이들은 천국 안에서 각자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적 사랑 가운데 있게 된다는 뜻이다. 거기서는 주님을 인정하여 그분의 교훈들을 행한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 부른다.

44. “하늘 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앞의 비유에서 하늘나라는 밀가루에 감추어 놓인 누룩과 비교되었다. 여기에서는 밭에 감추어 놓인 보물에 비기고 있다. 앞 비유의 경우 나쁜 것이 좋은 것 안에 감추여 있었고, 이 비유의 경우 보다 좋은 것이 나쁜 것 안에 감추여 놓여 있다. 다시 말해 평범한 것 안에 귀중한게 놓여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마지막 비유를 취급하는데서 말하게 되는 상태의 뒤바뀜을 집어 말하는게 아닐까? 우리의 내적 상태가 악과 각종 지저분한 요소들로 점령되어 있다가 환난에서 그것들이 소비되어 순수해지는 일이 행하여질 때 불순함이 상주했던 곳에서 보물이 발견되고 있다. 이 보물은 이제 그 진가를 인정받고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다. 발견자는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보물이 감추어 놓인 밭을 먼저 매입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이 발견한 보물은 지혜의 보물, 신성한 말씀에서 밝히 보여진 바대로의 지식이다. 그 밭이란 천국과 교회이다. 그러나 이 교회 내지 천국은 그 사람밖에 있는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교회, 교회를 구성하는 원리들, 특히 선을 지닌 진리이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길는지 모른다. 보물을 함유한 교회가 내부에 있다면 왜 그 사람은 보물을 획득하기 위해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야만 한단 말일까? 그 이유는 이런 원리들은 내적 인간 안에만

있을 뿐이고 그것들이 외적 인간의 원리가 될 때까지는 아직 인간 고유의 것은 못되기 때문이다. 바깥 인간 안에 거점을 두는 자아사랑과 세상 사랑의 원리가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위해 제거되어 빈방이 있기 전에는 인간 소유가 될 수 없다. 이기심과 악은 인간이 지닌 모든 것, 인간의 재산, 인간 고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보물과 받은 주님의 소유이다. 주님의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치워야만 매입이 가능하고 또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가진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은 자기 고유의 의지와 지혜를 포기하는 것이요, 받을 매입한다는 것은 자기 심정이 신성한 뜻에 의거 만드는 것, 신성한 지혜가 자기 이해성을 안내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삶의 행동 모두가 신성한 질서로 작동되는 것이다. 보물을 취득하고 나면 과거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대단한 일, 고달픈 인생이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그가 새로 발견한 보물을 지닌데서 비롯되는 기쁨은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의 옛 소유를 포기하게 자극한다. 그가 자기 것을 모두 팔았을 때 보물은 그의 것이요 그는 주님의 것이 되어 있다.

45. “또 하늘 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앞 비유의 사람은 보물을 발견했다. 이 사람은 진주를 찾으러 가고 있다. 마음이 환난의 희미함이나 죽어 있는 상태를 벗어나 자유로워진 후 이 전에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던 진리가 정상대로 보여지고 그 진리가 주는 기쁨을 만끽한다. 감추어 놓았던 보물들이 빛으로 가져와져 획득되었을 때 그 보물은 더욱 그 사람으로 더 많은 보물을 바라도록 하여 더 노력하게 한다. 그의 목적물은 확실하다. 좋은 진주, 아름다운 진주가 그가 찾는 대상이다. 이 진주란 영적 생명, 영원한 것에까지 인간의 마음을 확대시켜주는 아름답고 귀중한 진리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완전한 실재를 가능하게 인도하는 진리들이다. 그래서 마치 거룩한 성의 진주문 같이 마음에 두 번째 파라다이스에 있어지는 축복과 영광을 소개시켜준다. 본문의 수색자는 발견자가 되고 있다. 진주를 찾는 도중에 그는 “매우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한다.” 진주 중의 진주되는 진주란 예수에게 있는 진리,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는 그분에 관한 지식이요, 이 진리는 진리중의 진리이다. 이 지식은 단지 지적 측면에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지식, 구원해 주는 진리, 세상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세주가 되게 한다. 본문의 상인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고 있다. 있는 모든 것을 다 팔 각오가 되어 있다면 과연 거듭나는 사람의 무엇을 다 팔라는 말일까? 사실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신앙에

반대되는 많은 것을 이미 버렸거나 포기해버린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리나 선함의 수준이 새롭게 향상되면 마음속의 새로운 원리가 있어 작동되는 바 그 진리에 적이 되는 새로운 악이나 오류가 들추어져 제거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수준에서 주님 사랑에 반대되는 것으로 발견되는 악은 자아사랑이다. 이웃사랑에 반대되는 악으로 발견되는 것은 세상 사랑이다. 이기심의 소유물이 두 개로 크게 구분지을 수 있듯이 이기심을 멀리해 버리는데도 두 가지가 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되” 위 두 비유 중 앞의 비유는 뒤의 비유보다 덜 강한 악, 후자는 더 강한 악의 제거를 뜻한다.

47-50. 이제 일곱 개의 비유 중 마지막번째이다. “하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올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처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이를 갈며 통곡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바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바다에 있는 고기는 말씀이 함유하는 생명있는 진리들을 의미한다. 어부란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끌어내어 타인들에게 나누어주는 선생이다. 그들의 그물이란 선생들이 진리를 획득하고 그 진리로 인간을 개심 시키려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고용되는 과학 또는 지식들이다. 이 비유의 일반적 주제 또는 역사적 측면에서의 내적 의미는 교회의 마지막에 관련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심판은 영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사건들에 해당된다. “악과 선의 분리는 바다에서 갖가지 고기를 모아들이는 그물을 던지는 것과 비길 수 있다. 그 이유가 고기는 지식이나 과학 측면에서의 자연적 인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대의 종말, 또는 마지막 심판의 때, 자연적 인간은 서로 서로 분리되어진다. 거기에는 자연적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영계에서 이들의 분리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모아 해변에 끌어 올리는 작업같이 나타난다.” 심판이 이 비유의 주제되므로 좀 더 응용측면을 생각해 보자.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끌어올리는 이들, 그래서 판단하고 분리하는 이들을 먼저 생각해 보자.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갖가지 종류의 진리들을 끌어올린다. 이 많은 종류를 크게 둘로 구분지어보면 순수한 진리와 외관상의 진리들이다. 젊은 시절에 두 진리는 혼합되어 서로를 구분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성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혼합된 것들을 판가름해서 참 교리라는 그릇 안에 순수한 것들은 담고, 외관상 순수한 것들은 던져버린다. 즉 가상의 껍질을 다른 것에서 제거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응용하지 못하게 치워버린다는 말이다. 심판을 또 다른 경우 즉 생활 쪽에서 실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생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에게는 원리로 판단해보는 것, 즉 교리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생활에 관련해서, 이해성 측면에서가 아닌 의지 측면에서 자기 원리를 판단해 보도록 요구되는 때를 맞이한다. 우리가 자연계라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 우리는 삶의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걸러드는 온갖 것, 타당하든 불법적이든 각종 쾌락, 이익,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각종 것, 목적과 수단에 관한 모든 것도 마구잡이로 잡아들인다. 설사 획득한 그것들을 구별해 본다해도 세상적 동기로 응용되는 세상적 규칙에 의해서 구별해 볼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이 아닌 선과 진리의 양심을 획득할 때, 해변가에 “앉아서”, 즉 의지로부터 각종 것을 판가름할 때 우리는 생활에 해당되는 내면의 기억 안으로 “좋은 것”을 모아들인다. 그리고 나쁜 것은 던져버린다. 즉 생활의 사랑으로부터 세상적 목적들을 제거해버린다. 이런 심판은 높은 영적 원리로부터 진행된다. 이는 비유에서 암시되어지고 있다. 비유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누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며 그것을 끌어올리는 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더 설명하시어 응용해 주시는 대목을 보면 고기를 고르는 것, 분리하는 작업은 천사를 수단으로 결과되고 있다. “시대의 종말에 천사들이 나타나 의로운 사람 사이에 낀 악한 자들을 절단해 내리라.” 이를 다시 말해 보면, 우리가 영적 원리, 천국 원리로 행동하게 될 때 내적 인간 속에 있는 영적, 천적 원리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외적 인간에 나타나 분리되게 한다는 말이다. 이런 분리 뒤에 사악한 것은 불구덩이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 불구덩이 또는 저 세상의 고통에 관한 성경의 묘사는 악한 것의 마지막 상태, 작용, 체험 등등에 관한 묘사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묘사는 악한 것의 진짜 품성을 밝히 알게 해준다. 불구덩이에 던져짐이란 사악한 원리들은 불타고 있는 욕망 그 자체이라는 것, 악과 거짓의 출생지가 그런 욕망임이 이를 갈며 슬피움으로 각각 의미되고 있다.

악한 자와 선한 자의 마지막 상태를 아는 것은 악과 선함의 본성을 아는 길이다. 저 세상에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한 욕망이라는 자기 속의 불을 소진하는 방법밖에 없다.

일곱 개의 비유가 하나의 시리즈같이 이어져 있었다. 사실 비유 일곱 개가 언제나 한뫼음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를 간단히 요약해 본다는 차원에서 시리즈로 살펴볼까 한다. 이런 관점은 과거 Clowes씨에 의해 살펴진 바도 있다. 이 비유를

덜 심각하고 열심히 읽고 싶은 독자라면 비유에 대한 요약 즉 내적 의미에서 이 비유는 연결된 하나의 시리즈, 거듭남의 전 과정을 표현하는 것, 말씀으로부터 천국의 진리를 처음 받는 시작에서 천국적 사랑과 삶이라는 만족된 성장으로의 점진적 발전을 관찰함으로써 더욱 자신의 품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으리라 본다. “씨 뿌리는 사람,” 첫 비유는 진리가 주입되는 것, 이는 천국 삶을 향한 첫 단계이다. 둘째 비유, “가라지의 비유”는 진리가 마음에 주입된 결과 마음속에 있는 악과 거짓이 드러남이다. 이는 첫 번째의 결과요 거듭남의 두 번째 상태이다. 세 번째 비유 “겨자씨의 비유”는 천국 삶의 작은 증식을 묘사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자기 선행이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공적(노력) 때문이라고 상상하는데 이것이 거듭남의 셋째 상태이다. 네 번째 “누룩의 비유”는 천국적 진리와 선을 받은 결과로 있어지는 시험으로 거듭남의 네 번째 상태에 해당된다. “감추어 놓인 보물”의 다섯 번째 비유는 천국적인 진리와 선을 받은 결과 중 보다 진전된 상태, 즉 인간 고유에 속하는 것은 단념하도록 인도되고 이런 마음의 상태는 천국의 삶을 받기에 알맞은 상태가 된다. 이른 바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보물이 묻힌 “밭”을 사는 것, 이것은 거듭남의 다섯 번째 상태이다. “아름다운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의 여섯 번째 비유는 천국 진리가 인간을 인도해 그로 하여금 모든 선과 진리의 유일한 근원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도록 하는데 그 결과 자아사랑을 포기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거듭남의 여섯 번째 상태이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마지막 비유는 천국적 진리와 선을 받는 마지막 결과이다. 이 상태는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이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분리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과 진리들은 천국과 결합하고 악과 거짓은 지옥에 던져진다. 이것이 거듭남의 일곱 번째 되는 마지막 상태이다.

51. 비유로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지금 한 말을 다 알아듣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을 향한 이 질문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도 계속 물으시고 있다. 참된 제자가 자기라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예 주님”하고 대답하여야 할 것이다. 질문과 대답은 상호성을 표현한다. 사랑이 묻고 지혜가 답한다. 대답과 질문이 상응하는 곳에는 심정과 이해성의 하나됨도 늘 존재한다.

52.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공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글자대로 보면 율법학자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다.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라는 표현은 복음서

중에서는 이곳 한군데뿐이다. 하늘 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처럼 제자들이 제 곳간에서 꺼내는 새것과 낡은 것이란 신약과 구약성서 속의 진리들이다. 하늘 나라의 교육을 받은 모든 율법학자는 반드시 보물이 든 위 두 집으로부터 귀중한 것들, 새것이든 낡은 것이든 계발의 필요에 비례해서 꺼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율법과 복음서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실 형식상으로 두 부분일 뿐 내용상으로는 하나의 큰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이 비유에는 위 설명 말고도 두 가지 것들이 더 포함되어 있다.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가 꺼내야 하는 것, 그것은 말씀의 글자와 영이라는 것이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는 낡은 것과 새것이다. 사도들이 하느님을 섬김에 관해 말한 곳을 참조하면 이 섬김은 글자라는 옛것에 따르지 말고 영이라는 새것에 의거하라고 말하고 있다. 영이 없는 글자는 옛것일 뿐만 아니라 죽어 있는 바 우리를 죽인다. 글자와 영은 둘이 함께 완전한 교육을 위해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라면 한결같이 모두 새것과 낡은 것들이 인간의 영원한 관심사가 되도록 꺼낼 것이고 이런 관심이 인간 사회에서 더 증진되도록 하는 것 역시 그의 특전이요 의무이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하리라.

53. “예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섭리, 즉 그분의 자녀를 가르치신 다음 그분 스스로 그들에게서 물러나셔서 그들에게 나누어 준 삶의 교훈을 그들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에 옮겨 보도록 하심을 표현한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동안에는 어느 때보다 주님의 현존을 더 느끼게 된다. 그러나 세상일에 전념하는 때 우리는 마치 나홀로인듯 여겨진다. 사실 성서를 읽을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어느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은 동일하다. 단지 우리가 홀로인 듯 느껴보도록 허용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이성에 의거 자유의지로부터 행동되는 것을 느껴보되 그분께서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실제에 응용해서 확증을 얻는 기회를 허용하신다.

54. 신성한 선생은 이 장소에서 물러나 저 장소로 이끄시는데 본문의 경우 그분이 자라신 곳(누가 4:16), 나자렛 동네, 그분의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고향, 그분이 양육되던 곳에 오신 다는 것이다. 그분이 양육됨,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인생 초기 시절 비록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다 해도 그것은 자연적 수준에 불과해서 예수를 사람으로 볼 뿐 하느님으로 알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분이 되돌아오실 때, 그분이 영의 권능으로 계실 때 우리의

옛 회당에서 새 교리를 가르치시고 인생 초기 종교적 관념 속에 더 높은 사상을 주입시켜 주시고 감각 본성의 지배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도 벗어나게 하신다. 이런 상태가 대화체 안에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대화 자체가 교훈적인 것이다. 주님의 말과 일들이 믿음을 생산한게 아니라 놀람의 원인만 제공하고 있다.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다. ‘저 사람이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 주님의 말에 있는 지혜, 그분의 일이 보여주는 권능에 관해 의문이 있는게 아니라 그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그들의 질문의 지이다. 이런 문의도 합당하고 유용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답, 주님 자신이 주신 답을 얻는데 노력해야 하리라. 그 답이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들은대로 판단한다. 일은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하신다.”

55, 56.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를 보통 사람으로 여겼다. “저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저런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생겼을까?” 이 질문을 한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단지 사람으로 간주하는 오늘날의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편이다. 그 이유는 주님의 신성을 믿는데 놓여 있던 장애물인 감각적 방법이 그 때와는 달리 지금은 제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그분의 생애에 관한 기록이 복음서에 표출되어 있다. 그분의 고향 사람에게 말과 일로 보여준 증거에 그분의 부활과 승천까지 더 첨가되어 있다. 이런 사항은 그분이 여느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 있고 진실로 잘 생각해 본다면 예수는 신성한 인성 안에 계신 하느님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자연히 알도록 해주고 있다. 본문의 줄거리는 글자 서술 자체에도 영적이고 영원한 진리가 체현되게 하고 있다. 요셉의 이름이 이 문단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라고만 불리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자연적 수준의 생각으로 확증했을 뿐 신성의 의미는 이해 못해서 표현한 질문이지만 어쨌든 “목수의 아들 또는 나무를 깎는 사람”이란 진리의 교리로부터 생활의 선이 파생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는 생활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교회는 생활 없는 교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를 표징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마리아를 요한에게 어머니로 위탁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그녀의 아들로 삼도록 했다. 사랑의 선을 표현하는 요한은 그녀를 제 집에서 모셨는데 이는 사랑의 선이 있는 곳에만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주님의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이들은 합리적인 선과 진리를

표현한다. “주님 자신 안에는 천적 수준의 결혼, 신성한 선과 진리라는 두 본질의 결혼이 있다. 천사와 인간은 각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이타애에 있는 만큼에서 천적인 결혼 안에도 있게 된다. 이로부터 믿음 안에, 즉 주님의 선과 진리 안에 있게 된다. 그러면 이들은 딸과 아들이라 불리고 그 둘 사이에 자매와 형제도 있게 된다. 합리적인 진리가 자매(sister)라 불리는 이유는 합리적인 진리 안에 신성한 선이 유입됨으로 출산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합리적 원리 안에 있는 선은 형제라 불리고 그 안의 진리는 자매라 불린다.” 주님에 관해 생각하되 단지 자연적 수준의 족보로 돌려대는 경멸적인 본문 같은 모습도 천사들에 의해 이해될 경우 이는 그분이 선도하시는 것,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모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영적 혈연 관계로 생각을 바꾼다.

57. 주님의 자연적 혈연 관계만을 지적한 사람들은 “예수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외관으로만 판단하는 자연적 수준의 마음이 지닌 경향성에 대한 본보기이다. 이는 신성에 원인이 있는 것을 가시적인 결과와 엮어매려드르게 자연적 수준의 마음이라는 것도 뚜렷이 알게 해준다. 신성한 진리로서의 말씀은 지상에 계시 때의 주님과 정밀하게 비슷하다. 자연적 몸으로 옷입혀진 신성한 진리, 이것은 말씀의 글자 의미이다. 말씀을 씌어있는 글자 그대로 판단하는 이들은 지상의 예수를 인간성만으로 판단하는 이들과 비슷한 것이다. 자연적 인간의 경우는 예수라는 인간 전체가 보통의 인간이라고 판단하지만 그 판단을 넘어 있는 영성과 신성이라는 두 가지가 더 있다. 동네 사람들이 추론한 결과를 보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셨다.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도 제 고향과 제 집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한 글자 수준의 진리는 주님 자신이 본보기가 되어 즉각 예증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글자 수준에서의 규율에서까지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자. 예언자란 그들을 가르친 진리 속의 교리를 표현한다. “예언자의 고향과 집”이란 자연적 마음속의 이해성과 의지이다. 말씀 속의 교리와 진리가 맨 처음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것들은 지식으로서 세상의 여타 다른 지식과 같은 수준의 취급을 받고 같은 장소인 기억이라는 곳에 쌓여 있다. 제아무리 드높은 교리나 진리도 이 수준의 마음에 머물고 있는 한, 그것들은 과학이나 여타 지식과 혼합된 채 있는 바 하급의 지식보다 더 낮다고 여겨 존경받지 못한다. 그러나 하급의 지식 내지 여타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더 높은 생각에 편입되고 더 높은 목적과 연결을 갖게 되면 그것들은 존경받게 된다. 그 이유가 그것들이 영적 수준의 마음으로 승강되면

애정과 생각 안에서 드높여지고 거기에 합당한 지위와 권위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인생 시기 중 결정하는 때가 있다. 그 때 자연적 기억 안에 쌓여 있던 종교적인 교리와 진리들이 선별되고 경외 받기는커녕 거절되어 퇴보할 수도 있다. 이러면 인생 초기 시절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원리들마저 예수를 믿으려들지 않아 그분을 사람들 속의 사람, 지극히 평범한 인간 취급을 한다.

58.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별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 중 하나는 믿음이 생산되기를 기대해서라는 것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에 속한다.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불신앙은 그분께서 기적을 수행하시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낫기를 원하는 병자에게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자주 질문하시었다. 기적들은 믿음을 확증하게 하고 드높여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믿음을 생산할 수 없다. 믿음의 바탕은 올바르고 선한 심정이다. 그러나 기적은 이런 믿음의 바탕을 창조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과 진리가 작동하는 것을 우리의 불신앙이 방해한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권능을 베풀실 수 없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따라서 권능있는 그분의 일들이 우리의 심정과 지성 그리고 삶에서 각자에 의해 체험되지 않고 타인에게도 그분의 권능을 명백히 보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라.

14

제 11장에서 우리는 요한에 관해 읽어보았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때 그는 제자 중 둘을 예수에게 보내어 당신이 약속되어 있던 구세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하는지 물어보게 했다. 주님의 빼어난 중, 요한이 감옥에 갇힌 원인, 그리고 그가 잔인하게 당한 처형 방법과 처형된 원인이 본 장의 시작에서 빛 가운데 놓여지고 있다. 하느님이 보내신 많은 다른 예언자같이 그도 자신의 완전 무결함과 신실함 때문에 고통받았다. 의로운 자가 제 의로움 때문에 고통받게 된다는 것은 섭리적 차원에서 모순되는 듯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소한 주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자연계의

과정에 있는 그분의 통치질서를 벗어난다거나, 특정한 인물을 편파적으로 특별히 대우해서 정상적인 질서로부터 예외를 두어 취급하시는 경우는 없다. 이런 사항이 세례자 요한의 역사적 사실로 부각되고 있다. 이 본문은 신성한 말씀의 한 부분으로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1, 2. “그 무렵에 갈릴래아의 영주 헤로데왕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능력이 어디서 솟아나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갈릴래아의 통치자로서의 헤로데는 타락하는 자연적 마음을 통치하는 원리를 표현한다. 갈릴래아는 자연적 인간을 상징한다 (2:22 참조). 헤로데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이는 영적인 것, 신성한 사항에 관한 지식을 인간이 획득하는데 악이라는 것은 완벽한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분과 천국에 관한 지식이 인간 마음에 들어 온 결과는 선한 자나 악한 자, 아마 사람마다 매우 다르다. 헤로데의 경우 예수의 소문에 관한 지식은 그가 요한에게 저지른 범죄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그래서 미신, 자연적 인간의 종교인 미신은 헤로데를 이끌어 새로운 능력 안에서 자기와 닮은 원리, 미워함이라는 원리의 잠재력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해준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적을 두려워하고 있다. 저 세상에서는 이런 악이든 저런 악이든 확실한 표현만이 있다. 즉 심판이 언제나 범죄 뒤를 따라가고 있다. 악한 자가 죽음으로부터 일어날 때, 과거 악인들의 죄를 증거한 이유 때문에 그들 스스로 죽게 한 말씀은 과거보다 더 큰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어나 증거한다. 주님이 말하셨던 말씀들, 우리 양심 안에서 말하신 모든 것은 비록 아무 말 않고 있어 죽은 듯 여겨질는지 몰라도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오히려 심판의 날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 위 본문은 거듭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면모를 가진다. 거듭나는 이들이 시험 가운데 있게 되면 진리는 이기심의 악과 거짓들로 포진한 자연적 마음에 갇혀 있다. 진리의 외관이 죽을 때, 즉 외관을 벗어 던질 때 진리 자체는 더 높은 마음 영역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바 더 이상 세례자 요한이 아닌 예수, 글자가 아닌 진리의 영이다. 사실 헤로데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확실치 않았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신하에게 올바르게 표현한 셈이다. 그의 신하란 자연적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의미한다. 그가 신하에게 말함이란 부패되고 죄지었다는 느낌이 제 의지를 추궁하는 이해성 속의 생각들에 본문 같은 말을 만들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복음서 기자는 죄 지은 헤로데의 추측과 관련된 기사를 적고 있다. “일찍이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로데의 죄악상을 대표할만한 이 범죄는 교회 안에 있는 선과 진리가 완전하게 섞음질된 것을 표현했다. 요한에게 가한 헤로데의 잔악한 행동이란 죄인이 자신을 나무라는 말씀을 억눌러 침묵하게 만들겠다는 결심을 뜻한다. 헤로데의 행동 하나 하나가 위의 설명을 표현하고 있다. “요한을 잡아감”이란 의지가 신성한 진리에 반대하는 것이고, “요한을 결박함”은 이해성이 진리에 반대하는 것이고, “요한을 감옥에 가둠”이란 생활로 신성한 진리에 반대하는 것을 뜻한다.

4. 요한을 잡아 가둔 이유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거듭 거듭 간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의 잔악한 범죄에 대한 요한의 당당한 증언이란 신성한 질서, 그리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에 반대되는 총체적인 죄를 말씀이 정죄하는 것을 표현한다. 욕의 욕망 또는 색욕이 우리를 유혹할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분의 말씀에 의해 “그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

5. 요한을 죽음에 놓이게 하는 헤로데의 기질, 이는 완악해진 죄인의 마음에 신성한 증언이 있을 때 그 죄인은 하느님의 진리를 침묵시켜 버리는 정도에서 만족치 못하고 결국 파괴해야 속이 풀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도 헤로데의 마음 안에도 실낱같은 양심은 남아 있었다는 것이 복음서 기자의 기록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헤로데의 경우 바깥쪽 생각이 내향의 생각보다 훨씬 강해있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전혀 쓸모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많이 줄이는 효과가 있다. 사람을 두려워함은 행동을 감금시킬 뿐이지만 하느님을 두려워함은 강제로 행동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대한 본보기를 본문의 헤로데가 되어주고 있다. 영적으로 군중이란 아주 어린 시절 또는 삶이 매우 단순했던 시절에 종교 원리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있는 자연적 마음의 생각과 애정들을 말한다. 비록 진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심정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형편이라해도 만일 우리가 죄짓는 길로 가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도움은 준다. 그 이유가 “군중이 요한을 예언자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타락된 마음에서도 그분의 말씀은 그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고 미력하나마 진리와 정의의 선생된다는 것은 인정받는다.

6. 타락하는 영혼(soul)의 죄가 발전할 경우 외적 측면의 진리가 주는 암시들은 그의

내향에 있는 욕정의 영향에 매우 쉽사리 결정적으로 침묵되고 만다. 요한에게 가한 헤로데의 범죄는 자연적, 영적으로 이해해볼 때 이런 것을 가르쳐준다. “그 무렵에 마침 헤로데의 생일이 돌아 왔는데...” 출생(birth)은 내면에서 심사숙고된 것이 외면으로 돌출되어 실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의도가 행동으로 옮겨진 것을 뜻한다. 본문의 경우는 누군가가 출생한 것은 아니고 생일을 맞이해 기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출생을 기뻐맞음이란 출생자가 지닌 생명의 연장과 발전을 기뻐한다는 것이다. 생일 축하란 애정이 기뻐하는 상태이고 이 애정은 어떤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원리가 뭔가를 낳도록 자극한다. 헤로데가 제 생일날 갖고 있는 심정은 경고가 암시된 상태이다. 그는 군중이 두려워 범죄를 저지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파렴치한 여인과의 약속을 통해 죄를 짓는 쪽으로 이끌리고 있다. 두려움이 준 억제력이 부패된 애정을 자극할 때 죄를 즐기는 새 단계로 진입한다.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로데를 매우 기쁘게 했다.” “잔치 손님들 앞 (in the midst of them)”이란 애정과 생각의 중심을 이루는 것, 이것이 주변의 모든 애정과 생각에 명령하는 것을 뜻한다. 춤은 각종 예식 즉 가장 모독되는 예식이든 가장 거룩한 예식이든 모두에서 이용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춤을 통해 증진되길 바라는 어떤 목적물로부터 그 품성을 획득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춤은 악한 쪽이든 선한 쪽이든 애정의 기쁨을 의미한다. 헤로디아의 딸은 의지에 있는 악한 애정을 의미한다. 이 애정이 점잖은 듯 놓여 마음가짐을 부추기면 어떤 행동이든 표출할 수 없도록 매료한다.

7. 헤로데에게 보인 춤의 효과는 매우 놀란 만하고 매우 유용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헤로데는 먼저 그 춤에 매료되고 그 다음 자신을 포기할 정도로 이 매력있는 여자에게 우선권을 양도하고 있다. “헤로데는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여 약속하였다.” 이것은 악이 발전해 가는 모습이다. 영적 삶과 비교해보는 것도 과히 어렵지 않다. 여기서 제일 가는 요점은 맹세로된 약속이다. 맹세는 확증을 의미한다. 확증은 이해성에 속한다. 동의(consent)는 위험하지만 확증은 치명적이다. 이해성이 크게 자극받을 경우 결과를 개의치 않고 열정에 주도권을 맹목적으로 포기할 때도 있다. 이해성이 의지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라. 다 주마”라고 말할 때 그 결과는 죄가 되거나 재난을 쉽게 부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8. “소녀는 제 어미가 시키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 가져다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딸로 표현된 악한 애정은 어머니로 표현된 사악한 의지의 지시

하에 행동한다. 이런 의지가 이해성에 무엇을 바랄까? 악을 꾸짖고 있는 진리의 힘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언제나 악을 향해 변함없는 정죄를 선포하는 말씀자체를 부정하고 거절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말씀의 권위와 생명을 축출했으면 한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는 것이다. 이 여자는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달라고 했다. 그릇이란 지식 또는 과학물을 의미한다. 진리가 왜곡된 과학물에 들어가면 진리 자체도 왜곡되어 거짓이 되고 만다. 아마 가장 높고 제일 가는 진리도 가장 낮고 거의 생명 없는 거짓으로 변질되고 만다.

9.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또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소녀의 청대로 해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죄에 빠지는 두 번째 단계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다. 사실 양심의 가책을 느껴보지도 않고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반복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죄는 반복되어지고 있다. 때로 지성은 벌어지는 일의 판단이나 빠드다는 것을 보지만 이내 눈감고 그것에 동조해서 아이디어 창출까지 덧붙인다. 마치 부패된 의지에 맹세한 것처럼 팍 워매여 지성은 질질 끌려 다닌다. 또 하나 헤로데의 마음을 동요하게 한 것은 세상에서 명예라 부르는 것 때문이다. 그는 자기 주위의 사람들로 부터 제 권위를 깎아 내리고 싶지 않았다. 헤로데 주변의 손님들이란 헤로데로 표현되는 악에 동조하고 부추기는 주변의 악들을 말한다. 따라서 범죄의 출발은 더욱 확고해져 있다.

10.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이 엄청난 범죄는 하느님과 인간의 법칙 모두에 상반되어 여느 예언자보다 더 큰 예언자에게 저질러졌다. 범죄의 이유란 그가 거룩함 속에서 죄를 견책했기 때문일 따름이다. 이 범죄는 더욱 큰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요한의 목을 자름은 말씀의 내면을 외면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결과적으로 말씀의 양면을 모두 파괴시키는 죄악을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진리의 법으로부터 원리를 분리시키는 것, 따라서 신성한 법칙을 죽은 글자로, 정의를 위선으로 뒤바꾸는 것이다.

11. “그리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갖다 주었다.” 이 소녀의 목적이 어머니 속에 있다. 목적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취되자 어머니의 악은 더 잔인해진 모양새로 바뀌어 그녀에게 되돌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법칙에서 미워함은 살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 속의 미워함은 그의 원리 속의 미워함이다. 따라서

설사 마음에 존경을 표하는 사람이라 해도 원리 속에 든 미워함은 그로 하여금 또 다른 형체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상존하게 한다. 말씀 속의 어떤 큰 원리를 실지 행동이나 말로 부정하는 것은 헤로데의 아내가 한 짓, 그의 영혼이 지닌 악의 돌출과 수준이 비슷하다. 의지로부터 나온 의도로서 진행된 악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다시 그 행동을 있게 한 의지로부터 추인 될 때 이 회전은 그 속의 원리가 우리 자신으로 완전히 굳혀지게 한다. 세상을 한바퀴 돈 악은 제자리로 돌아가지만 악의 사랑을 만족시킨 이 세상은 다시 비열함과 비통함을 자아낸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살피면서 신의 섭리중 외관상 불가사의할 측면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을 것 같다. 약속된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특사로 여인의 태로부터 접지된 요한, 엘리야의 권능과 영을 지니고 그분에 앞서 온 그가 사악한 여인의 개인적 복수심을 만족시키도록 죽대없는 통치자에 의해 살육되었다. 사울을 두고 “이런 강한 분이 땅에 떨어지다니!”라고 애도한 다윗같이 우리가 말하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통곡한다면 본문의 사건에 놀랄 필요가 있을까? 요한의 숙명이 예수의 숙명이 아닐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특사와 예수 사이에 유추되는 어떤게 있을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요한은 말씀을 표현해 주었고 예수는 그 말씀 자체가셨다. 요한은 씌어진 말씀을 표현했고 예수는 말씀이 육을 입으신 것이다. 씌어진 말씀을 받아들여 듯 그 거절도 육을 입은 말씀에 선행되었고 언제나 선행된다. 요한은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의 길을 준비했다. 또한 그는 그가 죽는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길을 준비했다. 그러나 약간의 다른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요한은 왕의 권력에 희생되었고 예수는 사제의 권세에 희생자가 되었다. 요한은 갈릴래아에서 죽었고 예수는 유다에서 죽으셨다. 이런 모든 주변 상황은 그 모습 그대로가 표징적이어서 이는 교인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주님도 그런 식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말씀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들은 역시 주님의 신성을 부정한다. 요한의 목을 벤 이들은 역시 사람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된다.

12. 헤로데가 요한을 처형한 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묻고 예수께 가서 알렸다.” 요한의 제자가 요한의 시체를 거두어 묻는 모습은 앞서 있던 교회의 상태가 완전하게 뒤집어졌을 때 다른 교회로 옮겨지는 것, 그리고 이전 교회의 끝과 새로운 교회의 건설사이에 어떤 간격을 두어 그 동안 말씀의 순수한 진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일정 기간 보존하는 것을 표현한다. 요한의 몸은 말씀 자체를 담는 글자이다. 이런

사항으로부터 우리를 가르치는 바, 이런 교인의 마음이 부패되어 말씀이 거절당할 때 제자 되기를 기꺼이 바라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 더러워진 말씀이 회복되어 보존되어간다는 것이다. 위 구절을 보다 세부적으로 응용해 보자. 요한의 제자 측면에서 볼 때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은 그들에게 시련을 당하게 했고 이 시련은 시험을 표현한다. 요한의 죽음이 악한자의 마음에서 신성한 진리가 소멸됨을 표현하지만 선한 자의 경우 그의 죽음은 신성한 진리가 더 높여지는 것을 말한다. 이 높임은 말씀이 마음 안에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되 그 글자를 벗고 그 영이 일어남으로 결과된다. 말씀이 글자의 껍질을 벗고 그 영이 일어난다고 말하든지, 주님의 진리가 자연적 마음의 둘레를 벗어나 영적 마음으로 올려진다고 말하든지 둘 다 똑같다. 그 이유가 신성한 진리는 자연적 수준의 납득에도 잘 적응되고 영적 수준의 납득에도 잘 적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남, 말씀이 영적 마음의 직감으로 승강되는 것이 부활이다. 말씀이 이렇게 승강하는 것은 신성한 선함 측면의 주님과 더 직접적인 연결이라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이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가 예수께 와서 말하는 것으로 암시되고 있다.

13.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거기를 떠나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심은 “오고 가고”하는 군중 때문인 것을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알 수 있다. 어쨌든 왜 주님 스스로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제안하셨으며 군중이 그분보다 더 빨리 따라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한동안 쉬셨을까? 이런 주님의 태도는 또 다른 의도가 있으시어 우리를 가르치시려는게 있지 않을까? 그분은 때로 우리 스스로 쫓아오도록 내버려두시기도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의 쓸쓸한 곳으로 물러나 계시기도 한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그분의 권능이 베푸는 경이로움을 꼭 붙잡도록, 더 나아가 자연계이든, 인간이든 실패하고야 마는 광야에서조차 그분의 식탁은 펼쳐질 수 있다는 것, 아울러 그런 삭막한 삶에서 그분의 선함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풀어질 때 우리라는 인간은 그분을 더 확실히 보기에 광야에 물러나 있으시기도 한다. “삭막한 곳”이란 우리 마음의 더 외적인 부분, 더 수준 낮은 영역을 표현하기도 한다. 주님이 물러나 계신 곳은 지형상으로 볼 때 갈릴래아의 동쪽,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외곽에 해당된다. 이 외곽지역은 과거 2 1/2지과가 자리잡았던 곳이다. 주님께서 마음의 더 바깥 영역으로 내려가시는 의도는 거듭나게 하는 권능의 작용이 우리의 더 낮은 애정과 생각들로 내려가시어 생활의 말과 행동까지에 이르게

하시려는데 있다. 마음의 이런 최말단 수준에서 그분의 권능은 더욱 명백해진다. 그분이 떠나신 직접 원인은 요한의 죽음 때문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는 그분의 진리가 거절될 때 죄있는 마음으로부터 그분의 현존이 박탈된다는 것을 뜻한다. 주님께서 삭막한 장소로 물러나실 때 군중이 열심히 따라올 것을 모르실리 없으셨고 그런 상황이 있도록 의도하신 것이다. 주님을 따라온다는 것은 그분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간다는 것, 그분의 본보기를 모방해 보겠다는 것이다. “육로로 따라 왔다, to go out of the cities on foot”는 것은 진리의 교리에 순종해서 자연계의 생활을 꾸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4. 주님을 쫓아 온 이들, 그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오면 주님도 자기들에게 더 가까이 가신다는 신성한 약속을 발견한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거기 모여든 많은 군중을 보시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들이 데리고 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본문의 “많은 군중”이란 주님과 내면적으로 더욱 깊이 사귀어 결합하길 바래 승강되고자 하는 자연적 마음속의 수많은 애정과 생각을 표현한다. 악이 극성을 떨어 그분으로 하여금 삭막한 장소에서 쉴 수밖에 없으셨던 그분이 그분의 축복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들과 교통이 있어진다. 그분께서는 군중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으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신성한 인간으로서의 주님에게 측은한 마음은 있다 없다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자비 자체이기 때문이다. 본문 같이 말해지는 이유는 자비가 우리에게 움직여질 때, 즉 우리가 참회하여 겸허해져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자비임을 느끼고 영원한 생명과 영적 축복을 진실로 바랄 때 그분의 자비가 우리에게서 일하는 바 이 때 인간의 표현이 이 구절 같이 때문이다.

15.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을 해쳐 제 각기 음식들을 사먹도록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직도 제자들은 스승이 무한한 근원자체 되신다는 것을 이해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록된 바 있듯이 이런 주변 여건은 영적 교훈을 운반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다. 본문의 제자란 거듭나는 상태를 묘사한다. 즉 거듭남이 진리를 희미하게 직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때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이것이 “저녁 때”이다. 이런 상태의 거듭나는 마음은 외적 경로로 선을 획득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양식을 위해 마을로 내려가야 할 것”이라는 구절의 의미이다. 더불어 “제 각기 사먹도록” 제안한다. 이는 거듭남을 위해 필수 요소인 선의 획득은 자신의 능력으로만 되어 진다는 착각이다.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것이다.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데 하늘을 올려다 보기는 커녕 에집트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과 같다.

16, 1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하신 내용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의 심정은 그만큼 굳어져 있다.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하셨을 때 그들은 자신을 쳐다보고 자기들이 지닌 적은 양의 양식만을 생각했을 뿐 주님의 권능과 근원을 곰곰이 되새겨 보지 않았다. 더욱이 그분 스스로 그들에게 하라고 지시하셨는데도 되새겨 보질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빵과 물고기란 우리 영혼을 지탱시켜주는 선과 진리라는 영적 양식을 의미한다. 기적은 그 기적과 연결을 이루는 각종 주위 여건이라는 세부사항을 이용해 영적 몸의 요소인 생명과 품성이 한 인간 안에서 형성되기 위해서 출현되고, 증가되고 자기 것 만들어 가는 방법들에 관한 아름다운 묘사를 포함되게 하고 있다. 본문의 제자는 두 겹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선과 진리에 관해 남겨져 있는 것이 저장된 곳 즉 자연적 마음의 내면적 애정을 표현한다. 그 반면 군중은 외면의 애정을 표현하고 여기에 남겨져 있는 것들이 증가되어 분배되고 있다. 남겨진 것(remains)이 미래의 사용을 위해 저장되어 보존되는 곳이 내면의 자연적 원리인데 요한복음의 경우 더 뾰족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가 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사람이 “어린 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반면 제자들은 진리 자체, 모든 축복의 근원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진행되는 진리들을 표현하고 있다.

18. 제자들은 겨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가지고 있어 군중을 먹이기에는 어렵도 없는 물량임을 주님께 전달하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셨다.” 그분께 가져오는 행위는 영적 증가를 위한 첫 번째 단계요 모든 단계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 필수 요건이다. 어린 시절에 저장된 선과 진리는 성년시절에 영적 삶을 시작하는 수단으로서, 동시에 그 삶을 형성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마음 안에 남아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마음에 저장되었던 선과 진리를 그분께로 가져올 때까지 결코 삶 안으로 진입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생명에 관해 배워 흡수했던 것들을 그것의 저자되신 분이 주님이신 바 그분의 소유임을 인정해서 그분께 돌려드릴 때까지 결코 우리 삶 속에 진입되지 않는다.

19. 남아 있는 것을 함유한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분과 의식적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분께서는 자연적 마음속의 원리들을 질서 있도록 배열하신다. 이것이 본문, “군중을 풀 위에 앉게(또는 눕게) 하셨다”는 말씀에 담긴 의미이다. 풀(grass)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지식을 의미하고 사람들이 풀 위에 앉는 모습은 지식 안에 있는 진리들을 정돈하시는 것을 표현한다. 이제 의미심장한 행동이 뒤이어지고 있다. 빵과 물고기를 주님께 가져오자 그분께서 “받으신다.” 주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받으심은 인간 마음에 남아 있던 선과 진리가 그것의 근원되는 분과 접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주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 이는 영적 마음, 내적 인간의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을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미 획득한 영적 생명인 선과 진리를 축복하는 자비와 평화가 내려오는 것을 한꺼번에 표현한다. 그리하여 공급해주시는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모든 영적 필요를 채워 우리의 가장 높은 바램을 만족시켜 주신다. 축사하신 후 “그분께서는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빵을 떼시는 모습은 의미심장하면서도 매우 아름다운 행동이다. 이 행동은 아주 이른 시대로부터 내려온 행동으로 각 단계마다 따로 따로 구분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 시대에 빵을 떼어 서로에게 줄 때 이는 선을 서로 나누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또는 한 조각을 떼어 여러 조각으로 나눌 때 이는 선을 함께 하는 것(communion of good)을 표현했다. 위 두 경우 모두에서 빵을 떼고 나눔은 형제간의 사랑과 결합의 표시로 주어지고 받아들여졌다. 초기 기독교회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빵을 떼는 의식이 있어왔다. 주님이 빵을 떼신 본문의 경우 이는 그분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다. 그 반면 떼어진 빵을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그들이 그분과 결합해야 한다는 것, 동시에 그분으로부터 선을 받고 받은 선을 서로가 공유함으로 가장 보편적인 선, 즉 주님께 대한 사랑의 선과 서로 서로에 대한 이타애의 선을 갖기를 바라는 그분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빵을 제자들에게 건네고 다시 군중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그분의 선이 천국과 교회를 통해 교통을 가짐으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각양 각색의 상태에 그분의 선이 숙박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분의 선물은 그분 자신으로부터 그분의 창조물에 각기 구분된 수준으로 내려온다는 것이기도 하다. 두 구절에 기록된 세부사항에서 우리는 하나의 원을 관찰할 수도 있다. 즉 하느님의 역사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다. 빵은 제자들에 의해 주님께 가져왔다.

그분에 의해 빵은 지상으로부터 천국으로 올리어 졌고, 이로부터 영원한 사랑의 축복과 함께 내려와 더욱 풍부하게 배고픈 영혼을 채우고 있다.

20, 21. 위대한 기적의 목록 중 하나를 읽게 된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여기에 권능의 일이 일어났다. 겨우 몇 명만이 허기를 때울 수 있는 양으로 만여 명이 배를 채운 것이다. 이 기적은 과거 사막에서 만여 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십 년간 날마다 먹여온 만나의 기적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 기적은 설명하기에 어려울게 없다. 창조란 하느님으로부터 바깥으로 출생된 것, 창조의 질서는 영으로부터 물질에 존재하는 것, 물질은 영적인 것을 덮는 자연계의 형체라는 등등을 알고 있게 되면 물질은 주님으로부터 영계를 통해 자연계 안으로 신성한 진리의 비범한 유입에 의해 즉각적으로 생산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다. 어쨌든 우리는 창조를 새로운 문제, 또는 무에서 나온 어떤 것이라고 상상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가 자연계라는 영역으로 내려 온 영적 원리는 이미 존재한 물체로 자체를 옷입혀 이전에 추상적이던 것들이 구체화된 것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창조를 함축하는 바 신성한 능력까지 함축하고 있다. 이런 원리를 주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이다. 위 설명에 빵과 물고기를 불린 행동보다 더 적절한 행동이 있을까? “만물은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요한 1:3). 어쨌든 이 책의 주요 목적은 기적의 영적 의미를 찾는 일이다. 본문을 영적으로 본다면 이는 신성한 선함과 지혜의 일에 관해 말하고 있고 이는 우리에게 더 흥미를 준다.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선과 진리, 제 아무리 작다해도, 젊은 시절에 습득되어 불완전하다 해도 성인시절의 영적 궁핍을 채워주기 위해 사용되게 되면 그것을 이식해 놓으신 그분의 영향 아래 놓여지게 되어 무한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빈약한 듯 보이는 우리 속의 영적 원리는 영혼의 요구가 제 아무리 크다해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아 있기까지 한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으니 열 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남아 있는 열 두 광주리의 빵조각이란 충만된 가르침, 우리 것이 된 선과 진리가 충만함을 의미한다. 남아 있는 부피는 공급이 얼마나 풍부했던 가를 암시하고 있다. 사실 남아 있는 양이 먹은 양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영적 측면에서 더 배불리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남아 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는 더 많은 빵조각들이 남아 있다. 하느님께서 축사하시고 배가시킨 어떤 것도 잃어버리는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남은 모든 것은 의지의 애정 안에 저장된다. 본문의 “광주리”는 우리의 의지 측면을 암시한다.

광주리가 의지에 관한 것을 나타내는 이유는 그것이 양식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이고, 양식은 천적, 영적 선을 의미하고 선들은 의지에 소속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할만한 사항이 있다. 빵과 물고기가 불어나되 필요량이 한번에 다 생산된게 아니라 먹는 가운데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대한 진리, 즉 영적 선은 사용하는 가운데 증가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수요에 따라 공급은 얼마든지 증가된다. 그 이유가 근원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마 안되는 빵과 물고기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명 가량 되었다.” 이들 모두는 선으로부터 진리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의미한다. 남자는 진리 가운데 있는 이들, 여인과 어린이는 선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각기 의미한다.

22. 기적이 있는 후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셨다.” 이 구절에 담긴 주변 여건은 특성이 독특해서 흥미를 끌고 있다. 이 여건은 가장 놀랄만한 태도로 주님의 신성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꼭 배워가야 할 중요한 겸손을 가르치고 있다. 이미 살핀 내용과 유사한 점들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고 한 가지만 살펴보자. 이 문단은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과 그분의 행동을 모방해 보려다가 실패하는 베드로에 관한 것이다. 이 구절과 다음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풍경은 앞 문단의 풍경과는 매우 다르다. 이 구절의 경우 주님 홀로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배에 타고 있고 군중들은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서로가 매우 가까이 있었던 이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이와 비슷한 조건에서의 기독교인의 경험을 묘사하는 결과를 수반하고 있다. 앞 구절의 상태와 대조되는 상태의 변화는 비록 고통스러운 듯 보일지라도 유익한 것이다. 그 이유가 분리되어 있든 함께 있든 모든 것은 섭리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라고 강요하셨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지역으로 건너가는 중이다. 그러므로 주님과 일시 헤어진 듯 하지만 덜 완전한 상태에서 보다 더 완전해지는 상태로 건너가는 것이다.

23. “군중을 보내신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 가셔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거기서 혼자 계셨다.” 군중, 뿐만 아니라 제자까지도 보내시고 그분 홀로 남아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에 나타내는 그림이 있다. 만일 그들이 장엄한 장관, 그분의 진리로 어느 수준에서라도 계발되어졌다면 그들 속의 낮은 수준의 생각과 느낌을 밀쳐 내면서 자신의 적극적인 의무와 그와 비슷한 환경의 체험에 그분의 진리가 그림자같이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을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명상과 기도 속에서 하느님과 교류하고

싶어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고 싶어진다. 이런 영적 교섭에 대한 주님의 바램은 우리로는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열렬하셨다. 그분의 기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뜨거우셨다. 그분과 하나님의 하나됨의 친밀도는 우리로는 생각하기 힘든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그분이 하나 되기를 추구하신 신성은 그분 안에 내재한 신성이라는 것까지 더 생각해 볼 때 어떤 인간이 이보다 더 열렬한 느낌을 경험해 볼 수 있을까? 본문의 예수의 모습은 너무나 장엄하고 감동적이다. 밤새 홀로 산에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있다.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인간이시기도 하셨는 바 세상을 밀쳐내고 홀로 밤이 깊도록 기도하시도록 자극한 느낌은 진짜 인간적 느낌이다. 이 모습은 인간 창조물 측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교훈적인 모습이다. 제이무리 자신의 삶이 유용하고 순진하다해도 때로 세상의 근심이 나 한계성을 넘는 곳으로 마음을 들어 올려 그분과 하나되도록 요구된다. 이 요구가 충족되면 하나님과만 함께 있으면서 그분과 엄숙한 교제를 하게된다. 이런 모든 사항들은 그분의 신성과 완전한 하나됨으로 진보해간 주님의 인성이 우리 자신 속에서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의 하나됨에 대한 근원과 모형되심에서 출발된다. 산에 올라 혼자 기도하시는 그분의 모습, 이와 비슷한 과정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영적 단계이다. 이런 모든 사건들이 거듭나는 동안 인간 마음 안에서 영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속 그분의 영은 그분 스스로 하셨던 그대로 우리도 행하도록 재촉하신다. 그렇다고 글자대로 건방지게 그분을 흉내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다는 수준에서 가능한대로 그분을 따르도록 독려하실 뿐이다. 위 사건을 체험으로 실감하는 것은 그 사건이 함유한 영적 의미의 목적이기도하다. 우리 심정에서 드높여진 상태로 구원을 위한 주님의 진리를 가지는 것, 세상적인 것들과 무관한 채 우리를 통치하는 원리로 그분의 진리를 붙드는 것,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마음 안에 표출시켜 체험 안에서 실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해도 우리는 희미한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의 기도자들이 지닌 바램은 위로와 계발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는 저녁으로부터 밤을 지새면서 아침을 갈구하는 것과 같다.

24. 주님이 산 위에 홀로 계시면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에 타고 있었고 “그 동안에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는 인간 마음의 영역 중 낮은 영역이 시험의 고난에서 욕정과의 다툼으로 뒤흔들릴 때의 모습을 표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바다가 높은 파도로 요동치면서 때로 폭풍을 일으켜

바다 위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삼키려든다. 시험은 선과 악, 또는 어둠의 왕국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인해 흥분을 일으킨 악한 열정과 선한 애정간의 다툼이다. 어둠의 왕국이 보낸 것은 마치 갈릴래아 바다에서 파도를 일으킨 바람 같아서 거룩한 땅을 향하는 우리의 진보를 역행시키려든다.

25. “새벽 네시쯤 되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고생하면서 밤을 지새웠다. 날이 밝음은 그들에게 고생을 덜어주게 된다.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어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시고 있다. 이는 기독교인의 체험에 관한 문제를 역사적 표징으로 아름답고도 분명하게 그려놓고 있다. 기독교인의 제자들은 때때로 바깥쪽으로 환난을 겪으면서도 안쪽으로는 평화를 갖는 것을 체험한다. 더 설명하면 신성한 진리로 주님께서는 우리 내적 인간 안에 계시면서 천국 쪽으로 애정과 생각들이 올라가게 하시는 반면, 어둠의 영들은 자연적 마음의 욕망을 흥분시키고 총체적으로 자포자기하는 쪽으로 납득력이 있게 한다. 이 때 슬픔을 밤새동안 견디어 내야겠지만 기쁨이 아침에는 있게 된다. 환난 자체, 그리고 환난으로 있어지는 위험하다는 느낌은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또는 영적 마음과 자연적 마음 사이의 결합과 상응성의 결핍, 분리됨이나 서로간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결합의 수단인 각자에 걸맞은 상응성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그 의도를 가지고 허용되어진다. 고난이 위와 같은 효과를 생산할 때 아침이 밝아오고 주님은 내적 인간이라는 높은 곳, 산으로부터 내려오시어 위험을 야기시킨 진짜 원인 위를 걸어오시고 고난의 영혼에 구원의 약속과 안전을 느끼게 해준다. 영적 측면과 자연적 측면 사이의 상응과 그들의 연결이 본문에서 “네시, the fourth watch”로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숫자들은 결합(conjunction)을 의미한다.

26. “예수께서 물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엉겁결에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다.” 주님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낼 경우 우리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거나 겁에 질리는 경우가 흔하다. 제자들의 느낌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잘못 납득됨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들은 보았지만 직감은 아니었다. 그들은 어떤 형체를 본 것일 뿐 위험에 처한 자기들을 구출하려 오시는 주님이신 줄은 전혀 직감하지 못했다. 그저 유령이라고 상상했을 뿐이다. 시험으로 발생된 영적 위험 속에서 지적 직감이 매우 둔해있으면 진리를 보기는 하나 이해할 수 없다. 이해 못할 뿐아니라 때로 잘못 이해하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위로와 해결의 실마리인 진짜 존재를 보고도 유령으로 이해해 버린다. 때로 우리의 양심은 대상물을 보고 자신이

잘못 납득해낸 것을 추가해 오히려 대상물을 더 놀라운 존재인양 착각한다. 이런 상태가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내어져 있다. 답답한 느낌이 말로 튀어나올 때 오히려 거기에 안도의 숨이 있게 된다. 영적 고난의 어떤 상태가 극에 달할 때 고요한 상태로 가는 길이 보여진다. 어쨌든 이 사건의 영적 의미를 살피는 우리가 이 사건의 글자적 사실에 집착해서는 안됨을 첨가해둔다.

27.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한마디 말로 가장 무겁던 공포가 가장 드높은 기쁨으로 바뀌어졌다. 이와 같은 변화를 성경이 더 묘사하는 데가 있다. “빛이 어둠에서 일어날 것인즉 너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리라.” 이는 영적 환난으로 심히 괴로운 영혼,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영혼을 지닌 의로운 자에 대한 약속이다. 이는 자신 스스로 준비한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것 외 더 다른 것은 아니다. “빛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뿌려지는 것이고 기쁨은 심정이 곧바른 사람을 위해 뿌려진다.” 산 위에서 주님이 보내신 밤은 그 밤에 고통받아 무서워 떠는 제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내적 인간 안에서 진리가 드높여져 그 자체의 선과 더 충분히 하나될 때 그 진리는 바깥쪽 사람으로 내려와 먼저 사나운 바다 위를 안전하고 장엄하게 걷는다. 그 다음 바람을 고요하게 하고 파도도 잠들게 한다. 폭풍 속에서 안심되게 하는 위로의 소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 주셨던 분의 소리임을 확증할 때 우리의 신뢰는 체험을 넘어 성장되기까지 한다.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 같이 그녀의 눈은 자신을 갈팡질팡하게 했지만 예전에 늘 듣던 그분의 목소리 “나다. 두려워 말라” 는 소리에 기쁨이 벱차 오른다. “나다. 안심해라”는 자포자기에 이르른 심정에 용기가 솟게 하는데 충분하고도 남는다.

28.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물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여러 제자들 중 한 명, 여느 제자들과는 달리 위험한 상태를 벗어나는 것에 만족치 않고 그분이 배에까지 오기를 기다리지 못해 물위로 걷게 해달라고 스승께 요청한 제자는 베드로이다. 베드로는 믿음, 또는 주님을 제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한 진리를 영접하는 것을 표현한다. 이 제자가 “물위로 걸어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그리로 오라고 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이 모습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 사건과 상응되는 여건에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을 그리고 있다. 진리가 진리의 애정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알려질 때 우리의 지적 열정은 우리가 언제나 수행할 수 없는 것,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겁이 나는 물결 위에서 자신을 떠받쳐줄 만큼의 강한 믿음이 있는지 되새겨봄도

없이 급히 서둘도록 흥분시킨다.

29, 30.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로 이를 허용하시어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오너라”고 초대하시어 그의 급한 성미에 걸맞은 대답을 주셨다. 제자들의 사랑과 믿음에 따라 베드로에게 답하고 계시지만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과 진리에 불일치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가 그분께 오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우리의 시도는 실패의 원인과 성공의 조건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라는 것도 아시고 있다. 물위를 걸은 베드로의 시도는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나 겸손을 가르치는데 유익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위를 밟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 기독교인의 행동과 체험의 한 모양새를 얼마나 놀랍게 표현하는지! 베드로는 배 위에 있을 때 담력이 있고 자신만만했다. 그러나 배에서 내려 사나운 물위에 발바닥이 닿자 그의 마음은 쿵알같이 작아져 의심이 일고 이내 물에 빠져들고 말았다. 우리가 교리 가운데 있으면서 생각하고 말하는 동안에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 믿음은 믿음의 외관만을 지닌 속이 비어있는 믿음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 믿음만 있어도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우리가 교리라는 껍질을 깨고 나올 때, 땀흘림이라는 단계로 진입할 때 시련과 곤경에 직면하고야 만다. 결국 교리적 믿음과 실제의 믿음은 서로 다른 것임을 발견한다. 이론과 실체는 너무 거리가 먼 듯 여긴다는 말이다. 해보지 않은 믿음, 그야말로 지적일 뿐인 믿음도 베드로가 몇 걸음 정도는 전진했듯이 얼마간은 견뎌낼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처음의 충동이 우리로 어느 정도까지의 전진은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람이 거센 것을 볼 때 어둠의 왕국은 우리의 생각을 몹시 동요케하는바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아 실패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에 관한 체험은 우리가 시련을 자초할 때 허용하심으로 그분이 의도하시는 교훈에 해당된다. 이 체험은 구세주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어 그분을 불러 구해달라고 요청하게 한다. 자신의 무력함을 일깨운 체험이 깊은 회오의 심정, 부서진 마음 깊은 데로부터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게 할 때 위험에 도전하는 자신만만하던 때보다 하느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진 마음의 상태에 도착한다.

31.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 최말단까지 구해줄 수 있는 이 손은 곧 멸해질 죄인을 향해, 자만으로 팍 찬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

진실로 겸손하게 일깨워질 때 언제나 뻔칠 준비가 되어있다. 신성한 권능은 우리 본성을 옷입히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더 강하게 다가오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분의 권능이 우리 구원을 위해 더 확대되고 더 명백해지기에 앞서 우리는 겸허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정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주님의 권능은 우리들과 함께 언제나 계시지만 그 권능은 우리의 약함 안에서만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분의 도와주심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에만 “그분은 손을 내미신다.” 구해달라는 우리의 바램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베드로를 구해 주신 주님께서는 애정어린 부드러운 책망으로 가르치신다.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이 책망은 만일 베드로의 믿음이 충분히 강하다면 바다 위를 걸었을 것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주님의 인가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도가 실패되는 것은 심정 속의 의심, 믿음의 결핍에서 연유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32.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그래서 그분의 권능은 바깥세계 뿐 아니라 안쪽 세계에서도 환난이라는 바람을 잔잔케 해주실 것을 보증하시고 있다. 단지 그 조건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을 통해 지성에, 사랑을 통해 심정 안으로 영접할 때이다. 본문의 경우 예수와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사라졌다.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 교리 안으로 그분의 진리에 관한 지식 안으로 들어가실 때 거짓이라는 반대 세력은 꺾여 우리의 종교 생활에 변영이 깃들인다.

33. 바람을 고요케 하신 이 기적은 제자들로 그분이 신성하심을 믿게 하는데 확증을 더한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경배와 인정함이 얼마나 오래 제자들의 마음에 머물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신성한 기록에 의해 가르쳐지는 바는 중요하다. 주님에 의한 구원은 그분이 예배의 참 대상된다는 확신을 생산하여 그분께 심오한 경배를 드리도록 인도한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주님 안에 있는 신성한 선에 관한 원리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그분의 사랑의 선이 우리 의지 안에 받아들여지고 있어 우리 삶을 통치하는 원리가 되어 있을 때 그분은 실험적으로 우리에게 하느님의 아들로 영접된다. 우리의 예배가 사랑과 선함되시는 그분께 집중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예배가 우리 심정에 있는 그분의 사랑과 선함으로부터 튀어나올 때 우리는 그분을 하느님의 아들로 경배한다. 다시 말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한도만큼에서 우리는 사랑되시는 그분을 예배하게

된다.

34-36. “그들이 바다를 건너 겐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그 부근 지방에 두루 사람을 보내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병자들이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만진 사람은 모두 깨끗이 나왔다.” 배가 호수 서편에 닿자마자 주님이 베푸신 자비의 역사는 여러 곳에서 모여든 많은 병자들을 다시 치료해 갱신되게 해주었다. 이 치료가 있어진 장소는 겐네사렛 땅이라 불린다. 티베리아, 또는 갈릴래아 바다는 역시 겐네사렛 호수라고 명명되고 있다. 겐네사렛은 갈릴래아 아래쪽이고 가파르나움도 거기에 있다 (요한 6:17, 24, 59). 갈릴래아 아래쪽 또는 남쪽 갈릴래아가 외적 인간의 내적 측면을 의미하듯(제 2장 22절 참조), 겐네사렛도 마음의 같은 영역을 의미한다. 이 영역의 세부사항이 가파르나움으로 의미된다. 겐네사렛은 진리에 대한 자연적 애정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 진리는 선과 연결된 진리이다. 그 이유가 본문에 겐네사렛 “땅”이라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문의 “겐네사렛 땅”은 자연적 진리의 선을 표현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의미는 겐네사렛이 고대 긴네렛(여호수아 19:35)과 같은 지역, 납달리 후손의 몫으로 할당된 구역이라는 점에서 확증을 얻을 수 있다. 이 지파는 시험의 특질, 시험을 수단으로 인간이 극복해서 내적 측면이 외적 인간과 하나됨을 표현한다. 본문의 기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러 번 반복 설명된 바 있어 생략한다. 병자의 치료는 악과 잘못들의 제거를 표현하고 이런 제거로 우리의 자질은 건강한 상태를 회복해서 선함과 진리로 풍요해진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은 말씀의 가장 수준 낮은 진리를 통해 그분을 붙잡는 것을 의미한다. 겸손하고 회개한 심정을 갖추고 있다면 제 아무리 미미한 그분의 진리라 해도 그 진리를 통해 권능의 효력이 전달되는데 있어서 실패라는 단어는 결코 없다. “만진 사람 모두가 완전히 성해졌다.” 겐네사렛 주민, 그곳 주변에서 몰려든 병자들의 열성은 그 많은 군중을 먹이신 기적의 결과인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따라서 주님의 선함과 진리를 내향으로 영접한 결과, 바깥쪽 악들이 제거되길 원하는 간절함이 창조되고 동시에 그분께서 그들을 치료하실 수 있게 하는 조건인 주님을 구세주로 절대 의지하는 믿음까지 생산되게 하고 있다.

1. 본 장에 들어서면서는 단순한 사람들의 신앙에서 학식있는 자들의 불신앙으로 주제가 바뀌고 있다. 이 불신앙은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 중 하나이다. “그 후 예루살렘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왔다.” 이 사람들을 영적 측면에서 말한다면 거짓과 악을 원리로 삼은 이들을 표현한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내면에 있는 교회의 교리에 있는 어떤 것들에 관해서 입을 암시하고 있다. 그 이유가 예루살렘이 교회의 교리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교리를 표현한다 해도 역시 반대되는 측면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마치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께 반대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경우와 같기 때문이다.

2.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행동을 집어 올려 이렇게 공격해 왔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잘 교육받았다는 이들이 예식 같은 바깥쪽 형식, 즉 종교의 실체를 담은 그릇, 그림자에 불과한 것에 너무 집착되어 그것 없이는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시하는 것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다. 어찌됐든 그들은 법으로서 지시받은 예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질문의 배경이 된 격식은 “조상들의 전통”이다. 이 전통은 기생충 같이 남의 몸에 붙어살고 있다. 이 전통은 기억 속에 담아놓고 사용하려들지 않는 지식 같아서 상상 속에 존재하는 지식 같은 것이다. 그래서 종교를 더 생명있게 해주는 보완물이 아닌 장애물이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자연적 인간이 실지 해야하는 깨끗해짐 즉 심정을 깨끗이 함에 대한 표시밖에 더 다른게 아니다. 손을 씻음이란 순진의 증거이다. 그러나 그 씻음 자체를 덕행 자체라고 하여 실시할 경우 그 행동에 대한 게으름은 일종의 죄가 되고 말뿐 심정의 순수함과 상응하는 어떤 행위와는 무관해지게 된 것이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악함에서 심정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고, 조상들의 전통이 요구하는 것도 “순진함의 표시로서 손을 씻으라”는 것이다.

3-6.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방자하고 위선적인 예식을 주님께서는 즉각 한쪽으로 치워내셨다. 마음의 안쪽을 깨끗이 하면 바깥쪽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왜 그분의 제자들이 유대주의 권위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되물으심으로 대답해 주신다. “너희는 왜 너희의 전통을 핑계삼아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느냐? 하느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사람을 가르칠 때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해드릴 것을 ‘하느님께 바쳤다’고 말만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전통을 핑계삼아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위의 위반들이 무엇인지 이해해두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신성한 법은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대권위자들은 부모의 권리 위에 교회의 권리를 올려놓았다. 교회에 바쳐진 것은 무엇이든 기록해지고 어떤 다른 용도에 충당될 수 없다. 이 법에 의거 몰인정한 자녀들은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 빠져나가는 방법을 교묘하게 만들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직 성전에 바쳐지지는 못했다 해도 바칠 것으로 서약하는 형식 즉 “고르반”이라고 말만함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비켜갔던 것이다. 이리하여 성직자는 자기들의 전통에 의거 하느님의 계명을 아무 쓸모없게 한 것이다. 어찌됐든 이런 악과 상응되는 영적인 악은 무엇일까? 하느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그 “부모”란 영적으로는 주님과 교회이다. 추상적 측면에서 부모란 신성한 사랑과 지혜에 해당된다. 이들을 공경하라는 것은 그것들을 존경하고 섬겨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을 존경하고 섬기려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해진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보다 자연적인 사랑과 지혜를 더 추겨들려고 할 때, 인간의 용역을 더 중요시 할 때, 더구나 자신의 이익을 내세울 경우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쓸모없게 하고 만다. 더구나 종교라는 이름을 앞세워서까지 하느님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얼버무려 넘어 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그 이유는 종교자체를 가지고 자기 죄과에 대한 변명의 근거를 삼기 때문이다.

7-9.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바리사이파인들을 “위선자”라고 칭함으로서 결론을 맺고 있으시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형체로는 하느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이익, 자아사랑만을 추구한다고 꾸짖으시고 있다. “이사야는 너희를 두고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느님의 것인냥 가르친다.’” “입과 입술”은 생각을 의미한다. 그것들이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심정(마음)”은 의지이다. 의지 또는 사랑이 하느님과 떨어져 최고의 사랑과 지혜되는 그분에 반대되어져 있을 경우 생각에서 진행되어 나오는 입술로의 섬김은 모독이나 공허함, 그밖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상태의 예배는 헛될 뿐이다. 이러면 가르쳐진 교리, 통치해줄 원리들 모두가 인간의 명령에 불과해 자연적 수준의 욕망과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해질 수밖에 없다.

10-13. 군중을 가까이 불러모으시고 위의 내용들을 비유적 서술로 이렇게 요약해 주신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이렇게 말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비위가 상한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하늘에 계신 주님의 아버지란 그분의 신성한 사랑 또는 선함 측면에서의 주님 자신이다. 신성한 선에서 파생되지 않은 어떤 인간의 선도 심판 때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뽑혀지고야 만다. “한 분 하느님 외에는 선한 사람은 없다.” 단 한 개의 선으로부터서만 모든 진정한 선이 파생된다. 마치 샘이 시냇물의 근원이듯, 큰 가지가 작은 가지의 근원인 것과 같다. 신성한 사랑에 근원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은 시냇물이 말리어지듯, 가지가 시들어지듯 되고 말리라.

4. 위선자들이 거주하는 곳은 개혁을 일으킬만한 소지가 하나도 없는 곳이다. 특히 악과 결합되어있고 거짓된 것으로 자아를 방어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대로 내버려두어라.” 내버려두어야 하는 이유가 더 첨가되고 있다. “그들은 눈먼 길잡이들이다.” 그들의 눈이 멀게 된 것은 무지로 인한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고의로 저질러진 잘못, 정확히 말해서 진리를 심사숙고한 결과로 왜곡시켜 야기된 소경이다. 눈먼 이해성이 눈먼 의지를 인도할 경우 둘 다 허위라는 지옥구덩이로 빠진다. 이 구덩이는 영원한 파멸을 예고하는 전주곡이다. 이해성이 눈멀고 의지가 눈먼 것이 바리사이파적인 소경이다. 이해성은 마음의 눈으로서 의지를 안내하도록 주어져 있는 우리의 본성이다. 몸의 빛이 눈이다. 그러나 그 눈이 성하지 못할 경우, 지성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일 경우 그 어둠이야말로 얼마나 큰 어두움이 되겠는가!

15-16. “베드로가 나서서 ‘그 비유의 뜻을 풀이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이 사도가 언급한 것은 주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전달하실 때 먼저 말씀하신 것은

늘 말해주셨던 것 즉 “잘 들어 이해해 두어라”이었다. 따라서 베드로에게 먼저 대꾸하신 것도 “너희는 아직도 알아듣지 못했느냐?”이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반성과 자기 검증을 일깨워 주시려는데 있다. 그들이 진리를 획득하기를 바라되 사려분별있게 해야 한다는 것,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하시려고 위와 같이 대꾸하셨던 것이다.

17-18. “너희도 아직 알아듣지 못하였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에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지 않느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 구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매우 교훈적이다. 입은 사고력 또는 생각하는 우리의 자질을 의미하고 심정(마음)은 의지를 의미하고 있다.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세상으로부터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다. 그러나 심정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은 의지로부터 생각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히지 않는데 입밖으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사람을 더럽힐까? 생각 안으로 들어가되 의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용되지 않는 것은 더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밀쳐내지거나 거절되는 바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로이 선택해서 의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삶으로 결실 맺게 되면 인간을 더럽게 한다. 따라서 위 구절에는 매우 중대한 진리가 놓여 있다. 그 이유는 응용의 가치 때문이다. 이 진리는 마음의 작용 중에서 죄가 되는 것과 죄가 되지 않는 것을 결정 짓는 안내 역할을 해준다. 우리에게서 두 개의 자질 즉 이해성과 의지가 있다. 그럼에도 위 두 자질은 우리에게 귀속되지 않고 있다. 단지 그 두 자질이 한 개로 접합되는 순간까지 우리 자신의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해성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 심지어 내부에서 자극되어 일어난 것들까지도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거절해야 하는지를 검증하고 판가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질이다. 이 절에서 주님이 말하시는 주제는 악을 허락하느냐 또는 거절하느냐에 관해서이다. 우리 주위 세상에는 직, 간접적으로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와 참견하려드는 수많은 불순한 상상들과 악한 암시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는 것들로부터, 심지어 기억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들로부터서도 감각을 통해 이해성 안으로 진입한다. 우리가 그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은 극히 힘들고 사실 그렇게 억지로 방어하려 애를 쓸 이유도 없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는 들어 온 것들의 품성을 발견하는 기회를 잡게 되고, 자신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 지도 확인 할 수 있어서 자신을

알 수 있고 자아부정을 실습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기회는 유익한 사용은 우리가 잘 선처했을 때에 한해서이다. 그래서 생각 안으로 들어와 주인노릇 하려드는 악을 정죄하여 그 악이 부추기는 어떤 바람을 저지시킨다면, 이는 “입으로 들어 와서 뱃속을 통과해 뒤로 나가는” 격이 된다. 이는 그것을 불순한 것으로 거절하는 것인 바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진다. 이렇게 분리된 악이 우리의 심정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결코 없다. 따라서 입 밖으로 나가는 것도 결코 없다. 따라서 사람을 더럽힐 수도 없다. 이렇게 된 악은 그 사람을 오히려 정제시켜준다. 정죄된 악은 선을 의롭게 해주고, 거절된 악은 선을 수용하는데 우리를 돕기까지 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것은 마가복음 7장 19절을 첨가하면 납득이 쉬워진다. “모두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뒤로 나가 버리지 않느냐? 그것들은 마음속으로 파고들지는 못한다’ 하시며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하셨다.” 이 구절이 의미해주는 바, 모든 종류의 선은 위와 같은 마음의 실습으로 깨끗해진다. 것이다. 이해성은 애정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기이다. 생각이 작용할 때 선에 달라붙은 악까지 감지되어 선에서 분리된다. 위와 달리, 우리가 의지 안으로 악의 진입을 허용할 경우, 이는 삶에서 결실을 맺게 되어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하고야 만다. 심정 안에는 갖가지 종류의 악에 솔깃해지려는 경향성이 늘 담겨 있다. “심정은 모든 것 보다 가장 사기성이 많고, 지독하게도 사악하다.” 이는 인간을 만든 그분, 누구보다 인간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잘 아시는 그분의 증언이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악밖에 가진게 없다. 따라서 인간이 탄생될 때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다면 그의 심정은 행동 속에서 유전적으로 받은 악만을 생산해내려 한다. 그렇다 해도 악에 잘 기울려는 경향성이 정죄의 대상은 아니다. 유전된 악은 비자발적이다. 마치 유아나 어린아이들이 악의 본성을 죄로 알지 못하는 경우와 같다. 악이 죄로 되기 전 그 악은 이해성의 찬성을 얻어내어야만 한다. 이해성은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악이 하느님께 반대된다는 것까지 알아야만 하게 되어있다. 심정으로부터 이해성 또는 생각을 통과하게 되는 악만이 하느님이 보실 경우 죄가 된다. 그러므로 입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심정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이다. 입은 생각인 바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인 생각의 존재는 심정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정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을 더 더럽게 하는 것은 이해성의 동의를 얻어 심정으로부터 행동으로 오는 것들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에서 죄있는 품성을 주게 된다.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같은 것들이다.” 주님에 의해 여기서 언급된 일곱 개의 일반적인 악들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볼만한 것들이다. 특별히 내적 측면과 그 의미에서 서로 연결을 이룬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악한 생각(추론)이 맨 먼저 있게 되는데 이는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을 통해 의지와 이해성이 뒤집힌 상태를 나타낸다. 이로부터 둘째 것인 “살인”이 수반되는데 이는 이타애의 파멸이다. 셋째가 “간음”인데 이는 선이 전복되는 것이다. 넷째는 “음란”인데 이는 진리가 전복되는 것이다. 다섯째는 “도둑질”인데 이는 주님의 것을 제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거짓 증언”인데 이는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일곱째는 “모독”인데 이는 신성한 것을 모두 거절함을 뜻한다. 이런 것이 악의 목록들이다. 이런 악들은 세상에 널리 있다 그리고 그것들의 근원지인 심정으로부터 생겨나고 있다. 그럼에도 죄는 심정에 있는게 아니라 행동 안에 악의 존재를 허용할 경우 그 행동에 죄가 존재하는 것이다.

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다.” 위의 사항들을 영적 측면에서 생각해보든, 자연적 측면에서 고려해보든 어찌됐든 그것들은 영혼(soul)을 오염시키는 죄와 같은 것들일 뿐이다. 따라서 자연적 수준의 죄는 영적 수준의 악을 시중드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여 과소평가 한다거나 눈감아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리라. 사실 자연적 수준의 죄는 영적인 악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자연적인 것들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의 원인에 해당된다. 한 예를 들어보자. 말씀의 영적 의미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원인들에 관한 지식임을 알 수 있다. 마치 글자적 의미에 결과들에 관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다. 주님이 일일이 열거해 주신 악들의 시리즈에 있는 영적 의미들은 그 악들의 진짜 속성을 나타낸 것들이다. 이는 모든 죄가 영(spirit) 안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악들의 근원이 되는 세부적인 영적인 악들까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 더 가르쳐 주는 바가 있다. 자연적 수준의 죄를 미리 방지하는 유일하게 효과있는 방법은 영적 수준의 악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 원리로부터 저항해감으로 그 악들의 뿌리를 뽑아놓지 않고 세상적 수준의 사고방식으로 억제시켜 놓았을 경우 그 악들은 살아 남아 있어 결국 인간을 더럽히고야 만다. 그 이유는 내면의 인간이 진짜 인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깥쪽 덮개를 언젠가 벗게 될 때 내면의 인간이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때 그 사람의 영적 불순함

모두는 폭로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항들이 진실로 사람을 더럽게 만들 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아, 살고 싶거든 못된 그 마음을 깨끗이 씻어라. 쓸데없는 생각을 언제까지 품고 있으려느냐” (예레미야 4:14).

2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띠로와 시돈은 영적 사항에 관한 내면의 지식과 외면의 지식, 또는 선하고 참된 것들에 관한 내, 외면의 지식을 표현한다. 에제키엘 28장을 보면 띠로에 관한 묘사를 읽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 지방이 표현하는 품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너는 슬기롭고 현명하여 재산을 모아 창고를 금, 은으로 가득 채웠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온갖 보석들로 단장했었다...” 그러나 띠로와 시돈 지방은 불레셋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고 바다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지방들은 외적 측면에 더 치중된 지식을 의미한다.

22. “이 때 그 지방에 와 사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와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이 여인은 이방인 중의 하나였다. 어찌됐든 이 여인은 주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에 무지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띠로와 시돈 지방이 표현하는 지식을 실지로 소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 여인이 주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한 것은 그 여인의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어서였다.” 이 딸은 창세기 28장 8절에서 언급되는 가나안의 딸들처럼 진리를 사랑하나 그 바탕이 순수하지 않은 상태의 마음을 의미해 준다. 이는 애정이 신실하나 계발되지 않은 상태의 애정, 선한 사람의 애정이지만 가르침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그녀는 예수께 오되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분께 호소하고 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은 그분의 신성한 진리를 표현하는데 이 진리가 자기 딸에게 자비를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다. 이 간청은 영적으로 볼 때 신성한 진리가 선함과 진리에 관한 인간적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인간 마음을 송두리째 휘어잡은 악으로부터 구원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적 사건에서 흥미있게 하는 특이한 사항은 사랑 많은 여인의 간구함에 눈에 띄게 무관심을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이다. 그분께서는 가련한 고통자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은총을 더 퍼실 기회를 맞이하고도 마지못해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이 눈으로 확인되도록 하시고 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존경을 바치는 사람이 이 본문을 읽는다면 가나안 여인을 향해 행동하시는 그분의 태도에는 한 가지 의도 즉 슬기롭고 자비로운 의도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잠깐이라도 의심할 수는 없다. 말씀에 영적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경우 이 기록에는 감추어

놓인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고 말할 것이라 본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바, 여인의 기도에 무관심한 듯 여기게 한 것은 그녀의 열성과 믿음이 증가되게 해주시려고 행한 방법일 것이라는데 의심하지 않는다. 영적 의미를 찾아볼 경우, 그녀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그분답지 않은 그분의 행실에 관한 영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열쇠를 쥐게 해준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 이 본문을 설명하는데 도와줄 대목이 있다.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받으셨을 때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고 인간의 추론에서는 결론짓고 있지만 이는 올바른 바탕이 못된다.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란 빌라도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 의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받을만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말이다. 빌라도 역시 진리를 바라는 이방인을 표현하지만 그에게는 직접적인 신성한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답을 들을만한 준비가 없고, 말씀 자체를 수단으로 한다면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다. 지상 위에 계시할 때 주님이 하셨던 것들 중 한 가지 목적은 미래 세대에 있게 되는 그분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그들이 영원히 무한하게 가지게 되는 사랑이 그들 안에서 명백히 보여지는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하면 지체되고 어떻게 하면 촉진되는 가를 가르치시려는 것이다.

23. 여인이 계속 간청하는데도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매우 이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지만 명백한 것은 주님께서 시험으로서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것일 것이다. 그분 스스로 해야 할 것을 알고 계셨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방법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기도자는 자기 가슴 깊은 속으로 되돌아가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신성한 계시(oracles)로부터 아무 기별도 없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표현해 놓으시려는데 있다. 다시 말해 주님과 교제는 우리 심정에 그분의 사랑을, 우리 이해성에 진리에 대한 시작을 수단으로 악마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분이 주님이심을 확증할 수 있게 해주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얼마정도의 악이나 불완전함은 이 교제를 방해한다. 이럴 경우 아무 기별도 받지 못하고 만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꾸며낸 입술로 진행되지 않고 심정의 진짜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면, “끈덕지게 요구함, importunity”은 마지막에 성공이라는 약속을 가지게 된다. 열성적인 기도에 주님께서 아무대답도 하지 않으실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속해주심은 더 가까이 있을는지 모른다. 필사적으로 애쓴 어머니가 자기 딸을 위해 주님께 더욱 간구해대자,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 오고 있으니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제자들이

여인의 간구함에 자기들의 간구를 보태고 있다. 그 이유는 제자들도 자기들 스승이 원하지 않는 것, 이 애원자에게 치료라는 확증을 주어 보내도록 원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란 말씀에서 밝혀진 그대로의 신성한 진리들을 표현하는 바, 그들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예수께 간청함은 인정하여 받아들인 말씀 속의 진리를 통해 주님을 찾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는 거듭나는 삶이 진보된 한 단계이다.

24. 그런데도 아직 여인의 간구는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비록 마음이 제자들로 표현된 진리들을 받고 있다해도 아직은 주님 자신이신 최상의 진리를 받을 준비는 못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신다.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이스라엘 가문의 양, 이는 목자의 우리를 이탈한 이타애라는 영적 애정을 말한다. 이를 회복시키는 것, 잃은 것을 되찾아 구해주시려는 것은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그 이유는 신성한 사랑은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 신성한 진리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애정은 탄원하는 여인 자신의 마음 안에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있는 이 애정을 일으켜서 끌어내 그분 자신과 연결되도록 배려하시는 것이다. 이 애정을 통해 주님께서는 자발적인 마음 안으로 들어가신다.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비록 이 말씀에 부정적인 태도가 적극 표현된 것은 아닌지라 여인으로서 는 약간의 희망이 아직 있는 듯 여겼다. 그래서 “ 그 여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꿇어 엎드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입으로 내놓는 말(uttance), 비록 용기가 없다해도 침묵보다는 더 희망적인 태도이다. 참으로 주님이 말하시는 것은 심정 안에 있는 진리의 소리를 영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리는 때로 우리의 영이 변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찾아 구해주시기 위해 오신 이들의 숫자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위 구절이 말하지 않을까?” 라고 아예 자포자기하는 쪽으로 치닫는 시험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주님의 자비를 의심하는 것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으로부터 발생된다. 주님의 자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완전하심을 부정하는데서 야기된다. 이런 의심들이 참회자의 마음 안에서 일어날 경우 이런 의심들은 오히려 참회자에게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더욱 진지하고 더욱 끊임없이 간구하게끔 자극을 줄뿐이다. 주님을 계속 뒤따라 온 이 여인은 드디어 주님 앞에 당도했고 그분께 경배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절실하게 간청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딸을 구해달리는 청원을 눈에 보이게끔 거절했던 주님의 태도는 그녀의 부끄러움을 더욱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그녀의 기도가 더욱 진지해

지도록 부추겨 주었던 것이다.

26. 그런데도 이 여인의 깊은 속에서 움직이는 영은 자기가 바라는 치료를 가져다주지 않고 있다.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며 거절하셨다.” 글자대로 읽을 경우 이 구절은 우리 귀에 어느 정도라도 거슬릴 수밖에 없을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위 말씀의 어조에는 얼마나 많은 온유함이 들어있을 것인지, 들어 있어야만 하는지 우리는 안다. 언어 그 자체로 보아서도 그 여인에게 불쾌하게 여기도록 해주는 것은 없다. 위 문장에 있는 시체나 어법은 특유한 느낌을 전달해 주고 있다. 이런 문장의 사용은 영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이 개들로 불려 지고 있다. 그 이유는 양이 영적 수준에 있는 이들과 상응하듯 개는 자연적 수준, 그보다 더 낮은 감각적 수준에 있는 이들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상응의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시는 주님께서서는 개라는 동물을 이방여인에게 적용하셨는데 이는 그 여인을 경멸해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자녀들의 빵”이란 영적 수준에 있는 이들이 지닌 것과 같은 순진의 선이다. 이 순진의 선을 아직 자연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영적 수준의 사람과 동일하게 여겨 줄 수 없는 것이다.

27.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적용시킨 통칭을 기꺼이 감수함으로 자신이 진정한 겸허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진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말한다. “주님, 그렇긴 합니디미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로 만족한다는 것은 신성한 자비의 적은 양에도 만족한다는 것, 주님께서 수여하시는 선함이 아무리 작은 부피이고 아무리 수준이 낮다해도 만족하겠다는 뜻이다. 식탁 위에 있는 빵은 영적 선을 의미하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빵은 자연적 선, 정확히 말해보면 영적인데 근원을 둔 자연적 마음 안에 있는 선을 의미한다. 식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짐, 그리고 식탁 아래에서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은 내적 측면으로부터 파생되는 선에 대한 사상들을 외적 측면에서 그 사상을 제것 삼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여인의 상태에 적합한 선이었는데 그 여인은 이 선을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했는 바 이것이 끈질기게 믿으며 간구하던 것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그 여인을 데려다 주었다.

이 여인의 말은 그녀의 겸손만큼 지혜롭기도 하다는 증거를 나타냈는 바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이! 참으로 네 믿음이 장하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녀의 믿음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 이유는 그녀의 믿음이 겸손과 사랑에 바탕을 두었고, 시련과 인내로 그 믿음을 확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믿음을 통해 “그 여자의 딸은 그 순간에 나왔던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 구세주의 뜻에 일치하도록 가져다놓은 참된 상태는 자기 딸이 구원되는 것, 마음의 건전함과 육체의 건강함을 한꺼번에 회복시켜주었던 것이다.

29.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주님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외적 측면에서 지니고 있는 이들로부터 이들보다 더 내면으로 지닌 이들에게로 향하시고 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신 것이다.” 이 모습은 사랑을 상징하는 주님의 자세이다. 이는 열렬한 그분의 사랑, 깊은 그분의 사랑 측면으로부터 그분의 선함을 나누어주시려는 모습이다. 마치 산에 올라가 앉으시어 전달해주신 이른바 산 위에서 설교로 그분의 지혜를 나누어 주셨던 때와 비슷하다.

30. “그러자 많은 군중이 절름발이와 소경과 곰배팔이와 병어리와 그 밖의 많은 병자를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미 살핀 바 있는 병명에 따른 의미를 다시 간단하게나마 거론해 보자. 위와 같은 고질적인 병들은 인간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있는 갖가지 영적인 결점들을 표현한다. 절름발이란 선과 진리가 분리된 상태에 있는 이들을, 소경이란 진리에 무지한 이해성을 지닌 이들, 또는 이해성이 잘못되어 있는 이들을, 병어리란 진리를 인정않고 있는 이들을, 곰배팔이(maimed)란 자질과 능력이 완전히 손상을 입은 이들을 말한다.

31. “그리하여 병어리가 말을 하고 곰배팔이가 성해지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고 소경이 눈을 뜬것을 군중이 보고 크게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군중이 크게 놀랐다는 말은 애정이 탄복했음을 암시한다. 이 탄복은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실로부터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의 근원이 인성 안에 계신 주님이심을 심정이 찬양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32-38. 이렇게 치료의 축복을 베푸신 뒤 주님께서 군중을 돌아 보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을 먹이셔야 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악들을 제거해 주신 다음에는 그분의 선함을 가지고 우리와 교통하신다는 말이다. 이 구절의 기적은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세부사항에 관한 의미는 생략하고 두 기적의 차이점만을 살펴기로 한다. 이 기적은 앞장의 기적보다 덜 경이로운 듯 비쳐질는지 모른다. 그 이유는 더 많은

빵을 사용하셨는데 비해 더 적은 사람이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 측면에서 두 기적을 비교하여 생각해 본다면 그 차이점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이 기적이 베풀어진 이유 역시 즉각 부각되어 돌출한다. 어떤 비평가들의 경우 앞의 기적과 이 기적을 비교하여 규명해 보면서 더 큰 중요도를 앞장의 기적에 놓고 있다. 어찌됐든 앞장의 기적은 다섯 개의 빵으로 오 천명을 먹이셨고, 본장의 기적은 일곱 개의 빵으로 사천 명을 먹이셨다. 남은 광주리 역시 앞장의 열 두 광주리에 비해 본 장은 일곱 광주리였다. 그래서 자연적 측면에서는 앞장의 기적보다 강도가 약한 듯 보이겠지만, 영적 측면에서는 그 반대이다. 다섯이란 숫자는 아껴두신 것들(remains), 조금(a few)을 의미한다. 일곱이란 숫자는 거룩한 것 또는 넉넉함, 완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숫자 넷은 둘과 비슷한데 결합, 즉 의지와 이해성, 선함과 진리의 결합을 의미한다. 숫자 일곱은 열 둘 보다 덜 충분하지만 이 숫자의 의미는 안식일에서 비롯되는 바 선의 상태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어 보다 더 거룩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종합해보면 두 번째 기적은 앞의 기적보다 더 진전된 거듭나는 상태를 묘사해 놓고 있다. 군중들이 사흘동안 그분과 함께 해서 먹을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께서 언급하시고 있다. 사흘이란 진리에 관한 모든 상태를 뜻하는데 먹을게 없다는 말은 군중이 지적인 가르침과 자아부정에 관해 한바퀴 돌도록 주님에 의해 인도되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의에 주리고 목말라 있는 상태에 와 있다는 것, 이제 진리에 선이 하나를 이루어 채워질 때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늘의 빵을 배불리 먹게 해주신 “예수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 이 장소는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여 헌신하는 자의 모형이 된 마리아의 출신지로 유명한 곳이다. 그럼에도 이 지방에 사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그 지방이 나타내는 의미는 과히 높지 평가되는 의미는 아니다. 아마 위의 마리아가 지니는 의미보다 더 낮은 원리에 해당되리라 생각된다. 막달라(Magdala)는 자연적인 선을 원리로 삼는 수준을 의미하는 듯 생각된다. 천적 수준의 선을 표현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릴 경우 그 이름은 자연적 수준의 선 안에 있는 천적 수준의 선 또는 가장 높은 선과 가장 낮은 선이 하나된 상태, 따라서 가장 완전한 상태의 품성을 표현한다. 주님께서 배를 타고 마가단으로 가시는 자연적 수준의 여행은 영적 진보에 관한 어떤 측면을 표현해 주고 있다. 신성한 진리를 가져다 놓은 마음 안에서의 진보, 그분의 신성한 현존과 영향이 지식(배)을 수단으로 바깥쪽 삶 안으로 내려가시는 모습이리라.

16

1. 다시 우리는 예수의 적들이 그분 앞에 나타나 대담하게 악한 일로 그분을 시험하려는 것을 발견한다. 만일 우리가 자기 심정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거나 자기 체험을 면밀히 검토해 본다면 주님의 사랑과 진리에 반대하는 미묘한 위와 같은 적들은 너무 많이 발견되지 않을까?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해 보고자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시를 보여달라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이미 살핀 적이 있다 (12:38). 거기서 살핀 바, 표시(sign)란 이해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이로운 어떤 것이고, 그에 비해 기적(miracle)은 의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이로움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표시를 거절하셨다. 그 이유는 그것은 신성한 질서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심정이 바뀌지 않은 채 어떤 증거로 절대적 확신을 지성으로 갖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는 신성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어떤 표시도 그들에게 줄 수 없지만 예언자 요나로 인한 표시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표시가 거듭남에 관한 표시이기 때문이다. 거듭남만이 주님의 진리가 마음에 진짜 확증을 줄 수 있다. 이하에 이어지는 본문은 더욱 흥미 있는 대화들이다. 앞 12장에서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질문 공격을 했는데 여기서는 사두가이파 사람과 바리사이파 사람에 의해 질문되고 있다. 사두가이파는 덜 위선적이긴 하지만 더욱 물질주의적이고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본문의 질문은 주님의 진리를 더 결정적으로 부정하면서 그분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 의지에 반대되는 확신을 줄 수 있는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앞장과 본 장의 질문에 위와 같은 차이가 있는 반면 중요한 보충사항이 2, 3절에 있다.

2-4.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저녁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주님 스스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저녁과 아침이 그분의 오심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에게 말하신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교회가 황폐되고 표면상의 평온이 우세해

진 것은 거짓 관념으로 감춘 악한 생활에 교인들이 폭 잡겨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늘은 붉고 맑은 날씨일 때의 저녁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으나 그분을 부정하고 꺾박한 것은 하늘이 붉고 흐린 날씨의 그들의 아침이다. 이는 위 상태에 상응되는 개인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어떤 인간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그는 영원한 삶, 영적 시험에 관한 관심이 전혀 없는 바 이로부터 평온의 한 종류가 발생한다. 그러나 주님에 관한 구원의 지식을 갖게 될 때 그의 자연적 마음에 있는 악하고 거짓된 원리들이 자신에 반대하여 봉기하는 바 그의 지평선은 붉고 찌푸러진 날씨가 되고 폭풍도 다가올 수 있는 요소로 충전된다. 만일 그가 이런 충격을 견뎌낸다면 그의 행동적 분위기는 맑게 개이고 그의 낮은 밝고 천국적이 된다. 그러나 바리사이파나 사두가이파 같이 시대의 징조, 제 자신의 상태에 관한 징조를 보지 못할 것이라면 그는 자신을 죄 있는 상태로 굳혀지게 하고, 주님께서 고집센 소경이라고 나무라시는 위선자 같이 되고 만다. 이런 최후가 이렇게 엄숙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뒤에 두고 떠나 가셨다.” 이 떠나가심이 영원하면 안되므로 조심해야 하리라.

5, 6.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잊어버리고 빵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각자는 영혼을 먹여야 할 영적 선을 자신에게 공급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할 때 우리는 가져와야 할 빵을 잊어버린 격이다. 우리가 이 세상 건너편으로 넘어갈 때 지참해야 하는 영적 선, 진짜 빵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충분히 배고프지 않았던 이유에서이다. 배고프지 않은 이유는 제자들이 이제 가나안 지역, 교회와 천국의 모형 안에 진입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우리는 “정신차려 바리사이파 사람과 사두가이파 사람의 누룩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장 쉽게 시험 당할 수 있는 것이 거짓을 진짜라고 인정하여 제 심정에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누룩을 경계해야 한다.

7.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뜻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며 수군거렸다.”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직감하기에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더 높은 어떤 것을 그들 마음에 넣어주시고자 의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해도 그분은 바리사이파의 빵을 가져오는데 대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다. 떡과 물고기로 있었던

두 기적,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 얼마나 많은 바구니에 남은 음식을 거두어 들였는지 그들은 몽땅 잊어버렸을까? 이런 경이로움을 행하신 그분인데 제자들이 잇고 온 빵을 공급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여기에 바리사이파 사람의 누룩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 다음 그분이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신게 아니라 누룩이 상징하는 바리사이파 사람의 교리를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그들은 이해하게 되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거짓 교리에 대해 경고하신다. 우리는 거짓 교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 특히 우리의 도덕적 선함이 안전장치로서 마음에 남아 있지 않을 때 더욱 경계해야 한다. 이럴 때라 해도 우리가 신성한 자비의 명백함, 그분은 온갖 충만으로 영적 선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낸다면 주님께서서는 우리 깊은 속에 저장된 그분이 아껴두신 선들을 통해 말씀하시어 즉각 우리를 계발해 주시고 위로하신다. 이런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총괄해보면, 신성한 언어는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존재하는 상응에 따라 자연계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 참고: 8-12 절은 원서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13, 14. 이 문단의 주제는 전체 신약 성서 역사에서 발생한 가장 흥미있고 중요한 사건중 하나이다. 주님께 대한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다. 예수께서는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 팔레스틴의 최 북단 항구에 가시고 있다. 그리고 그 지역 경계선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시어 주님께서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오신 주님이 누구인지에 관한 이 위대한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대답하도록 이끄셨다. 첫 질문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여기서 지칭한 “사람”이란 세상 사람 모두에 해당되는게 아니라, 유대교회 사람에 국한된다. 그 이유가 사람의 아들에 관한 유대교인의 견해는 교인들만이 형성하게 되는 견해와 같은 부류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또 어떤 이는 이사야라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견해에는 예수가 진정 그분이시다 것을 인정하게 아무것도 없다. 많은 이들이 그분을 보통의 예언자(a prophet)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분을 참 예언자(the prophet)라고 생각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메시아에 앞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분이 메시아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장차 오기로 되었던 엘리야로 세례자 요한이 왔고 그가 예수라고 그들이 생각했었는지는 의심스럽다. 영적으로 이해하건대 일반적인 예언자는 말씀으로부터

의 교리를 의미하고 세례자 요한은 말씀 자체, 즉 교회에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의 말씀을 의미하나 그렇다고 말씀, 또는 육을 만드신 참 신성한 진리 자체는 아니다. 이런 저런 견해들,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해도 모두 다 주목해볼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이러하다. 사람들이 주님으로 자칭한 인물들은 한 때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수가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 거룩한 사람들 중의 하나라고 믿었다. 이들은 죽은 것들에서 생명있는 것을 구했던 부류에 속한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들이 추구했던 이론대로 죽은 자중 살아난 유한한 존재로 간주했다. 그러나 모든 유한한 존재는 그 자체 죽은 것, 그들 안에 생명이 없고 단지 생명 자체이신 유일한 존재인 하느님으로부터 매 순간 생명을 받아야 한다. 예수는 이 존재로 계셨고 계시고 있다. 이렇게 말하셨다.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아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 5-26).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위의 모든 의견들은 땅에 속한 것들이다.

15-16. 잡다한 위의 억측에서 돌아서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참으로 언제나 기억해둘 답이 오고 있다.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고백이 지닌 참되고 충만한 취지를 알아보자.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인정함은 글자대로와 같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즉 예수는 창세기의 시작으로부터 말라기의 마지막까지 줄곧 예언의 주체가 되어왔던 세상에 오신 구세주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메시아에 관해 예언되어 왔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 예언이 그분의 속성이든, 일에 대해서든 그 안에는 이 인정함이 포함되어 있다. 영적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본질적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의 품성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이를 수단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를 수단으로 육을 입은 말씀처럼 구속이 있게 된 것이다. 예수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은 그분이 하느님의 독생자 되신다는 것,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가 신성한 아버지 쪽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물론 예수의 신성한 본성측면에서 최고의 유일한 하느님, 그리고 예수의 인간 본성 측면에서는 참으로 유일한 하느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하느님은 한 분만 계셔야 하는 바 하느님의 독생자인 예수는 신성이고 그분 자신과 하나이다. 그러나 인간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주님은 그분이 그녀의 본성을 입은 만큼에서 인간이고 유한하다. 그분의 내적 인간 또는 영혼은 신성한 아버지로부터 있는 바 신성 또는 무한하셨다. 그러나 외적 인간

또는 그분의 몸은 인간 어머니로부터인바 인간이셨고 유한하셨다. 지금, 이 인간적 부분일 뿐인 것이 점진적으로 영화되어 갔다. 이 영화하심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완성되어졌다. 그리고 주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 그분의 인성은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신성한 상태로 일어나셨던 것이다. 완전하고 독점적인 의미에서의 이 인성이 하느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영화하심을 수단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되어 가셨듯 우리는 거듭남, 하느님에게서 태어남으로 자녀가 되어간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는 하느님의 독생자이셨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분은 하느님으로 태어나셨다. 그 다음 그분은 죽음에서의 부활로 권능있는 하느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어졌다. 그 다음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됨이 영원히 완전하게 중단되어 독단적이고 순수한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 되셨다. 조잡하고 오류투성이인 사상들은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온 구분되는 신성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분의 인성은 신성이셨고 이 인성은 그분의 영원한 신성과 하나되어 있다. 그 하나됨은 마치 몸과 영혼이 하나를 이루고 있듯 되어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위대한 진리에 관해 명백한 관점을 가졌던 것 같이 여겨진다. 이 저자가 예수에 관해 말할 때, 멜기세덱으로 표현한 대목이 그러하다. “그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다...” (히브리 7:3). 이런 이유가 그분은 주님의 신성한 본성 측면인 아버지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어머니가 없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인간 본성 측면인 마리아의 아들이심을 완전히 중단하셨기 때문이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전능하심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내용이 베드로에 의해 고백된 위대한 진리이고, 육을 입은 의도와 결과로 구원의 모든 것 자체를 납득하게 하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이다.

17. “예수께서는 ‘시몬 바르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있다.’ 여기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바, 이 위대한 진리는 인간적 의지에 바탕을 둔 인간적 지혜만으로는 보여질 수 없고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살과 피-인간의 의지와 지혜는 어떤 인간 영혼에게도 이 진리를 밝히 알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 수준의 이성만으로는 주님의 인성이 신성임을 알 수 없어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로만 볼 수 있을 뿐이고, 때로는 요셉의 아들로까지 간주할 뿐이다. 이 진리에 대한 직감은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와야만 한다. 마치 신성한 빛이 인간 영혼의 내면을 통해 들어오는 것과 같다. 참되게 영적으로 인정함은 하느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즉 지성에

있는 신성한 빛으로부터가 아닌 심정에 있는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대부분 근원되고 있다. 내적 인간의 의지에 있는 이 사랑, 심정 중의 심정 안에 있는 이 사랑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고, 그분만에 의해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임을 밝히 알게 된다. 우리의 이해성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의지 안에 있는 신성한 선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아들 된다. 이런 내면의 지식들은 우리를 복 있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그 지식 안에 구속과 구원의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18. 이 축복은 던지지 말로만 남아 있는게 아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나 왜곡된 응용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가 시몬이란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고백을 만든 것은 시몬이었으나 교회의 반석, 왕국의 열쇠를 지키는 자가 된 것은 베드로이다. 시몬은 듣는 것, 청중함, 순종을 의미하는 바 의지에 있는 진리의 애정에 바탕을 둔 믿음을 표현한다. 그렇게 해서 요나의 아들 시몬은 이타애인 영적 사랑으로부터 과생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그가 주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결과 베드로로 바뀌었다. 그 이유가 베드로는 글자대로는 반석을 뜻하는 말인 바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몬이 의지에 있는 믿음을 표현하듯 베드로는 믿음에 지적시야의 증거를 주는 이해성에 있는 진리의 명백한 직감을 표현한다. 우리가 심정으로부터 주님을 하느님의 아들, 즉 인성 안에 계신 하느님으로 고백했을 때 이 위대한 진리는 지성 안에 확실한 반석, 기초, 제일 가는 모퉁이 돌이 된다. 이 돌 위에 교회의 모든 원리가 안주한다. 베드로는 진리뿐만 아니라 믿음 역시 표현한다. 참으로 전자는 후자를 함축하고 있다. 그 이유가 진리는 믿음의 진리가 아니고는 마음에 실제적 존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영적 의미가 이렇게 더 가르친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의 글자적인 것은 베드로가 표현한 모든 사람을 심정으로부터 주님을 고백하는 이들, 그리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영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 추상적 차원인 진리의 원리와 믿음의 품위, 신앙자의 심정과 지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적용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 수여되는 차원에서이다. 주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심정이 고백함은 그 자체 이해성 안에서 그분의 진리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발달된다. 이렇게 상대가 변하는 것은 시몬이란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는 것,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과 같아 이로 인해 영적 원리는 더 발달되고 영적 삶은 더 진보해간다. 우리가 시몬이란 수준에서 베드로리는

수준으로 될 때 예수에 관한 진리는 반석이 되고 이 반석 위에 그분은 교회를 세우신다. 그 이유가 신실한 믿음에 밝히 알리고 그 믿음에 거주하는 영원한 진리로서의 그분은 모든 기독교인의 품위와 덕행을 기초로 그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품위와 덕행이 인간 마음에서 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안에 교회의 진짜 반석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다. “죽음의 문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하리라.” 예수께서는 지옥을 정복하고 지옥을 종속시켜 놓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그분 스스로 건물의 기초가 되셨는데 감히 그 어떤 것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주님의 이 보증을 이런 것을 함축하고 있다. 지옥권세는 기독교 제자의 마음에 있는 교회를 엮으려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주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이 보증이 주어진 이후 충분히 체험을 가졌다. 자신 스스로 이 반석을 갖지 못한 사람을 빼놓고는 주님의 강함은 적의 어떤 강한 공격도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발견하고 있다. 자기 희망의 반석으로 위와 같은 확실하고 단련된 돌을 조심스럽게 보존하는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위와 똑같은 체험을 갖게 되리라.

19. 지옥의 문에 저항하는 능력을 지닌 기독교인에 천국의 문을 여는 능력이 주어진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내적 의미 안에는 일련의 시리즈와 그 연결이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을는지 모른다. 악은 자연적 마음 안에 상주한다. 이것이 말씀에서 땅으로 의미되고 있다. 참으로 악은 지옥을 구성한다. 따라서 타락하는 상태일 경우 자연적 마음은 가장 큰 규모가 지옥인데 비해 가장 작은 지옥이다. 자연적 마음 안에도 문들이 있는데 이 문을 수단으로 악들은 어둠의 나라와 세상으로부터 거기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분 나라의 선을 공격한다. 이런 것이 시대의 반석 위에 건설된 교회를 공격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지옥의 문이다. 우리가 악과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때 자연적 마음에 있는 지옥의 문들은 닫혀지고 그 대신 영적 마음에 있는 하늘의 문을 열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이쪽이 닫혀야 저쪽이 열리기 때문이다. 하늘 나라의 열쇠는 우리가 악에 저항해 와서 지옥의 문이 닫힐 때까지 우리에게 실지로 주어지지 않는다. 자연적 수준의 진리들, 격언, 말씀 속의 법칙들, 예를 들어 “...하지 말라”는 말씀 속의 명령들에 순종함으로써 악에 저항하고 극복한다면 지옥의 문은 닫힌다. 더 나아가 말씀 속의 영적 진리들, 예를 들어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기쁘게 실행함으로써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회개는

지옥의 문을 닫고 거룩함은 천국의 문을 연다. 이런 영적이고 영원한 진리가 왕국의 열쇠이고 악에 저항하라는 말씀의 글자에 있는 금지 명령을 성실히 삶에 채용하면 우리에게 이 열쇠가 주어진다. 그 나라의 열쇠는 풀기도 하고 매기도 한다. 권위나 권세가 열쇠를 가지는 것으로 의미되듯 풀고 맨다는 표현방식은 금하고 허용한다는 말에 대한 히브리 어풍에 해당된다. 영적 의미에서 매고 풀다는 것은 거듭나는 삶에 있는 매우 중요한 행동들을 표현하는 말이다. 땅과 하늘, 이미 살핀 바 있듯이 이는 자연적 마음과 영적 마음, 외적 인간과 내적 인간을 의미한다. 땅에서 맨다는 것은 자연적 마음속의 악한 욕망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고, 땅에서 풀다는 것은 자연적 마음속의 선한 애정들에게 자유를 주어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성한 진리의 권위에 나쁜 생각과 애정들이 종속되게 해야 한다. 똑같은 신성한 진리의 권능으로 우리는 감금되고 압박받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는 악이 지배하고 선이 그것을 섬기고,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규율하고, 일시적인 것들이 영원한 것을 부하로 삼는다. 이런 인간의 상태는 거꾸로 놓인 것이다. 그래서 거듭남은 이런 상태를 원상태로, 낮은 것이 높은 것을 섬기는 질서의 상태로 회복시켜 준다. 왕국의 열쇠는 우리에게 악을 묶고 선을 풀어주는 능력, 선에 지배권을 주고 악은 종노릇하게 환원시키는 능력을 준다. 땅에서 무엇을 매든지 풀든지 간에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린다. 거듭남에서 큰 특징을 이루는 것 중 하나는 영적, 자연적 마음이 하모니를 가져와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이 하나됨은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과 상응을 이루도록, 지상의 것이 천국과 하나를 가져오도록 결과되어진다. 인간 안에서 영적 마음이 행동한 것을 자연적 마음이 재연하는 것이다. 타락하는 상태일 경우 자연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맞지 않게 다시 행동함으로 영적인 것의 행동을 제압하게 된다. 거듭나는 상태일 경우 자연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순종하여 재연해주므로 하모니를 이룬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마음에서 매어진 것이든 풀어진 것이든 모두 영적 마음에서 매이고 풀어진다. 결과가 똑같지 않은 이상 어떤 악도 영적 마음 안으로의 입장 허가는 실지로 취득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자연적 마음에 있는 회개치 않는 모든 악은 영적 마음에서 자연적 마음으로 흘러가는 선들을 악으로 바뀌게 한다. 그렇게 해서 땅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 그 반면 자연적 마음 안의 선한 애정과 생각들이 속박에서 풀려 있으면 영적 마음에서도 똑같이 풀려 자유로워 있다. 그 이유가 선은 자연적 애정과 생각 안으로 흘러가고 이것들을 통해 행동하여 진리의 말과 선함의 일들 안에서 바란 대로 튀어나온다. 이런 사항은 보다 작은

것과 보다 큰 것 사이에 있는 유추성을 통해 이해해 볼 수도 있다. 누구나 아는 바는 어느 누구도 그가 지상에 사는 동안 천국적인 것을 만들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지상에서 악과 싸웠던 이들만이 악을 묶을 수 있고 선을 자유롭게 해서 결국 천국으로 승강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먼저 매거나 풀지 않은 것은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저 세계에서 매일 수 없고 풀릴 수도 없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하늘과 땅 안에 있는 것이다. 인간이 천국에서의 천사가 되기 전 천적 상태에 있었어야 하듯 우리의 생각과 애정도 영적 마음 안에 천사 같이 존재하기 전 자연적 마음 안에서 이미 천사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상 위 인간 중에서 단번에 천사가 된 천사가 천국에 없듯이 자연적 마음 안에 처음 있었던 천사같은 원리가 단번에 영적 마음에서도 천사같은 원리가 되어질 수 없다. 다시 말해 처음의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 후 영적 상태로 된다는 말이다.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전 지상에서 일이 있어야 한다던가, 또는 영적 마음에 있기 전 자연적 마음에서 행동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여기에는 보다 낮은 수준의 것들이 완성될 때까지 보다 높은 수준은 항구적인 존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최말단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완성되지 않으면 어떤 완성도 없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자연적 인성을 입으신 이유 중 하나는 그분의 말단 원리들을 처음부터 작동시켜 구속의 일을 완성하시려는 이유에서였다. 주님께서 지상 위에서 지옥 자체를 묶어두는 한편 인류를 영적 속박에서 풀어놓으시고 그분의 인성을 영화하셔서 모든 천국들 훨씬 너머로 승강하셨다. 이제 그분은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여신 것을 어느 인간도 닫을 수 없다. 그분이 닫으신 것을 어느 인간도 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매고 푸는 분은 그분뿐이시다. 영광은 오로지 그분의 것이다.

20. 주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 위대한 진리를 상술하시고 전달하셨을 때, 그리고 그분의 참 속성이 공개적으로 그들에 의해 인정되어져 왕국의 열쇠가 전달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시기적으로 이 때는 세상에 위 진리를 완전히 드러내 전파해야 할 때는 아니었다. 그러나 위 구절에는 우리에게 응용되는 의미도 포함되어있다. 이 명령은 이전에 병자를 치료해주셨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때와 비슷하다. 즉 이 진리는 자연적 인간에게는 올바르고 유익하게 받기에는 그들에게는 너무 이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인성은 그들이 받은 생명의 수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아직 영화되지 않았다는 것도 포함되어있다.

다음 문단에서 주님께서 소개하시는 참 주제에는 제자 스스로 이에 대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런 이유가 그들에게 상당히 감명있는 인상을 주었고, 여러번 그들에게 반복되었어도 기억에 되살려내는 것은 고사하고 통째로 잊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제자들인 줄 알면서도 이 때에 제자들에게 알리신 이유들이 있다.

21.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주셨다.” 이 과정들은 그분이 세상에 오신 의도가 결과되게 하는 수단들 중의 몇 가지이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분, 다시 사시는 그분, 그리스도 등등을 알리는데 도구들이 될 제자들에게 그분이 거칠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첫 번째 부분은 아니었다. 그들이 받은 첫 명령은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와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고 문둥 병자를 깨끗케 하는 것이었다. 영성과 영광이 가득한 수준의 복음의 전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 홀로 지금 십자가의 신비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점진적으로, 슬기롭게, 부드럽게 주님께서는 그분 나라의 신비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왔을 때 그 수준 만큼에서만 열어 보여 주셨다. 베드로를 통해 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는 위대한 진리를 고백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이해할 수준에 다다르지는 못했어도 지금 그들은 그분의 영화하심의 최말단 수단에 대해서는 들을 준비가 되어있다. 이런 모든 것은 참된 모든 기독교인의 마음 안에서 기독교의 원리가 열려 보여져 진보해 가는 상태들, 제자들의 역사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참된 자의 역사라는 것도 알게 된다. 어떤 진리 하나가 받아들여 인정되었을 때 그 진리 스스로 열어 보이기 시작한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이 위대한 진리 역시 한번 마음에 영접하면 실제의 원리가 되도록 스스로 작업한다. 이 진리의 영입과 실감함 사이에 십자가가 서 있다. 먼저 지성이 공격받고, 심정에 공포가 서리게 하지만 그것들 모두는 결국 생명의 문에 대한 상징으로서 영광을 입는 목적물이 된다.

십자가를 내다보는 제자들을 지도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한다는 것, 예언은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셨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표현했다. 주님께서 거룩한 성까지 가신 것은 유대교 사제들을 자극시키려서가 아니라 선과 진리의 외면의 상태로 그분이 들어가심, 이것은 그분의 영화 하심에 필수 부분임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였다. 거기서 그분을 몰아세운 극렬한 반대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모독된 피할 수 없는 결과,

종교의 신성이 끄적하게 뒤집힌 결과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원로, 대사제, 율법학자 등등은 우리 마음에 있는 뒤집혀진 종교 요소들, 탐욕, 오류, 편견으로 찬 옛 생명을 표현한다. 이것들은 영혼에 있는 주님의 새생명에 그 자체 반대된다. 특히 완전해지기 위해 수치스러움을 야기시키는데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이런 수단 너머를 쳐다보도록 지시하시어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실 때의 영광스러운 목표를 보게 하시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제자들은 이 목표를 볼 수 없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흥미가 없다.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납득할 수도 없다. 그들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게 무엇을 뜻하는지 의문스럽다. 그분이 고통받고 죽는 것을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알 수 없는 한 그들은 목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도 없다. 그들은 이에 대한 어떤 것도 이해한게 없다. 그들은 그분으로부터 감추인채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런 사항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언젠가 그들이 그런 사항이 진리로서 실감되는 때가 올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식으로서 마음 안에 쌓아 놓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22. 베드로가 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 응답하는지 금방 나타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고 말리었다.” 여기서 베드로는 여느 경우같이 믿음을 표현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지적인 믿음, 믿음만으로 끝나는 믿음, 고로 왜곡된 믿음을 표현한다. 십자가의 상해(offense)는 기독 생활의 초기 단계에 있는 보편적인 체험중의 하나이다. 이런 십자가를 아직 갱생되지 않은 우리의 본성은 탐탁지 않게 여긴다. 더구나 아직 종속당하지 않은 옛 사람은 우리의 새 믿음 위에 유해한 영향을 던진다. 그리고 그분의 고통을 부정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어렵게 해서 십자가 너머 놓인 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든다.

23. 그러므로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돌아서서 그분이 진리가 지닌 충만한 힘과 직접적인 빛을 그가 받도록 하시고 있다. 그리하여 그가 표현한 잘못의 깊이와 악의를 열어 보이셨다. 그래서 사도를 사탄의 이름으로 불렀고 그분께 장애물이 되므로 그분 뒤로 물러서라고 명령하셨다. 베드로의 실수가 얼마나 중대한지는 구세주께서 채용하신 단어의 무게로부터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긴 해도 베드로의 간청은 인간에 속했다기보다 감정차원에 불과할 것으로 이해된다. 베드로가 주님의 구속 사업의 참 본성을 아는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그의 언어와 스승의 언어 사이로부터 자연스레 명백해진다. 아마 베드로는 그리스도 스스로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참 본성에 대해 아직 배운 바 없는 제자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타당할는지 모른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르신 것은 십자가에 대한 인간의 장애물의 근원과 그 속성을 암시하시려는데 있다. 사탄은 거짓 원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임을 가리키시고자, 더불어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거짓 신념의 뿌리를 표현하시고자 적용한 이름이다. 베드로는 아직도 믿음을 표현하나 그것은 왜곡된 믿음, 믿음만의 교리인데 이것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십자가의 고난은 어둠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는 주님의 마지막 승리요, 동시에 그분의 인성이 신성과 완전히 하나되는 것이었다. 이런 사항은 왜곡된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음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더 말하셨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24. 이제 전달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는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부정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베드로는 제 스승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죽음을 평가절하했다.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려거든 그분이 하신 것 같은 일을 해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시고 있다. 이 명령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관념, 장애물의 뿌리를 내려치고 있다. 예수께서 고통받는데 대한 우리의 생각은 잘못되어 왔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주님 스스로 많은 것들로 고통받으셨듯이 우리는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메어야 한다. 그 이유가 그분처럼 우리도 선을 획득하는 방편으로서 악에 저항하고 악을 복종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보이신 본보기를 모형삼아 그분의 진리에 의거한 생활로 그분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자아만을 사랑함에 저항해서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 우리는 욕의 욕망을 십자가형에 처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림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고 그분을 섬기는데 자아를 바쳐야 한다.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의무에는 부패된 원리의 이기심이 죽어버리는 결과까지 포함된다.

25. 더 말씀을 진행하신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불합리한 연설인 이 구절에는 매우 분명하고 중대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사랑이 생명(목숨)이다. 그래서 자연적 마음의 생명은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이고 영적 마음의 생명은 주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리려다가 잃고, 잃어버리고자 하다가 찾는 생명은 똑같은 수준의 생명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의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을 잃는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제 육신과 세상적 수준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적 수준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두 생명들은 거둬나가는 생활의 초기시절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 모든 제자들의 마음 안에 현존한다. 현존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다툼도 없다. 그 이유가 모든 다툼은 반대되는 두 사랑, 반대되는 두 생명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은 서로 경쟁한다. 이 경쟁은 어떤 한쪽이 정복당할 때까지, 그래서 이쪽이 저쪽을 지배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 때 정복한 쪽은 온 마음과 삶에 활력을 주는 원리가 되어간다.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다. “나는 내 생명을 내려놓을 능력도 있고, 다시 그것을 얻을 능력도 있다” (요한 10:18). 이 때 그분이 내려놓으시겠다고 하신 생명은 그분이 다시 얻으시겠다고 하신 생명과 같은 생명이 아니었다. 그분이 내려놓겠다고 하신 생명은 그분께서 인간 어미로부터 상속된 생명이었고, 그분이 다시 얻겠다고 하신 생명은 신성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된 생명이었다. 영화하시는 과정을 통해 그분의 인간성 모두에 속한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 되어갔고 부활로 완성되었다.

26. 위 구절의 의미와 교훈을 더 충분히 알게 하신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진실로 영혼, 또는 생명(영혼과 생명은 동일한 단어이다)은 인간에게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해서 그것과 맞바꿀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인간이 세상을 위해 자연적 제 생명도 주지 않는데 영적 생명을 위해 제 목숨과 바꾸는데는 얼마나 덜 호의적일까? 자연적 생명이 세상보다 귀한 만큼 영적 생명이 자연적 생명보다 훨씬 존귀하다면 자연적 생명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얼마나 잘 준비해야할까? 내려놓게 되는 생명은 자아사랑이고 아무 소용도 없는 사랑은 세상 사랑이다. 이 두 사랑이 자연적 인간의 전부를 구성한다.

27. 자아 사랑을 내려놓고 세상 사랑을 거절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마지막 심판이 확실히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 때에 그는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일반적 심판이 이 구절에서 비쳐지고 있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그런 심판은 일반적 측면에서는 기대되지 않고 있다. 이 심판은 세상의 종말, 즉 모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심판되는 때의 세상 끝을 언급하는 것으로 통상 이해되고 있다. 이런 관념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다. 자연계가 종말이 있을 것이다든가, 죽은 시체들이 일어날 것이다든가, 이 세상이 심판의 무대이다 등등은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가르치고 있지 않다. 모든 심판은 영계에서, 자연계를 거친 영혼에 거행된다. 그리고 아직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시대의 종말로 의미되는 교회의 마지막에서 심판이 있다. 우리는 영계에서의 심판을 주제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가 거기서 모든 사람은 제 행적대로 자동적으로 판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영적 의미에서 거둬나가는 상태에 응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오심이 심판하는 것이라고 소개하시는 바, 이 사랑은 우리가 제 십자가를 지고 이기적이고 세상적 사랑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삶에 놓아졌을 때 주님께서는 판관으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리시키고 각 품성에 따라 각자의 자리를 할당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사람의 아들이란 신성한 진리로서의 주님이요, 이 신성한 진리가 심판의 원리이다. 그 이유가 아버지는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아들, 그가 사람의 아들이어서 그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이다 (요한 5:21, 27).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사랑에서 분리된 진리만으로는 결코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런고로 해서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 즉 그분 자신의 신성한 사랑에 싸여 천사들, 즉 말씀과 천국 속의 진리들을 거느리고 오신다. 위 사람의 아들은 악에 성공적으로 저항한 이들, 끝까지 자신을 버리느라 애쓴 이들에게 그들의 정의로움에 대한 보상과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다.

28. 주님께서는 이 약속으로 끝맺으신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임금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 오심은 세상 끝날에 있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따라서 이 선포는 영적으로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일반적 교회라는 점에서 교리와 생활 모두에서 종교의 마지막 상태인 마지막 때에 관해 예언적으로 말하시고 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께서는 요한에 관련해 베드로에게 말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제자는 죽지 않으리라는 소문이 퍼졌다.” 요한은 주님이 오셨을 때까지 체류했을까? 요한이 표현한 것들이 이루어졌다.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도 표현적 속성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사랑을 받은 사도란 사랑의 원리, 확실히 말해서 실지로 사랑함, 이타애를 표현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런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기 목적을 이런 사랑에 두고 있는

이들까지 표현했다. 사람의 아들이 그분의 나라에 오시는 것을 볼 때까지 죽지 않을 사람들이란 요한이 표현한 속성을 지닌 이들이다. 주님이 뜻하신 의미란, 일반적인 부패 속에, 믿음 자체까지 멸종할 때 사랑과 이타애에 관한 얼마간의 나머지가 그분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생존하여 하늘의 새 처방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랑과 이타애라는 품성을 지닌 이들 역시 사람의 아들이 그분의 나라에 오시는 것을 본다. 그 이유가 이타애 안에 있는 이들은 진리를 보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님의 진리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진리가 마음 안으로 영입되어질 때, 의지와 이해성의 정부를 통치하는 원리가 될 때, “사람의 아들이 그분 나라에 오시는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세부적으로 응용하면 거듭남에도 관계된다. 거듭나는 사람에게 주님은 판관으로서, 구세주로서 오신다. 사랑과 이타애는 사람의 아들이 그분 나라에 오시는 것을 보는 거듭나는 마음의 원리들이다. 이 원리의 얼마큼이라도 주님께서서는 마음 안에 보존되게 하셔서 그 원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지 않게 설비하신다. 죽지 않은 이런 원리를 통하여 재림 시에 주님은 마음 안으로 들어가시어 그들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

17

본 장은 주님의 변모하심을 기록하고 있다. 이 변모는 그분의 영광의 한응큼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다가오는 그분의 부활과 승천의 광채를 예시하고 있다. 이제 인성은 부분적으로 영화되고 있고 차후 전체적으로 신성이 되어 갈 것이다. 본 장은 앞장의 후편이라 말해도 무방하다. 앞장에서는 주님이 누구신지 고백되어졌고, 제자들에게 그분이 받는 고통과 죽음에 관한 것을 밝히 알리기를 시작하셨다. 본 장에서는 그것에 계속 이어지는 삶과 영광에 관한 것을 명백히 보인다. 앞장에서는 고통받아 죽은 약하고 희미한 사람의 아들 측면을 그들에게 표출하셨다. 본 장에서는 권능의 장엄한 사람의 아들 측면을 표출하신다. 본 장이 이러하다 해도 우리 각자를 위한 교훈은 더욱 발견된다.

1, 2. 이렇게 시작된다. “옛세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 가셨다. 그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했다.” 옛세(six

days)라는 숫자는 참으로 신비로운 숫자여서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축복에 넘치는 환상이 영혼의 영적 의미로 열릴 때 얻어지는 쉼과 평화에 앞서 있어야 하는 상태, 땀흘림과 자아 부정의 상태를 지적해주는 숫자이다. 이런 예비적인 상태는 앞장의 대화에 있었던 주제이다. 이 예비의 상태가 완성되었을 때 주님께서서는 밝히 보여 주신다. 그러나 왜 세 제자들만이 이 영광의 모습을 보아야 했을까? 나머지 제자는 예수를 믿는 그들의 믿음에 이런 확증과 보증이 필요 없단 말일까? 그들은 이런 모습을 볼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어서 일까? 이런 이유에 대한 원인은 영적이다. 이 세 제자는 세 개의 기본적인 품위를 표현한다. 어떤 의미로는 이 세 품위가 그 외 다른 모든 품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 또는 나머지 품위들이 이 세 품위에 소속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믿음, 이타애, 선한 일을 표현한다. 믿음, 이타애, 선한 일을 원리로 삼는 이들을 수치스러움의 골짜기에서 6일간의 땀흘리는 시련을 통과한 뒤, 주님에 의해 사랑과 거룩함의 산으로 들어 올려진다는 것, 거기서 그들은 인성의 신성함 안에서 영광의 광채로 계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다.

2. 산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에서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 주님께서 산에서 나타내신 영광은 그분이 수치스러운 시기동안 보여 오신 통상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이는 연약한 인성이 그 영광을 덮고 있었다는 것, 이 영광을 볼 준비가 되어진 이들이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덮개가 벗겨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준다. 그분이 나타내신 이 영광은 신성한 본성의 영광은 아니었다. 그 이유가 어떤 인간도 본래 모습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모의 산에서 보여주신 영광의 광채는 인성 속의 영광이었다. 어떻게 그분의 인성은 통상 나타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그 자체를 드러낼 수 있었을까? 주님의 인성이 어느 인간 존재의 것과 똑같았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주님의 인성은 인간 어머니쪽 뿐만 아니라 신성한 아버지로부터 파생되어졌다. 그러므로 내적 측면에서의 그분의 인성은 출생 때부터 신성이었다. 그리고 그분의 일생동안 이 인성의 외적 측면도 신성이 되어갔다. 이와 동일한 방법과 원리가 우리의 거듭남에도 적용된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내적 인간의 형상으로 점차 형성되어간다. 변모하신 때의 경우 주님의 인성은 그분께서 선발한 사도들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을 만큼 영화되어 있었다. 사도 자신들도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이 준비란 그들의 영적 시야가 열리는데 있다. 이 열림이란 그들이 물질적 몸을 한쪽에 놔두고 영계의 주님이

되는 때에 있어질 수 있는 상태로 잠깐 동안 있어지는 것이다.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어질 수 있을는지 모르나 영광의 주님을 본 이들에게 점진적 변화가 있어졌다는 암시도 누가복음에서 알 수 있다. “그 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9:32). 그러므로 예수께서 표출하신 외관은 그분 위에 뿌려진 영광이 아니라 그분 안에 내재한 영광이요 진보해갈 영광의 가득한 수준을 명백히 드러내신 것이고 후에 파트모스섬의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과 같다. 즉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또는 눈같이 희었으며 눈은 불꽃 같았고 발은 풀무불에 단 놋쇠 같았으며 음성은 큰 물소리같았습니다.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쥐고 계셨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고 얼굴은 대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요한은 그분을 뵈자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14-17). 이런 모습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 자신이다. 그분이 표출하신 모습은 의미로 짝 차있다. 주님의 얼굴은 신성한 사랑을, 그분의 옷은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그 자체 순수한 불인 해 같고, 그분의 진리는 그 해로부터 진행되어 나오는 빛과 같다. 그 이유가 주님 자신은 순수한 사랑 또는 선함이시고, 한편 그분의 진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처럼 그분으로부터 빛난다.

3. 제자들이 영광에 싸인 예수를 보는데, “난데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말씀을 표현하는 성경의 대표적 인물이다. 모세는 역사적인 말씀을, 엘리야는 예언적 말씀을 표현한다. 누가(9:31)에 의해 말해지는 바,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 즉 십자가의 고통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분의 구속과 영화하심에 관한 이야기이다. 두 사람이 그분과 대화하는 것은 역사적 부분과 예언적 부분, 즉 모든 말씀이 주님과 그분의 인성의 영화하심을 취급한다는 것을 표현했다. 글자적 의미 수준에서는 말씀의 많은 곳에서 그분의 모습과 육 가운데 계시면서 하시는 그분의 일들이 공개적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가장 깊은 의미 즉 천적 의미에서는 주님의 영화하심만이 그 주제이다. 이에 대해서 매우 의아해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씌어있는 말씀은 계시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말씀으로부터 발산된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는 신성한 생명과 빛, 신성한 선과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씌어있는 말씀의 본질적 본성은 신성이고, 그 말씀의 영적이고 자연적 의미는 천사나 인간에게 알려져 있고, 말로 나타낼 수 없는

신성한 영광을 덮은 의복 외 더 다르게 아니고, 씌어있는 말씀은 유한한 마음들로 직감할 수 있게 한다. 육을 입으시기 전 영원한 말씀되시는 주님은 천사에게 보일 수 있는 덮개로 가리워 있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상에서 인성을 입으셨을 때는 인간이 그분을 볼 수 있는 의복으로 자신을 덮으셨다. 자연적 인성, 이 안에서 영원한 말씀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씌어진 말씀의 자연적 의미와 유추된다. 그래서 씌어진 말씀과 육이 된 말씀은 서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준다. 씌어진 말씀과 영원한 말씀 모두 그 자신을 옷입힌 의복은 그 자체 천국과 지상에서 보일 수 있기 위해 천사와 인간의 유한한 본성으로부터 취해졌는 바 그것들은 필수적으로 천사와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모든 것, 즉 천사와 인간의 생각과 애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님의 생애는 말씀의 완성인 바 말씀은 그분의 삶에 대한 계시 또는 그분의 삶의 역사이어야만 한다. 역사적, 예언적 말씀 모두는 그분의 영화하심을 취급해왔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어야 할 그분의 죽음에 관해 그분과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변모하시는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제자들인 바 그들은 영적이고 영원한 흥미를 지닌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일에 관해 예수와 더불어 대담하는 그들의 소리를 더 들을 수 있었을는지 모른다.

4.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이 광경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누가의 경우,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했다”고 더 기록하고 있다. 이는 베드로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 더 높은 영향력, 즉 신성한 영감하에서 말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감정과 목적도 신성한 근원을 가질만하다. 게다가 말씀의 영광 권능으로 거룩한 말씀이 열림으로서 주님의 영광이 밝히 알려질 때 경건한 모든 마음에 있어질 수 있다.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은 주님이 말씀에서 보여질 때, 죄인들의 구원과 구속의 은혜로운 일이 영적 시야에서 열릴 때 거듭나는 모든 영혼이 지닐 수 있는 감정이다. 신성과 성스러운 손님을 위해 마음에 세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인성으로 계신 하느님으로서의 주님을 위해서, 마음과 삶 안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성막을 짓는 것, 즉 주님이 계실 곳과 그분의 말씀 속 거룩한 원리가 거주할 곳을 짓기를 바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거듭나는 의지가 주님의 사랑을 위한 성막이고, 거듭나는 이해성은 그분의 지혜를 위한 성막이요, 거듭나는 생활은 그분의 거룩함을 위한

성막일 경우, 베드로의 간청은 완성되어진다.

5. 그러나, “베드로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말씀의 글자적 의미가 구름이다. 이 의미는 내적 의미의 강한 빛을 완화시키고 그 영광을 덮고 있다. 글자라는 구름은 글자를 쳐다보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보다 어둡게, 또는 보다 더 밝게 한다. 말씀 속의 진리가 영적으로 식별될 때 즉 영적 의미의 빛이 발할 때 그 글자는 빛나는 구름이 된다. 영광 속의 주님을 본 제자들을 덮은 구름이 바로 이런 구름이다. 산 위에서 우리를 에워싼 빛나는 구름으로부터 진행되는 예수에 관한 신성한 증언이란 무엇일까? 이 구름으로부터 하느님의 소리가 있어 우리가 보게된 영광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신다. 그 이유가 모든 계시는 말씀으로부터 근원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영적 의미의 영광과 빛도 계발되어진다. 구름으로부터의 소리가 예수에 관해 말하였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천국으로부터 선포된 진리는 최근 베드로가 땅위에서 말한 진리와 똑같다. 위 구절의 말씀에 관해서는 주님의 세례(3장 17절)에서 살핀 바 있다. 아버지란 주님의 신성이고 아들이란 그분의 인성이며, 이 두 본성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같이 실지 관계한다. 보다 내면에서 관조해본다면 아버지는 주님의 사랑이고 아들은 지혜이다. 그 이유가 지혜는 사랑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한 인물에 있는 신성과 인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거주하는 사랑과 지혜, 생명과 빛이다.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신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아들 안에서의 아버지의 기쁨이란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이 만족함, 이는 인간의 구원을 결과되게 하는 능력이다. 메시아의 손에서 번성하는게 여호와의 기쁨이다 (이사야 53:10). 인류를 향한 사랑은 주님으로 구속의 일을 완성하도록 촉구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이 일은 인간의 구원에서 그 보상을 발견한다. 따라서 이 얼마나 드높고 무게 있는 명령인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분은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이시다 (고린도전 1:24). 그분은 하느님이 육안에서 명백히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분은 신성한 지혜요 이 지혜 안에 신성한 사랑이 있다. 그분은 구원해주는 모든 품위의 원천 되시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덕행의 저자이시다.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 진리를 알아야 할 사람, 이 생명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말을 들어라!”

6. 제자 위에 내려진 신성한 음성이 가져온 결과는 이런 음성을 진실로 받게 될 모든 이들에게도 똑같은 반응이 있게 된다.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도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신성한 사랑이 의지와 의지의 애정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 들어감은 심오한 수치스러움과 거룩한 두려움을 생산하는 바 이것이 “땅에 엎드리고 두려워했음”으로 의미되고 있다. 또한 엎드림과 두려워함은 우리 고유의 의지와 지혜를 포기한다는 것, 모든 선함과 권능의 소유자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7. 우리가 심오하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을 때, 독선을 포기했을 때, 나의 약함을 지닌 채 주님 앞에 나설 때, 그분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드높여 주실 수 있고 두려움을 떨쳐주는 사랑을 호흡하게 해주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두려워 말고 모두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권능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분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생명과 권능이 예수 안에 있음을 실지 인정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특전이다. “예수께서 만지심”은 그분의 영이 비천한 마음 안으로 흘러드는 권능의 교통이다. 영적으로 “일어남”이란 지상적 애정이 천국적이고 신성한 것들로 들리는 것이다. “두려워 않는 것”은 진실되고 생명있는 믿음을 지닌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8. “그들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을 때는 예수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이 본 영광의 주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에 관한 광경은 그들의 영적 시야가 열렸을 때 주어진 것이다. 그들의 영적 시야가 닫힘은 영광의 장관이 닫히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만을 보았다. 그야말로 그들과 함께 계신 바로 그 예수만을 보았다. 영적 의미에서 위 구절은 드높은 진리를 가르친다. 수치스러운 먼지 수준에서 신성한 권능에 의해 들려지면 우리의 이해성의 눈도 들려져 예수 외 어떤 인간도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예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의 모든 것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말이다. 더욱이 그분만이 말씀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에 관해 증거하지만 그분 스스로가 유일하게 참된 증거자이시다. 그분은 그들에 의해 증언된다. 그분은 진리 자체이시다. 인간적 모든 매체와 유한한 형상들을 제거해버렸을 때 사랑하고 직감하는 꼭 하나 목적물로서 예수만이 남는다.

9.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때와 같이 이 환상을 본 것에 대해 침묵하라고 명령되어지고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제자란 영적 마음의 직감과 애정을 표현한다. 주님의 영광과 신성은 이런 제자를 수단으로 직감되어 질 수 있다. 그 이유가 주님의 인성은 그들에게 가능한 직감의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을 만큼 영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중들, 설사 그들이 주님을 믿고 있다 해도 그들은 자연적 마음의 애정과 직감을 표현하는 바 이 수준의 마음에는 베드로의 고백과 그분의 환상에 관해 알려질 수 없다. 그 이유가 주님의 인성이 자연적 마음의 납득력까지 내려올 수 있게 아직 영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영화하심은 부활로 완성되어졌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이 죽음에서 일어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졌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경험에도 존재한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변모는 그분의 부활에 앞서 있어진다. 주님의 경우도 먼저 영 안에서 거행되고 그 다음 몸에서 거행되었듯, 우리의 경우 영적 마음에서 먼저 거행되고 그 다음 자연적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각자에게 있어서 그분을 인정함은 실제로 그분을 영접함으로부터 발생되어야 한다. 내적 인간이라는 높은 곳, 산에서 진열된 진리는 그 진리가 각자의 상태와 납득력에 내려올 수 있을 때까지, 즉 주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날 때까지 바깥쪽 인간에 나누어 줄 수 없다. 이에 대한 본보기를 제자들의 주변모습, 즉 중심되는 세 제자들만이 변모하심을 보도록 산 위로 올라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아래서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0.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묻고 있다.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율법학자들은 말합니까?” 아마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을는지 모른다. “엘리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올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지만 엘리야에 관해서는 의아스러운 점이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서는 이 주제에 관한 진리, 즉 이 예언이 세례자 요한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의도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변모하실 때까지 무지의 상태로 있게 했을까? 그 이유는 그것들이 거듭남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의 경험을 표현해야 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제자들은 제 스스로 목적에 이를 때까지 목적에 이르게 한 수단을 진실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가 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그에게 마치 새로운 빛이 제 마음에 뛰어들거나 한 것처럼, 과거 한번도 선포된 적이 없는 중대뉴스가 들려온 것처럼, 새로운 기쁨이 제 심정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예상조차 못해 본 어떤 체험을 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못한 일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고린도전 2:9,10).

11-13. 제 아무리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한 빛과 기쁨의 상태라 해도 과거 천국적인 어떤 조짐도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심에서, 그분의 길은 마치 우리의 유아시절,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이 우리 기억에서 가물가물하듯 그분의 작동은 대단히 조용해서 미처 우리가 직감하지 못했다 해도 이미 그분의 말씀 속 진리에 의해 준비되어져 왔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신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복원하리라.” 이렇게 모든 것을 복원한다는 것은 차후 거듭남으로 발달되어 완전해짐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상태들의 기본 틀을 인간 마음에 형성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성숙된 모든 이들이게 “실상 엘리야는 이미 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 이유가 부패된 이기심은 너무 흔히, 어느 정도에서는 언제나 유대인이 세례자 요한을 대했듯이 주님의 특사를 취급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이유가 인간 고유의 것이 지닌 주님에 대한 적대감은 그것이 주님의 몸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죽은 자로부터 그분과 함께 일어날 때까지 계속 되어진다. 그러나 이런 죽은 자로부터의 일어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것도 삶의 실제 상태와 같아서 우리가 체험할 때까지, 그 진짜 품성은 우리 눈에서 감추어져 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 관한 예언을 설명해주셨을 때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이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체험의 빛이 우리가 도착한 길에 드리워졌을 때, 우리가 그분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오도록 준비하는 수단과 방편의 참 품성을 밝히 알게 된다.

14-17. “그들이 군중에게 돌아오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 아들이 간질병으로 몹시 시달리고 있으니 자비를 베풀어주소시오.’” 변모하신 그분에 관한 그림에서 화가 라파엘은 산 위에서 벌어진 영광의 모습과 산 아래의 이 구절의 모습을 기술적으로 대비시켜 놓고 있다. 아마 어느 그림도 이 그림 만큼 주님께서 구속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인성의 통탄할만한 조건과 타락의 상태와 위대한 사건의 영적 영광을 놀랍게 진열한게 없을 것 같다. 주님께서 인간 본성을 입으신 것은 인간 창조물을 영적 속박과 불행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였는데 이 구절의 모습이 영적 속박과 불행을 더욱 소름끼치게 나타낸 모형이다. 그림의 아래 부분에서 우리는 타락된 것 뿐만 아니라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타락된 인간성까지 보게 된다. 동시에 그림의 위 부분에서 가장 위대한 권능과 영광을

보면서 구세주가 타락되어 처진 인간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왔다는 것에 대한 모형을 직시하게 된다.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신성의 직접적인 간섭이 절대 필요함을 알게 해준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 산 위에 계신 동안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 왔는데 제자들 중 누구도 마귀를 쫓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주님께서 마음의 내면에서 영광의 모습으로부터 자연적 마음의 생각과 애정이 균중같이 모여 있는 데로 내려오시어 그분의 영향력을 흐트려 주시게 된다. 사실 자연적 마음이라는 영역이 타락하는 상태일 경우 그곳은 악과 무질서라는 것이 균립하는 곳 일 뿐이다. 그러나 본문의 주제는 거듭남이 개시되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관계되고 있다. 무릎을 꿇는 아버지란 영적 수준의 사랑, 주님 앞에서 제 심정이 대단히 수치스러운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 그리하여 악과 거짓이 장악해버린 자연적 수준의 사랑의 유일한 구원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아들은 간질병자(lunatic)였다. 간질병 또는 정신 착란증, 비록 신체적 질병이라 해도 그것은 정신적인 것이 그 원인이고 본문에서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본문의 경우 악령, 인간 마음속의 악을 통해 작동되어 야기된 증상이다. 이것은 자연적 간질병일 뿐만 아니라 영적 간질병이다. 종교의 주제로 다루는 정신 착란증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 상황을 온전하게 판단해서 행동하게 하는 마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어지럽히는 것을 말한다. 이성이 마음의 권좌에서 쫓겨날 때 의지는 자발적 자질보다는 오히려 비자발적 자질로 변해버린다. 그 이유가 추론없는 의지 결단은 참되다고 할 수 없고 합리성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고 볼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럴 때 마음은 기만하는 생각과 통제되기 힘든 느낌들의 운동경기장 같이 된다. “그 아이는 가끔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악령에 소유당한 이들은 제가 저지른 행동에 책임이 있을 수 없다. 마음의 내적 측면을 소유당한 결과인 영적인 정신이상자는 다르다. 현 시대에서 악령은 우리 스스로 허용한 그 이상의 권세를 가질 수 없다. 악령이 제 좋아하는 대로 우리를 악의 불 속에 던지거나 거짓의 물 속에 빠트릴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좋아했을 경우 악령에게 달라 붙을 수 있다. 어쨌든 이런 우리의 자유도 가망 없는 재난으로 인도해 줄 수는 있다. 그 이유가 계속적으로 탐닉하다 보면 우리의 욕망과 망상에 완벽하게 노예가 되는 신세로 자신을 가져다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 대한 치료는 보통의 수단이나 방법 그 이상 대가를 치루어야 가능하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호소하게 된 연유가 그러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 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탄하셨다. “아,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지 않고 거꾸로 되어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한탄하시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성한 말씀에서 자주 취급하는 두 겹의 마음의 조건과 관계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주제에 국한해서 살펴보자. 아이는 간질병으로 몹시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자주 불 속으로 뛰어들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뒤집혀 있다고 말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며 이런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고 물으신다. 이런 것들 모두는 인간 마음의 두 자질, 즉 의지와 이해성에 관련되고 이 두 자질이 원리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면 진리 또는 믿음의 결핍에 관계된 것이고 뒤집혀 있다란 선 또는 이타애의 결핍과 관계된다. “내가 언제 까지나 너희와 있어야 한단 말이냐?” 라는 주님의 물음은 그분께서 사랑의 선을 수단으로 인간과 함께 하심에 관계되고 “언제까지나 내가 너희의 성화를 받아야 하느냐?”는 물음은 그분께서 지혜 속의 진리를 수단으로 인간과 함께 하심에 관계된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심판에서 자비를 잊지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꾸지람에 이어 병든 아이를 두고 이렇게 말하신다.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 오너라.” 이렇게 그분의 연민을 보여주시고 인간 창조물이 구원하시는 그분의 역사와 그분 안에서 상호적으로 행동되기를 바라신다.

18. “마귀에게 호령하시자 마귀는 나가고 아이는 곧 나았다.” 주님의 호령에는 신성한 진리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 권능이 마가복음 9장 24절의 기록처럼 매개체로서의 믿음을 발견할 때, 즉 권능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과 함께 했을 때 악의 저항은 불가능하다. 악마가 떠남과 동시에 마음이 정상을 회복했다. 다시 말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진리의 권능을 영접하는 상태로 복원된 것이다.

19, 20. 제자들이 악령을 제어하는 주님을 보고 주위가 조용해지자 살며시 물었다. “왜 저희는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 믿음이 없는 탓이다.” 아버지가 아이의 병을 고치고자 처음 데려다 준 제자들은 예수와 세 제자가 산에 계실 때 평지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이다. 이렇게 나뉜 상태의 제자를 생각해 본다면, 산에 오른 세 제자는 종교의 중요한 품위 또는 원리들을 표현하고, 산아래 나머지 제자들은 세 제자로 표현된 원리에 종속되는 보통의 원리들을 표현한다. 수준 낮은 마음, 자연적 마음 안에 있는 자연적 생각과 애정들이 수준 높은 원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 그분께서 직접적으로 거하심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자연적 마음속의 악을 향해 결정적인

행동으로 대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믿음의 결핍 때문이다. 그 이유가 효력 있는 믿음은 내적 측면으로부터 외적 원리 안에 현존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제 아무리 조금이고 작은 것이라 해도 만일 그 작은 진리가 그 안에 천국적 사랑의 씨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설사 제일 힘든 일, 산이라는 자아사랑 까지도 뿌리째 뽑아 던지기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의 품성이 없었을까? 믿음의 생명을 구성하는 제자들이 분리된 상태였던 바, 산아래 제자들은 산 위 제자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쨌든 우리 구세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의 한 가지, 모든 이에 의해 실제화되고 유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란, 생명있는 믿음은 불가능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권능, 그 결과 모든 가능성은 하느님께 속해 있다. 따라서 그분과 협동하는 모든 이에게도 속해 있게 된다. 질서에 의한 모든 것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신실한 사람, 신성한 질서에 의거 사는 사람에게 불가능은 하나도 없다.

21. 주님께서서는 유보조항을 제자들에 관련해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다. “이런 종류의 마귀는 기도나 단식을 하지 않고서는 쫓아낼 수 없다.” 기도는 내적 인간이 하느님과 호흡하는 것이다. 단식은 외적 인간을 세상으로부터 돌려놓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병합하여 효력을 내면 최고로 악질인 악마도 추방되고야 만다. 어쨌든 우리가 악마에 저항하려고 하느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개혁을 통해 능력을 얻는게 더 효력이 있을까? 영적인 간질병은 기도와 단식으로 의미된 수단 외 더 다른 방도로는 제거되어질 수 없다. 아이를 점령한 악마는 매우 비탄스러운 악의 생명을 표현한다. 비록 이 아이가 자연적 수준에서 제 속의 악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감지 못하겠지만 이를 영적으로 해석해 이해해보면 알게 된다. 아이는 순진을 뜻하는 바 이 순진을 점유했던 악마는 순진에 정 반대되는 것, 즉 악 중의 악을 뜻한다. 따라서 순진과 선함의 결핍 때문에, 또는 그것에 반대되는 생명 때문에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영적인 간질병은 제거될리 만무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단식이란 악한 기질을 폭발시키려 하는 모든 행동을 꾸준히 절제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최악질의 악마를 내던지는데 가장 효력있는 것이 단식이라고 말해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한게 있다. 그래서 기도가 단식과 동등하게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찾는

것은 인간이 제 스스로 악과의 인연을 끊는 노력과 언제나 하나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두 가지를 행하는 사람은 가장 큰 장애물도 거뜰히 치워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의 경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어떤 악도 그의 마음과 행동에서 영원히 제거된다.

22, 23. 그들이 갈릴래아에 체류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변모하셨던 산에서 내려오실 때 세 제자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주제를 모든 제자에게도 가르치신다. 이에 대한 것은 중복되므로 생략하되 왜 갈릴래아에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나누어 주셔야 했는가에 대해서만 살피겠다. 갈릴래이란 자연적 수준의 마음을 표현한다. 주님께서 고통받고 죽으심은 자연적인 것의 영화하심, 그분의 인성의 최말단의 것과 더 특별히 관계된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이런 사항과 상응되는 지식을 선별하시어 제자들에게 밝혀 주시고 있다.

24. “그들이 가과르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바칩니까?’ 하고 물었다.” 이 성전세는 성전 유지에 충당하기 위해 징수한 세금이다. 그러나 모세의 법에 의해 부과되는 것은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비록 그들이 주님을 싫어할지라도 그분으로부터 성전세를 받는 것까지 싫어하지는 않았다. 부패된 교회가 진리를 경멸하고 박해하지만 한편 제 사리사욕의 충당이나 성전세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말씀을 기꺼이 인정한다. 그러나 말씀이 부패된 예베에 세금을 바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의 둘째가는 진리 중 일부에서라도 추인되어야 할 필요가 먼저 대두된다.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가 성전세를 바치느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

25, 26. 유대인이 베드로에게 당신의 선생께서는 성전세를 바치느냐고 물었을 때, “예, 바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땅의 임금들이 관세나 인두세를 누구한테서 받아 내느냐? 자기 자녀들한테서 받느냐? 남한테서 받느냐?’ 하고 물으셨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말씀 속의 진리가 세속적 원리나 관습에 의해 질문을 받게 될 때 질의자가 찾는 것이 말씀의 안쪽 측면인지 바깥 측면인지에 따라 다른 증거를 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증을 발견한다.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이 있다. 베드로가 모형이 되어 준 것, 즉 진실한 사람이라 해도 그가 사람들과 교제할 경우는 외적 상태에서, 주님과 교제할 경우는 내적 상태에서 진리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베드로가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으로부터 성전세를 내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은 집밖에서였고, 주님께 대답하는 과정에서 임금들은 관세를 제나라

백성에게 부과하고 외국인에게 부과한다고 인정한 것은 집안에 들어와서였다. 이렇게 베드로가 각각 다르게 답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그렇다면 자녀들은 물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내려놓으시는 이 원리는 교회와 교인에 관계되는 중요한 원리중의 하나이나 유대인이 가졌던 이 원리는 이 외 많은 다른 예에서와 같이 그 사용이 잘못되어 있었다. 관세나 인두세를 지불한다는 것은 지배를 받게 되는 것 또는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관세는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부과되었는데 이는 말씀의 역사물에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이스라엘 후손, 그곳에 교회가 있는 바그들은 영적 측면을, 외국인은 자연적 측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연적 원리는 영적 원리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섬겨야 한다. 그 이유가 영적 인간은 주인이고 자연적 인간은 종이기 때문이다. 자연적 인간이 좋고 이것이 세금을 바치는 사람으로 의미되는 바 주님도, 베드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자연적 인간을 뜻하는 고기가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27. 비록 주님이나 그분의 제자가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말하시면 서도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이렇게 하여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낚인 고기의 입을 열어 보아라. 그 속에 한 스타테르짜리 은전이 들어 있을 터이니 그것을 내 뿔로 갖다 내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세세한 위 주님의 지시사항 전체는 의미심장하고 교훈적이다. 바다는 글자 의미수준에서의 말씀의 모형이다. 바다의 고기는 글자 의미가 포함하는 자연적 진리들이다. 에제키엘에 의해 보여진 새 성전의 환상에서, 성전 문턱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로 흘러가 결국 “온갖 고기가 득실거리게 했다” (에제키엘 47:1-9). 그 자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말씀 글자 속의 진리들이 말씀 속의 영적 의미가 열리면 생명과 교통하게 되는데 이것이 강이 바다로 흐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우리가 시련과 위급한 상태에서 그것을 치료하고 해결하기 위해 말씀으로 갈 때 우리는 “바다에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영적 수준에서 따르는 것이다. 제 아무리 뒤진다 해도 해결책이 말씀에서 나올 수 있을까하고 의아스럽게 여길 수 있겠지만 필요한 것을 획득하게 하시는 신성한 약속을 충실히 믿으면서 성경을 지적으로 수색해 간다면, 우리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는 주님의 명령을 영적으로 따르는 것이 된다. 베드로가 맨 먼저 낚은 고기가 바쳐야 할 성전세를 그 입에 담고 있다는게 과연 있음직한 말일까?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하고 궁핍한 때에 우리를 치료하고 위로해줄 참 진리를 말씀에서 발견한다는게 과연

있을 수 있는 말일까? 이런 식으로 위 주님의 말씀을 너무 글자대로의 해석에 집착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과 처음 마주치는 성서 글자, 또는 마음에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된 성경구절이 고기 입안에 약속된 동전 화폐, 해결책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맨 먼저”라는 단어에 지상의 시간 개념을 빼고 천국의 상태 개념에서 생각하여 맨 먼저 낚인 고기가 성전세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바래던 어떤 것의 공급이 성사되려면 우리의 가치 기준에서 진리가 “맨 먼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자체 내에 보물을 담고 있는 진리가 주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을 때, 우리는 넓은 측면에서의 말씀이라는 보물 창고로부터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좁은 측면에서의 보물 창고로 그 진리를 “잡아서,” 또는 그 진리를 들어올린 다음 생각과 애정 안에서 승강시켜야 한다. 그 다음 반드시 고기의 “입을 열어야” 한다. 그 이유가 글자적 의미 안에 담긴 보물을 발견해서 획득하여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려면 반드시 올바른 글자 의미의 해석에 의해 말씀의 글자가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비위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베드로가 잘못 인정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수행되어진 위의 과정들을 성전세를 걷는 징수자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들은 베드로의 선생이 성전세를 지불했었으리라고 믿었다. 면세 대상자인 자녀들에게서도 성전세를 거둠으로 질서를 뒤집은 이들도 그와 상응되는 망상에 사로 잡혀있다. 영적 사항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마치 영적이고 신성에 속한 것이 공물을 바쳐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땅보다 낮은 바다에서 성전세가 파생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끌어내린 듯 착각하는 망상에 사로잡힌 영혼의 모습이다.

본 장을 마감하기 전 이 기적 자체에 관한 한 마디는 말해야 할 것 같다. 이 기적 역시 신약 성서가 주님의 신성으로 채워있다는 것을 전시하는 경이로운 사항 중 하나임은 확실하다. 내적 권능으로 이 기적을 행한 사람은 전지전능 외 더 달리 말할 수 없고, 그분만이 세상의 통치자요 모든 사건의 조절자되심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리라.

본 장은 그 자체 온유하고 아름다운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복음서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있듯 주 예수의 지혜가 그분의 사랑의 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있는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 약하기 그지없는 어린 아이,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가 가장 똑똑한지 다투고 있었다. 결국 스승께 결론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누가 하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합니까?” 제자들 각각은 자기가 가장 위대해서 지배자이기를 바랐다. 가장 작은 자, 섬기는 자가 되고 싶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자연적 인간의 단순한 모습이고 이것은 제 각기 모든 이 중 가장 비천하고 모든 이를 위해 봉사하는 자신이 될 때까지 계속 각 사람 마음속에서 뿜낸다.

2, 3. 제자들이 자기들 분쟁의 중재자로 나서도록 주님께 요청했다는 것은 그분을 최고의 심판자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 결정에 맡기겠다는 표시이다. 어쨌든 자기들 중에서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것은 그들의 놀램이고 부끄러움이었다.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 생각 속에도 있지 않았던 질문이고, 그들 논쟁 속에는 더더욱 아예 없었다. 그들의 관심사는 그 나라에서 차지할 직함이 어느 정도이나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 중간에 어린 아이 하나가 서 있게 되고, 주님의 짧은 한마디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졌는 바, 가장 높은 자리를 가지고 다투도록 유인한 지배욕은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라도 대단히 부적합하다는 것, 이런 생각이 바뀌어 작은 어린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항은 가장 귀감있는 교훈을 운반해 주고 있다. 전환(conversion)없으면 구원도 없다. 각자를 주도하는 사랑이 자아로부터 주님으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돌아서야 한다. 또한 제자들은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 새로이 태어나는 것, 그들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그들의 모든 것이 순응하도록 순진해야 하고, 신뢰해야 하며, 가르침을 잘 들어야 한다. 주님이 본문에서 보이신 행동은 작은 어린이로 상징된 순진이 인간 삶과 마음에서 천국을 형성하는 모든 품위와 덕행의 가장 깊은 핵심 “한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다. 영혼이 하느님께 돌아서서 어린아이같이 그분께 의존함이 없이 아무도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4. 사실 제자들의 질문은 하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냐에 대해서가 아니라 누가 그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가에 대해서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순서상 먼저 필요한 작업임을 가르치셨다. 이제 그들끼리 언성을 높인 것, “누가 하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가?”에 관해 말씀하신다. 사실 주님께서 5장 19절에서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누가 가장 위대한가에 관해 그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 하늘의 본성을 예증하기 위해서였던 첫 번째 경우와 같은 형상이 그 나라 안에 있는 위대함을 예증해준다. “하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순진은 우리로 천국 사람이 될 자격을 갖추게 하는 품위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의 위대함은 그 품위가 받은 깊이와 충만도에 의존된다. 천국은 순진과 최고로 밀접되어 있다. 순진이 더 있는 곳에 천국도 더 있다. 모든 천국적 덕행의 본질되는 순진으로 진하게 물들어진 사람은 천국을 존재하게 하는 모든 특출함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해야만 한다. 순진이 모든 품위와 덕행의 본질되듯 겸손은 천국의 모든 품위와 덕행의 기름진 땅에 해당된다. 우리의 천국 또는 품위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과 비례한다. 가장 겸손한 자는 가장 드높은 자이고 자신을 가장 많이 낮춘 자는 가장 높은 자이다. 여기에는 모양새 그 이상의 것이 있다. 거듭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지니고 있다. 옛사람이 낮추어질수록 새 사람은 드높여진다. 자기 안의 옛사람이 작아질수록 새 사람은 더 위대해진다. 가장 높은 천사는 가장 완전하게 자아를 겸손하게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장 순진하다. 영적으로 그들은 지혜를 배우도록 우리에게 파송된 작은 어린이들이다. 하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해지고 싶다면 그들처럼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5. 자아 내지 자아만의 추구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인 순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그런 사람 안에 특출하게 거하신다. 이것이 이 구절,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인다.” 어린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순진이라는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를 행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겸손, 위장된 겸손으로가 아닌 진짜의 겸손, 심정으로부터의 겸손으로 그렇게 행한다는 말이다. 주님이 이런 진짜 순진 안에만 거하시듯 진정한 순진은 그분으로부터

선물로서 하사 받음으로만 달성할 수 있기에 순진을 받는 사람은 그 순진과 더불어 주님 자신을 받게되고, 그분과 더불어 오는 모든 천사적인 품위와 덕행까지 받게 된다.

6. “이런 순진의 원리를 받는 것은 절대 불가결하게 필요한 바, 순진의 거절과 파괴는 그에 상응하는 지독한 결과를 당연히 수반하여 이렇게 놀라운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제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단어 죄짓게 함(offend)은 실수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뜻에서 사용된다. 영적 의미에서 주님을 믿는 이 작은 것들 중 하나가 죄짓는다는 것은 우리 속의 진실한 것들 중 하나가 제 순진으로부터 돌아서고 그 순진과 반대되게 고집부려 뒤집는 것이다. 또한 주님이 계시는 순진의 어떤 원리를 제 스스로 뒤집어서 자아와 세상, 육의 욕망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뒤따라 기술된 비유적 표현은 대단히 끔찍한 경우이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는게 더 낫다”가 뜻하는 바, 순진을 뒤집는 사람은 악한 욕망과 왜곡된 추구로 확정되어버린 속에서 영영 남아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확정(confirmation)이 연자맷돌로 의미되는 바, 이는 그의 내적 인간과 그의 썩어진 외적 인간 사이의 교통이 영영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목이란 교통, 연결을 뜻한다. ”깊은 바다에 가라앉음“이란 자연적 마음의 왜곡된 추구에 영영 침전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저주의 끝없는 구렁으로 던져진다. 악을 확정해버린 상태가 이렇게도 끔찍하지만 그래도 주님으로부터 하사 받은 순진의 어떤 하나, 신성한 원리 어느 하나를 뒤집어 초래하는 결과보다는 차라리 더 낫다. 그 이유가 촉발된 이런 상태는 모두 중의 하나여서 선과 혼합된 적이 없는 악으로부터 결과될 수 있는 것보다 그 상황은 더 나쁘기 때문이다.

7. 이제 주님께서 선포하신다.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 세상이 죄짓게 하는 것은 있게 마련이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위에서 말한 바대로 죄짓게 함이란 실수하여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다. 실족하는 경우란 종교적 행동들을 고백하되 자기 종교가 마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해 연약해 있을 때이다. 이 연약한 종교적 상태는 그의 종교가 순수하지 못한 결과에서 언제나 초래된다. 그 이유가 그의 심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진의 품위에 낯선 사람 같기 때문이다. 이런 원인으로부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종교의 원인에 크나큰 상해가 있어져 왔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 짓는 것은 있게 마련”이란 무엇일까? 신성한 섭리가 보시는 바, 인간이 계속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도록 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가 자기의 종교적 고백을

신실하게 잘 키우든, 그렇지 못하든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 만일 그가 강제로 천국 품위들을 주입받게 된다면 그 상해는 주입 안 받은 상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나쁘고 더 다르게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즉 단순한 자들을 그들의 성실함에서 의도적으로 돌려 서게 하는 것, 또는 그들이 지닌 순수한 진리의 교리를 파괴하는 쪽으로 감정을 품도록 가르치는 것, 주님 나라의 천국 품위들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피해를 주거나 파괴하는 것 등등이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남을 얼빠지게 해서 죄짓게 하는 이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걸고 그 짓을 한다. 그래서 남을 죄짓게 하는 자는 참으로 불행하다라고 표현되고 있다. 참으로 불행함(wee)은 교회의 거룩한 사항을 통탄할만하게 뒤집는데 대한 탄식, 또는 이렇게 뒤집는 매체가 그들이 되었는데 바 비통한 그들의 처벌을 암시하기 위해 표현되는 성경의 단어이다. 본문의 경우 다른 사람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아 온 이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불행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이들까지 포함된 결과이다. 그 이유가 고통받음은 죄의 열매로 영영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을 죄짓게 만든 이들에게는 특별히 더욱 불행하다. 본문이 보여주는 바는 더 있다. 주님께서는 케이스 그 자체의 본성에서 야기된 차이가 나는 결과들 뿐 아니라 죄짓는 수준들을 슬기롭고 자비롭게 식별해 주신다는 것이다.

8, 9. 각자는 갈 길에 놓인 장애물을 찾으려 자신 밖을 둘러보려 나갈 필요는 없다. 손과 발, 그리고 눈이 우리를 죄짓게 할는지 모른다. 비록 우리의 신체 도구들이 범죄 행위가 있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손과 발이 죄짓게 하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기도 하다. “손이나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던져 버려라...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누구나 아는 바 이 구절은 글자대로 이해해서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이 구절은 자아부정이라는 교훈을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이다. 위 구절과 매우 유사한 구절이 5장 29절에 있어 이미 살핀 바 있다. 거기서 죄짓게 하는 신체부분을 제거함이란 마음의 의도가 행동으로 불거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의미되어지고 있다. 어쨌든 두 구절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두 구절에서 언급되는 눈과 손은 언급되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 한 문단의 시리즈에서 첫 번째 열거된 것은 문단 전체에 대한 품성을 준다. 따라서 제 5장의 경우 지성을 상징하는 눈이 먼저 거론되었으므로 이는 영적 수준의 계층과 관계되는 교훈이고, 본 문단의 경우, 의지를 상징하는 손과 발이 먼저 거론되는 바 이는 천적 수준의 계층과 관계되는 교훈이다.

처벌의 장소에 관한 언급 역시 전자는 그냥 지옥이라고 언급되지만 후자는 지옥 불이다. 불이 사랑의 상징물인 바 지옥 불은 자아사랑이 통치하는 곳, 가장 높은 천국 즉 하느님을 사랑함이 통치의 원리로 삼고 있는 천국과 정반대 된다.

10. 회복되어야만 하는게 순진이든 무엇보다 먼저 보존되어야 하는 것도 순진이다. 따라서 이 절의 경고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는 이 작은 것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순진함과 순박함(simplicity)을 업신여길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죄짓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특출함을 약점으로 간주해서 제 특출함이 더 돋보이지 않게 하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문의 경고는 자연적 측면에 대해서가 아니라 영적 측면에 대해서이다. 즉 각자는 자만이나 자기 과신 같은 것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말라고 의도된 말씀이다. 그 이유가 자만이나 자기 과신 같은 것은 그 사람으로 하느님을 뵈 수 있게 하는 심정의 순수성을 다치게 하거나 파괴하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잘 것 없는 것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주시고 있다.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천사들의 섬김(ministry)을 이보다 더 명백히 가르치는 성경의 교리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있지만 의식치 못한다. 우리는 이런 천적 존재들과 꾸준히 함께 하고 있다. 이 존재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선물을 우리에게 운반하실 때 사용되는 도구들이다. 더불어 주님은 어둠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사람을 시중드는 천사들은 각 사람의 상태와 품성에 꼭 맞아 있다. 예를 들어 유아와 어린아이들은 최고 높은 천국의 천사가 따라다닌다. 이 천사들은 주님을 태양으로 언제나 보고 있다. 그 이유가 그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순진 안에도 있다. 이런 상태를 글자로 가장 가깝게 표현해낸게 “그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는 본문의 문장일 것이다. 주님의 얼굴은 주님 안에 있어온 신성한 사랑,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본질측면에서의 신성이다. 그 이유가 아버지는 그분 안에 계셨고 그분은 아버지 안에 계시어 그들은 하나이었기 때문이다. 순수한 영적 의미에서 이 말들이 의미하는 바, 주님은 신성한 선의 측면에서 순진의 선 안에 계신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순진의 선이 어린아이로 의미되고 신성한 선은 아버지의 얼굴로 의미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위 주님의 말씀은 직접적이든, 좀 떨어진 거리에서 의미를 찾아보든 주님의 경고가 대단히 엄숙한 것은 틀림없어 우리는 유아의 순진이든, 유아의 순진으로 상징되었던 것이든 경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리라.

11.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하신 말들은 자연적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이 구절과 전혀 연결된게 없는 듯 보일 것이다. 그러나 영적 측면일 경우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끝없는 하느님의 보편적 사랑이 이 짧은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구절에서 어느 누구인들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못할까? 악의 골짜기에서 배회함에서 되돌아와 그분의 팔에서 참 고향을 발견하기 위해 그분의 구원해주는 품위를 받게 될 때 기뻐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빛이 이 구절에서 조금이라도 느끼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사람의 아들이 잃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말할 때 이는 어떤 인물을 두고 언급되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원리, 또는 어떤 품위를 두고 언급된 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성의 목적은 구원과 행복의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원리가 인간 심정 안에서 발견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순진은 인간이 타락으로 잃어버린 것이다. 주님께서 구속하심으로 회복시키려 하신 것은 순진이었다.

12. 그분께서 선포하신 위 진리를 비유로 예증해 주신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그대로 둔 채 그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이 비유는 그분의 양떼의 통일성(unity)과 그분의 사랑 모두에 대한 아름다운 진리가 담겨 있다. 그분의 양 우리를 벗어나 배회하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인간 본성을 입으심을 수단으로 하시어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려는 무한하신 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구절이 나타내고 있다. 주님이 보실 경우 천사와 인간은 한 무리로 한 우리, 한 목자밖에 더 없다. 그들이 안전해지고 더 없이 행복해지는 것은 그들이 단일체일 때 비롯된다. 한 마리가 울타리를 이탈해 배회하면 나머지는 고통받는다. 인간의 행복이 천사들과의 연결에 의존되고 있다면 천사들의 행복도 인간과의 연결에 비례되어 의존될 것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함으로 천국에 기쁨이 있다면 완강히 고집부려 회개치 않는 이들로 해서 천국에 슬픔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복음(15:4)에서는 목자가 광야에 양들을 남겨둔채 어둠이 깔린 산에서 목자의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까지 방황하는 양을 구하러 갔다고(예레미야 13:16) 말하고 있다. 이제 이 비유를 각 개인에 응용해 보자.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천국으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내적 측면에서 외적 측면으로 내려오신다는

말이다. 거기서 순진과 이타애를 찾아 회복시키신다. 그곳에서 내적 인간 안에 있는 원리와 상응되는 원리가 그 자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이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모습이다. 아껴두신 천국 원리들은 모든 사람의 내적 측면 안에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외적 측면에서 천국 원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길을 잃고 있다. 목자는 아흔 아홉 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아흔 아홉 마리가 있는 양우리에 합류시키기 위해 찾아 나선다. 이는 내적 인간의 원리와 외적 인간의 원리가 하나됨으로 완전함을 만들려는 것이다.

13.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 양을 찾게 되면 그는 길을 잃지 않은 아흔 아홉 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왜 울안에 있는 양들보다 잃었다가 찾은 한 마리 양이 더 기쁨을 주는 것일까? 내적 인간의 애정은 그와 상응되는 외적 인간과 연결을 갖고 있을 때만이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내적 애정이 홀로 있으면 그것은 마치 목자가 아흔 아홉 마리를 광야에 남겨둔 것과 같다. 그리고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되돌아 와 양 우리에 합류시키기 전에는 천국에 기쁨이 없는 것이다. 주님의 기쁨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주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느껴질 때 있어진다. 물론 주님의 기뻐하심은 사람마다 차별이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없다. 말씀에서 그분이 느끼신다고 말하는 구절은 우리에게 미치는 그분의 사랑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영감의 언어에 담긴 교훈과 타당성을 동시에 볼 수 있다.

14.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것 중 하나라도 멸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잃은 양의 비유는 이 구절의 진리를 예증해 주시기 위해서였다. 이 비유는 이 구절의 의미를 포용하고 있고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어 하늘 나라를 최말단 형태로 가져오신 의도도 이 구절이 열싸안고 있다. 더불어 부모와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감복하게 한다. 몸이라는 측면에서 교회는 어린이의 참 복지에 헌신적 관심을 쏟을 의무가 당연히 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결과되도록 하시는데 사용되는 매체 중 교회는 제 일 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확실히 있으려면 순진의 상태를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 하나 사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르친다던가 본을 보임으로서도 인간 존재의 구원이 가장 확실한 문제가 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증진시켜 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만큼은 의심할 바 없다. 이 중요한 작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의 길은

인간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드는 순진을 우리 어린아이들 안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잘 키워 가는 것뿐이다. 우리가 천적 품위를 더 지닐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에 있는 품성을 더 지니는 셈이다. 어린아이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글자 자체만으로도 이 얼마나 아름답고 온유한지! 이 구절에 따라 느끼고 행동해 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얼마나 걱정하고 계신지!

15-17. 언뜻 보기에는 앞 문단과 전혀 다른 듯한 의무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 의무는 수행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항목중 하나, 용서에 관한 의무이다.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된 일이 있거든 단 둘이서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잘못함을 서로 주고 받음도 없어야 하는가라는 식으로 이 구절을 두고 미리 생각해 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실제의 피해와 상상의 피해를 조심스럽게 구별해야만 한다. 피해라는 느낌은 감수성이 강한 자아사랑으로부터일 경우가 흔하다. 우리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된게 확실한 경우 그 형제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이런 법칙으로 규율되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의 과오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사를 이룬다면 많은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사라져 사회 분위기도 한결 맑아지고 유해한 망상도 많이 사라질 것이다.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다.” 우리가 형제에게 제 잘못을 일러준 것은 그를 얻으려고 해서 말했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 구절이 함축하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말할 때 그의 잘못 때문에 분개하는 마음도 없고, 그의 잘못을 더 확대해 책임을 물으려는 것은 더더욱 없는 상태에서 사랑있는 진리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친구로서 얻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형제로 얻기를 바라고 있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를 그의 악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따라서 우리가 그를 얻는 것 뿐 아니라 하느님도 그를 얻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실패한다면, 우리에게 과오도 없는데 실패되고 말았다면 다음 단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리하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확정하라’는 말씀대로 모든 사실을 밝혀라.” 이 구절의 말씀은 단순히 잘못된 자에게 죄를 묻기 위해 증거를 대라는 것은 아니고 양측 모두에 증언하는 것, 우리의 주장이 친절하고 정당하게 있었음을 잘못된 형제가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 형제를 얻으려 했던 노력이 어떤 이유에서 실패했는지 알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 말씀은 형제라는 측면에서 서로간의 차이를 우호적으로 조정하는 결과가 있어지되 형제라는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교회는 온화한 규율 외에 확고한 규율도 실시해야 한다는 것, 때로 병든 양을 양 우리에서 몰아 내는게 불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병든 양이 병을 옮기는데 양 우리 안의 모든 양이 병이 들 때까지 양 우리에 병든 양을 남겨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은 글자적 의미 수준에서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법칙이 영적 의미 안에 있다. 영적 의미에서 형제(brethren)란 이타애(charity)의 끈으로 하나되어 있는 이들, 그리고 믿음(faith)의 한 집안 식구에 속하는 이들이다. 추상적으로 형제는 이타애와 믿음의 원리 자체이다. 또한 이 형제들은 의지와 이해성,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에서 잘못함(trespass)이란 믿음에 이타애가 잘못된 경우, 바꾸어 이타애에 대해 믿음이 잘못된 경우이고, 어느 하나가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각 개인에게 이 원리가 적용안될리 만무하다. 그 이유가 바깥쪽에서 형제에게 잘못하기 쉽듯 우리 자신 안에서 내향적 죄를 범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타애와 믿음이 서로를 향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참된 이타애, 참된 믿음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이타애와 믿음의 품위가 어떤 인간 마음 안에서든 완전히 확실히 존재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 이 두 원리에 부착된 썩은 것들이 때때로 이것이 저것에, 저것이 이것에 잘못을 저지른다. 어느 쪽이 잘못하든 책망도 있게 되기 마련이다. 그 이유가 믿음의 잘못으로 이타애가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될 수 있고, 이타애의 잘못된 영향이 믿음을 충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비난이라는 모든 행동은 위와 같은 잘못의 예에 해당된다. 우리의 믿음이 이타애를 혼계하거나 이타애가 믿음을 혼계하는 때가 있는데 이것은 “형제가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을 두고 우리는 양심이 고발하는 행동이라 부른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타당한데 그 이유가 양심은 이타애와 믿음의 하나됨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하나됨이 존재하는 만큼 양심도 존재한다. 그래서 양심은 그 바탕에 어긋나는 행동을 정죄한다.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된 일이 있거든 단 둘이 만나서 잘못을 타이르는” 법칙이 어떻게 위의 경우에 응용될까? 우리의 이타애와 믿음, 마찬가지로 의지와 이해성 사이에 어떤 불일치가 일어나면 위반한 쪽을 정정하기 위해 피해받은 쪽을 들어쓰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다시 말해 만일 우리의 의지가 이해성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다면 이타애가 위반한 것인 바 우리는 이해성을 사용해서 잘못된 형제를 확신시켜 그를 얻는다. 바래던 대로 결과라면, 위반의 원인, 또는 사이가 틀어진 원인의

제거로 그 둘은 재회되는 것이다. 이런 첫 번째 되는 직접적인 시도가 실패한다면 다음 단계는 도움을 찾는 것, 말씀 속의 진리로부터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 또는 둘”이란 믿음의 진리와 이타애의 진리를 뜻한다. 이것들이 사용되면 “둘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확정하여 모든 사실을 밝히는 것”이 된다. 두 사람의 증거란 의지와 이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설명했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증거는 의지와 이해성 그리고 행동을 뜻한다. 자연계의 우리는 이렇게 세 사람 또는 두 사람의 증언으로 판결해 갈 것이다. 순수한 영적 의미에서 둘 또는 셋의 증언이란 말씀 속의 선과 진리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놓여진 사상은 이렇하다. 만일 악과 거짓이 그것과 반대되는 선과 진리만으로의 행동에 의해 제거되어질 수 없다면 모든 말을 지어낸 방계적인 선과 진리들로부터서 증언을 추구해야한다는 것이다. 악이나 잘못됨에 대한 이런 노력에 좋은 결과가 산출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호소는 교회 쪽이다.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 종교의 선과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바 영적 차원의 교회는 모든 선과 진리 자체를 의미한다. 고소자가 잘못된 형제에 대해 교회에 말한다는 것은 말씀 속의 모든 증거를 불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마저 성공적 마무리가 없다면 이에 저항하는 멤버는 선과 진리의 모든 법도, 천국과 교회의 모든 법칙에 반대하는 것인 바 거절된다. 이를 거둬나는 사람과 관련해 생각해 보면 잘못된 형제란 실제 있는 그 사람의 악이나 거짓이 아니라 걸치레적인 선과 진리 또는 이타애와 믿음의 원리들이다. 그럴싸한 선은 진리와 하나 안된 선이고, 그럴싸한 진리란 선과 하나 안된 진리들이다. 둘 중 한쪽이 걸치레적일 경우 다른 쪽에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참된 어느 한쪽은 상대 쪽과 제대로 재회하기 위해 상대 쪽을 고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위조된 원리가 순수한 원리에 너무 반대되어서 그것과의 합의가 있어질 수 없다면 거절될 수밖에 없다. 교회의 선과 진리 어느 쪽과도 참된 일치가 없는데 이것이 본문에서 “이방인이나 세리”로 의미되고 있다.

18. 위와 같은 훈계의 법도와 연결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뒤 있었던 주님의 선포가 다시 소개되고 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제 16장 19절에서 위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미 살핀바, 하늘과 땅은 내적, 외적 인간, 또는 영적, 자연적 마음이라는 것이다. 외적 인간에서 매고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적 인간 안에도 매이고 풀려진다. 이렇게 해서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은 합의가 이루어져 한 마음을 형성해 간다.

이 결과 선과 진리, 이타애와 믿음, 의지와 이해성 사이에 서로가 동의하는 계약이 설립된다. 그 이유가 실제에서 선과 이타애 그리고 의지는 내적 측면에 해당되고 진리와 믿음 그리고 이해성은 외적 측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살핀 바 있는 내용이 이 구절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결론지어 볼 수도 있다.

19.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인간이 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기꺼이 수여할 수 있는 자비가 그에게도 배분되어 지게 하는 태도에 자신을 놓아두는 것 이상 없다는 것, 그가 즐기는 선한 모든 것은 주님만으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제공되어진다는 것이다. 인간이 묻게 될 때 그가 필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다. 우리는 이 구절에 빗대어 기도의 필요성을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게 하는 요점은 이런 약속, 즉 하모니가 있는 둘이나 셋의 청원은 응답이 확고하다는 것이다. 특별한 교훈이 이 신성한 말씀 안에서 더 가르쳐지고 있다. 지상의 두 사람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의 둘이라는 의미가 기도에서 일치해야만 한다는 것, 그것은 골방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누구이든 동일한 법칙이라는 것이다. 반복해서 살핀 바 있듯이 말씀 속의 숫자는 양을 말하는게 아니라 질을 뜻한다. 숫자 둘은 결합 또는 하나됨을 명시한다. 그리고 모든 결합은 사랑, 또는 이와 같은 것인 선함으로부터 결과되는 바, 숫자 둘은 선함에 관한 측면에서의 품질을 나타내주고 있다. 숫자 셋은 충만한 것, 그리고 완전한 것을 나타낸다. 그 이유가 세 본질, 사랑, 지혜, 선용(use), 또는 영혼, 몸, 행동이 완전을 있게 하기 때문이다. 주님 자신의 경우 아버지, 아들, 성령의 셋이 하나를 이루고 이것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 안에, 그리고 창조된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세겹 배열은 신성한 진리의 법칙, 신성한 질서의 영원한 법칙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좋은 의미에서 볼 때, 숫자 둘은 선의 측면에서의 사물의 품질을, 숫자 셋은 진리 측면에서 사물의 품질을 명시해 준다. 이 구절에서 숫자 둘의 첫 번째 의미는 결합이고 두 번째 의미가 선에 관련된 품질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구절의 의미는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 만일 인간이 나쁜 마음이 아닌 하나된 마음, 즉 온 마음으로 어떤 선한 것을 바래고, 그것을 주님의 바램으로부터 주님께 묻는다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진실로 선한

상태나 원리로부터, 마음 안에 있는 선함과 진리의 결합으로부터 묻어지는 것이 무엇이든, 이는 인간 자신의 조절하에 있는 바, 이것이 지상에서 일치된 둘이 묻는 것으로 의미되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확실히 행하신다는 말이다. 이 구절에서의 아버지라는 용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본질 측면에서의 신성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다. 신성한 사랑은 보편적인 아버지이고 인간이 체험하거나 받을 수 있는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다.

20. 격려하시는 위의 말에 이런 보증이 더 첨가되고 있다. “내 이름으로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글자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와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 이 교회가 어떤 규모의 형태이든 그분의 사랑과 경외함으로 모이고 있다면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된 교회의 이점과 그 필요성까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영적 의미에서 이 말씀은 앞 절같이 개개인의 효과적인 예배에 관한 일반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진정 선행하고 참된 모든 것,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채우신다는 것, 그리하여 계속적이고 영원한 평화와 축복이라는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다. 둘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선과 진리가 합쳐지는 것이다. 셋이란 의지 안의 선과 이해성 안의 진리가 한데 어우러져 행동으로 결실 맺은 결과 충만된 상태, 완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주님의 이름”이란 그분의 본성과 품질이다. 무엇이든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수단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그분이 진실로 예배되는 것이다. 주님의 본성과 품질로부터 각자의 품질도 파생되어 있다면 거기에 주님 자신도 그분의 신성한 완전으로 계시면서 각자가 그분께 받았던 모든 것을 신성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그것들이 그분 자신과 행복한 주제로 한데 어우러져 영원한 결합이 있게 하신다.

21, 22. 어떤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된데 대해 주님께서 말하시자 베드로가 다시 묻고 있다. “그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일곱 번 뿐만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여라.’” 글자대로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주님께서는 무한정의 용서를 가르치시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 짓는 형제를 언제나 용서하라는 사상을 주입시켜 주시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주님의 이 말씀은 자비롭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 용서할 채비를 언제나 갖고 있으라는 것, 자비

자체요 용서 자체되시는 그분을 모방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똑같은 이 진리가 영적 의미의 더 높은 수준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영적 수준에서도 역시 용서함은 항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가 선 쪽으로, 선이 진리 쪽으로 기울려는 경향은 둘이 하나되려는 바램으로 중단없이 꾸준해야 한다.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는 숫자가 용서함의 범위와 불변성 같은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일곱은 거룩한 숫자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는 모습이 함축하는 것은, 우리의 용서함이란 베드로로 표현되는 믿음의 거룩한 원리로부터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예수로 표현되는 믿음의 거룩한 원리로부터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예수란 이름은 주님의 사랑측면을 표현하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진리 측면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23. 용서함이라는 주제에서 전달된 중대한 교훈이 이제 비유로 예증된다. 이 비유는 말씀에 있는 가장 교훈적이고 교화적인 말씀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하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밝히려 하였다.” 왕은 주님이시고 종은 인류이다. 더 뾰족이 말하면 종이란 자기가 그분의 교회 멤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주님이 누구신지, 제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특별한 측면에서 종이란 인간 마음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온 모든 원리들이다. “왕이 종들과 결산을 함”이란 반성(reflection)의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는 인간의 거듭남이 시작될 때, 그의 영적 상태와 영원함에 대한 그의 기대감과 더불어 그의 부족함으로 야기된 걱정, 동시에 영원한 과멸이 제 책임이라는 걱정의 시작과 더불어 있어진다. 말씀으로부터 제 진정한 상태에 관해서, 영원한 세계에 관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아 왔던 무수한 은혜에 관해서 배운 사람들이 그것을 심각히 생각해 보았다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님께 빚지고 있다는 채무자라는 생각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게다가 신성한 자비가 자신에게 베푼 선용까지 더 곰곰이 헤아려 볼 때 이런 은혜에의 보답을 하는데 자신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실로 자아사랑과 자만이라는 것으로 해서 눈먼 상태였다는 것, 자신이 받은 만큼 보답한다는게 얼마나 불가능한지까지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신성한 진리의 계발로 심각히 생각할 때 자신에게 위탁된 재능(달란트)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달성하라고 맡겨졌다는 것, 그런데 자기는 이런 재능을 오로지 세상적이고 덧없는 목적물에 집요하게 방향을 맞추고 있어왔다는 것, 비록 그가 보물을 이 삶에 위해 쌓아서 부자가 되어왔다해도 하느님을 향해서는 부자가 아니라는 것 등등을 지각할 것이다.

이런 사항은 영원한 것을 심각히 생각해 보도록 맨 처음 일깨워질 때 모든 사람에게 와지는 반성(reflection)일 것이다. 주님 자신으로부터의 유입(influx)을 수단으로 위와 같은 반성의 동요가 “왕이 종과 셈을 하게 됨”의 경험적 형체이다.

24. “셈을 시작하자 일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 왔다.” “...사람이... 끌려왔다”란 인간이 주님께 빚진 무한한 은혜에 대해 인간 마음이 처음 지각하는 것이다. 사실 이 채무자는 주인에게 “끌려오기” 전부터 채무가 있었다. 이는 인간이 출생 때부터 자연적 재질과 영적 재질을 광대하게 부여 받았다는 말이다. 이는 당사자가 그렇게 고풍이 되새겨 보든 그렇지 않은 받은 것이 틀림없다는 것까지 포함되는 말이다. 주인의 눈 앞에 끌려온 종이 진 빛이 큰 액수라는 것은 인간이 서 있는 상태에 관해 그의 마음에 불러 일으켜진 왕성한 지각을 표현하고 있다.

25. 종이 진 빛은 큰 액수였던 바 “그에게는 갚을 길이 없었다.” 이는 시련의 상태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주인이 오실 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넣었던지 아니면 어느 이윤있는 곳에 투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지각함이다. 그 결과 “왕은 ‘네 몸과 네 처자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고 명령하였다.” 이는 더 진전된 지각이다. 인간 마음에서 이런 상태가 나타난 것, 즉 자신을 품위있게 해주는 우수성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 영원한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힌 노예로 서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각함이다. 그리고 만일 신성의 관대함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푼 것보다 더 많지 않을 경우 어둠의 노예가 되는 것만이 제 몫임에 분명하다는 것까지 지각한다. 주인이 종에게 “팔으라”고 한 것은 주인에게 빚진 모든 것을 엄격하게 되돌리게 하려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는 인간 측면에서 있어지는 지각, 즉 위에 서술된 그대로와 같은 결말은 인간이 제 고집을 우겨갈 때 당연히 부수되고야 만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다. 비록 이 종은 주인께 큰 액수의 빚을 지고 있긴 해도 아직도 자기는 주인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바, 인간이 반역하고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인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이상, 자신이 스스로 주인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그는 그분의 나라의 신하로서, 그분을 섬기고 있다는 점이다. “팔리워짐”이란 완전한 자유를 잃는 것, 아주 선량한 주인을 섬김에서 따돌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주인이 자기를 지배하라고 돌이킬 수 없는 서명을 하는 것, 그리하여 이런 종들은 가장 절망적으로 잔인한 노예 취급을 받게 된다.

바꾸어 말해서 어둠의 권세와 지옥이 지배하라고 자신을 내놓는다는 말이다. 게다가 자신 뿐만 아니라 처자와 가진 모든 것까지 팔아야 한다. “남자와 그의 아내”란 마음을 이끄는 두 개의 일반적인 능력을 뜻한다. 이는 의지와 이해성이다. “그의 자녀”란 의지와 이해성의 활동과 동시에 생산되는 선하고 참된 것에 관한 모든 감정(sentiment)을 뜻한다. “그가 지닌 모든 것”이란 행동을 결과 되게 하는 모든 결정, 그리고 마음의 더 낮은 수준에 소속된 모든 것을 뜻한다. 이런 것을 팔아치움은 그의 마음이 주님과 그분의 나라로부터 영영 소외되는 것을 뜻한다. 팔아 치웠을 경우, 의지는 제가 판단하기에 악밖에 없어 더 이상 선한 것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이해성이 참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각하는 것은 오로지 환각적이고 왜곡된 것뿐이다. 이런 마음 상태가 생산하는 것은 무슨 감정이든 왜곡된 질서 속에 있고 그 마음 안에 놓인 모든 것은 언제나 왜곡된 쪽으로 기울려하고 그쪽에서만 확증을 발견한다.

26. 큰 은혜를 입은 것, 빛진 것을 되돌리는 의무를 우습게 여긴 결과 생산된 마음의 상태를 표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종이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곧 다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이 모습은 보다 높은 영적 사항에는 하등 관심도 없이 자연적인 것만에 집착되어 잃어버린 마음의 상태를 지각하기에 앞서 구경만 해도 흥분되어오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 구절의 모습은 그분의 자비를 얻는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쪽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바램과 첫 시도, 더불어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련의 관대함이 그분으로부터 계속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청원함도 동반되고 있다.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림은 인간이 제 하느님 앞에 내놓는 깊은 부끄러움, 실지의 부끄러움 그 이상의 심정으로 느낀 인간의 부끄러움, 제 스스로로서는 너무나 무가치하고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부끄러움을 뜻한다. 이런 심정 상태에서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모든 선이 그분으로부터 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기운차게 확신하여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다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말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아래 계속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탄원하는 것, 그분의 정부가 자기를 통치하되 정죄만 하는 신성한 진리만으리가 아니라 신성한 선함과 자비로 통치해달라고 간청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안의 순수한 자비만이 인간의 복잡한 도발을 참아 내실 수 있다는 것을 지각한 결과로 있어진 간청이다. 그리고 “다 갚았습니다”라고 말한 신성의 관대함으로 채무자 관계가 끝나게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어떤 인간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주님께 지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선을 실지의 삶으로 제멋 되게 하는 것, 또는 애정의 최고 목적물의 저자 되시는 그분만이 순수한 선함과 진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 지금까지 입은 은택과 사랑을 그분께 되돌림으로 얻어지는 선한 삶을 약속하는 것이다.

27. 채무를 면제하는 해결책과 청원이 종에 의해 이루어 졌지만 그가 실지 값은 것으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런 타입에 속한다. 그러나 어떻게 그의 청원이 받아들여졌을까?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빛을 탕감해주고 놓아보냈다.” 이 모습은 인류 개개인을 향한 신성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한없는 보편성을 지녔는지를 진실로 그려주고 있다. 우리의 직무태만이 얼마나 크던지 상관없이 주님께서서는 범한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시지 않고 그것 모두를 값없이 청산하신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악 가운데 여전히 침몰된 상태이던, 또는 우리의 진정한 복지를 청원하는데 맞추어 우리가 악들을 포기하고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상태이던 간에 값없이 청산해 주신다. 이렇게 주님의 자비의 본성은 한없으시다는 것이 계속되는 비유 부분에서 더 명백해진다.

28.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밖에 안되는 빛을 진 동료들 만나자 달려들어 떡살을 잡으며 ‘내 빛을 값아라’고 호통을 쳤다.” 앞 절에서 이 종과 주인 사이에 오고 간 온유한 광경과 이 절에서 “밖에 나간” 이 종에 의한 행동 사이에 있어진 상태의 변화를 우선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종은 “밖으로 나갔다.” 이 구절 앞부분에 기록된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관한 모든 것은 마음 안에서 거행된 사항들이다. 죄의 자각, 양심의 가책, 청원, 용서함 등등 앞부분의 사항들 모두는 내적 인간의 행동들로 되어있다. 이것들이 바깥쪽 인간에서 동시에 발생함은 내향의 작용에 인내와 결과를 주기 위해 필요하다. 마음속의 생각과 애정들은 생활 속에서 말과 행동들로 확장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진짜 상태를 결정짓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있다. 골방 안에 있을 때와 세상 “밖으로 나간” 때의 우리는 얼마나 다른지 모른다. 내적 인간은 천국과 직접 연결되어 활동한다. 그 반면 외적 인간은 세상과 직접 연결되어 활동하는 마음의 부분이다. 우리의 두 인간이 활동하는 무대는 전혀 다르다. “이 종이 밖에 나갔다”고 뚜렷하게 기록된 이유는 내면에서 외면의 상태로의 하강을 표현하려는 의도에서였고, 이런 상태에서 그는 행동으로 체험된 자비를 가져올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 방금 습득한 것, 주님의 가슴에 무한하게 담긴 사랑과 용서하는 경향성을 행동으로 진열해 주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본 구절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가 만난 그의 동료 종이란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품위를 받은 자질 측면에서의 외적 인간을 뜻한다. 그 이유가 외적 인간이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내적 인간의 형상과 일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결코 거듭나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종이 빛진 백 데나리온은 외적 인간 또는 자연적 인간의 수용력이 충만함을 뜻한다. 숫자 백은 충만을, 데나리온은 자연적 인간에 특유한 것, 다시 말해 자연적 인간에 잘 어울리는 모든 진리들, 사실상 자연적 인간의 모든 수용력과 재능을 뜻한다. 일만 달란트가 전체 인간을 의미하는 반면 백 데나리온은 자연적 존재 측면의 인간이란 점에서 서로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일만 달란트를 좀더 특별히 말하면 영적 존재 측면의 인간이다. 백 데나리온은 두 번째 종이 첫 번째 종에게 빛을 진 액수로 말해지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자연적 존재 측면의 인간의 모든 수용능력은 영적 존재로서의 당사자가 사용하는데 봉사하도록 고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적 인간은 내적 인간의 재산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두 번째의 종도 첫 번째의 종이 주인과의 관계에 있을 때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내적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선물과 천부적 재질을 직접 받듯이 외적 인간은 내적 인간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직접 받는다. 엄밀히 말해서 내적 인간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의 재질을 받고 외적 인간은 내적 인간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그것을 받는다. 늘 말했던 바, 영혼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생명을 받고 몸은 영혼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내적 인간은 그의 능력과 덕행의 똑같은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외적 인간의 이 재질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권리를 더 이상 가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칫 그렇게 주장하기 쉽다는 것이 본문에서 발견된다. 즉 첫 번째 종이 두 번째 종을 붙잡았다고 말해진 것이 이에 해당된다. 첫 번째 종이 두 번째 종을 붙잡은 방법은 먹살(throat)을 잡는 것, 글자대로 보면 질식되게 하는 방법이었다. 이 얼마나 놀랄만한 묘사인지! 이는 그의 자연적 인간의 선물과 재질을 비질서적인 술수를 써서 소유하고 싶을 때, 그것들을 더 높은 목적에 복종시키고 싶지 않을 때, 또는 주님께 의존해서 그것들을 즐기고 싶지 않을 때 인간이 행하는 것을 목이 조이는 모습이 담고 있다. 제 6절에서 살핀바 같이 목(neck)은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사이의 교통을 뜻한다. 목을 조여서 머리로부터

더 몸에 이르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은 내적 인간으로부터의 교통이 닫힌 것을 표현한다.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사이에 교통이 두절되는 상태가 첫 번째 종이 두 번째 종의 목을 죄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무자비한 채무자의 이런 의미있는 행동에 동반된 “내게 진 빚을 갚아라” 는 그의 말은 자연적 인간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자연적 능력에 강압적으로 더 요구하는 것, 자연적 인간의 모든 재질을 자신의 것으로 사취하겠다는 결정, 마치 자연적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은 무제한적으로 탐닉할 수 있는 것처럼 결정해버리는 것, 자연적일 뿐인 존재, 동물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 인간 존재의 유일한 목적이라도 되는 듯 결정해버리는 것 등등을 명확하게 함축하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그가 내적으로 받아들여 온 신성한 품위는 무엇이든 마치 자연적 인간에 소속된 어떤 것 중 하나인 듯 모두 비쳐지기 마련이다. 이럴 경우 “내게 진 빚을 갚으라”는 요구 안에는 마치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제것이라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고, 제가 선한 사람이 된 공적 역시 자신의 공로라고 우겨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29. 이런 물음이 있어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기의 자연적 재질을 사용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종교는 모든 자연적 추구를 금하는 것인가? 모든 자연적 쾌락이 범죄라고 종교는 말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주님께서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리라”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고 있다. 자연적 추구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자연적 추구가 영적 추구에 종속되어 있을 때이다. 이 때만이 인간의 자연적 재능은 당사자에게 진실로 가치가 있고, 그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것이 첫 번째 종에게 사정없이 당하는 두 번째 종의 답변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그 동료는 그의 발치에 엎드렸다.” 이는 자연적 인간의 능력들은 인간이 사용하라고 고안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 “그는 ‘조금만 참아주게 꼭 갚겠네’” 하고 애원했다. 이 모습은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끌려갔을 때 했던 말과 똑같다. 이 구절의 경우에 함축된 것은 주님이 그에게 요구한 의무들을 완수하겠다는 인간 부분에서의 결정과 약속이다. 여기서의 이 의미는 동료 종에게 주어진 경우에 적합하도록 수식되어야 할 것이다. 동료 종이란 인간 자신이 아닌 인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질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큰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인간의 자연적 능력들은 당사자가 그 능력을 사취했을 때 적절한 사용이 있어진다는 것, 어떤 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연적 인간을 섬기는데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만 참아주게”라는 요구는 이런 지각, 즉 자신의

자연적 재질이 잔인하게 속박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다. “다 갠넌”이라는 약속은 한 걸음 더 진전된 지각, 즉 자연적 능력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정당한 사용으로부터 파생되어야 한다는 지각, 즉 그것들이 영원한 목적에 종속되어 있을 때 그로부터 가장 큰 기쁨이 파생되어온반된다는 것, 동시에 그것들은 내적 인간의 복지에 기여해서 인간의 참 행복을 산출해낼 것이라는 지각이다.

30. 이런 지각에도 한계가 있다. 비록 자연적 인간의 능력을 더 충분히 사용한다 해도 당사자가 외적 상태에 있을 경우 인간의 바램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의 자연적 선물을 제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마치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듯 공허하게 여긴다는 말이다. 이런 모습이 두 번째 종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첫 번째 종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있다. 오히려 첫 번째 종은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갠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 모습이 의미하는 바, 인간이 외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에 관심을 두고 있게 되면 그는 자기의 자연적 인간이 지닌 재질을 그의 뒤집혀 있는 욕망과 부패된 경향성에 노예가 되게 한다는 것, 그가 자기 재질을 모두 자기 것이라고 계속 우겨대는 한 그 재질 자체가 해낼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집행하라고 계속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 재질의 적절한 사용을 회피하여 돌려놓음으로 적절한 자유를 박탈하고 대신 그것들을 채무자로서 더욱 호되게 다룬다.

31. 이런 남용이 신성한 자비를 통해 계속 점검되지 않으면 결국 그 인간을 통째로 파멸시키는데 이런 사항을 당사자가 주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하나님의 수단들이 이 죄인으로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갖도록 채용되어진다. 이런 수단들이 “다른 종들”이다. 이 종들은 일어난 사건들을 주시하고 있고 주님께 자기들이 본 것들에 대해 비평하고 있다. 이 종들이란 그의 마음에 받아들여진 모든 진리들,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기억된 것들, 거룩한 말씀을 수단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직접적 통로이든 간접적 통로를 통해서이든 그 사람이 지닌 모든 진리를 말한다. 이런 진리를 수단으로 양심이라 불리는 원리가 마음 안에 형성된다. 이것과의 교통으로 주님과 천국이 우리 속에 계속 보존된다. 인간 자체로만 본다면 지독하게 부패되고 약해서 주님께서는 인간 고유의 어떤 것하고도 교류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신성한 진리에 관한 지식이 모든 이 각각의 마음 안에 은근히 주입되어 있다. 그것과 결합된 애정들, 이것은 인간 고유의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있는 주님의 것이다. 인간이 악을 실지 행하거나 자연적 인간만의 경향성에 쏠리 올 때 고통이나

후회함이 느껴지는 것은 위와 같은 섭리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께서서는 그분께서 인간 마음 안에 이식해 두신 진리 안으로 흘러드시어 인간 개혁에 필요한 것이 작동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당사자가 결정적으로 양심에 반대하여 확증하지 않는 한도에서이다. 만일 그가 이렇게 확증했다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말씀으로부터 받은 진리들은 그의 마음으로부터 폐기된 양상을 띄게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충고하느라 노력한 양심도 충고를 중단한다. 그러면 애당초 느꼈던 고통, 즉 그에게 더 나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씀으로부터 온 지식들이 그의 마음에 공급된 이후 악과 무질서로 빠져들었을 때 느껴지는 고통이 다른 동료 종들의 말,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매우 서운했다”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다. 매우 서운함이란 인간의 행동과 마음에 받아 썩어있는 신성한 진리 사이의 불일치를 뜻한다.

32. 매우 서운하다는 표현가지고 그의 악행을 억제하는데는 불충분한 바 필요한 단계는 격렬한 훈련에 그가 돌입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다른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여 그가 견책당하고 처벌받는 것에 담겨 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들여 ‘이 몹쓸 종아, 네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빛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하고 말했다. 이는 분명한 지각을 뜻한다. 그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교감된 것,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그 진리에 기초한 판단으로 확신된 것, 이 확신까지 참고 견딘 양심의 고통은 실로 쓰라림 그 자체였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다. “이 사악한 종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는 영원한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악행이 발견되어 그것이 악함을 선포하신 것이다. 인간이 납득해 본다면 해도 그의 행동은 악밖에 남아 있는게 더 없다는 것, 유전성으로나 그의 자유선택으로나 모든 그의 본성은 썩은 것밖에 더 발견할 수 있는게 없다는 것 아닌지! “네가 애걸하기에 나는 네 빛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이는 마음에 주님의 자비를 순수하게 가져다주심이 분명하다. 주님은 그분의 자비를 후하고 아무 책망함도 없이 베푸시고 있다. 주님이 자비를 입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그분의 일부를 받아 가라는 바램뿐이다. 이것은 인간의 의무로 있어야 할 행동이 정녕 무엇인지 지적하기 위해 소개되어 지고 있다. 이 의무를 준수함이 없으면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에 역부족이다.

33. 주님께서 더 말을 이으신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만큼이라도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이 우리를 가르치는 바, 인간은 이타애를 그의 외적 인간 측면에서도 행동 지침으로 삼아서 외적 인간과 내적 인간이

이타애를 가지고 서로 교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 글자대로의 서술만 가지고도 이보다 더 강하고 더 측은하고, 더 감동적인 서술 양식은 없다고 해도 무방할는지 모른다. 인간은 제 가슴에 이타애와 용서라는 느낌을 함양해야 한다는 교훈을 위 구절보다 더 강력하게 전달하는 구절이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종이 이런 인간의 의무를 되씹도록 그는 주님의 이런 말씀, “나는 네가 진 빛을 모두 용서했다”는 신성한 말씀을 이미 자기 앞에 지니고 있다. 신성한 자비, 사랑, 그리고 용서의 꾸준한 현존을 확인했다면 그것만 가져도 그가 용서받은 악을 제거해 가는데, 사랑의 원리로 행동해 가는데 충분치 않을까?

34. 인간이 행동하지 않은 결과, “그 주인은 몹시 노했다.” 이런 표현은 모든 선의 근원 안에 복수심에 불타는 열정같은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라 사악함의 상태와 신성한 사랑의 대립이 표현되고 있다. 더불어 사악한 자는 제 심정과 지성에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 본래 모습을 볼 능력도 없다는 것까지 표현되고 있다. 그 이유가 인간이 신성한 본성에 관한 내면의 생각을 형성할 때는 언제나 자기 고유의 상태를 매체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노하셨다는 표현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인간이 악에 빠지거나 자기의 자연적 인간의 능력들을 단지 이기적으로 공리화한 것만 증진시키는데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그는 주님으로부터 자신을 돌려놓은 것이어서 예전 같은 즐거움, 사랑의 하느님, 빛진 모든 것, 자기의 부족한 모든 것의 의무를 면제해주시는 하느님으로서의 그분을 내향적으로 직감하는 즐거움은 더 이상 없다는 말이다. 설사 이런 진짜 즐거움의 상태가 회복되려면 이에 앞서 격렬한 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그 이유가 시험이라는 수단만이 그의 애정에 붙은 악을 제거해 줄 수 있어 그의 심정이 더 이상 몹쓸 것을 탐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이 본문에서 그 주인은 “그 빛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형리에게 넘겼다”로 표현되어 있다. 본문의 관점에서 볼 때 그에게 도래된 모든 것의 지불이란 주님만이 요구하실 수 있는 지불의 종류이다. 이 지불은 주님의 자비를 깊이 감사하여 받아들임에 있고, 나에게 주어진 재질을 선용함으로 내것 삼아서 그것을 목적에 잘 충당함에 있다. 그리하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오로지 주님으로부터라는 것을 진실되게 인정하여 주님께 그것 모두를 되돌림으로 청산된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악을 계속 고집해 가고 있다면 위의 구절이 묘사하는 바는 시험을 수단으로 해도 그의 악은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그가 받았던 진짜 선들, 그가 남용해 온 모든 고상한 자질들을 박탈해서 황폐되게 해야 청산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빛을 갚는 형태는 우리가 살았던 것과 다른 측면을 갖게 된다. 즉

인간이 계속해서 뒤집어 놓은 그에게 수여된 모든 재질을 주님께서 되찾으시는 것이다. 한 때라도 악이 마음 안에서 확증되어버리면 그 악은 시험이라는 훈련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더욱이 이 제거됨은 선이 그 마음에서 득세하기 전에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선이 그 마음을 계속 통치하는 상태에서 준비가 마무리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선 또는 진리가 애정 안에 받아들여지고 확증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악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면 이 때의 악은 마음의 황폐를 수단으로 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이 비참한 자가 어둠의 처소 안에 그의 마지막 거처를 두기 전 그가 지녔던 선과 진리는 제거되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제거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모독의 상태가 유발되었기 때문인데 이런 상태는 선과 혼합 안되었던 악보다 더 지독한 공포가 수반되어진다.

. 아무리 잘 보아준다 해도 한때 확증된 악은 고통스런 시험이 아니고서는 그의 내면으로 부터 결코 제거되지 않기에 이 구절의 말씀은 우리 가슴에 정녕 강하게 와 닿아야 할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자연적 의미에서 이 구절이 가르치는 바, 우리가 타인을 향해 이타애를 실습한 만큼에 비례해서 자기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적 의미에서 이 구절이 가르치는 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 또는 면제시켜 주시려면 인간 스스로 악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다.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바라는 사랑은, “우리에게 빛진 자를 용서하듯 우리의 빛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다. 이는 우리가 빛진 자를 용서함이 우리에게 수여될 용서함에 관한 신성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신성한 질서에 있는 이런 규정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기도문으로 못박아 명령되어 있는 바 여하한 어떤 근거에서도 용서함의 원리를 찾으려 드는 것을 이 구절이 매우 강력한 말투로 금지시키고 있다. 고로 본문의 의미는 이러하다. 우리는 자신의 경향성과 행동에 스스로 능력을 줄 수 있는 바 영원한 진리와 선함의 법칙을 그 능력이 받아쓰게 해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우리는 자신의 자연적 인간에 소속된 모든 것에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실제의 악들을 삼갈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악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마음이 쏠리거나 저지르고 싶은 충동적 상상에 고집스럽게 안주하려드는 생각이나 의지를 조절할 수 있다. 이 조절이 가능한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제 형제가 잘못된 것을 용서할 수 있다. 우리는 행동 규칙으로 선 또는 이타애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타애의 원리를

위반할 때 위반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 그것들을 제거 또는 청산할 수 있다. 그만큼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 내면에 존재한 악을 탐닉하는 욕망 내지 그 경향성을 삭제해 주실 것이며, 그 결과 이타애와 자비의 판단으로 정진해 갈 수 있게 되리라

19

풀기가 쉽지 않은 두 개의 질문이 본 장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나는 결혼의 본성에 관해서, 다른 하나는 구원의 조건에 관해서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인간들을 구속해 주신 그분의 입술로부터 위 주제에 관한 진리를 듣고 있다. 그리하여 원래의 순수한 결혼을 회복시켜 주신다. 어쨌든 인간의 근원되는 질서와 행복을 되찾는 것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할 특전도 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리라.

1.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래아를 떠나 요르단강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는 인간 안에서 갈릴래아가 표현하는 외적 측면으로부터 요르단이 표현하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유다로 표현되는 내적 측면으로 주님의 사랑 또는 선함이 진보해감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주님이 당도하신 곳은 유다의 변두리(coast) 지방이었다는 것은 주님이 승강되시되 내적 측면 자체라 할 수 없고 내적 측면의 가장자리에까지만 승강되심을 함축하고 있다.

2. 이곳에서도 늘 해오셨던 구제 사업을 다시 해주셨다.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 왔으므로 거기서도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자신들이 상속받은 약함과 자질들이 벌어들이는 허약함에서 자유되기를 바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속의 애정이나 생각들, 그래서 처져 있는 애정과 생각들을 승강시켜 그분과 결합하게 한다면 건전함을 회복하여 천국 질서에도 가져와 쓸모있는 것이 되게 해서 행복한 활동을 하도록 하게 된다.

3. 이런 선한 상태가 있는 곳에서 악 자체도 모습을 드러낸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무엇이든지 이유가 닿기만 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라고 물었다.” 선한 애정과 생각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 주님께 매달리고 있을 때

악한 상태는 그 반대로 흥분되어 음험한 추론방식을 써서 신성한 진리의 권위를 전복해 보려 시도한다. 하느님의 아들 사이에 있는 사탄 같은 바리사이파인들, 또는 진리의 어떤 다른 적들이 선하고 신실한 이들이 모였있는 데에 잘 나타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시도가 있다 해도 주님께서는 그 기회를 역이용하시어 더 명백한 지각, 진리가 더 충분한 확증을 가지게 하시어 마감지으신다. 이런 상태는 만일 우리가 주님께 신실한 쪽에 있다거나, 자신으로 최선의 것에 흥미를 갖게 하고 있을 경우, 반역만 해대는 이기심이 따지려드는 것이나 제기하는 모든 의심의 결과에 해당된다. 바리사이파인들이 제시한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은 일반 원리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해서 우리로 시선을 뺄 수 없게 한다. 이혼의 법에 관한 질문은 이미 5장 31절에서 생각해 보았다. 이 본문의 경우는 위 질문이 있게 된 유대 교회의 견해와 실제에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모세가 이혼에 관하여 상세하게 일러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의 합법적 원인이 무엇인지, 또는 남자는 어떤 원인의 경우 제 아내를 버리면 안되는가 등등에 대해 후기 시대의 유대인 사이에 이런 저런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크게 두 개의 다른 견해가 유대 신학교를 통해 제기되어왔었다. 그 중 하나는 명예롭지 못한 것이 이혼의 원인이라고 제한해 둔 쪽이 있는 반면 남편의 불쾌함만 가지고도 충분한 이혼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쪽도 있었다. 바리사이파인들이 주님께 다가온 것은 사실 자신들이 지지하는 견해에 관해 평을 듣고자 했던 것이다.

4, 5. 주님께서 바리사이파인들에게 대답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이 지닌 견해나 논쟁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 게다가 그들 논쟁의 근거지인 모세의 법에까지 거슬러 올라 가시지도 않으셨다. 이혼에 관한 이러한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법을 언급하시는 것 대신에 결혼에 관한 본래의 법칙으로 되돌아 가셔서 창조자의 법과 창조는 한 가지 원인을 빼면 변할 수 없는 결혼의 묶임인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과 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이 신성한 말씀은 결혼의 근원이요 진정한 기초이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됨은 그 본성이 영적이듯 영적이도록, 그 존재가 영원하도록 고안되어있다. 모든 하느님의 창조물중 인간만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형성되어있다. 다시 말해 그분의 형상과 모양(image and likeness)이 인간의 전체 본성과 구성에 박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태초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 때 신성한

형상(image)은 하나됨이 놓이는 특색있는 차이에 심오하게 관계하고 있다. 하나됨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아마 남자는 하느님의 형상으로, 여자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해볼 수 있다. 인간을 형성하게 되는 위 두 가지 유사함은 본질 측면에서 하느님은 사랑 자체와 지혜 자체이시다 는 것과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지혜를 받는 그릇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만 이해될 수 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지혜가 그 사람을 하느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이 그를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든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라 한 몸(one flesh)”이 될 만큼 매우 밀접하게 하나되기 위하여 남자는 하느님의 형상으로서, 여자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남자는 하느님의 지혜를 담은 그릇 또는 형체이도록, 여자는 그분의 사랑을 담은 그릇 또는 형체로서 창조되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랑과 지혜가 완전한 하나이듯, 여자 안에 있는 사랑과 남자 안에 있는 지혜도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하나이도록 고안되어져 있다. 거듭 말해서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랑과 지혜의 하나됨의 형상이 되도록 고안되어져 있다는 말이다. 남자 안에 있는 형상과 여자 안에 있는 모습(likeness)은 하나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신성한 마음에 있는 사랑과 지혜의 하나됨은 인간 마음 안에서 하나되려는 갈망이 더 증가되게 한다. 그래서 결혼으로 하나되는 두 개는 하나되려는 열망의 결과이요, 불순한 바람이나 무가치한 동기로 얼룩져서는 안되는 바, 하느님께서 합하여 놓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되는 둘인 것이다. 이미 말한 바, 주님 안에 있는 사랑과 지혜의 하나됨이 결혼의 가장 높고 첫째되는 근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결혼의 그 직접적인 근원은 각 파트너 자신들 마음에 있는 이타애와 믿음 또는 사랑과 지혜가 하나됨에 있게 된다. 사랑과 믿음이 결혼하는 것, 이러한 천국적인 결혼 가운데 있는 이들만이 진정한 결혼인 심정과 영혼이 하나될 수 있다. 진정한 결혼은 영적인 하나됨이다. 따라서 진정한 결혼에서 하나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되려는 것밖에 없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혼이 대중화되었음을 본문을 통해 엿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는 그들이 결혼을 자연적 수준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에 이르러서도 수많은 결혼 생활(matrimonial connection)들이 불행한 채 있는 것도 자연적 마음의 수준에서 비롯된 결과라 생각한다면 과히 놀랄 일도 아니다. 불행한 결혼은 서로 어울리지 않아서 많이 발생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각 자에게 있는 좋지 못한 것(gill-conditioned)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할는지 모른다. 이것이 어떤 환경 조건에 있더라도 결혼에 있는 각

파트너를 행복해질 수 없게 하고 만다. 다시 말해서 결혼이라는 계약 속에 있는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되는 원리를 갖고 있지 않던가 또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를 모르고 있다면, 둘 사이를 하나되게 하는 묶임이 피상적이지요 짜증나게 하는 것밖에 더 달리 되어질 수 있을까?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은 진정한 종교와 연결되고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 이럴 때의 결혼만이 영적이고 영원하다. 그 이유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만이 하늘로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요,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영원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 총각 처녀가 하나되는 결혼은 진정한 부부만의 사랑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고 살핀 위의 관찰은 주님의 말씀을 영적 의미에 의거한 설명으로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영적 수준의 주제가 인간 마음 안에서 사랑과 지혜의 하나됨, 이타애와 믿음의 하나됨인 것은 이미 말했다. 이 하나됨이 천국에 비유되는 결혼, 천국을 만드는 결혼이다. 그 이유는 천국이 사랑과 믿음이기 때문이요 사랑과 믿음이 천국을 만들기 때문이다. 어떤 장소라는 측면에서의 천국은 상태라는 측면의 천국으로부터 그 품성이 비롯된다.

원리 측면이든, 각 개인 측면이든, 하나되어 존재하게 되는 진정한 결혼 조건이 창조자로서의 주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취지를 가지고 주님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참으로 결혼은 인간의 조건을 바꾼다. 그 이유는 결혼이 당사자들을 새로운 집안의 머리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이 주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란 내적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본성, 더 뾰족이 말한다면 자연적 수준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개의 통치하는 애정 즉 자이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을 뜻한다. 우리가 상속받는 옛 본성이 아버지와 어머니로 의미되었듯이 우리가 선택하는 새 본성은 아내로 의미되고 있다. 아내란 선택하고 참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선택하고 참된 것에 관한 영적인 사랑이다. 주님께서서는 이 마음, 이 사랑을 새 피조물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있다. 우리가 옛 것을 떠나 새것과 굳게 결합(cleave)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자, 거듭나게 해 주시는 분의 약속된 질서이다. 이 새롭고 영적인 집안의 남편과 아내란 새로운 마음을 형성하는 새 의지와 이해성, 한 마디로 새로운 사람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것 즉 부패되어 있는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는 것은 영적 차원의 결혼이든, 자연적 차원의 결혼이든 공히 필요한 직업이다.

각 개인의 마음 안에서 하나됨이든, 남녀간에서 하나됨이든, 선한 것과 진정한 것이 하나되는 것밖에는 더 다른 진정한 결혼은 없다. 인간이라는 한 쌍 속에서 남편의 진리와 아내의 선이 결혼하는 방법 외에 어떤 진정한 결혼도 존재 않는다.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분리의 원인, 하나되지 못하는 원인,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이다.

6. 둘이 굳게 결합할 때,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 구절과 창세기, 두 군데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같은 말로 전달하여 강조되는 주님의 선포는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두군데의 구절이 하나의 구절 같은 이중성에는 무엇이 더 표현되고 있을까? 이 이중성은 하나됨, 통일성, 불변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로 된 짝들보다 더 밀접한 짝들이다. 훨씬 더 강한 짝이듯 그 둘의 하나됨도 훨씬 더 강하다. 이 둘은 같은 색깔이 다른 색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보충하는 색깔이라고 해야 더 옳은 설명일 것이다. 이 둘은 모든 색깔의 근원이 되는 하나됨인 빛과 열이라는 두 요소들이다. 이 둘은 한 인간성에 있는 두 부분들이어서 각각은 온전한 인간을 만들기를 원한다. 섹스(sex)가 육체에 있듯 영혼에도 그렇게 존재한다. 남자의 모든 생각과 애정은 남자다움고, 여자의 모든 생각과 애정은 여성다움지만 그 모든 각각은 서로 대칭되고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그 다양함은 통일된 조화(unity)를 바탕으로 한다. 그 둘은 완전히 구분되는 둘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를 만든다. 무한한 사랑과 지혜가 서로를 위해 창조한 이 둘이 진정한 결혼에서 하나될 때 그 둘은 더 이상 두 짝이 아니라 한 몸, 하나의 사람, 한 개의 의지와 한 개의 길만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런 견지에서 하느님께서 짝지워 놓으셨다고 말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된다.” 이 구절의 분리 금지라는 것과 사회법에 의한 분리를 부각시켜 생각해보기 보다는 내면의 의미만을 살피고자 한다. 어떤 의미에서나 어떤 경우에서나 결혼은 하느님에 속하고 분리는 인간에 속한다. 하느님은 합일의 저자요 인간은 분열의 저자이다. 따라서 신성한 의지에 속한 것에 자기 고유의 의지에 속한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버리는 상태를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워 놓으신 것” 그것이 심정에 있는 사랑과 믿음이든, 한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이든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7-9. 하느님에 속한 것인 결혼이 인간에 의해 와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바리사이파인은 이렇게 묻는다. “모세는 아내를 버리려 할 때에는 이혼장을

써 주라고 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아내와 이혼을 해도 좋다고 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이혼에 관계된 구절은 5장 31절에서 이미 거론했던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생략한다. 단지 이혼을 허용한 근원은 이혼이 주어지는 사람들의 심정이 완악한데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더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경우란 오로지 더 큰 악을 예방해 주시려 할 때뿐이다. 위 구절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 모세의 위 명령은 영적 상태에 앞선 준비로서의 인간의 자연적 상태를 표현한다. 인간의 자연적 상태에서는 선함과 진리의 진정한 어떤 결혼도 없다. 이 수준에서의 결혼이란 결합(conjunction)이 아니라 근접(adjunction)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런 결혼은 묶어지기도 하지만 풀어질 수도 있다. 이 상황은 영적 의지가 없는 곳 즉 “심정의 완악함, hardness of heart”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다. 이 완악한 상태는 인간의 본래의 상태일뿐 아니라 영적 질서의 첫 원리로서 매우 다양한 상태로 구성된다. “처음부터”라는 말로 의미되는 첫 원리란 시간 측면에서가 아닌 상태 측면에서의 첫 번째를 뜻한다. 그러므로 영적 인간은 음행한 까닭 외에는 결코 제 아내를 버리는 일이 없다.

10. 주님께서 결혼에는 과기할 수 없는 속성이 있음을 선포하셨을 때 제자들 스스로도 매우 놀랐다. 그들역시 지닌 유대인적인 편견이 충격을 입었는 바, 이렇게 말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경우 그들이 기독교적 사상이나 품성쪽에 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래서 변천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 자연적 수준에서 영적 수준으로 건너가는 중간의 상태를 표현한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천국의 결혼에 관련된 순수한 진리가 좋은 것으로 나타날리 만무하고 대신 버티기도 힘든 짐인 듯, 진정한 자유와 불일치하는 끈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11. 이에 대해 주님께서 대답하신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것이다.” 주님이 전달하신 결혼에 관한 법의 올바름을 인정하는데 별로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없다고 어떤 이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신성한 법은 자연적 수준의 인간에게는 비위에 거슬리는 항목에 해당된다. 이교도 세계의 다첩제는 이에 대한 풍부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대인, 자연적 인간이었던 그들도 결혼에 관련해서는

이교도나 비슷한 어둠 속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결혼에 관한 진정한 법을 알 수 있다.

12. 위 사람들이 누구인지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 주신다.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만한 사람은 받아 들여라.” 그렇다면 결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도록 주어지는 사람들이 고자(eunuch)들이라는 말이 된다. 고자는 결혼할 수 없을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이렇게 머리에 즉각 떠오르는 것을 바탕으로 주님께서서는 하늘 나라에 알맞게 되어 가는 이들에 관한 심오한 어떤 진리를 운반하시려 의도하신 내용은 선포하심 자체 뿐만 아니라 끝맺으신 말씀 즉 “이 말을 받아들일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로부터 명확히 파악된다. 사실 위 구절은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납득하여라”로 생각해보는 것이 더 나오는지 모른다.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로 감추어 놓인 의미로 행하도록 유도하는게 아닐까? 주님의 말씀은 영적 수준의 의미에서는 언제나 일치되는 교훈적인 의미들이 산출되게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태어날 때부터의 고자, 제 스스로 만든 고자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어찌됐든 영적 의미에서는 이런 구절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교훈을 생산해 주고 있다. 위 세 가지 고자는 세 부류의 거듭나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다. 이 세 부류(등급)란 천적, 영적, 자연적 수준이다. 천적 수준의 거듭남이 어머니의 태로부터서 고자가 된 사람으로, 영적 수준의 거듭남은 사람이 만든 고자로, 자연적 수준의 거듭남은 자기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로 의미되고 있다. 태(womb)란 천적 수준의 사랑과 순진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태에서 고자가 되어 태어난 이들이란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말해지는 수준 즉 천적 사랑의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이들이다. 사람이란 이해성을 뜻한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고자란 이웃을 사랑함을 뜻하는 수준인 영적 사랑의 상태로 거듭나지는 이들이다. 하늘 나라를 위해 제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이란 알게된 진리를 기억 안에 저장하고 그 진리에 따른 삶 즉 순종의 선으로 거듭나지는 이들이다. 이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남성적인 순수함에 관한 묘사는 계시록(14:4)에서 주어지는 여성적인 순수함과 매우 유사하다. 그 절에서 거듭나는 자가 동정남(virgins)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들은 여인들과 더불어 더럽혀진 일이 없고 어린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성은 지성 측면을, 여성은 의지 측면을 뜻하기 때문에 남성적인 순결과 여성적인 순결이라는 두 개의 다른 묘사는 지성과 의지 또는 생각과 애정에 관한 순결과

관계된다. 따라서 한 개의 관점 아래에 묶어 생각하면 거듭나는 마음 또는 충만된 인간 즉 새로운 이해성과 의지로 구성된 인간 또는 새로운 심정과 올바른 영(spirit)으로 구성되는 인간을 묘사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자신 스스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겠다고 고통을 감수하는 이들 안에서 위와 같은 세 인간이 창조되게 해주신다.

13. 이와 같이 위 구절들은 영적 순수함과 관련되어 육의 욕망을 복종시킴으로 거듭나는 자가 달성하는 세 가지 다른 특출함이라고 이해하게 될 때 이 절에 언급되는 사건이 위 구절과 직접 연결된다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다. “그 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간청했다.” 복음서에서 어린이가 놓여있는 부분은 진실된 인간 모양새 중에서도 매우 아름다운 품새를 나타내 준다. 순진 자체에 육을 입히신 아기 구세주로 시작되는 것이 복음서임을 감안하면 이 작은 순진한 자가 뽀족하게 모습을 들어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지당할 수밖에 없으리라. 예수께 작은 어린이를 데려 온다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순진을 그분께 돌려드림을 표현하고,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함이란 그분께 모든 순진을 돌려드림을 통해 그분이 축복하시는 영향이 우리 심정과 지성에 내려오게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랬다.” 알팍한 동정심은 순진을 적게 지닌 자들이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그 이유가 아직 그들에게 영적 순진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닌 품성과 원리를 행동으로 보여 그 예가 되어 주었다. 주님의 사랑은 의지 안에 있는 순진으로 직접 흐를 뿐 지적인 선과 진리를 통해 순진으로 흐르지 않는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지적 원리를 제자들이 표현해 주는 바 그들은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려 오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4, 15.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가!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표현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는지! 유아나 어린이의 순진은 낙원에 존재했던 것 중의 일부, 아마 타락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선일 것이다. 사실 순진은 전달되어 온 것이 아니라 순진을 받는 그릇이 보존되어 왔던 것이라고 해야 정확한 말이 될 것이다. 어린이의 순진에서 새로이 창조되는 것, 즉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경우 인간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어렵잖으나 그 윤곽을 볼 수 있다. 어린이의 순진에서 우리의 이기심이 죽어갈

때 인간 마음 안에 주님이 주입시켜 주시게 되는 어떤 것까지, 그분께서 유아들과 연결되고 있는 천국의 천사에 나누어주시게 되는 어떤 것, 그 천국을 통해 내려오게 되는 순진에 관한 어떤 것을 희미하나마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린이를 향해 사리사욕 없는 사랑을 베푸므로써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나열하시는 순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아볼 수 있는가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사리사욕이 없는 사랑만이 이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자연적 측면과 영적 측면의 해석이 이 절의 앞부분 “어린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는 말에는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뒷부분, “하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말에는 영적 의미만이 해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어린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천국의 선물로서 그들의 순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천국은 순진을 가지고 어린이들과 호흡한다는 것으로 알고 그들이 천국으로 인도되게 해야 할 것이라는 것도 뜻한다. 그들의 순진은 모든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그들의 행복은 진정 모든 교육의 목적이다. 아직도 어린아이들의 순진 위에 그분의 전능하심이 놓여 보호하시면서 영향을 받게 하고 있다. 그리고 가능만 하면 하늘 나라에로 그들을 인도하시려 섭리하신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신 다음 그곳을 떠나셨다.” 이 상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상태를 가져다주게 되는 바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고 있다.

16, 17. “한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 질문의 주제는 결혼에 관한 바리사이파인의 질문처럼 매우 중요한 명백하고 실용적인 진리에 해당되는 바 질문의 양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끔 해준다. 먼저 주님에 대한 젊은이의 인사말이다. “선생님, Good Master,” 그리고 그의 질문에 주님이 거절하시는 말투, “왜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를 생각해보자. 위 말은 주님의 신성에 대해 양립할 수 있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질문자(아마 예수가 하느님이어야 한다는 관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는 상태)의 총명에 말하시면서 선생이 선하다고 한다면 그분이 지니고 있는 선함에 관한 어떤 암시가 있게 해서 앞에 있는 분이 선만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말투로 그분의 선함이 하느님으로부터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미묘하게 주장하심으로 젊은이가 미리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품성이 그분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청년 스스로 제기되도록 인도하시

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인간적인 의식 밑에서 본질적 신성은 선한 것뿐이라는 것, 그럼에도 아버지와 하나됨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시어 그렇게 말하셨지 않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어느 경우에서도 주님께서 왜 자기를 선하다고 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누군가에 의해 그렇게 불리는 것을 거절하셨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너”라는 단어를 강조했다고 가정해 보면 이 질문에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 거절을 함축하는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그리스어에서 강조하는 “너”라는 것은 문법상 없기 때문에 논쟁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또는 “왜”라는 단어를 강조해 본다면 이 문장 자체가 어떤 거절도 함축하지 않는다. 만일 질문자가 주님을 알고 있는 상태이면서도 계명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그가 주님을 선한 분이라고 한데대해 주님이 왜? 라고 물으신 것은 전적으로 질문의 품성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주목해볼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두고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던 대목이다(요한 10:11). 본문에서 주님을 높여 부른 것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위 구절로부터 명백해진다. 따라서 주님께서 “왜...”라고 물으신 것은 인사말을 한 젊은이의 마음을 자극시켜 주시려던 것, 더불어 이 구절을 읽는 모든 이의 마음까지도 부추겨서 예수에 관계된 용어의 진정한 취지에 대한 문의사항임을 주지시켜 주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치 이렇게 말하신 것,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느님뿐인데 그분이 나라고 너는 인정하느냐?” 같을는지 모른다. 사실 이와 같은 예수, 이와 같이 예수를 인정함이 그 문의에 함축되어 있을 것이다. 그분만이 최고의 대상, 유일한 하느님,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시는 분이시자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이 물음을 더 직역해 본다면, “왜 너는 선에 관해 나에게 묻느냐? 한 분 하느님만이 선하시다.” 어쨌든 이렇게 직역해보아도 우리가 주목해 본 위의 사항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이미 살핀바 대로 주님이 청년에게 되물으신 것은 꼼꼼이 숙지해 보게끔 하시려는 것, 그에게 요구한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자부하는 모든 이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중의 하나라는 것일게다.

주님께서서는 질문에 답을 기다리시지 않고 이 중대한 문의에 답을 주시려 진행하신다. 따라서 주님이 말하시는 것, 밝히 알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있게 된다.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위 청년의 질문이 주님께 있어졌던 것은 섭리적이었던 것, 구세주로서의 주님이 말하시는 충만된 대답, 마지막 답변으로 최적의 답이 위 구절을 심각히 생각해 보면 매우 가치 있으리라. 구원받는 조건을 서술하는

위 대답은 흔히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것, 즉 모든 이는 행한 대로 심판될 것이라는 가르침과 하모니를 이룬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로 언급되는 구원받는 조건 역시 진정한 것은 틀림없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가 반대된다고 상상하는 어떤 이들의 경우, 위 본문은 주님께서 유대인의 문외에 답하시는 상황이므로 율법적이었지 구원받는데 대한 복음서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버린다. 율법이라는 처방이 유대인에게 있었던 바 이는 복음이라는 기독교인에게 내려진 처방과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덕적인 법의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구, 신약의 언약 모두에 적용받는다.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에게 구원받는 삶의 조건이었던 만큼이나 기독교인에게도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의 경우 법의 글자에 의거 살았다는 것, 기독교인은 율법의 영에 의거 삶을 영위한다는 것뿐이다. 옛 언약은 돌판 위에 씌어진 대로의 법이었고 새 언약은 심정이라는 판 위에 새겨져 있다. “그 날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맺은 계약이란 그들의 가슴에 새겨줄 내 법을 말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그 마음에 내 법을 새겨 주어,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33, 히브리 8:8). 이런 구절들이 언급하는 언약, 우리가 기대고 살아야 할 언약이란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라는 말씀이다.

18-21.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젊은이에게 말해지자, 그는 이렇게 물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어느 한 개의 계명을 물었는데 그 대답은 계명을 총망라하다시피 하시고 있다. 그 이유는 율법의 행함이 완성되려면 부분적인 순종까지고는 안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전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으신 바 위 계명의 간단한 영적 의미는 이러하다. 살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인 선을 사랑함을 자아 속에서 소멸시키는 것이다. 간음한다는 것은 선에 대한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다. 훔친다는 것은 진리를 따돌리는 것이다. 거짓 증거한다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최고의 선과 진리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함이란 타인 안에 있는 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타인이 지닌 선을 자기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최고의 측면에서 위의 금해지거나 요구된 이 모든 행동들은 주님과 우리 관계에서 직접

관련을 지닌다. 예를 들면 흠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진리를 믿는 공로가 제가 잘나서인 듯 주장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선과 진리는 진정 하느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위 영적 의미들은 젊은이가 죄있음을 느껴야 하는 악 중의 하나이다. 그는 글자대로의 법을 표준삼아 살아왔다. 따라서 그는 주님께서 계명을 일일이 열거하실 때 즉각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 사실 그는 성실하게 대답한 것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성의껏 진리에 의거 대답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그의 대답에 대해 어떤 대꾸, 즉 그가 올바른 삶을 영위했다고 말하는데 대해 어떤 평가도 하지 않으셨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를 대견하게 여기셨다. 비록 불완전한 순종이었다 해도 어쨌든 그는 신실한 순종을 사랑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젊은이의 정의는 완전한 순종을 만드는 내향의 생명이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명하신 말씀 즉 시험에 낙방하는 데서 명백해진다. 어쨌든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선언하면서 이렇게 되묻는다. “아직도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 오너라.” 율법을 더 이상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믿는 이들은 이 젊은이에게 부족했던 것이 믿음이었다고 곧바로 결론짓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의 요구 사항을 한번 더 들여다 보기만 해도 그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내라는 것, 즉 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행동이었음이 쉽게 파악된다. 그 젊은이는 율법에 순종했다. 그러나 그는 이타애 또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다. 그가 완전한 순종을 해내는데 필요한 것은 이타애 또는 사랑이었다. 주님의 요구도 그것이었다. 주님은 그에게 세상을 터무니없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셨다. 사실 자아사랑이나 세상을 사랑함이 심정에서 폐기되지 않은채 글자대로의 율법을 완수하는 것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진정, 계명에의 순종에는 두 가지 사항 즉 자아부정과 적극적인 미덕, 다시 말해 악으로부터 오는 것을 끊고 선을 행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엄밀히 말해서 사람들의 면전에서 악행을 끊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악행을 끊어야 한다(이사야 1:16). 악들은 우리의 선한 행위 안으로 잠입해서 우리 속에 상속되어 있는 타락된 속성에 감추어 놓인 불순한 것들을 가지고 선에 속한 것들을 더럽힌다. 율법을 준수하는데 용의주도했던 청년이었지만 세상을 사랑함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아마 전혀 생각해 본적이 없었을는지 모른다. 그 젊은이의 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부드러운 부분을 살짝 건드리시자 그 심정은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빛에 눈동자가 움직일 때 같이 즉각 반응을 보였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율법의 요구에 대해 그가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해야만 하는 것과 하지 않아야만 하는 어떤 것이 놓여있었던 것이다. 천국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지상에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의무라는 차원에 속한다고 이 젊은이에게는 생각되지 않았다. 참으로 이는 율법의 정의와 기독교의 정의 사이의 차이점이요, 자연적 인간의 종교와 영적 인간의 종교 사이에 놓인 차이점이다. 마음이 가난해야 함은 주님의 가르침이 되풀이해서 주지시켜 주는 사항이다. 그 이유가 어떤 사람이 모든 자기 재산을 내놓기까지 했다 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반면 제 재산을 내놓지 않았다 해도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후자는 그의 영적 자만을 받쳐주는 소유물 즉 이기심을 구성하는 그의 소유물, 또는 그가 행하는 만사에 자아라는 도장을 찍게 하는 이기심에 속한 것들을 예외로 할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사실 이기심에 소속된 소유물을 팔아 치우는 사람만이 진정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심정만이 온유하기 때문이다. 그분을 따르는 이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한다. 그리고 꾸준한 자기 부정과 선행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걸어야 한다.

22. “그러나 그 젊은이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풀이 죽어 떠나갔다.” 자기를 통치하는 열정이 세상을 사랑함일 경우 하늘나라에 적합치 못하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 위와 같은 지당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젊은이는 주님께 물었던 많은 이들처럼 제 고집을 버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도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바랬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나라를 위해 필요한 재물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 그가 지닌 재산을 포기할 준비가 아직 이른 상태였다. 이 재산이란 자연적 사랑에 바탕을 둔 지식이라는 재산을 포함해서 이르는 말이다.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 그에게 팔도록 요구된 것에는 이런 사랑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23.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지라 풀이 죽어 떠나갔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듭 말하지만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힘들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가운데 자연적 진리 보다 높은 어떤 진리를 가져다주시려 주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리라고 생각된다. 부유함에 관해서는 그분 스스로 설명을 더 주시기도 했는데,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들이

재물을 신뢰함이라고 말해주셨다. 따라서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이 정죄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판단은 자연적인 것에 응용될 뿐 아니라 영적인 사항에도 적용된다. 영적으로 부유함이란 영적 사항에 관한 지식들이다. 그 이유가 지식은 정신적인 재물이고 종교적인 지식은 영적 삶이라는 용도를 섬기도록 의도된 더 높은 종류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연적이고 물질에 속하는 재물처럼 영적인 지식도 고상한 용도에 고용될 수 있겠지만 때로 무가치한 목적에 사용될 수도 있다. 어떤 유용한 목적을 바라봄도 없이 자신을 위해 그 지식을 축적할 수도 있다. 또는 본문 주제와 유사하듯이 영적 지식 자체만 지녀도 하늘 나라에 자기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재물이라는 지식을 간주하는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심각한 판결을 발표하시고 그들에게는 천국이 닫혀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의 지식은 그들이 의지하는 큰 소유물이지만 하늘에 있는 보화를 가지려 한다면 반드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비록 신성에 관계되고 영적 사항에 관련되었다 해도 지식이란 것은 모두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 쌓아놓은 지식의 보화일 뿐이다. 이 보화와 자신 속의 이기적 사랑이 연결된 상태가 지독하게 모질게 될 때까지 이 보화는 우리가 천국에 있는 보화를 획득하는 것, 영의 마음에 보화가 쌓이는 것을 방해한다. 자기가 가진 것을 파는 때란 그가 영적 재물이든 자연적 재물이든 그 소유권 주장을 중단할 때, 그런 다음 그 소유권을 하느님께 돌려드릴 때, 그리하여 그 재물을 그분을 섬기는데 고용할 때이다. 영이 가난해지기 위해 제 소유물을 나누어주는 사람은 텅빈 지식을 실질적인 선함과 맞바꾸게 된다. 이 교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난으로부터 영원한 부유함으로 들리워진다.

24. 지식을 신뢰함은 헛된 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자기 재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란 지적 통찰만으로 천국 진리가 지각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영적 사항은 영적으로만 식별된다고 주장하는 사도들과 매우 다르다. 이것이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 이유는 낙타는 지식과 과학을 의미하고 바늘귀는 영적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다. 부유함 또는 과학의 완전함, 어떤 것도 인간으로 자연을 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할 수 없다. 영과 물질은 불연속되는 등차로 나뉘어 있다. 오로지 이 둘의 하나됨은 상응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둘 사이에 공통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본문의 경우를 포함해서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공통되는 것이 없다. 자연적인 것 가지고 영적 진리에 통달하겠다는 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젊은 나귀 등에 재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화를 싣고,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바치러 가는구나. 에집트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나라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중이 구렁이’라고 부른다” (이사야 30:6,7). 자신 스스로 영적 진리로 들어가려하는 것은 없음에서 들어가려는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들어가려는 것은 있음에서 들어가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자연적 수준의 빛으로 영적 사항을 보겠다는 것이고, 후자는 천국의 빛으로 영적 사항을 보는 것이다. 만일 인간이 자아 총명의 우쭐뎌움을 내려 누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말하시는 소리를 공손하게 경청한다면 자신이 약해지기 전에, 자신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전에 자신이 강건해 있음을, 자신의 노력이 성공되고 있음을 저절로 발견한다. 이런 상태의 우리는 과학을 포기한다거나 추론함을 침묵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들의 시야나 영역은 줄어드는 대신 오히려 증가된다. 그 이유는 과학을 뒷받침으로 하는 추론이 비록 하느님을 발견할 수 없고, 영혼도 발견할 수 없으며 영적 사항을 식별해 낼 수 없다 해도 계시로 허락된 때의 경우 과학물은 진리를 입증하는 풍부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적 진리가 한번만 받아들여져도 과거 타협이라는 것만을 신출하는 듯 여겨졌던 과학물들과 각종 추론들은 진리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자.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이것을 보는 네 얼굴에 웃음의 꽃이 피리라. 너의 가슴은 벅차 올라 부풀리라. 바다의 보물이 너에게로 흘러오고 못 민족의 재물이 너에게로 밀려오리라. 큰 낙타 떼가 너의 땅을 뒤덮고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들이 우글거리리라. 사람들이 스바에서 찾아오리라. 금과 향로를 싣고 야훼를 높이 찬양하며 찾아 오리라.” (이사야 60:1,5,6).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적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과학의 모든 부유함이 영광과 찬양을 위해 그에게 더하여 진다는 말이다.

25.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는 주님의 선언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마치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입장이 거의 불가능하게 해두신 것처럼 그들에게 여겨졌던 것이다. 주님께서 선언하신 질서의 법칙에 따른 결과가 고작 이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의 발생은 이 주제에서 진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이해 못한 데에서 기인된 것인 바 주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다.

26.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본질 측면에서 질서에 반대되는 것이 있을 경우 불가능하기로는 인간의 경우 보다 하나님의 경우에서 더욱 불가능할 것이다. 본문의 경우 질서에 반대되는 것은 제 방식만 내세우는 인간, 제 힘이 제일 세다고 우기는 인간의 경우만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능력을 수단으로 실시해야 만사가 통과된다.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는 제 스스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7. “그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는 믿음만의 교회가 매우 경탄할만한 선언문을 고안했을 때 묻는 질문이다. 게다가 젊은 청년의 행동지침과 좋은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영적 상태나 그분의 진리들이 주님께서 들어 쓰신 표현적인 인물에게서 체현되도록 섭리하셨던 그 당시의 경우,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들에게는 때로 그들의 재산이나 고향을 떠나서 순례하는 그분을 따르도록 요구하시기도 했다. 그들에게 버리도록 요구된 재산이나 고향이란 자아와 세상만을 사랑하려드는 것을 버리라는 것에 대한 상징물이다. 그분을 따름이란 그분이 보여주신 본보기를 따르는 것, 거룩한 길(삶)을 영위하는 것을 뜻한다. 언젠가 주님을 뵈게 될 때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자답해보는 것도 유용한 일이다. 우리가 제자의 도리를 진지하게 흠모하고 열심을 내어 정진했다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대견할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받게겠습니까?” 라고 살짜기 물어볼는지 모른다. 이제 이에 대한 넘치는 은총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님의 답변에 귀를 기울여 보자.

28.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나를 따랐으니 새 세상이 와서 (...in the regeneration) 아들이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열 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관념에 맞추어 그들에게 말해주신 보기의 하나가 위 구절이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지상에 왕국을 건설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믿음을 아직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시되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바램에 의거 장차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다. 말씀 속의 진리는 제 아무리 제자의 의견이 타당했다해도 그것 역시 무릇 인간의

사상인데 거기까지 말씀의 수준을 떨어트려 동의한 적은 결코 없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에서 그렇게 착각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자신이 자연적 수준일 경우 그들의 납득은 오로지 자연적 수준일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들이 영적 수준이 될 경우 위 구절 역시 영적 수준에서 납득하게 된다. 제자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그 자체에 영적 의미를 포함시켜 말하신 것이고 영적 성취만이 있도록 의도되어져 있다. 주님의 영화하심은 인간 거듭남의 모형이 되셨는 바, 거듭남 속에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란 그분이 하셨던 그대로 행함으로 그분같이 되는 이들이다. 거듭나는 삶은 굴욕(humiliation)의 삶, 거기에는 옛 사람이 고통당하여 죽는 것까지 포함된 삶이다. 이 수치스러운 뿐인 삶이 영광으로 인도해준다. 그분의 거룩한 진리가 우리 안에서 영화되어질 때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되 우리 심정의 가장 드높은 애정 위에 옥좌를 펼치신다. 제자들, 그들은 말씀 속의 모든 선과 진리를 표현한다. 이것들이 주님으로부터 파생되어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데, 선과 진리에 관한 원리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 갈 때가 열 두 보좌에 제자들이 앉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원리들이 생활에 관한 우리의 모든 상태를 규율해 준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는 인간의 내부 측면(the inner man)에 펼쳐지고 제자들의 보좌는 인간의 외부측면(the outer man)에 펼쳐지게 된다.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란 자연적 평면의 마음에 있는 영적 진리를 말하고 이 진리들은 총괄하는 큰 진리에 의해, 그 진리 밑에 정리정돈 된다. 이 총괄하는 진리가 사도들로, 그 배열은 심판함에서 각각 의미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여기서 표현된 생각들은 마지막 때에 한번 있게 되는 것으로 통념화된 심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판관들이 매일 판결하듯 하는 지속적인 심판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주님과 그분의 사도들은 거듭나는 마음에 있는 생각과 애정들을 언제나 심판하여 질서 속에 보존시켜 준다.

29. 보좌에 앉게 해주마고 사도들에게 해준 약속이 분명히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말에 이어지는 본문의 경우는 글자대로 생각해보기에는 앞 절보다 더 힘들어 지리라 본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계속 하신다. “나를 따르려고 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백 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구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인간의 자연적 소유물이나 친척들을 뜻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에게나 당연히 생각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도록 요구하시는 그분이 친구를 미워하라고 명령하실 수는 없다. 참으로 위 구절의 요구를 글자대로 충족시키려드는 어떤 것을 시도한다면 왜 이 사항은 남자 또는 남편에게 요구하고 여자 또는 아내에게는

요구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추적하여 의문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구절 전체에 있는 진리는 영적 측면에 관련될 뿐 제자들의 자연적 측면의 삶과 관계되지 않는다. 자기 집의 식구들 모두는 옛 사람 속에 있는 원리들, 즉 유전적으로 받은 원리들, 그리고 자신이 획득한 타락된 본성에 해당되는 품성들 모두를 말한다. 이 구절은 “집”으로 시작해서 “토지”로 끝난다. 이 들은 그릇에 해당되는 우리의 두 자질 즉 가장 깊은 안쪽 자질과 가장 바깥쪽 자질을 말한다. 타락된 우리의 상태 안에 있는 이 자질들은 거꾸로된 상태, 부패된 상태인 바, 이것들은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것들이다. 우리 집안의 가족 모두는 타락된 본성에 있는 자연적일 뿐인 애정들이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아와 세상만을 사랑함이고, 형제와 자매란 자아와 세상 사랑들로부터 파생된 생각들과 애정들을 뜻한다. 아내란 이해성이 선택한 통치하는 사랑, 그 다음 이해성이 그 사랑 자체와 하나된 상태의 통치하는 사랑이다. 이 결혼으로부터 파생된 자녀들이란 위 하나됨에서 튀어나오는 세상적 애정들과 생각들이다. 이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연계의 수준으로 생각할 경우 우리가 부모, 자녀, 형제 등등 친척 관계를 글자대로 버린다면 이는 오히려 사회적인 죄라고까지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적 의미의 차원에서 버리는 작업을 한 모든 이에 대한 약속은 백 배의 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백 배란 완전함과 완성을 상징하는 말이다. 따라서 옛 사람으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그분의 순수하고 거룩한 애정을 지니는 새 사람으로 입는 사람은 그가 희생시킨 것에 백 배가되는 상을 자신 스스로 발견한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 제 집 안에 들어왔은 주님께 반대되는 것들을 버려야만 한다. 자신을 위해서 악을 단념하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의 명성이나 이익에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악을 범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악을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악행을 일시 멈추고 있는 것뿐이다. “백 배”라는 약속에는 영원히 지속될 생명에 속한 것 역시 주어지게 된다는 말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가 “백 배”라는 말은 정의로운 삶의 보상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리로 이룩되는 결과인 새로운 삶과 기쁨까지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30. 이렇게 말하심으로 주님께서는 결론 맺으신다. “그러나 첫째였다가 꼴찌가 되고 꼴찌였다가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세상에서 첫째 서열을 차지한 사람, 종교적 측면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저 세상 삶에서는 꼴찌 서열을 차지할 것이고, 낮은 위치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 세상 이후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 구절의 영적 의미는 인간 거듭남은 인간의 상태를 거꾸로 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서열 맨 뒤로 놓이고 하등 중요치 않다고 여겼던 것들이 서열 제 일에 놓여진다는 뜻이다. 타락된 상태의 생각과 애정 속에서 세상적인 것은 첫째이고 천국적인 것은 꼴찌일 뿐이다. 이런 경우는 몸과 영혼, 자연과 영, 시간과 영원에서도 한결같이 동일하다. 거듭난 상태의 생각과 애정 속에서는 꼴찌 순위에 있던 천국이 첫째 순위로 놓이고 세상은 꼴찌로 밀려난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상태의 변화를 일으켜 자리바꿈이 있게 된다. 거듭나는 동안 상태나 원리들도 자리바꿈을 하는데, 처음에 획득된 것이 꼴찌로, 마지막에 획득된 것이 첫째 자리로 옮겨진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진리와 선함, 믿음과 이타애, 순종과 사랑의 서열 관계에 발생된다. 새로운 삶의 초기 단계에서 진리는 선함에 앞서 존재하고, 믿음은 이타애에 앞서 존재하며, 순종은 사랑에 앞서 있게 된다. 마무리 단계에서 먼저 존재한 것은 마지막에 놓이게 된다. 시작 단계에서는 순종이 첫째 서열로 있는 것이 올바른 질서였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사랑이 첫째 서열에 있어야 올바른 질서 속에 있는 것이다. 주님은 타락으로 인간이 거꾸로 만들어 놓은 질서를 올바르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는 바, 본문 같은 낙원의 약속, 본질적인 가치에 있어 첫째이어야 하는 모든 것이 인간의 평가에서도 첫째가 되어지는게 낙원의 회복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볼 때 지극히 적은 가치를 지닌 것들이 인간의 애정들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낙원의 회복임을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20

이 장은 포도원의 일꾼이라는 비유로 시작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이 비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르심과 관계되고 있다. 유대인은 포도원에서 맨 처음 부른 일꾼이고, 이방인은 오후 다섯시(11시)에 부른 일꾼이다. 더 내적 의미에서 이 비유는 복음의 보편적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응낙한 이들의 각기 다른 품성에 관계하고 있다. 맨 처음 부른 이들은 제가 해놓은 일에 대해 제 공적을 주장하는 이들이어서 맨 나중에 불렀다. 어쨌든 맨 처음

불린 사람부터 마지막 불린 사람까지 모두는 이타애와 사랑으로부터 선을 행한 사람들이다. 독선(self-righteous)이라는 품성을 지닌 사람이 고용을 계약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한편 이타애와 사랑으로 선을 행한 이들은 품삯을 줄거라고 포도원 주인의 확답에 만족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각자의 보상에 대해 처음 일꾼은 불평했고 다른 일꾼들은 만족했다.

말씀의 모든 부분들은 내적 의미일 경우 인간 거듭남과 관련되고 있는 바 이 비유도 거듭남이라는 신성한 작업의 어떤 부분을 그려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응용되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새 삶에 진입한 사람의 마음에서 이 비유가 거행되는 것으로 취급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비유 안에서 언급되는 여러 종류의 각 인물은 그에 상응하는 원리들로 간주되어진다. 이들은 세 개의 다른 품성을 구성한다. 즉 집주인과 청지기(관리인) 그리고 일꾼들이고, 세 장소는 더 직접적으로 세 품성과 연결된다. 비록 집(house)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집주인이... 밖으로 나갔다”는 표현에서 이 주인이 집 밖으로 나간 것을 암시하는 바 집과 포도원 그리고 장터라는 세 장소이다. 장소는 어떤 원리들이 소속된 인간 마음의 자질과 상응한다. 집은 의지와, 포도원은 이해성과, 장터는 기억과 상응된다. 집주인과 관리인 그리고 일꾼은 인간 거듭남의 자질에 관계적으로 소속된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원리들, 또는 이 비유가 묘사하는 거듭남의 각 단계와 연결되어 발견되는 원리들이다. 이 비유에는 세 가지 다른 시간들과 고용된 세 계층의 일꾼들도 있다. 처음 일꾼은 새벽에, 두 번째 일꾼은 한 낮에, 마지막 일꾼은 해질 무렵(11시)에 고용되었다. 이런 계속적인 시간대는 계속적인 상태들, 즉 순종-믿음-사랑의 상태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같이 비유의 일반적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세부 사항을 생각해 보자.

1. 이렇게 비유는 시작된다. “하늘 나라는 마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러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늘 나라란 심정과 이해성에 있는 주님의 정부이다. 이 하늘 나라는 거듭남으로 마음 안에 형성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거듭남을 말하든, 인간 마음에 하늘나라를 건설함이라고 말하든 똑같은 말을 하는 셈이다. 하늘 나라는 포도원에 고용할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집을 나간 사람, 집주인과 같다. 그 이유가 집주인이 이른 새벽에 나감은 거듭남의 시작, 여기서 표현되는 거듭나는 단계를 묘사했기 때문이다. 여러 번 주목하기 위해 거론했던 바 같이 거듭남은 외적 인간을 내적 인간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내적 인간 자체가 먼저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듭나는 삶의 큰 노동은 외적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데 존재하는 바 이것이 비유에서

묘사되고 있다. 이런 작업의 시작은 인간이 종교는 참되고 선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만으로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해 생활의 기쁨이나 일상 업무에 제 종교를 가져다 놓을 때, 즉 종교가 집밖을 나와 장터와 포도원에 나갈 때이다. 집주인처럼 거듭나는 사람은 밖으로 나간다. 즉 그의 원리들이 마음의 내면이라는 그 원리들의 집으로부터 나와 삶이라는 실제의 의무 안으로 가서 그들보다 수준이 낮은 자질들을 행동 안으로 불러낸다. 이렇게 해서 그는 삶의 참된 목적을 수행해서 정의라는 열매를 산출한다. 이런 일의 시작이 이른 아침, 실제 거듭남의 새벽인 것이다.

2. 집주인이 일찍 집을 나선 목적은 포도원을 가꿀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돈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집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간 장터는 기억을 의미한다고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일꾼(labourer)이란 우리가 획득해서 기억 안에 저장해둔 진리들이다. 그러나 이 진리들은 마음이 더 높은 자질을 찾게 하는 일에 실제 참여하지 않았던 진리들, 유용하고 정의로운 삶이라는 좋은 것을 생산하기 위한 더 높은 마음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일해 본적이 없는 진리들이다. 비유의 이 부분에 관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이와 관계되는 정신발달 과정의 부분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집과 포도원 그리고 장터로 의미된 마음의 세 자질 중에서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이 먼저 발달된다. 의지와 기억은 존재를 가지는 것 중 첫 번째 자질들이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이해성이 큰 폭으로 발달되기 전 오랫동안 의지와 기억이 실제적이고 강력한 자질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참으로 의지와 기억의 하나된 행동으로 이해성이 형성되어진다. 어린이들은 알기 위해, 알아야만 하기에, 이해하기 위해 그들은 지식을 뜻하거나 사랑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젊은이들은 전능하신 분에 의해 지식을 사랑하게 영감되어지고 그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부피의 기억을 선물 받고 있다. 더불어 그 기억을 보유하는 힘까지 선물받고 있다. 합리성이라는 자질은 초기 교육시절 동안 점차 발달된다. 그렇다고 이 발달의 시기는 학식이 풍부하고 총명한 어떤 인간을 만드는 성숙되고 독립적인 행동이 있는 삶의 후기까지는 아니다. 어린이들은 이미 획득한 지식이 자기의 포도원에 보내 일할 수 있는 일꾼, 실제 삶의 일을 수행할 일꾼, 하느님께서 안수하신 열매를 생산하는 일꾼임을 발견한다. 이제 거듭남으로 이야기를 바꿔보자. 거듭남이 두 번째 출생, 더 높은 수준의 출생이듯, 영적 삶은 인간의 자연적 삶에 대한 정확한 대형(antitype)이다. 기독교인은 자기의 유아시절과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영적 인간의 초기 상태는 자연적 인간의 초기상태의 것들이 당사자를 성숙되게 해주듯 그리스도라는 키가 충분히 자랄 때까지 필요한 상태들이다. 영적 인간의 첫 교육 역시 자연적 인간의 첫 교육과 똑같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원리를 먼저 배워야하는데 그 원리들을 놓아둔채 계속 완전해진다. 그는 신성한 말씀으로부터 진리들을 획득해서 그의 기억 안에 쌓아 둔다. 거기서 진리들은 고용되지 못한 채, 비생산적인 상태로 한동안 지식으로서 남아 있다. 실제의 일, 적극적인 일, 거듭남의 시작은 이런 지식들이 기억으로부터 부름 받음으로 발동이 걸리고, 그것들이 이해성 안으로 승강되어서 거기서 영혼에 이익을 보태도록 이타애라는 행위를 수행하는데 실제의 일꾼이 된다. 이것이 장터에서 채용되어 포도원에 보내는 일꾼들이다. 이런 관점에 일치하여 일꾼들은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고 채용되려고 준비하고 있고 매우 열망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것은 하느님의 진리에 근원을 둔 진리의 본성이다. 다시 말해 이 진리들은 선용의 일을 맡아 하는데 매우 적합할 뿐만 아니라 영적 삶의 노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려는 바램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간 당사자가 이 진리를 채용할 때까지 인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없다. 이 진리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없다. 그들은 행동못하나 배우같이 행동된다. 그들은 작용못하나 상호작용은 한다. 그들의 행동은 행동이 아니라 반작용(re-action)이다. 이 문제에서의 행동은 의지 안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내적 인간의 의지가 구원의 사업에서 적극성을 가질 때 인간은 자기가 이미 배운 진리들이 행해져야 한다고 요구되는 일이 준비된 것을 발견한다. 이와 같은 상태들이 교훈적 비유 안에 조각되듯 묘사되어 있다. 집주인이 일꾼을 채용하려 나갔을 때 그는 그들과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합의했다. 일꾼이 품삯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말씀 안에 원리로서 놓여 있다. 그 이유가 이 원리들은 신성한 질서의 법칙인 바 천국 자체의 법칙이어서 모든 천국적 일은 그 일 나름대로의 대가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비유에서 집주인이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하루 한 데나리온이다. 데나리온(은전)은 진리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일꾼들의 품삯인 데나리온이 집주인에 의해 일꾼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일꾼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제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아 가는 모습은 이런 사항을 표현하려고 의도된 것이다. 진리들이 기억으로부터 이해성으로 들려져 내적 인간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고용될 때 이 진리들은 진리에 대한 더 높은 지각을 수고한 대가로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가 의미하는 것, 즉 어떤 상태라는 것, 마음이 통과하는 모든 상태를 완성하는 것과 교통되어진다.

집주인과 일꾼들 사이에 맺은 고용계약은 거듭나는 사람의 상태의 본성을 예증하고 있다. 아침 일찍 고용된 사람은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이 말해지지만 그 외 사람들은 자기 일에 걸맞은 품삯을 받으려니 하는 단순한 추측만 갖고 있다. 첫 일꾼이 고용되어 포도원에 간 시간인 이른 아침은 거듭남의 시작, 인간이 순종의 상태에 있을 때라고 이미 언급했다. 그는 의무라는 견지에서 선을 행한다. 선한 일이 사랑의 노동이라는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의 사람은 품삯을 은혜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빚을 받는냥 여긴다(로마서 4:4). 그는 율법의 글자에 안주하고 있다. 그는 자기를 묶는 끈을 가져야만 한다. 그는 아직 율법의 영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 영에 진입해야 주님의 선함을 신뢰하고 그분께서는 정의와 관대하심으로 보상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된다.

3-5. 그러나 더 나은 상태가 초보적인 상태, 첫 일꾼에 이어진다. 첫 고용된 일꾼 외에 각기 다른 시간대에서 집주인에 의해 계속 채용되고 있다. “아홉시 쯤에 다시 나가서 장터에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니 그들도 일하러 갔다. 주인은 열 두시와 오후 세시쯤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자연적 마음이 받아 들여 기억 안에 저장되었던 진리들은 한꺼번에 열려져서 이해성으로 승강되지 않는다. 저장된 진리 자체는 서로 서로 다르고 마음은 계속되는 각 종류의 상태를 통과하고 있다. 모든 일반 상태는 수많은 세부 상태로 구성된다. 하루는 아침으로부터 저녁까지 전진해간다. 아침, 정오, 저녁, 밤이라는 자연계의 시간 간격 외에도 더 세분해서 인공으로 시간대를 정한다. 사실 본문의 열 두 시간이 하루 안에 있는게 아닐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바 하루라는 날이 수습기간이라는 하루로 이해되든, 실감된 삶의 상태라는 하루로 이해되든 하루 안에는 더 작은 시간들의 연속을 가지고 있어 각각의 작은 시간은 서로 구분되는 품성과 다른 용도와 경험을 가진다. 집주인이 일꾼을 채용하러 나간 하루는 세 시간 간격으로 나뉘어 있다. 그는 제 3시(아홉시), 제 6시(열 두시), 제 9시(오후 세시)에 나갔다. 이렇게 전진해 가는 시간들은 진보하는 상태들을 표현한다. 이 상태에서 세부적인 진리들은 각 상태가 바라는 바에 적절히 맞아 있는 바 보여지고 선택되는 것이다. 기억 안의 진리들은 말씀 안의 진리와 같다.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뒤적거릴 때 우리는 그 목적에 관계되는 진리들만을 보게 된다. 또 다른 때, 우리의 목적이 다를 경우 과거 주목않고 지나쳤던 진리들이 관심을 끌면서 열심히 그 진리를 붙잡는다. 이런 경우는 기억 안에 모여 있는 진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기억 안에서 진리들은 마음이 더 높고 더 적극적 자질이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어 마음이 변화하고 진보하는 상태의 부름에 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하루의 전진해 가는 각 시간대는 이어지는 정신적 상태를 언급할 뿐 아니라 동시에 각 상태의 본성, 품질과 특성까지 표현해주고 있다. 말씀에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 셋은 사랑의 상태와 구별되는 믿음의 상태를 표현한다. 이 숫자는 본문 숫자의 시리즈의 첫 번째를 장식하면서 두 개의 나머지 숫자에 들어가 있다. 숫자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상태를 묘사하게 된다. 세 시간대로 해서 보여주는 진보는 믿음과 총명의 상태가 더 높거나 더 내면으로 전진하는 것을 표현한다. 거듭나는 사람은 이런 상태들을 통과해가고 통과하면서 그들 안에 계속 형성되는 상태의 본성이 일꾼들이 채용되는 각기 다른 시간대로 암시하고 있다. 셋은 거룩한 상태를 표현하고 이 거룩한 상태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진리이고 믿음은 상부구조에 해당된다. 이 상태는 한번 개시되면 시험을 수단으로 순수해져 가는데 이것이 숫자 여섯으로 의미되고, 경험에 의해 완전해지는데 이것이 숫자 아홉으로 의미되고 있다.

6, 7. 거듭나는 삶의 또 다른 단계, 천국 삶의 또 다른 상태의 형성이 이제 뒤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번째의 일꾼이 채용되는 시간대로 묘사되고 있다. “오후 다섯시 쯤에 다시 나가 보니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며 서 있기만 하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이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집주인이 장터에서 일꾼을 발견했으되 각기 다른 시간에 채용한 듯 여겨진다. 새벽에 일꾼을 부른 뒤 제 3시에 나갔을 때 집주인은 장터에서 빈둥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었다. 그럼에도 제 11시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왜 빈둥거리고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누가 일을 시키지 않아서라고 대답했다. 평범한 그대로 이해하려한다면 이 비유는 심각한 곤란을 표출하든지, 아니면 매우 비상한 교리를 표현하든지 하게 된다. 만일 이 비유를 교회로 부름 받은 사람에 관계해 생각해 본다면 하루 종일 피약별에서 일을 한 사람과 해질 무렵에 교회에 입문한 사람에게 하느님은 자신의 권한으로 똑같은 대가를 수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맨 나중의 교인은 아무도 자기를 채용않아서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종일 빈둥거렸는 바 이는 신성의 소홀함에 희생자라고 억지로 인정해야 하는 듯 풀이된다. 그러나 이 비유는 거듭나는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거듭남의

진보를 묘사한다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비유의 각 구절마다 일치되는 것, 더불어 아름다움과 진실됨을 더 없이 상상에 올려놓게 한다. 장터의 일꾼들은 인생 초기에 기억에 들어 온 진리, 또는 거듭남이 실제 시작되기 전에 인생의 어떤 시기에 들어 온 진리인 바, 열 한시에 채용된 일꾼은 아마 거의 하루 종일 빈둥거렸거나 게을리 서성대고 있었어야만 한다. 마지막 췌에 포도원으로 불리운 이런 진리들은 장터에서 가장 오래 지체했던 진리들이다. 거기서 이 진리들은 아무도 자기를 채용않았기 때문에 하루종일 게을리 서 있었다. 기억으로부터 마지막 췌에 불리운 이 진리들은 기억 안으로 맨 처음 진입된 진리들이다. 거듭남은 우리의 유아기의 에텐을 향해 뒤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고 여러 번 주목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런 뒤쪽을 향하는 가운데, 좀더 이해되게 말하면 위쪽 내지 진보하는 가운데 진리들은 원래 그 진리가 획득된 순서와 반대되는 순서로 부름 받아진다. 그리고 상태들 역시 원래 그 상태가 형성되었던 순서와 반대되는 순서로 완전해진다. 최상의 마음 상태에 관한 싹틈(rudiment)은 가장 이른 삶의 시기에 형성되어지고 최고의 상태는 마지막 췌에 실감되어진다. 거듭나는 삶의 가장 높은 상태는 내세에 관한 지식과 체험을 충분히 가진채 그의 유아기의 순진으로 되돌아 올 때 획득된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하셨을 때의 수준에 진실로 이른다. 오후 다섯시(열 한시)에 포도원으로 불리운 일꾼들은 인생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마음에 있어 왔던 순진의 진리들, 신성한 집주인이 스스로 그분의 손으로 이식한 진리들이다. 그 이유가 순진의 진리는 그곳에 씨를 뿌린 사람만이 거둘 수 있는 바 그분께서 준비하시고 준비시킨 일꾼을 보내신다. 이 일꾼에 관해서 온 종일 빈둥거렸다고 말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거듭남의 진보 이전의 상태들은 거듭나는 상태에서 실제 고용될 자격이 없는 듯, 실제 의무를 수행할 채비가 전혀 안된 듯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 진리의 품성은 세시, 아홉시에 채용된 진리처럼 처음 고용된 진리의 품성과 구별되는게 또 하나 있다. 일꾼의 입장에서 그가 일하고 받아야 할 품삯의 요구가 전혀 없는 듯 여겨지게 표현된 점이다. 단지 집주인이 품삯을 줄거라는 신뢰가 자기들의 충분한 보증으로 삼고 있다. 비유의 이러한 일반적 범위 외에 뭔가 더 궁금하게 있다면 그것은 순진의 진리에 대한 모형으로 마지막 췌의 일꾼을 지적해보는 것, 이 일꾼의 품삯과 노동이 사랑과 선함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 일꾼이 고용된 시간에 대한 의미에서 추가적인 확증을 보낼 수 있다. 일꾼들을 어떤 인물에 대한 상징물로 고려해 볼 때 열 하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

그러나 호의적인 어린이에게 있는 잘 받아들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거듭나는 사람에게 적용하면 열 한 시란 초기 삶에서 이식된 진리, 초기 삶에서 형성된 초보단계의 상태들을 의미한다. 이런 초기 시절, 초보 단계의 상태들은 인생 시기 중 세상적인 심사숙고함과 이기적인 느낌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웠던 만큼 가장 순수해 있었던 상태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인간 마음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상태의 싹틈(germ)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상태에 도달하는게 거듭남의 목표라고 요약할 수도 있다.

8. 하늘 나라는 인간 심정 안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면서 마지막으로 건설되는데 그때가 품삯을 받는 때이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차례로 품삯을 치르시오’ 하고 일렀다.” 비유의 이 부분에는 변화된 상황이 있어 주목해보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세부사항이 있다. 먼저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라 불림으로 해서 거듭나는 사람 안에서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 외적 측면을 지배하는 것, 외적 원리가 내적 원리에 종속되는 관계여야 한다는 생각을 표현해 주고 있다. 둘째로 관리인이 처음 소개되고 있다. 일꾼의 채용은 주인 스스로 했다. 그런데 관리인이 그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도록 위촉받고 있다. 이미 말한 바, 관리인은 비유에서 집주인과 일꾼과 더불어 등장하여 한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 그리하여 집주인과 일꾼 사이의 매개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 관리인은 합리적 원리들이다. 이 원리는 주인되는 내적 인간과 종이 되는 외적 인간 사이에 존재한다. 관리인 자신도 종의 수준이다. 그럼에도 그는 주인 몫을 담당한다. 그 이유는 합리성은 내면의 자연적 원리이므로 자연적 마음에서 영적 원리의 능력과 권위를 발휘하고 동시에, 영적 자연적 마음 사이의 매체로서 활동한다. 이 비유에서 관리인이 이 부분에서 처음 소개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본 장 2절에서 이미 살핀 바, 의지와 기억은 이해성보다 더 일찍 발달되어 활동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합리적 원리는 의지와 기억의 하나된 행동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이 둘의 본성이 합리적 원리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내적, 외적 인간 사이의 매체로서 행동하는데 적합하다. 이런 점에서 관리인이 등장하는 이 부분은 이 비유의 둘째 부분이라 부를 수도 있고,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 안으로 유입되는 것도 묘사해 준다. 유입의 목적은 노동의 대가로 그 사람 고유의 지각과 애정의 어떤 것과 교통하여 그 사람에게 만족과 기쁨의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이다. 영적 마음이 자연적 마음으로 유입됨(influx)은 합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

이 일꾼을 불러 품삯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 명령에는 세부 지시사항이 첨부되어 전달되고 있다. 관리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되 맨 나중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처음 사람으로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지불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일꾼들 사이에 새로운 배열을 소개하고 있다. 즉 마지막의 채용자가 처음의 채용자이다. 마지막 형성된 삶의 상태가 가장 높고 가장 좋은 상태이다. 이 상태는 내적 인간의 원리에 가장 가깝게 일치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 마음으로부터 합리성을 거쳐 자연적 마음으로 하강하는 유입을 맨 처음 받게 된다.

9. “오후 다섯시쯤부터 일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일꾼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은전(데나리온, silver penny)이란 지각(perception)이다. 그리고 이 돈과 더불어 영적 마음으로부터 자연적 마음으로 흐르는 영적이고 천국적인 것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다. 이것은 자연적 마음이 영적 마음과 하모니를 이루느라 수고한 대가이다. 다시 말해 영적 마음의 지각과 만족함이 자연적 마음에 나누어진 것, 그렇게 해서 자연적 생각과 애정의 모든 것이 더 높은 생명으로 활기를 띤다. 이 결과 더 명료한 빛과 더 순수한 사랑이 그것들의 기쁨과 지각을 동반하여 와진다. 이것이 일꾼의 대가이다. 그 이유가 종교 생활의 대가는 외부로부터 오지 않고 내부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이 보상은 행복의 근원되는 주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보상 받을만한 모든 것의 근원되는 주님으로부터 온다. 이 보상은 더 높은 우리 본성을 통해 더 낮은 본성의 자질로 내려온다. 이 보상은 우리의 영적 마음을 통해 자연적 마음의 애정으로 내려온다. 천국의 기쁨은 사랑과 진리의 질서와 생명에 일치하여 있어 모든 우리 속 이런 원리들 안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제 생명과 목적으로 사랑과 연결되어왔던 모든 진리가 그 노동의 보답으로 받아진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제 기쁨이 가득 찬 상태, 즉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

10.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품삯을 더 많이 받으려니 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밖에 받지 못하였다.”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제 품삯에 대해 특별한 계약을 맺었다. 아마 그들이 다른 일꾼들이 품삯을 받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제 품삯에 만족했었을 것이다. 이것이 거둬나는 삶의 초기 상태에 관한 특성이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순종으로부터 선을 행한다. 달리 말해 보면 우리가 대단히 열심히 일하는 것은 대단한 보답을 바래서여서 결국 획득한 대가에 결코 만족치 못한다는 말이다. 자신의 정의는 대단한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여긴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공정은 충분하다고 여겨질 만큼의 보상이 결코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주님 편에서 볼 때 보상은 편견없이 골고루 분배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제 데나리온을 받는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모습은 하느님의 공평한 선함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은총을 받는 인간의 동등한 능력까지 표현하고 있다. 한 데나리온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제 목숨값으로 내놓은 반 세겔과 같다. 이 목숨값은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하다고 덜 내어서는 안되는 정해진 반 세겔이었다 (출애굽기 30:12-15). 그러나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샅을 받으러 왔을 때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상상했다. 이 상상 속에 그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렇게 상상한 이유는 자아를 편애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희생이라는 것에는 대단히 적은 관심을 두었고 대신 사리추구에 관심을 집중시킨 것이다. 거둬냄에 관련해 이를 관조하면 이 모습이 그려주는 상태의 품성을 확실히 표현하고 있다. 참된 종교적 원리는 이러하다. 보상은 일 때문에 주어지는게 아니라 은총으로 주어진다. 우리는 일한 것 때문에 보상받는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그 일 안에서 보상을 받는다.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에게 보상하는 신성한 권능은 정작 우리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준 신성한 권능과 같은 권능이다. 하느님 안에서 일해지지 않은 일들은 그분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상은 그 일 안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받고자 일할 때, 또는 품삯이 목적이어서 일을 할 경우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성과 보다 더 크고, 자신의 수용력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제 아무리 미미하게 생각되는 하느님의 자비라 해도 우리의 모든 공적을 훨씬 초과하는 신성한 박애 속에 있다는 것을 심정이 느껴 확신할 때까지 우리는 자기의 공적을 자랑함이라는 끈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11, 12. 제 품삯 이상을 기대했던 이들, “그들은 돈을 받아 들고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막판에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은 온종일 피약별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고 따졌다.” 이 선한 집주인에게 일꾼이 불평함은 외적 인간과 내적 인간 사이의 불일치를 표현하고 있다. 사실 이 불일치는 처음 고용된 일꾼쪽에서만 불일치이다. 이는 거둬냄의 처음 단계에 있게되는 불완전한 생각과 느낌의 유형, 또는 처음 받았던 진리가 아직 선과 하나 안되었을 경우의 불완전한 유형, 혹은 처음의 믿음이 이타애와 하나 안되어 있으므로 야기된 불완전들이다. 이들이 불평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을 성실히 대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즉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온종일 피약별 아래서 수고한 자기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서였다. 허나 이를 영적으로 이해해본다면 맨 처음 와서 온종일 수고한 것보다 마지막에 와서 한 시간 일한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좋은 의미에서 하나(one)는 선함의 원리를 표현한다. 진리는 많으나 선은 하나이다. 필요한 것은 한 개다.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것은 한 가지 것이었다. 이 한 가지 것 없이 그가 지닌 많은 재산은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장애물이 되어줄 뿐이다. 부자 청년의 많은 재산과 비슷하게 본문의 많은 시간의 노동인 바 이것은 하늘 나라의 입장을 방해한다. 이것 없으면 일은 공적이라는 생각으로 색칠되어진다. 이 색깔은 타인이 수입을 올리는 것에 질투를 느끼게 하고 자기 수입이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고 제 스스로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에게 일은 힘든 노동이다. 그들은 하루 종일 피약벌에서 수고한다고 생각한다. 제 총명의 자량은 노동을 무거운 짐이 되게 한다. 자아만의 사랑이라는 피약벌이 노동을 압박하는 어떤 것이 되게 한다. 제 공적을 내세우는 사람은 종교생활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의 원리 같다. 이 원리는 내적 인간을 규율하는 더 높고 더 순수한 원리에 맞서려고 불평한다.

13. “그러나 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이요? 당신은 나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소?’” 개인적 응용차원에서 볼 때 이 구절은 내적 인간이 아직도 사리추구라는 느낌에 더 치우쳐 있는 자연적 마음을 지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집주인은 불평하는 일꾼을 친구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래의 올바른 생각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가 자연적 인간은 영적 인간의 친구가 될 정도의 상태에 아직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상을 목적으로 일한 일꾼이기 때문에 동료로서의 친구수준일 뿐이다. 불평하는 일꾼에게 집주인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 이유가 서로 동의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내적 인간을 표현하는 바, 진리의 올바른 지각, 일꾼에 대한 그의 대답인 잘못한 게 없다는 말들이 함축하는 것은 올바름에 관한 내면의 지각과 확신, 독선과 공적주의를 포기해야 올바르다는 것이다.

14. 그러므로 주인은 일꾼에게 말한다.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의 삯을 주기로 한 것이요.” 이는 영적 인간이 처방한 것에 자연적 인간은 만족해야 한다고 지각함을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과분한 보상을 자연적 인간이 바라는 것은 반드시 억압되어야 한다는 것, 정의의 법칙에 복종함이 함양되어야 한다는 영적 지각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의무를 수행하도록 자연적 인간을 인도하기

위해 집주인이 일꾼에게 “네 길을 가라” 하고 말한다. 즉 집주인은 일꾼에게 네 바램을 실제로 실감하는 수단은 진리에 일치되게 사는 것임을 충고하고 있다. 이런 삶은 “나는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의 품삯만큼 주기로 했다”에 의거한 집주인의 행동지침에 담긴 자비뿐만 아니라 공정함까지 볼 수 있게 한다. 그 이유가 이것이 사랑과 선함의 뜻이요 바램이요, 내적 인간의 본질적 원리이다. 이 원리는 모든 자연적 생각과 느낌에 만족과 기쁨의 보상을 받는 수용력과 즐거움을 공평하게 수여한다. 진리를 감사히 여겨 받고 충실하게 실제에서 사용하면 만족과 기쁨은 언제나 보장된다.

15.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요?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원리가 놓여진 것을 발견한다. 자연적 마음이 천국 진리를 받고 지각하는 모든 능력, 자연적 마음이 경험할 수 있는 천국 진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영적 마음으로부터 근원된다는 것, 사실 영적 마음 자체라는 것이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게 잘못이란 말인가?” 라는 집주인의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자연적 마음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은 내적 인간의 의지와 일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영적 의지가 자연적 의지를 통치해야 한다는 것, 영적 지혜가 자연적 지혜를 안내하고 방향을 정해주어야 한다는 것, 바꿔말해 자연적 의지와 인간의 지혜가 영적 의지와 지혜위에 균립하거나 명령하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네 눈은 악하게 보느냐?”는 집주인의 말이 우리에게 더 가르치는 바, 눈이 의미하는 자연적 이해성이 자연적 의지의 영향밑에 있게 되면 악하다는 것, 이럴 경우 자연적 이해성 자체는 내적 인간의 의지를 형성하는 영적 선에 반대된다는 것이다.

16. 이렇게 말함으로 집주인은 결론 내린다.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름받았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처음에 활동했던 진리들, 거듭남의 진보에서 처음 형성된 상태들은 가장 외적이고 불완전하다. 마지막 상태가 가장 완전하다. 인간이 거듭나질 때 첫째에 있었던 것이 꼴찌가 되고, 꼴찌에 있던 것이 첫째가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거듭난 사람은 가장 완전한 것을 높은 것으로 삼는다. 덜 완전해질수록 더 미미한 것으로 평가한다. 우리가 획득한 원리들이 우리 마음에서 이런 배열을 결국 갖게 되는데 이것이 질서에 따른 것이다. 그 이유가 덜 완전한 것은 더 완전한 것에 종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교적 삶을 순종함이라는 원리로 출발해서 사랑함이라는 원리로 끝낸다. 이런 상태가 달성될 때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떨어져 된다. 비유는 다음 말씀 안에 집합되어 있다. “많은 이가 불리웠으나 뽑힌 자는 적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인류에게 정말 글자대로 적용되는지는 여기서 토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가는 것은 영적 측면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영적 의미에서 숫자들은 양이 아닌 질을 표현한다. 많다(many)란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을, 적다(few)는 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뜻한다. 진리는 “부름받는다, called,” 그러나 선은 “뽑힌다, chosen.” 부름받긴 했는데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로부터 거절된 것, 또는 축출된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되고 단지 이들은 하늘나라의 가장 낮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 본다. 그 이유가 이런 성경구절도 있기 때문이다. “그분과 함께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뽑힌 자들,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만왕의 왕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다” (계시록 17:14).

17-19.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마치신 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열 두 제자를 가까이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 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16:21)이 있는 뒤 그분이 받게 되는 수난을 제자들에게 말하셨다. 그 말씀에 더해지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바 수난에 대한 두 예고의 연결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설명하는게 더 나을 것 같다.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이러하다. 오로지 거짓들만이 통치하는 교회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는 모독될 것이고 그 교회 속의 진리는 뒤집혀지고 그곳의 선은 파괴된다. 사람의 아들은 말씀이라는 신성한 진리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악과 거짓만이 군림하는 교회이다. 대사제들은 선을 섞음질한 것, 율법학자란 진리의 왜곡, 이 모두는 악마적인 사랑으로부터이다. 이방인들은 교회의 선과 진리를 파괴하는 지옥으로부터의 악을 의미한다. 그분을 정죄하고 그분을 이방인에게 넘긴다는 것은 신성한 선함과 신성한 진리를 지옥이라고 판결하여 악과 거짓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조롱과 채찍질, 십자가형은 모독, 왜곡, 진리를 뒤집음, 교회와 말씀 속의 선에 악을 섞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날에 그분이 다시 일어나심은 주님의 인성이 완전히 영화하심을 의미한다.“ 이 서술은 제 16장의 설명과 큰 차이는 없다. 주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여행을 예루살렘쪽으로 하시고 있다. 수난의 사건이 가까이 접근하는 바 그분은 그 사건에 관해 더 뵘족하게 묘사하시고 있다. 두 번째 예고에서는

이방인이라는 계층을 더 첨가하여 새로운 표징적 매개자(agency)를 소개하고 있다. 이방인은 악들, 특별히 외적인 종류에 있는 악들을 표현한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이방인들은 로마인들이다. 이들에게 주님은 유대인들에 의해 넘겨졌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자연적 수준의 합리적 원인을 표현하는 바, 이방인으로서의 그들이 의미해 주는 악은 덜가르침을 받은 상태에서 진행된 악보다 악의가 더 크다. 원로와 율법학자들은 내면의 악과 거짓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정죄해서 죽게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방인은 외면의 악들을 뜻하기 때문에 주님은 유대인의 의도인 그분을 죽이심이 관철되어지도록 이방인에 넘겨지는 것이고, 그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처형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조롱은 악의 작용에 관계됨을, 채찍질은 거짓에 관계됨을, 십자가형은 악과 거짓의 하나된 행동에 관계된다. 그러나 신성한 약속은 “그분께서 다시 일어나신다”이었다. 그분의 주장과 예언 모두를 왜곡하려는 의도를 관철하려는 끈직한 적대감의 행동들이 오히려 그분의 모든 것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변하여 세상을 구속하시고 그분의 인성을 영화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일을 마무리 하는 도구가 되었다.

20. “그 때에 제베대오의 두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왔는데 그 어머니는 무엇인가를 청할 양으로 엎드려 절을 하였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에 관해 아는게 얼마나 적었는지 보여준다. 그들의 견해, 그들의 희망은 지상 왕국이 뒤엎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 죽음에서 일어남이 의미하는 것을 아직 몰랐다. 이런 사항은 그들로부터 자비로 감추여 있었다. 이 사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있지 않도록, 그들 심정의 완악함이 제거되도록 한 걸음 더 접근하고 있다. 이 시기까지도 지옥과 땅 위 악의 모든 권능은 주님의 영적 왕국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려는 마지막 큰 음모를 작당하고 있었다. 제베대오의 두 아들은 사도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서열이 뒤인 것은 결코 아닌데 그들은 어머니를 앞세워 장차 올거라고 그들이 믿는 지상 위 왕국에서 두 개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보려 하고 있다. 그들의 야망은 모든 제자들의 심정에 잠복해 있는 영적 포부의 자연적 형제였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기질은 타락된 모든 심정 안에 상속된 기질들이다. 이것이 종교적 삶 속으로 진입되면 십자가밖에 열매맺는게 없고 주님의 몸과 함께 무덤에 매장될 때까지 곤경만을 야기시킨다. 그러나 이 사건은 좋은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을 제자들의 초기관념인 지상의 주님나라로부터 부활뒤에 있게 되는 주님의 영적 나라로 들어올리면 이렇게 이해된다. 이런 견지는 이 사건의 귀착점을

보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말할 때 그분의 죽음과 부활도 말하셔왔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다가온 것은 두 아들이 그분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는 주님의 새롭고 영적인 나라에 있게될 드높여짐을 표징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제베대오 자녀의 어머니는 교회를 표현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의지에 있는 이타애와 행동에 있는 이타애를 표현한다. 오른쪽은 천적 사랑의 선, 즉 주님을 사랑함의 선을 의미하고, 왼쪽은 이웃을 사랑함의 선인 영적 사랑을 의미한다. 참된 교회는 마치 제베대오의 아들의 어머니처럼 제 두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그 아들이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를 진실로 바란다. 주님의 교회는 자녀가 드높여져 그분의 옥좌에서 그분과 함께 앉는 것을 보기를 계속 바라고 노력한다. 교회의 자녀는 제베대오의 두 아들로 표현된 두 계층으로 이루어진다. 즉 이타애 안에 있는 아들과 이타애의 선 안에 있는 아들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드높여질 수 있다.

22, 23. 바램과 성취 사이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인간이 제 자신의 기도의 본성을 진실로 이해할 수 있기 전 반드시 성취해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형제들에게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주님의 잔과 세례는 내향의 시험과 외향의 시험이다. 이 시험에 “승리”할 때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신다. 마치 라오디게이아 교회인에게 보낸 충고, “승리하는 자는 마치 내가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옥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옥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계시록 3:21)는 구절과 같다. 그분이 받으신 부끄러움과 고통을 함께 나눔이 없이 영광으로 계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 물으셨다.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 잔을 마시게 되고 내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신들에 관한 증언에 대한 주님의 이 확증에는 단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권능까지 함축하고 있다. 인간 홀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 인간이 하느님과 협동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강건하게 함으로 만사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두 제자에게 이것만으로 충분치는 않다고 말하셨다. 더 첨부하신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내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있을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아버지는 신성한 사랑이고 아들은 신성한 진리이다. 신성한 진리는 신성한 사랑 없이 드높여질 수 없다. 참으로 우리는 아들이 마실 잔을 마셔야 하고 그분이 받는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 그 이유가 진리는 시험받아야 하고 우리를 받쳐주어야 하며 시험을 수단으로 진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이유가 우리를 드높여주고 참된 드높임을 준비시켜주는게 사랑이기 때문이다. 예수 자신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이셨고 모두이시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영적 의미를 알게 되면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선포하신 독특한 힘을 볼 수 있어 그로부터 실용적 교훈을 끌어 낼 수 있다. 주님께서는 순수한 사랑과 자비로부터 사랑과 믿음의 선 가운데 있는 이들, 즉 천적이고 영적 수준의 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천국을 주신다. 주님께서 그분의 아버지라는 말을 꺼내실 때 이는 그분 자신의 신성한 사랑을 뜻한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이란 주님 사랑을 삶의 제일 원리로 삼고 있는 이들이다.

24.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열 제자가 두 형제를 보고 화를 냈다.” 자기들 중 누가 제일 위대한지를 놓고 열을 올린 사도들이 두 제자의 개인적 청탁에 화를 낸 것은 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25-28. 복음서의 일반 진리들 사이에서 보석처럼 놓인 아름다운 교훈 중 하나가 전달되고 있다. 그리고 인간 결점도 드러내 보여주신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 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이는 세상의 영에 반대되는 종교의 참된 영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이다. 주님께서는 가르침의 실행 가능성을 그분께서 직접 본을 보이심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도 그대로 하라” (요한 13:15)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으셨다. 참으로 위대함은 유용성(usefulness)에 있고 유용성은 섬김(serve)이다. 바깥쪽 위대함은 위대한 유용성의 바깥쪽 표시일 뿐이다. 가장 높은 유용을 수행한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동시에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낮으신 분이셨다. 그분의 본보기를 가장 가깝게 모방해내는 제자가 그분께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제자가 된다. 주님께서는 위대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으셨다. 각자가 제 위대함을 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방인의 왕들이 하는 짓, 타인을 지배하려드는 것으로 위대해져 보려 시도해서는 안된다. 이런 위대함은 참 위대함이 거꾸로 된 것이다. 왜곡된 위대함은 내적 측면을 압도한 외적 측면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이는 위대함의 실체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된 질서가 우세한 곳은 어디든지 참된 위대함이 통치한다. 그 이유가 더 위대한 유용이 더 높은 자리로 드높여 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용성(usefulness)을 통해 위대함을 추구해야 한다. 아마 유용성 자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해도 무난할 것이다. 그리고 유용함 자체에 일치되기 위해 위대함에 소속된 바깥쪽 위대함은 내버려두어야 할 것이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신성한 말씀 안에 영적 의미가 있고, 이 의미는 글자가 표현하는 행위적 지혜의 근원과 그 영쪽으로 인도해 준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교회를 표현한다. 이 두 제자는 이타애와 선함에 있는 이들, 또는 영적 사랑과 천적 사랑에 있는 이들을 표현한다. 이들에게 위대함과 드높여짐이 속해있다. 두 형제와 나머지 열 제자는 교회의 내적, 외적 멤버를 형성하는 이들을 표현한다. 마치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열 형제가 이 열 두 제자에 앞서 있어온 것과 비슷하다. 열 두 형제, 열 두 제자를 “둘”과 “열”로 구분해 놓은 의도는 그들의 품질을 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둘은 결합을 의미하고 선과 진리가 결합한 이들이 내적 교회를 구성한다. 열은 진리들을 표현하는 바 진리들 가운데 있는 이들은 외적 교회를 형성한다. 그러나 우리 각각은 자신 안에 내적 원리와 외적 원리를 가지고 있다. 내적 인간 안에서 결합한 선과 진리는 우리 속 교회의 내적 측면을 형성하고 진리들은 외적 측면을 형성한다.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바, 거듭남의 진보에서 외적 인간은 내적 인간이 통치자로 군림하는데 분개한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기술된 상태는 내적 인간의 통치가 건설되는 것에 관해서가 아니라 건설되기를 바래고 애쓰라는 것에 대해서이다. 그래서 외적 인간 측에서 분개함이 거행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왕들이 하는 짓을 모방하지 말라는 것, 다시 말해 악이 자연적 생각과 애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시고 있다. 주님께서 “너희는 그래서 안된다”고 말하셨다. 그 이유가 거듭나는 사람 안에서 모든 원리는 조화있는 일치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원리들이 동등한 중요도를 지닌게 아니지만 그 필요성은

동등하다. 다시 말해 모든 원리가 한 가지 목적을 찾고, 한 가지 결과를 맺기 위해 협동하며 각 원리가 제 분수에 맞는 자리에서 적절한 유용성을 수행하는 것, 선이 진리를 섬기고 진리가 선에 봉사할 때 모든 원리는 서로 서로 평화를 가진다. 섬기는(minister) 이들은 “위대한 사람이고” 봉사하는(serve) 이들은 “으뜸가는 사람”이다. 그 이유가 위대함(greatness)은 선에 관련된 것을 서술할 경우 사용되는 단어이고, 으뜸(chief)은 진리에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각은 제 고유의 기능과 사용에서 특출함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주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응용될 경우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까?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선은 섬기는 자(a minister), 진리는 종(a servant)이다. 그래서 선은 진리를 섬기고 진리는 선에 봉사한다. 주님의 인성은 영화하시기 전에는 종의 위치였다. 그 이유는 이 인성은 신성한 진리였기 때문이다. 고로 사람의 아들은 섬겨졌다. 그러나 인성이 영화되셨을 때 그 인성은 더 이상 신성한 진리나 종의 위치가 아니라 신성한 선과 섬김의 위치였다. 그 다음 사람의 아들은 더 이상 섬겨지지 않고 섬기게 되었다. 인성의 영화하심이 주님이 오신 마지막 단계였는 바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이다. 그분의 오심은 또 다른 목적이 더 있었다. 그분은 그분의 목숨(soul)을 많은 사람을 위한 몸값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 단어 목숨(soul)은 지적 측면에서의 주님의 목숨을 뜻한다. 이 목숨이란 신성한 진리이다. 주님께서 몸값 또는 구속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목숨이다. 그 이유가 그분의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구속으로 그분의 영혼을 주심은 그분이 섬기는 것과 근친관계에 있다. 전자는 그분의 진리의 작용을, 후자는 그분의 선함의 작용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신다고 말하셨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진리 또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서술하고 있다. 진리는 “많지만” 선은 “하나뿐”이다. 이 주제를 우리 자신에 관련시켜 더 뵈족하게 생각해 보자. 사람의 아들은 개혁의 시기동안 우리 안에서 종의 위치에 있다. 이 때 진리는 우리 안에서 첫 번째 위치이다. 고로 그는 섬겨진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날 때 사람의 아들은 우리 안에서 섬긴다. 이 때 선은 우리 안에서 첫 번째 위치에 있는 바 섬긴다. 그러면 선으로부터의 진리는 우리를 모든 악과 거짓으로부터 구속 또는 몸값을 치른다. 아래 구절의 기적은 주님이 성취하러 오신 구속을 본보기화 하고 있다.

29.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예리고를 떠났다. 이 장소는 이스라엘 후손이 약속된 땅으로 진입할 때 첫 주둔지가 되었던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교회에 입문하는 첫 단계를 표현한다. 더불어 이 곳은 가르침, 생활의 선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생활의 선 가운데 있지 않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교리의 진리가 가르쳐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을 따라 온 많은 무리란 이 선을 위해 가르침을 찾는 사람들이다.

30-34. 큰 군중이 따라 붙은 예수께서 예리고를 떠나실 때 “소경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9장 27절에도 있었다. 그러나 세부사항에서 다른 점이 있다. 영적 소경이란 진리에 무지함이다. 이 소경은 길가에 앉아 있었다. 길은 진리를 의미하고 앉아있음은 의지 측면의 상태를 의미하는 바 이 소경의 모습은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알게 되면 그 진리에 따라 살겠다는 마음의 태도를 암시한다.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와 누가복음을 더불어 살펴보면 그들은 구걸하고 있었다. 구걸함이란 제 스스로는 진리를 포획할 능력이 없어 진리에 관한 지식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다. 이 능력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소경들이 예수께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간구함 안에 표현되어 있다. 그들은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이 정보를 귀를 통해 들었다. 이는 의지측면을 통헤서라는 말이다. 귀는 의지를 특별히 상징하는 신체기관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성을 통해 보기를, 알기를 원했다. 즉 진리의 빛을 보고 싶어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쳤다. 이 소리를 들은 예수께서 볼 수 있는 축복을 해주셨다. “그들은 예수를 따랐다.” 그들은 더 이상 길가에 앉아 있지 않았다. 마치 가난한 자가 부자인 제 친구의 박애 정신에 의존해 있던 것을 탈피하는 것이다. 그들은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 빛 가운데서 걸어갔다

21

1,2. 주님께서는 예리고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그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땅에 진입해 예루살렘을 소유할 때까지 있어졌던 행로와 같은 코스를 거쳐 마지막 여행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 두 여행의 유사함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두 여행 모두 영적 여행, 천국을 향한 진보, 신성의 진보, 가장 낮은 곳로부터 가장 높은 데로의 진보이다. 인간의 경우, 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 각자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수준일 것이고, 주님의 경우는 영화하심의 마지막 여행이다.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여행이 영화하심을 향한 그분의 마지막 진보를 표현 하는 고로 그분은 왕으로서 거룩한 성에 들어 가셨고 성전을 점유하시어 성전이 그분의 몸임을 상징하셨는 바 그곳에 있는 더러운 것, 팔고 사는 자들을 몰아 내시면서 성전 뜰에 있던 소경과 절름발이들을 고쳐 주신 것이다. 이런 행동에서 그분은 그분의 인성 측면에 있는 유전적인 악과 각종 결점의 찌꺼기들을 마지막으로 추방시키시는 것과 영화된 그분의 인성의 성전으로부터 잃었던 양들(창조물)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선물을 준비하시는 것을 표현해 놓고 있으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여행, 예루살렘으로의 진입이 가진 취지이지만 이제 각 세부사항들 역시 더 깊은 흥미를 가져오리라 본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 편 마을로 가 보아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터인데 그 새끼도 곁에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올리브산은 천적 사랑,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을 상징한다. 벳파게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인 바, 이는 자연적 사랑,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랑을 상징한다. 마가복음서의 경우, 베다니이라는 장소도 덧붙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세 지역은 세 가지 수준 즉 천적, 영적, 자연적 수준에 있는 선을 의미한다. 본문의 경우 베다니에 관한 언급이 없다 해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세 지역을 의식해서 이해해 두는게 더 나을 것이라 본다. 그 이유는 본문에 베다니아가 거론 안 되었어도 올리브와 벳파게는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하는 바 결국 전체적으로 있게 되는 완전함을 의미해 주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 지역에 당도하셨

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수준에 있는 내면이라는 측면에서 그분의 인성을 이제 영화시키셨다는 것, 더불어 이 수준들에 있는 외면이라는 측면은 방금까지 영화시키셨다는 것, 그리하여 그분은 영원으로부터 첫 번째 되는 원리(요한복음 1:14), 최말단에 있는 말씀이 되신 것이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는 것은 두 제자로 표현된 그분에게서 나오는 선과 진리를 수단으로 마을로 표현된 인성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사이에 교통되어 하나되게 하는데 있다. 이 의미가 나귀를 푸는 것, 새끼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타시는 모습에 담겨 있다. 나귀는 자연적 원리를, 새끼 나귀는 합리성을 의미하고, 두 원리가 영적 원리에 종속됨이 주님께서 그 위에 타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매여 있고 제 옆에 새끼가 있는 나귀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자연적 원리가 합리성과 더불어 아직은 속박된 상태에 있다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분 스스로 맨 처음 그것들이 자유롭도록 본보기를 보이셨고, 그 다음 그분이 영화하셨듯 거듭 나아지기 위해 고민하는 창조물도 그 대열에 끼게 하셨음을 표현하고 있다. 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신 명령은 자연적 원리와 합리적 원리들이 자유로워질 때 내적 인간에 있는 주님의 선과 진리와 연결되어 두 원리가 주님의 원리에 추종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3.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도록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하셨다. “혹시 누가 무어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습니다’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어 줄 것이다.” 비록 마태가 주변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가복음의 경우 어떤이가 위 구절같이 질문했다고 기록했는데, 어쨌든 사도들은 자기들에게 일러둔 주님의 말을 반복함으로 신성한 요구를 밝혀 두었다. 사실 그분은 미리 예견하시는 분이신 데도 그분이 쓰시겠다고 요청하고, 사람이 승낙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이는 자연적 원리와 합리성이 소속되어있는 곳이 인간 자신이지만, 인간은 자신 속의 자연적 원리와 합리성의 진정한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기꺼이 곧 내어주어 끌어가도록, 그리하여 그분이 사용하시도록, 그분을 섬기는데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도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우리들 각자에게 보내셔서 우리 속의 나귀와 그 새끼를 풀도록, 즉 우리의 자연적, 합리적 자질들을 자유롭게 해서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진리에 기꺼이 종속되어 합류되게 추구하고 있다. 아마 우리는 천국 원리에 동참하라는 메시지에 내향적으로 반감을 느낄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속의 어떤 원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나귀를 풀어가요?” 그러나

예수의 축복된 말씀, “주께서 쓰시겠다.” 우리가 이 대답을 시원스럽게 하면 그분의 요구에 동의하는 기쁨이 있게 되는 바, 가장 높은 영예와 가장 큰 축복을 즉시 나타내는 이성을 수단으로 강력한 집행력이 동원된다.

4,5절.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말한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시온의 딸에게 알려라. 네 임금의 너에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타시고 멩에 메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예언적 예고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함께 묶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구약에서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은 영원한 말씀, 말씀이 육이 되신 것과 같다. 즉 두 번째가 첫 번째에 육을 입힌 것이다. 이 둘은 서로 인간 안에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응답되고 있다. 시온의 딸이란 천적 교회, 신성한 진리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 속의 애정, 즉 사랑으로부터 규율되는 신성한 진리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이유는 임금이 겸손(meek)하시다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겸손한 자(the meek)는 이타애의 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인간의 겸손은 이타애의 선에서 나오고 신성한 겸손은 사랑의 선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시온의 딸에게 오시되 암나귀, 멩에 메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말은, 그분의 신성한 진리와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자연적, 합리적 원리의 협력과 찬성을 얻으면서 심정의 가장 수준 높은 애정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러면 천국적인 질서가 마음 안에 건립되어 자연적 수준들은 합리적 수준을 섬기고, 합리적 수준들은 영적 수준들을 섬기고, 영적 수준들은 천적 수준들을 섬기고, 천적 수준은 신성을 섬기게 된다.

6,7.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겹옷을 엮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 앉으셨다.” 제자들의 겹옷은 영적인 진리들을 뜻한다. 제자 중 두 사람이 파견되어 나귀와 그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왔다는 것은 자연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의 도움으로 자유로워져서 주님께 나아오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다. 나귀를 끌어 왔을 때, 제자들이 겹옷들을 나귀 위에 얹고 주님을 그 위에 태우셨다는 것은 자연적 진리나 합리적 진리들이 신성과 연결되는데 영적 진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

8. 제자들이 겹옷을 나귀 위에 엮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겹옷을 벗어 길에 퍼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 놓기도 하였다.” 나무(tree)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과 직감을 의미하고 나뉘는 진리 자체를 뜻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를 길에 깔았는데 그 이유는 교회 속의 사람들을 선함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진리요, 길 또한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우리 속의 영적인 것을 표현함에 비해 군중은 자연적인 생각과 애정들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겹옷을 끼는 동안 군중은 길에 겹옷을 퍼놓은 것이다.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진 이유는 주님이 심정 안으로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고 영혼 안에서 가장 높은 애정을 표현하는 이름인 시온의 딸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을 축하하는 그 속에는 영적 마음에 모든 자연적 마음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표현되도록 배려하셨기 때문이다.

9. “그리고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앞서 간 무리들은 우리 속의 애정을, 뒤따라 간 무리들은 생각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 속의 자연적 원리 모두를 말하고 이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협력하여 하나를 이루어 환영의 호산나와 찬미의 축복을 노래하는 것이다. 애정과 생각들 양면이 주님을 드높인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람들이 환성(소리쳐 말함)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소리침(crying)은 애정을 나타낸 것이고, 말함(saying)은 생각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를 신성한 양면에서 묘사해 놓기 위해 더 언급된 것은 호산나와 찬미함이다. 주님이 위와 같이 두 겹으로 드높여진 것은 우리의 이해성에 있는 그분의 진리와 의지 속에 있는 그분의 선은 반드시 드높여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배려 때문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그분을 노래하고,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기술된 이유는 다윗의 자손은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을, 주님(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란 신성한 선함 측면에서의 주님을 말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람들은 호산나라고만 노래한 게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라고 노래했는데 이는 우리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선과 진리를 넘어 존재하는 신성한 선과 진리를 찬양한다는 뜻이고, 더불어 주님은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 속에서 실지로 선과 진리를 만드신다는 말이다.

10,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민이 들떠서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이분은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요’하고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은 천국과 교회를 표현하고 주님이 왕으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심은 그분께서 그분의 진리로 그분의 영적 왕국을 통치하신다는 뜻이다. 왕권을 상징하면서 의기 양양하게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그 성이 떠들썩해지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분이 누군지 물어볼 수밖에 없게 했고, 군중들이 그분께 왕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있는 바 당황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민”이라고 번역된 말은 영어 성경의 경우 성(city)으로 번역했는데 이는 교리를 의미한다. 주님이 성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있게 된 떠들썩함이란 교리에 관한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 주님의 현존이 있게 될 때의 결과를 의미한다. 성내 주민들의 흥분된 느낌이 어떠하다는 묘사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다. 그 느낌이 예수를 미워함, 경멸 같은 것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입성 당시 그분이 누구냐고 물었던 것으로 보아 그분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마 놀람에서 나타나는 흥분된 느낌만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들의 흥분됨과 문의는 예루살렘으로 의미되는 교회 내에 있는 느낌과 문의를 표현한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문의는 주님이 그 마음에 현존하심으로 발생된다. 성내에 소속된 이들의 문의, 성밖에서 들어온 이들의 대답은 시편 24편에서 도표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아주 비슷하게 이해될 것이다. 이 시편의 상황은 주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 올 때이다. 궤를 멘 이들이 성 입구에 당도했을 때 이렇게 외친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왕께서 드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야훼이시다. 싸움터에서 그 용맹 떨치신 야훼이시다.” 예루살렘으로 궤가 입성함과 주님의 입성은 표현적 측면에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전자는 후자에 대한 모형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그 둘 사이의 유사성 한가지가 더 있다. 궤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듯, 궤로 표현된 그분은 성전으로 들어 가셨다. 이 모습을 주님께 관련해 본다면, 이 사건들은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거쳐 가장 거룩한 곳까지 만민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그분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는 그분의 승강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 우리와 관련해 보면, 거듭나는 마음의 위쪽을 향한 진보, 즉 그분이 우리의 가장 깊은 애정으로 들어가시어 거기에 정의의 법을 놓으시고 그분의 거처를 순수해진 영혼에 두어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성내 사람의 문의에 대한 대답은 “이분은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요”이었다. 신약 성서에서의 예수는 구약 성서에서의 여호와와 동등하게 같은 의미를 지닌다. 두 이름 모두 신성한 사랑 측면에서의 주님을 의미한다. 예언자로서의 주님은 말씀 또는 신성한 진리 자체이셨고, 예언자 예수란 신성한 사랑과 진리로서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계셨던 갈릴래아의 나자렛이란 최말단(ultimates)에 있는 신성한 사랑과 진리를

의미한다.

12-14.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 내시고 환금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나무라셨다. 그 때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이 앞으로 나오자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성전을 정화하심은 그분에게 붙어 있던 인간 측면에서의 결점과 유전적인 악들에 속한 모든 것을 척결하심으로 주님의 인성이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자. 성전은 하느님의 성전이라 불리운다. 이 집이 “기도하는 나의 집”이라 불리고 있고, 요한 복음 2장 16절의 경우,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다. 단어 성전(temple)은 신성한 이름 하느님과 마찬가지로 의미인 영적 교회, 또는 주님 안에 있는 신성한 영적 원리를 의미한다. 단어 집은 신성한 이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천적 교회, 또는 주님 안에 있는 천적 원리를 의미한다. 이를 우리 자신과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면, 성전은 이해성이고 집은 의지이다. 이해성 안에 하느님의 진리가 존재할 때 그 이해성은 하느님의 성전이고, 의지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게 될 때 그 의지는 아버지의 집이 된다. 따라서 마음이 사랑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할 경우 그 마음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당시의 인간 마음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 즉 악이 인간 의지를 점유하고 거짓이 이해성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다. 사실 인간의 의지와 이해성은 하느님께서 그분의 선과 진리를 받도록 설비된 장소들이다. 이보다 더 큰 죄가 그 당시에 저질러져 있었다. 악과 거짓이 마음속에 들어가되 선과 진리까지 점유해서 모독해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하느님에 속한 것까지 자기들 것이라고 올려대고 있는 바, 이것이 영적 의미에서의 강도인 것이다. 이 상태가 교회에도 만연되어 더 크게 부패되어 있었다. 팔고 사고 하는 자들이란 거룩한 것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모습이다. 환전상이란 거룩한 진리를 제것으로 챙기는 자들, 비둘기 장수란 거룩한 선들을 제것 삼는 자들을 각각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이들은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훔쳐서 그 의미를 뒤집어 자기 악과 거짓들이 옳은 것이라고 확증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말씀속 진리의 힘을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주님께서 이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신 것이다. 주님의 몸이신 성전에서 이루어진 이런 일들은 인간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분은 타락된 인류의 딸에게서 인간 불완전에 속한 모든 것도 상속 받았다. 그분은 자신 속에서 그런것들을 몰아내셨다. 이리하여 그분은 교회와 인간으로부터서도 그런것들을 몰아내어 주실 수 있게 되어 고통하는 인간에게 구원의 축복이라는 처방을 내려 주시게 되었던 것이다.

15,16.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며 성전 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 지독하게 물질적인 인간은 가장 공정한 장면에 가장 캄캄한 배경을 드리우게 한다. 이런 슬픈 배경을 우리 자신의 심정도 노출시킬 때가 매우 흔하다. 우리속 이기적인 형체들은 무한한 지혜의 손이 심정을 더듬을 경우 모든 천국적 광경에 캄캄한 배경만을 형성한다. 이런 인간의 행동은 언제나 분노라는 것으로 흥분되고 수치스러움도 산출한다. 옛 인간속의 악과 거짓은 새 인간속의 선과 진리를 언제나 적대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순진은 부패된 마음 안에서 분개함이라는 가장 쓴 느낌을 휘젓는다.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칠 때 사제들은 경멸과 분노로 “예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까?’라고 투덜댔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호산나라고 그분께 소리쳤고, 이 소리를 성내에서 어린 아이들이 인계받아 외쳤던 것이다. 성전에 계신 주님은 인성속에 계신 주님을 표현하고 있다. 아이들이 성 안에서 예수께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심정속의 순진이 신성한 인성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다. 천국의 순진은 죄를 극복함에서 결과된 죄 없음, 악을 정복함으로 획득된 선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영화하심으로 만드신 선이요, 이 선이 우리속에서 그분이 선 자체이심을 인정하게 해 준다. 그러나 아이들의 외침이 표현하는 상태가 주님의 경우 영화하심, 우리들의 경우 거듭남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분은 환전상을 내 몰으시고 성전에 있는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인성으로부터 악을 제거함, 또는 인간 마음으로부터 악을 몰아냄, 그리고 건전하고 올바르게 행동되도록 자질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옛 것, 부패된 처방속에 있는 대사제와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의 환영, 아이들의 외침, 그분의 선하고 자비심 많은 일에 악의 있는 시기심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대사제는 예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까?” 라고 다그쳤다. 듣는다는 것은 용납한다는 것, 박수치며 맞이하는 아이들의 인사를 받는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유대인에 대한 주님의 대답에서 느껴지는 것은 아이들의 박수 갈채에 찬동하여 듣는다는 것이 그 당시 학식이 있다는 자들에게는 비난같은

어떤 것으로 여기는 관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환호를 들으셨던 것이다. 대사제의 냉소된 질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들린다’라고 말하셨다.” 그분께서 아이들이 순진하고 정감어린 찬양을 듣고 받아들이심으로 그분은 아이들과 그분, 모두를 의롭게 하신 것이다. “주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아이들의 천사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바,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성전에서 아이들이 부른 노래는 천사와 인간 서로서로를 더 가까웁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 원리로 볼 때 아이들의 찬양은 군중에 의해 있었던 찬양보다 더 완전한 찬양이다.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속에도 자연적 진리안에 영적 진리를 표현해 놓으셨다. 주님을 완전하게 찬양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이란 천적 지혜와 영적 지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말한다. 찬양은 순진과 지혜가 하나가 되어 진행될 때만이, 순수한 심정으로부터 오는 선한 이해성이 찬양을 마땅히 받아야 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여 노래할 때만이, 그 찬양은 완전해진다. 본문에서 같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진정한 찬양에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 하느님-인간이신 분으로 고백되어야만 한다.

17. 아이들의 호산나라는 찬양에 대사제와 율법학자들이 분노를 표한 것은 그들의 악행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고 순진 자체인 주님을 유대교회가 미워했다는 것까지 자백한 것이다. 이런 상태는 그들에게 있는 그나마 남은 진정한 종교에 속한 것이 끝났음을 암시하는 바,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성밖에 있는 베다니야로 가셨다.” 주님이 교회를 떠나시는 것은 오로지 교회가 그분을 떠날 때 뿐이다. 또는 교회가 진리와 선함 모두를 거절해 버릴 때 타락되어지는 바, 이때 그분은 떠나신다. 그 이유는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진리와 선함이 나오는 원천이요, 그 안에 현존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유대교회가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교회 속의 악하고 거짓된 원리들이 대사제와 율법학자들로 표현되므로 주님은 그곳을 떠나셨던 것이다.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떠나 성 밖을 나오셨을 때 그분은 베다니야로 가시어 거기서 묵으셨다. 베다니야는 얼마전 주님께 서 죽음에서 살려 낸 라자로의 자매인 마르타와 마리아가 있는 곳이다. 라자로를 일으키심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교회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야로 향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유대인에 의해 거절되어지고 이방인에 의해 영접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유대인 사이에 있는 교회는 필시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 주님께서서는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이다.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아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오래 체류하신게 아니라 오로지 하루 이틀 묵으셨을 뿐이다. 그곳에서 그분의 체류가 일시적일 뿐이라는 이유는 그분의 일이 아직은 끝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18. 주님께서서는 베다니아에서 밤을 보내시고 아침에 성으로 되돌아 오셨다. 아침이라는 새로운 상태를 표현하는 18절의 표현 방식은 다음 절에서 기술되는 상징적으로 그려진 사건, 즉 유대교회를 구하고 싶어하시는 주님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결과될 수밖에 없게 된 유대교회의 종말과 연결을 이루고 있다. “이튿날 아침에 예수께서 성 안으로 들어오시다가 시장 하셨다.” 주님 역시 여느 인간과 마찬가지로 시장하심을 느끼셨을 것임은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이 구절에도 그분의 배고프심에 대한 더 깊은 원인, 자연적 인간이 품어 볼 수 있는 배고픔이라는 것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분은 인간이 모르는 그분의 양식, 즉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 그분의 일을 끝내는 것을 먹으셔야만 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시장하심은 정의에 관한 배고프심이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정의를 바래셨다. 이렇게 바래신 이유는 정의가 교회와 교인의 한 부분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의 어떤 한 부분이 될 수 없고 주님 역시 그들 안에서 어떤 한 부분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침에 성으로 되돌아 가시면서 느끼신 주님의 배고픔인 것이다. 그야말로 백성을 구하시려는 강렬한 바램이셨던 것이다.

19.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로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 버렸다.” 예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더욱이 말씀에 속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사건 역시 글자적 의미 외에 더 다르게 있지 않다고 여겨버릴는지 모른다. 이 사건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의 경우 예수께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 나무에 접근하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실망하시어 화가 나신 결과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한 것 같이 생각되도록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주님의 인격 전체, 그분의 전능하심을 생각해 본다면 위와 같은 생각을 한쪽으로 간단히 밀쳐낼 수 있지 않을까? 인간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다 아시는 그분이 무화과 나무가 어떠한지 모르실리 만무이다. 죄인들이 잔인하게 그분을 대하는 것도 온유하게 참아내시고야 마는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화를 내실리

만무하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가에서 부딪치게 된 무화과 나무는 그분이 교회에 바래신 것에 대한 모형 중 한 가지이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일반적 진리, 열매없는 나무가 유대교회의 상태를 상징하는데 가장 어울린다는 것,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믿음이 맞이해야 하는 숙명에 관한 통보임을 직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나무는 교회속의 멤버들에 대한 모습이다. 따라서 나무는 교회를 그리고 있기도 하다. 교회의 속성을 그 교회가 표현하도록 특별한 나무들이 선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천적 교회는 올리브 나무로, 영적 교회는 포도나무로, 자연적 교회는 무화과 나무로 묘사되고 있다. 태고교회는 올리브나무였고, 고대교회는 포도나무였으며 이스라엘 교회는 무화과 나무였다. 주님께서 길에서 만난 무화과 나무는 유대교회의 모형이었다. 그 교회가 자연적 수준의 교회라고 해서 주님이 거절하시거나 규탄하시는게 아니다. 우리가 자연적 수준이라는 정상적 상태의 유대교회를 말할 경우, 자연적 수준은 영적 수준에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단지 자연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비해 그 수준이 아래에 있을 뿐이라는 정도이다. 유대교회는 시작 초부터 자연적 수준이었다. 그 교회는 영적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그 교회에는 생명, 불멸에 관한 어떤 개념이 없었다. 따라서 그 교회가 이미 소유한 지식에라도 철저히 성실했다면, 그 교회가 잘 규율되도록 밝혀진 법에 잘 순종했다라면 그 교회 역시 하느님과 연결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구원의 축복 역시 가능한 것이다. 오로지 교회의 근원되는 상태에 우직하게 성실함에서 이탈될 때만이 하느님과의 분리가 발생되고 규탄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규탄되어야 할 시기가 주님이 세상에 오신 때였고 그분을 오시게 한 직접적인 원인도 되었다. 유대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설비되어 있지 않아 세상에 그분의 오심이 있어진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정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를 발견하고 싶어하는 신성한 사랑의 열렬함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본문의 무화과 나무같이 일단 무성한 교회, 열매없는 고백만 되풀이 하는 교회, 애를 못 낳는 미녀같은 종교지식만을 발견하셨다. 본문을 읽노라면 마치 주님께서서는 보란 듯이 멋지게 자란 무화과 나무여서 무화과가 당연히 있으려니 했는데 속으신 듯한 표현을 우리에게 풍기고 있다. 위선이 교회의 심정 깊숙이 들어가 있어 이제 그 교회는 사람 뿐 아니라 하느님까지 현혹하려는 것을 우리로 느끼게 하고 있다. 위선 또는 가짜 종교가 인간의 심정 안으로 들어가 앉으면 그 안에 남아 있는 선함의 뿌리까지 모조리 값어 먹어 심정 안에 그분께서 뿌려 두셨던 종자의 생명까지 전멸시킨다. 이런 파괴는 회복될 수단을 전혀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를 향해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신성한 심판은 결과에 대해 상만을 주는게 아니라 상태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 내린 주님의 판정은 유대 교회를 향한 신성한 진리의 공포이다. 이 교회는 너무 지독하게 황폐되었다는 것, 이 교회는 영원히 영적인 선함이라는 열매를 생산 않을 것이라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 심판은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다. 그 나라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어야 할 주님의 교회는 사라졌다. 거기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억지로 말해 본다 해도 명목상의 교회가 존재할 뿐이다. 한때 지상의 나라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준 멋진 외모는 갖추었으며 생명이 없는 나무만 있는 것이다.

20.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참으로 믿기 어려웠지만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다. 한때 우람하게 아름다운 나무에서 쭈그러진 볼품 사나운 나무로 전락되었다. 이런 믿기 힘든 일은 교회의 상태에도 있어진다. 눈에 보이기에 미모의 여인같은 교회를 발가 벗기면 그 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으로 환원된다. 이런 모습은 그것과 상응되는 상태에 있는 각 개인에게도 예외는 없다. 그들이 세상에서 입고 유지해 오던 번지르한 외관들이 심판에서 제거되고 저 세상으로 그 영혼들이 입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있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변화는 무화과 나무가 순간적으로 말라지듯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실성이 덜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자연계에서 말하는 갑자기, 즉각, 당장(sudden) 같은 단어로 표현된 상태는 저세상의 확실함, 분명함, 명백함(certainty)과 상응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본문을 마가복음(11:20)에서 읽게 되면, 제자들이 뿌리째 말라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본 것은 그 이튿날 아침이다. 수련 기간에 해당되는 이세상의 날들이 저물면 영원히 있을 날의 여명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때 우리의 상태는 완벽히 달라져 있다. 제가 잘나서 정의를 실현하고 살았다는 상태, 이런 너무나 기름진 그의 토양에 천국의 종자들이 성장하고 있었다면 이런 미끈한 외관은 저세상에서는 한순간 사라져 그 인간의 토양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무성한 잎과 줄기 뿐이어서 불에 던져 살라버릴 것만 있다.

21. 이런 경고에 이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교훈이 이어진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본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번쩍 들러서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무화과 나무에 이어 산을 들어 말하시고 있다. 이 구절에서의

무화과 나무와 산이란 우리 마음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두 종류의 원리를 암시한다. 무화과 나무는 이해성에서 제거 되어야 하는 거짓 원리를, 산은 의지로부터 제거 되어야 할 악한 사랑을 의미한다. 우리의 믿음이나 사랑은 맨 처음 발생할 때는 자연적 수준이다. 전자는 지성에서 자만으로, 후자는 삶에서 자만으로 얼룩져 있다. 그래서 영적 원리들이 자연적 원리의 밑에 놓여 있지만 노력한다면 끝내 그 위치는 뒤 바뀌어 정상적 질서를 회복한다. 구원해 주는 믿음은 내적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와서 다시 아래쪽 경로를 따라 일해서 이미 외적 경로에서 흡수된 역사물이나 과학적 수준의 믿음을 추방한다.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함에 바탕을 두고 일하는 구원해 주는 믿음은 우리 심정으로부터 자아와 세상만을 추구하려는 사랑을 내쫓아 준다. “산”은 들리워 옮겨질 뿐만 아니라 바다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 주님의 선포는 단지 수사학적인 말의 표현보다 얼마나 더 의미 심장한 지혜가 담겨 있는지! “바다”란 지옥을 상징한다. 산이 바다에 던져짐은 악한 사랑을 그 사랑의 근원지인 지옥의 왕국에 내던짐을 뜻한다. 그러나 이렇게 행함이 무엇을 뜻하며 어떻게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악의 근원은 지옥이요 그 본성 역시 지옥적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악을 지옥에 던질 수 있다. 모든 악은 지옥에서, 모든 선은 천국으로부터라고 실지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을 결코 음미하려 들지도 않고 제 선행의 근원이 자신의 공과라고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을 것이다. 악은 자신과 종류가 같다고 확인함으로 그 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그 이유가 믿는 것이 자신의 것이 되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선의 저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함으로 선을 자기것 되게 하는데 실패한다. 그러면 우리는 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절단되게 하고 제 공적 때문임을 완전히 확실히 버림으로 선을 더럽힌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을 제거해서 바다에 던져 버리겠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악 자체는 본성이나 근원에서나 극악 무도함을 실제로 인정해서 우리 마음에 악이 접근하려는데 경계를 늦추지 않는 행동으로 악을 금해야만 하리라.

22. 믿음이 가져다 주는 위 결과에 믿음 있는 기도의 열매에 대한 일반적인 약속을 더해주시고 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앞 절에서의 약속은 악을 던지는 것, 이 절에서의 약속은 선을 받아 들이는 것에 관해서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거듭남이 진행되는 순서이다. 선이 자기 것으로 될 수 있기 전 악을 먼저 내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선이 받아 드려 질 수 있기 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심정안에 악을 제거할 선이 없다면 악 또한

제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탄은 사탄을 내쫓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악령을 제거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한다. 그럼에도 악령이 심정으로부터 청소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은 심정을 확실히 점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선을 수단으로 악이 제거되고 그 악이 선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악들을 몰아 내 주시어 건전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신 다음 그 악마들이 거주했던 곳에 그분 스스로 안주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악이라는 산을 던져 버리고 거짓이라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까지 말라지게 하면 이런 믿음으로 신뢰가 쌓인 기도에 모든 것은 응답된다. 참된 기도는 심정에 담긴 선으로부터 튀어 나오고 이해성에 있는 진리로 기도의 방향을 잡는다. 참된 기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 하는 것만을 구하고 그 다음 탄원자의 복지를 구한다. 믿고 있노라 고백하고 있으면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고 상상하는 것은 난폭한 열광에 불과하다. 모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다시 그분에게로 승강한다. 그분의 선한 욕구를 뜻하고 행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그분의 선한 욕구에 따라 바래고 구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시다. 기도는 새로워진 심정의 제단으로부터 하나님께 승강하는 향이요 이 향을 태울 거룩한 불은 천국으로부터 점화된다. 다시말해 거룩한 불은 애정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랑이다. 믿음 안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수여되리라는 것은 가장 큰 규모 차원에서의 합법적인 바람에 속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을 가지려 단순하게라도 노력해 보라. 간절함을 지닌 그 믿음이 열싸 안는 것은 무엇이든 받게 되리라.

23-25.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하고 물었다. ‘나도 한가지 물어 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은 누구에게서 권한을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늘이 준 것이냐? 사람이 준 것이냐?’하고 반문하시자...” 사실 위 본문에서 권한의 출처를 다그친 초점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거나 가르침 자체에 있는게 아니다. 그들의 초점은 성전 안에 있는 환전상이나 비둘기 장사를 내쫓으신데 대한 것이다. 교묘한 적들의 의도 내지 질문에 응하시는데 특징을 이루는 똑같은 지혜를 위 대화에서 우리는 다시 보게 된다. 요한이 베푼 세례의 근원을 말해 준다면 주님의 권한의 근원도 말해 주겠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위 질문에 대한 결정을 그들에게 일임함으로 해서 돌발적인 답변까지 예상되도록 하신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만일 예수께서 이 교활한 적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해서만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지셨다고 생각한다면 이 질문이 그들을 주님께 굴복하게 할 정도로 보기에는 그분의 테스트가 너무 잘 짜여진 셈이다. 그분은 한 인격 안에 계신 지혜 자체 되신다. 따라서 만사가 그분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짜여져 있다. 그분은 교묘한 술책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옹호하려 드는 술책을 오히려 진리를 더 드높이는 수단으로 바꾸어 놓으신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글자대로 생각해 본다면 위 구절로부터 명료한 어떤 교훈을 끌어낼 수 없다. 우리는 위 구절을 영적 수준에서 들여다 보아야만 한다. 그러면 무엇을 배우게 될까?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병자를 고치며 사람들을 가르치신 주님의 권한의 근원과 요한의 세례의 권한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요한은 말씀을 표현하고 있고 예수는 말씀이 육이 되신 분이시다. 요한이 세례주는 권한이 있는 것을 인정함은 그리스도의 권한이 어디에서 근원되는지를 알게 하는 지식을 얻게 해 준다. 씩어 있는 말씀의 참 근원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육을 입은 말씀의 참 근원을 알 수 있다. 밝히 알게 한 진리(계시)가 우리를 순수해지게 해 주는데 이 진리의 근원이 천국임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진리 자체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 한번 밝히 보여 주신 그분만이 구원해 주는 권능이 있으심을 인식할 수 있다. 요르단 강에서 있었던 요한의 세례는 외적 측면의 인간이 깨끗해져야 교회에 입문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 반면 예수께서 성전을 일소하시어 깨끗해진 성전에서 고치시고 가르치신 모습은 내적 측면의 인간이 깨끗해짐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는 후자를 위해 선구자 격인 역할을 한다. 전자가 덜 체험된다면 후자는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주님 스스로 공생애에 진입하시기에 앞서 준비 사항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다. 주님을 영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영적 차원에서 받아야 한다. 즉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에 앞서 회개라는 깨끗해지는 작업을 통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상 살피바를 염두에 두면 위 본문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실제의 교훈을 담고 있는지 쉽게 알리라 본다. 우리의 고유한 것에 해당되는 자연적 수준의 이성만으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우리의 허락도 없이 일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방금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셨던 바는, 만일 주님의 권능을 믿고 있고 의심치 않는다면 그분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했던 기적도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한다. 의심하고 있음이라는 활동중인 의구심은 그 의심 안에 부정함이라는 것을 임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의심은 신임과 불신임이

라는 양쪽 모두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개의 정 반대되는 속성은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우리 속에서 늘 투쟁하고 있다. 이 투쟁의 결과는 어느 한쪽 즉 의심없는 신앙, 또는 확실한 부정을 낳게 된다. “대사제와 백성의 원로들”이란 우리 마음 안에서 봉기하는 불신앙에 관련된 원리들을 뜻한다. 이 원리들은 우리 안에서 작업하시는 그분의 권함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 주님께서는 우리속 불신앙 원리와 늘 대결하여야만 한다. 이 대결의 결과가 아래에서 판명되고 있다.

25, 26. 대사제와 백성의 원로들은 “...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이 고관들은 믿기 위해 참된 것을 의논하지 않았고 사실을 시인하되 자기들에게 안전한 것 만을 의논한 것이다. 마치 자연적 수준의 인간이 주님의 질문에 어느쪽도 지지할 수 없듯 이들도 자기들 의도에 꼭 맞는 것만을 선택해서 인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어느쪽도 선택하지 않는게 최상의 방책으로 여겨 결정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라고 말할수 없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 권한을 하늘이 주었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이 주었다고 하면 모두들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 군중이 가만 있지 않을 테지?’하고 의논한 끝에...” 인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원리와 가장 낮은 원리가 질서 있는 상태에 있을 경우 그 사이에 있는 중간 수준의 원리들은 높고 낮은 두 원리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통치 된다고 이미 말했던 적이 있다. 이런 상태가 위 본문에서 표현되어 있다. 주님은 가장 높은 원리에, 군중은 가장 낮은 원리에, 대사제나 원로는 중간 수준의 원리에 해당된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중간 상태의 원리들은 가장 높은 원리 보다는 가장 낮은 원리쪽과 더 친근 관계가 있다. 그 이유가 그들은 백성의 원로요 사제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기들을 누르는 영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그 영향력에 굴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만을 헤아리려 조금해 있다. 그래서 이들의 적대 행위는 중립상태에 있어 그 행위의 적극성이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다. 이런 모습은 각자로서의 우리에게도 항존하는 케이스이다.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원리, 처음되고 마지막 되는 것들이 올바른 질서에 있으면서 작동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의 잔존 세력은 점점되어지고야 만다. 종교의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사항들이란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행동들을 뜻하는 말이다. 올바른 동기는 주님께 관심을 두는 것, 올바른 행동은 이웃에 관심을 표하는 것에 해당된다. 만일 우리의 사랑과 순종함이 신실하다면, 설사 그것들이 불완전하다 해도 우리 본성 속에 남은 부패된 원리는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 결국 우리는

이기심이 내뿜는 악한 자극과 왜곡된 암시들은 중성화 되거나 패배되게 해서 정복하고 말리라.

27.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하고 말씀하셨다.” 올바른 목적과 행동에서 나오는 힘은 두 길로 작용한다. 하나는 거짓과 악을 생산하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동시에 이기심이 선함과 진리를 모독하는 것을 예방해 준다. 악한 자가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진리를 자신의 악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데 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은 것은 대체로 그분을 밋에 걸리게 할 건수를 찾으려는데 있었듯이 악한자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뒤집고 파괴한다. 이 크나 큰 죄를 예방해 주시기 위해 말씀속의 내적 의미와 그분의 나라의 신비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이게 하시고 아이들에게는 밝히신다. 이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목적을 위해 유대교 대사제의 교묘한 질문을 격파하셨다. 이 목적을 위해 성전에서 그분이 수행하신 것들의 권한에 대해 말하시기를 거절하셨다. 이 상황이 우리를 가르치는 바, 우리는 주님의 진리가 지닌 권한과 권능에 의심을 더함으로써 사람의 아들이 가시는 길에 장애물을 놓게 하는 자신의 빼앗겨진 추론을 발견하게 될 때 심정에서 악마들의 입을 다물게 함으로, 악마의 수단들이 부당함을 제기해서 신성을 모독함으로부터 진리를 구해야만 한다. 진리에 대한 악한 생각이 심정을 의심의 구름으로 덮으려 할 때 그 생각의 확장에 빗장을 걸고 그 대신 진리 자체가 우리에게 위탁해 놓은 권한만이 한껏 발휘되도록 해야 하리라.

28-32. 지혜 자체이신 주님께서 악마의 계락을 차단 시키신 후 이제 비유로 가르치시어 그들의 품성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노출된 위험한 것 까지 보여주시고 있다. 그들에게 말하신 첫 번째의 비유이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여라’하고 일렀다. 맏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같은 말을 하였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는 대답만 하고 가지는 않았다.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을 받은 아들은 누구이겠느냐?”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들이 ‘맏아들입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 가고 있다...’” 주님께서 대사제와 율법학자에게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느냐?” 하고 물으시어 그들로 즉각 “첫째입니다”라고 대답하게 하셨다. 그래서

비유속의 인물이 처신한 두 행동 중 어느것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가름 하게 해서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행동은 매우 협조적인 듯 보이지만 왜곡되어 있어 비유의 둘째 아들 같다는 것, 그 반면 세례와 창녀들의 처신은 불순종한 듯 보였지만 회개하는 아들, 아버지의 뜻을 행한 첫째 아들임을 자기들의 입으로 인정하게 하셨다. 즉 “사실 요한이 너희를 찾아 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이 비유는 종교에서 형식주의에 깊게 치우칠 경우 심정이 완악해지거나 영적 자만을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외적 생활을 덜 올바르게 꾸린 사람보다 오히려 죄에 대해 덜 깨우칠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키고 있다. 위 주님의 가르침은 제 자신이야말로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려는 심정에 경고를 주시고 있다. 다시 말해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더 어려운 일은 “자신이 정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타인을 경멸하는” 사람이 참회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위 설명은 비유의 표면에 놓여 있는 교훈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영적 수준의 교훈, 즉 표면에 놓인 교훈의 내적 상태와 원인을 밝혀 주는 진리가 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두가지 요소, 말하고도 하지 않는 스타일, 즉 입술로 거룩함을 고백하므로 해서 대단하게 경건함을 과시하는 바리사이파 식의 요소와 고백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내 주는 세리와 창녀같은 스타일이 같이 있으면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잠재되어 있기도 한다. 예를 들면 매우 매끈하고 매우 고요한 교회 질서에 따라 교회 규칙을 엄수하는 교회의 지붕 아래서도 자기 세력의 확대와 자기만이 존경받아야 하게 하려는 암투도 상존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교회 상태가 각자 안에서 행동화 되었든, 또는 그런 쪽으로 기울려 하고 있든지 어떤 형태이든 우리속에 잠재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위 두 아들같은 요소를 항상 지니고 있다. 그 차이점은 그런 요소를 직시하여 제 멋대로 가도록 허용한 경우와 그런 요소를 솔직히 직시하여 잘못된 것들과 싸우는 경우이다. 모든 사람은 표면에 나타나는 어떤 악을 지니는데, 이런 악은 자신 내지 타인에게 금세 체크되는 바 깊숙히 자리 잡은 악, 타인이 점검할 때 드러나지 않는 다른 악들보다 덜 악한 편이다. 예를 들어 불같은 성질이라는 인격의 결점은 부패된 경향성, 즉 미워함이나 복수함 같은 것보다 덜 악하다. 그 이유가 성미는 순간적인 흥분으로 제 본성이 드러나지만 복수같은 악은 기회가 닥치면 상대를 불로 철저히 태워 버릴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성급함 같은 성미는 마치 본문의 큰 아들같이 아버지의 분부에 “싫습니다”라고 즉각 내뱉을 지 모르지만 재빨리 돌아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수도 있다. 그 반면 악한 심정은 마치 작은 아들 같이 아버지가 요구하는 사항을 행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면서 “하겠습니다”라고 무책임하게 말해 버린다. 비유의 큰 아들은 내면이 외면의 상태보다 더 나은 사람의 모형이 되어주고 있다. 그 반면 작은 아들은 내면보다 외면의 상태가 더 나은 사람의 모형이다. 전자는 악한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선함이 어느정도 남아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선함에 주님이 역사하시어 회개시킬 수 있으시다. 그 반면 후자는 자신이 정의대로 산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향적으로는 불순종하려는 의도와 그런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영을 계속 소유할 경우 그들의 심정은 굳어져 제 스스로의 참회를 기대하기 어렵다. 개인 차원에서 보면 외적 인간 측면에 있는 악이 큰 아들로, 내적 인간 측면에 있는 악이 작은 아들로 표현되어 있다. 외적 인간 속의 악은 행동되고 있는 악이고 내적 인간속의 악은 심중 속에 잠복한 악이다. 사실 악한 행동이 선한 동기를 생산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 위 두 행동 중 더 나쁜 것은 말해놓고 그 말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부족하다 해도 희망이 있는 행동은 “No”라고 말했던 상태가 된다. 그 이유가 “No”라는 태도에는 정직함과 일관성의 열마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후 진리의 영향에 대해서도 똑같은 정직함이라는 태도를 얼마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두 아들 사이의 차이점은 “사람의 아들”에 반대하는 경우와 “성령”을 거스르는 죄 사이의 차이점과도 비슷하다. 전자는 율법의 글자 수준에서 위반하는 것이고 후자는 율법의 영(취지)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전자는 명령을 바깥쪽 차원, 형식 차원에서 위반하는 것이고 후자는 명령속에 내재하는 영, 취지 차원에서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정의라는 길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로 회개하라 말하고, 신성한 진리라는 생명수의 강에서 우리의 불결함을 씻도록 제의할 때, 또는 교회의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 가려거든 반드시 요르단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해주는 때 우리는 그 부름에 순종해서 분단 안된 마음을 가지고 그 부름에 임하여 자신의 불결함을 깨끗이 해 달라고 간청하되 진지한 바램으로, 더욱이 정의로움만이 거룩한 땅을 소유하게 해 준다는 것을 미리 감지해야 복되리라.

33-41.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신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임대해 주었는데 소작인은 포도원의 수확물을 되돌리기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세를 받으러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죽였다. 역사적 측면의 내적 의미에서 이 비유는 유대 백성들, 신성한 성직을 위탁받아 한 교회를 형성했던 그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예언자 외에 또 다른 특사를 보내셔서 정의의 열매를 그분께 되돌리도록 권유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의 특사를 정죄하고, 박해했으며 죽이기까지 했다. 마지막으로 그분께서는 아들, 즉 그분께서 인간의 형체를 입어 오셨으나 그들은 그를 상속자로 여겨 그 재산을 아예 자신의 것들로 만들어야겠다고 작당했다. 그래서 비유의 결론은 포도원을 그들에게서 빼앗을 것이고 도조를 잘 내는 백성에게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항은 교회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넘겨짐으로 일단 성취되었다. 그러나 비유의 영적 의미는 어느 특정한 교회에 관련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응용된다. 다시 말해 시간이나 공간에 관계되는게 아니라 영적 삶의 상태, 즉 선함과 진리, 또는 악과 거짓이라는 상태에 관계되어 있다. 이런 영적 의미를 살펴 볼 때 포도원이란 교회를 의미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말한다면, 주님께서 인간 마음에 이식해 두신 선함과 진리에 관한 원리로 형성된 각 개인속의 교회를 뜻한다. 이 원리들이 교회 또는 종교를 구성한다. 종교가 없는 곳에 교회도 없다. 어느 종교이든 교회이든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 안에 종교 내지 교회의 원리가 존재하는 정도에 비례된다. 교회는 두 측면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마음 안에서는 원리로, 생활에서는 열매로 존재한다. 마음 안에 종교가 이식된 것과 종교가 생활에서 열매 맺는 것 사이에서 고전 분투함이 크게 있어진다. 그 이유가 다툼과 슬픔은 마음 안에 이식되어 온 원리가 실제 생활로 맺는 그 과정에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이다. 거듭남이라는 순수한 영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싸움이 비유에서 조각인이 주인의 뜻에 저항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외적 측면의 인간이 내적 측면의 인간의 뜻에 저항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 계속 파견하는 종들이란 내적 인간으로부터 외적 인간으로 계속 내려가는 진리를 뜻하고 이 진리들 때문에 정의라는 열매가 산출되었는 바 그 정의는 인간 고유의 것이 아니라 내적 인간의 것이요 내적 인간을 통해 내려보낸 주님이 결국 소유주인 것을 알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내는 아들은 내적 인간으로부터 직접 진행된 선을 뜻한다. 이 선은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 있는 가장 높은 애정에 호소함을 그려주고 있다. 위의 모든 경우에서 조각인은 자기들에게 파견된 사람들을 미워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고,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내던져 죽이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묘사된 역사적 사실처럼 이 살인적인 행동은 주님으로부터 내적 인간을 통해 오는 선하고 참된 원리를 실지로 거절하고 파멸한다

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런 원리들이 자연적 수준의 마음 안에서 겪게 되는 시험과 시련을 표현하고 끝내 죽게 되지만 마치 주님께서 유대인에 의해 십자가 형에 처해 죽으신 이후의 모습같이 새롭고 더 높은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 이 비유의 마지막 대목은 이전의 소작인들로부터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소작인에게 넘겨 주고 있다. 이 두 개의 각기 다른 소작인이란 같은 마음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자질을 표현한다. 이쪽 자질로부터서는 포도원을 빼앗고 또 다른 자질에 교회를 앗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첫 번째의 소작인은 이해성에 있는 생각들을 의미하고 두 번째 소작인은 의지속에 있는 애정을 의미한다. 인간 거듭남의 결과란 교회에 관한 원리들이 이해성으로부터 의지쪽으로의 승강이다. 이를 묘사하기 위해 주님께서 말하셨다. “이 왕국은 너(유대 백성)로부터 빼앗을 것이며 도조를 잘 내는 나라에게 주어지리라.” 한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 백성(people)과 나라(nation)를 구별해 볼 때 백성은 이해성을, 나라는 의지를 의미한다. 주님께서서는 교회의 원리들 즉 선과 진리에 관한 원리들이 의지 안으로 승강될 때, 다시말해 실지로 선이 존재하는 일이라는 삶을 산출할 때를 두고 포도원 주인은 “도조를 잘 내는 나라에 포도원을 주리라, bring forth the fruits thereof” 라고 말해두신 것이다. 이상은 거듭나아가는 인생을 통과해 가는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측면에서 살펴본 비유의 간략한 윤곽이다. 이제 더 세부적이고 더 흥미있는 내용들이 구절 마다에 함유되어 있는 바 아래에서 살펴보자.

33.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 치고는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큰 환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는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지로 주고 멀리 떠나갔다.” 이 구절 역시 평범한 연극 무대로 끝나는게 아니라 각 세부사항마다 영적 의미가 담길 수 있게 주님이 의도하고 계신 것은 의심할 바 없으리라. 포도원을 세운다는 것은 이미 살핀 바 같이 내적 인간 안에 교회에 관한 원리를 이식해 두심을 뜻한다.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외적 인간에 질서를 건설해 두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의 원리와 질서라는 법칙은 마치 성과 성벽, 포도원과 그 울타리와도 같이 서로서로 연계되어 있다. 원리들은 인간 안에 있는 하늘 왕국을 구성하고, 법칙들은 이 왕국을 지키고 보호한다. 질서로 이루어지는 각기 모든 일들에는 그 각각의 일들마다에 각각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우주는 법칙들로 울타리가 쳐져 있다. 이 법칙이 없다면 혼란과 붕괴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원리와 법칙은 인간 안의 주님의 왕국에서 첫 번째 되고 마지막 번째에 해당된다. 이 두 가지는 그 나라의

필수 요소들이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이 둘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중간에 속하는 것들이 있다. 이것들이 망대와 포도즙틀로 의미되고 있다. 포도즙틀과 망대는 합리적 마음에 속한 것에 대한 상징물이다. 포도를 압축하는 것은 곡식을 타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마치 포도주가 발효되는 것과 빵이 누룩으로 부풀려 지는 것과 같다. 이런 이유로 포도즙틀을 밟는 것을 심판에 대한 상징물로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계시록(19:15)을 보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를 담은 술틀을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짜내시리라.” 그럼에도 심판은 영계에서 악으로부터 선을 분리하는 하느님의 넓은 측면의 일 뿐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마음 안에서 악으로부터 선을 분리 시키는 세부 측면의 일 까지 포함된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이 잘 운영되는데 필요한 제반 준비를 다 갖추어 놓은 뒤 이를 소작인에게 임대하고 먼 나라로 떠나갔다. 창조자 되시는 주님이 인간 존재를 만드시고 그 존재 본성에 모든 자질을 부여하시고 그 자질을 적절히 유익있게 사용하는데 요구되는 수단들을 설비하신 뒤 스스로 구원을 수행하도록 맡겨 두신다는 말이다. 사실 창조자께서 인간 자신을 인간에게 맡기신다는 말은 허상의 언어이다. 이는 인간 구원을 자유에 맡겨 섭리하신다는 것, 인간이 구원의 책임을 충분히 감지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언어 스타일이다.

34. 비록 포도원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났다 해도 “포도철이 되자 그는 그 도조를 받아 오라고 종들을 보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이란 그분의 말씀속에 있는 진리들이다. 이 진리들은 우리로 청지기 직분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하느님의 은덕을 즐기는 동안이라 해도 그 은덕의 근원이 어디로부터인지 알고 인정하면서 즐겨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인정함은 말로 끝내서는 안되고 말과 더불어 행동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지성 측면 뿐 아니라 심정 측면에서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실제로 인정함은 포도가 수확된 것을 주인께 되돌리는 모습이다. 사실 입으로나 지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소작인이 포도원에 고용될 그 때에 이미 있었던 사항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되지도, 고용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과 생각으로 인정한 이후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땀 흘림과 시험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향유하는 모든 축복은 주님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다. 그러나 알고 인정한 사항을 심정과 삶으로 재현하는 것은 시련과 인내를 동반해야 성취될 수 있다. 자연적 수준의 우리 마음은 위의 인정한 사실을 어떻게든 재현하려 들지 않아서 많은 투쟁이

영적 수준의 마음과 자연적 수준의 마음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다. 다음 구절이 이를 예시하고 있다.

35.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위에서 언급한 시험이란 일련의 땀 흘린 결과이다. 그 이유가 열심히 일해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열매가 있게 된 원인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땀의 대가인 바 그 소산은 제것이어야 마땅하다는 결론을 맺도록 유혹받기 때문이다. 신성한 소작인도 되시는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특사를 보내 포도가 나오도록 포도원을 우리 심정에 세우신 분이 그분이므로 그분의 몫이 있다고 주장하신다. 앞구절 같이 주인이 멀리 떠났듯 포도원의 주인이 우리인 듯 해 두셨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상기해 줄 증거도 없이 마냥 마음대로 해먹으라고 포도원을 내던져 놓으신 것은 아니다. 이렇다 해도 우리의 자유 의사에 맡겨져 있다. 왜냐하면 지주는 종들에게 포도원 수확을 강제로 거두어 오라고까지는 명령 않으셨고 오로지 그분의 도조만을 요구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런 신성한 진리의 요구에 자연적 수준의 마음은 다양한 방법, 갖가지 분함으로 그 진리에 적개심을 표출한다. 진리를 뒤집어 본다. 이것이 종을 붙잡아 “때려주는” 것이다. 진리를 거절한다. 이것은 “죽이는” 것이다. 진리를 거짓화 한다. 이것이 “돌로 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36. 그러나 신성한 자비는 그들에게 맡기시지 않는다. “지주는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다. 소작인들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 악한 상태에 더 깊게 빠질 때, 거듭나는 사람이 시험의 더 깊은 늪에 빠질 때, 주님께서서는 처한 각각의 상태에 걸맞는 다른 진리를 그들에게 적용하시어 악에 저항하고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삶과 체험에서 우러난 열매를 그분께 돌리시도록 섭리해 주신다. 그러나 입대받은 사람들은 먼저 보낸 종들에게 한 짓과 똑같은 두 번째 보낸 종들을 취급했다. 이런 상태나 행동은 자기들이 입은 자비와 전혀 달랐다.

37. 신성한 자비는 죄 있는 창조물에게 구원의 수단을 더 제공하시고 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알아 보겠지’ 하며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분의 아들을 보내심, 즉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반역만 일삼는 신하에 대한 신성한 선함의 정점을 이루는 조치였다. 아들이란 인간 본성 안에 있는 하느님 자신, 즉 신성한 사랑을 명백히 보여 주게 되는 신성한 진리이다. 신성한 사랑을 표현한 형상인 이 진리는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해 주는 진리 내지 지식이다. 그러나 이 진리를 거절함은 악에 노예화 된 우리 상태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게 만든다. 이해성으로부터 있게 되는 교리 속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은 심정으로부터 있게 되는 사랑의 진리마저 거절하는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포도원에서 포도가 생산된 것은 주님의 은덕 때문임을 실지로 인정하라고 요구하시는 그분의 진리는 가장 강력한 그분의 뜻에 대한 권리 주장이다.

38. 그러나 포도가 생산된 것은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하여 포도의 주인이 자신임을 주장하는 자연적 수준의 욕구도 강경한 바, 소작인의 한결같은 외침은 이렇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는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이고 그가 차지할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로채자’라고 서로 작당했다.” 신성한 사랑의 호소를 소멸시키고 주님의 합법적인 상속에 관한 사항을 인간 자기의 권리로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의롭게 살았던 것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공로덕분인 바 그 공로의 원인이 제 자신이라고 천명함으로 우리 정의의 주인인 주님을 거절해 버리는 것, 이것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 되게 하는 최후의 죄악이다.

39. 인간을 진정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철저한 거절은 소작인들이 아들을 대우하는 모습으로 잘 그려져 있다.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 내어 죽였다.” 이는 완벽한 거절을 표현한다. 그 이유가 아들을 잡는다는 것은 의지로부터의 거절이고,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어냄이란 이해성으로부터의 거절을, 그를 죽임은 마음의 모든 영역과 삶으로부터의 거절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40. 이제 심판이 오고 있다. “그렇게 했으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심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심은 악이 가득찬 상태, 결단이 무르익은 상태에 있어진다. 교회를 향한 심판은 그 교회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완전히 황폐된 상태에서 있어진다. 유대교회의 경우 그들에게 구세주로서 오신 주님을 죽임으로 그들의 사악함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되돌아 오시어 그 교회를 완전히 폐지하셨다. 악한자가 심판되는 것은 심판 당할만한 죄짓는 행위가 있을 때 거행된다. 본문을 보면 주님은 그분 스스로 심판하신다고 묘사하시지 않고 오로지 심판 되어야 하는 것을 심판해 달라고 요구함에 부응하시는 방법으로 심판을 묘사하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 “...소작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41. 소작인들이 즉시 대답한다. “그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 버리고 제 때에 도조를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심판에 관계가 있는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영계에서는 자신 스스로 제 품성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결과까지 확인하여 유죄라고 판결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심판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제 스스로 판결한다. “내가 사람을 심판하는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 두었던 그 말이 너희를 판결하듯 마지막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모든 사람 각각은 제가 받았던 빛에 의거 심판되어진다. 이 대목에도 공정뿐만 아니라 자비도 곁들여 있다. 빛을 덜 받았다면 제가 해 놓은 악한 일에 대한 정죄도 그만큼 덜 받는다. 그 이유가 악을 악이라고 만드는 것, 제 행동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 제 악한 행위에 수치스러움을 갖게 하는 것이 빛이기 때문이다. “많은 것이 주어졌다면 그 주어진 것만큼 요구함도 있게 되리라.” 본문에서 주님의 질문은 “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었고, 유대인의 대답은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제때에 도조를 잘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야 합니다”이었다. 이 구절은 심판에 관한 법칙 내지 또 다른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해 두셨다. “여봐라, 저 자에게서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는 진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마저 빼앗길 것이고, 선을 지닌 이들은 진리를 더해 주시어 더욱 풍요해질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포도원은 도조를 잘 내는 나라(nation)에 주어 지리라” (43절)고 말해지고 있다. 용어 나라(nation)를 이와 유사한 용어인 백성(people)과 구별해 보면, 백성은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하는 반면 나라는 선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42. 주님께서서는 비유로 말하시어 청중들에게 실용적인 의미를 그들 스스로 끌어내게 해주신 뒤 그분 자신에 관련되는 중요한 예언을 말하셨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유대인에 의해 거절되고 이방인에게 영접받아 인정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서에서, 집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고 한 말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이 돌, 이 귀중한 모퉁이 돌, 이 확실한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위 상징적인 구절 안에는 이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다. 돌이 진리를 상징하므로 주님께서서는 돌이라 불리신다. 또한 그분은 진리 자체 이시므로 돌이라 불리시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반석, 기초, 모퉁이 돌이라 불리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인성을 입으심으로, 이 인성을 수단으로 세상에 오심으로해서 영원한 진리 또는 말씀이 최말단 영역에서 명백해지게 하셨는데,

이는 인류의 구속내지 구원을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교회와 천국이 섬을 얻는 반석, 교회와 천국이 동시에 안주할 수 있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돌, 그분께서는 유대교회라는 건축자에 의해, 보편적으로 보면 교회내의 욕욕을 지닌 건축자에 의해 거절되었지만 그들의 협조없이, 그들 뜻과는 달리 교회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이다. 이런 모습을 성전 건축과 관련해 볼 때 가장 높은 측면에서는 성전 되시는 그분의 몸이 영화하심으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따라서 천사와 거룩한 사람들은 이를 두고 경탄을 금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이 일은 참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 순수하게 신성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과업에 부응되는 우리의 일 즉 그분이 교회의 머릿돌이신다는 것, 신성한 인성 안에 예수가 거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한다. 다시말해 그분이 인간의 심정과 지성안에서 최고 높은 선과 진리 되심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43.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을 거절한 결과에 대해 말씀하신다. “잘 들어라. 너희는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조를 잘 내는 백성(nation)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분을 영접하는 이들 만이 하늘 왕국이 주어지는 백성(나라)이 되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누어 주신다. 하늘 나라를 빼앗길 이들이란 악 가운데 있어 온 이들과 같은 바 비록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있었다 해도 그 진리에 순종해 오지 않은 이들이다.

44. 그분에 관해 말해진 예언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신 주님께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엄한 훈계를 내리시고 있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그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은 진리에 거슬러 있는 두 종류가 맞이하는 결과를 묘사하고 있다. 진리에 반대하되 그것이 거짓으로부터 발생하면 돌 위에 떨어지는 격이고, 악으로부터 발생하면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지는 격이다. 특히 돌 위에 떨어지면 산산 조각이 될 것이고 돌에 깔릴 경우 가루가 된다고 말해지고 있다. 조각이 된다는 것은 하나라는 전체가 나뉘고 분리된다는 말이다. 우리 속에서 선과 선을 연결해주는 진리가 조각나는 전자의 경우 심각한 피해 또는 인간의 믿음이 파괴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다. 가루로 됨 또는 가루 상태로 환원되는 후자의 경우 그들의 선으로부터 진리가 떼어져 각각이 되어지되 진리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 그 결과 믿음과 사랑의 모든 원리가 파괴 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경고의 말씀이다. 거듭나는 과정에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유익한 의미를 전달해 준다. 심판이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분리되면서

마지막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다. 개인에 관련해 보면 심판은 사악한 자로부터서는 그가 지닌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을 떼어내고, 정의로운 자로부터서는 그가 지닌 악하고 거짓된 모든 것을 떼어낸다. 위(영어로) 번역된 본문, 가루가 되게 으깬(grind to powder)이란 타작 마당의 겨 같이 사라짐, 시편1편 4절의 말씀처럼 “사악한 자는 ...바람에 까블리는 겨와 같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물론 정의로웠던 사람도 심판에 임한다. 정의로운 사람의 경우 과거 그의 좋은 자질을 덜 순수하게 한 불순한 것들이 제거될 뿐이다.

45,46.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서 손을 대지 못하였다. 군중이 예수를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죄인들은 자기들의 죄가 지적을 받으면 겸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격분하는게 십중팔구이다. 씌어있는 말씀을 놓고 일어나는 사악하게 완고한 사람이 씌어있는 말씀에 격분하는 것은 그 말씀이 비밀스럽게 있던 그의 죄상을 밝히고 그 죄가 자초하는 저주를 통보받음으로 야기 될 때가 많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도 말씀 위에 손을 기꺼이 얹고 있었지만 자신의 믿음은 말씀의 가르침과 약속에 의지하지 않는다. 내향으로 믿음을 지닌 신실한 사람은 바깥쪽의 많은 것들에서도 말씀과 자기 종교로 확고히 붙든다. 바깥쪽 측면을 중시함이나 억눌려 있던 미워함 같은 것들은 마지막 심판을 비껴 갈 수 없고 그 대가가 가벼워지지않는다. 어쨌든 현 세계에서는 위와같은 처신은 외적 고상함이나 예의범절을 나타내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자신 안에 있는 대사제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영적 진리의 책망에 노기를 띄어 얼마나 많이 봉기하는 지...진리위에 더럽혀진 손을 버젓이 얹고 얼마나 오래동안 있으려 하는지 모른다. 어쨌든 우리의 부패된 이기심들이 신성한 뜻과 지혜에 종속될때까지 우리는 보다 향상된 그분으로부터 오는 느낌들이 우리속에 더욱 증가되게 노력해야 하리라.

1. 본 장의 시작이 비록 새 주제로 열리고 있다해도 이는 성전에서 시작된 주님의 강연의 계속이다. 앞장은 포도원을 세우고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세내준 집주인의 비유로 끝맺고 있다. 본 장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왕의 비유로 시작된다. 이 비유의 도덕적 교훈(moral)은 앞의 비유와 대단히 비슷하다. 초대된 이들이 참석하기를 거절한다. 그래서 거절되어진다. 다른 사람이 초대되고 그들이 오고 영접되어진다. 거절한 사람들, 그래서 선택받음을 상실한 이들은 유대인들이다. 와서 뽑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다. 두 비유의 도덕적 교훈은 비슷하지만 다른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서로의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는 인간의 지적측면의 삶에 더 관계되고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의 비유는 행동 측면의 삶에 더 관계되고 있다. 포도원은 포도를 생산하고 이 포도로부터 포도주의 생산까지를 암시하는 바 이는 영적 진리를 상징한다. 결혼이 잔치(dinner)로 축하되고 있는데 이는 영적 선을 상징한다. 음료수와 음식은 이해성과 의지를 위한 영양분을 상징한다.

2. “하늘 나라는 어느 임금의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푸는 것에 비길 수 있다.” 교회와 천국이 결혼으로 상징되는데 이보다 더 높은 상징의 표현은 없다. 결혼은 하나됨(union)의 가장 높은 상징인데 이는 형체로나 수준에서나 공히 가장 높은 상징이다. 결혼은 천국을 구성하고 더 없는 행복을 준다. 결혼은 두 영혼(soul)의 하나됨이고 그러하도록 창조되어있어 각각은 자신 안에서 찾지 못하는 것을 다른 영혼 안에서 발견하는 바 하나됨은 완성된 삶과 완전한 행복에 필수요소이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영혼은 모든 존재 속에 있는 두 필수요소를 인격화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완전함과 행복의 두 필수요소, 선하고 참된 것, 지성과 자유의지의 두 필수요소를 인격화한 것이다. 천국과 교회, 그 자체로만 본다면 선함과 진리의 하나됨밖에 더 없다. 이런 하나됨은 누군가가 천국에 거주할 수 있기 전, 누군가가 교회의 참 멤버이기 전 그의 마음 안에 미리 존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천국과 교회 안에 있으려면 천국과 교회가 우리 안에 존재해야 한다.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푸는 왕의 비유 같은 하늘 나라”에 소속되려면 그는 반드시 자기 안에 선함과 진리의 천국적 결혼, 사랑과 믿음의 천국 결혼이 있었어야 한다. 왕이 잔치를 베풀어준 아들이란 예수이고, 아마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생각된다. 주님께서는 신성으로부터 인간 안에서, 인간을 수단으로 그분의 교회와 신부와 아내로서 언약이 맺어지기를 바래신다. 하느님께서 세상에서 입으시고 영화하신 인성은 신성한 결혼식에서 신랑이다. 그 이유는 하느님과 타락한 인간, 타락한 교회가 실제 결합하는 것은 하느님이 인성을 통해 그 교회에서 태어나 영화하심으로 올려져 신성한 본성과 하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아버지가 어떤 왕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두 호칭, 아버지와 왕은 신성한 사랑과 지혜를 표현하는데 이는 신성한 본성 안에서 하나되어 존재한다. 이 비유는 이런 사항이 비유의 목적과 본성과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사랑과 지혜의 신성한 결혼은 하느님 안에서 영원하게 본질적으로 존재하듯 인간 안에서도 존재하게 하려는 것,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안에서 이 결혼이 존재하게 하고 이 예수를 통해 모든 인간 안에도 그 결혼이 있게 하여 구원받고 행복을 만드는게 육을 입으신 목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3.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는 고대관습에 일치되고 있다. 손님들은 결혼이 거행되기 훨씬 전부터 초대되어 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면 잔치에 참석하라고 종들을 보내 통보한다. 이런 점에서는 상징성이 사실과 정밀하게 상응한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훨씬 전에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종, 예언자들을 수단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다가오는 결혼식에 참석하라고 초대해 놓았다. 이 초대는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그들을 통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어졌다. 날짜가 정확히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 결혼은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선포되어 있었다. 시간이 다 차서 신랑이 나타났을 때 결혼식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을 부르러 그분의 종, 사도들을 파견했다. 초대에 대한 결과, “...그들은 오지 않았다.” 심정이 자만으로 가득 찬 이들은 초대장을 받아 들고 결혼식 때가 오기를 갈망하지만 정작 축복된 그 때가 오면 결혼식장에 오는 것만큼은 지독하게 마음내켜 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한 어떤 것이 통상적인 우리의 경험 안에도 있다. 즉 열심히 갈망하여 기대했던 사건이나 기회가 정작 현실로 자신 앞에 나타나면 언제 기다렸느냐는 듯 무관심을 표명하는 태도이다. 이런 태도가 자연적인 경우일진대 영적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유대인들은 사도들의 초청을 거절했다.

그 이유가 예수의 왕국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단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호화스러운 자연계의 것들로 둘러싸인 왕과 왕국을 찾았는데 예수의 왕국에는 비천함과 희미함밖에 더 볼 수 없었다. 정신적 차원의 웅장함은 그들에게 매력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과 지혜의 하나됨이 엄숙히 이루어지는 결혼식, 자비와 평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결혼식, 정의와 진리가 서로 부둥켜안는 결혼식, 손님을 접대하는 탁자에 영혼의 자양분과 만족을 채워주는 결혼식, 이런 등등으로 이루어진 결혼식에 와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 행동결정은 유대인에게만 특이하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세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연적 수준의 인간에만 충실하게 되면 위와 같은 모양새를 표출한다. 예수의 종교는 너무 순수하고 비세상적이어서 자연적 마음에는 씹쓸한 입맛만 켜기게 할뿐이다. 우리는 이런 것 모두를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다. 만일 우리 안에 자연적 인간의 원리밖에 든 것이 없다면, 우리 내부라는 조그만 세계 안에 “대사제나, 율법학자, 바리사이파”로 상징되는 원리밖에 없다면 우리 역시 억지로 둘러대는 유대인처럼 믿지 못하고 아예 믿어보려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오로지 자연적일 뿐인 만큼 복음의 복된 초청은 우리의 주의를 끌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그러나 그분의 초대를 거절하는 때라 해도 신성한 자비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4.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잔칫상도 차려 놓고 소와 살진 짐승도 잡아 모든 준비를 갖추었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하고 일렀다.”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상존하는 선함과 진리의 풍부함, 인내하심에 관한 놀랍고도 정감어린 예를 발견한다. 앞의 비유에서 같이 이 비유에서도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특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두 비유 공히 첫 번째의 것과 두 번째의 것은 그 품성이 구분된다. 두 번째 통보는 지적측면이 아닌 의지측면에 더 호소하고 있다. 이는 손님들이 단순히 결혼식에 참석하라는 전달이 아니라 이에 더하여 준비가 완료된 만찬에 참석하라는 전달이다. 임금은 제 할 바를 다 마무리 짓고 준비된 만찬의 초청자들이 응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이 설비되었다는 말일까? 한 마디 단어 만찬(dinner)으로 먼저 표현하고 있다. 만찬이란 주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이타애의 선을 의미한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한다는 것은 사랑을 수단으로 연합하는 것, 결합을 뜻 한다. 결혼축제는 주님께서 육을 입으심으로 설비된 선들, 그분 자신과 그분의 자녀 사이가 복된 연합과 결합을 수단으로 일궈진 선들이다. 이런 선은 주님의 인성으로부터 진행되고, 인성의

영화하심이 준비가 완료된 축제이고 이 축제는 기꺼이 초대에 응하는 손님을 위해 언제나 준비완료되어있다. 그런데 만찬자체가 “소와 살진 짐승을 죽여서”라고 묘사되고 있다. 소(oxen)는 자연적 애정의 선을 상징하고, 살진 짐승(fatling)은 순진의 선을 상징한다. “죽임”이란 단어는 제물로 바쳐졌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제물로 바침이란 거룩하게 만들음을 뜻한다. 주님께서는 내재하는 신성쪽으로 그분께서 입으신 인성 속의 자연적 애정과 순진을 거룩하게 만드시어 성결되게 하셨다. 이제 그분의 자연적 애정과 자연적 순진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 생명있고 생명을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되어져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하신게 아닐까? 그분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내재한다. 모든 것이 준비완료되어 있다. 그래서 언제나 신성의 부름은 “잔치에 오라”는 것이다.

5.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자연적 인간은 복음이 그에게 제공한 선과 진리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아예 돌아서서 그의 의지는 악 쪽으로, 그의 이해성은 거짓 쪽으로 돌아선다. “어떤 이는 농장으로,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갔다.” 이는 천국의 사랑과 생명에 상반되는 터무니없는 세상의 사랑일 뿐이다. 우리가 부름을 경멸하는 것은 세상사랑을 손으로가 아닌 심정으로 헌신적으로 하는 것인 바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경 안에서의 결과는 원인을 위해 놓여져 있다. 즉 노동은 사랑을 위한 것이다. 이런 순서를 잘못 이해함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활의 직접적 의무를 단념함으로 천국을 추구하려든다. 이것은 세상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증거도, 수단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 삶에 소속된 것들을 중시하느라 신성하고 천국적인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인간사의 실상이다.

6. 심정과 지성이 천국적인 것들에서 돌아서서 지상의 것들에 몰두 할 경우 더 지독한 불법이 있어진다. 소작인들은 주인의 부름을 거절하는 것만 가지고는 흡족치 않아 세상에 자신을 던져버렸다. “남은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때려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단어 남아있음(remnant)을 덕행과 관계해 생각하면 이는 선함과 진리의 남아있음을 의미하고 이것이 마음 안에서 깨어날 때 거듭남의 시작이 있고 더욱 깨어날 때 거듭남은 더욱 진전을 이룬다. 그러나 마음 안에는 선만 남아 있는게 아니라 악도 남아 저장되어 있다. 남아있는 것들은 각자의 유아기와 어린 시절에 저장된 것인데 사람마다 양이나 질은 천차만

별이다. 어쨌든 이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 고운 마음씨는 거둬나아지고, 나쁜 마음씨도 부름받거나 그 부름을 듣게된다. 이 때 악쪽으로 돌아서면 그들 스스로 선함과 진리의 남아있는 것들을 파괴한다. 이 파괴과정에서 악쪽으로 돌아선 마음씨는 주님의 종들을 붙잡고 때리고 죽인다. 사악함이 결과를 본 것은 선과 진리의 파괴인데, 모든 악한 것들도 그 자체 스스로 당한다. 폭력의 세 가지 행동은 참되고 선한 모든 것의 완전한 거절을 그려내고 있다. 종을 “붙잡는 것”은 의지 안의 천국의 진리에 대한 폭력이고, “때렸음”은 이해성 안에 있는 천국의 진리에 대한 폭력이고, “죽였음”은 생활 안에 있는 천국의진리에 대한 폭력, 소멸시킴이다.

7. 절멸하겠다는 악한 상태는 심판을 자초한다. 자신 안에 있는 천국의 진리를 파괴한 이들은 파괴한 진리가 자신을 파괴하는 도구로 변하게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몹시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초청받은 사람들의 범죄, 그들이 이미 초대에 응하겠다고 수락되었던 터에 자기들을 향한 진리로 무장되어있다. 칼집에서 나온 칼인 그들의 죄는 자신들을 자르고 정의의 법 위에 남겨있던 더러운 흔적이 다 닦아질 때까지 칼집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보복의 법칙, 이는 영적 삶이나 영계에서는 완전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 법칙이 마음 안에서 양심 품은 정의 같은 어떤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작용과 반작용은 동등하다는 것, 이런 실제의 균형은 모든 것의 보존에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질서의 법칙에 의한 단순한 결과이다. 임금은 잔치에 오라고 초청된 자들이 종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들었다.” 듣는 작용 (hearing)은 의지와 더 직접 교통하고 보는 것은 이해성과 더 직접 교통된다. 그래서 왕이 그런 사실을 들었다란, 범해진 악은 신성한 지혜에 대한 범죄일 뿐아니라 신성한 사랑에 대한 범죄, 진리에 상반될뿐아니라 진리의 선에도 상반되는 범죄라는 것을 함축하는 묘사이다. 왕이 파견한 군대란 주님의 말씀과 그 나라의 진리들이다. 이 진리들이 반격하는 악과 거짓을 복종시키고 천국의 거주민, 또는 천국 원리에 가한 폭력의 힘을 무능하게 한다. 왕의 군대는 이 살인자들을 죽이고 동네를 불살랐다. 소유하는 모든 것, 삶에 관계되는 모든 것, 의지와 이해성 모두 안에 있는 것들이 파괴된다는 것, 삶 또는 교리에 관계되는 모든 진리가 제거된다는 것, 그래서 죽음만이 의지를 지배하고 황량함만이 이해성에 있게 된다. 이는 자기에게 제공된 구원을 거절하면서 생명의 수단과 생명의 저자에 극도의 중요성을 품은 마지막 결과이다. 이런 모습은 개인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교회차원이라면

현 시대에서도 어느 정도는 드러내지기도 한다. 이런 종말이 유대교를 압도했고, 그 교회의 범죄와 황폐됨이 비유의 자연적 의미에서 묘사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왕국으로 부름을 거절하고 메시아 자신까지 죽였을 때 발생되었다. 그 결과 그들 사이의 교회는 끝장이 나고 주님께서는 또 다른 백성에게 방향을 돌리셨다.

8, 9. “그래서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전에 초청받은 자들은 그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너희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복음은 자유롭게 모든 이에게 구원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이 비유, 이 구절보다 더 명백하게 공포되는 곳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자비심은 실망함이라는 것들로 시름해지고 마는 일이 흔하다. 그래서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죄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신성한 자비는 그렇지 않다. 사실 이 비유는 마치 신성한 자비심이 인간의 악의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더 부각되는 듯, 다시 말해서 죄악이 많을수록 은총도 더 많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설계된 듯 비치기도 한다. 하느님의 선함과 지혜는 얼마나 풍부한지! 우리가 그 깊이를 파악하는 것은 언제나 미미한 수준에 그칠 뿐이다.

10.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하자 “종들은 거리에 나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리하여 잔칫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상징적 차원에서 처음에 초청된 사람들의 자리를 채우도록 불리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다. 이들은 믿지않는 유대인들 대신에 눈에 보일 수 있는 교회를 형성하기에 알맞는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그들은 진리에 무지하나 진리를 받는데 있어 비호의적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왕은 종들에게 새 손님을 찾도록 큰 거리에 나가도록 명령되었다. 큰 거리(highway)란 글자대로 직역하면 길들의 길들(ways of ways), 두 개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장소(라틴어로 compitum), 또는 시골 사람들이 동네의 축제를 벌이기에 안성맞춤인 광장같이 특터진 넓은 도로, 많은 사람을 가장 빨리 만날 가능성이 있는 도로를 말한다. 중심되는 장소, 여러 길이 한데 모아지는 장소, 수많은 보급품이 쏟아지는 이런 장소는 합리적인 마음을 표현한다. 이 마음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집합하는데 어떤 생각은 자연적 마음으로부터, 또 어떤 생각은 영적 마음으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들어온다. 그러므로 합리적 마음은 “나쁜 것과 좋은 것” 모두 있는 곳이다. 인물차원에서 이를 생각해보면 이방인들이란 계시의 빛이 없던 이들이다. 그들은 자연의 빛, 또는 이성의 빛과 함께 말씀의 반사된 빛과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의 영적 도움을 받아 삶을 이끌어 갔다. 그러므로 그들이

잔치에 초대될 당시 지적이고 도덕적일 뿐인 진리의 큰 거리에 있었다. 그들의 결함이 어떠했든 그들은 기쁘게 잔치에 응했다.

11.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결혼식장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입장한 사람에 대한 비유의 언급은 매우 놀랄만한 바 거기에 교훈이 없을리 만무하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고 응낙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더 있다는 말이다.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의의 옷을 입어야만 한다. 손님들은 각자의 의상을 차려입고 들어오는게 아니라 임금이 손님을 위해 준비해둔 옷을 걸쳐야만 한다. 우리는 제 것의 정의로움으로 천국적 결혼식에 입장되는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파생된 정의로 옷입고 있어야 입장된다는 말이다. 그분의 정의만이 유일한 진리요 그분의 정의만이 구원받게 하는 정의이다. 그 이유가 모든 우리의 정의는 그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정의가 우리의 썩은 것들을 덮어 가려준다고 상상해서는 안된다. 정의는 정의를 살아내지 않으면 획득될 수 없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정의롭다.” 우리가 행함으로 획득한 정의가 인간 고유의 정의인 듯 여겨질는지 모른다. 자기정의(self-righteousness)와 그리스도의 정의 모두는 정의를 행함으로 획득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 차이란 하나는 자아로부터 정의를 행동함으로 획득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정의를 행함으로 획득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이 실습 또는 연마함도 없이 올바른 생각과 애정, 말과 일들을 우리에게 나누어주시거나 귀속시켜 주시지 않는다. 정의의 영(the Spirit)과 권능으로 그분께서는 올바른 것을 뜻하고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작업하신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뜻하고 행동한 정의는 그분의 것이다. 그 이유가 그분이 그 정의의 저자이시기 때문이다. 정의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파생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로움을 자신의 공적으로 돌려서는 안되고 반드시 그 영광을 그분께 되돌려야 한다. “야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다만 당신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소서. 그 영광은 당신의 사랑과 진실로 말미암은 것이옵니다” (시편 115:1). 세부적 의미로 이해해보자. 결혼잔치에 온 손님들이란 합리적 마음속의 생각과 애정들이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감이란 생각과 애정 안으로 신성한 진리가 유입됨이다. 손님들이 객실에 모여 있고 임금이 그 방에 들어간 목적은 “보기”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신성한 진리는 우리의 생각과 애정의 품질을 지각할 수 있게 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고 분리해서 좋은 것은 영적 빛을 받게 하고 나쁜 것은 바깥 어둠에 내던지게 해준다. 이것은 모든

인간 마음 안에서 결과되는 심판이다. 이 심판은 신성한 진리에 영향을 받을 때 발생된다. 모든 일들이 제 각각의 수준에서는 그 자체 동일하듯 선한 인물이든 나쁜 인물이든 각 사람에게 거행되는 심판도 그 자체 위와 동일한 바 동일한 결과를 가진다. 신성은 진리의 빛 안에서 현존하시어 밝히 알게 한다. “그 이유가 명백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빛이기” 때문이다 (에페소 5:13). 내향의 품성을 밝히 앎은 선한 사람을 빛의 충만함으로 가져다주고 악한 자는 깊은 어둠 안에 놓여 있게 한다.

12. “그를 보고 ‘친구여,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소?’ 하고 물었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실 경우 이는 자기 검증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이다. 자기 검증은 자신의 상태에 올바른 평가를 갖게 하는 수단이다. 저 세상에는 서로 위배됨이 없는 상태와 장소의 일치가 존재한다. 천국적 상태가 없으면 천국적 장소도 없다. 내부에 천국이 없으면 밖에도 천국은 없다. 주님 스스로 이런 법칙의 위반이 가능해질 수 없도록 하시고 또 모든 영혼이 그것을 보도록 해주신다. 이 세상에서이든 저 세상에서이든 상반되는 신앙으로 자신을 그럴듯하게 치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궤변이 진리의 빛으로 꿰뚫어지고 밝혀져 제거되면 제 스스로 죄를 깨달은 영혼은 할말이 없다. 저 세계의 경우 악한 자가 제 죄를 인정하거나 납득하거나 할 때까지 지옥에도 거처를 두지 못한다. 다시 말해 악한 자가 자기의 악한 모습을 보고, 그 악은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방법 외 달리 도리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지옥으로 보내지지 않는다. 이 얼마나 엄격하고 인상적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가!

13.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사물의 조건에 일치되게 사악한 자는 지옥으로 던지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하셨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 그들은 지옥의 거처로 곤두박질치듯 던져지는 것처럼 나타난다. 진짜 진리가 존재하는 동안 악한 자는 자신을 지옥으로 던진다. 오히려 악 자체가 지옥으로 그들을 깊숙이 내려박는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른다. 그들이 곤두박질치는 모습은 그들의 거꾸로된 마음 상태의 상징밖에 더 다른 것은 없다. 그러나 악의 황폐해짐에도 단계가 있다. 이를 비유로 밝히고 있다. 이 단계로 그들에게 붙어 있는 가상적인 선과 진리가 천천히 송두리째 박탈된다. 손이란 내적 인간의 힘을, 발은 외적 인간의 힘을 상징한다. 이 세상에서 손과 발은 자유롭다.

저 세상의 경우 악한 자의 손과 발은 묶여있다. 이 세상의 경우 외적 인간이 선을 행하면서 내적 인간은 악을 뜻할 수 있다. 이런 상태는 이 세상의 외적 질서의 보존, 그리고 인간 개혁의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 저 세상의 경우 개혁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그럴싸한 상태라는 것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내적 측면이 뜻하는 것과 똑같이 외적 측면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악한 내적 측면은 그 자체에 종속되게 외적 측면도 가져다 놓는다. 이런 종속관계는 묶여있다. 의지 속의 선이 박탈되어 악에 종속되면 이해성 속의 진리도 박탈되어 거짓 속에 침몰된다. 이것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모습이다. 이런 거짓에도 두 종류, 두 가지 수준이 있다. 하나는 의지에 근원을 둘 경우와 또 하나는 이해성에 근원을 둘 경우이다. 지적 측면의 거짓은 어둠이고, 자발적 측면, 즉 의지 측면의 거짓은 바깥 어둠이다. 전자는 진리의 부정이고 후자는 진리의 뒤집음이다. 전자는 빛을 차단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빛을 어둠으로 돌리는 경우이다. “그래서 만일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은 얼마나 큰 어둠이겠느냐!” 이는 영적 어둠의 상태요 그 상태에 “슬피울며 이를 값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표시요 상징이나 단순한 고통의 괴로움만이 아니다. 저 세상에서 사악했던 자들이 슬피 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게걸스러웠던 이기심의 좌절, 만족을 모르는 포부의 좌절로 인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들이 섞여 있다. 그들의 눈물은 과거 알렉산더의 눈물, 세계를 정복하다보다 더 정복할 세계가 없을 것 같아 흘린 눈물 같은 것이다. 그들은 이를 갈고 있다. 이런 이를 값은 과거 격노한 유대인이 스테반을 향해 “이를 갈며” 돌진했던 모습 같은 것이다. 슬피움(weeping)은 의지의 상태를 표현하고 이를 값은 이해성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의지는 바램이 저항받을 때 슬피운다. 생각함이 반대 의견에 부딪칠 때 이해성은 이를 간다. “이를 값”이란 거짓들이 서로 계속 논박하는 것, 결과적으로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계속되는 말다툼이다. 이런 말다툼은 지옥 밖에서 들을 경우 이를 가는 소리로 들린다. 천국의 진리가 그들 안으로 흘러들 때 이를 값으로 실지 변해진다.

14. 주님께서는 이렇게 타이르심으로 비유를 끝맺으신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초대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마지막 초대된 손님이 선택되었다는 식으로 상대적인 숫자 개념만으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대체로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만일 숫자 개념을 고집한다면 그 숫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초대된 손님을 전체로서 간주해야할 것이다. 이런 소견이라면 그것은 인류 전체를 말한다고 해야 옳바를

것이다. 어찌됐든 성경의 숫자는 양이 아닌 질을 의미한다. “적은 사람, the few”란 이타애로 사는 사람들, 이타애의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 the many”이란 이타애가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입장한 손님은 어떤 한 명의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계층의 사람들, 즉 일을 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계층을 두고 한 말씀이다. 정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입장될 수 없다.

15. 주님의 위 비유에서 유대인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 들어있는 바 이는 그들을 무마하기보다는 오히려 격양시킨 대목들이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물러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라미를 씌을까 하고 궁리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행위없는 명목상의 종교자들을 표현하고, 그것이 의인화되어 있다. 그래서 공정한 분을 향해 분노를 끓이고 있는 적들 안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은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에 반대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주님의 사랑에 반대함이 위 구절에서 “물러감, going”으로, 주님의 진리에 반대함이 “궁리함, talking counsel”으로,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는 것”은 진리를 뒤집고 파괴하려는 욕망을 표현한다. 이를 성취하고자...

16. “자기네 제자들을 헤로데 당원 몇 사람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주님의 제자는 교회의 모든 원리들을 표현하는 바 바리사이파 사람의 제자는 교회를 배척하고 파괴하는 모든 원리들을 표현한다. 특히 이 제자들은 거짓 원리들, 헤로데 당원으로 의미되는 친척 관계의 악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의 말 가운데서 트집을 잡아보도록 파견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존경하는 척 말을 꺼내고 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으로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을 압니다.” 종종 진리가 그 진리를 부정하는 심정을 지닌 이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기도 한다. 주님은 참으로 참되시고 진리 안에서 하느님의 길을 가르치신다. 그분은 진리요 길이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어 사람들을 진리와 선함쪽으로 인도하신다. 그분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신다. 그 이유는 사람의 겉모양에 개의치 않기 때문이다. 그분은 인간적 선함을 개의치 않으신다. 마찬가지로 인간적 일 뿐인 진리에도 무관심이다. 그분은 개인이라는 인물에 개의치 않으신다. 글자대로 그분은 인간의 얼굴을 쳐다보시지 않는다. 똑 같은 표현이 구약성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은 얼굴을 쳐다보지만 주님은 심정을 쳐다보신다. 얼굴은 이해성을 의미하고 심정(heart)은 의지를 의미한다. 주님은 얼굴, 이해성, 인간의 총명과 신앙쪽을 쳐다보시지

않고 인간의 선함과 사랑쪽, 심정을 들여다보신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기치는 바리사이파 제자들의 입이 어쨌든 진실을 발표한 셈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진리를 말하고 서술한 것은 다른 의도, 즉 진리를 왜곡시켜볼까해서, 진리의 말들을 가지고 거짓을 증명해 볼까해서 의도된 진리의 발언이다. 이제 큰 질문을 던진다. 이를 수단으로 그들은 저희들의 목적이 성취되길 희망했다.

17.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교묘한 올가미인지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이 질문은 골격이 잘 짜여져 있어 부정을 하든 공정을 하든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질문이다. 만일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한다면 유대백성의 미움을 살 것이고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대답한다면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드는 셈이다.

18-22.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속셈을 아시고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의 속을 떠보느냐?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오자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답변에 경탄을 하지 않을 자 누가 있을까?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파하러 내보낼 때 하신 말씀,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 같이 양순해야 한다” 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완벽한 본보기이다. 이 답변으로 주님의 적들은 패배의 잔을 확실하게 마셔야 했다. 그들의 교묘한 술책은 좌절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은 침묵으로 굳어졌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술책을 깨버리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 사악한 시도는 세상이 소유할 수 있는 지혜 중 가장 대단한 교훈을 가상적이지만 포획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라”는 말씀은 신성의 정부와 인간의 정부의 신하로서의 인간의 전체 의무를 묘미있게 표현한 격언이 되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하느님께 순종을 하는 의무와 우리가 사는 지상의 정부에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의무를 가르치고 있다. 그 이유가 지상의 나라를 수단으로 우리는 질서의 원인을 유지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하느님은 영적 질서의 저자이시고 지상질서의 저자이시므로 그분께 순종과 섬김을 바치기 때문이다. 입술에는 찬양을, 마음속에는 악의를 품고

짐짓 곤란한 문제를 내밀려고 예수께 오는 바리사이파 제자와 헤로데 당원의 모습이 영적으로 뜻하는 바, 이들은 위선적으로 예배하는 이들, 바깥쪽으로는 말씀을 공경하면서 내향으로는 말씀을 믿지않고 미워하며 말씀 속 거룩한 진리를 뒤집으려 은밀히 노력하는 이들, 진리가 자기들의 악들을 까별리고 질책하기에 내심으로는 말씀을 증오하는 이들을 뜻한다. 그들이 말씀 안에서 뭔가를 찾을 경우 그들은 내적 인간의 정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외적 인간의 규율에 관한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동전의 형상과 그 위에 적힌 이름이 카이사르라고 인정시키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리라”고 말하심이 뜻하는 바, 외적 인간은 이 세상의 형상과 표제에 관계되고, 세상을 위해 창조된 것인 바 외적 인간은 도덕과 시민생활이라는 세상의 법칙에 의해 규율되고 그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 그러나 내적 인간은 천국의 형상에 관계되고, 천국을 위해 창조된 것인 바 천국적인 생명, 영적 삶의 법칙에 복종해서 규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경탄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는 구절이 뜻하는 바, 위선적으로 예배하는 이들, 말씀의 내적 측면을 거절하는 이들은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23-30. “그 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정해 준 법에는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칠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하고 살다가 자식없이 죽어서 그 동생이 형수와 살게 되었는데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죽은 뒤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칠 형제가 모두 그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서도 모르고 하느님의 권능도 모르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부활한 다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그 당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인간은 불멸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동등하다. 이는 위 논쟁으로부터 명백하다. 그 이유가 위 논리는 남편들을 위해 아내들을 다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영혼의 불멸이라는 교리가 얼마나 영터리인가를 끌어내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의미를 헤아려 적절한 교훈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부활의 부정은 거듭남을 부정하는 것이다. 영적 의미에서 부활은 거듭남을 의미한다. 거듭남은 죄의 죽음으로부터 정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참으로 부활의 부정은 거듭남의 부정을 포함하게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희망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는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도 없었어야 한다. 이 교리의 긍정 또는 부정은 다른 교리의 긍정 또는 부정을 함축한다. 영적 사두가이파 사람이란 영이 없다고 말하는 자, 고로 영성은 존재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께 와서 진리가 자기들의 견해를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다.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으니 모세의 말도 믿지 않는게 아닐까? 어쨌든 거듭남은 무엇일까? 이는 천국적 결혼, 선과 진리가 인간 마음 안에서 하나됨이다. 그러므로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결혼에 관련된 것을 추켜들어 말하는 것이다. 만일 일곱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면 그 여자는 일곱 남편 중 누구의 아내가 될까? 거듭남의 원리 중 하나를 살펴보자. 천국 결혼에서 모든 선은 그 선에 알맞는 진리를, 모든 진리는 그 진리에 적절한 선을 가진다. 이 결혼은 선과 진리가 서로간에 실지로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에 비례해서 천국적일 뿐이다. 만일 어떤 선과 어떤 진리가 있는데 상호관련이 없다면 외적으로는 합쳐진 듯 보일는지 몰라도 이 둘은 진실로 하나된 것이 아닌 바 선한 애정과 올바른 생각이라는 열매를 남기지 못하고, 그 둘로부터서도 어떤 유용함과 행복도 남기지 못한다. 거듭남의 과정에서 외적으로 하나되었다가 둘로 분리됨이 진짜 하나됨이 있기 전 반복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를 표징하도록 표본되는 교회, 유대 교회에서 어떤 남자가 대물릴 자손도 없이 죽을 경우 남자와 제일 가까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하는 법이 있었던 것이다. 사두가이파 사람이 제안한 사건의 경우는 한 여자가 일곱 형제의 아내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영적 의미에서의 일곱은 어떤 숫자가 아닌 어떤 특별한 품질을 뜻한다. 일곱은 완전한 것, 거룩한 것을 뜻한다. 일곱 남편을 가졌다가 결국 자식없이 죽은 그 여인이라든 여러 종류 또는 여러 수준의 진리들이 붙었던 어떤 선 그러나 그 선과 진리 사이에 진짜 하나됨이 없었는 바 그들의 결혼으로부터 영적 소산이 없었던 선, 진정한 결혼의 열매되는 사랑과 지혜의 일이 없는 선을 표현한다. 이런 종류의 선은 위선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이 선은 자연적 이타애 또는 덕행의 열렬한 감정일는지 모른다. 이런 감정은 뭔가 쓸모있다는 여러 가지 계획과 계속적으로 결혼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 모두 지혜롭지 못하고 동시에 선한 결과가 열매없는 채로 치진다. 그런 모든 것의 끝은 기만되고 좌절된다. 그 감정 자체도 결국 죽게 되고 감정의 집인 그 심정은 실망과 좌절로 굳어져 있게 된다. 지혜를 배우려하는 대신 체험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음만을 증가시

키기만 한다면 우리의 애쓴 수고는 무익으로 끝나고 만다. 사실 우리의 마지막 상태는 현 상태의 더 완전하고 더 완성된 형체일 뿐이다. 만일 영혼이 지상에서 약혼(betroth)했다면 천국에서 결혼이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선이 진리에 대해 진정한 사랑을 지상에서 가지지 않았다면, 또는 지상에서 진리가 선에 참된 사랑을 가지지 않았다면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활해도 그들은 결혼하지 않고 결혼이 주어지지도 않는다. 만일 선과 진리의 천국적 결혼이 여기서 결과되지 않는다면 이후 저기서도 결과될 수 없다. 지상에서 의지와 지성 사이의 열매 없는 결혼들 중 어떤 하나가 영으로 사는 저 세상에 가서는 최소한 한 개라도 마지막의 열매를 맺은 결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성서를 몰라서 그릇된 생각을 한다. 그 이유가 나무가 넘어지면 그대로 드러눕고 마는 것이 신성한 진리의 변경할 수 없는 법칙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상태는 일시적인 상태들의 계속밖에 더 아니다. 천국적 상태는 지상적 상태의 계속일 뿐이다. 지상에서 천국적 결혼이 없었다면 저 세상에서도 불가능하다. 하느님의 권능을 몰라서 그들은 그릇되어있다. 신성한 사랑 그 자체, 비록 이 사랑은 선과 진리의 정당한 하나됨을 드높이고 축복한다. 그렇다고 거짓을 참된 것으로, 악을 선으로 바뀌게 할 수 없듯 지옥적 결혼을 천국적 결혼으로 바뀌게 할 수 없다. 지상에서 새 삶을 가져 복된 부활을 이룬 사람들, 그래서 복된 자들을 위한 천국에 거처를 둔 사람들은 거기서 하느님의 천사들 처럼 있게 된다. 천사-인간은 천국적인 결혼 안에 미리 존재한다. 그 이유가 사랑과 지혜의 하나됨이 천사 또는 천사적 상태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천사들에게는 결혼하는 것, 즉 시집가는 일도 장가드는 일도 없다. 이해성이 의지와, 의지가 이해성과 새로이 하나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이유가 상호간의 하나됨이 그 나름대로 이미 완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이사야 62장 4절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임’이라, 너의 땅을 ‘내 아내’라 부르리라. 그 이유가 야훼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의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 주목해 볼 것은, 부활은 한 전체 인간에 관해서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부분 속에서, 거듭남의 매 단계에서 있어진다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과 진리가 자연적 마음에서 영적 마음으로 승강될 경우 이것이 부활이다. 이리하여 모든 원리는 자연적 몸을 벗어 던지고 영적 몸을 입는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일어난다. 이런 과정에서 주목할 것이 있다. 자연적 마음에서 영적 마음으로 승강된

모든 원리는 각각의 진리와 각각의 선들이 아니라 선과 진리가 하나되어 있다. 이 하나됨은 승강됨의 필수 조건이다. 자연적 마음에 들어 온 진리는 그 진리로 살아낼 때만이 그 진리에 걸맞는 선과 결합되어 영적 수준으로 승강된다. 따라서 결혼은 자연적 마음 또는 지상 위에서 거행될 뿐 영적 마음 또는 천국에서는 거행될 수 없다. 그러므로 들리워진 원리들은 결혼이라는 것,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이 없고 하늘에서 하느님의 천사로서 존재할 뿐이다. 그 이유는 선함과 참됨의 하나됨은 천사가 되기 위한 천사적인 원리에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서의 결혼이라는 주제를 놓고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조금 더 말해야 할 것 같다. 위 본문을 두고 많은 사람의 경우 주님께서는 천국에 결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신다고 가정하고 있다. 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시집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렇다고 천국에 결혼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게 아니다. 지상에서 참된 결혼이 존재했던 이들 외에 천국의 참된 결혼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남녀라는 구분은 본질적으로 영혼 속에 있는 바 이는 영적이고 영원하듯 거기에도 성별의 하나됨이 있다. 천국에서 결혼은 가장 높은 완전함과 축복으로 존재한다. 하늘 나라는 결혼에 비유된다. 그래서 결혼은 천국의 가장 완전한 타입(type)이요 천국의 실상을 가장 완전하게 알게 한다.

31, 32.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하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아직 읽어 본 일이 없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이사악의 하느님이요,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이들의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구약성서는 영혼의 불멸에 관해 직선적으로 계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에 관한 어떤 증거가 구약성서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위 구절에 인용하시고 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불붙은 떨기에서 선포하셨을 그 때, 이미 위 세 열조는 죽은지 오랜 세월이 경과했다. 주님께서는 이 사항을 사두가이파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로 제시하시고 있다. 이 열조들은 인간 측면에서는 죽은 사람들이나 하느님 측면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스스로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말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이유가 그분은 죽은 자에게 하느님이 되지 않고 살아 있는 사람에게만 하느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활은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을 두고 하는 말임을 우리는 이쯤해서 지각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가 위 세 열조들의 몸은 무덤 안에 있고 그들의 영혼은 하늘에 승강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죽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일어남, 몸으로부터 영혼의 빠져나옴, 등등이 부활인 것이다.

영적 의미에서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은 주님으로부터 과생되어 인간 안에 있는 세 원리, 천적, 영적, 자연적 원리이다. 이 세 원리들은 거듭남으로 해서 인간 안에 형성되어지고 그럼으로 해서 생명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은 상태, 거듭나지 않은 존재로서의 인간 속의 것은 실상 죽은 것이다. 하느님은 인간 안에 있는 영적 원리들의 하느님이시다. 그 이유가 영적 원리만이 그분으로부터 과생되었기 때문이고 그분의 것이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우리의 하느님도 되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자연적 원리의 하느님은 아니다. 이런 것은 생명 자체되는 그분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더 특별한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은 선의 애정과 진리의 지각의 하느님이시다. 그 이유는 그것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가 받은 바깥쪽 지식의 하느님은 아니다. 그 이유가 이런 지식은 세상에서의 존재를 위한 것인 바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되어 시간과 공간이라는 영역을 넘어 승강할 때 육체나 마찬가지로 벗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33. “이 말씀을 들은 군중은 예수의 가르치심에 탄복하여 마지않았다.” 글자대로 당연히 탄복할 수밖에 없다. 그분께서는 부활에 관해 새로운 관점을 열어 주셨고 바리사이파나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부활을 알게 하는 구절이 구약성서 안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새로운 빛을 그 성서 구절로부터 끌어내 비추어 주셨다. 위 놀람은 경탄을 함축한다. 군중은 인간 마음속의 단순한 애정과 비비꼬이지 않은 생각들을 표현한다. 이런 탄복함이 우리를 가르치는 바 보통의 느낌과 상식이 천국 진리의 입장을 단히게 하는게 아니라 단히게 하는 것은 감정과 자기 철학이다.

34-36. “예수께서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물려왔다.” 진리가 자기 진리를 확신시키지 못할 때 굳어지고 만다. 진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 조차에서도 인간의 이런 자질이 저런 자질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만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자연적 이해성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자연적 의지를 표현한다면 이것의 말문이 막혔을 때 저것의 봉기는 어떠할까 자명한 것이다.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는 둘만 있을

경우 서로 적수가 되어 있지만 주님을 공동의 적으로 삼는 상태에서 그분의 파괴가 목적이 될 경우 바리사이파는 사두가이파가 굴복당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바리사이파가 모여 있는 모습은 애정과 생각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서로 더 가까이 연결된 것과 같다. 그들이 율법 교사를 앞세운다. 이는 마치 마음이 논박하기 위해 지식을 끌어내는 것과 같다. “그들 중 한 율법교사가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 질문, 만일 정직하게 의도되었다면 헛된 질문도, 하찮은 문의도 절대로 아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명령을 비껴갈 수 있게 할만한 질문에 말씀이 답을 해달라고 간청하려는 시도로해서 진리를 “떠보는” 때가 있지 않았을까? 본문의 율법교사가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바깥쪽 경의를 표했듯 우리 역시 말씀을 형식적으로 존경했던 때가 많지 않았을까? 어쨌든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신성한 진리라는 주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런 호칭으로 주님을 불렀다는 것은 이렇게 말한 것과 대등하다. “당신은 진리 자체이시고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에 관계되는 질문을 당신께 하는 것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해서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답변을 듣게 되어 자기에게 유익하게 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위 구절은 대단히 중대한 질문이 장착된 구절 중 하나이다. 따라서 어느 인간도 권위 있게 말하지 못한 내용을 그분께서 직접 말하신 꼭 기억해야만 하는 계시의 구절이리라.

37-40.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하느님을 사랑함과 인간을 사랑함은 모든 종교의 본질이요 모든 계시를 총괄한다. 하느님과 인간은 우리의 애정이 방향을 두고 있어야 하는 유일한 대상, 우리의 섬김을 돌려야 할 유일한 대상이다. 이 두 사랑은 우리의 모든 목표를 배출하고 모든 우리의 능력을 채용한다.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육체 안에서 심장과 폐의 관계 같이 계시와 종교 안에 존재한다. 이 두 사랑은 생명을 주는 원리여서 여타 다른 원리들은 이 원리에 생명의 유무를 의존한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서가 걸려있다.” 다른 가르침, 말씀 속의 진리들은 두 계명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데 비해 세부적이고 특수적인 뿐이다. 모든 교훈은 이 두 계명으로부터 진행되어 나와서 그 계명으로 귀환한다. 마치 태양의 광선 같이 이 두 계명은 그 근원을 밝히 알게 하는 한편 무작정 그분께로

귀환하는게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면서 돌아간다. 그분의 목적,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지상을 아름다움으로 옷입히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느님을 사랑함은 인간을 사랑함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하느님과 인간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인간의 사랑 안에서 명백해질 때 사랑되어진다. 하느님을 사랑함은 엄격히 말해보자면 이는 개인적 차원의 애정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을 구성하는 특질에 대한 애정이다. 하느님은 선함 자체요 진리자체이시다. 이것을 사랑할 때 하느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을 사랑함이란 이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선을 행하는 것은 그분의 선함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말하는 것은 그분의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가 만사에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 종교의 큰 본질을 이루기 때문이다. 악은 하느님과 반대되는 죄라는 수준에서 악을 금하는 것, 선은 그분의 뜻에 일치하기에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첫째가는 위대한 계명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뜻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존경하는 것이 우리 품성 중에서 첫째가는 위대한 특출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온 심정으로, 온 영혼으로, 온 지성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랜 것만큼 자신도 타인에게 행할 때 우리는 이웃을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못지 않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 이유가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느님을 선함 자체로서 사랑해야한다. 우리는 이웃을 선함 자체의 형상으로서 사랑해야한다. 이웃 안에 있는 선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다. 그 이유가 선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안에 하느님의 선함을 가지고 있는 만큼에서 우리의 이웃이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랑함은 그 사람 안에 있을는지 모르는 선을 위해서, 그가 지닌 선이 많은 적든 간에 그 선이 증가되어 완전해지기를 바래서이다. 어린 아이의 응석을 무분별하게 받아줄 때 그 아이를 망치듯이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되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어떤 개인을 사랑하는게 아니라 그를 미워한 셈이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를 사랑하되 그의 선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였다는 말이다.

41-46. “예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앞 문단의 질문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을 가르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에게 그들의 마음이 끌어 내지도록 노력하신다. 그분의 질문,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금방 그분께서 말해오셨던 주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율법의 모든 계명 중의 첫째 계명과 성서 속의 모든 교리 사이에는 중요한 연결이 있다. 어떤 점에서 그 둘은 아주 동일하다.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대목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율법학자의 질문에 “첫째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네 심정을 다하고, 네 영혼을 다하고 네 지성을 다해서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답한 것을 발견한다. 위대한 계명인 위 질문은 사랑해야 하는 최고의 대상, 뿐만 아니라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정녕 이스라엘에 그들의 한 분 주님으로 믿고 사랑하라고 가르쳐져 온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볼 때 위 사항은 더욱 명백해진다. 예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으신다. 이를 수단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위대한 교리, 그 결과 그분의 유일한 신성에 관한 위대한 교리가 결정되어졌었고 결정되어지고 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위 질문을 물으신 주님의 목적은 예수가 유한한 존재의 아들, 그러므로 그분 자신이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그들이 믿음에 이의를 제기하고 뒤집어주시려는데 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다윗이 영 가운데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된 일이나? “주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신 말씀, 내가 네 왼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다윗이 옳지 않았느냐?” 주님께서는 사두가이파 사람의 말문을 막았을 때처럼 바리사이파 사람의 입도 다물어지게 했다. 그 이유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를 즉각 지각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어진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이는 자연적 마음에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이 개인적인 어떤 아들로서 실어 나르고 있다. 그러나 적절히 이해해 본다면 위 질문은 그분의 정체와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입으시고 영화하신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인 바 위 질문은 주님의 인성이 신성이라는 것, 육체와 영혼이 하나되어 있듯 본질적 신성과 하나되어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질문은 바리사이파 사람의 답변과 친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 그분은 참으로 온 심정을 다해 사랑되어야 할 하느님이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 생명이신 존재를 보게 된다. 그분은 아버지를 우리 눈에 보이게 가져다 놓았다. 그분은 볼 수 없는 신성을 보일 수 있게, 납득할 수 없는 신성을 납득할 수 있는 신성이 되게 하셨다. 그분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 생각에 더 가까이 오셨고, 오시고 있다. 더불어 우리의 애정이 더 다감하게 느끼게 하시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유대인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한 분 하느님을 온 심정과 영혼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하느님, 세상이 그분 자신과 재회하게 하신 하느님이 믿는 자들에게 진실로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주님 자신의 신성에 대해 위와 같은 주님의 논증은 완벽하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기독교인의 이 위대한 교리를 보다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이해해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지 모른다. 이 교리의 내적 의미를 더 추가해 조금 더 살펴보자. 주님에게는 실제의 이중성이 있는데 위 문단, 인용된 시편이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 이 이중성의 본성이 번역에서 잘 보존되고 있지는 않다. 시편의 원어에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주님은 똑같이 주님이라고 불리고 있지 않다. 원어로는 “여호와가 내 하느님(Adon)에게 말하시기를...” 라고 읽어진다. 여호와는 신성한 사랑측면에서의 주님의 이름이고 아돈(Adonai)은 신성한 지혜측면에서의 주님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지혜가 사랑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가 사랑의 모든 힘은 지혜를 수단으로 있어지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적들은 지혜의 주권 밑에 놓여진다. 그 이유가 지혜를 수단으로 신성한 사랑은 모든 비질서를 굴복시키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말해지는 “굴복(subjugation)”은 일반적일 뿐 아니라 특수적인 측면 모두를 망라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주님의 인성의 권능 아래 자연과 어둠의 권세가 굴복한다는 말이다. 주님의 인성이 인간본성을 입으신 것이 “아돈(Adonai)”이라고 특수하게 말해졌다. 이는 말씀이 육을 만드셨다는 말이다. 말씀이 육이 되신 것은 말씀의 적들이 복종하도록, 그리고 그분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이 적들이란 어둠의 권세, 인간 본성 중 말씀의 명령을 듣지 않으려는 고집센 측면의 힘을 말한다. 육 안에 있는 주님이 지옥을 정복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인성을 신성으로 만드심으로 그분 자신을 영화하셨다. 이 위대한 일의 양 측면 모두에서 그분께서는 적들을 그분의 발판이 되게 하셨다.

그분은 모든 것이 그분을 따르도록 환원시키셨다. 그분은 이와 같은 일을 그분 자신 안에서, 그분을 향한 것들을 향해 행동하셨듯 지금 인간 안에서 그렇게 하시고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적이란 그분의 신성한 통치의 규율에 봉기하는 악들, 질서를 거꾸로 되게 하려는 마음의 힘들이다. 거듭남을 수단으로 주님께서는 이런 적들이 그분의 발판이 되게 하시어 그분의 규율이 우리의 심정과 영혼 안에 건설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모든 생각들이 복종됨으로 이 건설을 마무리하신다. 이런 사항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될 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깨닫는다.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그분의 신성의 권능, 또는 그분의 신성한 인성의 권능이 우리의 의식세계와 양심 안에서 느껴진다. 이런 거듭남의 체험 속에서 모든 의문은 침묵되고 주님의 답변은 모든 것을 완성한다. 그리하여 진리와 잘못된 것 사이의 모든 논쟁, 선과 악 사이의 모든 다툼도 막을 내린다

23

바리사이파 사람의 간계를 깨트리시고 사두가이파 사람의 오류를 논박하시고, 그분께서 인간 사이에 건설하려 오신 신성한 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 얼마를 지혜의 보물 창고에서 꺼내 주셨다. 이제 주님께서는 군중과 제자들에게 위 두 파의 품성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걸치장한 거룩함 안에 감추어 놓은 죄들, 거꾸로된 합리성으로 그럴듯하게 치장한 오류에 대해 경고하셨다. 그 뒤 그분께서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품성이 무엇인지 꼬집어 주시고 부패한 그 품성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신다.

1. “그 때에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군중과 제자는 새로운 사람 또는 새로된 만큼의 사람 속에 있는 내적, 외적 원리들을 표현한다. 그 반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옛 사람 또는 아직 덜 갱신된 만큼의 사람 속에 있는 내적, 외적 원리들을 표현한다. 이 두 원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반대된다. 어쨌든 이런 의미의 일반적 응용은 개인 차원에서 찾아보는게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2, 3.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말한다.” 앉음(sitting)은 의지 측면, 서 있음은 이해성 측면에 속하는 자세이다. 누군가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 안으로 들어가 그 의지를 소유하는 것, 또는 그의 의지가 자리잡은 삶의 목적이나 사랑으로 진입해 소유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이 모세와 관련되어 모세의 자리에 그들이 앉은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그들은 모세가 표현했던 율법을 가르치고 집행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 가르쳤고 집행했을 뿐이다. 율법의 진짜 목적은 하느님을 영광되게 하고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는데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영예와 이득 외 더 다른 목적도 없이 가르치고 집행한다. 이럴 경우 인간의 뜻이 통치하고 하느님의 진리가 그 뜻을 섬기게 된다. 이럴 때조차, 다시 말해 선함이 인간의 발에 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또는 진리에 아무런 공감을 보이지 않는 때일지라도 때로 진리를 열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이렇게 훈계하신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가르친 것은 따라가야 하나 그들이 보인 본보기는 금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준수함의 수준있는 구분이다. 비록 그들의 입술을 통해 진리가 전달되고 있다 해도 진리는 참되다. 그들이 입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여 인도해 간다면 그야말로 이상적이다. 그러나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보다 더 나올 때 진리는 수용하고 악은 배척하는게 우리의 의무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지키고 실행하라고 요구하셨다. 이는 진리를 이해성과 의지 안에 받아들이고 말과 일에서 그 진리를 명백해지게 하라는 것이다.

4. 주님께서서는 율법의 권위를 덮어쓰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묘사해주신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꾸려 남의 어깨에 메워 주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닭하려 하지 않는다.” 유대 성직자는 율법의 부담을 안겨주는 의무들만 가지고는 흡족치 못해서 율법의 교훈을 다시 세밀하게 구별하고 예식 준수를 더 배가시키는 수단으로 자신들은 지지않아도 되는 짐을 만들어 타인의 어깨 위에 얹어 놓았다. 사실 성직자의 의무는 타인이 삶을 잇는데 불가결한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은 불필요한 짐까지 만들어 메게 했고, 타인이 그것을 지고 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때로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식의 짐을 지워 놓지 않았을까? 때로 명확한 우리의 의무조항에 게을러지도록 불필요한 규정으로 짐을 만들어 우리 어깨에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확실히 요구되는

의무에 게을러지도록 사소한 것들로 마음을 가득 메운다. 우리는 정말 용의주도해야 하는 의무에 게을러지도록 비합리적인 걱정 근심으로 삶을 짓누른다. 어찌됐든 이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의 행동이 영적으로 무엇을 함축하는지 살펴보자. 바리사이파 사람은 일종의 영적 십장(taskmaster)이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벽돌에 관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강요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짐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워 내라고 다그쳤다.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들은 호의적인 사람들을 오류로 비비꼬고 사기치는 걸 모양새를 수단으로 자기들 권능 아래 있도록 발버둥치는 기생충 같은 영을 표현한다. 그들의 요구 사항은 짐이다. 그 이유가 그들은 영혼의 영적 생명을 짓누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워 놓은 짐은 무겁고 괴로운 것들이다. 그 이유가 그 짐은 외관으로는 멀쩡하고 괜찮은 듯 여겨지지만 내향으로는 악과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지와 이해성 모두의 생명을 압박한다. 그 이유가 악과 거짓은 그것들이 모두 악과 거짓과 하나가 되기를 바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 위에 짐을 놓는다. 그 이유가 사람은 선과 진리라는 영적 원리를 의미하고 이 선과 진리가 진실로 인간답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내려 누르고 압박해버리려는 그들의 바램이 “사람들의 어깨에 짐을 얹어 놓았다”로 의미되고 있다. 그 이유가 어깨는 가장 큰 힘, 즉 의지와 지성이 합쳐져서 나오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짐을 멘 사람들의 어깨는 그 짐을 메도록 조장한 사람의 손가락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가장 큰 힘과 가장 적은 힘의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바리사이파 사람이 타인의 어깨에 얹은 짐에 대해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바리사이파 사람이 표현한 것, 위선적인 것들은 타인의 의지와 지성, 온 힘이 자기들에게 종속되기를 바래되 그들에게 자발적인 도움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5.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바뀔 말해 하느님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인간-쾌락자들은 경건함과 거룩함을 바깥쪽으로 보이기 위한 것밖에 더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이마나 팔에 성구 넣는 갑을 크게 만들어 매달고 다니며 옷단에는 기다란 술을 달고 다닌다.” 성구함은 성경의 어떤 문구를 적어 놓은 양피지 같은 것을 넣은 작은 가죽 상자인데 이것을 손이나 이마에 묶어 두었다. 이런 관습은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까지에서는 존재했던 것 같이 여겨지지는 않았다. 어쨌든 이 관습은 모세의 명령, 즉 “...이것을 너희 손에 새긴 표나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기념물처럼 여겨 야훼의 가르침을 되뇌어라” (출애굽기 13:9) 라는 모세의 명령을 준수하겠다고 해서

파생되어졌다. 기다란 술(fringe)은 이스라엘 백성이 옷자락에 달았는데 이는 주님의 명령을 상념하여 지키려는 수단이었다(민수기 15:38). 이런 형식들은 내향의 원리에 대한 바깥쪽 표시였을 뿐이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종교의 내향적 영은 좁히고 줄이는 반면 바깥쪽 형체는 확장하여 더 커지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성구녕는 갑도 더 크게 만들고 옷자락의 술도 더 길게 했다. 그들이 더 크게 한 성구함이란 선의 바깥쪽 형체를 의미한다. 성구함을 붙여 놓은 손이란 그 손이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들이 더 크게 한 옷자락이란 말씀의 외적 의미를 포함하는 외적 진리를 의미한다. 그들의 겉옷은 일반 진리를, 그 옷자락은 최말단 진리를 의미한다.

6, 7.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옷자락을 크게 만든 사람들 같이 보다 상급에 속하는 신성한 의무 수행으로 명성을 얻기보다는 자기들 자아 사랑이 만족되는 보다 실체적인 어떤 것을 찾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지고 있다. “잔치에 가면 맨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회당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를 찾으며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스승이라고 불러 주기를 바란다.” 다시 여기서 우리는 통치하는 것에 관해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높은 자리, 종교적으로도 높은 자리, 높은 자리라면 모두 차지하고 싶은 야망으로 딱 차 있다. 그래서 공적 존경과 존엄을 표시해주는 칭호를 소유하고 싶어한다. 사실 영적으로 볼 때 잔치(feast)란 선의 교제, 회당은 진리의 교제를 의미한다. 그런데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잔치 석상이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자아 의지와 자아 사랑을 천국의 선과 진리에 은근히 주입시켜 자기들이 드높여지는데 한 가지 수단으로 활용하려드는 것이다. 장터, 선들이 팔리고 사들여지는 장소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고 거기서 인사를 받는다는 것은 상급의 지혜가 칭송하고 덕망있다는 신용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가 특출할뿐만 아니라 독단적으로 권위있는 자로 인정되어 랍비, 스승, 선생이라 불리워 지기를 강렬하게 바란다.

8, 9. 그 다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신다. “너희는 스승 소리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 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또 이 세상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 뿐이시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가장 평이한 말투로 영적 진리를 표현하여 보여준 예들 중의 하나이다. 이 본문이 사회에서 흔한 관계, 선생과 학자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주님께서 뜻하신게 아니다.

박사나 선생인 사람들이 그렇게 불리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 더욱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선생이고 하느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선생은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선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비록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진리와 선함 안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 있다 해도 주님만이 이런 천국적 원리의 저자요 근원되신다. 선생과 학자는 같은 계열이다. 모두 하늘로부터 같은 계열의 선물을 받는 그릇이다. 단지 그릇의 크기나 시간 관계에서 이쪽이 저쪽보다 더 우수할 뿐이다. 한 분만이 모든 사람의 선생이다.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은 형제이다. 그리스도는 신성한 진리 자체를 표현한 이름이다. 진리 자체 말고 누구로부터 우리가 진리를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위 선포로 진리의 모든 권위는 그분께만 소속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 외 누구에게서도 진리에 대한 권위를 찾으려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문제들에 권위자 되신다. “율법과 증언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증거가 되는 규칙이다. 그리고 이런 최말단의 테스트에 모든 교리적 주장은 가져와 놓여진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의거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생되신다면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재삼 말할 필요도 없다. 특별히,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분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바 이 때야말로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를 두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Spirit)에서 태어난 것은 영(spirit)이다. 따라서 인간적 도움이 있어 우리의 두 번째 출생이 있어지게 되었다해도 그 인간적 도구가 새 생명의 저자는 아니다. 생명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생명있게 만들 수 있는 바 그분께만 그 영광이 소속되어 있다. 무한인 그분의사랑이 생명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생명은 영원하다. 이 세상에서 선생되는 사람을 선생이라 부르는 것, 아버지되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부르는게 타당하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리에 인간을 놓을 때 죄가 범해진다. 순수한 영적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신성한 선과 진리의 자리에 인간적 선과 진리를 놓을 때, 그리고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께만 속하는 권능을 인간적 권능으로 돌릴 때 죄가 범해진다.

10. 앞 구절과 비슷한 듯 여겨지는 훈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말씀 안에는 반복되는 의미 내지 구절은 없다. 이 구절의 금지조항도 구분된 의미가 있다. “너희는 스승들(masters)

이라 불리지 마라. 너희의 스승은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시다.” 참으로 한 가지 차이가 있다. 8절에서 제자들에게 랍비라 불려서는 안된다고 했고 이 구절에서는 스승이라 불려서는 안된다고 하셨다. 똑같은 취지라 해도 랍비는 스승보다 더 큰 중요성과 위엄을 스승이란 칭호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하는 바 신성한 진리 자체에 더 직접 반대되어 진다. 그리고 “스승”이란 단어가 “스승들”이라는 단어로 고쳐져서 언급되고 있다. 이는 전체로서의 진리에 관한게 아니라 개별적인 진리들, 분리된 어떤 한 개의 진리들, 그리고 진리에 관한 지식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진리는 전체가 아닌 미미하다고 여기는 작은 진리 하나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제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그 모든 지식과 지혜는 그분의 소유임을 주장해야 한다.

11. 우리가 타인에 의해 섬김을 받고 칭송되어도 그것이 우리를 위대해지게, 또는 행복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너희 중에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분께서는 삶에서 수행되어야 할 가장 위대한 진리 중의 하나를 전달하셨다. 이 진리는 세상의 조건과 실습에서 온전한 혁명을 해내게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일 것이다. 이 구절의 요구는 위대한 원리, 즉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는 말씀과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일의 유용함(usefulness)이 첫째이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은 두 번째이다 그러면 그 일의 결과에 걱정이 있을 수 없다. 수고함으로 명예나 드높여짐을 구하지 말라.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직무 수행의 혜택이 타인을 위해 얼마나 선용되는지, 선용되도록 추구하고 두 번째로 자신에게도 유용하도록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위 구절이 제자를 향해 발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교회의 모든 멤버, 그리고 각 교인 안에 있는 교회의 원리를 향한 발표라고 생각되는 바 이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원리가 그 자체 가장 위대하다는 것, 이 원리가 우리의 품성을 가장 우수하게 개선시켜 준다는 것, 또는 우리를 최고로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원리란 사랑의 원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인간을 사랑하는 것밖에 더 어떤 원리가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랑의 위대함은 선용(use)에 존재하고 선용으로부터 발생된다. 마치 육체 속의 심장과도 같다. 선용은 가장 위대한바 가장 공들여야 하는 원리이다. 통치자 그러나 모든 사람의 종이다. 이는 창조자가 지적하셨고 구세주가 가르친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측량이다.

12. 위대한 만큼 겸허해야 한다. 겸허함(humility)은 낮은 지위를 차지하는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심정 상태를 잘 가꾸어 가는데 있다. 그래서 겸비한 상태는 자아에 소속된 것을 포기함에 있게 된다. 자기 본위는 자기를 드높이는 것이다. 자기 포기가 겸비함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자기를 높이려 들 때 자아 자체가 깎아내려져 그 인간 전체의 등급이 저질이 된다. 그러나 자아가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될 때 그 자아는 겸손해져 드높여진다. 그 이유가 자아 사랑 자체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함에 종속되고 종노릇함으로 순수해져 품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인간이 제 고유의 자아(selfhood)를 잘라 버릴 때 주님께서 새롭고 천국적인 자아(selfhood)를 주신다. 인간의 자아는 그의 내적 생명, 그의 의식 존재를 형성하는 모든 생각과 애정의 복합체, 그가 “나(me)”라고 부르는 실지의 그 사람 자신이다. 이것은 본성적으로 악이다. 그러나 그것이 종속되는 만큼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새 자아를 주신다. 이러면 그는 새로운 생각과 애정을 가진 새 피조물이 되고, “나(me)”는 또 다른 더 높은 생명을 의식하게 된다. 신성한 권능이 자연적 자아가 파괴된 그 위에 세운 이 새로운 자아는 원래의 자아가 박탈되든지 그 반대로 번창하든지 하는 때보다 더 진정한 자아이다. 인간의 자아가 주님의 것으로 더 완전하게될수록 그의 자아는 더 완전한 제 고유의 자아로 된다. 그의 의식적인 자아는 드높여진다. 그의 자유와 합리성, 그의 지각과 기쁨은 더 높은 질서에 있다. 그것들이 자연적이었지만 이제 영적 수준이다. 그것들은 지상적이었지만 이제 천국적이다.

13. 위와 같은 것은 섬기는데서 참된 위대함을, 겸손함에서 진정 드높여짐을 발견한 사람들의 행복의 체험이다. 그러나 신성과 천국에 속한 어떤 것보다 자아를 드높이려 역지를 부리는 사람들의 체험은 불행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참된 삶은 자아에 속한 모든 것을 그 자체 낮추어서 하느님 아래, 하느님을 섬기게 하는데 있는 반면 왜곡된 삶은 하느님에 속한 모든 것을 자아에 종속시키고 자아를 섬기게 하는데 있다. 이것이 위선이다. 그 이유가 이것은 바깥쪽으로는 삶을 거룩하게 만들지만 내향으로는 모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를 주님께서 묘사하신다. “너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 나라를 닫아 놓고 있다...” 개인 한 명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자연적 마음은 세상의 형상이고 그의 영적 마음은 천국의 형상인데 이것이 그의 하늘에 해당된다. 이런 하늘이 악에 의해 닫혀져 있다. 특히 위선이라는 죄에 의해

잡구어져 있다. 단혀진 대상인 “사람들”이란 말씀 속의 진리들, 특히 이미 습득해서 자연적 마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진리들, 거기서 자연적 목적을 섬기도록 간직된 진리들이다. 주님께서 더 말을 이으신다. “그들은 제 자신을 들어가게 하지도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한다.” “제 자신, themselves,” 이것을 구성하는 요소인 그들의 생각과 애정들, 그들은 이것들을 자연적 세계를 넘어 영적 세계로 결코 들어올리지 못하는 바 그들의 애정과 생각 속에 있는 말씀 속의 진리, 즉 그들로 하여금 위쪽을 향해 추구하도록 해주는 진리마저 들어 올려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 진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내려 왔고 다시 천국으로 승강되어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도록 고안되어 있다. 자연적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이 진리들이 거기로 들어가라고 방치해 두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과 진리를 받는 그의 수용성은 자연적이고 죽은 상태로 남아 있다. 더욱이 그 자체 거룩한 진리들마저 모독되어있다. 그 이유가 그 진리들이 악한 목적에 도구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삶의 이런 상태는 화를 입는 범주에 소속된다. 그의 마음이 선함과 진리를 내향으로 신실하게 받는 그릇이 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원리가 그들 가슴에 실어다 주는 축복에 문을 닫아 버린다.

14. 그들이 범하는 악, 그들이 배척한 축복은 위의 사항만이 아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과부들의 집을 몽땅 삼켜버리는가 하면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늘어놓는다.” 과부란 선 안에 있되 진리를 바라는 사람들을 뜻한다. 추상적으로 볼 때 진리를 바라는 선이다. “과부의 집”이란 선이 체재하는 의지, 자질 자체, 또는 선의 원리를 받쳐주는 수단까지 뜻한다. 그 이유가 집은 과부가 거주하는 장소일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산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과부의 집을 삼켜버린다는 것은 선을 사랑하고 행하게 하는 참 능력을 거두어 가는 것이다. 위선이 이러하다. 위선은 의지에서 모든 선을 박탈하고 심지어 선을 도모하려는 모든 능력까지 박탈한다. 그 이유가 위선은 선 자체뿐만 아니라 아껴놓은 선까지, 선이 의지하는 참 자질까지 파괴하기 때문이다. 과부의 집을 삼켜버린다는 것에 연결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늘어놓는 것이 언급되고 있다. 하느님을 조롱하고 인간을 현혹시키는 행동, 그것이 단 한번의 행동이라 해도 그보다 더 모독된게 있을까? 긴 기도를 수단으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과부에게 사기를 쳐 그녀들의 가산을 강탈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렇게 설명된다. 이해성이 의지에 노예가 되어있을 때 이해성은 가장 아리따운 외모로 가장 지저분한 행위들

을 장식해준다. 이런 걸치레가 커질수록 타락함도 더 깊어진다. 타인의 심정을 훑치는 사람은 제 심정도 다 먹어 치운다. “이 때문에 너희는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더 비참한 처벌을 그 영혼으로 피할 수 있게 해주시려는 배려에서의 경고이다.

15. 위선자들에 대한 또 다른 책망이다. 이런 죄의 결과는 더 큰 화를 입는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이 책망은 누군가를 개종시키되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단지 어떤 특별한 신조를 위해 개종하게 하려는 종파적인 영이나 그런 열정을 심하게 견책하는 것이다. 이는 진리의 전파를 정죄하시는게 아니라 특정한 신조의 세력과시를 위해 타인을 개종시키려는 것을 정죄하시고 있다. 영적 측면에서 이 구절에는 더 실용적인 의미들이 담겨있다. “바다와 육지”란 진리와 선에 관한 말씀의 글자 의미이다. “누군가를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것은 어떤 진리가 자아 사랑을 지지하도록 뒤집으려고 말씀 전체를 수색하는 것이다. 개종시키는 목적은 이외 한 가지 더 있다. 자기들보다 더 악한 지옥의 자식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런 이중의 속성은 개종자를 악하고 거짓됨 모두에 하나되게 하는 것이다. 위 구절에 두겹의 품성이 함축되어 있는 이유는 거짓을 출생시키는 악이 지옥이고, 지옥의 자식이란 악에서 출생된 거짓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6-19.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의 행동을 책망하시되 이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이다. “너희 같은 눈 먼 인도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들은 지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 그들은 일시적일 뿐인 이익에 관계된 것들을 보는데는 재빠른 시각을 가졌지만 영원한 복지에 관계되는 것은 식별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속성을 지닌 이들이 눈먼 인도자들이다.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이해성은 눈이 먼 상태로 인도할 뿐이다. 이렇게 언급하신다. “너희는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성전의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고 하니 이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나? 황금이나? 아니면 그 황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나? 또 너희는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고 하니 이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나? 예물이나? 아니면 그 예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단이나?” 이 말씀으로부터 나타나는 바, 성전 또는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

것도 아니나 성전의 황금 또는 제단의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백성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인간의 재간으로 이런 불법적인 하찮은 것들이 고안될 수 있는지 상상해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유대의 학식있다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지킬 조항들을 얼마나 복잡하게 엮어놓고 그들이 지키기에 너무 힘들게 했는지 만큼은 여실히 알게 해준다. 어쨌든 위 말씀의 세부사항이 우리를 위해서는 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 영혼에 흥미 있는 더 깊은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말씀 안에 있는 “맹세함”은 영적으로 진리를 확증함을 뜻한다. 그러면 확증은 어디로부터? 라는 의문이 있게된다. 우선 우리는 여기서 언급된 것들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한다. 즉 맹세하거나 맹세한게 아니다라는데 따른 대상의 영적 의미이다. 성전은 신성한 인성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한다. 이 인성은 그분의 몸이라는 성전, 특히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이다. 제단은 신성한 선의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한다. 이런 연유로 성전과 제단은 가장 거룩한 대상물이고 성별되는 모든 것의 근원도 된다. 성전과 제단이 그분을 표현했듯 모든 확증도 그분으로부터이다. 하느님은 스스로 증인되신다. 그분은 진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저자이시고, 선뿐만 아니라 사랑의 저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과 제단을 두고 맹세해야 한다.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고, 제단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주님의 진리와 선보다 등급이 더 낮은 어떤 것을 수단으로 진리와 선을 확증한다는 말이다. 바꿔 말해 이는 무한하신 분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을 유한한 것 안에서 발견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 거룩하지 않는 어떤 것에 신뢰를 두면서 거룩함 자체이신 그분께 우리가 신뢰한 그것이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의뢰하는 것이다. 성전의 금은 성막의 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막의 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빠져 나올 때 차용해 지참했던 것을 헌납함으로 있어진 금이다. 성전의 금이 거룩해진 것은 제단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전의 금, 제단의 예물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신성한 선과 진리에 의하지 않고 기껏해야 성전과 제단 덕분에 거룩함을 입은 물건을 두고 선과 진리를 확증하는 것이다. 덜 나은 것으로 선과 진리를 확증하는 사람은 더 나은 것들을 배척한다. 그러나 더 높고 더 나은 것으로 선과 진리를 확증하는 사람은 덜 나은 것까지 포용한다.

20-22. “사실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한 맹세이며...” 최고의 권위는 그 권위와 하모니를 이루게 하면서 그 아래 등급의 권위를 포용한다. 주님께서 더 이으신다.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한 맹세이며

또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하느님의 옥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한 맹세이다.” 위 사항은 마치 더 수준 낮은 것을 두고 맹세하되 더 낮은 것이 더 높은 것을 포용한 듯 여겨지게 한다. 따라서 주님의 선포 안에 담긴 의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전보다 덜한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함이란 신성보다 덜 권위가 있는 것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는 주님의 몸인 성전을 배척하듯 그 안의 신성을 배척한다. 그러나 주님의 인성을 인정함은 그 안에 내재하는 신성까지 인정한다. “아들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를 가진다.” 똑같은 원리로 하느님의 옥좌로서 하늘을 인정함은 그 위에 앉으신 그분도 인정하는 셈이다. 하느님의 옥좌로서의 하늘은 천국에 있는 주님의 신성한 진리이다. 그리고 그분의 정부는 거기에 그 진리로부터 파생된다. 그러나 하늘은 말씀의 영적 의미도 아울러 의미하고 그 안의 신성한 의미는 그분의 옥좌이고 신성 자체는 그 위에 앉으신 그분도 의미한다. 하늘을 두고 맹세함은 말씀 속의 영성과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전을 두고 맹세함은 주님의 신성, 즉 그분의 인성이 신성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말씀의 신성과 주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외 누구를 두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모두 진리와 선함을 주님과 말씀에서 찾고 자기 심정과 삶의 원리로 만들 수 있는 확증 또한 주님과 말씀에서 찾는다.

23.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의 또 다른 악이 화있을 것을 발표하신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대해서는 십분의 일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들은 예식에 관한 율법은 꼼꼼히 준수하려 했으나 품행에 관한 율법의 준수는 소홀히 했다. 주님께서 이런 행동을 정죄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분께서는 그 반대로 품행에 관한 율법을 준수하고 예식에 관한 것을 소홀히 하라고 사람들을 가르치시지는 않았다. “십분의 일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품행에 관한 율법은 본질이고 예식적 율법은 형식이다. 형식은 본질을 배격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본질은 형식을 배격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는 사람은 덜 중요한 사항이라 해서 미결된 채로 방치하지 않는다.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분의 일을 바치는 사람은 정의와 자비와 신의에 관련된 행동을 생략할는지 모르나,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행하는 사람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를 잊지 않을 것이다. 종교가 없어도 경건함이 있을지 몰라도 경건함 없는 종교는 있을 수 없다. 이해성 안에는 총명과 정의가, 심정 안에는

사랑의 자비가, 행동 안에는 믿음 또는 진리의 일이 있어야만 종교라 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소양을 갖춘 종교인은 사람을 섬기기에 앞서 하느님께 경건함을 먼저 보낸다.

24. 더 나아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이렇게 불리운다. “이 눈먼 인도자들이여,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하찮은 것에서 선행을 사랑했듯 악행도 하찮은 것에서 미워했다. 안식일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과 일치않는 어떤 것을 허용하거나 행할 경우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육일간의 생활 속에서 제 이기심을 게걸스레 채우느라 급급해한 것은 죄라고 생각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를 주도하는 사랑은 우리로 이기심에 눈멀게 하고, 명예를 사랑함은 정작 우리를 인도하는 대상도 아닌 사소한 것을 부풀려 그럴싸하게 명분화 하려든다. 이런 내용 말고도 주님의 위 말씀에는 내적 측면의 의미가 더 있다. 하루살이와 낙타를 입에 들어가는 음식물로서 생각해 볼 때 둘 다 불결하다. 날개달린 곤충인 하루살이는 생각측면의 목적물, 짐승인 낙타는 애정측면의 목적물을 의미한다. 전자는 이해성에, 후자는 의지에 소속된다. 우리가 사소한 잘못은 꼼꼼히 따지고 내면의 악, 더 흉측한 악은 적당히 넘겨갈 때, 타인의 사소한 생활습성도 죄악으로 날랜 비판을 서슴지 않으면서 정작 제 속의 악은 관대하게, 당연하게, 심지어 하나도 없는 듯 자기 반성을 할 때 우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이 된다.

25. 위와 같은 바리사이파 사람 같은 행동과 가르침의 원인에 대해 듣게 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만은 깨끗이 닦아 놓지만 그 속에는 착취와 탐욕이 가득 차 있다.” 잔과 접시의 안과 밖이란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이다. 내적 인간에는 원리들이 있고 외적 인간에는 규율이 있다. 내적 인간 안에 동기가 있고 외적 인간 안에 행동이 있다. 규율을 중시하나 원리를 무시하는 사람, 행동은 조심하나 그 동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밖은 깨끗하게 하지만 안은 부패되고 불결한 채 방치하는 사람이다.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사이의 이런 다른 점은 이해성과 의지, 선하고 참된 것에까지 넓혀 생각할 수 있다. 잔(cup)은 이해성이다. 그 이유가 잔은 진리 측면을 암시하는 포도주 또는 여타 액체를 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접시는 의지이다. 그 이유가 선을 의미하는 음식을 담기 때문이다.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러운 잔이란 말은 올바르게 하면서 나쁜 것을 생각할 때이다.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러운 접시란 행동은 올바르게 처신하는데 나쁜 것을 의도할 때이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 믿지도

않는 것을 입술로는 습관적으로 내뱉을 때, 우리가 미워하고 경멸하는 것을 바깥 생활 측면에서는 매우 좋아하는 듯 습관적으로 행동할 때 아마 겉은 깨끗하면서 속은 착취와 탐욕, 즉 악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게 아닐까?

26. 이렇게 혼계하신다. “이 눈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길도 깨끗해질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혼계하신다. 내부가 깨끗함은 밖의 깨끗함을 더 확고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즉 정신적 삶, 영적 삶이 순수해지는 것은 동기에 속한 것이 순수해지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다.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전체 역시 바뀌지 않고 있다. 그의 목적이 지닌 그대로가 그 인간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 각자가 지닌 삶의 목적은 자연적 수준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아와 세상 사랑이다. 인간은 이런 목적을 악덕한 삶과 대화, 뿐만 아니라 품위 있는 삶을 수단으로 추구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만일 이런 목적들이 마음에 남아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설사 외모가 반듯해 보이고 그의 삶이 존경받을 정도라 해도 본질적 변화는 결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내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 행동뿐만 아니라 동기 속의 악을 제거하는 것, 내뱉는 말,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서도 거짓을 제거하는 것, 인간의 눈으로 점검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하느님이 보시는 견지에서 내면의 악과 거짓이 제거되는게 우선 순위라는 말이다. 우리가 내적 측면만을 보살필 필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동기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행동은 저절로 잘 되리라고 상상하는 것은 금물이다. 동기도 중요하지만 행동도 중요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비록 행동이 선하고 목적이 악할 경우 그 목적이 선해지고 행동이 악해질 수 없다. 우리가 나쁜 목적을 성취하려고 선을 행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우리는 선한 목적을 섬기도록 악을 행할 수 없다. 악들이 우리의 삶을 불꽃사납게 계속 만드는 동안 추한 삶 뒤에는 악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답해볼는지 모른다. 이 구절을 통해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목적은 바깥쪽으로 깨끗한 곳을 안쪽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단지 바깥쪽의 깨끗함은 오로지 눈이 보이는 수준뿐이다. 바깥쪽 선함은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에 의해 생산되고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압력이 제거될 때는 언제든지 선은 사라지고 악이 심정 속 그 원천으로부터 생산될 뿐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바깥쪽이 깨끗할 수 있는 것은 안쪽의 깨끗함으로부터 서만 가능하다. 외적 깨끗함과 내적 깨끗함이 거행된 이후라 해도 이는 구분되는 신성한 일이다. 이에 관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표징적으로,

그리고 구두로서 가르치셨다. “목욕을 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안이 깨끗하다해도 우리는 계속 밖을 깨끗이 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다. 안과 밖이 깨끗해짐은 주님에 의해서만 결과된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 (요한 13:8).

27, 28. 바리사이파 식의 상태 중에서도 더 험한 형상이 이렇게 말해지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여기서 표현된 모양새가 말해주는 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내적, 외적 측면 모두는 불결하다는 것, 생체가 죽어 있다는 표시인 음침함을 감추게 하거나 덜 암울해지게 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의 갱신되지 않은 본성이 지닌 음산함을 감추이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외적 측면의 표면을 덮은 색깔, 마치 내적 측면이 매장되어 있는 무덤을 칠한 색깔은 단지 바깥쪽으로 아름답게 나타날 뿐임을 알게 해주고 있다. 외형의 선은 무덤에 금칠을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 살 수 있는 날이 몇 달 남지 못했는데 우리의 상태가 죄 뿐이라면 나의 상태는 죽음과 썩은 것밖에 더 보여지는게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얼마나 절끔해질 수밖에 없을까! 그 다음 악들은 무덤 같이 거짓으로 짝 차 있다는 것, 이 거짓이 죽은 사람의 온갖 불결한 생각과 바램들이라는 것을 환히 알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의 뼈”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그 이유가 “사람”이라는 표현은 진리들을 의미하는 바 죽은 사람이란 선이 박탈된 진리, 생명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의 뼈란 진리에 관한 지식들 또는 과학물이다. 뼈가 생명체의 기관으로서 육체의 아름다운 골격에 해당되지만 그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고 뼈만 남아 있다면 죽었다는 것만 확인되게 하듯, 진리의 지식은 살아있고, 숨쉬고 행동하는 믿음과 사랑의 몸이 건설되는 기초역할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영적이고 영원한 죽음에 관한 유령 같은 증거밖에 더 되는게 없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옳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29, 30. 또 다른 화가 바리사이파 사람에게 떨어지고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성자들의 기념비를 장식해놓고는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라면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떠들어댄다.” 예언자의 무덤을 단장하는 일은 짐짓 그들의 공적을 경건히 인정하는 듯, 그리고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인 행동에

찬동하지 않는 듯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구절은 심정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양심에 말하시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들의 내향적인 증언에 호소하시는 것이고 겉으로는 경건한 행동인 듯 보여도 그것은 위선을 갖고 놀아나는 것임을 폭로하시고 있다. 그들의 여타 다른 선행처럼 이 구절의 행동도 자기들은 선조들이 살육한 예언자의 친구되고 의로운 자와 한 부류라는 것을 타인에게 현혹시키려 있었던 것, 따라서 예언자나 의로운 자가 공경받듯 자기들도 공경받아야 함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려드는 처세에 불과하다.

31.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하신다. “이것은 너희가 예언자를 죽인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다.” 그들의 양심은 자기들을 고발한 진리에 대한 목격자가 되고 있다. 이 규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되 먼저 아버지에게 가서 그를 묻게 해달라고 허락을 얻으려 했을 때, “죽은 자가 장례를 치르게 내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마음에 떠올려 보아야 할 것 같다. 죽어있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제 죽음을 묻어야 한다. 그들은 생명있는 그분의 메시지에는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서 죽어버린 특사에게는 존경을 보내고 있다. 이 구절의 영적 의미를 찾으려면 우리는 세부사항들의 영적 의미를 숙고해야 한다. 예언자와 의로운 자란 진리와 선행에 관한 원리들이다. 유대 백성의 조상이 예언자를 죽였고 이 백성들이 그들의 무덤을 세웠다. “말씀의 내적 의미에서 볼 때 무덤은 생명 또는 천국을 의미하고, 반대 의미로는 죽음 또는 지옥을 의미한다. 먼저 무덤이 생명 또는 천국을 의미하게 된 까닭은 천사들이 죽음에 관한 어떤 생각도 가지지 않는터에 무덤을 두고도 죽음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덤을 놓고서도 생명의 계속, 즉 부활을 지각한다. 그 이유가 인간은 영혼의 측면에서는 다시 일어나고 육체의 측면은 매장되기 때문이다. 매장이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듭남 역시 의미해준다. 그 이유가 거듭남은 인간의 첫 부활인데 그의 옛 사람 측면이 죽는만큼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다. 거듭남으로 인간은 죽은 자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되어간다. 이와 같은 것이 무덤에 관련된 의미이다. 그러나 위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무덤은 죽음 또는 지옥을 의미하게 된다. 그 이유가 사악한 자는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악한 자와 관련해 무덤이 거론될 경우 천사들은 지옥밖에 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말씀에서 지옥이 무덤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위해 세운 묘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장식해 놓은 무덤은 반대적

의미를 가진다. 예언자들이 사악했던 것이 아니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조상에게 살육당한 예언자를 위선적으로 존경을하여 종교적 밀천을 삼으려는 목적이 사악했던 것이다. 참으로 그들의 “조상”이란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이라는 악들이다. 그리고 그 조상의 “후손” 되는 그들이란 이런 근본적인 악에서 파생된 거짓을 의미한다. 악들이 죽이고 거짓들이 던져버리고 매장한다. 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 같이 선과 진리를 거절하여 무덤 안으로 던지고 그 무덤을 장식해 놓는다. 예언자의 묘를 세우는 것이란 파괴해버린 진리 위에 거짓 관념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거짓 관념은 진리의 외관을 띄우고 있다. 죽은 예언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듯 외관으로 비쳐지게 하면서 짐짓 그 예언자를 묻는 이들, 자기들에게 그 경의가 되돌아오게 의도할 뿐이다.

32. 조상의 행동을 닮으면서 자기들이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라면 예언자의 피를 보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인하면서 지금 저들의 눈 앞에 있는 예수의 피를 마지막으로 보려고 음험한 계획만을 늘어놓고 있다. 이에 관해 그들은 진실로 격렬하게 주님의 말씀,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마저 하여라”는 것을 완성하게 된다. 이 말씀에도 우리를 위한 교훈은 들어 있다. 거짓 원리가 악으로 총진될 때 후손은 선조들이 하던 짓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때로는 왜곡된 관념 안에 좋은 것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인간 힘을 다 쏟는 거짓 원리란 예언자를 살인한 자의 후손 속에 든 품성이다.

33. 그들의 심정과 목적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바 이제 무시무시한 정죄의 언어가 발표되고 있다. “이 뱀같은 자들아, 독사의 족속들이! 너희가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라?” 선과 진리의 원리가 내적 인간 안에서 파괴되고 그 원리의 묘가 세워지고 그 무덤이 바깥쪽 인간 안에서 장식될 때 인간은 의지와 이해성 모두에서 완전히 감각적이 된다. 그 애정은 뱀같고 그의 생각들은 독사의 족속들로부터 파생될 뿐이다. 이것은 지옥의 심판을 피할 도리가 없다. 그 이유는 그 자체가 위의 끔찍한 단어가 함축한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34. 주님께서서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그들의 품성 상태만을 알려 주신 것이 아니라 장차 그들이 해야 할 것들, 그들 조상이 옛 하늘 처방의 예언자를 죽였듯 새로운 하늘 처방의 예언자에게 똑같이 행동할 것임을 말하시고 있다. “나는 예언자들과 현인들과 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영적으로 예언자란 교리 속의 진리이고, 현자란 교리 속의 선, 그리고 학자란 앞 둘에 관련된 말씀 속의 진리들이다. 그 시대 때의 경우

이런 교리들이란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원리, 그분을 증언하는 원리를 말한다. 그 이유가 그분께서 “나는...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말하시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는 여호와께서 보냈던 사람이었다. 그들 후손이 죽인 예언자는 예수께서 보낸 사람이었다. 인류 측면이든 개인 측면에서이든 공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내가 일하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진실이다. 이런 연속되어 일하심은 순종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자녀와 더불어서도 공히 존재한다. 신성한 사랑은 우리의 초기 삶에서 특별히 더 역사하고 신성한 지혜는 성숙된 삶에서 더 뽀족이 역사한다. 사랑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은 지혜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과도 같다. 여호와께서 보낸 예언자와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예수께서 보내는 예언자와 현자를 죽이는 것과 같다. 이런 죄악상에 관해 주님께서 이렇게 묘사하신다. “너희는 그들을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매단다...” 유대인들이 죄인을 처벌하는 제일 가는 방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 돌로 쳐죽이거나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다. 전자는 거짓을 수단으로 해서 진리의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표현하고 후자는 악을 수단으로 선의 생명을 잘라버리는 것을 표현한다. 이 두 종류가 본문에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단다”로 의미해지고 있다. 주님께서 더 이어 말하신다. “...또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이 동네로부터 저 동네까지에서 박해할 것이다.” 이것은 악에 관한 진실이다. 악은 영적 생명의 원리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고 어떤 원리는 박해하고 조롱한다. 심정과 이해성이 영적 원리를 거절해버리면 “죽이는” 것이다. 삶의 규칙에서 함께 나눌게 하나도 없는 바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거절해버리지 않았다 해도 그 심정과 이해성이 영적 생명의 원리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이는 “박해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회당과 동네”는 교리를 의미한다. 전자는 내적 측면에 관한 교리를 의미하고 후자는 외적인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반대적 의미를 뜻할 경우 악과 거짓에 관한 교리를 의미한다. 조롱(채찍질)한다는 것은 교회 속의 모든 교리에 있는 진리를 뒤집는 것, 온 동네에서 박해한다는 것은 교회 속의 모든 교리에 있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진리를 언제나 미워하고 영원히 반대만 하려드는 것이다. 이 문단을 시리즈로 생각해서 각 세부사항을 들춰본다면 발견하는 바, “죽인다”는 것은 “예언자”에 해당되는 교회의 모든 교리에 있는 진리에 관계되고,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현자”로 의미된 교리 속의 선과 관계되며, “조롱함”은 “학자”로 표현된 말씀과 관련되고 있다. 따라서 죽이는 것은 소멸하는 것, 십자가형은 파괴하는 것, 조롱함은 뒤집는 것,

은 동네를 뒤져 박해함은 왜곡된 교리로 온갖 것을 다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선과 진리라는 천국 원리에, 말씀 자체와 구원해주시는 모든 원리가 진행되어 나오는 그 근원인 그분께 모든 수준에서 적대감을 갖고 반대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35. 이렇게 말하시어 결론 맺으신다. “마침내 무죄한 아벨의 피로부터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된 바라키야의 아들 즈가리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무죄한 피값이 너희에게 돌아 갈 것이다.” 무심코 읽게 된다면 이 구절은 한 세대의 죄값을 또 다른 세대에게 물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듯 보일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이 문단 전체를 합당한 관점에서, 설사 글자 의미 그대로에서일지라도 주님께서 발표하시는 그 세대가 그들 조상의 죄짓는 일을 마저 다 하라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벌값을 완전히 물으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선포에는 간단한 위 생각 말고 영적 의미, 이 문단이 꼭 암시하고자하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 영적 의미에서 아벨은 이타애의 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추상적으로는 이런 선 자체를 뜻한다. 그리고 아벨을 죽인 카인은 믿음만이 구원받는 조건 내지 수단이라고 우겨대면서 이타애의 선을 경시하고 급기야 그 선을 살해하는 이들을 뜻한다. 즈가리야는 교리의 진리 가운데 있는 이들, 추상적으로 교리 속의 진리 자체를 의미한다. 그런 고로 위 두 사람의 피는 모든 선과 진리의 소멸을 의미하게 된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즈가리야를 죽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철저히 주님을 거절함을 뜻한다. 그 이유가 성전은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을, 제단은 신성한 선의 측면에서의 주님을 뜻하는 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란 선과 진리 모두에서라는 것을 의미해주기 때문이다.

36. 주님께서 “분명히 말해둔다. 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이 세대에 내리고야 말 것이다”라고 말하셨을 때 그분의 이 말씀은 유대교회와 더불어는 하늘 처방의 모든 시리즈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첫 교회에서 시작된 하늘의 처방 시리즈가 점진적으로 하강되다가 유대교회의 종말로 소멸되었다. 사랑과 믿음이라는 생명체 속의 영혼(soul)이 첫 아담에게 호흡되었는데 그것이 정의롭고 신실한 사람의 피흘림에서 소진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대는 첫 세대가 시작한 것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

37. 이런 파멸이라 해도 무한 자체이신 분이 그 파멸을 예방해 보려는 애쓰심도 없이 끝장을 본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면서 선포하신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이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수사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거룩한 말씀의 이 문단은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가! 어느 인간도 결코 말한 적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잘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느 인간도 그분만큼 느끼고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경이로운 발표는 얼마나 온유하고 사랑이 넘쳐흐르는지! 이 구절은 신성의 품성을 나열해주고 그 품성이 인간을 다루는데 얼마나 감축이 부드럽고 동시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지 저절로 느끼게 해준다.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을 좀더 가까이 접근해서 과감하게 들여다보아 더 세세하게 검사해보자. 예루살렘이 그분께서 보낸 특사들을 돌로 치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서는 그분 자신인 사랑있는 지혜의 안식처 아래에 그분의 자녀를 끌어당기시려고 애쓰심을 중단한 적이 없으시다. 주님께서서는 여호와로서 행하셨고, 예수로서 하셔야만 했던 일은 “없는 것을 찾아 구해주시는” 것이었다. 여호와되신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온유하게 돌보심을 표현하는데 같은 언어를 이렇게도 사용하고 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고 파닥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 내려와 날개를 펼쳐 받아 올리고 그 죽지로 엮어 나르듯 야훼 홀로 그를 인도해 주실 때, 어느 다른 신이 그와 함께 하였더냐?” 말씀에 있는 비유적 표현 모두는 상응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어린 새가 파닥거림, 어미의 부드럽고 포근한 날개의 안식처에 방향자를 모으시는 염려해주심 등등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형상들의 시리즈를 표현하는 말들이다. 그러나 표현해준 형상만큼이나 미약하게 그것들은 그분의 무한성과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날개란 보존과 방어를 상징한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수단으로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위의 독수리 날개 같이 훈련시키신다. 육을 입으신 이후 이런 형상의 표현은 더욱 두드러졌고 더욱 위로하는 의미심장함이 담겨있다. 주님께서 말씀 또는 지혜가 육을 만드셨을 때 그 인성 안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아, 그가 날개를 펴서 네 땅을 온통 덮으리라” (이사야 8:8) 라는 표현 같은 날개의 퍼짐을 본다. 시편의 경우 이렇게 읊고 있다.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몸을 숨기는 자...” (36:7). “...당신께 이 몸을 숨기럽니다. 이 태풍이 지나기까지 당신의 날개깃 그 속에 이 몸을 숨기럽니다” (57:1). “나를 도와주실 일 생각하면서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습니다” (63:7). 유대인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날개

아래 모이기를 거절했다. 허나 우리는 그 부름에 선뜻 응낙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를 초대하는 그분의 보호하심과 돌보아주심 아래 우리 자신이 있게 해야하리라.

38. 그분이 모아 보시려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은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하신다. “네 집은 황폐해져 버림받으리라.” 글자대로 볼 때 이 집은 성전이다. 그 이유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 조상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던 곳”과 관련된 집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황폐해짐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수준의 황폐됨이다. 예루살렘이 공략되고 성전이 파괴됨은 정치적 결과들이나 그 결과가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상징되었듯 유대교회의 황폐해짐은 혹독하고도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악의 영적 응용을 개인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본문의 “집”은 마음을 상징한다. 영적인 것, 천국에 속한 모든 것이 마음 안에서 모조리 파괴될 때, 그 마음에 머무시던 주님도 내쫓기게되어 황폐함이 주권을 쥐게 된다. 악과 왜곡된 것이 마음을 황량하게 한다. 그것들은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되게 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뿐이다.

39. 구세주께서 결론을 맺으신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되다’ 하고 너희 입으로 찬양할 때까지 너희는 정녕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말씀을 글자 그대로밖에 더 다른 의미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든다. 물론 우리는 곤란을 야기하는 글자 의미로는 아예 진입하지 않고 글자 속에 있는 영적 의미만을 살피고 넘어갈 것이다. 위 주님의 선포는 이런 위대한 교훈이 담겨있다. 악이 주님의 진리를 지각하는 이해성을 소경되게 하는데 비해 선은 영혼의 구세주로서 오시는 주님에 관한 복된 환상을 볼 수 있게 지적인 눈을 열어 준다는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란 신성한 사랑의 권능과 영으로 오신 신성한 진리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내재하기 전에는 이 평화의 특사를 두고 “복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너를 끌어 당겨주시지 않으면 어느 인간도 나에게 오지 못한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한 가지 원인은 우리가 사랑의 심정으로 그분을 보려는 바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이다. 사실 우리는 그분 자신의 이름으로 그분이 오신다고 보고 있을 뿐 주님 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분을 진리로서 간주할 뿐 선으로서 간주 않는다는 말이다. 진리만으로 예수를 보는 사람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복된 분으로 찬양하고 환호하여 불러지고, 다시 그분께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그분이 선 자체이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때뿐이다. 이런 차이가

있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 자신이 진리 가운데만 있을 경우, 또는 우리가 지적 측면에서만 주님을 발견하려할 경우 우리는 진리 측면의 주님만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심정으로부터 주님을 찾을 경우, 또는 자신 안의 선과 사랑으로부터 그분을 찾을 경우 우리는 선함과 사랑으로 속이 꽉 채워져 있는 진리로서의 주님을 보게 된다. 이런 태도로 주님을 주시하는 사람은 복있다. 참으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있다”고 찬미해도 되리라

24

1. 주님께서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 표현했던 교회 속의 끔찍한 부패와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 전달하신 뒤, “예수께서 성전을 나와 얼마쯤 걸어가셨을 때...” 이는 주님의 마지막 성전 방문, 성전에서의 마지막 떠나심이다. 이 짧은 주님의 행동, “성전을 나오시어 떠나셨다”는 말에 담긴 것은 얼마나 엄숙하고 의미심장한지! 이는 유대인의 집이 황폐된 채 버려질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주는 표시이다. 그분은 유대인들의 집의 영광이 되어 계신 분이였다. 그런 분이 성전을 떠나심은 과거 이스라엘 군대가 하느님의 궤를 빼앗겼을 당시 “이가봇, 영광은 떠났다” (사무엘상 4:21)라는 상황과 똑같게 되었다. 위 행동이 상징하는 것, 이 행동에 이어지는 예언적 강연은 유대교회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주님의 첫 강림으로 시작되는 교회, 즉 기독교회의 상태까지 묘사하고 있다. 종교의 본질되는 원리를 구성하는 교회 자체는 이 처방이 사라지고 저 처방이 도래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기독교회는 영구히 계속될 것이나 유대 교회가 사라져버린 뒤 형성된 그 처방은 종말을 맞게 되고 또 다른 처방이 그 교회를 계승하게 된다. 육으로 오시는 첫 강림을 계승한 것이 영으로 오시는 둘째 강림이다. 참으로 타당한 일은 기독교회가 한 개의 처방 그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신 때로부터 교회와 인류의 진보는 위쪽을 향해가고 있다. 인류 타락으로부터 육을 입으심에 이르기까지에서 교회와 세상은 치료약의 투여를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지독하게 부패되는 지경까지 점차 하강되어 왔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는 바 교회는 구분되는 여러 수준으로

기울어 졌다는 것이다. 그중 첫 처방은 아담으로 불리고 아담으로 개시되고 있다. 둘째 처방은 노아로, 셋째 처방은 이스라엘로 불린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는 진짜 교회라기보다는 교회를 표현하는 수준, 껍데기에 가까운 교회로서 장차 오게될 교회의 그림자였다. 이 교회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척한 채 생각하면 그 교회에는 교회의 진짜 품성을 소유하는 두 개의 처방들이 있었다. 만일 이 교회가 두 개의 구분된 처방에 의해 내려왔다면 승강하는 것도 두 개의 처방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보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이 현 경우일는지 모른다. 신약 성서는 주님의 첫 오심을 기록하는 한편 두 번째 오심을 약속해놓고 있다. 교회나 인간성의 진보는 어떤 의미에서 순진과 지혜에서 이탈된 상태에서 원 위치로의 귀환인 것만은 확실하다. 우리는 성경 자체에서도 그림자가 앞으로 길게 드리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계시는 교회와 인간의 드높은 상태를 표시함으로 시작했던 때와 같이 끝나고 있다. 이와 꼭 같은 모양새를 수단으로 계시록의 끝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있다. 이 새 땅에 생명수의 강을 지닌 파라다이스가 있고 거기에서 생명 나무가 자라고 있다. 두 낙원에는 다른 점이 있지만 바뀌어진 상태와 인간의 조건에서는 모순된게 없다. 둘째 에덴은 동산과 도성을 하나되게 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인간은 지혜에 과학을 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명 나무는 먹기에 좋은 과일만을 맺는게 아니라 치료하기에 좋은 잎까지 생산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인간은 이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로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은 세상의 종말과 동일시하는게 보통의 생각처럼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 생각은 성경의 의미를 잘못 납득한 결과일 뿐이다. 성경이 예견하는 종말이란 교회의 종말이다. 이에 관한 지식은 기독교회의 첫 처방에 속한 멤버들에게는 섭리적으로 감추여 있었으나 이제 사건 그 자체가 종말을 밝히 알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알려지고 있다. 이런 기독교회에 관한 처방을 참고할 때 우리는 종말에 관한 경이로운 예언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처방 중 하나는 교회의 하강과 그 끝장을 취급하고 처방 중 다른 하나는 교회의 시작과 발전을 다룬다. 그래서 이 처방들은 가장 깊은 흥미와 가장 위대한 중요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그 문제들을 직바르게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의 구원하시는 자비의 도구로 땅 위 그분의 교회에 관련하여 주님의 섭리적 역사로 있는 왕국의 가장 깊은 신비들 중 얼마큼은 볼 수 있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얼마큼 가셨을 때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와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보시라고 하였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성전에 관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셨다. 그러나 이런 기록이 있어진

것은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속의 진리를 수단으로 교회를 면밀히 조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면밀한 조사는 심판에 앞서 실시된다. 주님께서 교회를 떠나실 경우, 이는 그분이 그 안에 더 이상 거하실 수 없을 만큼 성소가 모독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이런 교회에 되돌아오실 경우 이는 심판자로서만 가능하다. 그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진리를 완벽하게 거절할 때 진리는 심판관으로서밖에 더 달리 행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주님의 오심의 크나큰 목적이 구원함에 있지만 오신 이유의 둘째가는 목적은 심판을 위한 것이다 (요한 9:39).

2. 제자들이 그분께 성전 건물을 보라고 하시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거룩한 구조물의 운명을 말하신다. “저 모든 건물들을 잘 보아 두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 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얼마나 엄숙하고 장엄한 표현인지! 자연적 사실보다 영적 사실이 더 강하게 담겨 있다. 성전의 돌들이란 교회를 구성하는 진리들, 집합적으로 볼 때 종교적 교리 체계를 건설하는 진리들을 상징한다. 교묘하게도 본문의 성전은 인간 지혜로 골격을 짠 교리적 진리 체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헤로데가 지은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성전은 하나된 상태의 교회의 원리, 유대 성직자들이 공들인 상태로서의 하나된 교회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헤로데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달리 천국에서 파생된 형체, 순수하고 건전한 교리 같은 것을 더 이상 표현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 성전이 거기서 완전한 듯, 견고한 듯 서있다. 그러나 그분의 손이 그 성전을 만질 때 인간 창조의 것들은 그 창조 본래의 것들로 환원된다. 그 성전의 돌들은 무너져 내려 뿔뿔이 흩어졌다. 이런 흩어짐의 결과란, 비록 교회의 요소는 보존된다 해도 교회의 통일성은 깨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우리 시대에서도 발견된다. 기독교 성소가 황량한 가운데에 날개로 많은 진리들이 보존되고 더 이상 전체를 형성한 통일된 진리는 존재않는다. 진리 사이의 연결은 깨어져있고 진리 사이의 묶음(unity)은 파괴되어져 있다. 우리는 수많은 세부적 진리들을 볼 수 있고 또한 각 진리에 감복할는지 모르나 진리들의 병합된 상태, 병합된 진리가 창출하는 아름다움, 기도의 집, 하느님이 그분의 이름을 새긴 장소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돌들의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다.

3. 성전의 운명에 관한 위와 같은 일반적 선포 후에 주님께서는 “올리브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일반적 모형과 연결되는 사건들의

시리즈를 상세하게 밝히 알려 주셨다. 성전이 파괴됨에 관한 첫 예견은 제자들에게 발표되었다. 이 산에서의 그분의 강연은 몇 사람의 귀에만 말하셨던 것같이 나타나고 있다. 마가(13:3)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아만이 들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종교의 높은 품위를 표현하는 바 이는 그런 품위를 지닌 자들만이 왕국의 더 깊은 신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들만이 일반적인 납득에 와닿는 진리 속의 세부사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으셨다. 산 자체는 사랑이라는 원리를 뜻한다. 올리브는 천적 수준의 원리를 의미하는 바 올리브산이란 천적 수준의 사랑, 즉 모든 사랑 중 가장 천국적인 사랑,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상징한다. 그러나 올리브산에 앉으신 예수와 관련되므로 본문의 경우 신성한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 이제 그 산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바 이로부터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사랑의 가장 깊은 속으로부터 근원된 신성한 지혜의 가장 높은 진리들을 말하시는 주님께 관한 표현을 가지게 된다. 주님의 말씀이 이런 수준인 바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리라. 참으로 모든 미래를 보시는 분, 보시는 모든 미래를 슬기있고 복된 섭리로 다루시는 그분인지라 그분의 사랑과 지혜는 모두 무한할 수밖에 없다. “제자들이 그분께 개인적으로 왔다.” 그래서 그분도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말하시고 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베일 안에 그분과 함께 들어가 탄식과 슬픔, 비통이 씌어 있는 책을 열어 보는 특전이 주어지고 있다. 주님께서 예견하신 성전이 파괴됨에 관한 일반적 취지를 알아챈 제자들이 그분께 묻는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와 세상이 끝날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주제를 이해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의 때와 징조만을 묻고 있다. 시간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시간은 영적으로 서술될 수 없고 자연적인 것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세상과 육체에 관련되듯 상태는 교회와 영혼에 관련된다. 교회의 품성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시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상태에 관한 지식들이다. 제자들이 알고 묻은 것은 주님이 오실 때와 세상이 끝날 때의 징조에 관해서였다. 무엇이 이런 징조일까? 영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진열되어있다. 그리고 영적 진리들은 상응을 수단으로 자연계의 상징적 언어 안에서 밝히 알려진다. 그러므로 상응(correspondence)은 “주님의 오심에 관한 징조”이다. 누가(21:11)가 그런 것들을 이름짓듯이 상응은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이다. 그 이유가 상응은 천국에 그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해로, 달로, 별로 말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교회를 통치하는 원리인

사랑, 믿음, 지식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표를 하는 상태들이 징조로, 계절, 날들로, 햇수들로 지적되고 있다. 징조에 해당되는 상응을 수단으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본성을 알 수 있다. 말씀의 올바른 해석의 수단이 되는 상응을 수단으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개인적 차원의 오심이 아니라, 진리 자체되신 그분을 밝히 알리고 인간의 심정과 지성이 진리 자체로서의 그분을 지각하고 영접하는 그분의 오심, 한마디로 영 안에 오신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똑같은 수단으로 더 배우는 바, 그분의 오심은 세상의 종말에 있는게 아니라 교회의 종말에 있게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 구절의 “세상”은 지구라는 물질적 구조를 뜻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시대, 은시대와 비슷한 것, 세상의 역사 안에 있는 어떤 시대, 시기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끝남”이란 직역하면 시대 또는 종교적 처방의 시효가 종료됨을 뜻한다. 이것은 신약 성서에서 세상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 지니는 진정한 의미이다. 히브리 9장 26절을 읽어보자. “그분이 몸을 여러번 바쳐야 한다면 그분은 천지 창조 이후 여러번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이 역사의 절정에 나타나셔서 단 한번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를 치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더 읽어보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당함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었으며 그것이 기록에 남아서 이제 세상의 종말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해석 차원이 아닌 번역 차원에서 의문이 있다. 주님이 오셨던 때의 종말은 유대교회 시대 또는 유대 교회 처방이라는 것의 종말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해줄 뿐 이 문단도 물질적인 세상의 종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사도들이 살았던 시기는 그들에게 닥쳐온 시대의 종말이었다.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종말도 초림 때와 같은 종류이다. 이것을 묘사한 언어 역시 똑같다. 재림 때와 초림 때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준다고 말을 한다면 어떤 합당한 근거가 있을 수 있을까? 그분의 초림으로 마침표를 찍은 종말이 교회의 종말이었다면 그분의 재림으로 마침표를 찍는 종말 역시 교회의 종말일 것이 틀림없다. 자신이 소속된 교회의 처방이 종말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교인된 당사자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기도 하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자기들 교회에 대한 하늘의 처방이 종료되었다거나 종료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첫 기독교회라는 처방이 종말을 가진다는 사실은 번역 차원이 아닌 일관된 해석 차원의 단순한 바탕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두 번째 오시겠다고 약속했다. 이 오심은 시대의 종말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 종말은 그분의 첫 오심의 시기, 시대의 종말밖에 더

다른 어떤 것이 있어질 수 있을까? 첫 시대의 종말과 두 번째 시대의 시작은 첫 강림의 처방이 끝을 맺고 둘째 강림의 처방이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종말과 시작이 다른 “징조들” 또는 형상들로 묘사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해,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옛 것 대신 창조되는 등등으로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하늘의 발광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교회의 빛, 즉 교회를 계발하고 지탱시키는 수단인 사랑과 믿음, 지식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재창조된다는 표현은 속박 안된 이성과 상식만이 해석을 줄는지 모른다. 어떤 지혜가 이 땅을 파괴하고 또 다른 땅을 창조할 수 있을까? 물질적인 땅은 그 자체를 없애고 다른 땅이 요구될 만큼 책임도 없고 그렇게 부적합했던 것도 없다. 그러나 도덕적 세계, 오히려 도덕적, 종교적 시대가 책임이 있어 또 다른 더 나은 것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옷처럼 옛것을 입힐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결코 죽지 않는 몸이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할는지 모른다. “정의로운 사람이 거주하는 새 땅”의 약속이 이와 같은 것이리라.

4. 세상 끝날 때와 주님께서 오실 때에 관한 제자들의 문의에 이렇게 대답하신다. “아무에 게도 속지않도록 조심하여라.” 이 조심은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관한 문제들에 흥미를 갖는데 대단히 필요한 사항이다. 최소한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나라에 관련된 것들 만큼은 극히 필요한 것이 “조심”이다. 더 좁혀 생각하면 그분의 처음 오심보다 두 번째 오심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더 더욱 “조심하여라”일 것이다. 제자란 교회의 선과 진리를 원리로 삼는 이들을 말한다. 추상적 의미에서 제자란 그 원리 자체이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시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주님의 선포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즉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가능만 하면 뿔뿔히 자를 현혹하려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리 자체가 교묘히 설명되어 인간이 사랑하고 실제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서 진리의 품질과 능력은 잃어버리어 실지로 거짓이 되고 만다.

5.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의 품성을 기술하신다. “장차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떠들어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제 2 세기에 어떤 자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등장하긴 했지만 이는 위 구절의 “많다”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찌됐든 그런 것은 주님이 의미하신 것은 아니다. “주님의 이름”은 그분이 경배되는 수단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신성한 진리로서의 그분의 품성, 예수는 신성한 선으로서의 그분의 품성을 표현한다. 거짓 그리스도란 그리스도에 관한 거짓 교리, 진리로 외관을 씌운 거짓들이다. 기독교 신앙에 있는 왜곡된 모든 체계가 거짓 그리스도이다. 기독교 신앙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 안에 신성한 모든 것, 구원해 주는 모든 것이다. 사실상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과 완전성 그것 자체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진리의 왜곡, 기독교 신앙 속의 원리가 뒤집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에서 복되게 하는 품성과 구원하는 능력을 박탈한다. 이런 거짓 그리스도일 경우 이는 세상에 널리 있어왔고, 널리 있다는 것은 재삼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 거짓이고 사기이다. 그리스도가 죄인의 구원을 위해 가르친 위대한 진리들을 빼내고 흥미위주의 인간 사상으로 대신 채운 교리들, 왜곡된 기독교 신앙 형태들이 많은 사람을 현혹한다. 그 이유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리에 물들어 버렸고 지금도 계속 그쪽으로 기울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의 부패한 것들, 특히 그리스도의 품성 측면에서 썩어진 것들이 기독교회 안으로 일찍이 도입되어졌다. 하느님의 머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리스도에 하향 등급을 매겨 그분을 수단으로 하는 구원의 교리는 부패에 비례해 고통받았다. 다음절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그 결과이다.

6. “또 여러번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 소문도 듣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물질계가 아닌 교회에 관한 것인 바 이는 지상의 나라들 사이에 있게되는 정치적 전쟁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멤버와 당파들에 관한 영적 전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참으로 자연적인 전쟁들도 영적 불일치로 야기되기도 하지만 성경의 영적 의미와 관계되는 전쟁은 어디까지나 자연적 전쟁과는 별도로 이해해야 한다. 기독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전쟁은 견해의 전쟁이었고 그 뒤 고난의 전쟁이 왔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하시는 “전쟁과 전쟁 소문”이다. 교회의 초기 시대 역사에 친숙한 사람은 누구나 그들의 분쟁과 싸움이 심화될 때 그에 따른 폭력과 비참함에 놀라지 않는 자 없을 것이다. 교회 내 단순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이런 참담한 싸움에 충격받고 썩뜩해하며 상상하기를, 이런 뒤집힘과 찢어짐은 주님께서 예견하신 마지막 종말의 징조일 것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그들은 주님께서 말하신 종말이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게 아니라고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과별로 찢겨 가는 것을 보게 되어 신실한 사람이 지닌 기독교 신앙의 진리 안의 믿음이 파괴되거나 미혹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하신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당황하지

말하라. 그런 일이 꼭 일어나고야 말터이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말하신 것은 이런 사건을 당황하지 말고 보라는 것이다. 이렇게 훈계하신 이유는 당황하게 하는 시기의 첫 암시는 진리가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견해와 느낌이 발생함으로 해서 진리에 관한 토론과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쟁이 선과 진리에 대해 심각히 반대되거나 위협스러운 수준은 내포되어 있지 않다. 교회가 기울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다른 견해들이 있다해서 진리를 파괴하는 도덕적 종말이나 교회의 종말은 아니라는 말이다.

7. 더 심각한 재난이 위 사건으로부터, 위 사건에 이어 발생한다. “한 민족이 일어나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면 나라를 칠 것이며, 또 곳곳에서 기근과 염병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의 영적 의미에서 민족(nation)이란 악을 사랑하는 사람, 추상적으로는 사랑의 대상인 악 자체를 뜻한다. 나라(kingdom, people)란 오류나 거짓을 신봉하는 사람들, 추상적으로는 믿게 되는 오류 또는 거짓을 뜻한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교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교회 내에서 종교의 교리에 관한 단순한 견해의 전쟁, 그것 때문에 한탄하는 것만 아니라 선에 악이 대들고, 이런 악이 저런 악을 향해 싸우고, 거짓이 진리를 향해서, 거짓이 거짓과 다투게 되는 현실을 말한다. 여기에는 종교와 교회를 구성하는 선과 진리의 원리에 관해 논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기독교 원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거절해버리고 그에 비례해서 악과 오류로 대신 채워 넣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싸움의 필수되는 결과가 기근과 염병, 지진이다.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해지는 상황이 기근으로, 악과 거짓이 때지어 몰려드는 상황이 염병(pestilence)으로, 교회의 상태가 변하여 정반대가 되는 상황이 지진으로 각각 의미되고 있다. 도처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그런 모습이 교회 내 여러 가지 부분들에 존재한다는 것, 비록 전체는 아닐지언정 부분적 변화가 교회 상태에서 거행된다는 말이다.

8. “이런 일들은 다만 슬픔의 시작일 뿐이다.” 위의 사항들은 뒤집힌 교회의 첫 번째 상태를 기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선하고 참된 것을 더 이상 알려하지 않고 선하고 참된 것을 두고 서로 논쟁하고, 이 논쟁으로부터 교리 속에 오류를, 생활 속에 악이 자리잡게 한다는 말이다. 참으로 이런 상황은 교회의 슬픔, 종교의 슬픔, 영혼의 슬픔의 시작일 뿐이다. 슬픔이 모시고 다니는 것이 죄이다. 이 죄는 정의이건 진리이건 어느 하나에 반대되어 있다. 교회의 슬픔을 더 서술해보면 종교적 부패의 진행과 그 첫 단계를 더 알 수 있다.

맨 먼저 사람들은 선과 진리에 관해 토론하면서 어떤 왜곡된 원리를 채택하고 그것 가지고 경합을 벌인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진리를 무기력하게 해서 자기들 원리와 실재를 좋아하는 쪽으로 진리를 구부리기 위해 선과 진리를 뒤집는다. 전쟁으로 의미된 이런 종교적 토론 내지 논쟁은 기독교회 초기에 일어나고 그에 따라 크나큰 쓰라림과 표독스러움이 노출된다. 이는 역사가 풍부히 증거해 주고 있다. 빵이나 물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기근”이 오는 것은 실패할 수 없다. 그 결과 치료불가능한 마음의 병이 번져버린다. 그리하여 견해와 원리 모두에서 격동과 혁명이 뒤따른다.

9. 교회 하강의 둘 째 상태와 그 슬픔이 묘사되고 있다. “그 때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법정에 넘겨 갖은 고통을 겪게 하고 마침내는 사형에 처하게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제자란 선함과 진리의 원리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 구절은 천국 원리인 선함과 진리가 인간의 논쟁과 말다툼 때문에 그 원리의 지각이 흐릿해져 처하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제자들에 고통을 가하고 죽이고 미워하는 것은 제자들로 표현된 영적 원리가 뒤집히고 부정 당하고 업신여겨지는 것을 뜻한다. 민족(nation)이란 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원리를 미워하고 이 미워함이 세력을 가지어 교회 내에서도 이런 반감이 우세해진다는 말이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민족들에게 미움을 당할 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살 것이라고 말하시고 있다. 선함과 진리를 미워하는 교회 내의 사람들은 교회 원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종교적 원리이기에, 그분이 요구하는 예배와 순종을 통해 그분께로 인도하려 하기에 미워한다. 참으로 선함과 진리를 미워하는 모든 미움은 선함 자체요 진리 자체, 말씀과 교회에 있는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의 근원되시는 주님을 미워함에 근본을 두고 있다.

10. 더 말씀하신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이것은 제자들이 미움 받고 박해받는 결과이다. 만일 말씀이 밝히 알려주는 바와 같이, 주님에 관련되는 바와 같은 선함과 진리의 원리가 박해받는다면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비틀거릴 것은 틀림없다. 제자들, 또는 말씀 속의 진리는 교인의 선생이요 안내자이다. 이런 도움이 교인에게서 박탈될 때 교인들은 돌에 걸려 넘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 말씀은 우리 발에 등불이요 우리 길에 빛이다. 말씀의 가르침이 갖가지 오류로 희미해질 때 교인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죄짓도록 유인될 뿐만 아니라 죄짓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배반하고 미워한다. 상호간의 사랑(mutual love)이 참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의 결과요 동시에 그런 종교로 직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이듯, 상호간의 미움은 오류의 열매 중 하나요, 그 오류가 원인되어 넘어지고 만다.

11. 배반과 미워함에 따라 붙는게 거짓과 사기이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가 여기 저기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신약 성서에서 예언자란 설교자, 추상적으로는 가르쳐지는 교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거짓 예언자란 거짓 선생, 거짓 원리들을 뜻한다. 진리이신 주님이 실지로 부정되고 그 대신 거짓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차지할 때 각종 오류가 번성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주님의 신성을 진정으로 인정하려면 그분의 인성이 신성함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부정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라는 인물에서 분리된 별도의 신성한 인물로 간주되던가 아니면 유한한 존재로 전락되고 만다. 이와 같은 거짓 추구가 인간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근원을 둔 진정한 믿음, 정의로운 생활로부터 부추겨 이간질하는데 실패할리 만무하다.

12. “또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류가 증가하는데 악의 증가가 없을리 만무하다. 악이 팽배하면 사랑은 차디찬 것으로 입혀지고 만다. 여기서 말해지는 사랑이란 이타애,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오류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은 행위없이 믿음만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쪽으로 끌고 갈 때 덕행은 빛을 잃어가고 그 결과 이타애는 차디찬 것으로 입혀지고 만다. 참된 믿음이 없으면 진짜 이타애도 있을 수 없다. 순수하게 영적 의미에서 이는 많은 진리들이 사랑 또는 이타애가 결합된다는 것, 고로 생명있게 하는 모든 것이 결합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럴 경우가 닥치면 심정에 이타애가 없고, 이해성에는 믿음이 없게 된다. 주님 사랑은 이웃사랑의 근원이고 생활의 거룩함은 위 두 사랑의 반석이다.

13. 썩은 것이 좋은 것으로 팽배된 추세를 피하고 실용적인 종교의 삶을 끌어가고 싶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격려의 말씀이 있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고뇌의 끝장은 교인 개개인의 체험에서 응용될 수 있는 고뇌여야 할 것이다. 교회 내에서 진리가 뒤집히는 것을 보는 이들은 그 뒤집힘에 동의하지 않고 더구나 그 왜곡된 교리가 악한 생활을 부추김으로 해서 고통받는다. 마치 인간이 주변의 우세한 어떤 신조 같은 것에 동조않음으로 고통받는 것과 같다. 부패 속에서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패에 맞서 투쟁해야만 한다. 인내는 선처하는 행동에 필수이다. 시험의 와중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인내이다. 시련은 약속 안에 당연히 수반되는 과정이다. 곤경의 때에 하느님에 대한 의무, 충실함에 실패하는 것은 가능성이 다분할 뿐 아니라 걱정되는 사항이기도하다. 그 이유가 우리는 자신을 도와주는 영향력이나 본보기를 지니고 있어도 쉽게 낙망하는 바 믿음과 덕행의 약점들이 우리 주위를 싸돌고 있는 바 얼마나 더 빨리 쉽사리 자빠지고 마는가?

14. 앞에서 주님이 지적했던 것과 매우 다른 종류가 이제 발표되고 있다.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백성에게 밝히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다.” 만일 이런 말들이 지독한 파괴와 그 결과 교회의 끝, 다음절에서 언급하듯 황폐의 흥취함 같은 시대에 적용한다면 맨 먼저 인정되는 시대로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 제 3세기 초를 신약 성서가 지목한다고 생각해볼는지 모른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끝, end” 그리고 “마지막 날, the last days”은 종종 시간의 긴 간격을 명시한다. 교회의 역사 중 끝의 시작을 형성한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완성을 형성한 또 다른 시대도 있었다. 끝의 시작은 콘스탄틴의 통치에 소속되고 있다. 그의 권력과 영향을 수단으로 하늘나라의 복음인 기독 종교가 로마 세계에 두루 전파되었다. 그리고 끝의 완성은 우리들 시대,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다는 시대, 수많은 선교나 성경 학회를 통해 성경의 글자가 지구를 한바퀴 돌았다고 생각되는 시대일는지 모른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일컬어진 “끝의 때,” “마지막 날”은 로마제국을 통한 이름뿐인 기독 종교의 고백이 정착됨으로 표를 한 것, 그것의 종교는 성경의 실질적 팽창,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같이 복음이 전파된 상태로 점철해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이런 정도의 대단히 간략한 역사의 증거만 가지고도 대단히 놀랄만한 징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두 번째 오심, 영적인 나타남을 만들 것이라고 예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두 개의 큰 사건들, 즉 로마 제국에서의 기독교의 건설과 지구 전체에 성경이 퍼져감이 끝날의 징조이되 세상 끝날이 아닌 교회 끝날이라고 생각해본다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는지 모른다. 첫 사건의 경우 더 진실된 것은 없다. 콘스탄틴대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선포하고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채택하자마자 아리우스의 파괴적 교리를 정죄하기 위해 318명의 감독들이 니가아에서 대 회의를 개최했다. 이 때 아리안 이교도가 완전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교리가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를 주도하는 감독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안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 세 가지 따로 따로의 인물이라는 신에

관한 논리를 고안하였다. 이런 관념은 신들의 3인조(a trinity of gods)라는 생각과 구별되어 질 수 없다. 기독교의 정통적 교리로 굳힌 이 끔찍한 곡해가 다음절에서 언급되듯 거룩한 곳에 선 흠직한 우상인 것이다.

15.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의 상징인 흠직한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독자는 알아 들어라).” 성경의 언어에서 거룩한 곳이란 성전의 안쪽 부분, 신성한 현존이 직접 앉는 곳으로 생각되는 장소를 뜻한다. 물론 이것 역시 기독 교리 내지 예배의 가장 거룩한 부분을 표현적으로 의미한다. 거룩한 장소에 흠직한 우상이 선다는 것, 또는 황폐해지게 만드는 혐오하는 것이 선다는 것은 기독교의 모든 순수한 것을 파괴하는 어떤 원리가 도입된다는 것 외에 더 달리 생각되지 않는다. 교회의 가장 깊은 교리, 교회의 거룩한 장소를 차지하는 것은 그 교회의 하느님에 관한 생각이다. 이 거룩한 장소에 역겨운 것이 서 있다는 것은 참된 것 대신 하느님에 관한 왜곡된 관념이 중심 교리에 도입되어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런 것과 걸맞는 것을 역사에서 발견하고 현재에도 보고 있다. 이것은 신성한 본성이 세 개의 분리된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기독교회 안에 도입되었을 때 생겨진 것들이다.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급에 의해 정통 교리라고 포고되었다. 이것은 니가야 회의에서 처음 결과되었는데 이 회의 이전에는 이런 교리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환영했던 교리였을 뿐이었다. 그 뒤 이것이 교회의 믿을만한 교리라고 선포되면서 지금까지 세력을 지니고 있다. 어쨌든 이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 바 좀 더 살피는게 상책이라 생각된다.

흔히 우리가 사도신경이라 부르는 믿음의 의식서, 비록 그것이 사도들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 해도 이 신조는 기독교회에 존재해왔던 신조의 형체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비록 확연한 구별이 있도록 그 신조가 시도한게 없고, 성경의 언어에 거의 가까워서 일반적 진리밖에 표현된게 없어 기독교의 순수 진리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영원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머리를 지닌 세 인물에 관해서도 언급되는게 없다. 신성한 삼위 일체의 세 가지 불가결한 요소,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 부르는 요소에 관한 이 신조의 단어들은 이리하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대목은 영원으로부터 존재하는 아들에 관한

언급은 없고 독생자라는 것, 시간 안에 태어나신 것만 거론하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구분되는 개인적 성격에 관해서 아무말도 없다. 이 신조에 의거하면 하느님의 아들은 여호와에 의해 동정녀를 도구로 해서 꾸며진 인성이다. 신성한 본질은 나뉠 수 없는 바, 여호와 자신이 그 인성 안에 존재한다. 마치 영혼이 몸에 머무르는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시험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 인성 그 자체가 신성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모습을 갖추도록 꾸며진 인성의 측면과 신성한 본질은 쪼개질 수 없다는 원칙에서 인성 안에 여호와가 계신다는 측면 둘 다에서 합당한 이름이다. 이런 모든 것이 사도신경이라 불리는 신앙의식서 안에 함축되고 있고 가르치고 있기도 하다. 이 신조의 교리는 하느님의 말씀 속의 순수한 교리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기독교회가 이 신조 속의 믿음을 단순하게 고수하는 한, 순수한 취지에 일치않는게 아무 것도 없는 한 이 신조는 세상에 있는 주님의 순수한 교리에 관심있는 믿음 내지 교리일 것이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하고 터무니없는 교리가 재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그 교리 중 일부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를 최고의 하느님 수준에서 완전히 떼어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성이 강탈하는 주제를 설명하려는 논식에 대해 그분의 신성을 지키기 위해 제 2 세기 초에 praxeas라 이름 불리지는 어떤 선생이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 분 하느님에 대한 각기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 또는 한 분 하느님이 각기 다른 품성 또는 그 관계에서 본 것일 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의 저술 중 어느 하나도 존재하는게 없는 바, 그가 주장한 것,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인물이라고 본 일반적 사실 외에 더 세세한 그의 소견은 알기 곤란하다. 만일 그가 주님의 인성이 점진적으로 영화해 가셨다는 이 중요한 교리를 파악하기에는 너무 지식 수준이 낮아 그의 반대자들이 주장한 것, 즉 아버지 자신, 신성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았다는 논리를 계속 유지해왔다면 그도 아주 중요한 세부 항목에서 정도를 벗어난 것은 확실하다. 어쨌든 한 인물 즉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안에 한 분 하느님이라는 그의 교리는 단순한 기독교인들의 느낌과 일치 했는 바 기독교 세계에서 두루 인정받는 평탄한 길에 있었다. 한 때 기독교의 주요 감독으로 간주되어 온 로마 교황조차도 그 자신 praxeas를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러나 Praxeas는 머지 않아 카르타고의 능변있는 장로, 그러나 거칠고 암울한 성미를 지닌 Tertullian의 광폭한 반대에 봉착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따로 따로의 개인적 인물이라는 그의 관념이 아주 적극적이다 보니, 그는 Montanus의 괴물 같은 이단

(heresy)을 꾀안았다. Montanus는 제 자신이 인물로 있는 성령, 구분된 인물로서 성령이 제 안에 거주한다고 꾸며대는 광기를 지녔다. Tertullian의 열렬한 표현 덕분에 그는 더욱 교회의 중요한 신부 중 하나로 존경받아졌다. 로마의 감독도 Praxeas를 후원하던 것을 철회했고 Praxeas는 이단으로 간주받기 시작했다. 사실 더 큰 이단인 Tertullian은 더 충애를 받아가서 기독교회에서 정통파의 표준으로 채택되다시피 했다.

하느님의 머리를 지닌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세 인물이라는 관념을 추켜든 Tertullian의 교리는 그 시대에 널리 퍼져갔지만 그렇다고 권위를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약 삼 백년 후 Arius가 등장한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 구분되는 개인적 인물이라는 관념에 매료되었는 바 그는 그리스도가 진짜 신성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결말이 나도록 추구했다. 그가 보았던 바는 만일 아버지와 아들이 두 인물이라면, 그리고 각각이 하느님이라면 두 하느님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위대한 진리, 하느님은 존재하되 한 분밖에 존재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하면서 이것과 하느님의 머리를 지닌 두 신성한 인물에 관한 관념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눈치챈 그는 이 대비되는 두 개념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한 인물이므로 예수는 한 분 하느님이 인간 본성에서 명백히 나타나신 것이라고 추론하는 대신, 그는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는 하느님과 구분되는 인물이므로 예수는 하느님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그는 이런 생각, 즉 성경이 증언하는 바 같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고 구속되어졌다. 예수는 창조된 모든 존재 중 첫 번째에 해당된다. 이 존재에 권능이 위임되어 위대함으로 입혀졌고 특별 우대해서 하느님이라 불리웠을 뿐이라는 것을 창안했다. 근대에 이르러 Arius의 이런 교리를 따르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창조된 창조자에 관한 위와 같은 관념이 추론의 폭력을 휘둘러 주님의 신성에 대한 근대의 부정자들은 그분이 창조자임을 부정하고 그는 단지 인간이었을 뿐이라고 믿고 그것을 주장할만한 성경 구절을 들추어 거기에 억지해석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참으로 주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근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속성에 대해서이든 그분이 이미 존재했음을 부정한다. 이런 것은 초기 신성의 반박자들도 감히 도전하지 않았던 성경의 아주 명백한 증거에 대칭되고 그 대담성도 너무할 정도이다. Arius, 근대의 예수 인간론자(humanitarian) 들 같이 비합리적인 그의 교리는 몇 세기에 걸쳐 기독교의 정통 교리라고 일컬어지도록 반복적으로 위협했었다. 이 교리의 수용이 제지된 것은 콘스탄틴대제가 소집한 니가야

회의에서였다. 이 회의에서 골격을 이루어 요약된 교리는 니가야 신조라 불리우는 유명한 신조가 되었다. 니가야 회의에 참석한 교부들(fathers)은 Tertullian의 관념, 즉 삼위일체의 세 본체는 구분되는 인물이라는 Tertullian의 주장에 흠취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 이것이 Arius에 의해 부정된데 대해 더 뾰족이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던 바 그들은 아들의 품성이 영원으로부터 존재한다고, 또는 예수가 영원한 자식됨의 신분(sonship)을 채택하는 주장을 펼쳤다.

16. 방금 위와 같은 큰 악이 행해져감을 보게 될 때의 주님의 방향이 이 구절에 있다. “그 때에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위에서 살폈던 교리를 받아 확증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진정한 교리가 존재 않는다는 것, 그러나 이런 역겨운 짓을 금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랑의 상태에 자신을 쫓아붙는 사람, 아버지의 신성에서 아들의 신성을 나누지 않는 사람, 설사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의 방법적 논리가 아무리 영성했다해도 단순함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함을 계속해 온 사람들에게 차라리 교회는 존재한다. 위 구절은 뒤집혀진 교회의 부패상을 목격했다고 간주되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방침이다. 이들은 교리 속의 진리가 어둡컴컴해 있을 때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 성경의 언어에서 산으로 피신함이란 사랑이라는 원리에 은신처를 두는 것, 그리하여 영혼의 깊숙한 곳을 잘 계발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에워싼 도성, 각종 오류와 부패함으로 괴롭히는 도성 안에 자신을 가두어 놓아서 안된다. 이들은 교회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이단이라는 적들의 포위 공격에 가담해서는 안된다. 이들은 이런 공격으로 떠들썩한 와중에서 멀리 떨어져 서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사랑과 이타이라는 높은 품위를 연마해 가야한다. 이럴 때 이들은 주님에 의해 그분의 참 제자임을 인정받게 되어 세상에서 그분의 새 교회라는 첫 열매를 맺도록 승인되고 하늘에 있는 그분의 나라에로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승강될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그 숫자는 대단히 많다. 세상에 널려진 수많은 교회들이 고백해대는 그대로의 교리를 정밀하게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운 사람들은 종교의 선 안에서 성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성소, 즉 하느님을 경건히 모시는 행동 안에서 그들은 심정을 쏟아 부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을 향한 자선의 행위에 그들의 손을 뻗칠 것이다.

17. 더 말씀하신다.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세간을 꺼내러 내려오지 말라.” 이 주님의 권고는 글자대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흔히 상상하는 것은 이 구절은 성급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은 대화의 모양새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모양새는 각기 상응 또는 영적 유추성을 지닌다. 집이 마음을 상징하는 바, 집 꼭대기, 지붕이란 마음의 가장 높은 자질 또는 수준을, 집안은 마음의 보다 낮은 자질 또는 수준을 말한다. 집 꼭대기란 이웃을 사랑함 또는 이타애가 있는 의지를, 집안은 믿음 또는 진리가 있는 의지이다. 위 주님의 권고를 영적으로 이해하면 이타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상태로 내려오지 말라는 것이다.

18.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이란 믿음의 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의 옷이란 믿음의 진리들이다. 제 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선으로부터 믿음의 진리로 퇴각하는 것, 다시 말해 선한 생활로부터 속이 빈 고백, 이름뿐인 기독교 신앙으로 물러서는 것이다. 위 세 가지를 종합해 생각하면 선의 상태에서부터 진리의 상태로 움추러드는 것, 또는 심정 속에 있던 종교가 지적 수준의 종교어로 수축되는 것이다. 위 세 경우는 말씀에서 구분지어 자주 표현하는 등급에도 나타나있다. 이런 표현은 글자 의미에서도 희미하나마 식별할 수 있다. “말씀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묘사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부류, 이웃을 향한 이타애 가운데 있는 부류, 진리를 사랑하는 부류가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부류가 유다에서 산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고, 이웃을 향해 이타애 가운데 있는 부류가 지붕에서 세간을 꺼내러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며, 진리로 선하게 사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부류가 밭에서 제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세 부류는 세 등급의 땅 위 주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동시에 하늘에 있는 그분의 나라에서도 확실히 구분되는 세 나라를 형성해준다.

19. “이런 때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떨어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구절에 자연적 의미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으리라는 것은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말씀에서 인간의 영적인 것이 그의 자연적 출생에 비교하는 것보다 더 흔히 사용되는 것은 없을까 모른다. 참으로 그 둘 사이에는 완전한 유추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이를 가진다는 것,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는 것은 영적 삶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 임신은 거듭나는 삶의 단계 또는 상태에서 선이 내적 인간 안에 수태되는 때, 그러나 외적 인간 안에는 아직 있지 않은 단계, 다시 말해 종교가 마음 안에는 있지만 아직 생활 단계에는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자궁에 아이를 밴다는 것은 천적 수준의 사랑의 선을 임신하는 것이다. 젖을 먹인다는 것은 순진이 천적 근원으로부터 오는 영적 진리로 물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왜 이런 상태가 불행하다는 말일까? 이 불행은 처벌이 아닌 고뇌의 불행이다. 현 주제는 이런 상태를 존재하게 한 곤란의 시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자연계에서 출생이 있을 때 고통이나 위험이 따르듯 영적 차원도 마찬가지이다. 진통을 겪는 여인의 고통은 영적 출산에 있게 되는 고통을 아주 잘 표현한다. 사실 영적 삶에 있게되는 고통, “노동”의 시기는 우리의 종교 또는 종교 원리가 결실을 보는 시기, 마치 내적 측면에 임신된 것이 바깥 측면에서 존재를 하게 되는 시기, 마음에 있던 것이 삶에 옮겨지는 시기이다. 이것은 가장 적당한 상황인데 거기에 괴로움이 있다면 분명 거기에는 가장 적절치 못한 조건이 놓여 있는게 아닐까? 우리는 주변에서 적절한 가르침이나 좋은 본보기를 목격함으로 격려 받는다 해도 우리의 종교를 생활에, 제 원리를 실제에 옮겨 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더군다나 시험으로 말미암아 죄짓도록 각처에서 포위 공격을 받을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어찌서 젖을 먹이는 이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일까? 만일 악한 때여서 우리의 원리가 출생하기 힘들다면 설사 태어난다해도 그 원리가 유지 존속하는 것도 힘들 것이다. 특히 출생 초기인 신생아라는 수준일 경우 너무 연약하고 민감한 바 냉혹하다거나 궁핍하다는 상황을 견디어 낼 수 없다. 때로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유아들의 생존을 언제나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음절에 등장하는 단어 피난(flight)으로 상징된 것과 연결되어 이런 상태들은 많은 고뇌하는 속성을 파생한다.

20.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도망(flight)은 교회의 마지막 때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선한 자들이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도망가서 쉬고 있고, 그 반면 사악한 자들이 이 환난에서 내뺄되 또 다른 환난을 만나는 때, 또는 삶의 마지막 시기까지 의미한다. 그러므로 피난은 두 개의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두 개의 상반되는 상태에 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피난은 선으로부터 후퇴함, 또는 악으로부터 탈출함을 명시한다. 그래서 도망함이 선과 순진으로부터의 후퇴를 나타낼 경우 그것은 모독의 죄를 포함하게 되고 이는 교회의 마지막 상태이다. 그 반면 도망함이 악으로부터의 탈출을 뜻할 경우 이는 해방이고,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에 해당된다. 두 경우 모두에 이 구절 같은 주님의 권고를 받아야 한다. 여름과 그 뜨거움은 사랑의 상징물이고 겨울과 그 차가움은 사랑의 결핍을 상징한다. 사랑이 없다면 거기에는 생명도 없다. 그러므로 겨울은 이런 교회의 상태, 즉 진리의 빛은 있으나 사랑의 따뜻함이 없는 교회를 말한다. 사랑의 따뜻함은 생명있는 종교의 필수요소인 바 그 반대는 그 종교의 완전한 종말이다.

안식일, 이는 거룩한 상태에 관한 성별된 상징물이지만 반대적 의미일 경우 그럴싸하게 거룩한 상태, 속이 거룩하지도 않은데 겉만 거룩한 상태, 심정 안에 경건함이 없는데 태도나 몸짓만이 거룩한 상태를 의미해준다. 이것은 인간에게 존재하는 교회 또는 종교의 마지막 상태를 그려주고 있다. 교회의 종말이라고 말한다고 그 종말이 공개적인 불신앙, 사악함, 불순함 같은 것의 팽배로 자연계의 교회가 문을 닫는 상태만을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종말은 형식상의 종말 같은 부류일는지 모른다. 그 반대인 실질상의 종말은 종교의 바깥쪽 모양새가 대단한 세력을 지닌 듯 보여질 경우에 있어질 수 있다. 한 마디로 전능자의 눈에 비쳐지는 그대로의 교회 차원에서 교회의 종말 여부는 판가름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빛은 풍부하나 겨울의 빛만 풍부해서 열기가 없는 경우, 경건함으로 가득 차 있으나 안식일의 형식적 경건만 있고 일상 생활의 거룩함이 없는 경우도 있다. 만일 교회가 선함과 순진으로부터 후퇴하고 있다면 교회의 소멸이라는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실마리가 다 없어지지 않도록, 장차 새로운 교회가 형성될 수 있는 그루터기라도 남아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결과에 대한 것은 22절에서 살필 것이다. 한편 분노를 피해 도망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도망함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다시 말해 너무나 차가운 심정 상태도 아니고, 너무나 뜨거운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있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다.

21. “그 때가 오면 무서운 재난을 겪을 터인데, 이런 재난은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없을 것이다.” 가장 큰 선은 가장 큰 남용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저주로 바뀔는지 모른다. 보다 높은 질서, 보다 깊은 내면에 속하는 진리들은 과거 이스라엘 교회에 밝히 알려진 것보다 기독교에 더 많이, 더 깊이 알려졌는 바 거꾸로 될 경우 더 왜곡되고 더 모독할 수 있다. 이런 재난은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가장 크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영적으로 교회를 뜻하고 처음이란 첫 번째 때가 아니라 첫 번째 상태를 뜻한다. 교회의 처음과 마지막은 영적으로 교회의 첫째가는 원리와 마지막 번째의 원리들이고 마지막 째의 것이 첫 번째보다 더 모독되어졌다. 타락한 교회의 때와 상태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병행한다. 그렇다고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때가 아니라 상태들이다. 교회가 끝을 맞는 것은 마지막 원리가 부패될 때뿐이다. 원리들이 남아 있는 한 그 기초가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리의 그루터기마저 붕괴된다면 교회의 건설과 유지는 과멸로 빠진다. 따라서 이런 마지막 상태는 첫 상태보다

더 악화된 편이다. 마지막 고뇌는 이전의 다른 모든 고뇌가 축적된 것이다. 이 마지막 때의 고난은 여태껏 있던 것보다 클 뿐 아니라 있게될 것보다도 크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의 약속, 즉 더 이상 종말은 있지 않다는 것, 계시록에서 표현된 바 같이 더 이상 죽음이나 저주, 슬픔이나 울음이 없다는 것, 한 마디로 더 이상 고뇌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 이유가 이전의 것이나 상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주님이 창조하실 새 천국과 새 땅만이 그분 앞에 남아 있게 된다. 교회의 마지막 처방은 모든 처방의 왕관이어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22. 더 좋은 날이 시작하기 위하여 나쁜 날들은 짧아져야 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 고생의 기간을 줄여 주시지 않는다면 살아 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완벽한 종말, 즉 누구든지 다 죽어야만 하는 하늘의 처방은 없다는 것이 신성한 질서의 법칙, 오히려 신성한 자비가 장치해둔 질서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교회의 종말은 성급히 있게될 것, 또는 앞당겨질 것이라는 말이 틀림없다. 교회의 종말은 도래되는 것이지 허용되어 있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교회의 종말이 앞당겨지지 않는다면, 그 날이 짧아지지 않는다면 어느 육체도 살아남을리 만무하다. 그 이유는 어느 것도 남아있지 못하고 다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육체(flesh)란 영적으로 선의 원리를 뜻하고 개인 차원에서 보면 선에 관한 어떤 원리를 삶의 원리로 삼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기울고 있는 모든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해있는 선한 것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심판이라는 과정을 수단으로 종말을 맞이함으로써 옛 그릇터기로부터 잔존한 선한 나머지(사람)들이 장차 새로운 교회를 산출하는 씨(germ)로서 보존되어진다. 선한 어떤 자투리를 지닌 이들이 “뽑힌 사람들”이다. 이들을 위해 나쁜 날들이 “줄여질 것이다.” 뽑힌 사람들이란 그들의 공과를 헤아려봄도 없이 무작정 어떤 숫자가 뽑힌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하리라. 하느님께서 뽑은 사람들은 그들이 뽑힐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뽑으신 것이다. 인간은 제가 뽑혔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기에 뽑힌 것이다. 뽑힌 자는 선한 자이고 선한 자는 뽑힌다. 그들을 위해 고생의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다. 그 이유가 그들을 함께 모아 거두어 그들로부터 새 왕국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3. 뽑힌 자라고 환난을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시작에서 붕기했었던 악들과 비슷한 악들이 교회의 말기에도 그 세력을 떨친다.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게 되느냐고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을 때 그분께서 경고하신 첫 징조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내세우며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 구절의 경우 그분께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제 5절과 이 구절의 그리스도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으나 우리가 꼭 주목해두어야 할 차이점은 없고 “그 때에 어떤 사람이 ‘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는 내용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기, 저기라는 단어는 가까이, 조금 더 간격을 둔 것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란 내적인 것을, “저기”란 외적인 것을, 장소는 상태를 의미한다. 교회의 상태를 취급할 경우 “여기, 저기”란 교회의 내적, 외적인 것, 교회의 교리와 예배에 관한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라고 말할 때 믿지 말라는 권고에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내적 차원에서이든, 외적 차원에서이든 발견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교회가 부패될 때 그 교회의 교리나 예배 안에 더 이상 진리가 존재 않는다는 것, 그 교회의 내적 측면인 본질 차원에서이든, 외적 차원인 형식 측면에서이든 어느 측면에도 더 이상 진리는 없다는 말이다.

24.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더 이상 있지 못하다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란 왜곡된 진리들이고 거짓 예언자란 왜곡된 진리로부터 형성된 교리와 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라고 불리운다. 그러나 이들이 제 9절에 언급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많은 이들이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의 이름을 내세우며 등장한다고 말할 뿐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교회 하강의 시작에서 거짓들이 강세해지나 그 말기에는 왜곡된 진리들이 강세해진다는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왜곡된 진리, 뒤집혀진 진리는 단순한 잘못, 실수, 오류보다 더 현혹시키고 더 위험한게 틀림없다.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은 “큰 표시와 이상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뿔뿔히 사람들마저 속이려 할 것이다.” 표시와 이상한 일(sign and wonders)은 가짜 그리스도가 제 가르침을 믿게 하려고 사람들을 유인하는데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교리를 타인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고안된 수단들이란 설득과 감화이다. 이해성 측면에서 설득하고 의지 측면에서 감화시킨다. 먼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 호소하고 그 다음 그들의 탐욕에 호소한다. “표시”는 이해성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이상한 일”은 의지에 영향을 준다. 표시(sign)는 확신시켜주는 수단은 아니고 설득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표시를 보여 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셨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는 인간의 이해성이 소경이 되게 하거나 추론 능력이 상실되게 하거나 믿음을 지각못하게 하는 능력은 발휘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기적이나 경이로운(wonder) 일은 수행하셨다. 그 이유가 기적은 의지에 경외로움이라는 느낌을 전달하면서도 인간의 합리적 능력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거짓 그리스도나 예언자들이 이상한 짓이나 표시될만한 일을 해대는 목적은 타인으로부터 이성과 자유를 거두어 자기들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감내하도록 그들의 의지와 이해성을 만들려는데 있다. 파렴치한 인간들은 훈련되지 않은 마음들, 특히 고정된 원리로 균형잡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비상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파렴치한 인간 대부분은 종교를 자동차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하도록 내세우고 있다. 이런 영향력이 판을 칠 때 가장 안전한 방패막이는 진짜인 순수한 선함이라는 원리이다. 이 원리를 가진 이들이 뽑힌 자들이다. 이들을 부추겨 유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교의 필수 요소를 선함에 두고 이를 바탕으로 마음이 건설될 경우 이는 악에 대항하는 최고의 방패이다. 물론 선함이 진리를 수단으로 그 자체가 방어된다는 것은 진정이다. 그러나 순수한 선함에는 진리의 현존, 즉 진리가 체현된 삶이 이미 포함되어있다.

25. 선함은 거짓 그리스도의 사기치는 가르침에서 보호되는 최선의 방패인 동시에 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바탕이기도 하다. 주님께서 유익한 경고를 주신다. “보라 내가 전에 말해두었다.” 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야 진리를 받는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내적으로 받는다. 이것이 “내가 전에 말했다”는 구절로 의미되고 있다. 시간에 관련된 자연적인 생각은 영적 생각에서는 상태이다. 그 이유가 시간은 장소와 마찬가지로 상태(state)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간과 장소 모두가 상태를 의미하지만 둘 사이에는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 장소 또는 공간은 의지 측면에서의 상태를, 시간은 이해성 측면에서의 상태를 의미한다. 또 다른 측면도 있다. 시간은 진리의 상태에, 공간은 선의 상태에 관계된다. 전(before) 후(after)는 여기(there)와 저기(there), 그리고 앞(before)과 뒤(behind)와 서로 관계되는 말이다. 전(before)은 내적 측면에, 후(after)는 외적 측면에 관계된다. 그러므로 “전에 말했다”는 것은 내적 경로로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마음의 내적 부분에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받는 사람들은 각종 기괴한 일로 유혹하려드는 자칭 예언자라는 사람들로 부터 보호될 수 있다.

26.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나타났다’ 해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저기와 여기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이 광야와 골방으로 의미되고 있다. 여기와 저기가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뜻하듯, 골방과 광야는 의지와 이해성, 또는 선과 진리와 관계되는 것을 뜻하고 있다. 진리가 황폐된 교회는 광야라 불리운다. 인간 이해성을 말할 때도 이와 같다. 참으로 교회 내에 진리가 황폐해 있던지, 인간 이해성이 그러하든지 똑같은 비증을 갖는다. 그 이유가 교회를 이런 지경으로 되게 하는 것이 교인의 이해성이기 때문이다. 교회 내에 선이 황폐되었다고 말하든 인간 의지가 썩었다고 말하든 똑같다. 그 이유가 교인의 의지 또는 심정에 있는 선이 황폐되었기에 교회가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말을 고하는 교회는 선과 진리 모두에서, 의지와 이해성 모두에서 황폐되는 바 진리는 여기이든 저기이든 그 안에 없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도덕적 원리라는 골방에도, 교회의 지적 사상이라는 광야에도 계시지 않는다. 이런 교회의 도덕적 원리들은 각종 추잡함으로 가득 차 있어 주님 사랑의 순수한 선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교회의 지적 원리들은 황폐함과 무익함뿐인 사막이고, 거기에는 뱀 같은 종류만 서식할 수 있을 뿐 양떼가 풀을 뜯을 수 없다. 이것이 교회의 케이스이듯 거기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형편이어서 말씀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설된 한도에서만 말씀이 존재할 뿐이다. 만일 우리가 교회의 이런 골방을 들여다본다면 무엇을 보게될까? 이해되지도 않는 이상한 것들뿐이다. “그것들을 믿지 말라”는 주님의 권고는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무이다. 또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느님의 속성은 서로의 타협이다. 재회가 없는 싸움만을 가져오고 있다. 믿음만의 원리가 교회를 사막화되게 하지 않을까? “네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뿔뿔한 자들”이 믿음의 행동만으로 구원된다는 교리에서 어떻게 구원을 발견할 수 있을까? 교회이든 종교이든 이런 주장이 팽배해질 때 그리스도의 강림은 가까이 있을 것은 틀림없다. 진실로 이런 날들이 줄어들지 않으면 누가 살아 남아 있겠는가?

27. “동쪽에서 번개가 치면 서쪽에서 번쩍이듯이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올 것이다.” 주님의 이런 오심은 미래의 장엄한 강림을 뜻하는게 아니고 새로운 처방의 시작을 형성하고 뒤 구절로 더 나아가면 구름 가운데서 오심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구절의 오심은 교회 하강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옛 처방에서의 오심이다. 그 이유가 주님의 오심은 그분께서 세상에 다시 나타난다는 글자적 표현에 의해서가 아닌 모든 사람 안에 그분이 현존하시는 것, 복음서에서 자주 언급된 바 있는 그분의 오심, 거룩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꾸준히 오시고 있다. 그분의 오심에 관한 본질,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에 관한 본질은 교회 상태에 따라 다르고 그분의 말씀이 그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본문에서 묘사된 교회 말기에 그분을 영접함과 그분의 오심에 관한 본성은 글자가 지니는 상응으로부터 그것의 품성과 결과를 끌어내 볼 수 있다. 신성한 연설자께서 이 본문에서 채용한 모양새는 갑작스런 번득거림으로 그분이 나타난다는 생각을 표출시킨다. 이 나타남은 한순간 지평선에서 번득거린 섬광, 그러나 그 순간 사라져 이전 보다 더 심오한 어둠이 깔린 듯 여겨지게 하는 나타남이다. 교회 말기, 어둠과 죽음이 팽배해진 그 때에 거행되는 주님의 오심은 정말 이와 같은 종류이다. 다시 말해 그 때에는 계속되는 어떤 영적 빛도, 지속적인 영적 생각도, 군림하는 어떤 영적 애정도 없다는 말이다. 군림하는 상태란 애정들의 죽음, 지성의 어둠이다. 복음이 전파됨으로, 또는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 또는 얼마간의 흥분된 원인이 있어 마음이 동요되어 마음의 자질들이 일깨워지고 빛이 드리울지 모르나 그것도 한순간에 불과하다. 마음이 빛을 가지고 앓고 있다면, 생명 자체가 없다면 사람들이 지닌 종교적인 것들은 어떤 외적 매체가 움직이고 설득하는 대로에 맞추어진 것일 뿐이다. 세상이 마음 안에 들어오고 대신 종교가 마음밖에 있게되면 그 종교적 상태들은 감정의 수준, 상상의 수준에 머문다. 물론 활력을 주는 감명이나 관념이 전달될 수 있고 마음에 품을 수도 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까지 번쩍일는지 모른다. 동쪽으로부터 오는 천국적인 빛은 마음 안에서 흥분된 이타애의 느낌을 통해 영혼에 번쩍거리는 밝음을 줄는지 모르나 이타애와 상반되는 이기심이 득세하는 서쪽에서는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만다. 번개는 진리에 관한 천국적 빛의 상징물이다. 이 번개가 출현한 곳, 동쪽이란 사랑과 이타애이다. 서쪽은 때로 거룩한 상태의 계속과 종결이지만 여기에서는 반대적 의미인바 시작된 선이 무력해지는 것을 말한다.

28. 이제 교회의 마지막 상태는 글자를 읽으면서도 느껴지도록 시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 구절은 죽음과 황폐함의 형상을 얼마나 저절로 표현하는지! 교회가 황폐해진 곳에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이 시체와 독수리로 묘사되고 있다. 교회의 몸은 죽어 있다. 다시 말해 교회 스스로가 창조한 사막에서 타락되어 있다. 시체가 제공되는 가금류들의 연회장에서 독수리는 제 뿔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죽은 몸으로 표현된 교회 상태에 더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없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그림의 여백에 더 그려볼 어떤 것은 있다.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게 독수리라

해도 이 새가 지닌 의미 때문에 주님께서 독수리를 사용해 말하셨을 것은 틀림없는 말이다. 독수리(vulture)는 나쁜 의미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독수리(eagle)는 한 때는 좋았다가 뒤집어지고 모독되어버린 교회 안에 있는 원리를 표현하기 위해 도입되어져 있다. 독수리는 마음의 합리적 원리와 상응된다. 이 원리는 진실되거나 왜곡되었거나 하는 어느 한쪽일지는 모른다. 인간은 동기가 자신을 자극하는 데에 따라 진리이든 오류이든, 선이든 악이든 어느 쪽이든 좋아해서 추론할 수 있다. 이성(reason)은 고상한 자질이다. 이것이 진리와 정의를 섬기는데 고용될 경우 진리와 정의를 특출하게 후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타락되어 욕정과 사리사욕의 노예가 될 경우 전에 유익하게 사용되었던 만큼이나 강하게 유해해진다. 이성이 선을 섬길 때 독수리의 날개 같아서 새로워진 마음을 드높인다. 그러나 악을 섬길 경우 썩은 고기 냄새를 맡은 독수리 같아서 먹이를 포획하느라 성급히 땅에 내려온다. 이 경우가 본문의 경우 아닐까? 이론을 캐기 좋아해서, 단지 추론만을 위해서 말씀 주위에 모여드는 것, 신성한 생명이 담기지 않은 죽은 글자로 말씀을 취급하는 것, 오늘날 수많은 성서 비평자들은 독수리가 죽은 시체에 모여들 듯 영혼없는 몸같이 성서를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을까? 말씀이 죽은 글자로 간주되고 취급될 때 교회와 종교는 어떻게 잘 되어갈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말씀이야말로 교회와 종교 모두에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29. 이제 끝이 오고 있고 이로부터 시작이 오고 있다. “그런 재난의 기간이 지나면 곧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을 것이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이 구절의 예언은 아마 가장 중요한 예언일 것이다. 이 구절 뒤에 이어지는 단어들과 연결해 생각하면 이 단어들은 이 구절의 후편에 속하고 신약성서가 취급한 미래에 관한 가장 중대한 사건을 미리 말하고 있다. 우리의 관심이 있는 만큼 비례해서 이 대목의 중요함도 고조되리라.

이 예언적 선포가 기독교의 수세기 동안에 만들어 졌다는 생각은 이 예언의 가장 단순한 글자적 납득이 전달할 수 있는 것만큼에서만 있어져 왔다. 이렇게 생각되어 왔다. 이 발표에서 예견된 사건은 물질계의 종말, 대 이변을 묘사한다고 상상해 온 것이다. 이런 관념이 성행했던 것은 아마 놀랄 일은 아니다. 그 이유가 어떤 사건이라 해도 그 사건이 성취되기 전에 완벽히 이해될 사건은 없기 때문이다. 성서에서 미래적인 사건이 발표될 경우 사용되는 언어는 신앙자가 접근할 경우 그의 믿음이 보존되도록 해주고 아울러 그 정확한 본성은 감추이도록 의도적으로 골격이 짜여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우리가

신성에 접근하되 볼 수 없고 다 지난 후 그나마 뒤쪽에서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성한 질서의 법칙이다. 지금까지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내려진 처방의 마지막에 관한 모든 예언,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새로운 처방을 건설하시는데 따른 모든 예언까지 소유하고 공부했었지만 그 사건의 정확한 본성에는 아주 무지해서 그 사건이 자기들 눈앞에서 발생되었을 때 그 사건들이 예언의 성취라고 인식하기를 거절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하는 바,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관련된 예언을 명확히 이해하여 믿는데 덜 적극적이다거나,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장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사해보려는데 소극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의 성취를 수단으로 공공연히 발견되는데도 미온적 자세를 취하는데서 탈피해야 할 것 같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성서 중심적이고 이치에 맞는 어떤 과정을 한번 채택해본다면 위 같은 범주를 벗어나 만족스런 결론에 도달할는지 모른다. 그런 과정이란 이런 것이다. 신약 성서의 예언의 비슷한 형태를 구약성서의 예언에서는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채택할 것이다. 그 결과 구약 성서에 있는 예언이 신약 성서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 신약 성서에 결코 글자적으로 성취될 수 없는 것까지도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바빌론의 멸망에 관련된 이사야의 예언에서(13:10),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늘의 별들과 삼성성좌는 빛을 잃고 해는 떠도 침침하게 만들리라. 해는 구름으로 덮고 달도 빛을 잃게 하리라.” 이런 구절이 글자대로 성취된다고 이해되지 않는다. 요엘 예언서(3:1-5)의 경우 더 강하게 우리를 설득해줄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이 예언은 유대교회의 종말 때와 관련이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자(2:17-21).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 주리니 너희 아들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는 나의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나의 성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나는 하늘 높은 곳에서 표징을 보이며 땅에서 기적을 행하리니 피와 불과 질은 연기가 일고 해는 빛을 잃어 어두워지고 달은 피와 같이 붉어져 마침내 크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오리라. 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와 정밀하게 똑같은 모양새를 지닌 예언이 본문에 있다. 글자대로 해석을 시도한다면 마지막 날은 세상 마지막 외에 더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사도들이 우리를 명확히 이해시켜 주는 바, 이런 것들이 유대교회의 “마지막 날들” 이라는 것이다. 해와 달의 소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랑과 빛의

소멸 외 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요엘의 예언이 영적 성취만을 가졌듯이 주님의 예언 역시 영적 차원의 성취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결론짓는게 가장 타당해진다. 어쨌든 예언의 글자대로의 성취는 불가능하다는 것만큼은 납득되었으리라. 자연적 수준의 의미를 부여해 해석을 시도하는게 불가능하다면 이 예언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자.

해는 성경의 많은 장소에서 언급되고 있고 언제나 사랑의 상징물로 등장한다. 해가 이런 의미를 지니는 까닭은 해는 열을 수단으로 지상의 만물을 받쳐주는 생명있게 하는 속성에 관련되기 때문에서이다. 몸이 열로 따뜻함을 지니듯 마음은 사랑으로 훈훈함을 가진다. 달은 감지할 정도의 열을 주지않지만 빛을 주고 있고 그나마 해로부터 받은 반사된 빛을 준다. 빛이 진리를 상징하는 바, 달은 믿음의 원리나 진리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성경에서 언제나 채용되고 있다. 별은 달빛보다 더 약한 빛을 우리에게 주는 바 이는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파생되는 참되고 선한 것에 관한 지식을 나타낸다. 이런 발광체들의 상징적인 본성, 그리고 거의 정확한 의미는 계시록 12장의 문단에서 수집될는지 모른다. “그리고 하늘에는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열 두 개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한다. 이 여자가 태양을 입었다는 것은 사랑으로 품위를 얻은 교회를 표현한다. 이 여자가 달을 밟고 있다는 것은 참된 믿음 위에 교회가 안주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 여자가 열 두 개의 별이 달린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지혜와 총명은 성경 안에서 밝히 알리는 진리와 사랑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파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 때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주지 않고, 별은 하늘에서 떨어지리라”고 선포하시어, 그분의 재림 때에 교회에는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을 것임이 태양이 어두워진대로, 교회가 그분에 관한 참된 모든 믿음을 상실함이 달이 그 빛을 주지 않는대로, 말씀에서 파생되는 진리에 관한 순수한 모든 지식들이 추방되는 것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짐으로 각기 의미되어 우리를 가르치시고 있다. 똑같은 목적으로 계시록 6장에서도 말해지고 있다.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짙 천처럼 검게 변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였다. 별들은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무화과나무의 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졌다.” 여기서도 의미는 똑같으나 한 가지 다른 것은 달이 빛을 주지 않는 단순한 경우로 말해지지 않고 핏빛이 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피는 나쁜 의미로 사용될 경우 진리가 왜곡됨을 의미하는 바, 달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왜곡된 믿음이 참된 믿음 대신 건설되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거의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곳이 제 8장에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이다. “그러자 태양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졌으며 낮의 삼분의 일이 빛을 잃고 밤의 삼분의 일도 마찬가지로 빛을 잃었다.” 이상의 모든 경우가 같은 언어로 함축하는 공통점은 교회의 상태에 관한 것들, 교회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말씀에서 파생된 신성한 진리에 관한 지식의 상태들이 명백해짐에 관한 상태들이다. 하늘의 발광체들은 빛과 열의 근원이다. 이 빛과 열이 땅에 관계되듯 교회에 관계되는 빛과 열은 영적 원리들, 즉 사랑, 믿음 그에 관한 지식들이다. 성경에서 해는 사랑, 달은 믿음을, 별은 그에 관한 지식들을 상징한다. 주님은 교회의 모든 생명과 빛의 장엄한 근원이다. 그분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 교회와 교통하신다. 주님의 생명과 빛의 교통을 차단하고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인간 마음뿐이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이유는 교회나 인간 마음이 부패한 까닭에서이다. 자아사랑이 하느님 사랑을 차단한다. 왜곡된 관념이 믿음의 빛을 가로막는다. 사랑과 믿음에 관한 지식에 무관심함은 그 원리가 실패하도록 하는 원인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말해지고 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두 큰 빛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 창공에 걸어 놓으셨다고 우리는 읽는다. 이는 하늘로 의미되는 마음의 내적 측면 안에서 사랑과 믿음이 승강하는 것을 묘사한 비유적 형태이다. 하늘로부터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적 인간에서 외적 인간으로 영적 지식들이 강등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영적 지식이 자연적 지식과 다를 바 없는 수준에 놓이는 것, 지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지상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함을 뜻한다. 이러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진다. 그 이유가 영적 사항들이 자연적 목적을 위해 사랑되어지면 하늘의 기초가 제거되고 천국 원리들은 그 공고함과 능력을 잃기 때문이다.

30. 교회의 모든 짜임새, 교회의 내적, 외적 측면 모두가 뒤흔들리고 기우뚱거릴 때, 그 때야 말로 신성한 권능이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진력하시어 그 견고성을 회복하실 때이다. 발광체가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면 “하늘에는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고 땅에서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울부짖을 것이다. 그 때에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영광과 더불어 하늘의 구름 안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두 번째 강림하신다는 장엄한 발표이고, 지금까지 교회들이 찾기를 결코 중단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한 발표이다. 이 큰 사건은 불확실하거나 꾸준히 기대하는 상태에 지상의 교회들이 있도록 한 것이 하느님의 섭리의 의도였던 것 같이 보인다. 깨어 경계함(watchfulness)이 요구된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언제 올는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왔던 요점이다. 실재와 기대사이의 첫 번째 큰 차이점은 주님의 오심이 개인적인 어떤 인물의 오심이 아니라 영 안에 오신다는 것, 이 오심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보게 된다면 그분이 오신다는 주변 묘사 역시 전체적으로 그 의미가 바뀐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볼 수 있게 오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물질계의 구름 안에 오실 수도 없다. 그분의 오심에 수반되는 주변 환경이 글자적 해석으로 상상하게 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면 그분이 오심 역시 글자대로의 해석에 따른 상상과도 전혀 달라야 타당할 것이다. 예견된 어느 한쪽 부분이 영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면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이해되어야 하리라. 본문의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그 해석은 그분의 강림에 관한 참 본성도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할 것이다. 주님이 개인 자격으로 오시지 않고 영과 권능 안에서 오신다면 그 오심이 어떻게 거행될까? 그분은 사람들의 영과 심정 안에 오실 수 있다. 참으로 이 오심은 실제적인 실제이며 구원의 강림이다. 인간의 영혼과 마음에 이 오심이 있다해도 어떤 매체를 통해 결과되어야 하는데 그 매체는 말씀이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밝히 알려주고 있다. 그분의 거룩한 영은 그들의 심정 위에 작용하지만 진리의 영은 진리의 말씀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서는 구원할 수 있게 작용할 수 없다. 이 진리의 말씀은 주님의 오심이 거행되는 매체이다. 그분이 나타나실 하늘의 구름이란 글자 의미로 있는 말씀 속의 진리들이다. 그 의미가 구름에 비유되고 형상화되고 있다. 그 이유가 글자 의미는 내면의 영적 의미를 마치 구름이 태양의 밝음을 가리우듯 덮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성서구절들, 주님의 정의가 구름 안에 있다든가, 그분의 진리가 구름에 와 닿고 있다든가, 그분께서는 구름을 그분의 병거로 만드신다든가, 구름은 그분의 발아래 있는 먼지이다든가 하는 등등에서 구름은 말씀의 글자 의미임을 뜻해주고 있다. 말씀은 신성하게 영감되어 있는 책이요, 상응의 법칙에 따라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구절의 표현들은 한낱 풍유적일 뿐이고 확실치 않은 숭고한 말씀들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신성한 계시의

참된 본성을 보는 이들만이 영적 의미가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이런 일반적인 사실을 서술해보아도 주님의 오심은 자연적 수준이 아닌 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오심은 말씀의 가르침 내지 말씀을 매체로 해서 결과가 있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제 글자 그대로 읽어도 그 중대함이 느껴오는 이 구절을 다시 살펴보자.

“그 때에 사람의 아들에 관한 표시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온다는 것과 사람의 아들에 관한 표시가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지만 거기에는 연결을 이루는 사항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리는 먼저 언어 기교상의 구분을 서술한 다음 설명을 추가해보자. 사람의 아들에 관한 표시(sign)란 진리적 신성(truth divine)이고, 사람의 아들은 신성한 진리(divine truth)이다. 먼저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가 있고 둘째로 진리로서의 주님이 있다. 전자는 우리 자신 밖으로부터 주님을 알게 해주고, 후자는 우리 자신 안에서 주님을 알게 한다.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영(the Spirit)으로서의 주님 자신을 표현하신 대목, “그분은 너희와 더불어(...with you) 계시고, 너희 안에(...in you) 계시실 것이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신성같이 여겨지는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있고 신성한 진리는 우리 안에 있다. 전자는 진리 자체는 아니고 진리의 표시이다. 진리에 관한 표시는 진리 자체에 대한 선구자(precursor)에 해당된다. 이런 준비는 시험이라는 고난 없이 준비가 완료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마음이 겸허해지고 순수해져 진리를 충만되고 완전하게 영접하는데 꼭맞게 되려면 시련이나 변민을 수단으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사람의 아들에 관한 표시가 나타나면 “땅에서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울부짖을 것이다”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란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교회 내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통곡함이란 그들이 첫 상태에서 둘째 상태로 건너가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환난과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참으로 새로운 모든 진리는 영적 시련을 유발한다. 그 이유가 새로운 진리는 마음의 옛 상태들을 회저어 제거하려는 의도를 지녔기 때문이다. 위 구절은 순수하게 영적 의미만으로 본다면 더 알기 쉽다. 이 의미에서 민족(tribe)들이란 선과 진리 자체에 관한 원리를 뜻하고 땅(earth)은 이런 원리가 있게되는 자연적 마음을 뜻한다. 사람의 아들에 관한 표시가 하늘에서 나타날 때, 즉 진리적 신성이 하늘이라는 영적 마음 안에서 처음 지각될 경우, 다시 말해서 영적 마음 안에 진리적 신성이 유입(influx)되거나, 영적 마음이 그 신성의 영향을 받는 경우 자연적 마음은 혼란을 일으키고 슬퍼함의 원인이 제공되어 통곡하는 나날은 그 상태가 뒤집어질 때까지 이어지는데, 상태의 뒤집힘은 사람이

아들이 올 때 거행되어 그분의 오심을 마음이 영접한다. 주님의 오심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관한 유추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짚어 살피고 넘어가야 하리라 본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먼저 그분께서는 그분의 인성을 진리적 신성으로 만드셨고 그 뒤 인성을 신성한 진리로 만드셨다. 이를 달리 표현해보면, 그분은 먼저 그분의 인성을 거듭나게 했고 그 다음 영화하셨다. 또한 그분은 먼저 인성을 신성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뒤 신성으로 만드셨다. 똑같은 내용을 또 달리 말할 수 있다, 그분은 먼저 인성을 천국적으로 만드셨고 그 뒤 신성으로 만드셨다 등등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은 통곡이나 시험의 쓰라림 없이 결과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그분께서 그분 스스로 이런 사항을 직접 수행할 수 없다해도 아직도 그분께서는 그분의 교회와 백성 안에서 수행해가고 있으시다. 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서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진리로 만드실 수 있기 전에 먼저 진리적 신성으로 만드셔야 한다. 이런 것과 상응되는 발전단계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서 계속되는 것을 먼저 본다. 우리는 세상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모든 새로운 진리 안에서 사람의 아들의 표시를 본다. 이는 종교적인 모든 새로운 진리만이 아니라 철학이나 과학 등등에 있는 모든 진리를 포함해서 이르는 말이다. 그 이유가 이런 모든 진리도 주님으로부터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다. 그럼에도 그것은 그분의 오심에 관한 표시이다. 물론 본문에서의 경우 땅의 민족들이 슬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가 권능 있는 모든 변화는 “피와 불과 질은 연기” 같은 것 없이 결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에서 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설명했다. 주님께서 신성한 진리로서 오신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 안에 오신다. 말씀의 내적 의미는 인간 마음의 내적 측면처럼 하늘로 의미되고, 말씀의 외적 의미는 하늘의 구름으로 의미되고 있다.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에서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온다”는 것도 이미 설명했다. 그분은 글자 의미 안에 오신다. 그 이유는 글자 의미로부터 모든 교리가 끌어 올려지고 확증되기 때문이다. 성서의 글자 의미로부터 파생되는 순수한 의미는 주님을 그분의 교회와 인간 마음에 실어 나르는 참다운 수송 수단이다. “그분은 구름을 병거삼으신다.” 병거란 교리를 뜻한다. 말씀의 글자로부터 오는 올바른 해석으로 추론된 교리는 더 높은 수준의 모든 지식에 필수되는 그릇이요 매체이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에서 오되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신다. 이것은 말씀의 영적 의미가

지니는 고유성(property)이다. 영적 의미를 밝히 안다(계시)는 것은 주님의 두 번째 강림의 본질적이고 특출한 모양새 중의 하나이다. 글자의 구름은 참으로 그분이 오실 때 사용되는 병거이고 그분의 오심에 나타나는 큰 영광과 권능은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확실히 구분지어 주는 탁월한 품성이다. 육으로 오신 첫 번째 오심은 연약했다. 영으로 오시는 두 번째 오심은 권능이 함께 하고 있다. 첫 번째 오심은 겸비함 가운데 오셨고, 두 번째 오심은 영광이 함께 하고 있다. 말씀의 영적 의미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의미를 수단으로 주님은 인간의지를 더욱 거둬나가게 하실 수 있고, 그 사람은 영적 선함을 원리로 해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 원리가 “권능”으로 의미되고 영적 의미는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의미를 수단으로 주님께서는 인간 이해성이 계발되도록 더 많은 빛을 주시어 거둬나가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 진리로 행동하는 바 이것이 “영광”으로 의미되어 있다. 구름이 신성한 위엄인 권능과 영광으로 싸여있는데도 구름은 그분의 발아래 있을 뿐이어서 우리는 글자라는 구름밖에 신성한 말씀의 내적 의미인 권능과 영광으로 두루 감은 그분을 볼 수 없다. 그 이유가 어느 누구도 말씀의 영적 의미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될 수 없고 오로지 글자 의미의 순수한 교리 가운데 있는 이들만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말씀의 영적 의미가 글자의 한쪽에 놓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요함이나 거룩함이 감소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여서 영적 의미는 글자 의미에 더 힘을 실어주고 더 드높여지게 한다. 주님의 영광이 그분의 처소인 성전을 가득 채우듯 영적 의미의 영광은 그 처소인 글자라는 성전을 가득 메운다. 지상의 인간은 글자를 통해서만 영적 의미에 다가가 볼 수 있다.

31.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이 대 이변을 동반할거라 는 세상에 널리 퍼진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주목해두어야 한다. 그분이 오신 뒤의 첫 번째 행동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가 뽑은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을 것이다.” 영적으로 이해하면 이 묘사는 대단히 높은 표현이다.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교회의 종말이 오고 주님은 그분의 신성한 말씀을 통해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시러 오신다. 그러므로 있어지는 첫 행동은 남아 있는 신실한 자, 뽑힌 자, 즉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힘을 수단으로 붙잡을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자기 속에 지닌 이들, 그래서 주님의 울안에 모을 수 있는 이들을 모으시는 것이다. 천사들이 이런 복된 일에 고용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여기서의 천사는 대리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징물이기도

하다. 그 이유가 천사들은 주님의 대리인으로 일하는 동안 신성한 속성도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나팔이란 말씀 속의 진리를 상징한다. 천사들은 그들의 하늘에 관한 표현물도 된다. 이로부터 인간들이 그분의 교회 안으로 끌어당겨지고 평화의 끈과 그분의 영에 관해 통일된 느낌과 생각을 갖고 있게 된다. 이 모아짐이 제 아무리 다양해도 그 의미는 변경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주님은 천국의 모든 것이요, 천국적 본성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떤 매체를 사용하든 그들 속의 근원과 본질은 그분으로부터 존재한다.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를 지닌 천사를 보낸다는 것은 말씀 속 진리를 수단으로 천사를 통한 그분의 유입이다. 이런 진리들은 교회와 나라에로 끌어당긴다. 축제를 선포하거나 흩어진 멤버들을 거룩한 집회에 불러모으려고 이스라엘 교회에서 사용된 나팔은 말씀 속 거룩한 진리에 관한 모형이다. 이를 수단으로, 하느님의 소리를 수단으로 하느님의 자녀들은 한군데 모아진다. 본문이 말하는 바 이 자녀들은 사방(four winds)으로부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에서 불러진다고 했다. 하늘 이 끝으로부터 뽑힌 자를 부른다는 것은 천국의 어떤 것을 지닌 모든 자를 부른다는 말이다. 네 방위, 또는 사방이란 갖가지 종류와 수준을 표현한다. 이는 동, 서, 남, 북으로 의미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방으로부터 이들은 유대인들이 반역적으로 내던져버린 나라에로 오게 된다.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모아진 이들이란 선함 측면의 모든 수준, 즉 가장 내면에서 가장 외면에 이르기까지에 걸쳐 선함 측면에 있는 이들이고, 남쪽과 북쪽으로부터 모아진 이들이란 진리를 가장 명확히 아는 수준으로부터 가장 희미하게 아는 수준에 걸쳐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어느 수준에 있던, 사랑의 수준이 어떠하든, 선과 진리의 실체가 어떤 수준에 있던 그것을 지닌 모든 사람들이 초대되고 천국의 문이 되어주는 주님의 교회 안으로 영접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사방(four winds)이란 말을 하셨고, 동시에 하늘 이쪽과 저쪽 즉 천국의 끝(extreme)에 관한 말을 하셨다. 이 두 가지는 자연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고 심지어 동일하다고 까지도 말해버릴 수 있지만 그 둘 사이에도 차이점이 있다. 바람(wind)은 삶 중 지적 측면의 영(spirit)을 상징하고 하늘(천국)은 삶의 의지적 측면을 상징한다. 그래서 두 단어는 각각 영적 천국과 천적 천국에 적용된다. 이제 위에서 살핀 바를 개인 차원에서 이해해두자. 각 개인에게 있어서 주님의 오심은 거듭남의 시작을 말하고 뽑힌 자를 사방에서 모으심이란 선에 관한 애정과 진리를 지각하는 모든 것을 모으신다는 것이다. 이 모으심은 꼭 하나인 최고의 대상을 향해 방향을 맞추고 있을 때,

한 개의 목적을 두고 자신이 통치될 때만 결과되어진다. 그 한 개의 대상은 주님이어야 하고 그 한 개의 목적이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32.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운 오심의 첫 열매를 찬찬히 들여다보자.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우리는 생명, 생생함, 약속에 관한 그림을 가진다. “무화과나무를 보고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 교회를 그리되 열매 맺는 나무, 그 나무가 무화과나무이든, 포도나무이든, 올리브나무이든 세 나무 중 어떤 나무로 그려지든 이보다 더 일반적이면서도 개별적인 형상은 없을 것 같다. 이 세 나무는 모든 교회들, 모든 교인들을 자연적, 영적, 천적 수준이라는 세 개의 품성으로 구별지어 상징해준다. 무화과나무가 되돌아 간 삶의 첫 표시를 상징한다는 것은 과히 놀랄 일이 아니다. 그 이유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승강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자연적 수준은 영적 수준 앞에 존재하고 영적 수준은 천적 수준 이전에 존재한다. 비록 두 번째 강림에 있게 되는 교회가 모든 교회의 월계관이고 에덴에 처음 심겨진 생명의 나무가 그 강둑에서 자라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해도 그 교회의 생명은 가장 겸허하고 가장 공통적인 형태로부터 발달되어야 할 것이다. 여름이 되돌아오고 있다는 표시는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는다는 것이다. 나무의 가지는 인간 안에 있는 애정을 상징한다. 그 이유는 마치 가지가 나무 줄기로부터 나오듯 애정은 의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의지가 애정을 생산하는 것은, 마치 나무가 가지를 뺏는 것과 같고 애정이 생각을 생산하는 것은 마치 가지가 잎을 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의 가지와 잎은 애정과 생각을 상징한다. 애정이 피어나는 것, 생각이 열리는 것이 위 간단한 비유의 자연적 생각 안에 표현된 영적 생각들이다. 가지들이 연해졌다고 비유는 말하고 있다. 무엇이 가지를 연해지게 할까? 따스함과 땅의 이슬 아닐까? 이것 자체는 온화한 영향과 새롭게 하는 힘 아래서 애정이 연해지고 생각이 펼쳐지는 되돌아오는 사랑과 믿음의 표현물이 아닐까? 이와 똑같은 상황은 육체와 각 기관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외적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비유는 놀라울 정도로 본보기화 되어 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은 이미 거행되었다. 이백 삼십여년 전 유일한 소리, 그러나 명백하고 고요하나 엄숙한 소리, 마치 천사의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무시무시하나 기쁜 소식의 소리로 심판이 거행되었다는 것, 첫 강림의 하늘 처방은 종료되었고 두 번째 강림이 시작되었다고 기독교인의 귀에 발표되었다. 사람의 아들은 참으로 밤중의 도둑 같이 보이지도 않았고 인정되지도 않은

상태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그들의 정착된 자연주의(naturalism)의 죽은듯한
 고요함을 휘젓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자고 일어나고 사고 팔고” 하였다.
 그러나 옛것들은 사라졌고 모든 것은 새로워가고 있다. 새 영향력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진리의 보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그 원인에 무지해서 새로운
 힘이 있다면 이 세상 안에 작동하고 있어야 하고 새 생명의 표시가 눈에 보여야한다고
 말한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는다. 인간의 애정은 새로운 자극을 받았고
 그들의 생각은 새 방향을 받았다. 진실로 이런 정신적 활동은 자연계 측면에서 뚜렷하게
 명백히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활동은 얼마나 위대한지! 그 결과는 얼마나
 비범한지! 지식이 증가되었고 과학이 진보했고 발명과 발견의 속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그래서 언어의 수송, 표현, 집합방식들이 과거와는 너무나 편이하다. 이런 정도로
 새로워진 것은 자연계 내지 자연계의 거주민에 해당된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 자체는 더 높은 사항에 관한 약속을 준다. 세상 주변의 변화 자체가
 우리에게 여름을 가져오지 않지만 최소한 겨울은 지났고 여름이 가깝다는 정도는 말해주고
 있다. 세상 주변의 변화 자체는 무화과나무의 잎, 그것도 고작 싹이라는 수준의 잎밖에
 더 아니다. 어쨌든 잎이 돋는 과정은 오고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 더 큰 아름다움이
 진열되고 더 큰 결과도 생산될 것이다. 비록 인간 마음이 자연적 측면에서만 발달했다고
 생각된다해도 꼭 그쪽 측면에서만 발달되었다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도덕적이고 종교적
 인 측면도 어느 정도 더불어 발달되었다. 종교계에 성행하기 시작한 보다 더 자유스러운
 견해와 더 큰 포용력이 증가되기를 바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등등이 발달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봄의 표시요 여름을 약속하는 것들이다. 봄은 나무들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는 때이다. 여름은 열매를 생산하는 때이다. 이런 계절은 오겠지만 그렇다고
 무화과의 때는 아니다. 이것은 총명의 때이나 그 총명 뒤에는 세력있는 이기심이 있다.
 인간은 대체로 자신을 돌볼 목적으로 타인을 돌본다. 인간은 타인을 위해서는 조금만을
 베풀고 자신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일반적인 행복에
 일치하는 것보다 더 큰 불균형이 존재한다. 여름은 정의의 열매를 생산해서 인간이 선을
 실컷 맛보도록, 그리고 인간이 서로 공동되는 가족의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삼는 형제가
 되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모든 사람은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증거도 생산해줄

것이다.

33.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의 사용 방침을 알려 주신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다가 온 줄을 알아라.” 이 모든 일에는 해와 달이 어두워진 것,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것, 무화과나무의 싹이 트는 것 등등이 포함된다. 이런 모든 것을 본 이들은 그것들을 영적으로 보아야만 한다. 이런 모든 일을 영적으로 식별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이런 위대한 사건과 변화가 문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다가움(nearness)은 시간과 공간 차원이 아니고 상태 차원에서의 다가움이다. 상태의 근접은 “이런 모든 일”이 우리 자신 안에 있을 때로 이해하는 게 적절하리라 본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문들을 수단으로 영적 사항들은 안으로부터 들어가고 자연적 사항들은 밖으로부터 들어간다. 그래서 이 문은 자연적 마음에 있는 문들이다. 그 이유가 인간이 거듭나지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게 될 때 선과 진리들이 거듭난 마음의 수준에로 입장하는 허가를 처음 얻는 곳이 자연적 마음이기 때문이다.

34. 이런 것의 다가움이 이 절에서 다른 형태로 표현되어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간혹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해한다. 이런 저런 모든 예언이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일어나리라는 것이다. 역사적 의미 측면에서 “이 세대”로 의미된 것은 유대인의 종족이다. 이렇게 보면 이 구절의 약속이란, 유대 종족은 두 번째 강림하는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이 약속은 글자적으로 성취되었다. 이를 좀 더 역사 사건에서 들추어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 그들은 18세기 동안 국가적인 존재를 가지지 않았고 전 세계의 흠어졌으며 박해도 받았다. 이런 특이한 백성의 소멸을 방지하려는 섭리는 히브리 성경의 보존을 가능하게 했다. 그들의 보존이 없었더라면 어찌면 책도, 구약 성서의 계시의 언어도 잔존할 수 없었을는지 모른다. “이 세대”를 영적으로 이해해보면 세대란 거듭남을 뜻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의 약속은 이렇하다. 이런 모든 일은 거듭나는 가운데, 거듭남에서 일어나고야 만다는 것, 거듭남은 거듭남에 상응되는 상태가 실현되어야만 완성된다는 것이다.

35. 이 때로부터 주님은 이런 사건이 확실히 있을 것임을 말하신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제 29절을 설명할 때 우리가 살핀 바, 해와 달의 어두워짐이 글자대로 성취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구절과 비슷한 예언이 진즉 성취되었다는 것, 물론 그 성취는 물리적 우주에 존재하는 질서를 뒤집는 것 없이

영적 차원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사야 51장 6절에서 이 구절과 유사한 예언이 육을 입으시는 때 인간 구속의 일과 연결되고 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땅을 굽어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스러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져 주민이 하루살이처럼 꺼지리라. 그러나, 내가 베풀 구원은 영원하고 내가 세울 정의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 구절의 적용을 첫 강림의 때로 초점을 맞추면 이 예언은 비유적인 말투의 외관을 가진다. 이 예언서의 다른 문단은 이런 관점을 확증시켜 준다. 같은 예언서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 “보아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 (65:17). 이 예언은 주님이 육으로 오시는 때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과 관계되는데 그것도 이 예언이 영적인 성취만을 받았을 경우이다. 참으로 하늘과 땅은 교회의 모양새들, 즉 하늘은 교회의 내적 측면, 땅은 교회의 외적 측면이다. 이 예언이 교회와 관계되고 있다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로부터 거의 절대적으로 확실해진다.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나는 ‘나의 즐거움’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고 ‘나의 기쁨’ 예루살렘 시민을 새로 나게 하리라.” (이사야 65:18). 이렇게 예언이 교회를 향해 있다는 것이 명백한데 아직도 이 예언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 인류의 종교적 상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이 이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바야흐로 과학이 신학을 돕기에 이르렀다. 과학은 우주의 안전성을 증거해주고 있다. 어쨌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고 말하신 것은 교회에 종말이 올 것임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다. 이는 교회를 형성하는 영원한 진리는 남아 있어 인류를 위한 희망의 확실한 바탕이 되어준다는 것과 맞먹는 말씀이다. 간단히 말해서 말씀이 교회의 종말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를 갱신하신다는 약속,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약속이다. 본문에서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분께서 요한에게 미래 사건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 시어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의 땅은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 이사야서의 경우 예루살렘을 그분의 즐거움, 그 시민을 그분의 기쁨으로 창조하시고 있다. 그 이유가 요한은 하느님께서로부터 새 하늘을 통해 새 땅에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화려한 환상이 미래 영광스러운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을까?

36. 다시 주님께서서는 마지막 때에 관한 주제로 되돌아오시어 영원한 분 안에 감추어 놓으신 것을 말하시되 “그 날과 그 시간은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내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신다. 시간은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상의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을 맞는 교회의 상태가 이 본문에서 주님이 다루시는 주제이다. 왜 주님께서서는 “그 날과 그 시간”이라고 언급하셨을까? 그 이유가 “날”은 교회의 일반적인 상태를, “시간”은 교회의 세부적인 상태, 또는 교회 안의 각 개인의 특별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는 어느 인간도, 어느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 마가복음(13:32)의 경우 그 때를 모르는 대상의 범위에 “아들”도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그분 자신도 모르는 사람 중의 하나로 언급하시는 바, 이 대목에는 비밀스럽고 거룩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속삭이듯 말하신다. 어쨌든 오시기로 된 당사자가 자기가 올 날을 모른다는 것은 타당성있는 말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럴 리 없다는 대답만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이 대목 역시 주님의 말씀을 육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임을 가르치시는게 아닐까? 아버지만이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이유는 신격(godhead)의 원리와 아버지라는 명칭이 지닌 의미로부터 찾아진다. 아버지는 무한한 그분의 사랑이고, 아들은 무한한 그분의 지혜이고, 천사와 사람은 두 무한한 속성에 응답하는 유한한 속성이다. 그렇다면 왜 무한한 지혜이신 아들이 그 때를 알지 못할까? 혹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이 지식을 소유할 참 사람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모르는 이유가 “때”라는 속성, 즉 종말에 있게되는 교회 상태의 본성에서 발견되어진다. 주님께서 성서에서 말하신 바, 그분은 그분을 아는 이들은 알고 모르는 이들은 모른다고 하셨다. 이와 같은 논리가 유한한 존재에도 적용된다. 그 날과 그 시간이 인간도 천사도 모른다고 말해질 경우 이는 교회의 종말에 그 교회에는 진실된 인간적인 것, 천사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고, 그 교회는 일반적으로든 세부적으로든 모두 내적, 외적 측면의 전부가 파괴되리라는 말도 된다. 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선포와 유추되고 있다. 그 이유가 천사는 하늘의 거주민이고 사람은 땅의 거주민인데 이들의 존재가 중단될 경우 진실로 인간적이고 천사적인 마음의 지각을 위한 바탕이 없다는 것, 참으로 진실된 인간적이거나 천사적 원리의 수용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천국과 교회의 모든 선과 진리를 거절한다면 거룩한 사람과 천사가 그들을 알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 셈인 바 거기에는 어떤 것도 더 이상 존재 않을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했다. 이 간결한 선포가

우리를 가르치는 바, 세상에 오게 되는 종말에는 교회 또는 교인의 마음에 어떤 진리나 지혜도 남아 있는 것이 없어 신성한 지혜가 인간으로부터 알거나 획득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는 것이다. 교회 안에 남아 있을 모든 것, 또는 인간 마음 안에 남아 있을 모든 것은 선 또는 사랑에 관해 얼마간의 남겨진 것뿐이라는 말이다. 이 남아있는 것이야말로 신성한 사랑과 선함과 어떤 연결이 존재하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 남은 것을 수단으로 신성한 아버지는 그들을 영적으로 아시게 된다. 주님께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 또 다른 형태로 위 내용을 가르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요한복음 21:22). 이 구절의 의미는 이렇다. 선 또는 이타애에 관한 얼마간의 남겨두심이 교회의 말기 즉 주님의 재림 때까지 보존되고, 진리 또는 믿음은 사라지리라는 것이다.

37. 이상 우리가 살펴 온 똑 같은 진리가 이 구절에서도 취급되고 있다. “노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바로 그럴 것이다.” 교회의 황폐가 여기서 기술되고 있다. 노아는 영적 교회, 또는 진리나 지혜를 원리로 삼는 교회를 뜻한다. 이에 비해 아담은 천적 교회, 또는 사랑이나 선함을 원리로 삼는 교회를 뜻한다. 교회의 상태가 노아에 빗대어 언급된 것은 교회가 진리 측면에서 황폐되어 진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아담과의 비교는 없는 바 교회가 선에 관한 측면에서는 황폐되지 않고 계속 얼마간은 남아 있을 것도 더불어 짐작하게 해주고 있다. 참으로 천적 수준의 남아 있음은 유아 시절에 저장되고 가장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바 이의 파괴는 최후에 해당된다. 만일 이것이 파괴된다면 교회의 회복 내지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그런 불가능이 있다면 “그 날과 그 시간”을 아는 자는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까지도 아닐 것이다. 더불어 교회는 “그 날과 그 시간”에 영원히 절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하느님, 그분의 자비에는 실패란게 없다. 그분의 자비는 아주 미미한 선한 것도 영원히 보존되게 하시고 장차 신성한 사랑이 지상에 새로운 종자를 형성하게 한다. 첫 기독교회의 종말의 상태가 노아 때로 비교되고 있다. 그 이유가 첫 기독교회는 고대교회와 유추되기 때문이다. 기독교회는 고대교회를 싸고 있던 천을 벗긴 격이다. 그 이유는 기독교회의 원리가 고대교회의 표징물로 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유추가 본문의 경우 거꾸로 되고 있다. 그 이유가 기독교회의 것과 비슷하다고 말한 노아시대는 고대교회 시대가 아니라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 전인 태고교회의 마지막 때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부조화는 기독교의

과정에서 기독교 이전의 것이 도치된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금방 사라진다. 첫 번째 교회는 고대 교회와, 두 번째 교회는 태고교회와 각각 유추된다. 기독교회의 황폐된 상태는 태고교회의 황폐한 상태에 비교된다. 그럼에도 그들은 “노아 때”라 불리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영적 근원을 암시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노아의 것은 황폐함뿐만 아니라 약속도 암시하는 이름이다. 그의 이름, 노아는 위로(comfort)라는 뜻이다. 노아가 시험을 수단으로 구원되어질 수 있는 이들을 의미하는 바 홍수가 의미하는 시험에 이어지는 위로함이 태고교회의 마지막에, 고대교회의 첫 번째 이름으로 언급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의 오심도 같다. 그분은 심판관으로서, 위로자로서 오신다. 그 이유가 신성한 진리는 악을 정죄하고 선을 위로하기 때문이다.

38. “노아 때”로 의미된 상태의 본성이 묘사되고 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 먹고 마심이란 악과 거짓을 제것 삼았다는 것, 장가들고 시집감이란 악이 거짓과 결합했다는 것이다.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말은 악과 거짓이 상호적으로 바래고 활동하는 것을 흥미롭게 표현한 말이다. 악은 왜곡된 것에 장가들고, 왜곡된 것 자체는 악한 것에 시집간다. 이것이 지옥적인 결혼, 악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의지와 지성의 하나됨, 심정과 머리의 하나됨이다. 또한 이것은 악을 뜻하고 행하는 바 심정과 손의 하나됨이기도 하다. 이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계속되었다. 노아는 두 번째 교회를 생산할 싹틈으로서 첫 번째 교회에서 구원하여 남겨진 자이다. 방주는 노아를 홍수 동안에 보존해준 수단이다. 이 방주는 옛것으로부터 새 세상으로 그를 운반해준 셈이다. 교회를 안전하게 해주는 방주, 교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주,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 외에 더 다르게 있을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듯이,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사나운 비바람을 피할 은신처를 지을 재료를 얻는다. 사악한 자의 경우 이에 대해 비웃고 그들 자신을 말씀에 의지않을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은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이 분리되던 날, 정의가 사악함에서 분리될 때이다. 그리하여 신실한 사람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지극히 높은 분의 보호아래 놓여지게 되는 때이다.

39. “홍수를 만나 모두 휩쓸려 갔다.” 악한 자는 닥치는 심판을 전혀 모른다는 말이다. 홍수는 영적으로 이해하면 거짓의 범람이다. 이 범람이 첫 교회를 멸망으로 끌어갔다.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 구절은 기독교회의 종말이 홍수로

있어진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 하늘의 처방 또는 “세상”의 종말은 불로 있어진다고 선포되어있다. 불은 사랑을 상징하는데 악한 사랑을 수단으로 첫 강림의 교회는 살라진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구절은 악한 자가 제 재난의 시기를 모르고 있다는 것과 관계된다. 악한 자가 열심히 사고 팔면서 쾌락을 즐길 때 재앙이 덮친다고 말씀은 언제나 말하고 있다. 의로운 사람도 그 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으나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를 언제나 준비하면서 깨어 경계하고 있는게 악한 자와 다른 점이다.

40, 41. 그분이 오시면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 드러내진다.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멧돌을 갈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 둘 것이다.” 각 두 쌍은 모두 완벽히 반대되는 상태에 있는게 분명하다. 밭에 있는 두 사람은 일부는 선한 것, 일부는 악한 것에 속한다. 멧돌을 갈고 있는 두 사람은 일부는 진리인 것, 일부는 거짓된 것에 속한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인물들이 아니라 두 계층을 말한다. 이 두 계층은 말씀 어디서나 취급된다. 즉 의지로부터 더 행동하는 이들과 이해성으로부터 더 행동하는 이들이다. 특히 두 번째 언급된 계층은 우리의 관심을 고조시킨다. 그들은 “멧돌을 갈고 있었다.” 갈고 있음(grinding)이란 조회함 또는 조사함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지적 측면의 작용을 암시하고 있다. 멧돌을 갈고 있는 둘이란 같은 교리 안에 있는 둘, 그러나 생활에서는 반대되는 상태에 있는 이들, 그의 주변 여건은 교리와 삶이 일치할 수도 있는데 교회의 타락된 상태, 기우는 상태에 더 협력하는 쪽에 있는 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 인간의 진짜 상태, 마지막 그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생활이라는 것이다. 같은 교리라 할지라도 인간에 따라 반대되는 사랑, 즉 악한 사랑과 선한 사랑 어느 쪽의 사랑을 습득하여 유지 지탱해 갈 수 있다. 이것이 멧돌을 갈고 있는 사람이 “여인”이라는 것에서 암시해주고 있다.

42. 주님께서는 시대의 종말과 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 관해 직선적인 어조를 사용하시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도 전달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엄숙한 교훈 중 하나이다. 먼저 훈계와 경고가 한꺼번에 담긴 말씀이다. “이렇게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지켜보고 있어라.” 영적으로 경계함(watchfulness)은 행동 차원만이 아닌 상태 차원, 의무 측면뿐만 아니라 원리 측면까지 포함해서 이르는 말이다. 경계함, 또는 지켜봄은 목적에의 헌신, 목적이 실현된다는 확신을 꾸준히 간직하는 것, 그 목적을 확고히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 등등을 다 포함해서 이르는 단어이다. 한

마디로 말해 이는 믿음의 선 가운데 있는 상태, 믿음에 의거한 생활과 진리의 상태를 말한다. 믿음의 선이란 믿음의 생활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음, 지켜보고 있음, 경계하고 있음 등등의 말은 모두 준비(각오)가 되어 있음(preparedness)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어느 시간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서이다. 교회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 시간이 언제인지는 우리에게서 감추여있다. 그럼으로 인해 지켜 경계하는 일을 어떤 특별한 지식이 못하게 하거나 무능력하게 만드는 바, 우리는 그 일을 일반적 지식에 의해 준비해가도록 영향력을 받게된다. 그분이 교회 종말에 오신다거나 또는 우리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 각각에게 오신다는 경고는 우리로 주님의 연설을 더 잘 새겨듣게 하는 실용적인 장점을 지닌다. 우리 각 개인의 마지막 날과 그 시간과 관련된 신성한 섭리는 대단히 슬기롭고 자비로워서 우리들로부터 그것들은 감추여 있게 하는데 그런 이유는 우리로 언제나 준비를 갖추고 잘 감시하게 할 목적 때문이다. 우리는 경계함이라는 단어를 흔히 적의 접근을 발견해서 쫓아버리는 것을 연상하지만 본문의 경우 이는 그분을 만나서 친구로 환영하는 것을 연상해야 한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그 자체는 피할 수 없고 제거할 수도 없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가능만 하다면 비켜가길 원한다. 비켜가려고 해보아야 쓸데없는 짓이라면 가장 슬기로운 행동은 그 사건에 대비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주님이 어느 시간에 오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분이 오신다는 것이다. 이 한 가지를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해야 하리라.

43. 그러나 이 구절의 말씀은 앞 구절을 무효화시키는 듯 보이게 할는지 모른다. “만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는지 집주인이 알고 있다면 그는 지켜보면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구절이 먼저 생각들게 하는 것은 도둑이 언제 올지를 집주인이 알고 있는 듯 여기게 하는 점이다. 어쨌든 이는 인간이 해야만 하는 것에 관한 묘사라기 보다는 인간이 늘 하고 있어야하는 것에 관한 묘사이다. 어떤 사람이 제가 죽어야만 하는 시간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늘 그 죽음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인간은 그 시간이 접근할 때까지 지켜보는 일은 생각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위 구절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도 결심한다. 종교에 헌신하겠다고 사업이나 즐거움을 기꺼이 포기하는 결심이다. 그러나 이런 그의 계획들은 잘못된 견해와 그럴 듯 여긴 느낌의 돌출된 결과일 뿐이다. 이는 여느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 주는 즐거움이나 의무에서 종교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인 바 오류에 해당된다. 사실 평범한 사회 생활 자체는 종교적 덕행을 세련되도록 실습하는

지정된 곳이다. 종교는 생활 깊숙이 주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이유가 삶, 인생 여정은 천국으로 가는 방법을 실제로 배우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적극적인 유용함을 추구하는데서 찾아진다. 지상 생활을 천국적 목적에 맞추므로 그 생활 자체를 성별되게 하는 것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천국에서의 삶은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살아지는 것만은 틀림없다. 우리는 천국에서 살게될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어쨌든 본문의 표현에는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 주님께서는 도둑이 들어오는데 관해 말하실 때 “hour”를 사용하지 않고 “watch”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이 구절을 영어로 표기해보자. “If the good man had known in what watch the thief would come” 구약 성서 시대에서 “watch”는 네 시간(four hours)이었다. 그러므로 “a watch”는 “an hour”이라는 단어보다 더 넓은 시간대 즉 더 일반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시간 단위이다. 더불어 경계함, 또는 지켜봄이라는 단어가 전달하는 느낌은 지적 측면 또는 진리 측면의 상태와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선한 사람에게 있어서 지켜봄(watchfulness)은 선에 중점을 가진 진리, 의지 안에 바탕을 둔 지성이다. 그 반면 악한 자에게 있어진 지켜봄이란 선이 없는 진리, 욕욕에 바탕을 둔 지성이다. “도둑이 언제 올는지 알고 있어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집주인”이란 위의 선한 자, 선함을 위해 진리를 소유한 사람의 상태이다. 위의 번역, 뚫고 부순다(...broken up)는 단어를 더 직역하면 파헤친다(dug through)인바 이 직역이 주는 느낌은 지적 행동이다. 그 이유가 판다(dig)는 것은 조사, 탐구, 발굴하는 것 등등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판다는 이 단어는 뿌리고 거두기 위해 땅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근면을 수단으로 뭔가를 획득하기에는 너무나 게을러 흠침을 수단으로 하려고 집을 부수는 것을 두고 사용되는 단어이다. 따라서 지키는 사람이 집이 뚫리지 않게 하려면 어떠한 태도여야 할 것인지 상상될 것이다. 그의 지성은 그의 마음을 탐색해 가는 상태에 계속 있도록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마음을 상징하는 이 집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마음이 획득한 지식을 거둬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44.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이 구절에서 “지켜보라”가 “준비하라”로 대체되고 있다. 지켜봄이 이해성 측면을 더 강하게 암시하는데 비해 준비함은 의지와 선함 측면을 더 부각되게 해준다. 지켜봄은 준비를 갖추기 위한 길이다. 다시 말해 진리는 선함을 위해서 존재한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준비된 사람임을 발견할 것이다. 자기가 소유한 지식을

신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그 지식이 가르치는 미덕까지 완성할 것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준비된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목표로 삼아야 할 상태이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람의 아들이 오는 시간이 막상 닥쳤을 때야말로 우리가 그 때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이 준비는 그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그때 가서는 실감하리라.

45. 이제 주님께서는 위 가르침을 예를 들어 설명하신다. 이 문단에서 지켜 경계하는 사람이 주인이 맡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한 종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 반면 주인이 더디 오겠지 하며 동료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놀면서 그분이 맡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종은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전자는 칭찬을 받고 후자는 질책을 당하고 있다. 이제 이 신성한 직유(divine simile)를 찬찬히 살펴보자.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 때에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여야 그 종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우리는 하느님을 잘 섬기도록 창조한 하느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데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발견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섬김이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데 그것은 집주인을 섬기는 일, 동료 종들 즉 가족이나 교인 모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구절의 종(servant)은 영적 측면에서 볼 때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과 관계되는 명칭이다. 이 종들이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 착한 종도 되고 악한 종도 된다. 이 종은 주인의 다른 종들을 다스리도록 되어있다. 집이란 교회이고 다른 종이란 교회 멤버들이다. 교회의 “한 종”이란 목사이고 그의 직무는 교인에게 적절한 교훈을 주는 것, “제 때에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확대시켜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 각각은 “한 종”이다. 그 이유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 형제들을 보살피는 일은 모든 교인 각자에게도 할당된 의무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 각자는 제 이웃에 봉사함을 수단으로 하느님의 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그분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남보다 진리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보다 단순한 사람들에게 진리가 가리키는 삶의 방향과 품질에 관해서 더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 세계에서 그에게 할당된 장소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이라. 이렇게 비유의 일반적 교훈은 표면 가까이 놓여있다. 이 비유의 특색있는 의미를 개인의 마음에 적용하면 각자의 심정과 내면 삶에서 역사되는 것과 그

상태를 보여준다. 내적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 안에서 “주인, 종, 다른 종”을 발견해 볼 수 있다. 내적 인간은 주인이고 외적 인간은 종이다. 더 내면적으로 볼 때 내적 인간 안에 있게 되는 선의 원리가 주인이고 외적 인간에 있어지는 진리의 원리는 종이다. 다른 종, 또는 식구들은 선함에 관한 애정과 진리의 지각이다. 한 종이 다른 종들을 다스리도록 주인에 의해 임무가 부여되었다. 다른 종 또는 식구들이 자연적 마음에 있는 애정과 생각들인 바 진리가 그것들을 다스린다. 그 이유가 진리의 임무는 질서를 생산하고 유지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선이 통치력이라 불리워야 마땅하다. 그러나 선은 진리를 수단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의지는 이해성을 수단으로 통치한다. 선 또는 의지는 제 스스로, 또는 직접 진두에 나서서 통치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선은 단지 애정일 뿐이고 의지 역시 눈이 먼 추진력일 뿐이기 때문이다. 식별과 판단은 진리와 지성에 소속되어있다. 한 마디로 통치와 질서가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은 법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애정과 생각을 질서 안에 가져다 놓고 질서 있게 관리해 가기 위해 선은 반드시 진리를 채용해야하고, 의지는 이해성을 고용해야 한다. 통치는 보다 높은 것이 능동적인 힘으로서 보다 수준 낮은 것을 수동적 도구로 해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수동적 도구로서의 종에게는 선택의 여지도 없고 책임있을 이유도 없는 바 칭찬이든 책망이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인간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은 서로 구분되어진다. 이 둘은 인간에게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 둘은 구분된 뜻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 내적 인간은 외적 인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렇다고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을 통해 행동하지 않는다. 외적 인간은 일종의 (실현실에 있는) 시약(re-agent)같아서 내적 인간의 것을 재연할 수 있지만 때로 내적 인간에 반대되게 작동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일 수도 있고 “악한 종”도 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 같이 마음의 두 부분 즉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사이에 일종의 중간 영역(intermediate)이 있다. 이 존재는 우리도 의식한다. 이 중간 영역에서 우리는 각자의 마음과 품성, 선하고 나쁜 것, 참되고 거짓된 것 양쪽 모두를 헤아리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일까? 외적 인간이 스스로 내적 인간의 뜻에 복종할 때, 그리하여 내적 인간의 의도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자연적 애정과 욕구를 다스려가면서 제 때에 양식을 공급할 때 “슬기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이다. 특히 본문의 “양식(meat)”은 자연적 애정과 욕구를 받쳐주는데 필요한 선을 뜻한다. 그럼에도 이 선은 마구잡이로 획득해 나누어준 선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먹여져야 하는 가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내드리는 것이다.” 주님의 인성은 그 인성 속에 내재하시는 신성의 뜻을 행함으로 먹여진다. 달리 표현하면 그분의 외적 인간은 내적 인간의 뜻을 행함으로 먹여진다. 이와 같이 우리의 외적 인간의 애정들은 외적 인간이 내적 인간에, 또는 자연적 수준의 것이 영적 수준의 것에 충실하고 슬기롭게 종속됨으로 먹여진다. 위촉받는 “한 종”은 제 때에 맞추어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주어 자연적 수준의 것이 진리에 의거 행함으로 선을 만들도록 하는 것, 달리 표현하면 식별력을 가지고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진리는 선이 바래고 사랑하는 대로 식별해가기 때문이다.

46. “주인이 돌아 올 때에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은 복있는 종이다.”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에게 발표되고 약속하는 축복은 그의 성실과 지혜의 결과이다. 내적 인간의 뜻에 순종하여 외적 인간의 애정과 지각을 다스리고 제 때에 양식을 먹인 결과로 우리의 두 본성이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되어졌다. 이 하나됨 자체가 복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이 하나됨은 마음을 고요와 평화, 행복한 상태로 진입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연적 차원에서 내적, 외적 인간은 완전히 반대되어있다. 이 반대됨은 무질서와 재난의 원인이다. 반대됨이 제거될 때 그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어 신성한 축복이 받아들여진다. 축복은 주인이 돌아와 그렇게 행했음을 발견할 때 약속되었다. 본문의 줄거리에서 비쳐지는 바, 주인은 집에 없었고, 종만 집에 남아서 전 식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듯 여겨진다. 이는 우리의 자연적 인간은 자기가 결정한 것을 하든지 말든지 자유로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모습이다. 더불어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의 지시를 꾸준히 이행해 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다.

47. 이런 사람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이어진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됨에 관해 말하셨을 때 이렇게 말하셨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기도 하다.” 신성과 인성은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의 관계와 같이 서로 관계된다. 주님 안에서 성취된 모든 것은 인간에게서도 결과될 수 있는 것에 관한 장엄한 대형(prototype)에 해당된다. 영화하심을 수단으로 주님의 인성이 신성의 모든 속성을 소유하셨듯, 거듭남을 수단으로 외적 인간은 내적 인간의 모든 자질을 소유하게된다. 그렇다고 외적 인간이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소유는 위촉받아 붙잡고

있는 상태인 바 진정한 소유권은 내적 인간이고 내적 인간의 명령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다. 내적 인간이 소유하는 모든 진리, 그에 따른 기쁨과 즐거움, 모두는 외적 인간 스스로 선용하는 성실의 보상으로 향유하게 된다. 적은 것에 충실한 사람은 큰 것 역시 성실히 처리해갈 수 있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해 같은 기쁨을 누리리라.

48. 그러나 외적 인간의 반대적 측면이 위와 대비되어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그 악한 종이려면 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려니 생각한다.” 사악하다고 평가받는 종의 경우가 여기서 말해지고 있다. 이 종도 성실한 종이나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집관리를 맡겼고, 주인이 되돌아 올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는 주인이 오는 때가 늦을 것을 생각하면서 주인이 자기에게 베푼 신뢰를 남용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그러나 실지로 위선자라 불리는 교인이 위의 악한 종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이 종은 자연적 수준의 인간 타입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종은 우리 속의 두 가지 차이있는 것을 표현한다. 종교적인 습관과 형식에 잘 훈련되어진 외적 인간, 그래서 영적 삶의 질서가 바깥쪽으로만 일치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구절의 경우 그의 내적 인간이 질서 있는 외적 인간으로 흘러들어 그 외적 인간에 필요한 힘을 주고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참으로 이 종은 일반적으로는 외적 인간을, 세부적으로는 외적 인간 안에 있는 진리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럴 경우의 악한 종이란 외적 인간 안에 진리의 품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선과 상응되지 않는 진리였을 때를 말한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형태 중 첫 번째가 “주인이 더디 오겠지”라고 심중에 말하는 대목에서 부상하고 있다. 영적으로 보건대 중얼거린 이 말은 은밀히 의심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이 “생각”은 제 소원의 소산이다. 심정 안에서의 소리는 의지로부터 솟아난 생각이고 제 바램을 말한 것이다. 더디 옴(delay)은 꾸물거림(procrastination)이라는 것보다 그 강도가 더한 경우이다. 시간은 상태를 상징하는 바 서두름이나 지체함은 확실함과 불확실함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하셨을 때 그분께서 시간적으로 곧 오리라는 것이 아닌 확실히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주인이 더디 오려니라고 악한 종이 말한 것은 그의 주인이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는 자기의 불신뢰를 은밀히 굳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악한 종의 말에 포함된 영적 생각, 영적 상태이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의 불신앙은 내적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내적 인간에 상응되는 모든 것에 의심을 갖는 것, 교회와 천국, 말씀과 주님의 내적 측면 모두에

결국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의 결과가 다음절에 기술되고 있다.

49.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만 할 것이다.” “다른 종, fellow-servant”이란 동등하게 종속되는 진리들이다. 그러나 이 진리들은 나쁜 상태로 규율되고 불일치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로 놓여져 있다. 사람들이 서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진리가 진리들끼리 일치하는 것은 대단히 이상적이다. 우리가 악한 상태일 경우 그 악한 만큼 우리가 소유한 진리는 다투게 된다. 이는 무신론자, 특히 계시된 종교는 모순된 체계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에게서 발견되는 노골적인 극도의 모습이다. 다소 표면상의 형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악이 좌지우지하는 모든 마음 안에서 진리가 서로 다투는 모습은 역력히 나타난다. 악이 뒤집어엮은 통치하는 진리는 다른 진리들을 때린다. 모든 사람을 향해 대적하려드는 이스마엘족의 손과도 같다. 진리가 침묵 속에 주저앉거나 거절당할 때 악과 거짓의 탐식이 있어진다. 이것이 “술친구와 먹고 마시는” 악한 종의 모습이다. “술친구”란 거짓을 흡입하는 악들, 그리하여 진리와 더욱 반대되게 하고 이 악한 종의 행동지침은 진리의 거짓화밖에 더 달리 표현하는게 없다.

50. “생각지도 않은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 와서 그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주인이란 내적 인간을 의미하는 바 악한 자의 경우 그 사람에게 적당한 내적 인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인의 옴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해해야 할까?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내적 측면은 상이하지만 어쨌든 모든 인간은 내적 인간을 가지고 있다. 악은 참된 내적 측면을 닫히게 하여 마치 그것이 존재않는 듯 만든다. 이것이 “주인이 더디 오려니”라고 종이 심중에 말한 것에 해당된다. 선의 저자되신 분, 행복을 나누어주시는 그분의 오심이 실로 지연되는 이유는 외적 측면을 규율하고 있는 악 자체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꼭 오신다. 설사 이 세상에서가 아니면 저 세상에서라도 꼭 당도하신다. 그 이유는 심판은 내적 측면이 열림으로, 모든 생명이 기록된 내적 기억의 책이 펴짐으로, 행동을 있게 한 목적이 밝히 드러남으로 결과되기 때문이다. 말과 행위가 외적 기억 안에 찍어지는 동시에 그 동기는 내적 기억 안에 새겨진다. 이것이 열려질 때, 즉 외적 인간 안에서의 행위와 모든 기록된 말들이 설명될 때 주님은 오신다. 그가 그분을 찾지 않는 날에 오신다. 그 이유가 영의 내적 기억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그 봉인을 떼고 그 속에 담긴 것을 밝힐 때까지 내면의 기록은 침묵 속에 남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밝히 드러나 완결될 때 제 악을 확인하게 된다.

51. 내 주인은 더디 오겠지라고 생각해 처신한 종에 대한 주인의 판결이다. “주인은 그 종을 자르고 위선자들이 벌받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조각조각 자른다(cutting asunder)는 표현은 심판의 결과, 또는 내적 측면이 열려 형식적이고 사기뿐인 제자로부터 참되고 선한 것들을 떼어내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런 형식에 불과한 종교 품성만을 지닌 이들은 바깥쪽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옷입고 있는 바 이는 거짓 예언자가 낙타 털옷을 입어 예언자인양 치장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바깥쪽 치장을 벗기면 그들은 본연 그대로의 자신, 악한 종의 품성이 적나라해진다. 그들이 갖고 있던 선과 진리, 사랑과 믿음이라는 우수한 품성은 그들의 외적 측면에서 부착되었을 뿐 그들의 본질적 품성과 하나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위선자, 모독자들이 있는 곳이 그들의 지정적인 바, “거기에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슬피 움(weeping)은 악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난이고 이를 앓은 거짓으로부터 야기되는 재난이다. 슬피 움은 심정의 통곡이고 이를 앓은 지성의 눈물이다. 사실 이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슬피 우는게 아니라 실망에 따른 분노 때문이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악으로 꽉 찬 의지가 꼼짝 못한 탓에, 뒤집기만 하고 사기만 쳐왔던 이해성의 오류가 투명해진 탓에 슬피 우는 것이다. 악과 거짓은 자기 스스로 자기 벌을 가져온다. 저 세상에서 이는 당연한 이치 아닐까?

25

본 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오심으로 있게 되는 심판에 관한 강연의 연속이다. 더구나 이 강연의 최종적인 부분 모두는 심판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본 장은 세 가지 다른 형태를, 열 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로 표현하고 있다. 양과 염소의 경우는 엄격히 볼 때 비유라 볼 수 없으나 그 모양새는 비유적 스타일로 이어지고 있다. 주님께서 전달하신 다른 비유에서와 같이 이 비유들도 아름다움, 풍요로움, 교훈적 지혜들로 구별되어지고 있다.

세 비유를 살피기에 앞서 심판에 관한 일반적 주제와 세부적 주제에 관해 잠깐 언급해 두는 것이 유용할 것 같다.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구분해서

충분히 살피지 않는 것 같고 아마 잘 이해하는 것 같지 않은 이유에서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확신하는 바, 사람은 죽은 뒤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즉각 들어간다는 것, 그럼에도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심판된다고 믿는 것도 보편화되어 있다. 이 마지막 날이란 흔히 세상의 종말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말씀 속 영적 의미에 관한 계시, 영계의 본성과 질서에 관한 계시는 위 두 가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한 사상이 서로 재회하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종교계가 세상의 종말을 뜻한다고 이해해왔던 것, 제 24장 3절에서 이미 살폈듯이 이는 교회의 종말, 또는 종교적 처방의 마감이다. 세상에 몇 개의 처방이 있어왔듯이 몇 개의 일반적 심판이 있어왔다. 동시에 각각의 처방이 만료될 때 심판도 있었다. 그 이유가 심판은 하나의 처방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새 처방이 시작하도록 준비하기 때문이다. 본 장에 기술되고 있는 심판은 주님께서 예견하신 심판으로 이는 그분께서 건설하신 처방의 마지막에 거행된다. 이 심판은 최후 심판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가 이 처방은 종지부를 영원히 찍는 마지막이기 때문이고, 이 처방에 관한 심판은 일반적 심판의 마지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주님의 두 번째 강림에 있게 되는 교회는 모든 처방 중에서 월계관에 해당되는 영원히 지속될 교회이다. 그러므로 이후 어떤 일반적 심판도 거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개개인 적으로 죽은 뒤 즉각 심판된다. 일반적 심판이 거행될 수 있는 것은 세부적인 심판의 정상적 발생이 방해되는 여건이 존재할 때뿐이다. 어떻게 이것이 있는지 이제 설명해보자. 영계 전체는 크게 세 개의 구역으로 구성되고 있다. 천국과 지옥은 세 구역 중 두 개에 해당되고 이 두 구역은 상태나 위치가 정반대이다. 이 두 구역 사이에 세 번째 영역이 있다. 이 영역은 위치적으로 생각해보면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다. 그 이유가 이곳의 거주자는 상태 측면에서 천국과 지옥 상태의 중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천국과 지옥은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처소이다. 그러나 중간 영역, 즉 영들의 세계라 불리는 이 영역은 자연계를 떠난 모든 사람의 임시 체류지이다.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제 각각 자기들의 영원한 거처를 정하기 전 그곳을 통과한다. 이곳에서 모든 영들은 궁극적 거처를 준비한다. 이 준비란 선한 자의 경우 천국에 들어가기 전 자기들에게 붙어있던 악들을 떼어내고, 악한 자의 경우 지옥에 갈 수 있도록 자기들에게 남아있던 선이 분리된다. 영들의 세계에 체류해야하는 시간은 선이든 악이든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쉽느냐 또는 어렵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 즉 진보의 정해진 질서이다. 일반적 심판을 일으키는 것은 정해진 심판의 질서가 일시 정지되는

것, 그 상태가 어지럽혀진 것이다. 영들의 세계에 들어 온 이들 안에 있는 선과 악이 정상적으로, 발전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방해하는 여건이 조성된 것은 땅 위 교회의 하강함으로부터이다. 그 결과, 즉 분리가 결과될 수 없는 이들은 중간 영역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개별적 심판이 사전에 성취될 수 없었던 모든 이들은 그들의 처방이 완료될 때, 일반적 심판이 거행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른다. 지상을 떠난 영의 마음에 선과 악이 혼합된 채 있는 한,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섞여 있듯, 지상에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사회에 살고 있듯 모두 섞여 머무른다. 그러나 특별한 신성의 작용이 위 같은 영들의 마음에 있는 선과 악을 분리할 때, 이는 당연하고 꼭 필요한 결과로서 있어져 선한 영과 악한 영은 서로 분리되어 각기 천국과 지옥으로 건너간다. 이것이 본 장에서 취급되는 심판, 모든 심판이 반드시 거행되는 영들의 세계에서 있어지는 심판이다. 이 심판은 세상 시작 때부터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있어지는 심판이다. 영들의 세계에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섞여 있는 모습이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로 묘사되는데 이 비유에서 언급된 “추수철”은 세상 끝날 이라 불리는데 직역하면 시대의 종말이라 불리고 이는 영적으로 교회 종말을 뜻한다. 주님께서 육을 입으신 때에 거행된 일반적 심판은 홍수로 묘사된 사건 이후 개시된 노아적 처방에 있어졌다. 이를 계승한 처방이 이스라엘 교회라 불리는데 엄격하게 용어를 사용한다면 이스라엘 교회는 일반적으로 교회라 할 수 없고 표현적 교회 또는 교회의 그림자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시간을 연장한 것, 시간이 다 찰 때까지 앞의 처방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는지 모른다. 이 처방에 소속되었던 선한 자와 악한 자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 같이 추수 때까지 영들의 세계에서 함께 자라도록 허용되었는 바 이들에게 주님의 첫 강림 때의 일반적 심판이 수행되었다. 이 심판은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고 인성을 영화하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결과되어질 수 없었다. 그 이유가 이 두 작업은 중간 영역에 있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분리를 위한 준비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비유로 기술된 것 외에도 이 작업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말해지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몸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사셨다. 이리하여 그분은 갇혀있는 영들에게도 가서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그들은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느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다” (베드로전 3:10-20). 갇혀 있던 영들은 노아적 처방 하에 있었다. 그들이 갇혀 있었던 곳은 영영 구원되지 않는 지옥을 뜻하는게 아닌

바 이는 중간 상태, 일시적 거주지임에 틀림없고 이곳에 주님께서 구속을 선포하셨다. 이 영들은 예언자 즈가리아(9:12)에 의해 말해진 희망있는 죄수였고, 구속자가 해방시켜주는 포로된 자, 옥에 갇힌 자(이사야 61:1, 42:7)였다. 이와 일치되게 사도신경은 초기 믿음의 한 조목을 서술하고도 있다. 주님께서 죽으시사 지옥, 즉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일컬어진 명칭인 황천(Hades), 중간 상태의 영역으로 내려가셨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을 받아들인 간헐적인 영들은 그분이 승천하실 때 천국으로 운반되었는 바 이렇게 씌어있다. “당신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높은 곳에 오르시니...” (시편 68:18). 주님께서 황천으로 내려가신 뒤 승천하는 전체 주제가 사도 바울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사로잡은 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 가셨다는 말은 또한 땅 아래의 세계에까지 내려가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로 내려가셨던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려고 하늘 위로 올라 가셨습니다” (에페소 4:8-10).

주님의 첫 오심에서 거행된 심판에 관한 성경의 묘사는 우리로 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서 거행된 심판에 관한 생각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두 번째 오심에서의 심판에 관한 환상이 계시적 예언자에게 표현되어졌는 바, 그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나는 또 크고 흰 옥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자들이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옥좌 앞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는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 냈고 죽음과 지옥도 자기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행적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hades)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 째 죽음입니다” (계시록 20:11-14). 이 구절의 지옥(hades), 또는 황천은 불바다와는 다른 어떤 장소인 것만은 확실하다. 또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일시적 거쳐였던 것도 분명하다. 이 중간적 세계가 약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다. 이는 말씀 안에서 가끔 표현되고 있다. 우리는 황천(hades)이 심판 때에 불바다에 던져졌다는 사실만에 국한해서 관심을 둔다.

이 장에 기록된 모든 비유 안에는 공통적인 유사성을 지니고 이끌고 있는 요점이 있다.

선한 자와 악한 자는 한 무리, 또는 한데 섞여 있어 서로가 반대되는 품성을 어떻게 지녔는지 구분안되고 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표출되고 그 다음 심판이 온다. 심판의 첫 결과는 선한 자를 악한 자와 구별해 분리하는 것, 즉 어리석은 처녀로부터 슬기로운 처녀를 나누는 것, 불성실한 종으로부터 성실한 종을 가르치는 것,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결과는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제각기에 적절한 장소를 할당하여 마지막 거처로 인도하는 것이다.

1. 심판이란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를 위에서 살폈다. 이제 그 심판을 기술한 비유들을 살펴보자. 열 처녀의 비유는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훈도하시기 위해 남겨놓은 많은 이야기 중 우리에게 대단한 매력을 풍기는 것 중 하나이다. 우리가 위에서 살폈듯이 일반적 심판에 관해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세부적 심판이 덜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이유가 개별적 심판은 각 개인에게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개인 차원의 응용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 판단된다. 어쨌든 신성의 모든 작용은 일반 차원이든 세부 차원이든 그 자체에 있어서는 똑같다. 보다 작은 것은 보다 큰 것에 대한 형상, 또는 요약이다. 같은 묘사가 모두에 응용된다. 열 처녀의 비유도 이와 같다. “하늘 나라는 열 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길 수 있다.” 처녀는 교회를 상징한다. 게다가 교회가 순수한 상태이든 부패된 상태이든 모두를 상징한다. 시온의 처녀 딸과 예루살렘의 처녀 딸들은 교회에 대한 다른 호칭들이고 이스라엘의 처녀 딸들의 경우는 추잡한 짓까지 했다(예레미야 18:13). 이럴 경우의 처녀들은 부패된 상태의 교회나 교인을 표현하게 된다. 이 비유에서 교회를 표현하기 위해 처녀들이 등장한 이유 중에서 우리로 관심을 가지게 하는 한 가지가 더 있다. 이 장에서 주님이 채용한 세 비유들은 똑같은 사건을 묘사하는데 그렇다고 똑같은 생각을 단지 다르게 거론했다고는 상상해볼 수 없다. 각 비유에서 의미된 것은 상징된 것만큼 다르다. 세 비유는 세 가지 다른 개인적 차원의 계층에 관련된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 열 처녀들은 선함 측면의 원리에 애정을 가졌거나 선함의 원리에 반대되는 애정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되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진리 측면의 원리에 애정을 가졌거나 그에 반대하는 애정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양과 염소는 실생활에서 선함과 진리가 잘 응용되었거나 그렇지 않았던 부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식별해보면 비유들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 관련된다고 이해될 것이다. 열 처녀가

있었다. 자연적 의미에서 열이란 숫자는 불분명한 숫자를 의미한다고 생각될는지 모르나 영적 의미에서는 분명한 의미를 지닌다. 계시와 창조 모두에서 이 숫자는 신성한 법칙의 결과라는 증거를 낳고 있다. 신성한 질서의 모든 법칙은 십계명 안에 집행되어 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법칙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두 개의 일반적 가르침으로 요약되어 있다. 마치 십계명이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새겨진 것과 같다. 비유에 있는 처녀들의 숫자는 영적으로 이해해 볼 때 분명히 구분되고 교훈을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처녀들이 숫자상으로 열이었는데 이는 무한정한 숫자로서 심판되어질 모든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신성한 법칙에 관한 지식으로 훈육되어왔던 모든 사람, 그래서 결혼식장으로 신랑과 함께 들어가기 위해, 즉 구세주와 함께 하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준비할 기회, 수단, 능력을 가졌던 모든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 비유의 세부 항목 중 하나는 열 처녀 모두 “저마다 등불을 가졌다”는 것이다. 빛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등불(lamp)이 여기서 채용되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빛 자체를 상징해준다. 빛은 진리의 상징물이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는데 이는 지적 측면의 빛을 두고 말하는 상징물이다. 등불이 마음을 계발하는 진리의 상징물이듯이, 말씀 자체도 상징하는데 이로부터 모든 진정한 계발이 근원된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0:105).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바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은 이교도로부터 주님의 가시적인 교회임을 독특하게 구별해주게 된다. 하느님께서 증거도 없이 그분 자신을 계시케 한곳이 한군데도 없다. 더욱이 계시라는 직접적인 빛은 그분께서 인간에게 허용하는 증거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의 길에 빛을 얻게 하는 등불로 말씀을 만드는 것은 책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된 바로써의 말씀이다. 말씀 속의 진리는 우리의 기억에 새겨 있거나 심정에 새겨진 만큼에서만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는 등불이 될 수 있다. 비유는 열 처녀 모두 등불을 가졌다고 가정해 말하고 있다. 처녀들이 표현한 사람들 각각은 저마다 마음에 영향을 준 일반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비유는 처녀들이 저마다 등불을 “가졌다”고 말함으로 시작되고 있다. 등불을 가진다는 것은 말씀 속의 진리를 납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수단으로 그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까지 암시하고 있다. 그 이유가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교회의 원리 측면에서 얼마간의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 하나 세부사항은 열 처녀 모두 서로 닮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신량을 맞으러 나갔다.” 등불을 가지고 신량을 맞으러 나감이란 사전에 소유했던 말씀이 정신적으로 납득되고 개인적인 믿음의 대상이 되어갈 때, 사람들이 구속자요 구세주로서의 주님께 실지이든 형식적이었던 나아옴으로 신량을 맞으러 나갈 때와 같은 것, 한 마디로 종교생활의 시작을 묘사한 것이다.

2. 모든 사람이 말씀을 소유했고, 말씀 속의 진리에 관한 지식도 지녔고 그에 대한 믿음도 소유했지만 처녀들은 품성면에서 본질적으로 달랐다. 그 이유가 “그 가운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우니” 때문이다. 아마 서로 정반대되는 것을 표현하는데 위 구절은 대단히 확실하다. 성경 언어에서 슬기로우음과 미련함은 지성의 예리함과 둔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미덕과 악행을 뜻한다. 성경에서의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선한 자와 악한 자이다. 우리는 때로 지혜와 지식을 혼동해 생각하나 사실 그 둘은 완전히 다르다. 지혜는 지식을 실제어로 변형시킨 것이다.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의 길을 가르치고, 가르쳐진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슬기로운 자이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 가를 아는 사람이 스스로에 어떤 불행(misery)을 자초하도록 행동하고 있다면 그는 슬기로운 사람일 수 없고 단호히 잘라 말하면 어리석은 자이다. 지혜가 지식없이 있을 수 없으나 지식은 지혜없이도 있을 수 있다.

3, 4.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어리석다고 말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성하는게 무엇인지 보여주신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한편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모두 똑같이 진리의 등불은 가졌으나 슬기로운 사람만이 사랑의 기름을 가졌다. 여기에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큰 구분이 있다. 화려한 재능, 대단한 영리함, 불타는 열정같은 것을 슬기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보다 불거지도록 주장해대지 않을는지 모른다. 지성의 매사에서 영적으로 미련함이 영적으로 슬기로우음보다 강하게 빛나기까지 할는지 모른다. 지적인 명민함은 지혜로 구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리석음과 양립할 수 없다. 이는 비유의 미래 부분에서 더 명백하게 보여질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둘 것은 성경 어디에서 기름이 거론되든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성경 모두에서 사랑이 종교의 본질임을 불변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하느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요한 1서 4:16). 만일 기독교인의 사랑이 신성한 사랑의 품안에 거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런 천국적 품위가 결여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5. 열 처녀가 만나러간 그 신랑은 즉각 오지 않았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아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이 모습이 자연계에서 있었는지 영계에서 있었는지 간에 관계없이 귀감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건네주고 먼길을 떠났다가 이윤과 함께 그 달란트를 받으러 되돌아오되 그 오랜 시간이 걸렸을 때 같이 신랑은 결혼식에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더디 오고 있다. 그분이 더디 오심, 그분을 기다림 (tarrying)이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과 실지 영계로 들어가는 것 사이의 간격, 인생 기간이고 이 때 우리는 천국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실감한다. 이 중요한 기간 동안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서로간에 구별되지 않은 채 살고 있고 다 함께 즐기기도 하고 잠들기까지 한다. 이런 서로에게 공통된 조건은 의미심장하다. 삶의 외적 상태가 조는 것으로 의미되고, 깨어 있음은 내적 상태를 뜻한다. 이 세계에서 삶의 잠든 것과 같은데 이에 비해 영계의 삶은 깨어있는 것과 같다. 인간의 영이 인간의 진짜 사람인데 육체 안에 머무는 동안 그 사람은 의지와 이해성 모두에서 비교적으로 우둔해 있고 희미한 상태에 있다. 이것이 비유에서 졸다가 잠든 모습이다. 이것은 교인의 형식에 치우쳐 있던 진짜 교인이었는지 모두 똑같이 부수되는 상태 또는 조건이다. 다시 말해 두 개의 다른 상태의 마음을 똑같은 외적조건이 덮고 있다는 말이다.

6. “그런데 한밤중에 ‘저기 신랑이 온다. 어서들 마중 나가라!’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한밤중은 마지막의 때이다. 한밤중의 소리란 새로운 시작의 발표이다. 교회의 말기, 특별한 상태의 끝이 성경에서 밤으로, 특히 한밤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유대 교회의 한밤이 당도하자 이 비유에서 같이 똑같은 취지의 큰 소리가 만들어졌었다. 그것은 요한의 선포,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이었다. 개개인의 인생 마지막도 이와 같다. 준비해오던 날들이 마감되었을 때, 한밤중의 소리가 크게 있어 신랑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나가야만 한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특사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로 네 육체를 떠나라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나도록 부르신다.

7. “이 소리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제각기 등불을 챙기었다.” 시간을 떠나 영원으로 건너갈 때 우리는 새롭고 더 높은 존재상태를 의식하여 깨어난다. 물질계의 몸과 시간과 공간이라는 모든 조건이 제거되면 영혼은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이전에 믿음의 문제로

언제나 부상했던 영계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 되어 있다. 이런 깨어남이 얼마나 다른지! 이런 직접적인 결과는 의지와 이해성 모두의 자질이 활동하도록 불리우는 것이다. 이것이 처녀들이 일어나 제각기 등불을 켜기는 모습이다. 일어남은 의지와 애정을 서술한 것이고 등불을 켜기는 이해성과 생각을 서술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조차도 애정이 극도로 흥분되면 정상적 감정을 넘어 격앙된 느낌으로 진입한다. 빛을 가져오느라 진력한다. 우리가 영계에서 깨어나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한밤중의 외침이 들릴 경우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을까?

8. 이제 숙명적인 진리가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에서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그들이 켜졌던 등불은 꺼져가나 죽는 심지에 공급할 기름이 없었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야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세상에 거처를 두고 있는 동안일 경우 우리는 참된 것 같이 보이는 가공된 사랑, 진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지식을 사랑함 같은 것을 가지고도 믿음의 등불이 죽지 않도록 간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계, 이곳은 지상적 대응이 아무 소용없는 그곳, 가짜 근원의 샘이 말라버리는 곳, 참된 영적 사랑을 지니지 않은 믿음의 등불은 점차 꺼지고야 마는 곳이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가진 것을 보고, 정작 자기들을 위해 획득했어야 했던 것을 그들로부터 바래고 있다.

9.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궁핍한 동료의 요청을 거절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 것을 나누어주면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다 모자랄 터이니 너희 쓸 것은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다 쓰는 것이 좋겠다’ 고 하였다.” 적선하는 일이 여기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아무도 결코 제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귀하며 영영히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라” (시편 49:7-9). 슬기로운 자가 아는 바, 제 아무리 큰 선함을 자신이 지녔다 해도 구원을 위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 게다가 선함은 그것이 크든 작든 타인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충고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네 쓸 것을 사는게 좋겠다” 고 말해준다. 천국적인 기름은 선물을받듯이 공짜로 획득될 수 없다. 그 기름은 반드시 값을 치루고 사야만 한다. 그런데 기름을 파는 사람이 누구일까? 신성한 존재 그분 자신이 사랑과 선함의 유일한 저자이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와서 사라고 부르신다. 그러나 신성한 질서의 법칙들이 거룩한 기름을

팔도록 위촉되어있다. 그 법칙들은 우리가 그 기름을 구매할 수 있는 값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회개의 일을 해야하고, 정의의 열매를 생산해야 한다. 이 법들은 거룩한 진리들이고, 이 진리는 그 진리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함의 기름이 산출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가서 사야만 한다. 그 이유가 비록 주님께서 값없이 돈을 지불함이 없이 주신다 할지라도 그 기름을 얻기 위해 제 자아사랑을 싹 쏘어 내는 이들이 아니고서는 누구에게도 그분 의 사랑을 주실 수 없기 때문이다.

10.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잠겨졌다.” 미련한 처녀들이 자리를 비운 때에 신랑이 왔다. 또는 그분이 오시는 때 그들이 자리를 비웠다는 이 표현은 그분과 그들 사이에 비슷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 결과 결혼식에 참석하려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는 표현이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분과 함께 입장했다. 주님과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장소차원에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뿐 아니라 상태 차원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은 내적 마음에 관한 상태, 거기서 선함과 진리가 결합하는 상태이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서는 내적 인간 속의 천국에 정의로운 자와 함께 들어가시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거기서 사랑과 믿음의 하나됨 안에서 그들과 영원히 거주하신다. 그분이 천국적이고 영원한 결혼 안으로 그들과 함께 들어가셨을 때,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교란시킬 수 있는 외적인 모든 것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 문은 영영 잠구어진다. 정의로운 자를 위해 문은 안쪽에서, 불의한 자를 위해 문은 바깥쪽에서 잠긴다. 어리석은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긴 문은 그들 마음속의 문이다. 세부적으로 볼 때 이 문을 수단으로 영적 마음과 자연적 마음의 교통이 있다. 그 이유가 영적 마음은 세부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천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일 경우 이 문은 결코 절대적으로는 닫혀 있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신실한 회개로 열려질 수 없을 정도로 닫혀 있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서는 이 문에 서서 두드리시고 하느님이 두드리는 이 문은 인간이 반드시 열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세상의 경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제 심정 속의 이 문을 열지 않았던 사람은 저 세상에서 열 수 없다. 내적 인간 쪽으로 열리는 문이 닫혀져 있을 경우 자연적 마음은 어둠과 죽음 속에 놓여있게 된다. 내적 마음으로부터 오는 모든 빛이 차단될 경우 야기되는 바깥쪽 마음의 어두움은 성서에서

사악한 자들이 심판으로 내던져지는 “바깥 어두운” 곳, 본문의 경우 천국 결혼의 영광으로부터 닫혀져 처녀들이 꺼진 등불을 가진 채 있어야 할 그곳이다.

11. “그 뒤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 좀 열어 주세요’ 하고 간청하였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원사항이듯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은 행복의 거처가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 즉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소원이다. 따라서 천국에의 입장을 허가 받는다면 그것은 행복을 영원해지게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천국이 내적 인간의 천국으로 간주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 문은 저 세계에서까지도 주님에 의해서 열려져야 할 것이라고 악한 자는 바랜다.

12. 그러나 주님께서 어리석은 처녀에게 대답하신다.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악한 자가 하느님을 모르는 거나 하느님이 악한 자를 모르는 거나 그 경우가 비슷하다. 물론 악한 자가 지적으로 하느님을 알고 있을 수 있으나 그들은 구원하는 수단으로서 알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주님도 그들을 아신다. 하느님 측면에서 주님은 악한 자를 아신다. 그러나 구세주 측면에서 그분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 올라 있지 않다. 그들은 구원받는 지식이 없다. 그들은 그분이 육을 입으신 것, 구속하시는 것에 전혀 흥미가 없다. 그들에게 그분의 자녀라는 표시가 없다. 주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도 손에도, 심정에도, 생활에도 써어있지를 앎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그들을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이름이 천국에 써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들이 알려질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은 그들 안에 있지 않는다. 이런 상황의 피할 수 없는 결과는 거기에 상호 교류의 바탕이 없다는 것, 결합하는 수단이 없다는 것, 오로지 큰 구렁텅이만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어 완전한 분리, 영원한 분리만이 있어질 뿐이다.

13. 이 얼마나 엄숙한 경고인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지켜보고 있어라.”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는 덕분에 우리는 주님의 현존에 불리울 때까지 심판을 위해 준비할 기회를 갖는다. 우리의 준비는 준비함을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게 하는 사건을 직접 납득하기 전에 이미 시작되어 있었어야만 할 것이다. 위험의 표시를 보지 못할 때라하더라도 우리는 지켜 경계해야만 한다. 우리는 도둑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바 지켜 경계하면 그 노력이 헛될 리 만무하다. 우리가 계속해서 감시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는 기겁하고야 말 것이고 그 동안의 근심과 노력마저 헛되진다. 그러므로 경계하라. 어쨌든 영적인 파숫군의 의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고야 말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고 그 사건을 납득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아마 납득하고 있다면 그 납득 자체가 우리를 위험에서 보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노출시켜 줄 것이다. 침입자를 대비해 준비한 이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경계한다. 적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준비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키고 경계한다는 것은 우리의 집을 질서 가운데 정착해놓고 반드시 오고야 말리라고 우리가 이는 그 사건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기다림에서 주님이 오시어 우리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얼마나 복될까!

14-30. 달란트의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와는 달리 또 다른 국면에서 수습 기간 중인 우리의 삶과 마지막 결정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이 비유는 이 세상 이후 우리를 기다리는 상태의 본성을 잘 생각해 보게 하는 빛을 던지고 있다. 이 본성에 따라 우리는 미래의 행복 또는 비참함이 결과된다. 이 비유가 이런 교리를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 즉 모든 인간 존재는 주님에 의해 각자에게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 각자는 부여받은 능력을 선용하든 악용하든 각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용 역시 각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분명한 바, 자유로운 결정, 그밖에 그가 소유한 모든 것도 주님에 의해 그에게 주어져있다. 그가 구원되어진다면 주님은 그 사람의 구원의 유일한 저자되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상인들이 주님의 종으로서 묘사되고 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라고 하여 되돌리고 있다. 물론 처음에 받았던 것과 벌어들인 나중의 것 모두가 주님께 되돌리고 있다. 영적 의미의 빛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 앞에 또 다른 마음의 계층, 또는 앞의 비유에서 처녀들은 하늘 왕국의 원리 중에서 의지와 애정의 대상인 사랑의 원리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표현했고, 이 비유에서의 종들은 하늘 왕국의 원리 중에서 이해성과 생각의 대상인 진리의 원리를 좋아하거나 반대하는 것들을 표현해놓고 있다.

14. 이 비유에서 맨 처음 주목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었다” 는 모습으로 비교되고 있는데 대해서이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창조물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에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세부사항을 가르치고 있다. 첫째, 영원한 행복을 붙잡기 위해 인간이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만으로부터 값없이 선물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값없이 받은 선물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선물은 자신의

것이 되게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비록 그가 스스로 자신에게 소속된 것 모두가 주님의 것이어야 마땅하다고 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언제나 지니고 있었다 해도 주님께서는 그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 결코 아닌 듯 확증하게 해주신다는 것이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종들이 받은 달란트가 주인, 즉 구세주에 의해 주어진 줄거리에서 명백해지도록 가르쳐지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된다. 인간이 세상에 거처를 두는 동안 그는 자신의 처분에 맡겨져 있어 모든 것은 외관에 의거 그는 제 자신의 주인 내지 스승이 되어 있어 정작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파생된 참 존재와는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섭리된다는 것이다. 신성한 현존에 관해서 우리는 감지되는 지각이 없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바깥쪽 외관만에 의해, 우리의 감각이 말해주는 대로 판단할 뿐이라면, 또는 계발된 이성이나 계시의 증거없이 우리의 의식이 암시하는 대로 판단할 뿐이라면 우리는 일반적인 하느님의 존재 여부까지 의심을 갖게된다. 이런 사항은 우리 주위에서 실지로 많이 목격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종의 주인이 “먼길을 떠난다”는 말에 위 사항이 담겨 가르쳐지고 있다. 거룩한 말씀의 많은 곳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어떤 행동이나 진행이 실제로는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의 변화로 생산된 외관임에도 주님의 탓으로 돌려지고 있다. 천국 또는 넓은 측면에서의 영계는 주님의 더 직접적인 현존이 있는데 이곳은 자연계와 비교해볼 때 “먼 나라”이고 바꾸어 자연계는 영계가 “먼 나라”에 해당된다. 그러나 특이하게 인간은 자연계와 영계 모두 자신의 마음 안에 소유하도록 창조되어있다. 죽은 뒤에 갖게되는 인간의 혼 또는 영적 부분은 그의 영계이고 그의 몸 또는 자연적 부분은 그의 자연계이다. 이를 더 세분해보면 그의 영적 부분은 두 개로 된 영역, 즉 주님 스스로 거주하시는 가장 깊은 영역과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한 덕택에 소유한 자유와 합리성,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영역으로 나뉘어있다. 이것들은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는 자질들이다. 창조의 질서에서 가장 깊은 영역은 주님에 의해 맨 처음 형성되고, 이를 받는 그릇 차원에서 그 보다 수준 낮은 마음의 영역과 몸이 형성된다. 인간이 제 존재를 처음 감지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은 마음의 수준 중 제일 하급이다. 주님께서 영혼의 가장 깊은 속에 언제나 현존하시어 남아있지만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 그분은 인간으로부터 퇴각하신 듯, 말하자면 “먼 나라로 가신 듯” 여긴다.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은 이런 본성의 세계에 서 있고 하느님으로부터 왔는 바 언젠가 다시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한 때이지만 인간은 장사하도록 달란트를 부여받는데 제 재능의

사용이 선용이나 악용이나에 따라 그의 영원한 삶은 행복과 불행으로 갈라진다. 주님께서 재산을 맡긴 이들이 그분의 종이라 불리고 있다. 특히 이 종들은 “자기” 종이라 불린다. 그 이유는 이 비유가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최소한 주님과 더 직접적인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신성한 계시를 소유함으로 주님께 소속되어 있다고 형식적으로라도 고백하는 이들과 더 관계되기 때문에서이다. 한 마디로 하느님과 자기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이들은 성경에서 흔히 등장하는 종(servant)이라는 자유인이 아닌 매인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주인의 재산인 바 그의 모든 소득, 그가 부여받은 재능까지도 모두 주인 자신인 것 같이 주인에 소속되어 있다. 영적 의미에서 종들은 진리를 소유한 교회내의 사람들, 더 뾰족이 말해서 잘 사용하면 자유의 상태인 선의 상태에 도달하게 해주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진리를 소유한 교인을 말한다.

15. 주인이 준 재산이 달란트(talent)로 구성되고 있다. 이 달란트가 각기 다른 세 종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돈 다섯 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 비유가 교회 멤버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더불어 신성한 섭리(economy)를 묘사하고 있는 바 이 수많은 교인이 셋으로 한정되어 묘사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이유가 이 숫자는 완성함(completeness)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숫자는 영적 계층의 사람들, 진리를 수용하고 있는 이들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숫자이다. 이들은 말씀 어디에서나 언급되는 종이라는 단어로 더 특별히 의미되고 있다. 종들은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고 있다. 달란트란 납득해서 직바르게 사용하는 능력과 함께 주님께 의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신성한 진리에 관한 지식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지식들이, 혹 어떤 이에게는 보다 적은 지식이 할당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구절의 언어는 실제보다는 오히려 외관만을 표현하도록 채용되어져 있다는 점이다.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충만되도록 제공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받아지게 되는데 수용량은 수용력에 의해서만 한정될 뿐이다. 이를 모든 사람 각자는 자신의 습관이나 생활 방법 같은 것을 수단으로 해서 제 스스로 획득한다. 그러므로 무한한 지혜의 보물 창고로부터 어떤 이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꺼내간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본문 같이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해질 경우 이는 각자가 가져가는 선물이라는 뜻이다. 세 종에 관한 의미와 같이 달란트의 숫자 역시 각기 구분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숫자 역시 외관과 실제(내용)와는 아주 다르다. 숫자는 양보다는 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숫자가 더 크다고 더 나은 어떤 것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각 숫자의 의미는 각기 표현하고자 의도된 품질을 지닌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다섯 달란트는 유아기,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동안 이루어진 것들로 인간 마음 안에 저장되도록 아껴두신(remains) 선과 진리를 의미한다. 두 달란트는 젊은 시절을 지나면서 가르침을 받고 배워 획득한 선과 진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지식으로 소유하고 있다. 한 달란트는 진리만을 의미한다. 이 진리는 성년기에 거의 접근했을 때에 있어지는 어느 정도 선택이라는 움직임에 의해 획득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억 안에 저장되어 있다. 이것들은 인간 개개인이 획득하는 모든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모든 상태들은 인생의 이런 시기동안 주님의 섭리로 형성되고 이어지는 후기 삶에서 거듭나는 삶에 진입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 각자가 소유하도록 선물되고 있다. 영적으로만 이해해본다면 달란트는 단번에 모두 수여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점진적으로 주어진다. 하느님께서 선과 진리를 수여하시고 인간이 그것들을 획득하는 시기는 유아기로부터 성년 초기까지 광범위하다. 게다가 지식의 획득, 아껴 저장하심 모두가 뒤섞여 진행된다.

16, 17.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주님께서 수여하신 달란트는 장사하라고 주어지고 있다. 장사함(trade)에 달란트의 참된 가치가 놓여 있다. 무한한 지혜가 하늘 나라의 본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려고 채용한 모든 비유에서 우리 안에 언제나 표출하고 있는 한 가지 주요한 생각이 있다. 그 생각이란 우리 앞에 언제나 표출되어야 하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진지하게 사용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열렬한 기도, 성실한 탐구, 꾸준한 노력, 참고 견디는 노동 등등이 당연히 함유되어 있다. 이것들은 축복을 붙잡는 것, 보물을 발견함, 목적지에 도달함, 포도를 수집함, 필요한 수확을 거둠 등등 같은 목적의 달성을 기약하고 있다. 수습받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전체 의무가 주님의 한 단어 “노동, labour”에서 표현될는지 모른다. 하느님께서 수단과 힘을 주신다. 인간은 그 수단들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인간의 위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여기에 그의 구원도 의존된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것 이상 더 인간을 위해 해주실 수 없다. 인간은 달란트를 사용하되 제 스스로 덜 사용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는 주신 분에게 증가 분을 더 붙여 되돌려야 한다. 창조물이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해 줄 수 없다는 하느님 편에서의 말이나, 나는 할 수 없노라고 인간 편이 말하나 결과는 똑같아진다. 물론 이 반대의 경우, 그가 했다면 달성하리라는 것 또한 의심할 바 없다.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취급하신다. 한 마디로 쌍방은 자유 행위, 자유 계약(free agent)이다. 인간에게 자유 의지(free will)를 주신 분이신데 어찌 주신 것과 반대되게 강요하거나 행동하실리 만무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모순이요 모순된 것은 하느님께는 불가능이다. 결국 돌아가는 귀결은 우리는 반드시 제 달란트를 활용해야만 한다는 것, 우리는 달란트로 장사해야만 한다. 달란트로 상징된 것, 이 지식은 우리의 의무에 관한 지식이다. 동시에 그 의무를 행하는 능력이다. 우리의 의무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고 하느님과 함께 겸손히 사는 것이다. 영적 삶은 자연적 삶과 분리된게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한다. 우리의 일상적인 일을 행하는데 주님의 원리를 채용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 장사를 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마주친다. 복 주시는 그분의 섭리가 보시는 바 모든 사람은 제 필요에 충분한 달란트를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받는 달란트는 그 소유자가 하느님을 향해 부유하게 만들어지도록 활용되도록 요구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총애받는 종들의 얼마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다. 자기들에게 수여된 달란트를 크게 활용한 슬기로운 종은 행복하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다섯 달란트를 번 사람, 두 달란트를 번 사람, 모두 신성한 자비를 선용해서 이타애와 믿음이라는 생명있는 삶을 수단으로 총명과 지혜를 그들 스스로 획득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게 있다. 위 두 종은 각각 자기에게 수여된 달란트로 삶을 시작했을 때와 맞먹는 액수를 장사로 벌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 교훈적인 진리가 놓여있다. 종들이 장사를 함이란 인간이 지닌 지식을 실제에다 놓이게 하는 의무와 노동이라는 인간의 부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의 종교를 생활 속의 종교로 만들어야하는 의무 수행을 뜻한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노동이고, 그 결과는 생명을 참다움게 획득한다. 우리의 위대한 땀흘림은 내적 인간에 외적 인간을 조화시키는데, 자연적 마음을 영적 마음에, 말과 행동이 생각과 애정과 하모니를 가지게 하는데 있다. 이런 것은 모두 총명과 열정, 인내라는 것들을 수단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물리치게 되는 모든 악은 불일치하게 하는 각종 요소나 원리들을 제거한다. 우리가 실시한 선은 안쪽 인간과 바깥쪽 인간 사이에 하모니를 건설한다. 이런 두 길, 즉 악행을 중단하는 것과 선행을 배워가는 진보적 방법을 계속 이행해 가노라면 우리의 원리들은 우리의 기질(habit)로 탈바꿈한다. 충실하게 활용한 우리의 달란트는 또 다른 달란트를 벌어들인다. 이 소득이야말로 굳건하고 영원한 소득이다. 그 이유가 실제 응용에 놓였던 것이 확증되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남아 있기 때문이다.

18.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그 돈을 땅에 묻어 두었다.” 만일 이 한 달란트가 하느님의 영적 선물을 받기 위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로 제한된 수용력을, 그리고 하느님이 수여하시는 선물 중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해본다면 땅에 묻었다 해도 하느님의 선물이 수여된 목적에 충분한 것이 아닐까로 이해되도록 의도된 듯 여겨질지 모른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도 다른 종이나 마찬가지로 주인이 올 때까지 지참하고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다른 종처럼 그도 장사해서 두 배로 불릴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원한 삶을 얻는 능력과 수단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고 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위한 조건은 모두에게 똑같다는 말이다. 한 달란트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 각각에게 가르치는 진리를 상징하는 바, 모든 사람은 제 능력 안에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이 능력은 당사자에게 언제나 주어져 있으면서 그 진리에 선행을 더해 가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이고 동시에 각자가 구원받는 필요 조건의 전부이다. 그러나 이 종은 한 달란트를 활용하는 대신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누구이든 이 나태한 종으로부터 알게 되는 것은, 즉 그는 하느님께서 영적이고 영원한 사용을 위해 그들에게 수여한 수단과 달란트를 개선하는데 게으른 사람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이다. 영적 의미는 이 의미에 더 큰 교훈을 얻고 있다. 땅, 이미 여러 번 살폈던 것 같이 인간의 지상적, 자연적 마음을 상징한다. 이 구절에서의 이 상징은 대단히 교훈적이다. 사실 이 종은 방탕한 아들 비유에서 작은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 버리듯 주인의 달란트를 낭비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보존해서 원 주인에게 되돌리기 위해 땅에 묻었고 그 달란트는 반환하는 때까지 안전하게 남아 있었다. 이 종은 교회에서 진리의 지식을 키워가되 어떤 영적 차원의 사랑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실용적인 목적이 있어서도 아닌 단지 자량거리 차원에서 진리를 알고 즐기는 교인들에 대한 모형이다. 진리의 함양, 또는 진리를 수용하는 자연적

마음의 함양이 땅을 “파는”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이 종이 땅을 팠다는 것은 자연적 마음을 갈고 닦는 목적이 오로지 지상적일 뿐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 종은 어떤 한 개인의 품성만을 두고 거론되는 말은 아니다. 지성인이라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진리의 빛에 경탄하면서도 그들의 심정은 그 진리의 도덕적 특출함이나 그 힘의 영향에는 무덤덤해 자기와 아무 관련없는 듯 되어 있을는지 모른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또는 진리를 지적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 이상의 발전이 없는 경우, 그들은 한결같이 “주인의 돈을 감추고” 있는 셈이다. 돈이 상징하는 것이 지식인 바 위 사람들이 지식을 숨긴 것도, 지식에 게으름을 핀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인간은 자기 주님의 것인 달란트를 감추어 놓이게 할까? 그들이 소유한 한 달란트가 그분의 것임을 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이다. 주님의 달란트에 있는 영적 가치를 비영적 삶으로 가리울 때, 하느님의 자녀가 선한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도록 사람들 앞에 빛을 드리우지 않을 때이다.

19. 그러나 셈을 하는 날이 드디어 오고 있다. 이 부분은 주인의 신뢰에 충실했던 종과 불충실했던 종의 예에서 보여주었던 대목과 비슷하다. “오랜 뒤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상의 인간에게 할당된 가장 긴 시간까지도 불확실하다는 것, 시간의 짧음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은 영적으로는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분께서 오래 참으셨음을 말한다. 수습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이 세상의 우리들 삶은 길던지 짧던지 할지라도 그분의 틀림없는 지혜는 이 세계에 있어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신다. 그분의 실패 없는 사랑은 우리가 통과해 가는 모든 상태를 보살핀다. 지켜 감시하는 신의 섭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란 언젠가 셈을 하는 우리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을 실감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오랜 시간”이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노력하는 시기,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자극하고 그분의 지혜로 인도해주며 그분께서 위촉한 특사로 하여금 우리를 도와주게 해서 회개함과 거룩함이라는 경지로 끌어올린다. 주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배가할 여유를 준 시간만큼 오래 걸려 우리도 자기 달란트를 지니고 셈할 때가 온다. 셈을함(reckoning)이란 모든 사람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호된 시련(ordeal)이다.

20. 주인이 종들과 셈을 시작하자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주인께서 저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기가 소유한 것, 자기가 획득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의 진짜 주인은 하느님이신 바 인간은 소유자로 간주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원리를 강력하게 못박아 놓는 부분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존경받는데 있어서 질투하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그분의 몫을 챙기신다고 여겨질 수 있고 또한 여기고 있도록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위와 같이 요구하시는 참된 이유는 그분께서 존경받으려면 그분의 창조물로부터가 아니면 안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완전해지는데, 인간이 축복을 증가시켜 가는 수단이 위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선물과 그것의 획득이 축복이다. 그 이유가 이 축복만이 우리를 그 축복의 참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영적 선물은 하느님의 사랑과 빛이 영혼 안으로 흘러 내려 드리우는 통로인 바 인간은 그것들을 통해서만 모든 선의 제자로서의 그분을 찾을 수 있기도 하다. 이것은 마치 충성한 종의 결과에서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셈을 하시러 오시는 이유이다. 참으로 우리를 영원한 세계에서 더 직접적으로 그분의 현존을 가져오도록 엄숙하게 방문하십시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날과 그 시간”에 모든 이 각각에게 오시고 있다. 이 오심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사건이듯 최종 결산이라는 주제는 대단히 깊고 장엄한 수준에서 우리의 흥미가 놓인 대목 중 하나이다. 비유에서 주인은 먼저 달란트를 개선시킨 종들과 계산하고 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해 벌어들인 증가분과 함께 원금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그 전부가 주인의 것이라고 해서 되돌리고 있다. 이는 재물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을 주신 분이 주인이라는 것, 획득된 재산의 원주인이 그분이라는 것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제가 한 일들에 대한 공적을 주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함의 모든 공적은 그분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이다. 이 중대한 실용적 진리는 장사해보라고 맡겨진 원금을 두 배로 불리는 종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말했었다. 이미 말했듯이 이 증가는 선함을 만드는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진리를 사용할 때, 이타애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할 때 이루어진다.

21. 장사해서 달란트를 배가시켰다는 말은 마음 안에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삶 안에서 재생산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는 성실하고 충분되게 생산되었다는 것까지 암시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인사말에서 표현되어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함은 의지 부분의 품질이고 충성은 이해성의 품질이다. 전자는 이타애를, 후자는 믿음의 특질이 소속된다. “잘 하였다”는 칭찬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착해야 하고 성실해야

한다. 하느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야말로 크나큰 위로이다. 더구나 보상이 따르고 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 세상 삶 속에서 확증된 선함과 진리의 원리들은 저 세상 삶에서 더 많이 배가되고 더 드높여진다. 이것은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반적 교훈이다. 게다가 여기에는 보다 특별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미 살핀 바대로(20:16) 적음과 많음은 선함과 진리라는 원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의미가 이 구절의 경우에서 응용될까? 이미 살핀 바는 종들이 달란트를 받고 그것까지도 장사한다는 것은 진리를 받고 그 진리까지도 선함을 획득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선함이 획득되었을 때 그 획득은 더 풍요로운 진리의 용적을 주고 더불어 더 높은 종류의 진리까지 부여한다. 다른 구절에서 살폈듯, 진리의 두 가지, 즉 선 쪽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있고 그 선으로부터 파생되는 진리가 있다.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는 진리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지혜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이것은 선함이 무엇이며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식의 빛이 아니라 사랑의 빛 또는 슬기롭게 사랑하게 하는 진리, 그러므로 인정이 많은 행동들, 계발된 이타애의 행위들이다. 이 비유 속의 종들에 대한 보상 내용이 지혜의 진리를 지닌 선함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표현된 말에서 나타난다. “주인님, 금화 하나를 열 개로 늘렸습니다... 열 고을을 다스리게 하겠다. 금화 하나를 다섯 개로.. 다섯 고을을 다스리게 하겠다...” (누가 19:16-19). 말씀 어디에서이든 고을(city)은 이해성과 관계되고, 그리고 진리, 이해성의 그릇이 되어 있는 교리와도 관계된다. 많은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 종은 자기의 더 낮은 애정과 생각 모두를 통치하고 관리하도록 선물되었는 바 이는 외적 인간이 내적 인간의 의지와 지혜에 완전히 복종함을 함축하고 있다. 이런 사항 외에도 다른 한 가지 보상이 이 종에게 수여되고 있다. “자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이는 주님께서 거듭나는 사람에게 만드실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란 그 자체 드러나 명백해지는 기쁨이다. 종이 주인의 기쁨을 나눈다는 것을 마음에 응용하는 세부 측면에 일치시켜 보면 이는 내적 인간의 기쁨과 그의 영적 애정을 외적 인간과 그의 자연적 애정으로 나누어줄 때이다. 그 이유가 마음의 두 부분이 하모니와 하나됨을 가져올 때 모든 내적 기쁨이 외적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려와 기독교인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님의 기쁨이 인간에게 내려 오면 그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나눌 준비를 갖춘다.

22, 23.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에 관해 말했던 내용과 같은 바 이 구절은 생략한다.

24, 25.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왔다.” 이 종도 다른 종들만큼이나 당당하게 주인 앞에 나서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성실함이 부족했다는 어떤 죄의식도 고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 손에 맡겨둔 주인의 돈을 되돌려 드리는데 남보다 더 충신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주인의 완고한 품성까지 곁들여 생각해보면 자기가 결정한 행동은 대단히 정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구절은 자연적일 뿐인 인간이 모든 선의 저자, 자비로우신 주님을 어떻게 보는 가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이 종도 자신이 향유하는 모든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근원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는 그분을 완고하신 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주님을 무서운 분으로 보고 있는 심정은 사랑의 영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 자아와 세상사랑 같은 주님의 영에 반대되는 사랑에 푹 잠겨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께서 이타애와 믿음이라는 열매를 요구하신다고 알고 있다. 그러는 한편 그들은 이타애와 믿음이 자기들 마음에 결여된 근본 원인은 자기들 마음에 그런 특질을 선물 받지 못해서라고 돌려대어 주님 탓으로 삼아 자신을 정당화한다. 순수한 이타애와 믿음이 우리 본성에 이식되지 않았다는 것, 더욱이 우리 본성은 출생을 수단으로 순수한 이타애와 믿음에 반대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이와 나란히 진실된 것은 순수한 이타애와 믿음을 획득하는 수단들이 제공되어 있다는 것, 달란트가 주어져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획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한 달란트 받은 종같이 오로지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서만 삶을 영위해갈 경우 그들은 결코 순수한 이타애와 믿음을 획득하지 못한다. “두려워해서”라는 본문의 단어는 위와 같이 자연적일 뿐인 사람이 갖는 내향적 느낌, 그들이 주님을 생각할 경우 자신의 상태와 그분의 속성 사이에 너무나 대립적임이 의식된 결과로 갖는 내향적 느낌이다. 가서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수여된 고상한 자질들을 단지 자연적일 뿐인 목적과 대상에 종속하게 만듦으로 해서 자연적 인간의 썩은 것 안에 가두는 것이다.

26, 27. 그런데 주인은 종이 한 말,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데서 거두는 분으로 평가한데 대해 어떤 불쾌함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그가 그렇게 주인을 예상한

것을 인정하여 대답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수행하지 않은 의무를 지적하고 있다. “주인은 그 종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데서 모으는 사람인줄을 알고 있었다면 내 돈을 돈 쓸 사람에게 꾸어 주었다가 내가 돌아 올 때에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바, 주님을 섬기는 의무는 자연적 인간이라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 바깥쪽 측면에 속하는 것에만 몰두해서 순수하고 드높은 이타애와 믿음의 원리를 획득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해도 순종의 단순한 동기로부터 서라도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 상받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단지 상받기를 원해서 선을 행하는 것, 비록 이것이 천국에서 상을 준다해도 이는 가장 수준 낮은 동기이다. 그래도 이런 동기로부터서 인간은 미력하나마 참된 선 같은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되 신실했다면 그들의 동기는 순수할는지 모르고 결국 천국의 입장은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간단히 말해 처음에 하나님이 두려워 그분을 섬기는 의무를 실천했지만 나중에는 그분을 사랑해 섬기는 쪽으로 끝맺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만일 두려움을 몰아내는 완전한 사랑을 달성하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최고의 목적이신 그분에게 두려움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노예적 요소를 몰아낸 사랑의 수준은 달성하리라.

28. 달란트를 배가시킨 종들은 수고한 그 이상의 것을 다스리게 했는 한편 게으른 종에게서는 오히려 주어졌던 것마저 빼앗고 있다. “여봐라, 저자에게서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어떤 능력이든 적극적이면 증가되고 게으르면 미약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반 법칙이다. 영적 선물 역시 이 법칙에서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제 자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게으르다면 그 자질은 미력해지거나 아예 타락되어 진다. 만일 제 지식을 게으르게 사용한다면 그 지식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지식의 사용은 타인을 가르치는데 있지 않고 그것을 자신에게 응용하는데 있다. 또한 타인의 이해성과 교통하는 것이 지식의 사용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에 응용하는데 있다. 만일 종교적 지식이 응용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우리로부터 거두어질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로부터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영적 수용력 또는 그것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잔존할 수 없는 것이다. 선이 없는 곳에 진리가, 사랑 없는 곳에 믿음이 존재될 수 없다. 진리에 잘못을 저지른 지식을 가지고 저 세계에 입장하는 사람, 믿음에 잘못을 저지른

신념을 가지고 저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머지않아 자신들에게는 가지고 간 어떤 것의 꺾데기조차도 없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자기 달란트를 두 배를 불린 사람들, 자기가 지닌 진리에 선함을, 제 믿음에 이타애를 추가한 사람들은 자기의 수용 능력을 크게 했으므로 한없는 증가분으로 그 용적을 채워 풍요로워질 것이다. 한 달란트가 불충한 종으로부터 거두어져서 열 달란트를 지닌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두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칭찬받았고 두 배로 불렸는데 그에게는 빼앗은 한 달란트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15절에서 이미 살핀 바대로 다섯은 둘보다 덜 충만되고 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둘은 동등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이고 두 달란트 외에 더 벌어들인 두 달란트란 생활의 원리가 되어 획득한 선과 진리 또는 이타애와 믿음을 의미한다. 이타애와 믿음이 실제로 하나됨이 천국 결혼을 구성한다. 그러나 숫자 다섯은 선과 진리가 남아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참으로 남아 있는 선과 진리가 결합있는 상태, 즉 올바른 교육 같은 것을 한정되게 받았으나 그런 데로 그것을 잘 즐겨 사용하는 상태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는 것이 우리를 가르치는 바, 비록 남아 있는 선과 진리에 결합이 있다 해도 구원받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아 있는 선과 진리가 충만되는 상태가 열이란 숫자로 의미되고 있다. 다섯으로 의미되는 상태, 비록 불완전하지만 저 세계에서는 충만되고 완전해질 것이다. 이런 상태는 지식을 수단으로 완전해진다. 그러므로 해서 진리를 오직 지적 측면에서만 흠양한 달란트, 지식을 받아 질 수 있는 달란트, 즉 한 달란트가 열 달란트를 지닌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29. 언뜻 보기에 역설 같이 극과 극을 이룬다.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어진다. 선을 가진 사람은 진리로 풍요로워질 것이나 선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박탈당한다. 누가복음 8장 18절의 경우, “있는 것”이란 말이 “가진 줄 알고 있는 것”이라 말해지고 있다. 그 이유가 악하고 불성실하게 진리를 가지면 언뜻 보기에만 진리를 소유한 듯 여겨질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억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을 뿐 심정 속에 없다. 기억은 마음의 창고일 뿐이다. 재물을 쌓아 둔 “곳간,” 죽음은 그 인간으로부터 영원히 그 곳간을 갈취한다. “오늘 밤 네 목숨을 너에게 요구된다면 이런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천국의 위대한 법칙, 참으로 생명의 위대한 법칙은 선을 가진 만큼 진리를 가지고, 이타애를 실현한 만큼 믿음도 가진다는 것이다. 선과 이타애는 진리와 믿음 없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다. 이교도가 이에

대한 예가 될 것이다. 계시된 진리의 지식 없이, 그러므로 복음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도 없이 그들에게 할당된 지식의 팽창만큼에서 이타애와 덕행을 실천하고 있을지 모른다. 저 세상에서 이와 같은 사람은 그들 선함에 진리가 더해지고 믿음이 그들의 이타애에 추가될 것이다.

30. 이렇게 판결되고 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이 언어에 관한 의미는 이미 언급했다. 악한 자를 내던지는 어두운 곳이란 그들 자신의 마음의 어둠이다. 그 마음에는 구원하는 진리의 빛이 꺼져 있어 왔다.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녔던 빛은 지식의 빛일 뿐이다. 해가 만들어져 궁창에 놓이기 전 땅이 향유했다고 말해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빛에 앞선 일시적인 빛인바 일시적인 것은 영원한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 본문은 어둠을 말하되 “바깥” 어두운 곳이라 말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이 어둠은 무식해서 있어진 어둠이 아니라 잘못해서 있어진 것, 왜곡된 진리의 어둠, 빛이 어둠으로 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안의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야말로 오죽이나 하겠느냐!” 거기에서 이를 갈며 슬퍼하라. “이는 선과 진리가 없고 품행과 지적 생활에 악과 거짓이 현존함으로 야기되는 고통의 쓰라림에 대한 표현이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엄숙한 교훈을 발견한다. 생명과 죽음의 강한 어조가 우리 앞에 장착되어있다. 우리로 즐기도록 한 자비에 충실하다면 살 것이고 불성실하고 무익하다면 죽음뿐이다.

31-46. 이제 또 다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분께서 전달하는 비유 중 가장 감명적인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앞에 전개된다. 전능하고 공정한 재판관에 의한 마지막 심판은 꼭 있어진다는 것은 계시록이 사람의 자녀에게 발표하는 가장 엄숙한 훈계중 하나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본성 속에 고통은 대단히 싫어하고 쾌락은 대단히 즐기는 본성을 슬기롭게 심어두셨다. 이 나뭇가지에 그분께서는 기독교인의 삶이 전진해 가면서 우리를 안내하고 자극하는 종교적 두려워함과 희망을 점목하신다. 이것 없이 마음으로 깨어 있고 적극성을 띄우도록 한다는 것은 의지이든 이해성이든 어떤 힘도 있어질 수 없다. 그 이유가 두려워함과 희망없이 천국과 지옥의 교리에 깨어 있을만한 흥미가 존재할 수 없고, 그 결과 천국이든 지옥이든 결정하는 심판에 관해서도 아무런 흥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각자 육체 안에 존재했을 때 행했던 대로,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심판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 좌석 앞에 모두 나타난다는 것, 우리는 이 비유에서 반드시 통과해야할 호된 시련의 본성을

알게된다.

31. 우리 앞에 표출된 광경은 최고의 장엄함과 엄숙함이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게 되면...” 바깥쪽 영광이 우리의 감각에 영향을 주는 바 이를 수단으로 마음에 영향을 주는 내향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다. 주님이 오시는 이 영광은 그분의 신성한 진리의 광채이다. 그러나 주님의 영으로 두 번째 오심의 영광은 육으로 오신 첫 번째 오심의 겸비함과 대조되어 표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 이름은 육을 만든 말씀으로서의 주님, 인간의 납득력에 숙박하는 신성한 진리를 묘사하고 있다. 이 진리를 수단으로 인간은 구속되고 구원되는 바 이를 수단으로 인간은 심판된다는 말이다. 주님은 아직도 사람의 아들이지만 이 사람의 아들은 지금 영화된 사람의 아들이다. 그분은 영광에 싸여 오신다. 과거 첫 강림의 광경 같이 몇 사람의 시시한 제자들에 둘러 싸였던 대신 이제 그분은 거룩한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으시다. 이 천사들은 제자들과 전혀 다른 종족이 아니라 제자 자신들, 영화한 제자들이다. 모든 천사를 거느린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천국을 소유하신다는 말이다. 그 이유가 “천사”란 천국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그분은 천사들을 거느리실까? 천사들은 인간을 심판할 수 없고 인간을 심판하는 그분은 도울 수도 없다. 천사들을 거느려야 이 재판소가 장엄해지고 위엄이 있게 되는 것일까? 오히려 천사들 때문에 위엄이 감소될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함께 하면 심판 받는 자들 위에 내려 비칠 초월적인 영광에 그들을 주는 역할을 해서 그 영광의 빛을 온건하게 해줄 것이다. 그분은 천국을 통해오신다. 그분은 천국을 수그리게 하여 내려오시는데 이 모두는 천사적인 마음의 유한한 지각이 그분의 영광에 그늘지게 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분이 앉으시는 “영광의 왕좌”는 그분의 심판이 온건해지도록 의도되어있다. 그 이유가 천국이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신성한 진리와 같은 진리로 심판되어진다. 그 이유가 그들은 자기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왕국, 또는 자기들이 축출당해야 할 왕국의 법에 따라 심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2. 그분께서 영광의 옥좌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앞에 불러놓고...” 민족(nation)들 이란 선 또는 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치 백성(people)이 진리 또는 거짓 가운데 있는 이들을 뜻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구절의 경우 민족들이란 선하든 악하든 심판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여 암시하는 단어이다. 이들이 “그분 앞에 불러졌다.” 이는 육체적으

로 모든 사람을 그분 앞에 가져다놓는 자연적인 생각 차원보다 더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 영적 차원의 생각이란, 그들의 상태가 그분의 용모의 빛으로 명백하게 만들어지도록 탐색하는 그분의 진리의 직접적인 점검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신성한 재판관의 첫 조치는 “서로를 갈라놓는” 것이다. 선한 자와 악한 자는 심판 때까지 뒤섞여 있다. 심판의 구성 요소 중 하나는 그들을 두 개로 크게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 분리가 어떻게 결과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었다. 그 방법이란 그들의 내면의 품성들을 드러내 보여지게 하는 것이다. 각 개인들은 서로의 관심이 공통되는 한, 또는 서로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문제로 하나되어 있는 한 공동 사회를 이루어 살 수 있다. 이들은 설사 종교적으로 불일치 되고 있다해도 사업이나 쾌락을 얻는데 잘 조화를 이루어 행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로가 영적 차원의 문제에서 계속 함께 할 수 없다 해도 세상적 차원의 문제에서는 잘 어울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가장 친한 자연적 친구여서 영원히 잘 지낸다 해도 각자의 마음이 다른 수준인 더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면 불일치 되거나 분리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심판에서의 경우이다. 그들의 내면, 영적 사항이 주재하는 곳, 영원한 관심사가 통치하는 내면이 열려질 때, 그래서 그들이 자연 도덕이 아닌 영적 존재들로 서로 모여질 때 그들의 필수적인 결과는 서로 서로 분리되는 것이다. 본문의 경우 주님께서 그들을 갈라놓는다고 말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신성한 진리가 그들의 내면이 보여지게 해서 분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분은 “마치 목자가 양을 염소로부터 갈라놓듯 그들을 갈라놓으신다.” 여기서 주님은 목자이시고 그분의 백성은 양들이다. 그분의 백성에 관련하여 진열되는 그분의 품성이 사랑일 때 “목자”로 표현된다. 서로에 대해, 그분에 대해 사랑으로 이해될 때 “양”들이라 불리워진다. 양은 이타에라는 품위를 원리로 삼는 이들을 상징한다. 이와 반대되는 품성에 있는 이들이 염소로 불리우고 있다. 염소는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의 타입(type)을 뜻하나 이 구절의 경우 염소는 이타애가 없는 믿음만에 있는 이들을 나타내고 있다. 염소는 교회의 창백함 내에 살았던 이들, 믿노라고 고백은 했지만 생명을 주는 이타애가 없어 죽은 믿음만을 지녀왔던 이들이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는 세상의 심판자로서 언제나 장착되어 있다. 예수는 아버지와 구분되는 또 다른 인물이 아니다. 그 이유가 신약 성서에서의 예수는 구약 성서에서의 여호와와 같기 때문이다. 구약 성서에서 여호와는 온 땅의 심판자라고 선포되고 있다. 심판이라는 신성한 작업에서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어떤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한 가지 구분해 볼 것이 있다. 신약 성서에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도 심판하지 않고 모든 심판은 아들에게 위임했다고, 그 이유가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이다. 아버지는 신성(Deity)의 요소 중에서 사랑이 원리로 작동될 때, 아들은 신성 중에서 지혜 또는 진리가 원리로 작동될 때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복음서에서 선포되는 의미, 즉 모든 심판은 신성한 선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 결과된다는 것이다. 신성한 선이 사람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2장 16절에서 말해지는 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신다.” 참으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시켜” 심판하신다 (사도행전 17:31). 이런 이유가 모든 심판은 말씀이 육을 만드심을 수단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셨다 (요한 1:10). 세상을 구원하고 정결하게 하심도 여기서 제외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기 때문이다. 신성한 선이 이루는 모든 것은 진리를 수단으로 되어지고, 신성한 사랑이 이루는 모든 것은 지혜를 수단으로 된다는 것, 모두에는 똑같은 법이 작동할 뿐 또 무엇이 있을까?

33. 양과 염소라는 두 계층이 갈라서고 난 뒤 그들의 품성에 대한 더 결정적인 표시가 이어진다. 주님께서서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잡게 할 것이다.” 오른쪽과 왼편은 선과 진리를 표현한다. 심판자의 오른쪽에 있는 이들은 선으로부터의 진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왼편에 있는 이들은 선이 없이 진리 가운데 있는 이들이다.

34. 이제 심판 자체에 관한 더 흥미있는 주제가 등장한다. 여기서 주목해둘 것은 주님이 자신을 두고 왕이라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왕이란 단어는 사람의 아들과 영적 차원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왕은 인간에 관련한 경우 사람의 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성한 진리를 나타내준다. 왕의 품성은 그분이 앓으신다고 말해진 옥좌와 상응되고 있다. “그 때에 그 임금의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그분의 사랑의 복을 받은 사람들, 자기 심정에 그분의 사랑이 내재하는 사람들, 그 사랑으로부터 결과되는 축복을 향유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말에 함축된 것은, 자기 심정에 하느님의 사랑을 내재하고 있는 이들은 그분의 나라 즉 하느님의 진리를 그들이 이해성에

상속되듯 받게 된다는 것, 그리하여 그 진리의 정부가 그들 안에 건설된다는 것이다. 이 왕국은 세상 창조 때부터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근접된 의미 측면에서 볼 경우는 “세상”이 의미한 것이 교회인 바 교회 창설 때부터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주님은 세상 창조때부터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럴 경우 글자대로 직역하면 기독교회의 창설 때부터 죽임을 당하셨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교회 자체의 창설 때부터 정의로운 자를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다. 그렇다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 이유가 우리 “안에서” 준비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밖 어느 장소에 설비되는 것 보다 덜한 신성한 설비도 아니다. 그 이유가 그것은 우리 안의 생명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상속분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그것은 주님의 선물, 전적으로 그분이 일하신 덕분이다.

35, 36. 아버지의 복을 받았다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치하하시고 그들이 복받는 이유,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 배경을 보여주신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 우리가 성서를 읽는 가운데 꾸준히 만나는 선포는 육체 안에서 있어진 행위에 따라 심판된다는 것이다. 위 구절의 말씀, 심판의 진행이 묘사된 이 구절에서도 행해진 일밖에 더 다른 어떤 언급도 없다. 모여있는 군중은 자기들이 믿었던 것에 따라서도 아니고 그들이 느꼈었던 것에 따라서도 아니고 오로지 그들이 했던 일에 따라 심판되고 있다. 그렇다고 그 믿음과 느낌이 제외된 것은 아니다. 믿음과 사랑 없이 선한 일이 있어질 수 없다. 진실로 선하다는 모든 일은 믿음과 사랑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므로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말은 그것을 생산하게 한 믿음과 사랑에 의해서도 동시에 심판된다는 말이다. 우리의 생각과 애정의 전체가 우리의 일 안에 집약되어 있다. 거기서 생각과 애정은 충만되어 있다. 그것들은 지상에 살고 있었을 때 고정되어 우리의 항구적이고 개인적인 품성을 형성한다. 이런 품성의 가장 단순한 수용에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한정된 조건에 관련하여 복된 자가 함유하는 이타애의 일에 관해 아름답게 요약해 발표하시고 있다. 이 구절을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고통과 슬픔에 있는 영혼을 보살피는 더 높은 선용에 관련된다 할지라도 더 큰 의미를 내세워 더 작다는 의미 내지 수준에 있는 선용을 묵살시켜도 된다고 상상해서는 결코 안된다. 다시 말해 육체 측면의 이타애가 영혼 측면의 이타애로부터

전달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영적 수준의 이타애를 원리로 삼고 있는 이들은 자기들이 동료의 영적 궁핍만을 보살피 줌으로 기독교인의 사랑에 관한 전체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꿈꾸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적극적인 동정심의 발휘를 물질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 모두에로 넓혀야 할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지는 모든 재난을 줄여 가는데 필요한 사랑의 노동에서 우리의 할당분을 맡는 것은 우리에게 과해진 의무이다. 그러나 이타애의 자연적 수준의 일까지도 유효하게 행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영적 수준의 이타애가 무엇인지를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 본문의 주님의 언어에 담긴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알게된다. 영적 의미에서 굶주림이란 애정으로부터 선을 바라는 이들, 목마름이란 진리를 바라는 이들, 나그네가 된 자란 지식을 바라는 이들이다. 이 나그네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법을 배우기 위해 타국으로부터 왔던 이들이다. 헐벗었음이란 자기들에게 필요한게 무엇인지 알고 정의의 옷으로 입혀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병들었음이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병든 상태임을 느낄 수 있어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갇혔음이란 죄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 또는 시련과 시험으로 고통받고 있어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를 제 삶으로 체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살피는 것이 영적 차원의 이타애의 일이다. 주님의 섭리 아래 인간의 의지가 선과 더불어, 이해성이 진리와 더불어 어느 정도라도 만족하는 바램을 성취하는 것, 무지한 상태에 지식을 주는 것, 정의의 길을 벗어난 상태가 정의의 길로 인도되는 것, 병든 애정이 치료받는 것, 갇힌 상태의 생각들이 자유를 얻는 것, 이런 등등의 일들은 마치 영혼이 육체보다 더 중요하듯 자연적 수준의 이타애의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나 영적 수준의 이타애를 타인에게 수행해 보기 위해 독자적으로 그것을 실시하는데는 반드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이웃에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빚지고 있는 바 위 주님의 말씀에는 이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 의무까지 동등하게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위 단어를 추상적 의미로 살필 경우 개인적으로 빚진 것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를 지각해야 한다. 그 이유가 배고픈 자가 선을 갈망하는 사람인 한편 배고픔은 선을 바램 그 자체이기 때문이고, 목마름은 진리의 바램이고, 나그네 됨은 가르침을 바램이고, 헐벗고 병든은 우리 스스로서는 선이나 진리를 가진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함이고, 갇혀 있음은 우리가 거짓에 온전히 소유당해 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경우이든 우리 이웃의 경우이든 위 주님의 말에 담긴 아름다움과 힘(force)을 알 수 있을는지 모른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 영적 궁핍을 우리가 느끼는 것, 그 궁핍을 채우려는 우리의 바램은 주님으로부터 있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시다. 그 이유가 그분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에서 그분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 또는 이웃의 영적 궁핍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 자신에게 행해지는 이타애의 행동이다. 주님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우리의 이웃이다. 그분은 모든 영적 형제애의 근원이다. 인간은 자기 안에 그분이 내재하는 한 우리의 이웃이요 형제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인간이라는 개체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마치 선한 자만이 우리의 이웃이어서 그들만을 사랑하고 보살피야 하는 듯 여겨질는지 모른다. 우리는 악한 자를 사랑하되 악 때문이 아니라 선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때문이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이타애는 그들이 악으로부터 선쪽으로 돌아가는 방법에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선이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 자신과 타인 안에 있는 천국적 특질을 강화시키려는 쪽에 있는 만큼에서 우리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있게 된다. 이런 특질, 이런 품위가 우리 자신과 타인 안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갇혀 있는 한 그 필요의 충족을 보살피는 것이 기독교적 이타애의 의무이다. 배고픔에 양식을 공급하고, 보호를 위해 옷을 입히고, 치료를 위해 약을 공급하고, 시험당할 때에 위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런 행동들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양들이라고 주님께서 말하신 이타애의 행위들이다.

37-39.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듯이 맞아 들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저희가 찾아가 뵈었습니까?’” 제 탓으로 삼을 만한 공적을 의로운 자가 부인하는 이 구절은 참된 정의로움에는 공적에 관한 어떤 생각도 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의도되어있다. 선한 자는 일의 위대함, 중요성, 그 가치 등등을 생각하지 않는다. 선한 자의 관심은 선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뿐이다. 이들은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선을 행한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선함을 위해 하는 것이 된다.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선이 그분으로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선을 행하면 그분을 더 부자되게 하고 그분의 영광이 더 큰 영광이 되게 하는

듯이 그분에게 선을 행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언제 저희가 주님께서 궁핍한게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채워드렸습니까?”

40. 자기들이 행했던 선의 공적을 부인하지만 “임금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얼마나 이 안에 자비로운 겸비가 있는지! 그분의 창조물을 두고 형제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한 사랑인가! 그분이 연약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셨다는 것, 그분께서는 굶주리시기도, 목마르시기도, 모든 인간 고통의 극치를 견뎌 내시기도 하셨던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영화하신 가운데 계신다. 그럼에도 그분은 그분의 형제가 궁핍하다고, 고통받는 자라고 부르고 있다. 주목해볼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두고 그분이 영화하실 때까지 형제라고 직접적으로는 결코 부르시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분이 부활하신 뒤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그분께서 그분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승강했노라고 말하라고 이르셨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보다 그 이후 더 진실로 충만된 사람이셨기 때문이다. 제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더 충분히 거듭나야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영화하시고 제자들이 거듭나게 되면 영화하시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을 때의 서로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이 구절의 주님의 언어에는 이보다 더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화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께서 그분의 형제로 인정하는 진실된 형제가 되어진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내 형제이다”라고 그분께서 말하셨을 때 위 설명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나 이 심판에서 인식된 형제는 모두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타애의 이런 대상은 그들을 형제로 만드는 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선한 노동은 주님의 인물 안에 있는 선함 자체가 견뎌낸 궁핍함이나 고통 밑에 있어야 한다. 그 이유가 이 선은 주님께 의해 인간에게 주어진 다음 주님께로 되돌아가서 더 강화되고 더 자유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에 진짜 이타애의 일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막연히 그분의 형제라고 말하신게 아니라 형제 중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신다. 그 이유가 진짜 선함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소유한 사람은 자기 안에 거듭남의 바탕, 선함을 저장할 수용력, 구원될 바탕을 가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사랑과 이타애의 실시를 더 넓히면 우리에게 지극히 작더라도 진짜 선함을 우리에게 열리게 하는 바, 새로운 영적 영향하에 행동하는 기독교적 박애 정신으로 꾸준히 이타애를 실행해가야 하리라고

말한다면 그 보다 더 값진게 있을까? 그분 자신이 기독교 이타애를 실시할 대상 중의 하나라고 선포하셨는 바 주님께서는 기독교 이타애의 행동 중에 가장 비천한 직책에 어떤 품위를 새겨 주실까?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이는 왕 중의 왕되시는 분이 그분의 형제라고 부르시기 위해 겸비하게 말씀하셨는 바 우리의 이타애를 위해 어떤 대상을 뜻하셨을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분을 충심으로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만일 예수께서 우리의 거리를 거닐고 계신다면 그분께서 영예로 생각하는 이타애, 그분의 머리마저 기댈 곳조차 지니지 않아 슬픈 사람의 필요를 보살피는 것이 복되다고 느끼는 것이 이타애라고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슬퍼하는 인간성, 괴로워하는 인간성, 덕이 높은 고통자 안에서 그분을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진짜 선을 베풀 수 있는 형편인데도 이를 보류한다면 신성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서 걸으시되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 채 맴돌고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증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선이 우리의 대상이어야 한다. 마치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같이 말이다. 우리는 그분을 영적으로 모방할 뿐 아니라 자연적으로 모방해서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헐벗은 자는 입히고, 무지한 자는 가르치고, 병들고 갇힌 자를 방문해야 하리라. 그래서 이런 기쁨의 인사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41-45. 주님의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표되는 말씀은 오른 편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또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고 목마르셨으며, 언제 나그네 되시고 헐벗었으며, 또 언제 병드시고 감옥에 갇히셨기에 저희가 모른 채하고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임금은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 구절은 세부 사항을 굳이 살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앞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

칭찬된 사항과 단순히 반대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염소가 꾸지람을 받고 있는 것은 그가 악을 행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염소 부류의 사람들은 도덕적 삶은 잘 해왔지만 영적 삶을 잘 해온 것은 아니다. 한 마디로 영성이 없는 도덕성은 천국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영성의 결핍, 이에 대한 주님의 위 구절의 언급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형식이 암시해 주고 있다. “내”가 주렸을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을 잘 보살피(minister) 주었는지 몰라도 그 인간 안에 있는 주님을 잘 섬기지(minister) 못했다.

위 주님의 발표하시는 태도가 더 심각한 듯 여겨진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바, 신성한 심판들은 인간의 상태를 밝히 알게 하는 것, 그 상태의 결과를 밝히 알려주는 것뿐이라는 점이다. 주님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발표한 저주(curse)는 그분으로부터 진행된 저주(anathema)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부패함에서 발생하는 황폐함(blight)이다. 신성한 진리인 그분의 말씀은 감추어 있어오던 것을 드러내 있게 하고 모든 것을 명백하게 만든다. “나로부터 떠나라”는 문장 역시 결과에 관한 발표일 뿐이고 그 결과의 원인은 이미 사악한 자 자신 안에 있어 왔었다. 영혼의 상태가 생명의 중심으로부터 가까웁느냐 멀어지느냐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각자의 상태에 따라 의로운 자는 주님께 나아 오게 되고 불의한 자는 그분으로부터 떠나간다. 떠나간 그들이 영원한 불 쪽으로 이동할 때 사실은 그들은 자신들이 지녔던 불태울 뿐인 사랑들, 욕망, 미움, 복수, 불결한 모든 것의 사랑 안에 침몰되는 것일 뿐이다. 이 영원한 불은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악마란 악 가운데 자신을 고정시킨 이들에 대한 또 하나의 이름이다. 그의 졸도들이란 악마로부터 진행되어 나오는 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악마는 지옥을 인격화해서 부른 것이다. 마치 이 악마가 거주하는 영원한 불이 타락한 인간 영혼의 요소와 고뇌인 악한 사랑의 모양새인 것과 같다.

46. 정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반대되는 결과, 영성과 세속성의 반대되는 국면이 결말로서 우리 앞에 장착되어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쫓겨 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처벌과 그 처벌에는 끝이 없음이 영원한 생명에 반대되어 여기에 놓여 있다. 둘 다 성서의 교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둘 다 변할 수 없는 법, 이 세상의 삶에서 확증되어 왔던 상태들은 영원히 바뀔 수 없이 남아있다는 법칙의 결과라는 것도 의심할 바 하나도 없는 교리이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처벌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자비가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분의 자비도 악한 존재라는 그들 자신들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처벌로부터 구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아픔이 타오르는 것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저 세상의 고뇌는 악한 자에게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만큼이나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거룩함과 행복함은 하나되어 있다. 단어 “생명”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압축한 것이다. 근원적인 상태에서의 생명(life)이란 마음과 몸의 모든 힘이 건전한 상태에서부터 발생하는 순수한 즐거움의 느낌이다. 영원한 생명(eternal life)은 영계에서 살게 될 때 느끼게 되는 것들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었어야 한다. 이것이 천국인 반면 그 반대는 지옥이다. 선택이 우리의 손아귀에 있는 동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참된 이타애의 일을 했었던 사람은 복있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단을 거두겠다고 우리는 여기서 정의의 농사를 지었어야만 한다. 주님께서서는 마지막 때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서도록 이미 허가해주시고 있다. 그쪽에서 기쁨의 이 답례를 받게 해주시고 있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26

앞 장까지의 강연으로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공생애를 결말지으셨다. 그분께서는 군중의 마음이 그분을 받을 수 있는 자세에 있을 때에 설교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마지막 심판은 확실히 있음을 선포하심으로 공생애를 마감하셨다. 크게 나누어보면 지금까지는 그분의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연설하신 것이고 이제는 그분의 안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그분 스스로 강연을 계속 하시고 있다.

1, 2. “예수께서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과월절이 되는데 그 때에는 사람의 아들이 잡혀가 십자가형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과월절은 과거 에집트에서 첫 번째 아들을 죽이는 재앙이 덮치던 날 밤에 이스라엘 가문의 집은 건너가게 하시어 살려주신 주님의 자비를 표시하듯 기억하도록 해주시려고 제정된 기념일이다. 이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수단이었고

이 사건의 의미가 과월절로 표시되고 있다. 주님께서 유대인의 과월절 대신 제정한 성만찬은 이제 완성하신 위대한 구속에 대한 표시요, 그분께서 완성하신 구속을 수단으로 신실한 사람들은 과거 에집트에 노예가 된 신세보다 더 지독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짐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주님께서도 과월절 기념을 준수하셨는데, 그 이유는 에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은 그분이 완성하신 구속하심을 예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시고 있다. “이틀만 있으면 과월절이라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다.” 둘이란 숫자는 결합(conjunction)을 의미하는데 선과 진리의 결합 또는 악과 거짓의 결합을 뜻한다. 본문의 “둘(이틀)”이란 숫자는 주님 측면에서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의 선과 진리의 하나됨(union)을, 유대 교회라는 측면에서는 악과 거짓의 결합(conjunction)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주님의 경우는 인성의 영화하심을, 유대 교회는 정죄되기 위해 준비가 완료됨을 뜻한다. 주님이 배반당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건은 위 두 측면을 동시에 완성되게 하는 과정이다. 이런 모습은 배반과 십자가형이라는 두 가지 행동으로 표현될 뿐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게 “이틀” 뒤라는 날짜 기간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주님을 배반하는 것은 거짓 원리에 해당되고 그분을 십자가형에 처함은 악한 원리가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다.

3, 4.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실 때 다른 쪽인 유대교 회의장에서는 어떻게 그분을 잡아죽일까 모의하고 있다. “그 무렵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가야파라는 대사제 관저에 모여 흥계를 꾸며 예수를 잡아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면서도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만은 피하자고 하였다.” 이 구절은 시편 2편 1,2절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고 있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술렁대는가?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야훼를 거슬러, 그 기쁨부은 자를 거슬러 세상의 왕들은 들썩거리고 왕족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다.”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악과 거짓에 속한 모든 권력들이 유대인과 로마인들로 표현되고 있다. 이들은 최고의 선과 진리되시는 분으로서의 주님을 거슬러 담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지니신 신성한 사랑과 지혜를 표현하는게 말씀인데 이 말씀에 정반대되는 상태로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대사제의 관저는 유대 종교의 멤버들이 회합하는 곳이고 대사제 가야파는 이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다. 회의의 우두머리는 그 회의의 품성을 말하는 바 이 교회 회의장 자체가 표현하는 것은 그 교회의 품성과도 일치한다. 따라는 이 회합 내지 그 교회는 지독하게 부패됨, 또는 완전하게 황폐된 상태를 암시한다.

관저(palace)는 여느 집과는 구별되는 집이다. 그래서 관저는 의지와 구별되는 마음 측면인 지성을 의미하는데 이 절에서는 특별히 교회의 지적인 원리를 의미한다. 생각들이 모여서 선하든 악하든 뭔가를 잘 협의하는 곳이 이해성이라는 곳이다. 인간의 이런 특성과 관저가 지닌 의미는 본문 같은 사건을 통해 더 실감나게 암시되고 있다. 본문에서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체포할까 궁리할 뿐 아니라 흥계를 꾸며서 죽이려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이는 유대 교회 안에서 말씀에 반대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뒤집고 파괴하는 계략을 궁리하는 생각을 표현하는 모습이다.

대사제, 그는 회의장을 주도하는 인물인 바 우리의 관심이 더 특별히 집중된다. 자기에게 부여된 공적 지위와 타락된 자신의 품질과 하나되게 한 성경의 인물 중 하나가 가야파이다. 가야파에 관한 더 흥미있는 언급은 요한복음 11장 49-52절에 있다. “그 해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그 자리에 와 있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그렇게도 아둔합니까?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편이 더 낫다는 것도 모릅니까?’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을 한 셈이다. 그 예언은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대신해서 죽게 되리라는 것과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죽는다는 뜻이었다.” 그는 전능하신 분께서 불어넣은 영감으로 이런 위대한 진리를 발표했음에도 “흥계를 꾸며 예수를 잡아죽이려고 모의한 것이다.” 마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분에 대한 환상을 경험했던 발람이 장엄한 진리를 내뱉으면서 동시에 악마의 행동을 저지르려하고, 축복하도록 하느님으로부터 명령받았음에도 저주할 구실을 모색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가야파의 흥계는 과거 발람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에 내려진 하늘의 운명을 거슬러 마법을 사용해 보려했던 것보다 “야곱에게서 솟은 한 별,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는 한 왕권되신” 예수를 향해 효과가 더 큰 술책을 썼다. 그러나 그분의 섭리는 이쪽은 못하게 하고 저쪽은 하도록 허용하는 유익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야파 시절 때의 신성한 섭리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대사제 가야파가 유대교회를 표현한 모형이요, 이 교회는 지적으로 계발되었으면서도 도덕적으로는 썩어있는 이중성, 이해성 측면에서는 하늘의 빛으로부터 말하고 그 빛을 보고 있지만 의지 측면에서는 지옥의 불로 달구어져 행동하는 불일치된 모습의 모형임을 어느 누가 간과하지 못할까?

5. 유대 종교 회의가 예수를 잡아넣기로 결정을 보자 곧이어 그들은 예수를 잡는 적절한

때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도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만은 피하자’고 하였다.” 그렇다고 그들의 뜻대로 된 것은 아니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서는 과월절 기간에 잡히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구절은 자신들이 나서는 것보다 더 사악하고 교묘한 계획인 배반자를 내세우는 것, 유다의 배반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다. 과월절은 주님이 구속해주시기에 대한 예징이고 이 절기에 죽여 먹게되는 과월절 어린 양은 주님 자신에 대한 모형이었다. 과월절 기간에 주님의 죽으심이 있는 것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어린 양이 죽으러 끌려오듯 주님 역시 죽으시러 끌려오시는 모습 또한 적절하게 잘 어울리고 있다. 그럼에도 유대 성직자들은 많은 군중이 모인 과월절에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피하려하고 있다.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이다. 비록 군중들이 예수님께 적대감을 종종 가지긴 했었다해도 이 구절의 경우 그들의 통치자가 증오한 것처럼 증오하지 않고 있고 그들의 성직자들처럼 계책을 강구하지도 않는다. 이 통치자들은 파라오와 그의 하인들 같아서 이스라엘을 구속하려는 신성한 의도를 분쇄해보겠다고 궁리한다. 한편 본문의 주님을 따르려하는 군중들은 과거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트를 빠져나갈 때의 뒤범벅된 군중들과 비슷한 수준의 상태이다.

6. 주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꾀하는 유대교회의 지도자와는 매우 다른 모습, 은유와 아름다움으로 꽉 채운 장면이 이제 전개되고 있다. “그 때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베다니는 라자로가 사는 곳인데 라자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은 이방인들 세계에서 주님의 교회가 일어남을 예징해놓은 사건이다. 이와 비슷한게 위 본문이다. 주님께서 시몬의 집에 머무르시고, 거기서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되는 사건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절된 주님을 이방인들이 사랑으로 영접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다.

7.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시몬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상징하는데 비해 본문의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상징한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참조하면 이 여인은 라자로의 자매되는 마리아였다.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청종했던 여인, “실제 필요한 꼭 한가지,”(누가 10:42) 즉 예수 사랑을 제 삶의 전부로서 선택된 경건한 영혼들을 상징하는 여인이다. 위와 대등한 모습이 본문이요 구세주에게 값진 헌물을 바치는 마리아를 많은 사람들이 모방하고도 있다. 마리아의 위와 같은 경건한 행동은

의미심장한 행동중 하나이다. 기름 부음은 과거 표현적 차원의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식으로 엄숙하게 실시되었던 행사이다. 세부적으로 볼 때 기름부음은 왕의 즉위나 사제가 임직할 때에 채용된 의식 행위이다. 부어진 기름(unction)은 주님께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예징이다. 첫째, 예수는 진실로 주님의 기름부은 자이다. 예수께 부어진 기름은 신성한 사랑 그 자체요, 거룩한 기름은 그 상징물이다. 둘째 의미에서, 거룩한 기름은 형제간의 사랑에 대한 상징물이다. 이 사랑을 시편 133편에서 읽어보자.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형제들이 하나됨은 형제간의 사랑을 수단으로 시멘트 같이 굳어진다. 마리아가 가져온 귀중한 향유는 구세주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상징한 물건이다. 인간과 인간을 하나되게 하는게 사랑이듯 인간이 주님과 하나되는데도 사랑은 필수이다. 사랑은 사랑을 위해 얼마나 대가를 치렀는지에 비례해 귀중해진다. 다시 말해 자아를 부정하고 헌신적인 섬김을 바치는 행동의 얼마를 가지고 사랑을 구입하느냐와 같은 말이다. 그런 다음 얼마만큼의 비용이 치러진 사랑이었던 치른 그 사랑의 가치에 비례해서 지혜와 체험이 보태져 풍요해진다. 마리아는 옥합 안에 담긴 향유를 가져왔다. 순수한 사랑으로 채워진 진정한 믿음,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담긴 옥합(상자)이다. 예수께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사람의 경우 마리아 같은 헌신의 경건한 행동을 언제나 본받는다. 주님의 “머리”가 상징하듯 천적 수준에서 그분과 결합하기를 원할 경우 그들은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 요한복음(12:3)에서는 마리아가 그분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하고 있다. 두 복음서를 일치시켜 보려고 주석학자들은 추측해서 말하기를 마리아는 아마도 그분의 머리와 발에 기름을 부었을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두 복음서가 불일치하는데에도 이유 하나가 있다. 머리는 첫 번째 가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로부터 그보다 낮은 원리들이 차례로 파생되어간다. 발은 가장 낮은 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그보다 높은 원리를 모두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머리에 기름붓는 것과 발에 기름붓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머리에든 발에든 그 각각은 전체 인간이 성별되어짐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전자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는 측면에서, 후자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요한의 경우 발에 기름부었다고 말해지고 있는 이유는 그의 복음서는 가장 위대하게 충만됨 속에서의 거듭남, 즉 첫째가 마지막 안에, 가장 높은 것이 가장 낮은 것 안에 담겨 있는 거듭남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8. 사랑스럽고 경건한 마리아의 행동이 그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서 칭찬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분개하여 ‘이렇게 낭비하다니!’ 하였다.” 이 구절은 그분을 따르는 여인들보다 제자들이 주님께 덜 헌신적이고 덜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구절은 남자와 여자가 매우 다른 품성을 지니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기도 하다. 여자는 애정으로부터 더 행동하고 남자는 지성으로부터 더 행동한다. 비록 남자와 여자는 두 품성을 동등하게 소유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두 품성은 인간 모두의 필수되는 요소이다. 마리아와 제자들의 차이점은 각자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쉽게 이해되리라 본다. 따뜻하고 너그러운 충동은 고상하고 관대한 행동을 하도록 해주나 분석해서 재보는 자질이 돌출하면 심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잉태된 충동을 낭비적인 것으로 단정하기도 한다. 때로 후자의 경우가 더 나올 때도 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현 모습에서 후자는 전자보다 흥미가 덜해질 때가 많다. 이런 연유로 성경에서 교회는 개인적 차원일 경우 여인으로 표현된다. 여인은 이해성이 아니라 의지, 믿음이 아니라 사랑에 해당된다. 사랑은 교회를 구성하는 생명이고 이것이 시온과 예루살렘의 딸, 어린양의 신부와 아내로 상징되고 있다. 교회의 진정한 멤버되는 모든 사람은 위 두 요소,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사랑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의 참 예배의 은총은 그의 영혼이 구세주와 하나되는 것이다. 지성, 진리, 마음 등등이 홀로 있을 경우 그것 안에는 헌신적인 것, 결합되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아 숭배 쪽으로 기울기 쉬어서 분해와 분단만을 창출하기 십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의 제자들은 분리된 상태에서의 믿음이 주는 영향력에 너무 많이 노출된 마음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내놓는 값진 봉헌을 칭찬하려 하기보다는 반대하는 측면에서의 믿음을 표현해준다는 말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가리옷 사람 유다가 여인의 행동에 대해 낭비라고 격조높게 불평한 제자라고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고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 가지고 거기 들어 있는 것을 늘 꺼내 쓰곤 하였다.” 라고 기록해두었다. 한 시리즈의 앞에 있는 사항이 시리즈 전체의 품성을 말해준다는 규칙에 의거 생각해본다면 위 두 본문 모두에 관한 것은 자아 사랑과 사리사욕이 생각 측면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지적 측면의 교회 상태에 대한 표현인 것을 알게된다. 교인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해도 그가 신성한 예배의 지적 측면만을 취할 경우, “이렇게 낭비하다니... 거룩자체되시는 그분께 값이 나가는 기름을 붓고자

있어 있는 이 예배시간과 예배를 위해 소비되는 물질을 판단하면 더 많은 것을 얻어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불평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더 고상한 감정으로부터 진행되는 행동들, 마치 주님 자신으로부터 있어진 행동들, 즉 자아로부터서는 덜 행동하고 주님측면에서 이루어진 행동도 자주 있을 수 있다.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의 행동으로 지목하신 행동을 생각해보자.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그런 행동이리라.

9. 여인과 제자 사이의 차이점은 천적 수준과 영적 수준의 차이점이기도 한데 이 절이 이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이 향유를 팔면 많은 돈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하고 말했다.” 여인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제자들은 이웃을 먼저 생각했다. 천적 수준에서는 주님이 첫째이나 영적 수준에서는 이웃이 먼저이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경건한 목상이나 기도를 바치느라 왜 이렇게도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가? 왜 그런 시간이나 정력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바치지 않는가? 하느님은 이런 형식을 요구하시는게 아니지 않을까? 인간이 공들여 찬양한다고 그분을 드높여지게 할 수 없지 않을까?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가장 잘 섬기는 길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웃을 향한 사랑의 가장 높은 형체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온다. 이웃을 향한 참사랑은 하느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인간을 사랑할 때만 존재한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양식인 한줌의 밀가루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베풀기 전에 이렇게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들도록 하시오” (열왕기상 17:13).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좋은 수확을 거두려면 햇곡식을 먼저 그분께 바치도록 요구하셨고 이삭은 가난한 백성을 위해 줍지 말도록 명령하셨다. 왜 이러했을까? 곡식을 주신 분을 인정함은 주신 선물을 성결하게 하고 동시에 그 곡식의 사용을 더 유익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데 있다. 제자들은 향유를 팔면 많은 돈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제자의 생각과 유사한 내용을 주님께서 말하신 대목이 있다. 제자를 지망한 부자 청년에게 먼저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다. 이 때의 청년이 지닌 재산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장애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값나가는 본문의 향유는 주님을 잘 모시려고 사둔 향유이다. 그런데 이 향유를 다시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돈으로 주라는 것이 제자들의 의견이다. 어쩌면

인간에게 봉사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여인은 교회 특히 이방인들의 교회를 표현하는 바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주님과 가진게 너무 부족한 가난한 사람 중간에 위치하는 교회로서 생각된다.

10.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주님께서 여인의 선한 일에 참견하신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행동이 그분께 선한 일을 한 것으로 판정되느냐를 되물어 보는데 집중해보자.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교회가 사랑을 통해 주님의 신성한 인성과 결합을 추구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녀가 예수께 드린 선한 일을 그녀 자신에 국한해본다면 교회쪽 부분에서 받아 지닌 그분의 사랑을 되바침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뜻한다. 영적 수준이 그 수준에서 천적 수준을 판단할 경우 천적 수준을 괴롭히게 된다. 게다가 영적 수준의 영을 천적 수준의 영에 주입하려 고집할 때 더욱 괴롭힌다. 더 높은 것에 더 낮은 것이 작동하면 그 작동 자체부터 더 높은 것에는 장애물이 될 뿐이다. “이 여자는 나에게 가룩한 일을 했다” 라고 주님이 말하셨다. 이 구절은 다음에서 살피게 되리라.

11. 주님께서 경건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성가시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언제까지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에는 두 종류가 있고 궁핍에는 많은 수준이 있다. 먼저 자연적 측면에서의 가난이 있다. 이 가난은 이세상의 물건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분배된 몫이 매우 적어 발생된 경우이다. 둘째로 영적 측면에서의 가난이 있다. 이는 천국의 부함을 가지고 있다하나 매우 적게 가진 경우이다. 그런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경우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다. 자신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자라고 착각하여 영적으로 부유해질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감지해서 진정으로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 또한 타인들의 인격 안에는 풍부히 있지만 자신에게는 없어 발생한 가난이 있는가 하면, 자기 내부에서 가난해지게 하는 자질을 지녀 자신 속에 가난해질 가능성을 항시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의 것들은 많은 적든 우리와 늘 함께 존재하는 가난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언제나 가지고 있지 못한다. 온유하고 겸손한 심정이라는 그분의 영, 사랑과 자비라는 그분의 영, 자제하고 용서하는 그분의 영, 등등과 같은 예수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있지 못한다. 그분이 거주하시는 천국적 품위와 미덕이 우리와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될 경우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사랑과 헌신을 향한 우리의 애정이 쏟아 부는 때를 맞이한다. 마치 본문의 여인이 귀중한 향유를 사용할 적기를 맞아 머리에 쏟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 이 모습은 왕의 은덕에 고마움을 표하고자 팔방으로 애쓰는 신하로서 예의를 갖추는 모습, 심오한 존경의 표시를 그림 한 장으로 그려놓은 셈이다.

12. 주님께서 말을 이으시고 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장례란 부활을 상징한다. 육체가 죽어 매장될 때 영혼은 진짜의 삶, 완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영화하심 (glorification)이었는데 이 의미가 그분의 장례에 포함되어 있다. 천사들은 죽음이나 장례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생명과 부활만을 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언어가 천사의 언어로 통역될 경우 죽고 있음이라는 말은 영원히 살고 있음이라는 말로 바뀐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셨는데 바 주님께서는 거기에 무슨 뜻을 담으셨을까? 누구나 다 익히 아는 바, 예수는 여호와께서 기름부은 자라해서 그리스도라 일컬어졌다는 것이다. 여호와로부터 예수께 부어진 거룩한 기름은 신성한 사랑을 의미한다. “신성한 인성 측면에서 주님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되었다. 그 이유가 임신된 때부터 신성한 사랑의 선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때로부터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은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진리 자체로 만드셨다. 더구나 그분의 인성을 신성에 하나되게 하는 방법으로 인성까지 신성한 사랑의 선으로 만드셨다.” 예수가 여호와의 기름부은 자였듯이 예수는 천국과 교회의 기름부은 자가 되시었다. 교회에 의해 기름부어짐은 주님께 증여한 선물을 그분께 되돌려 드릴 때 있어진다. 다시 말해 사랑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분께 사랑을 되돌릴 때 있어진다는 말이다. 주님의 경우 이런 사랑은 그분의 인성이 영화하심으로 완성된다. 영화하심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막 이루어지려는 시기이므로 주님께서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위해 향유를 내 몸에 부었다”고 말하신 것이다. 즉 그분의 인성이 거룩함 자체로 승화되시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다. 이런 주제가 우리의 실제에서 어떻게 되는 지도 살펴보자. 즉 우리 자신 안에서 있게 되는 그분의 부활과 영화하심에 대해서이다. 그분의 인성이 우리 안에서 영화하시려면 신성으로부터 온 사랑을 수단으로 가능하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드리는 진정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랑이야말로 그분의 은택을 깊이 느끼는 제자가 그분의 머리에 붓는 향유인 것이다. 더불어 이 모습은 예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원천되시는 분임을 심정으로 인정한다는 표시이기도하다.

13. 이제 주님께서서는 이 여인에 관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신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리라.” 이 구절은 글자대로도 성취되었다. 위 여인의 행위가 불멸의 명성을 얻고 있다는 것은 이 얼마나 가치있는지! 게다가 위 약속 안에는 또 다른 약속까지 담고 있다. 이 여자에 대한 기억은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 안에서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심정 속에서도 있어지리라는 말이다. 위 구절의 주님의 언어에는 또 다른 의미도 암시하는 듯 보인다. 그 이유가 천국적인 봉사에 대해 일시적일 뿐인 지상의 보상을 약속하는게 주님이 주인되시는 교회의 특질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의로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드높은 저곳에 있다. 영적 의미에 의거하면 “세상”이란 내부의 세계 즉 인간 마음을 뜻한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든지,” 또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밝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어느 마음이든지, 혹은 구원해주는 진리가 열납되는 어느 마음에서든지 진리는 선 쪽으로 인도해준다는 것이 알려진다. 더구나 알려지되 기억하게 된다. 이는 내적 인간 안에서 이루어진 행동들은 외적 인간 안에도 새겨져야 한다는 말이다.

14. 구세주를 향한 감미로운 사랑의 이야기에 향유를 낭비했다고 불평한 주범격이되는 사람의 반역적인 사건이 곧바로 전개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뭔가가 깊이 놓여 있으리라 생각된다. 주님께서서는 앞 절의 여인의 행동은 주님의 장례를 위해 그분의 몸을 방부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하셨다. 이런 주제에 마치 덜 깐 잠을 흔들어 깨우는 기사가 이어진다. “그 때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가리옷 사람 유다가 대사제들에게 갔다.” 유다의 품성이나 행동들을 지극히 평범한 성서의 언어로 받아들여 우리의 뭔가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유다의 품성이나 행동보다 더 극렬한 불법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항은 익히 알기 때문이다. 유다라는 이름은 인간성의 최하위를 표현하게 되었다. 본보기 차원이 아닌 유다의 행동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죽음을 피할 수 없게 한 인간 타락의 극치에 대한 모형이 되고 있다. 그분으로 죽게 한 진짜 악은 그분의 부활이 설비해둔 것에 대조를 이루는 악이다. 다시 말해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이방인의 교회를 표현하고 이 여인의 행동은 표현적 측면에서 이 교회가 죽음으로부터 주님을 이제 영접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반면, 유다는 유대인의 교회를 표현하고 이 교회는 이제 주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십자가형에 처해 그 교회가 그들의 해방자로 오랫동안 갈망해온 오로지 한 분이신 주님을 죽이게 되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유다는 기독 교리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위의 유대교 같은 품성까지 표현해준다. 더 나아가 모든 시대의 교인들의 인간 본성 안에 있었고 있게 될 위의 유대교 같은 원리 내지 요소들까지 망라해서 표현해주고 있다. 유다는 인간 본성의 원리 중 최하위 내지 가장 타락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뱀이 머리 역할을 했던 세상의 마지막 시대, 순진의 배반자, 죽음을 부르는 자의 마지막 제를 표현하고 있다. 악의 절대적 지배와 전혀 다른 측면이 같은 무게를 지니고 대조적으로 출현되고 있다. 마지막 죽음은 첫 번째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죽음이 정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수단으로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지닌 자들을 정복하시어 인간 타락이 막고 있던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여셨다. 생명과 불멸함이 복음에 의해 우리에게 잘 보이도록 빛 가운데 놓여졌고 이제 부활로 실현되어지고 있다. 결국 위에 열거한 끝에 달한 악조차도 악의 지배를 뒤집을 역사를 실행하는데 따른 허용된 수단에 불과했다. 유다가 표현해준 인간 본성 속의 원리란 감각적이고 욕적이라 불리는 원리, 사도들의 서간문에서 종종 거론되는 욕욕적인 것들, 타락된 인간 상태 즉 영적 차원에 반감을 내세우는 인간 본성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말한다. 이런 원리들은 인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향해서는 죽기를 작정하고 반기를 치켜든다. 이것이 심정 속에 있는 유다여서 그분을 배반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 이런 욕욕적인 원리들은 그분을 엿어 버리는데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해 부패하고 뒤집혀 있는 교회의 권세나 원리들과 동맹 관계를 추구한다. 마치 유다가 대사제와 손잡고 움직이는 모습이다.

15.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그 값으로 얼마를 주겠소?” 하고 물었다.” 이 구절과 이 뒤의 유다 역사를 합쳐 생각하면 그는 자아 사랑에 의해 움직였다기 보다는 예수를 미워함으로 작동된 것처럼 나타난다. 그는 모든 악의 뿌리인 격렬한 탐욕이 먹어치우도록 자신을 내던진 듯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그의 탐욕이 그의 최고되는 친구까지 먹어 배를 채우도록 자진해서 움직였는 듯 보인다. 그의 질문이자 목적은 “...그 값으로 얼마를 주겠소?” 이다.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위 같은 흥정이 가능했을까? 자기가 인정한 종교 원리를 탐욕과 이기심에 희생물로 삼는 것은 주님을 배반하되 또다시 배반하는 격이 아닐까? 이것은 돈을 천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또 다른 탐욕인 지식을 아비하게 사랑하는 경우이다. 생명 내지 삶의 수단이 물질계에서는 돈으로 말해지듯 영혼에서는

지식이 그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진리와 선함은 생명의 원리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 팔려진다면 그 지식은 생명 대신 죽음의 수단이 되고 만다. 유다가 주님을 판 값, 대 사제가 주님을 죽이기 위해 구매한 값은 유대 교회가 그분이 구속하시고 구원해주시는 그분의 공로에 매우 적은 가치만을 부여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그들은 은전 서른 닢을 내주었다.” 위에 암시된 내용과 관련해 볼 때 “서른”이란 숫자는 매우 적음을 의미하고 있다.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옥토에 뿌려진 씨의 결실이 삼십 배가 된 것도 있었고 육십 배가 된 것도, 백 배가 된 것도 있었다. 세 가지 수확 중 삼십 배는 가장 적은 양의 생산량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되고 있다. 유대와 유대교의 사제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 주님이나 그분의 일에 어떤 평가를 내렸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준 값은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표현했다. 다시 말해 그 값은 주님과 그분의 구속에 대해 내려진 일반적인 평가가치가 된 셈이다. 이 “은전 서른 닢”은 세상의 구세주에 내려진 가격이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더 나은 값을 매기고 있을까? 만일 더 나은 값을 매긴다면 과연 얼마나 매길까? 각자 생각해 볼일이리라.

16. “그 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 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상태(state)와 상응되는 자연계의 시간인 그 “때”란 유대교가 종지부를 찍는 가능성을 뜻한다. 개인의 삶과 관련해 볼 때 진리와 선을 적의 수중에 넘겨줄 기회를 찾는 마음의 상태란 마음 안에서 이기심 내지 인간 자아가 극도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 중 하나이고 인간 원리를 극단적으로 파괴하는 쪽으로 치닫는 것 중의 하나도 뜻한다.

17-30. 이제 우리는 복음서 역사 중 매우 중요한 부분, 즉 주님께서 제자들과 과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사건, 그리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부분을 살펴게 된다. 옛 예식에 참석하시는 때에 새 예식을 제정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면서도 매우 시기 적절하다. 유대인의 과월절은 기독교인의 성찬식에 그림자가 되도록 제정된 기념일이다. 다시 말해 과월절은 허상의 수준에서 행해졌다는 말이고 성만찬은 실상을 기념하도록 제정되었다는 말이다. 에집트의 노예된 신세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은 지옥의 노예된 상태에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징(type)이었다. 과월절 어린 양, 이 양의 피를 문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가문의 집을 건너가는 사건은 하느님의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과월절 어린양의 고기를 그들이 해방됨을 기념하는 축제에서 먹는다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의 아들의 고기에 대한 예징이었다. 물론 자연계에서의 주님의 몸에 있는 살과 피가 위의 특수성을 직접 뜻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분의 말씀들이 영이고 생명이다. 주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핀다. 어쨌든 과월절 어린양이 주님을 표현했다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 잘 알려져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월절 양으로서 희생되었습니다...” (고린도전 5:7).

17.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께서 드실 과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렸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과월절은 때로 무교절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이 축제기간 동안 누룩없는 빵을 먹도록 명령되었기 때문이다. 이 축제는 칠일동안 거행되었는데 이스라엘 달력이 첫 달로 삼은 그 달의 십 사일에 시작되어 이 십일에 끝났다 (출애굽 12:1-14). 이스라엘 달력이 시작하게 되는 그 해는 주님의 구속이 시작하는 해를 표현하는 바 인류의 영적 역사에 신기원이 시작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과월절은 주님의 영화하심을 표현했다. 그러므로 과월절은 신성한 존재와 인류가 결합하는 것도 표현했다. 주님과 인류의 결합은 사랑과 이타애, 그리고 이로부터 과생되는 믿음을 수단으로 결과가 있어지는 바, 위 천적 원리와 영적 원리가 과월절에 먹게 되는 누룩없는 빵으로 표현되어졌다. 빵은 모든 양식 즉 천적 수준과 영적 수준에 속한 모두를 뜻한다. 이 두 수준에 속한 것들이 불순함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누룩없는 빵이 표현한다. 그 이유가 누룩은 악과 거짓을 의미하고 이로 말미암아 천적이거나 영적인 원리들이 불순해지고 모독되기 때문이다.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가문에서 잘라 버리라고까지 명령하여 금지시킨 것은 천적, 영적 원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모독되는 것을 예방하시기 위해서였다. 그 이유가 천적 수준 내지 영적 수준의 원리에 속하는 것을 모독하는 사람은 피할 수 없이 멸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룩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의 첫 날은 칠일의 축제기간 중 첫 날에 해당되는 바 새로운 상태의 시작을 뜻한다. 이제 주님 자신 측면과 관련해 생각해보자. 그분에게 무교절로 표현된 새로운 상태의 시작이란 십자가의 고통으로 완성되어지는 영화하심에 관한 마지막 상태 또는 그 과정이 충만됨을 뜻한다. 주님의 영화하심은 연속적인 일일뿐 아니라 성공적인 일이기도 했다. 이 일은 하나 하나 구분되기도 하지만 연속적인 등차로 진보되어갔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 내지 등차로 이제 막 진입하시려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에게 말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이 과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별러 왔는지 모른다” (누가 22:15). 초자연적인

영광으로 바뀌게 하는 그분의 어두운 대단원, 시련, 시험, 고통 등등에 공통된 쓰라림이 과일절 어린양의 고기와 함께 먹게 되는 쓴 나물로 뽀족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주님의 경우나 거듭남으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된 사람의 경우나 등차만 다를 뿐 마찬가지이다. 제자들이 그분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께서 드실 과일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릴까요?” 제자들이 주님이 계시지 않은 채로 과일절 음식을 먹는다면, 이 축제가 그분의 것임을 알고 먹는다면 모두 가능하다. 어쨌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잡수시지 않으면 이 축제는 그분의 것이 아닌 바 우리 영혼은 그분과 결합하지 못한다.

18. “어디서?” 라는 제자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이러 이러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 사람더러 ‘우리 선생님께서 자기 때가 가까웠다고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과일절을 지내시겠다고 하십니다’고 말하여라.” 누가복음 22장 7-12절을 참조하면 제자들은 어떤 집을 향해 곧바로 간 것은 아니고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갔을 때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순수한 의미 측면에서 교회 속의 교리를 표현한다. 이 성안에 있는 집은 진정한 모든 교리가 포함하는 선을 표현해주고 있다. 제자들이 과일절을 기념하게 될 집쪽으로 인도된 것은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따라감으로 이루어졌다. 이 모습이 표현적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바, 이는 만일 우리가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간다면 우리는 선함에 관한 원리를 소개받고 또한 선한 상태에도 머물게 되리라는 것이다. 물은 진리를 상징하는 바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이란 교회의 진리로 훈육받아 영적 충명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모형이다. 주님의 모든 기적들이 지닌 의미에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지만 이를 깊이 살피지 않은 위의 사항 정도만 가지고도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자기 때가 가까웠다고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집에서 과일절을 지내시겠다고 말하라”라는 집주인으로서 대단히 황당할는지 모를 말을 전달했다. 누가복음의 경우, 이에 대해 말하기를, 제자들이 따라 들어 간 집주인을 그 집의 선한 사람(good man of the house)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집주인은 진리가 선과 결합되어 있음 또는 이해성이 의지와 하나됨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을 영적 의미로 보면 진리가 표현한 것을 그분으로부터 받아 적듯 직접 받는 것 즉 내향으로의 지각(perception)을 의미한다. 주님이 전달한 “자기 때”란 과일절 음식을 잡수시는 때를 말하는게 아니라

진정한 과월절 어린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시는 “때”를 말하고 있다. 추측컨대 집주인이 위 주님의 “때”를 이해했을 것 같지는 않다. 위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특별히 있어질 특혜에 감추어 놓였을 뿐이다. 단지 그분의 말씀 자체가 권능을 가졌다는 것, 더 나아가 영적으로 가르치는 권능을 당연히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도 충분한 납득이 있어지리라 본다. 장소가 상태를 표현하듯 시간이라는 “때”도 상태를 표현하는 바 그분이 죽게 되시는 때란 그분이 영화하시는 때를 뜻한다. 가깝다(near at hand)란 근접된 상태를 뜻한다. 이를 보다 실감나게 우리와 연관해 생각해본다면, 주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까웠다면 그분의 영화하심이 우리의 거듭남에서 주님을 실감하는 바로 그 때이다. 다시 말해 그분께서 우리의 심정과 삶에서 죽어있던 상태에서 일어나 다시 태어나지게 되는 때를 말한다. 이해성의 지각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을 집주인에게 전달함으로 의미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신성한 사랑을 받는 그릇으로서 의지가 동의한 상태도 의미하고 있다. 더불어 사랑을 통해 주님 자신과 결합하는 것까지 표현하고 있다. 예수께서 집주인의 허락을 얻어 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분이 그 집에서 묵으시겠다고 하셨는 바, 이는 그분의 뜻일 따름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주님의 뜻에 호의적일 경우 그분의 뜻을 행하는데 더 헤아려볼 어떤 것도 더 필요치 않다. 그분의 뜻은 위 구절, “내가 제자들과 더불어 네 집에서 과월절을 지내겠다”는 말에 표현되어있다. 이미 여러 번 주목해 살핀 바, 주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는 의지 부분이요, 여기서 인간과 결합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제자들을 인도해간 집주인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 안에 표현되어있다. 그 집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과월절 음식을 잡수신다. 제자란 인간 마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선함과 진리에 관한 모든 원리들을 표현하는 바 제자들이 집에서 과월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선함과 진리에 관한 인간 마음속의 모든 원리가 의지 안으로 승강될 때 그분과 교통되고 선함들이 제것 되어져서 사랑과 믿음에 관한 모든 원리가 그분과 결합되는 것을 말한다.

19.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과월절 준비를 하였다.” 이 복음서에서는 이 구절의 제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의 경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고 언급해주고 있다. 이들은 진리와 선함 또는 믿음과 사랑을 표현해주는 제자들이다. 그 외의 제자들이 세부적 측면에서의 진리나 선함에 관한 원리를 표현하는 반면 이 두 제자는 일반적 측면에서 표현한다. 이 두 제자, 이 두 원리가 과월절을 기념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들은 주님과

천국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마음을 준비시켜 준다. 더불어 심정 안에서 사랑과 평화의 그분의 왕국에 관한 원리를 확증되게 한다.

20. 과월절을 기념함, 주님께서 죽음에 앞서 제자들과 갖게 된 마지막 식사에 관해 살피게 된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열 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과월절과 주님의 성만찬에 있어서 구분되는 점에 관해서는 이미 살핀 바 있다. 이 두 사건의 영적 차원에서의 취지를 잠깐 더 살펴보자. 과월절은 구속해주시는 주님의 일을, 성만찬은 구원해주시는 주님의 일을 취급하고 있다. 이를 달리 말해보면 전자는 개혁(reformation)에 관한 일을, 후자는 거듭남(regeneration)에 관한 일을 취급한다. 전자가 후자어로 건너가면 후자 안에서 전자가 완성되고 충만함을 발견한다. 따라서 위 두 개의 위대한 표현적 차원의 축제에서 매우 깊이 있고 영원한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더 위대함이 덜 위대함을 포함하듯 주님의 성만찬은 과월절이 지닌 모든 의미를 담고 있다. 참으로 기독교회의 이 거룩한 예식은 과거 이스라엘 교회에 소속되어 온 모든 축제와 제물로 표현된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 교회의 의식 전체가 성만찬의 거행으로 체현되고 있다. 이스라엘 교회에서 씻는다는 예식은 세례라는 예식으로 체현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예식에 관한 법들이 폐지되었다해도 그 법이 요약되어 기독교회의 기념 예배를 형성함으로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성서 의미에서 저녁(evening)은 하루의 시작이었다. 하루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어진다 (창세기 1장 참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과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모인 저녁은 새로운 날의 시작, 구원의 날의 시작이었다. 유대교회에서의 이 저녁은 밤의 시작이었다. 그 이유는 그 교회는 여명을 여는 어떤 아침도 없기 때문이다. 주님에게 있어서 이 저녁은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한 시험이 덮치는 밤의 시작인 저녁이었고 이 저녁은 초자연적인 영광인 그분의 부활을 뜻하는 아침에 선행되고 있다.

21. 이 절은 위 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는 그분이 겪으시는 단계 중 가장 어두운 단계, 더 나아가 제자중 한 사람의 행동에 관한 어두운 측면까지 언급된다. “같이 음식을 나눌 때에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제자 중 하나가 저지르는 범죄 자체에 관한 것보다 그들이 과월절 음식을 먹는 도중에 주님께서 이런 범죄를 밝히셨는가에 대해서 살피려한다. 위 문단에서 저녁이란 단어가 상반되는 상태를 표현했듯 축제 역시 그렇게 표현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월절 음식을 먹은 것은 그들과 에집트 사람 사이의 완전한

분리 또는 마지막으로 있는 분리, 즉 홍해까지 추격한 에집트 군대가 몰사되는 심판이 거행되었음, 그 다음 홍해 저편에 건너가 그들이 자유로워졌음을 상기하게 한다. 이와 비슷한 분리와 심판이 이제 유대 교회에 막 내려지고 있다.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이 섞여 있던 상태에서 서로 갈라지고 있다. 전자는 구원되고 후자는 거절되어지고 있다. 불의한 사람이 유대로 표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다는 유대교를 표현한다. 의로운 사람은 유다 외의 제자들로 표현되고 있다. 유다의 속성이 면모를 드러내는 때도 과일절에서였다. 그래서 그의 반역이 미리 예고되고 신성한 진리로 있게되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유다 위에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그는 즉각 나가서 대사제에게 스승을 넘겨주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사건 이후에서도 유다와 그 외 제자들의 역사는 그들 각각이 표현하는 품성이 어떠한지를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 이 배반자, 과거 에집트 군대가 몰사했듯 멀해지고 그 외 사람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 같이 그들이 정의를 건설하기에 앞서 시련을 통과했다.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배반하는 데에는 독특한 타당성이 있다.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를 구분되게 하는 근거도 거기에 있다. 전자는 이타애를 바탕으로 한 믿음을 원리로 삼아 행동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이타애라는 바탕이 없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따라서 주님을 배반하는 것은 이타애가 없는 믿음(faith without charity)이라는 원리이다.

22. 제자 중 하나가 배반한다고 말하자, “제자들은 몹시 걱정이 되었다.” 걱정(sorrow)은 시험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피로워 죽을 지경에” 이르는 시험을 우리를 위해 받으셨는바 우리의 걱정을 짊어지셨다고 말해진다. 이런 걱정은 자기를 검증하게 한다. 시험받음에도 유용한 측면이 있다. 즉 시험받음에서 악이 흥분되어지고 따라서 악의 면모가 우리에게 밝혀져 추방할 수 있게 되는 바, 시험은 우리의 거듭남에 꼭 필요하다. 제자들이 근심한 결과 주님께 묻는 언어 형체는 매우 인상적이고 교훈적이다. 각자가 주님께 물어보되, “배반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주님, 배반자가 저입니까?, Is it I?” 라고 했다. 참된 자기 검증은 일반적 측면에서 있는게 아니라 세부적 측면에서 있게됨을 “주님, 제가 배반자입니까?” 라는 질문 자체의 형식이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로 죄의 울무에 걸리도록 시험있게 하는 악이 어떤 것인지를, 그 악이 우리 속 어디에 숨어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게 자기 검증이다. 이런 검증은 우리 고유의 이성이나 추론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오로지 위로부터 비추이는 빛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주님 한

분만이 우리 마음속에 꼭꼭 숨은... 어쩌면 우리 자신이 꼭꼭 숨겨 놓은 악을 밝혀 드러나게 하실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인간, 개개인이 그분을 쳐다보며 “주님, 그것이 저입니까?” 라고 말해야 하리라.

23. 이런 질문에 주님은 직접 답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할 것이다.’” 과월절에 사용된 본문의 그릇은 쓴 소스(bitter sauce)를 담아 놓는데 사용되었다. 과월절 음식은 먼저 이 쓴 소스에 담가 먹었다. 이런 의식에서 사용된 쓴 나물은 시험의 쓰라림을 의미함은 이미 살핀바 있다. 단어 담금(dip)은 세례를 베푸(baptize)을 뜻하는 것들로부터 파생되어있고 세례에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포함되어있다. 유다의 손과 예수의 손이 같은 그릇 안에 동시에 있다는 것은 두 사람 모두 다가오는 시련에서 전자는 괴로움이고 후자는 고통을 참아낸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는 모습이다. 손이란 힘, 권능을 상징한다. 유다의 손은 지옥 자체의 권능에 대한 상징물이다. 그 이유가 유다가 적신 빵조각을 받아먹을 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다. 한 접시에서 각자의 빵을 적신다는 것은 우정에 있는 친근성을 암시하는데 시편 41편 9절을 읽으면 알 수 있다. “...흉어물 없이 사귀던 친구마저 내 빵을 먹던 벗들마저 우물대며 뒷발질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누군가와 빵을 먹는다는 것은 선을 수단으로 누군가와 교제함을 말한다. 물론 위선으로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는 조장된 선함ियो, 속이 빈 고백을 뜻할 뿐이다. 유다로 표현된 유대인의 측면에서 그들이 주님과 빵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성경)을 소유해서 읽고 있다는 말이다. 이를 우정 관계의 표현에서 보면 그들은 무리를 지어 하느님의 집을 거닐며 서로를 즐겁게 하는 담소를 하고 자기들 교회가 외적 지식을 풍부히 갖고 있으면서 예배한다는 것에 기쁨을 표현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분을 향해 내향으로는 반역하려는 상태에 있었다. 예수께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들 스스로 보여주었다.

24. 주님께서 계속 이으신다. “사람의 아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미리 예견된 바, 메시아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서 퇴박 당하리라는 것이다 (이사야 53:3, 다니엘 9:26). 이렇게 예견되듯 신성한 지혜와 자비가 무한한 선인 주님을 죽음에 놓이게 허용했다할지라도 그 음모를 꾸민 이들의 범죄 자체의 무게가 덜해질 수는 없다. 사악함이 유다의 머리와 유대교회 위에 되튀어 올라왔다는 것이 유다의 행동으로

적절히 표현되고 있다. 더불어 유다가 더 표현하는 것은 진리를 배반하되 교묘한 방법, 즉 자신 스스로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진리를 자신의 이기적이고 세상적 목적에 종노릇하게 만들려 추구함으로 진리를 모독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파멸되게 하는 쪽으로 진리를 모독하는 것이다. 영원한 파멸인 “화, woe”가 그들의 목을 매어 달고 있다. 그야말로 아예 태어나지 않는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 말씀은 자연적 측면이 아닌 영적 측면에서의 출생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이유는 진짜 모독자는 하늘로부터 태어났으며 스스로 하늘의 생명을 파괴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결코 태어나지 않는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25. 주님께서 배반자가 되고야 마는 사람을 향해 심하게 말했을 때, “그 때에 유다도 나서서 ‘선생님, 그것이 저입니까?’” 자신이 이미 스승을 배반할 의도를 굳히고 있는데 버젓이 위와 같이 물어온다는 것은 능청스러운 일인 듯 보일지 모른다. 예수께서도 그의 의도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고 계신다. 아마 이 본문을 통해 유다는 그가 표현하는 사람들이 지닌 이중적인 마음 상태를 적절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진리 안에 있으면서 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알고 있으나 믿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식은 그들 생활에 아무 영향도 끼쳐주지 않는다. 물론 그들의 내향적인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연유로 유다가 주님께 묻고 주님이 대답하시는 모습은 어처구니없는 장면 같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긴요하게 필요한 형상인 것이다. 자기 검증을 실시하되 그 검증에서 악이 잠복해 있는 곳을 찾지 못한다면 헛된 검증, 실시할 필요도 없는 검증에 불과하다. 악이 잠복된 곳에 빛을 비추어 진리의 빛에 놓이게 해야 악은 선에서 분리될 수 있다. 본문의 사건에서는 읽을 수 없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유다는 빵을 받은 뒤에 곧 밖으로 나가” 제 목적을 이루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 측면에 관련해 볼 때 유다는 인간 본성에 있는 육적인 원리를 표현하는 바 이것이 악의 뿌리임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천하고 일시적일 뿐인 충족을 위해 구주와 제 구원을 팔아버리는게 탐욕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성만찬의 제정을 살핀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다.” 성찬, 예배 중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이 의식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자비를 영구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거듭나 구원받도록 그분 자신을 주시는 수단을 표현하도록 제정되어졌다. 이 의식은 과일절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성찬은 과일절의 만찬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즉 빵과 포도주는 어린양과 쓴나물 대신 받게 된다. 성찬을 제정하심에서 주님은 그분의 몸을 빵이라, 그분의 피를 포도주라 부르셨다. 그러나 구세주의 몸과 피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은 물질적일 수 없다. 만일 물질적인 몸과 피라면 이것은 영혼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영적 생명을 지탱시켜줄 수 없다. 따라서 주님의 몸과 피란 언어의 비유적 형태이다. 그분의 인성은 더 이상 물질적이지 않다. 그 인성은 영화 하시어 신성으로 만드셨다. 그러나 그분이 지상에서 가지셨던 물질적인 몸과 피에 상응하는 신성한 원리들이 그 안에 담겨있다. 이 신성한 원리란 선함 자체와 진리 자체이다. 이것들이 주님의 참 인성을 구성하고 기독인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분의 몸과 피이며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 성찬에서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인성 안에 있는 신성한 원리에 관한 상징물이다. 빵과 포도주가 육체에 자양분을 공급해주듯 신성한 선함과 진리는 영혼(soul)에 자양분을 공급한다. 빵은 살 또는 몸과 같은 의미를, 포도주는 피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서는 성찬의 요소로서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도록 지정하셨고 주님 스스로 본을 보여 주셨다. 그러면 외관에 속하는 성찬에 있는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영이 내향으로 작동하여 주님으로부터 선함과 진리를 영적으로 열납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을까? 두 세계의 연결은 상응(correspondence)을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상응을 수단으로 지상은 천국과, 자연계의 것은 영계의 것과, 인간은 천사와, 몸은 영혼과,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된다. 우리가 매우 경건하고 성심껏 성찬식에 참가한다면 우리의 헌신은 거룩함으로 덮여진다. 사실 이것 없이 진정한 예배는 존재할리 만무하다. 거룩함이 우리를 휩쓸 때 우리는 주님과 천국에 더 직선적인 연결을 이루고 빵과 포도주에 상응되는 것인 신성하고 천국적인 원리를 받는 능력을 더욱 완전하게 갖추게 된다. 다시 말해 외적 측면의 인간까지도 내적 측면의 인간과 더욱 완전한 상응을 이룬다는 말이다. 이러면 더 낮은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부터 감화를 받으면서 감화된 정도만큼 더 높은 수준이 보다 낮은 수준 안에 담기게 된다. 이렇게 성찬을 경건하게 받으면 천국으로부터 내려 오는 진정한 빵이 심정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 이상의 성찬에 대한 일반 견해를 가지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자. 주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는 행동을 가지고 그분은 그분 자신에 관련된 것, 즉 그분의

인성은 들어올림으로 그분의 신성과 하나된다는 것, 이런 승강을 수단으로 인성은 성스러워진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빵을 떼어 나누어주시는 행동으로 그분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분의 거룩해지신 인성은 그분의 자녀가 간절히 원한 빵을 나누어(impart)주심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빵을 두고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성한 예식은 사람의 아들의 승강과 하강 양쪽을 표현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 인성의 영화하심과 그 영화하심이 인간의 마음에 성령으로 내려오심을 표현한 것이다. 주님의 몸과 빵은 신성한 선의 측면에서의 인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하신 말은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선을 우리가 실감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다. 즉 주님께서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되 제자들 스스로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그분께서 값을 치름도 없이 주시는 것을 적극적인 태도로 받음으로 주님과 협동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받은 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상의 음식은 먹어야만 육체 안으로 들어와 몸을 지탱시켜주듯, 천국의 양식을 선용(use)한다면 우리 것 삼을 수 있어 영혼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에 자양분을 공급한다.

27, 28. 빵을 떼어 주신 다음,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들에게 돌리시며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다.’” 이 구절에서는 보다 특이한 모습에 주목해보자. 주님께서 들어올리신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잔이라는 것에 대해서이다. 물론 이 잔 속에 포도주가 들어 있지 않다고 우겨댈 사람은 하나도 없고 물론 포도주 잔인 것은 틀림없으나 글자의 표현은 보다 특이하게 “잔”을 언급하고 있다. 포도주를 담는 그릇인 “잔”은 내적인 것을 담는 외적인 것을 의미한다. 주님 측면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이 “잔”은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진리라는 참 그릇이 신성으로 만들어졌음을 함축하고 있다. 이를 말씀 측면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나 백성을 가르치시되 말씀의 내적 의미를 직접적으로는 결코 전달 않으시고 글자를 수단으로, 글자 안에서 그분의 영을 주시는 방법으로 가르치실 것을 함축해놓고 있다. 주님께서 빵을 그분의 살이라 하셨듯 포도주는 그분의 피라 부르시고 있다. 비록 포도주가 그분의 피에 대한 상징물이라해서 포도주에 대한 상징성이 끝난게 아니라 포도주와 피는 제각각 상징하는게 더 있다. 두 물질은 비슷한 의미를 지니면서도 서로 구분되는 의미를 더불어 지니고 있다. 포도주는 영적 수준의 진리에 대한 상징물이고 피는 천적 수준의 진리에 대한 상징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빵”과 “몸”에도 적용된다. 이런 이중적인 상징이 성찬 안에 내포된 이유는 성찬은 전 인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천적 수준과 영적 수준 모두에서, 그리고 그분께 되돌려야 할 인간 쪽의 사랑(reciprocal love)까지 모두 표현되도록 배려하신 섭리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피를 두고 “새 계약의 피, the blood of the new testament”라 부르셨다. 유언(testament)이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재산을 전하는 수단이다. 계약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조건이 설정되어 그 조건에 대한 쌍방의 동의이다. 이런 동의가 주님의 피에 있는 새로운 계약, 그분의 신성한 진리에서의 새로운 계약이 지닌 성격이다. 새 계약은 옛 계약과 다른 점이 있다. 옛 계약은 돌판에 씌어진 법으로 되었으나 새 계약은 심정에 새겨지는 법이다 (예레미야 32장 33절).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비슷하다. 성찬을 값있게 받는 이들은 그가 하느님의 자녀요 하늘 나라의 상속자됨을 증거하고 봉인되며 표를 해두게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 계약의 피에 관해 그것은 “죄를 용서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다”고 말하셨다. 그분께서 받으시는 고통 중 마지막인 십자가에서의 피흘리심은 그분께서 창조물을 위해 참아내신 모든 것에 대한 간절하고도 강하게 표현된 어구로 전체를 위해 놓여져 있는 말씀이다. 첫째로 주님의 고통은 어둠의 권세를 극복하고 인성을 완성하는 수단이었다. 둘째로 이런 고통은 그분의 창조물을 완전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서는 시험당하는 창조물을 건져내시기 위해 그분 스스로 시험받으셨다. 그분의 피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해지고 있고, 계시록 7장 14절의 경우 “성도들은 어린양의 피로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 희게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이런 모든 구절은 비유적 언어이다. 주님의 피를 물질 수준에서 이해한다 해도 그분이 흘리신 피가 의미하는 그분의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만 우리의 깨끗해짐은 가능해지고 죄라는 죽음과 고통이라는 시험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리하여 죄가 제거되고 삭제되는 것이다. 이것이 어린양의 피로 제 옷을 빨 사람들이요 이들이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계시록 7:14). 환난은 주님의 제자들을 순수하게 하는 수단이다. 기독인이 환난을 겪어 얻는 효과는 구세주 스스로 통과해 가신 환난의 결과이다. 주님의 피에는 영적 수준의 의미가 당연히 있다. 물질적인 주님의 피는 그분께서 영화시키신 몸에 관한 신성한 진리를 상징한다. 이 피는 제자들이 죄에서 깨끗해지고 영생을 얻기 위해 반드시 마셔야만 하는 사람의 아들의 피이다. 이런 의미가 다른 측면에 적용해도 무효화되는 것도 아니다. 여타 다른 측면들도 이런 피의 의미의 범주에 있거나 그 의미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은 성령강림 때에 그분의 영을 내어 흘리시기에 앞서 필요한 예비적인 수단이다. 주님께서 흘리고 지금도 흘리시는 거듭나는 영은 그분의 인성 측면에서이다. 거듭나는 영의 측면은 사실 그분이 영화하신 때까지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본문에서 새 계약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 죽으시어 구속하시는 인간 숫자를 가리키는 말일까? 구속의 보편성은 너무나 넓어서 위와 같은 의견도 가능할 수도 있게 성경에 선포되어져 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 주님의 피가 뿌려지는 “많은 사람들”이란 뿌려지되 드넓게 모든 심정들에 뿌려진다는 말이다. 그 이유가 이 숫자는 신성한 권위로 결정되는게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주님께서 그분의 진리를 받게 될 사람의 숫자를 예견하시지만 그 숫자가 얼마가 되리라고 결정하시지는 않는다. 그 이유가 하느님은 가능하면 인간 모두가 구원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말해보자면 만일 구원이 그분의 의지가 원하는 대로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인류를 향한 주님의 바람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에 표현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

29. 잔을 돌리신 뒤 “‘잘 들어 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결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시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글자대로 생각해보면 이 구절은 그분께서 지상에서 제자와 함께 잡수시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말하고 그들과 다시 함께 할 잔치는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인가! 이 얼마나 위로를 주는 약속인가! 지상의 마지막 만찬은 천국의 영원한 잔치의 시작이다. 그럼에도 이런 체험은 저 세계에만 전적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의 나라는 천국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지닌 교인 안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과 일치되도록 주님께서 본문에서 잔도 아니요 포도주도 아닌 포도나무의 열매라는 단어로 언급하시고 있다. 그 이유는 포도주는 영적 진리를, 포도나무의 열매는 천적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새롭고 더 높은 상태에 도달할 때 포도나무의 열매는 새롭게 존재한다. 이런 상태란 사랑이 통치하는 정부형태요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로 의미되고 있다.

30.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생명과 영광되시는 주님께서 비천한 그분의 추종자들과 예루살렘 이층 방에서 찬송을 부르신 것이다. 과거 천사들이 과거

은 백성에게 있어야 할 큰 기쁨의 소식인 그분의 탄생을 알렸을 때도 찬송을 했다. 위 구절의 경우 그들의 노래는 완성되어 가는 그분의 구속을 노래했으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그 이유가 주님의 만찬은 이제 구속의 끝을 맺는 일에 참가하심을 기념했기 때문이다. 이 찬송은 결코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지상과 천국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영원히 더욱 울려 퍼져갈 것이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 인간 언어에는 두 가지 요소, 즉 소리와 음절이 있다. 소리(sound)는 애정의 표현이고 음절(articulation)은 생각의 표현이다. 본문의 거룩한 노래에도 위 두 요소가 존재한다. 참된 찬송은 “고귀한 단어들로 이루어진 완전한 음악”이다. 구속하심이 영화하심이라는 형체를 자아내는 주제야말로 이 얼마나 장엄할까!

우리가 예를 갖춰 주님의 신성한 일을 직시하면서 거룩한 애정이 지닌 열정을 가지고 발음해야 하는 그 생각은 무엇일까? 죄와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행동하시고 고통받으셨던 불가사의한 주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닐까? 우리를 끄찍한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고 우리의 발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건설해 주신 그분, 그리하여 하느님을 드높일 수 있게 우리의 입에 새로운 노래를 놓아주신 그분을 노래해야 한다. 이런 주님을 찬양하려면 심정 속에 있는 멜로디로 노래해야만 한다. 진정한 하모니, 애정들로 이루어진 음악이 자리잡고 있는 심정은 천사의 노래와 분명히 하나를 이룬다. 주님과 제자들이 찬송을 불렀을 때 그들은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여느 어떤 산에 비해 이 산은 신성한 사랑, 천국적인 사랑을 상징한다. 주님께서 앞서 가시고 제자들이 따라간 위 구절의 모습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친다. 우리가 그분의 구속하시는 원리, 선함과 진리에 관한 생명있는 원리를 심정과 이해성에 받게 될 때 그분의 구속하심은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상태로까지 승강되게 하신다.

31. 이런 사랑은 주님의 고통과 죽음에 있는 신비를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분이 갖는 결과를 제자 자신의 것이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이 지닌 최고의 애정이 주님을 향해 솟구친 지금 위 주님의 발표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이런 충격을 주는 제자들의 결함을 말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얼마나 온유하신지! 위의 “흠어지는” 사건은 제자 자신들이 방황하겠다고 결정했다기보다는 신성한 목자를 잃어야 하는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른다. 즉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흠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말 목자의 보살피 주심에 오로지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충격이 있을 때 자기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변명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어쨌든 제자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는 진정한 모든 제자에게 대체로 있어지는 시련의 모형이다. 반복해서 말한 바, 세상에서 주님의 삶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있어지는 그분 삶의 역사라는 것이다. 그 이유가 그분의 영화하심 같이 우리는 거듭나야하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미에서 유대인이 주님을 취급한 모습은 유대교회가 말씀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즉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고 심지어 파괴해버리기까지 했던 행동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행동까지도 영적 차원에서는 우리 각자 속에 그에 상응하는 양상이 놓여있다. 우리의 악한 본성 속에는 아직도 과거 이스라엘의 부패된 후손들이 육을 입은 말씀에 저지른 큰 악들처럼 이런 반역적인 열정의 근원이 들어 있다. 주님께서 “오늘 밤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깊은 시험의 밤, 즉 악의 권세가 인간 심정에 든 어둡고 부패된 열정을 휘저어 영혼에 있는 사랑과 진리의 참 생명을 죽이는 원인이 되는 것을 암시하신 것이다. 제자란 선함과 진리에 관한 애정들을 뜻한다. 우리 속 이런 애정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이런 애정들이라 해도 악의 권세가 선함의 권세를 누르고 봉기하면 일시적이지만 주님을 버리는 결과도 초래한다. 이런 양상을 주님께서 덧붙인 말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의 구절이 상응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주님은 신성한 사랑 측면에서 목자이시고 그분의 양떼의 양이란 이타애의 애정이다. 사랑이 강타를 얻어맞으면 이 사랑이 거하는 애정은 산산이 흩어지고 만다. 시험이 덮친 시간 동안 하느님을 사랑함은 헛된 일인 듯 여겨지고, 이웃을 향한 애정과 지각 역시 그것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지탱시켜줄 중심세력이 사라진 듯 여겨질 때 인간 속의 이 두 사랑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서로 서로로부터 모두 흩어지고 심각한 시련이 붙어닥친다. 주님이 예견해서 말하신 이런 시험의 결과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겠다는 제자들 위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32.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해두신 이 시련은 그것과 동시에 십자가형을 포함해서 모든 고통들로 더 확대되어져간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어떤 약속, 희망에 관한 말 한마디도 없이 그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부활하실 것임을 그들 마음에 심어 주셨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야로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는 기독교의 제자들에게 주는 희망과 약속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일어날 것이다.” 주님과 더불어 죽는다는 말은 자신 속에서 그분의 죽음을 실감하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가 그분과 그분의 나라에 관해서 육적으로 관조함을 내버릴 때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된다. 그가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영적으로 관조할 때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일은 새로워지는 모든 심정과 지성 안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신 후 제자보다 먼저 갈릴래아에 갈 것이라고 말하시고 있다. 목자되시는 그분이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하되 양떼보다 먼저 갈릴래아에 갈 것이라는 말은 그분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독 제자에 관계시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심정에서 일어나시면 그분은 먼저 선함과 진리의 원리들에 가시어 인도해내 자연적 마음의 애정과 생각들에 옮겨 놓으시어 우리로 그분 자신을 명백히 알게 해주신다. 이러면 자연적 마음도 거듭나지는 마 인간 전체가 새로워진다.

33.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결함을 드러내고야 말리라고 위와 같이 말하셨을 때 “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자만이 시련의 원인이 되고 시련을 부르고 있다. 주님께서는 각자 제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게, 경험으로 겸허해짐을 가질 수 있도록 단련받는 것을 허용하신다. 우리가 시험받아 지기 전까지는 제 경험으로 의식해서 알게 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심정에 악이 들어있는 줄을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께 헌신과 열정을 바치겠노라고 결심했으나 아직 그 결심이 단련을 거치지 않은 제자들의 공통된 신념을 표현한 셈이다.

34. 다시 주님께서는 곧 되어질 일을 예견해 말해주시되 제자 전체를 향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지목해 말하시고 있다. “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베드로는 그분을 모르노라고 한번이 아닌 세 번씩 부정했다. 닭이 우는 새벽이란 시험의 밤에 뒤이어 오는 빛과 사랑의 새로운 상태가 개시됨이다.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함은 완전한 부정을 함축한다. 이를 거듭나고 있는 사람들에 관련해 생각하면 베드로의 부인은 시련의 어두운 때에 제 구세주로서의 주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거의 낙망될 상태에 있는 기독교인의 시험을 표현한다. 베드로가 부인함과 이를 주님이 예견하심은 교회의 상태와도 관련되고 있다. 특히 유대교회를 넘어

기독교라는 처방에까지 이르러 관계된다. 베드로는 믿음의 원리를 표현하고 밤과 아침은 옛 교회의 끝과 새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교회의 마지막 상태에서 믿음이 지독하게 기대를 저버리는 것, 천상천하의 하느님이 주님이 시다는 것까지도 부정해버릴 정도로 실패하고 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35. “베드로가 다시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위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우리도 잘 알고 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역시 주님께 신실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의 결점에는 고의적인 것, 악의 같은 것은 없다. 이런 점에서 가리옷 유다의 행동과는 매우 다르다. 그들이 실패한 것은 그들 속에 악한 원리가 너무 강해서였다기보다는 선한 원리가 너무 미약해서 야기된 것이다. 그들의 예수 사랑은 신실했지만 미약했다. 그 이유가 그들의 예수 사랑은 영적 차원보다는 자연적 차원에 더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 능력에 신뢰를 두었던 바 그 결과는 제 약함의 표출뿐이었다. 그러므로 대단히 필요하고 유용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수와 더불어 죽는다는 것은 자아와 세상을 죽이는 것, 우리의 악한 본성을 송두리째 십자가에 자진해서 못박는 것이다. 희생이 우리에게서 요구될 때 먼저 신실하게 생각해 볼 것은 시련이 와있다 해도 그 희생으로부터 우리를 움츠리게 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쇠약함은 교회 속의 베드로만에 국한된 약함이 아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부정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죽기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즉각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감으로 자신에 큰 신뢰를 둔 사람은 가장 두드러진 실패를 하고 만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분과 함께 죽을 준비가 미처 안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연적 측면에서 본다면, 열한 제자가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주님의 예견이 있는지 얼마 안되어 철저하게 약속을 어기고 마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일인 듯 비칠 수도 있다. 아예 그들은 주님의 예견과 그분의 경고가 전혀 없었던 일인 듯 보이기까지 한다. 진리가 기억 속에만 있을 때 이 진리는 전혀 없는 듯 보이는 것이다. 역경과 시련은 마음의 관조로부터 진리를 제거한다. 진리가 심정에 뿌리를 내렸을 때만이 제 아무리 시험이 와도 우리에게 쓸모있는 진리가 된다. 그러나 어둠의 시간 동안에서 비록 진리가 기억으로부터 사라진 듯 보여도 만일 믿음의 선한 바탕이 보존되고 있다면 심정 속의 믿음이 이해성 속의 믿음을 계승할 때 회개라는 열매를 산출한다.

36. 이제 우리는 주님의 생애 중 대단히 장엄한 대목에 속하는 사건을 접하고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니라는 곳에 가셨다.” 게세마니는 장엄한 측면에서 갈보리를 능가한다. 이 동산에서의 주님의 고통은 정신적 측면이고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육체적 측면이다. 게세마니는 “착유기, oil press” 라는 뜻이다. 이 동산에서 겪는 주님의 고통을 이 동산의 이름만큼 잘 표현한 단어도 없을 것이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착유기도 포도즙틀(winepress)처럼 시험을 상징한다. 아마 말씀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는 주님, 어둠을 정복하시는 주님을 묘사하기 위해 채용된 어느 표현적 상징성도 이 문단에 버금갈 수 없을 것이다. 이사야 63장 1-4절을 읽어보자. “에돔에서 온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걸치고 보스라에서 온 이분은 누구신가? 위엄찬 옷을 입고 위세를 펼치며 저벽저벽 걸어난 이분은 누구신가? ‘나는 구원을 약속하는 자, 도울 힘이 많은 자이다.’ ‘어찌다가 당신 옷에 붉은 물이 들었습니까? 당신 옷은 마치 포도주틀을 밟다가 물든 것 같군요.’ ‘나는 혼자서 술틀을 밟아야 했다. 나의 백성 가운데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너무나도 노여워, 나는 그것들을 마구 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나의 옷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 것이다. 원수 갚을 날을 정하고 버르고 있다가 마침내 복수할 해가 왔는데...”” 올리브 기름틀은 포도즙틀보다 더 깊은 시험을 표현한다. 그 이유가 주님께 관련해 볼 때 포도나무는 그분의 신성한 진리를, 올리브나무는 그분의 신성한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올리브 기름틀을 밟는 이들은 신성한 사랑에 직접 반대되는 어둠의 권세, 가장 비참한 종류의 시험을 일으키는 어둠의 권세이다. 이와 같은 시험이 주님께서 게세마니에서 견뎌내신 시험의 품성이다. 예수께서 게세마니에 오심이 함축하는 바,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인류를 가장 깊게 미워함에서 오는 어둠의 권세가 일으키는 시험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지옥이 가능만 하다면 신성한 일의 완성을 방해하려고 구속자에게 가하는 가장 큰 그들의 권세를 발휘하는 상태에 그분께서 진입하신다는 것이다. 이 동산에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고 말하셨다.” 주님께서 “여기 앉아 있기를” 바란 제자들이란 이런 교인들, 즉 주님께서 지금 견디어 내셔야만 하는 시험 같은 것, 내면의 시험에 주님과 함께 진입할 수 없는 교인을 표현하고 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있어야 하는 곳에 “앉아” 있기를 바랬다. 이는 그들이 훨씬 더 자비롭게 지도할 수 있는 상태에 확고부동하게 남아 있기를 바래셨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받는 시험에 그분과 함께 갈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그분을 따라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이 있기를 바라신 그곳에 인내심있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더 높고 더 내면에 속하는 장소를 준비하고 있으신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기 앉아 있어라”는 말씀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그분이 받는 시험처럼 그분의 기도하심도 그들의 구속과 구원에 그 목적이 있으셨다.

37.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정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신 반면, “베드로와 제베대오의 두 아들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세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도록 선발하셨다. 이런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그분이 변모하셨던 때이다. 그들이 변모하신 영광의 그분에 관한 목격자로 선택되었듯 지금 그들은 깊고 깊은 그분의 굴욕에 관한 관찰자로 선발되었다. 그들이 이렇게 선발된 이유는 이미 17장 1절에서 살핀 바 같이 영적 측면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종교의 세 가지 위대한 필수 요건, 믿음, 이타애, 그리고 선한 일을 표현한다.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때가 있을 경우 주님과 동행하도록 선택되었는데, 이는 종교의 위 세 본질을 지녀야 주님과 더불어 그분이 체험하신 깊이와 높이로 들어간다는 것, 각 개인의 마음 안에서 위 세 원리들이 주님과 더 직접 연결되게 해준다는 것, 위 원리들이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직접 받게 하는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려는 배려에서였다. 이 세 제자들의 면전에서 “예수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싸이셨다.” 십자가가 서있는 땅에까지 내려와 그곳을 킁킁하게 할 마지막 가장 어두운 시험의 구름이 사람의 아들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주님의 강림으로 그분을 대적하려고 이동했었던 지옥이 곧 이뤄질 주님의 구속과 영화하심의 완성을 가능만하면 막으려고 최하위의 깊이까지로 이동했다. 최하위의 지옥이 최고의 천국과 반대되듯, 가장 지독한 악은 가장 위대한 선과 반대되고, 자연적 마음의 가장 낮은 애정은 영적 마음의 가장 높은 애정과 반대된다. 이런 반대되는 두 세력간의 다툼에 있는 시험은 삶의 완전함이 증가할수록 더 격렬해진다. 더 수준 낮은 상태들, 더 수준 낮은 악들이 자연적 마음에서 활성화되고, 세력이 각기 더 증가할수록 그 싸움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주님은 진실로 사람이셨는 바 그분의 시험도 여느 인간 본성의 범주에 있기에 그분의 시험도 여느 인간 존재의 시험에 있어지는 법칙을 받게된다. 그러나 그분이 지닌 인성은 무한이시고 영원한 완전인데 비해 우리의 인성은 유한하고 영원으로 진보한다. 따라서 그분의 시련들은 우리의 시련보다 무한하게 더 격렬하다. 이 시험의 본성뿐만

아니라 그 격렬함은 이 구절에서 사용된 언어에서도 무시무시함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한다. “번민, to be very heavy”으로 번역된 단어는 다른 대상으로부터 파생되는 쾌락의 손실을 암시한다. 주님께서 느끼신 공포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덮친 “심한 두려움” 같이(창세기 15:12), 신성한 빛의 차단으로 생산되는 시험이라는 결과를 표현한다. 이는 마음의 내적 측면으로부터 하강되듯 이루어진다. 그 반면 번민(heaviness)은 기쁨의 박탈을 표현하는데 마치 사람들이 느낀 깊은 슬픔, 세상이 자신에게 텅빈 듯 나타날 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자신에게 즐거움을 제공해주지 못하기에 야기되는 슬픔같은 것을 표현한다.

38. 시험이 더 증가되고 있다.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하신다...” 주님이 받는 시험의 본성이 이 구절에서 이해될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이 절의 표현이 어느 인간의 것같이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험의 격렬함은 모든 인간 납득력을 넘어있다. 그 이유는 이 시험의 목표가 인류를 향한 사랑이고, 이 사랑 자체는 신성이기 때문이다. 죽게 된다는 느낌이 그분을 덮칠 때 그분께도 번민이 있었을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육체적 죽음의 공포가 아니다. 극도로 번민할 것은 그의 영혼 측면에서였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분의 영혼은 신성 자체인데 어떻게 그분의 영혼에 번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번민했던 영혼은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파생된 영혼 또는 생명이 아니고 어머니로부터 상속된 영혼이다. 이것은 그분의 내적 인간에 관한 것이 아닌 외적 인간에 관한 영혼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하신 이런 대목에서 알 수 있다.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는다...” (요한복음 10:15, 마태복음 10장 39절 참조). 우리가 아는 바 신성은 시험될 수 없고 슬퍼할 수 없으며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죽게 되는 주님 안에 있는 것, 그분께서 내려놓겠다는 목숨은 인간적인 원리, 어머니 쪽에서 상속된 목숨, 타락되어 있는 것, 유한한 것들이다. 그분이 시험에서 체험한 근심, 거듭나는 사람이 견디어 내는 근심은 어머니 쪽이 아닌 아버지 쪽,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 육체 쪽이 아닌 영혼, 외적 인간이 아닌 내적 인간에 근원을 두고 있다. 자연적 인간은 시험을 모른다. 그러므로 악에 저항하는데서 발생하는 근심도 없다. 시험 속의 괴로움은 악에 대항하는 사랑이 공격받는데서, 옹호해야할 대상을 잃을까 하는 염려에서 야기되어진다. 단순한 인간이 시험에 저항하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는 제 영혼에 근심을 만드는 것을 잃을까, 급기야 죽으면 어쩌나 하는 위협을 생각하는 대상은 영원한 생명의 사랑이다. 그러나 이런 근심도 실제로 이

영혼까지 침입하지 못하고 단지 육체 안의 영혼에 국한된다. 하나님에 속한 것, 진실로 선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 눈동자처럼 악으로부터 서는 움츠러든다. 영혼은 육체와 더불어 고통받지 않으나 육체가 고통당할 때 영혼은 슬퍼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의 경우이다. 악과 시험은 내적 인간을 꿰뚫어 나가지 못하나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 안에 마치 영혼이 몸 안에 있듯 하기에 슬픔을 비끼지 못한다. 시험이 생산하는 근심과 번민은 내적 원리로부터 진행되는 외적 느낌들이다. 주님의 영혼이 한층 격렬해져 번민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셨듯 세 제자에게 말하셨다. “여기서 머물러라.” 더 첨가하신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선택된 이들조차도 그분의 번민을 얼마큼만 볼 수 있었을 뿐이다. 이 제자들은 시험 중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게 되었지만 그분의 곤경에서 그분의 동반자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 즉 그들 속의 최선의 가장 완전함을 넘어서는 더 나아갈 수 없다.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여기 머물러라”는 거듭남에서 주님을 따르는데 진보해 가는 법칙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 제자에게 말하셨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watch with me.” 깨어있어라는 것은 이해성이 영원에 관한 관심에 깨어 있게 하라는 것, 영혼을 위협하는 위험한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더구나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에는 좀더 특별한게 있을 것은 자명하다. 즉 내가 깨어있는 동안 깨어 있어라; 내가 깨어 있는 것 같이 깨어 있어라. 그분을 목표로 하여 댔친 시험은 그분의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시험으로 댔친다. 그 교회가 위협에 참여했듯 위협을 만나고 피하는데 요구되는 불침번서기에도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분의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그분과 함께 깨어 있을까? 주님께서서는 우리들 안에서, 우리 너머에서 계속 깨어 있으신다. 깨어 계신 그분의 섭리가 사탄의 음모를 비켜갈 수 있게 해주는 바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에 그분과 더불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잘 감시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도 그분과 깨어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할 때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

39. 세 제자들에게 거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지시하신 뒤,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계체마니에서의 주님의 깊은 시험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했다. 여기서는 그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살피기로 하자. 그분께서는 “땅에 엎드리셨다.” 엎드림은 매우 깊은

굴욕(humiliation)을 표현하는 자세이다. 이 부끄러운 심정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텅비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한다. 순전히 인간 측면이라면 이 부끄러워 함과 그 결과는 기껏해야 불완전함에 머물고 최대한 확대해 보았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그분의 완전함의 그림자밖에 더 결코 되어질 수 없다. 그분의 부끄러움은 그분의 드높여지심이 더 위대한 만큼 같이 더 깊다. 이 깊이의 정도가 얼굴을 땅에 대심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이유가 얼굴(face)은 마음의 내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배에서 땅에 엎드리는 것이 인간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표현하는 자세이다.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내면의 부끄러움을 의미한다. “기도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이 잔이 십자가의 고난을 두고 하신 말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 주님의 고통이라는 이 잔은 고통의 한 형태인 잔인한 자연적 죽음을 납득한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자연적 죽음은 이 잔 그 외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잔이 담고 있는 쓰디쓴 내용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셔버려야 하는 잔 속의 내용물은 영적 죽음이었다. 이 영적 죽음은 그 안에 인간 고통의 모든 악, 특히 시험의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 타락으로 도입된 모든 비참함, 영적, 자연적 세계 모두에 존재해왔던 모든 비참함이 이 잔 안에 담겨있다. 마리아의 아들로써, 유전적으로 주님께서서는 모든 고통의 바탕 자체를 그분 위에 얹으셨다. 이 유전적 본성을 통해 모든 지옥은 그분을 짓눌렀다. 그분은 이런 지옥의 권능과 경함을 별려야 했다. 지옥의 공격에 구실을 주는 인간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는 죽이셔야만 했다. 이런 모든 것이 죽어감으로 그분은 그것을 극복해야만 했다. 이것이 그분께서 계셰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분 앞에 놓였던 잔이었다. 그분의 기도 대목, “아버지여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에 우리는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분께서는 마지막 고난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해 제자들에게 반복해 말하셨기도 하다. 그분께서는 대단히 침착한 평온함으로 그 사건을 내다보셨고 말해오셨다. 그런데 막상 그 사건이 눈앞에 다가오자 그분을 섬뜩하게 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우리는 광폭한 죽음을 내다보는 주님의 체험과 인간의 체험 사이에 어떤 유추될만한 것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고결하고 순진한 분이 평온의 얼굴로 죽음을 보고 있다. 어쨌든 주님의 체험이 무엇이어야만 했을까? 그분이 가지시는 번민과 평온의 바탕은 인간의 것과 매우 다르다. 영적 죽음을 걱정하는 인간의 시련과 번민 만이 주님의 시련과 번민의

참 형상으로 제공될 수 있다. 그분의 걱정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잃는데 따른 걱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한 걱정, 창조의 마지막 원인이 좌절되지 않도록 하려는 걱정이었다. 이것이 주님의 변민, 걱정이다. 이 걱정은 주님께서 입으신 인성이 이 큰 시련을 맞는데 너무 약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분이 제자에게 말하셨듯 그렇게 느끼셨다. “영은 간절하나 육이 약하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서는 시험으로 고통받고 계셨다. 격렬한 시험의 최고 절정은 자포자기이다. 즉 다투어야 할 대상 또는 목적의 자포자기이다. 시험 속에서 우리는 자아에게 저항해야 한다. 그럼에도 저항하는 그 속에 자아에 속한 어떤 것이 있다. 우리는 하느님과 교통하는 능력을 마치 우리 것인양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함에도 우리 자신에 속한 듯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 자포자기란 이런 능력이 땅에 엎드러지는 것, 우리에게는 저항할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 적의 힘이 우리를 덮치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영혼을 덮어 버리는 큰 어둠의 공포이다. 이 공포는 희망을 억누르고 자포자기에 희생먹이가 되게 내던진다. 이것이 주님께서 계제마니에서 통과해 가신 상태,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라는 절규의 상태이다. 그러나 참으로 한 가지 조건이 달려있다. 그분의 기도는 절대적이 아닌 조건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분은 도덕적 가능성의 범주일 경우 면제를 요청했을 뿐이다. 그분이 절대적 면제를 요청했다면 절대적으로 실패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육은 약하나 영은 강함을 보게 된다. 이런 대조됨은 주님의 기도에서 이어지는 말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라는 대목에서 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된다. 우리는 인간적 의지와 신성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심사숙고해보아야 할 중요하게 놓여있다. 인간성 속의 의지는 마지막 시련에서 움츠러짐과 동시에 신성에 속한 최고의 의지에 온통 복종시킨다. 주님 안에는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이 있었다. 그러나 인간 자체 안에 육과 영, 외적 인간과 내적 인간이 있었다. 영 그 자체는 뜻하려 하나 육의 약함이 영에 반대되게 작용하고 영의 뜻에 그들을 드리운다. 그래도 영은 육에 있으면서 바랄 수 있는 것과 가능할 수 있는 것, 인간적 의지와 신성한 의지 사이를 구분지어 주고 완화시키고 조절하는 역할을 계속 담당하고 있다. 주님께서 말하신 많은 언어들에 기독교인의 지혜와 체험의 보편적 언어가 되어 있다. 위 구절은 그것들 중 하나이다. 더구나 가장 표현이 강한 언어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영적 시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위 주님의 기도 구절은 자신의 상태와 의무에 관한 참 언어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는 육의 약함과 영의 강함, 반역하려드는 육의 강함 그러나 모든 것에서 최상이 되시는 그분의 의지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영의 강함이 육보다 더 강하다는 것까지 한꺼번에 다 표현하고 있다.

40. “기도를 마치시고 세 제자에게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제자들이 잠들었던 사건이 두군데 있다. 하나는 변모하실 때(누가 9:32)이고 또 하나가 지금인데 우리가 주목해둘 게 있다. 그들이 변모하심의 장관과 시험받으심의 장엄함에 무관심했다고 판단해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따른다. 이 잠들은 분명 초자연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운행된 신성한 기운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주님이 영화하신 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그분의 발 아래 쓰러진 것과도 비슷하다. 세 제자들의 이 잠들이 초자연적이었던 만큼 거기에 영적 의미도 충분히 들어있다. 깨어 있음에 반대되는 잠들은 영적 상태에 대칭을 이루는 삶의 자연적 상태를 의미한다. 주님이 깨어있는 반면 세 제자들이 꾸벅 꾸벅 졸거나 잠이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은 외적 수준의 상태에 머물고 있어서 주님의 상태인 내면의 상태로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참으로 주님이 내려시는 바,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 같이 되었으면 하는 것, 가능하다면 최고 높고 가장 깊은 상태를 체험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더불어 깨어있어라”고 말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잠든 것을 보고 조용히 타이르셨다. 이는 그들이 그분과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동하는 상태에 있어야 할텐데라는 그분 사랑의 바램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 부드럽고 정감 어린 나무라심이 베드로에게 있어졌다. 이는 믿음이 자연적 수준으로 있을 경우 마음은 그 믿음을 떠받쳐 줄 불침번이 될 수 없고 제자들을 주님 안에 계속 있게 해주도록 깨워줄 수 없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시간도 나와 더불어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물으신다. 시간은 상태를 상징한다. 그래서 주님이 고통받는 이 시간은 그분이 깨어있는 상태 그 자체, 무시무시한 시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깨어 있음 그 자체이었다.

41. 주님께서 제자에게 권고하신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기도하라.”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다면 이렇게 그분을 따르도록, 즉 이해성으로 경계하고 심정으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 받을 수밖에 없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경계하고 기도하는 것은 제자된 사람의 의무이다. 참으로 시험은 필요할 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의 상태에 유익한 걱정을 가지는 것, 즉 시험은 위험을 동반하지만 시험에 용감히 대처하면 결코 위험한 것만은 아니라는 두 가지 확답이 똑같이 필요하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는 자세로 자신을 서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서 있게 해야 하는 이유, 즉 이 위험을 경계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주님께서 설명하신다.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육의 약함은 위험의 바탕이요 염려의 기초이다. 육(flesh)은 자연적 마음 전체, 애정과 욕구까지 포함된 자연적 마음 전체를 표현하는 또 다른 이름이다. 자연적 애정과 욕구는 지상에 속한 것이기에 자연적 마음은 약하다. 영은 영적 마음, 영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모든 애정을 말한다. 이 영적 마음은 본성 자체가 주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고 기꺼이 그분의 뜻을 받든다. 그러나 무르고 현혹되기 쉬운 인간 본래의 본성은 세상과 자아의 유혹에 언제나 쉽게 기울고 만다.

42-44. “예수께서 다시 가셔서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신 수 없이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본문 기록대로 본다면 주님께서서는 두 번째, 세 번째도 다시 가시고 되돌아오시고 “같은 기도”를 하셨다. 기도의 반복은 구분되는 많은 시련 또는 시험 같은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게다가 그분이 투쟁하신 많은 일에 포함된 사실보다 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숫자 셋은 충만한 것, 완성된 상태라는 목적까지 진전된 것을 의미한다. 시험을 거치는 이 세 행동들, 과거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같이 시험이 가득 찼음, 그분께서 유혹자를 이겨내심으로 완전해지셨음, 시험을 수단으로 구속이 완성되고 그분의 인성이 충분히 영화하시는 목적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인내하셨음을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 여기에는 또 다른 진리도 표현하고 있다. 주님께서 시험에서 극복하신 어둠의 왕국은 세계의 왕국이라는 것이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등차와 대비되는 지옥으로 내려감도 세 가지 구분되는 등차가 있다. 주님께서서는 어둠의 모든 왕국을 정복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이 왕국의 정복을 시험의 세 가지 시리즈를 수단으로 점진적으로 정복하셨다. 이것이 그분의 세 가지 시험들이다. 이렇게 하시어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지옥을 정복하시면서 계속해서 천국을 여셨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러 동산의 깊은 쪽으로 세 번 가셨고 천국과

교회를 표현하는 제자들에게 세 번 되돌아오신 것이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 지옥을 닫아
 거신 만큼 천국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은 오늘 날 우리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거듭남으로 지옥의 형상인 바깥쪽 인간에 있는 악들을 정복한 만큼 천국의 형상인
 안쪽 인간이 열린다.

45. 주님께서 세 번의 기도를 마치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자고 쉬거라’...” 누가복음(22:46)의 경우 질문 형식으로 “왜 너희는 자고 있느냐?”로
 표현되고 있어서 어떤 학자의 경우 본문의 구절에 대한 의미가 누가복음에 있다고 주장하
 기도 한다. 그러나 복음서는 신성한 영감을 받아 교회 또는 인간이 각기 다른 상태, 거듭나
 삶의 각기 다른 단계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상의 차이가 어떤 내적 불일치를 포함하
 고 생각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을 이으신다.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유대교회에 의해
 주님의 신성한 진리가 모독된다는 표시이다. 주님이 진리 또는 말씀으로 취급될 때 그분께
 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부르셨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취급한 것 같이 주님을
 취급했다. 가까이 온 때란 교회의 종말에 관한 상태 또는 그 때, 교회의 불법 수준이 꺾
 차는 바로 그 때, 위선이 폭력의 도구가 되는 그 때이다.

46.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신다. “일어나 가자.” 제자들이 잠든 것은 외적이고
 희미한 수준의 상태를 표현했다. 그에 비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영적 승강, 죄와 어둠에서
 일어나는 것을 언제나 표현한다. 사도들의 이런 권고와 같다. “자고 있는 너를 깨워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일어나”는 심정 속의 애정이
 승강하는 것을 특별히 더 의미한다. 이는 느낌(feeling)의 승강이 아니라 선함의 상태가
 더 낮은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승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자”라고
 말하신 것이다. 그 이유가 “간다, to go”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본문의 경우 선함이라
 는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선함을 사랑하는 상태에서부터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로 제자들이 일어나 가야 한다는 주님의 바람이 표시되어 있다. 주님께서 “나를 넘겨
 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 이런 순간에 위 주님의 말씀 “일어나 가라”는
 얼마나 꼭 필요한 말씀인가! 배반자(betrayer)란 우리 속에 있는 썩은 심정이다. 시련의
 때일수록 저질인 이기심의 세력 확장을 상쇄하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식해놓은
 선과 믿음이 잠에서 깨어나 행동을 해야 함이 그 얼마나 절실할 것인가!

47.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다가 왔다. 그를 따라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왔다.” 여기서 유다가 열 두 제자중의 한 명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열 두 제자는 교회를 표현한다. 추상적 의미로 볼 경우 인간 안에서 교회를 구성해주는 모든 원리를 표현한다. 집합적으로 볼 경우 열 두 제자는 주님의 신비적인 몸을 표현한다. 그러나 주님의 신비로운 몸은 그분 자신의 몸에 관한 형상이다. 주님이 시험받고 고통받는 것은 그분의 제자들 속에서 그 형상, 그 유추되는 것들로 담겨있다. 주님의 인성 안에는 예언서에서 “뒤꿈치, heel”라 부른 것, 뱀이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가장 수준 낮고 가장 공격받기 쉬운 부분이 있다. “열 두 제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유다는 사탄이 제자들, 즉 유아 수준의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뒤꿈치에 해당된다. 유다는 주님의 신비적인 몸, 인간 안에 있는 육체의 원리 (corporeal principle, 유형에 관한 원리, 물질에 관련된 원리)를 표현한다. 뱀이 물게 되는 “뒤꿈치”는 주님 자신의 몸에 있는 같은 원리, 육체의 원리를 표현한다. 이것이 왜 유다가 제자로 뽑혔으며 왜 주님을 팔아 넘겼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주님의 뒤꿈치 또는 그분의 인성 중에서 육체에 관한 원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그분의 시험이 갖는 최고 강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는 타락된 인간 본성 속의 육체적인 원리가 뒤집혀진 상태가 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원리를 표현한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원리를 통해 주님은 지금도 계속 배반당하고 이런 원리는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편 41편 9절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흉허물없이 사귀던 친구마저 내 빵을 먹던 벗들마저 우쭐대며 뒷발질을 합니다.” 유다에 관해 이미 말했던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는 유대 교회를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그 교회는 지독하게 물질주의적이고 육적이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유대교회에 있게된 육적인 것들은 유아 수준의 기독교회에서, 개개인 안에서, 주님 자신 안에서 구축이 결과되고 있을 때 동시에 작업되고 있다. 대사제와 백성의 원로가 유다에 뒤팔려 보낸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들은 제 자신을 통치하는 원리를 자아와 세상을 사랑함에 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생각과 애정들을 표현한다. 그들이 지참한 칼과 몽둥이란 진리와 선함 자체이신 주님을 대항하는 도구로서 사용된 거짓과 악들을 의미한다.

48, 49. 불충한 적과 한패가 되어 행동하는 유다가 짐짓 사랑하는 친구인체 가장하고 있다.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라’

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그는 예수께 다가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었다.” 시편 2편 12절에서 이렇게 읊고 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이 성내시고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된다.” 유다의 키스는 반역하는 키스, 위조된 애정이었다. 유다의 키스는 모든 위선을 대표하는 위선, 흉내된 사랑을 가지고 순진을 배반하는 대표격의 위선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천국적인 수단을 동원해 지옥적인 목적을 성취해 보려하는 사탄과 같은 것이다. 유다의 키스는 유다를 따라 온 무리들에게 보내는 신호가 되고 있었다. 이는 모든 덕행이 종말을 고하는 표시였다. 이는 거짓이 진리의 입술 위에 현혹시키는 오염된 키스를 날인하는 것, 죽음이 진리를 영원히 침묵시키겠다는 표시이다. 이와 같은 것은 세상의 빛이 자신이라고 선포하신 그분을 파괴함으로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악마적 음모를 의도적으로 꾸미는 이들의 목적에 해당된다. 유다의 키스는 신성한 이름을 허울 좋게 존경하는 표시, 그분의 말씀을 극히 형식적으로 존경하는 표시일 뿐, 이 명분 아래에서 신성한 뜻과 영원한 진리의 원리를 극악하게 미워하고 있다. 무리들이 예수를 손으로 꼼짝 못하게 붙잡는 것은 그 당시의 사제들이 율법의 영을 위반하면서 그 글자에서만 존경을 표시하는 것, 그리하여 백성까지 율법을 위반하게 이끌고 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50. 유다가 그에게 키스했을 때, “예수께서 ‘친구여, 무엇 하러 왔는가?’ 하고 말씀하셨다.” 번역된 단어 친구는 두 가지로 다시 번역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애정이나 관심있음을 함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전자는 친구라는 단어에 적절하나 후자는 동료 (companion)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이다. 이 구절에서 유다에게 사용된 단어는 정감이 덜 한쪽인 바 한국의 공동번역같이 “이 사람아”로 번역함이 더 타당할는지 모른다. 영적으로 친구란 이타애의 선 가운데, 믿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동료는 믿음의 진리 가운데 있으나 이타애의 선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킨다면 너는 내 친구이다.” 유다와 유다가 표현한 것들은 주님을 알게 하는 믿음의 진리의 범주에 들어가는 하나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는데 그 지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분에 대해 잘 아는 자들만이 그분께 직접적으로 잔인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어찌서 왔느냐?” 이는 뭔가 탐색하는 질문, 우리의 행동 속의 동기를 꼼꼼이 생각해보도록 인도해주는 질문이나 여기에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질문에 이어 “무리들이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붙잡으려했던 경우는 여러 번 있었는데

오직 이번 경우에서만 성공했다. 이번 경우는 비록 제자 중 하나가 배반했기에 성공리에 예수를 붙잡은 듯 비쳐질는지 모른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한 것은 미움이 아닌 흉내된 사랑에 의해서, 반대되는 자들이 아닌 배반한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꾀하여 왔던 행동이요 이것이 예수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찰나에 이르고 있다.

51. “그 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 사제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 버렸다.” 이 사람은 베드로였다(요한 18장 10절). 믿음의 품위를 표현한 사도가 충직한 사람의 하나로 행동한 듯 보이고, 진리의 칼이 진리 자체를 방어하는데 사용된 듯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문단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행에 실지로 위반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칼은 스승의 영화하심을 위해 허용된 수단을 꺾어버리는데 사용되었다. 참으로 베드로가 악을 의도한 것은 아니나 지식을 수단으로 갈피를 못 잡은 부절제한 열정으로부터 행동되었다. 이런 열정은 좋은 쪽으로 의도했다해도 그 결과는 악 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가 베드로의 행동이다. 예수께서 대사제의 권위를 감내하셨는 바 제자들은 유형의 무기로 대사제의 종의 행동을 억제하려해서는 안되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런 지상의 무기로 방어하기를 원치 않으셨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 베드로가 자른 종의 귀를 치료해주셨다(누가 22:51). 말코스의 귀가 잘라짐에도 영적 의미는 담겨있다. 귀는 지각, 청중, 순종을 상징하는 신체기관이다. 오른쪽 귀는 선함으로부터 진리를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사제가 임명될 때 제물의 피가 그의 오른쪽 귀에 발라졌다(출애굽기 29:20). 이는 지각하는 자질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쪽으로 성별되어진다는 표시이다. 대사제 종의 귀를 자름은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서는 지각하는 능력이 파괴되고 이와 더불어 모든 영적 들음과 순종도 파괴된다는 표시이다. 예언자 에제키엘이 부패된 교회를 음녀로 취급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네 코와 귀를 베어갈 것이다” (23:25)). 이는 교회의 불순한 사랑들이 선함과 진리를 지각하는 능력을 박탈할 것이라는 뜻이다.

5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집은 화살통 같이 교리를 의미한다. 교리는 진리가 신성한 자비의 의도(purpose)와 반대되어 사용되어 왔을 경우 넣어 두어야 하는 곳이다. 그 이유가 거기는 칼이나 화살같은 날카로운 도구라는 측면에서의 진리를 안전하게 보관해주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 심정 속의 적과 맞설

때 이 장소로부터 진리를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음 운동에서 주님의 직속 제자가 칼을 사용해 방어한 일은 베드로의 이 사건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또 신성한 저자의 뜻에 거슬러 칼이 사용된 것이 여타 다른 예에서도 마찬가지인 듯 보인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을 방어하려고 믿음이 칼을 들이대는 어느 경우가 있었던지, 있게 되든지 간에 그분의 명령은 “네 칼을 칼집에 넣어라” 일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라는 경고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은 대의(cause)에 사용된 육욕적인 칼에 의해 망한다. 이 구절을 영적으로 살펴보자. 진리를 잘못 응용함으로써 정작 거듭나는 쪽으로 자신을 이끌 시련을 감내하기를 거절함으로 오히려 거듭남의 진보에 방해를 받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의 조건, 상황에 자신이 받을 운명, 혜택, 이익 배당금 같은 것들이 의존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건을 자신이 거절함으로 생명을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사람은 망한다.

53. 적들의 의도가 꺾여지는게 보기 좋은 듯 주님께서 여기셨다면 아마 그분 스스로 신성한 능력을 잠깐 보이시어 쉽게 압도해버렸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한다면 열 두 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라고 베드로를 나무라시고 있다. 열 두 군단은 온 천국 군대를 뜻한다. 이보다 더한 것이 전능하심이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이런 권능을 획득한다고 말하시고 있다. 그분 속의 신성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54.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성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셨다.” 베드로는 이 위대한 신비에 관해 아직은 몰랐다. 이 열정적인 제자에게 이 말씀을 발표하신 주님은 베드로 같은 상태의 사람, 지식없이 열정으로부터 행동하는 미래 시대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시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후에까지도 제자들은 말씀이 이 주제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 취한 첫 행동의 하나는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주시는” 일이었다 (누가 24:26).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영원히 제자들의 체험 속에 있게되었을 것은 의심치 않는다. 영광의 길은 고통을 통해 열린다는 것을 성경은 풍부하게 예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 본성은 이런 고통스런 수단 없이 목적을 성취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일이 없다면

성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55. 그분이 죽어야 한다는 주제를 두고 제자들에게 조용히 일러 주신다음 “무리를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는 나를 잡지 않다가 지금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나?’” 무리들은 흠치지도 않은 것을 되찾기 위해 오신 그분을 강도나 도둑으로 취급하고 있다(시편 69:4). 그들은 그분을 성전에서는 붙잡지 못하고 동산으로 사람을 보내 붙잡아 오게 했다. 성전은 그분의 권능이 앓은 곳이고 계체마니는 그들의 세력이 앓은 곳이다. 그분은 권능을 단지 보이기만 하심으로 그분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을 벌받을 장사꾼들을 모조리 쫓아 내셨다. 여느 인간도 결코 입밖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을 말하신 그분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바 그분의 적들의 신경을 누그러뜨려 긴장감이 완전히 해제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성전은 그분의 인성이 성별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해준다. 세상을 떠나 생각한다면 성전은 그분의 인성에 대한 모형이다. 거기에 그분의 신성이 더 직접적으로 거하신다. 이에 비해 광야와 계체마니는 그 인성의 부분 중 외면을 표현하고 거기에는 허약함이 상주하고 시험이 등지를 틀고 있다. 누가가 기록한 이 구절의 경우 주님의 말씀에 더 첨가된게 있다. “...이제는 너희의 때가 되었고 암흑이 판을 치는 때가 왔구나.” 이 시각은 밤이었고 계체마니라는 장소도 어둠에 속한 것이다. 그 이유가 시간과 장소는 상태를 적절히 표현하기 때문이다. 세상 권세와 지옥의 권세가 목적이 성취되도록 일시적으로 권세의 힘이 상승했고 주님께서는 이를 허용하신 것이다.

56.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고 일어난 것이다.” 물론 예언들은 이 사건을 위해 준비된 것이지 이 사건이 예언을 위해 일으킨 것은 아니다. 주님의 경우 모든 예언이 완성되었고 모든 약속이 수행되었다. 더 포괄적 견해에서 생각해 보면 그분이 영화하시는 수단으로서 그분의 역사에서 거행된 모든 것은 말씀의 가장 깊은 의미로 말씀 안에 씌어져 있다. 그리고 인간이 거듭나는 가운데 거행되는 모든 것은 말씀의 영적 의미로 말씀 안에 씌어져 있다. 주님이 받으시는 시험까지 매우 세세하게 말씀은 묘사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그분의 죽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했던 것들이 글자에도 부분적으로 계시되었지만 영으로는 완전히 벗겨져 놓여있다. 제자들이 시련의 막바지에 그분을 버리고 달아난 사실도 이미 예언되어있었다. 주님께서 선포하셨듯 즈가리야서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었다. 유대인이 주님을 붙잡는 “그 때에 제자들

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영적으로 주님과 그분의 말씀 속의 선과 진리들은 교회 속의 선과 진리로부터 어떤 지지도 받지 않았다. 시험이 극에 달할 때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은 분리된 듯 나타난다. 마치 주님과 제자들이 그분의 마지막 격렬한 시련을 당하는 경우와 같다. 이런 분리를 의지와 이해성 또는 선함과 진리 모두에서 발생된다. 이것이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57.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 대사제 가야파의 집으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리들이 모여있었다.” 최고의 선과 진리되신 그분이 가장 깊은 악과 거짓들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유대교의 최고 재판소(Sanhedrin)란 신성한 진리 측면의 주님께 반대되는 통치하는 악과 거짓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존재한 위의 원리까지 표현한다. 주님이 가야파와 율법학자, 원로들에게 끌려가심이란 주님의 신성한 진리가 교회를 지배한 악하고 거짓된 원리들, 말씀을 뒤집고 모독한 원리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됨을 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58.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무례하게 붙잡히고 제자들이 달아나고 그분이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멀쩡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랐다.” 이는 어린 교회가 비록 시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에는 너무 불안정하다해도 아직 믿음을 수단으로 그분과 먼 거리를 두고라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내면적 의미에서 외적인 것과 시험 가운데서 내적인 것과의 관계가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베드로는 “대사제의 관저에까지 가서 일의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경비원들 틈에 앉아 있었다.” 예수의 종과 대사제의 종이 함께 있다. 적들이 버젓이 있는 그 속에 그들의 친구 인양 하여 잠복해 있다. 이는 제자들의 품성, 그들이 표현한 원리를 놀라웁게 샘플해 놓고 있다. 진리와 거짓은 외적 인간 또는 외적 교회 안에서는 함께 있는다. 그러나 그 둘은 거기서 서로 적이라고 공개하지 않고 서로 연관 있는 듯 여겨지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베드로는 사건의 결말을 보는 것만을 바래고 있다. 그의 믿음은 결말에 기대를 하고 있으나 그 결말로 인도하는 시련이 닥치면 바싹 오그라지는 믿음이다. 이제 시련이 시작된다.

59.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거짓 증거를 찾는 것은 영적 의미에서는 거짓이 진리요, 진리가 거짓이고, 악이 선이요 선이 악이라고 선포하고 타인도 이를 인정하라고 설득해대는 것, 가장 높은 의미에서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이다. 의회가 예수께 대한 거짓 증거를 찾는 목적은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였다. 유대 통치자와 백성들이 주님께 행한 모든 것은 어떻게 교회가 말씀을 취급하게 되는 가를 표현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품던 의도, 그분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부패된 교회의 마지막 행동, 즉 진리의 왜곡, 그 결과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럽히는 것을 표현했다.

60, 61. “많은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이렇다할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하느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고 증언하였다.” 신명기(17:6)에 이런 법이 있다. “그 사람을 죽이려면 두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다.” 이 말씀이 법제화된 이유는 누구도 의지나 이해성, 또는 생활의 어느 한 가지 자질만이 악할 경우 죽음으로 정죄되지 않는다는 것, 이 자질들 중 둘 또는 셋이 하나되어 악할 경우 죽음에 처해지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다. 요구되는 “두” 증언이란 의지와 이해성, 또는 악과 거짓이다. 선과 진리의 하나됨이 천국을 만들 듯 그 반대의 것이 하나됨은 지옥을 만든다. 주님을 모함하는데 두 거짓 증거 그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분이 “...나는 성전을 헐 수 있고...”라고 말씀하신 것을 트집잡아 고소했다. 이것에서도 그들은 그분의 말인 “이 성전(this temple)을 헐고 사흘만에 그것을 세울 것이다”를 왜곡시켜 증언했다. 이 증언은 그분의 말을 엮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한 진리의 왜곡을 표현했다. 진리의 왜곡은 말씀의 선포 위에 왜곡된 것을 쌓아둠으로 야기된다. 이 목적은 진리 대신 오류를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62. 대사제는 이 고소가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이 구절이 언뜻 주는 인상은 대사제가 예수께 말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었는데 말이 없자 왜 고발하는 소리에 대꾸가 없느냐고 참다못해 묻는 듯 보인다. 이 의회가 거짓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대사제는 마치 예수로 하여금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어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진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심정을 지닌 이들, 아예 진리에 반대되는 결론을 일찌감치 내려놓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말씀이 그 자체를 위해 말해보도록 기꺼이 아량을 베푸는 듯 하는 심정상태와 위 사건은 모양새가 비슷한 것이다.

63, 64.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 예수께서 거짓

증거에 아무런 대꾸가 없음으로 마치 그 거짓 증거가 옳다고 지지하는 듯 여겨지기까지 할는지 모른다. 또는 그분이 주장해보아야 아무 소용도 닿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침묵했다고 가정해 볼는지 모른다. 그분이 침묵한 데에는 이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 육을 입을 말씀되시는 분으로서의 주님은 말씀에 썩어진 그대로 행동하셨다. 말씀은 무익하고 비성실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다. 말씀 속의 증언이 확신이나 신념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정해버린 사람들에게 말씀 자체는 진리를 두고 변론해대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의 글자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수호하기 위해 사방으로 돌아가는 칼이다. 뒤집혀질 수 없었던 진리들이 모독되어질 것이고 인간의 정죄함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항에 대한 말씀의 호소는 침묵이다. 불길한 심문에 말씀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이 되신 그분은 부당한 재판관과 왜곡된 고발자 앞에서 병어리되셨다.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이사야 53:7). 대사제가 호소하는데도 예수께서는 대꾸가 없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내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분명히 대답하여라. 그대가 과연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셨다.” 왜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는 답하셨을까? 그것은 지금 거짓 고발을 인정하든가 부정하든가라고 묻지 않고 위대한 진리, 그분이 그리스도이셨는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말씀은 그 자체 영원하고 불변할 수 없는 진리임을 선포하고 마치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듯 말씀의 근원이 신성임을 선포하고 있다. 주님께서 말을 계속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보다 “더 나아가, 그 외에도”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 자신을 고백할 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고야 말도록 하는 때가 오고 있고, 또한 인간적 약함으로 너희 앞에 지금 나타난 사람이 신성한 권능 안에서 너희에게 밝히 알리는 때도 오고 있다” 라고 바꾸어 다시 말해 볼 수도 있다. 주님께서 이 구절에서 거론하신 사건은 일반적 의미에서 볼 경우 그분의 재림이다. 두 번째 오심에 관해 말해지는 바,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주님의 이 강림은 심판하러 오심이다. 그러나 이는 교회의 종말에서 자연적 세계에서가 아닌 영적

세계에서이다. 이 때 거기서 그분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분명해지게 하실 것이다. 대사제를 향해 발표된 주님의 말씀은 보편적 진리, 가야파를 수단으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이들에 대한 보편적 진리인 바 이 주님의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놓여 있다. 위 주님의 말씀 중 일부는 이미 24장을 살필 때 설명했다. 주님께서 구름 안에서 오심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 글자조차에서 그분 자신을 밝히 알게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절에서 소개된 주님의 말씀에는 두 개의 세부사항이 첨가되어있다. 그분이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심이란 그분의 인성이 이제 막 신성이 되어 인간 구원을 위해 전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분이 하늘의 구름 안에서 오심은 그분이 이제 막 그분의 말씀을 여시게 된다는 것, 그리하여 인간에게 그들의 구세주로서의 그분 자신에 대해 더 명확하게 밝히 알려 주신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요점은 이렇하다. 악한자에게서까지도 그분이 드높여지시고 밝혀진 상태를 보리라는 것이다. 이를 수단으로 그분이 오신 후에 그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의 예언적 부분에 있는 그분에 관한 예언을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 이는 말씀의 영적 의미가 밝히 알려질 때이다.

65. 주님께서 이런 선포와 인정을 하셨을 때, “대사제는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느님을 모독했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방금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소?’ 옷을 찢는다는 것은 진리의 파괴 때문에 통곡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사제가 제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주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모독죄를 범했다고 말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어긋나게 말했다는 것, 다시 말해 진리적 신성(truth divine)에 어긋나게 말했다는 것 외 달리 그가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사제의 행동이 보여주는 것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신성함을 부정하는 심정을 지닌 사람은 말씀 자체의 증언 안에서 그들의 부정함에 관한 확증을 발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6. 대사제가 의회에 판결을 호소하고 있다.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하고 묻자 사람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고 아우성쳤다.” 이는 의지가 이해성에 대고 호소하는 것과 비슷하다. 즉 이는 협의해 보자는게 아니라 확증하라는 것이다. 유대 평의회의 이런 행동은 그들이 오랫동안 피했던 행위의 지적인 끝장, 이런 결과를 보고자 갖가지 수단을 동원한 행위의 지적 종말이다. 이 의회의 판결은 말씀 안에 신성이 있다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고로 그들 사이에 있는 교회가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는 셈이다. 모독 죄를 지은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이 범죄는 다음 구절에서 한층 더 명백해진다.

67.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자들은 뺨을 때렸다.” 이 모습이 표현하고 의미하는 것은, 유대 국가는 오로지 외적 상태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가 주님의 수난에 관해 말씀에서 언급되어진 모든 것은 천국의 비밀을 표현하고 의미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바와 같이 복된 일을 수행하고 지혜를 말해준 사람에게 적대 행위를 자초해 큰 악행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그들 중 가장 높은 자라는 사람이 순수하고 거룩한 존재에 본문 같은 무례하고 모욕적인 것을 제공했다. 그들이 얼마나 눈이 멀었고 심정이 완악했던가! 이런 행위들은 영적인 악에 관한 진정한 상징물이다.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신성한 진리를 가장 깊이 있게 반대하는 경멸을, 주먹으로 쳤다는 것은 신성한 선함에 반대하는 가장 심도있는 미움을, 손바닥이나 갈대로 그분을 때린 것은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더 완벽하게 거절하는 폭력이라는 악들을 표현하고 의미한 것이다. 주님께 내놓은 이런 세 가지 폭력 행위는 의지와 이해성 그리고 삶으로부터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철저히 거절함을 표현하고 있다.

68. 그분을 경멸한 자들이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히어 보아라’ 하며 조롱하였다.” 누가(22:64)는 그들이 그분의 눈을 가리워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참으로 그분을 때린 자가 누구인지 알아맞히라고 강요당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조롱을 했을까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조롱자나 비신앙자는 유대인들처럼 먼저 진리의 눈이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때린 자가 누구인지 알아맞히라고 요구한다. 이런 요구는 믿음이 응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런 경우일지라도 주님께서서는 사악한 자들이 불가능한 행동을 요구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허용해준다. 예수께서는 누가 때렸는지 아셨지만 알아 맞추려하지 않으셨다. 그저 침묵만을 지키셨다. 그들은 불신앙 속에 폭 잡겨 있었다. 그분이 입을 열으셨다면 그들에게 정죄하는 건수만 더 제공했을까는 모른다. 주님께서서는 이런 식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에도 행하신다. 사람들이 진리에 거슬러 귀를 막고 있을 경우 그분께서는 알아 맞혀주시는 일을 거절하신다.

69-74. 유대 의회에서 시련을 겪으시는 그분으로부터 복음서 기자는 베드로의 믿음이 시련을 겪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 “그 동안 베드로는 관저 안의 바깥뜰에 앉아 있었는데 여중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당신도 저 갈릴래아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

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무슨 소린지 나는 모르겠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가로 나가자 다른 여중이 그를 보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자렛의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며 '틀림없이 당신도 그들과 한 께요. 당신의 말씨만 들어도 알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잡아떼었다." 이 사도는 주님의 시련을 목격했고, 거짓 증언을 들었으며 그들이 판결하는 엉터리 소리를 듣게 되었고 순진하시며 은혜만을 베푸시는 스승에 덮어씌우는 모욕들을 보았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확고부동한 상태에 남아 있을 수 없었다. 그의 의리 있는 본성과 불같은 성미가 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뭔가 열정있는 증거를 보이려고 일시에 쏟아져 나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의아할 정도이다. 그가 주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사용했을 때는 꽤 준비된 마음이었는데 이젠 제 혀로 그분을 부정하는데 준비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 제자와 그의 주인 사이의 대비된 모습은 얼마나 놀랍고 동시에 교훈적인지! 제자들을 두고 친구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버린 예수, 그분의 적들에 의해 부당한 정죄를 당하고 잔인한 대접을 받은 예수, 그는 분개함이나 어떤 두려움을 하나도 나타내지 않은채 모두에게 배반당하고 있다. 그 반면 스승의 고결한 본보기를 간직한 베드로인데도 행여 누가 자기가 그의 제자 중 한 명이라고 알아볼까 해서 간담이 서늘하여 타인이 흘깃 보기만 해도 그의 마음은 섬뜩해 오그라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시어 주님께 관해 배우는 목적을 위해 꼼꼼이 생각해 보되 이 때가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의 처신도 가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누가 22:53). 세상과 지옥의 권세가 갖은 수단을 동원해 예수를 덮어 누르되 그분은 장엄한 고결하심으로부터 꿈쩍 않고 계신다. 이는 그분 안의 인성이 인성의 가장 높은 도덕적 완전함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원리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다 떠맡고 계신 것이다. 어쨌든 위 사건에도 영적 의미가 있다. 베드로의 대담한 거짓 맹세는 믿음 홀로 있을 경우의 믿음의 속성, 더욱이 믿는 자의 눈앞에 주님이 보여주신 본보기를 확실히 쥐고 있는 때 조차에도 믿음 홀로 라면 드러내고야 마는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교회의 마지막 때에 있는 믿음의 속성을 표현한다. 세 번 부인함은 믿음 홀로 안에 감추어 놓인 실제적인 완전한 부정을 표현한다. 이는 기울고 있는 교회,

또는 시효가 만료되는 교회에서 그 종교의 곁에 나타나는 마지막 형체이기도 하다. 답이 온다는 것은 옛 교회의 끝과 새 교회의 시작이다. 이 시작은 인간이 회개로 믿음을 회복하고 순수한 심정으로 주님을 향할 때이다.

그러나 이 주제는 교회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동안의 우리 자신과 관련을 맺고 있다. 베드로에 관련된 사실은 옛 사람과 그의 자연적 수준의 믿음이 죽을 때, 새 사람과 영적 수준의 믿음이 진실로 살아 있기를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지는 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간에 차이가 있는 듯 하면서도 유사한 처지에 있는 세 가지 것, 의지 안에서의 믿음의 시련, 이해성 안에서의 믿음의 시련, 생활에서의 믿음의 시련을 위 베드로의 사건에서 보게 된다. 첫 예에서, 베드로는 대사제의 관저에 앉아 있었다. 두 번째 예에서 그가 현관에 서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의지와 이해성의 상태를 그려주고 있다. 집에 관련해 생각해보면 관저(palace)는 이해성을 상징하나, 현관(porch)을 관련시켜 생각하면 그 관저는 의지를 상징한다. 의지는 관저와 비슷하다. 대사제가 관저에 주재하듯 통치하는 사랑이 주재하는 곳이 의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성은 관저 안으로 인도하는 현관이다. 의지는 안쪽이고 이해성은 바깥쪽이다. 앉아 있음은 의지의 상태를 표현한다. 그 반면 서 있음은 이해성의 상태를 표현한다. 베드로는 처음에 관저에서, 그 다음 현관에서 고발당했는데 이는 처음에 의지 측면에서, 그 다음 이해성 측면에서 있게 된 시험을 뜻한다. 그 다음 베드로는 애정을 표현하는 처녀에 의해 고발되고 있다. 첫 번째 하녀는 의지 속의 애정을, 두 번째 하녀는 이해성 속의 애정을 암시한다. 두 하녀에 의해 베드로가 고발됨은 시험이 마음 자체의 그런 애정에서 근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 번째 고소는 베드로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의해 제기되었다. 이 사람들은 자연적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애정들을 표현한다. 그들의 고발은 바깥쪽 생활에 관계되는 시험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맨 처음 예수께서 갈릴래아의 예수라고 불리고, 두 번째에는 나자렛의 예수라고 불리고 있다. 갈릴래이는 행정구획상 주 또는 도(province)에 해당되고 나자렛은 시(city)에 해당된다. 전자는 의지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후자는 이해성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지목하고 있다. 세 번째 고발에서는 예수가 거론되지 않으나 베드로가 예수를 따른 사람 중의 하나로 단순하게 고발되고 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머리로 두고 형제애를 형성한 사람들 중의 한 명으로 지목되고 있다. 어쩌면 평화를 어지럽히는 종교적 선동 단원 중의 하나로 간주당했는지 모른다. 이는 자연적 마음과 바깥쪽 삶에 소속된

생각과 느낌이 더욱 무분별하게 집합되어 있는 것을 표현한다. 베드로의 부인은 고발이 진행될 때마다 부정하는 강도가 더 격렬해졌다. 처음에 그는 단순히 부인하고 두 번째에는 맹세하면서, 세 번째에는 저주하여 맹세했다. 단순한 부인은 의지에 속한다. 그 이유가 의지 측면에 있는 모든 것은 그렇다와 아니다만 있기 때문이다. 이해성은 맹세를 가지고 확증한다. 그 이유는 맹세가 확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주하고 맹세함은 추론의 범주가 아닌 열정(passion)의 범주에 들어간다. 기독 제자는 베드로 같이 주님 또는 그분의 선과 진리를 실지로 부정하는 죄를 짓는데까지 시험에 꺾이는 상황은 겪지 않는다. 베드로의 죄, 성경의 여타 인물들의 죄같이 기독 제자가 유혹되어지는 죄를 표현한다. 베드로의 추락을 통해 우리를 추락하게 하는 우리 속 경향성을 관조하도록 배려하시고, 시험에 빠진 우리를 도우기 위해 주님께서 시험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시험에서 버티는게 얼마나 불가능한지 가르쳐주시고 있다. 베드로의 시험은 비교적 외적 측면에 속한다. 그 이유는 그가 아직은 비교적 외적 인간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믿음은 아직까지는 주님에 대해 사적인 애정 차원에서 헌신하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에 지상 왕국을 회복하실 분으로서 그분을 사랑했다. 따라서 주님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은 제 개인의 희망과 포부에 속하는 목적이 송두리째 뒤엎어지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참으로 기독 제자도 베드로의 이런 자연적 견해와 바람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은 영적이고 영원한 왕국에 희망과 포부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영원한 삶과 영광은 기독 제자의 시험과 그 속의 투쟁의 목적이 된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째 모른다고 말했던 “바로 그 때에 답이 올었다.”

75. 구세주가 예견하셨던 말들이 베드로의 마음 안으로 돌진하여 그의 심정을 꿰뚫었다. “베드로는 ‘답이 올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이 애처로운 사건은 그렇게도 심지가 굳은 사도의 품성 안에 진실로 어린 아이 같은 어떤 것을 밝히 나타내고 있다. 갑작스런 옛 생각, 통절한 양심의 가책, 성미급한 통회, 참으로 조급한 부주의, 부인함, 이런 등등은 성인에 속한 것이라기 보다는 어린아이들에 더욱 걸맞은 것들이다. 그가 관저에서 어찌되어 가는가를 보려고 기다린 길고 슬픈 시간 동안 그의 기억과 양심은 깊이 잠들어 버렸던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자신이 죄지었다는 어떤 구분되는 느낌을 답이 올기 전까지는 갖지 못했다. 이는 베드로가 새교회의 첫 열매되었다는 것, 그와 새교회는 영적 삶의 유아기에 있었다는

논리로서만 설명될 수 있다. 교회 상태를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위 구절은 매우 놀랄만하고 교훈적이기도 하다. 닭의 울음은 밤이 지났고 하루가 밝는다는 발표이다. 베드로의 마음에서 진리가 망각된 것은 교회를 닫히게 하는 도덕적 어둠이었고, 그의 양심이 자각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깨트린 새로운 빛의 결과였다. 기독 제자의 삶에서도 이와 유추되는 상태들이 경험된다. 시험의 밤이 영혼 위에 어둠의 휘장으로 뒤덮어 어떤 광선도 들어와 마음을 안내하고 격려 못하도록 할 때 예언도 언약도 어떤 소망도 실패해 극도의 자포자기만이 분출된다. 그러나 밤의 끝은 낮의 밝아옴이다. 아침의 영향은 빛이 실지 보이기 전에도 이미 느껴진다. 그리고 그 자체에 부응하는 확신과 변화를 생산한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을 회상했을 때, “그는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그는 대사제의 관저로부터 나갔다. 이는 시험의 상태와 현장에서 나갔다는 말, 이는 억제 받은 상태에서 자유의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는 통렬하게 울었다. 통렬함(bitter)은 있을법한 죄들 때문에 있어지는 회개의 눈물이다. 운다(weeping)는 이 단어를 눈물을 떨어트린다는 말과 구분지어 볼 때 죄에 대한 가장 깊은 슬픔을 의미한다. 즉 심정과 이해성으로부터 직접 흐르는 눈물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우리 심정이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상반되는지, 우리의 이해성이 그분의 진리에 얼마나 모순되는 지를 즉각 표현하고 있다. 이 영혼은 슬피 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쓰라리게 슬피 울었다. 이는 깊은 바탕에 도사린 악은 생명의 모든 기쁨을 거두어 간다는 표시이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이 더 쓰면 쓸수록 거듭나는 삶 속의 기쁨은 더 달고, 시험과의 투쟁에 이어지는 그 평화는 더 단단히 다져진다.

27

1. 베드로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킨 이른 아침, 불신앙의 고집불통인 유대 지도자들은 정당하신 분을 살인자로 어떻게 몰아 부칠 수 있을까 작당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이른 아침에 모든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다.” 대사제란 의지 속의 악, 백성의 원로란 이해성 속의 거짓, 그들이 음모함은 예수라는 인물 안에 있는 천국적 선함을 파괴시키려 결탁하는 것을 뜻한다.

2. “그를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우리의 악한 애정이 말씀을 억누르고 좌지우지하려 들 때 우리는 예수를 결박하는 것이 된다. 자기 고집과 자기 지혜에 말씀 속의 지혜를 복종시키려 들 때가 이런 경우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결박해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로마 사람과 이방 사람, 빌라도는 자연적 이성 또는 자연적 수준의 이해성을 표현한다. 이로부터 서도 알 수 있는 바, 빌라도는 유대인보다는 품성면에서 더 나은 특성을 지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예수를 죽이려는 사악한 음모에 도구가 되도록 자신을 빌려주고 있다.

유대교 의회는 이미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터라 사제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판결하게끔 로마 정부를 유인해낼 수 있는 계락을 궁리해내야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선 예수를 그에게 끌고 간 것이다. 그들이 예수를 결박했다는 것은 부활 이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 “네가 젊었을 때에는 제 손으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 때에는 팔을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요한 21:18) 라는 구절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의미와 형체를 표현해준 행동이었다. 비록 이 인용구절이 베드로의 죽음을 자연적 차원에서 말했지만 그럼에도 그 구절의 영적 의미에는 교회의 끝장에 있는 믿음의 조건을 묘사해놓고 있다. 믿음은 젊은 시기에 자유로웠다. 그러나 노령기에는 믿음은 결박된다. 즉 이해성이 복종할 수밖에 없어 교회가 뜻하는 곳으로 인도될 뿐이다. 예수를 결박한 것은 말씀 자체가 인간 의지에 복종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 묶는 것을 표현한다.

3. 여기서 복음서 기자는 유다 역사의 귀착점을 소개하고 있다. “그 때에 배반자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뉘우쳤다. 그래서 온전 서른 닢을 대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었다.” 유다의 역사는 베드로의 역사와 대조된다. 두 사람이 회개한 결과와 그 본성은 얼마나 다른지! 베드로의 회개는 겸손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유다의 회개는 자살을 초래했다. 유다와 베드로는 각자가 표현해 준 품성뿐만 아니라 개인적 역사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유다는 유대 교회를 표현했고 베드로는 기독교회를 표현했다. 유다의 회개는 후회할 필요가 있는 회개를 표현했다 (고린도후 7:10). 유다의 회개는 주님께서 심정을 굳게 하고 이해성을 어렵게 한데 반대되는 전환 (conversion), 모독을 수단으로 해서 이어지는 전환, 영혼 위에 더 큰 정죄만을 있게 하는

전환이었다. 유다가 만들게 된 위의 고백, 또는 돈을 되돌리는 행동은 상태의 변화라기 보다는 일종의 계시 차원이다. 은전 서른 닢을 되돌림은 유대교회가 악한 용도에 충당함으로 모독되어버린 진리를 그 교회에 되돌리는 것이다. 진리에 관한 지식은 돈같이 악한 자가 소유하던, 선한 자가 소유하던, 또는 선한 용도에 사용했던, 악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그 자체는 언제나 동일하다. 교회가 종말을 맞이할 때, 또는 개인이 심판받을 때 진리의 지식은 이 법, “가지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듯 보이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에 의거 그들로부터 거두어진다.

4. 유다가 고백했다. “내가 죄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이는 교회의 상태가 폭로되는 것을 표현한다. 그래서 교회 자신의 입이 그 교회가 말씀을 위반하고 모독한 바 주님을 배반했다고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이런 유다의 고백에 대사제와 백성의 원로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라.” 이 사람들은 예수의 순진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예수의 피의 대가를 지불했는 바 그 피를 흘리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무가치한 대리인은 자기 질문을 자기 속으로 되돌려야만 했을 뿐이다. 거짓 이해성이 빛의 미광을 꿰뚫으려 시도할 때 오히려 악한 의지에 반항한 결과만 된다는 것, 발견하는 것이라곤 무시당하는 것, 아무 보상도 없다는 것, 스스로 뒤로 넘어져 깨지는 것뿐이다.

5. 대사제와 백성의 원로들에게 돈을 되물릴테니 예수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응낙하지 않자, “그 은전을 성소에 내동댕이치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이해성 안에서 모독된 진리가 의지 안에 결박되고 정죄당해 있는 신성한 진리를 해방시킬 수 없다. 그 진리는 성전에 내동댕이쳐져 임자 없는 보물이 되고 말뿐이다. 유다가 제 손으로 목매달아 죽었는지, 양심의 가책에 희생자가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후자의 견해는 사도행전 1장 18절에 있는 유다가 죽는 모습에 대한 서술을 지지하여 있어진 것 같다. 복음서가 기록한 유다의 죽는 방법은 어쨌든 교살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게다가 이는 영적 의미가 요구하는 전부이다. 그 이유가 목매달아 죽음, 교살, 질식케 함, 이런 모두가 암시하는 바 이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사이의 연결을 끊음, 동시에 양쪽 모두 파괴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목은 우리 마음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 사이를 연결시키는 매체를 의미한다. 유다가 목매달았다는 것은 유대 교회에서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의 결합이 깨어졌고, 이로 인해 그 교회는 깡그리 파괴되었음

을 표현하고 있다.

6. “대사제들은 그 은전을 주워들고 ‘이것은 피값이니 헌금궤에 넣어서는 안되겠소’ 하였다.” 신명기 23장 18절의 모세의 법이 위 구절과 똑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법에 근거해 말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사제가 유다에게 주었던 그 돈은 피의 값이었다. 이 돈은 예수를 죽게 하는 사악한 목적을 수행하라고 주어졌다. 이 주님의 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유대인들은 악을 위해 주님의 피가 흘러지게 했다. 주님께서는 이를 선을 위해 허용하셨다.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을 말하게 되는 그분의 피흘림은 세상에 대해서는 생명이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값은 유대교의 헌금궤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명령되어져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죽음을 손에 넣음으로 대사제가 세상의 구속을 획득하는 대리인까지 되고 싶지 않았듯이 주님의 피값에 대한 마지막 처리방안에서도 그들은 타인이 주님의 구원을 담는 그릇을 표현한 행동을 자신들도 모르게 해냈다. 다음 구절에서 언급된다.

7.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용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용기장이의 일은 거듭나는 일을 의미한다. 이는 예레미야 18장 4절로부터 명백하다. 신성한 명령에 따라 이 예언자는 녹로를 돌리며 일하는 것을 보기 위해 용기장이의 집에 내려갔다. “용기장은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내다가 제대로 안되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빚는 것이었다.” 창조자의 손에서 근원된 모든 사람 각각은 훼손된 그릇이다. 그러나 재 창조자의 손으로부터 오는 모든 이 각각은 또 다른 그릇, 용기장에게 좋게 비쳐지게 만들어진 그릇이다.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의지에 따라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워졌다. 주님의 피값으로 유대인에 의해 주어진 은전(silver)이 용기장이의 밭을 사도록 주어졌다는 것이 표현해주는 바, 진리는 유대 교회에 밝히 알게 나타났다는 것,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진리를 주시게 된 참 취지를 파괴되도록 뒤집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진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넘겨져 과거 유대인들이 고집부려 거절했던 거듭남의 수단으로 이방인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용기장이의 밭이란 거듭나기를 바래고 그럴 능력을 보유한 이방인 교회를 말한다. 이런 생각은 용기장이의 밭을 구매해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는 말에도 포함되어 있다. 매장의 첫 번째 의미는 부활이다. 이는 죄의 죽음에서 정의의 삶으로 가는 부활이다. 유대인들이 용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매장지로 삼게된 그들의 의도는, 저주받은 도구는 저주받은 용도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것, 버림받은 자나 결격자의 매장지를 설비해두어 자기들의 육체와 방황자의 것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이런 등등의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을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주님의 피값이 위와 같이 경멸된 용도에 바쳐진다는 것은 이 얼마나 강한 표현이 있는지! 낮선 자는 예수 안에서 친구를, 그분의 피에서 구원을, 그분의 부활에서 생명을 발견한다. 주님의 피값은 그분의 공로와 정의이다. 유대인이 무가치하게 여기고 경멸하는 것들이 낮선 사람(stranger), 천국에서 제 집을 발견하려 애쓰면서 지상 위에 있는 영적인 체류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귀하고 귀한 것들일 뿐이다.

8.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고 불린다.” 아겔다마, 웅기장이의 밭이 얻은 이름이다. 이 이름은 역사적으로 연계해보면 격렬한 폭력을 생각나게 하지만 영적 의미에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생각나게 한다. 구세주의 피의 의미로 납득되는 모든 것은, 기독교인의 체험에서 실감되는 것 같이 “피의 밭”에 표현되어져 있다. 이런 측면, 주님의 시험, 고통, 죽음, 저런 측면, 그분의 저항, 승리, 그분의 생명, 이런 모든 것이 그분의 피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 그분의 피는 그분의 신성한 진리이다. 기독교인이 그분의 진리를 통해 고통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그는 그분의 승리와 생명도 공유하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이다” (로마 6:5). 그러므로 피의 밭은 거듭남의 밭이고 언제나 그렇게 계속 존재할 것이다. 복음서 기자가 “...오늘날까지”라고 말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밝히 알게 한다는 말이다. 말씀의 경우나, 주님의 경우나 오늘(today)은 영원이다. 영원과 영원함에 관심을 두고 말할 경우 “오늘날”이란 시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상태에 관련됐고 있다. 주님의 피값으로 매입되어진 거듭남의 상태는 끝이 없는 세계, 영적 낮선 사람에게 가능할 것이다.

9-11.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정한 한 사람의 몸 값, 은전 서른 닢을 받아서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웅기장이의 밭값을 치렀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웅기장이의 밭을 구매한 것은 예언의 성취였다. 이런 곤란함에 대한 설명은 많이 제공되어왔다. 노블(Noble)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 예언의 주제는 예레미야, 슬퍼하는 예레미야에게 소속되어야 적절할 것같이 보이나 이 말씀은 즈가리야의 입에 놓여졌다. 이는 이 예언이 있어야 할 올바른 위치를 할당하는 복음서 기자의 영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원문은 비록 통째로는 아닐지라도 위와 같이 고대 사본에서 발견된다. 우리로 그럴듯하게 합당한 추측 쪽으로 기울게 하는 생각들이 있다. 마태복음의 이 구절은 원래

예언자의 이름이 없었을 것이고 이런 식, “예언자에 의해 말해진 것이 성취되었다”로 읽혀지고,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초기의 어떤 복사자에 의해 삽입되었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대사제들이 “모여 의논해서” 협의된 사항이 한 세기 전 영감된 예언자에 의해 말해진 예언이 글자라는 세부사항에서까지 성취되도록 결과되었는데 대사제들이 이를 눈치채지 못한 것은 놀랄만하다. 그분을 평가한 값은 전 서른 낮은 유대백성이 주님을 판정한 값이 매우 적은 가치였음을 표현하고 있다. 주님은 사제들에게 미움을 당했다. 대사제와 유다가 주님의 몸값을 흥정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유대 백성이 주님과 그분의 구속하심에 관한 그들의 최대 평가가 삼십이란 상징적 숫자로 무의식적으로 있어졌다. 30이란 숫자는 말씀 어디에서 등장하든 비교적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락된 이스라엘 후손이 주님의 공로와 구속해주심을 평가할 경우 그 가치가 매우 적었다. 이런 유다에 관한 주변 모습을 기록한 뒤 복음서 기자는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진 예수께로 되돌아가고 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 대답은 인정함의 한 가지 답변 형태이다. 주님께서 상대방의 판단을 자기 편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분의 주장을 설명하거나 조정하려 드시지 않았다. 그분은 왕이셨다. 그러나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분은 일시적일 뿐인 왕이 아니셨다. 그분은 유다 왕국으로 표현된 교회의 영적 유대인의 왕이셨다. 주님은 왕과 사제로 불리신다. 그분은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는 왕이시고 신성한 선의 측면에서는 사제이시다. 진리는 통치하고 선은 섬긴다.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실 경우 이는 선에 바탕을 둔 진리를 의미한다. 솔로몬의 왕국 이후 두 왕국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교회에 있는 신성한 진리의 정부형태를, 유다 왕국은 교회에 있는 신성한 선의 정부 형태를 표현했다.

12-14. 주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셨으나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유대인이었고 빌라도는 이방인이었다. 유대교회 안에서 신성한 진리의 소리는 이제 영원히 침묵 속에 파묻혔다. 이방인들, 새로운 교회를 형성할 이방인들, 신성한 진리의 소리를 듣고자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 비록 그들이 아직은 이 소리를 직접 들을만한 능력은 못가졌다해도 그들에게 발표된다. 유대인의 부정적인 상태는 그들 사이에 있어질 수 있는 신성한 진리의 소리를 잠잠해지게 했고, 이방인의 긍정적인 상태는 비록 그들이 아는 한도만큼에서 이지만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었다.

대사제와 원로들이 예수를 고발해달 때 빌라도는 그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질문했고 또한 긍정적인 대답으로 인정되었다. “빌라도가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다시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단순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학식이 있는 비신앙자가 말씀을 고발할 때, 또는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를 고발하는 견해를 신앙자가 갖고 있을 때 의심으로 인해 혼란을 일으키는 바 즉각적이고 직선적인 대답을 요구하는데 이와 비슷한 경우가 빌라도이다. 그러나 그 대답이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 더욱 당황해질 것인 바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긴”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위 주님처럼 말씀도 비신앙자의 도전을 응낙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으로 제 스스로 신념을 가져보도록 유보하신다. 마치 자기 구원은 자신이 닦도록 유보되는 것과 같다. 이런 신념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진 부분이다. 빌라도가 아직 자신을 위해 수행해내지 못한 교훈이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게 되리라.

15-17. “과월절에 총독은 군중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로마 정부가 유대 신하들에 하사하는 한 개의 특전을 사용함에서 이 백성들이 예수에게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 여실히 나타난다. 어쨌든 이런 특전은 잘 사용할 경우 백성이라는 집단이 오히려 사제들의 목적을 좌절시켜 버릴 수 있었을는지 모른다. “그 당시 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빠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고 물었다. 이 특전은 백성들에게 죄있음과 순진, 악과 선 중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할 기회를 부여했다. 그들은 악한 자를 선택하고 선한 자를 거절했다.

18. 빌라도가 이렇게 제공한 이유는 “예수가 군중에게 끌려 온 것이 시기함 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바 그들이 예수를 놓아달라고 외치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다. 시기함(envy)은 열정 중에서 지독하게 나쁜 종류의 하나이다. 미워함(hatred)은 과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함은 우수함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므로 시기함은 이유도 없는 미워함이다. 예수를 시기함은 그분이 사제적 측면에 바탕을 둔 반감임에 틀림없다. 그분이 선하셨기에 백성들의 눈은 악했다. 이는 유대 통치자가 예수를 미워한 마지막 형체이다. 이는 진리뿐만 아니라 예수로 체현된 선을 이유도 없이 반대하는 가장 깊고 심각한 반대를 함축한다. 시기함은 가장 나쁜 종류의 혐오함, 가장 깊게 뿌리 박은 혐오함이다.

19.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전갈을 보내어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습니다’ 하고 당부하였다.” 이 꿈은 메시아에 관련되어서 직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에게 높은 데로부터 오는 몇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신성한 섭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지금 그의 아내는 빌라도에게 부정한 판결을 할는지 모르는 어떤 행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게 하는 즐거리가 있다. 어둠의 권세가 예수를 대적하도록 인간 행동의 추세를 완전히 한쪽 방향으로 몰아 거의 승리한 듯 여겨질 정도로 예수만이 홀로 이 마지막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박해했다. 유다는 그분을 배반했다. 베드로는 그분을 모른다고 잡아떼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분을 버리고 도망했다. 무관심한 로마인들은 그분을 죽이려드는 그분의 적들의 손안에서 장단을 맞추고 있다. 악한 세계의 축적된 사악함을 위엄과 온유로 견뎌내는 영웅의 도덕적 장관을 보여주도록 온갖 음모를 궁리하느라 인간 재능이 제 힘을 낭용하고 있다. 아마 자연적으로 이와 비슷한 경우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모습들은 주님께서 경합하셔야만 했던 영적 요소들의 자연계에서의 형태이다. 이로부터 그분은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게 되었다. 이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죄 아래 포함되기는 마찬가지라는 성경 자체의 진리를 본보기화한 것이다. 더불어 우리가 아직 적이 되어있는 동안이라 해도 그분의 아들이 죽음으로 하느님과 재회하게 된다는 것까지 아울러 예증되어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죄 아래 있기는 마찬가지지만 그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유대인은 계시라는 명백한 빛에 죄를 지었고 이방인들은 전통이라는 것, 간접적인 전달로 이루어진 희미한 빛에 죄를 지었다. 이방인에게는 진리를 사모하는 애정이 있었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진리에 대한 지각이 있었다. 진리에 대한 이 애정이 빌라도의 아내이다. 진리의 탁월함을 희미하게 지각하는 것이 그녀의 꿈이다. 빌라도 같은 이방 세계의 지성은 의지의 더 나은 애정의 영향하에 행동할 만큼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과 같은 인간 본성이 세상의 구속이 축출되는 대이변에서 한 몫을 해야 할 필요성은 의심할 바 없다. 이런 이방인의 인간성이 빌라도로 적절히 표현되고 있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견뎌야 했던 고통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짓기에 목말라하는 유대인에 불쾌감을 표현하는 양심이 이방 세계 안에 있음을 보여 준다.

20-23. 빌라도가 예수이든 바라빠이든 석방할 자를 선택하라고 백성에게 유보하자,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빠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여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총독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 달라는 말이나?’ 하고 묻자 그들은 ‘바라빠요’ 하고 소리질렀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자 모두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이 백성들은 바라빠를 석방하고 예수는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요구했다. 빌라도가 더 묻는다. “도대체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나?” 하고 물었으나 사람들은 더 악을 써가며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이 백성들의 선택이 장엄한 선택의 기회라는 수준에서 생각해 볼 때 빌라도가 제공한 선택의 말은 마치 과거 모세가 했던 말을 연상하게 해준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선, 죽음과 악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생명을 선택하라. 너와 네 자손이 살리라.” 이런 생명과 선이 개인적으로 주님에게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이분이 지금 그들 앞에 서있다. 바라빠 속에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담겨있다. 거기에는 죽음과 악이라는 주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다. 죄 없는 구세주보다 살인자를 사악하게 더 선호한 것은 선보다 악을, 생명보다 죽음을 선택한 셈이다. 바라빠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것은 그들 심정 속의 악은 찬양되어야 하고 선은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정의와 덕행이라는 원리를 뒤집은 유대인들 안에 들어 있음직한 위와 같은 광기서린 본성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공통된 본성이어서 상속받고 있는 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영적 차원에서 그런 모습의 재현이 우리로부터 서도 재현될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상념해야 한다. 내적 인간이 악을 의도한다면 외적 인간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그 얼마나 쉬운지!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이 한 개의 공통된 목적 아래 연합되고 한 개의 목적에 의해 활동되는 바 그 목적이 악한 것일 경우 그 선택은 악일 수밖에 없어 선은 뒤로 처지고 만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빠를 놓아주시오”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는 외침, 자신 스스로 영적 질서에 역행하는 이들의 외침, 선 대신 악을, 악 대신 선을 놓는 이들, 빛을 위해 어둠을, 어둠을 위해 빛을 놓는 이들의 아우성소리이다.

24. “빌라도는 그 이상 더 말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기세가 보였으므로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빌라도의 이 행동은 의로운 사람을 죄 있다고 하는 범죄에 자신은 깨끗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상징적 방식임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행동은 비유적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비유적 차원에서 자신이 결백함을 선포하는 것이다. 손을 씻는 것이 영적 차원일 경우, 이는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 속의 진리를 수단으로 생명이 악으로부터, 영혼이 죄있음으로부터 순수해지는 것이다. 물은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 속의 진리에 대한 상징물이고 손은 의지가 행동 안에서 명백히 나타나듯 힘에 대한 상징물이다. 시편 기자가 읊는다. “야훼여, 손을 씻고 죄없는 몸으로 당신의 제단을 두루 돌겠습니다” (26:6). 이 구절에서 씻는 행위는 순수함을 단순히 주장하는게 아니라 순수해지는 행동을 표현한 것이다. 빌라도는 진리 없이 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충직할 정도로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선함 없이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쉽사리 짓눌린다. 단순히 선 가운데 있는 이교도들은 더 문명화된 이웃들 속에서 미덕보다는 악덕을 더 빨리 배운다. 그 이유는 그들의 본성이 악에 기울려지기 때문뿐만 아니라 악덕과 미덕의 품성이나 구분을 지어주는 총명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았으나 그를 죽이려드는 결정된 목적을 수행하도록 시기하는 유대인에게 그를 내어주었고 대신 자신이 허용한 범죄 행위에 자신은 무죄함을 손을 씻어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런 행동에 법도 그의 양심도 동의하지 않는다.

25. 빌라도가 무고한 자의 피를 보는데서 한발 뒤로 물러선 반면 유대인들은 그 반대였다. 총독이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라고 말하자 “군중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인가! 이 얼마나 꼼꼼하게 성취된 일인가! 유대의 후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정의의 거룩한 분을 헐잡꾼으로 계속 취급하고 있다. 더 나아가 메시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고 계속 찾고 있고, 다른 나라 보다 제 나라가 더 우월하다고 자찬하고 있다. 왜 유대인들이 위 구절 같이 범죄의 책임은 저와 제 자손들에게까지 전가한다고 했을까? 죄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내려온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법칙, 심정에서 확증된 악은 그 심정에서 파생되는 모든 애정과 생각 안으로 내려오고야 만다는 영적 법칙을 표현하고 있다.

26.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 주었다.” 이제 예수께서 당하시는 모욕은 죽음으로 종결될 때까지 계속된다. 육을 입은 말씀으로서의 예수를 취급한 일련의 모든 줄거리는 씌어있는 말씀이 유대인의 손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씌어진 말씀이 취급당한 것을 표현해 준다는 측면에서 주님이라는 인물에 가해진 잔인한 무례함과 조롱을 이해하는데 그 관계

측면에 신성함이나 그 힘이 덜한 듯 여겨지고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씌어진 말씀과 육을 입은 말씀의 본체, 즉 씌어진 말씀은 신성한 지혜가 계시된 것이고 육을 입은 말씀은 신성한 지혜가 나타난 것임을 알게 될 때 위 주제가 이해될 수 있고 그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된다. 그분은 인간이 제 스스로 행하는데 실패한 것을 인간을 위해 해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인간이 어떤 결과도 만들지 못한 율법, 즉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오셨다.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는 바 그분의 삶은 씌어진 말씀이 실행에 옮겨진 것이었다. 그분의 삶은 실제의 계시였다. 그분의 생애 (그분의 가르침까지 포함해서) 는 유대 교회에 있는 잘못들에 대한 살아있는 논박이고 그 속의 악에 대한 살아있는 책망과 정죄하심이었다. 이런 바탕에서 주님께서 유대인의 수중에서 당한 일들은 말씀이 취급받은 사례를 표현했다.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악이 초래한 결과를 참아내심은 그들의 죄악상을 짊어지시는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주목해둘 것은, 주님의 마지막 고통은 로마인에 의해 합법적으로 가해졌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유대인들은 형법을 다룰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유대인에 의해 고뇌받은 셈이다. 그 이유가 예수께서 참아내신 그 모든 것의 발상지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에 관해 이미 언급하신 대목이 있다. “그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게 할 것이다” (마태 20:19). 이방인인 로마인이 조롱과 채찍질을 했다해도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당하신 무례함의 많은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죄가 있다. 이에 관해 우리가 읽었는 바, “빌라도는...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주었다.” 여기서 언급된 채찍질과 십자가형은 일반적으로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종류를 표현하고 있다. 이에는 두 종류, 즉 진리에 거짓이 반대하는 것, 선에 악이 반대하는 것이 있다. 십자가형은 악에 의해 선이 파괴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의미되는 까닭은 채찍에 달린 끈이 거짓을 의미하고 십자가를 만든 나무는 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무거운 처벌 형태가 있다. 돌로 쳐죽이는 것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다. 전자는 거짓을 가지고 파괴하는 것을, 후자는 악을 수단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27.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 모아 예수를 에워쌌다.” 병사의 순수한 의미는 진리를 방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 같이 그 반대적 의미일 경우 진리를 공격하는 것, 그 자체 악의 거짓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병사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진리가 거짓에 넘겨져 복종 당했다는

말이다. 그것도 일부가 아닌 전부가 복종 당했다는 말이다. 그 이유가 “전 부대원이 예수를 에워쌌기” 때문이다. 예수를 끌고 간 총독 관저란 모든 거짓이 집합된 이해성을 의미한다.

28.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혔다.” 은총의 주님이 불경한 놀림감이 된 이런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사항이지만 이를 통해 놀린 자들의 인간성 안에 깊이 잠긴 부패함,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우리도 한 몫 책임져야 하는 인간적 부패함을 깊이 상고해보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또한 그 당시 존재했던 말씀에 관계되는 인류의 영적 상태, 많은 적든 모든 자연적 인간의 상태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기회가 된다. 주님의 겉옷은 말씀의 글자적 의미를 표현한다. 병사들이 예수를 발가벗김이란 말씀에서 글자를 박탈하는 것을 뜻하는게 아니라 글자에서 그 의미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 다음 제 자신들의 의미로 대체하는 것이 “주홍색 옷을 입힌”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주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힘으로 그들은 왕권적 차원에서 조롱을 해 모욕을 가했다. 진실로 주님은 왕이시다. 그 이유가 진리가 왕이기 때문이다. 정녕 그분은 유일한 왕(the king)이시다. 그 이유가 그분은 유일한 진리(the truth)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사들이 주님을 욕되게 하고자 가한 놀림감의 왕권은 진리를 비웃는 것, 진리 대신 거짓으로 채우는 것이다.

29. 이 외에 또 놀림감을 삼고자 가한 짓이 있다. “가시로 왕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다.” 가시관을 쓰신 주님의 모습은 수많은 기독교 화가들로 하여금 온순함의 고통을 그려내는데 그 착상을 제공했다. 고통이 제공하는 자연적 의미보다 영적 의미가 가치 비중에서 적을리 만무하다. 말씀에서 “가시”는 현세에의 욕망(concupiscence)을 따르는 거짓들을 의미한다. 땅이 타락한 인간 때문에 저주된 후 생산한 첫 번째 산물이 가시이다. 지금 이 가시가 사람의 아들의 이마에 꼭맞는 왕관이 되어 놓여져 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출생된 원리의 쾌거였다. 사람의 아들의 머리는 말씀에서 계시되었고 주님께에서 명시된 바 같이 첫 번째 원리되는 신성한 진리를 표현한다. 왕관은 지혜를 상징한다. 하느님의 지혜보다 제 감각적 총명이 더 우월하다고 으쓱댈 때, 이런 불경한 조롱으로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사람의 아들에게 가시로 엮어 관을 씌우게 된다. 병사들은 왕권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분의 손에 갈대를 쥐게 했다. 갈대(reed)는 영이 없는 말씀의 글자를 상징하는 바 갈대는 매우 특별한 상징물이기도 하다. 주님께서는 군중들이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표현하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보여주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말씀의 글자는 교리라는

갓가지 바램의 놀림감이요 인간 견해의 모든 호흡이 그 안에 스며든다. 사람의 아들의 머리가 첫 번째 원리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하는 반면 그분의 손은 마지막 째 원리에 있는 신성한 진리, 즉 말씀의 글자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말씀의 최말단 의미 안에서 신성한 진리는 그 충만함과 권능으로 있는데 이 충만과 권능이 “손”으로 상징되고 있다. 최말단(ultimate)에 있는 신성한 진리가 주님의 왕권(sceptre)이다. “당신 나라의 왕권은 정의의 왕권입니다” (시편 45:6). 그분의 왕권만이 참되고 직바로고 공정하게 지배한다. 최말단의 진리는 주님의 힘의 지팡이이다. 이를 가지고 그분은 적들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하신다 (시편 110:2). 그러나 왕권의 표시로 사람의 아들의 손에 갈대가 쥐어진 모습은 실현성 없는 권능의 형체를 지닌 신성한 말씀을 뜻한다. 따라서 갈대는 그분에게 있는 권능 대신에 말씀 위에 놓인 인간의 권능을 상징한다. 이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더 확인된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유다인의 왕 만세!’ 하고 떠들며 조롱하였다.” 좋은 의미일 경우 유다인은 주님을 사랑함을 통치 원리로 삼는 교회를 표현한다. 이럴 경우 유다인의 왕 되시는 주님은 심정과 생활을 통치하는 신성한 진리이다. 유다인의 왕이라고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여 불경하게 놀린 것은 주님을 사랑함, 그분의 말씀을 존경함이라고 말하되 심정 안에는 그에 대한 경멸과 미움밖에 없는 것을 표현한다.

30.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은 경멸에 관한 가장 결정적인 표현이다. 모세의 법에 이런 대목이 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제 형의 아내를 취하기를 거절할 경우 형수는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라(신명기 25:9)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의 영적 의미는 이러하다. 결혼의 법칙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사람, 다시 말해 선과 진리가 하나되는 법칙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적, 외적 측면 모두에서 순수한 선함과 진리가 결여될 것이라는 뜻이다. 주님의 얼굴과 머리는 사랑과 지혜 측면에서 말씀 즉 가장 깊은 측면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는 것은 말씀에서 계시되었고 예수라는 인물로 나타난 바 되었으며 삶으로 그 본모기를 보여준 신성한 선함과 진리라는 가장 높고 가장 순수한 원리에 가해진 폭력과 경멸을 표현한다. 이미 살핀 바대로 갈대는 영이 없는 말씀의 글자를 상징한다. 갈대로 주님의 머리를 때렸다는 것은 영에 반대되게 글자를 돌렸다는 것, 말씀의 내적 측면과 상반되게 외적 측면을 틀어 놓은 것을 뜻한다. 이는 신성한 질서를 방해하고 파괴하려는 것이다.

31.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그 겹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박으려 끌고 나갔다.” 주홍색 도포를 벗기고 주님의 옷을 입힌 모습이 마치 병사들이 빼앗은 것을 도로 주고 그들이 했던 짓을 원상태로 돌린 듯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은 잔인한 행동 순서 중 한 부분을 끝냈을 뿐이다. 이제 그들은 또 다른 순서, 더 큰 잔인함을 개시하고 있다. 조롱하는 대신 십자가에 못박는 것이다. 그분은 두 번째로 옷이 벗기워져 그들이 찢어 나눠 가지게 된다. 주님 자신의 옷을 그분 위에 입힌 것은 오로지 말씀에서 영적으로 중단된 것을 자연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런 종류의 모독에 말씀을 복종케 한 다음 저런 종류의 모독에 또 다시 복종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으려 끌고 나갔다.” 끌고 나간 것은 오류들이고 십자가에 못박는 것은 악들이다. 주님이 끌려나가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것은 십자가로 가는 어두운 단원 중 하나를 표현하는 바 이를 통해 사람의 아들이 그분의 시험 가운데로 인도되시는 것, 이 시험은 인간의 자연적 이성에서 근원 되었다는 것, 자연적 의지가 그분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육체라는 바깥쪽 측면만 볼 경우 그분은 로마 병사에 의해 끌려갔다. 그러나 이런 바깥 모습은 내면이 끌려감에 대한 원형이요 그것의 결과일 뿐이다. 여기에 어둠의 모든 권세가 구속자와 구속하심이라는 대 역사를 뒤집겠다는 마지막 야망의 성공 여부가 걸린 위기 속으로 그분을 밀어붙이고 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려 끌고 감에서 새로운 매체가 소개되고 있다.

32.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네레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원래 이런 형벌의 집행은 진지 밖 멀리 떨어진데서 거행되었는데 여기서도 그와 비슷했다. 예수에 관한 이런 사실은 신약 성서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히브리 13:12). 이런 실체가 있게 된 이유는 진지와 성읍이 천국을 의미하고 성밖은 지옥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중대한 처벌이 성문 밖에서 집행된 것은 성문 밖이 영적인 영원한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주님의 죽음이 지닌 표본적 특성과 일치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우리가 그 저주로부터 구속되도록 하셨다”(갈라디야 3:12). 비록 주님께서 성밖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지만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것은 성 안에서였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성 안은 사악함으로 짙 차있었던 것과도 일치하는 사실이다. 모독된 의미에서 이해해 보건대

주님께서 성안에서 정죄 당하시고 성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신성한 진리 측면의 그분이 교회 안에서 내적으로 정죄당하고 외적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것을 표현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서 정죄하고 생활에서 십자가에 못박는다. 죄인이 형집행을 당할 때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것이 관례였었다. 주님도 이런 관례에서 면제받지 못했다. 요한이 이 주님에 관해, 그분은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밖을 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른 세 복음서만이 이 짐을 진 자로서 시몬을 언급하고 있다. 처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메시고 가시다가 뒤에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강요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해보는 것은 납득되는 말이다. 기록된 사실이 눈에 띄도록 차이를 지닌 데에도 영적 이유가 있다. 요한복음은 주님의 가장 높고 가장 심오한 상태, 즉 그들이 그분 안에, 그분이 그들 안에 있는 심오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바 몸소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말해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세 복음서만 시몬을 언급하는 것도 타당하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은 천사들이 보기에 영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인간이 보기에 육체적으로 업신여긴 노동을 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시몬이 “예수를 뒤따르면서” 십자가를 메고 갔다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시몬이 십자가를 멘 모습은 거듭남으로 주님을 뒤따라야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수행되어야 할 영적 노동에 대한 바깥쪽 표시이다. 이런 사항이 위 상황에서 표현된 진리라면 왜 신성한 명령이 미리 있어 가지고 제자 중 누구 하나가 선택되어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강제하지 않았을까? 그분 스스로 공언한 제자들은 모두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다. 주님의 마지막 고난에서 그분은 세상을 표현한 로마인들에게 정죄당하고, 교회를 표현한 유대인에게도 정죄당했을뿐 아니라 축복된 말씀 속의 진리를 표현한 제자들로부터 서도 버림받은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은 그분의 마지막 시험이 어느 정도 격렬한지를 표시하도록 있어진 것, 즉 그분께서는 악의 모든 권세의 공격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반대해야 하는 선의 모든 힘마저 없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분은 버림받은 것은 가지고 계셨다. 지금 그분은 그분 스스로 말하셨던 참 상태 안에 계신 것이다. “이제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갈 곳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아니 그 때는 이미 왔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요한 16:32). 이제 참으로 아버지마저 버리는 시각이 다고 오고 있다. 그야말로 사람의 아들만이 홀로 있는 때가 오고 있다. 이런 위기, 그야말로 끔찍한 공포가 아직은 도달되지 않았다. 우리는

주님의 수난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이 있어서 인간 구속이 완성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뒤따르는 키네레 사람 시몬과 함께 그분의 수난을 보며 주님을 뒤따라야 하리라. 십자가를 짊은 반칙이라고 말한 시몬 베드로와 십자가를 짊어진 시몬 사이에 일치되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섭리적 결과일 것이라는 데 의심치 않는다. 제자들 중 하나인 시몬은 믿음을 표현했다. 더 나아가 시몬 베드로는 교회 내의 믿음을 표현했다. 그 반면 키네레 출신 시몬은 이방인에게 있는 믿음, 교회 밖의 믿음을 표현했다. 그 이유가 키네레는 가나안 지역 밖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시몬에 관련된 또 하나 기억나는게 있다. 시몬이란 이름은 그가 처음 새 소식을 받고 첫 제자가 되었을 때의 이름이었고 베드로란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었다는 것이다. 키네레 사람 시몬은 새 소식, 복음의 진리로 혼욕받기 전의 더 멀리 위치한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믿음, 그리고 심정이 단순한 사람들의 믿음을 표현한다. 시몬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근거가 있다. 그는 마가에 의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말해지고 있고(마가 15:21), 사도 바울이 시몬의 두 집안 식구에 대해 높이 칭찬했기 때문이다. “뛰어난 주님의 일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로마 16:13). 그리스도의 자연적 십자가를 메었던 그가 영적 십자가까지 메었고, 십자가형을 당한 갈보리산까지 갔던 것보다 더 거룩한 산까지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생각만 해보아도 벽찬 가슴을 안겨준다.

33. 십자가를 메고 가는 여행이 끝나는 장소가 “골고다,” 갈보리라 불리는 곳, “해골산”이라 불린 곳이다. 지역 명 자체가 말해 주는 바대로 그곳은 범칙자들이 고통받도록 지정된 사형 집행지였다. 이 산이 그 산 모양새로부터 명명되었다는 어떤 학자의 의견은 타당치 않은 듯 생각된다. 이 장소는 생명 자체가신 그분을 죽게 만드는 교회의 상태를 상징한다. 인간의 신체 부분 중 두려울 정도로 기묘하게 만들어진 머리 부분이 흉칙하게 된 상태가 텅빈 두개골, 해골인 바 이는 생명있게 하는 영적 내용물이 텅 비어 버린 말씀을 뜻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 생명도 권능도 없는 상태, 죽은 글자뿐인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다. 골고다 또는 갈보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지독하게 황폐된 상태의 교리, 그리고 주님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박는 교회 내지 교인, 그럼에도 회개하는 죄인의 경우 죽음이 끝나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까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거기서 주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거기서 그분은 부패된 본성 속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기 위해, 악한 심정 속의 갖가지 형상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박으시기 위해 자신을 죽게 하셨던

것이다.

34. 골고다에 이르자 “그들은 쓸개를 탄 신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맛만 보시고 마시려하지 않으셨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이나 진행되는 동안 범죄자에게 그들의 신경 감각이 무더지게 하는 것을 먹도록 관용을 베푸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다. 이럴 경우 그들은 고통의 강도가 완화된 듯 느낀다. 주님께서는 고통을 덜 느끼게 해주는 인간적 수단을 거절하셨다. 이에 영적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주님에게 가해진 모든 것,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실포도주(vinegar)는 그 신맛 때문에 거짓된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쓸개(gall)는 그 쓴맛 때문에 악한 것을 상징한다. 주님께서 쓸개를 탄 실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항을 가르치시고자 의도하신 것이다. 악과 혼합된 거짓된 것은 그분과 함께 응낙될 수 없다는 것, 또는 악과 거짓이 하나를 이룬 이들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쓸개 섞은 실포도주는 거절하셨지만 실포도주만은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아시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성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마침 거기에는 실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해면에 담뱃 적시어 히속폴대에 꿰어 가지고 예수의 입에 대어 드렸다. 예수께서 실포도주를 받으셨을 때,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시며 숨을 거두셨다” (요한 19:28-30). 이 예언이 특별하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리고 매우 특별하게 성취된 예언이다. “그들은 내 음식으로 쓸개를 주었고, 내 목마름에 실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다” (시편 69:21). 위 예언과 그 성취가 오로지 역사적 연결과 목적만을 가졌다고 상상해 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분의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인 바 그분은 마시는 일을 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주님의 자연적 목마름은 신성한 목마름의 바깥쪽 표현,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바램에 대한 외향의 표현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그 이유가 이 바램이 무한한 사랑의 바램이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무한한 사랑은 그분 내에 거하신 아버지였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모든 그분의 바램, 말씀들, 일들의 근원이었다 (요한 5:30, 14:10). 갈증이 몇도록 제공된 실포도주를 받으신 뒤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신 것은 그 얼마나 합당한지! 참으로 그분의 마지막 음료수는 실포도주이었다. 그 이유가 실포도주가 상징한 것이야말로 세상과 교회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진리는 전멸했고 오류와 거짓은 도처에서 득세했다. 그런 바 주님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신포도주 외 아무것도 없었다. 쓴 쓸개를 섞지 않은 신포도주가 제공되었을 때 자비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고 그것이 그분의 타고 있는 목마름을 누그러뜨렸다. 오류가운데만 있을 경우 그들이 오는 것을 거절치 않겠다는 위 사건의 의미는 잃은 창조물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바램이 그 얼마나 강렬한지! 지성 속의 잘못들이 시치미떼는 위선으로부터, 부패된 심정의 계획적인 악으로부터 자유로워 있다면 그 잘못된 인간과 주님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절대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 위 사건의 의미에 더불어 담겨있다. 악한 의도가 없을 경우 종교적 잘못은 잘못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램, 순수해짐을 위한 바램의 기초가 되어 준다. 이 바램은 종교적 잘못으로부터 부정적인 품성과 하느님과 분리시키려는 힘까지 제거해줄 뿐 아니라 영혼이 하느님과 결합하는 수단까지 만들어 준다. 그 이유가 종교적 원리는 있을는지 몰라도 거기에 순수한 종교적 진리는 없기 때문이다. 순수해져야 한다는 바램이 신포도주로 적셔진 해면을 죽어가는 구세주의 입술에 갖다 대는데 수단이 된 히습(hyssop)으로 의미되고 있다. 레위기기를 보면 이와 같은 의미에서 히습의 사용이 명령되고 있다. “그리고 사제가 진단해 보아서 그 문둥병 환자가 병이 나았으면 그를 정하게 하는 예식이 필요한 것으로 살아있는 정한 새 두 마리와 송백나무와 진홍 털실과 우슬초(히습) 한 포기를 가져오도록 지시를 내린다” (14:4).

35.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놀라운 일은 주님의 십자가형에 관련된 대부분의 세부사항들은 예언의 특별한 주제가 되어왔다는 점이다. 위 구절에 관련된 예언은 그분의 적들에 의해 작업되었고, 이것은 예수가 메시아이시다는 역사적 진리를 확정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보다 더 수준 높은 증거가 주변 상황 자체의 영적 의미 안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는 교회가 말씀을 취급하는데 대한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마태가 인용한 시편의 경우 십자가형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사건 중에서 그 묘사함이 특유하게 세세하다. 시편 22편 18절을 읽어보자. “겂옷은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제비를 뿔습니다.” 마태 자신은 속옷과 겂옷을 언급하지 않지만 그가 인용한 예언적 구절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행한 모든 것은 유대 교회가 말씀을 다룬 태도를 표현했는 바 위 구절의 행동은 가장 의미 심장하다. 주님의 겂옷은 말씀의 바깥쪽, 즉 글자적 의미를 표현했고 속옷은 안쪽, 즉 영적 의미를 표현했다.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짐은 유대 교회가 말씀의 글자 의미 속의 진리를 흐트러 버렸다는 것을 표현했다. 사실 이 행위는 병사들에 의해

있어졌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그들은 유대인의 목적을 수행한 도구였는 바 병사는 그 교회 안에 있는 호전적인 원리를 표현한다.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모습과 비슷하게 유대교 자체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 제각기 진리라 주장하는 것 때문에 서로 으르렁댄다. 그럼에도 그들이 지닌 진리라는 것은 한결같이 오류가 다양해진 것일 뿐이다. 이리하여 말씀은 조각조각 나서 흐트러졌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이런 말씀 속의 진리의 나뉘고 흐트러짐에 한계를 그어놓으셨다. 그렇지 않고 말씀이 모두 파괴되어졌다면 구원의 사업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쪼개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 한해서이다. 그 이유가 글자 속의 진리들은 대부분 가상적 진리(apparent truth)이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의미들은 다양할 뿐 아니라 불일치 되는 의견들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말씀의 내적 의미는 가상적 진리가 아닌 순수한 진리, 또는 진짜 진리들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진리들은 쉽게 바뀌거나 사악하기도 한 인간 해석에 시달리지 않고 또한 인간의 해석들이 내적 진리들 사이를 이간시켜 서로 흩어지게 할 수도 없다. 모든 진짜 진리들 각각은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있고 모든 진리는 한 개의 대단히 큰 나뉠 수 없는 전체 진리를 형성하여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통솔로된 주님의 옷이다. 글자 의미가 제아무리 찢기고 찢겨도 내적 의미는 영원히 하나로서 보존된다. 이것은 찢어 나뉘지 않지만 제비뽑아 결말을 짓는다. 제비뽑는 것은 하느님의 섭리에 해당된다. 제비뽑기는 교회에 관한 하늘의 이런 처방에서 저런 처방으로 바뀌어가도 교회자체가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교회의 처방은 사라져도 교회는 결코 죽지 않는다. 처방들은 말씀 글자 속의 진리가 썩고 나뉘므로 부패되다가 죽고 만다. 종교의 내적 측면에서 생생하게 있는 교회는 결코 죽지 않아 어떤 마음들 안에 통째로 보존되어 옛 것이 온전히 쇠망될 즈음 새 나무의 씨로서 뿌려진다. 말씀의 내적 의미가 지상의 교회에 의해 뒤집히고 파괴되었더라면 천사와 인간 사이의 연결도 전달되어 그 갱신 역시 불가능 했었으리라.

36. 주님의 적들은 자기들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십자가에 못질하는 작업을 끝내고 “거기 앉아 예수를 지키고 있었다.” 자연적 차원에서 볼 경우 이는 죄인을 누가 끌어내려 살려줄까 하여 보초를 서는 것에 불과하다. 영적 차원일 경우 이 구절도 또 다른 더 깊은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앉아 있음은 의지의 상태를 뜻한다. 경계함은 이해성의 상태를 뜻한다. 예수의 살인자가 그분을 못박고 “앉아 있음”이란 십자가로 표현된 것, 말씀 전체를 모독하고 파괴하고 흠족해하는 확정된 의지의 상태, 그 결과 모든 참된 선함에 직반대

되도록 확인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들이 예수를 지키고 있음”이란 말씀을 모독해 버린 상태로 말씀이 간직되도록 이해성이 경계하는 것, 행여 누군가가 제 힘으로라도 말씀의 모독된 부분을 제거하려 애쓰는 것을 경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37. “그리고 예수의 머리 위에 죄목을 적어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었다.” 이 팻말을 작성하는데 유대인과 빌라도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 써달라고 빌라도에게 건의했으나 빌라도는 “한번 썼으면 그만이다”라고 하여 그들의 의견을 묵살해버렸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에 이 진리의 관을 쓰도록 설비하셨다. 그리하여 우리가 고통의 상징물로서 그분의 십자가를 보는 한편 십자가라는 고통과 분리될 수 없는 거룩한 열매, 영광의 희망과 승리의 약속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하셨다. 유대인과 빌라도의 의견 차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즉 이방인이 유대인의 죄목으로 진리를 적고, 유대인은 그 죄목이 진리이기를 부정하는 의견차이를 표현하고 있다. 이 팻말 자체는 신성한 선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진리라는 주님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가 왕은 진리를 의미하고, 유대인은 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대인의 왕이란 자아와 세상 사랑을 십자가에 못박아버린 이들의 심정을 통치하는 천적 수준의 신성한 진리를 말한다.

38. “그 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 하나는 예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이 두 강도는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갈라 세우는 심판에서의 양과 염소가 표현한 것 같이 이타애가 있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과 이타애가 없는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표현했다. 이 구절에 관하여는 마태복음에서는 더 이상 살필 수 없으나 차후 더 살핀다.

39, 40. 이제 주님께서는 시험의 또 다른 시리즈, 또 다른 모욕 행위를 견뎌 가신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분께 욕을 했다.” 대사제와 원로들, 율법학자들이 그분을 조롱했다. 강도들도 다른 이들이 말한 것을 되풀이했다. “지나가던 사람”은 거짓 가운데 있는 이들을 표현한다. 대사제는 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강도들은 거짓과 악 모두 안에 있는 이들을 표현한다. 이제 그들을 분리해서 간략히 살펴보자. 이 세계의 자녀들이 신성과 영적인 것에서 잠깐 지나치는 반짝거림보다 더 확연히 보여주는 듯 여겨지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 미친 듯 몰두하는 것은 어디서나 쉽게 관찰된다. 이렇게 해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은 신성과 영적인 것을 두고 욕하고 정죄하기도 한다. 물론 입으로 내뱉지 않는다

해도 대체로 심정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본문의 “지나가던 사람들”이다. 더불어 이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었다.” 물질화된 납득력에 의해 빛이 어둡게 될 때 빛의 자녀가 빛 자체에 대해 소유한 즐거움보다 이 세대에서는 자기가 더 즐거롭다고 하여 최고의 경멸을 퍼부으려는 전조에 해당되는 표시가 “머리를 흔들” 모습이다. 비신앙자의 이런 표시는 진리에 지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바 그들의 논쟁이 이 구절에 있다.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다시 짓는다던 자야, 네 목숨이나 건져라. 네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여기서 주님께서서는 독선자, 무종교자, 무법자에게 공격당한 듯 보인다. 마치 모든 가능한 매체가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 그분의 신념을 흔들고 그분의 영을 뒤엎어 자포자기의 궁지로 몰아 부치는 듯 보인다. 위 구절 같은 논쟁, 유대교 비신앙자들이 사용한 위의 논쟁은 모든 무신론자가 사용했던 것, 또한 모든 세대에 걸쳐 부정적 상태의 인간 마음에 있는 자연적 수준의 암시와 같은 종류들이다. 이 논쟁을 주창하는 자이든 썩먹는 자이든 그들은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십자가의 필요성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믿는게 없다. 이런 마음에 주님의 주장과 그분의 목적은 완전히 모순된 주장과 목적인 듯 여겨지게 존재해야만 한다. 그분은 신성한 권능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가장 절대적인 인간의 약함을 내보이신다. 그분은 신성한 영광을 역설하신다. 그러나 공적인 수치와 격하된 지위를 노출시켜 주시고 있다. 가장 높은 미덕을 증거하시나 악행자로 죽으신다. 왕에게의 충절을 요구하셨는데 가장 미친한 신하로 취급됨에 복종당하고 있다. 그분 스스로 삼일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선포하시는데 그분 자신의 몸을 십자가로부터 해방되게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로부터 내려올 수 없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셨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는데도 자신은 살리실 수 없다. 이런 대비는 육적 마음과 영적 마음 사이에 있는 타락된 인간 본성에 존재하는 대비로부터 발생된다. 육적인 자연적 마음은 영적 냉대함, 수치스러움, 굴욕, 죽음에 복종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한다. 그리고 육적인 자연적 마음은 그런 것들 모두를 통과하신 구세주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싫어하고 필요성 자체조차 느낄 수 없다. 예언자들 같이 구세주도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의 표시였다. 그분께서는 잘난체하는 사람이 스스로 경멸해던 것을 그들을 위해 몸소 행하시러 오셨다. 그분께서는 그 자체 매우 들떠있고, 잘났다 자찬하고, 명예를 게걸스럽게 소유하려드는 자연적 마음을 그분이 꺾어지셨고, 생명을 지닌 사랑 안에서 그런 것들이 창피하도록 만들어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것들을 불명예스럽게 하면서

십자가에 못박으시러 오셨다. 동시에 이런 못박는 수단들에 의해서만 자연적 인간이 영적 인간과 재회할 수 있다는 것, 자연적 마음이 영적 마음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 자연적 인간이 영적 인간 위에 있어야 한다고 제 자신을 높였던 바 그분을 경멸하고 짓밟았기에 주님께서 그것을 질서대로 놓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와 같은게 그분의 고통이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한 수단밖에 더 아니다. 그것들은 영광에 비해 한 토막에 불과한 사건들이다. 참된 드높임이 그것들에서 일어났다. 자연적 인간의 진짜 영광은 영적 인간에게 존경받는 종이 되어 있을 때 겨우 존재할 수가 있다. 섬기도록 창조된 것이 통치한다고 해서 존경받아질 수는 없다. 육체가 영혼을 통치함으로 존경받을 수 있을까? 폭음, 폭식, 폭주 같은 것이 존경될 수 있을까? 세상이 천국을 경멸함으로 존경받아질까? 물질이 영을 부정함으로 존경받아질까? 자연이 하느님을 부정함으로 존경받아질까? 성전은 그분의 적들이 파괴하게된 그분의 몸, 그분의 인성이다. 주님을 고발한 자들이 거짓을 진리에 맞댄 자들을 표현했듯 그들은 그분께 반대되는 거짓 고소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성전은 주님의 신성한 영적 원리를 표현한다. 참으로 이 원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경멸되고 모욕당했다. 그들이 신성한 인성을 생각하면 코웃음쳐 부정한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면 즉각 반박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이의 제기는 십자가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심정 속의 자연적 수준의 언어밖에 더 아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실력을 즉각 보이려고 주님께 도전장을 던졌다. 주님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고통받으신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신성한 선의 측면이 아닌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 그분의 신성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자연적 인성 측면에서 겪으셨다.

41-43. 대사제와 원로, 율법학자들에서 우리는 교회의 자녀를 본다. 이들이 지껄인 조롱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주님을 모독하는 것을, 자아사랑의 악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분의 사랑의 신성한 선에 반대하는 경멸을 본다. 이들이 말한다.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살리는구나?” 그분이 타인을 살리셨다면 자신도 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자신을 살려낼 수 없다면 어떻게 타인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자체는 비록 그 응용이 잘못되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분께서 타인을 거듭나게 하시듯 자신을 영화시키셨다. 거듭남과 영화 하심이라는 두 일은 서로 불가분의 연결관계에 있다. 이런 일이 구원으로 의미된다. 더 나아가 구원은 신성한 사랑 또는 선함으로부터 주님에 의해 결과되고

구속은 그분의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결과된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선으로 만드심으로 구세주가 되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권능만이 자기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그 착각 속에 대사제와 지나가던 사람들의 오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찾으라고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방법에 상반되었다. 주님께서 말하셨다.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리라.”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승강이 이런 높여짐, 이 영화하심을 표현했다. 그러나 대사제라든가 지나가며 욕을 지껄었던 사람 같이 이들은 지상으로부터 주님께로 끌어당겨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주님께서 자기들이 있는 땅으로 내려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적 인간의 경우가 모두 이러하다. 자연적 인간은 세상 너머로 자신을 들어올리라는 종교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세상적 바램과 입맛에 맞도록 내려오기를 바란다. 더구나 자연적 인간은 십자가를 수단으로 하거나, 세상을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하는 수단으로 자신이 들려지는 것, 고통을 통해 영광에 도달하는 것,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만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선뜻 내려와 이스라엘의 왕임을 스스로 보여 주셨더라면 그를 믿었을게 아니냐고 생각한다. 자연적 인간의 눈에서 통치권과 고통받음 사이에 무슨 교류가 있을까? 대사제가 말한 많은 부분이 시편 22편에서 한마디, 한마디 똑같이 발견된다. 이런 사항은 문맥의 연결 관계상 주의를 기울여 볼만하다. 제 8절을 읽어보자. “야훼를 믿었으니 구해주시겠지. 마음에 들었으니 건져 주시겠지.” 이어서 이렇게 읊고 있다. “당신은 나를 모태에서 나게 하셨다...” 이 구절이야말로 주님께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당하신 신비에 대한 열쇠에 해당되고 또 한편 자연적 인간이 그분의 그런 과정을 숙고하지 않고 납득도 못하는데 대한 이유도 제공한다. 새로운 출생은 고통을 허용하는 신성한 섭리가 내다보는 마지막에 해당된다. 의로운 자에게 허용된 고통은 산고를 겪는 여자와 같아서 분만의 시간이 다가오면 대단한 슬픔을 겪지만 아이가 출생되자마자 방금 까지 있었던 모든 고통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이다.

44.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두 강도는 심판 때의 양과 염소 같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38절에서 이미 말했다. 이런 의미 파악은 누가복음 (23:39)에 근거하는 내용이다. 거기서 강도 중 하나는 그분께 욕을 퍼부었으나 다른 하나는 그분을 알아보고 자비를 간구했다. 어떤 학자들의 견해는 처음에 두 강도는 모두 구경꾼의

욕설에 가담했다가 그중 한 명은 십자가에서 마음이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견에 한 마디 거들고 지나가야 할 것 같다. 참회한 강도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똑 같은 죄를 짓고 있다가 갑자기 동료들 나무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잠깐 사이에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는 있음직하지 않은 일을 너그럽게 봐주고 덮어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음서 기지는 그 상황의 일반 조건을 언급하고 저 복음서 기지는 좀 더 세세한 부분을 언급했다고 생각하는게 더 일관된 논리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영적 의미는 한 가지 사건의 완전한 기초를 공급하는 관계가 요구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영적 의미를 보기 위해 우리는 이 두 강도가 죄인의 두 계층을 표현한다는 것, 하나는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 다른 하나는 거짓 가운데 있으나 악 가운데는 있지 않은 죄인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역사적 차원의 의미에서 볼 경우 두 강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표현한다. 마태와 마가의 경우, 두 강도의 처음 상태, 둘 다 죄 아래 포함되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의 경우, 그들의 두 번째 상태, 이방인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장차 그분의 교회가 되도록 승낙되었고, 불신앙을 고집한 유대인의 경우 선택된 지위를 몰수당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이다. 이를 인간의 거듭남에 관련하여 유추해서 보는 시각도 있다. 복음서는 거듭나는 일의 진보를 묘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만 가지고는 그런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힘들 것 같다. 여기서의 주제는 빛과 어둠이 아직 갈라지지 않은 때, 처음 국면만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45. 실제의 어두움이 죽어 가는 구세주를 에워싸는 것만 가지고는 고난받는 그분의 영혼이 당하는데 충분치 않았는지 자연계의 태양이 제 얼굴을 감추어 암흑이 내려 눌러 두려움과 삭막함의 정경이 깔리고 있다. “낮 열 두 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세시까지 계속 되었다.” 이 자연적 어둠은 예언서에서 자주 반복되어 말했던 영적 어둠의 형상밖에 더 아니다. “그 날이 와서 대낮에 해가 꺼지고 백주에 땅이 캄캄해지거든 모두 내가 한 일인줄 알아라 -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아모스 8:9). 십자가가 서 있는 주변에 깔린 어둠은 교회 전체에 퍼져버린 거짓과 그 거짓으로부터 파생된 악의 상태를 상징해 준 것이다. 어둠이 뒤덮고 있던 세 시간이란 그 교회 상태가 보편적일뿐 아니라 충만한 마지막 상태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어둠이 정오에 있어졌다고 해서 그 교회가 절정기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두워져 버린 태양이란 정의의 태양이다. 십자가로부터 비쳐진 정의의 태양이 그들의 눈과 심정을 단히게 해서 어둠을 가져온 것이다.

바깥쪽 현상은 주님의 내향의 상태에 관한 그림자에 불과한 바, 이 어둠은 구세주께서 고통받으신 목적이 자포자기로 인해 극에 달한 큰 어둠의 공포를 상징했다. 따라서 이 어둠은 그분의 마지막 시험의 최극점, 육을 입은 말씀조차도 양보함 없이 견뎌낼 수 있는 내향적 고통의 최대한의 한계를 상징하고 있다.

46. “세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이 외침은 깊은 경외심을 일으키게 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 상태야말로 우리가 제 아무리 이해해본들 불완전에 머물 수밖에 없고 제 아무리 체험으로 감지한다 해도 그 실감은 대단히 미려한 수준에 그치고야 마는 상태이다. 앞의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줄거리를 통해 아는 바, 그분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심지어 그분께서 충성을 맹세한 제자들과 친구들로부터도 버림받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로부터 서도 버림받고 있다. 그분 자신이 사람일뿐 아니라 하느님이 되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하느님께 버림받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외쳐 부른 하느님과 주님 안의 하느님은 다른 어떤 분이였을까? 한가지 진리만이 이런 의문, 저런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된다. 주님은 두 개의 구분되는 본성, 즉 신성과 인간성은 한 분 인물(person) 안에서 하나되어 계신다. 인간 본성 측면만이 고통 당할 수 있고 버림받는다든 측면을 가질 수 있다. 간혹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은, 신성한 인물로서의 아들이 신성한 인물로서의 아버지에 의해 버려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주님의 인간 본성 측면이 굴욕의 상태에 있을 때 인성 측면이 신성 측면에 의존되어 있었는 듯, 때로 서로 분리된 듯한 느낌을 풍겼다. 그러나 영혼과 육체와의 관계같이 신성은 인성 안에 거하신다. 위와 같은 주님의 모습은 그분의 인간 체험에서 자연적이고 필요한 부분에 해당된다.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체험 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상념해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인간적 체험으로 그분은 모든 인간적 의식과 감각까지 가지셨을 것이 틀림없다. 우리의 경우 우리가 지독한 고난과 깊은 시험의 상태에 있을 경우 마치 하느님께 자신이 버림받지나 않았는지 느낄 때가 있지 않을까?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것과는 아주 다른데도 주님께서서는 우리와 똑 같은 느낌을 가졌을게 틀림없고 고난 중에 어떤 원조자도 없도록 설비하셨을 것이다. 어떤 이들의 경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해도 신성이 그분 내에 마치 우리 영혼이 육체 안에 있듯 계셨으리라는 것이다. 맞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이는 우리가 육체의 감각을 따라 말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닐까?

인간은 불멸의 영혼을 소유하면서도 영혼의 불멸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정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자각, 즉 알아챈 것은 실제와 반대되는 경우가 많다. 시험을 예로 들어 말해도 이와 비슷하다. 신성한 도움이 퇴각한 듯, 신성 그 자체가 우리를 버린 듯 여겨질 수도 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신 말들은 시편 기자 자신이 고난의 상태에 있을 때에 말해졌던 것인데 그와같이 해서 주님은 인간적 고통을 견뎌내시고 그것을 성결시키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시편 22:1). 극한 상황의 시험은 자포자기까지에 이른다. 이런 극한적인 시험은 외적 인간이 내적 인간과 결합하는 결과를 갖는데 필요하다. 이 결합은 인간이 하느님과 결합하는데도 필요하다.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의 결합이 거듭남이고 하느님과 인간의 결합이 구원이다. 주님 안에서 인성과 신성의 하나됨은 인간 안에서 이런 작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위대한 모형이다. 그 이유가 인간이 거듭나듯 주님은 영화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위대한 주제를 두고 교회에 관한 저술(the writings of the church)은 가장 자신 있는 어조로 이렇게 간략히 말한다. “영화하심은 주님의 인성이 아버지의 신성과 하나되는 것이다.” 이 하나됨은 십자가의 수난을 수단으로 성공적이고 항구적으로 결과를 보았다. 실제의 하나됨이 십자가의 수난으로 충분히 결과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수난은 그분께서 지상에 거처하시는 동안 수행해 가신 시험 중 마지막에 해당되고 결합은 시험을 수단으로 결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험 안에서 인간은 외관상으로는 자신 홀로 남겨진다. 이렇게 남겨져 있다해도 그것은 외관 차원밖에 더 아니다. 그 이유는 그 시험 안에서 하느님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원리로 그와 가장 가깝게 현존하시어 그를 격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람이 시험을 정복할 때 그는 하느님과 가장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런 경우가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됨이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동안 주님 홀로 내버려져 있었다는 것은 그분이 외친 말과 과거에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부터 명확하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서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요한 10:18). 이로부터 명확해지는 또 하나,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신성 측면에서는 고통받지 않고 인성 측면에서만 받았다는 것, 그 고통 때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완성된 하나됨이 결과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예증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인간이 육체로 인해 고통받을 때 그의 영혼은 고통받게 아니라 단지 슬퍼할 뿐이라는 것, 이겨낸 후 눈에서 눈물을 닦듯이

하느님께서 그 슬픔을 제거해주신다는 것이다. 주님이라는 한 인물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하나됨은 속죄 또는 재회라는 일이었고, 이를 통해 인간도 하느님과 속죄 또는 재회하는 것이다.

47. 주님의 절규가 있자,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산 자가 죽은 자를 부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분을 잘못 이해했다. 이와 같은 것이 자연적 인간이다. 이들은 말씀 속의 신성을 인간 사상으로 바꾸고 하느님을 신뢰함 대신 인간을 신뢰함으로 대체시켜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다. 어쨌든 엘리야 자체만 생각한다면 그는 썩어진 말씀을 표현한 인물이다. 그러면 잘못 이해한 이 구절이 영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예언자들이 말씀 안에서 표현한 생명 있는 원리를 이미 죽은 원리로 보는 실수, 생명과 권능은 그것을 상징화한 바로 그 표현물로부터 파생된다고 상상하는 실수인 것이다.

48. 말씀 속의 인물들에 대한 그릇된 생각으로 상징화된 거짓 원리들은 어떤 이들과 더불어서는 잘못이라는 수준에서,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신념이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릇된 생각은 이해성 측면에서만 있을 수 있거나 의지 안에서도 그러할 수 있다. 악 가운데 있지 않고 잘못이라는 수준에 있는 이들이 “그 중의 한 사람은 달려가 해변을 신 포도주에 저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축이라고 준”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미 살았던 바대로 주님께서는 쓸개를 탄 신포도주를 제공받았을 때 마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렇게 혼합된 것을 마신다는 것은 거짓이 악과 하나되어 원리가 된 것을 지닌 이들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절의 경우 쓸개 없는 신포도주가 제공되고 그분은 그것을 마신다. 그 이유가 그분은 잘못 가운데 있되 악가운데는 있지 않은 이들은 열납하시기 때문이다. 신포도주로 적셔진 해면(sponge)이 갈대에 놓여졌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나 관념들이 비고의적인 잘못 해석으로 말씀의 글자에서 파생된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것이다. 요한복음으로부터 배우는 바, 이 신포도주는 주님이 “목마르다”고 말하실 때 제공되었다. “목마르다”는 그분의 표현은 인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래심을 표현하고, 신포도주를 받으심은 사람들의 잘못이 악에 뿌리를 두지 않고 있다면 설사 그 잘못된 것이 주님 자신에 관련된 것이라 해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심으로 최말단에 이르기까지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뜻과 권능을 표현하고 있다.

49. 그러나 주님께 적극적인 사랑을 전혀 보이지 않는 다른 계층이 소개되고 있다.

그들은 그분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어떤 가냘픈 바램, 즉 자신의 구원마저도 바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 타인이 제 구원을 위해 일하려는 행동마저 방해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만 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제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산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셔야 할 그분의 죽음에 관해 그분과 대화했다. 그러므로 앞에서 확인한 일이 되지 못하게 엘리야가 막으려했다고 상상하는 것은 잘못 납득된 것에 불과하다. 씌어진 말씀이 이기심 속의 생명을 구해줌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잘못이 위 구절이 뜻하는 의미이다. 그 이유가 제 생명을 아끼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나 제 생명을 잃는 자는 생명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50.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누가는 주님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두 복음서의 두 기록을 위에다 나란히 기재해 본 것은 늘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던 것, 두 개의 구분된 주님의 품성, 진리와 선 사이의 구별, 또는 주님의 지적 측면과 의지 측면을 구별해 설명하려 해서이다. 전자는 인간성의 지적 원리에 관계되고 후자는 의지적 원리에 관계된다. 전자는 버림받은 바된 느낌을 표현하고 후자는 확신하는 바된 느낌을 표현한다. 전자는 두려움을, 후자는 사랑을 표현한다. 전자에서 주님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신성에 말하는 형식이나 후자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에서는 신성한 진리를, 후자는 신성한 선을 표현하고 있다. 비록 마태가 누가와 다르게 기록한 듯 해도 마태 역시 똑같은 생각을 운반해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마태는 “예수께서 큰 소리(loud voice)를 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더 직역하면 “예수께서 위대한 소리(great voice)을 지르셨다”가 된다. 이 단어 “위대함(great)”이 말씀에서 사용되면 이는 선함 또는 사랑을 표현한다. 그래서 위대한 소리는 사랑의 소리이다. 이 구절의 진짜 정감있는 감정은 한계 없는 신뢰가 가득한 사랑을 풍긴다. 이 소리에 이어 “그분은 영혼을 양도하셨다.” 그분의 영을 위탁할 분의 손에 되돌리셨다. 그리하여 구세주는 돌아가셨다. 주님께에서 소멸된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어버린 죽음 자체였다. 우리는 자연적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자연적 죽음을 없게 하시려는데 있지 않다. 그 이유가 자연적 죽음은 인간 타락에 근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은 영적 죽음, 인간이 금지된 과일을 먹음으로 초래시킨 죽음을 폐지시키러 오셨다.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입으심으로 주님은 이 죽음에 복종하게 되었다. 더 강한 표현을 쓰면 그분은 이 죽음을 취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본질적

차원의 죽음이다. 이것은 육체가 고통받는 자연적 죽음 속에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번 죽으셨다.” 이는 생명을 축출해내지게 하는 위대한 죽음이었다. 이 죽음이야말로 주님께서 견뎌내시느라 고투하신 죽음인 것이다. 자연적 죽음, 그 자체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 죽음은 그분에게는 그렇게 격렬한 인내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지옥에서 근원되고 지옥에서 생명을 얻는 영적 죽음, 주님으로 죽음을 거치게 하고야만 영적 죽음에서 주님은 어둠의 모든 권세에 저항하고 정복하셔야만 했다. 그 이유가 지옥과 이 죽음은 똑같기 때문이다. 위 사도는 이렇게 위 구절을 맺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 한번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느님으로 살고 계신다” (로마 6:10). “그분은 영을 양도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 영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 그 다음 육체가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 온통 하느님으로 사셨다. 그 이유가 그분의 인성은 온통 신성으로 태어나셨고 신성과 하나되어 생명자체가 되셨고 그분처럼 죄에 대해 죽는 모든 이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51.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구속과 영화하심의 일을 마치셨을 때 이 신성한 일의 결과가 명백해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폭으로 찢어졌다.” 이는 의미를 담기 위해 있어진 기적임이 분명하다. 성전은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 휘장 안에 거하신 신성은 주님의 몸 안에 거하신 감추어 놓인 신성이었다. 주님이라는 한 인물 안에 내재하여 감추어 놓였던 영원한 신성은 죽음이 죽어야 할 그 인성이라는 휘장을 찢었을 때 육을 입으셨던 그 장엄한 목적이 성취되었다. 다시 말해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직접적인 교통이 열렸다. 우리가 직접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비록 주님의 인성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매체라 해도 그것은 신성-인간, 그것은 신성과 인간성, 즉 하느님과 인간을 서로 서로 가장 직접적이고 친밀하게 구원하는 관계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사건은 참으로 성전과 성막의 예배에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사도들의 서간에서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자. “성막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두 번째 장소 즉 가장 거룩하다고 불리는 이 장소는 일년에 한번씩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은 천막 성전의 앞 칸이 그대로 있는 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아직 열려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다. 그분이 사제로 일하시는 성전은 더 크고 더 완전하신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당신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마련하셨다”(히브리 9:2, 3, 7, 8, 11, 12).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서 우리는 마음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 그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집을 다스리는 최고의 사제가 계신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느님께로 나아가자”(히브리 10:19-20). 휘장이 찢어짐은 주님의 인성이 영화하신 것을 상징하였다.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분의 인성의 첫 번째 원리부터 최말단 원리에 이르기까지 송두리째 영원히 영화하심으로 이 신성한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성전 휘장의 찢김은 말씀의 글자라는 휘장을 찢으신 것, 내적 의미에 접할 기회를 허락하신 것, 예식적 예배라는 휘장이 찢김으로 내적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인간 마음에 있는 가상(appearance)이라는 휘장이 찢기는 방법으로 내적 인간이 열려진다는 것, 이렇게 해서 자연적 존재 상태에서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 등등을 표현하고 있다. 교회 상태가 온통 변화함이 이어지는 구절에서 묘사되고 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 땅은 교회를 뜻하고 흔들림은 교회가 완전히 뒤집힘을 뜻한다. 주님의 강림에 의해 결과된 교회 상태의 변화는 과거 이런 처방에서 저런 교회의 처방으로 바뀐 교회의 변화와는 아주 다르다. 이전에 존재한 교회들은 표본적 교회(representative church)였는 바 그들은 그들에서 진리를 보았다. 말씀이 육을 입으신 이후 교회는 실질적인 수준이어서 빛가운데서 진리를 보았다.

52, 53.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가 더 이어진다.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무덤이 열리고 성인들이 부활한 것은 물질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사건이다. 위 구절은 주님께서 끝마치신 일의 두 결과를 그려주고 있다. 무덤이란 주님의 오심으로 해방되기를 기다리면서 갇힌 상태에 있는 영계의 중간 영역에 있는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다. 이 영들은 죄수들, 예언서에서 종종 언급되는 죄수들, 즉, 구속자가 형무소 밖으로 내보내줄 죄수들이다. 말씀에서 자주 언급되는 죽음과 무덤은 정치적 또는 영적으로 죽어 매장된 이들의 상태를 뜻한다. 에제키엘 37장 12절을 읽어보자. “주 야훼가 말한다. ‘나 이제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 올려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이렇게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기운을 불어넣어 살려내어 너희로 하여금 고국에 가서 살게 하리라.” 이 구절은 글자적으로 볼 경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관계되고 있다. 내적 역사적 의미에서 이는 영계에 있는 똑 같은 사건과 관계되고 이를 복음서가 참고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주님 스스로 언급하신 대목이 요한복음에 있다. “내 말에 놀라지 말라. 죽은 이들이 모두 그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오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5:28, 29). 본문은 일어난 성인들이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라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일어난 성인들의 얼마 정도가 환상의 예루살렘에서 나타났나. 그러나 이 사건은 영계와 관계된 것이고 거기서 실지 거행되어 무덤이 열리고 성인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거룩한 성에 나타났다는 것은 영들의 세계 중 보다 낮은 땅으로부터 온 신실한 사람들이 해방되어 천국으로 승강됨을 의미하고 있다. 이 부활은 주님이 끝마친 일이 설비해둔 것, 그분의 일의 마지막 켤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영화하심으로 있어지는 구원이라는 결과가 묘사되기 위해 성인들만이 부활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어떻게 본문의 경우 성인들이 죽고 매장되어 있다라고 말해질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죄를 짓고 죽은 이들이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불릴 수 있을까? 영적 의미에서 어떤 인물(person)은 원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의 영적 부활은 그의 자연적 마음에 있던 진리와 선함이 영적 마음으로 들어 올려져 거룩한 원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들이 “사람”이다. 자연적 마음 안에서 이런 원리들은 죽어있고 매장되기까지 한다. 그러나 영적 마음으로 들려질 때 그 원리들은 생명과 자유를 획득한다. 영적 부활이 언제나 암시하는 바는 참 인간성 속에 이런 요소들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다. 물론 싹틔(germ)의 수준에서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어 매장된 자들이 그들에게 공포하는 신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언제나 상상되어진다. 그러므로 요한복음(5:25)에서 이렇게 말해진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때가 오면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 음성을 들은 이들은 살아날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54.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방인인 이 군사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독하게 거절했던 주님을 구세주로 이제 영접하게 될 이방 세계를 표현한다. 위 구절 같이 로마인들의 고백에 포함된 것은 매우 불완전한 사상을 지녔다고 보이는데 이는 당연히 그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 주위를 감동 신성한 기운의 힘은 감동적이기 쉬운 마음에 비상한 감명을 생산해주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정함은 예수의 신성한 품성에 관한 참된 지식을 필수적으로 함축하고 있지는 않다. 위 본문에 함축된 것은 오로지 그들은 신성한 아들 관계라는 그들 자신의 생각에 의거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는 신념에 얻어맞은 듯 느낀 것뿐이다. 십자가형이 집행되기 전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죄목을 그들이 들었는데 이 사건에서 그들이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다고 이해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명백히 해주는 관사가 “하느님”과 “아들” 앞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로마인의 고백과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마태 16:16)과는 다르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사용된 언어는 명백한 형체를 가지고 있어 그 형체는 명확한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 이방 군인들의 위와 같은 희미한 언어는 이방 세계에 널리 흐트러진 일반적인 희미한 빛을 더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 모든 이방인의 마음에서 이 신성한 진리를 처음 지각할 때의 상태도 표현하는 것 같다.

55, 56. 백인대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외에 거기에는 그 광경에 더 깊은 흥미를 가지고 쳐다 본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또 거기에는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께 시중들며 따라온 여자들이었다. 그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베대오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헌신한 여인들이고 이들의 품성은 거룩한 페이지에서 영예의 빛을 영원히 발하고 있다. 남자들은 달리 이 여인들은 무언의 구경꾼이었다. 그러나 침묵이라는 단어는 그녀들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최고로 적절하다. 그래서 그녀들은 헌신한 심정의 느낌과 애정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다. 백인대장과 그의 부하들은 이방인의 교회의 지적 측면의 원리들을, 여인들은 이방인 교회의 의지 측면의 원리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녀들은(이방인의) 갈릴래이(2:22)로부터 왔다고 말해지고 있다. 세 마리아는 세 가지 수준의 애정들, 천적, 영적, 자연적 수준의 애정들을 표현한다. 그들은 주님을 섬겼다. 섬김(ministering)은 심정 속의 애정이 일하는 것이고,

봉사함(serving)은 이해성 속의 생각이 일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사랑으로부터 선을 행할 때 주님을 섬기게 된다.

57, 58. 또 다른 경건하게 섬김을 행한 사람이 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태아 사람인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어 주라고 명령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청했다. 요셉은 두 번째의 니고데모였다. 그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예수의 제자였다. 그러나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은밀히 장례를 치루었다 (요한복음 19:38).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초기에 그분께서 공적으로 가르치셨던 권능있는 진리 중 얼마를 배우고자 밤중에 은밀히 찾아 왔었다. 비공식적 수준의 제자인 이 두 사람이 그분의 장례식을 치르려고 나타난 것이다. 요셉이 무덤을 준비하는 한편 니고데모는 향을 준비했다. 이 경건한 두 사람은 시신에 향료를 바르고 고운 베로 감고 무덤에 안장했다 (요한복음 19:38-42). 열 한 제자 중 어느 한 명도 이 장례식에 참석치 않았다. 여인들만이 그분이 누우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경건한 장례를 위해 그 의무를 다할 두 사람이 유대교에서 개종되어 주님의 제자로서 섭리적으로 보준된 것이다. 이제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이 이 구절과 관계가 깊은 바 그에 관해 살펴보아야 하리라. 요셉에 관한 성서의 첫 묘사는 그가 부자라는 것이다. 그는 말씀 속의 진리에 관한 지식에서도 부자였다. 그는 아리마태아 출신이었다. 이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라마와 동일한 지역이 아닐까하고 생각되어왔다. 누가복음 23장 51절을 보면 그곳이 “유대인들의 동네”였던 것만은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교회 속 진리의 선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암시해 준다. 그 밖의 그에 관한 기록도 이와 일치하고 있다. 그는 올바르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를 죽이려던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찬동을 한 일이 없었다. 그는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던 사람이었다 (누가 23:50). 다른 제자들의 경우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예수의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자가 될 거라는 그분에 관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지금인데도 요셉은 아직도 그의 헌신적인 사랑의 모든 운유함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그분의 시신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항이 명백히 보여주는 바, 비록 그의 이해성이 주님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열려지지는 않았다 해도 그의 심정은 주님의 사랑의 힘 아래 놓여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왜 주님의 시신을 묻는 경건한 의무가 그분을 공개적으

로 따르지 않았던 사람에 의해 수행되었어야만 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세력이 있거나 부유한 유대인이라해도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줄 수 없느냐고 감히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적들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친구에 의해 매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자연적 수준의 이유가 더 이상 없다 해도 영적 이유가 더 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의 시신은 제자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이 그분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에 의해 매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매장은 부활을 의미한다. 옛 사람의 거절은 새 사람으로의 부활을 위해 매우 가까운 친구같이 선구자 역할을 하므로 꼭 필요하다. 옛것이 반드시 죽어야 새것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들의 서간에서도 발견하는 바, 두 개의 구분된 생각, 두 개의 구분된 거듭나는 행동들이 주님의 매장과 부활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한다.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로마 6:4, 5). 다시 그는 말한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죽음으로서 율법의 계약에서 벗어나 다른 분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느님께 유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 7:4). 그러므로 왜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매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는 그들 자신이 실지로 유대교와 연결되어있고 기독교와는 잠재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시신을 매장함은 어머니로부터의 인간성의 잔여물을 벗어내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옛 교회 처방에 속했던 이런 잔여물, 새 처방이 아닌 것들을 벗어내는 것도 의미했다. 그러므로 옛 것에 소속되었던 사람들이 무덤에 그분의 시신을 놓음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상징해주어야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옛 처방에 속했어도 한편 그 속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아울러 상징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옛 것에 속한 듯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새 것에 속한다. 그들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였다. 이런 매체 역할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신다는 것까지 우리로 알게 해준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위와 같이 유대교라는 과거와 기독교라는 미래 사이에만 서 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 그와 같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서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비공식적으로 제자되었던 두 사람도 그분의 부활에서 그분을 영접하는 공식적인 제자가 되었을 것이라

는데 의심치 않는다. 사실 우리는 그들이 이 경건한 장례식을 끝낸 후 더 이상 그들에 관해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아래 구절에서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59.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고운 베로 썼다.” 군인들이 나누어 가진 주님의 겹옷은 말씀의 글자를 표현했다. 요셉이 그분의 시신을 감은 고운 베도 말씀의 외적 측면을 표현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셨을 때 무덤에 그것들이 남겨져 있었다(요한 20:6). 그러므로 그것들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밖에 더 도움이 되는게 없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이해해야만 한다. “고운 베는 사도들의 정의이다”(계시록 19:8). 그 이유가 고운 겹옷으로 의미되는 순수한 진리들은 생활에서 선을 획득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두른 깨끗한 고운 베는 유대교에 존재했던 말씀 글자 속의 진리,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진리에 초래한 더럽힘에서 깨끗해있는 순수한 진리를 의미했다. 깨끗한 고운 베는 요셉이 준비했고 향료는 니고데모가 가져왔는 바 이 둘은 주님께서 외적 교회에 속한 이들로부터 받으시는 선의 애정과 진리의 이해성을 하나로 묶어 표현하고 있다. 경건한 유대인의 정성으로 장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불경한 손으로 그들의 회칠한 무덤 중 하나에 안장되었을 것인 바 이는 더 한층 심한 모독의 행동밖에 안되어 부활이 아닌 저주를, 생명이 아닌 죽음을 표현하고 말았을 것이다.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은 신실한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이었다. 따라서 그가 받은 할례는 글자가 아닌 말씀 속의 영으로 심정이 정결해지는 할례를 받은 사람,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느님의 칭찬을 받는 심정의 할례자였다(로마 2:19).

60. “요셉은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그분의 시신을 모셨다.” 예수께서 새로운 탄생을 일으키시게 되는 이 새 무덤은 주님께서 누우신 말씀 자체를 표현했다. 그럼에도 그 무덤은 요셉 소유의 무덤이었다. 그러므로 이 무덤은 유대인에 의해 더럽혀지고 모독되어왔던 그대로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과거 생활상같이 심정이 순수하고 생활이 거룩한 사람에 의해 납득되어지는 그대로의 말씀을 표현한다. 이 바위란 신성한 진리를 상징한다. 바위를 파서 만든 요셉 소유의 새 무덤은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가 영접되도록 새로이 준비된 거듭나는 마음도 표현한다. 심정이 순수할 경우 이 구절에 관련되어 실감되는 측면도 있다. 현재에서조차 예수는 새로이 십자가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가 모독하는 거룩한 말씀 속 하나 하나의 진리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있다. 그러나 요셉의 행동 같은 부분도 있다. 요셉 같은 사람들은 상처받은 진리를 모셔다가 순수한 생각이라는 “깨끗한 고운 베”로 두른 뒤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애정을 상징하는 새 무덤, 깊은 회개로 있어진 새 심정이라는 새 무덤에 그 진리를 놓는다. 이런 경건한 의무를 다하는 이들은 죽은 자로부터 다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요셉은 시신을 모신 다음 “큰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다.” 이 돌은 말씀의 글자적 의미를 표현했다. 돌은 진리를 의미하고 단어 “크다(great)”는 선함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큰 돌이란 선함에 바탕을 둔 진리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큰돌로 입구를 막은 무덤에 계신 주님이란 글자적 의미를 수단으로 덮여져 보호받는 주님, 이쪽의 처방에서 죽으셨는데 그렇다고 저쪽의 처방에서 아직 살아나시지 않은 주님을 표현했다. 요셉은 경건한 의무를 다 마치자 “그는 거기를 떠났다.” 그는 주님께서 쓰시고자한 용도에서 제 할 일을 완수했다. 이제 아마도 그는 의로운 분의 십자가형을 당한 시신과 더불어 제 자신의 희망을 안장한 무덤을 돌로 막았다는 느낌을 가졌을는지 모른다. 이제 하느님께서 인성을 영화하셔갔던 이전의 모든 단계에서와 같이 그분만이 홀로 역사하셔야 한다는 심정으로 그 무덤을 떠났으리라.

61. 십자가형을 바라보았던 두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지켜보고 있다. “그 때에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 두 여인은 사랑과 진리의 천적 수준과 영적 수준의 애정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 여인들은 앉아 있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 자세는 내면의 상태, 결심이 선 의도를 의미하는데 이 구절의 경우 심정에서 그분이 부활하신다는 희망으로 주님께 헌신된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사실 본문의 여인들이 실지 이런 희망을 가졌으리라고는 상상되기 힘들다. 그 당시 형편으로는 희망이 그들 심정을 채우고 있었다기보다는 자포자기로 채워진 어둠의 때였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사랑이 존재한 그곳에 모든 것도 있는 법이다. 이는 때가 차면 하느님의 섭리가 길이 트이게 하듯이 뭔가 발생할 것이다.

62-66. 신약 성서 역사에서 뱀족이 서있는 위와 대조를 이루는 또 하나가 우리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주님의 경건한 제자들은 그들 나뭇대로의 장례절차를 밟아 이미 꺼져버린 희망으로 간주되는 그분의 시신을 무덤에 안장하고 침묵만 흐르는 그 무덤을 떠났다. 제자들이 모든 희망을 포기한 반면 유대인들은 예수에 관련된 모든 두려움을 그분을 죽였다

고 해서 다 떨치지 못했다. 제자들에게는 못 믿겨울 정도로 지독하게 다 잊어버린 듯 되어버린 그분의 말씀, “삼일만에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를 유대 지도자들은 기억하고 있다. 참으로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그들 세대에서는 더 똑똑하다. 그러므로 다음날 대사제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설명한 다음 그의 허가를 받았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그들이 돌을 봉인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씀에 가한 짓들, 글자를 뒤집고 그 속에 영이 있음을 부정함으로 주님과 그분의 나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봉인했다는 것을 뜻한다. 봉인한다는 것은 말씀에 고용된 한 가지 모양새인데 이는 닫는 것, 감추는 것, 알려짐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승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거꾸로 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돌을 봉인했을 뿐 아니라 경비병까지 세웠다. 이는 그들이 대단히 염려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노심초사해서였다

28

구세주가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시작되어 승천하심으로 마감되는 신성한 역사의 장엄한 부분에 우리가 와있다. 여타 인간의 희망과 바람같이 그 당시 국가의 희망과 바람은 그들이 기대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속에서 이제 실현되고 있다. 이스라엘을 구속해줄 것이라고 기대한 많은 사람들, 그들의 슬픔이 재단장되어지고, 자기들이 바라는 축복을 만끽하리라고 생각되어 자기들의 지도자로 주님을 따랐던 많은 이들의 착각은 사라졌다. 그런데 그들의 희망을 매장했던 그 무덤 속에서 어떤 분이 일어나시고 있다. 이것은 자연적 측면의 자유가 아닌 영적 자유의 정복자로서, 일시적 왕국이 아닌 영원한 왕국의 통치자로서의 측면에서이다. 이 위대한 사건, 주님의 부활, 죽어야만하는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이 부활은 이미 거행되었다. 일어나신 구세주에 관한 지식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전달되었을까? 어떻게 그들의 눈이 장엄한 진리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심정이 그 진리를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이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도록 준비되어졌을까? 이런 저런 등등에

대해서 결말을 짓는 이 본문은 그것을 밝히 알게 하고 있다.

1.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주님의 영화하심을 가장 높은 측면에서 표현한다. 세상을 창조하신 육일은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하시는 동안 거처가게되는 상태들을 표현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쉬셨다고 말해지는 안식일은 엄청난 일이 완성되어 주님이 들어가신 쉬를 표현해 놓은 것이다. 유대교의 한 주간과 더불어 노력과 시험에 관한 주님의 생애는 마감되고, 유대교의 안식일 동안 무덤에서 쉬셔야 했다는 것, 그리고 새 주일의 첫날 아침에 죽음에서 일어나셔야 했다는 것, 그리하여 이 주일이 기독교의 안식일, 주님의 날로 성별되었다는 것 등등은 매우 적절한 섭리라 생각된다. 옛 교회의 처방이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고 새 교회의 처방이 거의 도래하는 때에 두 마리아가 무덤을 보기 위해 왔다.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켜 본 이들, 무덤에 처음 달려온 주님의 여 제자들은 말씀 안에서 영원히 우리의 시선을 끌게되고 교회에서 존경되어야 하는 모형, “인간에게 거절당하고 경멸당한” 주 예수를 향한 애정어린 헌신의 모형으로 기억되리라 본다. 여인들이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예수의 시신이 놓인 무덤을 보러 감이란 우리가 정신적으로 희미한 상태, 시험에 아직 빠져 있는 동안에 사랑이 중심이 되어있으며 희망은 무덤이 된 상태의 신성한 말씀을 보러가는 거듭나는 심정 속에 든 순수하고 열렬한 애정을 완벽히 그려주고 있다. 이 애정은 헌신의 순례 여행, 죽은 자 때문에 슬퍼하고 그 시신이 보존되기를 바래서 향료를 발라보겠다고 바래지만 그런 꿈은 이뤄질 수 없는 것들이다.

2.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당도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격동으로 땅이 흔들리는 정도로 받아들여졌을 것은 틀림없다. 이 새롭고 전혀 기대못한 광경이 그들 시야에 펼쳐졌고, 그 광경에는 기이한 감정과 기쁜 감정이 그들 속에서 혼동되어 교차했을 것이다. 이제 이 구절에 있는 특이한 여건이 담고 있는 영적인 취지를 생각해 보자. 지진은 교회 속의 상태, 세상 자체에 크나큰 변화의 조짐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예언의 말씀, “땅이 흔들려 전율했다. 지축이 그 정상을 벗어나는 것, 땅이 제자리에서 이동했다”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누가 천사였을까? 천사가 천사일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파생되듯, 말씀 안에 있는 천사는 주님 자신에 속하는 어떤 속성(attribute)을 뜻한다. 본문의 천사는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러내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돌을 굴러낸다는 표현적 용도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천사도 돌을 굴리기 위해 필요하지 않았을 것쯤은 누구나 아는 당연지사이다. 그 이유는 죽음에서 일어나신 주님께서 무덤을 폭발시켜 열리게 하신다던가 혹은 무덤을 막은 돌에 구애받지 않고 나오실 수 있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잠구어져 있는 방을 들어가 제자들을 만나신 기록을 참조해보면 위 생각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무덤을 막은 돌이 말씀의 글자를 표현한다는 것, 말씀은 반드시 밀폐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 주님이 부활이라는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말씀의 글자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록 부활에 관한 자연적 이유가 불충분하게 여겨진다해도 충분하고도 남는 영적 이유를 볼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는 천사가 돌을 제거해주기 때문이다. 이 천사는 신성의 권능 자체를 표현한다. 주님 말고 어느 누가 말씀의 봉인을 떼어 열리게 할 수 있을까? “힘센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외쳤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또 땅 아래에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새 노래를 불렀다. ‘당신(어린양)은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계시록 5:2,3,9). 그런데 돌을 굴러낸 천사는 굴러낸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 글자 안에서 안식하면서 가르치는 말씀 속의 영의 권능이 돌 위에 앉아 있는 천사로 의미되고 있다. 이는 마치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사마리아 여자를 가르치셨던 모습과 비슷하다.

3. 이 천사는 영광을 입으신 주님 자신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모습은 뭔가를 암시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모습(countenance)은 마음 또는 내면에 있는 것, 뾰족히 말해서 사랑과 선함에 관련된 것들을 상징한다. 모습이란 단어는 얼굴 같은 신체의 한 부분을 말하는게 아니고 전체 인물(person)에 관련된 모든 것을 뜻한다. 모습은 선을 뜻하고 겉옷은 선을 싸고 있는 진리를 의미한다. 본문의 천사가 말씀의 권능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하듯 이 천사의 모습은 말씀의 천적 수준의 의미, 그의 의복은 영적 수준의 의미, 그가 앉았던 돌은 글자적 수준의 의미를 각각 의미한다. 그러므로해서 그의 모습은 번개같이 빛난 것으로, 그의 의복은 눈 같이 흰 것으로 말해진 것이다. 그 이유는 모습이 내면의 사랑을 표현하는 바, 이 사랑은 천적 수준의 진리의 빛으로만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번개처럼 태울뿐만 아니라 번쩍거리는 빛이기도 한 반면 영적 진리는 상대적으로 눈같이 흰데 그 이유는 천적 진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랑의 따뜻함이 없기 때문이다.

4. 천사의 이런 면모는 두 부류의 사람 즉 무덤을 지킨 경비병과 무덤을 보러 온 여인에게서 너무나 다른 결과를 빚어냈다. 경비병들도 지진을 느꼈고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는 그들이 굴러내져지는 것을 보았다. 그 반면 여인들은 돌이 굴러내려진 그 결과와 충격이 가신 후 천사가 평화롭게 돌위에 앉아 있는 광경만을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타파된 옛 교회를 표현하고, 여인들은 새로운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떨다가 까무러쳤다.” “떨다”란 이해성 측면에서 결과된 변화를, “까무러쳤다”란 의지측면에서 결과된 변화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힘은 이해성에, 생명은 의지에 속하기 때문이다. 경비병이 느낀 두려움, 겁을 먹음이란 의지와 이해성에 공통되는 애정이다.

5. “그 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는줄로 안다.’” 여인도 두려워 했으나 사랑이 동반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였다. 그러나 이 두려움까지도 결국은 던져져야한다. 이 여인들이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천사는 알고 있었다. 이유야 어찌됐건 그분을 찾는 이들은 평화라는 답을 받을 것임은 틀림없다. 설사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을 찾는다해도 그들은 일어나신 그분을 발견하리라.

6. 그러므로 천사는 이렇게 말을 잇고 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전에 말씀하신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얼마나 기쁜 소리인가! 이 경건하고 대담한 여 제자들에게만 기쁘게 아니라 전 시대 모든 그분의 제자들에게 있는 기쁜 소리 아닌가! 예수의 탄생이 만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으로 발표되었는데 그분의 부활은 어떠할까? 물론 탄생과 부활에 대한 대답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분의 탄생은 그분이 오시어 자기들의 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따랐던 이들까지 포함해서 기쁨이 된 소식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의 탄생과 부활을 연결해서 보지는 못했다. 그들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두 번째 계시라 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시어 영광을 입으실 필요성에 관해 씌어있는 모든 예언서의 말씀을 믿는데 너무나 느린게 인간의 심정 상태이다. 어찌됐든 여기에도 한 가지 비밀이 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고통 받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영화되신다. 이는 체험에 의해서만 배워질 수 있는 진리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일어나기 위해서 그분과 더불어 고통 받아야만한다. 사실 제자들의 경우

그들은 부활의 권능을 알기 전에 자신을 일으켜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주님이 과거 말씀하신대로 일어나셨다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런데 “전에 말씀하신대로...”라는 이 말은 이 여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참으로 주님의 영이 작동될 경우 그분께서 당사자에게 말해둔 것은 어떤 사항이든 막론하고 모두 기억을 되살리는 쪽으로 가져다 놓게 하신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여인에게 말해지는 한편, 그들은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도록” 초청되었다. 그분이 누우셨던 “장소”란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복종하게 만든 창피스런 상태(the state of humiliation)를 의미한다. 우리가 그분, 즉 구속자가 누우셨던 곳을 보는 때란 말씀을 보는 때 이루어진다. 이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 스스로 겪어가신 고통, 시험, 죽음을 찬찬히 생각하게 된다. 이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고통의 광야로, 시험의 계세마니로, 죽음의 십자가를 따라간다. 이 때 우리는 그분이 견뎌내신 것들을 자세히 보게 되고 그분이 치루신데 대한 우리의 평가가 얼마나 졸렬했었던지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오로지 불완전한 우리로서는 그분께 존귀와 영광만을 드릴 수밖에 없으리라. 우리가 말씀으로 초대되어 들여다 보면 주님께 우리를 위해 종속되게 해주신 창피한 우리 상태가 말씀안에 묘사된 것을 보게 되면서 동시에 가르쳐지는 바, 그분이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분께서는 모든 허약함, 모든 유한함을 벗어 버리시어 완전하게 영화된 인성으로 일어나셨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7. 그런 다음 천사가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했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리라.” 여 제자란 의지 측면의 애정을 표현하는데 이 애정을 통해 주님의 사랑은 맨처음 흐른다. 남 제자란 이해성 측면의 생각을 표현한다. 이로부터 진리를 감지한다. 이렇게 남녀라는 성별 속에도 섭리의 배열이 있다. 애정들은 시련의 상태에서 주님의 사랑의 영향아래 잡혀있다. 그래서 이해성이 설사 의심의 구름에 덮여있어 그 의혹에 거의 압도된 상태라해도 내적 경로를 수단으로 그 이해성에 빛을 운반해주어 믿음과 확신이 회복되게 한다. 천사는 그녀들에게 말을 더 잇고 있다.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래야로 가실터이니 거기에서 그분을 뵈게 될 것이요 하고 알리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갈릴래야란 이방인에게 있는 교회를 표현한다. 주님께서 부활 후 거기에 가셨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그분이 받아들여져 인정될 것임을 표현하는 말이다. 또한 갈릴래이는 이방인의 마음과 비슷한 것, 자연적 마음을 표현한다. 그 이유가 이방인의 세계는 집합적으로 있는 인간의 자연적 마음을 형성하고 영적 마음의 외형을 이루는 교회를 말한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옷입으신 후 영화되게 하신 마음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죽으셨다 살아나신 후 그분은 갈릴래야로 가셨던 것이다. 거기에 제자들도 가기를 그분은 바래신다. 그 이유는 인간 거듭남은 주님께서 영화하심의 형상과 결과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곳, 거기에 주님의 제자도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들보다 먼저 가신다. 그분은 주님쪽으로 향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신다. 부활하신 이후까지에서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래야로 가시고 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일어나신 것을 의미한다. 이 일어남은 거듭나신 심정 속에서 매 순간마다 존재한다. 이렇게 일어나시는 심정을 지니는 사람들을 생활의 선 쪽으로 인도해가신다. 거기 생활의 선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그분을 뵈게 된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만이 그분의 진리가 진리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8. “여자들은 무서우면서도 기쁨에 넘쳐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무덤을 떠나 급히 달려갔다.” 떠난다 또는 간다는 말은 어떤 의도나 지침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 빨리 행한다는 것은 충만되게, 확실하게 행한다는 말이다. 그 이유가 시간은 상태를 의미하는 바, 이로부터 빨리, 급하게 등등은 애정과 생각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확실하고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기 위해 달려감이란 알게 하려는 애정을 의미한다.

9.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향하여 걸어 오셔서 ‘평안하냐?’하고 말씀하셨다.” 기쁨이 넘쳐 달려가는 여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있는 신성한 목적은 그분이 정말 다시 살아계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보게 해서 더 보증시켜주시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형제들에게 알려주되 자신들의 체험으로 입증된 사실로서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예수 자신께서 일러 준 말 그대로를 전하도록 배려하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다. 너무나 급작스런 상황변화로 뛰는 가슴을 안고 있는 이 여인들이 가진 사실, 즉 사랑하는 주님, 나의 구세주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확실히 붙잡았는지 가히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들의 귀로 생생하게 들었으니 그들의 감정에 어떤 변화가 산출되었을까? 영적 측면의 건강, 구원하는 건강, 이는 병걸려 고통하는 인간 존재가 있는 곳 어디서든 그분의 거룩한 입술로부터 흘러나오는 첫 인사는 “평안하뇨?” 이다. 이 사랑많은 제자, 기쁨이 넘치고 있는 제자가 “그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하였다”는 것은 과히 이상한 일일 수 없으리라. 혹자는 이 구절을 놓고 생각하기를, 그녀들은 그분 앞에 엎드렸을 뿐이지 그분의 몸에 기댄 것은 아닐거라고 말한다. 이 대목과

요한복음에서 “나를 붙잡지 말아라”고 마리아에게 이르신 말씀과 일관된 관계를 갖도록 이해할 필요는 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성경의 글자 의미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타당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글자라는 것은 영(내용)을 운반해 주는 도구로서 고안되어 있는 것임을 확실히 한다면, 글자 상의 완전한 일치만이 말씀에서 영감을 얻는데 절대적 증거로서 간주하지 않게 되고, 더불어 글자 자체의 힘은 정의로운 가르침을 꼭 수반하는게 아님도 이해하게 된다. 글자들이 가져다 주는 것 중 확실한 것은, 말들은 그 말로부터 감명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감명은 사실에 대한 절대적 본성이랄 수는 없고 관계적인 의미수준으로서 영적 의미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런 생각에서 예수의 발을 붙든 모습은 이제 영화하신 그분의 인성에 있는 신성한 자연적 수준의 원리를 수단으로 그분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분께 엎드림(경배함)은 자기들의 가장 순수한 애정의 근본을 그분께 돌리는 상태를 뜻한다.

10. 이제 그녀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천사가 일러준 말과 거의 비슷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야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반복되는 말씀의 많은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구절은 더 높거나 더 다른 품성에 대한 것, 더 높은 원리로부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천사의 말과 주님의 말은 서로 다른바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제자를 그분의 형제라고 부르시고 있다. 이 말은 매우 심오한 진리, 용기를 주는 진리, 위로하는 진리를 표현해 주고 있다. 그분께서는 인성을 입으시고 영화시킴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 우리 뼈중의 뼈, 우리 살 중의 살이 되셨다는 것까지 표현하고 있다. 창조자 스스로 창조물의 형태를 입으셨다. 그래서 비록 그분이 모든 불완전함, 유한한 것을 벗으셨다해도 그분은 인간된 모든 것을 보유하셨다. 따라서 하느님이실 뿐 아니라 최고의 사람이시다. 다시 말해 그분은 인간성을 신성으로 만드신 신성한 인간이시므로 주님은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하느님-인간이신 것이다. 이로부터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어서 그분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신 것이다. 영적 의미에서 제자는 믿음, 형제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추상적 의미에서 형제는 사랑의 원리를, 제자는 믿음의 원리를 말한다. 본문의 경우 한 사람이 제자이자 형제로 동시에 불리고 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갈릴래야에서 그분을 뵈옵되 형제로서 초청되어 그분과 더 가까운 연결로 밀접한 관계를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핀 제자와 형제 관계와 유사한 대목은

종과 친구의 관계에 관한 언급이다. “좋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 주었다” (요한 15:15).

11-15. “여자들이 떠나간 뒤에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안으로 들어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대 사제들에게 낱낱이 보고하였다.” 원로들이 모였지만 부활이 거행되었다는 경비병의 말을 뒤집을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경비병에게 돈을 주어 매수해서 자기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트리게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 이야기들이 퍼져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한 논리적 반박은 아무 필요없다. 이것들은 글자적 주석들에서 발견해 볼 수는 있다. 이런 사실은 불신앙의 힘이라는 우울한 실예를 표현하고 있다. 불신앙자는 증거부족을 변론으로 때워보려 한다. 인정되어 있는 증거에 반대하는 불신앙의 결정적 예들이 있다. 믿느냐 또는 믿지 않느냐하는 것, 신앙과 불신앙은 목적에 대한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우리 눈에 보이는 목적, 즉 그를 작동하게 하는 통치하는 사랑에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교회의 큰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믿음은 이타애밖에 바탕이 되는게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이타애 또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항의 본보기가 유대 지도자와 예수와의 관계에서 기이하게, 마음 아프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이 실어다 주는 교훈은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겨주는지 모른다. 이런 사항들이 말해주는 바, 불신앙의 바탕은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 이해성밖에 더는 깊이 들어가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제 아무리 명백한 증거라 해도 심정속의 악을 치워내는데는 무력하다는 것 등등이다. 이런 슬픈 관계가 심정에 창피함을 어떻게 생산할 수 있을까? 본문에 등장하는 악의에 찬 유대 통치자들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상속받아 있는 악과 거짓들에 대한 모형된다는 것, 우리 속 이것들은 신성한 자비를 통해 받게되는 선과 진리를 배척하려고 한다는 것을 절실히 실감해야 한다. 자기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것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위대한 진리를 실험적으로 조금이나마 확신되어가는데 있어서 신실한 자들은 자기 내부로부터 봉기하는 반대에 꾸준히 마주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 심정 자체에서 그분이 일어나시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이다. 이 본문 주위의 역사적 부분의 세세한 고찰은 생략하기로 한다. 사실 스웨덴봄의 저술의 경우도 모독의 죄에 관련된 어떤 문단의 경우 세세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천사들은 그런 범죄에 관한 말 자체도 떨려서 생각조차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16.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대목에 있는 유용한 내용들을 살피기로 하자.

“열 한 제자는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갈릴래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 이 만남을 역사적으로 순서를 가려 본다면 이 만남은 부활 후 첫 만남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마태는 오직 한 가지 만남만을 기록하고 부활 후 가장 많은 제자가 모였던 때인 승천에 관련된 만남 등등을 다 기록하지 않고 복음서를 마감하고 있다. 따라서 마태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이 보여준 것 같이 몇가지 사건들에 속하는 주변 여건을 한 가지 만남의 사건 안에 모두 가져다 놓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글자 주의자들이 대단한 관심을 두고 있는 역사적 정밀함을 건너뛴 것으로 사료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래아에 있는 산에서 만나셨다. 갈릴래아, 여러번 살핀바와 같이 주님 안에 있는 영화된 자연적 수준의 원리를 표현한다. 따라서 인간 측면일 경우 거듭난 자연적 원리를 말한다. 이 바탕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은 만난다. 이 만남은 예수께서 이미 언급해 두셨던 유일한 만남이다. “나는 다시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 (마태 26:32). 그리고 이 만남은 산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사랑이 주님과 인간이 결합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 사랑은 주님과 인간이 하나되는 원리라는 것을 표현한다. 하나를 이루게 하는 사랑에 관한 자연적 원리란 무엇일까? 주님 스스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해놓으셨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리라” (15:10). 자연적 수준의 원리, 비록 순서로 보면 꼴찌에 해당되지만 그렇다고 중요도에 있어서 꼴찌라는 말은 아니다. 연속되는 순서에는 두 가지 사항이 있다.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위대한 것인데 그것은 모두 첫째와 마지막째에 해당되는 것에 있다. 선한 모든 것이 목적이 되어 시작할 때 첫째가 되고, 그 시작이 선행으로 종결될 때 마지막째에 해당된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래아에 있는 산에서 만나셨을 때 이 만나는 장소를 통해 이런 표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모든 종교는 삶과 관계가 있고, 종교의 삶(생명)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17. 주님과 제자가 갈릴래아 산에서 만난 것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으리라. 아마 그들이 지닌 한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그들에 내려놓고 더 높은 견해, 더 높은 동기가 새벽같이 그들 심정과 지성에 당도했으리라 본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뵈고 절하였다.” 이 경배도 타 복음서와의 기록과 차이점이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한 바 있어 재차 여기서 확대해 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주님의 신성은 완벽하게 증거할 수 있다.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이 구절을 떠받치기 위해 들이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다. 이 구절에 고용된 단어들은 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와 같은 예배, 인간이 갚아야 할 예배 종류를 표현한다는 것,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와 같은 예배, 고르넬리오가 절하자 베드로가 반색하여 사양한 예배 종류를 표현한다는 것, 요한이 경배를 천사에게 하려할 때 그가 거절하면서 예배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고 말했을 때 표현된 경배(계시록19:10)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천군 천사를 포함 누구의 예배도 결코 거절않으셨다 (계시록 5, 6장 참조). 이 구절에서나 다른 구절에서나 경배를 받는 점에서 인간과 천사가 거절한 그 존경은 인간 예배의 최고 대상이 하나님뿐이심을 실제 인정하는 대목들이다. 참 기독교회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일치하는 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오로지 예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되심을 알고 있다면 예배의 최고되신 분이 그분이심을 당연한 귀결이라 본다. 모든 이 각자는 자기 상태에 따라 주님을 예배한다. 본문의 제자들이 드린 경배의 품성이 어떠했는지 간에 기독교 제자들에 의한 예배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이다. 이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시해야 할 사항은 제자들이 예수께 드린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이시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게 되는 예배의 품질일 것이다.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애정의 참 근본되시는 분에 실지로 존경을 보내는 것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예배드린다는 섭긴다이다. 예배를 받는 분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다시 말해서 선에 관한 모든 애정과 감지한 진리를 말과 행동에서 사용할 때만이 진실로 예배드린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경배드릴 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에게 열른 추정되는 것은 그 때에 열 한명의 제자만 있었던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열한 제자중 토마 외에는 믿기를 보류한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이 의심자는 우리가 신실하게 예배드릴 때 조차에서도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어떤 의심들을 표현한다. 이 의심이란 진리와 하나되어 조화를 이루려는 것에 모순되는 우리 속에 든 것들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지적 측면만이 아니라 애정 측면 역시 포함하여 이르는 말이다.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따라 붙어 다니는 의심들, 이것은 우리의 심정과 삶에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 영혼과 몸에서 영화되실 때만이 떨쳐질 수 있다.

18.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경배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로부터 조금 떨어져 계실 때 엎드려 경배하는 동안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고 쌍방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매우 교훈적이다. 이 광경은 이런 구절을 상기시켜준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야고보 4:8). 가까움(nearness)이란 상태의 근접(proximity)이다. 진정한 예배란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신을 더 가까이 당기는 것인데 이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더욱 근접된다. 이렇게 근접된 제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이 구절은 참으로 가장 높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장 높지 않았다면 인간의 구원도 없었을는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고 유일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라는 진리를 이 구절은 가르쳐주고 있다. 다시 말해 영적 우주, 물질적 우주, 모두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이다. 사실 이 진리가 귀중한 이유는 이 구절에 포함된 내용 때문이다. 이는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시라는 사실 만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다는 것, 더 설명하면 영원하신 신성은 신성한 인성을 수단으로, 신성한 인성 안에서 모든 권능을 발휘하신다는 말이다. 예수의 입술로 선포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감명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따랐고, 그분이 시험당하시는 동안에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형제라 부르셨다. 이제 그분과 더 가까워지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진다는 것도 말하시고 있다. 우리의 모든 상태, 그분께 공감하는 우리의 상태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께서는 우리가 사는 두 세계, 여기서의 세계, 차후 저 세계 모두에서 통치자가 되신다는 데서 이 구절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의 가치가 있는가를 알게 해준다. 이 구절은 얼른 보면 불일치 한 것이 있는듯 여겨지지만 이에 대해 더 해야 할 말이 필요할까? 예수만이 모든 권한을 소유하셨다면 어떻게 그분은 독립된 신성한 권능을 소유하신다는 말일까? 라고 의문을 던질는지 모른다.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당사자의 생각 바탕에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신성한 두 번째 인물(person)이든가 단지 인간이라는 둘 중 어느쪽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신성한 인물도 이런 권능을 받을 수 없다. 인간일 경우 더욱이 이런 권능을 지닐 수 없다. 따라서 주님의 신성 측면의 권능이 그분의 인성 측면에 주어졌다는 원리에서 이해한다면 위 주님의 선포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 인간성은 어느 인간의 것과 동일하지는 않다. “몸은 나를 위해 준비된 것,” 이는 육을 입으실 때 하늘로부터 발표되었다. 신성의 성전이 된 몸은 지극히 높은 이의 권능으로 잉태됨으로 동정녀의 태내에서 준비되고, 같은 권능으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이 인성은 신성 자체가 거하는 장소가 되도록 신성에 의해 건설된 성전이였다. 그런고로 이제 신성의

권능은 인간 안에 계신다. 마치 우리 영혼의 힘이 몸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은 현존하실 때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있는 바, 이 힘이 우리와 친척 관계를 지니게 된다. 이 외에도 이 대목에는 또 다른 일반적 진리가 들어 있다. 하늘과 땅은 천국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영적으로 의미한다. 또한 교회 안에서 두 개의 원리와 두 개의 상응하는 부분 즉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늘인 내적 인간, 그 사람 안에 있는 땅인 외적 인간을 뜻한다. 예수께서는 이 두 부분 모두에서 권능을 가지시고 있다. 이 안에서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권능은 육을 입으시기전 그 두 부분의 주체되었던 권능과 대비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육을 입으시기전 인간 안에서의 신성한 권능은 하늘을 통해 간접적으로 역사되었고, 인간은 천사를 통해 조절되었다. 그 이유는 천사가 인간과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이 영화하신 이후 신성한 권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인간성을 통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바, 그분은 인간과 더 직접적으로, 더 친밀하게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은 주님 자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주님은 인간으로서의 천사보다 더 가까우게 계신다. 이 가까우다는 말은 공간 차원에서의 가까움을 뜻하는게 아니라 본성 차원에서의 가까움이다. 그 이유가 주님은 천사들 같은 수준 즉 영적 수준에서 인성을 가지고 있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들과 같은 수준 즉 자연적 수준에서의 인성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자연적 수준의 인간성을 말할 경우 이는 신성-자연성, 우리의 것과 흡사한 인성, 그러나 창조물과 달리 완전한 창조자의 인성을 뜻한다고 언제나 이해해야 하리라.

19. 그분이 영화하심으로 획득하신 권능에 관해 가르치시고 이제 그들의 행동 속에 있게 될 것들에 관한 권한 위임을 전달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고...” 이 제자들이 처음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파견될 때, 이들에게 요구된 것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중의 길 잃은 양들에게만 가라는 것이었다 (마태 10:6).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온 세상에 가라고 명령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위촉된 사항은 그들이 서 있는 두 가지 다른 조건과 일치하고 있다. 그들이 쏘아야 할 첫 번째 노력은 내적 측면에 부여되는 것이고, 이제 부여된 내적 측면이 외적 측면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그들이 위임받은 임무는 온 나라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나라(nations)란 자연적 측면에서는 이교도들을 뜻하나 영적 측면에서는 선한 상태에 있는 이들, 특히 단순한 선을 지닌 이들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들만이 진리를 바래는 마음,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빈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 의미에서 나라란 선을 원리로 하는 내적 외적 또는 자연적 수준의 지성을 의미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중의 길 잃은 양이 선을 원리로하는 또는 영적 수준의 지성을 의미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우리 자신 안에 진리를 받아야 하는 선이 있다는 것, 이 선에 진리가 공급되어야 그 선에 불이 밝혀져 계발되고 올바르게 인도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구원된다는 것 까지 이 구절에서 알수 있게 된다. 그 이유가 자연적 수준의 선은 진리를 수단으로 해야만 영적 선으로 만들어져 구원해 주는 선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되고 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온 백성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 구절이 기독교인의 신앙을 받는 모든 이, 또는 기독 교회로 입장한 모든 이에게 있게되는 전형적인 세례식과 관계가 깊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말이다. 우리가 기독교의 성례식으로서의 세례, 기독 교회가 집행하는 세례는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으리라고 본다. 교회의 교리뿐만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도 선포하는 바, 세례는 영원한 의무라는 것, 기독교회에 소개되는 표시로서, 동시에 천국에 있는 교회와 연결을 맺는 표시로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더불어 물로 세례를 받는다란 진리를 수단으로,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아가겠다는 결심에 대한 기념의 표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례는 물세례의 대칭형(antitype)이요 목적에 해당되는데 거듭남 속에서 씻어내는 것이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져 왔다. 위 세가지는 한 분 신성한 존재에 관한 세 가지 이름들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본성에 있는 세가지 구분되는 원리 또는 본질되는 요소를 말한다. 아버지란 본질되는 신성(Essential Divinity), 아들은 신성한 인성(Divine Humanity),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신성한 실행(Divine Operation)이다. 조화를 이루는 느낌을 주는 용어로 말하면, 아버지는 신성한 사랑, 아들은 신성한 지혜, 성령은 신성한 권능이다. 훈육되는 이들은 세 이름으로 세례받게 되어있다. 말씀 속에서 어떤 인물이나 사물의 이름은 그 인물이나 사물의 품질을 뜻한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위 명령에 있는 교훈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한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의 사랑, 하느님으로부터의 지혜, 하느님으로부터의 힘을 받아 거듭난다는 말이다. 이런 공식에 있는 의미를 더 자세히 알려면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인간은 유한한 인간의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인간은 유한한 본성 또는 자질을 하느님의 완전한 본성으로 채우거나 대체해서 신성한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분의 모양(likeness)대로 창조된 바,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이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형상(image)대로 창조된 바, 하느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인간은 행동하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의지에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성에 지혜를, 그의 말과 행동에 하느님의 일을 담아야 거듭나진다. 사랑외에 어떤 것도 심정이 세례받게 할 수 없고, 지혜 외에 어떤 것도 이해성이 세례받게 할 수 없고, 진정 거룩한 삶(길)외에 어떤 것도 사랑과 지혜의 원리를 명백하게 할게 하나도 없다. 이것 만이 영혼의 세례요 우리로하여금 주님의 몸의 어느 부분이 되게 하리라.

20. 이렇게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준수해야” 한다. 그분이 저자되신 모든 것, 그분의 모든 말씀, 그분의 가르침에서 명령된 모든 것을 행할 때만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진다. 주님이 위촉한 이 임무의 집행은 세례와 가르침에 뒤이어 있게 되는 여건여하에 의존된다. 가르치는 것은 세례에 선행되는 것, 세례는 가르침을 계승하는 것이다. 먼저 원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두 번째가 그 가르침에 대한 의무이다. 다시 말해 먼저 내적 측면의 가르침이 있고, 뒤를 이어 외적 측면의 가르침이 있다. 더욱이 세례를 유발시킨 가르침은 그 원리로 세례가 있게 한 의무의 가르침인데, 거듭나는 삶이라 해도 마지막까지 그 삶에 거룩함을 존속시키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다.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 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누가 9:62). 마지막 약속은 신실한 자들에게 얼마나 격려를 주는지!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막 떠나시는 찰나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여기서도 우리는 실상과 가상(real and apparent), 영적인 것과 육체적 현존 사이의 차이점을 보게 된다. 이런 사항은 그분의 공생애 기간 동안의 가르침들 속에서 주님 자신에 의해 그 차이를 적나라하게 서술해 놓으셨기도 하다. 그분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떠나시되 그들에게 또 다른 위로자,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심과 동시에 그들이 쓸쓸해 있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너희에게 온다고, 영에 관해 이렇게 말하신다. “그분(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시며 너희 안에 계신다” (요한 14:17). 제자들이 받는 힘의 진짜 근원은 자기들 안에 계신 주님의 현존이다. 이 현존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교회의 끝날까지 그분의 백성과 더불어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구원하시는 현존이 약속되어 있다. 이 구절에서의 세상(the world)은 글자 자체로만 보아도

인간 행동의 무대, 인간의 거주지로서의 세상을 뜻하는게 아니다. 이는 시대(the age), 종교적인 처방(religious dispensation), 마지막이 의미하는 완료(consummation)를 뜻한다. 개인적 측면인 각 교인에 관련시켜 말한다면, 자기 시대의 끝이란 종말에 보존되는 이들과 더불어 삶의 마지막이다. 그 이유가 신실한 사람이 죽게 될 경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기 때문이다. 사실 주님은 모든 이의 마지막에서도 함께 현존하신다. 그분은 어떤 이로부터도 그분의 현존을 결코 철회 않으신다. 이 마지막 절을 원어의 글자대로 직역하면 더 인상적이고 더 위로받게 된다. “나는 시대가 완료될 때까지 너희와 더불어 언제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l the days, even unto the consummation.” 그분은 그분의 교회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진리로 계발시켜 주시기 위해, 그분의 사랑으로 감화되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받쳐주시기 위해 함께하신다는 뜻이다. 교회가 하강국면에 들어서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같이 하시되 그 교회가 그분을 거절하여 끝을 맺을 때까지이다. 그래서 그 교회 스스로 자기들에게 끝을 내리게 된다. 교인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가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었다 해도 그가 타락쪽으로 기울고 세상의 비천한 요소쪽을 선택해도 주님은 그의 상태가 스스로 끝을 맞이할 때까지 언제나 그와 함께 해주신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삶이 그분의 영의 영향을 받고, 말씀 속의 가르침을 수단으로 성별되도록 노력해야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바 여기서의 우리 여정이 완료된다해도 흔히 말하는 파멸의 끝장을 보는게 아니라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그분의 집이 우리의 집이 되리라.

아멘. 이 단어는 비록 원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교회의 응답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본다. 그래서 첨가되는 경우가 많다. 예수가 시간 안에서, 영원 안에서 우리의 몫이 될 것이라는 이 신성한 약속의 성취를 확고히 하기 위해 바래고 기도하고 노력을 경주하자.

